

평택시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회화리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평택시

평택마을기록사업 ⑩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회화리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제 출 문

평택시장 귀하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평택문화원 원장 **이 보 선**

목 차

Ⅰ. 사업개요 7

1. 개요 9
2. 사업대상지역 9
3. 조사지역 10
4. 화보 12

Ⅱ. 서탄면 금암리 마을조사(장연환) 35

1. 지리적 환경 37
2. 역사적 환경 55
3. 경제생활 72
4. 사회생활 105
5. 문화생활 130
6. 금암리 구술조사 149
   · 조덕상(남, 1967년생, 금암1리) 149
   · 조희상(남, 1960년생, 금암1리) 196
   · 한방자(여, 1941년생, 금암1리) 231
   · 황세연(남, 1934년생, 금암1리) 254
   · 송준섭(남, 1951년생, 금암2리) 286
   · 임광래(남, 1938년생, 금암2리) 315
   · 장태용(남, 1951년생, 금암2리) 381
   · 조재관(남, 1933년생, 금암2리) 409
   · 차상석(남, 1957년생, 금암2리) 441
   · 차종화(남, 1937년생, 금암2리) 501
   · 한도희(남, 1938년생, 금암3리), 문운경(남, 1944년생, 금암3리) 550

Ⅲ. 서탄면 사리 마을조사(김해규) 591

1. 지리적 환경과 지명 593
2. 역사적 환경과 마을 605
3. 경제생활 617
4. 사회생활 644
5. 문화생활 655
6. 사리 구술조사 663
   · 김용순(여, 1935년생, 사리) 663
   · 윤병무(남, 1938년생, 사리) 687

목 차

· 윤학수(남, 1941년생, 사리) 712

Ⅳ. 서탄면 수월암리 마을조사(김해규) 735

1. 지리적 환경과 지명 737
2. 역사적 환경과 마을 752
3. 경제생활 762
4. 사회생활 790
5. 문화생활 796
6. 수월암리 구술조사 807
   · 강영배(남, 1949년생, 수월암2리), 이복년(여, 1951년생, 수월암2리) 807
   · 강희분(여, 1925년생, 수월암2리) 838
   · 이송자(여, 1940년생, 수월암1리) 850

Ⅴ. 서탄면 회화리 마을조사(장연환) 873

1. 지리적 환경 875
2. 역사적 환경 888
3. 경제생활 896
4. 사회생활 913
5. 문화생활 923
6. 회화리 구술조사 935
   · 박홍덕(남, 1935년생, 회화리) 935
   · 이보철(남, 1947년생, 회화리), 차수영(여, 1946년생, 회화리) 976
   · 진병호(남, 1944년생, 회화리), 우완숙(여, 1945년생, 회화리) 1008
   · 차경환(남, 1941년생, 회화리) 1049

Ⅵ. 현덕면 구술로 본 평택 여성의 삶(양선아) 1149

1. 현덕면 8인의 여성의 구술사 1151
   · 한순길(1927년생) 1154
   · 이진수(1929년생) 1158
   · 정인숙(1933년생) 1165
   · 이옥희(1931년생) 1174
   · 정순택(1936년생) 1180
   · 윤봉열(1937년생) 1185
   · 홍정화(1936년생) 1190
   · 박순희(1932년생) 1195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

사업개요

– 화보



여 백

Ⅰ. 사업개요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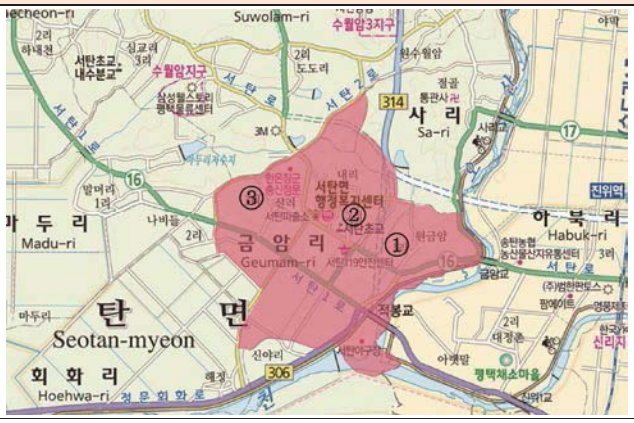
- 사 업 명 :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주　　최 : 평택시
- 주　　관 : 평택문화원
- 대상지역 : 서탄면(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회화리)

- 내　　용
  - 인문지리, 구술조사, 사진자료 확보 등 마을조사 진행
  - 역사적 사건 및 일상생활의 기억과 증언을 녹취 및 촬영
  - 조사 지역 사진 및 영상 아카이브
  - 자료 분류 및 업로드를 통한 기초 아카이브 구축

2. 사업대상지역



3. 조사지역

조사지역
금암리(조사자 장연환)

① 1리 골안말 ② 2리 안말 ③ 3리 새말
사리(조사자 김해규)

수월암리(조사자 김해규)

① 1리 뒷거리미 ② 2리 도도리 ③ 3리 심교(깊은다리)

조사지역
회화리(조사자 장연환)


– 현덕면 여성구술 정리(조사자 양선아)

사라지기전 그리움을 남기다



하북리 쪽에서 본 서탄면 전경

금암리



금암교 상공에서 본 금암리 전경



금암체육공원 상공에서 본 금암리 일대



금암1리 마을표지석



금암1리 진입로에 그려진 서탄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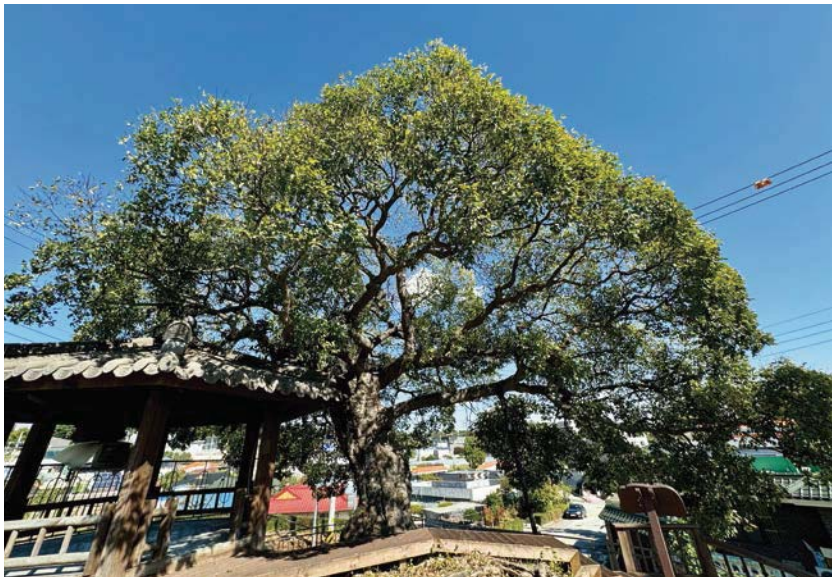

금암1리



금암2리



한온장군 충신정문



금암리 보호수 팽나무



보호수 팻말



금암2리 회나무



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서탄초등학교



1930년 3월 서탄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



금암3리 마을회관 건립 표지판



금암3리 마을회관



금암3리

사리



사리 전경



사리마을 앞을 흐르는 오산천의 가을



사리 ~ 수월암리 문화재 발굴조사



안동김씨 군사공파 사리유택지 표지석



안말저수지



안말저수지



사리 절골의 봄



오산천 남쪽 금암리 방향



오산천과 사리교



사리 경로당 풍경



사리 윤주신 댁

수월암리



금암리에서 본 수월암리 전경



수월암3리서 본 서탄면 전경



수월암리



수월암리 마을회관



수월암리 가을채소 수확



수월암리 교하노씨 낙원부원군 노관의 묘



도도리저수지



새말저수지



수월암2리



구절초 꽃차를 만드는 수월암2리 이복년



수월암3리와 내수분교



수월암3리



수월암4리



수월암4리 풍경



경동나비엔 전경



경동나비엔에 있는 고인돌



경동나비엔에 있는 고인돌



조성중인 서탄산업단지

회화리



회화리 전경



회화리와 해정들 전경



마을입구 표지석



마을회관



차상운 지사 공적비



회화리 버스정류소



회화리교회 구교회당



회화교회



천주교 송탄성당 회화리 공소



천주교 송탄성당 회화리 공소 입구



천주교 송탄성당 회화리 공소 내부



자전거로 일보러다니는 우완숙



마을풍경



마늘 심기



트랙터, 노을

연구조사 활동







서탄면 이장협의회에서 마을조사 관련 설명을 하다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I.

서탄면 금암리 마을조사



장연환

여 백

Ⅱ. 서탄면 금암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

1) 자연환경



서탄면 금암리의 위치

금암리가 속한 서탄면은 진위면과 더불어 평택시의 가장 북쪽에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K-55 미공군기지(이하 미군기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진위천 남쪽 대부분은 미군기지에 포함되고 장등리와 금각리 등 일부 마을이 있는데, 이를 제외한 서탄면의 대부분은 현재 동쪽 오산천과 남쪽 진위천, 서쪽 황구지천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금암리의 자연 마을은 북쪽에서 수원과 오산을 거쳐 뻗어 내린 낮은 산줄기의 남동쪽 끝에 자리한다. 동쪽으로는 오산천의 하류를 접하고 서쪽으로는 마두리와 내천리, 북서쪽으로 수월암리, 북동쪽으로 사리와 맞닿았고, 남서쪽으로는 들판을 사이에 두고 회화리, 적봉리와 마주한다. 금암리는 서탄면의 중심이며 면소재지 마을이다. 서탄면사무소와 파출소, 소방서 등 서탄면 대부분 관공서가 금암2리 안말에 있다.

마을은 모두 산과 들판이 만나는 골짜기 안쪽에 있다. 수원과 오산을 거쳐 남쪽으로 흐르다 여러 갈래로 나뉘며 끝나는 산줄기가 서쪽 내천리와 마두리부터 동쪽 금암1리 골안말 북바위까지 길게 이어진다. 자연마을은 해발 고도 20~40m 정도 산줄기를 북쪽에 두고 금암1리 골안말, 금암2리 안말, 금암3리 새말이 각각 차례지어 있다. 마을 사람 사이에서는 금암리와 마두리 뒤쪽 산이 전체적으로 말[馬]의 형상인데, 마두리가 말 머리이고 북바위 쪽이 꼬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실제로 마두리가 말머리이니 이러한 형국론이 풍수리지적 근거를 갖고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야기로 생각된다.



안말 뒤편에서 바라본 금암리 마을과 들판 모습

세 마을 모두 남향이며 남쪽으로 넓은 들판과 진위천을 마주해서 시원한 경관을 갖고 있다. 마을 주변의 낮은 구릉성 산지는 대체로 비산비야(非山非野)에 가깝다. 산이 높지 않아 새말 서쪽의 39m 높이의 기물산이 금암리에서 유일한 산 이름이다. 서탄금암체육공원 동북쪽 정상이 기물산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 산에는 서낭당 고개만 있을 뿐 산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다. 안말과 새말 사람들이 오산장을 오가는 완만한 고개였기 때문에 산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골짜기로는 안말 저수지가 있는 창덕골이 가장 길며 나머지는 눈에 띄게 골짜기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 다만 새말에 갓골, 뒷갓골, 뒷굴, 우묵골 등이 있지만, 언뜻 골짜기로 보기 어려운 곳이다. 금암리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언덕 형태의 지형인 만큼 골짜기가 발달하지 못했다. 크고 깊은 산이 없었기 때문에 땔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 없었다. 생활에 필요한 연료는 볏짚이나 수숫대, 콩대 같이 추수 후에 나오는 곡식의 줄기가 주를 이루었다. 나무가 필요하면 멀리 가곡리나 하북리, 동천리의 산으로 가서 구해오는 일이 많았다. 마을에서는 이를 먼산나무라고 불렀다.



금암 3리 새말 앞 들판과 기물산

크고 깊은 산이 없다는 지리적 여건은 땔감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확보도 어렵게 했다. 안말과 골안말 사이의 골짜기를 막아 안말저수지를 조성했는데 이것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탄면 사리에 속한다. 금암3리 뒷산 너머에도 새말 저수지가 있지만 이것 또한 행정구역상 수월암리에 포함된다. 그나마 이 저수지들도 규모가 매우 작아 저수지 아래 경작지에 관개했을 뿐이다. 마을 남쪽 넓은 들판의 벼농사에 필요한 물은 동쪽 금암리와 하북리의 경계를 이루는 오산천에서 확보했다. 오산천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발원하여 오산시를 통과하여 금암리 남쪽에서 진위천에 합류한다. 오산천에 안보, 새보(마두리보), 회화리보 등 세 개의 보를 막아 농사에 필요한 물을 들판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보를 쌓고 봇도랑을 치는 일은 봄마다 마을의 중요한 공동 노동이자 성대한 행사였다.



진위천과 합류되는 오산천 하류

동쪽 오산천과 남쪽 진위천은 금암리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되었다. 지금의 금암교 자리에는 섶다리가 있었지만 큰 비가 내릴 때면 다리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하북2리 대청촌 서쪽 하천변에서 농사짓는 골안말 사람들은 짐을 지게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맨몸으로 하천의 낮은 곳으로 건너다녔다. 이렇듯 대정촌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1930년 서탄초등학교 개교 전 진위초등학교로 취학한 아이들이 아니면 하천을 건너야 할 일이 많지는 않았다. 진위천 북쪽 마을 가운데 회화리를 제외한 다른 마을처럼 금암리도 주로 오산장을 이용했고, 중고등학교도 주로 오산 쪽으로 다녔기 때문이다. 1920년 전후 개설된 국도 1호선 신작로가 개설되고 1960년대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지금의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무로 된 일명 꺼먹다리를 놓게 되었고 후에 시멘트 다리로 대체되었다. 금암교 아래는 마을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노는 장소이기도 했다. 오산천 양 옆 하천 부지에는 경작지도 많았다. 골안말의 한방자(여, 1940년생)는 오산천을 건너 대정촌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었다. 지금 참나무숲으로 조성된 곳도 원래는 논밭이었다. 오산천변 밭에는 참외 농사를 많이 했다. 조희상(남, 1960년생)은 오산천에서 수영을 하다가 모래가 많았던 이곳 참외밭에서 서리를 했던 추억을 갖고 있다. 하천부지는 제방이 쌓이면서 1975~6년 무렵 수용되었다.

장마 때면 오산천이 넘었다. 조희상은 지금까지 폭우로 오산천 물이 불어서 현재 참나무 숲이 있는 곳까지 물이 차올랐던 경우를 10번 쯤 경험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진위천 제방이 터져서 회화

리와 벌터 사람들이 서탄초등학교로 물피난 온 적도 있었다. 1982~3년 쯤 대정촌에 사는 여자 한 사람이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원두막에 있다가 원두막채 떠내려 가는 일도 벌어졌다. 조희상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오산천 제방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지금처럼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기억했다. 참나무 숲은 1990년대 후반에 조성되었다. 지금의 참나무 숲 서쪽 하천변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어서 골안말 아이들의 좋은 놀이 장소가 되었다. 골안말 이장인 조덕상(남, 1967년생)은 모래사장 공터에서 공도차고, 야구도 하면서 놀았다. 현재 서탄 야구장이 있는 곳도 하천 부지로 농사를 많이 짓던 곳이다. 이곳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었고, 모래 땅이라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다.



1967년 금암교 주변 오산천변 모래사장

넓은 모래 사장이 있었던 오산천은 아이들의 좋은 물놀이 장소이기도 했다. 물도 맑아서 고기를 잡았던 것은 물론 물놀이를 하다가 하천 물을 먹어도 배탈 나는 일이 없었다. 오산시 쪽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하천물이 오염되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물이 맑고 경관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놀러 온 미군들도 많았다. 골안말 조희상(남, 1960년생)은 오산천이 흐르는 금암리쪽으로 놀러오는 미군들을 많이 봤다. 당시에는 구장터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신장동 정문에서 구장터를 거치고 대정촌 남쪽 진위천에 놓인 나무 다리를 건너 금암리까지 와서 놀았다. 조희상은 초등학교 3~4학년 때쯤 친구들과 미군들이 모래사장에 묻어놓은 맥주를 몰래 캐서 도망가서 맥주 맛을 봤더니 오줌 같은 느낌이어서 내던져 버린 적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1974년 아산만에 방조제가 조성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북바위까지 들어왔다고 말한다. 조희상은 어린 시절 금암교 부근 모래사장에서 놀면서 모래와 섞인 조개껍데기를 많이 봤다. 조개껍데기는 북바위 있는 데서부터 진위천과 합류하는 곳까지 널려 있었다. 그는 조개껍데기가 있다는 것은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증거라고 했다. 그중 큰 것은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것도 있었고, 10원짜리 동전만 한 것도 있었다. 어른들로부터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천 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1983년 전후해서 모래 채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오산천변의 모래사장은 사라져버렸다.

금암리 남쪽으로 넓은 들판이 있다. 금암리와 회화리 사이의 해정들이다. 이 들판은 조선 후기 용주사나 궁방에서 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진출하여 칠성고분자 회사가 있는 자리는 일본인 농업 회사인 진위흥농이 들어섰다. 골안말 이장을 지냈던 황세연(남, 1934년생)은 금암리 앞 들판이 거의 묵정밭이었으나 일본인이 들어와서 간척을 했으며, 일본인은 칠성고분자 아래 거주했다고 했다.

넓은 들판은 금암리, 적봉리, 회화리, 마두리의 경제적 기반이다. 금암3리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예전에 금암리 앞쪽만 논이 많고 회화리와 적봉리 쪽으로는 밭이 많았다.”며,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조합 물이 오면서 죄다 논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수리조합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전에는 오산천을 막아 들판에 물을 댔다. 사리 앞쪽 안보(금암리보)가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새보(마두리보)와 회화리보가 차례로 있었다. 들판은 1972년 경지정리가 되면서 현재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1952년 남쪽 진위천 너머로 미공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소음피해가 컸다. 옛날에는 비행기 소음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최신 전투기가 들어오면서 소리가 매우 커졌다. 최근에 비행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상액은 1달에 1인당 3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회화리 같은 마을에는 창틀 샤시를 새로 해줬지만 금암 3리 새말의 경우 소음이 조금 덜하다고 이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금암1리 골안말은 금암리 3개 마을 중 가장 동쪽에 있다. 골짜기 안쪽 마을이라는 골안말의 의미가 느껴질 정도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산이 둘러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가 풍긴다. 산으로 둘러쌓인 마을이지만 산과 골짜기 지명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골안말 동쪽 금암교 맞은편에 있는 돌로 된 벼랑에 북바위가 있다. 이 북바위에서 금암리(金岩里)라는 지명이 유래하였다.

북바위는 원래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금암교 서쪽에서 사리로 이어지는 길까지 나와 있었다. 이 바위의 돌을 깨서 회화리 앞 제방을 쌓는 데 썼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줄어들게 되었다. 돌을 깨 내는 발파 기술자로 왔다가 마을에 정착하여 골안말 이장을 역임하면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했던 황세연(남, 1934년생)에 의하면 북바위를 깨서 금암리 입구부터 회화리까지 제방을 보강하는 데 썼다고 한다. 이 일을 맡은 회사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협창토건이었고, 황세연은 이 회사 직원이었다. 그때 협창토건은 정남면 가지내에서 회화리를 거쳐 금암리까지 제방을 쌓았다. 북바위에서 깨낸 돌을 하천 쪽에 쌓아서 물에 쓸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정남면에서 금암리까지 2년 여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졌고, 황세연은 이 기간 동안 계속 돌 깨는 일을 했다. 트럭으로 실려 나간 돌이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한다. 북바위에서 깨낸 돌은 미군부대 활주로 포장 공사에도 충당됐다. 금암1리에서 3~4명, 외지에서 3~4명 해서 7~8의 여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돌을 망치로 깨서 자갈을 만들면 미군부대에서 트럭으로 실어갔다.



'금암'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되는 북바위 위치

북바위는 서탄초등학교 학생들의 소풍 장소이기도 했고 금암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 사람들의 봄놀이 장소가 되기도 했다. 황세연은 해마다 4월 5일 경 회화리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 북바위에 와서 놀았다고 했다. 놀다가 술에 취해 북바위를 밀어 내린다고 미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위가 워낙 커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북바위 아래 편평한 장소가 있어 놀기가 좋았다. 황세연이 돌을 뜨다가 손수 우물을 파 놓아 식수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물도 없어져 버렸고 북바위 아래로 수로만 지나고 있다.

금암리 토박이들은 마두리부터 금암1리 골안말까지 지형을 풍수지리의 형국론(形局論)으로 설명한다. 즉 마두리부터 골안말까지의 지형이 말의 형국이며, 마두리가 말 머리, 금암 2리 안말이 말의 젖줄, 골안말이 말 꼬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차상석은 "말 젖줄에 해당되는 안말은 아무데나 파도 물이 잘 나오는데 골안말은 말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없다." 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온다고 했다.

금암1리 골안말은 동쪽 서탄 입구에 칠성고분자, 솔고바이오 등의 회사가 들어섰지만, 마을 안쪽으로는 금암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가 최근에 이르러 서쪽 산록에 외지인들이 신축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어 마을 경관이 바뀌고 있다.

금암2리 안말은 현재 금암리의 중심 지역이다. 이곳은 서탄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주요 관공서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 안말은 지금 마을회관 너머 동북쪽 능선 아래쪽을 따라 가운데 경작지를 두며 둥그런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골안말에 있던 서탄면사무소가 이곳으로 옮겨오고,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하는 등 면단위의 주요 기관들이 몰리면서 면사무소 주변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금암3리 새말(신리)은 안말을 지나 수월암리로 이어지는 서탄로 서쪽에 있다. 금암리 마을 중 가장 서쪽이며 북쪽으로 수월암리, 서쪽으로 마두리를 각각 접한다. 마을 서쪽에 기물산이 있다. 부녀회장인 홍순복(여, 1954년생)은 15년 전 무렵부터 서탄와 마을 사이 골짜기인 우무골에 공장이 들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흡사 공단 같은 분위기가 난다.

서탄면의 다른 마을이 그렇듯이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전통 마을 경관을 유지하였다. 금

암1리의 칠성고분자나 솔고 같은 회사를 제외하면 금암리 전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최근 들어 창고형 공장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새말의 경우 공장들이 마을을 둘러싼 형세가 되어버렸다.

2) 성씨

서탄면은 조선시대까지 진위현의 서쪽 지역으로 일서면과 이서면에 속했다. 진위현의 성씨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지리지	성씨에 대한 기록
『세종실록지리지』	토성(土城)이 3이니, 이(李) · 김(金) · 최(崔)요, 망성(亡姓)이 2이니, 유(柳) · 송(宋)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조(趙)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金)·이(李)·유(柳)·최(崔)·송(宋)
『여지도서』	김(金)·이(李)·유(柳)·최(崔)·송(宋)·오(吳)·황(黃)
『진위읍지』(1843)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따름(김·이·유·최·송)
『진위읍지』(1872)	1843년 읍지와 같음.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성씨 가운데 조씨를 제외한 성씨가 조선 후기 1872년 『진위읍지』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만 『여지도서』에 오씨와 황씨가 새로이 등장하지만, 이 두 성씨가 이후 편찬된 『진위읍지』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진위현 읍지는 1891년과 1899년에도 편찬되었지만 성씨에 대한 기록은 없다. 조선시대 지리지에 등장한 성씨 가운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성씨도 고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서탄면 일대에 거주하는 성씨와의 관계도 매우 불분명하다.

(1) 금암1리 골안말

골안말은 각성바지 마을이다. 수원시 세류동에서 태어나 골안말로 시집 온 한방자(여, 1900년생)는 탐진 최씨가 제일 많고, 이씨와 박씨 성들이 있다고 했다. 현재 이장인 조덕상(남, 1967년생)에 따르면 예전에 탐진 최씨가 10여 가구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6~7가구가 있고, 이 외에는 조씨, 이씨, 박씨 등 각성바지이다.

(2) 금암2리 안말

금암 2리는 송씨, 차씨, 조씨, 세 성씨가 대성을 이룬 마을이다. 여산 송씨(礪山宋氏) 정가공파(正嘉公派) 27대손으로 그의 15대조가 금암리에 처음 입향했다는 송준섭(남, 1951년생)은 세 집안이 입향한 순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차씨 집안이 외가인 장태용(남, 1951년생)도 세 성씨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했지만 입향한 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송준섭은 족보상 그를 기준으로 15대조 위의 조상이 화성시 조암면에서 금암리로 이주했다고 했다. 집안 선산은 금암 3리 새말에 3천 평 정도로 조성되어 있었다. 올해(2023) 봄 지손들이 가까운 직계 조상의 묘만 남기고 산소를 정리하는 바람에 현재는 선산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송씨가 20여 가구 거주했는데 많이 떠나고 현재는 8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연안차씨 강열공파는 안말과 회화리에서 대성을 이룬다. 차상석(남, 1957년생)은 자신으로부터 17대조인 차해영(車海永)이 금암리에 입향했으니 현재까지 500년은 살아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안말에 사

는 차씨, 송씨, 조씨 중에 연안 차씨가 가장 먼저 입향했으며, 이후 조씨와 송씨가 차례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옛날 노인들로부터 들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차씨 집안이 30세대가 거주했지만 현재는 8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차상석의 기억과는 달리 차종화(남, 1936년생)는 "옛날에 차씨가 12집 살았는데, 현재는 6집이 살고 있다." 고 말했다. 면사무소 뒤 선산에 있는 17대조 후손들이 종중을 형성하여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차씨 종중 땅이 지금의 서탄면행정복지센터와 금암중앙교회, 금암2리 마을회관, 서탄초등학교 주변으로 대략 5천 평 정도가 되었다. 차상석은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자리도 차씨 집안에서 희사한 것이며,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종중산을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탄초등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교장으로 퇴직한 임광래(남, 1938년생)도 차씨 집안에서 현재 초등학교 본관 건물이 있는 자리 600여 평을 기부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금암중앙교회 역시 차상석의 증조부인 차병헌 외 2인 소유였는데, 차상석은 장손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암리 연안차씨 강열공파 묘역



연안차씨 금암리 입향조 차해영 묘

금암리 연안 차씨 묘역은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서탄면 금암리 255' 에 있다. 묘역의 가장 위쪽으로부터 금암리 입향조인 차해영의 묘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 묘가 조성되어 있다.

평양 조씨 진안공파(鎭安公派) 집안인 조재관(남, 1933년생)씨는 증조부 이후 그의 손자대까지 6대가 안말에 살아왔다. 마을 뒤 선산에는 그로부터 10대조가 되는 평양 조씨 진안공파 14세손인 조충(趙沖)의 묘가 있다. 조재관의 조카가 되는 조진호(남, 1952년생)는 조충이 입향조이므로 자신의 손자까지 14대가 살아온 것이라고 했다. 2014년 『평택시사』에는 10가구가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현재는 안말과 골안말에 6~7가구가 살고 있다.



금암리 평양 조씨 묘역


평양 조씨 금암리 입향조 조충 묘

(3) 금암3리 새말

금암3리 새말은 청주 한씨 양절공파 내 장간공파 집성촌이다. 한확(韓確)을 중시조로 하는 양절공파는 공안공파(恭安公派), 장도공파(章悼公派), 장간공파(莊簡公派)로 나뉜다. 한확의 현손이며 양절공파 17세인 한온(韓蘊)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경유(景裕)이고 둘째가 경기(景祺)이다. 새말에는 첫째인 경유의 후손이며, 둘째 경기의 후손은 경기도 양주에 세거하고 있다. 새말에서는 양주에 사는 경기의 후손들을 ‘양주 집안’ 이라고 하고, 양주에서는 새말에 거주하는 첫째의 후손을 ‘평택 집안’ 이라고 부른다. 한도희(남, 1938년생)는 “옛날에서 한씨들이 작은집, 큰집 할 것 없이 서로 붙어 살았는데, 지금은 집안들이 많이 외지로 나가 살게 되었다.” 고 했다.


새말 청주 한씨 종가



새말 청주 한씨 유래비

청주 한씨가 새말에 입향한 시기와 배경은 집안에 분명하지 않다. 문중에서는 한경유의 아들인 19세 한근(韓瑾)이 1582년경 처음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문중에서는 이 내용을 새겨서 종가(宗家) 입구에 표석을 세웠다. 현재 새말에 청주 한씨는 15가구가 살고 있다. 한근과 그의 세 아들 묘는 오산시 세

마대(오산시 지곶동) 근처에 있다. 문중에서는 마을 뒤 서탄2로 옆에 납골묘를 조성하였고, 이곳에는 22세손인 한척(韓倜)부터 차례로 안장되어 있다.



새말 청주 한씨 묘역



입향조로 추정하는 한근의 손자 한척의 납골묘



새말 청주 한씨 종중 임원진

새말 청주 한씨를 중심으로 하는 한온 후손 종중회는 1981년에 결성되었다. 임원으로는 '회장과 감사, 이사 15명 이내' 로 구성된다. 한씨 종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4일 충의공의 시제를 모시고, 하위 문중에서는 충의공 시제 이후에 각 문중별로 시제를 지낸다. 또한 4월 셋째 토요일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65-2' 에 소재한 서원사에서 충의공 추모제를 거행하고, 음력 9월 9일에는 전남 장흥군 용산면에 소재한 충렬사에서 거행되는 충의공 추모제에 참석한다.

3) 인구의 변화

『세종실록지리지』에 진위현의 인구는 "호수(戶數)가 2백 21호, 인구가 5백 35명" 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어느 정도가 지금의 서탄면과 금암리 인구에 해당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인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금암리가 속했던 진위현 서면(西面)과 금암리의 인구 통계는 아래와 같다.

『여지도서』의 진위현 서면의 인구통계

구분		궁리	신리	금암리	마두리	내천리	야막리	합계
호수		20	70	40	35	50	120	315
비율		6.35	22.22	12.70	11.11	15.87	38.10	100
인구	남	41	93	59	41	41	130	405
	녀	39	61	48	51	51	120	370
	계	80	154	107	92	92	250	775
비율		10.32	19.87	13.81	11.87	11.87	32.26	100

『여지도서』 편찬 당시 금암리 마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불분명하다. 여기에는 인근의 회화리와 수월암리, 사리가 없기때문에 현재의 금암 1·2·3리만 가리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서면이 일서면(一西面)과 이서면(二西面)으로 나뉘는데, 금암리가 있는 일서면은 145호, 433명이 살았다. 『여지도서』보다 30여 년 뒤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일서면에 166호(戶), 575명(남자 283명, 여자 292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여지도서』의 통계치에 비해 일서면 4개 마을에서 21호, 142명이 늘었다. 그런데 1891년 『진위읍지』에는 일서면의 인구 통계가 123호, 248명으로 기록되어 대폭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8년 후인 1899년 『진위읍지』에는 호수(戶數)가 대폭 늘어난 142호로 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금암리는 서탄면의 중심 마을이었으나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갖고 있었다. 1952년 진위천 건너 장등리 야리와 적봉리 신야리가 미군기지로 수용되면서 일부 이주한 주민들을 제외하면 1960년대 초반까지는 별다른 인구 변동 요인이 없었다. 1959년 정부가 작성한 「지방별지명조사철」에는 아래와 같이 금암리의 인구가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각 마을 토박이들이 얘기하는 옛날 마을 호수(戶數)가 이 기록과 거의 일치된다.

1959년 지방별지명조사철의 금암리 인구통계

원금암(골안말)		내리(안말)		신리(새말)		합계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40	247	74	454	45	244	159	945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인구 변화는 아래와 같다.

1960~1980년대의 인구 변화[1)]

연도	호수(戶數)/세대수			인 구 수			서탄면 합계		비고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기준일)
1963	130	32	162	487	494	981	1,404	8,407	1963.12.31.
1971	67	32	99	316	331	647	1,311	7,699	1971.12.31
1976	138	39	177	474	435	909	1,342	7,212	1976.10.01
1980	166	26	192	439	446	885	1,383	6,935	1980.01.31
1985	139	49	188	429	417	846	1,427	6,690	1984.10.01
1986	147	36	183	415	416	831	1,456	6,628	1986.11.01

1963년 이후 1971년까지 8년 사이에 금암리 호수(戶數)가 38.89% 줄었고, 인구는 34.05%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진위면 전체로는 호수가 3.35% 늘었고, 인구는 4.68% 줄어든 상황과 대비된다. 그런데 1976년에는 5년 전인 1971년에 비해 호수와 인구가 각각 78.79%, 40.49%로 대폭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반 하북리와 견산리에 영풍제지, 일성제지, 홍원제지, 매일유업 같은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하북리와 견산리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지만[2)] 금암리까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1951년생으로 안말 이장을 맡고 있는 장태용(남, 1951년생)은 29~30세 무렵 매일유업에 취업하여 5년간 근무했다. 그는 당시 영풍제지나 매일유업에 다니는 서탄면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평택군통계연보』는 법정리별 인구통계만 제시하여 금암리의 각 자연 마을별 인구 통계는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1970년대 초반 안말 이장을 맡아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던 황세연(남, 1934년생)은 당시 약 45가구 정도였다고 했다. 조희상(남, 1960년생)은 그가 젖소를 키우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에 골안말에 40가구가량 살았다고 기억했다. 조덕상(남, 1967년생)은 그가 어렸을 때는 60가구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후에 차차 줄었다가 24~25년 전 마을 동쪽에 빌라가 신축되면서 19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바람에 그나마 70여 가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토박이 비율은 대략 30여 가구 안팎이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안말의 조재관(남, 1933년생)은 40~50년 이전 안말 인구가 60~70호 정도 되었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등하다고 봤다. 장태용(남, 1951년생)도 대략 70여 호로 기억했다. 새말은 금암리의 세 마을 중 인구의 변화가 가장 적다. 한도희(남, 1938년생)나 그보다 한참 젊은 나이인 한준희(남, 1965년생)가 기억하는 이 마을 가구수도 40여 후 남짓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놓인 목교(木橋)였던 금암교가 1978년 시멘트 다리로 바뀌면서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다. 시멘트 다리의 개통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농업 중심이라는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요인은 크지 않았다. 벼농사나 축산업을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뿐이다. 1972년 전라남도에서 새말로 이주한 문운경(남, 1944년생)은 당시 남의 집 방을 얻어 일명 '곁방살이' 하는 가구들이 7~8가구에 이르렀다고 했다. 신경철(남, 1954년생)은 젖소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1988년 경기도 가평에서 새말로 이주했다. 처음 젖소 6~7마리를 먹이다가 그만두고 부부가 모두 회사를 다녔다.

1) 『평택군통계연보』

2) 1970년대 초중반 산업시설이 들어섰던 하북리의 경우 1971년 176호, 536명에서 1976년 194호, 829명으로 늘었고 1984년 538호, 1,20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평택문화원,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2021, 377쪽.)

2000년대 이후 인구 변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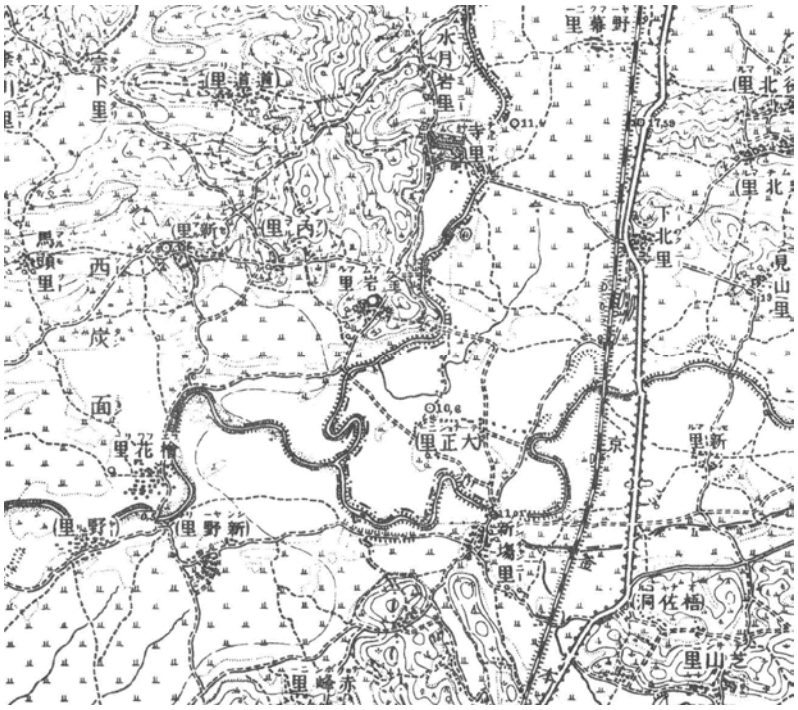
연도	마을	세대수		인 구 수				서탄면 합계		비 고
		마을별	계	남	여	계	총계	호수	인구수	(기준일)
2003	1리	80	239	125	100	225	673	1,675	4,499	12월 31일
	2리	100		142	152	294				
	3리	59		88	66	154				
2006	1리	78	246	114	98	212	638	1,762	4,362	12월 31일
	2리	101		139	136	275				
	3리	67		86	65	151				
2010	1리	85	275	116	91	207	643	1,778	4,007	12월 31일
	2리	95		141	118	259				
	3리	95		91	86	177				
2015	1리	93	322	134	101	235	702	1,944	4,161	12월 31일
	2리	142		161	146	307				
	3리	87		91	69	160				
2020	1리	92	339	114	92	206	642	1,965	3,683	12월 31일
	2리	158		158	128	286				
	3리	89		87	63	150				
2023	1리	91	323	106	90	196	604	1,973	3,602	8월 16일
	2리	130		136	102	238				
	3리	102		106	64	170				

4) 교통의 변화

조선시대 서탄면은 '갈곶리-가곡리-견산리-봉남리-마산리'로 이어지는 삼남대로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대로(大路)를 연결하는 교통로에서도 떨어졌기 때문에 고지도를 통한 교통로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지형과 마을이 교란되지 않은 형태의 옛 교통로의 흔적은 1922년에 발행된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1922년 당시까지도 국도 1호선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 금암리 사람들은 북쪽 오산과 남쪽 신장동 구장터 쪽으로 오가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주로 장을 보러 오산이나 서정리를 오가는 일이 많았고, 대중 교통으로서 자동차 문화가 없어서 도보에 의존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쪽으로 회화리를 지나 진위천을 건너면 신야리를 지나 신장동 구장터로 이어지는 길과 야리를 지나 장등리로 이어지는 길이 나뉜다. 또한 오산천을 건너 하북2리 대정촌에서 진위천 너머 구장터로 질러가는 길도 확인된다. 구장터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금의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사거리를 지나 동남쪽으로 가면 길은 삼남대로로 이어진다. 동쪽으로는 안말에서 지금의 서탄입구 삼거리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대정촌 북쪽에서 하북1리 쪽으로 이어지는 길과 대정촌을 경유하여 구장터로 이어진다.

3) 서탄면사무소 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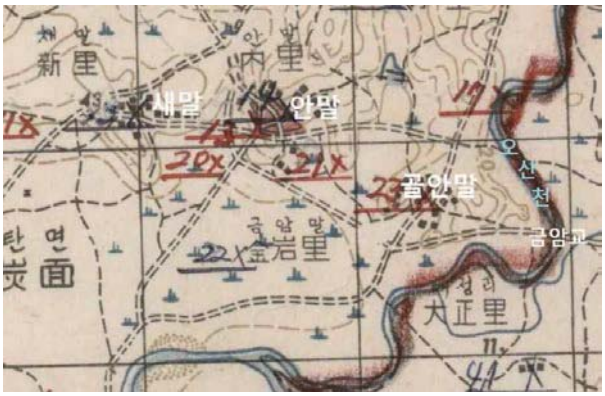


금암리에서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옛 교통로(1922년 지도)

1922년 지도에서는 서탄입구삼거리에서 금암2리 안말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서탄로가 개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탄로는 1927년 서탄면사무소의 이전과 함께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지도 상으로는 서탄면의 각 마을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오가는 교통이 불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서탄로인 신작로를 새로 개설하고 면사무소를 안말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959년 작성된 「지역별 지명조사철」에 표시된 서탄로는 일제 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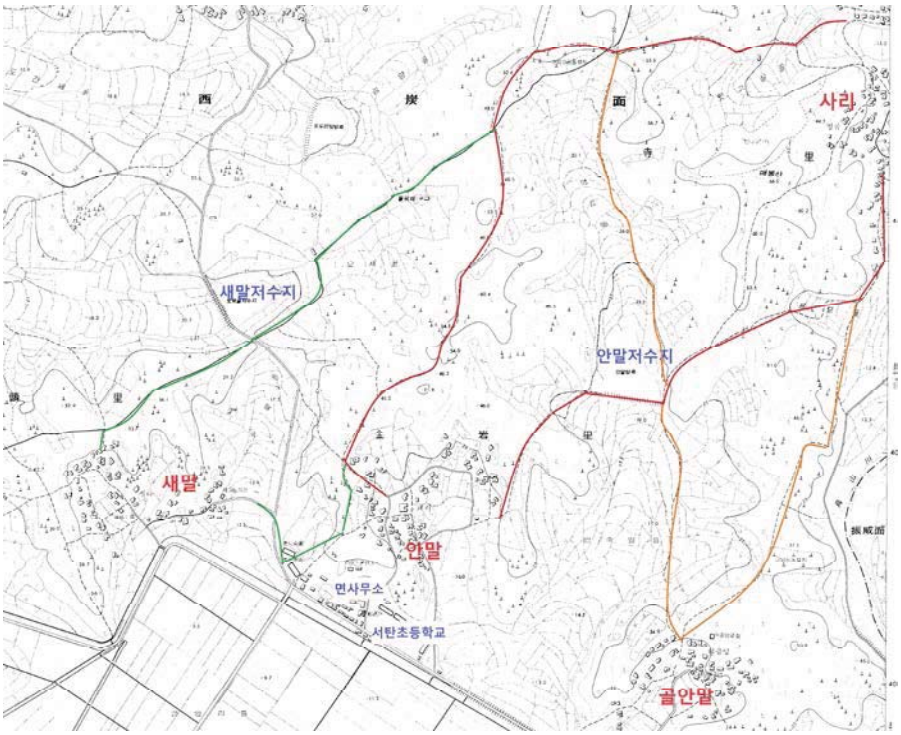
1922년 지도의 금암리 교통로



1959년 지도의 금암리 교통로

1960년대 이전까지 금암리 주민들이 마을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학교에 가는 일과 생필품을 구하러 5일장에 다니는 일이었다. 남쪽 회화리 사람들이 서정리장이나 신장동 아침시장, 송북장을 많이 다닌 반면에 금암리는 오산을 생활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산장을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오산으로 다

녔다. 송준섭(남, 1951년생)은 "금암리에서 오산장까지 거리가 20리인 8km 정도라고 했다. 금암리와 마두리, 내천리, 수월암리, 사리 등의 생활권이 모두 오산이며 3일과 8일에 열리는 오산장을 이용했고 중고등학교도 오산으로 진학했다." 고 회상했다.



금암리 사람들이 오산을 오갔던 교통로(1975년 지도)

학생들이 오산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길과 오산장길은 거의 일치하였다. 금암 1리 골안말 사람들은 마을 뒤 공동묘지 옆으로 고개를 넘어 오산천 제방을 따라 사리와 오산시 탑동을 경유하는 길을 이용했다. 오산천 제방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을 때는 골안말 사람들이 창덕골을 따라 안말 저수지를 지나고 수월암리의 거르미 고개를 거쳐 사리를 지나는 코스였다. 안말에서는 마을 서북쪽을 지나 서탄체육공원 동편을 지나 안말 뒷산을 넘어 거르미 고개로 해서 사리를 지났다. 오산장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노인들은 2시간 가량 소요됐다. 젊은 사람이라도 짐을 머리에 이고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을 가야 했다.

동쪽 하북리 방향으로 난 길은 진위면사무소에 오가는 사람이나 1930년 이전 진위초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다. 현재의 금암교 자리에는 섶다리가 놓였다. 차종화(남, 1936년생)는 어렸을 때 섶다리를 보았다. 그는 "섶다리를 놓았지만 여름에 큰 비가 내리면 다리가 유실되거나 하천이 넓어져서 섶다리로 건널 수 없었다." 고 했다. 그렇게 되면 배로 건너다녔다.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칠성고분자 회사가 있는 자리에 살았고, 배는 마을 쪽에 매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이용하는 요금으로 매년 여름에 보리 1말, 가을에 벼 1말을 부담했다. 이후 현재의 금암교 위치에 검은색 나무 교각을 세운 일명 꺼먹다리가 놓였다. 그러나 꺼먹다리도 집중 호우에 유실되곤 했다. 임광래(남, 1938년생)는 홍수로 꺼먹다리가 유실되면 다시 복원하거나 돌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했다. 국도 1호선으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서탄입구삼거리까지 나가는 일은 더욱 빈번해졌다. 오산이나 송탄까지는 걸어다녔지만, 수원이나 평택 쪽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골안말의 김상숙(여, 1944년생)은 25세에 결혼해서 재행갈 때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성환 친정까지 갔다. 조진호(남, 1952년생)는 오산중학교 1학년 때 서탄입구까지 가려면 30~40분을 걸어야 했고, 이곳에서 오산까지 버스 요금은 3

원이었다.



1978년에 완공된 금암교(금암리 방향)



금암교 공사 관련 안내판

금암교 뿐만 아니라 대정촌으로 직접 건너가는 다리도 놓였다. 이 길은 조선 후기 구장터를 오갔던 장길이었고 대정촌 서편 하천 부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용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신장동에 물건은 팔러 가는 아낙네들이 거의 매일 오가는 길이기도 했다. 조희상(남, 1960년생)은 처음에는 징검다리 식으로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걸쳐 놓았다가, 나중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아나방을 놓고 뗏장을 깔았다고 했다. 징검다리 때는 장마 때마다 떠내려갔지만, 아나방 다리는 높아서 2~3년에 한 번씩 큰 장마가 오면 유실 되었던 것으로 조희상은 기억했다.

금암리 앞쪽 금암리 앞 서탄로는 1974년 1차로 확장되었다. 이때 포장은 하지 않고 길만 넓혔고, 1978년에는 시멘트로 금암교를 가설했다. 1990년 서탄초등학교 교사였던 임광래(남, 1938년생)는 서탄초등학교 개교 60주년 행사를 진행했는데, 당시까지도 서탄로는 마찻길 넓이였다고 했다. 송준섭(남, 1951년생)에 의하면, 1997~8년 무렵 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금암교 건너 서탄면 초입



안말 앞 서탄로

현재는 오산에서 남쪽으로 수월암리와 금암리를 거쳐 진위면 하북리에서 국도 1호선에 합류될 예정인 6차선 도로가 2023년 현재 안말저수지까지 완공된 상태다.

차상석(남, 1957년생)은 금암리에 버스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70년대 초반이라고 했다. 이때 22인승 협진여객기 운행되기 시작했다. 버스는 송탄 시내를 거쳐 서정리를 지나 효명학교 앞이 종착지였따. 1시간에 1대꼴로 하루 운행되었고, 안내양이 탑승했다.

4) 지명



금암리의 마을과 골짜기 지명



금암리의 들판 지명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금암리	자연 마을	골안말 (원금암)	금암 1리 마을 이름이다. 골짜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며, 원금암으로도 부른다. 1949년 「지방별지명조사철」에는 골안말이 풍수지리상 금계포란(金鷄抱卵)형이고 북바위가 있어서 금암(金岩)이란 지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안말	금암 2리 마을 지명이다. 조선 후기 문헌에는 ‘내리(內里)’ 라는 한자 지명으로 표기되었다.
		새말	금암 3리 마을 지명이다. 조선 후기 문헌에는 ‘신리(新里)’ 라는 한자 지명으로 표기되었다.
	산	당제산	금암1리 골안말 당목이 있어 당제를 지내던 곳으로, 당귀산이라고 불린다. 현재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섰다.
		기물산	새말 동편의 산으로 해발 40m 정도이다.
	하천	오산천	금암리와 하북리 사이를 흐르는 하천으로, 조선시대에는 ‘토현천’ 으로 표기되었다.
		진위천	금암리 남쪽에서 오산천이 합류되는 하천이다. ‘장호천’ 으로 부르기도 했다.
	교량	금암교	하북리에서 금암 1리 북바위 남쪽을 연결하는 다리로, 일제 강점기에 목교(木橋)였으나 이후 시멘트로 덧대어 건너다니다가 1978년에 새로 놓였다.
		적봉교	금암리와 대정촌 남쪽을 연결하며 길이 240m, 폭 11m로 2006년에 설치되었다.
	골짜기	창덕골	금암 1리와 2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북쪽으로 안말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남쪽은 논으로 경작했었으나, 최근에 목장이 들어섰다. 예전에 창덕궁 땅이 많았던 데서 유래했다. 1974년 지도에는 ‘방죽밑들’ 로 표기되었다. 골안말에서는 ‘고실논’ 으로 부른다.
		갓골	기물산 서편 골짜기 이름이다.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뒷갓골	갓골 북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수월암리에 속하지만, 새말 사람들 경작지가 분포되어 있었다.
		뒷골	새말저수지 아래쪽 골짜기 이름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수월암리에 속하지만, 새말 사람들 경작지가 많았다.
		우묵골	금암3리와 서탄로 사이의 골짜기로 현재는 회사와 공장들이 가득 들어서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고개	서낭고개	금암 2리 안말 마을 뒤 수월암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로 옛날 서낭당이 있었다. 오산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들	성가리	금암 3리 새말 남쪽 들판 이름이다.
		나비들	마두 2리가 자리잡은 들판의 이름으로 동쪽 일부가 새말에 속한다.
		도끼논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입구의 서탄로 남쪽의 자그마한 들판 이름이다. '도끼논'은 특정 논의 이름이었는데, 그 주변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뱀밭	서탄초등학교 운동장 남쪽에 있었던 뱀처럼 기다란 밭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는데, 그 주변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샛들	도끼논 남쪽의 들판 이름이다.
		너부내들	골안말 남쪽부터 적봉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줄여서 '너부내'로 부르기도 한다.
	보	안보	금암교 북쪽을 막아 금암리 마을 앞을 지나면서 주로 들판 북쪽을 적셨다.
		새보	금암교 아래쪽을 막아 들판 남쪽을 흘러 마두리 쪽으로 흐르는 보이다. 마두리보라고도 부른다.
		회화리보	회화리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보이다.
	도로	서탄로	진위면 하북리 서탄입구 삼거리로부터 수월암1교차로(수월암리 957-11)까지의 도로명이다.
		서탄1로	금암리 남쪽 적봉교 서쪽 사거리부터 내천삼거리에서 발안로를 만나는 지점까지의 도로명이다.
		서탄2로	마두2리 서탄로에서 분기되어 새말과 안말의 북쪽을 지나 수월암 2리까지 이어지는 도로 이름이다.
		회화길	송탄농협 서탄지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회화리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이름이다.
		사리길	금암교 서쪽 끝에서부터 오산천변을 따라 서탄면 사리까지 이르는 도로명이다.
		정문회화로	원금암삼거리로부터 진위천 남쪽을 따라가다 회화리와 양감면 정문리를 차례로 지나 양감면 사창리에 이르기까지의 도로명이다.

2. 역사적 환경

1) 행정구역의 변천

완만한 구릉 지형인 평택시 일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유적이 다수 발굴되었다. 금암리 인근의 마두리에서는 2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4] 또한 행정구역상으로는 사리에 속하는 금암2리 뒷산의 ‘사리 산59번지’ 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굴되었다. 선사 시대에 서탄면에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증거들이다.



마두리 출토 청동 유물(허리띠 고리)



마두리 출도 유리구슬



안말 뒷산에 전시된 사리 고인돌



사리 유적 안내문

서탄면은 옛날 진위면 봉남리나 견산리 중심의 진위현에 속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서탄면의 행정구역 명칭은 고려 시대 부곡(部曲) 명칭으로부터 시작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천장부곡(川場部曲), 진위현 서쪽 12리 지점에 있다.” 고 기록되었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 편찬된 여러 『진위읍지』에도 실려 있다. 기록 내용상 천장부곡은 지금의 서탄면에 비정된다.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부곡(部曲)은 거주민의 수가 적어 일반 군현으로 편성하기 어렵거나 고려 왕조에 저항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이 미미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산천과 진위천, 황구지천변의 저습지를 제외하면 농경지의 발달이 미약한 지형으로 볼 때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았던 이유로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 부곡, 소 등 특수 행정구역이 조선 초기 일반 군현에 포함되면서 서탄면에 설치된 천장부곡도 진

4)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개관 25주년 기념 ‘경기, 마한 백제 특별전’ 자료집』, 2021, 74쪽.

위현으로 편성되었다. 1860년 무렵 편찬된『여지도서』에는 진위현 관내 면리(面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진위현에는 마산면(馬山面), 성북면(城北面), 서면(西面), 탄현면(炭峴面), 송장면(松庄面), 여방면(餘方面), 병파면(丙坡面), 성남면(城南面), 고두면(古頭面), 현내면(縣內面) 등 10개의 면이 있다. 금암리는 신리(新里), 마두리, 내천리, 야막리와 더불어 진위현 서면(西面)에 속했다. 금암리와 마두리, 내천리가 모두 "관아로부터 서쪽으로 20리" 라고 되어 있어서『여지도서』에 서술된 마을의 위치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리가 금암리, 마두리보다 까까운 서쪽으로 15리라고 해서 신리를 지금의 금암3리 새말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후 정조 때인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에는 서면이 남쪽의 일서면과 북쪽의 이서면으로,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탄현면이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각각 나뉘어져 13개의 면으로 기록되었다. 금암리는 궁리(宮里), 신리(新里), 마두리와 더불어 일서면에 속했다. 이서면에는 야막리, 걸호리, 내천리가 있다.

1914년 지방 행정구역이 대폭 통폐합되면서 진위군 전체와 양성군 및 수원군의 일부가 진위군으로 편성되었다. 이때 일서면과 이서면, 이탄면, 수원군 율북면에 속했던 황구지리를 합치고, 일서면의 '서(西)' 자와 이탄면의 '탄(炭)' 자를 취해서 서탄면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금암리, 내리, 신리를 합하여 금암리로 하였다.

2) 역사적 경험

(1) 3·1 운동[5)]

1919년 3월 9일 현덕면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평택지역 곳곳에서 3·1운동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평택 북부 지역에서는 3월 11일 진위면 야막리와 봉남리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첫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서탄면의 만세 시위는 당시 서탄면사무소가 있는 금암1리 골안말이 중심이었다.

1919년 4월 2일 오전 3시경 서탄면장 윤기선(尹箕善)은 서탄면 면서기 한성수(韓聖洙)에게 명령하여 각 구장들에게 당일 오전 10시까지 주민들을 인솔하여 서탄면사무소 앞에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윤기선은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키라, 만일 불참하면 뒤에 큰 환(患)이 있으리라" 는 격문을 작성하여 각 구장들에게 보냈다.

4월 3일 정오경 서탄면사무소 앞에 400여 명의 면민들이 모였다. 여기에서 윤기선 면장은 "세계의 대세로 보면 조선은 독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다 같이 경하할 일이니 복받을 일이다. 이번에 내가 적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으면 면민 전체를 벌주는 일이니 계속 투쟁하라" 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면장 윤기선이 선두에 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윤교영(尹敎永)과 윤대선(尹大善)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윤교영은 격문을 돌리는 책임을 맡아 열성적으로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윤대선은 윤기선의 연설이 끝난 후 군중에게 "우리 나라가 독립하면 왜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전부 몰수하고 동시에 왜놈은 우리 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 고 격려하며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하였다.

---

5)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171~172쪽.



3.1운동 당시 서탄면사무소 위치



금암1리 경로당 좌측의 3.1운동 만세시위지 안내문

4월 10일 금암리 주민 100여 명(일제의 기록은 40명으로 되어 있음)이 뒷산에 모여 봉화를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회화리에 있는 주재소를 습격하고 만세를 부르며 격렬한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일경이 출동하여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에 관하여 수사하자 주민 40여 명이 경찰관을 포위하고 돌을 던지며 폭행하였다. 이에 일경이 발포하여 약간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사리와 수월암리에서 주민들이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자진하여 해산하였다.

일제가 4월 말일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조선소요사건 일람표(1919. 10.)’에 의하면 평택지역의 3·1운동 관련 사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6)]

평택 3·1운동 관련 사상자 수

4월 1일 성남면 평택리 고덕면 율포리	4월 2일 송탄면 독곡리	4월 10일 서탄면 금암리
사망 2명, 부상 4명	사망 1명, 부상 2명	사망 1명, 부상 12명

금암1리 마을회관에는 서탄면의 3·1운동에 관한 안내판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면사무소가 있는 이곳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던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골안말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

(2) 6·25 전쟁

안말의 조재관(남, 1933년생)은 17세에 6.25 전쟁을 맞게 되었다. 당시 방앗간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용군 지원을 종용했다. 의용군 모집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삼촌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다음에 지원하기로 하고 빠질 수 있었다. 조재관은 안말에서 두어 명이 의용군에 갔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의 동창 1명과 후배 1명도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조재관은 이산가족 상봉 때 이 마을 이산가족과 함께 가서 친구와 상봉했다.

6) 평택시, 『평택의 독립운동가』, 2018, 26쪽.

000(남, 1951년생)에 의하면 6.25 전쟁 때 국군이 수복하고 난 다음에 청년단에서 좌익활동했던 사람들을 잡아다 오산천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죽이기도 하고, 현재 파출소 옆 밭에서 총살하기도 했다.



금암2리 조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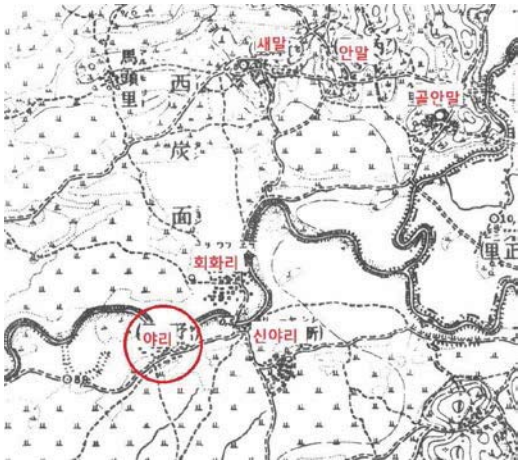


금암2리 송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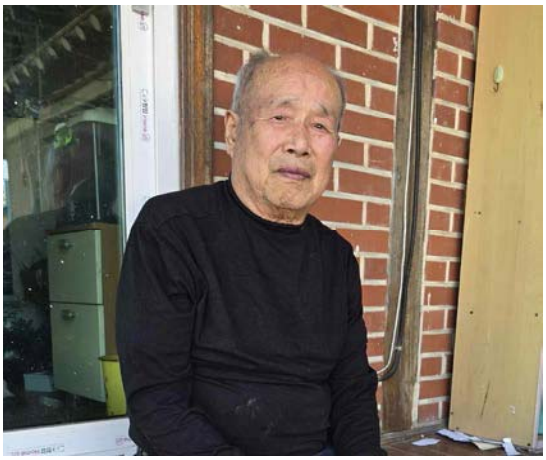
송준섭(남, 1951년생)의 큰형님은 6.25 전쟁 당시 서울 고모 댁에서 중학교 4학년에 다니다가 전쟁이 터지자 고향인 금암리로 피난을 왔다. 그때 인민군이 작은아버지를 의용군으로 데려가려 하자 그의 큰형님이 작은아버지를 지키려고 대신 자원하게 되었다. 큰형님이 의용군으로 끌려간 이후 소식이 끊기자 그의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거들랑 그 옆에다 메 한 그릇 떠서 형님 메도 올려라."고 유언하셨다. 부친의 유언에 따라 명절 차례를 지낼 때마다 형님이 드실 멧밥과 국을 올렸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남북 이산가족 마지막 상봉이 있을 때 남한에 있는 송준섭의 형과 동생 3형제가 금강산에 가서 큰형님을 만나게 되었다. 형님께 드릴 선물로 시계와 반지, 바지저고리를 준비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임광래(남, 1938년생)는 K-55 미공군기지가 들어서기 전 서탄면 장등리에 속하며 평택 임씨가 대성을 이룬 야리마을에 살면서 초등학교 6학년(서탄초 18회 졸업) 때 6.25를 겪었다. 전쟁이 시작된 6월 25~6일 인민군의 남진을 막으려고 제트기(마을에서는 '쌕쌕이' 라고 불렀다.)가 날아와 진위천의 철교를 폭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 처음 비행기를 봤다.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각자 근처의 친척집을 찾아 피난을 갔다. 그때는 그렇게 큰 전쟁인 줄 모르고 피난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임광래 가족은 가까운 양감면 정문리 근처 집안의 선산을 지키는 산직이네로 피난가서 1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 국군이 밀려 내려가면서 패잔병들이 와서 옷을 달라고 하여 삼베옷에 밀짚모자를 쓰고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떠났다. 이후 아침이면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분산해서 저녁 때 까지 묵었다. 밥해달라고 요구해서 밥을 해주곤 했다. 그의 집에 큰 돼지가 있었는데 인민군 요구로 돼지를 잡아서 밥을 해먹이자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 때 다시 밥해달라고 해서 저녁 먹고 떠났다. 인민군은 떠나면서 전쟁이 끝나면 밥값을 준다고 하면서 종이에 그 내용을 써주기도 했다. 저녁에 떠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다른 인민군들이 또 들이닥쳤고 저녁이면 다시 떠나기를 며칠 반복되었다. 한번은 임광래보다 두어 서너 살 많아 보이는 인민군이 뒤란에서 울고 있길래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보고 싶다고 말했다. 1.4후퇴 때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공주로 피난을 갔다. 많은 눈이 쏟아지는 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차에다 이부자리와 쌀 몇 말씩 싣고 갔다. 임광래는 조모와 부모님, 임광래 형제 6남매 등 아홉 식구가 공주 유구까지 내려갔다. 장등리를 떠나 적봉리를 거쳐 샛길로 평택까지 가서 유엔군이 지키는 군문 다리

를 건너지 못하고 얼어붙은 안성천을 소마차 끌고 건넜다. 가다가 날이 저물면 민가에 들어가서 밥 해먹고 새벽에 다시 떠났다. 군문리 앞 하천을 건너서 하룻밤 머물렀던 집은 임광래 가족이 새벽에 떠난 뒤에 들어온 피난민이 밥을 해먹던 도중 폭격을 당해 폭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당시만 해도 인심이 좋아 구름같이 몰려든 피난민을 막지는 않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유구까지 가서 1달을 머물고 돌아왔다.



임광래가 살았던 야리 마을 위치


야리에서 안말로 이주한 임광래

6.25 전쟁 중인 1951년 공군기지 설치가 결정되고 1952년 기지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야리와 신야리, 적봉리 마을 수용이 이루어졌다.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고 당시 평택 임씨 집성촌으로 70~80호 거주했던 마을 전체에 야전 천막 7개 정도가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천막을 오갈 데 없는 황구지 쪽 네집매 사람들한테 주고 인척이나 지인이 있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주했다. 야리에 살았던 임광래 가족도 1952년 안말로 이주했다. 야리에 있던 주택을 뜯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옮겼다. 부친이 서탄면장을 역임했던 임광래 집안은 당시 야리 주변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10여 년이 지난 5.16 군사정변 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징발증권을 받았는데, 서울 을지로 증권회사에 할인해서 100만원을 받아 서울에 그의 동생 집 한 채 사주고 나니 그만이었다. 경제 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6남매의 장남인 임광래는 거의 고학으로 공부하다시피 해서 대학을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교장으로 정년퇴임 했다.

서탄초등학교 남쪽 후문 옆에 비석 1기가 있다. 이 비는 이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 6.25 전쟁 때 희생된 22명의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위령비이다. 원래 농협 앞에 있었는데 농협이 확장되면서 옮길 장소를 물색하던 중 당시 서탄초등학교 이치영 교장이 학교로 옮겼다. 이치영 교장은 개성사범학교 졸업생으로 반공 의식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이곳을 옮긴 후 첫 2년 동안은 현충일에 유가족들이 와서 제를 지냈는데, 2년 후 평택 덕동산에 충혼탑이 건립되면서 현충일 제사도 덕동산 충혼탑에서 지내고 있다.



서탄초등학교 내 6.25 전쟁 순사 위령비 위치


6.25 전쟁 순사 위령비

위령비문 내용

위령비(慰靈碑)

6.25 순사 제위(六二五殉死諸位)

홍성필(洪性弼), 차병식(車柄軾), 노관호(盧寬鎬), 이종진(李鍾振), 유인창(柳寅暢)
유내순(柳來淳), 서연길(徐演吉), 유긍렬(柳肯烈), 윤덕흠(尹德欽), 정해봉(丁海鳳)
한양순(韓良順), 이규상(李圭相), 유광열(柳光烈), 김정신(金正臣), 차상문(車湘文)
최세근(崔世根), 강은성(康殷晟), 강홍일(康弘一), 강연일(康連一), 강제일(康濟一)
백흠석(白欽錫), 김창기(金昌基) 무순(無順)

오호애재 영령제위 嗚呼哀哉 英靈諸位
시불리혜 운명내하 時不利兮 運命奈何
생지대도 사어정의 生之大道 死於正義
우국일대 송죽동절 憂國一代 松竹同節
원달우천 일월무광 寃達于天 日月無光
금자입석 이표기충 今玆立石 以表其衷

(3) 새마을운동

서탄면 회화리 출신인 박흥덕(남, 1933년생)은 1970년대 서탄면사무소 공무원이었다. 그는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는 평택군청에서 서탄면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마을에 매일 와서 살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지붕개량이나 퇴비 증산, 길 넓히기 뿐만 아니라 볍씨 담그는 것부터 종자 소독, 통일벼 심기 같은 일을 독려했다. 서탄면에서는 사리가 경기도 시범 부락으로 선정되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지만, 금암리가 우수 마을에 선정된 적은 없다고 했다.


새마을 운동으로 넓힌 금암 1리 골안말 진입로


골안말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황세연

황세연(남, 1934년생)은 새마을 운동 때 골안말 이장을 맡았다. 당시 새마을 지도가 별도로 있었지만 이장 중심으로 작업이 추진되었다. 황세연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새마을 사업은 지붕 개량과 길 넓히기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당시 기와 집이 한 채도 없어서 마을 전부가 지붕 개량이 필요했지만, 이것은 각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장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었다. 지붕개량 작업하는 순서를 정하는 계획을 세워 집집마다 돌아가서면서 차례로 진행했다. 일도 서로 품앗이로 했다. 집집마다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붕 개량은 1년 안에 끝낼 수가 없었다. 지붕은 대부분 슬레이트나 함석으로 했는데, 함석 가격이 2배 이상 높았고, 슬레이트는 정부 보조를 받았지만 함석은 그런 보조도 없었다. 황세연은 수원에 가서 함석을 사다가 지붕을 올렸다. 가장 어려운 일은 마을 안길 넓히기였다. 흙길이어서 비만 오면 신발 신고 다니기 힘들어 맨발로 다녀야 될 정도로 질컥거렸고, 좁아서 마차가 집집마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시급한 일이었다. 특히 마을 진입로가 뱀처럼 휘어져서 당시 이장인 황세연은 넓고 반듯한 길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길옆 사유지가 문제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 10평까지는 희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막상 사업이 시작되니까 마음이 바뀐 땅 소유자들이 나왔다. 15평을 희사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2~3평 내놓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장인 황세연이 당시 조운기 서탄면장한테 이 사정을 말해서 정부 보조를 받아 땅값을 치렀다. 이렇게 해서 마을 길을 넓힌 다음 1980년 전후에는 마을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조희상(남, 1960년생)은 1982년 자신이 군 제대를 하고 돌아오니 진입로가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다고 했다. 처음 정부에서 나온 시멘트는 마을 진입로 포장과 하수구 만드는 데 썼다. 모래와 자갈은 오산천에서 퍼왔고, 운반을 위해 우마차가 필요했다. 모든 노동력은 마을 사람들 부역으로 충당했는데, 소나 마차 중 하나만 동원해도 부역을 면제해줬다. 당시 마을에 우마차가 5~6대 정도 있었다. 그런데 동원된 암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자갈을 실어나르고는 새끼가 유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소 주인은 마을 일 때문에 일어났으니 송아지 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로 소 주인과 이장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나, 마을 주민인 조항년이 ‘소가 일을 한 것 때문에 새끼가 유산되지는 않는다.’ 고 판정을 내려줘서 결국 송아지 값을 물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부역에 나오지 않는 집은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안 주고 버텼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마을 이장들에게는 관청의 독려도 큰 부담이었다. 특히 골안말은 서탄면의 관문에 해당되는 마을이라 퇴비 증산이나 마을 청소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성화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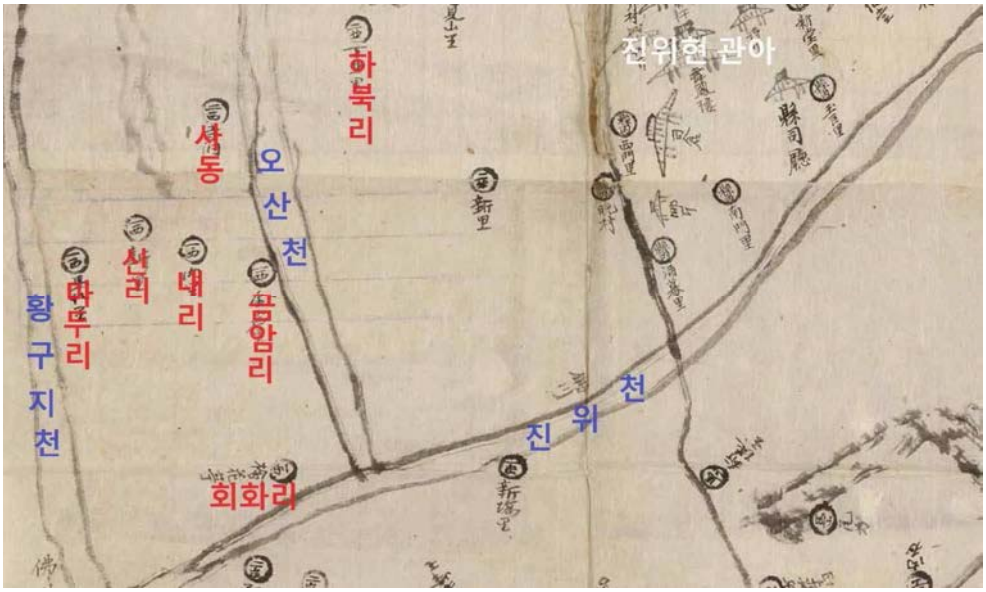
한번은 이재창 평택군수가 퇴비 증산 상황을 보러 순시를 나오게 되었다. 이장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퇴비를 제대로 해놓은 집이 없어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황세연 이장은 재치 있게 '우리 동네는 농지가 냇갈 건너에 있기 때문에 퇴비장을 모두 자기네 밭 뒤에다가 만들어서 마을에 퇴비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 고 둘러댔다. 그러자 군수가 들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마을로 향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이장한테 가장 어려운 일은 새마을운동 독려차 마을로 나온 면서기를 접대하는 일이었다. 당시 면서기는 환경 개선 사업뿐 아니라 못자리 만드는 일과 모심는 것까지 관여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마을에 있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는 일은 이장 몫이었다.

조희상(남, 1960년생)의 기억으로 골안말에서 새마을 운동 초기 시멘트 포장은 서탄로에서 마을회관 입구까지 이어지는 진입로만 포장했다. 이때 넓힌 마을 안길의 시멘트 포장은 1983~4년에 진행되었다. 이것은 이전처럼 마을 사람들 부역이 아니라 시공업자가 들어와 공사를 했다. 시공업자가 오산천에서 모래와 자갈을 퍼오면 시멘트를 비벼서 포장 작업을 하는 데는 마을 청년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였다. 1982년 군복무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조희상도 품삯을 받고 시멘트를 비벼 길에 까는 작업을 했다.

3) 자연마을



금암리 자연마을 전경



1891년 진위현 지도의 금암리 마을

금암리는 1리 원금암 또는 골안말, 2리인 안말, 3리 신리(새말) 세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원래는 각기 독립된 마을이었다. 금암리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 『여지도서』에서부터 등장한다. 여기에는 진위현 서면(西面)의 마을로 궁리(宮里), 신리(新里), 금암리(金岩里), 마두리(馬頭里), 내천리(柰川里), 야막리(野幕里)가 있다. 『여지도서』보다 30여 년 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서면이 일서면과 이서면으로 나뉘고, 일서면의 마을로 궁리, 금암리, 신리, 마두리를 두었다. 두 기록에 모두 등장하는 궁리는 『여지도서』에 관아로부터 서쪽 10리로, 관아로부터 20리 거리인 금암리 동쪽에 위치했다. 『호구총수』에도 궁리가 금암리 앞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금암리 동쪽이 분명해 보인다. ‘궁리(宮里)’ 라는 지명에 비추어 궁방전을 경작하는 주민들이 살았던 마을이 아닐까 추정되지만, 현재 그 위치를 비정하기는 쉽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19세기에는 현재의 금암1·2·3리 마을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1891년 진위현 지도는 각 마을의 위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금암리와 내리, 신리가 현재와 같이 표기되었다.

본래 서로 독립된 마을이었던 금암리와 내리, 신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하나의 법정리로 묶이게 되었다. 한 마을로 묶이면서 한 명의 구장이 세 마을을 관할했다. 금암리의 세 마을은 동쪽 골안말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 신리까지 해발 40~60m의 야트막한 능선의 남쪽 사면(斜面)이어서 마을마다 비슷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 들판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금암리 3개 마을과 마두리까지 동서로 길게 이어진 형태이다. 이곳 사람들은 금암리와 마두리 마을의 지형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즉,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마두리가 말의 머리에 해당되며 금암2리 안말이 배, 금암3리 골안말 쪽이 말의 꼬리 부분이라는 것이다.

금암리의 각 마을은 모두 비슷한 입지와 경제 기반을 가졌다. 마을 주변에 자그마한 산골짜기가 있고, 마을 앞으로 넓은 들판을 마주하고 있다. 서탄로 남쪽의 들판은 금암리, 회화리, 마두리 사람들이 공유하는 모습이지만, 대체로 마을에서 가까운 들판 쪽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1) 금암 1리 골안말



금암 1리 골안말 전경

골안말은 서탄삼거리에서 서탄로를 따라 오산천에 놓인 금암교 건너 서탄면 초입에 자리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금암리는 골안말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금암으로 부르기도 하는 골안말은 1911년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 '고리안말'로 표기되었다. '고리'가 '골'로 바뀌었는데, 고리의 의미를 헤아리기 어렵다. '금암(金岩)'이란 마을명은 골안말 동쪽 '북바위'에서 비롯되었다.[7] 1949년「지방별지명조사철」에는 "골안말이 풍수지리상 금계포란(金鷄抱卵)형이고 북바위가 있어서 금암(金岩)이란 지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안말의 차상석(남, 1957년생)은 아산만이 방조제로 막히기 전에는 북바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 북바위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25세 무렵 발파 기술자로 금암리에 와서 정착했던 황세연(남, 1934년생)은 2년에 걸쳐 북바위를 깨서 진위천 제방을 쌓는 데 사용했으며, 자갈은 K-55 미공군기지 활주로 공사에 쓰였다고 했다. 이곳은 서탄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좋은 놀이 장소였다.

7) 금암리 지명에 대한 다른 구전도 있다. 안말에서 지금의 서탄 체육공원 옆길로 오르면 수월암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 서낭당이 있었고, 이곳에 있던 바위가 '금암'이라는 지명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 안말에 거주하는 차상석(남, 1957년생)은 이 바위들이 경부선 철도 부설 때 서탄입구 철도 교각을 세우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부친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현재 평택에서 나온 문헌들이나 골안말 진입로 벽면에 있는 서탄면의 마을 유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금암리의 지명 유래는 북바위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상석은 서낭자리 바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금암'이라는 지명 유래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골안말 진입로 벽화의 금암리 유래 이야기

골안말에는 진위흥농(진위흥농)이라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04년 서탄면 금암리에 이주 정착한 야마다[山田顯義]가 발의해 설립한 회사로 1913년 설립허가를 받았고, 1935년 7월 해산되었다.[8] 「조선은행회사요록」에는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 28’에 진위흥농 본사가 있다고 기록되었다. 1911년 작성된 지적도에 의하면 이곳은 현재 서탄로에서 칠성고분자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된다. ‘금암리 28번지’는 대지 376평이며 심전여삼병위(深田與三兵衛) 소유로 기록되었다. 차종화(남, 1937년생)는 어렸을 때 이곳에 있었던 일본식 주택을 기억하고 있었다. 검은색 건물이었고 새 둥지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보았다. 그는 ‘이곳에 살던 사람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해방이 되면서 쫓겨 갔다’고 했다. 해방 후에는 오산천을 건너는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살다가 오산 부산리로 이사했다.



진위흥농 위치_1



진위흥농 위치_2

금암리와 인근 마을 주민 가운데 진위흥농이라는 회사를 알지 못했다. 안말의 임광래(남, 1938년생)는 진위흥농에 대한 질문에 “그게 무슨 흥농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길씩 되는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었으며, 당시 황무지였던 대정촌을 개척하기 위한 회사의 관리 사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덕상(남, 1967년생)은 그냥 “일본인이 살았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2021년에 인터뷰했던 대정촌의 이세영(남, 1958년생)

8) 『평택시사신문』, 2021.06.02.

은 “금암리 칠성고분자 자리에 동양척식주식회가 있었다” 고도 했다. 진위흥농 자리의 남쪽 일부는 서탄로로 편입되고 북쪽으로 1979년 칠성고분자 회사가 들어섰다.



1927년 서탄면사무소 이전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골안말에 서탄면사무소를 두었다. 1919년 3.1운동 때도 골안말에 있던 서탄면사무소는 1927년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 금암1리 마을회관 앞에 이곳이 서탄면사무소 자리라는 안내판이 있지만 한방자(여, 1941년생)는 마을회관 동쪽 바로 옆집이 면사무소 자리라고 했다. 이곳에 있던 면사무소가 안말로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 안말의 조덕상(남, 1967년생)은 옛날 어른들로부터 풍수지리가 좋지 않아 옮겨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와는 달리, 금암1리에서 태어나 창덕골에서 낙농업을 하는 조희상(남, 1960년생)은 “골안말이 좁아서 면사무소가 안말로 옮겼다는 얘기를 옛날 노인들한테 들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면사무소 이전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안말 출신으로 가장 연장자 그룹에 속하는 조재관(남, 1933년생)은 서탄면사무소는 처음부터 현재 위치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면사무소의 이전은 교통상의 이유로 판단된다.

골안말의 한방자는 옛날에 50가구 정도가 거주했다고 했고, 마을 이장인 조덕상은 그가 어렸을 때 많아야 60가구 정도 됐었다고 했다. 그가 자라면서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 말에 19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인 금암빌라가 건축되는 바람에 70여 가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중 토박이는 30여 가구에 이르며 대부분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다.

골안말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마을을 크게 두 편으로 나누어 ‘동편·서편’ 으로 부른다. 조덕상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나누어 불렀다고 했다. 마을 당목이 있던 서쪽 산에는 전원주택들이 여러 채 들어섰고, 동쪽으로는 1979년 칠성고분자, 1987년 솔고바이오 회사가 들어섰다. 평택시의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달리 마을 안쪽으로 들어선 공장이나 회사가 없고, 동쪽 산 너머 오산천변 쪽으로 ‘3AC 평택공장’, ‘평택바른정비’, ‘미래환경’, ‘천일금속’ 등 4개 회사가 있다.

(2) 금암 2리 안말



금암 2리 안말 전경

안말은 60~70가구가 거주했던 큰 마을이었으며, 서탄면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안말[內里]이 문헌에 등장한 것은 1891년『진위현읍지』에 수록된 지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후기 진위현 일서면의 마을로 궁리, 금암리, 신리, 마두리가 언급되고 내리[內里, 안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여지도서』의 인구 통계 중 신리가 금암리의 40호(戶)나 마두리의 35호보다 월등히 많은 70호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신리가 내리를 포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금암3리인 신리(새말)는 70호가 거주할 만한 자리로 보기 어렵고, 안말과 거리도 가깝기 때문이다.

안말은 연안 차씨와 은진 송씨, 평양 조씨가 대성(大姓)으로 살아온 마을로 면사무소 동북쪽 골짜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골짜기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말[內里]’이라는 지명도 갖게 되었다. 이 마을 차상석(남, 1957년생)은 ‘안말’이라는 지명 유래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안말’이라는 이름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암말’에서 왔으며, 이 바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북바위가 아니라 안말 북쪽 수월암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의 서낭에 있는 바위를 일컫는다고 했다. 그는 “원래 서낭당에는 바위가 많았으나 경부선 철도를 개설할 때 이 바위를 가져다 서탄 입구 철도 교각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돌로 쌓은 철도 교각이 서탄삼거리 지하도부터 북쪽으로 80~100m 정도 길게 있는 것을 차상석도 봤지만, 그 주변이 흙으로 메꿔지면서 땅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그는 서낭당의 바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암’이라는 지명이 북바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차상석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의 내용과는 달리 1891년『진위현읍지』지도에는 안말이 ‘내리(內里)’로 골안말이 ‘금암리(金巖里)’로 표기되어 있어 두 마을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두 마을의 거리도 가깝지 않아 지명이 혼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탄면사무소가 이전하기 전 안말은 북쪽으로 만입(灣入)된 골짜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을 가운데는 경작지가 있고 주택은 경작지를 두르는 경사면에 자리했다. 마을 이장인 장태용(남, 1951년생)은 마을 내에 있는 노거수 2그루를 근거로 마을의 역사를 7~8백 년으로 추정했다. 2001년 평택시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의 수령이 안내판에 250년으로 되어 있으나 장태용은 안내판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서 이 나무의 수령을 최소 7~8백 년으로 잡았다. 차상석도 이 나무들의 수령을 7~8백 년 이상으로 잡았다. 차상석은 장고개로 오르는 길가의 나무가 해나무(회화나무)인데 이 나무는 7백년이 되어야 꽃이 핀다고 했다. 두 그루 나무를 근거로 해서 마을의 역사를 7~8백 년으로 추정하는 것은 안말 토박이들 사이에 일반화 된 얘기가 되었다. 실제로 회화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 회화나무는 안말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령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마을회관 뒤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



안말 사람들이 해나무로 부르는 노거수

안말에서는 마을 한 가운데 수량이 풍부한 한우물이 마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태용에 의하면 이 우물은 대략 50가구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했고 물맛도 좋았다. 당제를 지낼 때도 이 우물을 사용했다. 또한 한우물은 마을의 구역을 동·서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쪽을 가리켜 건넌말이라 부르고, 마찬가지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도 동북쪽을 건넌말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 안말에 있었던 서탄면사무소가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처음 서탄면사무소 건물이 준공된 1927년으로 추정된다. 차상석(남, 1957년생)은 면사무소 부지가 원래 차씨 집안 소유였다고 했다.[9] 서탄면사무소가 들어선 곳은 옛 안말로부터 서남쪽으로 약간 벗어난 곳이다. 면사무소가 이전되면서 그 앞쪽으로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옛 안말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 '건넌말' 이라고 불렀다.



골짜기 안쪽 자연마을에서 면사무소 이전 후 면사무 남쪽으로 확산된 금암 2리 안말

9)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서탄면사무소가 자리한 금암리 247번지, 서탄중앙교회인 254번지 등이 차병원의 소유였다. 차상석은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주변으로 차씨 문중 토지가 5천 여 평 될 것으로 추정했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면사무소 뒤쪽의 연안 차씨 집안 묘역을 비롯해서 서탄초등학교 뒤쪽으로 차씨 집안 문중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가 3천 7백여 평이 있었다.

면사무소가 안말에 자리 잡으면서 안말은 서탄면의 중심 마을이 되었다. 또한 면사무소 이전과 더불어 안말 앞을 가로지르는 서탄로가 개설되어 교통의 편리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탄면의 중요한 공공시설이 모두 안말에 들어서게 된다. 1930년에는 서탄면민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했다. 이후 파출소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는 별정우체국인 서탄우체국이 개국하였고, 1970년에는 서탄농협이 설립되었다. 1996년에는 송탄소방서 서탄119안전센터가 들어섰다.

서탄면사무소가 이전한 후 면사무소 근처에 민가가 들어서고 가게와 술집도 생겨났다. 차상석(남, 1957년생)은 생필품을 파는 잡화점이 2곳, 술집이 5곳으로 기억했다. 상가는 면사무소 앞길과 서탄로를 중심으로 들어섰다. 송준섭(남, 1951년생)은 1990년대 후반 서탄로가 확·포장되면서 서탄로 남쪽의 위치했던 7~8집이 헐렸는데, 미장원, 식당, 술집, 철물점, 자전거포, 일반 주택 등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마을 안쪽으로 자연마을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편이나, 마을 외곽 쪽으로 회사와 창고들이 들어서고 있다.



안말 남쪽을 가로지르는 서탄로



서탄로 확장으로 철거된 민가 터

(3) 금암3리 새말



금암 3리 새말 전경

금암3리는 청주 한씨 양절공파의 집성촌으로 진위면의 대부분의 마을들처럼 1860년 전후 편찬된『여지도서』에 신리(新里)라는 지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여기에는 신리에 70호(戶) 154명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신리는 내리(內里, 안말)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여지도서』에는 안말[內里]에 대한 기록이 없고, 신리(새말)의 호구(戶口)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새말 출신인 한무희(남, 1941년생)는 자신이 10세 무렵에 40호 정도가 거주했다고 기억했다. 한도희(남, 1938년생)도 어렸을 때 이 마을에 대략 43~44가구가 살았다고 했다. 마을 토박이 주민의 기억과 더불어 마을의 전체적인 지형이나 규모로 볼 때 19세기 중엽에 70호가 살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말에 입향하여 대성을 이룬 집안은 청주 한씨이다. 한씨가 이 마을에 입향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종중에서는 44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무희는 옛날에 40여 가구 중에 30가구 정도가 청주 한씨 집안이라고 했다. 현재도 새말에는 40여 가구가 거주하지만 1970년대 전후 서울 등 외지로 이주한 결과 한씨 집안의 숫자는 많이 줄었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1972년 새말로 이주한 문운경(남, 1944년생)은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때 40가구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헌 집을 구입 해서 이사 왔지만, 당시에는 셋방이 7~8가구 있었다. 옆에 있던 한도희는 이것을 '곁방살이' 라고 했다. 주로 머슴을 살거나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새말의 웃말과 아랫말

새말은 웃말과 아랫말로 구분되었다. 마을회관 근처가 아랫말이고 서쪽 골짜기 쪽이 웃말이다. 새말 청주 한씨 종가(宗家)가 윗말에 있었고 마을의 전체적인 형세로 보아 윗말이 먼저 형성되고, 아랫말 쪽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순복(연, 1953년생)에 의하면 15년 전쯤 동쪽 우묵골에 공장이 처음 들어섰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공장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고 길을 막자 회사에 고소하여 마을 사람들이 재판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녀회장인 홍순복은 "그 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6번이나 재판을 받았다." 는 얘기를 했다. 결국 우묵골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현재는 우묵골 뿐 아니라 기물산의 동·서편에도 여러 회사나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공단처럼 변한 금암 3리 새말 우묵골

4) 인물

(1) 한온(韓蘊, 1511-1555)[10]


한온 장군 충신 정문 앞 안내문

청주 한씨로 인수대비의 부친이며 세조 때 좌의정을 지낸 한확(韓確)의 현손(玄孫)이다. 부친은 중종반정 공신인 서평군(西平君) 한숙창(韓叔昌)의 3남이다. 1540년(중종 35)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다가 가덕도 첨사를 거쳐 종3품 장흥부사에 올랐다. 장흥부사로 부임하는 첫 해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여 왕에게 표리(表裏) 1벌을 상으로 받았다. 전라도 암행어사 윤주(尹澍)가 “장흥부사 한온은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아 구제하였다.” 고 중종에게 보고했을 정도로 선정을 베풀었다. 1555년(명종 10년) 왜적이 왜선 70여 척을 이끌고 가덕도를 거쳐 달량진(達梁鎭)으로 쳐들어왔다. 한온은 병마절도사 원적(元績),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과 더불어 달량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갔으나 왜적이 거짓으로 도망하였다. 달량진에서 조선군은 거짓으로 도망가는 척하는 왜군의 전술에 말려 성(城)을 함락시켰지만, 왜적이 재차 반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적의 수가 너무 많고 원병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온을 비롯한 조선군은 3일 동안 항전하였다. 사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가 적은 데다 식량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실록에는 전투가 끝난 뒤 다른 장수들의 시체는 찾았지만 한온은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었다. 을묘왜변이 끝난 뒤 한온에게는 영의정 심연원의 건의로 상이

10) ‘김해규, 『평택역사산책』, 평택시민신문, 2013, 286-287.’ 및 ‘임원택·이진한, 『평택의 사우 재실 정문』, 평택문화원, 2003, 235-239.’ 참조

내려졌다. 장흥의 읍인(邑人)들이 건립한 충렬사(忠烈祠)에 봉사(奉祀)됐고[11], 1560년(명종 15)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1696년(숙종 22) 정문이 하사되었고, 1875년(고종 12)에 '충의(忠毅)' 라는 시호를 받았다.

3. 경제생활

1) 농업

(1) 경작지 분포와 관개



금암리의 주요 경제 기반인 금암리와 회화리 사이의 들판

금암리는 북쪽으로 40~50m 정도의 낮은 구릉이 있고, 마을은 작은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다. 마을이 들어선 초기에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경작지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 저지대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경작지는 남쪽 해정들로 확산되어 갔을 것이다. 1960~70년대까지도 골짜기에 자리한 금암리 각 자연마을은 경작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택은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1760년 무렵 편찬된『여지도서』에는 진위현의 토지가 '한전(旱田) 1,154결(結) 27부(負) 3속(束), 수전(水田) 1,134결 48부 8속' 이 있지만, 실제 경작한 토지로는 '한전 739결 35부 6속, 수전 589결 20부 7속' 이 기록되었다. 기록상으로는 전체 토지 가운데 50~60% 정도가 실제 경작되었다. 전체 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 비율이 낮은 것은 여름철 집중 호우에 의한 오산천과 진위천의 홍수와 유로 변경 또는 가뭄에 의한 피해로 추정된다.

1843년『진위현읍지』에는 "전답(田畓)은 모두 2,493결 92부 3속인데, 그 중에서 밭은 1,275결, 논은 1,218결 15부 3속이다." 고 했다. 80여 년 사이에 전답이 200여 결이 늘었는데, 이것은 권세가와 각 궁방(宮房), 용주사의 개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금암리의 주요 경제 기반이 되는 해정들 개간 과정에서 들판 남쪽에 회화리가 형성되어 1891년『진위읍지』지도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토지조사부」에는 금암리에 소재한 잡종지(雜種地)가 32,375평

11)『신증동국여지승람』제37권 장흥도호부편에 충렬사가 "숙종 계해년(1683)에 건립하고 경자년(1720)에 사액하였다."고 기록되어 1683년(숙종 9)에 충렬사가 건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숙종실록』(숙종 9년 3월 1일)에는 "고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당을 지어 제향(祭享)하고 있다.(邑人至今祠享)"라고 서술하여 1683년 이전에 충렬사가 건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해정들 남쪽 회화리 내에 위치한 잡종지 247,142평과 오산천 동쪽의 하북리의 잡종지 159,815평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로 보아 일제 강점기 전에 금암리에 속한 해정들 대부분이 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시기 금암리에 소재한 농지 가운데 논이 225,442평, 밭이 233,214평으로 밭의 비중이 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금암리와 들판을 공유하는 회화리의 경우 밭이 306,448평인데 비해 논은 265,359평이었다. 금암리가 논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토질과 지대의 고도(高度) 차이도 있겠지만 일찍이 보(洑)가 설치되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금암 3리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옛날 농지정리 전에 금암리 쪽은 논이 많았고, 회화리 쪽으로는 밭이 많았다고 했다.

금암리에 분포된 농지는 계곡이 아닌 들판이 대부분이다. 계곡 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오산천을 막아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시도했다. 1843년『진위현읍지』에는『여지도서』기록에 없는 보(洑) 시설이 대거 등장한다. 그 가운데 ‘견산보(見山洑), 토현보(兎峴洑), 신보(新洑)’가 지금의 서탄면 남부에 해당하는 “일서면에 관개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넓은 들판에 관개(灌溉)를 위해 오산천에 설치한 수리시설들이다. 그런데 1891년『진위현읍지』에는 ‘신보’가 이북면에 관개한다고 했고, 일서면에 관개한다는 ‘금암보(金巖洑)’가 새로이 등장하며, 견산보와 토현보의 명칭은 사라진다. 기록의 혼선과 진위천 유로(流路)의 변경으로 두 기록이 차이를 빚은 것으로 보인다.

오산천과 진위천은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유로가 바뀌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낮고 넓은 배후습지를 가졌기 때문에 유로가 바뀌는 일도 빈번했다. 유로가 바뀌면 새로운 환경에서 보를 축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축조된 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1891년『진위현읍지』에서 언급된 ‘금암보’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안보’로 추정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금암 2리 안말의 조재관(남, 1933년생)은 안보가 제일 먼저 조성되어 금암리 마을 안쪽으로 흐르면서 관개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넓게 발달한 해정들 농지에 관개하려는 노력으로 오산천에 보를 막았고, 골짜기로는 저수지를 조성했다. 금암리에서는 비교적 기다란 골짜기인 안말의 창덕골이나 새말 뒤 뒷골에 제방을 쌓아 각각 안말저수지(금암저수지)와 새말저수지를 막았다. 이 두 저수지는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1959년에 조사해서 기록한「지역별 지명조사철」에는 안말 저수지만 표시되었다. 안말의 조재관(남, 1933년생)은 그가 10세 무렵에 저수지 제방을 쌓았다고 했으니 일제 강점기 말에 안말저수지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1959년에 작성된「지역별 지명조사철」에 새말저수지가 나와있지 않지만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자신이 어렸을 때도 새말저수지가 있었다고 했다. 안말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몰려들자 안말 이장인 장태용는 낚시꾼들의 출입을 막고자 서둘러 연꽃을 심었다.



새말저수지와 뒷골



안말저수지와 창덕골



안말저수지



안말저수지 제방



안말저수지 물로 농사짓는 창덕골



새말저수지

현재 생존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 기억으로 오산천에는 안보(금암리보), 마두리보(새보), 회화리보 등 세 개의 보가 있었다. 안말 조재관은 그가 10세가 채 되기 전에 보가 처음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안보를 막은 후 그가 여나므 살 되었을 때 마두리보를 막았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1891년『진위현읍지』에 언급되는 금암보가 현재 마을 사람들이 언급하는 안보라면 조재관이 어렸을 때 보았던 장면은 안보를 보수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안보는 좀 높은 지형에, 새보는 좀 낮으면서 넓은 범위의 논에 물을 댔다. 새말 한도희(남, 1933년생)는 "안보는 골안말과 안말 앞을 거쳐 새말 앞을 지나며 들판에서 끝이 났고, 새보는 골안말 앞과 금암리 앞 들판 가운데를 지나 마두리 남쪽 264번지 쉰섬지기들로 해서 황구지천으로 이어졌다." 며 보의 관개(灌溉) 범위를 설명했다.

20대 후반에 골안말에 정착했던 황세연(남, 1934년생)은 "보막기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말 안에 이루어지며 보통 2~3일이 걸렸다." 고 했다. 보막이와 더불어 봇도랑도 손질했다. 황세연은 "안보의 경우 제일 높은 보관장 1명이 있고, 각 마을마다 1명의 책임자를 뒀다." 고 했다. 보관장이 보막이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여 마을에 몇 명씩 할당하면 마을 책임자가 해당 인원을 동원한다. 보막이 할 때는 보주가 일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1마지기에 쌀 1되씩 걷는다. 밥을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은 밥만 제공하고 보막이에 일꾼으로 간 사람 가족이 밥그릇과 반찬을 가지고 와서 식사했다. 봇밥을 지어 제공하는 것도 보막이 하루 나간 것으로 간주했다. 금암리 구장(區長)을 지냈고 6.25 전쟁 때는 서탄면 청년단장도 지냈던 송준섭의 부친 송영철은 대략 10여 년 동안 안보 보주를 맡았다. 봇밥에 대한 송준섭의 얘기는 황세연과는 다소 달랐다. 마을 아주머니들 20~30명이 모여 그의 집에서 봇밥을 지어 안보를

막는 곳까지 날랐다. 어린 송준섭은 현장에 가서 보 막는 과정을 구경하고 밥을 먹기도 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봄에 쌀을 걷어서 봇밥을 해먹고 나머지가 있으면 공동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안보
마두리보
회화리보
금암리
서탄119안전센터
서탄중앙교회
서탄농협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서탄우체국
서탄초등학교
서탄중학교
서탄고등학교
서탄여자중학교
서탄여자고등학교
서탄남자중학교
서탄남자고등학교
서탄중앙공원
서탄중앙공원 체육관
서탄중앙공원 축구장
서탄중앙공원 야구장
서탄중앙공원 테니스장
서탄중앙공원 풋살장
서탄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서탄중앙공원 족구장
서탄중앙공원 농구장
서탄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서탄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서탄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서탄중앙공원 다목적체육관
서탄중앙공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서탄중앙공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서탄중앙공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다. 조재관은 물을 푸기 위한 발동기가 서탄면사무소에 30대 가량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발동기들은 주로 조재관이 손질하고 고쳤다. 보수는 별도로 받지 않았고, 서탄면 산업계장한테 양복을 한 벌 얻어 입은 적은 있었다. 면사무소 발동기 뿐만 아니라 마을 소유인 정미소 발동기도 고장나면 그의 손을 거쳤다. 안말 차상석(남, 1957년생)은 "발동기로 물을 퍼 올리는 일은 나중 일이고 그 전에는 용두레나 고리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렸다." 고 했다. 철판을 네모나게 해서 2명이 양쪽에서 푸는 고리 두레박은 2인치 호스를 사용하는 모터 양수기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물을 풀 수 있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날이 가물면 오산천 바닥을 파서 고인 물을 발동기로 퍼올렸고, 발동기는 봇주가 운영했다고 했다.



골안말 참나무 숲으로 흐르는 농수로



안말 남쪽 서탄로 옆을 지나는 농수로

1972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기 전인 1960년대 중반부터 기흥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내려왔다. 수리조합물이 공급되면서 물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농민들은 수세를 부담했다. 차상석은 2천 평 정도 농사지으면 수세로 벼 54kg 정도 냈던 것으로 기억했다. 벼 54kg은 당시 가을 공판 때 벼 1가마 무게였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0년대 말 수세가 폐지되었다.

(2) 농지 소유 관계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를 토대로 작성한 금암리의 토지 소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암리 토지 소유 내역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금암리	금암리	분묘지	1	1,390
		전	1	156
금암리	금암리(신리)	잡종지	2	4,756
금암리	강한봉	답	1	192
		대	2	158
		분묘지	1	240
		전	3	854
금암리	강한승	대	2	419
금암리	김문경	답	2	92
		전	3	1,534
금암리	김병준	답	4	1,515
		분묘지	1	108
		잡종지	1	934
		전	3	2,147
금암리	김영보	답	4	1,582
		대	1	224
		분묘지	1	137
		전	5	3,696
금암리	김원식	답	1	152
		전	3	239
금암리	김정규	전	1	79
금암리	백남준	답	2	159
		전	2	248
금암리	서경옥	대	1	146
		전	3	1,762
금암리	서준필	분묘지	1	137
금암리	서준홍	전	1	174
금암리	송기호	답	3	2,408
		전	6	6,656
금암리	송기호 외3	전	1	944
금암리	송만호	전	2	2,170
금암리	송석호	답	2	1,245
		전	1	1,555
금암리	송양호	전	3	2,289
금암리	송영호	답	4	1,631
		전	3	1,992
금암리	송원호	답	2	2,262
		전	3	1,743
금암리	송윤호	답	2	778
		전	2	1,603
금암리	송종은	전	2	237
금암리	송종현	답	1	235
		전	2	2,183
금암리	송종화	답	1	482
		전	4	2,378
금암리	양공환	전	1	463
금암리	양응환	전	1	149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금암리	양주국	전	3	1,495
금암리	양주익	전	1	250
금암리	양주하	답	2	613
		임야	2	4,010
		전	6	3,258
금암리	유경집	대	1	144
		전	2	660
금암리	유춘일	분묘지	1	42
금암리	이계관	대	1	245
		전	1	614
금암리	이동우	전	1	521
금암리	이보필	답	8	3,623
		대	1	347
		전	3	1,755
금암리	이보협	답	1	974
		전	3	3,467
금암리	이상래	전	1	735
금암리	이선익	전	1	300
금암리	이영휘	답	3	1,774
		대	2	224
		전	1	1,668
금암리	이원삼	대	1	114
금암리	이정수	전	3	609
금암리	이태성	임야	1	500
		전	5	1,404
금암리	이황의	전	4	1,394
금암리	장경진	분묘지	1	815
		전	3	760
금암리	장세경	답	3	1,499
		임야	1	522
		잡종지	1	590
		전	6	4,799
금암리	장세록	임야	2	2,539
		전	3	192
금암리	장세윤	답	3	3,254
		대	2	276
		임야	1	2,118
		전	8	3,681
금암리	장세태	답	2	216
		전	1	1,118
금암리	장세풍	답	1	293
		임야	1	455
		전	1	176
금암리	조경상	답	2	786
		대	1	291
		전	6	2,324
금암리	조달현	전	1	543
금암리	조덕현	답	1	394
		전	3	1,278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금암리	조의직	답	1	92
		전	1	1,139
금암리	조희규	답	1	482
		전	2	604
금암리	조희응	전	1	71
금암리	조희직	답	1	1,474
		전	2	855
금암리	차병도	답	4	1,466
		전	3	1,059
금암리	차병원	답	7	6,657
		대	2	303
		분묘지	1	593
		전	20	11,610
금암리	차병원 외3	분묘지	4	1,970
		임야	1	2,472
금암리	차병준	대	1	124
		분묘지	1	362
		전	1	1,225
금암리	차병진	전	2	905
금암리	차원팔	전	1	88
금암리	차중삼	분묘지	1	1,709
		전	3	890
금암리	최근성	답	15	7,979
		대	2	569
		전	9	7,576
금암리	최장화	대	1	71
금암리	한건석	답	4	3,530
금암리		대	2	797
		전	6	4,331
금암리	한건석 외2	전	1	224
금암리	한경석	답	1	927
		전	1	431
금암리	한경수	전	1	108
금암리	한광리	대	1	114
		전	1	437
금암리	한덕리	대	1	33
		전	1	141
금암리	한범석	답	5	3,370
		대	1	780
		전	11	4,649
금암리	한상균	답	1	536
		대	1	440
		전	3	659
금암리	한상옥	답	2	667
		대	2	381
		전	5	2,004
금암리	한성리	대	1	103
		전	4	2,245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금암리	한성석	임야	1	261
금암리	한성수	대	1	185
		전	5	1,364
금암리	한연수	대	1	165
		잡종지	1	478
		전	4	1,002
금암리	한영교	답	1	386
		대	1	197
		전	2	744
금암리	한영석	답	4	2,845
		대	2	293
		전	5	2,075
금암리	한영수	대	1	245
		전	1	200
금암리	한원교	답	1	975
		대	2	158
		전	7	3,602
금암리	한윤석	답	1	189
		대	1	229
		전	5	2,148
금암리	한은교	답	2	1,192
		대	1	261
		전	5	2,277
금암리	한응수	대	1	145
		전	1	71
금암리	한창수	답	1	964
금암리	한학수	대	1	155
		전	1	245
금암리	한흥수	대	2	471
		임야	1	219
		전	4	1,168
금암리	한희석	대	1	52
		전	1	114
수월암리	강경일	전	1	714
수월암리	강성일	전	1	998
수월암리	우현익	답	1	1,083
		전	1	213
수월암리	최병태	답	6	4,572
		전	4	1,996
회화리	박경선	전	1	1,591
회화리	박경우	전	2	1,686
회화리	송치원	전	1	162
회화리	오세문	답	1	1,269
		전	3	3,012
회화리	이성보	분묘지	1	241
회화리	이호연	답	2	1,814
		전	1	1,295
회화리	장성구	전	1	1,015
회화리	장순명	임야	1	1,377
		전	1	1,287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회화리	정중연	전	1	1,155
회화리	차명수	전	2	726
회화리	차석규	답	1	1,185
		전	1	1,450
회화리	차원준	전	2	1,965
야막리	김만희	전	2	316
야막리	윤교석	전	1	195
야막리	윤교영	임야	1	715
야막리	윤명흠	답	1	1,058
야막리	장재근	답	8	6,882
		대	1	258
		전	11	9,839
적봉리	김재영	대	1	202
		잡종지	2	195
		전	2	810
하북리	이용국	답	1	19
하북리	이용은	대	2	561
		전	2	664
가곡리	최만영	답	1	723
		전	3	1,280
두릉리	한장열	답	9	7,090
		대	1	186
서정리	조동빈	전	2	555
지제리	이면규	답	1	1,285
		전	2	1,955
평택군 동면 남산리	장세학	임야	1	631
수원군 공향면 매안동	고희운	분묘지	1	264
수원군 남면 송곡동	이규병	답	1	201
		대	6	1,075
		전	4	2,750
수원군 남부면 귀천동	이선익	답	7	4,638
		전	5	4,978
수원군 남부면 귀천동	이성규	답	2	732
		전	5	2,732
수원군 남부면 귀천동	이응천	전	1	788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오인묵	답	3	1,993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나중석	답	3	2,999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유춘영	답	2	979
		전	2	1,015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윤교덕	답	10	8,535
		대	8	1,090
		전	6	3,396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이근태	답	5	5,908
		대	2	270
		전	4	3,399
수원군 동북면 신촌	장세원	임야	3	1,085
수원군 북부 진시동	김홍식	답	3	1,433
수원군 상홀면 송산동	정규현	답	1	715
		전	3	5,555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수원군 상홀면 송산동	정범섭	전	1	1,014
수원군 안영면 송산동	박부오	답	1	318
		대	1	86
		전	3	1,570
수원군 안영면 송산동	조봉천	전	2	961
수원군 안영면 송산동	차송은	답	1	162
		대	1	379
		전	2	1,142
수원군 정림면 제기동	김두식	전	1	735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김명현	잡종지	1	425
		전	1	1,399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서성환	답	3	1,452
		임야	1	1,108
수원군 청호면 오산동	이경우	전	4	1,932
수원군 포내면 진목리	손영옥	전	1	189
용인군 기곡면 내서동	김철순	답	6	2,770
경성부	김명근	답	1	932
경성부	김상익	답	2	988
		잡종지	1	1,051
		전	6	3,004
경성부	박대혁	대	1	276
		전	1	690
경성부	박봉규	답	1	288
경성부	신태휴	답	3	2,513
경성부	안흥선	답	1	475
		대	2	1,073
		전	5	3,154
경성부	오정옥	답	1	125
		전	3	1,359
경성부	윤돈구	분묘지	1	462
		임야	4	4,221
		전	2	203
경성부	윤헌영	답	3	1,048
경성부	이건춘	답	3	660
경성부	최계원	답	8	6,370
		전	6	2,776
경성부	홍종억	답	2	1,450
용주사	용주사	답	20	11,836
		대	1	327
		전	4	2,862
국유	국유	답	19	14,768
		분묘지	1	1,221
		임야	2	2,099
		전	13	14,669
남양군	서병두	답	5	3,613
		전	4	2,996
남양군	조존서	대	1	289
		임야	3	6,282
		전	1	812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남양군	조희진외3	답	1	653
		대	1	137
		임야	1	4,788
		전	5	2,131
양평군	이만영	답	11	8,488
		대	6	2,041
		임야	4	4,575
		전	11	2,547
죽산군	정성천	임야	1	940
충청남도 천안군	임봉규	답	3	1,977
충청남도 직산군	한철수	임야	1	1,936
일본인	산구태병위	답	6	4,725
		대	1	131
일본인(금암리)	산전현의	전	3	3,564
일본인	승본희팔랑	전	1	159
일본인	심전여삼병위	대	2	657
		잡종지	2	23,946
		전	1	1,213
일본인	암기구미	답	3	2,218
일본인	평생팔삼랑	답	44	41,216

서울 지주 박대혁(朴大赫)은 모두 94정보(町步)양주군에 전답 48정보, 수원군에 14정보를 소유했으며, 진위군에 32정보의 전답이 있었다.[12] 그는 진위면 하북리에 7,894평의 전답이 있었고, 야막리에는 무려 31,634평을 소유했다. 또한 안흥선(安興善)은 하북리에 잡종지 156평을 포함해서 13,407평, 야막리에 답(畓) 4,291평을 가진 지주였다.

용주사는 1938년 기준으로 수원군에서 10정보의 전답을 소유했고, 진위군에는 무려 48정보의 농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13] 그러나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 내용상으로는 금암리 14,698평, 회화리 240,565평, 진위면 하북리 29,958평, 야막리 95,817평으로, 이 4개 마을을 합하면 용주사 소유 농지가 모두 381,038평으로 127정보에 해당한다.

심전여삼병위(深田與三兵衛)는 1913년 ‘금암리 28번지’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진위흥농주식회사의 대표였으며, 하북리에 잡종지 154,613평, 밭 196,673평, 논 6,424평을 갖고 있었다. 그가 금암리에서 소유했던 잡종지 23,946평은 금암 전체 잡종지 32,375평 가운데 73.96%이다. 반면에 회화리에는 밭 2필지 2,075평이 있고, 진위면 야막리와 동천리에 소유한 토지는 없다. 또한 미시비씨[三菱] 창업자 암기미태랑(岩崎彌太郎)의 장남인 암기구미 역시 진위면 하북리에 밭 2,006평과 논 19,366평, 야막리에 밭 7,578평과 논 32,375평을 소유한 대지주였다. 그는 평택을 포함하여 수원, 용인, 시흥, 안성 등지에 1800여 정보의 토지를 보유한 대규모 도잔농장[東山農場]을 설립한 인물이다.[14] 한편, 금암리에 159평 넓이의 밭 1필지를 갖고 있었던 승본희팔랑은 회화리에 임야 4,536평, 밭 315평을 비롯하여 잡종지 123,859평이 있었다.

각 소유주의 거주지별로 합계를 산출한 토지 소유 상황은 아래와 같다.[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부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97쪽.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의 책, 144쪽.
14) 『평택시사신문』, 2021년 6월 22일.
15) 공동명의로 소유한 토지는 인원수를 1로 계산하였음.

금암리 토지에 대한 지역별 소유 상황

거주지	전			답			잡종지			대지		
	인원	필지	면적(평)	인원	필지	면적(평)	인원	필지	면적(평)	인원	필지	면적(평)
금암리	79	243	124,513	40	107	59,890	4	5	6,758	34	45	8,859
수월암	4	7	3,921	2	7	5,655	·	·	·	·	·	·
회화리	11	16	15,344	3	4	4,268	·	·	·	·	·	·
야막리	3	14	10,350	2	9	7,940	·	·	·	1	1	258
적봉리	1	2	810	·	·	·	1	2	195	1	1	202
하북리	1	2	664	1	1	19	·	·	·	1	2	561
가곡리	1	3	1,280	1	1	723	·	·	·	·	·	·
두릉리	·	·	·	1	9	7090	·	·	·	1	1	186
서정리	1	2	555	·	·	·	·	·	·	·	·	·
지제리	1	2	1,955	1	1	1,285	·	·	·	·	·	·
용주사	1	4	2,862	1	20	11,836	·	·	·	1	1	327
수원군	16	45	33,555	13	48	30,065	1	1	425	5	18	2,900
용인군	·	·	·	1	6	2,770	·	·	·	·	·	·
경성부	6	23	11,186	10	25	14,849	1	1	1,051	1	3	1,349
국유지	1	13	14,669	1	19	14768	·	·	·	·	·	·
남양군	3	10	5,939	2	6	4,266	·	·	·	2	2	426
양평군	1	11	2,547	1	11	8,488	·	·	·	1	6	2,041
충남 천안군	·	·	·	1	3	1,977	·	·	·	·	·	·
일본인	3	5	4,936	2	53	48,159	1	2	23,946	2	3	788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암리 및 인근 마을 거주자, 서울 거주자, 원거리 거주자, 일본인으로 분류해 본 각 거주지별 토지 소유 비율은 아래와 같다.

금암리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53.39	26.57	49.50	20.87	

서탄면 인근마을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수월암리, 회화리, 야막리, 적봉리)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13.05	7.92	2.57	0.60	

서탄면 외 인근 마을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하북, 가곡, 두릉, 서정, 지제)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1.91	4.04	4.17	0	

국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6.29	6.55	0	0	

용주사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1.23	5.25	1.83	0	

서울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4.80	6.59	7.54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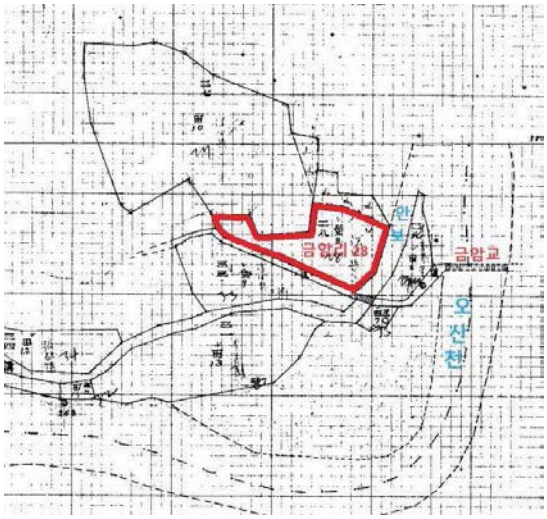
서울 이외의 원거리 거주자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3.64	6.53	13.78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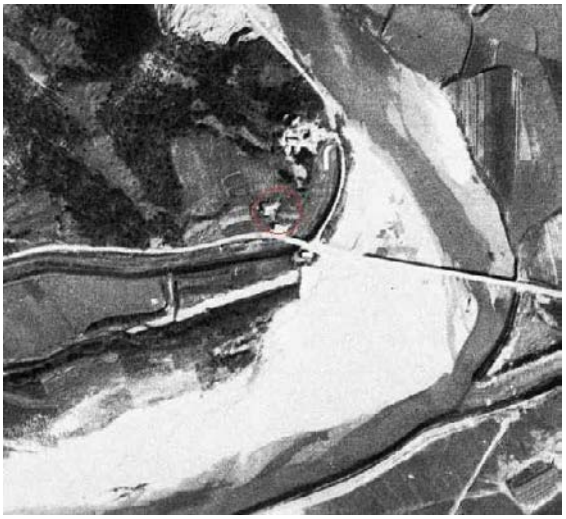
일본인 소유 토지 비율

지목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비율(%)	2.12	21.36	4.40	73.96	

(3) 진위흥농주식회사(振威興農株式會社)



진위흥농이 자리한 금암리 28(1911년 지적도)


진위흥농으로 추정되는 건물(1967년 항공사진

안성천과 진위천 주변으로 미개간지가 많았던 평택은 일본인이 이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이에 일본 도쿄에 본점을 둔 한국흥업주식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회사 뿐만 아니라 나베시마 나오미쓰[鍋島直映], 미나베 사다이찌[眞鍋貞一], 오오다케 구지로[大獄久治郎]처럼 개인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16)]

1913년 8월 심전여삼병위 외 9명이 진위흥농주식회사(이하 진위흥농)를 설립했다. 대표는 심전여삼병위가 맡았다. 본점 주소는 ‘금암리 28’로 현재 칠성고분자 회사 입구 자리이다. 설립 허가시 자본금

16) 『평택시사신문』, 2021년 6월 22일.

은 5만엔이었으며, 농업경영과 식수(殖樹) 가축 사육, 농사에 필요한 자금 대부, 농산물 매매 등을 했다.[17] 진위흥농은 1935년 7월에 해산되는데, 해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전답(田畓) 44만 8천평에 이르렀다. 회사가 소유했던 토지는 2배 여 명의 소작인들에게 염가로 팔기로 했다. 토지 가격은 당시 시가로 8만 8천 원 정도였다.



二百作人에게
土地를拂下
散하게된振威興農會社에서
四十四萬坪을廉價로

진위흥농 해산 기사
(『동아일보』, 1935.07.03.)



진위흥농 터의 현재 모습

진위흥농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안말 차종화(남, 1936년생)는 "칠성고분자리에 일본식 집은 일본인이 건축을 했고 일본인이 살았다."고 했다. 차종화가 어렸을 때 자그마한 일본식 집 마당에 새 둥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과 이 집에 살았던 일본인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장면도 보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다만 "해방되기 전에 금암교 자리에서 오산천을 건너는 배를 운영했던 한국 사람이 들어와 살다가 오산시 부산동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안말 임광래는 "칠성고분자리에 황무지였던 하북2리 대정촌을 개간하기 위한 회사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가 본 장면은 한길씩 되는 측백나무 울타리가 주택 전체를 둘러 있는 모습이다. 임광래는 이 집이 '대정촌 개발 회사의 관리 사택'이라고 했다.

(4) 논농사

농사는 대보름이 지나고 논에 퇴비를 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퇴비는 돼지와 소 우리에서 나오는 거름을 주로 이용했고, 이것으로 퇴비가 부족한 집은 산이나 들의 풀을 깎아 퇴비를 만들었다. 안말의 차상석(남, 1957년생)은 하다못해 길을 가다 개똥이라도 보면 주워다가 퇴비 더미에 던져놓았다고 했다. 차상석이 서탄초등학교 재학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인분을 지게로 퍼 갔다. 보리를 밟아준 다음 새움이 틀 무렵에 인분을 보리밭에 뿌리거나 부엌 아궁에서 꺼낸 재와 인분을 섞어 거름을 만들었다.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은 주로 소 마굿간을 치면 나오는 부산물을 쌓아서 거름을 만들었다.

17) 『조선총독부관보』(제278호), 1913년 7월 4일.



금암리 농업의 주요 기반이 되는 벌판


안말 남쪽의 해정들

새말의 문운경(남, 1944년생)은 이른바 ‘똥재’ 거름을 얘기했다. 우선 아궁이에서 꺼낸 재를 헛간에 차곡차곡 쌓는다. 변소에 쌓인 인분에 물을 퍼부어 양을 늘리고 물과 인분을 썩힌 다음 이것을 퍼다가 헛간의 재 위에 끼얹고 삽으로 뒤집으며 섞는다. 이렇게 만든 거름은 주로 보리 심을 때 비료 뿌리듯이 골에다 뿌렸다. 문운경은 똥재가 최고의 거름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최고의 퇴비는 계분과 인분이었다.

마땅한 운송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퇴비는 주로 지게에 지고 날랐다. 안말의 차상석이 어렸을 때는 마차를 소유한 집이 서너 집밖에 안 되었고 들판에 마차가 들어갈 정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소가 있는 집은 퇴비를 길마에 싣고 나갔다.

수확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비료는 넉넉하지 않았다. 농협에서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비료는 요소 외에 중과석, 염화가리, 유안 등을 섞어서 저울로 달아 이장을 통해 분배되었다. 골안말 출신의 황세연(남, 1933년생)은 1970년대 초반 이장을 보면서 서정리 농협까지 가서 비료를 타다가 각자 소유한 농지의 넓이에 비례해서 나눠줬다. 비료 양은 턱없이 부족했고, 퇴비 또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150평 한 마지기에 두 가마(양석) 나오면 풍년이라고 했다. 새말의 문운경(남, 1944년생)은 당시 비료는 농협 조합원들만 받을 수 있었으며, 농협 이외의 경로로 구입하면 요소 1가마가 쌀 1가마 가격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1972년 직접 쌀 1가마 가지고 요소 1가마를 사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

퇴비를 내고 난 다음에는 논에 물을 가두어야 한다. 물을 가두기 위해 가래질을 해가면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논두렁을 만들거나 보수했다. 양력 2월 말에서 3월 초순 경 살어름을 깨면서 작업했다. 논둑을 만들어 논에 물을 계속 가두면서 5월 중순 경에 쟁기질을 한다. 물을 가둬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갈이’라고 불렀다. 물을 가두기 어려운 논은 물 없이 ‘마른갈이’로 갈았다. 볍씨를 뿌리는 못자리는 5월 10일경에 만들었고, 모판에서 대략 35일 정도 모를 키운 다음 6월 10일 전후에는 모내기가 시작된다.



모내기를 마친 안말 남쪽 들판



벼가 익어가는 새말 앞 들판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비가 잘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면 물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차상석은 "삼촌지간에도 물 대고 그럴 때는 그냥 막 쌈박질한다"는 옛 얘기를 소개했다. 금암리는 오산천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물 사정이 나아서 모내기 시기를 놓쳐 뒤늦게 호미모를 심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물이 잘 나지 않는 산골짜기 논은 마냥모를 심었다. 차상석은 "호미모는 비가 조금 와서 물이 별로 없을 때 호미로 파서 심는 방식이고, 마냥모는 모 심는 시기를 놓쳐 7월 장맛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아서 심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마냥모는 키가 자란 벼를 자르거나 벼 이삭이 밴 것을 뽑아버리고 심었다. 키가 큰 것을 자르지 않고 그냥 심으면 원대는 죽고 곁으로 새끼 친 벼가 자란다. 한도희는 마냥모를 심으면 수확량이 1마지기에 5말에 못 미친다고 했다. 마냥모 심는 시기도 놓치면 메밀을 심었다.

오산천을 막은 보의 물이 마두리 정도까지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두리 서쪽 들판은 황무지였거나 수수 같은 작물만 심을 수 있었다. 농지 정리가 이루어지고 수리조합 물이 들어가면서 서쪽 들판에서도 비로소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차상석에 의하면, 못줄을 놓으면서 모내기 하는 방식은 1960년대 말 쯤에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판장모를 심거나 막모를 심었다. 판장모는 논의 구역을 나눠 미리 줄을 띠어놓은 다음 구역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모를 심는 방식이다. 판장모는 한 구역에 한 사람씩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여 모내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 막모는 주로 마냥모를 심을 때 줄 띠지 않고 막 심는 방법이었다.

모내기 후에는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논 매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른 지역처럼 금암리에서도 음력 7월 백중 전에 애벌매기, 두벌매기, 훔치기의 과정을 거쳤고, 논매기가 모두 끝난 후에는 피를 뽑는 피사리를 했다. 안말의 차종화(남, 1936년생)는 모내기 후 15일 후 애벌매기를 하고, 다시 10~15일 후에 두벌매기, 15일 후에 훔치기를 했다. 일이 모두 끝나면 말복쯤 되었다.

가을에 벼가 익으면 품앗이로 벼베기를 했다. 벼를 베어 세 주먹씩 모아서 논 바닥에 깔거나 볏단을 묶어서 논둑에다 죽 세워놓았다. 볏단을 죽 세워 놓는 것을 차상석은 '줄가리'라고 표현했다. 모둠 모둠 논바닥에 깔아놓은 벼도 어느 정도 마르면 볏단으로 묶었다. 벼가 어느 정도 마르면 지게로 지거나 소의 길마, 또는 마차에 실어서 집 마당으로 끌어들여 쌓아 놓은 다음 타작(탈곡)을 했다. 모내기나 논매기와 마찬가지로 타작도 품앗이로 했다. 탈곡은 쇠로 빗살같이 만든 그네에 훑었다가 발로 밟아 통을 돌리면서 작업하는 궁글레통으로 바뀌었다. 차종화(남, 1936년생)는 남의 궁글레통을 빌리면 그 주인집 일을 하루 해줬다. 이후 발동기를 돌려 탈곡하는 기계 탈곡기가 등장했다. 차상석에 의하면 조재윤(1933년생인 조재관의 형님)이 안말에서 탈곡기를 제일 먼저 사용했다. 새말의 한도희는 그네로 하다가 궁글

레통으로 바뀌었고, 경운기가 나오면서 탈곡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탈곡 방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안말에서 평생을 살아온 조재관



1972년 새말로 이주한 문운경

화학 비료가 넉넉하게 보급되기 전에 가뭄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수확량은 지금의 2/3 수준이었다. 조재관은 “150평 1마지기에 쌀 양석(2가마)이 나면 농사를 잘 지은 것이지만 옛날에는 거름이 적어서 양석 나기도 쉽지 않았다.” 고 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에 의하면 고라실 논은 양석이 났지만, 들판 논은 1마지기에 1가마 나오기도 힘들었다. 문운경은 “비료를 안 주면 양석도 먹 먹고 대석도 못먹지” 라고 했다. 그래서 쌀 1가마를 빚을 얻어서라도 비료를 구해야 했다. 안말의 차상석도 1마지지에 농사 잘 지으면 양석을 수확하지만 못 짓는 사람들은 대석(1가마)가지만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상석은 통일벼를 재배하면서 수확량이 이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했다. 그 이전에는 백금, 다마금, 팔달, 농림입고 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1973년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정부가 통일벼 재배를 강요했다. 면서기들을 동원해서 통일벼가 아닌 못자리는 짓밟고 다시 통일벼를 심도록 했다. 통일벼는 1마지기에 최하 4가마 정도로 수확량이 크게 늘었지만 밥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래 재배하지는 않았다. 이후 일본어 발음인 아카바리로 많이 알려진 추정이라는 품종이 보급되었다. 추청은 수확량이 통일벼만큼은 안 되지만 이전보다 많이 늘어서 150평 1마지기에 대략 세 가마 정도 나왔다.

현재 150평으로 따지면 세 가마를 약간 웃도는 정도의 수확을 올리고 있다. 새말의 문운경은 옛날 농지정리 직후에는 1,200평 한 구간 소출량이 많아야 18가마였는데, 현재는 보통 25가마 이상이 나오고, 잘 지으면 30가마도 나온다고 했다.

안말 차상석에 의하면 현재 금암리 농민들의 95% 이상은 농협과 계약 재배로 벼농사를 짓는다. 그는 2021년 이전에는 수매가 계약재배보다 벼 40kg당 1천 원 정도 이득이었는데, 작년(2022)의 경우 계약이 오히려 이득이었다고 했다.

(5) 밭농사

금암리에서는 논에 벼를 심고 밭는 보리와 밀을 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황세연(남, 1933년생)은 금암리에서 이모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밭에 심었다고 했다. 만일 논에 보리를 심으면 모

내기 하는 시기가 늦어서 봇물을 확보할 수가 없었었다. 봇물은 모내기 하는 논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모내기가 늦으면 봇물이 지나쳐버리기 때문이다. 새말의 한도희 역시 “이모작은 거의 안 했고, 보리와 밀은 밭에 심었다.”고 했다. 이러한 기억과는 달리 안말의 차상석은 “옛날에 먹고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물이 나지 않는 논에는 보리와 벼를 번갈아 심는 이모작을 했다.”고 말했다. 차상석의 기억으로는 1975~6년 무렵까지는 이모작을 했다. 양자(兩者)의 기억을 종합하면 모내기가 힘든 논에는 보리와 밀을 심었던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거나 물이 나는 논은 벼만 심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밭에는 대부분 보리와 밀, 밭벼를 심었다. 한방자(여, 1941년생)는 밭벼는 찰벼 종류를 많이 심었다고 했다. 배추나 무, 고추 같은 채소류와 깨 등은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심었다. 1970년대 이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식량 확보였다. 따라서 밭에는 쌀을 대신해서 식량을 할 수 있는 보리와 밀, 콩을 주로 재배했다. 차상석(남, 1957년생)은 보리, 밀, 콩이 99%라고 했다.

가을에 보리와 밀을 심으면 한겨울이 지나고 2월쯤이 되면 인분을 퍼다 보리나 밀밭에 끼얹는 것으로 시비를 했다. 6월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밭에는 다시 주로 콩을 심었다. 수확한 보리와 밀은 ‘자리개질’이라는 방법으로 탈곡했다. 자리개질은 보리를 베어서 끈으로 단을 묶어 절구통에 두드려 패는 방식이다. 가을에 심어 늦봄에 수확하는 가을 보리는 자리개질로 탈곡이 잘 되지만,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봄보리는 자리개질을 하면 이삭이 톡톡 부러지기 때문에 자리개질을 한 후에 다시 도리깨로 두드려야 했다.

(6) 노동 관행과 농기계 도입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집안 일을 하고 남자들이 바깥일을 맡았다. 하지만 여자들이 들일은 나가는 것은 집안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다. 가난할 경우에는 결혼 직후부터 나가지만, 넉넉한 집안은 몇 년 후에 들일을 했다. 김상숙(여, 1944년생)은 25세에 골안말로 시집와서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경험했다. 친청 동네에서 딸들은 바깥에 안 내보내고 살림만 시켰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성환에 있었던 조양성냥 공장 같은 데를 다녔지만, 당시는 여자들 공장에 다니면 버린다고 해서 잘 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호미질, 도리깨질이 서툴러서 시어머니께 야단도 많이 맞았다. 한방자(1941년생)은 “논일은 남자들이 했고, 밭일은 여자들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도 들일은 주로 남자들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젊은 여자들은 들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밭매는 일을 했다. 그는 “모내기 하는 일이나 밭에 김매는 일도 대부분 남자들 몫이었으며, 근래에 와서야 여자들이 모내기나 밭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972년 전라남도영광에서 새말로 이주한 문운경(남, 1944년생)은 남쪽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논일을 다 하고 여자들은 주로 밭일을 했는데, 새말에 오니까 논일과 밭일을 모두 남자들이 해서 처음에는 의아했다. 반면에 안말 차종화는 “여자들의 경우 부유한 집은 들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했으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모심기 등 농사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했다. 농사에 대한 남녀의 역할은 집안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랐다는 말이다.

안말의 차종화(남, 1936년생)는 150평 기준으로 20마지기 이상이면 머슴을 두었다고 했다. 머슴은 쟁기질부터 모든 농사일에 능한 상몸(상일꾼, 상머슴)이 쌀 12가마를 받았다. 그 다음이 10가마, 8가마 순이었다. 그때 농지 값이 쌌기 때문에 머슴 새경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반면에 새말의 한도희

는 1970년대 머슴은 보통 5가마 정도를 받았고, 쇳일을 할 수 있는 상일꾼의 경우 8가마를 받았다고 했다. 어린 나이의 머슴은 한 가마를 받고, 세 가마도 받았다. 머슴들에게는 여름에 광목 중의적삼(남자의 여름 홑바지와 홑저고리) 1벌을 해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농사철에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쌀 1가마를 빌리면 5일을 노동으로 갚았다. 차종화는 이것을 ‘군품’이라고 불렀다. 어려운 사람이 쌀 3∽4가마를 빌려다 먹으면 여름 내내 머슴 살 듯 일해야 했다. 반면에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쌀 1말에 7~8일 일을 해줬다고 했고, 문운경(남, 1944년생)이 이사왔던 1972년 무렵에는 5일이었다. 1972년 새말로 이사한 문운경은 당시 이 마을에 세들어 살면서 품을 파는 집이 7~8가구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그때 하루 품값이 많아야 쌀 2되 값 정도였는데, 당시 쌀 1가마 가격은 5천원으로 기억했다. 그는 그 무렵 농협 출자가 쌀 1가마였는데, 돈으로는 5천 원이었다는 기억의 근거를 제시했다. 품 파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했다. 주로 전라도 쪽 여자들이 모내기 철이면 많이 왔는데, 그들은 미역을 갖고 와서 팔면서 모내기가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곤 했다.

경지정리 되기 전에는 경운기가 없어서 논 가는 일은 모두 소를 이용했다. 농사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쟁기질과 써레질을 하는 이른바 ‘쇳일’이었다. 안말 차상석(남, 1957년생)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쇳일을 눈여겨 보면서 연습해서 14세 때부터 시작했다. 그는 쇳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어서 자신보다 10년 연상인 선배가 농사지으면서도 쇳일을 못해 자신이 대신 해줬다고 했다. 그가 14세에 쟁기질을 할 때는 너무 어려서 힘이 달렸기 때문에 20세 가량 되는 사람들이 쟁기를 논까지 지게에 지고 갖다줘야 했다. 장태용(남, 1951년생)은 20세 무렵부터 쟁기질을 시작했다. 그는 10대 후반에는 쟁기질이 힘들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20세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금암1리인 골안말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작목반이 구성되었지만 2리인 안말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안말 작업반은 모내기 할 때만 운영되었다. 새말 역시 문운경(남, 1944년생)이 이사 들어온 1972년 이후에 작업반이 만들어졌고, 모내기 할 때 작업반이 움직였다. 작업반은 농사짓는 집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구성해서 새말에 몇 개의 작업반을 만들었다. 문운경은 작업반이 만들어지면서 품파는 사람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쟁기와 삽, 괭이, 호미 등 전통적인 농기계로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 보급은 농지 정리 후 들어온 경운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말에는 장태용 이장이 1970년대 초반에 경운기를 처음 구입했다. 같은 마을에 살고있는 차상석은 당시 경운기 가격이 150~60만 원 정도로 기억했다. 새말에서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한우희가 경운기를 제일 먼저 들여왔다. 경운기로는 갈고 써리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어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1980년대 트랙터에 이어 이앙기와 콤바인이 보급되면서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안말의 차상석은 22세 되었을 무렵에 130만 원 정도로 이앙기를 구입했다. 이앙기가 들어오면서 작업반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 차상석은 현재 이앙기 1대로 하루 1만 평의 모내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7) 시설농업



금암리 앞 들판의 비닐하우스 시설

진위면과 서탄면 일대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농은 야막리와 대정촌이 선구적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이 두 마을에서 시작된 시설 채소 재배가 지금은 주변으로 확산되었다. 야막리 시설 채소 재배의 선구자인 김형주가 지금은 마두리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하다.

조희상(남, 1960년생)은 서탄면 시설 재배는 골안말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 전후 처음에 두 집이 하다가 점점 늘어나 한두 집을 제외하고 골안말 대부분 농가가 시설 재배에 뛰어들었다. 조희상도 1983년에 시작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시설 재배 경작지는 하북2리 대정촌 서쪽과 서탄 야구장 서쪽 들판에 분포되었다.

안말의 장태용(남, 1951년생)은 1984년부터 기르던 젖소를 1990년에 처분하고 배추 재배를 시작했다. 당시는 하북리와 야막리에서 시설채소 재배가 성했고 금암리 쪽으로는 별로 없었다. 현재 1,200평의 비닐하우스에 방울토마토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농의 수익이 좋았지만 최근에 농자재 값과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라 지금은 큰 소득이 안 되고 잘해야 본전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코로나로 외국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최저 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장태용은 현재 외국인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한 달에 2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비용 상승과 더불어 시설농 자체가 확대되는 현상도 수익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농산물 생산량이 적성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시설농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대규모 하우스 시설이 생기면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장태용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모종 심는 시기를 조절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1~2월에 정식(定植)을 하지만 그는 4월 초에 정식을 하여 출하 시기를 늦춰 6월에 수확해서 가격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다.



방울토마토를 선별하는 장태용



장태용의 방울토마토 농장

(8) 도정시설

근대 시설이 도입되기 전에 디딜방아와 연자방아를 이용했다. 안말과 새말에는 각각 디딜방아가 있었고, 골안말에서 연자방아가 있었다. 새말 디딜방아는 한각수 개인 소유로 그의 집 옆에 있었다. 골안말 한방자(여, 1940년생)는 “마을에 디딜방아는 없었고, 연자방아에 쓰이는 돌 한 짝만 봤다.” 고 말했다. 이 돌은 마을회관 옆집 마당에 있었지만, 지금 생존한 노인들은 연자방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지를 못해서 알 수는 없다. 같은 마을의 이장헌(여, 1935년생)은 1950년 시집왔을 때 마당에 연자방아가 있었지만 사용한 것을 본적은 없다고 했다. 안말 마을회관 앞에 있는 연자방아도 마을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한방자는 골안말 정미소는 지금의 마을회관 뒷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차렸으나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없어져서 이후로는 안말 방앗간을 이용했다.” 고 말했다. 안말 방앗간은 국수틀도 있어 골안말 사람들이 국수도 빼왔다. 고추방아는 오산장에 가서 찧었다. 반면에 1970년대 초반에 골안말 이장을 지냈던 황세연(남, 1933년생)은 골안말 정미소가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황세연에 의하면 이 정미소는 서탄면 사업계장을 지낸 양태홍이 처음 시작했다. 봄에 수확하는 밀과 보리 방아는 여름에만 찧었다. 황세연은낮에 품을 팔고 밤에는 이 정미소에서 일했다. 안말 정미소에서는 황세연과 그보다 연배인 이정휴, 두 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정휴는 기계를 만지는 기술이 있어서 앉아서 방아 찧는 일을 맡고, 황세연은 방아 찧을 곡식을 지게로 져오는 일을 담당했다. 그때는 곡식 주인이 직접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미소에거 가져오고, 다 찧으면 갖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힘든 일을 맡았지만 이정휴가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품삯은 더 많이 받았다. 골안말 정미소에서는 너되 반의 방아삯을 떴는데, 이것이 비싸다고 안말 방앗간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 황세연은 “안말 방앗간도 삯은 골안말 방앗간과 비슷했지만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기를 부린 것” 이라고 했다.



금암1리 골안말 정미소와 연자방아



금암2리 안말 정미소



금암3리 새말 정미소와 디딜방아


금암2리 마을회관 앞에 놓인 연자방아

안말 방앗간은 '금암2길 93-17(금암리 473-2)' 에 있었다. 이 방앗간은 야리에서 안말로 이주한 임광래(남, 1938년생)의 모친 운영하다가 협동조합에 넘겼는데 다시 마두2리 출신의 임동순이 매입해서 폐쇄시켰다고 했다. 임동순은 내천2리에 현대식 정미소를 크게 짓고 서탄면 일대 정미소를 모두 매입해서 폐쇄했다.

차상석(남, 1957년생)은 안말 정미소에 대해 임광래와는 다르게 얘기했다. 그는 이 방앗간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했는데, 처음에 개인이 운영했다가 마을 조합으로 넘어갔다. 마을 조합에서 인수해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안말 출신인 송인호에게 넘겼다. 송인호 다음으로 부천 출신 인물이 3년 정도 소유했다가 차상석 소유가 되었다. 그는 1985~6년 무렵 2천7백만 원을 들여 안말 정미소를 인수했다. 당시 1,200평짜리 논 1구간이 480만 원이었다. 차상석이 안말 정미소를 인수해서 운영할 무렵에 금암 3리인 새말에도 정미소가 있었으나, 골안말 정미소는 이전에 없어져서 대부분 안말 정미소를 이용했다. 그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받은 방아삯은 쌀 1가마에 2되 반이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면 대략 쌀 150가마 정도의 수입이 되었고, 논농사와 비교하면 논 70마지기 수확량과 비슷했다. 차상석이 운영하던 정미소가 폐쇄된 1991년 이후 골안말과 안말 사람들은 마두리나 회화리의 정미소를 이용했다.

한도희(남, 1938년생)에 의하면 6·25 전쟁이 끝난 후 새말에 정미소가 들어섰다. 새말 정미소는 '금암리 547-4' 에 있었으며 이 마을 출신인 한우희가 운영했다. 새말 방앗간에서는 벼와 보리, 밀을 도정했고, 방아삯은 쌀 1가마에 닷 되 정도였다. 한도희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정미소가 없어서 벼를 지게에 지고 적봉리로 다녔다고 했다. 벼나 보리를 지게에 지고 회화리와 야리를 지나 적봉리 정미소까지 걸어

가는 데 1시간 가량 걸렸다. 보리는 쌀보다 무거워서 더 힘이 들었다. 안말의 임광래는 적봉리에 정부미를 찧는 큰 규모의 영단 방앗간이 있었다고 했다. 이 방앗간은 임광래보다 3~4년 선배인 유전개가 운영했는데 미군기지로 수용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유전개는 오성면으로 이주했다. 한도희는 옛날에는 정미소에서 벼와 보리, 밀방아만 찧었고 고추는 절구에 빻았다고 했다. 고추장을 담그려고 곱게 빻는 고춧가루도 절구를 이용했다. 떡방아도 절구에 찧어서 체로 쳤다. 6·25 전쟁 후에는 고추방아와 떡방아를 찧으러 송탄쪽 방앗간으로 다녔다. 새말에서 골안말-대정촌-구장터-부대 정문앞 코스로 걸어가면 1시간쯤 걸렸다.

현재는 대부분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협 정미소로 출하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정미소는 하나도 없다. 새말의 경우 전업농 16가구가 모두 100%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2) 축산업

현재 골안말 내에는 축사가 없으나 예전에는 여러 집에서 젖소를 길렀다. 최국자(여, 1938년생)네 집에서 5마리를 조금 넘게 길렀고, 김상숙(여, 1944년생)의 집에서 8마리를 길렀다. 최국자가 처음 젖소를 기를 때 골안말에서 3가구 정도가 보통 5~8마리를 마당에서 키웠다. 초창기에는 서울우유에 납품했다. 우유를 담은 통을 리어카에다 싣고 마을 진입로 큰길까지 나가면 트럭이 와서 싣고 갔다. 이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말 이장인 장태용(남, 1951년생)은 1985년 젖소 8마리를 구입했다. 젖소를 구입하기 전 30세 전후부터 5년 동안 매일유업 회사에 다닌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1970년대 말 1980년 무렵 젖소 1마리 가격이 300~400만 원이 나갔다. 이는 경지정리 된 논 1구간(1,200평)을 처분해도 젖소 2마리를 살 수 없었다. 젖소를 키우면 수입이 좋아서 안말에도 젖소를 먹이는 농가가 8~10가구 정도로 늘었다. 보통 7~8마리를 마당에서 키웠다. 그런데 4년 후인 1984년 무렵 우윳값과 소값 파동으로 젖소 가격이 폭락했다. 소값 폭락으로 이전에 젖소를 비싸게 구입해서 결국 땅까지 팔아야 했던 농민들도 여러 명 있었다. 농협에서 대출받은 영농 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불어나 결국 땅을 처분했던 것이다. 젖소 값이 많이 떨어진 1984년, 장태용은 안성시 삼죽면에 가서 젖소 6마리를 불과 4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우유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어서 그때 시세에 비해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 마땅히 소를 먹일만한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키웠는데 자리가 좁아 소들의 싸움이 잦았다. 결국 1990년 소를 모두 처분하여 1,500만원을 받았다. 젖소를 모두 판 후에는 배추 농사를 시작했다.

새말에서는 8가구 정도가 젖소를 길렀다. 한 집에 보통 7~8마리를 길렀고 서울우유와 매일 우유에 납품했다. 한도희는 7~8마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20마리까지 늘렸으나 일이 매우 힘들었고 폐수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만두었다. 새말에서는 모두 서울우유에 납품했다. 전소는 유방염이 많이 걸렸는데, 잘못해서 유방염이 걸리면 우유를 짜서 모두 버려야 했다.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어도 납품이 불가능했다. 소 위가 꼬이는 일이 벌어지면 수의사를 불러 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수술도 해야 했다. 수술비용으로 30만 원 이상 들어갔다. 1980년 무렵 송아지 1마리가 50만 원이었는데, 전위수술을 하면 송아지 1마리 값이 거의 다 들어갔던 것이다. 문운경은 젖소를 키울 때 소똥을 치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고 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똥을 치워야 하고 또 사료를 먹여야 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이 바빴다. 젖소 키우는 일도 힘든데다가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서 대부분 그만두었다. 한도희는 현재 새말에서는 한유희 1집만 젖소 40~5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젖소를 키우던 축사를 개조한 장소에서 휴식을 즐기는 한도희와 이웃 사람들

골안말에서 태어나 현재 창덕골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조희상(남, 1960년생)은 대학에서 축산업을 전공하고 1983년부터 젖소를 키웠다. 그는 1980년도부터 골안말에서 젖소를 먹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두세 집이 마당 한 켠에서 3마리에서 5마리씩 먹이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3마리 정도만 키워서 젖을 짜도 아이들 대학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좋았다. 젖소 값도 비싸서 당시 평당 몇 천 원 하는 논 1,200평 한 구간을 팔아야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 소값은 비쌌지만 세 마리만 키우면 실컷 먹고 쓸 수 있었다. 당시 골안말에는 오산쪽에서 들어와 머슴을 고용하여 젖소 20마리를 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당시에 사장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입이 많았다. 그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은 마당 한 켠에다 아카시아 나무를 베다가 철사로 묶어서 우리를 만들어 소 2~3마리를 가두어 키웠다. 그렇게 키운 집이 10집까지 늘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소규모는 가능했지만 10마리가 넘어서면 마을에서는 더 이상 키우기 어렵고 마을 밖으로 나와야 했다. 넓은 부지도 필요했지만 분뇨에서 나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산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농가 여덟 가구가 창덕골로 이주했다.

창덕골은 원래 마을 앞 들판에 이어서 경지정리를 했고, 농업진흥구역에 속했었다. 농업진흥구역은 지목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마을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까 평택시에서 특별히 지목 변경을 허가하여 축산업 농가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상은 들판에 본인 소유 농지 1,600평이 있어서 거기로 가기를 원했으나 지목 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창덕골로 들어왔다. 처음에 여덟 가구가 들어왔으나 지금은 목장이 5군데 있으며 4군데가 젖소, 1군데에서 한우를 기른다.



농업진흥지역인 창덕골에 들어선 목장들


젖소 100여 마리를 기르는 조희상

초창기에 서울우유, 매일우유, 서주우유 등 여러 회사로 우류를 납품했다. 그때는 냉동차가 없어서 스텐레스 통에 담아 놓으면 화물차에다 수거해서 싣고 갔다. 지금은 냉동 시설을 갖춘 집유차가 와서 모아 놓은 우유를 흡입해 가는 방식이다. 목장에서 기를 수 있는 소의 두수는 납유량 쿼터에 맞춘다. 쿼터량을 초과한 우유를 납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1kg의 쿼터를 갖고 있으면 1년간 평균해서 하루 1kg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소 한 마리당 많을 경우 40kg에서 최고 70kg까지도 짤 수 있지만 보통은 25~30kg으로 본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서울우유는 이렇게 연간 평균으로 잡지만, 남양이나 매일우류 같은 일반 기업은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당일 기준으로 납품을 받는다. 일반 기업에 납품하는 농가에서는 납품 당일에 쿼터량을 초과한 우유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농가별로 쿼터량을 정하는 것은 젖소 사육을 억제하는 정책이므로 젖소의 숫자를 늘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쿼터를 사야 한다. 현재는 ‘1kg/1일’ 납품할 수 있는 쿼터량이 50~60만원 정도 나간다. 그런데 실제로 기르는 소의 숫자는 젖을 못 짜는 경우를 대비해 쿼터량 기준으로 30% 정도 웃돈다. 가령 쿼터량 기준으로 100마리 정도라면 130마리 정도를 키워서 연평균 쿼터량을 맞추는 것이다.

한때 쿼터량이 1,600kg까지 될 정도로 젖소를 키웠던 조희상은 현재 1,300kg에 맞추어 100여 마리를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다. 이보다 늘리면 일꾼을 고용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월 200~300만원에 이르고, 진득하게 붙어있는 외국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부부끼리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이다. 우유 납품 단가는 1,100~1,200원 정도 되는데 요즘 사료값이 폭등하는 등 비용이 너무 올라서 순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4) 상업 및 유통

(1) 가게와 술집

금암리에서 가게와 술집이 처음 들어선 곳은 서탄면사무소와 서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 기억으로는 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 안말 사람이 운영하는 학용품과 담배, 과자류 등을 파는 가게 하나가 있었다. 이후 가게가 3개까지 늘었다가 가장 오래된 가게는 문을 닫고 20~30년 전에 새로 생긴 가게 2곳만 영업을 하고 있다.

안말 차종화(남, 1936년생)는 면사무소 남쪽에 술집이 5~6군데 있었다고 말했다. 술집마다 여자 종업

원을 1~2명씩 두었다. 주로 막걸리를 팔았고, 소주는 고리술(잔술)로 팔았다. 안주는 찌개나 두부를 내놓았는데, 주로 김치를 많이 먹었다. 술집은 금암리 사람들도 이용했지만, 각 마을 이장들을 비롯해서 면사무소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안말 차상석(남, 1957년생)은 어렸을 때 서탄면사무소 남쪽으로 가게가 2군데, 술을 파는 식당이 5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가게는 막걸리나 고무신 같은 물건을 포함해서 생필품을 파는 일종의 잡화점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술집은 현재 우체국 아래 1군데, 초등학교 앞 길 옆에 1군데, 초등학교 운동장 남쪽 길 건너 2군데, 현재 만물마트 동쪽 옆에 1군데였다. 5군데 가운데 세 집 정도가 여자 종업원 두어 명씩 두고 있었다. 현재 마을회관 고개 너머인 마을 안쪽에도 잠깐 운영했던 술집이 하나 있었다.

한도희(남, 1938년생)는 옛날에 남쪽 진위천 건너 적봉리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사온 기억이 있다. 회화리와 야리를 지나 적봉리 양조장까지는 10리가 조금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술을 사왔다. 양조장에서 배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술 파는 가게 주인들도 직접 가서 지게에다 술을 지고 와야 했다. 1952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적봉리 양조장이 없어진 후에는 봉남리 양조장에서 서탄초등학교 앞 가게집까지 말통에 담은 술을 자전거로 배달했다.

비료 대금이나 영농 자금을 이장이 관리했던 옛날에는 주민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술값으로 써버려 빚을 짊어지고 땅까지 팔아야 했던 이장들도 더러 있었다.

2023년 현재 금암리의 가게와 식당들은 서탄초등학교 서쪽 건너편부터 새말 입구 한온장군충신정문 맞은편까지의 서탄로변에 몰려 있다.



행정복지센터 남쪽 상가



농협 서쪽 식당과 가게 밀집 지역





금암리 상가 밀집 지역

서탄면행정복지센터 남쪽

상 호	업 종	주 소
동네분식	분식점	서탄면 금암2길 128
오피스하드웨어	주방용품	서탄면 금암2길 128
소라마트	슈퍼마켓	서탄면 서탄로 266
서탄미용실	미용실	서탄면 서탄로 270
진영철물	철물점	서탄면 서탄로 272
서탄할인365	슈퍼마켓	서탄면 서탄로 274
만물DC마트	수퍼마켓	서탄면 서탄로 274-1
부동산정보	부동산	서탄면 서탄로 276
J★TOP FOOD	단체급식	서탄면 서탄로 278
카페리브어스	카페	서탄면 금암2길 10-2

농협 사거리 서편

상 호	업 종	주 소
육미식당	식당	서탄면 서탄로 283
토박이공인중계사	부동산	서탄면 서탄로 283
솔밭식당	식당	서탄면 서탄로 287
하이클린	청소대행	서탄면 서탄로 287
깡통치킨	치킨집	서탄면 서탄로 289
에이스원	부동산/건설	서탄면 서탄로 289
수연정	식당	서탄면 서탄로 293
은혜종합상사	산업용품	서탄면 서탄로 295
서탄반정	식당(중국집)	서탄면 서탄로 295
커피ON	카페	서탄면 서탄로 295
자매한식부페	식당	서탄면 서탄로 297
GS25	편의점	서탄면 서탄로 297
성신공인중개사	부동산	서탄면 서탄로 297
DS당구클럽	당구장	서탄면 서탄로 297
김밥나라	식당	서탄면 금암3길 1
큰집해장국	식당	서탄면 금암3길 1
바른부동산	부동산	서탄면 금암3길 1
성화조각	산업용품	서탄면 서탄로 303
신우CHEM	산업용품	서탄면 서탄로 303
다일한식부페	식당	서탄면금암리577-3
I’M PINE	카페	서탄면 서탄로 286-1
남원보또랑추어탕	식당	서탄면 서탄로 286-3
맛마루치킨	치킨집	서탄면 서탄로 292-1
서탄산단공인중개사	부동산	서탄면 서탄로 300
세븐일레븐	편의점	서탄면 서탄로 300
CU	편의점	서탄면 서탄로 334
LK호이스트&크레인	건설기계	서탄면 서탄로 334
금바위부동산	부동산	서탄면 서탄로 334
써니한식부페	식당	서탄면 서탄로 334
금강종합상사	단체복	서탄면 서탄로 334
명당리김치찌개	식당	서탄면 서탄2로 100
명성테크	인쇄, 복사	서탄면 서탄로 315
대길고물상	고물상	서탄면 서탄2로 82

(2) 5일장 이용

금암리 사람들은 3일과 8일에 열리는 오산장을 주로 이용했다. 오산장까지의 거리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얘기했다. 안말의 조재관(남, 1933년생)은 “수월암 1리를 지나 논길이나 오산천 제방을 따라 오산장까지 6km를 한 시간 이상 걸려 다녔다.”고 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 역시 “수월암리를 거쳐서 오산장까지 6km를 걸어가면 한 시간 삽 십 분 정도 걸렸는데, 노인 걸음으로는 두 시간 가량 되었다.”며 오산장까지의 거리를 6km로 잡았다. 반면에 안말의 송준섭(남, 1951년생)은 금암리에서 오산장까지 거리가 20리인 8km 정도로 기억했다. 한도희는 “1952년 비행장이 생긴 후로는 장보러 송탄쪽으로 다녔다.”고 말했다.

오산장에 다니는 길은 골안말과 안말·새말이 달랐다. 동쪽에 있는 골안말에서는 마을 뒤 공동묘지 옆

을 지나 오산천 옆 둑방을 타고 사리를 경유하여 갔다. 한방자(여, 1941년생)는 쌀 두 말을 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산장에 다녔다. 마을 뒷산을 넘어 오산천 제방길을 따라 사리를 거쳐서 쉬엄쉬엄 걸어갔다. 걸어가는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도 1호선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걸어나가 버스를 타기도 했다. 서탄삼거리 입구까지 버스를 타러 가도 짐을 이고 쉬엄쉬엄 가면 1시간 정도까지 걸렸다. 그래서 안말 사람들은 차라리 사리 앞쪽으로 질러서 걸어 다녔다. 한방자는 쌀 두 말을 가지고 가면 성냥, 양말이나 옷을 기울 실, 바늘 같은 생필품과 무더기로 놓고 싸게 파는 흠집 있는 사과 같은 과일을 샀다. 고등어나 꽁치, 동태 같은 반찬거리는 가끔 한 번씩 샀다. 그때는 제일 흔한 생선이 동태였다. 한방자는 그것도 못 사 먹으면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샀는데, 그중에서도 조개젓이 좀 더 값이 나갔다고 한다. 새우젓으로 호박젓국을 끓여먹었다.

안말 사람들은 '안말 저수지-거르미고개-사리-두곡리-오산천 제방-오산장' 코스를 이용하거나 '안말 뒷길-서낭당-거르미-사리-두곡리-오산천 제방' 코스로 다녔다. 새말이나 회화리 사람들도 안말 뒤 서낭당으로 넘어가는 코스를 이용했다. 안말에서 오산장까지 걸어서 대략 2시간 정도가 걸렸고, 학생들은 오산중·고등학교까지 빨리 걸으면 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새말의 신길용(여, 1940년생)은 젊었을 때 아기를 재워놓고 부지런히 걸어서 오산장에 갔다오면 왕복 3시간이 걸렸다고 기억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산장에 가는 길은 학생들 등굣길과도 겹친다. 안말의 송준섭(남, 1951년생)은 보통 마을 뒤 서탄체육공원 옆을 지나 수월암1리 거르미 고개를 넘어 사리를 통과하여 오산천 옆길을 따라 두곡리, 탑리 앞으로 제방을 타고 남천 다리를 건너 오산중학교에 다녔지만, 자신은 안말저수지를 지나 거르미 고개로 다녔다고 했다. 빨리 걸으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 걸렸다. 고등학교 때는 서탄입구까지 걸어가 버스를 타고 오산시장에서 내리면 버스비가 3원이었다. 서탄 입구에서 오산으로 가는 버스는 30분에 1대 꼴이었고 걸어가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빨랐다.

(3) 채소 장사

송탄에 미공군기지가 들어서고 신장동에 시장이 개설되면서 주변의 농촌 마을에서는 재배한 채소를 이고 나가 팔았다. 회화리에 거주하는 이보철(남, 1947년생)은 서탄면 마을에서 신장동으로 채소나 반찬 팔러 다니지 않는 마을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골안말의 한방자(여, 1941년생)도 서탄면 사람 대부분이 집집마다 농사지은 채소류를 신장동 저녁시장 길목에서 팔았다고 했다. 장사는 오이와 호박을 수확할 수 있는 6~7월부터 10월 무렵까지 이어졌다.

골안말 백점분(여, 1938년생)은 쌀장사를 했다. 송탄쪽 목천동이나 남산터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머리에 이고 배달했다. 많을 때는 닷 말도 이고 갔다.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단골들도 많았다.

한방자는 오이, 호박 같은 채소를 길러서 좋은 것은 죄다 팔고 꼬부러지고 등신 같은 것만 집에서 먹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다섯 아이들 학비를 대고 책값도 줄 수 있었다. 골안말에서는 집집마다 모두 장사를 해서 대략 20~30명이 되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한방자가 처음 시작했다. 아침에 각자 밭에서 따서 9~10시에 고무다라에 이고 출발하면 신장동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아이를 업고 중간중간 쉬었다 가면 2시간도 걸렸다. 처음에는 점심도 싸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형편이 좀 펴지면서부터 점심은 사서 먹었다.





송탄으로 채소장사를 다녔던 김상숙(좌), 한방자(중), 최국자(우)

골안말 김상숙(여, 1944)은 젊어서부터 작년(2022년)까지 신장동 신장육교 밑이나 시장 안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했다. 옛날에는 시장 골목골목에 농촌 마을에서 온 아낙네들이 손수 농사지은 채소류를 팔았다. 김상숙은 지금 52세인 딸이 세 살 때 시어머니의 강권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호박, 오이, 배추, 상추 등 농사지은 것을 머리에 이고 어린아이를 업은 채 오산천을 건너 대정촌으로 해서 다시 진위천을 건너 구장터를 경유해서 목천동을 거쳐 저녁시장 까지 걸어 갔다. 아이를 업고 가다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울리면 아이가 겁을 먹고 엄마 뒷덜미를 바짝 잡아 댕겼다. 최국자(여, 1938년생)는 남의 집 추녀 밑에 어린애를 재워놓고 채소를 팔았다. 잡상인 단속이 나올 때는 도망을 가야 했다.

처음에는 걸어다니다가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다. 초기에는 짐을 갖고 타면 짐값을 따로 받았다. 김상숙은 현재 52세인 큰딸이 27세 무렵 결혼하면서 남은 돈으로 엄마 고생좀 덜 하시라고 트럭을 사줘서 트럭으로 다녔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 1만원 정도 팔았는데, 나중에서는 5~10만원어치를 팔았다.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부터는 하루 5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녀는 농토가 부족해서 살기가 어려웠지만 장사를 해서 차도 사고 땅도 많이 살 수 있어서 고생은 했지만 보람도 느낀다고 했다.

5) 회사 / 창고

금암교 건너 서탄입구 오산천변에 칠성고분자(주)를 중심으로 한 5개 회사가 있지만 마을 외곽에 있기 때문에 마을 경관을 헤치지는 않는다. ‘칠성고분자(주)’는 금암리에 처음으로 들어선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76년 설립된 회사로 접착제를 중심으로 화장품 수지와 방수제를 제조한다. 1979년 9월 ‘서탄면 서탄로 140 (금암리 27)’에 공장을 준공하였다. 1974년 ‘우일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솔고바이오메디칼은 1987년 12월 ‘금암리 13-1’에 공장을 건립하여 입주하였다. 현재 이 두 회사 북쪽으로 3개의 회사가 있다.

안말의 경우 임정래(남, 1947년생)는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비닐하우스형 창고가 있고, 이외에 마을 동쪽과 안말저수지 남쪽 창덕골 동·서 사면(斜面)으로 회사와 창고가 점차 늘고 있다.

금암3리 동쪽~서탄로 서쪽 골짜기로는 15년 전부터 공장들이 들어서고 숫자가 점차 늘어나서 마치 공단 같은 모습이 되었다. 또한 기물산 아래로도 회사들이 있다.

금암 1리 골안말

상 호	업 종	주 소
칠성고분자 공장	산업용품	서탄면 서탄로 140
솔고바이오메디칼	의료기기	서탄면 서탄로 154
3AC 평택공장	생활용품 제조	서탄면 사리길 19
오토바른정비	자동차 정비	서탄면 사리길 27
천일금속	금속처리	서탄면 사리길 29
매래환경	종합건설사	서탄면 사리길 31
서탄주유소 S-OIL	주유소	서탄면 서탄로 174
웅진식품 오산대리점	음료	서탄면 서탄로 210
동서식품	식품유통	서탄면 서탄로 210
탑세이프티	산업용품	서탄면 금암1길 91

금암 2리 안말

상 호	업 종	주 소
타임기연아시아	공구, 공작기계	서탄면 금암2길 48-5
비앤엠테크	전기자제, 부품	서탄면 금암2길 48-5 2동 1층
에스엠티	제조업	서탄면 금암2길 48-8
진성파워텍	반도체	서탄면 금암2길 40-1
PEK	교통운송기계장비	서탄면 금암2길 10-4
한양공업사	자동차 정비	서탄면 서탄로 232
엔젤전사산업	전기자재, 부품	서탄면 금암2길 77-5
에스에이치테크놀러지	산업용품	서탄면 금암2길 81
더셀머트리얼즈	전기자재, 부품	서탄면 금암2길 94-10
대승정밀	자동차 부품	서탄면 금암2길 93-21
부영테크	산업용품	서탄면 금암2길 23
깨끗한나라 인호상사	생활용품 제조	서탄면 금암2길 115
디에이치인프라	건설, 건출	서탄면 금암2길 117
드레스온	가구판매	서탄면 금암2길 112-3
윤텍	산업용품	서탄면 금암2길 112-12
제이에스테크	배전반 제조	서탄면 서탄로 286-12
지에스티	서비스, 산업	서탄면 서탄로 286-6
영일포장	비닐	서탄면 서탄로 286-10

금암 3리 새말

상 호	업 종	주 소
대명기업	화학	서탄면 서탄로 326-17
예인에프에이	자동차장치	서탄면 서탄로 326-9
(주)FNT코리아평택지사	문구, 사무용품	서탄면 서탄로 330
디씨텍	공구, 공작기계	서탄면 서탄로 332
린드스트롬	섬유	서탄면 서탄로 326-10
이젠메이커	옥외광고	서탄면 서탄로 337-2
정진로드스트릴	산업용품	서탄면 서탄로 335
베스트플랜에이	전기자재 부품	서탄면 서탄로 335
삼아엔진니어링	공구, 공작기계	서탄면 서탄로 329
일전공업	화학	서탄면 서탄로 335-10
월드 인 코리아	화학	서탄면 서탄로 335-12
케이피엠	건설, 건축	서탄면 서탄로 335-11
장흥에프엔지	무역업, 중개업	서탄면 서탄로 317
성화에스티	제조업	서탄면 서탄로 309
MS실크스크린	제조업	서탄면 서탄로 315
주광전기	제조업	서탄면 서탄로 309-3
디지털메이커스	전기자재, 부품	서탄면 서탄로 307-1
동신자동차공업사	자동차 정비	서탄면 서탄로 307
KFT서탄물류센터	물류센터	서탄면 금암리 574-1
우리팩	포장	서탄면 서탄2로 80
샘스	자동차 정비	서탄면 금암3길 81
아이비 유통	유통	서탄면 금암3길 77
제이오	반도체	서탄면 금암3길 29-12
이켐텍	제조업	서탄면 금암3길 29-10
㈜새한전자	전자	서탄면 금암3길 29-3

4. 사회생활

1) 공공시설

(1)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위치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전경

■ 위치: 서탄면 금암2길 122 (금암리 247)

1919년 3.1 운동 때만 하더라도 서탄면사무소는 골안말 마을회관 자리에 있었다. 현재의 위치인 안말로 옮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이 없다. 안말 출신의 가장 연장자 그룹에 속하는 조재관(남, 1933년생)도 서탄면사무소는 처음부터 현재 위치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반면에 골안말 주민들은 대부분 서탄면사무소가 이 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을회관 앞에 안내판이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마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골안말 주민들 역시 서탄면사무소가 골안말에 있다가 안말로 넘어갔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지금 마을회관이 서탄면사무소 자리라는 풋말이 있지만, 마을 이장인 조덕상(남, 1967년생)은 정확한 위치는 마을회관 동쪽 바로 옆집이라고 했다. 조덕상은 "옛날 어른들한테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옮겨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말했다. 안말 이장인 장태용(남, 1951년생)도 면사무소 이전 배경을 풍수지와 연관시켜서 알고 있었다. 금암1리에서 태어나 창덕골에서 낙농업을 하는 조희상(남, 1960년생)은 골안말이 좁아서 면사무소가 안말로 옮겼다는 얘기를 옛날 노인들한테 들었다. 이처럼 면사무소 이전 배경에 대한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1922년 지도의 서탄면사무소 표시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옛 모습(2006)

골안말에 전해지는 얘기와는 달리 서탄면사무소가 골안말에서 안말로 이전한 것은 서탄로의 개설과 밀접할 것이다. 면사무소는 면민(面民)들의 접근성이 높아야 하는데, 1922년 지도로 살펴보면 서탄면사

무소가 있는 골안말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암교~안말 사이의 서탄로를 새로 개설하고 면사무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후 작성된 ‘「지방별지명조사철」 평택편’에는 서탄면사무소 청사가 ‘4260. 5. 20 준공’이라고 기록되었다. 청사가 준공되는 1927년이 골안말에서 안말로 서탄면사무소가 이전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지금의 서탄면사무소 본관 건물은 1988년 6월에 2층으로 완공되었다. 이후 2022년 3월 현재 모습으로 리모델링 했다.

■ 청사 현황

구분		면적(m2)	용도	비고
계		1,909.81		
A동	지하1층	54.45	창고	
	1층	346.32	민원실	
	2층	235.62	서고, 다목적실, 회의실	
B동	1층	70.38	환경미화원 휴게실	
C동	지하1층	67.93	창고	
	1층	307.25	보건소, 농민상담소	
	2층	367.92	체력단련실, 회의실	
	3층	399.94	대회의실, 서탄면대	

■ 일제 강점기 서탄면장[18]

성명	재직 연도	성명	재직 연도
윤기선(尹箕善)	1919	유인창(柳寅暢)	1932~1934
한상옥(韓相玉)	1920	임승국(林承國)	1935~1939
이필성(李弼成)	1921~1926	홍건표(洪建杓)	1939
곽문환(郭文煥)	1927~1931	덕산청일(德山淸一)	1940~1941

18) 조선총독부 직원록

■ 해방 후 역대 서탄면장 [19]

구분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비고
1대		홍건표	1945 ~ 1946.04.18.	
2대		한선교	1946.04.19.~1947.10.13.	
3대		조병익	1947.10.14.~1954.07.04.	
4대		이호용	1954.07.14.~1958.06.27.	
5대		서장환	1958.06.28.~1960.12.25.	
6대		차상열	1960.12.26.~1961.06.30.	
7대		김낙용	1961.07.01.~1971.01.14.	
8대		송광섭	1961.01.15.~1971.11.02.	
9대	지방별정5급	조웅기	1971.11.03.~1983.07.01.	
10대	지방별정5급	한기종	1983.07.02.~1984.04.09.	
11대	지방별정5급	조웅기	1984.04.10.~1993.06.30.	
12대	지방별정5급	윤학수	1993.07.01.~1998.06.30.	
13대	지방행정사무관	이길랑	1998.10.07.~2000.01.10.	
14대	지방행정사무관	공재근	2000.01.13.~2000.08.31.	
15대	지방행정사무관	유중환	2000.09.01.~2003.10.07.	
16대	지방농업사무관	조건형	2003.10.08.~2006.07.17.	
17대	지방행정사무관	최장호	2006.07.21.~2007.07.25.	
18대	지방행정사무관	현진수	2007.07.26.~2009.01.05.	
19대	지방농업사무관	임성수	2009.01.06.~2010.07.08.	
20대	지방행정사무관	백운기	2010.07.09.~2011.07.12.	
21대	지방환경사무관	변신철	2011.07.13.~2014.03.07.	
22대	지방농업사무관	신국권	2014.03.08.~2014.07.15.	
23대	지방행정사무관	차상돈	2014.07.16.~2015.01.08.	
24대	지방행정사무관	남상현	2015.01.09.~2016.01.15.	
25대	지방행정사무관	정기석	2016.01.16.~2017.07.16.	
26대	지방농업사무관	홍석완	2017.07.17.~2018.7.29.	
27대	지방행정사무관	라진수	2018.7.30.~2019.12.31.	
28대	지방행정사무관	황선형	2020.01.06.~2020.12.31.	
29대	지방행정사무관	김상모	2021.01.01.~2022.03.04.	
30대	지방행정사무관	박선향	2022.03.05.~2023.06.30.	
31대	지방행정사무관	원영구	2023.07.01.~현재	

■ 서탄면 기관단체장

연번	기관(단체)명	대표자	연번	기관(단체)명	대표자
1	노인회	공 석	9	방위(협)운영위원회	유관섭
2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원	10	자율방재단	조덕상
3	이장협의회	이기성	11	서탄기업체협의회	우현직
4	체육회	박인성	12	자원봉사나눔센터	황준희
5	새마을지도자회	최준식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문락
6	새마을부녀회	신봉숙	14	자유총연맹	차순화
7	청소년지도협의회	노해남	15	행복마을관리소	권혜정
8	바르게살기운동(위)	박영미			

19) 서탄면사무소 제공

(2) 서탄보건지소





■ 위치: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122 (서탄면행정복지센터 내)

서탄보건지소는 서탄면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었다. 보건지소 전용 공간은 전용 198㎡이고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 2명, 공무직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었다. 공중보건의 1명은 한의사이며, 1명은 내과를 담당한다. 주요 의료 장비로는 한방 침대 3개, 혈압계와 체중신장계 각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건지소는 서탄면 주민뿐만 아니라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인 손옥선(여, 1976년생)에 의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한방 침 시술을 받는 환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진료와 한방 침 시술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하인 사람은 한방의 경우 1,100원, 이외 양방으로 소화제나 진통소염제를 처방할 경우 4~5천 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임산부 초중기 영양제, 엽산제, 초음파 쿠폰, 기형아 검사 쿠폰 등을 제공한다. 또한 충치 예방 불소도 무료도 나눠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월~금요일 가운데 월·화·수요일은 내과 진료를, 목·금요일은 한방 진료를 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건지소 문을 닫고 보건의들이 선별진료소에 배치되었으며, 조무사들은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코로나 유행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2022년 6월부터 1주일에 1회 보건지소 문을 열었다. 이때는 서탄면 노인들에게 1:1로 전화해서 환자를 파악하고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일반 병원 진료와 약국을 안내했다. 일반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3달 동안 복용할 약값으로 4~5만 원을 부담해야 돼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2023년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주 2회 열고 있다.

(3) 서탄우체국



서탄우체국 위치 변화



서탄우체국

■ 위치: 서탄면 금암2길 126 (금암리 244-4)



서탄우체국장을 역임한 송준섭

서탄우체국은 별정우체국이다. 평택의 별정우체국은 서탄을 비롯하여 진위, 고덕, 팽성, 현덕, 포승 등 6군데가 있다. 면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청북면(2016년 청북읍으로 승격)에만 일반 우체국이 있다. 1962년 별정 우체국 제도가 시작될 때 송준섭(남, 1951년생)의 부친 송영철이 설립을 추진해서 1964년 개국했다. 처음 개국한 자리는 현재 철물점이 있는 도로 옆이었는데, 1974년 서탄로가 확장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서탄우체국 설립과 동시에 우체국장으로 취임했던 송영철이 1978년 70세로 정년을 맞자 아들 송준섭이 승계하여 우체국장으로 취임했다.

별정우체국은 땅과 건물에서부터 집기까지 모두 별정우체국에서 제공했고, 국가 공무원에 속하는 직원이 1명 배치되었다. 서탄우체국 개국 초기에는 농협이 없었기 때문에 서탄초등학교 학생들 저축도 우체국에서 취급했다. 우체국장은 별도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수입으로 봉급을 대신했다. 송준섭이 우체국장 승계 후인 1985년 서탄면에 전화가 들어왔다. 그 이전에는 우체국의 전화와 면사무소의 행정 전화, 파출소의 비상 전화가 전부였다. 주민들이 전화하려면 우체국에 와서 신청해서 송탄 우체국 교환대를 통해 외부로 연결할 수 있었다. 송준섭 우체국장의 노력으로 각 마을에서 청약받아 서탄면에 150대 이상의 자석식 전화를 설치하게 되었다. 처음에 30대로 출발해서 계속 추가 되어 150대 이상까지 늘어났다. 우체국에는 4대의 교환대가 설치되어 교환수가 교대로 근무했다. 전화 기본요금의 60%와 추가 요금의 15%가 서탄우체국 수수료가 되었다. 전화 교환대가 설치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우체국 수입이 늘었지만, 4~5년 후 평택시가 시범적으로 자동전화로 전환되면서 교환수들은 전기통신공사로 특채되어 넘어갔고 우체국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송준섭은 67세인 2018년에 퇴직하고 그의 아들인 송기전이 우체국장을 승계하였다. 2002년에 지금의 우체국 건물이 신축되었고, 우체국장 1명,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금인출기 1대와 공과금 납부 기

계 1대가 설치되어 있다.

(4) 서탄파출소



서탄파출소 위치



서탄파출소

■ 위치: 서탄면 서탄로 280 (금암리 251-2)

일제강점기 회화리에 순사 주재소가 설치되었다가 금암리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를 문헌으로는 찾기 어렵고, 회화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된 내용이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회화리 주민인 차경환(남, 1941년생)은 어렸을 때 건물만 남은 주재소가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집 뒤라고 했다. 그는 15세 전후 되었을 무렵까지 그 건물을 봤다. 50여 년 전에 헐었던 주재소 건물은 20~25평 규모로 문고리가 엄지손가락 만큼 굵었고, 유리창이 있었다. 그는 이 건물이 주재소 겸 직원들의 숙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8.15 해방되고 주재소가 금암리로 이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을 비롯한 금암리 주민들은 서탄파출소가 처음부터 안말에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발행된 『평택의 독립운동가』에서는 회화리 주민의 증언으로 회화리주재소 터를 고증했으나, 3.1운동 때 서탄면에 주재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서탄면민이 몰려간 주재소를 봉남리주재소였을 것으로 추정했다.[21] 회화리 출신이면서 공무원으로 18년 근무하다가 목사가 된 박흥덕(남, 1935년생)은 “차경환씨가 (회화리에 주재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허는데, 나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는 1910년 8월 수원경찰서 아래 6개소의 순사 주재소를 설치했는데, 평택지역에는 진위 순사주재소, 안중장 순사주재소, 평택 순사주재소를 두었다.[22] 이어 1914년 8월에 경찰서와 파출소 및 주재소 수를 늘렸다. 이때 진위경찰서가 신설되고 그 아래에 백봉·안중·진위·서정리 순사주재소가 설치되었다.[23] 1919년 3·1 운동 영향으로 보통경찰제를 실시하면서 경찰의 규모를 늘렸지만 평택의 경우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조선총독부고시」 제215호(1919년 8월 20일)에 의해 진위경찰서의 명칭을 평택경찰서로 변경했다.[24]

20)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426쪽.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2, 2014, 435쪽.
21) 평택시, 『평택의 독립운동가』, 2018, 183-184쪽.
22) 『한국경찰사』1권, 1972, 736-737쪽.[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자료실]
23) 『한국경찰사』1권, 1972, 785쪽.[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자료실]

평택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서탄파출소의 연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25] 여기에 일제 강점기 서탄면에 파출소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고, 1929년 설치된 하북지서의 관할하에 있다가 해방 후인 1947년 7월 서탄지서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1914년 봉남리에 신설된 진위 순사주재소가 1929년 하북리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설치된 서탄지서는 서탄면 국민회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1949년 12월에 비로소 청사가 신축되었다.

위와 같이 문헌 내용과 회화리 주민 사이에 구전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서탄파출소는 현재 서탄면 17개 법정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5) 서탄 119안전센터



서탄 119안전센터 위치


서탄 119안전센터 원경

■ 위치: 서탄면 서탄로 241 (금암리 221-1)

송탄소방서 서탄 119안전센터는 1996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서탄로가 확·포장 된 후 논을 메운 자리에 건물을 신축했다. 대지 991m2이고 건축 면적은 240.02m2 3층 건물로 연면적 458.6m2이다. 센터장 1명과 화재진압 대원 18명, 구급대원 6명이 배치되었다. 화재진압 대원은 6명이 1개 조를 이루어 1일 3교대, 구급대원은 2명 1개조로 1일 3교대로 근무한다. 대원들은 6개월~2년을 주기로 순환 배치된다.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로 펌프차 1대와 물탱크차 1대를 갖추었으며, 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6) 송탄농협 서탄지점[26]

24) 『한국경찰사』1권, 1972, 877쪽.[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자료실]
25) 평택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ggpolice.go.kr/pt)
26) 1973년 4월 서탄농협에 입사하여 2005년 전무로 정년퇴임 후 2008~2012년 상임이사를 역임했던 김병길(남, 1947년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송탄농협 서탄지점 위치



송탄농협 서탄지점 본관

■ 위치: 서탄면 서탄로 286 (금암리 251-1)

1970년 7월 서탄농협이 결성되었다. 농협이 결성되기 전에 금암리, 사리, 회화리 등 각 마을에 이동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다. 각 마을 이동조합이 농협 결성과 더불어 농협으로 합병되었지만, 정미소와 마을 공동 창고를 운영하는 등 재정이 단단했던 사리 이동조합은 그대로 존치되었다. 어느 정도 튼튼한 재정을 보였던 회화리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합병되었다. 하지만 초창기에 지분을 갖고 들어온 각 마을 이동조합 재산은 다시 그대로 해당 마을에 환원하고, 개인 출자만 이루어졌다.

마두리 출신의 류내철을 중심으로 마두리 홍성렬, 금각리 김헌식, 사리 윤지수, 내천리 한진수, 회화리 차상봉, 장등리 김수현 등이 초기 농협 결성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류내철은 초대 조합장이 되었고, 앞의 네 인물은 초대 이사를 역임했다. 류내철 조합장은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집에서 담근 김치 같은 반찬을 제공했을 정도로 매우 헌식적이었다. 김병길은 초창기 조합장들이 헌신적으로 일해서 서탄농협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당시 제일 젊은 층에 속했던 회화리의 차경환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는 1979년 송탄농협으로 합병된 이후 감사를 지냈다.

서탄농협 출범 후 ‘벼 한 가마 출자 운동’을 벌여서 1~3가마 정도씩 농민들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김병길은 당시 40~50kg 벼 한 가마 가격을 대략 3~4천 원 정도로 기억했다. 현재 서탄지점장 한준희(남, 1965년생)는 당시 장부에 농민들의 출자금이 그 정도 액수로 기록되었다고 확인했다. 또한 농민들이 비료를 구매할 경우 1포당 100원씩 출자금을 내야 했다. 한준희 지점장은 비료를 살 때 출자금을 떼다 보니 조합원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다가 후에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은 1979년 4개 단위 농협 합병 후에 농민 여부를 조사해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가려내서 정리했다.

서탄농협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은 파출소 서쪽 옆, 현재 창고가 들어선 자리이다. 2대 한진규 조합장 재임 때인 1977년 무렵 현재 본관 서쪽 양곡창고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 땅을 매입하여 양곡 창고 2동 지었다. 양곡 창고로 지었던 건물 2동 가운데 1동은 확장해서 비료와 농약 창고로 이용하고, 나머지 1동은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 1989년도에 당시 비료 창고로 쓰던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해서 농협 사무실을 이전했고, 처음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는 2000년에 창고를 새로 지었다. 이때 농기계수리센터도 신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농협 본관 건물 오른쪽으로는 도면상으로 도로였지만 농협에서 사용하다가 1999~2000년 무렵 취락구조 개선 사업 때 현재 모습의 도로가 개설되었

다.



지점장 한준희



류내철 공적비



초기 본관 자리의 농협창고



농기계수리센터

서탄농협이 시작될 때부터 농협연쇄점을 운영했다. 초대 지배인은 내천리에 이무전이 맡았는데, 그는 나중에 평택시의원으로 활동했다. 연쇄점은 송탄농협으로 합병되면서 1/2 규모로 축소되었고 판매할 상품도 본점인 송탄 농협에서 공급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1989년 사무실 건물을 현재 자리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다.

금암 3리 새말 출신의 한진규이 2대 조합장을 역임하던 중인 1979년 5월 1일 송탄농협으로 합병되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결정으로 전국 최초로 평택지역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이었다. 농협의 규모를 크게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합병의 주요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포승, 오성, 청북, 현덕 등 4개 단위농협도 통합하여 '서부농협'이 되었고, 평택농협과 팽성농협만 그대로 존치하였다. 평택에서 농협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비용이 절감되는 등 운영상의 이점이 나타난 후 영세한 농협 위주로 단위농협 간의 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진위, 고덕, 서탄농협이 송탄농협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조합장들이 물러나게 되자 반발이 있었지만 중앙회의 방침에 의해 합병은 강행되었다. 결국 합병 후 기존의 송탄농협 조합장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조합장들은 물러났지만, 다른 직원들의 감축은 없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초대 조합장을 지낸 마두리의 류내철과 초대 참사(현재의 전무나 상무에 해당)를 지낸 회화리의 임진묵이 많은 역할을 했다. 합병되면서 이전의 단위농협은 조합장이 아니라 '분소장'이 됐다. 1990년 1월 '지소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현재처럼 ‘지점장’ 이 되었다. 농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했지만, 송탄농협으로 합병되면서 서탄지점에도 경제사업부를 신설했다.

김병길은 합병이 농협 운영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했다. 현재 송탄농협의 상호금융(여·수신) 규모가 평택농협과 비슷한 3조원 내외인데,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편이라고 했다.

농협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원 가입을 강하게 권유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조합원 가입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여·수신의 규모가 커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다가 조합원에게 출자금 대한 배당금과 환원사업을 합치면 총 배당금이 1년 정기 예금의 거의 2배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출자배당금을 조합별로 결정했기 때문에 많을 때는 20~30%까지 지급했다. 이로 말미암아 단위농협 사이의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정기예금 이율의 1.5배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서탄지점장 한준희는 현재 1년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에 2%를 더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반면에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송탄농협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녀 대학 학자금의 일부, 건강검진, 영농자재 상품권, 설과 추석 명절 때 하나로마트 이용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제사업장



경제사업장 영농기 근무 기간/시간

(7) 서탄금암체육공원



서탄금암체육공원 위치



서탄금암체육공원

■ 위치: 서탄면 서탄로 326-41 (금암리 968)

간단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부터 각종 운동기구가 있고,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인조 잔디 구장 등 여러 체육시설을 갖추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서탄면 사무소에 문의 후 사용할 수 있다.



축구장



게이트볼장

(8) 서탄야구장

■ 위치: 서탄면 정문회화로 530-45 (금암리 95-3)

공공체육시설로 사회인 야구를 위해 2012년에 건립되었다. 베이스와 백스탑, 펜스, 덕아웃이 설치되었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갖추었다. 펜스는 좌측 95m, 우측 95m, 중앙 110m 규모이다. 야구장 동편으로 직사각형이 축구장이 있으나, 골대만 있고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다. 축구장은 필요할 경우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탄야구장 위치


서탄야구장

2) 마을조직

(1) 이장

여느 마을처럼 2년 임기의 이장은 12월 대동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이장의 역할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예전에는 이장조로 마을 주민들에게 ‘리세’를 거두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이장 수당을 지급한다.

황세연(남, 1933년생)이 골안말 이장을 봤던 1970년대 초반에 이장은 새마을 운동 때문에 마을의 부역을 주관하고 서정리까지 가서 마차 여러 대를 동원해서 비료를 실어다가 나눠주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았다. 특히 비료를 나눠주는 일은 번거로웠다. 각 호별로 소유한 농지에 비례해서 요소, 가리 등의 비료를 각각 분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장조로 각 호별로 여름에 보리쌀 1말, 가을에 쌀 1말씩을 걷었다. 황세연은 보리쌀은 그만두라고 하고 쌀만 1말씩 받았다. 당시 골안말에 45호 정도가 살아서 쌀 4가마를 걷으면 반장 2명, 새마을 지도자랑 똑같이 나누어 각각 1가마씩 돌아갔다. 반면에 이장이 짊어지는 비용은 상당히 컸다. 특히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매일 이장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한 면서기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현재 골안말 이장을 맡고 있는 조덕상(남, 1967년생)은 마을에서 가장 막내 세대여서 현재 6년째 이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바로 윗 선배가 1950년생 또는 1959년생이 있고 후배가 없기 때문에 6년째 이장을 보면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선배들은 보통 이장을 한 번씩은 했고, 하우스 농사일이 매일 붙어 있어야 할 정도로 바빠서 이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조덕상 이장은 “대동회가 열려 이장을 선출할 때 이장 선출이 끝난 후에 성님들이 나온다.” 며 웃었다. 그는 골안말 이장뿐만 아니라 서탄면 자율방재단장도 맡고 있다. 현재 골안말은 2개 반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반장은 1명을 두고 있다.

차종화(남, 1937년생)는 1971년에 이장을 맡았다. 그 당시는 안말 이장 임기가 1년이었다. 당시는 이장이 비료를 타다가 분배하고 각종 세금도 이장이 걷어서 납부하던 시기였다. 이장이 집집마다 걷은 세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장 임기를 1년으로 했다.



금암1리 골안말 이장 조덕상



금암2리 안말 이장 장태용

장태용는 1993~1994년 이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연속하여 이장을 맡고 있다. 1990년대는 각종 세금 고지서도 이장이 받아다 나눠주야 했지만 지금은 평택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옛날에는 특히 비료도 이장이 신청받아 나눠주고 그 대금도 대납했으며 농협에서 받는 영농자금도 이장이 관리했다. 단위 농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정리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미리 받은 돈을 이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술값 등으로 써버리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을 본 사람 중에 빚을 져서 농지까지 팔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2) 4H

안말 차상석은 1968년 무렵에 4H 단체가 조직되었다고 했다. 당시는 마을 농사일을 돕고, 마을 청소, 풀베기 등의 활동을 했다. 이후 1974년에는 '유신 4H'라는 이름으로 단체가 운영되었다. 회원 자격은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였으며, 전체 회원 수는 25명 정도였다. 40세가 넘으면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주로 모내기 작업을 돕는다든가 보리밟기 같은 봉사활동을 주로 했으며, 매년 진위중학교에서 열리는 4H 대항 체육대회에 참여했다.

(3) 대동회

대동회는 마을별로 보통 12월 말에 열리며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다. 대동회는 당해년 결산을 보고 1년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1970년대 초 황세연(남, 1933년생)이 골안말 이장을 볼 때는 대동회가 열려도 점심이 없었고, 매년 돌아가면서 3가구는 술 1말씩, 3가구는 감주 1말씩을 부담해서 대동회 끝나고 먹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만 마시고, 감주를 먹는 사람은 감주만 먹어야 하는 불문율이 있었다. 술과 감주를 함께 먹는 것은 금기시 되어 만일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마을 사람들의 심한 눈총을 받았다. 황세연이 이장을 맡은 이후 서울에서 사진사를 하다가 골안말로 이주한 한대희라는 인물이 이장을 맡게 되었다. 그는 집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어서 술과 감주 뿐만 아니라 점심까지 냈다. 그때 시작된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대동회 날 점심 비용은 이장이 부담하고 있다. 조덕상 이장은 대동회 날 점심 비용으로 60~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다른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마을 대동회는 토박이 중심으로 참석한다. 골안말 전체 70여 후 가운데 약 반수인 35여 호가 대동회에 참석한다.

안말에서는 이장이 부녀회장과 상의하여 대동회 날짜를 정한다. 대동회 때 부녀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부녀회장이 빠지지 않는 날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짜는 보통 12월 중순으로 많이 정해진다. 마을 토박이들 중심으로 대략 50명 이상은 대동회에 참석하고 있다.

새말은 전체 45가 정도 가운데 30가구 정도가 대동회에 참석한다.

(4) 노인회

골안말에서 노인회에 들어있는 사람은 15명 안팎이다. 여자들의 경우 노인회와 부녀회가 거의 겹친다. 노인회에서는 연 2회 효도 관광을 다닌다. 2023년 봄에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다녀왔다. 관광 때는 부녀회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잔일을 도맡는다. 또한 부녀회에서는 어버이날은 마을에서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한다.

안말 노인회는 51명이 있다. 코로나 시기 전부터도 노인회 회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주로 노인회장이 지회에 가서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며 마을 노인회는 대동회 때 함께 하고 있다. 노인회 행사로 1년 중 가장 큰 행사는 야유회를 가는 일이다. 야유회는 봄 또는 가을에 한 번이다.

새말 노인회는 41명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봄·가을에 각 1회씩 야유회를 다녔지만,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5월 초 주말을 이용하여 마을 경로잔치로 대체했다. 매주 월~금요일에는 12~15명 정도가 새말 경로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

(5) 연반계, 상조(相助) 문화

상포계나 연반계의 운영에 관한 기억은 마을에 따라 달랐다. 골안말의 한방자(여, 1941년생)는 상포계 같은 것은 못 봤다고 했고, 최국자(여, 1938년생)는 옛날에는 부조가 없었고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생겼다고 했다. 조덕상(남, 1967년생)은 상여가 나가고 달궁질 할 때까지 모인 돈의 50%는 마을 기금으로 쓰고 50%는 상가에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부친으로부터 들었다.

안말의 연반계는 1965년쯤에 조직되었다. 당시 계원은 마을의 30~40대의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었다. 여산 송씨나 연안 차씨같이 반가(班家)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노인들은 양반 출신이 상여를 멜 수 없다고 계 조직을 반대했으나 결국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 새마을 사업 때 마을 안길 넓히기, 농수로와 배수로 건설 같은 데 충당되는 비용도 연반계 기금으로 충당했다.[27] 연반계는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장태용 이장은 안말 상조회는 이장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초상이 나면 각 반장들은 차일을 치고 부고를 돌리는 일을 했다. 장태용는 예전에 반장을 맡았을 때 혼자서 서탄면 전체에 부고를 모두 돌렸던 경험도 있다. 상여가 나갈 때부터 달궁할 때까지 들어온 돈의 50%는 상주한테, 50%는 마을 기금으로 돌렸다. 또한 장례를 치른 후 상주는 마을 상조회에 상여조를 냈다.

새말에서는 2000년 무렵까지 연반계가 있었다. 1972년 전남 영광에서 새말로 이주한 문운경(남, 1944

27)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36쪽.

년생)은 1985~6년 무렵부터 2000년까지 15년 가량 연반계장을 맡았다. 연반계장은 상여 멜 사람들과 상여소리 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 등을 맡았다. 이장과 연반계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면 상주가 적게는 10~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연반계에 내놓았다. 연반계장은 상주가 내는 돈의 관리도 맡았다. 문운경이 연반계장을 맡았을 때 그렇게 조성한 연반계 기금이 1천만원 가량 되었다. 연반계 기금은 마을 사람 전체가 관광을 떠나는 비용으로 썼다. 보통 봄 또는 가을이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 등을 다녀왔다. 관광비용은 연반곗돈과 마을 기금, 찬조금을 합하여 지출했다. 마을 주민들 가운데 넉넉한 집안에서 찬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 당시 관광 1회에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

2)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마을회관

금암1리 옛 마을회관은 현재 마을회관의 뒤에 20여 평 정도였다. 2010년 무렵 사유지를 조금 매입해서 미군부대주변 소음 보상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현재의 마을회관을 신축하였다. 1층은 골안말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윗층으로는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골안말 노인들은 월~금요일에 경로당에 나온다. 한방자(여, 1941년생)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외지에 사는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집안에서 보낸다.



금암1리 마을회관 위치


금암1리 마을회관

안말 마을회관은 1960년대에 한우물 동쪽에 30평 크기로 처음 지었다. 마을 주민들이 오산천에서 모래를 퍼다가 손수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2000년 무렵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새 마을회관을 지었다가 2010년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지었다. 현재 건물은 2층으로 전체가 80평 규모이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1층을 사용하며 2층에는 강당과 방 1칸, 방송실을 갖추었다.



금암2리 마을회관 위치 변화



금암2리 옛 마을회관



금암2리 마을회관



금암3리 마을회관 위치



금암3리 마을회관

새말에서는 예전에 이장네 집에서 회의를 열었다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기금으로 처음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그 뒤 2층 슬라브 구조로 다시 지었다가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익 사업’ 으로 지금의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1층은 회의실로 쓰는 거실과 방, 주방, 다용도실, 남·녀 화장실 각 1실을 갖추었고, 2층은 방송실과 보일러실, 거실을 갖추고 있다. 1층은 평소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 위치: 서탄면 금암1길 53-1 마을회관 2층 (금암리 374-1)

세교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이어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2021년 11월 10일 개소했으며 금암1리 마을회관 2층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서탄면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와 사무원 7명이 서탄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순찰 활동, 아동 안심 등·하교 지원,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금암1리 마을회관 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3) 가정 생활

(1) 혼례

골안말의 한방자(여, 1941년생)는 수원 인계동에서 태어나 매교동 같은 마을에에 살던 큰어머니와 시이모가 서로 자신들의 조카를 소개하는 중매를 서서 21세에 골안말로 시집왔다. 맞선은 인계동 친정에서 봤다. 약혼은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 했지만 약혼 예물로는 시계를 받았다. 당시 쌀 두 가마를 팔아서 마련했다는 얘기를 신랑으로부터 들었다. 신부는 살림이 어려워 약혼 예물도 못 해줬다. 결혼 당일 신랑이 트럭을 타고 신부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마친 후 같은 트럭에 신랑과 신부가 타고 짐칸에는 혼수를 싣고 왔다. 시집올 때 혼수는 장롱하고 이불, 본인이 입을 옷이 전부였다. 집안이 어려워 시부모님께 드릴 예단 같은 것은 없었다.

김상숙(여, 1944년생)은 천안시 성환읍에 살다가 골안말로 시집왔다. 중매 결혼하셨냐는 물음에 "연애가 어딨어. 중매지, 연애가 어딨어!" 라고 답했고, 한방자(여, 1941년생)는 "연애 했다 매맞어 죽어. 옛날에는" 라며 거들었다. 김상숙은 먼저 골안말로 시집왔던 순남 엄마라는 분이 중매를 했다. 그녀는 '그때는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은 싫어도 억지로 결혼해야 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랑감 사진이 먼저 오면 신부측 부모들이 신랑집에 먼저 가 보고, 신랑이 맘에 들면 신랑 측에게 '신부를 보러 오라' 고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중매쟁이, 신랑 세 명이 집으로 왔다. 김상숙은 처음에 사진으로 보면서부터 신랑감이 영 맘에 들지 않아서 싫다고 했는데, 맘에 들어하는 친정 엄마가 모래사장에서 혀를 깨물고 죽는다며 야단을 해서 하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보통 약혼식은 없었고, 사주단자만 보냈다. 결혼날 신랑이 택시를 타고, 친구들을 트럭을 타고 왔다. 결혼식 때 예물로 시계와 반지를 신랑한테 받았다. 신부가 시계와 반지를 신랑한테 주는 일은 부잣집이나 가능했다. 결혼식 후 택시에 신랑, 신부, 후왕(결혼식 때 데려다주러 가는 사람)으로 오빠와 동생, 4명이 웅크리고 타고 오고, 트럭에는 혼수와 신랑 친구들을 싣고 왔다. 혼수는 장롱과 이부자리, 본인 입을 옷이었다. 혼수로 재봉틀을 물으니, '그런 건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 이란다. 뿐만 아니라 보통으로 사는 집은 시부모 옷 해오는 것도 없었다. 김상숙은 "신랑 양복 한 벌 안 해줬다고 시고모가 야단을 했" 며 신혼 초기를 회상했다. 결혼 후 3일 후에 재행 갈 때는 떡과 술을 장만해서 갔고, 친정에서도 답례로 역시 떡과 술을 보냈다. 재행 갈 때 보통 사는 집에서는 신혼 부부가 직접 짐을 들고 가는데, 양반네들은 하인이 짐을 지고 따라갔다.

최국자(여, 1938년생)는 골안말로 시집온 승훈 엄마가 재행갔다 오는데 하인 둘이 왔었다고 했다. 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는 부엌에 들어가 살림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상숙은 친정에서 보리밥도 별로 안 먹을 정도였다가 시집와서는 넉넉하지 못해서 혼수 해온 치마 저고리로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혔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25세에 화성군 팔탄면에 거주하는 신부를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중매를 선 집안 아주머니와 신부집으로 가서 맞선을 봤다. 맞선 보는 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가서 신부 얼굴 한 번 보고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이후 5개월 가량 지나고 난 후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당일 신랑이 부친을 모시고 신부집으로 가서 구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30리 정도 떨어진 신부집까지는 트럭을 타고 갔다. 결혼식을 올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트럭에 혼수를 싣고 신랑집으로 왔다. 혼수로는 이부자리, 오강, 장롱, 밥그릇 두 벌, 세숫대야를 장만했다. 결혼 예물로는 금반지를 장만하여 결혼식을 올릴 때 맞교환했다. 본가인 새말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에는 결혼 잔치 음식으로 국수와 떡, 부침개 정도를 준비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돼지도 잡았다. 첫날 밤에는 주로 짓궂은 여자들이 문에 구멍을 뚫고 신혼부부를 엿봤다. 3일만에 재행을 갔는데, 한도희는 그때 무슨 음식을 장만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신부는 대부분 3일만에 부엌일을 시작했지만, 2일만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육아

골안말 한방자(여, 1941년생)는 결혼 후 1년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당시 이 마을에서는 모두 집에서 출산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받았다. 그녀는 아이 여섯을 낳았지만 딸 하나를 잃었다. 딸은 홍역을 앓다가 100일 동안 이어진다는 일명 백일 기침을 앓다가 죽었다. 한방자는 “옛날에는 보통 자식 하나는 잃는다.”고 말했다.

골안말 김상숙(여, 1944년생)은 남편이 장남이라 나이 어린 동생들을 기르다시피 했다. 시어머니가 48세에 낳아서 16살이나 어린 동생은 학교 다닐 때 김상숙의 남편이 고등학교까지 쫓아다니녔는데, 농사짓다 보니 본래 나이보다 많아 보여서 동생 친구들이 ‘아버지냐?’고 묻기도 했다. 50세에도 늦둥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한방자(여, 1941년생)는 “말이 그렇지 쉬흔에는 그거 어려운 일이여”라고 했다.

김상숙은 결혼 후 딸 셋을 내리 낳았다. 아들 얻기를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셋째 딸을 낳자 3일만 산간을 해주고 안 해줘서 찬물로 씻고 그러다가 몸이 퉁퉁 붓기도 했다. 7남매의 셋째인 그녀는 형제가 많은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둘만 낳으려 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결국 넷째까지 낳아 아들을 얻었다.

안말 차상석은 1954년 2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홍역 등을 앓다 죽는 아이들이 많아 보통은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도 3년이 늦은 1957년에 출생신고를 했고 초등학교도 10세에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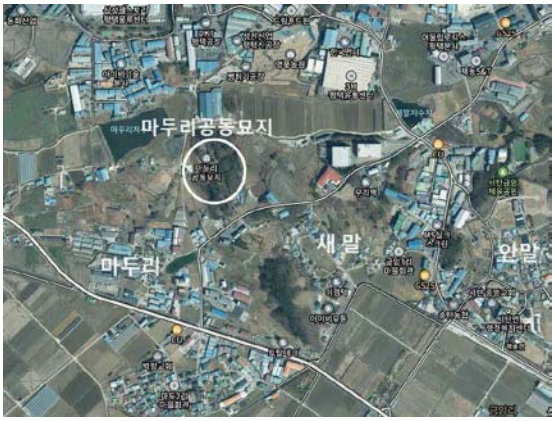
안말 이장인 장태용도 출생신고가 1년 늦었다. 그 역시 옛날에는 홍역과 마마 때문에 출생신고가 5세까지 늦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생 중에 천연두를 앓았던 곰보가 5명이나 되었다.

(3) 장례 문화

초상이 나면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상가집의 일을 돕고 문상했다. 선산이 있는 집안은 자기 산에 매장했지만, 선산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묘를 썼다. 공동묘지는 두 군데가 있다. 골안말 미래환경 북쪽의 공동묘지는 골안말과 안말, 사리 사람들이 묘를 쓰고, 종종 송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용했다. 마두리 공동묘지는 새말을 비롯해서 마두리와 회화리 사람들이 묘를 썼다.



금암공동묘지



마두리공동묘지

골안말 조덕상은 상여가 나가고 달궁질 할 때까지 모인 돈은 50%는 마을 기금으로 쓰고 50%는 상가에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부친으로부터 들었다. 새말에서는 장례가 끝나면 상주가 10~2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연반계에 내놓았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이장 주관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었고, 품앗이로 팥죽을 쑤어주기도 하고 막걸리 몇 말, 쌀 몇 되 등으로 부조를 했다." 고 말했다. 상주 측에서는 마을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부고를 돌렸다. 멀리 있는 현덕면이나 포승읍까지도 인편으로 부고를 돌리는 범위에 들어갔다. 멀리까지 가는 경우는 상주가 여비를 부담했다. 1980년 무렵 새말에서 상여가 나갈 때 상여소리는 안말 차상옥이 주로 했다. 그를 불러 상여소리를 하고나면 상주는 10~2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했다.



골안말 상여집



안말 상여집

상여는 마을마다 장만했다. 골안말 상여집은 담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로 벽에 스레트 지붕으로 해서 당제산 끝자락 길가에 있었다. 골안말 김상숙(여, 1944년생)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잘 안 다녀서인지

어느날 보니까 없어져버렸다.” 고 했고, 이장인 조덕상도 없어진 정확한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안말 상여집은 농협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길옆에 있었다. 새말에서는 안말 상여를 빌려다 썼다가 한도희(남, 1938년생)가 30세가 될 무렵 마을 상여를 장만했다. 상여집은 시멘트 담장날로 벽을 쌓은 후 슬레이트 지붕을 했다. 새말에서는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상여로 장례를 치른 후 그만두었다. 2000년 전후 장례식장에서 초상을 치르고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상여를 쓰지 않게 되자 상여집도 없어졌다.

4) 의식주

(1) 식수 사용

골안말에는 우물은 세 개가 있었다. 현재 마을회관 앞에 1개, 금암빌라 앞에 1개, 솔고바이오 회사 밑쪽에 1개가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 대부분은 ‘대동 우물’ 또는 ‘큰 우물’로 불렀던 마을회관 앞 우물을 먹었고, 나머지 두 개는 한두 집이 사용했다. 마을 당제를 지낼 때도 대동 우물을 썼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했다. 연못 아래로는 50~60평 정도 넓이의 미나리꽝이 있어 우물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 우물은 수량이 많아 김장 씻거나 빨래할 때도 이용했고, 빨래터 옆에는 아이들을 씻기는 목욕 공간도 있었다. 한방자는 “당제사 날을 잡으면 큰우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날잡기 전에 미리 물을 잔뜩 퍼다 놓아야 했다.” 고 말했다. 1960년대 골안말에 펌프가 들어왔다. 이장헌(여, 1935년생)의 집에서는 마당에 우물을 파고 쌀 3가마가 들어가는 대감 항아리를 바닥에 묻고 펌프를 설치했다. 펌프는 자기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일찍 놓는 집도 있고, 늦게 설치하는 집도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마을 공동 상수도가 들어왔다. 마을 뒤 산쪽에 관정을 파고 물탱크를 설치했다. 이장인 조덕상은 8년 전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간이 상수도를 썼다고 했다.



안말 우물 위치



안말 대동우물 자리

차상석(남, 1957년생)은 안말이 풍수지리상 말의 젖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곳이라고 했다. 이 마을은 아무 데나 관정을 박아도 물이 잘 나오는데, 예전에 공동 우물만 5군데 있었다. 그중 마을 가운데 있었던 한우물은 대략 50가구 정도가 사용했을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 송준섭(남, 1951년생)은 마을 당제를 지낼 때도 한우물을 사용했다고 했다. 마을 동북쪽 뒤에 있는 메꾸리우물은 족두리우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변의 15가구가 사용한 우물이었다. 장태용(남, 1951년생)은 메꾸리우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1960년대 들어 개인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하는 집들이 늘었고 이후

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물탱크를 설치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했다. 관정과 물탱크는 지금의 서탄체육공원 입구 삼거리에 설치했다. 10여 년 전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관정과 물탱크는 폐쇄했다. 차상석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전기세만 부담했기 때문에 연말 리세 낼 때 2만원 정도를 냈는데, 지금은 매월 5~6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다.



안말 한우물과 메꾸리우물 위치


한우물 자리를 가리키는 장태용 이장

새말에는 우물이 2개로 아랫말과 웃말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아랫말 우물은 우물물이 넘쳐 흘렀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김장씻는 일과 빨래도 우물가에서 했다. 웃말 우물은 물이 적어서 식수로만 이용했다. 한도희(남, 1938년생)는 “서탄면에서 여기같이 물 좋은 우물이 없었어!” 라고 했다. 마을 공동 우물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집집마다 항아리를 부엌 바닥에 2~4개씩 묻고 물지게나 물동이로 길어다 채웠다. 1960년대가 되면 마당의 한쪽에 우물을 파서 펌프를 설치했고, 1970년대 들어 모터를 설치했다. 당시 유명 상표는 한일자동펌프였다. 이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 10여 년 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다. 물이 넘쳐나던 아랫말 우물은 15년 전 쯤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물이 말라버렸다.


새말 우물 위치



수량이 풍부했던 금암2리 아랫말 우물 자리

(2) 식생활

골안말 마을회관 앞 우물은 골안말 사람 대부분이 사용했다. 아침이면 물길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누구네는 아침 끼니를 못 끓였다.’ 느니 하는 얘기가 오갔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죽을 많이 끓여 먹었지만, 결혼할 당시 세 식구에 논 7마지기를 소유했던 한방자는 죽은 많이 안 먹었다. 또한 보리방아를 찧은 후 나오는 고운 겨를 따로 받아다 콩을 넣고 물에 개고 솥에 쪄낸 보리 개떡은 어려운 사람들의 끼니가 되고, 아이들의 군것질거리가 되기도 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여름에 날이 가물어서 논에 메밀을 심어 수확해서 메밀밥, 메밀묵을 많이 해먹었다. 메밀을 갈아서 칼국수를 만들어 메밀장국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안말 차종화(남, 1937년생)는 보리개떡을 겨울에도 먹었고, 여름에도 먹었다고 했다. 겨울이면 보릿겨도 없어서 부잣집에 가서 얻어다 개떡을 만들었다. 봄에 보리가 노랗게 여물 때면 이삭을 잘라다가 절구에 찧어서 보리밥도 지어 먹고 죽을 쒀 먹기도 했다.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도 잘 사는 집이나 못사는 집이나 겨울에는 죽을 많이 쒀먹었다고 말했다. 주로 흰죽이나 호박죽, 김치죽이었다. 새말의 한도희 역시 주로 김치죽을 많이 먹었고 가끔 호박죽을 먹었다. 그는 죽을 쑤면 2그릇씩 먹었다며 “죽을 먹으면 배통만 늘어난다고 그랬어!” 라고 말했다.

반찬은 주로 밭에서 나는 채소 위주였다. 김장은 배추 김치, 총각 김치, 무 짠지, 동치미를 담갔다. 김장 때가 되면 소금이나 새우젓을 파는 행상들이 마을을 돌아다녔다. 한방자는 옛날에 멸치젓을 넣은 기억은 없고 새우젓만 썼다. 새우젓은 오산장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행상들에게 구입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배추도 지금처럼 아삭거리고 모양 좋은 것이 아니라 억세고 쩍쩍 벌어진 모양이었다. 쌀이 부족할 때면 밭에 심어 수확한 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점심에는 동치미와 함께 먹기도 했다. 겨울에 김치죽을 많이 쑤어먹기 때문에 김치도 일찍 동이 나면 고추장을 반찬 삼아 먹기도 했다. 안말 차종화(남, 1937년생)는 어려서 소금에다 고춧가루와 깨소금을 조금 넣고 볶은 것을 김치가 떨어진 이른 봄에 반찬 대신 먹기도 했다.

봄이 되면 망초대, 쑥, 질경이 같은 나물 반찬을 할 수 있었다. 주변에 높고 깊은 산이 없어서 산나물이나 고사리는 거의 없었다. 한방자는 마을 주변에서 나는 산나물과 고사리를 본 적이 없다. 새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종숙(여, 1960년생)도 봄에 냉이나 쑥, 달래는 캐러 다녔지만, 산나물이나 고사리는 본적이 없었다. 반면에 차종화는 취나물이나 고사리도 반찬으로 먹었으며, 쑥은 국을 끓이기도 하고 삶아서 쑥개떡을 해먹었던 기억이 있다.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은 “봄이 되면 냉이나 씀바귀 같은 나물을 뜯어다 반찬을 했고, 산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산나물은 많지 않았다. 수월암까지 한 10리 길은 돌아다녀야 한 번 먹을 산나물을 뜯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오산장에 가는 날에는 종종 꽁치, 고등어, 동태 등의 반찬거리를 사왔다. 그땐 그게 쌌기 때문이다. 차종화는 “갈치는 그때도 드물었어. 갈치는 없어” 라면서 갈치는 부잣집에 일하러 갈 때나 특별식으로 맛볼 수 있는 생선이라고 말했다. 한방자는 꽁치나 고등어, 동태도 못 사먹으면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샀는데, 그중에서도 조개젓이 좀 더 값이 나갔다고 한다. 새우젓으로 호박젓국을 끓여먹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마을에서 돼지를 잡기도 했지만 고기를 먹기는 대단히 드물었다. 비교적 젊은 조덕상(남, 1967년생)도 어렸을 때 오산이나 송탄에서 사왔던 고기는 명절에나 먹어봤다고 했다.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기름을 사다 국을 끓여먹기도 했다. 안말의 조희상(남, 1960년생)은 “소기름 덩어리를 사다가 무 넣고 볶다가 국을 끓이면 맛이 좋았어!” 라고 했다.

(3) 연료

금암리에는 높은 산이 없어 땔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안말과 골안말 금암저수지 동쪽 매봉산 자

락에서 나무를 많이 했다. 나무라고 해봐야 주로 솔잎이나 갈잎 같은 나뭇잎을 긁어다 땠고 한겨울에는 청솔가지도 좋은 연료가 되었다. 단속이 심했기 때문에 청솔가지는 밤에 가서 잘라야 했다. 한방자(여, 1941년생)는 "옛날 집은 쥐구멍이 많아서 청솔가지를 땔 때 연기가 안쪽으로 새 들어왔다."고 했다.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은 "지금은 산에 풀이 우거졌지만, 옛날에는 풀도 없었다."고 했다. 연료는 주로 땅에 떨어진 솔가래(솔잎) 또는 잘라서 말린 풀이나 짚도 많이 땠다. 콩깍지나 초가지붕을 걷어낸 것도 연료로 사용했다. 임광래(남, 1938년생)는 풀뿌리를 캐다가 흙을 털어서 연료로 때는 경험도 했다.

전체적으로 산이 많지 않아 금암리 사람들은 겨울에는 진위면 쪽 무봉산 기슭이나 용인 쪽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보통 지게를 지고 가기도 하고, 몇 집이 함께 마차를 끌고 가서 저녁 나절까지 나무를 해서 싣고 오기도 했다. 아침에 보리밥과 고추장 반찬을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하루 종일 나무 1짐을 해왔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심으로 죽을 싸가기도 했다. 나무는 잡목이거나 나무를 베고 난 그루터기, 또는 풀뿌리 등이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김치와 콩장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서 진위면 마산리 쪽으로 먼산나무를 갔던 경험이 있다.

골안말 할머니들은 50여 년 전에 연탄이 들어왔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숙은 현재 52세 된 막내딸을 낳았을 때 석유곤로를 사용했다. 석유곤로 다음으로 연탄을 땠다. 연탄은 서정리에서 배달을 했는데, 이 마을 출신인 경실 아버지라는 사람도 연탄 장사를 해서 골안말 사람이 주요 이용했다. 한방자는 한 겨우내 땔려면 한 번에 300장 정도를 들여놓았다. 보통 부엌 아궁이 세 개인데, 세 개중 하나를 연탄 아궁으로 만들었다. 방이 2개일 경우 연탄 아궁은 2개가 되었다.

안말의 차상석(남, 1957년생)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연탄을 때다가 1976~7년 무렵부터 많이 보편화 되었다고 했다. 차상석은 이 시기 연탄을 사용한 사람이 늘어나는 배경을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쌀 수확량이 늘어나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던 데서 찾았다. 조재관(남, 1933년생)은 1960년대 초반부터 연탄을 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연탄은 일부였고 대부분은 연탄 이 외의 땔감을 사용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그가 25세가 됐을 무렵에 연탄을 때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몇 집이 어울려 이장을 통해 연탄을 신청하면 트럭으로 배달해 줬다. 당시 연탄은 주로 오산에서 가져왔다. 연탄은 겨울에만 땠기 때문에 가을에 1번 200~300장을 사서 쌓아놓고 사용했다. 부엌의 아궁 3개 중에 가운데 1개 아궁이만 연탄을 땠다. 한도희는 연탄이 나오면서 나무 걱정을 많이 덜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아궁이에 연탄을 때다가 그가 45세가 되었을 무렵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했고 이후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난방했다.

금암리에 도시가스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 골안말 이장 조덕상은 "평택시 도시가스 설치 비율이 99.5%인데, 서탄면 지역은 미군기지 남쪽의 장등리나 금각리만 설치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수월암1리가 공사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앞으로도 6~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4) 주택

한방자가 수원에서 골안말로 시집왔을 때 막내 아들인 신랑과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다. 부엌 하나에 방 2개, 마루가 있는 초가였다. 그녀는 옛날 집이 다 그 정도 규모였다고 한다. 시집오셨을 때 기와집이 몇 채쯤 되었냐는 물음에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6.25 전쟁 때 잘 사는 집은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1970년대 초반 새마을 운동 당시 이장이었던 황세연(남, 1933년생)은 그 당시 골안말에 기와집은 한 채도 없었다고 했다.

새말에는 새마을 운동 전에 기와집이 2채 있었는데, 모두 한씨 집안이었다. 초가집은 보통 2년에 한 번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갈았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5~6집이 품앗이로 이엉을 엮어서 작업을 했다. 이엉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7~8마름을 엮었고, 잘 엮는 사람은 9~10마름을 엮을 수 있었다. 땔 나무가 귀했던 금암리에서 걷어낸 이엉은 연료로 사용했다.



리모델링한 전통 가옥(안말)



새말 한각수 가옥의 사랑방과 대문

부엌 아궁은 보통 세 개였다. 아궁이 세 개니까 솥도 세 개를 걸었다. 하나는 밥하고, 하나는 국 끓이고, 하나는 더운물을 데우는 큰 솥이었다. 연탄이 들어오면서 가운데를 연탄 아궁으로 만들었다. 연탄 아궁이 되면서 여기다 밥도 해 먹고 찌개도 끓였다.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부엌에다 큰 항아리를 묻어놓고 물을 동이에 길어다 부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물 길어다 항아리를 가득 채워놓았다. 골안말 한방자는 물동이를 이고 큰 솥에 부으려다가 동이째 빠트린 적도 있었다. 한겨울이라 추워서 손이 곱아 동이를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다.

5. 문화생활

1) 교육

(1) 서탄초등학교



서탄초등학교 전경

① 설립과 연혁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 평택 북부 지역에는 1924년 개교한 서정리초등학교와 1898년 사립학교로 출발하여 1899년 공립학교로 전환된 진위초등학교가 있었다. 서탄면에서는 오산천을 건너 봉남리의 진위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근대 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으로 1920년 서탄면 야리 출신인 최기환(崔基煥) 등을 중심으로 4년제 회화리강습소가 설립되고[28], 1924년 서탄면장 이필성(李弼成) 주도로 회화리에 '진서강습소'가 들어섰다.[29] 설립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골안말에도 근대 교육을 위한 강습소가 있었다. 근대 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은 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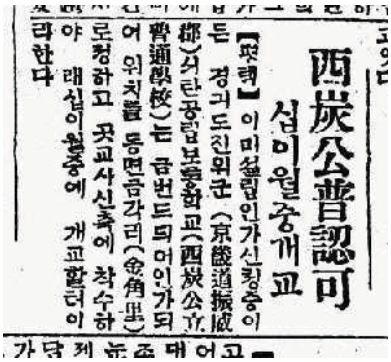
1930년 4월 8일자 『동아일보』에 서탄공립보통학교 개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1만 원의 경비 가운데 6천 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4천 원은 지역 유지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학교를 세워서 오는 2학기에 개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서탄 지역 유지들이 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총 비용 가운데 40%를 기부했다는 사실에서 지역민들의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이 확인된다. 8월 22일 학교 설립이 인가되어[30] 예정에 따라 12월 15일에 서탄공립보통학교가 4년제로 개교했다. 그런데 1930년 9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 서탄공립보통학교가 자리잡을 위치를 '금각리'라고 했다. 이것이 오보(誤報)가 아니라면, 처음 학교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학교 위치에 대한 논란 끝에

2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하권, 2001, 744쪽.
29) 『동아일보』, 1924년 4월 14일.
30) 『조선총독부관보』제1107호(1930.09.09.)

서탄면사무소가 자리한 현재 위치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西炭面公普
구원에개교

서탄초등학교 설립 기사
(『동아일보』, 1930.04.08.)


西炭公普認可
십이월중개교

서탄초등학교 인가 기사
(『동아일보』, 1930.09.24.)

서탄초등학교 출신이면서 송북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임광래(남, 1938년생)는 모교인 서탄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1990년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그는 모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다. 기념비에 학교 연혁을 새길 목적으로 학교 연혁지를 찾아 검토하다가 자신의 부친인 임승국(林承國)이 초대 기성회장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승국은 1935~1938년 서탄면장을 역임했다. 임광래는 서탄초등학교 1회 졸업생을 찾아다니면서 설립 전후의 사정에 대해 듣고 학교에 보관된 연혁지의 내용을 고증받아 그 내용과 주요 연혁을 기념비에 새겼다.



서탄초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비(앞면)



서탄초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비(뒷면)

기념비 뒷면에 기록된 주요 연혁, 기부자 명단과 기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 혁
1929. 12	설립인가 신청 설립기성회 조직 기부금 모금
1930. 11.	교사 60평, 사택 12평 준공
1930. 12.	개교 학생 21명
	금암리 245번지 대지 737평 금암리 244번지 대지 426평 금암리 233번지 대지 126평 이상 일반기부금 구입
	금암리 243번지 대지 329평 임승국 기증 금암리 646번지 답 988평 박수훈 기증 금암리 23-4번지 임야 1,800평 유인창, 임승국, 최기환, 윤병흠, 한원교, 상진현의 씨들의 기증금과 군 보조금으로 구입
1946. 9.	의무교육 시작 15학급 편성
1946. 10.	적봉분교 개교, 현 금각학교
1967. 6.	내수분교 개교
1975. 12.	금각리 246번지 대지 295평 차씨 문중 기증 동년부터 1980년까지 16개 교실 개축
1985. 2.	병설 유치원 인가
1988. 12.	교문 어린이상 지행일치탑 준공
1990. 2.	57회 졸업 총 5,466명
1990. 12.	개교 60주년 기념비 제막 한당 신현화 씀

기념비의 내용에 의하면 개교하기 1년 전인 1929년 12월 학교설립기성회가 조직되었다. 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탄면장을 역임했던 임승국의 역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초대 기성회장을 맡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기환은 이미 1920년에 회화리강습소를 설립하여 근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였으며, 유인창은 당시 서탄면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이 외에 일반인들도 대지 729평을 구입할 정도로 참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선각자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높았지만 막상 입학생 모습은 쉽지 않았다. 임광래는 1회 졸업생인 선배들로부터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이 안 와서 각 마을로 다니며 학령이 된 아이들을 붙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임광래는 초임 시절 서탄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때는 학급당 60~70명으로 2개 학급이어서 한 학년이 140명 정도였으며, 중학교 입시도 있었다.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의무적으로 남아 저녁 8시 정도까지 공부했고, 저녁 공부가 끝난 후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금지하려고 암행감사를 다녔다.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비해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담요로 창문을

가리며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6학년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이 밤까지 공부를 했지만 정작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서탄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
(사진 출처: 서탄초등학교 제공)



1953년 서탄초등학교 모습

임광래는 모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졸업생으로서 또 교사로서 학생 교육에 많은 애정을 쏟았다. 졸업생들에게 책을 기증받아 교실 2개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고, 가난한 시골 아이들을 위해 입학선물로 책가방, 자, 크레파스 등을 입학 축하 기념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그의 마을 후배 중에 차석규라는 인물은 시사영어사에 근무하면서 모교 아이들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쓰던 풍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듬해 졸업식 때 새것을 사서 오산에서부터 혼자 짊어지고 학교까지 와서 기증했다. 그는 개교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동문회 결성을 추진했다. 초대 동문회장에는 내천리 출신으로 수원검찰청 지청장이었던 조용락이 맡았다.

2010년 전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학교별로 5억 원 가량 지원되었다. 이것으로 서탄초등학교 공원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서탄초 김정화 교장은 미군부대로 수용되는 황구지 마을에서 쓸만한 나무들을 기증받아 옮겨왔다. 기증받은 나무들은 학교 숲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정화 교장은 잔디 운동장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 4백만 원 가운데 3백만 원은 서정리의 유화식, 안말의 임광래, 사리의 홍선각이 각각 1백만 원씩 부담했다.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손수 잔디를 심었고, 서탄농협 원로청년회 회원 40여 명도 함께 했다.

■ 서탄초등학교 연혁[31]

1930년 08월 22일 서탄보통학교 설립인가
1930년 12월 15일 서탄공립보통학교 개교(4년제)
1938년 04월 01일 서탄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 변경
1941년 04월 01일 서탄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1942년 04월 01일 6년제 학년 연장
1953년 10월 01일 금각분교장 개교
1954년 04월 01일 금각분교장이 금각국민학교로 독립
1967년 06월 01일 내수분교장 개교

31) 서탄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eotan-e.goept.k) 참조.

1968년 03월 01일 내수분교장이 내수국민학교로 독립
1993년 03월 01일 금각국민학교가 금각분교장으로 격하
1996년 03월 01일 서탄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0년 08월 31일 금각분교장을 복창초등학교에 통폐합
2003년 10월 10일 병설유치원 건물 신축



교훈과 교가


해솔관(체육관)

② 학교 현황[32)]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특수	행정직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계
본교	남	0	1	1	2	0	0	3	7
	여	1	0	2	5	1	2	8	19
	계	1	1	3	7	1	2	11	26
내수분교	남	0	0	1	0	0	0	0	1
	여	0	0		1	0	0	2	3
	계	0	0	1	1	0	0	2	4
총계		1	1	4	8	1	2	13	30

학생 현황(괄호는 특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본교	남	3	2	5	3(2)	4	6(1)	23
	여	6	6(1)	4	6	6	3	31
	계	9	8	9	9	10	9	54
내수분교	남	3	1	0	0	0	2	6
	여	0	3	2	0	0	1	6
	계	3	4	2	0	0	3	12

32) 서탄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eotan-e.goept.k) 참조.

시설 현황

구분	보통교실	특별교실	교실	도서실	방송실	보건실	교육정보실	병설유치원	급식실	교장실	행정실	숙직실	화장실	창고
서탄	7.5	3	0.5	1.5	0.5	0.5	1	2	2.5	0.5	1	1	4	2
내수	3.5	2	0.5	0	0	0	0	1	1	1	0	0	2	1

(2) 서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전경

■ 위치: 평택시 금암2길 121(서탄초등학교 내)

1985년 인가되어 개원했다. 인가 총 정원은 18명이지만 현재 2023년 현재 7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교직원으로 교사 1명과 사무원 1명이 근무한다.

2003년 287㎡ 규모로 신축된 유치원 건물은 서탄초등학고 본관 건물 서쪽에 있으며, 건물 남쪽으로 놀이터를 설치했다. 68㎡ 크기의 교실이 1칸 있으며, 보건실과 급식실은 초등학교와 공유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용은 무료이고,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간식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월 22,500원이다.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미술, 오르프, 체육, 과학, 한글/수 등을 개설하였다. 오르프와 체육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에 맡기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교육 경험

일제 강점기 골안말에 강습소가 있었다. 강습소의 위치는 현재 마을회관 동쪽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강습소 자리로 가리키는 자리는 옛 서탄면사무소 자리와 같았다. 남편이 강습소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한방자도 그 자리를 지목했다. 골안말 주민 중에는 이 강습소가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방자(여, 1941년생)도 어린 시절 강습소에서 공부했던 남편한테 듣기만 했다. 서탄초등학교 18회 졸업생인 임광래(남, 1938년생)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1년 동안 골안말 강습소에서 공부했다. 그는 이 강습소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학생이나 학교 못 간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금암2리 출신의 조재관(남, 1933년생)은 서탄초등학교 14회 졸업생이다.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방을 맞았다. 해방되기 전 일본인 교사가 1~2명 있었는데, 일본인 교사가 성격상으로 더 강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강요했지만 아직은 일본말이 서툴러서 우리말을 더 많이 썼다. 등교 시간에 늦거나 아이들끼리 다투는 등 잘못을 하게 되면 회초리를 맞거나 토끼뜀 같은 벌을 받았다. 그의 1학년 입학 동기는 60명 정도 되었고, 안말 동기는 7명의 있었는데, 그 중 1명만 여학생이었다. 7명의 동기생 중 남학생 2명만 중학교에 진학했으며, 2명 중 1명만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안말 조재관 부부



회화리 교회 야간학교에 다닌 차종화

안말 차종화씨는 다른 학생들보다 늦은 9세에 서탄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해방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일본말이 아닌 우리말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일러서 벌을 받았다. 보통 교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정도의 벌이었다. 일본말을 거의 모르는 1학년 때부터 배워서 아는 말은 일본어로 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벌을 받은 후에는 "다음부터는 일본말로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회화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에 다녔다. 당시 야간학교가 교회에도 있었지만 마두리에도 있었다. 그는 낮에 일하고 야간에 가서 공부했는데, 낮에 고되게 일했기 때문에 밤에 학교에 가더라도 조느라고 공부하기가 힘들어 두어 달 다니다 그만두었다.

서탄초등학교 31회인 금암2리 이장 장태용(1951년생)이 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생수가 늘어서 한 학급에 75~78명이 되었다. 전교생은 9백 명 이상이었다. 그의 5~6년 후배들은 숫자가 더욱 늘어 교실 공간이 모자라서 교무실과 교장실도 교실로 사용할 정도였으며,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이 늘어가고 교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장태용이 졸업하고 3년 후인 1967년 6월 내수분교가 설치되었다. 장태용의 서탄초등학교 동기생은 160명 가량 되었다. 그의 동기 가운데 오산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여학생은 10명 미만이었고, 남학생도 15명에 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안말 조진호(남, 1952년생)는 서탄초등학교 31회로 그의 동기생은 2개 반에 학생은 120명이었다. 안말 학생은 남녀 모두 16명으로 1964년에 졸업했다. 같은 마을 졸업생 가운데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등 7명이 오산중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는 5명이 갔다.

안말 차상석은 홍역을 앓고 출생 신고가 되는 바람에 실제보다 3세가 줄어 10세에 서탄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3년 선배들이 모두 친구였고 동기생들은 후배였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기생들은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는 형이라고 불렀다. 1957년생인 차상석은 1960~70년대까지도 보리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 역시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위중학교에 진학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1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부친 소유인 논 2천여 평, 밭 1,500평에서

농사를 지었다.

골안말 조희상(남, 1960년생)은 서탄 초등학교 40회로 1967년 입학했다. 당시 골안말에서는 초등학생이 없는 집이 없었고 그의 동기생만도 남녀 합쳐서 12~13명이나 되었다. 등굣길에는 매일 뛰어다녔고, 그 자체가 재미있었다. 그의 동기생들은 80~90%가 중학교에 진학했고, 중학교 졸업생 중 70~80%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마을 동기생 모두 진위중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그 중 3~4명은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여학생은 4명 가운데 1명만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두가 집안의 경제 여건 때문이었다. 진학이 어려운 아이들은 서울 구로동 쪽에 취직해서 나갔다. 조희상의 3~4년 선배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를 절반도 진학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2년 선배들부터 중학교 진학률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했다. 또한 조희상 2년 선배부터 서탄초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진위중학교로 진학해야 했다.

조희상은 중학교까지 걸어다녔는데, 골안말에서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다. 자전거로 가면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비싸서 장만하기 어려웠고, 조희상은 오산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야 자전거 통학을 할 수 있었다. 오산고등학교까지는 오산천변 둑방길을 걸어 질러가는 방법과 자전거를 타고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나가서 국도 1호선을 따라 가는 방법이 있었지만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비슷했다. 자전거를 타면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탄입구까지 걸어가서 오산터미널까지 버스를 탔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해도 걸어가는 거리가 길어서 전체적인 시간은 둑방길로 걷는 시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송탄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어서 서탄 입구까지도 차로 갈 수 있지만 요금이 비싸서 서탄입구까지는 걸었다. 부모님들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를 바랐다.

조덕상(남, 1967년생)은 1974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골안말 아이들은 마을 서쪽 산 남쪽 아래 소로길 또는 논길로 가거나, 서탄로인 신작로를 따라서 갈 때가 있다. 지금 걸어가 보면 1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길이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20~30분이나 걸렸던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당시는 학교에 애향단 조직이 있어서 아침에 마을 앞에 모여서 줄 맞춰서 학교까지 걸어갔다. 그의 동기들은 모두 진위중학교로 진학했고 고등학교는 평택이나 오산으로 많이 갔다. 그의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까지 진학했다.

2) 종교

(1) 서탄중앙교회



서탄중앙교회



담임 목사 박태원

■ 위치: 서탄면 금암2길 124-4 (금암리 253-1)

안말 차종화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회화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회화교회를 나갔다. 부흥회가 있을 때는 마을 아이들 댓 명이 함께 가기도 했다. 당시 금암리 사람들 중에 회화교회를 다닌 어른들은 없었다고 했다.

2014년 7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박태원(남, 1966년생) 목사에 의하면 서탄중앙교회는 1957년 7월 회화리교회에서 분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회화교회 초대 장로 2명 가운데 하나이면서 후에 목사로서 서안성교회를 개척했던 박흥덕(남, 1935년생) 목사로부터도 확인된 사실이다.

1955년 장로회신학대를 졸업한 김춘태 전도사가 회화교회에 부임했다. 박흥덕은 그가 회화교회가 속한 기독교 장로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김춘태 전도사를 추종하는 차금분, 한흥석, 고일만 등 4~5 가정이 교회를 분리해서 차금분의 남편인 배명봉이 부지를 기부해서 회화교회 옆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박흥덕은 건물터 다지는 것까지 목격했다. 그런데 김춘태 전도사가 폐결핵이 걸려 떠나게 되자 교회 건축을 중단했다. 이후 금암 2리 안말 사람인 윤경원이 교회 부지를 기증해서 서탄중앙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차종화(남, 1937년생)는 회화교회의 한흥석 장로가 회화교회에서 금암리 교회가 분리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차종화에 의하면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수철 목사를 중심으로 현재 금암교회 자리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했다. 차상석은 차씨 집안 종손이 교인이어서 금암중앙교회 부지를 기증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차종화는 박흥덕의 기억이나 차상석의 추정과는 달리 원래 땅 주인이 천주교인이면서 서울에서 금암리로 이주한 서대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차종화는 처음에 4~5년을 천막교회로 있다가 교회당 건물을 신축했다고 말했다. 박태원 목사는 “처음 가정에서 창립 예배로 시작하였고 1957년 7월에 벽돌로 쌓은 30평 정도의 교회당 건물을 완공했다.” 고 말했다. 1976년 63평의 현재 본관 건물이 완공되면서 옛 건물은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태원 목사는 서탄중앙교회 신자들이 주로 금암 1·2·3리와 수월암리, 마두리에 골고루 있다고 했다.

그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60~7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40~50명 선으로 줄었다. 70대 노인 신도들이 많고 60대 이하는 7~8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유행 시기에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어 신자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학생들 숫자가 적어 주일학교는 초·중·고 통합으로 운영되는데, 예전에는 20여 명이었다가 현재는 10여 명 정도로 줄었다.

(2) 백석중앙교회



백석중앙교회 위치


담임 목사 이용복

■ 위치: 서탄면 금암2길 77-4 (금암리 460-1)

2007년에 이용복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신도수는 현재 20~30명이며 주로 송탄 시내 사람들이다. 주일학교는 초·중·고생을 합쳐 1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3) 민속

(1) 당제와 우물제

골안말 당제는 마을 서쪽 산에서 지냈고, 마을에서는 이곳을 당제산 또는 당귀산 이라고 불렀다. 당제산에 당목이 있었으나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당목을 베고 원래 지형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골안말 이장 조덕상(남, 1967년생)은 초등학교 3~4학년 때까지 당제를 지냈던 기억을 갖고 있다. 한방자는 “당제사 지낼라구 날 잡으면 이 우물 못 먹었어. 여기서 퍼다 제사 지냈지” 라며 마을 회관 앞 우물을 가리켰다. 당제는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지냈다. 당제산에는 당나무도 있었지만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없앴다. 김상숙(여, 1944년생)은 그 나무가 붉었다는 기억을 했으나, 무슨 나무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골안말 당제산 위치



전원주택이 들어선 골안말 당제산 주변 모습

황세연은 그가 골안말 이장이었을 때 당제를 지냈다. 제기는 당나무 아래 두고 매년 당제를 지내고 이엉으로 둘러 보관하였다. 마을에 거주하는 60갑자를 보는 노인이 날도 잡고, 제주(祭主)도 선정했다. 제주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사주까지 짚어서 결정되었다. 그는 보통 음력 11월에 당제를 지냈다고 기억했다. 날이 정해지면 제주가 사는 집에는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제사에 필요한 음식은 모두 제주 부부만이 장만할 수 있었다. 우선 쌀 3되 3홉을 가지고 조라술을 담가서 제기를 보관하는 곳에 놓았다. 예전에는 돼지도 잡았다고 했지만, 황세연이 이장이었을 때는 제물로 고기와 북어 정도만 간단하게 차렸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제주와 이장, 두명이 올라가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낸 다음 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에게 술 한 잔씩 대접하는 것이 당제의 마지막 순서였다.

안말 당제는 음력 10월 초에 지냈다. 조재관(남, 1933년생)은 마을 당제 날짜 정하는 일도 해봤고, 당주가 되어 당제를 주관해 보기도 했다. 제주는 당제 2~3일 전에 정하기 때문에 제주가 되어도 금기 사항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제수로는 삼색 과일과 산자, 북어를 준비했다. 조재관은 술은 별도로 담그지 않고 막걸리를 사다가 지냈음, 돼지머리나 소머리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다.[33] 당제는 해가 넘어간 후 1~2시간 후에 시작되었다. 소지는 마을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만 올렸다. 당제 지내는 날은 제주와 심부름하는 두 사람이 함께 당산에 올라가 제를 지냈다. 당시 마을에 거주했던 70여 호 이상 가구의 소지를 올리며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빌었다. 조재관은 새마을 운동 할 무렵까지는 당제를 지냈고, 40~50년 전에 중단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장태용씨가 1993년 이장을 지낼 때 당주를 자청하여 부활했다. 당제를 그만두고 마을 젊은 사람들이 암 등의 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자 '당제를 지내야 된다' 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주를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이장인 그가 당주를 자청했다. 당제 날짜가 원래는 음력 10월이었지만 이때는 대동회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양력 12월로 날짜를 옮겼다. 대동회를 앞에 두고 날을 잡으려는 의도였다. 당주(제주)로 선정되면 3일간 비린 음식을 삼가야 했고 외출도 조심했다. 상가(喪家)에 드나들어도 안 되고 부정한 집을 방문해도 안 됐기 때문이다. 또한 3일 전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당집을 새로 단장해야 했다. 마을 뒤 당산에 있는 큰 소나무와 참나무가 당목이었다. 두 당목 사이에 나무로 한 길 정도 높이의 삼발이를 해서 짚으로 엮은 이엉으로 둘러놓고 그 안에는 제기를 보관했다. 해마다 당제를 지내기 3일 전에 새로 엮은 이엉으로 갈고

33) 2009년에 발행된 '『평택민속지』(상)'에 서술된 안말 당제 내용은 조재관의 기억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제물로 마을에서 소를 잡았고, 제물로는 떡과 삼색과일을 준비했으며 조라술을 담갔따. 일제 말이나 새마을운동 때는 소를 잡을 수 없어 소머리로 대신했고, 근래에는 닭을 올렸다는 내용이다.(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188-189쪽, 2009.)

당집 주변과 당우물을 청소했다. 당우물은 마을 복판에 있으며 많은 집이 이용했던 한우물이었다. 제물로 소머리, 백설기, 삼색 과일, 북어포를 진설했다. 당주와 이장, 4명의 반장이 함께 당집으로 올라가 정확하게 밤 12시 정각이 되면 당제를 시작했다.

제가 끝나면 대동회를 열어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눴다. 조재관은 “당제는 지냈지만 우물에서 정제 지내는 것은 어려서부터 본 적이 없었다.” 고 했다. 그런데 장태용는 당제하고는 별도로 8월 추석 무렵에 한우물에서 정제(井祭)를 지냈다고 말했다. ‘『평택민속지』(상)’ 에도 음력 8월 추석 전날 소를 잡아 한우물에서 정제를 지냈다고 서술되었다.



안말 당목 위치



당목 주변의 현재 모습

금암3리에서는 음력 10월에 길일을 잡아 당제를 지냈다. 당나무는 마을 뒷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였다. 당집은 별도로 없었다. 제주를 맡으면 1주일 정도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고, 고기와 생선을 금했다. 제를 위해 당나무 아래에 황토를 깔고 물을 올려놓았다. 여자들은 제사 준비하는 일은 했지만 제사 참여는 금지되었다. 올해 49세가 되는 홍순복(여, 1953년생)의 아들이 3세가 되던 해 마지막 당제를 지냈는데, 마지막 당제까지도 제물에 쓸 소를 잡았다. 『평택민속지』(상)에는 “17년 전에 산신제가 중단된 새말은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잡아 제를 올렸다.” 고 서술되어 있다.[34] 한도희(1938년생)는 마지막 당제를 지낼 때 제주를 맡았다. 당시 제물로는 소머리와 다리 한 쪽을 과일과 떡, 북어포와 함께 올렸다. 제기는 집에서 쓰던 것을 사용했고, 제주(祭酒)는 제관을 맡은 집에서 막걸리로 빚었다. 전체적인 비용이 당시 돈으로 100만원 정도 들었고, 모든 비용은 집집마다 걷어서 충당했다. 제사 음식은 제주 집에서 모두 준비했다. 초저녁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제주를 포함하여 5명 정도가 당목 아래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시작하였다. 술을 잔에 따라서 땅에 붓고 절을 두 번 하고 잔을 올린 후 축문을 읽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을 하면서 소지를 올렸다. 다시 절을 두 번 하는 것으로 당제를 마치게 된다. 당제가 끝나면 잡은 소 고기를 집집마다 나눴다. 한도희는 그때까지 3년에 한 번 정도 당제를 지냈다고 했으나, 그보다 한참 젊은 한준희(남, 1965년생)는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냈다고 했다. 새말에서는 당제를 지낸 다음 날 아침 아랫말과 웃말 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냈다. 정제를 지내는 하루 전에 우물을 청소하고 두 줄로 금줄을 쳤다.[35] 제물로는 소고기와 과일, 떡을 진설했다.

34) 평택문화원, 『평택민속지』(상), 188-189쪽, 2009, 189쪽.
35) 새말 마지막 제주를 맡았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정제 전에 금줄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홍순복(여, 1953년생)은 금줄을 둘렀다고 말했다.



새말 당목 위치


청주 한씨 묘역 동쪽의 당목(참나무)

(2) 두레

금암리 3개 마을 모두 논매기 할 때 두레놀이를 했지만 1970년을 전후해서 모두 사라졌다. 이 시기 농지정리를 했는데,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농지정리 되고는 안 했어" 라고 말했다.

20대 중반에 골안말에 정착했던 황세연(남, 1934년생)은 이 마을에서 논매기 할 때 두레 노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농악 악기는 모두 있었지만 악기 연주를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희상(남, 1960년생)도 논매기 할 때 두레를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모내기와 논매기 할 때 술 한 잔씩 먹고 노래 하는 것은 봤지만 두레는 보지 못했다. 다만 어려서 설이나 추석 때 농악을 치고 놀았던 장면은 많이 봤다. 아마도 골안말 두레는 1970년대 이전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은 안말 두레가 좌상, 상쇠, 부쇠, 징, 북, 장구, 버꾸(법고)잽이로 구성되었는데, 좌상과 상쇠가 겸할 때도 있었고, 부쇠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버꾸잽이는 5~6명 가량 되었다. 그는 골안말과 새말의 두레는 시원찮았고 안말 두레가 좀 특별하게 잘 했다고 했다. 차종화(남, 1937년생)는 옛날 서탄면 20개 마을 중에서 안말과 회화리 두레가 컸다고 했다. 두레의 전통을 이어 차종화가 이장을 보던 1972년 무렵에는 평택시 농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는 안말 두레 인원이 많을 때는 15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잘 사는 집은 일이 끝나면 막걸리를 내어서 한바탕 놀곤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집이 안말에 7가구가 있었다. 두레패의 일정을 정리하는 인물을 가리켜 '식화주' 라고 불렀다. 식화주가 기록한대로 논매기의 순서가 이루어졌다.

조재관은 옆 마을과 두레 싸움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차종화는 두레가 약한 부락은 두레싸움을 하지 않았고, 두레가 성했던 안말과 회화리 사이에 두레쌈이 많았다고 얘기했다. 그는 회화리와의 싸움으로 징도 깨지고, 장구도 부서졌다는 얘길 들었다. 회화리의 차경환(남, 1941)이나 안말의 차상석(남, 1957년생) 역시 회화리와 안말의 두레싸움을 얘기했다.

차상석은 안말 두레의 마지막 상쇠를 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두레 노는 것을 보고 들을 것만으로 가락을 칠 수 있어서 당시 어른들이 두레 노는 것만 보고 들으면 쫓아서 했다. 그래서 16세라는 이른 시기에 상쇠를 맡았다. 그는 안말 두레가 논매기 할 때 좌상, 상쇠와 부쇠, 징, 장구, 북을 담당하는 사람이 모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회에 나갈 때는 두 명씩으로 구성했다고 한다. 논매러 갈 때는 버꾸(법고)잽이는 법고를 들기만 하고 그냥 뒤좇아 갔다. 일 하러 나갈 때는 길가락을 치면서 갔다가 일터에 도착 후에는 자진가락으로 한바탕 신나게 놀고난 후 논매기가 시작된다. 옛날에는 앞재비

가 선소리를 하면 뒷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일을 했다. 선소리 하는 앞재비는 논두렁 쪽으로 서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안쪽에 섰다. 함께 줄을 맞춰 작업을 하다가 논이 끝나기 전에 가장 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이 빨리 돌아야 하지만 안쪽에 있는 연장자는 조금 천천히 돌 수 있었다. 논매기가 끝나면 농악을 놀면서 다른 논으로 이동한다. 차상석이 상쇠를 할 무렵에는 논맬 때 하는 선소리는 없어지고 모내기 할 때만 선소리를 했다고 한다. 논매기를 모두 마치고 귀가할 때는 신명나는 장단인 암새를 두드리면서 돌아왔다.



금암리와 회화리 사이의 들판(2006) [사진출처: 김해규 제공]

마을과 마을 사이에 두레패가 만나거나 보이면 가서 상대편 깃발에 꽂힌 꿩 깃털을 뺏는 두레쌈을 했다. 두레 싸움은 안말 두레는 회화리 두레와 맞수였다. 차상석이 어렸을 때 새말과 골안말의 두레는 거의 없어지고 안말과 회화리가 막상막하였다. 전라도에서 이주한 이종호라는 인물이 힘이 장사여서 회화리와 두레싸움이 나면 깃털을 다 빼앗아 왔다.

차상석은 안말 두레가 1970년대 초반까지 논매기 할 때 두레를 놀았지만 경운기가 등장하고 농기계가 늘어나면서 두레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했다. 논매기 두레는 없어졌지만 안말 농악은 1990년까지 유지되었다. 상쇠인 차상석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다가 1991년 방앗간을 운영했던 차상석이 사고로 오른팔을 잃으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상쇠인 차상석은 민속촌에서 스카웃 제의도 여러 번 받았었지만 거절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합쳐서 함께 다니며 일할 때만 두레를 놀았다고 했다. 애벌매기, 두벌매기, 훔치기까지 모두 두레를 놀았다. 문운경(남, 1944년생)이 1972년 새말로 이주했을 때는 이미 두레가 없어진 후였다.

(4) 지신밟기

안말에서는 정월대보름 때면 교회나 성당 나가는 집들을 제외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을 빌어주는 지신밟기가 이어졌다. 집에 들어가 우물이 있으면 우물 고사를 지낸 다음 부엌, 터주가리가 있는 뒤란으로 한 바퀴 돌아 마루에 차려놓은 고사반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쌀 한 말과 고기, 촛불 하나, 실을 매달아놓고, 신주가 있는 집은 신주도 꽂아놓는다. 고사가 끝나면 술 한 잔씩 먹고 다른 집으로 이동한다. 보통 고사반에 차려놓은 쌀은 마을 기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말에서는 다시 그 집에 두고 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집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차상석은 “그렇게 고사를 지내면 굿을

한 것보다 낫다.” 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안말의 조재관은 장독에서 시작해서 뒤란으로 돌아 집을 한 바퀴 돌면서 고사를 지내고 마지막에는 술과 안주를 대접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부엌에도 고사를 지냈지만 부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이 마을에 지신밟기가 없었다고 했으나 같은 마을 출신인 한준희(남, 1965년생)는 대보름 때 했던 지신밟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농악대가 공동 우물에서 시작하여 각 집 안으로 돌아다녔다. 넉넉한 집안에서는 고사상을 준비했지만, 대부분 집에서는 술상만 내놨다.

(5) 쥐불놀이와 망울



골안말 마울 행사 장소였던 참나무숲


참나무 숲길

안말과 골안말 아이들은 대보름이 다가 오면 서로 시비를 걸어 불깡통을 돌리다가 던지면서 싸움을 했다. 바로 옆 마을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평소 안면이 있었지만 이 싸움에는 양보가 없었다. 정월 대보름이면 액땜을 위한 망울을 놓았다. 조덕상(남, 1967년생)은 골안말 망울은 마을 동남쪽 참나무숲에서 놀았다고 했다. 지금은 참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농지였는데, 논 가운데서 망울을 놀았다.

안말은 마을 뒤에 산이 있어 불이 번질 염려가 있어서 마을 앞 길 건너에서 놀았다. 차상석은 보통 25~6세 정도 되는 나이층에서 이 행사를 주도했다고 기억했다. 굵은 나무를 갖다 세우고 안에 자잘한 나무 가지와 짚을 쌓은 다음 겉은 짚으로 엮은 이엉을 둘렀다. 불이 붙으면 장관을 연출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 구경하며 소원을 빌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달력에서 ‘쥐날’ 하루만 쥐불놀이를 했다고 했다. 그는 “쥐불놀이 할 때면 회화리 아이들과 서로 불깡통을 던지면 싸움도 벌였다.”고 말했던 반면에, 한무희(남, 1941년생)와 한준희(남, 1965년생)는 쥐불놀이 할 때 불깡통 던지는 싸움은 마두리 아이들과 많았다고 했다. 대보름 망울은 기물산 꼭대기에 불을 놓았다. 달이 오를 적에 불 놓으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망우려”라고 합창하듯이 외치면서 한 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금암3리 새말과 기물산

5) 놀이 문화

(1) 아이들 놀이

아이들의 놀이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10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오산천과 가까운 골안말 사람들은 넓은 백사장이 있는 오산천에서 수영하며 놓았던 기억이 강하다. 마을 골목길과 넓은 마당에서는 자치기와 사방치기 같은 놀이가 많았다. 겨울이면 물이 고인 논이나 들판에서 썰매타기와 연날리기로 하루를 보냈다.

골안말 조희상(남, 1960년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등하교 때 뛰어다닌 것 자체가 놀이였다.” 며 웃었다. 여름에는 금암교 남쪽으로 죽 수영하는 장소였지만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많이 즐겼다. 당시 금암교는 일제 때 놓은 목조 꺼먹다리와 시멘트 다리가 붙어 있는 모양이었다. 옛날에는 오산천이 자주 범람했기 때문에 금암리 쪽 오산천변으로 모래 땅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제방도 없었고 참외밭이 많았다. 오산천에서 수영하면서 놀다가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 서리 해서 먹곤 했다.

골안말 조덕상(남, 1967년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를 오가는 자체가 놀이였다고 했다. 조덕상은 학교 가는 길에 친구를 툭툭 치고 놀며 걸어갔던 기억이 있다. 가을이면 학교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 집어던지고 마을 주변 산으로 밤 따러 다니다 저녁 때 집에 와서 어머니께 혼나기도 했다. 마을 서쪽 당제산(지금은 캘리포니아 하우스 펜션이라는 주택이 들어섰다.)에서 땅 파 놓고 총싸움도 자주 했다. 아이들끼리 두 편으로 나누어서 아이 하나를 숨기고 서로 빨리 찾아내는 게임도 즐겼다. 조덕상은 이것을 ‘백구단 놀이’ 라고 했다. 이 외에도 자치기, 깡통 차기, 오징어 가이상이 있었고, 여름에 수영은 오산천 꺼먹다리 밑이나 적봉교 다리 밑에 가서 놀았다. 참나무 숲에 있는 논 옆으로는 모래사장이 넓어서 공도 차고, 야구도 했다. 비료 포대로 야구 글러브를 만들었다.

새말의 한준희(남, 1965년생)는 어렸을 때 뒷산 묘 옆 편평한 곳에서 축구를 했다. 마을에서는 주로 자치기나 구슬치기, 제기 놀이가 많았다.



금암교 주변으로 발달했던 모래사장


금암교 남쪽의 오산천

(2) 거북놀이

금암 3리 새말에서 거북놀이는 추석날 저녁 아이들 놀이였다. 새말의 한도희(남, 1938년생)는 거북놀이가 "보통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 놀이" 였다고 했고, 한무희(남, 1941년생) 역시 3~4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거북놀이를 했다고 기억했다. 좀 더 젊은 한준희(남, 1965년생)는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선배들이 하는 거북놀이를 구경했다. 당시 마을에 40여 가구가 살았는데, 아이들 20~30명이 모여 거북놀이를 했다. 아이들은 거북이와 남생이로 구분하여 치장을 했다. 거북이는 가느다란 나무를 엮어서 네모로 만든 틀에 수숫잎을 달아서 등에 메고, 거북이를 앞세우고 남생이가 뒤따라 가면서 집집마다 방문한다. 방문한 집에서는 떡과 송편, 부침개 등을 내줬다.

한무희는 거북놀이을 하는 아이들이 모든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잘 사는 집을 위주로 다녔다고 말했다. 당시 나이가 어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생활이 어려운 집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준희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지난 뒤에는 거북놀이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1970년대 초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5) 문화재, 보호수

(1) 한온장군충신정문(韓蘊將軍忠臣旌門)

■ 위치: 서탄면 금암리 594번지
■ 지정번호: 평택시 향토문화유산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 때 전라도 장흥부사로 재임하면서 달량포(達梁浦)에서 왜구와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한온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한온은 1560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36], 정문은 1696년(숙종 22)에 하사되었다. 이후 1875년(고종 12)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받았다.[37]

36) 명종 15년 "한온(韓蘊)의 직을 추증하라고 명하였다."고 기록되었고(『명종실록』, 명종 15년 11월 12일.), 『선조실록』(선조 11년 5월 6일)에 "그후(을묘왜변 후) 6년이 지난 뒤에 그 처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2품에 증직(贈職)하였으니……"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한온이 정2품 병조판서 증직이 이루어진 해는 1560년(명종 15)으로 판단된다.



한온 장군 충신 정문 전경



선묘비망기(先墓備忘記)



한온 장군 충신 정문 정표

정문은 정면 1칸(2m 50cm), 측면 1칸(2m 15cm)이다. 원래 현 위치의 왼편에 있었으나 도로에 가깝게 있고 내부의 목재가 많이 부식되어 2022년 우측으로 5m 40cm, 뒤로 1m 10cm를 옮겨서 개축하였다.

(2) 보호수



팽나무



팽나무 안내판

■ 소재지: 서탄면 금암리 255-1
■ 수령: 250년
■ 지정일자: 2011년 11월 23일
■ 지정번호: 경기-평택-50
■ 나무둘레(지정 당시): 350cm

37) 『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12월 16일.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12월 16일.

금암리 팽나무는 안말 마을회관 북쪽에 있다. 이곳은 마을 안쪽에서 면사무소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길옆이었다. 장태용(남, 1951년생)은 팽나무 옆으로 난 길은 원래 높았는데, 길을 넓히면서 깎아내려서 지금처럼 턱이 졌다고 했다. 서탄면사무소가 이전하기 전 안말로 들어가는 경계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가 안말의 역사와 밀접하며, 마을 서쪽 회화나무와 더불어 족히 700년은 넘었을 것으로 단정한다. 현재 회화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6) 전설

(1) 북바위[38]



북바위 위치


금암리 마을 지명의 어원이 되는 북바위

■ 소재지: 서탄면 금암리 27-7

북바위는 금암교 서쪽 끝에서 서북쪽 방향에 있다. 바위 높이는 8m, 둘레는 15m이다. 옛날 어느 장수가 공기돌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또한 옛날 부근 일대가 바다였을 때 밤중에 큰 장마로 물난리가 있으면 이 바위에서 피하라는 신호로 북을 울렸다고 한다.

3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01, 1178-1179쪽.

조덕상(남, 1967년생) 금암1리 골안말 거주, 금암1리 이장

날 짜	2023년 8월 11일
장 소	금암1리 마을회관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마을회관에서 면담하는 도중에 마을 어르신들 합류하여 함께 인터뷰



몇 년생이세요?

67년생입니다.

요즘 이장님은 연세가 보통 이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최고 막내죠.

서탄면에서 제일 막내요?

예.

그러면 이장님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6년째입니다.

여기는 이장을 선출할 때는 어떻게 선출해요?

이건 대동 12월에 대동회 해면서 인제 추천을 해는 거죠.

이장님은 이렇게 경쟁이 심한 동네도 있고 안 심한 동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인저 동네가 좁다 보니까요. 또 제 위로 인저 연배 차이가 많이 나요. 제 바로 위에가 뭐 50하고 59 형들, 저 밑에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마을에서도 좀 어리신 편이시겠네요?

그렇죠. 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인저 다 나가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오니까. 저도 인전 이장 그만둘 때가 됐는데 밑에가 없으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죠.

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마을도 많던데...?

있는데 인저 이 동네는 인저 다 한 번씩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 동네 또 인저 하우스를 해다

보니까 시간이... 하우스는 매일 붙어 있어야 되니까는.

이장님도 하우스 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해다, 지금 형이 공주에서 해구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긴 못 해구 매일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여기 해면서 거기, 맡은 게 서탄에서 막 방재단장이구 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다리 다친 것도 그것 관계 때문에 다친 건데.

방재단?

예. 서탄서 자율 방재 단장을 맡고 있어요.

방재단은 의용소방서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인저 이런 데, 쉽게 말해 다니다 보면 위험 요소가 있을까, 하다못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를 해서 치던가, 저희가 핼 수 있는 건 해구, 저희가 못 해는 건 시청으로 연결해서, 얘기해서 거서 해주고 그랬었어요.

이게 방재단이요?

예. 자율방재단, 평택시.

서탄면 자율방재단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 평택시 자율방재단 내 서탄 자율방재단.

방재단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도합 23분이요. 서탄면에.

이게 언제 조직됐죠? 저는 좀 낯선 이름이라...

이게 지금 앞전 그 형님이 15년을 했어요. 방재단장. 그리고 저한테 물려준 건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서탄은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을은 몇 가구나 살아요?

지금 다 70가구. 70가구에서 왔다 갔다 해더라고요.

70가구 내외예요?

예.

이장님 어렸을 때는 몇 가구 살았어요?

그때도 그 정도, 한 많아야 60가구 정도 됐었죠.

60가구 정도요. 그럼 별로 안 늘어났네요?

늘어나지 않았어. 줄은 건데, 빌라가 들어온 바람에 그나마 70가구가 된 거죠.

저 빌라는 몇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저게 19가구여. 빌라가.

언제 지어졌어요?
저게 한 24~25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90년대 말쯤에요?
그런 것 같애요.

그럼 토박이 비율은 어때요?
지금 토박이는 따져보니까요 한 30여 가구 안팎이에요... 근데 거즘 다 인저 연세 드신 분들이라...

여기 마을에는 인제 대동회 있고요. 대동회는 12월에 하죠?
예. 12월 말.

보통 몇 가구 정도 나와요?
고때는 인전, 원래는 가구마다 다 나와야 되는데 또 바쁘다 보니깐 70가구에서, 진짜 다 나온 대는 건 거짓말이고, 반수 정도 나오죠. 반수.

한 35가구 정도요?
예. 그 정도.

대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산 보구. 1년 뭐, 지금 결산 고거죠. 그리고 1년 제가 사업했으면 그 사업 보고하구.

사업 보고하고, 인제 내년도 계획 세우고요?
예. 내년도 계획 뭐 핸다, 뭐 핸다 말씀드리구. 고 다음에 인저 이장 선출을 해는 거죠... 근데 이장 선출할 땐 동네 형들이 안 나와요. 선출해는 해에는... 인저 ‘아 요 시간이 끝났겠다.’ 그때 좀 나오죠. 형들이.

이장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늦게 나오죠. 끝날 때쯤.

좀 얄미우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선생님 다 돌아다니시면, 서탄면에 마을마다 거의 다 공장 사실 다 있을

거여. 서탄면들은. 근데 유독 여기만 별로 없어. 이 동네만큼은.

공장이 별로 없어요. 저기 하나 있더라고요.
이 동네만큼은 동네에 없어요. 그니깐 쉽게 따져서 저도 들은 소문인데, 공장 많은 데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마을로 저기 해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공장은 언제 들어왔어요?
저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니깐 꽤 오래됐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들어온 것 같은데 저기.

이 공장은 뭐 하는 공장이에요?
하나는 칠성고분자라 본드 공장이고요. 또 하나는 솔고바이오라고 의료기기.

이 칠성 고분자 자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이 살았던 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애요.

그러면 일본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못 들어보셨어요?
그것까지 잘 저도...

이게 저기 진위흥농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진위흥농이라는 회산데, 그 회사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본 사람이 살았다.'는...?
예. 그 얘기만 들은 것 같애요.

이 마을에는 조직이 인제 대동회하고, 부녀회하고...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는 몇 분이나 되세요?
어차피 가가호호 다 있으니깐. 호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그거는 70가구니까, 그렇게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요새는 또 인제 아예 부녀 회원이 마을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몇 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18에서 20명 알고 있어요. 참여 저기 하시는 분들이.

노인회...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노인회는 솔직히 열다섯 분 안팎이더라구요. 아 실질적으로 부녀회 분들도 여기 소속인데, 같이 안 핼라고 그래요.

청년회는?
나가 있는 애들여. 뭐가 있어, 나가 있는 애들.

외지로 나가 있는...?
나가 있는 친구들이 인저 금암리 저기라구 청년회를 조직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명절 때나...
그래갖고 인저, 일이 있을 때나 인저 동네 와서 도와주고. 뭐 체육대회 그런 거 있으면 와서 같이 해주고 그런 거죠.

가령 어떤 일인가요?
뭐 체육대회 해면 핼 일이 많잖아요. 일이요. 와서 음식도 장만해야 되구 뭐 해야 되구. 그 친구들이 와서 아무케도 젊은 친구들이니까 와서 그런 거 다 해, 잡일은 다 해주는 거지. 이 친구들이.

몇 분이나 돼요. 이 청년회가?
청년회 제가 알기로 한 30명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때 되면 여기 와서 어르신 다 인사드리구.

인사드릴 때는 언제죠?
저기 명절 때는 와서. 근데 “야 지금 동네에 들어와!” “아 형 동네 나중에 들어갈 겨.”

동네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오시는...?
아 오는데 인저 “야 아 이리 와라.” 그러면 “그건 형 나중에. 나 회사 다 핸 다음에” “야 그때 나 없어 인마 여기 인저”

그러면 이분들은 뭐 이렇게 서울 쪽이나 이런 데?
예. 서울 쪽이나 다...

대부분 서울이요?
아니 서울두 있구, 여러 군데 있죠 뭐. 요 송탄 근교두 있구.

이장님은 여기 서탄초등학교 나오셨죠?

예... 제가 47회입니다.

여기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어서 가면?

걸어서는 어렸을 때는 무슨 시간 무지하게 걸렸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걸어가 보니까는 뭐 잠깐 가대요.

요 앞으로 해서 찻길로 이렇게 가셨어요?

아 요거는 저쪽, 요 소로길 있죠? 저 공장 짓는 데, 저쪽에. 그리 넘어서 그렇게 대녔죠.

그래서 인제 큰 길로 이렇게 나갔어요?

예. 큰 길 나가지 않을 때는 거기 옛날 논길루 대닐 때 있구. 그 당시에 뭐 애향단이라구 또 줄 맞춰서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줄 맞춰서 가구. 아침에. 하하하. (지도를 보며) 여기 마을회관 여기죠? 예. 맞어요. 여기로 넘어갈,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또 전에 이쪽으로 소로길 같은 게 있었어요. 요렇게 해서 요 논길 따라서 학교 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논길 따라서 이렇게?

예. 학교 가고 그랬죠. 그 당시에.

지금 초등학교가 여기니까, 이렇게 산 밑으로 해서...

예. 논길 따라 갈 때 있구, 아니면 그냥 도로 따라 갈 때 있구 그랬죠.

이렇게 소로길로 다니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학교까지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한 20~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뭐 걸어가면 뭐 10분 안팎 되는 것 같애. 그때는 이렇게 어렸을 때니깐 되게 길게 느껴졌죠.

그렇죠. 또 아이들 걸음이니까.

그렇죠. 가다 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구, 또 장난치고 뭐 해다 가면 또...

그렇죠. 장난은 어떤 장난치셨어요?

그냥 가다가 뭐 저기해는 거죠. 애들 툭 치고, 뭐 저기해고 막...

초등학교 때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인제 뭐 하고 놀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전 가을에는,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집에 오자마자 가방 집에 휙 던져두구 밤 따러 대니구. 그러면 집에 밥 먹을 때쯤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되게 혼나구. 하하.

친구들이 대체로 그렇게 놀았나요?

그렇죠. 제 인전 1∽2년 선배들이랑 같이... 그거 많이 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물가에 거서는, 산에 가서 총 싸움 잘했잖아요. 어렸을 때요. 이쪽 산, 저쪽 산에 땅 파놓구. 애들끼리 모

여서 나눠서...

그러면 이렇게 마을 뒷산 가서 주로 노셨나요?
예. (지도를 보며) 요쪽에서 주로 놀었지. 요쪽에서, 요쪽 산.

요 캘리포니아 하우스 펜션 뒤?
예.

여기서 총싸움 많이 하고요?
예. 많이, 총싸움. 마을에서 인전 옛날에 백구단이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백구단이라구 이 애들 인저 어디 숨어, 나눠서 어디 숨어 있다가 찾는 거죠. 그런 거 해구.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나눠서.

그걸 백구단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는 백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을 여기가 그 당시에 동서쪽이 ,이쪽은 동, 이쪽은 서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쪽 이쪽에서만.

서쪽에서만요?
예.

그럼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인제 동쪽하고 서쪽을?
여기는 인저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그래서, 동서 다 해면 너무 넓으니까. 일단은 서쪽에서만 숨어서 너네 찾어라. 그거죠.

그러면 마을을 부를 때 뭐 동쪽 마을, 서쪽 마을, 이렇게...?
예. 동서, 예... ‘동쪽’ , ‘서쪽’ 이렇게 했어요.

동쪽 모탱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동쪽, 서쪽, 이렇게. 저 어렸을 때두.

어른들도 다 그렇게 부르고요?
그렇죠 뭐.

마을에 우물은 어디 있었어요?

우물이 요기 있었어요. 요기, 주차장 있는 데.

거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저쪽에. (지도를 보며) 빌라...

금암1리 마을회관이고, 하나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가 하나 있었고... 아여기 있네요. 금암빌라.
요 정도쯤에 있었어요... 그렇죠?... 저쪽에 저기 우물 하나 있었잖아요? 그 빌라 앞쪽이잖아요.
(한방자) 그렇지. 앞쪽이지 앞쪽. 그전에 거기 그 집 한 집 먹은 것 같은데. 순영네.
아 그래구 또 창인네 하나 있었고?
(한방자) 거기도 있었구.
창인네. 솔고 쪽인데.
(한방자) 솔고 옆에.
예. 창인네... 이게 지금, 아이 거기 직접 가보셔야 되겠다. 이거.

아 지도로는.... 하나 있으면 여기 어디쯤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가 솔고인가요? 그러면 여기 집 안채 있고 한 요 정도에 하나 있었어요.
(한방자) 그 우물들 다 없어졌을 거여.

마을에 디딜방아는 없었어요?
디딜방아...
(한방자) 그전에 해먹네 마당에 보지는 못했는데, 큰 맷돌 같은 거, 이렇게 큰 무지핸 돌 하나 있더니, 그것도 없어졌데.

거기가 어디예요?
(한방자) 요기 요 회관 앞인데. 그건 방아는 못 봤어요. 그 돌만 많이 봤지.

그러니까 연자방아를 찧는 거는 못 보고 돌만 있었다는 거죠?
(한방자) 예 예. 돌도 한짝. 밑창 짝, 한 짝만 봤어요.

그럼 여기는 방아 찧으러는 어디로 다녔어요?
(한방자) 여기 방앗간 있었어요. 회관 자리 요기 위 방앗간 있었어요.

이장님 못 보셨어요?
전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럼 이 바로 뒷집이에요?

(한방자) 예. 뒷집이 방앗간 있었어요. 발동기, 발동기로 해는 방앗간.

회관 바로 지금 뒷집이에요?
(한방자) 예.

이 방앗간은 누가 했어요?
(한방자) 그 집이 여기 안 살어요. 어서 이사 온 사람이 해다가 또 도로 이사, 고향으로 가서.

그러면 이장님 어렸을 때는 방앗간은 어디로 다녔어요?
저 어렸을 때는 금암2리에.

안말 방앗간은 어디 있었어요?
(한방자) 금암2리.

안말 방앗간이 지금 임광래 어르신 그 집 앞에...
(한방자) 고 앞에... 임선생네 앞에... 있었어요. 국수틀두 있구 거기 다 있었어유.

여기 국수틀도 있었어요?
(한방자) 그집에. 우리 동네 사람들 가서 국수 물려오구, 방아 찧어오구 그랬어요. 거 가서.

그러면 고추방아도 거기서 찧었나요?
(한방자) 고추 방아는 몰러요 난.

그럼 고추방아는 어디로 찧으러 다니셨어요?
(한방자) 오산이겄지 뭐.
(할머니) 오산이루 많이 댕겼지. 그때는.
(조덕상) 다 걸어다니셨죠? 그 당시에?
(할머니) 서탄 입구 가서 차 탄 거지. 여기 동네가 없으니까.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할머니) 걸어갔지.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구 가구.

그러니까 여기서 오산장까지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한방자) 걸어가지. 오산장두 걸어댕겼어유.
(할머니) 우산장두 걸어댕겼는데, 저 서탄 입구서두 차두 타구 갔어요.

여기서 서탄 입구까지 걷는데, 걸어도 꽤 될 텐데요?
(할머니) : 아 꽤 걸리쥬.
(한방자) 10리는 될 거여. 10리.

10리면 1시간 거의 가까이 걸리겠네요. 짐 가지고 가시면?

(한방자) 서탄 입구 갈래면 1시간 얼추 걸릴걸?

(조덕상) 아 짐 들고 가면 그렇게 걸리죠. 쉬며, 쉬며 가야 하니까.

(한방자) 나 그전에 쌀 두 말 이구 오산장두 걸어댕겼어.

(김상숙) 아이구, 나는 하영이 아버지가 자전거 타구 실어다 줬는데. 서정리.

(할머니) 진구 엄마는 쌀 닷 말 이구 송탄까지 갔는데.

진구 엄마요?

(한방자) 우리 동네 사람인데.

(할머니) 옛날에 젊어서 쌀 닷 말씩 이구 쌀 장사 했었어유.

어디 가서요?

(할머니) 거기는 저기 목천동인가 남산?

(조덕상) 남산터?

(할머니) 남산터. 그런데다, 쌀 사먹는 사람들이 인제 부탁해면 갖다 사 먹었지.

(조덕상) 단골 삼어놓고 인저 여다가 주는 거지.

지금 말하면 배달 같은 거죠?

(할머니) 그렇지. 배달이지. 그이가 그렇게 기운이 좋았던 사람이여.

그 할머니 지금 살아계세요?

할머니들 : 그럼요.

어떤 할머니세요?

(조덕상) 백점분씨라고.

(한방자) 지금 86세예요.

여기 회관 자리가 논이었다는데, 요 앞에 보면 여기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조덕상) 면사무소는 바로 옆에.

(김상숙) 뒷 집에.

(조덕상) 옆에 집이요.

근데 언제 절로 이사 갔대요? 면사무소가?

(조덕상) 이게 저 말로는 왜정 때, 외장 때 뭐 그때 안말서 얘기 듣기로는 저기 보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풍수지리. 그것 때문에 그걸로 옮겼다는 말이, 들었어요.

(할머니) 왜정 때

(김상숙) 저기 있다가 글루 갔대요... 나두 어른들한테 들은 겨.

면사무소가 회관 바로 동쪽이예요?
한방자 외 : 여기 옆집이, 바로 옆집이.

마을회관 동쪽 옆 집.
(조덕상) 예.

왜정 때 풍수지가 안 좋아서 갔다고요?
(조덕상) 그래서 저기가 좋다구 그랬대요. 안말 그쪽이.

여기가 골안말이잖아요. 왜 골안말라고 그런대요?
(한방자) 나두 몰러유. 나두 시집 오니까 골안말이라구 그래서 참 곯아 터지는 동네라구 그러구 그랬어.

저기 북바위 같은 거는 전설 없어요?
(조덕상) 전 듣기로는 그때 뭐 장수가 여기 뭐...
(한방자) 돌을 들어서 얹었다는 말은 나두 들었는데...
(김상숙) 공기놀이 했대요. 장수가. 공기놀이 해서, 그게 거기다 올려놓은 거라 그렇게 된 거래 그게.

장수가 공기놀이요?
(김상숙) 예. 공기놀이 해서.
(한방자) 위에 있는 돌이 얼마나 커.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숙) 나는 김상숙

몇 년생이세요?
44년.

장수가 공기 놀이 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김상숙) 그건 몰르겄어.

거기서 북을 쳤다는 얘기도...?
(조덕상) 예 북을 쳐서 오면은 뭐 북을 쳐서 알렸대는 소리도 들었어요... 장군이 북을 쳐서...

장군이 북을 쳤다고요?
(김상숙) 그래서 지금두 그 바위를 못 없애게 하는 거 아녀.
(한방자) 그렇대요. 그거 못 없앤대요. 그 바위.

그 바위에서 뭐 혹시 마을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안 했나요?

(김상숙) 아이, 그건 안 했잖아. 안 했어요.

(조덕상) 옛날에 저 당제산에서나 동네 뭐 그것만 했었고.

(김상숙) 그거만 했지.

당제산이라고 그래요?

(조덕상) 당제산이라고 그랬지. 요기... 이 자리.

집 지었어요? 지금은?

(조덕상) 지금은 집 지은 거죠.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당제산이라구.

(김상숙) 거가 미군들 전원주택 있는 데여.

(조덕상) 당제산이라구 그래서 거기 동네, 저 어렸을 때까지두 지냈는데. 동네서.

(김상숙) 그렇지. 지냈지.

(한방자) 그럼 이 우물 먹구, 이 우물 당제사 지낼래구 날 잡으면 이 우물 못 먹었어. 여기서 퍼다 제사 지냈지.

마을회관 앞에요?

(김상숙) 여기 우물 자린데, 메웠잖아.

당제는 언제 지냈어요?

(한방자) 몰러요. 날 잡아서 해는 것 같아요.

정월에 지냈어요? 10월에 지냈어요?

(김상숙) 10월 달에 했을 걸요 아마.

이장님은 보셨어요? 당제 지내는 거?

(조덕상) 전 초등학교 때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지내는 건...

(조덕상) 지내는 건 못 봤어. 얘기만 들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당제 지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지낸 게 아니고 지금 지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덕상) 그것만 들었던 것 같애요.

그럼 이장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지낸 거네요?

(조덕상) 아! 한 제가 초등학교 3∽4학년 때까지, 고 이후는 안 했을 것 같애요.

초등학교 3~4학년이요?

(조덕상) 예, 예.

(김상숙) 아 저 은석이 아버지가 우물 메구 그러는 바람에 안 해는 것 같애.

(조덕상) 아니 저 당제사.

(김상숙) 글쎄 당제사 지낼 때두 그때 같은 데.

(조덕상) 아니 제가 초등학교 그때 3~4학년 때까지 지낸 것 같애요.

(한방자) 저기 당제사 지낼 때는 이 물을 갖다가 해기 땜에 이 물을 썼는데 은석 아버지가 이걸 메꾸는 바람에

(김상숙) 그때 없어졌지.

(조덕상) 아니 저 빌라가 먼저 들어온 거야. 전원주택을 먼저 졌잖아요.

거기 당나무가 있었어요?

(김상숙) 있었죠. 그거

당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겠네요?

(김상숙) 아이 전원주택이 섰지. 그 저기 없어졌지. 산 임자가 팔아먹어서 없앤 거지.

(할머니) 거기에 당나무가 있었어. 난 모르겄네.

(김상숙) 있었잖아. 붉은 거. 있었어요. 내가 그때 생각나. 붉었어.

이장님은 그러면 당제 지낼 때 그...

(조덕상) 가보진 않었어요.

제물 같은 거, 이렇게 제물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집집마다 나눠주고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조덕상) 그건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한방자) 그런건 없어요. 뭘 많이 차려야 노놔주지.

당제 지낼 때 제물은 뭘 썼어요?

(한방자) 몰러요. 그거.

뭐 소나 돼지...?

(김상숙) 소, 돼지 잡는 거 같은 것도. 고기 그런 건 했겄지. 그래두... 그때는 가렸어요. 제사 지내는 집이 또 따로 있었지.

(한방자) 날 잡어서.

(김상숙) 날 잡어서 그때는 부정 타구 그랜 사람두 안 되구, 깨끗핸 집안 사람들 그렇게 돌려가며 아마 제사 지냈나 봐요.

여기 상여집은 어디 있었어요?

(조덕상) 그 당제산 그 앞쪽에 있었죠.

(김상숙) 그저 있을 걸요?
(조덕상) 지금 없어요.
(김상숙) 없어졌어요 그거?
(한방자) 그전에 슬레트로다가 요렇게 있었는데.
(조덕상) 요 정도쯤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묘가 있거든요?
(조덕상) 예. 하여튼 요 근방에 있었어요. 상여.

그럼 길가에 있었네요. 이 길가에?
(조덕상) 예. 길에서 가까웠죠. 거기... 상여집이 있었어요... 어느날 가서 없어졌어요.

상여집은 뭘로 만들었었어요?
(조덕상) 그냥 나무로 진 거죠.
(할머니) 저기 스레트로 해구 그냥 저기여. 담장해는 공구리, 이렇게 길다란 거.

아 요만한 한 벽돌이요?
(할머니) 길은 거. 담장 하는 거... 담장 공구리 쳐서 했던 거 있잖아.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담장했던...
(조덕상) 예. 맞아요.

언제 없어졌어요?
(김상숙) 모르겄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그리루 안 댕기니까. 고거 사람들이 많이 댕기는 길이 없었거든요.

상여 쓰면 뭐 얼마씩 내놨어요?
(김상숙) 상갓집에서 내놨겠지 뭐 그거야.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자들이 알지.
(조덕상)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인저 이게 얼마 들어오면은 50%는 다시 그쪽으로 준다는 소리, 50%

50%요?
(조덕상) 예. 다시.
(김상숙) 동네에다 내놓고.
(조덕상) 동네 50% 다시 50% 그 집 준대는 소리 들었어요. 50%. 고 당시에.

근데 무슨 돈의 50%인지는 잘 모르죠?
(조덕상) 아니 그날 저기 나갈 때 돈...

아 상여 나갈 때?
(조덕상) 예.

상여 나갈 때 뭐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돈 꽂고 하고, 그다음에 달궁질 할 때.
(조덕상) 예. 그 부분은 50%는 인저 동네 들이고 다시 50%는 되돌려 준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상숙) 옛날에 뭐 몇 푼이나 들어왔겠어요.
(조덕상) 그건 인저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 같애요. 50% 이렇게 주기로 했다구.

아까 그 놀이 말씀하셨잖아요?
(조덕상) 예. 백구단.

그 놀이 말고 인제 다른 거는 없었어요?
여긴 뭐 자치기, 뭐 깡통 차기, 뭐 오징어 가이상. 뭐 그런 거죠.

수영 같은 건 어디 가서 했어요?
수영 같은 건 요기 개울 가서 했죠. 요기 오산천.

오산천, 금암교 다리 밑에 정도 되나요?
(조덕상) 그렇죠.
(김상숙) 옛날에는 그 다리도 없었었지 뭐.
(조덕상) 그러니까 지금 고기 오산
(김상숙) 그렇죠. 오산천.

거기 옛날에는 나무다리였죠?
(김상숙) 나무다리도 없었잖아. 그냥 물 건너 댕겼어.
(조덕상) 금암교 다리가 옛날 지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꺼먹다리 있지 않았어요?
(조덕상) 예, 예.
(김상숙) 꺼먹다리, 그건 있었지. 옛날부터.

꺼먹다리 옆에 가서 많이 (수영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고쪽. 아니면 저기 적봉교 다리 밑에 그런 데.

대보름날 망울도 하고 그랬어요?
예. 망우리 같은 거. 애들, 동네 애들.

망우리는 어디서 했어요?

지금 저기요. 여기 참나무 숲길 있는 데... 여 참나무 숲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가 논이었어요. 여기서 많이 저기...

그럼 논 가운데서 했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쪽이 다 논이었어요?
예. 이쪽은 다 논이었어요.

아 요 길 이렇게 나 있는데.
(조덕상) 여기. 지금 참나무 숲길 전체 다 논이었죠?
(할머니) 거기 다 논이었지 뭐.
(한방자) 빌라도 논이었었지 뭐, 빌라.

여기가 참나무 숲길이에요.
예.

여기가 다 논이었는데...?
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망울도 하고?
예. 옛날 거기 모래사장 있을 때 인저 애들 거기서 공도 차고, 애들 야구, 야구, 비료 푸대 야구 글로브 만들구. 이렇게 놀았던 거지.

이 참나무 숲길은 언제 조성됐어요?
(조덕상) 이게 그때 기철이 형이 저기 시의원 핼 땐데 그게. 몇 년 된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
(김상숙) 꽤 오래 됐을걸 그거.
(조덕상) 그러니까 기철이 형이 시의원 했을 때 이거 맨들은 거 아녀.
(김상숙) 어 어, 그니가.
(조덕상) 초창기 땐가?
(김상숙) 그럴 거여. 초창기 때.

무슨 기철이예요?
송기철씨. 이 양반 시의원 할 때 여기 참나무 길 맨들은 거 아녀.

그러면 이 숲길을 조성하기 전에는 전부 다 여기가 논이었어요?
다 논이었어요.

그럼 논 임자들이...?
이게 거의 다 하천 부지로 알고 있어요. 하천 부지.

그러니까 국유지네요?
예.

인제 국가에다 얼마 내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분(송기철)이 시원한 게...?
아마 초창기 때일 거예요. 시 저기 핸 게.

아 지자체 초창기요?
예.

이분이 저기 우체국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천룡농약사 하시는 분. 송탄서.

어디예요? 송탄?
저 우체국 골목이요. 우체국 골목, 송탄. 그쪽에 있어요.

이 마을에는 주요 성씨가 뭐예요? 어느 성씨가 있어요?
(할머니) 최씨가 많지.
(한방자) 열 집 되나. 열 집도 않되잖아.
(할머니) 그래두 최씨가 많었잖어.
(한방자) 그렇지. 많지.
(할머니) 수성 최씨? 그렇지요?

수성 최씨요. 지금 한 10집 정도 살아요?
지금... (한 집씩 헤아리고 나서) 6∽7집 밲에 안 되네.

옛날에는 한 10집 살았었어요?
(조덕상) 옛날에 한 10집 됐어요?
(할머니) 모르겠어요. 나 그거.
(한방자) 몰르지.

나머지는 인제 각성바지?
예.

여기는 이장님 때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진위중학교로 갔죠... 그 당시에 다 진위로 갔어요. 거의 다가.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는 대체로 어디로 가요?
거기서는 다 틀리죠 인저.

많이 갈라지죠?
예 다 갈라지는 거죠.

대부분은 어디로 가요? 오산으로 가나요?
(조덕상) 예.
(김상숙) 우리 애들은 다 평택 나왔는데.
평택이나 오산으로 많이 갔죠. 평택, 오산.

그러면 인제 평택은 평고나
(조덕상) 평택 기계공고나... 그 당시에는...
(할머니) 평여상, 평택공고 그런 데지 뭐.

오산은 오산고등학교요?
예. 오산고등학교.

이장님 연배쯤 되면 인제 고등학교는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대학은 또...
예. 각자들.

대학도 웬만하면 인제다 가는 때죠?
그렇죠.

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여기서 그냥 사신 건가요?
아니 인저 직장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전 오산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은요?
아이 그 바로 오산대학.

실례지만 전공은 어떻게?
기계.

기계는 진출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처음에 직장을 전자 쪽 들어가갖고 계속 다니다가... 그때 다 중소기업이죠 뭐.

어디에 있었어요?
오산에 있었어요. 오산에 지금 옛날 어디야 여기, 제지 공장 있는데인데, 갈곶리 그쪽에. 지금은 없어졌죠.

그 회사는 얼마나 다녔어요?
거기서 5년 간이구. 내천리 쪽에, 거기도 한 5년 정도 다녔죠. 그 송탄 공단에 한 3~4년 있었고요. 그래구 그만두고 인저 형이랑 같이 농사 짓다가, 이장 지금 6년째인가, 인저 한 거 지금 6년 째니까...

그러니까 6년 전 이장 보실 때 그러면 다시 인제 농사 쪽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이장 보기 전에 인저 같이 형이랑 농사짓다가...

한 7~8년 전에요?
예. 형이 인저 공주로 가면서 저는 인저 왔다 갔다 해면서 동네 일 보구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사시는 건 어디 사세요?
전 여기 살고.

무슨 농사 지으세요?
저 형 공주에서 고추 농사짓죠.

몇 평이나...?
1,500평이요.

다른 농사 안 지으시고?
거기는 또 그것만 해더라구요. 그 지역이.

어딘데요?
공주요.

그러니까 고추 농사를 공주에서 짓는 거예요?

예. 형이 그러니까 저는 인저 도와줘야 되잖아. 형 하니까. 가끔,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도와주구 또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는 무슨 일하세요?
여기서는 농사를 안 짓구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여기서는 안 져요.

집이 부자신가 보다.
그건 아닌데 어차피 농사, 어차피 해긴 해는 거니까.

근데 경제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뭐 봉사하고, 다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요. 봉사가.

근데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봉사 수입 갖고 따지면 못 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냥 가끔 집에 와, 형한테 형이 용돈 좀 주면 받아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서탄도 저거 궁금해 해요.

예?
서탄 저기들이 되게 궁금해 해요. 저한테. '쟤는 대체 뭐 해 먹고 매일 면에서만 일해냐?' 근데 어쩔 수 없이 봉사래는 게 그런 거 생각해면 전혀 못 해잖아요. 돈 따지고.

아이 그렇기는 하죠. 근데 보통 봉사하는 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제 자기 생활을 하고, 또 자기 경제 생활하고, 인제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서탄에 다 궁금해 해요. '쟤는 왜 저렇게 하면 매일 봉사일 해냐? 뭐 먹고 사냐?'

아까 그 방재단 하시고요. 또 뭐 하세요?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일단 이 두 단체 다 봉사예요. 그니까 뭐...

방재단은 아까 말씀하셨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 하세요?
여기도 봉사단체예요.

어떤 봉사죠?

지금 서탄 여기 경우에는 지금 해는 게,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저 마을에, 여기가 17개 마을이에요. 면에 인저 취약 어르신, 가정 형편 어렵거나 홀몸 어르신들 계시면 1주일에 한 번씩 반찬 갖다 드리는 거죠. 반찬.

아 어르신들한테?

예.

주로 인제 김치 종류인가요?

저기 지원받어갖구.

시에서 지원받아서?

아니, 아니요. 저희 또 회원이 이걸 하세요. 식당을. 그래서 그날 핸 거 고대로 싸서 갖다 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분이, 식당하시는 분이 지원해가지고?

예. 그렇죠. 저 장등리 분이.

이렇게 봉사만 하시고 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궁금해 해죠. 다들.

그럼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결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마을에서 어르신들 효도 관광 이런 건 안 하세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또 해마다 봄, 가을로 가셔요.

주로 어디로 가세요?

(최국자) 저 기사더러 어디 좋은 데로 가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못해지. 기사님 보고 ‘좋은 데로 가주세요!’ 그래요. 하하하.

(김상숙) 먼데는 못 가구 이 노인네들이니까 가차운 데루 다녀요.

(최국자) 기사한테 맡기는 거여. 어디가 좋은 데인 줄 알아야지.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봄에.

(최국자) 갔다 와두 모르겠어요.

(김상숙) 저기지. 안면도 지나서 어디지 거가?

(조덕상) 꽃지해수욕장이죠. 거기, 요번에 가셨던 데가 꽃지해수욕장 가셨다구 그랬어.

(김상숙) 그래 거기 갔다 왔어.

(최국자) 갔다와두 몰러. 하하.

(김상숙) 최 지팽이들을 짚구 댕기니까 멀리는 못 가잖어요.

그러면 이때, 노인회에서 가실 때 노인분들만 가신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부녀회에서 같이 따라 가시나요?

(최국자) 갈 사람 있으면 가고. 젊은 사람 따라갈 사람 있으면 가고, 노인네들이 많이 가죠.

(한방자) 노인네가 많죠. 젊은 사람은 심부름 핼라고 몇 명 가고.

젊은 분들은 부녀회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한방자) 예, 예... 차에서 음식 노놔줄려면 노인네들은 못해. 그래니게 인저 부녀회에서 젊은 사람 몇 명이 가서 그거 해는 거지.

이장님도 가시겠네요?

(조덕상) 제가 그때 바뻐서 못 갔죠.

(한방자) 갔을 때두 있구. 또 바쁘면 못 가구.

그 코로나 때 못 가셔가지고 좀 답답하셨겠네요?

(조덕상) 하하하.

올 가을에는 어디 가실 거예요?

(최국자) 글쎄 기사한테 맡겨야지. 알어요! 하하하.

(한방자) 기사더러 좋은 데로 데려다 달라고 그러야죠 뭐.

그럼 부녀에서 5월 8일날 되면 뭐 삼계탕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여기도 그렇게 하나요?

(조덕상) 그렇죠. 다들 바쁘시니깐...

(한방자) 가끔. 가끔.

이장님은 새마을운동 할 때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시죠?

어렸었죠.

여기는 마을에 축사가 지금 없나 봐요?

지금 축사는 없죠. 지금.

옛날에는 있었어요?

몇 집 있었죠. 어르신네(최국자) 있었구, 해명네. 두 집이었었나?

(최국자) 해명네두. 이 집이두 있었지. 여러 집이었어요.

한우 먹였어요?

(최국자) 젖소 멕였어요.

젖소 몇 마리나, 몇 마리씩 먹였어요?
(최국자) 아 몇 마리 안 됐어요. 죽구 그래서 몇 마리씩 안 멕였어요. 멕인 집은 많은 데.

할머니네는 몇 마리?
(최국자) 우리 다섯 마리인가.
(할머니) 아 다섯 마리 넘잖아.
(최국자) 몇 마린가 모르겠네요.

할머니네는 몇 마리 먹이셨어요?
(할머니) 우리는 8마리 길렀나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할머니) 그건 나도 몰라요. 남자들이 알지.

농사짓는 거 보다는 좀 나았나요?
(할머니) 나니까 했겠죠 뭐.

몇 년이나 키우셨어요?
(할머니) 몰르겠어요. 나도 그건.

나중에 왜 그만두게 됐어요?
(김상숙) 그러니께 부모 병원비, 시동생 장가들이는데 방 얻어주고, 장가들이구 그러니까 팔어서 다 올렸지. 그냥 맏아들이 그런걸 다 했잖아유.

그때 인저 할아버지께서 맏이시니까 동생들 다 책임졌어야 되었네요?
(김상숙) 그럼. 동생도 많이 안, 동생들이 16년 차이여. 그래서 우리 영감이 동생 고등학교 댕길 때 학교 죄 쫓아댕겼어. 우리 어머니가 48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계셨어두 형이 쫓아댕기면 아버지냐구 그랬대. 농사꾼이니까 늙었지 더.

아유 48세, 막내시죠 그러니까?
(김상숙) 그렇지. 막내. 그렇게 낳았대. 그래도 저기 손녀딸 돌 죄 보고 돌어가셨어. 우리 어머니.
(한방자) 여기 옛날에 경화 할머니두 그렇게 낳았대.
(김상숙) 그래요. 그전엔 늦둥이 쉬흔에두 낳는데 뭐.
(한방자) 철기네두 늦게 낳았어.

아 쉬흔에도 낳았어요?
(김상숙) 그렇대요. 쉬흔에두.

(한방자) 그 말이 그렇지 쉬흔에는 그거 어려운 일이여.
(김상숙) 우리 친정 작은 어머니가 쉰둥이 낳가지구. 낳지두 않았지 참.
(한방자) 그때 유산시켰어?
(할머니) 유산시켰대요. 친정 작은 어머니.

할머니는 어디서 시집 오셨어요?
(김상숙) 나는 저기 성환, 평택서 20리여. 경계선에서 살었어.

중매결혼 하셨어요?
(김상숙) 아 옛날에 코 뀌어서 보냈지, 연애가 어딨어. 중매지, 연애가 어딨어.
(한방자) 연애 했다 매맞어 죽어. 옛날에는
(김상숙) 혀를 깨물고 죽는데. 거지같은 집에다 보내구.

누가요?
(김상숙) 우리 친정 엄니가.

누구....?
(김상숙) 사위를, 사윗감을 보고, 보낸다고 그래구 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혀를 깨물고 죽는대. 안 가면.

누가 중매하셨는데요?
(김상숙)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핸 거여. 우리 친정에 순남이 엄마가 우리 친정 동네여. 그래서 중매헌 거여. 그게.
(최국자) 순남 엄마가 헌 거여?

그러니까 이 동네에 먼저 시집 오신 분이 할머니를 중매하신 거네?
(한방자) 그렇지.
(김상숙) 으 응. 친정 동네니까.

친정 동네 후배를 데리고 오신 거네요?
(김상숙)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저 마음에 사윗감, 지집(아내)을 안 굶긴다구. 안 굶기게 생겼대. 튼튼해니까. 크구.
(최국자) 안 굶겼지.
(김상숙) 굶기기는 안 굶겨. 내가 뒤지도록 고생했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원래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안 온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김상숙) 아니 그때는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두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은 내가 싫어두 억지로 가야 되여.

그러니까 왜 싫어하셨냐고요?
(김상숙) 아 마음에 다 돼? 지금 연애한 사람 서로 좋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 딱 보고 싫다고 그러셨어요?
(김상숙) 그렇지유. 사진도 보는데, 사진도 싫어. 그래서 싫다구 그래니께 그냥, 아유.

사진을 먼저 보내고 오셨어요?
(김상숙) 옛날은 사진을 보내잖아요.

인제 중매하면 중매쟁이가 사진을 갖고 와서 ‘이 남자다.’ 이렇게 하는 사진을 보셨는데, 싫어...?
(김상숙) 인저 부모들이, 싫은데 부모들이 인저 신랑집을 먼저 와보지. 친정 부모들이. 와보구선 인저 식구들 보고, 신랑 보고 그러고서는 또 보러 오라고 그러지 인저 색시집으루.
(최국자) 맘에 있으면 오라는 거지.
(김상숙) 그러지유.

근데 보통 이렇게 신부집에 갈 때는 신랑이 부모랑 같이 가지 않나요?
(김상숙)그때는 저기지유. 신랑 어머니하구 중매쟁이하구 신랑하구 셋이 오지. 색시집으루 보러.

그때 처음 보셨어요?
(김상숙) 아니 사진을 처음 봤대니까.

그전에 사진을 처음 보고...
(김상숙) 응 응.

그다음에 또 인제?
(김상숙) 실물은 두 번째 보구.

인제 실물 보시고, 두 번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김상숙) 그렇지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구. 난 그랬다구 했더니 화영이 아버지가 ‘카츄샤(카투사)했을 때는, 자기가 그러는데, 집에 와서 보리밥만 먹으니께 위장병이 생겼대. 그런데 남자라구 새깜해. 나 워낙 하얗었어요. 새카맨 게 아주 비기 싫더라구. 키만 커다랗구.

할아버지가 카츄사 다녀오셨어요?
(김상숙) 예.

그럼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김상숙) 잘했대요.

(최국자) 잘생겼어유. 키두 크구, 듬직해구. 잘생겼어유.

그러면 인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까 친정어머니께서...?

(김상숙) 아이구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혀를 깨물구 죽는다구 그랬다구. 우리 엄마가.

(최국자) 사위가 마음에 드는데 싫대니까.

(김상숙) 내가 싫대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은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김상숙) 그렇지유.

그래서 잘 사셨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김상숙) 여기 와가지구 나 고생 무척 했어요.

(한방자) 시집 와서 고생 안 하구 산 사람이 어딨어요? 옛날에는.

(한방자) 할머니도 눈물나게 고생하셨던데요 뭐.

(김상숙) 나는 거기는 들녘이라 밭은 얼마 없어. 그러니께 보리밥 같은 거는, 지금 보리밥에다 쌀 조금 넣어먹 듯 그렇게 해서 먹고 살었는데, 여기 오니께 들판이구, 풀 속이고, 전기두 없구, 먹을 것두 없지. 아유. 옷두 다 내 혼수로다 애들 옷 해 입혔어. 돈이 없으니까. 어른들 계시지.

혼수를 뭘 해갖고 오셨는데요?

(김상숙) 아 그때 한복 치마 저고리, 그거지 뭐.

그럼 치마저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김상숙) 애덜 저기...

다시 뜯어서...

(김상숙) 응. 애덜 옷 해입혔지.

인제 나중에 애기 낳아가지고요?

(김상숙) 응. 나 딸만 낳았다구 그냥 구박도 많이, 쫓겨날 뻔했어요. 딸 셋을 내려 낳았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지집애만 낳다고. 우리 화숙이 낳아서 저기 삼일만 해주고 안 해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뚱뚱 부었었어. 찬물로 막 닦구 그래서.

셋째 낳고요?

(김상숙) 응.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아들 낳으셨어요?

(김상숙) 아들 인저 네 번째 낳았지.

성공하셨네.

(김상숙) 저기 우리 7남매여. 7남매. 내가 셋째인데, 자식 낳는 걸 그때도 싫어해구 둘만 낳고 말랬더니, 그랬더니 이 영감이 아들 낳아야 한다구. 우리 아버님이 시어머니고 아들을 낳아야 된대요.

또 의무감이 있는 거죠.

(김상숙) 대를 이어야 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낳으신 게 결국 7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김상숙) 아니 내가 4남매. 우리 친정에가 7남매지... 나는 형제가 많은 게 싫었더라구. 그때두.

그래서 인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딸만 셋 낳으니까 결국 하나를 또 낳으셨겠네요?

(김상숙) 그래서 하나 낳구. 넷 낳았어요. 그래서.

막내는 아들 아들인데 귀하게 대접받았겠네요?

(김상숙) 아들 낳았다구. 걔를 저 9월 스무이레 날이여... 지네 아버지가 아들 낳다구... 그래니까 아들 낳다구 막 그래니까. 그때 인저 남의 농사를 지었어요. 어려워서. 그 아저씨하고 시아버지하구 죄 쫓아와서 기저귀를 밑에 부터 디다보는 거여. 하하하.

(한방자) 안종범씨하구?

(김상숙) 응, 응.

그러면 걔는 이렇게 먹이는 것도 특별하게...?

(김상숙) 잘 멕였지. 그때두 그 안종범이가 저기, 방골(사골) 사오더라구. 그 이튿날.

(최국자) 그때 뭐 안종범네서 잘 해 멕였잖어. 고기 얼마나 사다 멕였어.

(김상숙) 화영이 아버지가 내 집마냥, 내 농사마냥 지어줘서 아주 그니가 맽겼어.

결혼식은 인제 할머니, 신부 댁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김상숙) 응. 구식 했지.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신랑이 거기 갈 때는 트럭 타고 왔어요?

(김상숙) 택시 요만한 거 타가지구 와가지고서는...

(최국자) 그대두 택시 타구 왔네.

(김상숙) 고 택시에다가 시아버지, 후왕, 우리 오빠하구 동생하구 둘이 왔어 후왕을, 그래서 요래구(옹삭한 모습) 왔다구. 시집이라구 온 것이. 그 택시에다 사람들을 다 싣고 온 거여... 나중에 인저 츄럭하구 친구들하구 장롱 그거 싣구 온 거지.

그러면 거기 가실 때는 신랑하고 누구랑 가요?

(김상숙) 신랑하구 친구들. 결혼식 때 친구들이 가지.

그 택시 한 대로요?
(김상숙) 아니 신랑 친구들은 딴 차로다 오는 거지.

신랑만 택시 타고 오고요?
(김상숙) 응.

아버님은 안 가시고요? 시아버님은?
(김상숙) 안 가지. 근데 여기서 인저, 색시집에서 후왕이라구 있잖어 왜.

후왕이요?
(최국자) 데려가는 거여. 데려다 주러 가는 거여.

아 데려다 주러 가는 거. 그때는 누가?
(김상숙) 우리 동생하구, 우리 오빠하구.

택시에 그러면 신랑, 신부하고...?
(김상숙) 우리 오빠하구, 동생하구 나하구.

그러니까 네 분 타신 거네.
(김상숙) 그렇지. 그때는 택시두 쪼끄맸었나 봐. 그러니께...

그때 여기 차 들어올 수 있었어요?
(김상숙) 아 여기 들어왔지 그럼.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그땐 왜 택시에다 테이프 같은 거 두르잖아요?
(김상숙) 모르겠어요. 둘렀는지 어땠는지.
(한방자) 그런 거 없었어.
(김상숙)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없었어요.

그러면 약혼은 안 하셨어요?
(김상숙) 무슨 옛날에 약혼이구 뭐가 어딨어요. 사주단자만 보내는 거지.

혼수는 뭐 해 갖고 오셨어요?
(김상숙) 장롱하구 이부자리하구, 나 입을 옷하구 해가지고 오는 거지 뭐.

그 옛날에는 재봉틀도 막 하고 그랬는데?

(김상숙)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나 해는 거지.
(한방자) 그렇지유. 부잣집 딸들이 해가는 거지.
(김상숙)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양복 안 해줬다구, 신랑 양복 안 해줬다구 막 야단이더라구.
(한방자) 수다스러웠구. 막내 고모가.

그러면 신랑, 신부 간에 이렇게 교환하는 건 없었어요?
(김상숙) 반지, 시계 있었지.
(최국자) 옛날부터 시계, 반지는 있어요.

시계, 반지 받으시고, 시계, 반지 해주시고 그랬어요?
(김상숙) 아 내가는 못해주지.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해지. 신랑집에서만 그렇게 해주지.

할머니는 그러면 신랑한테 받기만 했어요?
(김상숙) 그렇죠. 옛날엔 뭐 어려운 사람들이 뭐.

그러면 시댁에서 눈총 좀 받지 않나요?
(김상숙) 구박 맞지. 말두 말어요. 나 그때 구박 맞은 거... 구박두 많이 맞었어. 그런데 내가 쉐타를 우리 어머니가 해줬어. 그때는 내복두 없었어유.
(최국자) 그때 없어? 내복이 없어 그때?
(김상숙) 아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복두 없대니깨. 잔치 때면 국수 한 관. 그거 안 그랬어요 왜?
(최국자) 아니, 시집 때 내복 안 입었어?
(김상숙) 아니, 시집 올 때는 인저 내복을 해가지구 오지마는, 그 전에는.
(최국자) 그려.

시부모님들 이렇게 뭐 옷 해드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김상숙) 그때는 없었죠. 몰러, 있는 사람은 시부모니까 했겠지.
(최국자) 그때 했대는 소리 못 들었어.
(한방자) 있는 사람은 했지만, 없는 사람은 나 해가지구 오기두 바뻐유.

인제 여기 와서 잔치하고, 그 부엌은 다음 날부터 바로 들어갔어요?
(김상숙) 아니요. 3일 인저... 3일 인저 여기서 있다가 친정에 자양(재행) 갔다 와서 인저 부엌에 가서 밥 해 먹는 건데, 우리 집이 기와집인데 그 6.25 때 다 총으로 모다 이거 막 쏟어졌어. 뚫어지구. 우리 친정은 집을 잘 짓고 살었어. 안안밖에, 행랑채. 길 가생이라 사람들...

자양 갈 때는 음식 해고 갔잖아요?
(김상숙) 그럼유. 음식해가지구 갔지.

그 무슨 음식하고...?
(김상숙) 떡이지 뭐. 술하구.

그러면 여기서 갈 때는, 재행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걸어가시진 않으셨고...
(김상숙)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저 저기지. 서탄 입구까지 걸어갔지 뭐.

서탄 입구에 가서?
(김상숙) 인제 버스 타고 가는 거지.

그러면 성환까지는?
(김상숙) 성환까진 안 가구 인저 여기서, 저 평택서... 한 저길 거여.

평택 가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김상숙) 아 인저 평택 가서 인저 아주 성환까지, 그때 천안 가는 차가, 천안까지 가는 차두 있었어요. 버스가.

여기 서탄 입구에서요?
(김상숙) 응. 그거 타구서는 인저 서탄 입구서 타구서 대옥리, 거기서 내려가지구, 여기서 서탄 입구까지 (만큼) 걸어 들어가야여. 우리 친정이 그렇게 멀어. 걸어 들어갔지 뭐. 그땐 택시두 비싸니까.

여기서 천안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서탄 입구에서?
(김상숙) 있었어요 그걸 타구 다녔어.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김상숙) 나 25살에.

그때는 좀 늦지 않았나요?
(김상숙) 아유 늙었다구...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는 어린앤 줄 알었는데 워낙 약해 빠졌었어. 그냥. 살림만 하구 나 배깥 일을 안 해봐서 여기서 호미질, 도리깨질은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어. 여기 오니께 우리 사촌 친 시누들이 저기 왈가닥이여. 모심으러 댕기구, 못해는 게 없더라구.

아이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다 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부터?
(김상숙) 다 하는데, 나 우리 친정 거기는 딸들을 배깥에 안 보내구, 없는 사람은 조양성냥, 성냥공장에 다니구. 집에 살림만 시켰어유.

그 옆에 성냥공장이 있었어요?

(김상숙) 성환, 성환.
(최국자) 그땐 공장에 안 댕겼을텐데?
(김상숙) 나 공장 안 다녔어.
(최국자) 아니 그래, 그때는 여자들 공장에 가면 버린다구...
(김상숙) 없는 애들은 조양성냥 공장이 성환 있는데 그 성냥공장이 저기여.

재행 갈 때 떡하고 술 해갖고 가신 거예요?
(김상숙) 그렇쥬.

그럼 오실 때는?
(김상숙) 올 때는 가지구 오지. 그렇게 해가지구 오지.

떡하고 술하고?
(김상숙) 그럼.

그럼 인제 부부지간에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김상숙) 그렇지. 그때는 두 내외가 가는 거지.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상숙) 그건 인제 양반네. 옛날에 양반네였지. 옛날에
(최국자) 우리네두 저기 핸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갔다, 데려다 주고 오구 그랬어.
(김상숙)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없더라구.
(최국자) 승훈네 엄마가 시집 오는 거 봤어? 승훈 엄마가 먼저 왔나?
(김상숙) 내가 먼저 왔지.
(최국자) 승훈 엄마두 왔어. 둘이 하인 왔었어.

인제 들일은 언제부터 나가요?
(최국자) 아이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금방두 갈 수두 있구 그런 거지.뭐 그거야 언제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김상숙) 어려운 집들은 금방 나가는 것 같으면, 있는 집은 몇 년 있다 나가구 그렇지 뭘.

옛날에는 밥 먹는 것도 참 힘들었죠?
(한방자) 힘들었지. 먹는 게 제일 힘들었지. 아유.
(김상숙) 먹을 게 없어서 화영이하구 화순이 데리구 친정 가서 한 달씩 얻어먹구 있었어요.

시댁에 농사가 몇 마지기 정도 됐어요?
(김상숙) 우리는 농사 얼마 없었어유. 우리 아버님이 딸 시집보낼 때 팔아먹구. 아들 장가들일 때 팔아먹구. 그래가지구 우리 아버님이 24살 때 이장을 몇 십 년을 봤대유. 그래두 내 오바 팔

아서 진구 아버지 군인을 면제 해주구, 경산 아버지 그렇게 했대. 우리 아버님이. 저기 완주 할아버지...

할머니 오바를 팔았다고요?
(김상숙)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아 시아버님이 입었던 오바를 팔아서?
(김상숙) 응. 남들 군인 가는 거 면제 해주구.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걸 좋아하셨네?
(김상숙) 그려. 그러니께 내가 먹을 게 없어두 남들 퍼주는 것만 좋아해니까 자식들이 어려운 거야. 못 살겄구, 못 먹구.

그러니까 24살 때부터 이장 보시고...?
(김상숙) 그랬대요. 그러니께 완순 할아버지 병들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얻어잡수구 살았어요. 그리고 꽃님 할머니 집안에...
(최국자) 나 여 골안말 오니깐 이장이야. 완순 할아버지.
(김상숙) 그때 완순 할아버지 이장이었었지.

그러면 시댁이 농사 몇 마지기 정도?
(김상숙) 그때는 많었나 본데 인저 죄 팔아먹구 여기, 이 산 넘어 안 팔리는 것만 열닷 마지기 있었어.

이 산 너머? 지금 목장 있는데 거기요?
(김상숙) 이짝으로 산 밑에 있는데... 지금두 논이여 거기.

안말 저수지 밑에?
(조덕상) 아니 이 동네 뒤쪽에.
(김상숙) 바로. 거기 논이었었어.
(한방자) 고거 논이었었어. 그거 팔아갖고 이 집이 부자 된 거여.
(김상숙) 장사해서 남의 땅을 네 군데 산 거여. 밭까지, 고추받두 사구... 그거 네 군데를 팔아가지구. 장사해면서 산 거여. 그게 다.

무슨 장사하셨어요?
(김상숙) 채소 장사.
(한방자) 농사지어서 팔았다는 거지.

할머니가요?

(김상숙) 응. 영감은 집에서 채소 농사짓구, 나는 갖다 장사해구. 장사, 그러니까 작년 영감 살었을 때까지 내가 장사했어.

작년까지요?
(김상숙) 응.

그 채소를 어디 가서...?
(김상숙) 그 또 논에다가. 거기두 인저 하우스 짓구 채소 장사해구. 밭, 거기두 밭두 있어요. 그 밭에다가 벼라별거 다 지었지.

뭐, 배추...?
(김상숙) 배추니 열무니 오이 그런 거. 나 안 하구 사는 거 없어. 냉이, 시금치 뭐 벼라별거 다 갖다 팔았어.
(한방자) 사람 먹는 건 다 심었어.
(김상숙) 아주 지겹게 장사해가지구 인저 곯어 빠져서...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김상숙) 내가 애들 어려서부터인데, 우리 화숙이가 52살인데 걔 3살 먹어서 장사핸 거여.

52살 먹은 따님이...
(김상숙) 딸내미 세 살 먹어서.

그게 첫째 딸이에요?
(김상숙) 아니 셋째 딸... 그거 세 살 먹어서, 그땐 어불뛰더니, 어불뛰라구 맨날 흘러내렸지 뭐여.

어디 가서 장사하셨어요?
(김상숙) 저기 신장동 거기.

신장 육교 밑에 거기서 하였어요? 아니면?
(한방자) 고 근방이죠.
(김상숙) 고 근방인데...

송북시장이요?
(김상숙) 송복시장은 장이 오일장 생기면서 된 거구, 장 없을 때 그 너머.

아침장?
(한방자) 아니 저녁장이지.

저녁 장인가요?

(김상숙) 그냥 아침에 가면 저녁 때까지 팔고 있는 거지 뭐.

그 육교 있는데 거기서요.

(김상숙) 예. 육교 있는데두 해구, 그 너머 뭐 금강산 금방 있을 때 거기서두 장사해구. 별짓 다했어 내가.

(한방자) 미창으루 골목골목이 장사했지 뭐.

아 거기서 그냥 노점에서 하신 거예요?

(김상숙) 그렇지. 노점에서, 땡볕에서. 애를 데리고 가면은 아이구 징글징글 해.

그럼 여기서부터 채소를 이고 가시겠네요?

(김상숙) 그때는 인저 저기지. 차가 있었지 인제 여기?

(한방자) 늦게 있었지. 차두 늦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차 없었을 거 아니에요?

(김상숙) 없었지유... 그때는 저기여, 조금씩 해서 여기 냇갈 건너. 요 앞 냇갈 건너구 저기 어디에 거기가?

(최국자) 구장터 냇갈두 걸어댕겼어요.

(김상숙) 그전에 구장터 냇갈을 두 번을 건너갔다구.

(한방자) 냇갈 세 개 건넌 거여.

(김상숙) 세 개 건넜나?

여기서 저기 대정촌으로 갔다가, 대정촌에서 또 진위천 건너서 구장터로 가고.

(최국자) 대정촌 뒤루 댕겼어요.

그럼 두 개 건너잖아요?

(한방자) 수는 3개지. 이장네 고 밭머리빼기 그전에는 쪼끄만 냇갈 있어.

(조덕상) 아 쪼끄만 거, 예.

(한방자) 비 오면 그것두 건너야 돼. 걷구 이렇게

(김상숙) 그럼 저 양반은, 다 셋이 다 장사 했어, 저 양반은 애를 업구 건강핸건데, 나는 그때는 45kg 나갔나봐.

(최국자) 아유 다 장사꾼들이여. 다 장사꾼들. 하하하.

(김상숙) 애를 업구 가면은 나는 제일 공찌에 가면 저 양반이 안 보여. 그럼 또 쉬어 있어요. 나 올 때까지. 아유, 우리 어머니가 해건네 일 가시느라구 요만한 그릇에다 조금씩 하면 뭐 사오래요 인저. 옛날에는 시어머니 살림살이니까. 그걸 "아유 나 어머니 어떻게 가요. 장에를?" 생전에 안 가봤으니까 인저. "상배 엄마 쫓아가라." 그려.

누구 엄마요?

(한방자) 나.

(김상숙) 저 양반 쫓어가라구 이웃집에 있으니까.

(한방자) 우리 막내 아들이 상배여.

(김상숙) “상배 엄마 쫓아가라.”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장사해요?” 그러니까 “상배 엄마 쫓아가서 그 옆댕이 가서 해여.” 아 그래서 그래서 팔어가지구 사오라는 거 사 오니까, 그 이튿날 또 시키는 거여.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 장사로 내가 늙었때니까요.

아까 44년생이시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김상숙) 44년

예. 그러니까 80살.

(김상숙) 81살... 실제는 81살. 아 저기 옛날엔 원 나이로 해요? 줄었지.

그러니까 44년생이시니까 80인데, 원 나이는 43년이라는 거잖아요?

(김상숙) 그렇지. 옛날에는 뭐 나이두 2살, 3살 줄여서....

몇 살 때까지 하셨어요?

(김상숙) 내가 작년 저기, 작년까지 했어요. 우리 영감이...

여든 되실 때까지?

(김상숙) 그렇지.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 우리 영감이.

그러면 49년 하셨네요. 어쨌든 52살 먹은 셋째 따님이 3살 때부터 했으니까.

(김상숙)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팔아다 인저 죄 사오니까, 그 이튿날 자꾸 시켜. 뜯어서.

(한방자) 장똘뱅이가 된 거여.

(김상숙) 장똘뱅이가 돼서, 하여튼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성공하구 살었어요.

그때 처음에 갖다 파신 건 뭐였어요?

(김상숙) 아 저 상추, 시금치, 아욱, 그런 거지 뭐.

아 상추, 시금치, 아욱 같은 채소류?

(김상숙) 그리구 또 열무, 배추 그런 거지 뭐. 시골서 뭐 있어요.

그럼 할머니랑 할머니도(최국자, 한방자) 다 그렇게?

(한방자) 다 장사 했어요. 여기 사람들.

(김상숙) 이 동네 사람들 장사 다들 했어요.

(한방자) 송탄이 가꺼우니까 농사 지어서 갖다 파느라고.

(김상숙) 내가 제일 오래 했지.

집집마다 다 하신 거예요?
(김상숙) 그래 집집마다 다.

그러면 다니신 분들이 한 20~30분 되시겠네?
(김상숙) 그랬을 거야. 아마.
(한방자) 송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여. 숫자루는... ○○엄마두 그 애 업구 댕겼대는대, 그렇게 될 거여.

애 낳으면 애 업고 다니고?
(김상숙) 그럼.
(최국자) 애가 비행기 소리 나면 그냥 여기를 바짝바짝 댕기구 막 그려. 무서워서 어린 애들 업구 댕기니까.

비행기 소리 나면 그냥 목 잡아당기고?
(김상숙) 예. 무서워서.
(최국자) 무서워서. 업구, 이구 그리구 가면 그냥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그냥 이걸 바짝바짝 잡어 댕겨서 기어 올러와 애가.

근데 여기보다 저쪽 구장터 있는 데 갔을 때는...
(최국자) 거 가면 그래. 거 가면.

비행기 소리 어마어마하던데요.
(김상숙) 굉장해 거기가.
(최국자)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래 기어 올러요. 그렇게. 죽는 줄 알구. 하하하.
(한방자) 구장터로 걸어가니까.
(최국자) 남의 집 추녀 끝 밑창에다 어린 애 재워놓구, 거기서 팔구 그랬어요.
(김상숙) 쫓겨 댕기구.

그때는 인제 걸어다니고, 차는 언제부터, 인제 차를 타고 가셨어요?
(김상숙) 글쎄요. 그...
(한방자) 차 온 지는 얼마 안 되는 거 같애.
(최국자) 몰러. 얼마 됐는지.
(김상숙) 버스 생겨서 인제 ○○네서 버스 타구 댕겼지.

여기 버스 들어오면서요?
(김상숙) 예.

여기 버스 처음에는 몇 년 정도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들 : 몰라요.

이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조덕상) 아 저 학교다닐 때 버스가 있었으니까. 중학교 다닐 때두 버스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조덕상) 초등학교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최국자) 몰러, 몰러. 언제부터 댕긴지.
(한방자) 지난 얘기여서 몰르지요.

그럼 인제 버스 타고 다니시다가...?
(김상숙) 그래다 인저 차, 차 샀잖아.

여기서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리나요?
(조덕상) 아이 더 걸리죠.
(최국자) 1시간두 더 걸리쥬. 가다가 쉬구, 가다가 쉬구 그래서 1시간 더 걸려.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최국자) 더 걸렸는지 우쨌는지 모르겠네.
(한방자) 뭐 가다 쉬구, 애 업구, 이구 가다가다 쉬면 2시간두 걸리구.
(김상숙) 그럴 거여 아마.
(한방자) 아유 옛날 얘기 왜 물어요. 힘들게. 골치 아퍼, 하두 힘들게 살어서. 에유.
(김상숙) 징글징글해서... 나는 우리 큰딸이 결혼해면서 돈 남은 거로 추럭을 사주더라구. 엄마가 딱해다구.

아 큰 딸이?
(김상숙) 응. 근데 그때는 버스 타두 짐값을 받었어요. 운전수가.

아 짐은 따로 받았어요? 짐 값은?
(김상숙) 받드라구. 버스비하구 짐값하구 받었어요. 그래서 인저, 우리 큰애가 인저 결혼할 때 남은 돈으루 추럭을 사주더라구.

큰딸이 몇 살 때?
(김상숙) 걔가 지금 쉰여섯인가 봐. 응, 쉰여섯.

몇 살에 결혼하셨는데요?
(김상숙) 우리 애가 지금, 아 걔가 몇 살이나? 모르겠네. 그것두.

쉰여섯이면, 한 서른 때 했나요?
(김상숙) 서른 전에 했지. 우리 손녀 딸이 30살인데.
(최국자) 여섯이나 일곱 됐겄다.
(김상숙) 그랬나 봐.

그럼 버스 타고 다니다가 트럭 사줘갖고 그 트럭 타고 다니신 거예요?
(김상숙) 응. 그래.

광주에다 이고 가셨어요?
(김상숙) 다라지, 다라. 인저 고무다라.

고무다라에 이고 여기서 송탄까지 걸어가시면, 지금 애들이 믿겠어요?
(김상숙) 어유. 믿지도 않지.

그러면 마을분들이 가실 때 이렇게 모여서 가셨나 봐요?
(최국자) 아유 제가끔 가요.
(김상숙) 제가끔 가지 어째 모여서 가?

각자각자 가는 거예요?
(최국자) 그럼.
(김상숙) 그래 인저 아침에 많이 가지. 아침 낮에.
(한방자) 제 밭에서 따가지구 가니깐 뭐 모여서 못 가지. 각자 가지.

할머니는 몇 시쯤 나가셨어요?
(김상숙) 다 저기지, 새벽같이 해니까 10시, 저 9시, 9시 반.

아침밥 먹고?
(김상숙) 그렇쥬. 저기 핼 땐 뭐 10시께두 나가구 그랬지.
(최국자) 때 없이. 아침 먹어서 점심 지나서두 가구. 때 없이 가지.

그럼 거기 가면 점심 먹을 시간 되겠네요?
(김상숙) 점심두 옛날엔 싸가지두 다녔어요. 그 나중에 인저 또 조금 형편이 펴지니까 인저 사 먹었지.
(한방자) 아 옛날 얘기 골치 아퍼.
(김상숙) 그려. 징그러워서.

거기 와서 파신 게 이게 골안말 분들만 그랬나요? 아니면 안말 사람들도 많이 그랬나요?
(한방자) 아이 서탄면 사람 대부분 다여.

(김상숙) 다 댕겼어. 우리 근방 사람들 저 사리구 어디구.

사리나 수월암리까지도?

(김상숙) 그럼요. 그런 데... 아 거기뿐이여. 저, 저기 어원리 저 근방 사람들은 다 다녔어요.

(김상숙) 이 근방에는 다 다녔어요.

(한방자) 농사 지으면은 그냥 농사지은 거 갖다가 팔구.

(김상숙) 그러니까 콩밭 열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콩밭 열무는 그때 쉬웠잖아요. 알아줬다구.

(한방자) 맛있어. 그게.

아 콩밭에서 나는 열무?

(김상숙) 예. 옛날에는. 그거를 니아까에다 잔뜩 싣고 와서, 거기서 평택 20리인데 평택을 두 노인네들, 그때 노인네가 아니었지. 평택 가서 팔아가지구선 인저 꽁치를 새끼줄에다가, 새끼 짚으로다가 몇 마리 그걸 들구

여기서 평택까지 가서?

(김상숙) 아니 우리 친정에 있을 때.

아 친정에서.

(김상숙) 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왜 그렇게 그게 맛있어. 아이구.

(한방자) 맛있죠.

옛날에는. 평소에는 생선 같은 거 잘 못 먹잖아요?

(김상숙) 아이 없으니까 못 먹지. 밥두 못 먹는데, 생선을 어서 먹어. 하하하.

그러면 주로 먹는 생선들은 인제 어떤, 뭐 이렇게 장에 가서 사오는 생선들은 뭐였어요?

(할머니) 동태, 꽁치죠. 뭐.

(김상숙) 꽁치, 고등어. 그거요. 그땐 그게 쌌어.

생선이 동태, 꽁치, 고등어. 다 맛있는 거네요?

(한방자) 그것두 못 사 먹으면 새우젓, 조개젓.

새우젓. 아 이거보다 새우젓이 더 쌌어요?

(한방자) 새우젓이 조금 쌀 거야.

(김상숙) 응. 조개젓이 좀 비쌌지?

(한방자) 응.

이게 그러니까 동태나 꽁치, 고등어가 안 되면 인제 새우젓 사오고.

(김상숙) 그때는 호박 넣구 호박젓국 해먹느라구.

아 새우젓 사다가?
(김상숙) 예. 호박젓국 끓여먹었지.

이장님 어렸을 때도 고기는 명절 때나 주로 드셨을 것 같은데
(조덕상) 저 어렸을 땐 그런 거 같애요. 초등학교 땐.
(최국자) 명절에나 조금씩 먹어봤지.

고기는요.
(김상숙) 그럼요. 그때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쪼금 사다가 뭐 여러 식구들 먹었지.

제사 때나 이럴 때?
(김상숙) 그렇지유. 하하.

여기는 그럼 고기는 어디 가서 사왔어요?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조덕상) 그 송탄이죠 뭐. 여기선.
(최국자) 오산 가서 많이 사왔었지. 그전에.

서탄에서는 살 데가 없었어요?
(조덕상) 없었죠.
(김상숙) 업었쥬.
(한방자) 어쩌다 돼지 멕인 거 명일에 잡으면 인저 그것들이나 두어 번씩 사다 먹구 그랬잖아.
(할머니) 옛날에 때 되면 동네서 잡었잖아. 길러갖구.
(김상숙) 동네에서 잡었지. 소 같은 거.
(할머니) 길러서 많이 잡어 먹었어.
(김상숙) 그래도 구식이 그이네가 늦게 정육점 했죠?
(한방자) 안말서 그이네 늦게 했지.

그러면 돼지 잡을 때는 마을 전체가 잡나요? 아니면 이렇게 몇 집 어울러서 잡나요?
(할머니) 몇 집이 어울려서두 잡구요. 그냥 개인이 기른 거 그냥 명일이라구 잡어서 먹었어유.
(김상숙) 몇 집이 어울려서 잡었지.
(할머니) 돼지들은 거의 길러서 다...

여기는 상포계 같은 건 없었어요?
(한방자) 못 봤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연반계, 상포계, 이런거요. 그러니까 초상 나면 집집마다 얼마씩 주고 이런 거...

(할머니) 연반계, 그게 그거 아녀?
(최국자) 부조? 옛날에는 그런 거 못했나 봐요. 그래두 좀 웬만씩해서 핸 거지. 옛날에는 못한 것 같은데?
(김상숙) 몰러 난.
(최국자) 옛날에는 못한 거 같혀.
(김상숙) 옛날에는 어려워서 그런 거 못 했지. 인저 추후 좀 나아지매 했지.

여기는 돌아가시면, 지금은 뭐 인제 화장 하지만 화장하기 전에는 어디로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매장이지요 뭐.
(김상숙) 저 산이지 뭐 산.
(한방자) 자기네 산 있는 사람은 그리 가구.
(할머니) 내 산 아니면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여기 뒤에 공동묘지요?
(조덕상) 미래환경 앞에.

여기 나무는 어디 가서 했어요?
(최국자) 나무는 이 산에 기어 올라가서 핸 거지 뭐.

산들이 좀 적어가지고...
(조덕상) 뒷산이죠 뭐... 공동묘지 고쪽으로요.

공동묘지 그쪽으로 하고, 저 사리까지 가서 했어요?
(조덕상) 그렇죠.

앞말 있는 데, 이 저수지 있는데 동쪽 산들?
(조덕상)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풍족한 편은 아니었어죠?
(조덕상) 그때는 걸루 솔잎들 많이 해러 갔죠. 솔잎.
(한방자) 청솔가지 해서 때구.

청솔가지도요?
(한방자) 겨울게요.
(김상숙) 그런 거, 잘르는 나무 밤에 잘러다가 땠어요.

낮에는 못 자르고요?
(김상숙) 그럼 낮에는 무서워서 못 잘르지.

잡혀가니까?
(김상숙) 그럼요.

여기 산 임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김상숙) 그렇지요.

산 임자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한방자) 밤에 몰래가서.
(김상숙) 그러니까 밤에 허지... 그 밤에 해야지,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께 밤에 해다가 그 생 솔가지를 막 때니께 집이 다 끄슬르잖아.
(한방자) 집두 옛날 집, 쥐 구녁 많어 봐. 아주 연기가 안으로 하나씩 있구.
(김상숙) 아유 옛날 얘기허면 뭐 해...

옛날 집은 진짜 쥐구멍이 많았죠. 그러면 방으로도 막 연기 들어오고 그러겠네요?
(김상숙) 그럼요. 되비(도배) 하잖아. 되비허면 이 속으로다가 쥐가 막 돌아다녔다구.
(한방자) 천장에두 왈왈왈...

벽 속으로요?
(김상숙) 벽 속으로다. 위에 천장이니까.

흙이 있는데...
(김상숙) 그러니까 흙이 있어두 이게 인저 오래됐으니까. 저기다 붙이구 붙이구 그래니까 이 속으루 쥐가 돌아댕겨요.

저기... 안말이나 새말 같은 경우는 나무 없어가지고 저기 진위까지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먼산나무...
(김상숙) 여기도 그랬대요.
(최국자) 먼산나무라구 새벽에 가서, 마차 끌구 가서.

새벽에 가서?
(최국자) 새벽에 가.

하루 한 짐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최국자) 가서 저녁나절에 몇 집에서 마차 해갖구 저녁나절에 오더라구.

아 마차로요?
(최국자) 예.
(김상숙) 그것두 마차 있는 사람들이나 그랬지.

(최국자) 이 동네에선 못 봤어 나는. 마두리서 그렇게 많이 했어. 이 동네에선 마차 댕긴 거 못 봤어.

연탄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김상숙) 연탄이 언제 들어왔나 모르겠네.

(최국자) 몰러요. 언제부텀 들어온 건지.

(김상숙) 가만 있어봐. 연탄이... 아 연탄 50년 넘었네.

(최국자) 몰러. 언제부텀 땠는지.

(김상숙) 한 52년 됐나 봐요.

(할머니) 52년이 뭐여, 60년 넘었어.

(김상숙) 아녀. 우리 화영이...

(할머니) 이 동네 들어온 건 모르구, 나는 친정에서 한 열서너 살 때 땠어.

이 동네?

(할머니) 이 동네는 난 모르구...

(김상숙) 저기 됐나 봐. 52년 됐나, 우리 막내 딸 낳았을 때 그때 연탄 때구, 기름, 석유 난로 그런 거 땠어.

석유 난로요?

(김상숙) 난로. 그래 먼저는, 난로 먼저 때구 나중에 연탄 땠어.

(할머니) 곤로라고 그랬지... 석유 곤로

(김상숙) 응. 그거 때다가 연탄 땠지.

막내 딸 낳으셨을 때 연탄이 인제 처음 들어온 거예요?

(김상숙) 그런가 봐요. 그런 거 같애요.

(할머니) 걔가 지금 52이여?

(김상숙) 52살이여.

(조덕상) 그러니까 50년 정도 됐겠네.

(김상숙) 응. 그려. 그거 어떻게 아느냐면은 우리 시누네 딸 걔가 우리 집에서 낳았거든. 그래서...

곤로도 이때 처음 들어오고요?

(김상숙) 응. 그때 들어온 겨.

그러면 연탄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김상숙) 연탄은 서정리서 가져왔나? 어디서 가져왔는데?

배달해 줬어요? 여기까지?

(김상숙) 그렇지유... 아 연탄은 첨에 참 저기가 핸건가 봐. 경실이 아버지가 했지?
(한방자) 몰러.
(최국자) 그전에 왔잖아. 연탄이 그전에 왔잖아. 경실 아버지 오기 전에 온 거여.
(김상숙) 전에 왔어, 그렇지. 왔어.
(한방자) 한참 땠는데 그 집이 연탄 장사했거든.

그러면 송탄에서 떼 온 거예요?
(김상숙) 서정에서 온 것 같애요. 우리가 한 차씩 왔거든.
(최국자) 어서 온 건 몰러두. 경실 아버지보덤 먼저 왔어.

그럼 한 번 들어놓으면 몇 장 정도 들여놔요?
(김상숙) 한 300장씩 놨었지 뭐. 겨우내 땔래니까.

연탄 아궁은 하나죠?
(김상숙) 하나죠.
(한방자) 양쪽 방이니까 두 개지.
(김상숙) 두 개, 세 개들 놨지.

그러니까 300장 가지고 돼요? 아궁 하나는 300장 가지고 되는데, 두 개는...?
(최국자) 그런 게 아니라 나무 때구는 쪼끔씩 땠지. 나무 때구.

보통 부엌의 아궁은 몇 개 정도 있었어요?
(할머니) 세 개요 보통. 연탄 아궁지 하나, 불 때는 거 하나, 또 물 데 쓰는 거, 큰 솥 하나. 세 개.

연탄 아궁은 밥하는 데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 밥두 해구, 찌개 끓여 먹구 그래는 거지 뭐.

그러면 가운데 보통 연탄 아궁 하나요? 양쪽...?
(할머니) 이쪽에 양은솥, 솥 하나 걸구요. 이쪽에 큰 가마솥 걸구, 물 데 쓰구. 요쪽에서는 인제 여럿이 먹을 밥, 식구가 여럿이면 거기다 또 밥을 해. 세 개 걸어요. 대부분.

그러면 연탄 아궁은 가운데...?
(할머니) 가운데.

그럼 연탄 아궁에서 밥하고...?
(할머니) 밥 핼 때두 있구, 찌개를 거의 많이 끓이지요. 뭐 인저 볶아 먹구 그래는 거.
(최국자) 밥은 솥에다 많이 해 먹었어.

(할머니) 솥에다 많이 했지. 밥, 여럿이 먹는 거.

부엌에 물 넣는 항아리도 놓잖아요?

(최국자) 항아리 묻어놓구 또.

물 항아리는 묻어요?

(할머니) 예.

(한방자) 우물이 없으니까.

(최국자) 묻어놓구 길어다 먹었지.

(한방자) 길어다 거기다 부었다가 인저 그 물루 쓰구.

(할머니) 옛날에 다라가 어딨어. 동이에다 물 이구 댕겼지.

(최국자) 그려.

물지게는 안 했어요?

(최국자) 물지게 졌어.

(할머니) 물지개두 지구. 나중에 물지게 졌지 그것두. 처음에는 동이지.

(한방자) 난 처음에 큰 솥에다가 여기 물을 여다가 거기다 붓는데, 몇 번 여니까 손이 시려워서 그걸 내려서 큰 솥에다 붓는데 인게 거기다 빠친 거여. 손이 곱으니까. 아유 솥에다가 그냥 동이째 빠친 거여. 손이 곱어서 이걸...

(최국자) 깨졌지?

(한방자) 깨졌겄지. 그럼. 곱으니까 이걸 붙잡구 이렇게 쏟어야 되는데 여기서 집에까지 가봐. 추울 적에. 손이 곱으니까, 거기다 그냥 풍덩 집어던지는 거지.

솥에다가 그냥 물동이채 빠뜨렸어요?

(한방자) 예. 손이 곱으니까. 붙잡구 이구 오니까. 아유 옛날 얘기허면 뭐 해유.

(김상숙) 그전에 큰 항아리를 땅에다 묻어 인저. 부엌에다 묻으면 그거를 부실래면 나는 거꿀루 백히는 거여.

(최국자) 물이 조금이면 꺼꿀루 백여.

(김상숙) 거꿀루 그 부실래니까 꺼꿀로 백히는데. 애들이니까. 그랬다구요. 그렇게 해서, 아유.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저기 놨잖아요?

(김상숙) 인제 펌쁘물 생겼지.

펌프물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김상숙) 오래됐을 거예요. 나 어려선데. 결혼해기 전인데.

아니. 동네, 마을에.

(한방자) 내가 파서 펌프를 묻었거든. 그러니까 죄 각자 달르지요.

(김상숙) 죄 각자, 여기는 각자였지.
(한방자) 내가 파서 펌프물 해니까.

그러다가 인제 마을 공동 상수도 했나요? 여기?
(할머니) 상수도 했지요.
(한방자) 했지. 저기, 저 너머서 어서 물 온다구 그랬었어.
(김상숙) 저 산에. 저 산에.

물탱크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김상숙) 그러게 저기여. 우리 논 있는 데, 고짝이잖어?
(조덕상) 예. 그렇죠. 거기죠.

그 관정을 어디다 뚫었어요?
(조덕상) 요 정도쯤 있었어요. 관정이.

관정이 여기 있었고. 그 물탱크는요? 높은 데다 했을 것 같은데?
(조덕상) 예. 여 산이죠. 여 산 쪽... 요 정도 같은데요. 요 정도.
(김상숙) 지금두 거기 저기 있어. 기봉이네 밭 끄트머리 거기 탱크 집 그저 있어.
(조덕상) 한 8년 전, 8년 전까지 여기 동네가 이 물 마셨는데 8년 전까지.

간이 상수도요?
(조덕상) 예. 8년 전까지.

8년 전이면... 2015년이요?
(조덕상) 예. 그때 와서, 그때 먹구 인저 이거 광역이 들어온 거지, 동네루.

여기는 저기는 안 들어와요? 도시가스.
(조덕상) 여기 도시 가스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길어야, 짧어야 10년? 여기는.

그래요?
(조덕상) 예. 6년에서 10년이예요.

왜 그러죠?
(조덕상) 돈이 문제죠... 여기가, 평택시가 99.5%예요. 도시 가스. 근데...

저 하북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왔는데요.
(조덕상) 저 진위가 60 몇 % 들어왔구. 서탄, 그니까 99.5%에 0.5% 서탄면 들어간 거예요. 서탄에 들어온 데가 지금 장등리 근방만 들어왔구. 여기는 인제 올해 수월암1리가 공사를 해요.

도시가스요?

(조덕상) 예. 돈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서탄이 들어올래면은.

수월암이면 바로 여긴데...

(조덕상) 예. 거기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김상숙) 여기두 ○○○까지는 들어왔대는 거 아녀?

(조덕상) 그건 별개예요. 여기서, 경동에서 이렇게 와야 돼요. 경동에서.

(김상숙) 근데 뭐 여기 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저기 해야지. 돕는 거지, 또.

(조덕상) 아니 일단 배관 묻는 것도 돈이 엄청 나요. 서탄에 다 배관 설치하는 것만 해두요.

(김상숙) 옛날에두 우리 친정이 인천인데, 한 집에 그것두 400만 원 들었다구 그러더라구. 오래됐어. 근데 한 집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못해구 있다가 나중에 허더라구.

참 옛날에 여기 강습소 있었다고 그러던데...

(한방자) 강습소 요 경아네 집터에서 우리 상임아버지 댕겼다고 그러더라구.

거기가 어디예요?

(한방자) 요 옆집이.

(조덕상) 이 마을회관 저기 저기 저기, 면사무소...

면사무소 터요?

(조덕상) 예.

(한방자) 상임아버지 그전에 그래더라구. 강습소에 댕겼대 상임 아버지... 그래서 지금 빌라 앞에 밭에 있는 게 그게 길이었대.

강습소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한방자) 몰르지요. 있단 말만 들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댕겼대니까 알지, 모르겄어요.

조희상(남, 1960년생) 골안말에서 목장 운영으로 창덕골로 이주

날 짜	2023년 8월 24일	
장 소	목장 사무실	
면담자	조희상(남, 1960년생)	
특기사항		

금암2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1리.

그 골안말에 마을회관 그 자리가 옛날 서탄면사무소 자리라고 그런데 그게... 안말로 갔잖아요. 언제 갔다 이런 얘기는 어렸을 때 못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들었어요. 원래가 여기가 면동넨데 일루 갔다구 그러드라구요.

근데 뭐 때문에 갔다라든가 언제 갔다라든가 이런 거는 못 들으셨어요?

그런 건 못 듣고,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아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조재관 씨는 몰라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노인네들 얘기허는 거 보면, 우리가 면 동넨데, 이게 좁어서 일루 갔대는 말이 있더라구. 동네 자체가 인제 좁으니까, 면 동네가 일루 갔다는 말이 있었어.

일제 시대에요?

응. 그래 나도 그거 들은 거지 뭐. 내가 뭐 그냥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강습소도 혹시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그 바로 고 지금 현재 자리 뒤가 우리 집이여. 지금 형님이 살고 계시지. 그래 덕상이가 사춘이고, 이장이. 인저 내가 여기 온 거는 소를 길르다가 동네에서 쫓겨나온 거여.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이게 논이었어. 이게. 고실논.

여기요?

이게 다 경지정리 된 논이여.

여기 저 저수지 밑으로?

예. 원래는 다랑논인데, 인저 저기 다 하고 나서 경지정리를 맨 나중에 했는데, 경지정리했으면 인저 절대농지잖아요. 그래 못 가는데, 동네에서 인제 막 그냥 마당 구탱에 소를 멕였잖아. 우리가 다 집집이. 그냥 마당에서 그냥 울타리 집에서 막 멕인 거요. 막 그냥.

젖소를 그때 먹인 거예요?

응, 응.

몇 마리씩이나 먹였어요?

그게 뭐 한 3마리에서 5마리씩 요렇게 갖고 있었지. 집집이. 초장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80년도부터. 80년도부터 그랬을 거여.

80년도부터요?

응. 고 무렵, 내가 82년에... 3, 83년부터 내가 소를 거기서 길렀는데...

1983년에요?

응. 고때 동네 두 집인가, 세 집이... 아무튼 80년 전, 79? 79는 아니구. 내 군대 가기 전에 없었을 거여. 80년도, 81∽2년 요 사이부터 소를 길른 거여.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83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미 두 집 정도는 기르고 있어...

어. 두세 집이 있었었죠. 두세 집이.

그 이전에 두세 집이...

응. 막 한 마리 두 마리 젖 짠 거여. 그때는.

그때는 한 마리, 두 마리 해도 수익이 좀 됐나요?

어 어! 학교들, 애들 대학교를 보냈지. 세 마리만 짜도.

젖소 세 마리면 대학까지 가르쳤어요?

그럼요. 소득이 좋아, 높은 거지. 땅 한 구간을 팔아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샀어.

한 구간이라고 한 것은?

1,200평. 땅금은 뭐 몇천 원 하고 있었는데, 소는 몇 백이었지. 그때구.

한 구간 팔아가지고 소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요?

응... 근데 그거 한 세 마리만 짜면 부자였어. 그 돈이 먹고, 쓰고 실컷 됐다고. 그땐.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응 응. 몇 배가 낫지.

세 마리면 부자였다고요?

응. 괜찮았어. 그게 5마리 10마리 되고, 20마리 인저 하는 사람은 머슴을 두고 했어. 20마리.

그 당시에요?

응. 그건 동네 사람이 못해고. 돈이 없으니까. 오산서 외지 사람이 그 동네 근처에 땅을 사서 목장을 지어서 머슴 두구 하구. 그래두 돈이 남었지. 많이 막 푹푹, 사장님 사장님 그랬지. 우리네가. 부러웠지. 우리네 두세 마리 짤 때 그 20마리 짜니까 기업이지.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몰르지요 뭐. 외지 사람이니까.

지금은 인제 안 하시나 보네요?

응. 안 하지.

지금은 20마리 가지면 어때요?

거지 돼요. 거지.

그 당시에 한 마리 수준으로, 지금 인제 소득으로 본다면, 그 당시 한 마리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 몇 마리 정도 해야 돼요?

그때 인저 두세 마리 가지구 했다가, 인저 막∞ 인저 10마리를 짜야 인저, 인저... 욕심에 인저 막 돈을 벌라구 그럴 거 아니야. 사람이 누구나. 그래 10마리를 가지는 게 꿈이야. 그 두세 마리 짜다가 10마리를 짜는 게. 착유소를. 근데 10마리를 동네에서 못 길러. 그 마당 구탱이에서. 지금 보니까 운동장도 없어. 길루 나가니까 동네 소 멕이던 운동장이 없더라구. 하하하. 그냥 묶어놓구, 외양간에 묶어놓구 짜구 그랬어요. 마당에다 조금, 한 두세 평에다가. 저기 그 산에서 아까시 나무나 나뭇가지 잘러서 막 끈이루 매다가 조금 더 있다가는 반상이 사다가 또 묶구. 그렇게 키웠었지.

그런 집들이, 두세 마리씩 그렇게 키우는 집들이 마을에...

그렇지. 한 뭐 한 10 몇 집까지 있었지. 40호 정도에서 10몇 집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 40호 중에서...?

한 10 농가는 나왔을 거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려. 40호 중에서 열, 여 이 동네

두 그랬으니까. 그래다 인자 10마리 정도 길를래니까 나가는 거지 인자.

마을 밖으로요?

예. 내가 지금 소를 열심히 길러보겠다 해서 나온 거지. 그때서부터 인제 나가고, 또 동네에서 10마리 이상 못 길르면 인자 수지가 두세 마리하고 10마리하고 똑같어진 거야 인제. 소득이 한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늘리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인제 인제 정부 정책두 그렇구, 인저 마진이 주는 거여. 그러니까 인제 10마리를 길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접고, 인제 더 기르겠다는 사람만 요기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농간가 일곱 농가가 일루 온 거여.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일로?

아니 차츰 인제제 정부에서 저기 “나가라.” 이 동네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너들 나가면 융자를 주겠다. 근데 여기가 절대농지 막 했는데 안 되는 땅이여. 원래. 근데 동네 민원 생기구 인제 지저분하니까 시에서 이쪽으루 몰아준 거야. 이 두 동네 그 목장 해는 사람들을 이쪽으루 허가를 내준...

아 1리하고 2리 사람들이요?

저 들판이루 가지 말고 욜로 오라고. 그래 요쪽으로 허가를 내서 해준 거여.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다 논이여.

논인데, 여기 골짜기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고실이라구 그러지 뭐. 우리 동네두 고실이구, 저 안말에서두 고실이라구 그랬을걸... 골랑말에서 있을 때는 고실논들이라구 그랬어. 고실논.

여기를 무슨 덕골이라고 그랬는데요. 창덕골...

이건 안말에서 안말, 그 조재관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렀을 거야.

예. 창덕골.

우리 골알말에서는 여기를 고실이라구 그랬어. 고실.

아 고라실논이 있는 골짜기라고 그래서.

응. 고실.

그래서 몇 가구 정도가 나중에 여기 왔어요?

여덟 농가 정도 왔었지. 처음에 여기. 일곱 농간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농가가 온 거지.

일곱 농가요. 농가가 인제 차츰차츰 이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응. 자꾸. 허가를 여기만 내주니까. 시에서. 그니까 그때 농지법이 바뀐 거여. 인제 논에서 (주택과 축사를) 질 수 있게 해준 거여.

그러니까 시 협조가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들로 가겠다. 내 농지가 거기 1,600평짜리가 있어서 글로 가겠다. 그랬더니 안 내주고 이짝에서 해라 그래갖고.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이 반쪽은 사고, 반쪽은 우리 형님 거. 그래서 여기 쉽게 들어왔지. 내가.

굉장히 넓어요.

2천 평이요. 한 평 모잘라는 2천 평일 거여.

여기 자리 잡은 목장들은 그 정도 넓이를 했나요?

한 1,500평 정도.

처음에 우유는 어느 회사로 납품했어요? 두세 마리씩 기를 때?

저는 처음부터 서울우유로 냈어요.

여기는 죄다 서울우유였나요? 그 당시에, 80년대?

아니죠. 그때 서주우유, 매일우유... 아 또 어디 문 닫은 저기가...

남양...?

아니 아니, 남양은 없어.

삼육도 있고요.

아 뭔 있었는데. 저기 유업체가 있었는데. 하나.

또 하나요. 서주, 매일...

아 서주, 서주... 남양은 없었던 것 같애. 남양은 저쪽으로 있었나 봐. 저 아래.

납품하는 방식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젖 짜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지. 그때는 인제 깡, 이렇게 캔이루 해서 담어서 보냈고, 지금은 인제 집유차가 와서 빨아가고. 그때는 인저 냉동차가 아니지. 그냥 화물차에다가 우유 수거해갖구 싣구 가니까. 그냥 진짜 상하기 직전이겠지 뭐. 가면은. 그래두 다 먹고 살은 거지. 그거.

지금 몇 마리 키우세요?
지금 한 100마리 정도.

여기 목장들이 다 100마리 키우나요?
응. 얼추 비슷해요. 지금.

지금 목장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집이 여기 쪼끔.

현재 네 집이요?
응. 하나는 인제 비육우루 하구. 한우 길르구 하나는.

그러니까 현재 네 집인데, 세 집은 젖소고...?
아이 네 집이 젖소고, 한 집이 한우.

아 네 집이 젖소고. 그럼 다섯 집이네요?
응, 응... 아니 가만히 있어 봐. 하나, 둘, 셋, 네 명이야. 맞어. 목장에 해는 사람이 4명이야.

비육우 한 집이고요?
응.

비육우는 한우?
한우예요.

그러니까 한우까지는 총...?
다섯 농가죠. 지금 현재.

100마리면 수입이 어떻게 되요?
어... 100마리라구 그래서 인저 들어가면 인제 또 뭐가 있냐면, 두수를 떠나서 납유량 기준이야. 납유량 기준. 지금은. 하루 납유하는 기준이루 가지구. 그게 소득이니까 우리는. 그 납유량. 그러니까 집집이 달라. 그 갖고 있는 그 납유량이. 일종의 쿼터라구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두수가 있어도 저기 그...?
납유할 수 있는 양에 맞춰서 기르는 거여. 두수를.

그래요?
응. 더 기를 수도 있고. 적게. 근데 자기가 효율적으로 편하게 길르면 후보충을 많이 길르고.

후보충이라는 게 뭐예요?

그니까 소를 내가 뭐 50마리를 짜야 되겠다. 그래 이게 일정량 납유를 해야 되는데, 50마리 정도를 짜야 되는데, 보통 뭐 한 30% 이게 인제 밑에 소가 있어야 이걸 교환을 했잖아. 인제 늙으면 나가고. 도태되니까 이걸 받쳐줄 수 있는 후보군의 소를 후보소라고 그래는데 그게 육성우가 100마리다. 아니 착유소가 100마리다. 그럼 후보소가 한 30마리. 한 30% 정도.

한 30%는 예비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자 그거는 인저 농장주 마음대루지. 자기가 쪼끔 더 후보충을 넣어서 비용 부담은 돼도 그 내 기존의 50두를 그냥 편하게 도태 막 시키면 시키구, 막 이걸 항시 채워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더 길를 수두 있구, 적게 길를 수두 있구. 그 차이지.

납유량이 납유 계약일 거 아니에요? 회사하고.

응.

그러면 그게 인제 100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상 나온 거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해야 되나요?

안 받아요. 그 쿼터량을 안 받어. 근데...

근데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100리터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90리터밖에 못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더 받겠죠.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공산품이 아니잖아. 공산품이 아니라 소고 사람이고 애를 낳아야 젖이 나와. 한 10개월 정도. 그 분만 초기에, 애 낳았을 때 그 1년 내 젖이 나온다. 그래도 젖이 똑같은 양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젖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오는 거 아니야? 생리적으로. 그니까 소는 그거를, 그 생리 주기를 계산해서 받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 우유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마리가 새끼가 우르르 터졌으면, 그때는 뭐 200kg씩 막 나오다가 새끼 안 낳고 오래 있으면 100kg로 푹 줄을 거 아녀. 그러면 내가 그 500kg라는 쿼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한 번에 막 나와서 600두 나올 수 있구, 뭐 쪼그러 들으면 300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쿼터량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뭐 위약금 같은 걸 무나요?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쿼터라는 생긴 의미는 우유를 억제해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 요거 이상 나지 말라 이거야.

그게 최고량인 거네요? 그러면?

이거 이상 내지 말라고 그래는 거지.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 쿼터를 샀을 거란 말여 인자. 인자 이거 억제를 해니까. 자꾸. 농장 환경이 좋구, 뭐 인력이 풍부해면 자꾸 더 사야 될 거 아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벌려구 하니까.

아 쿼터도 거래를 해요?

그렇죠. 응. 그럼 더 사요. 사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현재 쿼터가 1kg에 60만 원 뭐 그렇다구. 정확히 모르겠는데 60~70은 안 가구,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갈 거야. 근데 이거를...

50만 원 60만 원 간 게 어떤 거?

1kg의 쿼터 납유할 수 있는...

1년 동안 1kg?

아니, 하루, 1일.

그러니까 일(日) 1kg를 1년 동안 납유할 수 있는...

아니, 그냥 상시. 365일 나유 할 수 있는 1kg를 낼 수 있는 그 조건의 그 쿼터래는 게 60~7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가죠.

현재요?

응. 그러면 그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쿼터도 못 짜면 안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니까 대다수가 이 쿼터 거를 짤라구 욕심껏 길러요. 이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인제 어르신께서는 어쨌든 100마리에서, 그 예비소까지 합쳐가지고 100마리 사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제...

납유할 수 있는 내 쿼터는 1,300이다 이거야.

1,300kg.

그렇지. 하루에 납유할 수 있는 kg으로. 근데 사장님 얘기대로 1,300인데 지금 1천kg밖에 못 짠다 이거여.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또 뭐 새끼 낳갖고 1,600을 짜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그러니까요. 이게 신선 제품이라 그 뭐 요번 달에 안 나오면 다음 달에 낼 수, 그니까 오늘 안 나온 거를 내일 채우기도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 뭐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한테 일단 오늘 분량을 채워달라라고...

그렇지. 인제 그런 건 어렵고. 지금 인제, 인제 금방 이해가실 거야. 그래서 일 쿼터를 1,300에 내가 갖구 있는데, 이거를 연간 쿼터로 잡어주는 거야. 연간... 그 1,300이래는 것을 1년 12

달, 연간 쿼터로. 그래서 이 쿼터 선상의 우유가 넘었다 좁았었다 해두, 이걸 연간이로 해서 연말에 해줘요. 그러면 그 제도는 좋은 거죠?

예. 좋네요.

좋죠? 또 낙농가 입장에서는 그러한 연간 쿼터를 해줘야 그 목장 경영해는 데 아주 이상적인 거지. 그죠?

안정적이죠.

예. 이게 맞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개인 기업들은 그걸 없앴어. 요새. 연간 저기를 일(日)루 따졌어.

날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겄어요?

근데 개인 기업들이 있나요?

아이 매일유업하구 저기 남양유업은 개인 기업이야. 서울은 협동조합이구. 그러면 우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못 해는데, 개인인 유업체들은 우유가 남으니까 너들 1쿼터로 하자. 못하겄다. 연간 해면은 우리 힘들으니까 너들 못해. 그래갖고 지금 연간 쿼터제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이거를 우리 조합두 이렇게 핼라구 이런 걸 몇 년 전에, 4~5년 전에 핼라고 그러는 걸 내가 농림식품부 전화해 갖고 막 2시간 동안 쌈했지. 소 생리를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너들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우유 남는다구 막 뚝뚝 잘러 먹고, 너들 편핸 대로 해면은 농가만 돼진다. 내가 그랬어. 그럼 좋다. 너들이 정 그렇게 물가 안정을 내세워서 통제를 핼 것 같으면은 통화스와프 모냥 돈만 그래지 말고 소를 사들였다가 그냥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농가 줬다 뺏었다 해라 그랬어.

내가. 그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 물가 안정이 될 거 아녀. 저 또, 우리 금융업에서 돈을 쪼였다 말었다 해듯. 내가 그랬어. 그거 뭐 어떻게 해냐고. 아 이 양반들아 그러면 지금 잘 합리적으로 돼 있는 법을 농가만 죽이고 너들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법을 핼라고 그러면 되냐? 그래갖고 뭐 내가 인제 그때는 대위원이었으니까 그 조합에 가서 한참 떠들었지. 마냥 피터지게 해갖고 막었지. 인저 나하고 인저 같이 생각을 해는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까 못했지. 우리는.

이게 낙농 조합 같은 것이...?

우리 서울우유 협동조합이여. 그 서울우유 협동조합이여. 서울의유가 사기업이 아니라 우리 농협 모냥 우리가 주인이야. 투자 해갖구... 그니까 서울우유를 사 잡숴야 돼. 따른 거는 개인이 해서 장난을 놀고 분유를 섞어서 유제품을 만들으니께... 내가 서울우유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체세포하구 유질하구가 상당히 좋아. 선진국의, 세계 1∽2위야. 그 유질이. 그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은 요게, 매일유업하구 한국야쿠르트가 요기 있잖아요. 우리 서울를 가져가. 얘들이. 모잘라면 사가.

야쿠르트가요?

응. 아 야구르트는 집유 자체가 없어서 사가. 원래. 근데 매일은 집유하는 농가두 있는데 우리 우유를 사가. 그래 “왜 사가냐?” 그랬더니, 누가 기업 기밀인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토백이다. 나도 5대 이상 뭐 6대 이상 막 살으니까 인근에 인저 선후배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인저 기업 인저 하이크라스 그 지도급엔 얘기해겠어. 근데 그 잡일해구 뭐 내 친구, 후배들 얘기로 서울우유 제품이 오면 하자율이 적대는 거야. 하자율이. 무슨 제품을 만들으면 세균수나 뭐 그 유제품이 이게 수준이, 질이 높으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하자율이 적다 이거여.

그게 조합이어서 그러나요?

아이 우리는 엄격하지. 엄격해요. 그 우유를 수거해서 그 기준이 엄격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1,300kg면 1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1,300이면은 저기루 따지면 돼. 1,100원이여. 지금은 1,100원, 1,200원 정도 나와.

kg당?

응. 1,100원, 1,200원인데, 요새는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소득이 없어. 요새는.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소 몇 마리 정도 돼요? 80년대 초반에?

그때루 따지면 뭐 10마리 해갖고 우리두 요거 하고 애들 먹구, 나두 먹구 이렇게 성장해서 왔는데, 요새 사료값하고 이게 다 폭등이 돼갖고 모든 비용이 올러가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거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응. 안 식구랑

두 분이서?

응.

다른 목장 가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썼었어요. 한 10년 전에 나두. 1,600을 냈었어. 1,600을... 1,300보다 많은 1,600kg를 내가 가지구 있었는데, 인제 나도 인제 그 애가 졸업하고 시집 갔어. 우리 딸 하나인데 시집가서 힘들구 그래서 줄였어요. 외국인 두면은 250, 300을 줘야 돼. 지금.

현재요?

응. 그래서 그냥 규모를 줄인 거야. 규모를. 애들 데리고 한 10년 나두 있었는데. 그때는 많으니까 사람을 둬야지. 내가. 뭐 부부가 해는 것두 한계 있고. 근데 너무 힘들더라 이거여. 외국인 두는 게 또. 매년 들랑날랑 도망가고. 돈 더 달라구. 별 놈들이 다 있어서 속 썩구. 그래서 그냥 줄여서 부부가... 나는 그래, 우리 조합이 좀 홍보를 더 해갖고 소비자를 설득해야만 된다 이거여. 너무 비싼 우유라는 인식이, 이건 정부에서 비싼 우유라고 그렇게 잘못 인지를 시켜준 거지.

이게 1,600에서 1,300으로 그러니까 300kg를 줄인 거잖아요?

응. 팔았어요. 쿼터를.

그러면 젖소 몇 마리 정도에 해당되나요?

쉽게 말해서 25마리, 25kg 정도 보면 돼. 30kg인데, 25kg 정도... 두 당.

두당 25kg요?

25kg에서 지금 40kg까지 나오는데, 농가에서. 좋은 집은 35kg 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한 28kg 정도.

소 한 마리당 25kg에서...

28kg 정도. 그게 인자...

많이 나오면 35kg요?

40kg.

40kg까지...

뭐 70kg도 나와. 우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평균 인저 50마리를 짰을 때, 30마리를 짰을 때, 평균 유량이 인저 40kg까지 나와. 많이 짜는 사람은. 근데 인자 힘들지. 소 관리가. 앓증하고 또 젖이 많으면 금방 또 도태가 돼. 잘못해면.

근데 젖소는 다 키우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제 나이 먹어서 젖 안 나오면?

폐소로 파는 거지. 인제 폐소... 옛날 젖소고기래는 게 그게 폐소야. 폐소.

그럼 폐소는 뭐 가공식품 같은 거...?

가공이루 들어가는 거야. 가공. 저 뭐 인저 저급한 뭐 소·돼지 사료나 개 사료나 뭐 그런 데루 가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급한 대로. 그 시장에선 못 팔지. 그 질겨서. 문 닫어야 돼.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 그런 거 갖다 팔면 질겨서 먹지두 못해구.

어르신은 서탄 초등학교 나오셨죠?

예.

몇 회예요?

40회.

그때 금암1리에서는 동기분이 몇 명이나 됐어요?

한 10명은 될 거야. 8명인가...

여자까지요?

응. 우리. 아유 10명은 됐을 거여. 가만 있어봐. 10명 넘지. 여자까지 해면. 여자 4명에 남자가 몇 명이야? 우리 7명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우 열 한 두세 명 됐겠네... 집집이 다 있는 거여 그냥. 애들이.

거기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응. 5분 거리지 뭐. 여기서... 매냥 뛰어다니는 거지 뭐 5분. 장난 놀면서 뛰어다니는 거거지.

그때가 재밌었죠?

그렇지. 그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재밌었던 거지. 하하.

금암1리에서는 아이들 인제 어렸을 때 수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영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냇갈이여. 냇갈.

저 금암교 있는데?

응. 저 아래로 쭈욱... 다리에서 막 뛰어다녔어. 뛰어내렸어.

다리에서요?

그럼요.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거여 저게. 다리가... 다시 핸 거구나. 저거.

그때 시멘트 다리였어요?

반은 목조 다리.

아 반은 시멘트 다리고요?

응. 그 다 부셔갖고 다시 핸 거여.

그러면 목조 다리하고 시멘트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었죠 뭐. 이렇게, 이렇게... 냇갈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저짝에서 올 때, 저 서탄 입구서 올 땐 요거, 목조다리. 목조 다리여 이게. 이렇게 일제시대 때 지은 거래.

아 이렇게 그 꺼먹다리. 검은 걸로 이렇게...?
응. 그래구 요거는 인저 뭐 6.25 때 폭격 했댔대나 뭐, 요건 인제 세멘트 다리였어. 이쪽에.

이쪽에 시멘트 다리로요?
응. 근데 인제 지금은 다 부시구 새로 놨지.

아 이게 인제 뚝방이면, 양쪽 뚝방이면...
응 양쪽에 냇갈.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됐겠네요. 또
아녀. 그냥 바로.

길, 길 바로?
응. 이쪽이 높었나 봐.

이쪽이 높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목조고 이건 시멘트고. 그러면 여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놀은 거예요?
응. 뛰어내려서 놀구. 여기 냇갈에서 놀고 그랬지.

고기도 많이 잡으셨겠네요?
그렇죠. 고기두 있었구. 물두 막 먹었지.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미군들이 많이 왔었어. 여기. 그 냇갈에.

이 오산천에도요?
응 응.

저쪽 진위천이 아니고요?
이게 붙은 거여. 이 냇갈이.

그러니까 저기 미군들은 바로 저 건너편이니까. 부대가. 그 진위천 오지 뭐 굳이 여까지. 금암리까지...
아녀. 그 사람들이... 진위는 지금은 길이 좋아진 건데, 어떻게 보면. 길이 좋아진 거지. 막 뭐 다리도 놓고 막 이렇게 돼갖고. 옛날엔 건널목이 있어. 거기가. 미군 부대 그 건널목이었어. 철로 길을 건널목으루 다녔다구.

서탄 입구 삼거리 거기요?
아니요. 이짝 비행장 앞에.

비행장 앞에?
그니까 거기가 멀어. 이쪽으로 왔어. 그 부대에서 나오면 여기로 왔다구. 여기가 가까웠다구.

그럼 어떻게 와요? 미군들이 거기서?
거기서 그 정문에서...

구장터로 해가지고?
구장터. 요기 지금 그 비행장으로 들어갔는데, 고기에 이게 길이 있었어. 길이.

다리는 없고요?
옛날에 다리는 없고, 징검다리지. 이렇게 나무루 동네서 해는 거.

그러면 저 신야리 좀 남았던 데, 글로 해서 왔나요?
아니. 고 위에. 신야리 동네 위에가 구장터, 지금 어디냐 하면 고기... 고기 굴이 있더구만. 지금두. 그 다리에. 그 비행장 들어가는 데 고거, 그짝에 굴다리 있더구만.

아 구장터 있는 데요?
응. 고기. 철로길 못 가서 고기 구멍 뚫린 데루 이렇게... 그게 구멍이 안 뚫리구, 이 길이 없었어요. 원래. 그 비행장 가는 길이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응. 그게 없었어요. 그냥 저기 그 철로길 그대로 뚫리구. 저쪽 정문, 시장통에 있는 정문이루 다니구. 나머지 군수품은 그 전철...

예. 철도로.
응. 그 길이여. 그 길에서 차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아. 이거는 길이 없었어.

이쪽 물 건너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렇죠. 이게 비행장 여기, 저쪽 길은 거의 없었고, 그래 거기서 나오면, 바로 내려오면 냇갈이야. 이렇게 구장터루 냇갈. 그 냇갈에서 인제 이게 합해져 있는 거 아녀. 그러니까 미군들이 여기까지 막 올라왔다구. 여기 막...

금암교 있는 데까지요?
응. 막 올러왔어.

와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그래요?
수영하고 놀고. 양색시들 데리구 와서 놀구 그랬지. 그때. 그러면 인자 그거 인저 저들 놀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맥주 묻어놓으면, 그 모래판에다 맥주 묻어놓는다고. 걔들이. 그럼 그

거 몰래 캐서 도망가서 우리가 먹고. 근데 먹어보니까 오줌 같으니까 다 내던졌지. 괜히 호기심에 캐먹은 거지. 하하하. 맥주 묻어놓구 그랬지.

뭐 안주로 가져온 음식도 있을 거 아녜요?

없죠 뭐. 그 맥주만, 맥주만 먹었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그때가 뭐 인제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고때쯤이여. 기억이.

초등학교 3~4학년?

응. 맨날 가서 냇갈에 가서 뭐 놀고, 남의 챔외 밭 그런 데 가서 따다 먹구 그랬지.

참외 밭은 어디가 있었어요?

그쪽 냇갈에. 저거 제방이 어느 순간에 쌓아졌어. 우리 어렸을 때 제방이 없었어요. 그게 양옆에 다 거의 챔외밭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참외밭 있는 데가... 여기가 금암교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대정촌 쪽.

우리는, 나 금암리니까 요 삼거리 있잖아요. 요 앞에. 요까지 가서 놀았지. 이거 다리 있기 전에. 여까지... 이짝이 다 모래땅이여. 우리 밭두 있지만. 나두 여기서, 군대 갔다 와서도 여기서 챔외 심고 그랬었는데. 냇갈 옆에다. 이게 모래땅이야. 그 자꾸 물이 넘어서 모래땅들이야. 이 저기가.

지금 여기가 뭐, 여기서 망월도 하고 그랬다는데...

예?

망월이요. 대보름에 망월 하는 거.

예. 그런 것두 하고 그랬지.

지금 여기 이렇게 길 조성됐죠. 여기 이게 참나무길이라고 그러나요?

응. 참나무길. 여기가 우리 게 2천 평 있었어. 요 참나무 숲 만들기 직전에. 그래서 나도 챔외 심구. 챔외 심다가 내가 인자 82년도 소를 길르니까 옥수수하고 수단을 심었지. 거기다... 그래다가 인제 수용이 된 거지. 이게 인제. 이거 정리 사업 해면서.

그럼 이게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였던 건데 수용이 된 거예요?

이 하천이 다 땅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인자, 인자 이 제방을 쌓면서 이 안에 있는 걸 보상을 해줬지. 근데 인제 보상해 주는 기준이 사유지래두 물이 계속 흐르는 거 하고, 1년에 한 번씩 장마지면 흐르는 거하고 이게 달라. 보상 기준이.

그러니까 인제 그 물이 잘 나오는 논하고 물이...?

아니 물이, 요 제방을 쌓을 때 물이 이렇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장마 때 흐르는 거 있고 넘쳐서. 그러고 상시 흘러. 논 가운데로 흘러. 지적도는 있는데. 그러고 그 물이 계속 흐르는 부위는 싸게 주고.

물이 안 흐르는 부분은...

쪼끔 비싸게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이거를 (수용했지.)

그럼 이게 수용된 건 언제쯤 수용했어요?

그건... 70년... 70... 75∽76년에 편입이 됐을 거여. 근데 우리는, 나는 84∽85년도에 편입됐지. 우리는 안 했지. 내가 소를 길르니까.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수용되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수용된 거는...?

그때가 인자 한 84년, 우리하고 누구네가 제일 나중에 수용됐을 거야. 안 핼라고 그러다가 인자 어차피 제방 쌓아놓고 뭐 행세도 못하구 농사두 못 지으니까 인제 보상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이 제방이 한 80년 초쯤 쌓여졌나요?

아니요. 그전에 쌓여졌는데, 70년대 중반쯤 쌓았는데, 고, 고렇게 쌓은 건지 아무튼 자꾸 보강을 해서 싼 거여. 이게 한 번에 쌓은 게 아니라, 한 번에 쌓은 게 아니라 여까지지 쌓았다 이 뒤에 또 쌓고 그랬을 거여.

그럼 지금처럼 완전히 된 건 언제쯤 돼요?

그게 아마 70년대 후반 때일 거야 아마. 70년대 중반이나.

그리고 그때 쌓을 때 여기를 보상을 했고...

그렇죠.

그때 인제...

인제 보상을 막 했는데, 이 버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줄에 있었다가 84년돈가 최종적으로 내가 받았어. 나중에 안 되겠어갖고. 다시 또 내려왔더라구. 받아가라고, 보상 받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시에 가서 받어왔는데.

그 뒤에 인제 참나무길이 조성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땅이 거기 2천 평이 들어간 거여. 우리 땅이 이 냇갈하구 이렇게 양쪽으루 이렇게 길다랗게 2천 평이 있어. 큰 거지. 이짝에서 여기까지. 근데 인저 여기 반은, 그 참나무 숲에 반은 들어가구 반은 이쪽에 가 있는 건데. 한 뭐 500∽600평은 들어간 폭이지. 우리가.

그러면 여기, 그때 여기 참외 밭이 많았었어요.

반은 논이었구요. 그냥 뭐 그냥 밭으로 했고. 그렇죠 참외도 심고 인제 이짝 내갈 옆에도 참외들을 많이 심었어.

대정촌 쪽으로요?

응. 그러고 이쪽 신야리 쪽에도 좀 심고. 신야리, 회화리. 요 냇갈이 어디서 마주쳐요?

여기요.

이거죠. 그래 여기도 많이 심었어. 신야리 쪽에두.

하천변 쪽으로 많이 많이 심었네요?

응. 모래땅이라 챔외 같은 거를 심었지. 그래 나 어렸을 때 여기, 여기서 원두막에서 있다 노인네까지 떠내려갔잖아. 장마 때.

아 원두막에요?

그래. 지금두 살아 계셔. 저기 대동촌(대정촌) 그 사람 엄마.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보네요?

아들. 아들이 지금 90 됐을 걸. 그 사람. 90은 안 됐겄구나. 한 80 정도.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엄마.

엄마가 원두막에 있다가 떠내려가버린 거예요?

그래. 장마 때. 그래 그 사람은 지금 2층 짓구 살어. 겁이 나서. 여기 이게, 이 제방이 넘었어요 가끔. 이 대동천 쪽으루.

여기 있던 대정촌 쪽 원두막이 떠내려간 거예요?

아니요. 요짝에.

이쪽. 지금 금암리네요?

신야리 쪽에. 이 사람이 이 땅을 산 거지. 이쪽에.

아 여기가 지금...

회화리. 회화리, 신야리죠.

회화리, 신야리고.

응. 요게 거 이게 뭐야 저 야구장 있는 데가 이게, 이게 밭들이 많이 있었어. 그니까 국유지구 뭐구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를 경작하게 돼서 참왼가 뭐 심어놓구 원두막에서 있다가 밤새

그냥 원두막, 원두막 채루 떠내려간 거야. 80 한 2~3년 고 무렵일거여. 고때 떠내려갔어. 큰 장마 와갖고.

돌아가신 분 시신도 못 찾았겠네요?

못 찾았죠. 못 찾았을거여. 본인은 그래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요짝, 요짝 동네걸랑, 대정촌, 요기서 요렇게 해면... 여기 하북. 그게 어서 온, 이주한 집단들이여. 이주해서 온 사람들인데.

야구장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80 한 5∽6년 넘어가서 했을 걸요. 90년도에 만들어졌겄네. 90년도 정도에. 그 정도에 했을 거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놀아요? 야구장에는?

여 서탄면이 해야 되는데, 이 나이 먹어서 죄 놀 사람이 없어. 그래 송탄 사람이 다 와서 놀아... 이름만 서탄야구장이지. 아 내가 이 동네에서 10번째 안에 들 것 같은데, 여기 가서 뛰어놀 놈이 어딨어요. 그 저 송탄 시내 애들이 그룹 지어서 와서 놀더라 이거여.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숲을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여기 와서 산책해고 운동해게 했으면 좋겄다는 거지.

여기 지금 공원처럼 됐잖아요? 참나무 숲.

근데 관리가 안 됐죠. 그냥 나무만 있지.

나무만 심어놓고 뭐 별도의 시설 같은 건 없죠?

그래서 내가 그 문경시에 가면 영신숲이라구 있어. 똑같애. 이런 위치가. 문경시에 요렇게 냇갈 옆에 흐르는데 고것만한 그 이렇게 저 하천 부지, 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숲이 있는데 이런 숲이 아니라 거기는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그 공원화된 숲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됐더라 이거여. 그래 나도 얘기를 했는데, 그 면장을 쫓어가서 몇 달 전에 가서 얘기했어. 이 얘기를. 내가.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래.

서탄 면장이요?

응. 나보구 와서 얘기해래. 그래서. 그래서 내 갔지. 가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왜 재밌는 얘기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 환경을 걱정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서울 시내에서 살어.

도시에?

응. 도시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더 많이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충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면서 최소한의 환경이 파괴되는 거를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사람이 있는 한 환경은 뭐...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은 파괴 해지. 나는 그 얘기여. 이게, 이게 중요한 얘기여. 뭐냐 하면은 선생님도 이걸 잘 쓰셔야 돼. 환경론자들은 그 하천이든 강이든 자연 상태로 놔두라구 그래는데 그건 상류 사람들 얘기여. 상류 사람들. 하류 사람들은 이거 놔두면 범람이 돼요. 놔두면 범람이 돼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하천 옆에는 범람이 돼. 그럼 이 하천을 세계 어디를 가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천을 관리해야 돼. 서울두 한강을 관리를 해서 쓰는 거여.

환경론자들이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나는 그 4대강 얘기도 해는 게 왜냐, 서울은 다 관리해서 깔끔해게 시민들 공원두 해주고 양 제방에 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4대강을 가면은 그거 흉내낸 거지. 10분의 1도 안 해놨어. 제방 쌓아놓고 거기에 제방 부서지지 말라고 공고리(콘크리트) 친 게 자전거길 되고, 그냥 고기에 쌓음으로 인해서 유류지가 생겨서 대구나, 내가 자전거 타고 전국 순회를 다 했는데, 대구, 구미 여까지, 창녕까지 잘 돼 있어요. 그 서울 모냥 흉내를 내놔서. 근데 왜 이게 나쁘대는 거여.

여기 뭐 환경 문제가 걸리나요?

아니요. 나는 그 얘기여. 자 봐봐요. 냇갈이든, 강들 그렇게 취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하천, 자꾸 이게 물 흐름이 안 되면 넘치구. 제방을 높이 쌓을 게 아니라, 퇴적층은 위에서 알로 계속 쌓이게 돼 있어. 하류는 그 나대지, 삼각지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여. 또 하나, 제방을 쌓아서 보를 막어야 지하수가 올러가서 양 옆에, 제방 옆에 하우스 농사든 무슨 농사든 물이 풍부해져요.

근데 그것도 신문에 보면 큰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수하고?

아니요. 우리는 여기 보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냇갈에. 요기 지금 보 있어요. 보를 막어야 지하수가 올러와.

어디 어디 있어요? 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보 있어. 보. 우리는 여기를 막어 달래는 거여. 그래 나도 여기서 농사를 짓구 있는데, 하우스, 내 하우스가 여기두 있는데. 여기쯤 있어. 요게 내 하우스여.

여기 하우스가 많네요.

응. 이게 보를 막어야 지하수가 올러오면서 수막이래는 게 있어. 요새는 저 열로 안 하구 물을 틀어서.

예. 지하수.

그게 안 돼요 이게. 보가 안 막으면, 물이 없으면. 그런데 인제 봐봐요. 왜 이거를 또 왜 못해

냐고 근데, 아니 오산시두 보면 냇갈 옆에 다 공원 해갖고 다 했는데, 왜 여기만 못해. 내 이상해. 내 면장한테 막 따졌어.

여기는 환경 파괴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응. 할 수 있지. 왜 못 해냐구 그랬더니, 웃기는 거여 또. 뭐 국토관리청 소속이라 우리가 핼 수가 없대. “아니 핼 수 없는 거를 왜 오산이나 다른 데는 했냐?” 그랬더니 “뭐 그건 뭐 상황이 달라...” 아니 그럼 내가 가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냐 이거여. 주민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저들이 이거 지역의 장이 됐으면 이런 걸 관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여기 만들었잖아요. 야구장.

응. 원래요 하천, 내가 이 보상 때문에 고발해구, 군수 고발핸 놈인데 옛날에. 하천 안에, 제방 안에는 어떠한 그 설치물을 핼 수가 없어. 법에. 이거 다 걸리는 거여 원래. 지금 이거. 이것두 걸리는 거여. 근데 정부에서 해구, 저희 힘 있는 놈들이 해는 건 괜찮은 거여. 법이. 나 이 나라가 그래. 이 보니까. 우리네가 말뚝이라두 꽂으면 하천 흐름에 지장 있다구 벌금 내래면 내야 되는 형국이여.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작을 해니까 하천 흐름 방해구 작물이 홍수에 역행한다 이거야. 그래서 수용을 했는데, 웬걸 농작물 심는 거보다 더핸 나무를 심더라 이거여. 그럼 이것두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

나무 심으면 인제 그 토사 유실은 좀 덜해지지 않나요?

아니죠. 제방 안에 나무를 있으면 물 흐름이 안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물이 상시 흘르는 게 아니잖아. 봄·가을루 건기잖아. 건기. 그 여름에 집중. 이거 얘들 얘기대로 맞아. 하상 폭이 넓어야 어떠한 급한 상황에서 많은 물이 내려갈 때 폭넓게 그걸 안어준대는 소리야. 그래서 여까지 심하게 오면 물이 와요. 여까지. 큰 장마가 오면 내가 60 넘게 살아오면서 여기 한 10번은 들어갔다 와.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요. 요 제방까지두 차요. 그래갖고 터지기두 해구 막 그랬어. 옛날에.

여기 물 많이 터진 경험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우리,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저짝 제방 두어 번 터져갖구 저 사람들 자다가 학교로 왔고...

회화리요?

그렇죠. 회화리하구 그 벌터, 벌터는 아주 이사 갔잖아. 사람들이. 몇 번 물 먹구는 이사 갔어.

벌터가 어디예요?

회화리하구 저 마두리하구 중간에 그 지금 저 양돈장하고 저짝 한우 있는 데, 거기 가면 있어. 집터가 있어요. 지금도.

벌터요. 거기는 회화리에 들어가나요?

아녀. 그냥 마두리인데 벌터라구만 알고 있어요. 마두리에 들어가는 건지. 한 10 농가인가 7∽8농가 있었어요. 근데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은 피난 나왔으니까.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는 버티고 살았는데 자꾸 커진 이유가 그때 아마 산업화되면서 오산 쪽에 공장이 많이 도시화되니까 물이 일거에 내리면서 늘었겠지.

근데 어르신 어렸을 때 이 물 목마르면 먹을 수 있다고 아까...

먹었죠. 그때. 난 어렸을 때 먹었어. 모래판에서 이렇게 해갖고 빨아먹으면 배탈 안 났어.

아 모래를 파고?

응.

흐르는 물을 먹은 건 아니고요?

그건 뭐, 그건 수영 해다 먹었지. 그래두 배탈 안 났어. 물이 깨끗했지. 근데 오산에 공단이 스면서 저게 절단난 거여. 그래구 나서, 그래구 이걸, 우리가 여기 있었던, 어디여?

여기요.

욜로 건너 다녔걸랑. 동네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욜로 와서 이 냇갈 건너 요 밭을, 또 요 가상사리로 이 동네 사람들이 한 열 몇 농가가 있었어. 쭉.

금암1리?

그렇지. 땅이.

아 대정촌 여기로?

그렇죠. 일루.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작은 집 큰 집 요기서, 동네 형 이렇게 해서 한 7∽8집 지금두 있어. 여기에 농토가. 그래서 요길 건너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는 못 걸어 다니는 거야. 저 오산서 내려오는데 이 물이 똥물이 돼갖고, 다리에 우리 엄마도 그러고 막 이런데 뭐 나는 거여. 그냥 물이 오염이 돼갖고. 그러니까 뭐 화공약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내려왔겄지.

일로 이렇게 건너다녔겠네요?

응. 응.

여기 길 있고.

응.

장도 일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로 다니고. 여기 동네에서 그 다리 놓고, 나무다리 놓고. 징검다리 놓고 막 그랬었지.

아 여기 징검다리.
그렇지.

대정촌하고 이어지는 데?
응. 응. 징검다리 놓고, 저기 나무때기로 해서.

징검다리는 돌이 있어야 하는데...?
응. 돌 같은 거 이렇게.

하천에 돌이 있었어요?
몰러. 어서 주어다가 이렇게 해갖구 놓기도 했고. 노인네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니까 모르지. 그래구 인자, 인저 고거 쪼끔 지나서는 인제 다리를 놓은 거지. 그 나무루. 나무로 인제 뗏장 갖다 엎어놓구.

원래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인제 나무다리를 놓은 거예요?
응.

장마 때면 다 떠내려가 버릴 텐데...?
그렇죠. 징검다리는 저... 장마 지면 못 건너가니까. 기다렸다 가는 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물 빠지면은.

그러면 징검다리를 큰 돌 하나를 놓은 게 아니고, 이 조그마한 돌 여러 개를 무더기 무더기에 놨나요?
콘돌두 있었던 거 같애요. 어린 생각에.

아나방 다리는 안 놨어요? 그 철판, 구멍 뚫린 철판.
아 그걸, 그걸 놓고, 그 나무 다리를 놓고 그걸 놓고, 거기다 뗏장을 엎어서 놓으면은 한 2~3년에 한 번씩 큰 장마 오면 떠내려가면 또 놓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

아나방은 그냥 그 위로 건너 다니는데?
아니 위험하니까 그 인저, 인저 발 빠지구 그래니까 나무다리를 놓고, 이렇게 인자 나무 다리를 놨을 거 아녀. 그러면 이걸 인자 짚세기루 엮어서 이렇게 놓구, 그 위에 아나방구 놓고, 거기다가 뗏장을 엎어놓는 거지.

그리고 인제 요 다리(적봉교) 생긴 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게 생긴거지.

이 다리 생기면서 여기 길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죠?

응. 여기 직선리루 난 거지. 이거는 원래 있던 길이구. 제방 따라 있었어.

제방 따라 길은 쭉 있었고...
응, 응.

인제 이 다리 놓으면서 마두리 쪽으로 가는 직선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고 진위. 의무루 갔어 우리는. 진위 중학교를 의무로 그때.

배정받은 거죠?
무조건 글루 가는 거지. 우리 2년 선배서부터 그랬을 거여. 2년 선배.

2년 선배서부터요?
응. 의무적이루 글루 갔어.

지금도 그렇죠?
지금두 그렇대는 거 같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

여기 중학교까지 다닐 때는 걸어다니셨나요?
걸어 다녔지.

걸으면 얼만큼 걸려요?
한 40분... 1시간 정도 걸었을 거여.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중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 안 사줘. 비싸서... 자전거 없었어. 내가 인자 고등학교 가서 자전거 사줘서 타고 다녔지. 오산고등학교.

자전거 타고 가면 어디로 갔어요?
아 국도로 갔지 뭐. 국도로 돌아서.

서탄 삼거리 나가가지고 그쪽으로?
응. 응.

그렇게 해서 자전거로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이면 갔을 거여. 오산고등학교를 1시간 정도 갔어. 걸어다녀, 인저 일로루 많이 걸어다녔지. 일로 그냥. 냇갈 옆으로 해서 쭉

뚝방길로 해가지고?
응, 응.

그렇게 뚝방길로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해도 1시간 정도 갔을 거여.

그럼 걸어가나 자전거 타나 똑같네요?
자전거는 삥 돌어가는 거구. 걸어가는 건 욜로 직선거리루 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비슷해, 비슷해... 버스두 갔구. 인제 3학년 때는 버스두 탔구.

아 고3 때 버스 타고...?
응... 버스는 거기서 타는 거여. 서탄 입구까지 가서. 하하하... 고기서 오산 터미널까지만 타고 가는 거여. 그니까 별 차이가 없어. 일루 걸어 다니나 버스 타고 가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3학년 때 버스를 탄 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공부 때문에 그랬나요?
몰라요. 또 어떻게 버스 타고 다니자구 그래갖구. 1학년 때, 2학년 땐 가끔 일루 많이 걸어다녔는데. 몰러... 버스를 타게 됐어. 타기 시작했어.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버스가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서탄입구까지 걸어 나가서 탄 거지.

거기는 뭐 버스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
응. 국도니까

여기는 그럼 버스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아 고등학교 때쯤부터 다니긴 다녔겄네. 버스가. 버스가 다니긴 다녔을 거 같애.

근데 인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럼 걸어간 건가요? 서탄 입구까지?
시간도 안 맞고, 또 그 요금도 비싸고. 돈이 비싸니까 그때 당시는.

그때 여기 들어온 버스가 어디 여객이죠?
모르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죠?

예. 모르죠. 그냥. 근데 인자, 인자 엄마, 아버지는 버스 타라 소리 안 하지. 걸어가라구 그래지. 그때 당시에. '이 새끼야 버스비가 어디 있냐?' 그러면... 그러고 다 알아서 걸어 다니는 거지 뭐.

근데 어차피 서탄 입구까지 가서 버스 탔잖아요? 3학년 때.

응.

그러면 여기서부터 타고 가면 더 낫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는 송탄이루 다니구.

오산 쪽으로 가는 버스는 안 들어오고요?

응. 국도 다니는 버스 타는 거지. 우리가. 그래고 아침엔 탈 수가 없었지. 아 시간이 그렇게 안 맞었을 거여.

어르신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아이 중학교는 많이 갔어요. 80~90% 갔어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거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요?

으.... 20~30%로 빠져나갔을 거여. 고등학교 갈 때.

그러면 아까 왜 11명 중에서, 친구들 11명 중에서 중학교는 뭐 거의 다 갔고요.

응. 중학교는 거의 다 갔고.

고등학교는...?

인저 몰르겄어. 거기서부터는. 고등학교 한 서너 명은 안 갔어. 여자들은 안 갔고. 많이.

여자들은 하나도 안 갔어요?

한 명만 갔나? 거의 안 갔고 여자들은. 남자두 뭐, 그래두 남자도 두어 명 안 갔지 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 서너 명 그냥 빠지고 나머지는...?

가정이 어려워서 안 보낸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우니까. 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저기 그때는 공장 가서 돈 벌어 오라구 그럴 때니까. 여자는 그냥 공장 갔었구.

그러면 여기서 인제 여자들 공장 가면, 서울 쪽으로 갔나요?

구로 쪽으루.

구로동 쪽으로요?

그렇지. 옛날엔 다 구로지. 서울이지 뭐 다. 무슨 구로가 뭔지도 모르구 다 서울 간다구 그랬지. 옛날엔 다. 동네 형들도 그냥 돈 벌러 서울로 올라간다구 그럴 때여.

어르신보다 조금 선배면 아무래도 진학률 같은 게 좀 떨어졌죠? 상급학교 진학률이?

아유 그 형들은 중학교 나온 사람들두 드물지. 우리 한 서너 살 위들은 중학교두 안 나왔어. 의무교육이 되면서. 의무 교육이 뭐여, 우리가 의무적으로 진위 가라구 그래면서 높어진 거여. 그게. 어떻게 보면 진학률이. 고 앞전에 형들은 중학교두 안 나왔어.

어르신의 2년 선배부터는 중학교 진학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그 위로...

그 위로 가면 중학교도 어려웠던 거네요?

응. 반도 안 갔을 거여. 어쩌다 한두 명 갔지.

아 절반도 안 갔어요?

그려. 다 서울루 돈 벌러 갔어. 시내로 돈 벌러 갔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명절만 오면 그냥 폼 잡구 오구 그랬지. 그 형들이.

형제분이 몇 남 몇 녀세요?

7남매. 우리.

많으시네요.

응. 그때는 다 집집이 7남매, 8남매여.

몇 남 몇 녀세요?

6남 1녀.

몇 째세요?

다섯째, 제가 다섯 째. 하하하.

장남은 아니시네요. 다섯째면 위에...?

문열이, 문열이만 남은 거여 그때. 나 농사지을 때는 문열이만 남은 거여.

문열이라면...?

응. 문열이. 가족 중에 제일 시원찮은 놈만 남은 거고 똑똑한 놈은 다 간 거여. 그때는 다 시내루. 그렇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은 나 연암축산전문대학 나왔어요.

연안축산전문대 나오셔가지고 축산 하시게 된 거예요?

응. 응.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축산하신 거네요?

그려. 계속핸 거여. 저기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졸업 맞고. 2년짜리니까... 82년도에 내가 제대해서 1년 다니고, 83년 말부터 소를 키운 거여... 그때부터 소 길른 거여. 계속. 평생을 소 길른 거여. 하하하.

요새 축산은 일종의 자영업 같은 건데... 그래도 웬만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아... 그건 선생님이 현재의 나를 보는 거지. 20년을 개고생 했죠. 생활도 안 되고. 갑자기 어서 소를 뭐 막 사오는 게 아니잖아. 한 마리, 두 마리 늘려서 해는 거라. 한 20년은 진짜 비참한 생활을 했지. 매년 돈, 형제들한테 돈 꾸러 다니구, 조합에 돈 꾸러 다니고 해서. 근데 인저 지금의... 코로나 전까지만 해두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래서 우리 애, 애두 그 뉴질랜드로 한 10년 보냈어. 그 공부해러.

자녀분이 한 명?

응. 나는 달린 거 하나니까, 너 공부해구 싶은 데루 내가 다 밀어준다 그랬지. 우리 7남매 큰 생각해면, 아 애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지. 부모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더라 이거여.

옛날 분들 다 그랬었죠.

그 여기서 서탄 입구 거기까지 품을 팔러 가는 거여. 인저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부모가 나이 먹으니까 내 농사두 못해. 인저 자기 농사두 못하구 그냥 남의 품을 팔러 가는 거여. 내 논 주구. 남 도지를 주구 품을 팔려고 가더라 이거여. 우리 인저, 우리가 인저 성장 한참 했 때는.

왜 내 농사를 안 짓죠?

힘이 없으니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우리 또래 된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여. 이 농사하구 밭농사가 한 1만 평 정도 있는데 그걸 못 해는 것 같더라고.

논밭 합쳐서 1만 평 정도 됐어요?

응. 그걸 못해요.

그럼 부자셨네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는 부랄 두 쪽에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이 똑똑해. 우리 아버지래두.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동생, 우리 엄마 여기 시동생, 삼촌 넷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좀 남보다 앞섰나 봐.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지만. 그래갖고 남 안 해는 거를, 발동기를 사서 물을 퍼주구, 또 그 남이 못 쓰는 땅을 사. 그래갖고 냇가에서 물을 그 호스로 해서 끌어다가 논을 만들어. 그때는 쌀이 최곤데.

그 발동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래 나는 그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커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핸 거야. 그 발동기를 다 뜯어서 보링도 해구 다 하더라 이거여. 내 본 기억으로는. 그니까 그냥 일자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그런 거를 어서 배워 갖고 그걸 다 핸 거지. 그니까 딴 사람들은 발동기를 줘두 운영을 못해. 쉽게 얘기해서.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조자 한자 영자야. 한자 영자. 그니까 그 사람이 우리 엄마두 인자 약으니까 “저걸 사서 모을 심자.” 그랬대는 거여.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유 왜 힘들게 밭을 사냐? 논을 사지.” 그랬더니, 그걸 쭉 그 3천 평이라는 밭을 샀는데, 쫙쫙 해서 사갖구. 논을 (물을) 퍼서 계속 해니까. 쌀값이 그때는 최고니까. 한 해 농사지으면 또 한 구간을 또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애들하구 먹구 살면(서). 쌀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인저 한 만 평 좀 넘게 인제 소유하게 돼서...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인제 발동기로 물 퍼줘서 돈 벌고, 또 내 논에 물 대고. 그렇게 해서 인제 농사지어서 나오면 또 땅 사고. 그래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논밭 합쳐갖고 만 평...?

만 평이 넘게 가지고 있었지.

논이 몇 평이었어요?

몰라요. 아무튼 1만 5천 평은 됐을 거여. 그 갖고 있었던 게... 그거를 또 거기서, 노인네가 약어갖고 탈곡기를 또 샀어. 탈곡기를. 옛날에 이거를 둥글랭이 통을 두고 막 털 때, 이 양반은 탈곡기를 산 거여. 그 방아에다가 붙여갖고. 그래갖고 동생들 있으니까 다니면서 또 그거를 그냥 털구 삯을 받는 거여. 그래 일찍 죽었어. 그래서 저기 돌아가셨어. 폐렴 걸려서. 폐암 걸려서. 내가 어렸을 때 ‘그거 안 좋다.’ 그랬어. ‘아버지 저거 안 좋다.’구. 그때 그냥 뭐 있어. 수건이루 눈만 내놓구. 수건이루 이렇게 눈만 내놓구. 그 북데기...

그때 마스크 같은 것도 잘 안 쓸 때...?

마스크가 없었죠. 어디 있어. 돈 다 벌어놓고 폐암 걸려서. 동생들 뭐 한 3천평씩 막 띠어줬지.

아버님이 장남이셨나 봐요?

응. 그래 갖고 동생들을 세간 낼 때 집 사주구 3천평씩 떼어줬어요. 2천 평, 3천 평. 그런 형

이 어딨어.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응. 그래 우리 아버지는 너들하구 내가 같이 고생해면서 내가 장만했으니, 너들 먹고 살아. 그 때 사람들, 우리 삼촌들 동네에서 세간 날 때, 그 너 마지기, 엿 마지기 갖구 나가기두 힘들 때야. 그러니까 뭐 한 뭐 500평, 1천평, 요 정도 갖고 분가 날 땐데, 우리 아버지는 3천평씩, 2천평씩 막 떼어줬어. 그 동생들을. 그 동네 그 또래가 다 부러워 핸 거래는 거 아녀. 저런 형만 있으면 내가 업구 다닌다구. 하하하. 근데 인저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아버님이 욕심이 없는 거지. 사람이 바르게 산 거지. 동생들한테 딱딱 띠어 주구.

안줘서 욕하죠.

어렸을 때 논 농사 지을 때, 그 두레 같은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 꽹가리치구 매냥 놀았지. 여기서. 뭐 틈만 나면 동네에서. 나는 어려서 모르겠구.

금암1리요?

그렇죠. 거기두 그렇게 했지. 추석 때면 해구. 뭔 행사하면.

논 매기 할 때는요?

논매기엔 품앗이루 핸 것 같앴어.

논매기 할 때 두레 치고 나가고 이런 걸 못 보셨어요?

그런 건 없고, 술 먹으면 노래들 해구 그랬어. 모심을 때. 그니까 그게 허리 아프구 힘들으니까 술 먹구, 노래 해구 그런 거 같애. 그 모심을 때 보면 재밌지. 막...

논매기 할 때요. 논매기 할 때 이렇게 두레 치고 나가고...?

그런 건 못 보겠고, 고때가 품앗이 해다가, 아... 품앗이 해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나 인제 군대 갔다 오니까 그게 인제 안 맞는 거여. 수지가. 논농사가. 그니까 인저 하우스를 저짝, 대동촌, 저짝서부터 해더라구.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우스가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이 골안, 이 서탄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핸 거야. 서탄면 사람들이.

아 이쪽, 이게 대정촌 시작됐으니까...

응. 여기서 시작해서 일루.

그니까 대정촌의 서쪽에서... 이쪽에서 인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요기서 배워서 하우스를 했는데, 우리가 요기가 작은 집이 3천 평, 작은 집이 1,500평, 우리가 2천 평. 요기 같이 한 거여. 인저 배워서 우리가. 요게 그거여. 이게.

여기가요?

응. 요기가 저기죠. 저기 닭, 닭집이잖아. 닭. 응, 이거예요. 우리 이게, 이 하우스가 우리 형, 요게 우리 형네 거여. 우리 형네 거, 작은집 거, 작은집 거. 이게 5천 평이 넘지.

그때 이쪽은 하나도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80년대 초에는 없었어 여기.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우스가 들어섰어요?

그 80년 초부터 인저...

그러니까 여기 80년대 초...

해고, 80년 초부터 인저 여기서 한두 집, 두 집 해다가 나두 요기서 인제 한 거여. 그 85년인가 6년에... 80, 80... 아 83년에 했겄네. 나두 여기 같이 했네.

그럼 여기도 80년대 초에 한 거네요?

응. 응.

그러면 여기(대정촌) 비슷하게...

그 전에 핸 거 여. 여기는.

여기는 한 70년년대 말?

아니, 아니야. 여기두... 그 70년대 말에 했을 거여 그럼. 좀 몇 집이 해다가 늘어난 거여. 여기두 다 핸 게 아니라 몇 집이 해서 좋다구 그래니까 막 늘어난 거여.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확산돼서 지금은 저기 마두리까지 간 거지.

여기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금암1리에?

금암1리 다 했었죠. 이 사람들 다 집집이 하우스 했었어. 한두 집 빼구.

여기다가요?

아이 여기하구, 여기하구.

대정촌 서쪽?

응.

그니까 이쪽 대정촌 요 서쪽 끝에, 여기는 금암리 사람들 땅이 많았나요?

그렇지 금암리 땅이여. 거의. 이 일대가 다 금암리 땅이었어. 이쪽에.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어서 이사 온 사람들이래. 대정촌이.

어떤 분은, 금암리의 어떤 분은 여기에 국유지를 임대받아갖고 농사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리

도 심고, 밀도 심고. 하천 부지.
그렇죠. 사유지 옆에 국유지가 많이 붙어 있었지. 그래갖구 자꾸씩 인자 불하 받어서 사구 그랬을 거여.

국유지 산 경험은 없으세요? 불하 받은 거?
우리 땅만 뺐겼지. 남들은 국유지 불하두 받았는데 우리는 가진 땅만 뺐겼지.

혹시 당제 지내는 거 보셨어요?
응. 당제는 지냈지. 어렸을 땐.

근데 두레는 못 보셨네요? 그러니까 논 맬 때 이렇게 두레 치는 거?
그건 기억이 안 나... 당제사는 해마다 지냈어. 어렸을 때.

뭐 절차나 이런 거는?
모르죠. 그러게 이게 다 기록이 없네.

여기 북바위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응. 이 위에까지 올라왔었대는 거여.

또 어떤 기록에 보면 뭐 회화리 있는 데까지 물이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옛날 사람들이 북치고 그랬대는 건데. 물 들어오면 북 쳤대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기가 조개가 많아. 껍데기가.

아 북바위에서...
응. 여까지.

진위천 합류된 데까지요?
응. 여까지.

그니까 모래에 조개 껍데기가 있다는 거죠? 강바닥이나?
그렇죠. 그 조개 껍데기가 많았었어.

살아있는 조개는 없었어요?
그때두 저기 뭐 그 뭐냐, 고기들 많이 잡었지. 조개는 모르... 그니까 이게 (아산 방조제) 막기 전에는 소통이 됐던 거여. 이게. 저기들이, 고기들이.

그럼 인제 보통 마을에서는 이 북바위 있는 데까지는 물이 들어왔다는 걸로... 배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어보셨겠네요?

그래. 어른들 말로는 배 들어왔대는 말두 있지. 어른들 말로는.

어디까지요?

여 북바위까지 배가 들어... 그게 그런 연고로 해서 북바위라구 그랜 거 같앴는데. 물이, 어렸을 때는 인저 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 해안가 이 태안에 가면 해안가 모래 모양 조개가 많았어요. 껍데기가.

아 자잘한 조개 껍데기...

아니요. 커요. 그래도 큰 것들은... 우리가 요런 걸 뭘 봐, 이만한 것도 보구 막 봤지.

한 크기가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만한 것들이요?

응. 그런 것들두 많았었죠.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거 보면 물이 들어온 거여. 그래구 이거 인자 또 모래를 팠잖아. 우리 어렸을 때 지나고 나서 계속 모래를 팠어. 바닥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진 거여 인자.

업체들이 파간 거예요?

그렇죠. 저 모래 정리핸다고, 하천 부지 정리핸다구 모래를 파서, 그거 인저 저 시청 직원들 끼갖구 파는 거지. 허가 내줘서. 그러면 그때 당시 시청 직원들 돈 많이 먹었을 거여.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알지. 나는 알지. 그 내가 고발한대니까 나한테 무릎 꿇구 빌지. 살려달라구.

그 당시에요?

“너들 인허가 핼 때 이거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허가 내준 거여 뭐여.” 그래니까 내가 고발해 놓으니까...

아 사유지까지 막 퍼 갔어요?

응. 나는 보상을 안 받은 상태니까. 내가 또 파지 말라 그랬어. 대놓구. 이건 개인 사유지니까.

그때가 한 70년대 말 80년대?

아녀. 저기 83년돈가 그랬어. 나 제대해구 바로 그 해 여길 또 파 먹는데, 인제 내 걸 팔 것 같애. 우리 땅을. 그래서 “파지 말라. 이거 개인 사유지니까.” 근데두 모래를 다 팔아먹더라구. 그 이 새끼들이 또 시청 과장, 계장 데리구 와서 나를 윽박질러. 방해했다구.

일 방해했다고?

응.

업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해병대 나왔었걸랑. 그 제대해구 한참 혈기 왕성했으니까, '개새끼들 죽인다.' 그랬더니 또 경찰을 데리고 왔어. 형사과장이래. 야 나 세상 웃기는 세상이지. 그래 내가, 형사과장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나를 뭐? 현장 뭐로 체포해 간대나 뭐. 그냥 겁을 주는 건지 뭔지 저, 웃기는 세상이었어. 그때는.

새마을 사업하는 거 보셨어요? 마을에?

그거를 인제 우리가 포장한 거여. 동네. 그거 인저 제대해고 품을 팔은 거지. 우리가. 업자한테.

그러면 옛날처럼 마을 사람들이 부역 나와서 포장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때는 인제 상업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갖고 인저 공구리를 치는 거지. 치는데, 인저 동네 애들, 그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당 얼마씩 주구 그걸 시킨 거여.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몇날며칠 삽으로 비벼서 공구리 핸 거여. 그거 다.

그러면 뭐 모래 퍼 오고 이런 것도 다?

아이 모래는 인제 걔들이, 업자가.

업자가 트럭으로?

아니 트럭 말고 그거 뭐야 딸딸딸딸...

경운기.

아녀. 경운기에 차 같은... 경운기 대가리에다 차 모냥 만들은 거 있어. 그걸루. 그 차는 못 들어와요. 이 동네 길이 질퍽질퍽 핸데 그 빠지지. 공구리 치기 전에 또 막 해니까. 그게 오면은 모래하구 자갈 놓으면 우리가 비벼서, 세멘트 넣구 비벼서 망, 철근망 요거보다 굵은가? 요런 거 이렇게 깔구.

빨대보다 조금 굵은 거요?

응. 고런 거 깔구 친 거여.

이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요?

응. 하하하.

그러면 군대를 82년에 제대했으니까, 한 83년?

84년, 4년 정도 됐을 거여. 그때 그걸 친 거여. 야 지금 해래면 핼 놈 없어. 그거 누가 해. 그냥 오뉴월에 그냥 땡볕에. 아우 하루 종일 그냥 삽질. 개놈의 새끼들 일당두 안 줘. 깎어먹구.

그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냥 길만 넓혀놓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뭐. 옛날에 그냥 다닌 거지. 그 새마을 운동이야 울타리 부시고 쪼끔씩 확장핸 거지.

근데 1리 쪽은 길이 좀 좁더라고요. 골목길이.
그렇죠.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건 넓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아 회관까지는 원래 나 있을 때 큰 길이었고, 양 옆에 길은 쪼끄만 길이었어. 그거 확장핸 거여.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새마을 사업이루 확장핸 거여. 우마차길 다니게.

근데 이것도 새마을 사업할 때 이게 꾸불꾸불했었다고 그러던데요? 이 길이.
응.

그래서 새마을 사업할 때 이렇게 일자로 쫙...
응. 일자로 뽑어 놓은 거여.

그러면 여기 길(진입로)하고 여기 길(마을 안길) 확장한 거예요?
그니까 인저, 이거는 우리 군대 가기 전에 벌써 이게 펴져서 인저 동네 사람들이 해놓은 거고, 요런 샛길들 우리가 다 핸 거지. 빼빼 둘러. 요까지만(마을회관까지 진입로) 있었지.

여기까지만 포장 돼 있었어요?
응. 그리구 여기 인제 내는 과정에 우리 땅이 요기가 한 400평인가 200평이 있었는데 희사해 갖고 길 넓혀, 그니까 우리 집뿐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두 쪼끔씩 걸린 건 다 희사했어. 이때는.

그러면 맨 처음에 인제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마을회관까지 포장이 된 거예요?
응. 요렇게.

아 여기(마을 입구)서부터 이렇게(현재 길)요. 이 길이 인제 처음에 초창기에 포장이 되고?
아이 포장이라기보다는 이 길이 인저, 신작로길이 크게 된 거지.

그리고 그때 어르신이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새마을운동 때는 어디까지...?
응.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인제 요게 포장이 됐더라고.

여기(마을회관)까지요?
응. 요까지 포장이 됐어. 나 군대 갔다 오니까 포장이 됐어. 그래구 인저 군대 갔다 와서는 이런 거...

다른 거 다.
이런, 빼둘러는 우리가 했다 이거여. 그때... 우리가.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도 이건(마을 진입로) 포장 안 되고, 군 복무 중에 여기가 포장이 된 거네

요?
그런 것 같애. 고 무렵에 새로 싹 돼 있더라구.

마을회관까지는 군 복무 중에?
응. 그럴 거야. 아마. 그때두 신작로 길이래두 아주 공구리 같이 반질반질했었지. 그땐 사람이 많이 다녔으니까.

여기는 옛날에 연못이 있었다면서요?
연못이 아니라 미나리꽝이라고, 그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아니에요?
그래. 공동, 그런데 어디 연못이 있어요?

이쪽에요. 지금 여기 운동기구 있는 데.
아 거기! 연못 없었어. 내 있을 때는 그냥 저 놀이터였었지. 놀이터구 요게 미나리꽝이었지. 여기 여기.

그럼 썰매도 여기서 많이 탔겠네요?
아이 썰매는 여기서 탔지. 여기 다 탔지. 여기... 여기가 인저 깊어. 그래갖구 여기서 타구, 여기서두 타구.

여기 논이죠?
응. 논, 이런 데서 타구, 요 냇갈로 와서 타구 그랬지.

이 마을에서 이렇게 특별히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가 있나요?
그렇지 뭐. 요기.
썰매.

여기 회관이죠?
예. 여기가 회관. 요 위에 가면, 요 산소 큰 게 있어. 여기 꼭대기 가서 매냥 저기 이렇게 바쿠 달려갖구 이렇게 타는 거. 구루마라고 그러나? 그거 타고 놀었지.

상자 옆에다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응. 아이고 무서운 거여. 지금 보니까. 그냥 언덕에서 막 밑에까지 타구, 막 쑤셔박구.

뭐 다른 데는 추억이 어린 곳이 없습니까?
응. 그렇지 뭐. 그거밲이 없었지.

한방자(여, 1941년생) 금암1리 골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6월 24일	
장 소	금암1리 경로당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할머니는 여기 이쪽으로 시집 오신 거죠?

예. 나 수원 인계동에서 여기로 시집 왔어.

수원 인계동에서요?

예.

몇 살에 오셨어요?

22살에. 22살에 시집 와서 첫 딸 낳은 게, 우리 큰딸이 지금 환갑진갑 다 지났어.

그러면 63세 정도 됐겠네요?

몰러요. 몇 살인지. 호랭이인데, 호랭이 띤데.

호랑이 띠요. 호랭이 띠면 62세.

육십 둘이나 셋, 그렇게 됐어. 그 둘째 딸은 올해 환갑인데 용띠. 그리고 인제 셋째는 큰아들.

여기 오실 때는 선 봐서 오신 거죠?

그럼요. 옛날에야, 60년 전에 선 봤지. 우리 큰어머니하고 우리 시이모하고 한 동네 살았어. 수원서. 매교다리, 매교동에서.

매교동이요?

매교동인지 세류동인지 고 새엔데 모르겠어. 거가 매교동인지 세류동인지. 거기서 우리 큰어머니가 지내구, 우리 시이모는 또 한 동네니까 인제 우리 할아버지 지내구. 그래서 온 거지요... 우리 큰어머니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모하구 한 동네에서 사니까 인제 우리, 우리 큰어머니가 ‘우리 조카 딸이 있다.’ 하구 우리 저기는 ‘우리 언니 아들이 있다.’ 해가지구 이 두 노인네들이 중매 서가지고 온 거지. 일루

할아버지는 지금 계신가요? 돌아가시고요?
응.

할아버지는 안 봬서 모르는데...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인물 한 인물 되셨겠는데요.
남자같이 생겼다고 그랬지 뭘... 하하하.

할아버지는 큰아드님이었어요?
막내 아들.

몇 남매 중에?
4남매. 5남맨가?

할아버지는 처음에 어디서 만났어요? 맞선 보신 거죠?
그렇지요. 우리 큰어머니하구 우리 시이모하구 지인 해가지구.

맞선은 수원에서 보셨겠네요?
예. 우리 집에서. 인계동에서.

처음에 맞선 보시고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몰러요. 잊어버렸어. 60년이 넘어서 얼마 만에 했는지 몰러요.

거기 수원 사시다가 여기 오셨으면 아무래도 여기는 시골이어서... 거기서도 농사 지으셨어요? 부모님께서?
예. 옛날에 인계동에, 저기 시골이에유.

할머니는 몇째로 태어나셨어요?
나 태어나기는 뭐 몇 번째로, 세 번, 네 번째로 태어났대는데, 옛날에는 홍역해다가 많이 죽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 위로 셋인가 넷이 죽었대요. 홍역해다가 다. 그래가지구 인저 나두 홍역해면 죽을 줄 알고 출생 신고를 안 했대요. 안 했더니 홍역을 해구 동네로 마실을 댕기더래요. 3살인데. 그래서 출생 신고를 했대요 인저. 안 죽을 것 같애서. 그래서 나이가 한 살두 아니구 두 살은 줄었나 봐요. 노인네들이 그렇게 해놨어.

몇 년생이세요?
출생 신고 핸 건 41년생이루 있는데...

원래는 한 40년생...?
몰르겄어요. 이 노인네들이 살었으면 자세해게 아는데, 그냥 위로다 자꾸 죽으니까 나두 죽을 줄 알구 출생 신고를 안 했더니 동네로 홍역해구 돌어댕겨서 그냥. 동네로 돌아대니면 세 살, 4

살은 됐겄지요. 그때 출생 신고를 했나 봐.

그러면 한 38년생 정도 되시겠네요.
그건 자세히 몰러요 인저.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었어야 알지. 그 노인네들 살었으면 100살두 넘어서 몰러.

근데 인제 생년은 그렇게 하지만 나이는 원 나이대로 부르잖아요?
원 나이대루 안 해구 그냥 출생 신고한 대로 해유 그냥.

지금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인제 83세인데, 실제로는 한 85세 내지 6세 정도 되시겠네요?
그냥 팔십 넷이루 따지구 있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막내시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세간 나셨나요? 아니면?
아니지유.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하구 살더라구.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지는 돌아간 지가 3년인가 4년 됐다 그래구.

원래 이 금암리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살...
예. 그 집에루 시집 온 게 그저 그 집이에유.

여기(마을회관) 바로 앞에 집이요?
예.

그러면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시어머니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세 분이 사신 거예요?
예. 셋이 살었지. 우리 시아버지는 돌아간 지가 3년 됐다구 그래더라구. 나 시집오니까. 그래니까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하구 살은 거유.

집 규모도 지금 그만 하고?
아 옛날에 아유. 그 내가 와서 진 거지유. 옛날에...

초가집...?
3칸. 부엌 하나 있구, 아래웃방 2개 있구. 초가집. 마루도 요만한 거 가운데 하나 있구. 옛날에는 대부분 다 그랬잖아유.

옛날에 초가집 하나 이렇게 있고 그냥. 방 2개 있고...
부엌 하나 해서 방 2개 그냥 불 때면 다 가는 거구.

그러면 시집 오셔가지고 인제 처음부터 일하시고 그랬겠네요?
아유 그럼유. 아유 나 고생했는 거 말도 못해유.

시집오실 때 혼수는 뭐 뭐 해오셨어요?
장롱하고 이불이지 뭐.

할머니 입을 옷 해오시고?
그거 내 옷 해오는 거지 뭐. 옛날에 어려운데 뭐 시부모들 뭐 그런 거 해올 새 있어요! 나 해오기두 바쁜데.

그래도 약혼은 하셨어요? 그때?
했어유.

아 약혼식 하셨어요? 그럼 약혼식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수원서 했지유. 인계동에서.

약혼식 때 이렇게 가족, 가족들 하고...?
아유 옛날엔 가족두 없어요. 그냥 약혼식이라구 그냥 해는 거지 뭐.

사진 찍고요?
예.

약혼식 때는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시계 반지 교환하시고 그랬나요?
예. 시계 하나 해줬어유. 시골서 뭐 쌀 두 가마 팔어서 시계 하나 했다구 그러더라구.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요?
예.

할머니는 또...
나는 아무것두 안 했어.

결혼식은 그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수원서 했지유. 옛날 구식.

할머니 댁에서?
예. 우리 집에서.

그럼 오실 때는 어떻게 왔어요?

여기 트럭 타고 왔어유. 뒤에다 장롱 싣구, 이불 싣구.

그 트럭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세...?

아니 트럭 운전수가 있지요. 또 운전수가... 옛날에두 잘핸 사람은 잘했겄쥬. 우리네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쥬.

옛날에는 대부분 다 어려웠죠. 그래갖고 인제 오셔서 아기는 1년 만에 낳으시고요?

예.

그때는 아기도 집에서 낳죠?

예.

이제 그러면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셨나요?

그렇쥬.

그때는 아이 낳으면 또 이렇게 잘 되라고 뭐 이렇게 상 해서... 하시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것두 없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러면 농사는 얼마나 지으셨어요?

아 어려웠어유. 농사 열 마지기도 안 돼요. 한 일곱 마지기 되나.

논 일곱 마지기 정도...

먹을 양식 갠신히 해구. 저 냇갈 가상이 그 국유지 밭들 해가지구 버리(보리) 심구, 밀 심으면 그때는 왜 이렇게 장마가 졌는지 그냥. 그거 빌라구 그래면 그냥 장마져가지구 개울물이 그냥 싹 씰어 덮어가지구 그것두 못 먹구...

저 진위천 냇갈 있는 데요?

응. 여기 대동촌(대정촌) 앞으루 이렇게 개울 있는 거.

그 하천 부지에다가 이렇게 했나봐요?

응. 그전 하천부지, 국유지라구 그 냇갈 가상에 땅을 일궈서 거기다 버리 심구, 밀 신구, 밭벼두 심구. 그런데 그냥 여름 장마에 그냥 흙탕물이 싹 씰어 덮으면 그 해는 살기가 어렵지요.

아 보리하고 밀을 거기다 많이 심었나 봐요?

예. 밭벼두 심구.

아니 그러면 거기 인제 국유진데...

세금 내야지요.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지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군청에다가?

몰러유. 할아버지가 냈으니깐 난 엇다 냈는지 몰러유.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개간하는 사람이 거기다 농사짓는 건가요?

그렇쥬. 냇갈 바닥이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물이 싹 쓸어가면 밭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인제 내가 여기 밭 만들었던 덴데 싹 쓸어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밭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아니지요.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 거지... 사용료를 내니까. 안 내면 다른 사람이 해먹어두 말 못해지요. 근데 우리는 사용료를 내니까 싹 씰어 덮어두 내가 해먹던 건 도로 찾어야지.

농사짓던 데가 어디였어요? 지금 대정촌 있는데 그쪽인가요?

거기가... 앞에, 이 구장터하구 여기 냇갈하구 이렇게 합치는 데, 고 위에요.

그럼 대정촌 쪽이네요?

응. 대동촌 쪽이지요.

아 그쪽 밭에. 그쪽으로만, 그쪽에 밭이 있고 이쪽은 다 논이었죠? 이 금암리 쪽으로는?

예. 논이지요.

여기는 논 했고, 제 방 다 쌓여 있고?

여기요. 제방 쌓은지, 나 와서 쌓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 오래돼서. 수리조합 물 내려오구 그래면서...

그래도 그 논 7마지기가 논이었으면 세 식구 사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유 옛날엔 뭐 비료두 면에서 외상, 뭐 뭐두 뭐 외상 그런 거 해면 가을이면 외상 해놓은 거 공출, 벼로다 몇 가마씩 해서 그런 거 갚구 나면 뭐 어렵지요. 뭐 옛날엔 아유 옛날 얘기하지 말어요! 옛날 나 어렵게 살었어. 힘들게 살었어 아주.

그만큼 보람 있잖아요?

아유 힘들게 살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대부분...

그렇죠.

부모 재산 좀 많이 받은 사람이나 좀 괜찮았자.

동네에서 한두 명 빼놓고 나머지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유. 그래유. 여기 앞에 큰 대동 우물이 있는데 아침에 그 우물에 가면 ‘누구네는 끄니를 못 끓였다.’ 고런 소식 듣구 그랬어요. 그때는.

아 우물에서...

요기 앞에 그 차 세우고 그래는 데. 노깡 세 아름 되는 큰 노깡, 이 동네 사람 그 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물에 가면은 들 모여가지구 뭐 누구네는 뭐 아침을 못 끓였느니, 끓였느니... 그래.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이 동네가 옛날에 부자 동네였나요?

몰르죠. 나는 몰르지.

그러니까 할머니 시집오셨을 때 그 동네 사람 사는 건 어땠어요? 부잣집 몇 집...

아이 몰러유.

그 당시 기와 지은 몇 집 정도 있었어요?

몰러요. 기와집 한 집인지 두 집인지. 뭐 6.25 때 뭐 잘 사는 집은 다 불탔다고들 그래더라고.

우물이 깊이가,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했나요?

예. 두레박.

할머니네는 그 우물이 가까이 있어갖고 좋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고기루 오니까. 가깝지.

그래도 이렇게 물은 놔야죠?

그럼요. 아침 먹으면 물 길어다 항아리에다 하나 채워놔야 되구. 또 옛날엔 나무, 농사 지으니까 짚 빼다가 군불 때구. 아유 옛날에 아유 사는 거, 또 그냥 짚 때서 재가 많어서 또 땔 때마다 재 긁어서 가지구 나가면은 겨울에 바람 불면 재가 안으로 다 또 날러오구. 아유 옛날 얘기하면 머리 아퍼유. 머리 아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제 지금 생각하면 아득하잖아요. 사는게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달르지유. 아유 달르지. 뭐 그 노인네들이 ‘인제는, 앞으로는 아랫묵에서 밥 먹구, 웃묵에서 똥 싼다.’구 그랬어요. 나 시집 오니까 마당에 멍석펴구 여름이면 노인네들이 앉어서 그래더니 그때가 지금 온 것 같애. 내 생각에.

아 옛날, 인제 앞으로는 아랫목에서 밥 먹고 웃묵에서 똥 싼다...

노인네들이 마당에 여름에 앉어서 담배 피면서 그래더라구. ‘앞으로는 아랫묵에서 밥 먹구 웃묵에서 똥 싼다.’구 그래더니,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지금 내가 그때 들은 소리하구 하면 맞

는 것 같애.

그렇죠.
안에서 먹구 안에서 싸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쪽에, 그 대정촌 앞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마을에?
몰러유.

하천부지에다가?
몇 집 됐나 봐요.

할머니는 그래도 인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재산도 좀 많이 장만하신 거 같은데...?
아유 뭐 재산을 장만해요. 논 두 마지기 사구, 두 마지기 사면 그 해는 제대로 먹두 못해구 입두 못 해요. 눈 두 마지기. 없으니까 원래가. 그렇게 허구 또 인저 고기서 농사지어서, 몇 년 농사지어서 또 한 서 마지기 사구 이렇게 해서 쪼끔쪼끔 늘린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몇 마지기까지 늘렸어요?
마지막에는 열서 마지기.

열세 마지기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마지기 사구, 서 마지기 사구, 한 마지기도 사구 이렇게 해가지구. 경지 정리 되는 바람에 저기 이 앞들에 그거를 합쳐서 열 마지기루 해 주더라구. 여기 조기 조금씩 산 거를 경지 정리가 되니까는 합배미를 쳐주더라구.

옛날에 한 마지기에 몇 평 정도 됐어요?
150평 친 거 같애요. 나 자세핸 건 몰러요.

그러면 그때, 그때 인제 논 처음 사실 때가 결혼하시고 몇 년 지나서 사셨어요?
몰러요.

한 10년 정도 돼서 사셨나요?
눈 두 마지기 사는 거 몰르겠네. 몇 년...

그때 논 사면 쌀로 주고 사잖아요?
예.

한 마지기에 쌀 몇 가마 정도나 했어요?

그때는 홉. 몇 홉, 그렇게 따졌어요.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몰러요. 쌀로다가 그냥 뭐 몇 홉, 몇 홉 이렇게 해기 땜에 가격은 몰르죠.

아 평당 몇 홉 이렇게요?
응.

그러면 한 평에 쌀 한 되도 안 됐네요?
몰러요. 나두. 나도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그런 거 잘 몰러유.

아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나 고생 많이 했어유.

시집 오셨을 때... 인제 추수하면 겨울에 인제 밥 먹잖아요. 근데 인제 또 밥 먹기 어려운 집들은 죽 끓여 먹잖아요?
그렇지유. 그것두 못 끓이는 집두 있구.

죽은 무슨 죽 끓였어요?
우리는 죽, 나는 죽 많이 안 끓여 먹었어유. 뭐 세 식구 사니까 그냥. 죽은 많이 안 끓여 먹은 거 같애유.

다른 사람들은 주로 뭐, 호박죽 끓여 먹나요?
뭐 시집 와가지구 내가 뭐 그 동네 요리를 알어요? 몰르지. 몰르지요.

가을에 김장하면 겨우내 인제 김장김치 반찬 하는 거죠?
예. 그렇지요.

그럼 인제, 그러면 배추김치하고 짠지 담나요?
짠지는 인저 그 이듬 여름에 먹을 거구 뭐 총각김치, 뭐 뭐 그냥 시레기 김치 그냥 그런 거지 뭐.

배추김치, 짠지, 총각김치...
동치미 그런 거지... 밭에다 고구마, 감자 심어서 그런 거 쪄서 점심에는 동치미하구 그런 거 먹구. 아유 옛날에 살은 거는... 아유 골치 아퍼유.

그래도 봄 되면 인제 나물도 나잖아요? 여기 나물은 뭐 뭐 났어요? 쑥하고...?
망추대...

쑥, 망초대... 질경이도 먹었나요?
　먹지요.

질경이도 먹고...
　질경이두 먹구 뭐.

산나물은 좀 드물었겠어요?
　여긴, 나는 산나물 요리 몰러요.

여기는 취나물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고사리도 여기는 좀 귀했겠어요?
　고사리두 난 여기 와서 못 봤어요. 수원서두 못 보구.

그럼 고사리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먹었지요. 그거 고사리 옛날에 귀했잖어.

아 옛날 고사리도 또 귀한...?
　그럼요. 귀허니까 제삿상에 올렸겠지요.

장은 어디로 다니셨어요?
　오산장. 아유 쌀 두 말 이구 저 사리 앞으로다가 해서 오산장에 걸어가고. 아유.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나 걸린지 알어요? 이 노인네들하구 저 사리 앞으루 쌀 두 말씩 이구 가서, 가다가 힘들으면 또 쉬었다 가구. 그래서 쌀 두 말 사서 산대야 성냥, 옛날에 불때니까 성냥, 실 맨날 그 양말 기워 신구. 그리구 인저 오다가 그 오산장에 저 흠집 있는 사과 이렇게 무데기 놓구 싸게 파는 거 있으면 그 자루에다가 그거 사서 가져와서 애들 멕이구 그냥. 그렇게 살었어유.

그러면 인제 쌀 두말 정도 가져가면 당분간 쓸...?
　응. 성냥, 실...

예. 바늘.
　바늘두 사구 뭐. 하여간 필요핸 거 많이 샀지유.

반찬 종류는 안 사왔어요? 생선 같은 거요?
　우쩌다가 한 번씩 사오지유.

그럼 생선은 주로 무슨 생선 사왔어요?
　동태지유 뭐. 흔핸 게 동태.

동태하고 고등어도 좀?
잊어버려서 잘 생각 안 나네요. 60년, 70년이 되는데 뭘 알겠어요. 아이 정신두 없구.

이 동네 행상들은 안 왔어요?
오지유.

그럼 행상들은 주로 어디서 왔어요? 송탄 쪽에서 왔나요?
어서 오는지는 몰르지요. 여자들두, 이고 댕기는 여자들 뭐 실, 성냥 뭐 이런 거 미구 댕기는 여자들두 있구. 또 지게에다 지구 소리 질르구 돌아댕기는 사람구 있구 그렇쥬 뭐.

지게에다 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은 인제 남...?
동태 장사. 남자.

남자. 동태.
동태, 생선 같은 거. 여자는 그 광주리에다 실, 성냥 뭐 이런 거, 잡화 이구 댕기면서 팔구 그렇지유.

과일 장수...
가끔 들어오지유. 과일 장사두.

그럼 과일 장사도 여자가 와요?
여자도 올 때 있구, 남자도 올 때 있구 그렇지유.

그 김장할 때 새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새우를 감히, 새우젓이지유 뭐... 새우젓.

김장할 때는 그러면 인제 새우젓 넣고, 멸치젓은 안 썼어요?
몰러 난 안 썼어요. 다른 집은 썼는지 몰라두 난 멸치젓은 안 쓰구 새우젓만 좀. 그것두 많이는 안 넣구, 쪼끔 넣구.

새우젓하고...?
소금하고 뭐 마늘 뭐 그런 거 넣는 거지 이렇게.

새우젓은 어디서 사 왔어요? 오산장에 사 왔나요?
오산장에서두 사구. 이구 댕기는 여자두 있구. 남자두 지게에다 지구 댕기며 새우젓 사라구 그러구. 옛날엔 많이 그랬지유.

그때는 김장도 하면 배추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겨울내 먹을 거니까.

그때 세 식구였을 때 김장하면 몇 포기 정도 해요?

그거가... 몰라요. 하하하. 그리구 뭐 지금 모냥 배추가 좋아요? 그냥 배추라고 억시구 그냥 쩍쩍 벌어진 거, 이런 거 뭐.

또 포기도 조그맣죠? 옛날에는?

응. 옛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기 버스는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시집 오셨을 때 버스는...?

없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때는. 그럼 버스 타면 저기 하북까지 걸어가야 됐나요?

그렇지. 하북까지 걸어가서 오산장 갈래면 거기서 버스 타구 가구. 그래니까 여기서 하북 걸어가기가 멀잖어요. 멀으니까 그냥 사리 앞으루다가 질러서 오산장 댕기구. 여기 송탄장두 있었는데, 그건 뭐 미군들 저기라 거기두 댕기긴 했는데 몰르겄어요. 잊어버려서. 자세한 건.

여기 송탄장도 걸어가셨나요?

걸어 갔지요. 냇갈 건너서.

저 구장터 쪽으로 해가지고요?

예. 여기 앞 냇갈 건너구. 또 고 다음 냇갈 건너구, 세 개를 건너서 갔어유.

아 냇갈 세 개를 건너서?

예. 여기 앞냇갈 뒤에 조그만 또 봇도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유. 그래서 그거. 겨울게는 그노무 데 건너댕길래면 그냥 신발 벗구, 양말 벗구 그렇게. 하하하.

지난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도 가서 팔고...

그렇지요. 이구 가서. 비행기장 요기 가서 팔구. 농사 지으니까 그냥 오이, 호박 이런 거 심어서 좋은 건 죄다 다 팔구 만날 꼬부러지구 등신 같은 것만 먹구. 그래구 살았지 뭐.

그렇게 하면, 그게 한 용돈 정도 됐나요?

그렇지요. 용돈 정도 되지요. 애들 인저 학교 가구 그래니까 인저 애들 책값 주구.

여기서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자녀분 다섯을 교육시키려면 쉽지 않았겠어요?

힘들었지유. 그래서 그런 거 여다 팔구. 또 남의 품도 팔구. 다섯 놈들 중고등학교 댕기니까 힘들어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구 나하구 남의 일두 가구 밭에서 뭐 나는 거 있으면 갖다 팔구. 그래서 한 놈 수업료 해주구 나면 또 한 놈 있구. 아유 힘들었어. 아주 힘들었어요. 살기.

그때는. 그러면 인제 품 팔면 저기 대정촌이나 이런...?
예. 대동촌 가서. 인저 그 하우스 일도 하구.

여기 모 심을 때는 품앗이로 했죠?
품앗이 많지요. 나는 모를 안 심어봐서, 모 안 심으러 댕겼어요.

왜 모를 안 심으셨어요?
몰러요. 나는 모를 안 심어봤어.

여기 옛날에 들 일을 여자들도 했나요?
아유 그럼 여자가 다 했지. 밭벼밭 매구, 버리밭 매구 뭐. 그런 밭 매는 거는 해는데 모는 나 못 심어요.

모심는 것도 주로 남자들이 심었나 봐요?
여자두 잘 심는 사람은 여자, 남자 같이 품앗이 해구 그랬는데 난 모를 안 심어봤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구박 많이 맞었어. 모두 못 심는다구.

그러니까 못 심어서 안 심으신 거예요?
못 심으니깐요. 누가 얻어가지두 않어요. 못 심는 걸 갖다가 논에다 넣으면 뭐 해요. 모두 못 심는 걸. 그리구 그때나 이때나 나는 체격이 커서 쑥쑥 빠져가지구.

또 모 심을 때는, 할머니네 논이 아까 한 10마지기 정도 됐잖아요?
그건 한참 있다 열 마지기 되구. 요 귀탱이 두 마지기, 조 귀탱이 서 마지기, 아유.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 그 며칠이나 걸렸어요? 모 심으면?... 일꾼 사가지고 하루에 다 심나요? 아니면...?
다 심을 때두 있구.

아니 모도 못 심으시는데, 품 팔러, 이렇게 품 파하실 때는...?
밭에 품 파는 거지요. 밭에.

대정촌이요?
응. 하우스 안에서 인제 뭐 심는 거. 또 노지에서 인저 봄 되면 배추 심는 거. 그런 거는 일 댕겼지만 논일은 못했어요.

하루 가면 얼마 정도 줬어요
몰르지요. 그때 그거 얼만질 알어!

그래도 품삯 받고 이렇게 젊었을 때 품삯 받았으니까 기억은 조금 나으실 것 같긴 한데...?

아유 안 나요. 기억이. 한 3천 원 정도 된 것 같애요. 한 3천 원.

여기 자녀분들은 학교, 초등학교는 서탄으로 가잖아요?

예. 서탄 가구. 중고등학교는 진위중고등학교. 인저 고 중에서 또 좀 딴 데로 가는 애들은 또 딴 데루 가구.

지금은 인제 자녀분들 다 잘 되고, 할머니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좋으시잖아요?

건강하지 않어유. 나 건강하지 않어유. 다리가 아퍼가지구 양쪽 무릎 수술 다 했어.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양쪽 무릎 수술 다 했어. 이거.

수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3~4년 돼 이거.

이제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부드러워졌는데, 난 이거 수술해면 안 아플 줄 알았더니 그래두 있어. 좀.

한 1년은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수술해구 그 마취 깨어날 적에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질러가지구 미쳤다고 그랬어. 나보구. 마취 깨어날 제 그렇게 아프더라구. 뭐 아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6인실에다 갖다 나를 놨는데, 6인실 사람이 잠을 못 잤대. 하도 소리를 질러서.

일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건가 봐요?

글쎄 몰러요. 여째 병신인지. 근데 이게 여기가 더해서, 여기 수술할 제 뭐 맞질 않었대요. 이게 워낙 비틀려서. 그래가지구 뭐 뼈를 조금 어떻게 해가지구 맞췄대나 봐. 그래서 그렇게 아펐는지, 그냥 '아~' 소리를, 그 6인실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는데, 소리를 어떻게 질르는지 모르겠대요. 그 뼈를 좀 어떻게 해길래 그렇게 아펐겄지. 이건 덜 핸데. 이거, 이게 그러더래구.

그래서 요새는 그 무통 주사 같은 거 있어, 진통제가 좋아서...

그때두 뭐 저기 매달은 데 보니까 뭐 또 와서 간호원들이 수시루 그 줄에다 이렇게 주사 뭐 넣어놓구 가구 그러더라구. 그런데두 마취 깨날 젠 아유 너무 아퍼. 아유 너무 아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요새 다리 수술하신 분들은 많죠? 할머니 연세 되면 많이, 동네 분들 많이 하시나요?

몰러, 한 두서너 명 되나 봐. 우리 동네.

걸으시는 건 어때요? 그...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해서 똑바루 걷는다구 그러더라구.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안쫑 다리모냥 걸었대요.

그런데 수술해구는 제대로 걷는다구 사람들이 그래니까 그런 줄 알지요 뭐.

할머니가 느끼는 게 중요하죠.
아프지 않는 게, 난 아프지 않는 게 제일이여. 너무 아펐어가지구.

이게 수술하기 전에는 굉장히 아프죠? 걸으면?
아유 그냥 걸으면 이렇게 안쫑 다리 모냥 걸었대요. 이게 비틀려가지구.

지팡이는 안 짚으셨어요?
지금 지팽이 짚어야지. 지팽이. 유모차 끌거나 집행이 짚어야지 지금은 그냥은 못 댕겨요. 아유 내가 별걸 다 뵈주네. 수술한 건 다 뵈주구.

여기는 이게 보통 할머니들은 몇 분 정도 나오세요?
많이 오면 열 명은 되는데, 일곱 여덟 그저 대여섯 명 다들 안 나와요. 다 나오면 한 열 명은 될 거여.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안 나오시나 봐요?
할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 나이 먹은 할아버지, 80 넘은 할아버지 둘인가 그리구 다 여자여. 우리 동넨 못된 동넨가 봐. 다 여자들만 살어. 남자는 일찍 죽구.

할아버지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팔십 둘에. 6년 됐나, 7년 됐나.

요새 90 넘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팔십 둘에 돌아가셨으면...
꼭 알맞어요. 지금 100세 세대라는데 100세까지 살면 못 살어. 안 돼여. 나부텀두 인제 나이 먹었지만 아유 100살까지 살으니까 자식이 머리가 하얀 게 자식인지 영감인지 몰러. 병원에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그 옆 침대에 두 살 빠지는 100살이래. 그 노인 내가 밥을 먹는데 뭘 요만한 병에서 뭘 찍어서 그 도우미가 이렇게 밥을 멕이더라구. 그래서 “그 병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니까 명란젓이래요. 그래서 누가 사왔냐니까 아들이 사 왔대요. 그 도우미가 그려. 그랬는데 그 이튿날인가 운제 아들이라구 왔는데 머리가 하얀 게 영감인지 아들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2살 빠지는 100살이니까 아들두 80이 넘은 거여. 옛날엔 일찍 낳으니까.

그렇죠.
아유 그래서 100살 살면 못써.

그래도 인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죠.
글쎄, 건강해게만 오래 살면 괜찮은데 건강칠 않으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인제 요양원 가시고 그러면 참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그 뭐여, 옛날에 고려장이나 마찬가지여. 그 저기에 그 가면은. 가면은 살아서 오는 사람 몇 명 안 돼.

할머니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살지요. 혼자 사는데, 그 막내 아들네 셋째 놈이 '할머니 혼자 살아서 방이 몇 개 있으니까 나 할머니네 가서 할머니하고 산다.' 구 그래서 그 손자가, 막내 아들 막내가 23살인데 와서 있는데 아유 귀찮아 죽겠어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도 귀여우시잖아요?

좋지요. 좋지요.

든든하죠?

응. 테레비에서 보면 혼자 사는 노인네들 아유 저녁이면은, 그 폐지 줏어서 모으는 노인네한테두 그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구 그 노인네 죽이구 뭐 어째구 그런 거 보면... 아유 그래구 그 손자가 스물세 살인데 저녁에 그게 기침을 콩콩 해구 그러면 얼마나 든든핸지 몰러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든든하죠.

응.

마을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많어요. 여자들이여 다. 여자여. 몇 명이냐? 거기 하나 있구, 여기 하나 있구. 둘, 셋, 다섯, 여섯, 일곱인가? 그렇게 여덟인가 몰르겄네.

그럼 이제 자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실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막내 아들 오늘 왔다 갔어요. 아침에 왔다 갔어.

할머니 정도의 연세면 이 동네에서는 보통 한...?

나 중간치요. 지금... 90 넘은 노인네 있구, 90 가꺼운 팔십아홉인데 그런 노인네 있구, 팔십여섯, 내가 제일 어린 거예요. 80 먹은 노인네두 있긴 있는데, 팔십하나 먹은 사람두 있구.

그러면 할머니 정도의 연세신 분들은 자식을 한 네다섯 보통 낳나요?

예. 다 그렇지요.

이제 할머니 또래 연세 되셨으면 아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뭐 죽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아이 나는 하나 죽였어요. 이 기집애 하나 혼역해다가. 지금 살었으면은 쉰다섯이나 여섯 됐을

텐데. 옛날에 혼역 하다가 백일 기침이 또 와서 혼역하느라고 그냥 애가 지친 데다 백일 기침 걸리니까 아휴...

100일 기침이요? 아 100일에 이렇게 온 거요?
기침을 100일 동안 한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구 그냥 딸 하나 잃었어요. 나두. 낳긴 여섯 낳았는데 하나 잃었어... 아유...

그때도 참 홍역이 무섭긴 무서웠죠?
예. 지금은 약 좋아서 혼역 했는지 모르는데, 아유 우리...

또 옛날에는 병원에 지금처럼 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요.

웬만큼 아프면 그냥 집에서 했죠?
그래요. 지금은 그냥 애가 우쩌면 밤이래두 택시 불러 타구 가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밤에 그냥 업구 퍼대기 뒤집어 쓰구, 이 냇갈 건너서 밤에 병원 가구... 아유 옛날 그 없어지길 잘했지.

그러면 어디로 병원은 갔어요?
송탄.

여기서 송탄까지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걸어가야지. 밤에 뭘 타고 가유. 냇갈 2개, 3개 건너서 걸어가야지.

저 구장터 쪽으로. 시장 갈 때 그 길로요?
예.

송탄에 가면 병원이 좀 괜찮았나요?
괜찮은지 우쩐지 그냥 병원이래니까 가는 거지 뭐.

그 시장 있는 데요?
예. 그 정문 쪽이루 거기루 병원...

여기서 가려면 빨리 가도 30분은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1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렇게 걸릴 거예요. 애 업구 뭐 냇갈에 가면 양말 벗구, 신발 벗구 건너구. 쪼끔 또 가서 고

기구 냇갈 하나 또 있으면, 또 보도랑 같은 거, 거기두 또 건너야 되구. 또 저것도 구장터는 냇갈이 크니까 또 거 가서두 그 양발 벗구, 또 벗어서 들구. 건너가서 발시러우니까 또 신구 우째구 1시간두 더 걸릴 거야 아마.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뭐 심하게 아플...?

그렇쥬. 애가 그냥... 정말 늘어지면은 인저 가는 거지유.

그렇지 않고 이제 배 같은 거 살살 아프고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조약해주지 않나요?

그렇지요. 꿀물 타 멕이구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집에서.

두드러기 같은 거 일면 어떡해요?

옛날 노인네들 두드러기 일으면 뭐 화장실 지붕 추녀 밑에서 뭐 짚 빼다가 불 놔가지구. 그전에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해대. 그거 불 놔가지구 뭐 어떻게 했는지, 연기를 쐤는지 그랜 거 같애요.

감기 정도는 병원에 안 갈 거 아녜요?

그렇지요.

그럼 감기 하면 또 이렇게 막 기침하고 그러면 뭐 해 먹는 약 같은 거 없나요?

꿀물이나 타 멕이구 그런 거지. 약 사다 멕이구. 약방에 가서.

옛날에 부엌에 아궁은 몇 개 정도 됐어요?

아궁이 3개지요 뭐. 보통. 큰 솥, 가운데 솥, 저쪽 가생이 쪼끄만 솥. 그렇지요.

그러면 인제 큰 솥은 군불...?

물 한 솥 디워서 인저 그거 허드레 물 쓰구. 겨울에. 가운데 솥은 밥 해 먹구. 또 저쪽 가생이 쪼끄만 솥에 국 끓이구, 찌개 해구.

그렇게 하고. 인제 항아리는 물 항아리 큰 거 하나 있고?

예. 그거 하나 묻어놓구 인저 거기다 물 하나 퍼나가...

항아리는 보통 묻어놔요?

예. 겨울게 어니까. 해서 그냥 아침 먹으면 이 물에 와서 한 대여섯 번 날러서 항아리로 물 하나 채우구.

항아리 이렇게 이고요?

예. 이기도 해구, 바케스에 들기두 해구 그렇지유.

남자들도 이렇게 물 떠다 나르고?

응. 지게.

물지게로요?

응... 옛날에는요 아유 힘들었어요.

여기는 겨울에 나무 때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산이 적어서.

힘들었죠. 저 내갈 가생이 그런 데 우거진 갈다리 그런 거들 비어서, 7월에 비어서 널었다가 그런 거 갖다 때구. 짚 때구. 농사진 짚 때구.

그걸 7월에 베는 거예요?

여름에 비어야죠. 비어서 인저 바닥에, 냇갈 바닥에다 널으면 이제 말르면 묶어다가 그걸구 군불 때구. 옛날엔 그렇게 살었어요. 어렵게. 아유 옛날 얘기해지 말어요. 아유 머리 아퍼. 아유 어렵게 살어서. 아유 어렵게 살었어요.

어렵게 살아서 머리도 아프지만 지금 달라지니까 좋기도 하죠. 지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네는 못 살어요. 다리가 아퍼서 여기두 개신히 왔다 갔다 해는데, 뭐 어디 가 물을 퍼다가 붓구 이래유. 못하지.

그렇죠. 그 지게 지고 가고, 리어카 끌고 다니고 이런 거는 참 힘들죠.

그렇지요. 세시 넘으면 노인네들 오는데 왜 안 오냐! 노인네들 오면 한 대여섯 명, 많이 오면 10명까지 오는데, 몇 명이나 올래나.

여기서는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모이면?

그전에는 화토 쳤어요. 이 10원짜리. 그런데 이 코로나 여름에 코로나 걸려가지구는 안 해지. 코로나들 기침해구 그러니까 모여 앉어서 서로 입김 쐰다구 안 해구서, 그냥 여태 안 해는 거유. 안 해구 그냥 우스운 소리 해구, 얘기해구 동네 얘기해구. 그거지유. 그거.

코로나 전까지는 인제 10원짜리 했는데...

예. 코로나가 와가지구는 인제 코로나 땜에 같이 앉어서...

아직도 코로나를 좀 조심하는 편이죠?

지금두 뭐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쓰구 오더라구. 여기. 나는 천식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면 숨을 못 쉬어서 마스크를 난 잘 안 쓰는데, 아이 가끔 보면 마스크 쓰는, 쓰구 오는 사람두 있구.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스톱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그때 안 핸 게 그냥 굳었지 뭐.

그러면 결국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시잖아요?

옛날 얘기두 해구 뭐, 쓸데없는 얘기허구 그래는 거지.

그래도 여기 마을회관 있으니까 여름이면 시원하고...

아유 그럼요. 마을 회관 아니면 우리네 못 살어유. 집에서 혼자 뭐 만날 멍하니 뭐 하구 있어. 치매 걸리지. 그냥 집에서 있다가 인제 이렇게 한 두어 시 넘으면 회관에 와서 인제 그 하나 둘씩 와가지구 5시 6시까지 얘기해구들, 그러다 가구 그래는 거지.

보통 오후에만 나오세요?

예. 요즘엔 밥을 잘 안 해 먹으니까. 밥 해 먹을 때는 일찍 와야지. 점심 해 먹으니까.

한여름에도 그럼 오후에 나오세요?

그렇지요.

한여름에 더우니까 좀 일찍 오실 것 같은데, 집에 더우니까.

농사들 지으니까 그냥 식전에 가서 일해구. 그래구 인저 집에 가서 씻구, 밥들 먹고 집이서 쉬었다가 두어 시 넘으면들 오구. 보통 그렇지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구. 그래가지구 여기 청소 해는 거는 인저 노인네들이 조를 짜요. 일주일에 두 번씩, 2명씩 3명씩. 청소를 해야지 깨끗해지. 그래서 월요일날 세 명 해구 목요일날 또 세 명 해구 그냥.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여. 지금.

겨울에도 그러면 오후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찍 오면은 되는데 일찍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와 앉았기 뭣해잖아. 테레비두 재미없는 거 나오구 그래니까.

테레비도 예전만큼 못하죠?

예. 재미없어요. 재밌는 거 나오면 집에서 테레비 보구 여기 잘 안 오지. 그런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리 오는 거지.

이 동네... 전기가 언제 들어왔나요?

몰르겄네요. 언제 들어왔는지... 나 시집 와서 들어왔어요. 전기는.

막내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쥐띤데 걔가. 쉰 둘인가, 셋인가.

그 막내 아드님 내어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걔 낳고 전기가 들어왔는지 그전에 들어왔는지 그건 몰르겄네요.

처음엔 TV도 많이 귀했죠? 전기 들어오고 나서.

구했지요. 우리 동네 테레비 처음 어떤 집이 한 집 들어오면 그 집 가서 구경해구 그랬지.

그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호롱불 켰죠?
그렇죠.

석유는 어디 가서 받아 왔어요?
몰러유. 뭐 옛날에 정종, 옛날에 그 유리병 그런 것들 가지구 가서 석유 사다가 그거 붓구 불 켜구.

석유는 주로 인제 장에 갈 때 사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겄지유. 몰러유. 잊어버렸어 오래돼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 옛날 사람 고생 많이 안 핸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참 부모 재산 많이 받은 사람이나 고생 안 해구 살었지 아유.

인제 옛날에는 평소에는 뭐 반찬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그래도 명절 되면 음식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봤자 그렇죠 뭐. 옛날에 어려울 때 뭐 많이 해요?

여기 추석하고 설하고 어떤 게 명절로서 더 크나요? 옛날에는?
글쎄...

음식을 추석에 더 많이 해요? 설에 더 많이 해요?
설에 더 많이 했겄지유. 내 생각에.

그러면 설에는 인제 떡 하고, 떡국 하고요〉
하구 또 뭐 수수 같은 거 빻아서 뭐 부꾸미 해구... 그건 거지요 뭐. 부침개.

그다음에 생선하고 인제 돼지고기...
만두 좀 해놓구 그런, 그거지 뭐 옛날에는.

그 잡채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예. 잡채두 좀 해구 그래는데...

그니까 차례 상에 올라가는 음식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서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시원치 않게 해먹고 살었어요.

막내 아드님이라?

응.

그래도... 차례 안 지내도 그 기본 명절 음식...

그렇죠. 떡해서 떡국 끓이구, 만두 해구.

추석 때는 송편하고요?

응.

송편하고 부침개하고 생선, 고기 그러면 거의 기본인가요?

그렇죠. 그것두 그거 뭐 옛날에 잘해 먹는 거지. 그거.

저쪽에 채소 팔러 다니고 그럴 때는 마을 분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가시나요? 아니면 각자 가시나요?

각자 가지요. 죄 각자들 해니까 먼저 핸 사람 먼저 가구 그렇지. 아우 옛날 얘기 해니까 아유 머리 아퍼. 아이구 옛날에 하도 어렵게 살어서.

옛날에 여기 지신밟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설 지나면 이렇게 농악 다니면서 집집마다 빌어주고, 복 빌어주고 이런 거요.

있지요... 있었어요. 그리구 이 대동우물 큰 거, 몇 아름 되는 노깡에 나 시집 오니까 거기 소 잡어다 놓구 고사드리더라구.

아 여기서요?

예. 그러구 저기 당산이 있어요. 저 산에 저기. 거기 지금 동네 집 많이 앉었어. 거기에다가 당제사 뭐 이렇게 짚이루 이렇게 엮구 뭐 옛날, 옛날 접시 뭐 이런 제사 제기 접시 그런 거, 거기 가득해서 거기 인저 또 나이하구 생일에 맞는 거, 보면은 맞는 사람은 그거 제사 지내는 사람 잡어가지구. 이물두 못 먹었어요. 못 먹게 했어. 이 물 퍼다가 제사 음식 차리구 제사 지내야 이물 먹구. 그랬던 데예요. 이 우물이. 그런데 그걸 지금 메꿨지. 우물이 집집마다 다 있구, 수도 들어오구 그래니까 메꿨잖어요.

그 제사를 언제까지 지냈어요?

한참 됐죠. 오래, 지낸 지.

그러면 이 우물 제사하고 그 당제사를 같이 지냈어요?

그렇지요. 이 물루다가 제사 음식을 차리니까 같이 지내는 거지.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 당제사도 지내고 우물제사도 지내고 그랬나요?

그런데 난 시집오던 해라 몰러. 뭘 허는지 소 잡어서 당 제사 지낸다구 그래, 우물 고사 핸다

구 그래는 말만 들었지. 난 뭐 시집 와서 그런 거 몰르지요.

제사 끝나면 그 고기는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었겠네요?
그렇겄지요.

그러면 한 집당 얼마씩 이렇게 돌아가요?
몰러 난. 시집 와서 그런 거 어른들이 있으니깐 난 몰러요 그런 건.

그때 이 동네 몇 가구 정도나 살았어요?
이동네?... 많이 늘었지요. 집이. 이 빌라 늘었지. 또 조기 2층 집도 또 늘었지. 늘은 것두 아니네. 그 집 헐구 지은 거니까. 가구 수는 마찬가지겄다.

그러니까 할머니 시집 오셨을 때는 몇 가구 정도 됐어요?
글쎄 몇 가구인지 몰르겄네. 동네 쪼끄맣어유.

여기 새마을운동은...?
했지요.

시집 오시고 나서요?
응. 했지요. 그래서 길 그런 거 잘해놨잖어.

새마을운동하기 전에는 길이 좁았었나요?
좁지요. 좁구, 그냥 맨 또랑 천지구 그랬지 뭐. 그런데 인저 그냥 웬만한 또랑은 노깡 묻구, 길 넓히구... 그랬지.

새마을운동할 때는 주로 일을 남자들이 했나요?
남자들이 했는데, 인저 남자가 정 바쁘구 어디 가구 그러면 여자가 대신 나가구 그랬지유.

여자들은 나가면 힘쓰는 일은 잘 못 하시잖아요.
못 했지요.

황세연(남, 1934년생) 하북3리 새마을촌 거주

날 짜	2023년 8월 11일
장 소	황세연씨 자택 앞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금암1리 이장 역임



올해 몇 세 되셨어요?

한 90대 됐습니다.

90이요. 그러면 1933년...

34년.

근데 정정하시네요.

아니요. 그렇지도 못해요.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자 잘 움직이도 못해요. 근데요 그 세 평 네 평 샀을 때 다 용지 매수를 했는데...

새마을운동 했을 때요?

예. 그때 우리가 한 평, 두 평, 세 평, 다섯 평, 열 평까지는 희사허기로 했어요. 희사하기로 돼 있는데...

아 10평 내외는요?

예. 희사허기로 했는데, 막상 길이 난다, (손으로 구불거리는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꾸불꾸불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해.

뱀처럼 됐네요?

근데 곧장 길을 잡기 위해설랑은, 보니까 3평 넣는 사람이 있고, 5평 넣는 사람이 있고, 10평 15평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5평 든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세 평 두 평 든 사람이 아주 지랄지랄이여. 돈 달라고. 그래 그 면장한테, 우리 면장이 조운기 면장님이셨는데,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허냐.’ 고 그래서 정부 혜택을 좀 받었어요. 그때. 근데... 그냥 희사하기로 돼 있는데, 근데 인자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해, 3평, 4평, 5평 값도 다 돈 주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줬어요?

그땐 인자 그때가 언제여, 새마을사업할 때가 언제예요!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줬는지. 그때 그렇게 어려웠고 그때에 아주 내가 미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미운 사람들이.

아 끝까지 땅을 안 내놓으시려고...

아니에요. 땅을 주자, 돈 달라,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장 보셨어요?

예. 이장 했어요.

그때 어르신 연세가?

그때 한 서른, 한 40쯤 됐을 거여.

새마을 지도자는 또 따로 있으셨고요?

새마을 지도자 따로 있지요. 새마을 지도자 따로 있었죠. 근데 새마을지도자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이장이 주관하는 거죠?

예. 또 그렇게 했는데 참 웃긴 이야기가 했어요. 웃긴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모래, 자갈 운반을 다 우마차로 했어요. 우마차. 인자 차가, 그때는 우마차로 했는데 이게 오늘 부역 나오는 사람은 소만 내놔라. 너는 소를 내놓고, 너는 마차를 내놔라. 소와 마차를 내놓는 사람은 부역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내놔도 부역을 안 나오고, 마차를 내놔도 부역을 안 나오고.

부역을 안 나오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러면 마을에 소마차가 몇 대나 있었어요?

소마차 대여섯 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인자 누구라고는 인자 말씀드릴 수 없어,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소를 빌렸어요. 하루. 빌렸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자갈을 실었어. 자갈. 공구리 헐라고 자갈을 실었는데 오비이락라고 그 하루 오늘 갖다 들이고, 내일 모레 소가 새끼를 지웠어요 그냥.

새끼가 유산해버렸다고요?

예. 임신된 소를 갖다 부렸는데. 그러니깐 그 주인이 나한테 와서 그 송아지 값을 내라는 거

요. 송아지값을.

아... 곤란하셨겠네요?

예. 근데 이게, "니가 이거 부락에서 부역을, 새마을사업하면서 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니가 소 갖다 부렸기 때문에 소가 이게 유산됐다." 그러니 송아지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만 오면 괜찮은데, 아주머니가 오고 그 아저씨가 오고 날마다 오는 거요. 달라고 그냥. 그 송아지값을 달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요 그냥. 동네 사람들은 뭐 전혀 책임 안 진다는 거요. 나만 이게, 그래 동네 사람은 책임 안지죠. 그 사람은 나한테 뻔질나게 송아지값을 내라 하죠. 그때 송아지 값이 또 비쌌어요. 또. 그러니 이장 월급을 받어! 뭘 (받어!), 이 내 동네 부역하다가 송아지 값을 물게 생겼어. 이 뭐 땅 팔아서 송아지 값을 주게 생겼어요. 그리고 있는 차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차에 이사람 이장(현 이장인 조덕상) 큰아버지 조항년씨라고 있어요. 그 이가 뭐라고 그러는가고는, 이렇게 싸우는데, 나하고 그 송아지 주인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형님이 와서 뭐라고 허는가고는 "소는 일허다가 새끼 지을 수도 없으려니와 그것 때문에 짓지 않는다. 봄에 모심을 때 그렇게 바쁠 때 소 임신했다고 소 안 부는 사람 없다. 소는 논에서도, 논 갈면서도 새끼를 낳는다. 이건 이미 이 소 안에서, 배때기 안에서 죽었다." 는 얘기여. '죽은 송아지다. 그래 무슨 송아지 값이냐?' 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송아지 값을 안 물게 생겼어요. 안 물었어요. 내가.

입장 아주 곤란하셨겠네요.

아 곤란하다 뿐이여.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부역 나오라고 하면 몹시 사람이 싫어해요. 그냥.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올라고 다 혀, 아주 싫어해요. 그래 이제 그러고 인자 부역 안 나온 사람은 하루에 얼매씩 돈을 내기로 하는 거여. 돈을요. 안 나온 사람은 하루에 얼매 돈을 내라. 그래 그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안 나온 사람은 돈을 또 안 주는 거여. 또 돈을. 동네 사람은 돈을 받으라고 허고, 부역 안 나온 사람은 돈을 안 줘, 안 줘.

그럼 어르신 입장이 참...

아주 내 입장이, 아니 또 그렇지요. 또 면에서 자꾸 면서기들이 와서 노냥 또 '새마을사업 해라. 뭐 해라. 또 뭐 줄모를 심어라. 뭐 못자리를 허는데 뭐 비닐을 씌워라.' 그러는데. 노냥.

아 근데 그땐 우리 애들이 넷인데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 술 한잔 노냥 사는거 마을에 사는 거요 그냥.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때 오면 어떡해 싶어. 밥도 해줘야지요.

아 그 면 직원들 와서?

그러믄요.

와서 자는 거예요?

아이 우리 동네 담당 구역이니까 와서 자는 거지 그냥.

잠도 자는 거예요?

아니 낮에, 낮에서 뭐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냥. 낮에 와서. 그러면 그 때가 되면 우리만 먹을 수 있어요. 또 줘야지요.

점심 해 줘야 되겠네요?

아유 아유... 나 그 새마을사업에... 그리고 그때 우리 부락에 그 조금 좀 길을 넓힐 것은 다 길을 넓혔고, 조금 안 헌 거 같은 거, 뭐 또랑 같은 거 그런 건 다 했는데. 다 다 그때 새마을사업 해서 새마을사업 양회로 해놓은 것은 하나도 못써,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는데 우리 동네 입구에 들어간 암거 하나만 살어 있어요. 지금.

암거?

암거. 다리, 노깡. 우리 동네 앞에...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네 입구. 방죽 위에. 방죽 입구에. 그거 하나만 살아 있다고요.

그 위에 암거라고 하면 하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물 빠지는 거?

예. 물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살아 있어요. 다, 다 버렸어요.

근데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저기 지붕 개량부터 했어요? 길 넓히기부터 했어요?

아 그 지붕 개량은 인자 각자 개인이 허는 거요. 그 이장이 힘 안 쓰는 거요. 각자 하라고 했어요 그건.

아 각자...

예. 각자. 먼 새마을사업에서 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몇 사람이서 이렇게 어울러 갖고 같이 품앗이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 그래. 그런 식.

그냥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예. 이게 오늘 인자 개똥네 오늘 지붕 개량 한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부역해 주는 거여. 내일 또 쇠똥네 허면 쇠똥네 가서 해주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지붕 값은 그 집에서 내되 그냥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네요?
예. 도와줘. 그게 일종의 품앗이죠. 동네 사람들 품앗이.

그러면 지붕 개량을 먼저 했어요? 길 넓히기를 먼저 했어요?
아 지붕 개량도 같이 해, 한꺼번에 했죠 뭐. 지붕 개량도, 길...

길도 넓히고요?
그때 몹시 바뻤어요. 그때 바뻤어요.

그래서 지붕 개량하고 길 넓히기를 거의 동시에 한 거네요? 같이 한 거네요?
지붕 개량은 단년에 못 했죠. 지붕 개량 몇 년 걸리는 거죠.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인제 형편에 따라서.

어떤 동네는 한 1년 안에 끝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아니, 아녀. 그렇게는, 우리 동네는 그렇게는 못 했어요. 또 오래 걸렸어요. 인제 그러니깨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함석을 허고, 또 없는 사람은 스레트로 하고 그랬어요.

함석이 좀 비쌌어요?
함석은 비쌌죠. 함성은 비쌌어요. 그래 우리 집도 초가집인데 함석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장 체면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스레트로 할 수 없고 함석으로. 수원 가서 사다가 했어요... 근데 이게, 수원 가서 사다 했어요.

그러면 스레트에 한 2배 정도 나오나요? 함석이?
아니 그때는 더 비쌌어요. 그런데도 지금이니까 함석이 칼라가 됐지, 그때는 칼라가 없었어요. 전부 다 하얀 거여. 해놓고서는 또 뺑끼 칠해야죠. 하하하.

저는 슬레트랑 함석이랑 거의 비슷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함석이 엄청 비싸요.

한 2배쯤 되나요? 슬레트의?
아니. 두 배 더 비싸요.

근데 슬레트는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예. 그건. 근데 함석은 그런 거 없어요.

함석은 보조도 안 받아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이고 그게 추억이네. 안 식구는 그냥 이장 내놓으라고 야단이여 인자. 이 이장을 왜 붙들고 이 속을 쎅이냐고. 안식구는 이장 내놓으라고 야단이죠 그냥. 근데 또 뭐

그것도 12월 말일이나 돼야 이장을 내놓든지 말든지 허지, 누가 작업허다가 이장 내놓면 어떤놈, 이장 볼 놈 누가 있겠어요! 또.

그래서 새마을 운동할 때 이장 몇 년 보셨어요?
그때 한 3년 봤나 봐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장하고 아주 노인회장하고 아주 동네 일 인자 아주 진절머리나요. 아주.

그럼 어르신은 저기 길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나온 거 가지고 길 포장한 거예요?
그렇죠. 세멘트. 그러니깨 우리 동네 세멘트가 한 500푸대, 600푸대 이렇게 나왔어요 막.

1년에 한 300포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500포, 600포씩이요.

아 1년에 500포, 600포씩이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포장한 데가 마을 진입로 거기?
근데 인제 다 없어진 지가,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 그 자리도 없어 인자.

근데 마을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길이 그때 포장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 그때 이렇게 넓혀진 건가요? 그 뒤에 또 넓힌 건가요?
인제 또, 다시 넓혔어요.

그때 그 길은 아니고요?
예. 처음에는 인자, 처음에는 공구리를 못 허고 길만 넓혔죠. 흙바닥이죠 뭐. 나중에 인자 공구리를 했죠. 나중에 공구리 했지.

여기 비 오면 많이 질컥거렸나요?
아 그러믄요. 아유. 비 오면 아주 뭐 순 맨발로 댕겼지 뭐. 질컥벌컥 질컥벌컥하고. 그때, 그때 또, 그리고 동네도 집집마다 마차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자 길을 넓히고, 넓히니까 인자 마차가 들어가고 그랬지.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마을의 기와집은 몇 채였어요?

우리 돈 기와집이요? 우리 동네 기와집 없었어요.

다 초가집이었어요?

예. 다 초가집이에요. 기와집 없었어요.... 어디 기와집이 있어요. 다 초가집이여. 우리 동네 전기가 1973년도에 들어왔나? 아이 72년도에 들어왔어요.

72년도요?

예. 우리 동네 전기가 72년도에 들어왔어. 전기가.

근데 이쪽 회화리나 이쪽은 일찍 들어왔잖아요?

우리 면에서 회화리 같은 데가 제일 일찍 들어왔어요.

회화리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회화리가 면장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면장이... 그러니깐... 동네가 크고, 우리 동네보다는 돈이 많고... 예.

옛날에 저기 진위천에서 사금 채취했다는 얘기...?

예. 예. 왜정 때, 왜정 때.

사금 채취했어요?

예. 왜정 때. 바로 이 앞에, 우리 동네 앞에도 사금 채취했어요.

금암리 앞에도요?

예. 거그서 사금 채취했던 거요. 외정 때. 그니까 여기가, 이 부락이 진위면 하북2린데 동네가 대정촌이야. 대정촌. 대정촌인데 일본 그 소화가, 이 소화 아버지가 대정 아니에요. 소화 아버지가 대정... 여기 순 여기가 논이 없었어요. 논이. 다 뭐라 그럴까 묵정밭이었어. 묵정밭.

아 여기도요?

아 그러믄요. 여기 다 없어요.

어르신은 금암리 사시지 않았어요?

예. 나 금암리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논이 없었어요. 근데 대정 시대에 왜놈이 와서 여기다 다 개척을 헌 거여.

그때 그 일본 사람이 저 칠성 고분자 거기 살았나요?

예. 칠성고분자여 거기.

칠성고분자?
예. 칠성고분자, 칠성고분자 밑에서 살았어. 밑에서.

지금 그 회사 조금 밑에요?
예. 나는 그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말만 들었어, 나. 나 그때는 없었어요. 출생지가 거기 아니에요.

어디세요?
내 출생지가요 저 인삼 많이 난 네여.

금산이요?
예. 그쪽에.

몇 살에 이쪽으로 오셨어요?
나요? 그러니까 그 동네서 내가 61년 살았어. 61년.

아 지금까지 61년이요?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예순다섯인데, 그 동네서 낳았는데.

예순다섯이요?
예.

어르신 그러면 결혼하고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서 결혼했어요.

금암1리에서요?
예.

아 총각 때 들어오셔가지고?
예. 근데 여기가, 이 산이 여기 가면 돌아가는데 석산이, 돌간이 있어요. 돌간. 산이. 그 돌을 떠서 이 회화리 나간 제방을 쌓는 거요. 그 돌 뜨러 온 거여. 내가 돌 뜨러.

아 그럼 지금 북바위 있는 데, 거기요?
예. 북바위. 북바위 그건 옛날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 나 그걸, 돌을 떠가지고 회화리 앞에 제방에다, 전부 다 제방 쌓은 거요. 그게.

아 그러면 지금 북바위 있는 자리에 돌들이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많았어요. 냇갈까지 돌들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 돌들이 냇갈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예. 냇갈 죽, 바위가. 바위.

그렇게 나왔었던 바위를 그러면 전부 다 떠다가 저기 오산천 제방 싼 거예요?
아니, 회화리 앞에 죽 있는 거.

아 회화리 앞에?
예. 죽 있는 거 쌓은 거여. 이게 그 회사가 협창토건이라고, 협창... 협창토건이라고 그 서울 용산에 있었어. 그 회사에서 헌 거여.

아 협창토건이라는 서울 용산에 있는 회사에서?
예. 최병익, 사장이 최병익인데 우리가 잘 알죠. 최병익씨여.

아 그 일을 할 때 이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 그일 할 때.

그러면 회화리 앞에 제 방은 다 그 돌 갖다 쌓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네요.
많았죠. 그러니깨 이게, 그 회화리 제방이 정남면 면소재지 가지내라고 그 문양리 앞에서 쭉 여기까지 온 것이여. 여기까지 온 거여. 우리 동네까지 온 거여.

그러니까 정남면...
정남면 가지내라고, 그러니까 면소재지 부락이지.

그러니까 정남면 면소재지 부락에서...
거기서부터 쭉 해갖고 우리 동네 앞에까지 제방이여.

금암리 앞까지?
예. 제방.

그때 그걸 다 쌓았어요?
예. 우리가 다 했죠. 일 했죠.

그때 오셨을 때는 여기 경지 정리 안 됐었잖아요?
안 됐죠.

아주 옛날이라...
그럼요. 안 됐죠.

그러면 저 회화리 앞 들판은 전부 다 논이었어요? 그때?
회화리는 논이었어요. 회화린 논인데, 지금 인저 쭉 내려가면 이 거기, 거기 마두2리라고, 사업소라고 있어요.

예. 마두2리.
사업소, 그 사람들이 원래 개척단, 개척민들이에요. 거기 전부 다 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헌 거요.

금암리 앞쪽은 어때요?
아 그건 논이었어요. 다.

대부분 다 논이었어요?
예. 그건 논이었어요. 근데 거기만, 마두리 인제, 마두2리 앞에 저 제방까지 정남까지 다 거기는 논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업소 사람들이 피란민들이 125세대가, 평택에서 125세대를 서탄면 개척허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척단들이에요. 개척민들이에요.

예. 마두2리요.
다 개척민들이에요. 그때는 여기가, 거 여기, 그러니까 땅값이 고런 데는 거저여, 거저. 땅값이 없었어요?

그때는 평당 얼마 정도 했어요?
아 평당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거저요 거저. 거저였어요.

이 들판이요?
예. 그 마두1리 들판에. 거저요 거저.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 정착하시게 됐어요?
아 돌 뜨러왔다니까. 돌 뜨러.

어르신은 그럼 그 돌 뜨는 기술자였어요?
그렇죠. 돌 떴죠. 남포.

아 남포.
발파. 발파.

발파하셨어요?
예.

그러면 발파해가지고 돌을, 큰 돌을 조그맣게 해서...
아니 긍게 바위에다 이게, 이게 돌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약을 넣고 폭파시켜가지고 돌 크면 큰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 인자.

그냥, 그대로 그냥 제방 무너지지 않게 가서 쌓은 거예요?
제방 이렇게, 제방 안쪽으로 인제 다 쌓았죠. 둘 쭉 쌓았죠.

그러면 그 돌은 인제 그때 발파해가지고 깨내면 그다음에는 뭐 지개나 마차가지고...?
차로 했어요. 차로.

그때만 해도 차가 있었나요?
차는 있었죠.

차로 실어 날라가지고?
예. 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그 차가 노냥 실어나르는 거.

그 쌓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걸리냐니요. 몇 년이요.

저거 몇 년 걸렸어요?
그러믄요. 아 지금, 저 정남에서 여기까지 몇 년 걸린 거요.

여기 돌, 돌 깨는 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돌 깨는 거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발파해갖고 돌 깨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도 여쭤봤지만 돌 양이 뭐...
아유 많죠. 말도 못하죠. 그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 하천, 오산천까지 이렇게 돌이 닿았었어요?
아니 오산천까지는 (아니고) 길까지 다 나왔어요. 길.

지금 오산 가는 길까지?

예. 길.

이 서탄 가는 길까지요?
아니여. 그 앞에, 앞에만. 끝까지는 안 나가고 이렇게...

트럭 수로만 따져도 엄청난 양이겠네요?
아 그러믄요.

몇백 대 나왔겠네요
그러믄요. 몇 백 대 나오지 않고요!

그 돌이 인제 금암리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그 돌...
아 회화리까지 갔어요. 저 회화리.

회화리까지는 그 돌이 쭉 갈 정도로 제방에? 쭉 한 줄로 이렇게?
한 줄이 아니에요. 몇 미터였어요. 몇 미터요.

몇 미터를 이렇게 쭉 깔 정도로?
예. 제방에 그 쌓는거지. 그렇게.

이렇게 표면에 쭉. 그래서 냇갈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쭉 쌓은 거예요?
아니요. 냇갈 쪽으로 이렇게.

냇갈 쪽으로, 인제 못 쓸리게?
예. 물 차도 안 쓸리게.

그러면 금암리에서부터 회화리까지 그 돌을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돌 갖다 썼지.

그리고 인제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럼 어르신은 그 발파하는 기술자였어요.
예. 발파도 했죠.

발파 기술...?
아니 발파 기술은, 그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인제 그거 끝나면 가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근데 왜 금암리에 정착하셨어요?
아니에요. 거기다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금암리에다가요?
아니 그 석산에서. 그 밥 먹고 자고 일 하는 거여. 거기서.

그럼 밥은 누가 해줬어요?
아니 그건 인저 우리 자취랑게, 자취. 몇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여.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그냥 당번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밥 해 먹고 반찬도 해 먹고?
예. 그렇죠 뭐. 반찬도 해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런 거여.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 만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우리 안(식구), 그때는 미군들이 이 비행장 활주로 포장을 했어요. 포장했는데, 자갈, 이렇게 발파 허면 자갈 큰 돌도 나오고, 작은 돌들 나오잖아요. 그 작은, 우리 동네 여자들이 처녀들이 전부다 자갈 깨러 왔어. 자갈 깨러.

아 금암1리.
예. 동네, 금암1리.

1리만만 왔어요? 아니면 1리나 3리도 왔어요?
아녀. 2리, 3리는 안 오고, 저 외지에서 여자들 3명, 4명이 왔어요. 그 자갈 깨는 거. 자갈 때서 부대에서 실어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금암리 분?
예. 우리 동네.

한 3명 정도가?
아니요. 우리 동네 대여섯 명이 했어요.

대여섯 명 오고, 외지 인제 다른 곳 사람들이 한 3명 오고?
예.

그러면 한, 한 8~9명 정도?
아 보통 7~8명이 했어요.

보통 7~8명이 그 자갈을 손으로 망치, 조그마한 망치로 깨가지고 비행장 실어가고...

활주로, 활주로.

큰 돌은 여기 쌓고요?
여기 쌓고.

그러면 거기 오신 분하고 이렇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안식구는 원래 친정이 이 동네, 이 동네에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아 대정촌이요?
예.

대정촌인데, 대정촌 분하고 결혼하셔서 거기서...
아니에요. 여기 안식구 여기서 원래 친정이 여기인데, 여기서, 우리 동네서 살았어요.

아 골안말에서 사셨어요?
예. 골안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붙들었죠.

아 그래서 어르신이 붙들으신 거예요?
예. 붙들었죠.

할머니가 붙들으신 게 아니고?
내가 붙들었지요.

그때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아주 미남형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뭘 하겠어요. 힘만 셌지 뭐.

그러면 처가댁에서 사신 거네요?
아니에요.

따로 사셨어요?
예. 우리 안식구하고, 장모님하고 딸하고 둘 살았어요.

그러면 장모님 모시고 살면 좋으시잖아요?
예. 우리 장모님 모시고 한 3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인제 돌 깨는 일을 그만두셨잖아요?
돌 깨는 일은 그만뒀죠.

그리고 인제 농사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갓댁 가지고 계신 농지를 받으셨겠네요?
아니 그때는 우리 처갓집 농지가 밭 요것만 조금 있었어요.

여기에 이 창고 앞에 밭 이거요?
예.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그래 인제 그러니깨 그냥 동네 사람들, 동네 일 품팔아 먹고 살았죠 뭐. 근데 인제 딴 데로, 회사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인제.

회사에서?
예. 인자 딴 데로. 인자 일 여기 끝나니까 인자 '수원으로 가라.', '안성으로 가라.' 가라 그래요. 갔는데, 아 안식구가 있는데 안식구하고, 안식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지. 여기서. 못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착하신 거구나!
못 가고 있는 거지.

결혼하시고 이장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외지 사람 들어오면 좀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어.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한 젊은 분들하고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깨 인제 젊은 사람들하고는 금방, 금방 사귀었어요. 시골 사람들이라 다. 금방 사귀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제 동네도 객지 사람이 와서 이장 달라하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많으니깐 봤죠. 하하.

그래서 인제 어르신은 농지도 나중에는 장만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농지도 샀지요.

몇 마지기나 사셨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설랑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논이 장모님이 1,050평짜리 면 소재지 앞에 논 좋은 거 샀었어요.

저 서탄면 소재지 앞에요?

예. 논 1,050평 좋은 거 샀는데, 그걸 인자 농사를 지었죠. 지었는데 우리 협창 회사에서 비행장 제방이 이렇게 나가는데 떼, 떼를 입히라고 그래요. 떼.

아 저 잔디?

예. 잔디를 입히라고 그래요.

비행장 나가는데요?

비행장 인자 활주로.

활주로?

활주로 제방, 제방. 활주로 제방. 인자 물 못 들어가게 제방 쭉 계속 쌓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방 길이가 딱 4키로예요... 딱 4키로. 근데 그 제방에 떼를 입힐라고 허는 거요. 근데 그걸 맡었죠 내가.

아 어르신께서?

예. 얼마에 맡았냐 하면 40만 원에 맡었어요.

4키로를?

예. 그때 제방 떼 붙이는데 40만 원에 맡었어요. 40만 원에 맡어가지고, 아이고 4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때 어르신이 몇 살 정도 되셨어요?

그때 내가 장가 갔으니까 한 30 됐겄죠 뭐. 정확히 몇 살인지 뭐 그것까지 기억하겠어요?그거 허다가 회사에서 이 공사를 일률적으로 1년에 딱 끝난 게 아니라 몇 해에 했어 몇 해. 그렁께 40만 원 가지고 오늘도, 동네 사람들 오늘 몇 명, 내일 몇 명, 1년에 몇 명, 이렇게 해다 보니께 회사에서 인자 일을 끝 안, 끝마치지 않았다고 돈을 안 주죠. 동네 사람들은 품값 달라고 야단이죠. 그래서 면소재지 앞에 1,050평 땅을 팔아서, 팔아먹었어요. 내가 이거 공사하다가.

그거 갚으려고요?

예. 노임 줄라고.

그거 얼마에 파셨어요?

그때 쌀 서되 반.

평당 서되 반?

예. 서되 반씩 받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품값을 전부 다 줬어요?

예. 품값 줬죠.

그럼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겠네요?

회사에서는 돈 찔끔, 10원... 돈 한 5천 원도 주고, 2천 원도 주고. 그때만 해도. 찔끔찔끔 받다 고만둬버렸지 그냥. 그래가지고 1,050평 팔아먹었어요. 공사하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화병에 돌아가셨어. 화병에 그냥.

3년 있다가, 결혼하시고 3년쯤 지난 다음에?

화병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뒤에 인제 또 농지는 어떻게 마련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인자 안 되겠다 인자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안 돼서, 그러니까 뭐 남의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죠 내가. 동네 정미소가 있는데 밤에는 정미소에서 일하고, 낮에는 나는 품 팔고 참...

이 정미소는 골안말 정미소예요?

예. 우리 동네 정미소에 있었어요. 정미소 있었어요.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거요?

지금 마을회관이 정미소 자리예요.

그때는 보리 방아하고 쌀 방아하고...

쌀 방아도 찧고 또...

밀가루?

밀가루도... 밀가루하고 보리는 여름에만 하고, 가을에, 근데 그때만 해도 곡주가 실어 온 게 아니라 우리 정미소 직원들이 가서 실어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정미소가 우리 서탄면 산업계장 헌 양태홍씨가 정미소를 그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골안말 정미소를 한 거예요?

우리 동네 분이예요. 그분이 정미소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미소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종휴씨라고 노인네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네는, 그때는 노인네가 아니죠. 근데 그 양반은...

그러니까 직원이 둘?

아니 나 하나예요.

어르신 혼자?
예. 그 노인 이정휴씨가 노냥 앉아서 보리방아 찧고 인저 기계도 만지고. 나는 인저 실어오고.

그때는 방아 찧을 사람이 실어 온 게 아니고 방앗간에서 가서 실어왔어야 했어요?
예. 실어왔어요.

그러면 리어카로 실어 왔겠네요?
리아까도 있었고 주로 그냥 져오, 가까운 데 져오고 그랬어요.

지게로 져다가?
예. 낮에는 일가고, 밤에는 그거 하고 그랬어요.

낮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고요?
남의 논, 남의 뭐 아무 일이나죠 뭐. 논매라면 논매고, 모심으라면 모심고 뭐, 보리 베라면 보리 비고 뭐.

그때 방앗간에서 방아삯은 얼마나 떴어요?
그때 방아삯이 얼맨지 모르겄어요. 내 잊어, 얼맨지 모르는데, 그 노인네는 그래도 기술자라고 더 많이 가져가고 나는 일만 힘들게 일허고 쪼끔 받고 그랬죠 뭐.

아니요. 그거는 인제 임금 받으시는 거고, 저기 방아 찧는 사람이 방아 찧으면 쌀 한가마당 뭐 몇 되 이렇게 떴잖아요?
예.

몇 되 정도나 떴어요?
그때는 한 가마 찧는 데 너 되 반인가 받았는데, 너 되 반... 그런데 또 그것도 비싸다고 우리 동네 사람이 타동네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비싸다고 또.

그러면 어디로 가요? 타동네면?
그 2리, 안말로.

안말은 마을에서 나중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니, 마을에서 안 했어요. 다 개인이 했어요. 그래 그 마을에, 그 앞말 도정허다가 젊은 사람 팔하나, 그냥 팔 하나 잘라졌지요.

사고나가지고요?
예. 차상석씨라고 그니가 방아 도정허다가 피대에 끼어가지고서

그분이 방앗간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예. 예.

그 방앗간이 원래는 저 임광래 교장 선생님네... 그분이 하시다가 그게 마을 방앗간으로 넘어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녀. 끝까지 개인이 했어요.

그럼면 임광래 어르신 어머니가 하시다가 차상석 씨가 나중에 그걸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랬어요.

거기는 방아삯이 좀 쌌어요?
아니죠. 그러니께 사람들이 오기, 오기.

깎아달라고 그래서 안 깎아주니까?
예. 오기로 나가는 거여. 에유, 에유.

어쨌든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나중에 논도 좀 장만하셨겠네요?
그래가지고는 논을 인제 그때 얼매나 샀냐면 1,200평을 샀지요.

많이 사셨네요. 6마지기죠 1,200평이면?
아니, 여덟 마지기여.

아는 150평이 한 마지기예요?
예. 한 마지기라고 그래요. 그거 샀지 뭐. 그러고도 그 나중에 또 네 마지기 사고 열두 마지기 샀어요.

많이 사셨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품 팔아서 샀다고 봐야 되요. 그렇지만 애들은 다, 애들 넷이 다 학교 가르치고. 그렇게 안식구도 날마다 일 댕기는 거지 안식구도.

자녀는 몇이나 두셨어요?
아들만 넷이에요.

그 또 교육도 다 시켰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인저 큰아들하고, 큰아들은 대학교 대니다 그만둬버리고, 자퇴허고. 막내아들은 대학 나오고. 아들 둘은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죠 뭐. 아들 넷이죠 뭐. 그러니께 날마다 품팔아다 애들 가르킬라 아주 어려웠죠 뭐. 어려웠지. 근데 뭐 먹기를 제대로 먹겄어요. 굶다시피 하고 나가는데, 돈 버는 재미로.

참 어르신 그때 이장 보시고 그럴 때 마을에 당제 지냈었죠?
예. 당제 했어요.

당제는 언제 지냈어요?
당제는 주로 언제 제사 모시냐 하면, 동짓달이나, 동짓달 쯤, 11월 쯤 음력 11월 쯤 날 좋은 날 골라가지고.

음력 11월에?
예.

10월이 아니고요?
아이 11월 달이나 했을 거여... 11월에 좋은 날 골라가지고. 더군다다 갑자 을축 한 노인네가 한 분 또 계셨어요. 갑자 을축 한 노인네가. 그 노인네가 인자 갑자 을축 해가지고선...

날을 잡아가지고?
좋은 날 잡아가지고 모셨지요.

재물은 뭐로 하셨어요?
제물은... 아휴... 쌀 서 되 서 홉을, 서 되 서 홉, 쌀... 서 되 서 홉을 가지고 술을 해.

그 술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라술이라고 그래요.

예. 조라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뒤에 거, 저 앞에 가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제기 쌓는 데다 이렇게 노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짚으로 둘러요.

예. 이엉 엮어가지고...
이엉 엮어가지고. 그 안에 제기를 넣고 들러놓고는,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술을 들여 놓는 거요.

술을 그 안에서 담그는 거예요?
예. 거기다 담가놓고. 담가놓고 제삿날, 아이고 제삿날 제사 딱 모시는 분도 아무나 제사 못 모셔요. 을축 갑자, 갑자 을축 해가지고설랑은 뭔 남자하고 여자하고 뭔,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뭐 그냥 엄청 복잡해요. 그래 그 동네 사람들 다 보는 거여. 개똥이 올해 갑자생이지? 그래 갑자생이지! 그 부인은 을축생이지? 그 을축생이지! 갑자 을축하고... 아유 안 돼, 안 돼. 그 아주 좋지 않아, 안 돼. 또 저 쇠똥이. 쇠똥이가 을축생이지! 그 부인이 정묘생이지! 어 그 사람이 좋으네. 그 사람 시키는 거여.

그래서 인제 동네에 그걸, 갑자를 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인제 제주를 정하는 거죠?

예. 인자 그 개똥이가 인자, 개통이는 을축생이고 부인은 정묘생이고 탁 다 맞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딱 정헌 거요.

그러니까 본인만 보는 게 아니고 부인도 같이 봐가지고?

아 부인도 봐야지. 그렇게 인자 '금년 제사는 11월 5일이다.' 날짜 딱 잡아가지고 이 술을 11월 5일 날, 그때까지 그 술을 해내는 거요. 서 되 서 홉을. 그렇게 해놓고 그 집에는 인줄을 딱 쳐, 인줄.

금줄이요?

금줄을 딱 쳐. 부정헌 사람 들어오지, 못 들어오게. 이 동네 신성한 제사 모시는데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인줄 쳐놓고 인자 그 여자 혼자만이 음식을 만드는 거요. 그래 음식이래야...

그러면 제주의 부인이 음식을...

예. 둘이, 둘이, 부부가 인자 음식을 하는 거요. 인제 음식이래야 동네 돈도 없으니까는 뭐 시원치 않죠. 쌀 서 되 서 홉 술하고, 고기하고, 북어하고 북어. 간단하게 인자 저녁에 제사가, 그 둘이 가서 모시는 거죠.

제주하고 부인하고?

부인은 못 가고 남자만 가고, 그 이장이 인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장 하나 따라가고 제주 올라가고, 이장하고 제주하고 둘이 지내는 거네요?

예. 제사 모시고 저녁에, 밤에 제사 모시고 와설랑은 아침에 인자 동네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간밤에 산신제 모셨으니께 술 한 잔씩 대접허는 거죠 뭐.

그 술 대접하는 돈은 어디서 나요?

동네에서 쪼금씩 줬어 그때. 예 쪼금씩. 그때도 또 그러니까 또 그때 남자는 이장은 여름에 보리쌀 한 말, 가을에 쌀 한 말씩 받었어요. 받었는데, 내가 여름에 보리쌀은 그만두라고 했어요. 내가 그만두라고, 내가 이장 보면서 내가 쌀 한 말씩 달라고 했어요. 그 쌀 한 말씩, 한 말씩 받어가지고 반장 주고, 새마을 지도자 주고 뭐 개뿔 뭐, 이장이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몇 가구나 됐어요 그때?

우리 동네 약 45여, 약 45.

45가구?

아니, 40호 왔다 갔다 했어요... 40호 쪼금 더.

그러면 리세 받으면 4가마 정도는 나왔네요?
예. 예.

그러면 네 가마 중에서 반장들은 얼마나 줘요?
한 가마씩 줘야지요.

그 반장이, 몇 개 반이예요?
2개 반이예요.

두 개 반, 그러면 반장들 한 가마씩 두 가마, 새마을지도자 한 가마, 이장 한 가마 똑같이 먹네요?
예.

이장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많다 뿐이에요! 또 그것도, 반장 그렇게 줘도 반장 다 안 헐라고 하지죠 뭐.

반은 지금도 2개인가요?
그렇지요.
(조덕상) 두 개는 되는데 저희는 반장 한명만 둬요.
지금은 인자 반장 없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길 부역 있죠. 비료, 서정리 가서 비료 타다가 비료 노놔줬어요. 비료도.

그때는 서정리로 갔어요?
예. 서정리로 가서 말마차로 실어다가.

서탄농협이 없었죠?
뭐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땐 뭐 개뿔이나 돈 면에서 10원 한 장 줘요?

서정리 농협에서 비료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와요?
그 마차가 가져오죠.

소마차 한 대 정도면 됐어요?
아니요. 몇 대가 갔죠.

마을에서 인제 몇 대가 같이 가서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인자 오면 누구네는, 너는 1,200평이니께는 요소 한 포, 가리 한 포 이렇게 저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노놔주는 거지.

그리고 비료 노놔주고, 또 다른 일은 뭐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이장은 인자 우리 이장 볼 때는, 처음에 이장 볼 때는 동네에서 점심이 없었어요. 점심이 없으니까는 점심을 안 해주고서랑은 오늘은 1반에 누구 누구 세 집은 술 한 말씩 허고, 술 한 말. 또 누구누구는 감주, 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주, 감주허고 긍게 1년에 3집씩을 넣는 거죠. 3집.

1년에 3집씩을...

응. 그렇게 하지. 누구 누구 누구는 술허고, 누구 누구는 감주허고.

부역 할 때?

아니요. 인자 연말 결산을 헐 때. 총회 헐 때.

아 대동회 할 때?

대동회 할 때. 밥은 없는 거요.

밥은 없고?

응. 그러니께 밥은 없고 인자 술 서말하고 인자 감주 서 말하고 허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술, 그 대신에 술 먹는 사람은 절대 감주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게, 안 돼. 귀때기 맞어. 이 새끼 술 먹고, 술 처먹고 감주 먹은 노무 새끼라고 귓때기를 때려.

하하하. 그랬어요?

예. 술 먹고 감주 먹은 노무 새끼.

그러면 술도 마음대로 못 먹었겠네요. 몇 잔 정도 먹었어요?

아니, 술은 먹을만치 먹었는데, 술 먹고 감주 먹으면 안 돼여. 술 먹는 사람은 술만 먹고, 감주 먹는 사람은 감주만 먹어. 하하하. 그러고서는 인자 그 다음부터서 그리고 인자 더 있다가 한대희라고 있었죠. 한대희 그 사람이 인자 이장을 봤는데, 그 사람이 살기가 좀 나았지요. 그 사람은 서울서 살다가, 사진사였었는데 돈벌이도 괜찮고 그 사람을 이장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에이 내가, 이번에 내가 술하고 점심은 내가 낸다." 그래 그 사람이 점심을 냈어요. 그 뒤로부터 이장이 계속 점심을 해주는 거여 인자.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이 먼저, 인자 동네 사람이 '아 누구 감주고 누구...' 아이 이거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지가 술하고 감주하고 점심을 그 사람이 냈어요. 그때부터서 인자 이장이 점심을 내게 됐어요. 우리 동네.

(조덕상) 그게 여적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래 여적까지 오는 거죠.

지금도 이장이 다 내는 거예요?

(조덕상 이장) 이장이.

이장이 다 내는 거요.

마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장이 다 내요.
(조덕상) 이장이 다 내요. 아직까지.

그러면 한 번 하면, 그 대동회 할 때 점심을 다 내면 비용이 수월찮을텐데...
아 쌀 한 말씩 받아가지고 개뿔 없어요.
(조덕상) 경비 쓰면 한 60~70 들어가요.

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7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마을 분들한테 그냥 쌀 한 말씩 받고요?
예. 쌀 한 말, 쌀 한 말씩.
(조덕상) 예. 쌀 한 말씩 받어갖고 인제, 그거 받어서 고대로 쓰는 거죠.
아 지금은 이장 월급도 타고, 얼마, 몇 푼씩 주지.
(조덕상) 지금 30만 원.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받고설랑 아이구. 맨날 면서기들 밥도 해주고 아유. 그래 우리 안식구가 이장 보면 인자 이혼을, 나하고 안 산다는 거여. 인자 이장 보면.
(조덕상) 맞아요. 저희 아버지 이장 볼 때도 매일 면서기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밥 먹고 그랬어. 그래 우리 안식구가 이장 보면 인자 나하고 안 산다고 인자. 저 이하고 안 산다고.

그때는 마을에 두레도 있었죠?

농악이요?
예. 농악은 있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뭐 흥이 없어요. 이렇게 꽹과리 치고, 북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긴 다 샀었어요.

논 매기 할 때 안 했어요?
아이, 있긴 있는데 할 줄 몰라요. 안 해서.

그러면 어르신 여기 오셨을 때, 마을에 오셨을 때 논매기하고 이럴 때, 지신 맬 때 두레 안 했어요?
두레 없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농악은 언제 했어요?
아 농악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 농악 있는데 누가 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어르신 오시고 난 이후는 농악은 거의 없었나요?
아이 없었어요. 안 했어요.

뭐 깃발 같은 것도 없고요?

깃발은 옛날에 이게, 그때 인자 작목반이라 해서, 우리 동네 금암1리 작목반이라고 해서 작목반 깃발 같은 건 있었어요.

작목반이요. 작목반은 새마을운동하면서 만들었나요?

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께 우리 동네가 이 서탄면에 관문 부락이라, 관문 부락이라 해서는 아주 심해요 그냥. 뭐 열심히 청소해라, 뭐 퇴비 많이 해라. 아주 그냥.

퇴비도 많이 했겠네요?

아이고, 그때 군수가 이재창 군수였어요. 이재창... 이재창 군수님이었어요. 근데 경기도지사 됐지요. 이재창씨가. 인자 그 뒤에 인자 서탄면 퇴비 증산을 시범허는 걸로, 아 근데 이제 시범허는데 우리 부락이 첫 부락이예요. 근데 면장은 인저 군수님이 우리 동네 퇴비 증산 견학 오신다는데 뭐 면장도 오고 산업계장도 오고 다 와요. 쭉 와 있는데, 아 우리 사람은 전부 퇴비가 없지 뭐여 그냥. 이장인데, 나 이장인데 그때 면에서 면장은 노냥 나와서 그냥 족치는 거여 그냥. 퇴비 많이 허라고 그냥, 퇴비 허라고. 그때 면직원들이 아침마다 와서 그냥 사는 거여. 퇴비 허라고. 우리 동네 사람은 안 해요 그냥. 아 그리고 인자 이재창 군수가 왔네 인제. 이재창 군수가 왔어 인제, 아침에. 근데 이장을 불르데. 면장이 "아 이장 일리 오라."고 그려, 갔죠. 인자 군수님한테 인사허고. 근데 군수님이 "아 이 부락에 퇴비 증산 구경허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우리 부락은요..." 이재천 군수한테 그랬죠 뭐. 퇴비는 없고. "우리 부락은 논전답이 전부 다 내 건너에 있다."고, "내 건너에 있다."고. 이 내 건너. "냇갈 건너 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해서 하등 집에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냇갈 건너 그 다 자기네 밭 뒤에다가 다 퇴비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께 군수가 보더니 "어 정말 그렇겠네." 그래가지고 면장이 계속 좇어와, 면장이 뒤에서 (부추기는 모션)

하하하. 말 잘한다고...?

응. 그래갖고 우리 동네에 그 퇴비 증산이 그 군수 앞에 괜찮았어요. 동네도 안 들어오고 그냥 갔어요. 동네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퇴비도 없는데. 이 면장이 뒤에서 (당시 면장의 흉내) (조덕상) 하하하.

하하하. 앞말이나 새말 같은 경우는 퇴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거기는 많이 하고요?

예. 또 황구지를 가니깐, 황구지가 그러니깐 이 서탄면에서 제일 퇴비가 많은 부락은 상을 줬어. 상. 황구지 같은 부락은, 황구지가 그때 퇴비 증산 1등 했는데, 거기서 저 저 퇴비 많이 했대. 그놈의 새끼들 혼 낫겄다. 퇴비 허느라고. 황구지, 그 동네에 많이 했더라고.

그때는 퇴비도 없고 비료도 귀해서 그 쌀이 많이 안 났죠?

그러니께 이게 양석, 한 마지기에 쌀 두 가마 나오면 잘 난다는 거요. 그러니께, 뭐 비료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땐 물도 귀했잖아요?
물도 귀했지요. 물도 귀했죠. 봇물이여 봇물.

보가 두 개 있었어요?
아 그러니께 보가, 우리 동네는 사리 앞에서 보를 막었어요. 인자 그 물이 이 동네 앞으로 해서 일로 흘려서 그 사리 앞으로 가고. 또 마두리는 동네 앞에서, 우리 동네 앞에서 막아서 마무리로 가고.

그건 마두리 쪽으로 가고요?
예. 또 회화리는 저, 저쪽에다 막았고. 회화리는 저쪽, 저쪽.

지금 회화리교회에 있는데 거기다 막았다고 그러던데...
예. 거다 막었어. 회화리보 막고 그랬어.

그건 회화리보고, 사리 앞에 막은 게 안보라고 그러나요?
안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막은 게 새보...?
말머리보, 말머리보라고 그러고.

마두리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큰 보가 4개가 있었네요?
내가 알기로 3개, 3개 있었어요.

여기 사리 앞에 저 안보.
안보.

여기 새보
마두리보, 새보.

아 이걸 마두리보라고 그랬어요?
예. 마무리보여, 마두리보.

여기 금암교 있는 데 막은 거요?

예. 인자 내가 웃긴 얘기 한번 할게요. 뭐든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아 천 년, 만 년 무너지지 않고 잘 보전하잖아요. 근데 보매기 헐 때 우리가 지게로 가, 지게로 보를 막는 거요. 막을 때...

흙 떠다가요?

흙도, 모래 파서. 막고설랑은 사람들이 뭐라고 허는고는 열흘 만에 한 번씩만 터지라는 거요. 보를 터지라고.

열흘 만에 한 번씩이요?

응. 열흘만에 한번, 보 한 번 터지라고. 고렇게 고사를 지내. 터지라고, 보 터지라고. 비가 와야 보가 터지지요. 그러니까 비 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종일 막고 '아이 열흘에 한 번씩만 터지시오. 열흘에 한 번씩만 터져. 하하하. 비가 와야 터지걸랑. 그려.

그러면 비 안 올 때는 봇물도 많이 말랐겠네요?

아 봇물 시원찮지요. 그러니께 이게 봇물이 쪼끔씩 내려가면, 이게 위에서부터 대개 말여, 쪼끔씩 노놔져. 쪼끔씩 노놔요.

노놔져요? 위에서부터?

예. 조금씩 노놔. 근데 이 노누면 어떤 수가 있는가 허는고이는, 이쪽 사람이 쪼끔 터놓고 이쪽 사람이 쪼끔 터놓고, 이쪽 사람이 쫌 터놓고, 근데 내가 보면 저쪽 새끼가 물을 더 많이 가져가네. 물을 많이 트네. 이렇게 되면 물고에다가 인자 잎을 띄워, 잎을 띄우면 물살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 인제 이파리가 물이 많으면 이파리가 빨리 내려가잖아요. 물이 천천히 내려가면 또 이 이파리 떼 놓고.

이파리를 또 하나 놓고

또 저 새끼 또 논에 이파리 놓고.

그 속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인자 이 이파리 속도를 보는 거요. "이 자식아 너 이 이파리, 물이 많이 내려가 너무 빨라. 이파리 빨리 내려가. 이 새끼야. 그래 또 막고... 밤새우는 거여. 밤새우는 거요.

밤새우는 거예요. 서로 물 확보하려고?

예. 인제 똑같이 해놓고서는 내가 집에 가면 이것이 딱 막아버리고서는 지 논에 댄다고. 그러면 내가 올 때 좀 터놓고. 그러니께 나도 앉아 있는 거여. 하루 종일.

그러면 다 같이 서로 앉아 있겠네요?

앉어있는 거죠 인저. 내가 비키면 그놈의 새끼 물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봄에는 그 봇물 가지면, 그 봇물로 모를 다 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물이, 뭐 논둑을 잘 맨들죠 그냥. 봄부터서, 봄부터 물을 잡아놓는 거요 그냥.

봄부터요?
비 오면 그냥 잡어놓는 거요. 모자라면 또 봇물 대고.

여기 오산천에는 물이 안 말랐잖아요?
또 오산 위에 자꾸 동네마다 막으니까 물이 시원찮아요. 물이.

그럼... 날이 가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가물 때는 냇갈 또 파는 거여. 다 이렇게 헤집어.

파가지고 발동기로 물을 보 쪽으로 퍼 올리는 거예요?
아이 우리 있을 때는 발동기로 못 펐어요. 그전에는 인제 발동기, 발동기 있는 사람이 퍼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돈을 1시간에 얼마씩.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인제 날이 가물어갖고 물이 안 내려오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그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고 하지는 않았어.

아 그 보 있을 때요?
응. 물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대로 농사를 지었다고.

저 밑에 쪽으로는 물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봇도랑 밑에 쪽으로, 저 아래 쪽에요?
조금씩 다 갔어요. 그래도 다 갔어요.

그 안보, 새보 이거 가지고 다 농사지었어요?
그러니께 이 안보는 몇 마지기, 누구네, 그 또 물이 헤푸면은 또 그 보에다 껴주질 않어. 아주 모래논 같은 논은.

아 그 보에서 안 껴준다고요?
안 껴줘. 안 껴주면 그 사람 물 못 대는 거요 그냥,

그럼 농사 못 짓겠네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허지. 인자 비 올 때 기다리는 거지 뭐... 그렇지요.

보는 언제 막았어요?
아 모심을 때 막는 거지요.

봄에 막는 거예요?
예. 봄에 막는 거죠. 봄에 막어가지고...

몇 월쯤에 막았어요?
그러게 인저 우리가 주로 이 6월, 한 5월 말경에 인자 모심잖아. 5월 말경. 인저 그때 안으로 막는 거죠.

여기는 이모작 안 했어요?
이모작 없었어요.

논에는 무조건 벼만 심고?
예. 무조건.

보리하고 밀은 밭에다 심고요?
예. 안 심었어요.

이모작 안 돼요. 여기?
글쎄 이모작을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 이모작 안 했어요

이모작 하면 추워서 벼가 익기 전에 서리를 맞아 버리나요?
아니죠. 근데 이게 딴 데는 이모작 한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면사무소 앞으로는 이모작 안 했어요. 못 봤어요.

이모작 하면 아무래도 식량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또 이모작 할 수도 없었어. 이모작 하게 되면 보리를 심어야 될 텐데, 보리 심으면 보리가 늦잖아요. 그게 인제 물을 댈 수가 없네. 물을 댈 수가 없어. 물이 없어서. 일단 모 심으면은 물 딱 끊어버리는 거요. 물. 못 심으면은. 모 안 심은 논 모 심기 위해서 그 다음 물을 주는 거요.

그러니까 모 심으면 그 다음 일단 물을 끊고, 모 안 심은 논 이렇게 쭉쭉 가고요?
그렇죠. 모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리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뭐. 물이 없어서.

보는 하루에 다 막았어요.
아 보 며칠 만에, 며칠씩 막는 거요.

뭐 한 열흘 걸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4~5일 정도요?
아니, 한 2~3일 정도. 그러니께 이게 인저...

그럼 흙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가마니에다가...
가마니가, 또 가마니가 어딨어요? 순전히가 다 모래, 그 바닥 파서 모래로 막는 거요.

가마니 속에다 모래 넣어서 쌓는 게 아니고요?
아니 가마가 아녀. 그냥 모래 져다 뚝을 모으는 거요. 그러니께 1년에 보쌀, 또 점심을 먹어야 되잖어요. 그니까 인자 1년에 논 한 마지기에 몇 되씩 보쌀을 받아요. 그 점심을 해 먹어야 해니께.

그건 보주가 받는 거죠?
아니지. 그 저, 그 보주가 딱 있어요. 보주가 받어가지고설람, 몇 가마씩 받아가지고 그걸로 점심 해 주는 거죠. 밥 해주는 거요.

보 막기 할 때?
예. 보 막기 할 때 밥 해주는 거요.

보주는 어떤 사람이 했어요?
보주는 내가 알기는 지금 우체국장 아버지, 송영철씨라고 그니가. 그게 관장이 있고 봇주가 있고 그래요.

보...?
보관장, 그 사람은 이 안보의 최고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안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각 부락마다 다 하나씩 있고, 책임자가 있고.

아 책임자가 있고요.
그러니깐 오늘 사리 앞에 보 막는데, 금암1리에서 몇 명, 금암2리에서 몇 명, 그렇게 딱 금암리 사람 몇 명 딱 불르죠, 오늘 몇 명 와라. 오늘 몇 명 와라.

논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아이 다 가는 거죠. 가는데, 한꺼번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필요한 사람만 불르는 거죠.

아 보관장이?
예. 그러면 인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이면 맞겠다.’ 허면 인자 금암1리에서 3명, 금암2리에서 3명, 금암3리 3명,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가는 사람들은 인제 논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다 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인제 점심을 얻어 먹고. 그런데 또 그것도 또 재미 난 것이 있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점심 한 끼만 주니까는 점심밥을 1인당 한 되씩, 한 되.

예?

1인당 점심 한 되, 쌀 한 되.

쌀 한 되?

예. 인자 10명이 허면 한 말 허는 거지. 밥을. 그러니께...

1인당 한 되를 먹어요?

응. 한 되 밥을 해. 그러니께 다 한 되 밥 먹는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인제...

쌀 한 되를 한다고요?

응. 1인당 한 되. 오늘 보맥이 10명이면 쌀 한 말 허는 거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응. 한 말 허면 인제 그 보 일가는 사람은 그냥 지게만 지고, 삽하고 지게만 지고 가는 거요. 그러면 그 가족이 밥그릇하고 김치하고 가지고 나가, 점심 나가는 거요.

아 그러니까 그 쌀로는 밥만 하고.

응. 밥만 하고.

그 가족이 인제 반찬을 가져가는 거죠? 그릇하고 반찬.

예.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자 우리 아버지가 일 나갔으면 인자 내가 점심 때 인자 밥그릇하고 김치하고 가져오는 거죠. 쌀 한 되 밥을 주면은 아버지가 쪼끔 먹고 밥을 가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먹을라고. 아버지 혼자 다 못 먹으니깐, 밥이, 밥이 많으니깐. 그러니깐 그 봇밥 내갈라고, 서로 내갈라고 그래요. 그 밥 얻어먹는 재미에. 하하하.

봇밥을 내 간다는 거는 보밥 인제 집에서 해가지고 그 보 있는 데까지 갈 때, 일하는 자리까지 갈 때?

그렇지요.

그거 아주머니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인자 그 사람을 또 정해. 밥을, 오늘 점심 해주는 사람 오늘 보 하루 나온 걸로 칭해.

그러니까 밥 해주는 것도 보 쌓는 거 하루 하는 걸로 그냥.

응. 하루 허는 걸로. 그러니께 노냥 부락에 봇주가, 봇관장이 노냥 명부가 있지.

예. 봇관장이 인제 가지고 있는.

오늘, 개똥이는 언제 나가고, 며칠 날 나가고, 며칠날 나가고...

근데 봇관장하고 봇주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책임자 하는 건 각 부락마다 한 사람씩 두고. 그러니께 이게, 그 안에 가래, 주로 가래가 많죠. 가래. 가래하고 인제 짊어지고 허는 거죠.보 막으로. 하하하. 그런데 또, 또 재미난 게 있어 또. 보 막이를 하는데 꾀가 많은 사람들은 모래를 조금씩 지고 댕기네. 모래를.

모래를 조금씩 지고 다닌다고요?

예. 꾀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미련헌 사람은 많이 지고 댕기고. 그러니께 ‘아 이렇게 허면 안 되겠다.’ 해서 담배, 그때는 담배가 엄청 귀하잖어. 담배를 한 댓 각을 사. 주인이, 봇주가. 그렇게 해가지고선 모래 잔뜩 진 놈은 다음 한 개 줘.

한 개피?

응. 한 개피 줘. 조금 진 놈은 안 주고. 그러니까 담배 한 개 더 탈라고 많이 짊어지면, 잔뜩 짊어지면 두 개 주고. 그러니까 담배 탈라고 또 잔뜩 짊어지지. 하하하.

어르신도 담배 타려고 잔뜩 짊어지셨겠는데요.

많이 짊어지지. 그렇죠. 원래 우리는 꾀가 없기 때문에 많이씩 졌는데, 그 담배를 타는 재미로. 그 힘 센 놈은 하루에 한 각도 타는 거지.

어르신도 한 갑 타셨어요?

아이 나도 많이 탔지요. 힘이 세서, 힘이 세서.

송준섭(남, 1951년생) 금암2리 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8월 29일
장 소	안말 소재 카페(커피썬)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서탄우체국장과 평택시의원 역임



금암리 연반계가 금암리 전체가, 1리, 2리, 3리가 같이 했어요?

아니죠.

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인제 예전에 아버님, 저희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에는 에... 금암 1리, 2리, 3리 이렇게, 세 동네가 한 동네로 해서 그때는 이장이 아니라 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장. 그니까 금암리 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장인데, 그런 분이 한 분을 했어. 세 동네를 합쳐서 구장. 지금은 인제 행정리로 나눠져서 금암1리, 2리, 3리 이장이 따로따로 있죠. 그때, 그때에 연반계가 같이 운영됐다 안 됐다는, 제가 기억이 고거는 없어요. 세 동네를 합해서 이장을 구장이라구 그래가지구 구장을 보셨어. 한 분이. 그래 아버님이 예전에 그 구장두 허셨다구, 말씀을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말씀을 전해 들었고. 뭐 인제 그랬죠. 인제 그러구 내가 기억으로는 인제 금암1리, 금암2리, 금암3리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장이 각 부락마다 행정리별로 있고, 연반계는 인제 그게 그 상계하고 같은 거죠. 상계. 연반계, 상계. 그니까 인제 부락의 상을 당했을 때, 말하자면 그 같이 뭐 그 당시에 인제 뭐 떡 해오는 사람두 있었고, 밥 해오는 사람두 있었고, 술 담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그, 그니까 잔치 때두 했는데. 그니까 그건 아닌데. 연반계는 아니야. 연반계는 그 상계고. 잔치 때두 그렇게 해구 그랬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건 인제 개인적으로 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했을 것 같으네. 혼계는, 혼계는 개인적으로 뭐 떡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해구 핸 거는 인제 했었고. 상계는, 연반계는 여 금암2리 부락, 금암3리, 금암1리 따루따루 있는 거로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마을별로?

마을별로. 행정리별로.

그러니까 부친께서 생존시에는 이걸 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 기억으로...?
그거를 기억을 지금 정확하게는...

마을별로 그냥 이게 조직이 됐다는...?
난 나이두 얼마 안 먹었는데, 일흔 인제 조금 넘었는데...

어르신 몇 년생이세요?
나 51년생이여. 그런데 인제 호적에는 52년생으로 되어 있고.

송씨가 여기 여산 송씨죠?
그렇죠. 여산 송가입니다.

무슨 파세요?
인제 여산송가 정가공파. 제가 27대손 섭자 항렬이죠. 27대손입니다.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몇 대...?
이제 대략 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한 15대 이상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사려가 돼요. 묘두 있고 이렇게 조상. 그럼 15대면 과거의 일대를 20년으로 보면 한 300년 역사가 되지 않을까. 조선시대 때, 그때서부터. 이게 원래 인제 그.... 거기가... 화성시... 아유, 이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네.

화성시에서 이쪽으로 이주하신 거예요?
그러시죠. 화성시, 거기가...

뭐 발안이나...?
아니... 조암. 조암인데 아니 그 면은 무슨 면이라고 그러나....

조암 쪽에서 이쪽으로?
응. 조암. 그렇죠.

조암에서 여기 금암리로.
그렇죠. 인제 거기서, 그 위에 인제 윗대 조상은 그쪽에 계시고, 묘가. 그런 거기서 이쪽으루 오셔서 인저 여기를 거주해서, 여기다 인제 집성촌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조상들의 산소는 어디 있습니까?
요기 다 금암리에. 금암리.

그 선산이 금암리인가요?

예. 금암리.

어디쯤 되죠? 거기가?
지금 금암3리에 있는데, 금암3리 선영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지금 파묘를 했어... 그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가까운 직계, 직계만 인제, 그니까 윗대 분들은 다 인제 그, 인제 뭐 그 집안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현재 파묘를 하고, 직계 그냥 뭐 부모님, 뭐 조부모님 정도, 윗대 맨 윗대 15대 나로부터 위에 그분들 쭉 내려오시던 분을 모셨다가, 자기 인제 전부 다 인제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예. 지손들이 갈라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까운 인제 부모님 그냥 조부모님 정도 이렇게...

그러면 어르신 기억으로...
그게 금년에, 금년에 봄에 파묘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 기억으로 가장 윗대 분이 몇 대 위셨어요? 여기 파묘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 제 위로 그러니까 27대인데, 뭐 한 11대나 12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 옛날에 벼슬도 좀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참봉을 허셨죠.

여기에 금암리에 송씨, 차씨, 조씨, 세 성씨...
예. 세 성씨가 집성촌을 이뤘죠.

그러면 이 성씨 중에 제일 오래된 성씨가 인제 서로 얘기가 될 거 아니예요? 어느 집안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이런 거는 없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확실히 어른들한테도 그런 말씀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성씨가 먼저 들어왔다. 그것까지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뭐 따져보지도 않았고, 그냥 세월이 흘렀네요.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 뭐 애경사고, 집안 뭐 이렇게 대소사시에 이렇게 만나뵙구 그러면, 뭐 그런 말씀을 묻는 사람도 없었구, 들어본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서로 뭐 비교하거나 이런 건 안 해보셨나 보네요?
그래 그래.

어르신 어렸을 때 여기 송씨가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아 뭐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한 20여 가구. 20여 가구 살았고, 인제 제가 어렸을 때 20여 가구가 살았지만, 그 당시 때 나 어렸을 때, 내 형님들 뭐 사춘 인제 뭐 당숙 다 이런 분들이 어려울 때니까, 인제 밖에로 많이들 나가셨죠. 그리고 사시기는 한 20여 가구 여기서 사셨고.

그분들은 주로 서울로 가셨나요?

주로 인제 서울로 제일 많이 갔다고 봐야죠. 인제 그리고 오산, 송탄으로 일부 가시고. 가까운. 뭐 그 당시에 다 뭐 농촌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어느 동네나...

그렇습니다. 인제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그때에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장자나 그중에 누구 한 분이 인제 부모님 여기서 누가 막내든 모시게 되구, 나머지는 뭐 어차피 생활 여건이 돼서 밖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우리나라 상황이었었죠. 배고팠던, 정말 보릿고개 시절.

어르신은 아버님 경제력이 어느 정도셨나요?

뭐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인제 아버님이 뭐 어떻게 됐든 지역에서 많은 일을 허셨어요. 제 기억으로도. 어떻게 됐든 뭐 아버님은 여기 왜정 시대 때 서탄 초등학교가 없고 진위보통학교를 여기서 걸어서 다니셨어. 그니까 우리 조부모님도 향학열이 대단히 높으셨던 거죠. 뭐 그 당시에. 여기서 그 진위보통학교를 걸어서 다니시고, 인제 그 후에 뭐 어쨌든 일제 강점기, 6.25 다 겪으시고. 또 6.25 때도 그 지역에 인제는 이런 청년활동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면 아버님이 그 6.25 때 이 면사무소 이런, 면사무소를 그때 뭐라고 그랬나? 그 이름이 있는데 잘 기억이 얼른 안 나네. 그 당시에. 그 좀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 뭐 다 아시지만 우리 그 동족끼리, 동족끼리 사상,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그 당시에 여기가 인제 다 공산주의 북한에 점령이 되고, 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아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동안에 여기서 활동하던 거 가서 고자질하고 뭐 등등등등 허면서, 인저 아버님이 청년 활동 뭐 이런 거 허시고 많이 그러시다 보니까 인제 그 고자질 하고 그래서 저녁에 잡혀가가지고, 뭐 세 차례 정도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냥 퉁퉁 부을 정도로

근데 초등학교 가서 보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인제 6.25 전쟁을 치르고, 치르면서 저희 제일 장형, 큰형님이 그 당시에는 서울의 그 고등학교가 5년제였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5년제. 그래 4학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4학년 때 형님이. 그래서 그 피난을 왔죠. 서울선 인제 고모님 댁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아버님이 그렇게 향학열이 높으셨어. 여기서 그 당시에 그렇게 간 사람이 없었어요. 서울로. 학교를.

형님하고 차이가, 연세 차이가 꽤 많네요?

차이가 꽤 많지요.

형님은 몇 년생이셨어요?

형님은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한 인 90 다 되셨을 거예요.

어르신하고 연세 차이가?

뭐 한 10 한 6년, 5년. 그런데 인제 그 말씀을 뭐 간단히 드려야 되는데, 피난을 내려왔는데, 1.4 후퇴 고 전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여기 점령을 해고 막내 작은아버지를 의용군으로 데려가야 된대는 거야. 우리 그 형제들 중에서. 그런 거를 막내 작은 아버지는 여기 계시라 그래고 형님이 자원을 해서 가셨어. 여기 피난 오셨다가.

막내 작은아버지 대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용군으로 나가셔서 인제 1.4 후퇴가 되구 뭐 등등 인제 다시 인제 휴전협정이 되고, 53년에 뭐 그러면서 북쪽으로 끌려가고, 생사를 모르는 거야. 의용군으로 나간 것만 아는 거지. 끌려다 게 아니고, 나간 거예요. 그 당시 때 강제로 끌어간 건데, 강제로 끌어간 건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그놈들이 허는 얘기는, 의용군에 입대한 걸로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형님은...?

지원한 거지.

그러니까 형님은 인제 작은아버지가 끌려가시니까?

그렇죠. 차출되게 됐으니까.

작은아버지 대신이라는 점에서 자원이지, 끌려간 건 강제라는 거죠?

간 거죠. 근데 인제 끌려간 것도 그 당시에 표현은, 의용군으로 걔네들이 강제로 끌고 간 건 아니라고 인제, 그놈들 표현은 그런 거야. 그니까 요 요 저기에서 한 명, 차출 차출 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도 몇 명이 갔어요.

몇 분이나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 한 뭐 6~7분. 그런데 그 후로 인제 휴전협정 되구 그러면서 생사를 모르다가, 그 남북 이산가족 뭐 허구 그래서, 그 안기부에 인제 좀 아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좀 해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생존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미 작고하셨고. 다. 그래 뭐 그 당시에 인제 어머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점을 보니까, 살어있다고. 살어있다고 인제 계속 그러셨고. 생사를 모르고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거들랑 그 옆에다 메 한 그릇 떠서 형님 메도 올려라." 아버님 말씀이.

메라는 게 밥, 멧밥 말씀하시는 거죠?

으 응. 그러니까 추석, 구성 때, 기제사가 아니라 명절 제사 때, 메래도 그 끝에다가 하나 국하고 이렇게 해라.

아 밥하고 국하고.

그렇죠. 그래서 몇 년을 지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돌아가신 후에. 아 그 인제 살아계신 지도 몰르고 한번 신청을 한 거야 안기부에. 몇 번을 했다가 아이 그게 북한에 살아계신 게 인제 이렇게 다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통보가 와서, 적십자사에서 통보가 와서 금강산 가서 이산 가족 상봉을 해서 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상봉 땐데, 마지막 상봉 때.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요?

한 뭐 지금 벌써 한...

10년 훨씬 넘었죠?

10년 넘었죠. 거의 14~15년 되지 않았을까? 14~15년.

어르신은 그 형님을 가시고 나서...

못 봤죠.

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인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후에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이 여기 우체국을, 1960년 초서부터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의 면 단위의 우체국의 별정우체국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했어요... 별정우체국도 대한민국의 면 단위의 우체국이 없었어요. 우리 평택시를 예를 들어서, 면 단위 하나도 없는데, 면 단위에 우체국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냐면 청북입니다.

평택 전체에서요?

평택 전체. 인제 송탄시 떨어져 나가기 전에 평택군 시절에, 평택군 시절에 평택군 송탄읍이죠. 60년도에 송탄읍이었는지, 송탄면이었는지, 고것까지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제가. 청북에는 왜 있었느냐 하면, 청북면에 체신청장님이 계셨어. 방청장님이라고, 방씨. 청북의 방씨들이 집성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체신청장님이 방청장님이신데, 이분이 청북 면 단위에 거기 우체국을 세운 거야. 아 그래도 내가 고향 가면, 내가 고향에 해줄 게 뭐야. 내가 청장인데. 그래 거기 우체국을 지었어요. 하나를. 땅을 사서 우체국을 만들었어. 일반 우체국이여. 그거는. 국가 예산을 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평택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면 단위의 유일하게 청북에만, 지금은 읍입니다만 그 당시에 면이죠. 청북에만 일반 우체국이 있고, 평택시에 나머지 면 단위는 다 별정우체국입니다. 그래서 별정우체국이 현재 6개가 있죠. 평택에.

예. 현재 6개요?

예. 서탄, 진위, 고덕, 팽성, 현덕, 포승. 여섯 군데 있어.

우체국도 만약에 수익이 일정 정도 안 나오면 민자고속도로처럼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그런 게 있나요?

인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조 해주는 거는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없었고요. 인제 수수료를 줬습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인제 우표를 팔아서 인제 몇 %를 수수료를 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수수료를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인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버님이 별정우체국을 1960, 제 기억으로 그 역사가 정확하게 60... 6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2년서부터 전국에 시작을 했는데, 관보에 계속 실리구 그래가지고 관보에 공고를 하고. 63년인지 4년인지 저희가 인제 우체국을 여기 개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때 그 우체국 국장으로서, 그 말하자면 여기 할 수 있느냐 인제 거기 조건이 뭐 그 지역에 뭐 독지가로서 뭐 그 지역에 무슨 뭐 지역 뭐 특성을 잘 알고 그 지역에 덕망이 높고 뭐 뭐 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재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조건이.

그게 뭐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 게 다 인제, 인제 충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국을 아버님이 허시고, 인제 아버님이 78년도, 그때는 정년이 70세였었어요. 옛날에. 70세 정년 해셨는데, 70세 정년을 허시면서 제가 승계를 받은 거죠.

그게 인제 1978년이에요?

제가 받은 게 78년에 받았고, 아버님이 64년으로 기억돼, 64년에 인제 초대 우체국장으로 인제 우체국을 개국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여기 농협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 농협 없을 때 저축도 여기서?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 저금 뭐 이런 거 다. 처음에 그때는 국가공무원이 직원이 배치가 됐어요. 한 분이. 국가에서 발령 내서 업무는 보고, 우체국장은 아버님이 별정우체국장을 하시고. 건물과 땅 이런 걸 다 별정국장이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1원도 없고. 책상서부터 집기류 모든 거 다. 인제 그렇게 해서 금고 까지도 사서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1원 한 푼도 국가의 지원은 없었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인제 우체국 차리니까 공무원 하나 배치하고?

그렇죠. 그러구 인제 국장은 봉급을, 그땐 봉급이 아니고 처음에는 수수료 제도였었고.

아 봉급이 아니고요?

예. 그러구 인제 그 후에, 78년도에 제가 승계를 받고 인제 서탄에, 서탄우체국에, 서탄에 전

화를 놨어요.

그게 몇 년에 놨어요?

아유 뭐, 뭐 그게 기억이 뭐, 그때 한 80 한 뭐 기억으로 한 80... 85년이 되지 않았을까. 85년.

아 85년쯤. 그때 전화가 자동 전화였나요?

자석식.

이렇게 돌려가지고...?

응. 교환대가 있고. 어 어. 그래서 제가 인제 우체국장이면서 그, 그것도 인제 뭐 체신청 다니면서 청장 뭐 관련되는 분들 로비하고 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렇게... 그래 제일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그 전화 대수도 많았고 제일 먼저 들어갔던 데가 팽성읍이에요. 팽성우체국. 그 미군 부대 때문에. 그때 팽성우체국에 제일 먼저 전화가 들어갔고, 뭐 들어오구 싶어도 전화 놓을 사람이 없는 거여. 비싸니까. 그렇죠. 백색 전화 있었던 시절이니까. 뭐 저희가는 백색 전화를 판매는 안 했고 별정우체국에서는. 일반국에서는 백색 전화두, 오늘이래두 신청해면, 그건 비쌌죠. 재산 목록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85년 이전에는 여기 서탄면에 전화...?

없었죠.

한 대도 없었어요?

없었죠. 면사무소 행정전화. 파출소 저기 그 뭐 그 비상전화 그것뿐이 더 없었죠.

파출소하고 면사무소만 있었고. 우체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교환대 있기 전에는 우체국에 전화 와서 걸고 다 됐죠. 시외 전화 우체국에 와서 신청하고, 창구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여기 교환대가 없을 때는 송탄우체국 교환이 나오죠. 여기서 돌리면. 그니까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해서 송탄 교환한테 해면은 교환이 인제 다 서울, 부산 어디 연결하면, 다시 전화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오면은 바꿔주고 전화 요금 받고. 그날 수입 처리하고.

그러면 그때는 마을에는 전화가 한 대도 없었고요?

없었지요.

85년 이전에는요?

그렇죠. 그 인제 85년도에 제가 인제 청약이라고 그러는데, 청약을 좀 그냥 안 하더라두 막 신청 좀 하라고 그랬어. 그 청약 대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돈 해서, 대납해서 이름만 빌려가지고, 우리가 전화 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청약 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놔달라고, 여기 교환대를 설치해 달라. (체신)청에. 이렇게 해서 그래도 거의

한 150대 이상 교환을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놓을 때요?

아니. 인제 처음에는 인제 30대, 30대 개통하고, 또 20대 추가로 받아서 50대 되고, 80대 되고 100대 되고 해서 한 150대까지. 그래서 교환대가 4개가 있었어요. 그니까 교환두 채용을 해서 인제 교환이 인제 교대 근무도 하구 이렇게 해서 넷이 바뀌고, 교환 안 나오면 내가 또 우체국장이 아니고 인제 교환으로 돼가지고 가서 코드 빼고 넣고 "네네. 네네. 몇 번." 몇 번이래는 걸 아니까. 그 트랩이 떨어지면 아 요거 5번에서 걸려오고, 요건 118번에서 걸려온 거. 그러면 118번에서 서울 뭐 몇 국에 몇 번. "기다리세요" 그러구 인제 받아가지구 인제 그 시외선이 인제 송탄 교환에서 또, 송탄에는 서울을 직접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서울 다이얼 번호를 안 줬어요. 별정우체국에. 그 당시에는. 댓수가 얼마 안 되는 데는. 팽성 같은 데는 서울 직접 걸 수 있는 회선을 하나를 주고 막 그랬어. 그 전화가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 전화를 가입자가 신청하면 자기네가 직접 서울 돌려서 금방 연결해주고. 우리는 그 직선이 없으니까 송탄 교환을 거쳐서 하니까 시간이 걸렸고. 인제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 요금의 60%를 줬어. 전화를 놓으면 인제 기본 요금 플러스 전화요금 해서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수납을 하는데 전화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의 60%를 수수료로 주고, 전화 요금에 그때 15%인가 수수료를 주고.

인제 추가 요금에 15%?

그니까 우편만 팔아갖고 수수료를 받아 먹구 그랬었으니까, 뭐 봉급은 안 주고. 그렇게 어렵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환대를 놓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팽성 같은 데는 원래 인구가 많고 전화 놓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최고, 어우 그러니까 가입자가 거기는 뭐 몇 백 되구 그러니까, 수수료 기본 요금의 60% 받구 그러니까 월 수입이 어우 뭐 그때 돈으로 무슨 뭐 한 400~500 되는 거야... 인제 그러던 시절에 그래도 내가 발로 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여기. 아 그러니까 인제 수입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국장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그러다가...

자동 전화 나오면...

자동전화가 되구 그러면서 인제 여기두 다이얼 전화루, 자석식에서 인제 뭐 이렇게 반자동식, 이렇게 이게 반 자동식이라구 그래. 이렇게 들면 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이얼 돌리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이게 완전 자동이고. 다이알. 이렇게 돌리지 않고 수화기 들면 교환 나오는 게 반자동식이라구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했어. 이렇게 탁 들면 아리따운 아가씨가 "예" 그러구. "어디로 드릴까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고걸, 반자동식보다는 자동, 이렇게 내가 직접 걸어서 금방 통화해는 게, 그걸 더 선호했어. 그래 몇 년도,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뭐 한 4~5년도 안 됐을 거야. 90년도 안 돼서 전화국이 떨어져 나갔어요. 체신부에서, 체신부에서 공사로, 전기통신공사로 떨

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옛날 전화국 직원이 다 우리 체신부 직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면 와서 인제 고쳐주기도 하구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그때는 여기가, 지금은, 여기 현재는 경인 체신청이에요. 현재 체신청이. 근데 뭐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소속이 서울 체신청에서 다 경기도 서울을 담당했다가, 또 수원 체신청으로 바뀌었다가, 또 경기 체신청으로 바뀌었다가, 또 지금은 경기도하고 인천허고 합해서 경인체신청으로 바뀌었어. 현재 수원 권선구에 있는데. 관할 청이. 그 체신청에서 시범적으루 평택시가 선정이 됐어요. 뭐가 선정이 됐느냐면, 평택시를 전체를 단일화, 권역화라고 그랬어요. 권역화. 단일화로 만들어서 시내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탄서 송탄도 시외야. 서탄서 평택 거는 것도 시외. 근데 이거를 권역화. 평택시 전체를 시내 권역이 돼버린 거야. 그걸 시범지역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니까 4~5년 그렇게 해서 기본 요금의 60% 그거 받고 좀 짬짬이 쪼금 챙길 만하니까, 광역화 해면서 다 뺏어가 버렸어. 전화가 광역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내전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평택두 시내 전화, 송탄도 시내전화. 다. 시범으로.

자동으로 안 되고요?

자동으로 바뀌면서.

그게 수입의 타격이 컸겠네요?

엄청 컸죠. 그 인제 그렇게 되면서 이 시범적으루 한 뭐 2~3년, 3~4년 수용, 그니까 그렇게 그냥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환들도 일반직으루 다 넘어가고. 별정직 공무원이었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으루 넘어가고. 아이 전기통신공사루, 참.

그니까 전화국으로.

전화국으루. 전화국으루 특채핸 거지. 그 자를 수는 없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아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인제 뭐 관리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택우체국 관리과장이라는 사람이 심사를 하고, 그 사람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통신공사루 넘어가는 것도. 현지에 있을 때는 자기, 관리과 자기가 책임지는 거구, 자기가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가점 주구. 안 되면 탈락할 수두 있구 그거. 그래서 또 우체국장으로서 내가 데리고 있던 교환이 전화국으루 넘어가줘야지 한 명이래두 잘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또 마음 아프죠.

그거 마음 아프죠. 안 되면. 그니까 또 그 관리과장 만나서 또, 그 또 그냥...

그때 교환 수가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때 네 명이었었나... 인제 저녁에는 인제 1명이 숙직을 하고, 그럼 그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하고, 인제 뭐 낮에 2명이 근무했나? 그리구 또 인제 한 명이 또 교대를 해구. 밤은 혼자 새니까. 숙직실에 1명 인저 1명 아니면 2명이 새고, 그 교환실에 거기서 자고, 인제 그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고. 인제 뭐 그런 식으루,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좋았던 시절도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그 후로 인제 별정우체국 쭉 운영하고. 다만 인제 인사권이 별정우체국장한테 있어서 직원을 별정우체국장이 채용을 했어요.

지금도...?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인사 제도가. 채용 그 인사. 인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인제 그 국장이 책임지고 인제 이렇게 채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인제 이미 인사권이... 국가가, 이 세상이 또 많이 바뀌고. 지금은 체신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직원 채용도.

별정우체국도요?

예. 공고하고.

어르신 퇴직하기 바로 전에 넘어간 건가요?

아니. 인제 한...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어르신은 언제까지 현직에 계셨죠?

그러니까 인제 퇴직한 지 뭐 한 5년 됩니다.

그러면 18년 퇴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제 67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좀 일찍 하셨네요?

아니, 그때는 정년이 67세예요. 제가 그 별정우체국장 발령받을 때, 그때가 정년이 70세에서 67세로 줄었어요.

78년에요?

예. 아니 인제 그전에 줄어서 제가 발령받을 때 67세, 그 후에 65세, 그 후에 62세. 지금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세로 됐습니다. 60세. 교육공무원은 안 그런데, 저 사립중고등학교도 안 그렇구요.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는 발령받으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계를 받았는데 60세 정년입니다.

요새는 인제 다 그렇게 통일...?

똑같이 평준화. 그러고 직원 채용도 체신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광고에 게재하고 공고하고 해서 전국에서 누구든지 응시를 하고, 다만 별정우체국장은 거기에 응시 면접관으루 들어가구. 인제 서류심사에서, 현재 그 인사제도가 뭐 지금 몇 년 사이로 바뀌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뭐 이런 공채,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서류 심사에서 6배수. 1명 뽑으면 6명. 6명 서류

심사 해서 선택을 해구, 면접관은 당해 별정국장, 청에서 한 분, 담당 그 뭐 국장, 과장 1명. 그 다음에 일반, 일반 뭐 인제 교수님이나 일반 인제, 그런 분들 해서 면접관 두 분 이. 네 분이 면접관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서류심사 면접해서 2배수, 두 명으루 압축을 합니다. 두 명으로 압축을 하면 최종 선택권은 당해 우체국장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우체국에서. 뭐 그렇게 인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께서 우체국 세우려고 했을 때 혹시 경합 같은 거 없었나요? 지역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았을 거 같은데?

경합은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허신다는 거는 뭐 세상천지가 다 아는 거고.

아 이 서탄면에서는.

그렇죠. 뭐 그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어쨌든 지역에서 인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주민자치를 실시했죠?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 당시 때는 시군 단위로 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탄면자치회에요. 자치. 자치위원, 면의원이죠. 그니까 면장을, 민선으로 면장을 선출하고, 면 의원을 선출하고.

2공화국 때 그러면 면의원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당시에 면의원이, 서탄면의원이 제 기억으로... 지금 그게 평택시에 시의회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거 확인을 했었거든요. 시의원 하면서, 내가 2대, 3대 의원을 했는데. 평택시의원 시의원을.

아 시의원 2대, 3대 지내셨어요?

2대, 3대. 의원을 하면서 초대 그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각 읍면동 그 면의원, 동의원 그 허셨던 그 명단도, 평택시에 명단이 있어요. 이게 아버님이 면의원을 하셨고. 인제 계속 그 뭐 처음에 우체국 신청하고 그럴 때, 그런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누구하고 경합되고 뭐, 제가 그 때는 좀 어렸으니까. 근데 경합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없었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자 철자십니다. 초대 국장이시죠.

그러면 그 아버님은 우체국 하시기 전에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한 일은 안 하셨고, 뭐 농업에 종사하셨어요. 농업에 종사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의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금암1리, 2리, 3리 뭐 구장도 하셨고. 세 동네 합해서. 예전에 인제 제가 인제 그 들은 거죠. 좀 어렸으니까. 인제 그 후로 뭐 서탄 청년 단장두 뭐 그런 것도 하셨다고 그러구. 제가 기억나는 거로, 여기 이 벌판이 수리 조합이 없었어요. 수리 조합이 없었고,

농지 정리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 오산천을, 오산천을 보를 막아서, 보를 막아서, 수로 그 하천을 막아서, 그 봇도랑으로 해서. 보라고 그랬죠. 보.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물줄기를 해서 여기 논에 이렇게 물을 대구 그랬어요. 그 농지정리 안 됐던 시절에. 그 인제 그 해마다 그 보 막는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하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는데. 그 책임자도 하셨어요. 오랫동안.

봇주.

봇주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내 기억으로. 뭐 그 오랫동안 그것도 한 10여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그냥 또 뭐 이 음성도 고우시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참 그러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 다 저쪽 금암리 입구 오산천이 있는 데, 지금 여기서 가시다 보면 이 다리 있고, 오산. 그 저 다리 있고 사리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고 사리로 들어가는 데 조금 위에, 거기를 보를 막았었거든요. 지금 고기에, 고기가 수리 조합이에요. 저 땅속으로, 땅속으로 고 진위면 저쪽 야막리 있는 데서 그게 수로인데, 거기를 막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따라간 거야.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인제, 여기서 인제, 동네에서 뭐 어머니, 우리 집에서 밥을 다 했어. 고 먹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한 게 아니고 인제 거기 여기 농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동네 사람 거의 다 와서, 아주머니들 한 20~30명 뭐 그냥 밥을 해서 여기서 여서 거길 가는 거야. 거기서 그거 하천, 그때는 소하고 이거 저 뭐라 그래? 또 이름. 가래라고 그러나? 이렇게 둘이서 양쪽에서 몇 사람이...

예. 가래요.

그 가래쟁이 하나 이거. 그런 걸로 해서. 그리고 인저 저 이런 합판 같은 거, 합판 같은 거 해서 끈 이렇게 매가지고 소로다 이렇게 해서 모래 긁어서 모아야 되니까. 뚝을 쌓아야 되니까. 장비가 없었잖아. 그거 외에는. 그럼 인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 되니까, 그 밥을 해서 그 말르고 그냥 다 해서. 그 인제 우리는 가서 일을 핸 게 아니고, 따라가서 뭐 얻어먹고 그거 구경한 거지.

그러면 그때 보를 쌀 때 그 흙을 모아서 쌓잖아요.

그 모래죠. 거기에 하천 모래.

그걸 가마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두... 뭐 얼른 기억은 안나. 안나는데 뭐 가마니에 넣었겠죠. 가마니에도 좀 넣고, 그렇지 않으면 터져 나가고 많이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수로 이렇게 마을 앞에 지나가는 수로 있잖아요. 그게 옛날 보도랑인가요?

인제 봇도랑이...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봇도랑이 와서, 이 논에, 농지 정리 되기 전에 봇도랑이 두세 개 이렇게 있었어요. 이 평야가 크니까. 거기 하천에서 오는 거는 하나였었고. 오다가 금암1리 앞에 인제 여기 논이 정리가 되면서 여기가 하나로 와갖고, 이렇게 보도랑이 이렇게 있었어. 3개, 3개 정도?

(지도를 보며) 이걸 안보라고 했나요?

안보, 그렇죠. 안보. 그 아주 그런 기억도 아시네. 그래, 안보 막고 그랬어요. 그게 인제 또뭐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또 이렇게 인제 뭐 일부 훼손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거 보완해러 또 하고. 농사짓기 전에는 항상 보 또 막아서 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다 천수답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산 밑으로 해서 지금, 지금 수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길 옆으로. 그렇게 와서, 여기쯤 와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농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뭐 일부는 인제 요렇게 가다가 인제 요렇게 일부 뭐 그렇게 기억이 제가 나고. 가운데로 하나는 보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예. 도랑이요.

응. 그 인제 선생님도 아시지만 역사책에 평택 평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택평야가 서탄, 진위 이 들, 그다음에 오성들, 팽성들, 이거 합해서가 평택평야 아닙니까.

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탄초등학교의 비석 있잖아요. 그 비석은 그게 6.25 때 희생된 분들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 어떤 분들이에요?

글쎄, 그거는.... 아 정확히는 나도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냥 왜 순직을 해서 뭐, 뭘 해서 순직해구 그걸 순직비로 해놨는지. 그게 그 파출소 옆에 농협 앞에 있었거든요.

신작로가 이렇게 처음 포장된 건 언제였어요? 옛날에는 이게 마차길 정도 넓이였나요?

마차길이었었죠.

그게 인제 포장된 건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시의원 할 때 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포장할 때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완전히 흙길이었었어요?

그렇죠 뭐. 저...

시멘트 포장도 안 되고요?

아 뭐 시멘트 포장 아니고 자갈 포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갈, 모래. 새마을사업으로 뭐 하천에 가서 모래 파다가, 뭐 자갈 파다가, 장마지고 나구 추석 전이면 뭐 길가의 옆에, 길 옆에 뭐 방송에서 저 죄 나오라고 그래서 풀 베고, 주위 청소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그러고. 하천에 가서 소마차 뭐 다 끌고 가서 그거 해서, 그때 트랙터 이렇게 있는 사람은 트랙터 좀 갖고 나오고. 그

러면 그거 해서 길 보수두 좀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도 인제 길이 그렇게 보수를 자주 하고. 그때는 뭐 군에서 해주고 그럴 돈도 없었고. 거의 뭐 새마을사업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또 그리구...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인제 그 옛날 얘기구. 여기서 서탄입구까지 걸어서 나는 오산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오산 중학교 때는 걸어 다녔고.

서탄 입구로 해서 걸어가 다니셨어요?
아니, 직접. 직선 거리로 걸어갔고.

가실 때, 오산중학교 가시는 길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금암리에서, 수월암1리.

금암리에서 이 고개, 고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고개 넘어가죠.

이 고개, 해나무 고개라고 그러나요?
해나무는 요기고. 거기는 인제 수월암1리 공동묘지 고개라고 그랬어. 공동묘지 고개. 거기.

거기가 거르미 고개인가요?
걸르미 고개. 거르미 고개. 수월암리라구 안 그랬고, 거리미라고 그래서 거리미 고개.

그러면 여기 체육공원 있는 데 가는 데...
예. 글루 갔습니다.

글로 해서...
뭐 글루 다니는 사람도 있었구, 저는 하천, 저 금암2리 저수지.

안말 저수지.
안말 저수지. 그 길루 저는 다녔어. 이 동네에선.

안말 저수지요?
그렇죠. 인제 그렇게 넘어가면 그게 바로 인제 거리미 고개 나오는 거니까. 저수지 위 넘어서, 거리미 고개 넘어서, 인제 그다음에 인제 그 앞으로...

여기가 수월암1리죠?
수월암1리. 인제 돌산 앞으루 해서. 그 인제 수월암1리 동네 지나면은, 지나서 사리루 이렇게 돌 때 거기 돌산이었어요. 옛날 돌, 석산 채취하고 하던 뭐, 돌산 지나서 인제...

사리로?

아니 인제 저기로 가는 거죠. 지금은 오산읍 저 두곡리. 두곡리 앞, 저 두곡리, 탑리 앞으루. 두곡리, 탑리 앞으로 해서 그 오산천 제방 타고 남천 다리루 해서 오산 중고등학교, 남천다리에서 오산 중고등학교가 한 400m 되니까.

남천 다리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녔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뭐 잰걸음으로 가고 그러면은 1시간? 1시간 뭐 20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중학교 때 걸어다녔고 고등학교 때 서탄입구까지 걸어가서, 겉멋이 들어서 서탄입구까지 걸어가서, 서탄입구에서 (버스 타고) 오산 시장에서, 오산시장에서 내려서 다시 거길 또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버스비 3원.

아 이때 버스비 3원이요?

예. 서탄입구에서 오산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서탄입구 걸어가야죠. 그러면 그것도 한 30분. 또 오산시장이 내려서 또 오산, 지금 전문대학교가 오산중고등학교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것도 또 한 2~30분. 차라리 돈 안 버리고 3원 안 내버리구 일로 걸어서 10분 더 가면 될 거를... 한 10분 정도 빠를까 뭐. 그런데 완행버스가 서탄입구 스는 게 30분에 한 대씩이었어요. 버스 하나 놓치면 단골 지각생.

하나 놓치면?

그렇잖아. 30분 후니까.

지각 많이 하셨겠네요?

지각 좀 여러 번 해서, 초등학교 때는 개근상 6년 개근상 탔는데, 요기니까. 근데 개근상 못 탔습니다.

여기가 오산장 가는 길도 보통 이렇게 가죠. 여기 여기 거리미 고개로?

오산장 가는 거리미로 해서 지금 아까 그 길로 해서 남천다리 건너서 가는 게 오산장길이죠.

아 이게 오산장길하고 똑 같은 거죠?

장길하고 거의 뭐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20리 정도 되나요? 8km 정도?

어르신들 20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오산도 20리, 송탄도 20리. 근데 예전에는 여기는 다 생활, 여기가 생활 공간이 오산이었었어요. 요기 인제 금암1리도 그렇구 금암1리 뭐 아예 송탄으루 가는 차가 없고, 오산으루 가는 차도 없었죠. 그러니까 3·8 오산장을 다 보셨고. 3일, 8일. 그러니까 금암리로 해서, 여기 마두리 뭐 다죠. 뭐 마두리, 내천리, 수월암리, 다 오산이에요. 그

러구 회화리. 회화리도 오산장을 봤는데, 일부는 그 하천을 건너서 구장터 지나서, 구장터라고 그랬죠 거기. 옛날 신장리도 여기 저 지금 철거가 됐죠. 미군 기지로 수용되면서. 구장터 건너서 이렇게 일부들은 다녔고.

송탄으로요?

예. 송탄으로. 그래 회화리 사람들이 효명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고 태광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있어요. 졸업생들이. 그러구 이쪽, 이쪽 금암1리서부터, 금암1리, 금암3리, 마두리, 수월암리, 내천리 이쪽은 다 거의가 그 당시에 오산중고등학교. 그리구 인제, 조금 인제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 인제 그때, 우리 때 다닐 때 진위가 있었. 그때 막 생겼었어요. 진위. 고등학교는 없었구 중학교가. 진위 중학교 몇 명 나온 사람 있었고. 그리구 인제 효명보다 태광이 먼저 생겼나 그렇게...

효명이 먼저 생기지 않았나요?

효명이 먼저 생겼나요? 그니까 인제 회화리에 저희 친구도 효명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효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역사가. 고때 막 생겼고. 인제 오산은 그래도 오랫동안 인제 전통이 좀 있었고. 그러구 어떻게 됐든 생활 여건이 거의 오산이었었어요. 이쪽 서탄은 다. 그래서 인제 뭐 한 10년 전, 15년 20년 25년 전 뭐 오산시 편입, 진위천변을 중심으루 해서 진위·서탄을 오산권으로. 오산시로 뭐 행정 변경하자. 오산시에서 뭐 하신 분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그랬었어.

그때 갈곶리 넘어가고 그럴 때요?

뭐 그럴 무렵에 뭐 일부...

이 길 포장될 때, 어르신 시의원하실 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2대, 3대 의원 하면서 2차선으로 여기 확장하고, 고 도로가에, 지금 저쪽으로 저...

초등학교 앞쪽으로.

아니, 인제 저 길 건너 쪽으로 가옥이 여러 가구가 많이 좀 살았어요. 그분들이 뭐, 뭐 별 악담을 다 했죠.

철거 한다고? 인제 길 넓히니까요?

그렇죠. 다 보상 주고 다 했는데. 자기 땅이 얼마 안 되고, 수리 조합 그 공유지 일부 둑 그런 것까지 다 깔고 앉었었던 거지. 저희 땅은 100평이면 깔고 앉았던 땅이 뭐 한 200평도 넘죠. 그 수리조합, 그 물만 흘러가는 데만 놔두구 그거 다 정리해 있으니까. 그 수리조합 이 법령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리조합 땅인데, 이걸 흙을 다 메꿔서 이 물 흘러가는 데만 놔두구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다 정리했고, 저희 땅은 이것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살고 그랬었는데 몇십 년을. 아 이거를 다 헐어버리는데 아니 그 수리조합 땅 보상 줍니까? 안 주죠.

거기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뭐 그래도 거기 한 일곱 가구, 여덟 가구 살지 않았을까.

가게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던데요?

가게도 있고 뭐 뭐 뭐 여러 가지 많이 다 등등. 미장원도 있었고 뭐 식당도 있었고, 술집도 있었고, 뭐 철물 저, 저기 자전거포도 있었고, 일반 주택도 있었고, 소도 기르는 놈 있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 닭도 기르는 사람두 있었고.

그게 몇 년도였어요. 거기 이렇게 확장해서 포장한 게?

아...

시의원을 그러니까 8년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2014년도, 2014년도에 의원이 되고 2022년도에 인제 그만뒀으니까.

2014년도에요?

응. 2014년도에 2대의원으로 평택시 인제 근무하고 일을 했고. 그 또 4년 후 해서 22년도에, 봉직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뭐 한 2년, 그러니까...

16년쯤?

16년... 16년쯤. 16년쯤 뭐 계획 세우고 도시계획 세우고 보상 주고 뭐 그러면서 뭐 한 18년, 17년 그때.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게 전혀 포장이 안 됐었어요? 이때쯤이면 농로길도 포장될 땐데요?

글쎄 뭐 일부 세면 포장이... 된 거... 됐겠죠.

그러면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는 아니고.

여기 버스는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그때 그거 허면서 인제 교량도 넓힌 거고. 여기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는 다리가 2층 다리였었어요.

다리, 금암교요?

금암교. 금암교가 그 왜정 시대 때 놨어요. 다리를. 기존 하천 원골에, 하천 물골 원골에 요만큼을 놨어요. 밑에 교각이 전나무인가 그... 그... 이렇게 시커멓게 칠한...

예. 꺼먹다리.

꺼먹다리. 꺼먹다리라구도 말씀 들었죠?

예 예.
꺼먹다리는 고 앞에 다리고. 그 저 진위면서 내려오는 수리조합 배수로 똘.

아 창갈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그렇죠. 창갈천 내려오는 거. 그니까 여기서 나가다 보면 큰 다리 지나서 조금 가다가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걸 꺼먹다리라고 그랬어.

아 창갈천이요?
응. 그랬고 고거 말고 인제 이 오산천, 그거는 회사다리라고 그랬어. 그때 이름을 왜 그랬는지 몰라.

회사다리요?
응. 꺼먹다리, 회사다리.

회사다리는 그러면 시멘트로 된 거예요?
현재 긴 거. 아 인제 그게 그 조그마한 게 원골에, 원 물 내려가는 데가 깊은 데 아니여? 따지면. 하천 중에. 원골에 이만큼 다리를 놨어요. 그게 교각두 전주였었어요.

교각도 전주요?
아니 교각이 아니라, 그 밑에 뭐 받침, 세우고 하는 거.

그걸 전주로 했었어요?
예 예. 내 기억이.

시멘트 전주요?
아.니 까만 거 하고...

아 나무 전주로?
응. 꺼먹다리처럼. 그래구, 그래구 인제 자꾸만 장마가 심해. 그리고 여기(다리 양 옆)는 인제 흙으루 됐던 거 아니에요. 요만큼은 그런 거구. 원골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천인데, 이게 다. 원골에 요만큼이 고렇게 됐고. 비가 많이 오구 그러니까 이 둑이 자꾸만 무너질 수밖에. 무너지니까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다리를 다시 놨어요. 추가로. 추가로 놨는데, 2층 다리야. 여기는 얕고 춤이 이렇게 됐다면 춤이 얕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높여서 핸 거죠. 말하자면. 그래 2층 다리를 했어. 회사 다리가 2층, 추가로 놓는 게 높이 놓는 바람에. 그때 뭐 사진 같은 거는 없네. 회사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하천 부지가 이만큼인데, 여기 물 흐르는 데 이만큼만 놓고 나머지는 둑으로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근데 인제 큰 장마 지지, 그러면 둑이 터져. 자꾸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인제 뭐 누구야 국회의원 이윤영씨 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 다리 놔달라고 그러구 뭐 하구 등등등 해서 이거를 추가로 더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옛날 다리가 있고, 여기 새로 난 다리가 이렇게 높게 된 거?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응 응. 그 회사다리가 2층 다리였었어. 인제 그거를 없애고 이거 도로 개설하고 그러면서 지금 다리로 인제 교각을 다시 만들은 거지.

그때 인제 어르신 시의원 하실 때?

으 응.

그러면 요 다리(2층 다리)는 이윤용 국회의원 할 때예요?

뭐, 뭐 그때 국회의원 핸 사람이 한두 분이예요? 기억은 얼른 못 하는데, 뭐 최영희 땐지 뭐 이윤영씨인지 무슨 뭐 유치송씨인지. 뭐 기억나는 거는 국회의원들 다, 그때 인제 평택군이니까 평택군에 한 분이셨잖아.

아까 교각이 나무 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판은 시멘트였나요?

상판은 시멘트.

그 넓이가 마차 한 대 들어올 정도 됐나요? 아니면 이때 차 들어왔어요? 여기?

차 들어왔죠.

그러면 차도 이렇게 다니고요?

그러니까 교행 같은 거는 안 됐고, 도라쿠(트럭) 큰 차 하나는 그냥 지나왔으니까. 내 기억으로. 교행은 안 됐고.

그럼 여기 이렇게 됐겠네요. 여기 시멘트 다리가 있고, 여기 또 둑 쌓은 다음에 여기 또 다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여기는 또 흙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멘으로.

시멘트로요?

그렇죠.

아 시멘트로 이렇게 다리 자체를 아예 붙여서?

그렇죠. 붙여서. 회사다리가 2층 다리였었어요.

회사다리요. 다리 이름이 재밌는데요.

79년도, 79년도에 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안식구가 서울에서 여기를 오는데, 서울 사람을 데리

고 오는데, 송탄서 버스 타고 와서 송탄서 서탄 입구까지 오면 내가 서탄 입구까지 가면 서탄 입구서 걸어오는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79년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그럼요. 으 으.

서울에서?
아니 그러니까 서탄 입구에서 여기를 걸어 들어오는데, 비가 오면, 비포장이었으니까 그냥 신발 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랬어.

여기 새마을사업할 때는 기억나세요?
뭐 새마을사업 대략 기억나죠

이 동네에 새마을사업 전에 기와집이 몇 집 정도나 됐어요?
그래도 기와집, 뭐 기와집이 뭐... 조씨네 한두 집, 우리 송가네가 그래도 한 7~8집 있지 않았나?... 뭐 그러구... 그러구...

여기 차씨네도 있고...
차씨네는 거의 뭐 그런 게 없고. 기와집 집 짓고 살았던, 그 당시에 없고.

임광래 교장 선생님네도...?
임광래 선생님네가 그 당시 때 함석집. 함석두 그거, 내 기억으루 함석집이야.

지금 현재 사시는 집이요?
응. 그렇죠. 그렇게 기억이 나.

그러면... 지붕 개량부터 시작했나요? 길 넓히기부터 했나요?
지금... 새마을사업은 안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으루.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글쎄 뭐 일부 뭐, 뭐, 정부 그때 뭐, 우리는 뭐 기와집이니까 뭐 그런 거 뭐 상관없는데, 내 기억으로는 얼른 나지는 않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지붕 개량한다구 그러구 뭐, 스레트 이렇게 해주구 그랬던 생각은 잘 안 나요. 새마을사업으로 길 보수 같은 거 뭐 하고, 새마을사업으로 동네 길 넓히구 한 거는 기억이 나. 사유지 저 보상도 없이 그냥 주인한테 그냥 그 동네 이장 보고 뭐 연반계장, 노인회장 그 당시에 인저 뭐 그 동네에 좀 이렇게 나잇살 잡수신 분이 땅 주인한테 가서, 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그럼 뭐 거의 반은 강제고 반은 설득이고 뭐 뭐, 그 당시에 뭐 보상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뭐...

보상의 개념이 없었죠?
개념두 없었고. 어른한테, 어른이 뭐라고 그래니까 "그러세요 그럼" 뭐, 아유 그냥 찝찝해두

그냥 그냥 인상 쓰면서 “에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뭐, 가령 인제 예를 들면 그러구. 인제 이렇게 우마차래두 다닐 수 있게, 사람 이렇게 겨우 다니구 지게나 지구 다니던 길, 새끼줄 띠워서 저쪽, 저쪽에 이렇게 길 넓은 데 하구 고거 맞춰서 핼래니까, 우마차가 다니게. 그러니까 새끼 줄 띠워서 저기다 새끼 줄 요만큼, 요렇게 그냥 요렇게 길로 쓰는 걸로. 동네루 해서 좀 그냥 또 그러면 에유~ 내 부모님 여기 살아계시구 또 그럼 동네 사람이 또 장사도 치러줘야 되구. 그때는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냥. 또 그러구 또 괜히 미움 찍히구 뭐 하구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시절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동네 마을 안길은 많이 넓혔어요. 많이 넓히고.

시멘트 포장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선, 우선은 뭐 흙으로 했죠. 저 하천에서 흙 갖다가 이렇게 했고. 그 후로 인제 뭐 그 후로, 새마을 포장 뭐 포장은 뭐. 그때는 길 확장하는 게 우선이었었고, 그러고 인제 사람이 다녔고, 다닌 후에 인제 인제 해마다 인제 조금씩 조금씩 인제 세면 포장했고. 그렇게 새마을사업이 흘러왔고. 뭐... 새마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든 평택 군에서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됐든 뭐 서탄면 담당이 하계철, 요거보담은 조금 이른 때죠. 한 뭐 7월 말, 요때쯤 독려 와가지고 매일, 뭐 한 달 내내, 1년 내내 살다시피 했죠. 서탄면 담당 직원이.

면사무소 담당이요?

아니, 인제 군에서 1명이, 서탄면 담당이 와서 뭐 볍씨 담그는 거서부터, 종자 소독서부터, 종자 소독 안 하구 또 종자도 또 심으래는 거 심어야 되고. 통일벼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뭐 뭐, 예를 들어서 통일벼를 심으라구 했는데 악기바라리를 심구 그러면, 몰래 심구 그러면, 와서 그거 볍씨 종자 소독할라고 담가놓은 거 엎으기두 하고,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퇴비 증산. 때되면 또 풀 벼서 퇴비 증산해라구 그래서 집집마다 이 저 깃대 줘가지구, 깃대에 몇 센치, 몇 센치에서 몇 센치까지. 그러면은 소 길르구 다 하던 사람은 외양간에 두엄 거기 갖다 붓고 해서 그 높였지만, 그 힘들구 뭐 한 사람, 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있는 집이죠. 있는 집에서는 안에다가 짚을 쌓는 거야. 그러구 겉에만 풀루다 요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구, 몇 미터까지 했다구 그러구 뭐. 뭐 또 퇴비 1등 해서 사진 찍어서 또 뭐 상두 주는 사람도 있었구 받는 사람 있고. 퇴비 증산 그때 했고. 뭐 통일벼 심으라고 식량 증산도 독려도 했고... 뭐 그런 것두 잘하는 부락은 또 새마을 뭐 우수부락이라고 그래서 또 안길 포장두 좀 더 해줬고.

여기는 우수 부락으로 선정된 적은...?

우수 부락 거의 못했고... 평택군에 그때. 그래 사리가 우수 부락이었었어요. 그래서 평택군 또 시범 우수부락, 새마을사업. 또 경기도 시범부락.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뭐 총리나 무슨 뭐, 뭐 핸 사람들, 우리나라 장차관 이런 사람들 뭐, 외국 원수까지는 안 왔다 갔어두 거기 뭐 등등 올 때면은 뭐 도로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거기 뭐 아주 대단한 동네였었어요. 근데 금암 2리는 우수 부락까지는 안 들어갔어. 그리고 인제 면 소재지 부락이다 보니까, 인제 지금은 뭐 거의 인제 사라져 갑니다. 사라져 가는데, 농악을 그렇게 잘 놀았어. 농악, 아주 뭐... 이 저 긴머리, 차종만씨가, 그... 그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모자, 이거 돌리는 사람을?

상모.

상모. 법구재비, 상모. 근데 이 차종만 씨가 왜 긴 거 있잖아?

예. 상모 긴 거요.

상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기서 도는 게 아니라, 이 모자만 이렇게 돼갖고...

12발 상모.

12발 상몬가? 햐~ 누워서도 해구 이렇게 뒹굴면서도 해, 그거 돌리신 분이야. 대단하셨어. 그 기운이 좋으셨어. 인제 어찌 됐든 여기 상쇠서부터 뭐 장구, 북 뭐, 어떻게 됐든 농악이 성행이 돼서 추석 때, 구정 때 집집마다, 우리 때두 그 오면 뭐 집집마다, 우리 집은 단골이지. 있는 집만 가는 거야. 없는 집 가면 줄 게 없으니까. 있는 집 가서 뭐 금년에 풍년 들으라구 그러구. 뭐 우물에 가서 물 잘 나오라고, 또 두들겨 드리고, 그렇게 하고. 복 받으시라고 축원해주고 그러면 술상에 그냥 또 그 술에 고기에 밥에 또 이렇게 해서 대접하고.

고사반 내주고 이런 것도. 쌀 한 말 이렇게 받쳐놓고 상에다가. 그거 기억나세요?

뭐 쌀 같은 거 그렇게 고사.... 그런, 그렇게 행사는 안 했어. 그렇게 행사는 안 하고 집집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당나무가 있어서 지금 임광래 선생님의 사유지인데 그게. 그 뒤에 그 고목 있잖아요? 소나무 고송. 그게 당나무야. 당제사를 그래서 해마다 인제 구정 전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손 없는 사람이 또 제관으로 돼가지고, 인제 동네 대동해 해기 전에 인제 가서 그렇게 해서 제를 올리고. 그 제 올린 음식 갖고 또 동네 대동회, 회를 해서 또 이렇게 먹구 그랬어요. 근데 인제 그 당제사도 다 인제 지금 뭐 사라져 갔고. 동네 한가운데 또 우물도 있었는데, 그 인제 당우물이라고 그래서, 샘물들을 다 그거 길어다 먹고 그랬었는데, 식수로. 뭐 저희 집 같은 데는 지하수가 있어서 펌프 다 있었지만, 인제 없는 집이 거의 다니까, 인제 그걸 길어다 먹고, 제사 지내기 전에 그 당우물에 전부 다 물을 퍼서 깨끗하게 했고 그 주위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당제사를 지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인제 당제사, 당우물, 이런 것이 다 인제

당제 할 때 제물은 뭘 썼어요?

제물, 저는 그 자리에는 안 갔는데, 인제 들은 얘기인데, 뭐 어쨌든 소머리. 거의 쓴 게 소머리.

명절날은 소도 잡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추석 때?

그렇죠. 인제 그거는 제사를 지낼려고 한 게 아니고, 인제 소, 돼지 인제 뭐 이런 거를 도축을 해서 인제 동네에서 인제 그때 동네 돈으로 핸 건지, 동네 몇 사람이 한 건지는 그것까지는 몰라. 고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소 두 마리 사서 그러면 "나도 두 근 주시오.", "한 근 주시오.", "세 근 주시오." 전부다 그러면 외상으로, 돈 주고 사먹는 사람도 있지만, 외상으로 줬다가 언제 보름 전까지 다 갖고 오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을, 그 돈을 뭐 동네 돈으로 핸 건지, 몇 사람 독지가로 한 건지 고것까지는 나두... 몰라.

우체국은 처음부터 그 자리였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금 철물점 자리가, 인제 지금 현재 철물점.

도로가에요?
예. 도로가에, 요기.

한 군데 있잖아요? 철물점.
예. 거기, 거기가 인제 우체국 처음에 있었고. 거기서 개국했다가, 인저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아 그때...?
응.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우체국 면적이 줄어들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이전을 해라구 그래서 이쪽으루. 인제 그 처분을 하고 이쪽에루 이전을 해서... 74년도에 졌나요.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아버님 우체국장 하실 때.

아니 도로 확장이... 아까 어르신 시의원 할 때?
아니. 그니까...

그럼 그게 그전에도 한번 확장이 된 거예요?
아 일부. 신작로. 신작로가 확장이 됐던 거지.

그러면 이게 1974년이요?
내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1974년에 그럼 그 신작로가 저기 서탄 입구에서 여기까지 확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요 앞에만?
전부 다 조금씩 됐을 거예요. 그때는 주택 헐구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지금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74년도에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 확장이 돼서 안 되니까, 지금 자리로 와서 74년도에 건물을 지은 거죠.

지금 현재 건물을요?
아니죠. 74년도에 그때 지은 거예요. 짓고, 다시 또 22년도에 지었어요. 아니, 아니, 2002년도.

2002년이요?
잊어버리지 않을려고 2002년 2월 2일날 준공식 했어. 그것도 오후 2시에... 그때가 제가 시의

원 하던 때예요.

시의원 하시던 때요?
2002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시의원 하고 좀 다른데요. 아까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2002년이죠. 22년이 아니고.

아 2002년까지요. 그러면 1994년부터 하셨네요? 2002년이니까.
그렇죠. 잘못 아까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도로 확장도 한 97~8년, 이때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아까 그 혼돈이 있었는데 뭔가. 연도가.

집안들 있잖아요. 아까 한 20여 가구 살으셨다고?
예.

현재는 몇 가구 살아요?
우리 송가만? 세어봐야겠네. 허허.... 8가군가?

어르신 오늘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인제 조금 마두리를 또 한다면, 지금은 인제 별정우체국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제 별정우체국 여기 국장을 하면서, 인제 전국 단위로 경기도에 또 도회가 있습니다. 그러구 전국에 중앙회가 있고. 별정우체국 제도가. 인제 사단 법인이죠.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회...
경기도회. 별정우체국 경기도회, 별정우체국 전국중앙회.

그니까 이 경기도회하고 전국중앙회가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제 말하자면 뭐... 장관 인제 다 인제 득해서 인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있습니다. 인제 그 선생님들이 인제 사학연금이 있고, 또 공무원들 공무원 연금이 있고, 별정 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있고, 군인연금이 있고.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4대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들도 근속기간에 따라서 훈포장, 뭐 이상 없으면 퇴직할 때 훈포장두 받을 수 있구요. 헌법 법령에 다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공

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인제 그동안 인제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수료는 일부 인제 조금 뭐 주고 있습니다마는, 활동비로 조금 주고있습니다. 조금 주고 있고, 보수는 인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해마다 호봉두 승진이 되고, 승급두 되고, 호봉도 승진 호봉 다 인제 그렇게 부여받을 수 있고, 뭐 제도가 복지제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 일수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거의 동일하게. 그러구 인제 관리 감독은, 관리 감독은 국가에서 하고 있구요. 관리 감독은. 뭐 수시 감사, 종합감사 무슨 뭐 점검 뭐 이런 거는 다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 복무 관리는 뭐 우체국장 현직이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유지관리, 우체국 유지관리는, 청사 유지 관리 이런 거는 별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유지관리비 일부 뭐 나옵니다마는, 거의 아주 어려운, 뭐 얼마 안 되는 그냥 운영비 조금 주고 있고. 그렇게 별정우체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정우체국 제도가, 제가 그 별정우체국 경기도회장도 그 임기가 4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서 8년 동안 경기도회장을 했고. 인제 선출직입니다. 그것도. 인제 경기도에 있는 별정국장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를 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경기도회장을 8년 동안 역임을 했고.

언제 하셨어요?

아유... 뭐 연도가

어르신 연세 몇 대 정도?

50대 초반에 했습니다. 50대 초반. 그러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도, 전국에 있는 별정국장 2명이 연합회 연금관리단 이사로 있어요. 전국의 발전국장 2명. 이사가 두 분, 연금관리단 단장하고 또 우정사업본부에서 한 분하고. 이사가. 또 외부에서 한 명인가 그래서 다섯 분이거든요. 그래 전국의 그 연금관리단 이사도 제가, 그게 임기가 4년인데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 8년 연임을 했고, 중앙회 인제 초대 이사도 하고. 전국 별정우체국.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아니, 그니까 인제 거의 역마살이 있어서 우리 서탄우체국에서 근무 실제로 앉아서 한 거는 얼마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러구 인제 그렇게 밖에 일을 했고, 뭐 우리 인제 역사로 따지면 여기가 고향이면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녔고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있고... 인제 그렇게 해서 우리 초등학교를 우리 애들도 여기서 졸업을 시켰고...

또 오랫동안 살아오신 터전이잖아요.

그러믄요. 인제 초등학교 여기 그 총동문회가 없었어요. 그래 제가 72년, 72년이로 기억이 되는데, 72년도면 제가 20살. 그 무렵에 북바위체육회래는 거를 만들었어요. 북바위 체육회... 북바위체육회로 결성을 해서 제가 31회 졸업생인데, 32회하고 처음에 두 기수가 1년에 한 번씩 인제 뭐 축구, 배구 달리기 이런 거를 해서 결성을 해서, 인제 그 우에 우리 기수 우에 30회가 참여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서른하나 서른둘이 했다가 우리 위에 기수 30회, 또 32회. 인제 이렇게 33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기수, 다섯 기수 해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 20여 기

수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북바위체육회가 그러니까 2천 지금 23년이니까, 한 뭐 2015년까지 했나? 운영을 하다가, 총동문회로 총동문화체육회로 그냥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북바위체육회장을, 초대회장을 허면서 한 10년간 제가 회장을 했죠.

초대부터?

초대부터 한 10년간 빨리 체육회장을 쭉 허고. 인제 그러고 그다음 기수, 그다음 기수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뭐 초창기 때 기금도 없고 뭐, 다 뭐 우승컵 우리끼리 그냥 개인 사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뭐 그 당시에. 그 인제 지역에 그래도 선배 되신 분들이 그런 날은 우리가 초청하면 그분들이 막걸리 한 통도 사오시구, 인제 뭐 소주 한 박스는 그 후의 얘기고. 처음에는 막걸리 한 통 이렇게 사 오신 분들이 많았죠. 인제 그렇게 해서 북바위체육회두 결성을 했고 그렇게 해다가 인제 지금은 총동문회로 이렇게 인제 합류가 됐고. 아 초등학교 총동문회도 서탄 그 임광래 선생님이 여기 교사로 그 재직할 때 숙직실에서 나하고 임광래 선생하고 몇몇 사람이 같이 거기서 의논을 해서 총동문회도 결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초대회장이 조영락 회장님이 인제 초대회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때 그 발기를 허면서 임광래 선생님은 나하고, 여기 서탄면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좀 그래도 돈 장사 좀 하고 뭐 좀 하는 사람, 나하고 둘이 교통도 불편해도 그 서울을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동냥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뭐 수건두, 타월두 받구, 인쇄하신 분한테 그거 뭐 거기에 필요한 책자 무슨 뭐 인쇄 이런 거 다 무료로두 받고, 일부는 현금도 스폰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책자 수건 이런 걸 인제 스폰을 받고?

그렇죠. 찾아다니면서 현금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발기인을 해서 인제 초대 서탄초등학교 동문회를 결성하게 된 거죠.

이게 1990년에 결성, 60주년 할 때 결성 됐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인제 쭉 서울에 계신 분들이 동문회 회장을 하다가 지방 사람으로는 인제 제가 받아서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받아서 인제 동문회 회장도 2년간 역임하면서 인제 그게 봉사직이고 돈 쓰는 거지 뭐. 그러구 또 인제 시의원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 연도가 정확히 지금 뭐, 벌써 그것도 한 10년 되지 않았나 싶으네요. 동문회장도 역임하고 지금은 인제 42년간 봉직하다 우체국장 퇴직하고 선산이, 인제 부모님 모시고 한 선산이 마두리에 있어서 거기에... 그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인제 이렇게 나무를 그때도 좋아했어. 그래서 묘목을 갖다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사다만 심고 관리를 못했어요. 그동안. 그 인제 퇴직하고 거기 가서 나무두 관리하고,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다가 인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다른 거를 많이 퇴직하고 꿈을 꾸구 그랬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그 양봉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벌통 몇 개, 그 양봉 갖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무 관리도 하고 채송화 심어놓고 풀도 뽑고 뭐 농사는 그냥 일부 그냥 누가 시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

어서. 아침 저녁으루 그래도 가서 이렇게 헐 수 있다는 거, 재송아한테 풀 뽑구, 돌아서서 저기 나무 자르구, 벌 가서 또 보면 풀 언제 뽑았냐 또 풀 뽑고. 모기두 뜯기고 땀도 흘리고... 있을 거는 거기 연장 다 있고, 없을 건 없고, 조그맣게 오두막집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마두리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마두리. 애들이 또 이놈 저놈이, 한놈은 냉장고 사놓구, 한 놈은 에어컨 사놓구 그래서 조그마한데 또 있을 건 다 있어. 그 안에. 힘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누가 뭐 시키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인제 삼남한사하고 산천초목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인제 좋으신 분들 좀 만나자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뵙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나머지 삶은 남 이해관계에 좀 안 끼어들려고 하고, 과거에는 인제 그런 봉사직에 일하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껴야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싸움 거 했어. 자식들이 뭐 여차저차 이해서 패고 싸웠어. 어떻게 됐든. 한 놈이 고소를 했어. 뭐 이거 그 옛날 얘기지만 어찌됐든 호랑이 담배 먹던. 이 뭐 합의는 보라고 그러구. 파출소 또 소장 또 의원이고 또 지역에서 일한다구 찾아오고 뭐뭐 그러면은 이쪽 가서 만나야 되구, 이쪽 가서 만나야 되구, 부모님 만나서 중간에서... 돈 하나 생기는, 이 부동산 같은 거 하면 뭐 소개해고 뭐 소개비, 뭐 중개 수수료 받잖아요. 이건 그런 것두 없이 내가 때 되면 밥 사고, 차 사고 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제 그냥 얼른 말씀드리면, 100만 원이면 받을 사람은 100만 원 내라. 이 세 개 부러졌으니까. 줄 사람은 50만 원이야. 그럼 갭이 50만 원 생기잖아요. 그니까 그런 일도 많이 있어. 그럼 75만 원 중간, 그럼 인제 75만 원에 합의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세월이 흘렀는데 이 100만 원 받을 사람은 저놈이 끼어들어갖구 나 25만 원 못 받았다고 그러구, 이 사람은 나 때문에 25만 원 더 줬다고 그러구. 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래도 그런 일을 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좀 어떻게 해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중간에서 좀 합의 좀 해줘. 그런 일이 기억에 제일 힘들었고 살아오면서, 인제 그와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애, 학생이 퇴학을 맞았어, 정학을 맞았어, 학교에서 뭐 잘못했어. 가서 좀 교장 선생님 좀 만나줘. 그럼 그것두 시의원이 해야 돼. 가 만나야 되고 만나서 퇴학만큼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인제 시의원 시절에 굉장히 힘든...?

뭐 그런 것두 있구, 시의원 하기 전도 그렇구, 하구 난 후에두 그렇고.

요즘도 좀 그런 일들이...?

뭐 그래서 자꾸만 그런 일을, 조금 이해관계 되는 거는... 그래서 인제 자연하고 많이 이렇게 접하려고 하고. 인제 그런데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세무서 일도 가서 봐야 되고, 교육청에두 찾아가 봐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도 없이 한전도 가서 전기 여러 가지 등등 뭐 화재 나면 소방서도 찾아가 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과거에. 무보수면서. 그래서 한없이 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재산 많은 거는 없고,

지금도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 같은데요?

인제 그게 다 인제 저한테 복이 아닌가 싶구요. 인제 건강한 거는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

게 건강하게 낳아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부모님 선산 아침저녁으로 가서 문안드리고 이렇게 자연하고 더불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임광래(남, 1938년생) 금암2리 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7월 9일, 8월 8일
장 소	임광래 자택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송북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여기서 몇 대 정도 사셨어요?

여기서 오래 살았죠. 그전에 우리가 살던 데는 비행장 활주로, 비행장 지금 활주로 가운데에요. 장등이라고 거기서 살다가……

장등리에서요?

이 행장이 52년도에 생겼어요. 잘 아시겠지만, 45년도에 해방되고 50년도에 6.25 사변 났잖아요. 6.25 사변 나고 51년도 1월 달인가 그 때 1.4후퇴 때 피난 갔다 오고...

피난은 어디로 가셨어요?

공주로 갔죠. 공주. 여기서 걸어서.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주...?

아 그러믄요. 그때는 부락당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마차에다가 이부자리 싣고 쌀 몇 말씩 싣고 그럭하고서 피난 갔죠. 1.4후퇴 때. 눈은 엄청 쏟어지고...

6.25 때, 그러니까 처음 전쟁 났을 때는 안 가시고요?

전쟁이 날 때는 가까운 데로 갔죠. 그때는 6.25 전쟁이 그렇게 비참하고 큰 전쟁인지 몰렀죠. 그때는...

그럼 처음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여기 양감면. 여기서 비행장 근처에 살다가, 황구지 건너 양감면이 있어요. 양감면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왔죠.

정문리나 뭐 이런 동네인가요?

그렇죠. 그 근처지요. 정문리 근처.

그러면 그때도 마을 단위로 다 가셨나요?

그때는 피난 안 간 사람도 많고, 누가 뭐 전쟁이라는 건 몰랐잖아요.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갑자기 제트기가 날아와서, 그 저기 6.25 때, 맨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 여기 기찻길, 기찻길을 폭파해서 그거 끊어 놓으려고 6월 25일날, 26일인가 그때쯤 됐어요. 그때 우리들이 얘기는 쌕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제트기죠. 그게 와가지고 그 다리를 폭격을 했어요.

여기 진위천이요?

진위천에 있는, 금암리 들어오는데, 그 무슨 홍원제진가 어디...

예 영풍제지요?

영풍제지. 거기 서탄면 들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그걸 끊으려고.

철교를요?

끊으려고. 그게 미군. 유엔군이죠. 그게.

유엔군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진을 막으려고?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비행기라는 걸 보고... 그래서 동네 와가지고 전부 다 인제 각자 자기 친소 찾아서, 이 근처에 일가 집이 있으면 일가 집을 찾아서 갔는데, 우리는 양감면으로 갔어요.

그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 놀라기 뿐이예요?

가족이 몇 분이나 됐어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6남매. 아홉 명이죠.

양감면에는 뭐 친척 분이 계셨나요?

친척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산이 있었어요. 거기. 선산이 있는데, 그 산지기가. 예전에는 산소 지키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정해가지고 산소 관리하고, 그 산지기가 있었잖아요? 그 집으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무시고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6.25 다 겪었죠. 인민군들 밥도 해주고. 인민군들이 아침이면 몰려와서, 이 이집일 턴데, 여기서

이 자리에요?

예. 아침이면 와가지고 여기서. 밤에 행군해서 여기 오다가 아침에 뜨면 비행기 무서우니까 민가로 다 숨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민군 들어가가지고 “밥해 달라”, “밥 해내라”고 그러면 밥해주고 다 그랬어요.

그때 장등리 사신 거 아니었고요?

거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어서요.

그러면 원래 거주지는 그쪽이시고 이쪽으로 인제 이주해 오신 거예요?

예.

그럼 인민군들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무섭....?

그 사람들, 인민군들 착하더라구요. 밥해 달라고 그래서, 나 그때 12살, 13살 때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큰 돼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 잡으라고 그래서 그 돼지 잡어서 국 끓여서 밥해서 그래서 멕이면은 낮에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이면은 또 저녁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 먹으면 가는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뭘 써줘요, 몇 명이 밥, 밥 해, 이 담에 전쟁 끝나면은 밥값 준다고.

그러면 한 50~60명씩 왔나요? 한 번 들어올 때?

우리, 아이 집이 쪼끔해, 집에, 한 집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오죠.

그러면 인제...?

동네다 다 분산시켜서.

그럼 금암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인민군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부락에는 그렇게 왔어요. 우리 부락 그렇게 왔는데, 그때 인상적인 것이, 나이가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뒤란에서 많이 울고 있더라고. 인민군 하나가. 그래 하도 어리길래 인제. 나보다 한 두어 서너 살. 많아야 두어 서너 살 많아.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일어나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고. 참 6.25 때 많은 걸 보았지요. 여기서. 많은 걸 보고...

6.25 때 그 인민군들은 그러면 새벽에 와가지고 낮에 자고 저녁에 떠나고 그러면 또 그다음 날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 또 오고.

그러면 돼지는 한 번 잡고 끝 아닙니까?

더 잡을 돼지가 있어야지.

그때 소도 있지 않았나요?

소는 없었어요.

그렇게 인제 계속 와서 계속 밥 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해줬겠네요?

아침에 오면,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저녁 밥 먹고는 떠나고, 그 이틀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나요?

글쎄요. 그건... 자세히, 뚜렷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인민군들은 그냥 마을을 그렇게 거쳐서 갔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어디 뭐,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전쟁사 보면 세계적인 걸 봐도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일종 식사 같은 건 그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 사람들 말고 전쟁 나고 나서, 인제 또 이렇게 주변에 사회주의자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상이...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니 민주주의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일본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한 사람들 있죠? 일정 시대 때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학술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6.25 때는 그 지역에 또 뭐 이렇게 사회주의 활동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아유 있죠. 그 무슨 사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시키니까, 시키니까. 위험을 느껴서도 할 수 있고...

혹시 금암리에는 그런 분들 없었나요?

여기요? 우리 부락에?

예.

우리 부락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부락에는 없었어요. 그 하도 마지못해서 끌려다니고 그랬죠. 여성동맹이라고 있어. 여맹. 여성동맹이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치산 노래 뭐,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국..." 그런 거 학생들 갖다 가르치고.

그럼 어르신도 몇 번 이렇게...?

아이 나도 봤죠. 나도 그게 지금 뭐, 그 무슨 노랜지 몰러.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 있었고, 그때 그거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피난 가지 않는 선생님들은 학생들 학교에 모아놓고 학교에서 그 노래, 그런 노래 가르치고...

여기 서탄...?

서탄학교. 전국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한 12살 정도 되셨으니까, 5학년 정도?

그때 6학년이었어요. 그때 6학년이었어. 그때 학기가 3월이걸랑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기

가 3월인데, 3월에 인제 6학년 돼 가지구. 학기가 3월이니까, 그해 6학년, 6월 달에 6.25 사변 난 거죠.

처음에 전쟁이 났다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비행기가, 그것두. 그거로 맨 처음에 알었구. 그 다음에 국군들, 패잔병들. 패잔병들 총 거꾸로 메고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부대 해산되니까.

그러면 인민군 들어오기 전에...?

전에 그렇지.

국군들 패잔병들이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내려가고. 민가에 와가지고는 옷 좀 달라고. 그 뭐 옷좀 달라고 그러면, 그때 인제 삼베옷이지. 등걸잠뱅이라고 그런 거. 농민처럼 삼베옷... 그런 거. 삼베옷. 그 저기 국군들 피난 가다가, 피난 가다가 민가에 와서 인제 군인이라는 게 저거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옷 벗어서 놓고... 시골 농사꾼 옷으로 갈아입구, 메꼬자 쓰구. 그럭허구서 옷 갈아입고 가구 그래서 옷 많이 줬어요.

근데 옷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귀한 옷이지. 그때 옷이 귀했죠.

그리고 인제 나중에 1.4후퇴 때는 공주로?

그렇죠. 1.4 후퇴 때.

그때도 장등리 사셨나요?

그렇지. 51년 1월 달에 1.4 후퇴여. 50년도 6.25 나고 그다음에 저기 대구,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북으로 진격을 해서 9.28. 6.25 사변, 6.25 죠. 그다음에 9월 28일 9.28 수복 아녀 그게. 9월 28일에 국군하고 인천 상륙하고 국군하고 유엔군이 다시 올라가서 서울을 다시 탈환한 거 아녀. 그거 9.28이라고 그러지.

1.4 후퇴 때는 장등리에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거기 한 내 생각에, 거기 큰 부락이었어요. 서탄면에서 아마 제일 큰 부락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었어. 거기 한 60∽70호? 70∽80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가구들이 거의, 그러니까 70~80호...?

예. 거의 다 같이 갔어요. 우리하고.

공주 어디로 갔어요?

유구.

진위, 서탄 이쪽은 공주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 친소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 인제 기차. 서울이나 기차역 주변에. 그 도시라고 그럴까 그런데서 사는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을 해서 피난을 갔고, 우리는 기차 같은 거 이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마차에다 짐 싣고, 먹을 쌀 한 가마 싣고 소 끌고선 걸어서 간 거여.

여기서 그러면 1번 국도 타고 내려가셨나요?

아니죠. 1번 국도는 못 가죠. 샛길샛길로 갔죠.

근데 마차를 끌고 가시려면 마차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장등리에서?

장등리에서 적봉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평택까지 와서. 평택 가서 인상적인 거는 1.4후퇴 때 인상적인 거는 거 군문리 다리래는 게 있죠? 군문 다리를 유엔군이 거기서 지켰어요. 유엔군이 지키고. 우리는 군문 다리, 그 다리로 못 가고 유엔군이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검사 검열하고 그러니까. 그 갯벌, 군문 다리 밑에 갯벌. 거기가 그때 얼었었걸랑. 얼음 위로 해서 마차 끌고. 소마차 끌고 갔어요. 소마차 끌고 얼음 위로.

그래서 인제 유구까지 가셔서는...?

더 이상 안 갔어요.

민가로 들어가서 생활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민가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안 받아줄 수가 없죠. 피난 가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쌀 한 가마 가지고 아홉 식구가...?

방 하나 저기 공주 유구,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 공씨네 마을인데 말이야... 공씨네 마을인데, 공씨네 마을 사랑방을 우리가 썼어요. 그 사랑방에 우리 식구가, 전부 다 우리 식구 하고 큰댁 식구들하고 전체가 사랑방 하나에 거기서 했고. 피난 갈 때는, 공주 유구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가 가잖아요. 가면 인제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렇게 하고, 새벽 12시 되면 거기서 또 떠나는 거여. 그래서 우리가 쓰던 방에, 나중에 우리 뒤에 피난 오는 사람이 거기 와서 또 머물고.

그때만 해도 인심은 좋았죠?

그러믄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한 달 가서 있었을 거야. 유구에서.

그러니까 정문리에서는 일주일 계셨고, 이쪽에서는 한 달?
예. 한 달 정도 갔을 거예요.

돌아올 때는 뭐 그 상황이 좀 좋아져서 돌아오신 건가요?
그렇죠. 1.4 후퇴 때 인제, 1.4 후퇴 때 거기로 가고. 1.4 후퇴 때 피난가고. 9.28 수복 그 다음에 다시 남침해서 1.4 후퇴. 거기서 한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

1.4후퇴 때 가셨을 때는 상황이 좋아졌지만, 처음에 전쟁 나서 양감면으로 갔을 때는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뭐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도 없구, 그거 몰렀죠. 그거 비행기장에 피난, 저거 제트기가 와서 폭격하고 국군이 내려오구 그러니까 피난 가야 된다구 그래서 피난 갔다가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온 거죠. 그 별거 아니로구나 하구.

그때도 온 가족이 같이 가셨고요?
그러믄요.

6.25 때 다른 동네에 가면 좀 이렇게 험한 일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난 그런 건 못 봤어요. 내 그런,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다거나 그건 못 봤는데, 우리가 군문리 다리 건너서 그 어떤 마을인지 몰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 밥 해 먹구 아침 새벽에 떠났는데, 우리가 떠나고 한 두어 시간 있다가 그 부락을 폭격을 했어. 그래서 그 부락에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머물던 그 방에, 방으로 들어와서 밥 해 먹고 그러던 사람들은 나중에 들으니까 많이 폭사했다고 그러더라구. 거기서 폭격을 해서... 근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폭격을 하거나 그런 험한 일은 못 봤어요.

6.25 나서 인천 상륙작전 날 때까지 여기는 인제 뭐 이를테면...?
저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죠.

어르신은 그때 인제 어려서 이렇게 가서 노래도 하고...?
그럼. 학교 나오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병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소주병.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화염병이여. 그

게

소주병을 화염병으로 쓰려고요?

그렇죠

그때는 댓병이었죠?

댓병두 있었구. 하여간 그런 병에다가, 그런 병을 수집도 했었구. 그 인민군들이. 근데 지금 인제 대모하는 아이들이 뭐 화염병 던지고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니까 그때 아 그 소주병 이런 거 모은 것이 아 화염병 만드느라고 그랬구나. 근데 그땐 뭐가 뭔지도, 가져오라고 그래 가져왔구.

어른들 사이에서는 뭐 큰 일 같은 거 없었나요? 6.25 때?

아 많었죠.

저 수월암 도도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도 강했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공통적인 얘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랬어요.

6.25 때 그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가 가면 또 부역한 사람들 또...?

그러니까 지리산 공비 토벌 때, 문헌을 보면은 낮에는 저 부락에 국군이 들어가가지고서 저거하고, 밤에는 또 지리산에서 공비들이 내려와서 괴롭히구. 거 국민들만 죽은 거죠. 근데 이 그렇게... 여기 서탄학교 가면은, 서탄학교 정문 앞에 가면 거기 비가 하나 있어요.

그 무슨 기념비인가요?

위령비가 6.25 때, 6.25 때 학살당한 사람들 이쪽에. 학살당한 사람들 위령비가 그게 농협에 있었걸랑. 농협마당에. 그런데 인제 도로 확장되고 그러니까 그걸 옮겼어요. 옮기는데 그때 면장보고, "이거 면장이 이거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당신이 이 비석을 어디로 옮길 장소도 마련하고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면장이, 그때 면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난 그거 할 수 없다" 고 그러니까 그때 교장이 이치영 교장이라고, 이치영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개성에서 피난 나온 분이여. 개성 사범 졸업하구. 그분이 그래서, 개성에서 피난 나오기 전에 인민군한테 시달림을 받었는지 우쨌는지 몰라두 반공의식이 아주 대단하더라구. 그분이. 그래서 그 비석을 갖다가 면장이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애들 반공 교육 자료로 쓰겠다.' 구 비석을 갖다가 학교 그 저기 교무실 문 옆에다, 거기다가 그 비석을 갖다가 옮겼었어요. 그걸 옮겨 놓구 처음에 2년 동안은 거기서 그 전날.... 6.25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현충일 날?

현충일 날. 현충일 날은 그 유족들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한 2년 동안.

2년 동안이요?

예. 그런데 그때는 평택의 현충탑이, 현충탑이 있죠?

예. 충혼탑.

충혼탑.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충혼탑으로 옮겨 가더라구. 그리고 유족들이 충혼탑, 현충일 날 충혼탑에 가서 해요.

저기 송탄 쪽인가요? 아니면...?

평택.

저기 평택 덕동산 쪽이요?

예. 덕동산 그쪽으로. 현충일 날 그 유족들이 학교로 안 오구 인제 글루 가더라구. 그러니깨 학교 교문 옆에다 그걸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인제 유야무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옮겨 가지구, 지금 학교, 서탄학교 정문이 있는데, 이쪽에. 고기 보면 요것만한 비석이 있어요.

정문에요?

정문에. 고 비석을 갖다가 거기다 옮겨 놓은 거여.

6.25 때 이렇게 학살당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인제 흔히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는 동네 사회주의자들한테 학살당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때 어리셔가지고요?

예. 그때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동네 지역 사람들한테 학살당한 거지. 그때는 뭐 인민군들이 그 뭐 9.28이 아니고 1.4 후퇴 끝나고 그리고 다시 북진할 때 그때 그랬잖아요. 이 지역이, 여기가, 여기 지역이 밑에서 올라오는 국군하구 유엔군은 평택까지 오구. 인천 상륙작전 한 사람들은 수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야. 일주일 동안을. 그러니까 여기는 서탄면하고 여기 진위면 일 때는 인민군 패잔병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지. 다 여기서 다 몰려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일종의 쥐들 들어 있는 독 같은...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험한 모습도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 험한 일 당했죠.

그때 인제 막...

인민군들이 그때.

그때 인제 좀 약간 흥분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땐 그랬는데 뭐 동네 청년, 청년 하나 누구 있으면 그 사람 잡아 붙들어서 지게에다 이거 짐지고 가라고. 여기서 진위면까지 어디 짐지고 가다가 진위면까지 갔다가... 그건 내가 본 거 아니고 그렇게 들은 거여. 거기서 인제 여기서 짐 지고, 그 무거운 짐 지게에다 지구선 인민군한테 끌려서 가다가 그 사람이 지치면은...

죽여버리고?

응. 거기서 하구 그러다 거기서 다른 사람 또 붙들어서 지구 가자구 그러구. 그때 그 퇴로를 저 동쪽으로 터준 거 아니에요. 여주 이천 쪽으로. 여기서 하구,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독 안에 든 쥐를 계속 공격을 하면 쥐가 고양이 문다고 그러잖어. 그러니깨 여기서 일주일 이상을 더 이상 올라오지 않구...

남쪽에 평택하고 북쪽의 수원에서, 인제 양쪽에서 딱 막고?

그럭하고 인민군 퇴로를, 그러니깨 인민군들이 여기서 진위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태백산 타고서 이북으로 간 거예요. 그 퇴로를 터준 거여.

그 여기 초등학교 앞에 우물에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그건 낭설이여. 그런 일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막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한 쪽이 그 가해를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지상정인데, 여긴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내가 여주에를 갔었걸랑. 초임 발령을 여주로 받어서 갔는데, 가남 국민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내 첫 발령진데, 거기 가니까 우물에다, 학교 우물에다가 이런거 하고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학살당한 사람들을 위한 비석은 이건 언제 누가 세운 거예요?

보면 단기 몇 년이라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역 유지들이 지역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기념 위령비를 세운 거여.

많이 학살당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숫자는 얼마인지 몰라두. 아 그래 학살당가 시신을 가서 찾아오구 뭐 하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은 여기 아까 장등리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임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 제가 임가 아니에요?

본관이 어디...?

평택이에요.

그때 장등리에 평택 임씨가 몇 가구 정도 살았었나요?
그때 어려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냥 거의 다, 거의 다. 집성촌이었으니까.

장등리가 집성촌이었어요?
예

거기에 강습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었죠.

강습소 강습소는 누가 운영했어요?
강습소는, 그러니까 그때는요 강습소를 전부, 6.25 때니까. 해방되고 나서. 여기 학교가 없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강습소가 그 임덕래씨라고 우리 형뻘 되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선생을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거기 강습소가 있었어요. 그 일정 때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서탄초등학교 생기기 전에?
전이죠.

서탄초등학교가 1930년...?
30년에 생겼어요.

그전에 강습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강습소는 해방되고 나서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아 해방되고 나서 있었어요?
그 일정을 때부터 있었겠지.

그러니까 일정 시대에 만들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다녔어요?
그때 학교 못 갔죠. 여기 1930년도에, 그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초대 교장이 일본 사람이거든. 그때 머리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들은 댕기꼬리 따고 그랬대니까. 상투 틀고. 그런 학생들 가서 공부하고 하면은, 선생들이 학교 학생 모집하러 가면 다 도망가고 뭐 하고. 학교 안 오고. 그래 여기 진위 학교가 먼저였었어요. 여기. 진위 학교 100주년 지났지.

어르신은 여기 몇 회세요?

18회.

그러면 장등리에서 여기까지 걸어...?
걸어다녔죠. 그때 물론 걸어다녔죠.

진위천에 물 많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말도 못하죠. 진위천, 이 비행장 된 것이, "왜 여기다 비행장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때, 52년도 맨 처음에 측량, 미국 사람들이 측량했걸랑요. 저 구장터 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황구지까지 이 높고 낮음이 없대요. 수평이래 이게. 그런데 내가 미루어 생각하듯, 그런데 거기에 땅이 참 비옥했어요.

비행장 안에요?
비행장 안에 땅이. 그 왜 그렇게 비옥했냐고 내가 인제 미루어 생각을 하면은, 저거하면은, 침수가 되면은 황토가 쌓이는 거여. 거기. 그게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 몰러두 황토가 쌓여서 그 땅이 이루어진 거걸랑. 그러니까 구장터서부터 황구지까지. 황구지 지금 비행장 활주로가 있는 그 이쪽, 그쪽까지 이게 표고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러두.

그러니까 공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아이 공사 뭘 해요... 우리 이 집이 거기서 옮겨다 진 집이여.

이 집이요?
예. 이 집이 거기다.

아니 6.25 때도 여기 집이 있었어요?
거기, 그렇죠.

그러면 6.25 때 있었던 집은 이 집이 아니고...?
아니고 폭격을 맞어서 타고.

그 집은 폭격 맞아서 타고요?
예. 그래서 이 집이 거기서, 비행장에서 52년도에 여기다 옮겨다 진 집이여.

비행장 생기면서 인제 집을 옮긴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아까 뭐 어디서 뭐 조사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 평택의 대표적인 저기가 뭐예요?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거.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요?... 글쎄요?... 옛날 쌀이나 그런...

그건 옛날 얘기고.

평택에 들판이 많이 발달했죠.

그런데 그게 그걸 조명을 안 해줘. 비행장, 52년도에 저기서 떠날 때. 그냥 도자로 죄 밀었어요. 비행장 질 때.

아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보상은 무슨 보상이야. 이전비도 안 줬어. 그런데 지금처럼 그때 그걸 반대하고 데모하고 했으면 살지 못했어. 그거 잡어다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전쟁통이니까 뭐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비행장에서 내쫓을 때 10원 한 장 보상 안 해줬어요. 보상해준다는 것이 군용 천막, 야전 천막. 야전 천막 일곱 갠가 몇 개 줬어.

한 집당이요?

아니 부락 전체에.

거기 한 60~70호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굴 줘요. 그러니까 친소가 없이, 친소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용인으로두 가구 뭐 어디로 다 친소 찾어서 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저기 네집 마을이라고 있어... 네집말.

네집매...?

네집매. 거기다가 그 사람들 줬어 그 천막을. 이건 당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천막을 치고서 오랫동안 살았어. 거기서.

네집매가 지금 어디쯤 돼요?

지금 저 황구지, 그 황구지 끄트머리 정도... 지금 저 세월교 있는 데, 고기요.

그러니까 황구지에서 저쪽...?

저쪽으로가 아니라 이쪽으로.

지금은 수용됐던 데?

그렇죠. 수용됐죠. 지금. 거기에서 네집매라고 있어. 거기서, 네집매에서 살던 사람이 임창인이.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살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참, 그때 어른들이 참 왜 이렇게 머리를 못 썼나. 부대에 있잖아요. 그래 그 비행장을 만들으니깨 그건 뭐 할 수 없으니 ‘좋다. 이거야.

만들어라.' 그 대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다가 농토를 다 뺏겼으니까 부대에 취직하는 데는 이 사람들을 우선 좀 차용해 달라.' …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를 그렇게 못 썼어.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평생 농사만 짓다 살아오니까...

그렇지. 농사만 짓다가. 그런데 여기 그때에, 이 비행장 될 당시에 노무자들 있잖아요. 노무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뭐 전라도에서 어디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 다 여기 부대에 들어가서 취직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었는데. 왜 거기 원주민들은 그렇게 푸대접을 했냐. 꼭 돈으로 보상해줘야 보상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당신들은 여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논밭을 다 징발했으니까. 그 대신 부대에 들어와서 벌어서 먹구 살어라.' 이렇게 머리를 좀 그렇게 썼으면은...

그러네요. 지금 같으면 100%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어르신네는 거기에 땅이 좀 많았었어요?

좀 많았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그때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짓고 사셨으면 굉장히 부자셨을 거 같은데요?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모르죠. 그때. 나중에 징발증권이라는 걸 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서. 그거 뭐 다 잊어버렸어. 하여간 그 징발증권 그거 팔어가지고...

징발증권이요?

예. 징발증권이라고 있었어요. 징발증권, 그거 다 팔어가지구, 징발증권이라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 줬는데, 그걸 가지구 을지로에 가가지구 을지로 증권회사에 가서 팔으니까 100만 원 주더라구. 와리깡해가지구.

그때가 한 60년대 중반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구 그거 가지구 서울에 동생 집 한 채. 10원 한 장 안 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사주고 그만 뒀어요.

그때 100만원 받아가지고요?

예.

논이 몇 십 마지기는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기록두 없구.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지금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 그 동네 사람들이. 나는 고학을 했어.

어르신은요?

인천. 난 중학교 인천에서 영화중학교 다니구, 고등학교는 인천고등학교 다니구... 인천고등학교 졸업을 하구. 그 다음에 서울사대 시험 봤다가 안 돼 가지고. 문리사대래는 게 있었어요. 지금 명지대학교 전신. 거기 들어갔지. 내 동생들이 밑에 다섯씩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건 없구, 비행장에 다 뺏겨가지구.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부유하게 사시다가...

그렇지. 살다가 갑자기 알거지가 된 거지.

그냥 이 집 한 채 남은 거네요?

그렇지.

그때 이 땅은, 여기는 그냥 어르신 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기반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좀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그때, 나는 대한민국 정부한테서 여러 차례 저걸 당한 거예요. 여러 차례. 비행장에서 그때 한번 그렇게 당했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더니. 여기 와가지고 요 앞에 지금 고물상 하는데, 거기다 정미소를 조그맣게 하나 했어요. 우리가.

그거 어르신이 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근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더니 농촌 경제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구 협동조합, 그때 한참 협동조합...

이동조합이요?

협동조합, 농협 전신. 농협. 협동조합.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요. 그래서 부락에서 협동조합 이름으로 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다 정미소를 짓겠다.’ 그래 여기다 정미소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라 이거야.

어르신 댁의 정미소를 동네 사람들이 팔라고요?

예... 우리는 우리 6남매가 거기서, 정미소에서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데 그걸 팔으라고 그러더라구. 그때 중학교 다닐 땐데 어머니가 인천으로 오셔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팔지 않으면은 고 옆에다가 정미소를 다시 짓고 동네 방아는 전부 다 거기로 다 가고 우리 집으로 안 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참 난리 났대요. 그래 내 고등학교, 그때 고등학교 때로구

나! 중학교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김명협 교감 선생님이라구, 그분을 찾어갔어. 그래서 그런 사정 얘기를 다 했더니, 그분이 도덕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도덕 시간에 교실에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참 못된 이론이다. 아니 소를 희생시키지 않고 대도 살아야지. 그런 이론을 전개해야지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 그건 못된 이론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때 고아원이 많았으니까, '고아원 원장이 당장 애들 밥 먹여줄 끼니가 없는데 곡식이 없다고 해서 어떤 집이 가서, 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구 그 집 땅을, 곡식을 뺏어다가 애들을 밥을 멕여서 애들을 살렸다. 그러면 이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거냐? 그게? 그러니까 그 이론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이론은 그건 잘못된 이론이다.' 하고 도덕 시간에 와서 그 강의를 하시더라구. 그래서 '야 저 교감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편지를 썼어. 내가.

어머니한테요?

아 동네 사람한테. 동네 이장한테. 이거는 대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대가 소를 살린대는 얘기는 옳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동네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방앗간을 억매 흥정해서 이렇게 억압으로 하는 거 이거는 우리 형제를 다 죽이는 거다. 소를 희생시키는 거 이건 옳지 않은 이론이다... 그래 그거 밤새도록 그 편지를 썼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갖다가 이장한테 보여주라구. 어머니가 오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장 집으로 다 모이더래요. 그래서 "광래가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광래가 동네분들이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동네분들이 참 다 좋으신 분들인데 그럴 리가 있냐."고, "안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내놓구, 편지 주구 어머니 인제 집으로 오신 거여. 오셨더니, 그때 동네 뭐 거기 온 사람이 문맹이 대부분이에요. 이장 하나만 그러는 거. 그래 이장이 편지를 읽다가 편지를 떨구면서 "나는 이상 못허겠다. 이장 못허겠다. 이거 정미소, 부락 정미소 하는 거 이거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한 3~4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면, 결국은 협동조합으로, 동네로 팔었어. 방앗간을

그러면 그때는 농사는 안 짓고 인제 방앗간만 운영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러면 마을에서 가격이나 이런 건 적절하게...?

아 그럼 적절하게 했겠지 뭐. 적절하게. 그런데 별안간에 정미소 값을 어머니를 주니까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시골 아줌마가 뭘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먹고 살 게 없다고 장례쌀 달라고...

어머님한테?

예.

아 인제 방앗간 판 돈이 있으니까?

예. 그걸 좀 먹고 살게 달라고.

아 장례쌀 달라고...

예. 그래 그걸 다 줬어. 동네 사람들을. 그랬더니 1년 후에 고리채 재정리를 해요.

방앗간은 결국...

그냥 날러간 거지. 공중분해된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어려웠죠... 그 비행장에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어. 그래가지구 여기 와가지구 여기서 정미소, 그거 가지고서 인제 우리들 공부시켰는데 그것두 인제 농업협동조합법 그거에 의해서... 그거 해가지구. 또 그거 해서...

장례쌀 줬더니...

그 돈을, 방앗간 판 돈을 받으니까 먹고살기 어렵다구 장례쌀 달라고 그래서. 그거 뭘 해. 그 때 은행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은행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줬더니 1년 후에 고리채 정리를 해서 하하하...

그 다음 번에는 진짜 가계를 끌고 나가기가 어려웠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야리 있잖아요. 야리. 신야리 비행장에 징발당하고 나서 완전히 정말 정부한테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이여. 그 집 자손들이 공부한 야리, 거기 야리. 신야리, 적봉리 또 저쪽에 금각리. 하여간... 대학이라구 다닌 사람은 우리밲이 없어... 내 동생이 동대문상고 교장하다 정년 퇴임했어요... 바로 밑에. 셋째 동생은 경기도보건원장하고.

그래도 공부를...?

우리 어머니가 공부시켜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비행장 되고 나서 55년도에 돌아가셨걸랑요. 비행장 들어가고나서 중풍을 걸렸어.

그러면 중풍 걸리신 게 토지 다 수용된 거 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지. 관련이 있지. 그래서 3년 동안 중풍 앓다 돌아가셨어요. 중풍 앓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우리 고모의 아들, 고종 사춘이 있어요. 고종 사춘이 오성면에서 그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도 하구 그때 잘 살았지. 오성면에서. 근데 그 형이 와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구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동생들 공부시키면, 공부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공부만 시키면 어떡하냐? 불러내려서 농사짓게 해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여.

어머니께서 대단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러면 인제 방앗간도 수용되고 고리체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어르신은 아까 고학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생분들은?

동생들두, 그러니까 제대로 학년에 맞춰서 한 아이가 없어요. 전부 다 3~4년씩 늦게 들어갔

지.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중학교 가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럼 어려운 시대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여. 그러니까 저기 고종사촌 형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구 '애들 학교만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불러서 시골서 품이라도 팔아먹고 살아야지.' ,,,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가요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내가 중학교 다니는 것은, 중학교 들어가서 다니는 거는... 6.25 사변이 나니까, 아버지 친구가 인천에서 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때 인천의 대학은 인천대의숙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인천의 유일한 대학이여. 그 인천대의숙 창설하신 창설자가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6.25 사변이 나니까 그분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구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우리 집을 오셨더라구. 오셔가지구선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고 소리를 질러. 그래 내가 나가봤더니 웬 분이 동그란 안경을 쓰신 분이 오리 가방 하나 들고선 대문에서 그렇게... 그러니깨 그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사랑방에 모셨어. 그랬더니 거기서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6.25 사변이 나서 여기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많어. 애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 신변은 내가 보장을 할 테니까 더 이상 피난 가지 말고 사랑방에서 중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좀 걔들 공부 시키시오." ...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깨 우리 사랑방에서, 그때 행랑채가 있었는데, 사랑방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구서 더 이상 피난 가지 않고 거기서 있으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한문 글방. 그래 나도 중학교 못 가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선생님 밑에서 2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

한문을요?

한문.

그분이 한학자셨나 봐요?

한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러면 그분은 그때 그전에 아버님하고 이렇게 아셨던 게 아니고 피난 오면서...?

아니죠. 그 전부터 예전부터 아시던 분이지.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도 아주 형제나 다름없이 지내다 보니까 피난 가다가 우리 집에 들린 거야. 들렸다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중학교, 전쟁이 나서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애들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인제 어르신도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학생들이 그때 동네에서 중학교 못 간 아이들은 다.

그럼 한 50~60명 됐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한 20~30명은 됐을 거여.

아버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농사 지으셨나요?

면장하셨다니까. 몰러 난 면장하신 거는 못 봤는데, 면장하셨대니까. 면장 하시면서...

면장하셨으면 그래도 지역에 굉장한 유지분이셨겠는데요?

몰르지 난...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거기서 피난 가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 가르쳤어요. 영어, 수학, 한문...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요?

예. 중학교 과정. 아 그 양반 교육 철학이 대단했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독립선언서 있죠? 독립선언서 원문.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을 하노라...” 그게 독립선언에 처음 시작이걸랑. 독립선언서를 붓으로 써서 벽에다 쫙 붙여놓구 거기 오는 아이들은 그걸 다 외우는 거여. 그걸 다.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강습소처럼 운영된 거네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보리쌀 한 말... 가을 농사지면 살 한 말. 그거 갖다 주면 그거 받고 거기서, 우리 집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50년대에 오셔가지고 52년도에, 한 3년 하셨구먼.

그러면 그분 때문에 어르신도 인천으로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영화중학교 창설자요... 지금은 대건중학교로 바뀌었지만.

인천의 대건중학교요?

예. 바뀌었지만 그 대건 중학교의 전신이 영화중학교예요.

그러면 거기가 가톨릭 계열인가요?

카톨릭은 아니고... 개신교. 아 6·25 저거가,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교육의 역사가, 6.25 사변 나고 여기 진위고등학교, 진위고등학교에서 천막이 돼서 시작한 거걸랑.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고아원 많이 원조해주구. 학교, 우리나라도 지금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서 학교 후원하잖아요. 진위 학교도 그렇게 해서 미군 후원 받아가지구 그 학교...

고등공민학교 때요?

예. 고등공민학교 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여기 회화리에도 그때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회화리에도 있었어요. 고등공민학교 있었어요. 회화리에두. 마두리.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지금 저기 관광고등학교 그것도 그런

건데 뭐.

그러면 어르신은 중학교 때 그쪽(인천)으로 가셨으면 아무래도 자취하셨겠네요?

아니요. 그 선생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선생님이 자기 아들, 그냥 자기 집에서, 우리 집에서 물론 쌀은, 쌀 한 달에 서말인가 한 닷말인가 줬지만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했죠.

그 동생 분들도 그렇게?

그렇죠.

그 학비는 어떻게...?

학비는, 그때 뭐 중학교 학비 뭐 들어요? 밥만 멕여주면 되는 거지.

아니, 학교에다 내는 돈 있잖아요. 수업료, 등록금.

예.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침이면 동생들 학교 갈 때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서 그냥 이 집 저 집으로 돈 좀 꿔달라고 돌아다니고..

그때 그러면 동생 분들도 같이 인천에서 하신 거예요?

동생들은, 제 바로 밑에 동생만 같이 갔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비행장 되고 나서, 비행장 되고 나서 대학 나오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큰 부락에. 어떻게 대학을 나와. 다 쫓겨난 사람이.

금암리는 어땠어요?... 그때 진학하는 어르신 동기분들?

여기 별로 없었죠... 여기도 없었어요. 별로... 하여간 그 야리, 장등리 그 비행장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 거여. 그 저기 보면은, 그 후손들 공부 제대로 못 시켰어. 그러니까 그 저기, 내가 아침에 체력 단련하러 그 거기 가니까, 며칠 전에 뭐 행사한다고 갔다 놨대. 그런데 그날 날 못 가고, 안 갔지만, 여기서 할라면은 뭐 각 부락에 유적, 유래 뭐 그런거나 하지 말고... 평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산업이 뭐예요? 삼성이요?

지금은 뭐 삼성이 그 인제 많이 사람들 주목을 받죠. 근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미군 부대 쪽에 많이...

대표적인 것이요, 이건 국제적인 명소 아녀? 서탄면에 그 저 6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들여서 거기 뭐 벽화 그리는데, 거기 예산 줬다고 와서...

저기 금암1리에 있는 거요?

예. 그래서 그 추진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뭐 하니까, 애써서 하시니까,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 서탄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기 대표적인 걸, 외국에서 사람이 와서 그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참외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참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뭐 그 대표성이 있는 걸, 뭘 해야 될 거 아녀? 맨날 상모 돌리고 꽹과리 치고 하는 그림이나 벽에다

그려놓고 말이야.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2~3년, 1~2년 지나면 그것도 퇴색돼서 흉물되고 말이야. 그것도 몇 해 지나니까 또 다시 그린다고 뭐 몇 천만 원씩 예산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나, 시청에서 예산 쓰는 거 이 사람들...

근데 인제 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인제 벽화를 그리고 그러면, 미군 부대를 거기다가 벽화로 이렇게 집어넣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아픈 측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이 아픈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산 비행장 있잖아요. 이거는 평택을 대표하는 거여. 전 세계에 내놓구. 그렇잖아요.

예. 유명하긴 하죠. 유명한데...

그럼 서탄의 대표적인 거 뭐, 각 부락에 유래해서 뭐 저거 북바위 뭐 고개, 이런 거 너브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보다두 거기 그림 그리는데 여기 비행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한 가지래두...

그렇죠. 진위천이라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런 걸 해야지. 서탄면의 3분의 1은 부대로 다 뺏겨서 지금 서탄면이 아주 그냥 찌부러 들어가지고, 시의원, 도의원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그래도 요새 많이 발전하지 않나요?

뭐가요? 다른 데 비해 봐요. 여기 참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김선기 시장이 있을 때 미군부대 이전 특별지역으로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효명중학교도 그때 저 학교 숲 조성하라고 돈 몇 억 줬을걸?

예. 5억인가 줬어요.

5억 줬죠? 서탄학교도 5억 나오고. 각 학교마다 다 5억씩 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거 가지고 비행장에 수용을 당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대학도 제대로 공부시킨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나도 없이 그거 가지고 뭐 학교 숲 가꾸길 해. 그래 내 소음공해 한다고 그래서, 공청회 한다고 그래서 가 가지고서 공청회 끝난 다음에 국방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이 왔어. 당신들 지금 이 비행장에 대해서 뭘 아냐 말이야. 아 비행장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각처에 헤어져가지고 동네 80여 곳 되는데 다 헤어져가지고 정말 빈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거 하나도 없이 뭐 비행기 소음?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고 말이야. 당신들하고 붙들어서 얘기할 저것도 못돼. 당신들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없지만. 국방부에 가면은 건의 좀 하시오.

거기 원래 원주민들의...

그렇죠. 그거 해야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인제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대물림 되는...

대물림 됐지요.

교육 환경 같은 것 같들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비행장 되고 나서 그 후에 한번 친목회를 했어요. 부대 안에서. 여기 부대 사령관,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사령관이야. 부대 사령관한테 얘기했어. 그래 사령관이 "그러면 예전에 살던 사람을 초청을 해서 부대에 한번 자기가 초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 비행기 뒤에 배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엄청 많네요.

이 사람들이 비행장에서, 전부 다 비행장에서 살다가, 한 후손들이나 그 사람들이여.

이게 몇 년도예요?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문화사업, 뭐 한다고 말이야. 각 부락에 뭐 찾으러 돌어다니는 사람들 더러 있던데, 이 부대에 대한 걸 알면은... 평택시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명소, 세계적인 거 아녀. 이 비행장이. 그럼 평택하면 비행장이 상징적으로 생각이 돼야지! 상징적으로.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인제 아무래도 또 뭐 이렇게 시에서는 뭐 기지촌이라는 그 이미지는 좀 벗고자 하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지촌이요? 거 옛날 얘기고. 기지촌이라는 얘기는 6.25, 52년도 그때 얘기고. 지금 벗었잖아요. 다... 지금은 이 나라에서 국가의 경제력도 얼마나 세.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줄 필요가, 그 단계가 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제대로, 늦게라도 좀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죠.

5년 거치 10년 상환 증권 줬어요. 박 대통령이.

근데 대부분 그거 팔았죠?

그거 증권 주기 전에 다 팔았어. 증권 주기 전에 또 국방부 끼고선 뭐 뭐, 하이고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 인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연락 같은 거는 하나요?

지금은 인제 없죠. 내가 그때 12살인데 지금 86이니까. 뭐 다 죽구, 다 돌아가시구. 어려 풋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때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구...

그런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좀 남겨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 냉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 이 비행장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땠는지는 기록에 남겨놔야죠. 그 이후에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그 개인 사생활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물론 이렇게도 역으로 공부, 생각할 수 있어요. 정주영씨 같은 사람은 이북에서 소, 뭐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넘어와서 세계적인 재벌이 됐는데 뭐 너들이 못나서 그렇지. 뭐 비행장이 문제냐... 비행장 된 거 탓하냐. 하여간 그 결과가, 그 후손들 중에서 대학 다닌 사람 없어.

어쨌든 어르신은 그 어려움을 겪고 형제분들이 다 그렇게 학교를...
우리 어머니가 어떻든지 공부는 시켜야 된다. ‘애들 불러내려서 농사 지으라’ 고 그래는데, 친척들이. ‘아니다.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고서.

그 어르신은 중학교 다니시면서 인제 이 동네에는 좀 이렇게 멀리 계셨겠네요?
아니 나가서 학교 다녔으니까 여기 가까이 할 수도 없죠. 내 생활이.

인제 초등학교 여주에서 생활하시고?
여주에서 1년인가 2년 하고. 주로 이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이 학교하고 송북학교하고.

서탄초등학교하고 송북초등학교에서?
예.

또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여기 이 지역에 관한 역사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시고 그러셨나요?
그러믄요. 그때 나 여기서 선생 할 때, 평교사 할 때 학교 운동장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구뎅이가 하나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 전쟁 때 폭격,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연못이 된 거. 그래 내가 있을 때는 애들한테 “야 느그 기념사업 하나 하자!” 그래 가지고 리어카로 끌어다가 그거 메꿔서. 걔들 지금 만나면 “내 미안하다. 그건 너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학교 관리자가 할 일인데...” 공부는 안 시키고 그런 거 그런 거 하자고 해서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뭐 상처를 지운다는 의미로 메꾸신 건가요?
아 그거, 운동장 가운데, 그렇지요. 운동장 가운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그 6.25 이후에 계속 그게 연못처럼 남아 있었어요?
연못처럼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웅뎅이로, 구뎅이로 이렇게 남아 있었죠.

보통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조경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크지는 않고... 애들 데리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 속상한 게 많아요. 학교 가 보면은...

어떤...?

학교 관리하는 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 나는 그렇게 주장해. '학교가, 교육이 무너지면은 그건 다시 복원하기가 몇 십 년, 몇 백 년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선생이 애들 교육을 포기할 지 오래됐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교사인데...

아 교육 포기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있죠. 있겠죠. 우리 학교에 있을 때는요... 여기 서탄학교, 여기 근무할 때 남자 선생님 세 명 네 명 있으면은, 숙직했어요. 애들 가르치구. 숙직하면은, 학생들 몇 명 안 된, 선생님들 많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일 해야 돼.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숙직. 그렇게 하면서 교육 지켜온 거예요. 우리 있을 때, 애들 체벌 우짜고 그러죠. 물론 어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아이 학부모들이 회초리 꺾어다 주면서. 회초리 갖다 줬어요. 맨 처음 체벌 얘기 나올 때. 이거 이거 가지고 선생님 염려하지 마시고 애들 종아리를 때려서 사람 만들어 달라고 회초리 꺾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막 더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에이 속상한 거 참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어르신은 인제 여기 고향이시고 또 출신 학교고 그러니까 더 여기에 대한 애정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송북학교두 그래요. 송북학교두 한 7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교장, 송북학교서 교장 하다가 정년 퇴임했는데, 송북학교도 거기 참 험했어요.

옛날에요?

예. 험했어요. 운동장에 졸업식 때, 학부모들이 졸업식 때 오잖아요. 그러면 3월이걸랑. 대개. 그러면 운동장이 질어가지고 졸업식장에 올 수가 없어. 그럼 2∽3일 전부터 애들 보고 대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구, 고 옆에, 지금은 복개해서 길이지만, 그 냇갈이걸랑. 거기서 모래, 대야에다 모래 담아서 사람 가는 길만 쭉 이렇게 깔아서...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거기 평교사 시절에요?

평교사 시절에... 거기 갔는데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라고 그래. 그 학부형이 자기네 집엘 오라고 그래. 그래 거길 갔어. 갔더니 그 사람 생일이여, 그 하우스 보이 생일인데... 그때는 안테나 있잖아, TV 안테나. 잠자리 안테나. 그거 있는, 그거 많은 데가 송탄밲에 없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자면은. 그러니깨 송탄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여. 오토바이, 그때 오토바이가 어딨어! 자전거만 있어두 부잔데. 그런데 갔더니 거기서 저걸 해... 생일이라고 해서 다 왔어요. 오토바이가 마당으로 하나 가득이여.

누구, 아이 생일이었나요?

아이 그 학부모... 그래 갔더니, 그 집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갔어. 거기 갔더니 그 학부모가 그 대위한테, 캡틴 영 대위래는 사람한테 나를 소개를 하는데, 아 저게 영어라고 하는지 뭔지. 근데 잘 알어듣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영어 배울 때요. 내셔날 유니온 그거 가지고 2년 동안 배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다 외었었어요.

뭐 대학 다닐 때 말씀하신건가요?

아니 여기서 한문 글방 할 때...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장등리에서요?

예. 그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

오히려 달달 외웠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거죠?

그렇겠죠. 다 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 영 대위가 있어. 그런데 그 대위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야 이거 뭐 참 말도 아닌 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영어를. 그래서 영어로 그 영 대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영어할 줄 아냐고 그래. 나 옛날에 좀 배웠다고. 그랬더니... 제쳐놓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하고, 영 대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튿날 너희 학교 좀 방문해도 좋겠냐? 그래서 오라고. 그 송북학교 왔어 그니가. 그 이튿날 왔어요. 자기 부인하구 애 하나 데리고. 그래서 그 영 대위를 데리고 학교 소개, 뭐 내가 영어를 잘하나 그냥.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니면서, 교실 다니면서 소개하고 뭐 하구 다 했는데. 그니가 학교를 좀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보시다시피 당신 여기 차 댈 데가 없잖냐. 운동장이 질어서. 그러니까 저거 모래로 돋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겠다 이거예요. 그 모래를 어디서 가져오냐. 이 서탄면 냇갈에 모래 많어.

저 회화리 앞에요?

아니 여기 금암교 있는데... 그러니께 하자. 요다음 토요일부터 하자. 그래 그 다음 토요일이 되니까 덤프추럭하구, 이렇게 페로다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와서 그냥, 거기서 그 기상대 군인들이 와가지고 추럭으로 모래를 퍼다가 인제 송북학교 운동장에 그걸 까는 거야. 아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 아 면에서 못 파게 한다고. 큰일 났다고.

부대에서요?

예. 그래서 그때, 아시는지 몰라도 얘기 들었어요? 방진호씨라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 방진호가 학교 운영을, 내가 거기서 새마을 담당하라고, 학교 회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송북학교에서. 근데 학교 육성회 회원 중에 하나가 방진호라고 있어요... 그 양반 유명한 분이여. 이북서 인민군 대좌였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러두 이북에서 은행에 있는 금괴를 이송을 하라는 책임을 맡고 배에다가 금괴를 싣구서 올라간 사람이여. 그 사람이여. 그래 송탄에서 저걸 했는데, 송탄에서 찝게 부대.

예. 옛날 넝마중이라는....

예. 넝마중이. 그거 대장이지. 방진호가.

아니 근데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이 오다가 바다에다 빠쳤대요... 침몰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부대에서 그걸 하는데, 그니가 권력자였어. 그때는... 그래 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려?" 평택 그때 군청이지. 평택군에다 전화하니까 금방 파가라고 그러더라구. 지금 송북학교 한 이만큼을, 50센티~60센티 돋웠을 거여. 그래서 운동장 제대로 만들은 거예요.

참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때부터 송북학교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가더라고... 송북학교는 지금도 내 학교 같애. 거기.

서탄 학교도 연못도 메꾸시고 그랬는데,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서탄학교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송북학교에서 7년간 근무했나. 7년 동안 내 집에 안 왔어요. 방학 다 반납했어요... 새마을 사업 그거 하느라고. 그 7년 지나니까, 순환 근무제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송북학교, 큰 학교에 너 오래 있었다고 지방으로, 조그만 학교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서탄 학교로 왔지. 고향으로. 여기 와 가지고 봤더니 그 미군들이 다 여기 쫓아왔어. 서탄학교 일 해준다고. 서탄학교 하자고.

그래서 서탄학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서탄학교 이치영 교장한테 그래서 그 새마을사업 하자고 그랬더니... 그거 하자고 그랬더니, 아이 나 못한데.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야 그거 하면은, 송북학교는 학부형들이 능력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공사 끝나면은 대접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탄학교는 그렇게 할 저기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자. 그래 여기 언챙이가 있었어요. 입 천장이 하나도 없어. 이거(음식) 먹으면 코로다 나와.

선생님 중에요?

학생 중에... 인제 걔 도와주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인제, 그 상익인데. 차상익 후원, 언챙이 수술 해주는 거, 그걸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난 돈이 그렇게 드는 줄 몰랐지. 돈을 해가지고 "가자!" 그 용산 미군부대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그 용산인가 미군기지 있는데 병원, 거길 갔어요. 걔를 데리고. 그랬더니 그 ○○ 대장이, 이게 원체 성형외과 수술은 한국 사람이 더 잘 한다. 한국 의사들이 더 잘하니까, 군

의관보다, 자기들한테 의뢰하지 말고 한국 병원에 가라고. 그래 성형외과, 미인성형외과라는 데를 갔어.

용산에요?
응. 용산에.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1980년대쯤 되나요?
그렇죠. 그래 가서 봤더니, 미인 성형외과 원장이 다 보고, “돈이 얼마가 드냐?” 그랬더니, 그때 돈 몇 백만 원이 든대는 거여. 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대위가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왜 거짓말 했냐고.

누구?
아니, 난 돈 조금 든다고 그랬걸랑.

아 미군이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학교 단장하는 거 대신에 얘를 도와주자 그래서 인제...?
그렇죠. 도와주자 그래서. 이걸 하자 그래서... 아 그랬더니 그냥, 그 미군하고 사는 양색시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아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래서 그 성형외과 저기한테, 그런데 그때 그 니가 그래요. 다른 병원은 아퍼서 가는 거니까 돈 조금 받고 치료해 줘야 되는 거지만, 성형외과는 돈이 있으니까 언챙이 수술하는 거지, 돈 없는 놈이 언챙이 수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됐나 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수가가 그렇게 비싸대. 그래 낙심을 하고선 그냥 왔어.

결국 그때 못하셨겠네요?
예. 못하고. 아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해주겠다고.

그 병원에서요?
예. 그래 갔더니. 그니가 로타리클럽 회장이래요. 원장이. 근데 로타리클럽에서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 회의하는데 상익이 일을 회의 주제로 붙였더니,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자기들이 해줄 테니까 시작하라고... 그래서 저걸 했어. 언챙이 수술을. 그냥 입안 천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심한 아이인데.

지금 몇 살쯤 됐어요?
한 쉰둘, 쉰셋,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창이니까 그 정도됐어요.

정상적으로 인제 잘 생활하고 그러겠네요?
아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생활력이 강한지, 그래 그 미군이 갈 때 미국 들어갈 때 인제 걔 수술 다 해주고 들어갈 때, 자기 차를 팔어서, 자가용을 팔어서 상익이 후원금을 해주겠다 이래. 은

행에다 예금을 하자고. 그래서 아 은행에 그까짓 이자가 몇 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가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얘를 소를 한 마리 사주자. 소가 자라서 새끼 낳고 새끼 낳고 그러면은 이게 이담에 어른이 돼서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깨 '아유 좋은 생각이라고' 그 사람이 그 미국 들어갈 때, 자기네 나라 들어갈 때, 자기 자가용 팔어서 송아지 사주고 갔어. 얘.

그래서 그 소 잘 키웠어요?

그래 잘 키웠죠. 잘 키웠는데, 얘가 참 생활력 강하고 참 좋은 아이였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구 트럭을 한 대 샀어요.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여기 만도기계에서 물건을 싣고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 그걸 맡았는데, 돈이 벌리니까 이 새끼가 그냥 밤잠 안자고 일하는 거여. 밤잠을 안자고. 그래 여기서,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땐데, 그렇게 일을 해... 그래 저희 아버지가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는데 안 나가서 저희 아버지가 깨웠더니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억지로 인제 문을 띠밀고 들어갔더니 죽어서 다리가, 다리로 쪼끄만 방에서 문을 받치고 죽어 있어.

그러니까 과로 때문에요?

과로로... 걔 참 쓸 만한 나이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참 이상한 게,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여기서 거기 갔잖아. 갔으면 전화라도 하고 말여. 편지래도 해야 될 거 아녀. 딱 하고 그만이여. 자기 갈 때, 여기서 퇴역을 해서 갈 때, 자기 차를 팔어가지고 이 송아지까지 사주고 간 사람인데...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없고요?

전혀 연락,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있을 때 그렇게 잘 해준 거는 고마운 일이죠.

예. 그러믄요... 그래서 내가 근무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우리 학습지도안 쓰느라고, 요새는 지도안도 안 쓴대매?

요새는 지도안은 안 쓰지만 학습 자료를 만들죠.

아이, 그 전에도 그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전엔 그 지도한 그거, 아 그거 작성하고 아침이면 가서 결제 맡아야 되고, 숙직 해야 되고.

수업하는 날 아침에 결제를 맡았어요?

그 전날, 그 전날 다 써서.

저 초임 때만 하더라도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우린 매일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한 것도 많어. 관리과 직원, 그 사람들이 뭔데 숙직 감사 나온다고 말이야.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할 때는요... 선생님 할 때는 어땠는지 몰러두... 이 나라 그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저축 장려할 때, 벽 뒤에 가보면 저축 그래프가 있잖아요. 개인 이름이 있고, 꺾은 그래프로 해서. 누가 얼마 하고, 누가 얼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돈 없을 때, 그렇게 해서 국민학교 아이들 그 코 묻은 돈까지 다 걷어서 공장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참 그때는 인제 저 이렇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러믄요. 그 희망 대단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함석헌 씨, 유달영 씨, 그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어요. 김구 선생. 이런 분들, 그분들이 국민들의 정신을, 국민들의 숭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함석헌 선생이나 유달영 선생 같은 경우를 교장선생님은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아이 유달영 선생 같은 뭐, 그분이 강의를 다녔어요. 나 대학 다닐 때 그분 강의 들었어요. 이희승씨 같은 분. 이희승씨는 우리 직접 가르쳤구. 이희승씨, 유달영씨. 유달영씨, 수원농대 교수, 그분 말 참 잘하죠. 글도 잘 쓰구. 함석헌씨, 그러니까 함석헌씨 사상가지. 함석헌씨가 쓴 책 중에서 ‘뜻으로 본 한국사’ 라는 책이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사. 그러니까 사건을 나열허는 게 아니고, 그 뜻으로 본 한국사 그걸 읽어보면은... 그런 분들은 국민들, 그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국민, 대학생들도 다 따르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한 말씀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른이 있고, 선생이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까 여쭤봤었는데, 함석헌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대학 가서 아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구 대학 가서. 그리고 그분들 책도 좀 읽었고. 함석헌씨 그분 대단한 분이요. 함석권 씨가 4 · 19 나기 전에,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4 · 19 나기 전에 청와대 앞에 그 무슨 건물인지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를 갔어. 갔는데, 광화문서부터 기마 경찰들이 말 타고 쭉 서서 거기 안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갓 쓰고 지팽이 짚구 그런 노인들이여. 두루마기 입구. 그런 사람들이 호롱불을 들어서 작대기에다 이렇게 작대기 끄트머리에다, 그 저기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거, 하는 거 있어.

예. 청사초롱 같은 거?

예. 청사초롱 같은 거. 그걸 들구서 쭉 가면서, “그걸 왜, 대낮에 그걸 왜 들고 다니시오?” 그랬더니, 요새는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또 절에서 목탁 두들기는 중들도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데, 요새는 어깨가 무겁도록 별을 단 사람들이 나갈 때와 물러설 줄 모른다고. 그 박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함석헌씨가 강연을 하는데... 그런 것두 보구... 그 함석헌씨, 함석헌씨 그 강의를 들으려구 그 광화문 거기가 그냥 사람이 꽉 멨었어요.

그 갓 쓰고 지팡이 지판이 짚은 분이 청사초롱은 낮에 왜 들고 다니셨대요?

세상을 밝히느라구. 세상이 그렇게 어둡다구. 어깨가 무겁도록 별을 단 사람이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모르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라구. 세상 밝힐라구.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하하. 많지는 않았지만...

뭐 한 두세 분쯤?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구.

대학 때 인제 들으러 다니신...?

그렇죠. 4·19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함석헌 씨가 강연 하는데, 그 강연회장이 모자라니까 마이크를, 길 가로수에다가 마이크를 가설을 했어. 급히. 그런데 그 강연 도중에 그거 다 끊구 뭐 하고, 아이구.

그 자리가 세종문화회관, 지금 세종문화회관 거긴가요?

예... 그랬어요. 그만큼 함석헌 씨를 국민들이 그렇게 우러러봤어요. 근데 지금 우러러보는 사람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대학생들도 뭐 이렇게 함석헌이나 유달영 박사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존경하는?

그럼. 대학생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분들.

4·19 일어났을 때는 몇 학년이셨어요?

내 초급대학 졸업했을 때예요.

그러면 발령 받고 나서?

아니. 발령이 안 났죠. 졸업하고.

여기 내려와 계셨었어요?

아니. 서울서 거 다 했어요. 데모하고 뭐 하고 다 했어요.

아 4·19 때요?

예. 이철승이 뭐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러면 그때는, 4·19 때는 인제 학교 발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 3월 달에 졸업이니까. 2월 말에.

3월에 졸업이고 2월 말에, 근데...?

4월 달에 했죠... 3월 달에 졸업이... 2월 말에 졸업했을 거야 아마... 그러고서 서울에 있는데, 아 언제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

그때는 대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 대학을 졸업하고 직후잖아요?
예. 졸업하던 해에.

거기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된 거는 어떤...?
아 구경 나갔다 참석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학생들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때 대학로로 가셨어요?
종로 뭐 서울 대학로고 어디고 뭐 서울 시내 전체가...

그때 어디 사셨어요?
서대문.

서대문에 사시다가 인제, 그러면 세종로 있는 데까지 걸어가셨겠네요?
그러믄요. 서대문 가꺼운데 뭐.

정동고개 이렇게 넘어서?
예... 일반 국민들도 구경 나왔다가 같이 손 흔들고 대모에 합세하고 그러는 거지.

그때 한참 뭐 대학생하고 거의 비슷한 청년이었는데, 잡혀가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아이 잡혀갔지요. 나하고 같이 한 집에 하숙방 하던 아이가 고 아랫방에 있고 난 본채에 있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깨 경찰이 와서 잡어가더라고요.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러, 그 친구. 그래서 나는 그냥, ‘아 나도 잡히면 죽는구나’ 그래서... 하하 도망왔지.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그 때 4·19 때, 맨 처음에는 데모 학생들이 저걸 했지요. 세가 우세했지.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경찰들이 다시 재집결해서, 경찰들이 다시 하루나 이틀 동안 다시 치안을 담당했었어요. 그때 데모하던 학생들 많이 끌려갔지. 많이 잡혀갔지.

어느 대학 다녔었어요?... 잡혀간 사람.
그건 몰러. 어느 대학인지

한 1~2년 후배쯤 되겠네요?
몰르죠. 선밴지 후밴지.

같은 집에 사는데 얘기 별로 안하셨나 봐요?

예. 얘기 별로 안 했지.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때도 전부 다 고학하느라고.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일 하시면서 이렇게...?
교사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했죠.

가정교사 하고... 또 다른 일은?
안 했어요.

주로 가정교사 하셨어요?
예.

그때 가정교사 하시면 돈 어느 정도 한 달에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구 여러 명 모아서 하니까. 그 숙식을 제공하는 집 아이들한테는 돈을 안 받구. 또 걔 친구들한테 저거 하는 아이들은 얼마씩 주구. 그것이 봉급보다 나았으니까.

나중에 인제 발령 받고 나서 받은 봉급보다?
예. 나 발령 받을 때는 보리쌀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

몇 년에 발령 받으셨어요?
몇 년돈지 몰러도, 60년대 후반이여... 옥수수 가루. 그거루, 봉급 대신 그거루 준 적도 있어요.

보리쌀은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보리쌀은 받어본 적 없는데. 옥수수가루지.

그러니까 봉급은 하나도 안 주고 순전히 옥수수 가루만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큼이나 줬어요?
하하. 하여간 그때 먹고 살 만큼,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줬어요.

포장을 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냥 푸대로 가져오면 그냥 퍼서 줬지.

그렇게 몇 년이나 옥수수 가루를?

한 1년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러면 다른 생필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뭔 생필품이요?

인제 옥수수가루 받으면, 반찬도 사고 그러려면?
반찬이 뭐, 반찬 그냥 채소 같은 거 그냥 자급자족 하는 거죠.

옥수수 가루는 한 달 정도 먹으면 끝나는...?
그 어떻게 됐는지 몰러. 그때... 그랬어요. 하여간.

그러면 가정교사 할 때는 그 가정교사 받은...?
대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거는 그거 가지고 학비 내고 생활비하고 다 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때는 전주에 가정교사 뭐 이렇게 ‘학생 구함’ 해서... 이렇게 쪽지 붙인 거 많았어요. 전주에.

인제 학생들이 자기 일자리 구하려고?
예.

그럼 대학 1학년 때부터 계속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정교사로?
예.

그때는 가정교사 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많았죠. 그때 옷이, 미군 부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군복이 있어요. 군복... 그때 염색소가 많았어. 그때 염색하는 데. 그 염색하는 데다 그 작업복 그거 갖다 맽겨서 까맣게 염색 해가지구. 그게 교복이야. 그거 입고 학교 다니는 거여.

옛날에는 대학생 교복 입고...?
교복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골서 간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그런 거. 작업복. 미군 부대 작업복. 군복이니까 파랗잖아요. 그런데 까맣게 물들여가지구 그거 입고 다니구.

그 시절에는 그래도 참 배우고 나면 좀 어떻게 살겠다는 희망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서, 경희대학교 탑이 그 우골탑 아녀. 경희대학교. 소 우자, 뼈 골자... 경희대학교 탑이, 그 별명이 우골탑이여.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구 애들 학교 보내서. 학교는 그거 받아가지구 학교 짓구.

그래서 인제 졸업하시고 교사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실 때까지 몇 년 하셨어요?

졸업하구 나서 군대 갔다 오구. 군대 갔다 나와서 평생을 했으니까.

한 40년 하셨나요?

40년은 안 되구, 한 30년은 넘었을 거여.

제일 보람 있었던 거는 어떤 보람이예요?

보람은 무슨 보람이여. 그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애들 잘 가르치면... 하여간 그때 과외 공부라고 그럴까, 학교에서 돈두 안 받고 가르치는 거지. 공부를. 그래 장학사들은 또 애들 그거 한다구. 밤늦게까지 가르친다구 밤에 또 감시 나오구.

가르치면 더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녀. 그때 왜 그런지 몰러. 그러면 저 유리창에다가, 창틀에다가 불빛 새 나가지 않게 담요 같은 걸로 창문 가리고 애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뭐, 그때는...?

중학교 시험 봤으니까.

그렇게 보수도 없이 그냥 밤늦게까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서탄 초등학교에서?

서탄에서 했고... 중학교, 오산중학교 그놈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김태석이라고. 동아전과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놈은 머리가 어떻게 좋은지, 뭐 그러면 동아전과 몇 페이지에 있다고 말을 해요.

동네에 살았어요?

사리 살었는데. 절골... 그 오산중학교 2등으로 들어갔어. 시험 볼 때... 근데 그 참 이상해요... 뭐 가방 끈 길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애들 잘 가르치는 거 아녀. 그 영어로 미국 속담 있잖어. 'to know is one thing, to teach is another.' 그런 얘기가 있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공부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구 애들 잘 가르치는 거 아녀. 애들 가르치는 거 하고 아는 거 하고 달러요. 공부 많이 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녀. 거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거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따지는 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처럼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또 거기서 보람을 찾고 이런 분들이 잘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사는대는 기준이 뭐야. 잘 사는 거야 돈 많아야 잘 사는 거냐...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병 잘 고치는 의사하고 돈 잘 버는 의사하고는 달러요. 병은 잘 고쳐구 돈은 못 버는 의사 많어...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있어. 사무장병원. 그런 병원이 돈은 잘 벌지. 그러니까 교육두 많이 알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구.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구. 그러니깨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거는 다르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중학교 입학 시험 대비하려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내가 그 얘기를 할려다 안 했는데, 그때 김 아무개라고 하는 동아전과를 다 달달 왼 아이가 있는데, 걔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래 다니다가 그거 그만두더라구. 그만두더니 또 뭐 시골에 와서, 제집에 와서 버섯을 기른다구 버섯 재배하구 그러러다구.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현실하구 자기 생각하구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지니까, 그걸 가지구 고민하다가 그러지 않었나.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인제 6학년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

몇 명 정도나 밤에 그렇게... 그때 한 학년이 몇 명 정도나?

60~70명이여... 한 반에, 두 반이면 140명.

그때 그러면 그 학생이 같이 여기서 중학교 가려고 공부할 때 두 개 학급이었어요?

그렇지. 서탄학교 두 개 학급이었어.

그중에 인제 중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 명?

그땐 중학교 다 갈려고 그랬지. 중학교는.

중학교 시험 볼 때요?

그때 공부는 다 했지. 그런데 여기 서탄학교는 진위 중학교 있잖어. 거기 학생 수가 모자랐잖어. 그때. 정부에서 학급 이렇게 배정해 주는데 그걸 못 채웠잖아. 그러니깨 교장선생님이 그 입학 시절이 되면은 각 학교 찾어다니면서 로비를 했지. 우리 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깨 서탄학교두 그렇게 해서 6학년 한 2학기쯤 되면 송탄으루 전학 간 아이들 많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배정하지 않았어요? 졸업하면 중학교는 진위로 갈 수 가게끔...?

중학교 진위로 가도록, 그렇게 했죠. 쭉 그렇게 해오다가 자율 학군 된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배정하기 전에 그렇게 공부시킨 거죠?

그러믄요. 나 초임에.

처음에 인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응. 그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들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몇 프로나 남아서 공부했나요?

거의 의무적으로 했지...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요?

응. 그러니깨 수업이 4시간, 5시간, 6시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어서 밤까지.

그럼 아이들 저녁은 어떻게 해결해요?

저녁 집 가서 먹는 거지

집에 가서 먹고 다시 와서?

아니지. 제 집에 가서 먹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하고 집에...?

집에 갔지.

몇 시 정도까지 했어요?

글쎄... 아이 캄캄할 때니까 하여간. 전깃불 켜놓으면 밖에 불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또 암행 감사 오잖아. 그 학교 불빛 새나가지 않게 하느라고 담요로 창문을 가리구.

그러면 한 8시 정도까지 했나요?

그 정도까지 됐는지 좌우간...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시켰어. 애들을. 근데 그게, 지금 교육 이론대로 무슨 뭐 창의력을 키우거나 뭐 그게 아니구 암기, 순 암기였으니까 그때.

정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정리하고 나면 뼈대가 서니까 창의력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이 뭐여. 한문으로 하면 고칠 개자, 가죽 혁자... 껍데기를 바꾸는 거여 이게... 껍데기를 뱄기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지. 그래 개혁을 하는 데는 반드시 피가 뒤따라야 돼. 고통이 뒤따라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여... 그때는 참 재미있는 일도 많었어. 우리 집에다가, 거기서, 비행장에서 그 선생님한테 한문, 영어 배운다고 그랬잖어. 그런데 거기 자기 어머니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 나하고 나이는 한 동갑인데. 그래 걔 아버지가 우리 애 좀, 여기서 좀 공부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걔가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인제 제일 처음에 인제 영어 배우는 게 레슨 원, 거기 1년은 4계절이다. "There are four season a year. There are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이거걸랑. 그거를 다

외지 않으면은, 그날 배운 거 외지 않으면 고담에 나가질 않어. 진도를 안 나가. 그걸 다 달달 외야 돼여. 외우구, 외서 써야 돼여. 그런데 이놈이 그걸 하구서 아이 공부하기가 지겨웠는지 우쨌는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비행장 보니까 시험이 있다구, 채용 시험이 있다구. 사람 모집한다구 광고가 붙었걸랑. 그래서 ‘에이 저기나 가봐야 되겠다.’구. 거길 가서 그 시험에 인제 응했어요. 그 13살, 14살 그때. 그런데 거기 갔더니 시험 문제가 ‘일주일은 7일인데 월화수목금토일이다. 1년에는 4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거를 영어로 써라.’ 그게 시험 문제여. 그게. 그런데 이놈은 여기서 그 선생님한테 레슨 원에서 맨날 그것만 그냥 달고 외고, 달달 외워서 쓰고 그랬는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깨 그냥 다 써서 냈는데, 아 시험관이 보니까, 그때는 참 우리나라 수준이 그랬어요. 국민학교두 제대로 못 나왔어. 그때. 20세 넘은 사람들은 일정 시대 국민학교두 교육 못 받았어요. 근데 한글만 알아두 그때는 수준이 있다고 허는 거지. 아 그런데 시험관이 딱 시험지에 보니까, 어 이거 100점 맞은 놈이 있어. 이게... 그래서 그거 인제 사령관한테 아마 보고를 한 모양이지. 사령관이 ‘걔 좀 불러, 그 사람들 불러라. 어떤 사람인가.’ 그래 사령관이 특별 면접을 했어. 특별 면접한 사령관은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아주 신사인 줄 알았더니 아이 왔는데 보니까. 걔가 키가 좀 작어요. 얼굴은 까맣고. 키도 작구 조그맣구 얼굴도 까무잡잡한 놈이 1등이다 이거야. 걔가. 그러니까 노무자 시험으로 시험을 응시했다가 이력 사무원으로 취직이 됐어. 나중에 걔가 여기 뭐까지 했냐면, 여기 PX. PX 총지배인 했어.

그 강습소 이름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거기 비행장 생기면서 생겼는데 그러면 계속 장등리에다가 한 거예요? 강습소를?

아니죠. 그 해방되고 나서 금방 없어졌지.

아니 6.25 때?

6.25 때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비행장 생기기 전에, 그 아버님 친구분...

아. 그분이 하는 강습소 아니고. 그분은 인천서 무역했어요. 무역허다 피난 나와서 여기서 그때부터 강습소가 아니라 한문 글방.

아 한문 글방 하셨고...

강습소는 없어졌고.

강습소는 일제 시대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없어졌고요?

그렇겠죠.

그 강습소는 주로 장등리 아이들이 다녔었나요? 일제 시대에?

그랬었죠.

그리고 선생님 댁에서 했던...
걔들도 그 동네... 주로 그 동네 아이들.

금암리나 이쪽 회회리나 이쪽 사람들은 없고요?
아이 거긴 안 오구.

옛날에 서탄면 면사무소가 저 골안말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아녀.

일제 시대에요?
일제 시대에 골안말 강습소가 있었어요... 골안말에 있었던 게 아니구. 지금 대정촌이라구 그러지. 대정촌... 거 일본 연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대동촌이라고 그러더라구... 지금 저 있잖아요. 칠성고분자.

예. 금암리 입구에.
금암리 입구에. 금암리 요 바로 앞에, 칠성고분자. 거기에 그 대정촌 있잖아요. 그 황무지인데, 거기 개척 회사가 거기 있었어... 지금 저 있잖아요. 칠성고분자.

그게 진위흥농이었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흥농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려서. 거기에 측백나무, 지금 그 길가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한 길씩 되는 측백나무 울타리가 거기 있었걸랑. 그때.

그 집 울타리요?
예. 근데 거기가 일본 사람 집이여. 그게. 그 대정촌 개발 회사의 관리 사택이여. 그게... 칠성고분자에, 그 자리에 그게 있었어요. 건물이. 근데 그 기억하는 사람들 별루 없더라구. "그런 게 있었어?" 그러더라구. "아이 있었지!" 거기서, 내가 골안말 금암1리 강습소를 다니는데, 금암1리 강습소에 송아지만한 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거여. 세파트. 그 개여. 그 개가 거기서 풀려가지구 그 강습소 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 그 강습소를 어르신도 다녔어요?
그렇죠. 학교 요기 들어오기 전에.

서탄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예. 거기 뭐 여섯 살, 다섯 살 그때부터.

그럼 거기 강습소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에 아이들두 있었구, 그 학교 못 간 아이들.

떨어지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거기서 했어. 나 거기 1년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세파트가 있는데, 그 세파트가 그 저기 강습소에 들어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깨 그냥 학생들이 다 울며불며 하면서 저쪽 귀탱이에 그냥 몰려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른다구 그러더라구.

그 강습소가 마을회관 자리에 있었나요? 골안말 마을회관?

그래 고 근처예요. 그 동네 쪼끄마니까 뭐.

강습소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없었지. 그냥... 골안말 강습소지.

여기 진서 강습소라고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진서... 진서란 말은 없어. 진서란 말은 진위, 서탄, 그 따서 진서인데...

서탄면장 이필성이라는 사람이 1924년에 세운 강습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나 처음 들어. 서탄면장 했대요? 그 사람이?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때는요. 강습소가 아니고, 6.25 전쟁 때, 그 진위중학교도 전신이 그런건데 뭐. 요 마두2리, 거기에두. 그때는 강의록이래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강의록. 강의록이래는 책이 있었어. 그러니깨 집에서 독학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록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

----------〈 8월 8일 〉

(적봉리 영단방앗간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녹음기 작동)

유전개요?

예. 유전개. 지금 저 오성면 살어요. 오성면 지금 오성면 안화리 그쪽에 사는데... 오성면... 오성면을 뭐라고 그러지? 거기? 소재지.

숙성리요?

숙성리. 숙성리에 가면은 유전개라고 있어요. 우리보다 선배여. 그 사람이. 유전개네 정미소가 그 하여간 그때 현대식 정미소였으니까. 그때 발동기 휠이 있잖아요. 휠이 우리 서서 이렇게 해도 한 길이 넘는 그런 큰 발동기였어. 그런 발동기를 가지구 방아를 찧는 방앗간이 있었어요... (공군) 작전사령부 그 산에. 산 밑에가, 거기가 적봉리여. 공군사령부 그 산 밑에가.

그러면 그 방앗간에 이쪽 금암리 사람들도 와서 방아찧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방앗간은, 금암리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장등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등

리에서 정미소를 크게 했어요.

아 아버님께서요?
예. 그래서 정미소 해가지구 서탄면에서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동네가 장등리여.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동네가. 그 발동기로 방아를 찧다가 전기가 들어와가지구, 해방되고.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인제 모다로 방앗간을 했었지. 모다 방앗간.

해방되고 나서요?
해방되고 나서.

전기는 일제시대부터 들어왔었잖아요?
아니여. 내가 기억하기로는 해방, 해방 후여.

해방 후에 들어왔어요?
예. 전기는.

거기에 저기 일제시대 사금 채취하고 이런 게...
사금이 아니구. 사금이 아녀. 철이여. 철. 철이 그 우리 집 행랑채에 그 철을 캐는 일본 사람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아 철을 캐는... 그러면 그 광업사가...
광업사...

소림광업사였나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은. 광업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두, 지금 전부 다 길이 있잖아요. 길이 전부 다 이렇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 포장이 되지 않으면은 비가 오면 비 이렇게 쓸려 내려간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쇳가루들이 쫙 있어. 여기에. 쇳가루들이 있어. 그래서 그 쇳가루를, 쇳가루가 콩가루 같은 거지. 그런 쇳가루를 이 냇갈 모래 속에. 모래하고 쇳가루하구 섞여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2차 대전 땔 거 같애. 그때부터. 그 일본놈들 물자 모자랄 때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삼발이 같이 이렇게 나무때기로 하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이 비탈진 데다가 뭘 하냐면 융이 있어요. 융.

아 융...
예. 천인데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 털 같은 게 있는 그거 있죠. 그걸 융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걸 이렇게 비탈을, 미끄럼틀같이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융을 갖다 깔어. 거기다가. 그러구서 사람들이 삽으루 모래를 파가지구, 냇갈 모래를 퍼가지구 거기다가, 그 미끄럼틀 같은 데다 수북히 쌓아요. 그렇게 하구서, 그때 뭐가 있어! 기계가 없구 우리나라에 열악했으니까. 오줌 바가지 있지? 오줌 뜨는 바가지. 옛날에 이렇게. 그 바가지루 냇갈 물을 퍼서, 냇갈 물을 퍼서 그 모래에

다 자꾸 끼얹어. 그 위다가. 그러면 모래는 흘러 내려오구 쇳가루는 무거우니까 거기에, 융에 들러 붙는다구. 그래서 그 모래가 다, 모래를 바가지루, 그 똥바가지루 퍼서 물을 끼얹어 가지구, 모래가 다 흘러 내리면은 거기에, 융에 붙어 있는 쇳가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구, 그걸 털어. 거꾸로 놓고 털어. 그것이 여기서 그 철을 캤대는 거여. 그게. 금을 캤다구 그러나 철을 캤다구 그러나.

사금 캤다고 그러던데...

사금이, 그걸 사금이라구 그러는데, 아녀.

금 아니에요?

금 아니구, 그 쇳가루를 캔 거여. 2차대전 때 일본놈들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그 쇳가루를 모은 거여. 그래서 비행기장이 되구 나서, 52년도 비행장, 그리구 인제 그거 하다가 인제 일본놈들이 해방이 되니깨 도망갔잖아요. 갔잖아. 자기 나라. 45년도에 도망가고 50년도에 6.25가 났잖아. 그래 우리 사랑방에 그 일본 사람, 그 광업소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방에 사무실 놓고 거기서 그걸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으로 인제 도망해서 간 거여. 그러구선 우리는 몰렀지. 그럭하구서 뭘 했냐 하면, 그 우리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친구 분이 글방을 해서 영어하구 그걸 가르쳤다구. 근데 인제 일본 놈들이 쓰던 그 행랑채를 우리들이 인제 거기서, 선생님이 거기서 인제 계시면서 애들 글을 가르쳤다고. 그런데 노는 시간이 돼서, 쉬는 시간이면은 애들이 나와서 장난하잖아요. 장난하면 이렇게 그걸 일본말로 데꼬라고 그러는데, 철장. 기다란 철장. 그거 가지고 땅을 쿵쿵 찍으면서 장난을 했어. 어허! 그런데 그 철장 밑에서 그 쇳가루가 나오는 거여. 철장 밑에서.

철장 밑에서 나온다는... 철장이라는 게...?

쇠기둥. 쇠기둥으루 인제 땅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장난을 했어.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건데...

파이프 같은 건데, 파이프 끄트머리에 그게 묻어 나오더라구. 쇠가.

쇠가 그 안에 인제 들어가 있다가?

그렇지. 거기다 파묻고 간 거지. 일본놈...

아 쇳가루를 파묻고 간 게 쿵 때리니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깨 작대기 같은 데 묻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사금 채취했다는 얘기...?

사금 채취가 아니구 그거여. 그거.

그 광업소에서요?

광업소에서 쇳가루. 그거를 이놈들이 도망갈 때 하 참 거, 귀신같이 말여. 그걸 파서 땅에다 묻으면 거기 흙도 나오구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거 캔 거를 전부 다 감쪽같이 땅에다 파묻구 갔냐 이 말이야.

그럼 그 쇳가루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쇳가루는, 아이 그러구 나서 6.25 사변이 나가지구 우리들이 공부하다가 그게 발견된 거니까. 50년도에 6.25 사변 나가지구 52년도에 비행장 됐잖아요. 비행장 돼 52년도에 거기서 쫓겨났지. 52년 10...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네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거기 있는데.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그 쇳가루가, 그건 뭐 그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몰르구. 그 우리 집터 밑에 거기에 그 쇳가루가 묻혀 있을 거여.

쇳가루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저 쇠지. 이런 쇳가루. 검은 색깔이지... 쇳가루여. 그 우리들 쇳가루라구 그랬어.

거기 적봉리 가마골에서 석유 시추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아녀.

석유 시추 이런 건 못 보셨고요?

석유가 어디서 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는 사금이 아니구, 사금이 아니구 철이에요. 철가루.

그런데 그 광업소라고 있었어요?

광업소 소리는 못 듣구... 아 그 우리 행랑채에, 그 쇳가루 캐는 그 일본 놈이 고 우리 행랑채에서, 거기서...

한 사람이었어요?

몰라. 그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사람은 못 봤는데, 나중에 6.25 사변이 되구 나서...

그 쇳가루를...

예.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많았잖아요. 여기.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많아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집 사랑방으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딱 그거 가지구 땅바닥을 쿵쿵하다가, 보니까 쇳가루가 거기 묻어 나와... 거기에 그 이거 하던 쇳가루가.

쇠막대기에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렇지. 그 막대기 끄트머리에.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놈들이 여기, 그때두 어린 마음에두 ‘이거 팔면 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루 저기 돼가지구 땅 도자로 죄 밀어부쳤으니까. 밀어 부쳐서, 이 집이여. 이집. 이집을 여기다 옮겨지었으니까.

근데 참 아버님께서 거기서 방앗간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벼 방앗간이요?

그러믄요. 벼 방앗간. 내가 보면은 그때에 좀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정미소를 한 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쪽에다가 방앗간을 차린 것도...

요 앞에가...

고물상 자리에요.

예. 이 자리. 거기 방앗간을 하다가 인제 농협협동조합에서 해서, 협동조합한테 넘기구. 그 다음에 임동순이라는 아이가 있어. 임동순이란 아이가 마두2리 살었는데, 임동순이라는 아이가. 근데 걔가 마두2리에 살면서 농협에 다녔걸랑. 이 서탄농협. 근데 고놈이 참 약어요. 애가... 그래가지구서 지금 저쪽에 내천2리에다, 그 정미소가 그대로 있지. 정미소를, 현대식 정미소를 짓고, 현대식 정미소를 짓고 서탄면 정미소를 다 사들였어.

사들였다고요?

예. 사들여서 서탄면 정미소를 전부 다 폐쇄시켰어. 폐업 신고를 했어. 그렇게 하구서 서탄면 반을, 그러니까 저 비행장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정미소를 걔가 사가지구서 전부 다 폐업 신고를 하고 모든 방아는 저희 방앗간에서 찧는다... 그런데 걔가 그거 하다가, 그거 하구. 그렇게 해서 이 방앗간을 그래서 그 동순이가 사서 폐쇄시키고

이분이 (차린 방앗간이) 잘 돼서 손님들이 글로 가서 없앤 게 아니고, 자기가 사서, 동네 방앗간들을 사가지고 그냥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짱이 큰 놈이야. 임동순이가. 지금 살어서 송탄인가 어디 살어. 임동순이 동생이 저 264 있는 데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동순이가 그렇게 하구서 뭘 했느냐 하면, 서산 정주영이 있는데 거기 그 한참 개발을 하고 그럴 때 거기 가서 땅을 많이 샀어요.

아 서산 간척 지역?

예. 간척지에 가서. 거기 가 사가지구 새우 양식을 했어. 새우 양식을. 그렇게 배짱이 큰 놈이여. 그놈이. 새우 양식을 하는데, 새우는 사료를 많이 주면 죽는대네.

아 그래요?

새우는. 그래서 새우가, 누가 먼저 사료 준 거, 새우 사료를 준 것을 몰르구 거기다 또 사료를 또 줬대요. 그래서 새우가 전부 다 죽었어. 새우가. 그래서 실패를 봐가지구, 실패를 봐가지구 그 정미소두 다 넘어가구.

어르신 어머니께서 여기다가 정미소를 차린 것도 예전에 정미소 했던 것이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녀. 하여간 그거 정미소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쪽 새말 사람들이 새말에 정미소 생기기 전에는 적봉리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러. 그거는. 적봉리는. 그런데 적봉리가, 적봉리 그 정미소가 영단 방앗간을. 영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부미.

아 영단이라는 게 정부미예요?

정부미 찧는 방앗간이여. 영단 방앗간이. 그래 정부미 도정하는 걸 목적으루 거기가 정부미 방앗간을 찧은 거지.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지. 개인 농가에서 그까짓거 벼 몇 가마씩, 뭐 쌀 한 가마 방아찧기 위해서 한, 그런 소규모 정미소 아니여... 근데 걔도, 그 저기 아까 유전개 씨두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오성면으구, 거기구 쫓겨가서 거기서 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우리보다 한 3~4년 선밴데.

참 그분은 어르신하고 관계가 있나요? 임승국...

임승국이 우리 아버지여.

아 부친이세요?

응. 어떻게 누가 그래? 임승국.

옛날 면장을, 제가 평택시의 면장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요?

예.

몇 년도에 했어요?

총독부 관보에 나와요. 1928년부터 38년까지[1] 하셨던가? 그래요.

36년까지. 내가 38년도에 출생을 했걸랑. 38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때 살아 있는 노인분들한테 들으면, 38년도에 나를 낳고. 나를 낳았을 때 평택 군수가 일본 놈이었었는데 일본 놈이 축하하러 우리 집을 방문을 했대는 거여. 그래 우리 아버지가 면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두 가지여. 임승현이 있구. 호적에는 임승현이여. 그리구 애명이 승국이여.

1) 실제로는 1935~1938년에 서탄면장으로 임명되었고(『조선총독부 직원록』), 1939년에 그만두게 되었다.

애명이 임승국이여.

이게 원래 아명이었어요?
예. 아명이여.

빈민 구제에 관한 얘기가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신문에.
그 몰러.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임승국씨인데, 서탄학교, 내가 서탄학교 근무하면서 학교 연혁을 정리를 했어요. 학교 연혁을 정리하니까 1930년도에 이 서탄학교를 지었는데, 처음 인가를 내서 지었는데, 그때 초대 기성회장이 우리 아버지여. 서탄국민학교 초대 기성회장이 임승국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서탄학교를 지은 그 학교 부지며 뭐 이것이 이 나라에서 진 게 아니여.

그렇죠. 그때는.
전부 다 지역 유지들이 돈을 내고, 논밭을 내서 이걸, 서탄학교를 1930년대에 지은 거구. 1938년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 태어나기 8년 전에 아들두 없구 딸두 없구,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기성회장을 해서 서탄학교를 지었다 이거여. 그거 보면...

그 대단하신 거죠.
그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거여. 그거 하고 또 이어서 6.25 전쟁이 나서 애들 공부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선생을 모시구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 그거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거, 국가에 대한 거, 국가 장래에 대한 거, 이거를...

혹시 아버님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사진 저거 하나야... 서탄초등학교에 가면은 졸업, 그리고 우리 집에 보니까 졸업 사진이, 서탄학교 1회 졸업 사진부터 졸업 사진이 10 몇 회까지 있던가...

학교에요?
아니. 우리 집에. 그 졸업 사진이 있어. 그 졸업 사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앞에, 졸업 사진 앞에, 중앙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야. 두루마기를 입고. 고 옆에 일본놈 순산지 뭔지 이렇게 칼을 짚구 그 옆에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추측컨대, 그럼 아버지가 면장을 하신 것이, 기성회장하구 한 것이, 그때가 면장했을 때가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30년에 개교를 했고.
30년에 개교를 하고, 그때 당시 기성회장을 했어. 기성회장. 기성회장이라구 기록이 돼 있어.

1회부터 사진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할 때, 내가 사탄학교에 근무를 했었어요.

개교 60주년일 때요?

예. 그런데 그때 학교 박물관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서. 학교 박물관을. 아무 해도, 이걸 누가 해도 할 건데, 할 사업인데, 박물관을 하자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박물관에.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서탄학교 평교사 할 때 자료를 모아놨어요. 자료 수집을 했어. 자료 수집을 하면서 우리 집에 있던 사진을, 우리 집에 있던 사진을 전부 다 학교에다 넘겨줬지. 지금도 학교에 가면 있을 거여. 그거. 교장하구 얘기를 하면은 그 사진이, 그때 사진. 그때 그 자료가, 여기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은 여기 몇 년도에 교장 선생님 하셨어요? 서탄초등학교?

서탄학교 교장은 안 했어요. 송북학교 교장만 했었는데.

아 서탄학교는 그냥 근무하셨었어요?

근무만 했어.

그때 몇 년에 근무하셨어요?

몰러. 그 몇 년돈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군사혁명이 60년도에 났던가요?

61년도에요.

61년도에 났지. 61년도에 군대... 61년도에 내가 제대를 했어. 제대를 해가지구...

그때 가남으로 가셨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가남. 가남에 가서 거기서 1년 있다가 평택으로 와서, 서탄에 와서 7년. 평교사 7년 하면서 그때 서탄학교 저걸 했어요. 아유 밤낮 안 가리고 일했지. 그때.

그러면 61년도에 제대하시고 가남으로 가셨다가 그다음 해니까 62년도에 이쪽으로 오시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네.

1962년부터...?

7년 동안 여기 근무핸 거고.

7년을 근무하셨네요?

아녀, 아녀. 여기서 근무하다가 참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여기 오니까 회계를 보라구 그러더구.

학교 회계요?

응. 그땐 전부 다 회계, 학교 선생이 회계 뭐 다 하면서, 서무까지 다 해. 서무가 어딨어. 그것두 하면서 하는데, 그때 강경원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어... 이분도 집안이 대단한 분이여.

이분이. 성동학교 기성회장 뭐 하면서 그 성동학교를 창설 멤버가 이 강씨네 집안이여.

송북학교에 그래서 7년 계시다가 그러니까 62년도에 여기 오셔서...
한 70년대 될 거여. 70년대. 그때 새마을 운동이 1970년도. 그때 한참이었지.

그러니까 62년도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해 12월에 송북학교로 가셔서 7년 근무하신 거죠?
아녀. 여기서 한 1년이고 2년 근무했을 거여.

아 1~2년 근무하다가요?
어. 하다가 송북학교로 가가지구 거기서 7년을 근무했더니, 순환 근무제에 의해서 여기 학교 또 날아와. 옮겨라. 그래 다시 서탄으로 갔지.

아 그니까 그때가 1970년이겠네요?
70년대.

1970년이면 40주년인데요. 60주년이 아니라.
아 그 후로, 그 후로... 그때부터 여기 또 근무했어. 서탄학교.

70년대 초에 와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여기서 내가 서탄학교 개교 60주년...

그러면 1990년인데요.
90년도. 그럴 거예요... 개교 60주년 그 기념비가 서탄학교에 있어. 지금 거기에. 그 비석, 기념비를 하는데, 내가 기념비를, 60주년 기념비를 해야 되겠다. 기념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념비를 하는데, 비문이 있어야 될 거 아녀. 그래 거기다 학교 연혁을, 그 비석 뒤에다가 학교 연혁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구서 뭘 했냐면, 학교 연혁지를 조사를 한 거여. 내가.

그때 인제 그걸 할려고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 발견을 한 거지. 내가.

아 아버님께서 기성회장 하셨던 거를?
응.

그때까지 모르셨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 비석 뒤에 지금두 보면은 비문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비문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니까, 그거를 고증을 받았지. 1회 졸업생들한테. 또 그때까지 서탄학교 하구 뭐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걸 고증을 받았어. 고증을 받어가지구 그 연혁을 정리를 해서 학교 60주년 기념비 뒤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럼 거기 주로, 거기에 뭐냐 부동산을 기증

한 사람들을 중심으루 해서 거기 기록을 해놨지.

아 학교 부지 기증한 사람들...

기증한 사람들. 뭐 학교 논 기증한 사람들, 학교 산 기증한 사람들.

그 기록이 아주 소중하네요.

예. 그 기록을, 그래서 그 비문을 정리해가지구, 비문을 정리해가지구, 졸업생들한테 학교 관심이 있던 사람들한테 인제 그 비문 내용을 고증을 받았어. 내가. 고증을 받아가지구 그 비문을 새겼지.

그때 개교 60주년으로 60년사 이런 건 안 만드시고요?

그때는 재정이 열악해가지구. 교장 선생님 보구 "60주년 기념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난 못한다. 뭐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난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걸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졸업생들 힘을 모아서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하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탄학교 총동문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 서탄학교 총동문회를 결성을 해가지구, 동문회장을 조용락씨라고 있었어. 지청장, 수원검찰청 지청장이여. 조용락씨. 그래 조용락씨한테...

이분이 몇 회 졸업이에요?

나보다 한 4~5년 선배 될 거여. 몇 회진 몰르는데.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해서 총동창회를 결성을 하는데 동창회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인마 여기 일두 바쁜데 동창회를 어떻게 그걸 맡냐?" ... 그래 못 만난다고 그러는 걸, "그럼 바쁘면 이름만 빌리자. 60주년 기념식 하는 거, 동창회 하는 거, 전부 다 우리들이, 후배들이 사무는 다 맡아서 할 테니까 이름만 빌리자." 그래서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아마 평택군내에서 제일 거창하게 했을걸.

(서탄 삼거리에서 금암리까지 진입로에 대한 질문)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부락에서 해라. 그러면 동네에서 부역을 나와가지구. 마차 끌고.

그러니까 저 하북에서 여기 들어오는 길...?

들어오는 길. 지금 저 금암교가 그 나무로 된 다리였어요. 그게 장마가 지면 그 다리가 떠내려가걸랑. 그러면 징검다리를 놓거나, 마차 지나갈 때는 내가 얕은 부분으루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 일제시대에 놓여진 검은 다리라고 그러던데요? 검은 나무로 된 거...

그 꺼먹다리여.

예. 꺼먹다리.
그거 떠내려가지

떠내려가면 그다음에 꺼먹다리를 또 만들고 그랬어요?
징검다리 놨지.

아 그 꺼먹다리 떠내려가고 난 다음에 징검다리 놓은 거예요?
응. 꺼먹다리 떠내려간 거는 내가 못 보구... 하여간 그렇게 했어. 이 길이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동네에서 각 부락에서 부역을 나와가지구, 부역을 정해서 마차에다가 냇갈에서 자갈을 파다가 그 길을 보수하구 그랬어요. 옛날 그런 길이었었서, 서탄 들어오는 길이. 그런데 여기 서탄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그러면 인제 비에 떠내려가고 그다음에 징검다리였다가 시멘트 다리를 놓은 거예요?
때로는 징검다리일 때도 있었구.

꺼먹다리를 또 복원해서 놓을 때도 있었고...?
예. 복원해서 놓을 때두 있었구.

아 그러다가 인제 시멘트 다리 놓은 거죠?
예. 그러다가 세멘트 다리를 한 거여.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한다구 그러니까, 평택 경찰서에서 도자라고 있어. 땅 차.

예. 불도저요.
그걸 가지구 서탄 입구에서부터 학교까지 길을 보수를 하더라구... 처음 부르도자가 와서 서탄 입구에서부터 학교까지 여기...

길을 판판하게...?
판판하게 했지.

그때 넓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구.

그때가 90년?
예. 자가용으로 꽉 찼었어.

서탄학교가요?
운동장이.

그때 교장 선생님이 결성해 놓은 총동문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그 후로, 요샌 동문회 해두 동문회 회장이 누군지두 몰라 내가.

인제 뭐 연세 드셔서 은퇴하시니까, 아무래도...

연락도 안 하구 저희들끼리... 서탄학교 가면 그거 있어요. 그때 수집해놓은 자료의 일부가 그 복도에 있어 지금두.

학교와 관련된 자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자료를 준비할 때, 1등으루 졸업해서 뭐 한 상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는대로, 집에 가지고 있는 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학교에다 내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제공받었어요. 그래서 제공 받으면서 우리 집에 있던 사진두 학교에다 다 갖다 주고.

1회부터 10 몇 회까지 그 졸업 사진이요?

아니, 이게 10 몇 회까지는 아녀. 하여간 그... 있어요. 그 사진이 그게 우리 집에서 내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서탄학교에 준 거야.

1회 사진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1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생이, 학교를 지어놓구서 학생이 안 오니까, 각 동네루 다니면서 학령이 된 학생들을 붙들어 왔대는 거여. 댕기 꼬랭이 따고 뭐 그런 사람들.

인제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안 왔었나 봐요?

그렇지. 신학문, 더군다나...

졸업 사진 보면 1회 졸업생 숫자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믄요. 저 명단 다 있어요. 졸업생 명단까지.

학교에요?

그러믄요. 1회 졸업생 명단까지 다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그 기념비에 학교 연혁 새겨놓은 것도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그랬을 땐데, 그거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었죠. 그 저 비문에 글씨를 쓴 신현화 교장이라고 진위국민학교 교장인데. 나보다 대 선배인데. 그이가 서예가걸랑.

그러니까 60주년 기념탑 비문...?

그 쓴 사람이 신현화 학교장이여. 그때 당시...

아 이분이 인제 서예를 좀 하시는...?
예. 서예가예요.

그러니까 그 글씨도 가치가 좀 있는 거네요. 서예하신 분이 쓰셨으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러두...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 글씨니까, 글씨가 똑같잖아요 다. 근데 옛날엔 붓으루 써서...

혹시 선친께서는, 임승국 면장님에 대한 말씀 같은 거 혹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얘기, 면장 같은. 나 면장댁, 면장댁 그래서 나두 의심을 가지구 있었걸랑.

아 주변에서 인제 면장댁이라고 그러시니까?
아이, 우리 아버지가 면장을 잘하셨는지 우쩐지. 저거 선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애. 선행을 핸 거 같애요.

그거는 신문 자료로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선행을 하셨다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걸 하나도 몰라요. 내 16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이 몇 년생이셨어요?
그것두 몰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6세 되신 거죠?
나? 그렇지.

만 나이가 아니고....
예. 그 저기가, 내가 교직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교직 시작할 때, 그땐 전부 다 집이 가난하니까, 오죽하면 내가 여기 서탄학교두 도서관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구선 서울에 가가지구 졸업생들한테 “당신들 애들 인제 다 크구, 다 대학 가구 그랬는데. 걔들 어려서 읽으라구 책 사놓은 거 있지 않냐.” 근데 옛날에는 책을 읽는 거 목적이 아니구 과시용으로 쭉 사서 시리즈를 해서 갖다 꾸려놓구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다 보내라. 서탄학교루. 그래 그걸 다 수집을 했어. 수집을 해가지구 서탄학교 2층에다가 교실 2개를 터서 칸막이를 간이 칸막이루 해서 접었다 폈다 허게 하고서 여기다 학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아 교실 두 칸에다가요?
예. 도서관을 만들고, 그때 인제 애들이 입학하면은 책가방도 없구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가방을 하나씩 사서 자하구, 크레파스하구, 뭐 콤파스하고, 이걸 가방에다 넣어가지구 애들한테 입학

축하 기념품으로 주구.

그때가 60주년 기념...?
그 전.

그러니까 여기 2년인가 처음에 근무하실 때?
응. 내가 이 얘기를 왜 할려구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나 봐. 서탄학교 1회 졸업생이라는 분이. "야 너 인마 그거를, 그까짓거 하구 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장학금도 아니구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황구지 사는 사람이여. "우리 학교 다닐 때 황구지에서 서탄학교까지 걸어다녔다." 이거예요. "걸어다녔는데 구정이 되면은, 구정이 되면 너희 아버지가 그 길목을 지켜섰다가 우리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떡국을 주면서 '너희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에이 아이들도 없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1회 졸업생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당신 경험한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황구지에서 여기까지 다니는데...?
응. 그 길목에서... 집에 갈 때면 길목에서 우리들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떡국을 끓여주면서 너들이 공부 잘하구...

길목이라 면 학교 앞이 아니라...
아니죠. 냇갈 있는 데, 회화리.

그러니까 저쪽 장등리.
냇갈 건너서.

그러니까 장등리 마을 앞에서 인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진짜 장학을 하신 거지. 네가 그거 책가방 하나 사준 거, 그런 건 아무것두 아니다."

그때가 6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때 첫 여기 서탄학교 근무하실 때?
그렇지. 그러더라구. 그 니가. 그래 그 일을, 요기 저 비문 저거 고증을 받을려구 비문 작성해

가지고 찾아가서 ‘어르신 이래서 왔다.’ 고 ‘이거 좀 봐달라.’ 구. ‘틀린 데 없나 봐달라.’ 구 고증을 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저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아라?

응.

그때 그분 말씀으로 하시면, 너네 아버지는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하셨다.

그런 뜻으로 얘길 하더라구.

그걸 기억하신 분의 말씀이 진짜잖아요?

몰르지. 하하. 그러셨대.

그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진짜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네요.

그렇게 하구...

그러면 이 서탄학교 처음에 설립 과정에도 깊게 관여를 하셨겠네요.

기성 회장이었으니까... 몰르지. 나 태어나기 8년 전에 이거 학교를 세운 거니까.

그래도 아버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 그러면 이렇게 자랑 삼아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식들한테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 마디도 못 들었어.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응. 근데 인제 요새 들리는 얘기여... 작년인가? 여기 저거 있어요... 원로청년회래는 게 있어.

금암리에 있어요? 아니면 서탄초등학교에...?

아니. 이 송탄농협에서, 송탄농협에서 한 원로청년회라는 게 있어요. 이 농협두 그때 맨 처음에는 박대통령이 면단위 농협을 조직을 해서 저걸 해야 농민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 농협 처음에 할 때 비료를 사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데... 비료를 사가면서 출자를 해야 비료를 줬어. 하하. 출자를 해야.

출자 안 하면 비료를 안 줬어요?

그렇지. 출자하는 데. 비료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건 몰라두 하여간 강제로 출자를 시켰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 농협이 창설이 된 거여 이 농협이. 지금 서정리 농협두 그것이 모체가 돼서 서정리 농협이, 이거 된 거구. 맨 처음에 시작은 그거여. 그렇게 해서 농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그때 그 지점장이 진위면 아유 그 양반 이름두 가물가물하네... 그 양반이 원로청년회라는 거를, 원로청년회가 지금은 전국 단위로 있는지 몰러 하여간. 그런데 원로청년회 이거를 조직을 했는데, 원로청년회를 농협에서,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루 농협을 일으킬 때, 그 어

려울 때 벼 한 가마씩 뭐 이렇게 출자해서, 이렇게 해서 그 원로들이 농협을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데...

그러면 서탄농협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여기 노력하신 분들이, 주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믄요. 그 유내철씨라구.

이분은 어디 분이에요?

마두리.

마두1리요?

예. 유내철씨, 그 후손들이 살어있어요. 그분이 헌신적으루 이걸 했죠.

이분이 농협 창설되는데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래 거기 비문이 있어. 농협에 가면은.

농협에서 그걸 못 봤거든요?

요거만한 거 있어요.

그 농협 설립 과정에 대해서요?

아녀. 이름... 송덕비모냥 쪼끄맣게.

지금 저기 농협 앞에 이렇게 있나요?

예. 농협 앞. 그래서 작년에, 내 작년까지 거기 가다가 인제 '안 나올 테니까. 나 안 나올 테니까, 후배들이 인제 잘 해요!' 그리구 금년부터 안 나가요 거기를. 이 세대 교체해야지 말이야. 늙은이들이 맨날 거기 앉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금년에 '난 그래서 농협에서 자진 철퇴한다.'

여기 농협 결성 과정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은 잘 모르세요?

그렇게 결성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인제 출자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서 작년에 내가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 임승국씨... 자기두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임승국씨가 음력 정월달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얘! 누구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누구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 그 집에 아마 쌀이 떨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사정을 좀 파악을 해라." 그래가지구 그 사람한테 쌀을 줬대는 거여.

그게 뭐 어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랬었나요?

그러셨겠지. 그렇게 하구 또 1.4 후퇴 때, 1.4 후퇴 때 피난 갔다 오면은... 그 제2국민병이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제2국민병을 인제 해산이 해가지구 거기서 집에 오는데, 하! 그거 하루 아침에 아마 열댓 명도 올 거여.

이 마을이요?

아이 그 얻어먹으러. 밥 좀 주세요!

자기 동네 올라가면서...?

그렇지. 그런데 이거 내가 본 건데, 그 우리 아버지 신으시는 버선두, 버선이 바닥은 뭐 한 번 꿰맨 게 아냐 그냥. 누덕누덕 꿰맨 버선이여. 하하..

아 이렇게 부자셨는데도?

예. 버선을. 부잔지 뭔지는 몰러두, 그렇게 꿰매서 우리 아버지두 신으셨걸랑.

굉장히 검소하게 살으셨네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저그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있잖어? 할아버지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와요. 그때 인제 뭐 제2국민병 갔다 오는 젊은이들두 오면은 꼭 밥상을 해서, 그 사람들 밥을 한 숫가락이래두 상을 차려서 주게 해야지 그냥 주면 난리가 나지.

그냥 이렇게 밥만 떠주는 게 아니고 밥상을 정식으로 차려서 이렇게?

응. 그런데 노인들이 오면은, 노인들 중에서 밥 먹으러 오는 노인들 중에서 그걸 감발이라고 그래여.

간발이요?

감발... 감는다. 저거 없으니까. 버선이 없으니까 짚신을 신구서, 집신하구, 신도 없으니까 짚신이. 이거를 천으로 이렇게 감어서...

감고 인제 짚신을 신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구 인제, 하여간 그걸 감발이라구 그래. 그래 그 감발을 했어요 옛날엔. 버선두 없구.

양말도 없고...

양말이 어딨어! 맨발이지 겨울에두. 그 감발 하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꼭 당신 신으시던 그 누덕누덕 기운 버선, 그거를 꼭 주걸랑. 그럼, 그걸 주면은 그 거지가 버선, 감발두 없어서 못하는 처지인데 감히 버선이, 그게 어딨어? 그러니까 괴춤에다가, 여기다가 그거 신지를 못하구, 차구 다녀. 하하.

그러니까 귀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 거지가 임승국이네 갔다 왔구먼!" …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

그 감발이라는 걸 일반 사람들도 많이 했나 봐요?

글쎄요.

정말 없는 사람들이 한 건가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했을 거여, 감발을.

이렇게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 말고 마을에 사는 분들이 감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건 내가 못 봤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한 건가 보네요?

예. 그걸 감발이라 그래. 발을 이렇게 천으루…

천으로 감은 거?

예.

참 아까 도서관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60주년 기념 사업 할 때...?

이 서탄학교에 있잖아요. 그 친군 지금도 살았는데. 시사영어사에 근무를 했걸랑, 걔가. 시사영어사에 근무를 했는데 좀 시사영어사에서 잘 나갔어요 걔가. 그런데 이 동네에서 살던 후밴데, 자기 어려워서 가난해가지고 공부 못했다구. 학교에 와서 인제 자기 음악을 좋아하니까, 학교에 와서 풍금을 보니까 일제 시대 때 풍금, 이렇게 빼가지구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하는 거. '아이구 이거 가지구 하냐.' 구 그것도 풍금이 한두 대밖에 없으니까 전학년에. 그래서 교실마다 음악 시간마다 옮겨가면서 음악을 했어. 그러니깨 그 친구가, 그 다음 해 졸업식 때 오산서, 오산서부터 풍금을 새걸 사가지구 짊어지구 서탄학교를 왔어.

아 여기 졸업생...

졸업생인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인제 교사 하실 때?

예. 그때 그 도서관 할 때에 인제 그 모금 그걸 했잖어. TV, 그때 흑백 TV 같은 거 있잖어. 그런 것두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학교에 기증해달라고 그래서 학교에 짊어지구 오는 사람두 있었구. 지금두 생각나는 거 있어. 차석규라는 사람은, 차석규…

아까 그 시사영어 다니신 분?

예.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차석규요... 차석규는 아 풍금을 짊어지고 오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글쎄. 그때 뭐 버스구...

혼자 짊어지고요?

그럼.

도서관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나요?

아이, 지금 그게 있을 리가 있어! 벌써 학교 그 건물은 때려 부시구 새 건물 지었는데 뭐.

그러면 인제 교장 선생님이 그때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은 한동안 유지되다가 그냥...?

그러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지금 서탄학교 도서관 참 멋있어요. 잘 해놨어요 현대식으루. 사서 교사가 하나가 항상 거기 있고.

가끔 학교에 가보시겠네요?

그렇죠.

모교고, 여기 세 번이나 근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이나 근무하셨으니까 그 남다른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뭐 내 학교 같죠. 여기 서탄학교 지금 이거 저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 미군기지, 용산기지 이전하면서 미군 기지에 특별지원법이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택시에 돈이 엄청 나왔어요. 몇 조 원 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깨 김선기 시장이 있을 때에 각 학교마다 5억을 줬어요. 학교 공원 만들려고. 그 서탄학교에서 그 5억을 받어가지구. 그때 그거 받을 때가 김정화 교장인데, 여자 교장인데. 이 서탄학교가 그 학교 공원화를 제일 멋있게, 평택에서 제일 멋있게 해 놓은 데가 서탄학교여. 서탄학교 한번 가보셔.

그때 인제 지금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 그러믄요. 그때 김정화 교장 있을 때에. 그때 난 정년퇴임 했을 때구. 근데 김정화 교장이 지금도 저걸 해요.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에피소드지. 내 친구가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뭐 풀을 뽑구, 어떤 여자가 매꼬자를 쓰구서 풀을 뽑고 있걸랑. 그러게 하두 딱해서 날도 뜨거운데 그 풀을 뽑고 있으니깨 딱 해가지구 친구가 가가지고 “아주머니 내가 교장 선생님

한테 얘기헐 테니까, 더운데 그거 하지 말고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러구 쳐다보면서 "제가 교장이에요." 하하.

이분도 참 굉장히 좋으신...

아이고, 그 가사불구하고 진짜 학교 성공후사한 분이여. 그분이. 자기 집에 안 가. 그래서 접때 전화했더니, "나 신랑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신랑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학교 있는 일은 참 나 했습니다." 밤에 자기 혼자 사택에 있으면서, 혼자 저거 하면 운동장에 잔디 심은 데다 물주구. 이 잔디 심은 것두 그랴. 한번 내 친구하고 같이 갔더니. 유화식이라구 있어. 서정리에. 걔 내 동창인데. 그놈하구 학교엘 갔더니, 가서 교장실을 갔어요. 그때 이 학교, 서탄학교 이거 저 공원화 하는데, 참 타이밍이 좋았어. 그때 황구지를, 미군기지 이전한다구 황구지를 다...

수용했을 때요?

수용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집집마다 정원수 하나씩은 다 있어. 멋있는 정원수. 우리나라에. 가정에... 그러니까 그 정원수를 그래서 그 학교에 기증 운동, '학교에다 기증해줘라.'

저 황구지 쪽에다가?

예. 황구지 그 동네에다가. 그래 황구지 그쪽에서 인제 집 헐구, 다 헐구 가는 판이니까. 그 나무를, 그까짓거 뭘해. 그냥 두고 가든지 비어버리고 가든지 그러는데. 그때에 서탄학교에 그 학교 공원화, 그거 서탄학교 한참 할 때걸랑. 그거. 5억 받아가지구. 그 황구지에 가서, 거기 가서 그 나무, 정원수 있는 거. 김정화 교장선생이 가서 이렇게 봐가지구,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좀 학교에 기증해달라.' 구 그래서 황구지에 있는 나무를, 동네 가정에 가지구 있던 나무를 서탄학교에 많이 기증했어요.

여기 큰 나무들은 황구지에서 온 것들이 많겠네요?

더러 있죠. 그렇게 하구. 그래서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인제 다른 거, 정원화 뭐이고 해서 다 했는데, 인제 뭐 더 하고 싶은 게 뭐 있냐? 더 하고 싶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운동장에 잔디를 심구 싶다 이거여. '운동장에 잔디를 심구 싶은데, 그래서 가을철 되면은 아이들이 잠자리채 들고 다니면서 잠자리 잡구, 운동장에 땅깨비 뛰어다니면 땅깨비 잡구 그러는 농촌학교를 한번 하구 싶다. 그래서 운동장에 잔디를 심고 싶다. 그런데 인제 교육청에 하도 돈을 달라구 그래서 염치가 없어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맨 마지막 사업은 그 잔디를 심고 싶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400이 든다 이거여. 잔디 값이. 그때 돈으로. 그래서 내가 "400백이요. 그럼 100만 원은 내가 댈게. 400이면." 내 옆에 있는 화식이 친구한테 "야 너두 좀 해야 되잖어." 그러니까 "야 니가 하니까 나도 100만 원 할게." 그래 200 됐어. 그 다음에 고 옆에 홍선각이라구 있어. 홍선각이. 사리 사는 아인데 걔가 그때 학교...

홍선...?

홍선각이... 지금두 살았어요 걔. 사리에. 홍선각이. 걔 홍선각이가 좋은 일 많이 했어.

교장 선생님 동기세요?

아니. 저 후배지. 저 밑에 후배지. 근데 걔가 거기 마침 있어. 야! 그러니까 홍선각이야. “선배님들이 100만 원씩 내준대는데, 저도 100만 원 할게요.” 하하. 그래 400만 원 돈 든대는 게 300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됐어. 그래 내가 홍선각이 보구 “야 그 저기 네 후배들 중에 좀 요새 잘 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녀. 난 거 잘 모르는데, 네가 더 잘, 너는 젊으니까 그 후배들 사정 잘 알 테니까, 100만 원은 누구 하나한테 좀 부탁을 해라.” 그러니까 “예.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100만 원.” 400만 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됐어.

그때만 해도 한참 전이라 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모르겠어. 그래가지구 그걸 해서 잔디를 심기... 잔디, 아 이게 난리 났어. 학교 운동장 전체를...

그래서 저 잔디를 그때 심은...?

그랬죠. 그래서 저기도 했어... 그런데 아유 그거 잔디는 사줬지만, 그 심는 일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 값만 4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거 더 들었겠지. 400만 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다 빼고?

응. 다 빼구. 그래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구 나서 말이야. 리아카에다가 말이야, 잔디 끌구 다니면서 말이야. 그걸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아 저거 참 안 됐, 내가 죄를 졌구나. 선생들한테.’ 그래가지구선 노인들, 원로청년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원로청년회 그 노인들한테 “야 이 학교 내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교장하구 선생들이 저거 하는데... 저거 가서 우리들이 도와주자.” 그래서, 그 원로청년회 회원들이 전부 다 게이트볼을 쳤어요. 그때. 그래 게이트볼 치다 말고선 그냥 학교 가가지구 리아카 끌구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 잔디 저거 다 심은 거 아녀.

큰일 하셨네요.

서탄학교 졸업생들이. 그 전부 다 노인들이야. 전부 다 70 이상 늙은이들이여.

다 또 모교일 거 아닙니까?

모교지. 다 서탄학교.

어르신들 다 모교. 그러니까 뭐 모교래서, 힘은 드셨지만 그래도..

아 그러믄요. 그런 보람을 가지고 했죠. 그때 그 원로청년회 저것 중에서 저기가, 원로청년회

회원 중에서 나이는 내가 제일 적어. 나이는 내가 제일 적구, 전부 다 노인들이여.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러니깨 교장두 좀 뭉클한 거 뭐 좀 느꼈겠지... 저 잔디 그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하구.

저는 가서 운동장을 봤는데, 잔디가 잘 심어져 있구나 생각했는데. 인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하하. 그래서, 저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구 서탄원로청년회는, 원로청년회에서 내 정년 퇴임하구, 하이구 원로청년회장을 맡으래. 나보구. 나이가 제일 어린데. "아이 나 못 맡는다."구. 아 그래두, 나가지두 못하구 문 꼭 걸어 잠그고선 수락을 해야 내보낸데. 하하.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1~2년 할 테니까, 1~2년 할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이거여. "이걸 들어주면 협력해서 같이 하면은 내가 원로청년회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원로청년회장 못한다. 난 껍데기 원로청년은 하기 싫으니까." "그게 뭐냐?" 그래. "꽃길 가꾸기를 하자." 그래서 아까 꺼먹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꺼먹다리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꽃을 있잖아요. 그 꽃을, 하우스를 짓구, 하우스에서 모판을 사다가 모종을 했어요. 그 노인들하구. 그 꽃 모종을 하구. 꺼먹다리 있는 데서부터 학교 앞에까지. 거기까지 꽃길 가꾸기를 했어. 꽃길을 만들었어. 그때 아마 길가에다 꽃 심는 데는 서탄면이 제일 먼절 거여.

보통 그런 거 해도 이렇게 모종을 사다가 하잖아요?

아이 거 우리는 다 심어서 했어요... 심어서 하구. 그 심는 거를 노인들이, 노인들이 와서 다 했어요. 그거는.

원로청년회가 몇 분이나 됐어요? 당시에?

한 40명 되죠.

지금도 그 꽃길이 이어지나요?

아니죠. 그러고서 2년을 했는데, 3년째 되니까, 아 이 꽃을 다 가꿔놨는데 말여. 하우스에다 해서 꽃을 다 가꿔놨는데. 심을려고 가보니까 다 심어놨어...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인제 그때부터 시청에서 하는 거여. 원로청년회에서 2년 동안 먼저 했는데, 그 후루 시청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꽃 다 심어놨더라구. 그 해에 그 하우스 안에 꽃모종 한 거, 그걸 다 어떻게 해여? 그냥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꽃모종 좀 가져가라고.

인제 막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요?

예. 필요한 학교 다 가져가라구. 그래 꽃모종 그때 다 쥐어주구, 그다음부터 꽃길은 인제 시청에서 하는 거지.

교장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셨네요.

보람은... 그거 하구. 그래 학교 잔디 한 거 참 잘 됐구. 지금 저기 꺼먹다리 있는 데서부터 소방서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벚나무 심었잖아요. 벚나무. 그래 정년퇴임하구 나서 '아이 뭐 고향

에다 뭘 한 것두 없는데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 어디 여행을 가보니까 벚나무를 그렇게 해서 벚꽃 구경을 할려구, 시골인데 그냥 차가 미어지구 그렇더라구. 그래서 ‘아 우리, 내 고향에도 벚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구 와가지구서 벚나무를 사다가, 그때 돈 100만 원 드려서. 묘목 값을.

그 묘목 값은 누가 냈어요?

내가 냈지.

그때가 교장 선생님 몇 살 때였어요?

그때 한 63살인나 64살... 퇴직하고 바로 나서.

아 퇴직 바로 후에요?

퇴직 후에. 그래가지구 저 벚나무를 가서 사다가 묘목이 적으니, 쪼끄마니까. 요 뒤에 우리 밭에다가, 거기다 1년간 거기서 밭에다 키워가지구. 그 이듬해에 저걸 심었어요. 저 벚나무를. 심는데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 없어 여기. 그런데 그거를 원로청년회, 원로청년회 이름으로 하자. 저거를 내가 샀다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구 원로청년회 이름으루 하자. 그래 원로청년회 사업으로, 기념사업으로 저거 벚나무를 심은 거여. 그 꺼먹다리 있는 데서부터 지금 저 소방서 있는 데까지 길가에 있는 버나무 있잖아요? 그거 그때 심은 거여. 그게... 그래서 원로청년회 사업으루 그 사업을 했어. 내가 원로청년회 회장 하면서.

아 회장 하실 때 이거 하신 거예요?

예. 그래 지금 이렇게 봄에 벚꽃 필 때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래도...

기분이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르시겠어요?

달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거 그때 벚나무 저거 다 심구, 그 다음에 총동창회장한테, 그 이음에 “야 우리 총동창회장 저거 보면은 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뭐 하고 한다고 미사려구로 다 해놨는데, 총동창회에서...” 그 다음해 동창 회장이지. “너들 동창회서 한 게 뭐 있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구 연말 뭐 한다구 송탄에서 좋은 식당 빌려가지구 술이나 먹구 노래나 하구 그러지 고향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벚나무 심기를 시작을 했는데, 원로청년회를 통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원로청년회에서 해마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키구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총동창회에서 이걸 좀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깨 총동창회장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구. 그거 해가지구선 벚나무를 그 이듬해에 사서, 저기 총동창회 돈으루 샀어요. 사가지구 그 이듬해 각 이장들한테 “나무가 필요한 동네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나눠주겠다.” 근데 신청을 안 하더라구. 심을 데가 없다고. 논에다 심으면, 그때 참새가 많이 왔잖아요. 많아서. 그런데 논에다 벚나무 심어놓으면 가을에 참, 새 보러 다닌다구. 하하하...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억지로 하구서 그다음부터 안 했지. 그러니까 식목 사업이 그러면서 끝이여. 그래 지금 금암교 있는 데부터 소방서까지 오는 그 벚나무는 원로청년회에서 심은 거여 그거.

그래도 그 회장이신 교장 선생님께서 주도 하시고...

나는, 내 속셈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 '내 정년퇴임 기념 사업이다. 이것이.' 나 혼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원로청년회를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념사업을 하신 거네요.

좋은 일은 뭐. 제일 좋은 사업은 교육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인데 내가 잘못 교육 사업을. 아내 그렇게 교육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었으면 교육계에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아이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도...

그때는 먹구 살기 어려우니까. 동생들하구 비행장에 있는 거 다 털구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벌어야 되겠다.' 하구 제일 취직하기 제일 쉬운 곳이 교육계 선생 되는 거였어 그때. 그래서 말이 동네에서두 '야 대학교 졸업하구 하다못해 국민학교 선생이나 면서기두 못하냐!' 그랬어요. 대학 졸업하구 하다못해 국민학교 선생두 못하냐구.

아 그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직업이었다 이거죠.

근데 또 어쨌든 교육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귀감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에이 귀감은 무슨 귀감이 돼.

교장 선생님이 좀 겸손하셔서 그런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제가 무슨 귀감이 돼요. 그 저기 바보같이 생활했죠.

별 말씀을요.

바보같이. 내 교장이 돼가지구 선생들한테 그걸 좀 각인을 시켜 드려야 했는데 못했어. "애들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다." 교장이 가르치는 거 아녀. 교장, 교감은 선생님들이 애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에 오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학교 오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장이고 교감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애들 열심히 가르쳐서 애들이 학교 오기 즐거운 학교, 그 학교 만드는 건 즐거운 학교 만드는 건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고.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만드는 건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교장 교감은 선생님들이 학교 오기 즐거운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에이. 그래 제일 후회되는 게 많아요. 야 내가 학교 선생하면서... 교장, 교감이 할 일을 왜 내가 해요? 그렇게 허구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애들만 전심전력해서 가르쳐야 했는데...

학교 일이라는 게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그때 내 회계 보면서, 회계 보면서 세면을 10포를 샀다. 그럼 세면 10포를 사는 건 사고, 그 10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학교 기사들하고 회계가 하는 거여. 그거를. 아이.

그러니까 그 회계라는 일이 지금 행정실에서 하는 일을 그때 교사가 하는 거죠?

그러믄요. 그걸 혼자 다 헌 거지.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송북학교. 그 여름방학 땐,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 방학 때 되면 학교 지붕이 새잖어? 지붕이 새는데 지붕에다가, 페인트가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코르타르 있잖아요. 길에 까는 타마구. 코르타르를 얻어다가 도라무통을 반 잘러서, 거기다 코르타르를 넣구서, 거기다 장작불을 피워서 그걸 녹여가지구, 그걸 깡통에 담어서...

지붕에 인제 새지 않게?

예. 지붕 새지 않게 지붕에 칠하는데, 그때 페인트 붓이 있어? 그러니까 수수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학교에서 빗자루 다 쓰구 난 빗자루 몽뎅이. 그거구 그 지붕 페인트칠을 하는 거여. 여름방학에. 기사들하구. 그 기사가 지금두 살아 있어. 우씨라구, 우씨라고, 그래 가끔 만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후회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 그렇게 했고, 그냥 헌신하신 모습이지...

그거는 교장이 책임지구 할 일이지 평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여. 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가르치는 일에 더 열성을...?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셨겠어요?

글쎄...

가르치는 거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창문 가리고, 밤에도 애들 남겨서 장학사 눈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셨을 때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뒤돌아보면 후회는 있지만 참 여한없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육자가 된다는 게 있잖아요. 요새 뭐 문제가 되구 하는데, 참 내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지금 완전히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형을 편가르기를 해놨어요. 완전히 갈라놨어 인제. 선생으로 보는 게 아니구

지식 전달자 정도...?

지식 전달은 그전에도 지식 전달자였는데, 내가 먼저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교직에 있다면은 1년에 한 명씩 진짜 내 제자를 만들어 놓겠다. 1년에 하나씩. 그 사람은 누구냐. 가장 공부 못하고 가장 돈 없는 제자.

사실 어려운 아이한테 스승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구. 돈도 없구. 그런 아이들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걔를 진짜 내 제자로 1년 동안만이라두 내 제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걔가 그 저거는 평생을 못 잊을 거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 앞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어떤 각오가 있이 교육자가 돼야지. 나처럼 그냥 취직하는 선생, 이런 선생은 참...

아이 별 말씀을요. 제가 말씀 들어보면 아주 열성적으로 젊음을 바치신 것 같은데요.

나 그래두 송탄에서 있잖아요. 송북학교 있는 동안에 난 방학 다 반납했으니까.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 우리하구 같이 하던 사람들이 얘기 들었는지 몰러두 방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북에서 오는 이북에서 넘어온 인민군 대좌. 그 거지대장. 방진호, 신시수, 유해명, 박금동 뭐 등등해서... 그 박금동이래는 분은 자유당 때 서울에서 중학교 선생인지 국민학교 선생을 하는데, 그때 야당 유세하면 운동장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걸랑. 자유당 때. 그래 박금동씨가, 그니가 거기서 일요일날 당직인지 일직 근무를 하는데, 선거 유세하겠다구 운동장 빌려달라구 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운동장 빌려달라구 그랬더니, 아 교장 선생님 없어. 집에두. 다 피해구 다 도망갔어. 그러니깨 박금동씨가 "오케이!" 해라 이거여. 유세 해라. 그러구 나서 그거 찍혀가지구 거기서 선생 못하구 송탄으로 와서 송탄에서 사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걸랑.

그럼 여기서는 교사는 안 하고요?

안 하고. 거기 서울에 왔으니까...

방진호 이분은 뭐 했어요?

방진호, 그분은 거지 대장.

이 송탄에요?

응. 이 집게대장. 그러다 나중에는 저거 했지. 거기 쓰레기장. 그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게 대장하다가 나중에 인제 쓰레기장...

청소. 미군부대. 미군부대 식당 청소. 그 나이 있는 사람들은 방진호 다 알어요. 방진호 그러면.

박금동 이분은 뭐 하셨어요?

박금동씨는 그래서, 그이 아들이 없어. 딸만 둘 있었는데 돌아가셨을 거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 했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신시수는 대한생명보험? 대한교육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여기 지점장 했지. 그니 아주 똑똑한 이여. 그니 머리에서 다 움직이는 거여. 송탄에 사회에서 움직이는 건 그니 머리에서 다 움직여. 똑똑한 분이여.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그분들하고 다 같이. 나보다 대선배지. 대 선배들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어떤 일 하셨었요?

새마을운동 많이 했어요.

아 이분들하고요?

예.

새마을운동 어떤...?

송북학교 일.

근무하실 때?

예. 새마을운동 많이 했어요. 그 저기 미군 부대, 먼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상대 지원을 받아가지구. 여기 지금두 그럴 거야 아마. 그래구 초청을 해서 미군 부대 들어가 보니까, 야 진짜 신사들은 부대 안에서 밖에 안 나오더라구.

학교에 근무하면서 새마을 운동하시면...?

난 주로 저거, 학교 새마을운동이지. 학교 뭐, 그 저기 기상대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트럭하구 덤프트럭 동원해가지구 여기 냇갈에서 모래 파다가 그 송북학교 운동장...

그 질컥거리는...

송북학교 운동장 다 깨끗이 만들어놓구. 그거 다 해놓구.

아 그때 이거 하시던 분들이, 같이 도와준 분들이 이분들이예요? 방진호, 박금동...

그분들여 전부 다... 신시수, 유해명,,,

유해명, 이분은 어떤 분이예요?

유해명이 좌동 유지지. 좌동 부자.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루 신시수 씨가 돌아가시구, 또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루 여자분, 여자분이.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이북 방문할 때 1호루 제일 먼저 간 사람이여.

그분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가 봐요?

그때는 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일하면서 뭐 공부 가르쳤어야지. 자식 새끼들. 이북에서는 가르쳤어요. 일정 시대 때에두. 그러니깨 6.25 사변이 나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때 하다 못해 국민학교 선생을 누구 시켜. 해방이 되구 나서 일본놈들 다 가구 국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글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학교 교육두. 뭐 우리들 담임했던 선생님들 중에서두 해방되고 나서 일정시대 때 학교에서 소사 하던 분이 교사하고. 아 그때 그랬어요.

장태용(남, 1951년생) 금암2리 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6월 18일
장 소	장태용 방울토마토 농장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금암2리 이장



몇 년생이세요?

원래는 51년 2월 7일생이여. 원 나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홍역, 천연두라고 저 마마 있죠. 그게 굉장히 심했었어. 우리 애기 때는.

아 그 당시까지도요?

6.25 때니까는 예방주사라는 게, 못 맞췄죠. 우리나라 자체 설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저기들이 보통 다섯 살 먹도록 출생신고를 못 핸 거여. 죽으니까... 그게 우리 저기 우리 저 동창들두 곰보가 다섯 명이여.

곰보가요?

예. 남자 세 명, 여자 두 명.

많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생신고를 못 핸 거여. 우리 때.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이. 최고 고생한 사람들이 우리 나이여.

그러면 이장님 동기분 중에서만 이 마마 걸린 사람이 다섯 명이에요?

네. 다섯 명이에요.

그러면 위아래까지 따지면 마을에 많았 겠네요?

없어. 우리 세대만 이렇게 있어.

아 그게 인제 6.25 때문에?

그렇죠. 예방주사... 각종 그 저거 질병 같은 걸 관리를 못 했던 거지.

그 당시에 여기서 6.25 때, 6.25 전쟁 중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1.4 후퇴 때. 1.4 후퇴, 그거 피난 갔다 와서 막바로 난 거여. 내가.

부모님께서 피난 갔다 오셔가지고요?
그렇죠.

어디로 피난을 갔다 오셨대요?
모르겠어. 공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공주 갔다가 와가지고 바로 난 거지.

마을의 동기분은 몇 명이셨어요?
우리 저기들이 4명이지. 우리 나이 같은, 나이 된 사람들은. 51년 된 사람들이 4명.

동기분 중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 천연두 걸린 사람?
없어요. 우리 동네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다섯 명은 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죠. 죄다가 인제 적봉리, 저 도도리, 내천리. 이렇게 있었지요.

아 그 다섯 명이 금암리 출신은 아니고?
그렇죠. 우리 동네는 동네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동기분은 네 명이었어요? 남녀 합쳐서?
우리 저기로는 저기지... 다섯 명이네. 다섯 명인데, 두 사람이 죽었어.

이 두 명은 왜 죽었대요?
모르지. 그 저 인저 자기들, 저 질병 때문에. 암으로다가.

아 나이 먹어서?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그렇죠. 인제 늦게 죽었지.

서탄국민학교 몇 회세요?
31회.

이 학교가 1930년에 세워지잖아요?
엄청 오래됐지요.

누가 세웠다 이렇게 학교 세우는데 서두르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건 몰러.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얘기 듣기로는 여기서 4학년 다니고 5학년, 6학년은 진위국민학교에서 졸업했으니까.

아 그 당시에요?

지금 한 100살 이상 된 분들... 100살 이상 된 양반들은 진위 가서 졸업했어요. 저 5학년 6학년을.

그 이장님은 여기 가까우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어려운 건 없었겠어요?

그냥 동네니까. 그냥 점심 집에 가서 먹고 오고 그랬죠. 그냥 학교하고 한 데 붙었으니까.

원래 문 앞에서 사는 애들이 지각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이 그런 거는 없어요.

서탄면 일대는 다 서탄국민학교 온 거죠?

나 다닐 때는 저기가 됐어요. 금각 국민학교가 분교가 나왔었지. 우리 다니기 고 직전에. 왜냐면은, 인저 저 개울 건너서 다니기가 어렵구,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금각국민학교가 분교가 됐지. 그래도 우리 다닐 때만 해도 한 구백 명 이상 됐었어요.

많았네요. 그 당시에 구백 명이면

900명이구, 나보다 다섯 살 아래 그 저기들은 지금 천 명이 넘었어. 왜냐면 그게 56 · 57 · 58년, 그 나이들이 많았어. 그때는 그냥 마구잡이 막 낳았으니까.

베이비붐 세대라...

그렇죠. 그 세대는 한 천 명이 넘었을 거야. 여기. 그래서 그 무렵에 내수국민학교가 생긴 거여. 내천리에. 천 명이 넘어가지구. 여기서 수용을 못 해가지구... 학교 교실은 열두 교실인데 그 남는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여. 그래가지구 저 오전반, 오후반을 나눴었지. 그 저 오십한 육년, 칠년생은.

56년 7년생들은요?

예. 8년, 그렇게

교실이 12개면 한 학년이 2개 반이었겠네요

인저 1반, 2반으로 했었지. 옛날에는... 그러면서 저 57년생들은 복도에서 공부해구. 학교 교무실 있죠? 교무실이 학교 교실이 돼버렸어. 교장실하구. 그래 교장실은 저 숙직실 같은데, 이런 데로 가버렸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아이들이 천 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한 학급에 몇 명 정도 됐어요?

우리 다닐 때는 보통 75명, 78명 됐었지...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꽉 찼던 거여.

교장실 가고 교무실 갔으면 또 반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늘어나진 않았어. 그냥 오전반, 오후반이여 그냥.

오전반, 오후반을 이장님 때는 안 하시고, 56년, 57년생...?
우리 때는 안 하고, 56년, 57년생, 55년생 인제 고 때가.

그럼 상당히 늦게까지 했겠네요? 오전반 오후반을?
그러니까... 인제 주로 보면 1학년에서 저 그 저기들을 그렇게들 핸 거지.

그럼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오전에 가고...
그렇지.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는 오후에 가고...?
글쎄, 그건 자세히 몰라. 그때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오후반, 오전반이 있었어요?
난 그건 몰라... 내가 64년도에 국민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58년도에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적지가 저 남사거든. 남사인데 출생 신고를 못하고, 여기 서탄면에 있잖아. 가호적이래는 게 있었어. 가호적에는 원 나이로다 올려놨어. 여기서 원 나이로다가. 그래가지구 저 57년도에 일학년이 나왔지. 생일이 빠르니까.

가호적 때문에요?
그렇지. 그리구 나서 인제 저 70년도에 신검이 안 나오는 거여. 그래서 내가 남사를 갔더니 53년생으로 돼 있더라구.

그러면 군대 가기 직전에...
군대는 못 갔어 우리는. 우리는 저기, 학력이 미달되니까, 군에서 받어들이지를 않었어. 그냥 보충역으로 빼버렸지.

학력 미달이라면...?
아니 학력이 아니라 저기. 인저 여러 가지지. 인저 중학교도 안 나오구 그랬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냥 저기 원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충역으로 다 빼놨지.

그때 당시에 여기서 전교생이 몇 명 정도였어요?
여기가 한 팔구백 명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 같은 학년.
우리가 보통 70~80명, 이렇게 됐으니까.

그중에 중학교를 간 학생은 몇 명이나 됐어요?

우리 다닐 때구 몇 명 안 됐어. 우리 때는 여기 진위나 이런 데가 없구, 오산중학교 밖에 없었으니까. 오산중학교 가는 것도 조금 사는 사람들이 주로 갔어. 여기는 오산중학교 외에는 못 갔으니까.

그 중학교는 몇 명이나 갔어요? 한 160명 중에 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시겠고, 한 대략...?

여자들은 몇 명 안 갔어. 여자들은 여자들은 10명 미만이여.

아 전체가요?

남자들도 15명 (이상) 못 갔어... 다 그냥 집에서 그냥 저기 저기 핸거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구 부모네들이 안 보냈어. 여간 저기 해가지고는.

이장님은 몇 남매 중에 몇 째세요?

우린 난 남매 밲에 없었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 6.25 때 그 저기 뭐야 부역일이 했다고 그래서 끌려가서 그냥 우리 아버지는 죽었지 그냥. 그때 당시에 사실상, 지금 그려. 부역일 해구 싶어서 해는 것도 아녀. 칼 대고서는 해라구 그래니까 해는 거여. 어쩔 수 없이. 아 그때 천하없는 장사가 어딨어. 죽이는데. 그거 했다고 끌어다가 죽인 거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당시에 수복하고 나서.

전쟁 때 그냥 동원된 건데?

그렇지. 아 전쟁 때 동원된 것보다두, 인민군 애들이 젊은 사람들 끌어다가 시키는데, 안 갈 장사가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럼 이장님은 아버님 얼굴도 못 봤겠네요?

낳아가지고 얼마 있다 죽는 거지. 나는. 낳아가지고 애기 때.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한 살인가 두 살밲에 안 됐지.

그럼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그럼 어머니께서 남매를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누님하고 나하고 둘.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장님 아버님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신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

네요?
　많지요. 보이지 않게 많지. 그게.

그러니까 진짜 사회주의자도 아닌데...
　아이, 지금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칼 대고 해라 그러면 안을 장사가 없는 거여. 나 반대면 죽는데.

그걸 좀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정부가 그런 거 안 했어. 그냥 무조건 끌어다 무조건 죽인 거여.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집 안에 피해 봤다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그 뒤에?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저 외삼촌은 백마고지, 거기서 전사했고 53년도에. 나 세 살 때. 그래가지구 우리, 내가 그래가지구 외가로 온 거거든. 인저 엄마하고 삼촌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삼촌은 인제 그때 전쟁에 가서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인저 노인네들 모시고 여기 온 거지.

아 그러면 원래 고향은 저 남사...?
　남사. 지금 보면 은산5리 있죠.

월경동?
　월경이 거기가 저기여. 진목리, 남사면...

그러니까 그 동네가 원래 고향인데?
　그렇죠. 아버지 고향이 거기여.

아유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말도 못 해죠. 그때 당시에 사는 것들 뭐.

그러면 그때 농사는 얼마나 지셨어요?
　글쎄 농사... 그때 한 삼천여 평 됐었어. 외갓집 농사가.

그럼 외갓집 농사 지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외갓집에 외삼촌이 한 분밖에 안 계셨었나요?
　아유 그때는 지금같이 약이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낳으면 죽는 거여. 낳으면 죽는 거여. 지금 같이 약이 좋은 거 아니구, 그때만 해더라두 뭐 8남매, 9남매 낳으면 뭐 핼 거여. 살리는 건 두

세 명밖에 못 살리는데. 그래가지고 남매 해서, 삼남매 키운 건데, 저 이모는 저 향남으로다 시집가구. 엄마는 인제 저기 남사로 가구. 삼촌 하나 있는데.... 그 6.25 때 전사해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여 생활이.

그래도 3천 평이면, 논 3천 평인 거죠?
밭하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그 정도면 수준, 동네에서 뭐라 그럴까요...
중간급이지 뭐.

한 중간 정도 됐었어요?
아주 소농은 아니구.

논이 여기는 150평 한 마지인가요?
그렇죠.

논이 몇 마지기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2천여 평 됐을 거여. 논이.

그 정도면 밥은 안 굶고 사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여 그냥. 뭐 부자로는 못 살아두.

굶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었어요.

겨울에도 뭐 식량 떨어져가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 많이 하셨겠네. 이 장님도. 집 안에 장남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난 그래, 이거 이런 걸 해두 남의 손으로 안 빌려.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성질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딴 사람보더 손재주가 있지 내가. 딴 사람보다. 특이하지 또...

지금 이 시설(비닐하우스)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90년도.

지금 이 땅은 이장님 땅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넓네요.
요게 저기여. 82년도에 사백오십만 원 주고 산 땅이여.

그 당시면 이게 보통 시세였나요? 아니면 좀 싸게 사신 건가요?
글쎄 모르겠어. 이게 그때 당시에 내가 9월 달에 산 거거든.

1,200평을요?
응. 그때 당시에 인제 이 땅 주인네가 조금 문제가 일어났었어. 그래가지구 갑자기 자기가 돈이 필요해니까 싸게래두 팔아야 될 입장이었었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그래가지구 그냥 현찰로다가 인감하고 맞바꾼 거지.

그럼 아무래도 조금 싸게 사신 거네요?
그렇게 싸게 산 건 아녀. 그때 당시에 사백오십만 원이면 돈 가버치가 있었으니까 80년대는 지금은 450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450이면 돈 값어치가 있었죠.

그때 이거 시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인저 별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저기가 못했잖어. 내가 86년도에... 84년돈가 그때 젖소를 멕였어. 젖소 멕이다가 인저 지금같이 이걸 갖다 메워서 목장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구, 우리 집에서 먹이다 보니까. 자리가 좁다 보니까. 소들이 싸워. 싸우다 보니까 저 약한 놈들은 죽잖아. 쳐 받혀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싹 팔아 친 거지. 그때 당시에. 저 90년도에.

아 그럼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요?
그렇지.

몇 마리나 먹이셨어요?
그때 한 8마리 정도 키웠었지. 젖소.

그 정도 키우면 1년 수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뭐 그냥 우리 생활하는 거지. 큰 수입은 없었어. 그때 당시에.

논농사 짓고 그거 하신 거 아녜요?
글쎄, 그거 모르겠어요. 나 지금 기억을 못해요. 원래 오래 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파는 돈이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받았어 내가.

여덟 마리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80년도에는 소 한 마리가 300만 원, 400만 원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뭐여, 4년도, 6년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저서 파동 있었잖어. 그때 당시에 내가 여섯 마리를 450만원에 사온 거예요. 그때 안성 가서, 안성 삼죽 가가지구. 그러면서 내가 젖소를 시작핸 거거든.

살 때는 싸게 사셨네요?

예. 그래가지구, 여기두 우리 동네도 지금 그래요. 젖소 해면서 땅 팔아먹은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여러 명이여.

젖소 하면서 땅을?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를 사자면 300만원, 400만원 갔었거든. 논 한 구간 잡혀가지구 젖소 두 마리를 못 샀으니까.

논 한 구간이라고 하면 1,200평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빚 얻구 이래다 보니까는 논 한 자리씩 날아간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들.

젖소 파동 나면서요?

그렇지. 젖소 값은 살 때 다, 80년대에 비싸게 주고 사구, 인저 그때 당시에 우유 파동, 소 파동 나다 보니까는 안 되니까, 팔다 보니까는 그 지경이 된 거지들.

그때 여기서 젖소 먹이는 집들이 좀 많았나요?

여러 명이 있었죠.

대략 몇 가구 정도나 됐을까요?

한 8가구에서 10가구 정도 됐어요. 우리 동네.

보통 몇 마리 정도씩 먹였어요?

많이는 안 먹였어. 보통 7~8마리.

그러면 인제 집에다가 이렇게 외양간 만들어 놓고 먹인거네요?

그렇지. 자기네 인제 마당에서 운동장(외양간) 쓰구 그랬지.

그렇게 하다가, 많이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걸로 그냥 논까지 날리고 그러면...

그게 왜냐하면 소값은 폭락해는데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녀.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저 어떤 사람들은 경매로 넘어가구. 이 농협이라는 곳이 우리한테도 좋지만은 인정사정 없는 데가 농협이여.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장례쌀이라는 게 없어진 게 농협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농민들이 그 생각을 못 해요. 장례쌀에 죽는 것만 알았지, 농협에서 대출받으면은 그거 안 갚으면은 잘못된다는 거 그 생각을 못했던 거. 그게 농협이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거든. 거기가.

똑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딱 처리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인제 영농자금 같은 거 엊구 안 갚으면은 막 따블로다가 이자 물고 그랬던 거 아녀. 그때 당시에.

연체 이자가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에서 젖소를 키우기 시작한 건 언제쯤인가요?

80년도여. 그때 당시에 한참 그 정경환이 있잖아. 정경환이가 미국에서 막, 호주 같은 데서 수입해 올 때 그때 시작핸 거거든.

젖소를요?

그렇죠.

이장님은 인제 84년도에 시작한 거고요?

85년도에 그때. 그때 핸 거지.

그때 싸게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초창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소 한 마리에 삼사백만 원씩 주고 산 거지. 나는 인제 그때 그냥 막 저 안성 삼죽 가서 그냥, 인제 그 사람들두 저 나이 먹구 별 수지 타산 안되니까 그냥 싸게 팔은 거지. 그냥.

남들 그 파동 나서 접는 시기에 이장님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게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소 값에서도 많이 남으셨네요?

그래가지구 1,500만원 받아가지구, 내가 사는 집 진 거여. 그게. 융자 1,000만원 저기, 저 주택 융자 받구.

2,500만원에...?

2,500만원이 더 들어갔지. 더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끝으로다가 집을 지은 거지.

90년에요?

그렇죠. 91년도에.

그리고 인제 이 시설(농업)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인제 91년도 경에 시작핸 거지. 저쪽에 또 한 구간이 또 있거든... 여기보다 거기가, 인제 그 저 봄에 여기서부터, 90년 그때는 뭐 했냐면 봄에 배추 있죠. 이 하우스에서 배추를 심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배추 인제 심어서 파는 거지. 그때 장사꾼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러니까 배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쭈 거는 그때 이장님이 이거 시작하실 때, 그니까 논농사 하다가. 그 목장 하다가 여기서 목장이 인제 안 되니까, 이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변에 시설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여기?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여기. 여기에 보편적으로 있대는 것이 지금 저 하북 있죠? 하북에가 좀 많았었어.

예. 하북하고 야막리.

그렇죠. 거기하고 신리 쪽하고. 여기 서탄은 그렇게 많진 않었어. 하우스가. 인제 후에 쪼끔 쪼끔씩 생긴 거지.

그러면 시설을 하시려고 이장님은 저쪽 땅을 사신 거예요? 또?

그거는 저기지. 구십 년도에 샀지. 저쪽에.

그쪽에는 몇 평 정도?

고기도 1,200평.

90년도에는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그게 23,000원.

평당 23,000원이요?

응.

그때는 좀 쌌네요?

아니죠. 그것도 저기야. 그 땅 주인 내가 팽성 사람인데 500원 때문에 3년인가, 4년을 끌은 거여.

500원 더 받을려고?

5,000원, 5,000원.

5,000원 더 받으려고요?

예. 하나 지금 있는 거는 거 저기여. 2001도에 50,000원 주고 샀다구... 그리구 나서 1년이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여.

2002년부터요?

그렇지. 2001도 후반기 되니까는 50,000원짜리가 80,000원이 되구. 그리고 나니까는 또 10만원, 11만원 그렇게 올라가더라구. 땅값이. 그래가지구 지금은 거기 한 20만원 넘을 거여. 거기.

지금 현재요?

그렇지. 이십 한 오만 원 되지.

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르나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땅을 사니까. 왜냐면 오산에 도시 개발되면서 그때 당시에 대체 농지가 없으면은 양도세를 물었어. 그러니까 오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샀지.

아 오산이 인제 수용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렇지. 대체 농지를 사느냐고. 지금은 대체농지법이 해제가 됐지만은, 그때만 해더래두 저 뭐 2010년도까지도 대체농지가 있었거든. 그러까 거기 도시개발되면서부터는 인게 여그 와, 그러니까 여기 서탄면의 벌판이 내가 보면 여기 지역 사람 땅은 얼마 안 돼요. 반 이상은 외지 사람 땅이라고 보면 돼요.

절반 이상이요?

그럼.

농지만 그런가요? 아니면 마을 안쪽 그 밭이라든가, 대지 같은 거...?

우리 동네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 그렇게 뭐, 그냥 내가 살기, 저기 해가지고 이사 가면서 팔고 가고 인제 그런 거지, 뭐 그 투기로다가 들어와서 사고 그런 건 없어. 우리 동네는 그냥.

근데 그 논농사하고 시설 농사하고는 어때요?

내가 보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야. 농자재 값하고, 인건비하고 자재값하고 원래 많이 올라가지고 별 소득 없어. 잘못해면은 적자고, 잘하면 본전이여. 지금.

논 농사도 사실 소득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인건비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랬나요?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인건비가 저기여...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는 얘네들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여.

최저임금이요?
그럼. 얘들도 지금 저기 저 한 달에 200만 원을 넘겨 주잖아. 우리가.

지금이요?
그럼요. 210만 원씩 주는 거지.

숙식 제공하고요?
그렇지. 여기서 쟤들 생활해는 거니까.

그럼 이장님도 외국인 노동자도 쓰세요?
둘.

이 넓은데, 양쪽에 다 합해서 두 명 쓰시는 거예요?
아 인저 그 일은, 인제 단계적으로 일을 하니까.

옛날에는 이 시설농이 많이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그러니까 더 힘든 게 인제 인건비 때문에 힘든 건가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아요. 인건비 때문에.

뭐 시설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올랐을 거 아녜요?
많이 올랐어. 지금 시설 자재가. 그러니까 시설 자재, 인건비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저 가격은 맨날 그 값이여.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만 그 가격이어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려 그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어. 과잉생산이 되니까 그래요. 적정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괜찮다.’ 그래니까는. 여기는 이게 하우스가 아녀. 저 전라도나 저 충청북도나 이런 데 내려가면 하우스가, 이까지거 하우스도 아녀. 이거.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죠?
거긴 일개 벌판이 하나가 다여.

그러니까 이장님 말씀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좀 좋다 하면 그냥 막 너도 나도 그쪽으로 달려든

다는 거?

그렇지. 거기다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거여. 어느 정도 적정 생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우리는, 서탄이나 진위 쪽에는 느는 게 없어. 지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별로 늘지 않았어. 여기는.

인구가?

아니 인구 아니라, 이 저 하우스 면적이 별로 안 늘었어 여기는. 대신에 저 충청도나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대규모로 늘어났지 그냥.

그니까 그쪽에서 많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여기 가격까지 이제...

그렇지. 아니 그거 같이 죽는 거니까. 과잉 생산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심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반대로 심는 거거든. 내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1월달, 2월 달에 정식을 해지만, 난 4월 1일 날 정식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끝날 때 출하해게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나아.

그래서 지금 인제 출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인저 지금 6월 말이면 얼추 끝날 때 다 돼요.

이장님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아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구.

금암리는 맨 처음에 들어온 성씨가 어떤 성씨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차씨, 송씨, 조씨. 3성이에요. 원래가. 그 남거지는 인저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 타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지. 그 사람들이 다 죽구, 이사 가구 그러다 보니까.

차씨, 송씨, 조씨가 있는데, 어느 성씨가 맨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건 나도 몰라. 세 성이 제일 그래도 오래된 성이여.

마을이 몇 년 됐다는 얘기는...?

몰르겄어... 지금 현재 저 우리 동네 들어오면서 고목나무 있잖아. 그 서 있는 걸루다 따지면 엄청 오래된 동네여.

저기 보호수 지정된 나무 말씀하시죠?

그렇지. 그것이 한 칠팔백 년이 넘은 거니까. 이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없어.

저 뒤쪽에도 있더라고요? 회사 앞에.

그 나무가 최고 오래된 나무여. 회사 앞에 있는 나무가 최고 오래된 나무여.

그거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대가, 거기가 지금 사유지여. 지금 이게. 사유지래가지구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어. 그 나무를. 그 공장을 지으면서도 내가 걔들 보고 얘기는 했어. 나무는 건들지 말라고. 벌 받으니까.

나무는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지. 이건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 벌 받으니까.

그 나무가 더 오래된 거예요?

최고 오래 됐어. 그건 칠팔백 년이 넘었어요. 두 나무가 다 그래요 그거.

그니까 오래된 나무는 그 두 그루죠?

그것두 오래됐구. 지금 저 그 체 그 공원에 가면 그 큰 당산이 있을 거야. 그 소나무는,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소나무 없어. (팔로 크게 표현하면서)소나무가 이래. 한 세네 아름...

그 소나무가 당산 나무인가요?

그렇지. 거기에 그 참나무하고 있는 게, 그 당산이야. 근데 그것두 역시 또 사유지라서 우리가 이러구저러구 할 수두 없구.

그러면 당산나무는 그 참나무예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참나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두 개 다요?

예.

그럼 제사 당제는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전에 저기여, 내가 93년도, 94년도에 내가 이장을 볼 때는 내가 당주를 했었어. 서로 안 핼라고 그래가지구. 그래가지구 내가 93년도에 이장을 내놓고 나오면서 뭐 한 2∽3년은 내가 당주를 했는데. 그 후에는 누가 맡을라고 그래. 내가 무슨 뭐, 저게 뭐, 내가 안 해니까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렸지. 그래 당지사를 안 지내. 지금은.

그때 이어졌다가?

응. 나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그 당주를 서로 안 핼라고 그래구, 내가 했었거든.

그러면 당제사가 93~4년도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네요?

그 후에도 조금 했었어. 그 저 우리 동네에서 인저 젊은 애들이 인저 암 같은 거로다 죽고 그

러다 보니까는 또 어디서 또 물어봤는지 "당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더라구. 그래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리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안 지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93년도 4년도까지 이장님이 지내시다가...
그래요.

끊었다가 다시 한번 조금 지낸 거예요?
한 2~3년 지내다가 이제 그만둔 거여. 인제 지금은.

아 그러니까 그 93~94년도 끊어져서 조금 지나니까, 뭐 동네 이제 젊은 사람 죽고 그러니까 ...
그게 왜냐면 당주를 누가 안 핼라구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그러죠?
글쎄 나도 그건 모르겠어. 어떤 사람 말로는 뭐 그거 해서 죽었다느니 뭐 했느니, 그런 소문이 나가지구 그래서 그랬는지. 내가 그랬어. "죽기는 개 코구녁이나 왜 죽냐?" 구. 이렇게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구 잘 사는데.

그 당제사는 그때 언제 지냈어요?
그거는 인저 저기 보통 12월달에 있잖아 날짜 잡아가지구. 12월이면 인제 고때 저기 당제사를 주로 많이 지내. 12월 초순에.

양력이요? 음력이요?
그게 인제 저 우리... 보통 저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마을마다 대동회래 거 하잖아. 인저 대동회 앞세워 놓구 당제사 지내는 거여 인저. 왜냐면은 당제사 지낼 때 인제 보면 소머리 있잖아. 그거 큰 거 하나 사다 놓구 제사 지내는 거거든. 그 인제 그거 가지고 인제 동네 사람들 또 먹는 거여. 그게. 저 대동회 핼 때.

옛날에 이장님 어리셨을 때도 그 당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맞어. 어렸을 때도 했어.

그 당제사가 쭉 이어져 가지고 93년 4년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그거 계속 했었지.

그러면 이장님 어렸을 때도 소머리 썼던 거예요?
맞어요. 소머리 썼던 거여.

이 사다가?
그렇지. 소머리 사다가.

마을에서 잡았던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잡기는 그게 쉽질 않거든. 그게 가격이 있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도살장이나 정육점 핸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구, 황소머리 큰 거 사다가 인제 제사 지내는 거지.

황소머리요?

응.

그거 말고 인제 떡도 올라갔을 거 아녜요?

떡은 인제 보면 저 백설기.. 백설기하고 인저 저 누림이하고 삼석 있잖아. 사과, 배, 저기 대추, 감. 그거만 넣는 거요.

그러니까 황소머리, 백설기, 삼색 과일...

그렇지

그다음에 아까...

포, 북어포 놓구...

그래서 대동회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인저 날짜 잡아서, 좋은 날짜 잡어가지구.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녀.

그럼 양력 12월이겠네요?

그렇죠.

양력 12월 무렵에... 그 전에 당주들은 선출했죠?

그때 그 당주를 해게 되면은 3일간 음식 같은 것두 조심해서 먹어야 돼여. 저기 비린 거, 이런 거 못 먹어. 당주 해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외출두 조심해서 나가야 되구. 또 상 당핸 집, 불량한 집에 못 들어가. 그거 당주가 되게 되면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건 잘 알어.

제 지내기 3일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3일 전에는 남의 집두 함부로 못 들어가구, 저기 안 좋은 데를 가면은 안 되니까 또 그게.

그러면 이제 준비는 뭐 뭐 해요? 제물 말고 그 당제사 지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제사 지낸다고 그러면 3일 전에 우리가 이엉을 엮으잖아. 짚으루. 이엉 엮어서 그 당집, 인제 당집 저 개소해 놓는 거지. 짚으로 이엉 엮어서 당집 그거 이제 다시 저 개소해 놓은 거지.

거기 당집이 있었어요?

당집이래는 것이 그때는 저 나무로다 이렇게 삼발이 걸어 가지구, 저 이엉. 이엉으로다 이렇게 둘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집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 그 껍데기 뱃겨내구 다시 또 입혀주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당집을 이렇게 이엉으로 엮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으면...?
아니 그걸 인저 이렇게 삼발이 걸어가지구 집을 짓는 거지. 고게. 그 저 껍데기를 다시 인저, 외피를 붙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있다가, 당체사 지내기 3일 전에 인제 지붕 개량 다시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주는 거여. 그리고 그 주변에 청소해고.

3일 전에요?
응.

우물은 어떤 거 썼어요?
지금 우리 동네 우물, 한우물이라는 게 있었어. 동네 한가운데. 샘물 잘 나는 우물인데 지금 메워버렸지. 그냥. 그걸 또... 그게 우리 동네 전체 주민이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었으니까 옛날에.

아 그러면 금암 2리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군데가 있어서 있기는. 메꾸리 우물이라는 데 있구. 인저 한우물하구, 두 군데지... 거기도 샘이 잘 났었지 그게. 메꾸리 우물이.

근데 그럼 2개 드시지. 왜 하나 가지고 다 드셨었어요?
아 인제 그게 주로 인저 옛날에는 한우물을, 동네 한 복판에 있었으니까 그게 제일 많이 썼지. 이용했지. 그리고 인저 메꾸리 우물에는 그 일부고, 저기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고.

그럼 정제도 지냈겠네요?
우물제라는 것이 없어. 그냥 당제사 지내는 날 같이 지내는 거여.

그러면 제물은 어떻게 해요? 우물제 제물은?
아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 그 소머리를 그 우물에도 제사 지내구, 당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거여.

당제사를 먼저 지내고 그 다음에 우물로 다시 재물을 갖고 와서?
그렇지.

그 다른 제물도 그렇겠네요?

글쎄요. 나는 그거... 그 전에는 저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추석 때 있지?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씩 잡았어요.

추석 때요?

예. 추석 때 소를 잡으면은 소 그 저기 사개 쪽을 떼가지구, 인저 그게 우물에도 제사 지내구, 당에두 제사 지내구, 거기 우리 동네 고목나무 있잖아. 거기 가서도 제사 지내고 그랬어. 8월 달에.

8월 추석 지나서 그랬나요?

아니 추석 전에... 그거 인저 해가지구 동네 사람들 인저 나눠 먹는 거여.

명절 차림용으로?

응... 우물제는 내가 알기로 그렇게 지냈어.

그러면 그때는 당제사도 8월에 지냈네요?

아니지. 당제는 별도지.

당제사는 별도고?

10월 상달에 지낸 거니까. 그게.

아 당제사는?

그렇지.

10월...?

10이 상달이니까... 인저 별 문제 없는 날 잡는 거여. 날짜.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아까 12월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11월. 근데 그리구 나서 인제 그게 12월 달에 잡게 된 것은 인제 그게 핸 것이 인저 대동회하고 같이 그렇게 핼라구 그렇게, 동네에서 인저 그렇게 잡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월달에 날 잡아서 지냈는데, 인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12월 대동회랑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춘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그 추석 전에는 우물하고 그 다음에 저...

고목나무 같은데 제사 지낸 거지 인저.

고목나무 같은 데 제사 지내고요?
당산에도 가서 제사지내구.

아 당산에도 제사지내고?
그럼요.

그러니까 당산에도 지냈지만 당제는 아니었고요?
당제는 아니구 인저 쉽게 말하면 고사 지내는 거지 인저.

그 당집은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어.

그러면 당집은 소나무 아래하고 참나무 아래 어느 쪽에 있었나요?
가운데. 당산 한 가운데.

일단 소나무하고 참나무 가운데요?
그려. 거기 보면 숲이 되게 우거졌어. 한 가운데 있었어. 지금도 지금도 가면 그 당제 지내는 그릇 같은 건 있을 거여. 땅 속에.

땅 속에요?
그렇지. 그 인제 당집이 허물어서 없어지면서 거기 그냥 흙속에 묻혔겄지 그냥. 시루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당집은 이렇게 그 나무로 그냥 이렇게 했나요?
아이 나무로다 이렇게 삼발이 걸어가고.

삼발이 걸어가지고요?
그렇죠.

높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아이 우리 한 키 정도 돼.

사람 한 길 정도요?
그렇지. 고 안에 그것이 뭐냐면, 당집이래는 것이 그 안에 그 제기 있잖아. 그거 인저 거기 보관해느냐고 그걸 거기다 그걸 해놓은 거여 그게.

아 제기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사는 당집 앞에서 지낼 거 아녜요?
그렇죠. 앞에, 거기다 차려놓고. 그 집 앞에서.

보통 몇 시쯤 지냈어요?
열두시.

밤 열두시오?
밤 열두시. 그건 정확해.

그러면 거기 제 지낼 때는 누구누구 가요?
주로 인저 이장, 반장, 당주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몇 개 반이에요?
여기 우리가 4개 반인데, 지금 면에서는 지금 3개 반으로 밖에 안 해놔 지금. 우리 금암2리가 상당히 크거든. 웬만한 데 뭐 저기 2개 부락보다두 더 크지.

굉장히 크죠. 여기 학교도 있고...
여기 학교에서부터 저기 지금 보면은 그 저기 수월암1리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지금 보면 그 공장들이 있는 데. 거기 다 금암2리여.

그러면 행정상으로는 3개반이고 실질적으로는 4개반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상으로는 3개 반으로다 밲에 인정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 제사 지낼 때는 한 다섯 분 정도 가시겠네요?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그렇지. 고렇게 가는 거지. 일반인들은 안 올라가.

그럼 이제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제 지내는 순서는?
제사 지내는 건 당주가 1순위지. 당주가 모든 걸 다 해는 거지. 저 이장이나 인저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보조만 해주는 거니까.

맨 처음에 절하고...
그렇지. 거기서 우리가 보면 소지라고 있잖아? 그거 인저 태워서 올리는 거지.

소지는 한 번에 해요? 아니면 집집마다 하는 거예요?
인저 그 저 동네 호수를 어느 정도 해가지구, 인저 그 장수를 올리는 거지.

그 호수만큼?
그렇지.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가 한 70호 이상 됐었거든. 그러면 70장을 인저 불살러 올리는

거지.

그 그때라고 하시면 90년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90년대. 그때 소지 종이라고 그러지 그게. 무당들이 주로 많이 쓰지 그게.

이때는 70호 정도 됐고, 이장님 여기 어렸을 때는 몇 호 정도 됐어요?
그때나 이때나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은 인저, 지금은 호수가 많지만은 이게 우리가 그래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원 토백이 아니면 나도 그 사람들 관리도 안 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뭐 이장인지 나발인지도 모르는걸 뭐. 뭐 오지두 않고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부락 안에 있잖아. 고 사람들 외에로는 난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옛날 마을 안 쪽, 이쪽만 관리하시고...?
그렇지.

그 밖에 벗어나는 쪽은...?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얘기해도 들어먹지두 않고 지들이 아쉬워야 찾아오는 거구.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아유 호수가 많죠. 몰르지. 그걸 내가 따져보지 않었지. 지금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한 70호 이상 되지.

지금 옛날 마을 범위 안에?
그렇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저기 파출소 있죠. 이쪽으로는 뭐 누가 와서 사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파출소 저쪽 수월암리 쪽으로다. 거기두 여러 채가 있는데 뭐, 거기도 많지. 근데 그 사람들 뭐 와서, 와가지구 내가 주민등록 싸인만 해줄 뿐이지 뭐 누군지를 알어. 오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호수는 많어. 우리 동네가.

여기서 오래 살아오신 토박이들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아유 많지요. 지금 한 칠십 가구 이상 되지. 원 토백이만... 보통 30년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저 우리하고 늘 인저 모든 걸 이해관계를 하지. 인제 왔다 갔다 하면서두.

그럼 대동회 하면 엄청 많으시겠어요?
아이 그렇지도 않어.

대동회는 12월 마지막 주에 하시나요?
아니 그냥, 인저 그거를, 우리가 대동회를 해면 나 혼자 해는 게 아니잖어. 인저 주로 인저 부녀회장이 인저 음식 같은 걸 해야 되니까는 제일 먼저 부녀회장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부녀회장 빠지지 않는 날. 어디 가고 하는 날. 그냥 그 날 잡아서 하는 거지.

보통 주말에 하시는 거죠?

주말에도 해구 그러지. 인저 뭐 날짜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인저 부녀회장이 저기 뭐 별 그 저기하지 않은 날. 나는 늘 집에서 있지만, 뭐 부녀회장들은, 여자들은 움직이니까. 뭐 그 사람들, 부녀회장들은 뭐 어디 안 가겠지만은 그래두 상호간에 또 얘기는 해야 되니까. 주로 보면 저 우리는 12월 중순에 많이 해요.

대동회 하면 몇 분 정도 나와요?

글쎄 명수는 나 자세히 모르겠어 그냥. 와서 그냥 점심 먹고 가니까 그냥.

인제 마을 1년 결산하시고, 점심 드시고...?

가니까는 그냥.

그래도 매년 뭐 한...?

한 50명 이상은 왔다 가.

요즘 이장님은 이제 옛날하고 그 이장의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이장님은 처음 이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17년서부터 지금까지 해구.

2017년부터요?

응. 그리고 93년도, 94년도에두 내가 했었구.

오래 하셨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에요? 그 하시는 일에?

오히려 지금이 낫지. 90년도보더 지금은. 90년도는 각종 세금서부터 모두가 내가 다 그걸 고지서를 줘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에서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잖아. 그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안 해지.

지금 그럼 꼭 해야 되는, 마을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크게 뭐 같은 거는 없어.

옛날에는 막 비료도 나눠주고 신청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 6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했어. 그때 그래가지구 60년대 이장 본 사람들이 거덜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녀.

왜요?

비료값 받아서 내가 꿀꺽. 또 저기 농자금 받아서 내가 꿀꺽. 나중에 그게 빚이 되가지구 땅 팔아먹구 막 그러는 거지. 막 부부간에 그 집안에 막 싸움이 나구.

근데 그게 인제 남의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해지만, 우리 동네가 이 지금 면사무소 여기 동네다 보니까는 술집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있었어.

면사무소 근처에요?

아 면사무소, 여기 지금 여기 저 학교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술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이거 먹고, 그냥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빚이지. 비료값이고 농자금 같은 거 그냥, 각종 세금 같은 걸 다 이장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장이 그 이제 농협 같은 데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농협에 가서 갚아야 될 돈을 농가들이 주잖아. 주민들이. 주면 갖다 갚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꿀꺽 써가지구.

아 영농자금 같은 거요?

그때 영농자금두 다 이장이 관리를 했지. 그걸... 그때 당시에 60년대 그래가지고 이장들이 망핸 동네가 한두 동네가 아니여.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전라도 같은 데는 출생 신고두 이장, 사망 신고두 이장 했던 거여. 모든 거 다. 그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동네 한 양반두 언니가 죽었는데 다 자기가 죽은 거로 다 돼 있어. 사망신고. 그래서 언니 호족을 쓰는 거여.

지금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전라도 같은데는 그랬잖아. 지금 여기는 그래두 그래도 그런대로다 그래도 그런 거는 별루 없는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 농협이 어딨서. 서정리에 있었다구. 저 저기 저 도지부. 도지부 농협에 가서 갚어야 돼. 비료값 같은 거, 각종 세금 같은 거.

도지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게 인저 도에서 움직이는 거, 그게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는 지금 단위 농협이지만은, 여기두 지금 저 시지부라고 있잖아요. 평택에도 두 군데가 있잖아. 저 평택에 있구 송탄에 두 군데 있구. 그게 있듯이 인저 거기 가서 이장이 갖다 대납을 해야 되는데, 돈 받아서 그걸 내가 써버리는 거여.

그냥 보통 술 먹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술집이 컸나 봐요?

아유 다섯 군덴가 여섯 군데 있어서. 우리 동네가.

주로 막걸리집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자들도 있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있는 집이 세 집인가 있었지. 나 어렸을 때.

한 세 집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래.

두 집은 그냥 주인이, 주인 여자 혼자 운영하고요?
응.

그러면 이 근처 사람들이 술 마시러도 많이 왔겠네요?
다 왔지. 여자애들 이쁜 애들 있으면은 뭐 저 진위면서도 오구 뭐 어디서느 안 와 뭐.

그러면 그 이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재산 날린 사람들도 좀 있었겠네요?
아 있겄지요. 그래가지구 애도 낳구.

부부 싸움하는 집도 많았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엔 여자들이 지금같이 으르렁대지 못했어. “나가!” 해면 꼼짝 못해지 어디서 으르렁대여.

남편한테요?
그럼. “가!” 그러면 그냥 뭐 여자들이 어디 가, 어디다 대고 힘을 써. 지금이니까 여자들이 뭐 뭐 저 저기 핸 소리 다 하지. 그때는, 60년대는 여자들 그냥 남자가 “죽어” 그러면 죽는 거여 그냥. 얘기 못했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긴 뭐 억울해. 그때 당 시절이 그런데 아이.

지금이 이장님을 볼 때 지금이 좋으세요? 그때가 좋으세요?
아이 나는 그런 거 관계 없어. 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지금두 술을 안 먹지만은 술 먹는 사람들은 그걸 안 따지잖어. 지금 술 먹기 그거 좋아해는 사람들은 기집집 가서 그 지랄해구 뭐 허구헌날 가서 뭐 땅 팔아 먹어 가면서 그런데 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지금 한 10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그 짓을 해가지구 재산을 많이 날리구. 우리 동네 부자 동네였었거든.

옛날에요?

금암2리가 부자 동네여.

들판이 넓잖아요.

아 부자 동네였었어. 그래다 보니까 인제 그때 당시에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바람피구 그렇게 해다 보니까 그냥 땅들이 다 날라가, 그때 당시에 쌀 열다섯 가마면 논 한 자리씩 날아갔어.

논 한 자리요? 저 한 마지기 말씀하신 건가요?

한 마지기가 아녀. 한 자리에 7∽8마지기씩 날아가는 거여. 쌀 열 댓 가마면은.

저기 1,200평짜리 그거 하나 말씀...?

아이 천 평이고 그때 당시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논 한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한 자리가 평수는 정확헌 건 몰러두 그냥 논 한 자리씩 날아간 거여 그때 당시에. 쌀 한 열댓 가마 장례쌀 먹으면은. 값을 길 있나.

여기 장례쌀은 주로 부잣집에서 했나요?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장례쌀 먹었나요?

저 좀 있는 집에서 했지.

그래도 그 부잣집은, 이름은 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지. 그 아버지 이름은 김의식이지...

저 차씨나 송씨가 아니고 김씨라는...?

저 이 양반이 저 송씨네 사위여.

들어와 가지고 인제 부자가 된 거네요?

그렇지. 인제 지독하게 해가지구 인저 장례쌀 해가지구 땅을 많이 샀지. 그 양반도 그전에, 옛날에는 몰러요. 우리 할아버지 얘기로 머슴 살았다고 그러더라구.

아 이분도요?

그럼. 살아가지구 장례쌀 해가지구, 땅 사가지구 인저 부자로다 인저 그렇게 된 거지.

이장님은 인제 계속 농사 일 하셨잖아요? 여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도 여러 군데 다녔어. 매일유업에도 한 5년 다녔어.

몇 살 때 다니셨어요?

그때가... 한 서른 살인가, 스물아홉인가 그때 다녔어.

30살 29이시면... 70년대 말쯤 다니셨나요?

그렇지... 고기 그만 두면서 젖소 시작핸 거여. 매일유업 고만두면서. 내가 거기 다니니까는 젖소 내용을 알으니까. 젖소가 폭락하니까 그때 내가 사가지고 들어간 거지. 그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예측하신 거네요. 지금 폭락했지만 나중에 오를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신 거네요?

아이 오르는 거보다두 80년대 초반에는 막 400~500만원 갔어두 그때 당시에 100만원 조금 더 주면 샀으니까. 그 인저 주로 보면은 저 그 짐을 나르는 애들 있잖어. 그 우유통 실어나르는 애들. 옛날에. 걔들이 인저 얘기를 해주지. 인저 얼마 얼마 된다고 지금. 그래가지구 저 안성 삼죽에 가가지구 다섯 마리를 내가 사 온 거지. 450만원에.

아이고 100만 원도 안 주고 사셨네요?

아 그때 당시에 그냥 막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논농사는 그렇게 많이 안 지으셨나 봐요?

논은 그때 당시에 한 1,200평 농사 지었었어.

그럼 매일유업 들어가시기 전에는 논농사만 지으시고요?

그렇지. 인저 그거 주로 인저, 아이 여러 군데 했어. 나는 그거 해는 일이.

그 여러 군데라는 건 어떤...?

직업이라는 게 뭐 한이 없었으니깐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농사도 짓지만 매일유업이나 뭐 영풍제지나 이렇게 들어서면서 마을 분들이 많이 마을 사람들이 다녔겠네요?

여기 서탄면 사람들은 별로 안 다녔어.

아 그쪽으로 안 다녔어요?

응. 지금두 마찬가지여. 매일유업이 진위면 사람은 별로 없어. 다 외부 사람들이여.

특히 이쪽은 더 없었어요?

우리 서탄 같은 경우는 더 한지지.

영풍제지나 이런 데는 가깝잖아요.

영풍제지두 저 우리 동네에서 저 한 56년생인가 걔가 하나가 다녔지.

그럼 이장님은 어떻게 매일유업은 들어가셨어요?

인저 아는 양반 저기로다, 소개로 들어갔지.

그럼 이장님은 매일유업 들어가시기 전에는 뭐...?
뭐 농사일도 해구 별거 다 했지 그냥.

별거 다라는 거는...?
하하하... 농사 일 좀 했지 뭐.

그 이장님 댁에 그 어머니만 계시고, 외할머니 계시고 그래서 그 웬만한 일들은 이제 이장님 다...?
내가 다 해야지.

그러면 소로 논 가는 거는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한 스무 살 정도 됐을 때 했을 거여.

보통 한 스무 살 정도 되면 논갈기 해요?
아 인저 그것두 쉽게 말해서 눈썰미 있는 사람들이 해는 거지. 소 다루는 거니까. 그때는, 옛날에 소 쟁기로다가 논가는 거니까. 저 눈썰미 없는 사람은 못하지 그거.

십 대 후반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대 후반에 못해요. 그거.

10대 후반에 못해요?
못해지.

그래도 한 스무 살은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조재관(남, 1933년생) 금암2리 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6월 11일
장 소	조재관 자택 마당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골안말 최연장자



어르신은 몇 년생이세요?
33년생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응.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여적지 사는 거여... 이사를 지금 세 번 했어요.

이 마을에서요?
응.

이 마을에는 어느 성 씨가 많이 살아요?
지금... 송씨가 많은가, 차씨가 많은가...

송씨하고 최씨요?
응. 여기 조서방네.

조씨하고요?
응.

이 마을이 몇 년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연수로는 모르지 뭐.

여기를 안말이라고 부르죠?
예.

옛날에 왜 면사무소가 저 골안말에 있었잖아요? 1리에.
아니. 면사무소가 골안말에 있지 않았어.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왜정 시대는 저쪽에 있었다고 그러던데?
아녀. 거기 안 있었어.

어르신 집안은 여기 들어온 지 몇 대째 사세요?
우리 증조부 때부터 사니깨,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들, 인제 손자들 있고 그러니깨 6대가 되네. 그전에 사실은 더 오랬고. 10대조 산소가 여 있다가...

10대조 산소가 있어요?
응.

그러면 증조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들어오셨겠네요?
그렇지. 그럼.

그러면 여기 가장 오래된 산소가 10대조 할아버지세요?
내게 10대조 할아버지.

그럼 그때부터 이쪽에...?
그렇다고 봐야지.

어디 조씨예요?
우리 평양 조가여.

무슨 파예요?
진안공파.

10대조 산소가 어디 있어요?
저기, 지금 건물들이 이렇게 막아서 잘 안 뵈요. 여기서 환히 잘 보였는데.

그 산소가 있는 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산이잖아요?
그냥 산이라고 불렀어. 산 이름이 거기 별도로 없어졌어. 그 활기로 해가지고서 그냥 줄로다 맞춰가지고, 일로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전에 '저 산소가 저 뉘 집 산소냐?' 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나무가 크구 동네가 막혀갖구 안 보여.

그때는 나무가 별로 없었죠? 옛날에는?
그렇지.

여기는 그러면 연료는 뭘 썼어요?
연료는 그전에 산에서 나무 긁어 때고, 연탄 때고 그랬었지 뭐.

연탄은 어르신 몇 살 때부터 뗐어요?
연탄 몇 살 때부터 땠다고 그래야 되나. 오래 됐지. 오래 되고말고.

새마을운동하기 전부터도 땠나요?
새마을운동? 그 전부터 땠을 거여.

그러면 60년대부터, 60년대도 땠겠네요?
연탄 땐지 60년도 넘었어요.

5.16 나고 나서 땠어요? 5.16 전에 땠어요?
그전부터 또 땠지.

5.16 전에도 땠어요?
땠을 거여...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탄하고 나무하고 같이 땠겠네요?
응.

여기 그런데 산이 없어서 나무 하기가 좀 힘들었겠어요?
아이 그럼. 지금은 산에 풀이 이렇게 우거졌지만, 그때는 풀도 없었어. 다 그냥 긁어 때고, 솔가래도 여기는, 풀 잘러서, 솔가래도, 이거 때고. 산에 풀이 없었지 뭐 그때는. 근데 지금은 누가 뭐 손 하나 안 대니깨, 풀도 자라구 나무도 자라구.

여기는 그러면 짚도 많이 땠겠네요?
그렇지. 많이 땠지.

나무를 많이 땟어요? 짚을 많이 땟어요?
짚두 그전에 가마 치고나면, 가마두 치구 그럴 때도... 짚두 때구, 나무도 때구. 연탄이 없을 적에는.

짚으로 가마니 많이 짰죠?
그렇지.

가마니는 집에서 쓰기도 하고 가서 공판도 했잖아요?
그렇지.

가마니 공판은 언제까지 했어요? 어르신 몇 살 때까지?

나 적에는, 나 쪼그만 해서는 잘 모르구, 그 위서부터 우리 누님들도 가마 짜구. 형님들두 짜구 그랬어요.

어르신은 몇 째세요? 몇 남매 몇째?

4형제.

위로 누님 계신다면서요?... 누님까지 하면 몇 남매세요?

6남맨가 봐.

6남매에 몇 째세요?

형님, 누님 둘에, 내가 넷째.

여기 서탄초등학교 다니셨죠? 서탄초등학교 몇 회세요?

내가 14회 졸업생인가 될 거야 아마.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좋았겠어요?

그렇지. 나 학교 정문 앞에서 살아서, 학교 다닐 때는 저기 살았지만은 학교 정문 앞에서 집이 길 내느냐고 헐려가지고 집터가 있어서 거기다 다시 또 잘 짓고 살다가, 또 집이,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일로다 온 거여.

아 도로 확장되는 바람에요?

응.

이 도로는 언제 확장됐어요?

이 도로. 이 도로 확장된 거 몰러 그거.

어르신 어렸을 때는 이 길이 지금보다는 좁았죠?

그렇게 좁지는 안었었지. 그러니까 이 길을 넓혔으니깨 좁었다고 봐야지. 길 넓히며 집이 헐렸으니까.

그러면 저기 금암리 들어오는 시멘트 다리 있잖아요. 금암교, 그 다리 놓이면서 이 길이 넓어진 건가요? 시멘트 다리?

그렇다고 봐야지.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포장도 안 됐었잖아요?

비포장이었나, 포장이었나... 자세히 모르겄네.

그때 버스는 다녔어요?
옛날에 무슨 버스가 있어. 걸어다녔지.

그러면 수원 갈려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수원 갈려면 서탄입구 가야지. 버스 타고, 걸어가서.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나 돼요?
여기서 서탄입구까지가 아마 한 3km 정도 될 거야.

장은 어디로 다녔어요?
그전에 오산장.

오산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산시장 가려면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구. 많이 걸어다녔지.

여기 가면 고개 넘잖아요?
얕은 고개가 있지. 저 수월암리 고개, 그 거르미 고개, 큰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월암리 쪽으로 해가지고...?
수월암1리.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여.

수월암1리로 해가지고 저 탑리로 해서요?
아니 수월암1리로 이렇게, 탑리로 안 가. 수월암1리로 이렇게 제방 있는, 논둑길두 있구 냇갈 제방둑도 있구 그려.

아 논길인제 수월암1리 지나면 논둑길도 있고 제방길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략 거리는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오산, 여기서 가자면 한... 서탄입구가 3키로니까 한 6키로 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10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걸어가려면 한 1시간은 잡아야 되겠네요?
한 시간 이상 걸려야 돼.

어르신은 여기 초등학교 다니시고 중학교는 가셨어요?
중학교는 못 갔어요.

그 당시에는 다 어르신들이 집안이 어려워서 못 가신 거죠?
그렇다고 봐야지.

그 당시에 어르신 아버님께서는 농사를 얼마나 지으셨어요?
농사... 한... 20마지기 정도 졌을 거예요.

한 20마지기 정도요?
20마지기는 넘게 졌을 거여.

그니까 논농사만 20마지기라는 거죠?
응.

그러면 그래도 부자 축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부자 축에? 그렇다고 봐야지.

한 마지기면...?
150평.

이게 150평이면 소출은 얼마나 났어요? 한 마지기당?
한 마지기... 양석 나면 쌀이 두 가마가 나는 건데, 그렇게 나기... 거름이 적어서 대부분...

아 양석 나기 힘들었어요?
응.

그때는, 새마을운동하기 전에는 거름을 어떻게 했나요?
거름... 주로 퇴비 같은 거 했지. 소똥받아가지구.

여기는 이모작 했어요?
이모작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보리나 밀은 거의 밭에다 심었겠네요?
그렇지.

아까 논이 20마지기 넘었다고 하고 그러셨는데, 밭은 어땠어요?
밭도 그때.... 한 2천 평 가까이 있었어.

그럼 밭에다가는 주로 뭐 심으셨어요?
밭에 주로 보리 아니면 밀이지 뭐.

식량 될 거 인제 심으시고요?
그렇지. 주로 보리 아니면 밀이여.

채소 같은 거 그냥 집에서 드실 정도만 심으시고요?
주로 밭에다.

그건 인제 내다 파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옛날엔 우리 동네에서 식구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 댁이요 몇 식구나 됐어요?
많을 때는 한 열댓도 됐을 거야 아마... 삼촌들도 몇 사람 있구. 삼촌들도 몇 분 살았어.

어르신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다음에 바로 농사지으신 거예요?
응.

마을 분들 중에 뭐 어르신 동기는 몇 분이나 됐어요?... 같이 학교 다니신 분?
지금 내 동창은 여기 다 죽구 없어. 다 죽고 없구 밑에 애들이. 지금 인제 한 70세 넘은 애들이 지금 3명이 있어.

그 당시에, 국민학교 다닐 때 동창들은 몇 명이었어요? 여기 마을에?
내 동창이... 재욱이, 만석이, 신지, 민석이, …… 내 동창이 여섯 명인가 되나봐.

여섯 명이요. 여학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학생 여기 하나 있어.

학생 하나요?
응. 일곱 명이네.

이 중에 중학교 간 동창은 몇 명이었어요?
가만 있어봐. 중학교 간 사람, 누가 그때 갔었나. 중학교 간 사람 한 두어 사람 됐을 거야 아마.

중학교는 어디로 갔어요?
중학교가... 진위중학교가 있었지. 아마...

진위중학교는 그때 고등공민학교[2] 아닌가요? 혹시 진위고등공민학교?... 진위면사무소 있는데,

2) 진위고등공민학교는 1953년에 개교하였으므로 조재관의 동기생이 이 학교에 입학했다면 20세가 되므로 사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거기 아니었어요?
응.

그러면 친구분 중에 두 분 정도 인제 중학교 가셨잖아요?
응.

그분은 그 중학교까지만 졸업하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까지 진학을 하셨나요?
한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나왔나 봐.

그 당시에 그 학급은 몇 개 학급이었어요? 한 학년에 몇 개 학급 정도 됐어요?
한 학년에 한 60명 됐을 거야 아마.

그럼 1개 학급이나 2개 학급이네요?
우리 5학년 초기 때까장 일제 시대구 그 후로다가 해방되구 나서 5학년 2학기 됐나봐. 우리가.

5학년 1학기 마치고 해방됐으니까 일제 강점기에 학교 다니셨잖아요?
응.

그때 선생님들 중에 일본인들도 좀 있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이 있었지. 저 해방되고 나서는 없지만, 해방 전에 일본 선생이 있었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일본 선생? 일본 선생이 1명인가 2명인가 되는 거 같은데

조선인 선생하고 일본인 선생이 더 좀 달랐나요?
일본 선생들이 더 강렬하다고 봐야지... 성격상으로다가.

성격상으로, 더 성격이 더 강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벌도 더 줬겠네요?
응.

한 학년이 그때 60명 정도 됐다는 거죠?
그렇지.

그 당시에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벌 준다 그러면 어떤 벌을 줘요?
토끼뛰기 같은 거 하는 거야.

매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매 같은 거... 매 때리면 회초리 같은 거로 때리고 그래.

종아리?
종아리.

그럼 벌을 받으면 어떤 때 그런 벌을 받았나요?
애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뭐 좋지 않은 일에.

해방됐을 때 막 동네에서 좀 많이 만세도 부르고 그랬나요?
고때, 그건 잘 기억을 잘 못하겠어. 해방됐을 때, 방학 동안에 해방이 된 건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6.25 때는 어땠어요? 6.25 때는 인민군들 여기 많이 들어왔었나요?
6.25는 그 6.25 나름대로, 큰 피해는 없었지. 근데 그때 빨갱이라고 사는 동네 몇 된, 데려다 여기 매도 맞고 그랬어. 그 사람들. 지서에다 끌어다가. 그 사람들. 민병대라고 그래가지구 끌어다가 매도 때리구.

그러니까 빨갱이들을 데려다가 매를 때렸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부역자 혼내준 거죠?
부역자래는 게 역시나 빨갱인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었구, 저 도도리 동네라구 수월암리, 2리에 빨갱이가 있어.

면사무소 있는데 근처 우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큰 우물?
면사무소 있는 데 말고 지서 있는 데 우물이 있었어.

우물은 마을에 몇 개 있었어요?
여기 하나 있구. 저기, 두 개 있었어... 가운데 우물까지 세 개.

그 우물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한우물이라고 그러구. 그 네모진 우물 하나 있었구... 또 저기 있는 건 무슨 우물이라고... 메꾸리우물이라고 또 하나 있었어... 전 동네 끄트머리, 산 밑창에. 그니깨 넷이 있었네... 네 개가 있었어.

우물에서 정제도 지내고 그랬어요?
우물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안 지내구[3], 당제는 지냈어. 당제. 당이 있어가지구 당제는 지냈는데, 우물 제사 지내는 건 나는 몰라.

3) 실제로는 8월 추석 전에 날을 정하여 소를 잡아서 정제를 지냈다.

당제는 언제 지냈어요?
  당제는 우리 어려서부텀 지냈는데, 인제 커가면서 없어져 버렸어.

언제까지 지냈어요?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

한 40년 되나요?
  한 40~50년 됐네.

새마을운동 하고 나서도 당제는 지냈었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해면서... 그때까지 아마 했을 거여.

당제 몇 월에 지냈어요?
  10월 달에 지냈을 거야. 아마. 10월 달에.

10월에 날 잡아서 지냈나요? 아니면 정해진 날이 있었나요?
  10월 달에 날을 잡어서 지냈지.

날 잡는 건 대동회에서 잡는 거죠?
  예. 주로 인제 잡는 사람이 있어.

어느 분이 잡았어요? 어르신도 당제 날짜도 정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내가도 그런 일도 해봤어요. 제사두 지내보구.

아 제주도 해보시고요?
  응.

제주는 대동회에서 정하나요?
  아녀. 그래서 대동회에 차려가지구, 거기 인저 누가 대표로 한 사람이 가서 인저 심부름 하는 사람 둘 데리고 인저 가서 절해는 사람은 인저 한 사람 정해서 해구.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 두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요?
  응.

제사 지내는 제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정해요?
  주로 인저 깨끗한 사람을 정하지.

그러면 날 잡으시는 분이 정하시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시나요?

제주를, 몸을 깨끗한 사람을 구해서 해니깨, 저 내가두 당주 여러 번 지내 봤어.

아 제주 여러 번 하셨어요?
응.

인제 제주로 이렇게 정해지면 바깥 출입도 좀 어렵잖아요?
아니 뭐 바깥 출입을 그전에 특별히 가려가지구 출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 밖에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깨 날을 잡어서 하니깨, 며칠 앞두고, 2∽3일 두고 해니깨, 배깥에두 나갈 수 있고 그렇지 뭐.

2~3일 전에 정해서...?
응.

그러면 제주는 인제 정해지면 어떻게...?
제수를 장만해. 사가지구.

제주가 제수도 장만하는 거예요?
응

제수는 뭐뭐가 있었어요?
뭐 크게 뭐 잘 차리는 게 아니구 뭐. 주로 삼색하구, 곶감, 대추... 산자, 과일

산적, 과일...
적은... 고게 아니구 북어 한 놓은 거 같애. 북어.

그러면 삼색과일하고 북어를 놓고 지낸 거예요?
응.

뭐 돼지 머리나 소머리 안 쓰고요?
아녀.

떡은 안 놓고요?
떡은 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술은 어떻게 했어요?
술은 사다가 했나봐... 빚고 그런 생각이 안 나.

아 막걸리를 사다 하신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제사는 보통 몇 시쯤 지냈어요?
초저녁에 해죠.

그냥 해지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해 넘어가서 바로 아니구 인저, 해 넘어가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후에 지내.

그러니까 해지고 2시간쯤 있다가 제주가 마련한 제수를 가지고, 심부름 하는 두 사람이랑 가서 지내는...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분 두 분을 정하고, 그 심부름 하는 분은 제주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심부름 하는 사람은 심부름만 하고, 거기 인저 몸이 깨끗핸 사람이 지내기 때문에 혼자 잘 하고 그래야지, 딴 사람들은 절 안 하구. 심부름만 이리저리 도와주구.

소지는 안 올렸어요?
소지도 올렸지.

소지는 인제 마을 분들 이름...
동네 편안하게 해 달라구.

소지는 마을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리나요? 아니면...?
아니지. 전체 통해서

전체 한 번만?
응. 마을 분들 다 해면 밤 새게.

어르신께서 당제 지낼 때 이 동네는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그때 아마 한 60~70가구 됐을 거예요.

어르신 어렸을 때는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등했다고 봐야 돼.

제물은 그러면 인제 제주가 이렇게 뭐...?
제물은 인저 분할에서 저... 사는거니까, 제주 차리면은 별도로 인저 계산할 때로 봐야지.

제물 차리는 비용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었지.

여기 두레는 좀 컸어요? 마을 가구 수가 많아서 컸을 것 같은데요?
농악두 있었지.

논매기 할 때 주로 하셨죠?
그런 거 핼 때도 농악 치매 댕길 때도 있었어.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요?... 좌상이 있었나요?
뭐 좌상이라기 보다두 그냥 꽹과리 치는 사람이 거의 좌상 비슷했지.

상쇠요?
응.

그러면 상쇠 한 명하고 부쇠 있었나요?
부쇠 있을 때두 있었구.

부쇠에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응.

그리고 인제 징 한 명이요?
징 하나, 북 하나, 장구 하나.

그리고 법고잽이...
버꾸잽이두, 이 동네서 저 농악 같은 거 잘했어요. 버꾸잽이가 한 대여섯 명까장 있었어.

그러면 주로 논 맬 때만 인제 하고...?
논 맬 때 인저 농악 치고 댕기매 해요.

논은 몇 번 매요?
논 한 번 매구, 저 한 번 훔치구.

아 두 번 매는 거예요?
응.

세 번 매지 않았어요?
한 번 매고 그냥 훔쳤을 거여 아마.[4)]

한 번 매고 한 번 훔치고 그냥 끝이에요?

4) 인터뷰 응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 번 논을 매는 것으로 기억했다.

그런 거 같애요.

이 두레 할 때 옆 동네하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두레싸움, 깃발 가지고요?
없었어.

두레가 여기 1리, 2리가 따로 조직이 돼 있었나요?
그럼

3리도 있고요.
1리두 농악 시원치 않구, 3리두도 시원치 않구, 우리 동네만 하나 좀 특별하게 잘했어요.

그럼 이렇게 깃발 싸움 같은 거 안 했어요?
안 했어.

여기 물 사정은 어땠어요?
물 사정이 여긴 괜찮았어요. 옛날에 수리조합 생기기 전에 냇갈 물을 끌어다가 여 봇도랑이라고, 도랑 파가지고 끌어가지구, 인저 그러구 나서는 경지 정리 돼가지구 수리조합 물이 내려오니까. 물 걱정은 별로 안 했어.

수리 조합 내려오기 전에는 전에도...?
전에는 냇갈 물을...

보를 어디다 쌓았어요?
보가 저 다리 있잖아? 다리 있는 그 아래에 보를 막어가지구.

다리 바로 아래요?
응. 안보라고 그러는 저, 보가 둘이여. 안보라고는 저 사리골 동네 있는 거기다 막구, 새보는 여기다 막구.

그러면 물 대는 곳이 안보하고 새보하고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달르지.

그러면 안보 물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였어요?
안보물이 들어오는 데는 좀 높은 지형... 새보는 인저 좀 얕으면서 인저 지대가 넓구.

그러면 이게 좀 저쪽, 저쪽 진위천 옆 쪽이 인제 새보고 이 동네 쪽이 안 보겠네요?
안보는 저 사리 앞에 막어가지구 산을 삥삥 돌어서 일루 내려오구... 새보는 저 배깥으루 내려가구.

그러니까 동네 쪽은 안보를 쓰고, 저쪽 동네 바깥쪽은 새보를 썼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 뭐... 새보에도 인제 쓰는 사람 있구, 안보도 쓰는 사람도 있구.

그러면 여기는 가뭄에 물 푸고 이런 거는 안 했어요?
가뭄에 물 푸는 거?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보 없는 데는 양수들 핸 사람들이 많지.

여기는 양수 안 하고도 그냥 봇물로 다 됐어요.
예.

가뭄도 별로 안 탔겠네요?
별로 탔다고 봐. 가뭄은 뭐 별로 탔다고 볼 수 없지 뭐. 안보두 쓰구 새보두 쓰구 그랬으니까.

그 보 두 개 갖고요?
응.

그러면 그 보 막을 때는, 언제 막았어요?
보 막은 거? 보 막은 거 우리 쪼끄매서, 내가 볼 적에 한 80년? 80년 정도? 80년이나 한 85년 됐을 거여.

그게 어르신 어렸을 때 막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막은 거예요?
응. 그때 처음으로 막아....

어르신 그때 연세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응.

어르신 그때 연세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 막을...?
음... 열 살도 안 됐어. 내가... 쪼끔해서 내가 보 막는 데 구경 댕기구 그랬어.

처음 막을 때요?
응.

그럼 두 개가 같이 막아진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따로 막아졌나요?
시간 따로 됐을 거여.

그러면 안보가 먼저 막히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새보를 막고요?
  응.

그러니까 새보 막을 때가 어르신 10살 정도 됐을 때...?
  새보? 저거 새보 막고 얼마 안 있다... 그때는 제가는(내가) 한 여나므 살 되면서 막혔나?...

그러면 그 보 막기 전에는 물 사정이 어려웠겠네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저거 장마 때 터지지 않았어요?
  터지게... 안 쌓았어. 가마니로 쌓았거든, 인저 비가 오면은 넘어갔지, 보가 터져가지구 다시 막으러 다닌 기억은 잘 안 나.

가마위에다 흙을 넣어가지고, 보를 쌓아놓고요?
  예. 가마니에 쌓아놓고.

그럼 인제 매년 수리만 하고 장마 때도 안 터졌다는 거죠?
  아니지. 해마다 쌓아야 돼.

해마다요?
  가마가 썩으니까 인저.

봄에 쌓는 거죠?
  그렇지.

몇 월 정도에 쌌어요?
  글쎄 그것두, 모심기 전이니깨 뭐. 저기 한 3∽4월 쯤 쌓았나.

그럼 인제 보 한 번 쌓아놓으면 가을까지 그냥 튼튼했어요?
  그랬지.

여기 오산천에 큰 물이 나갔을 텐데요?
  그래 큰 물 나가면 넘어가게 맨들었어. 그냥, 냇갈이 넓으니까 고 위로 넘지.

위로 넘고?

가마니에다 흙을 담아서, 모래 담아서 쌓으니까.

그 봇물이, 수리조합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봇도랑이 인저 있으니까. 안봇도랑, 새봇도랑. 명칭이. 안봇도랑은 사리에서 내려오는 게 안봇도랑. 저기다 막어놓은 게 새봇도랑 그러지.

그러면 봇도랑도 손질 매년 했겠네요?

그렇지.

보 새로 막을 때요?

응. 봇도랑 청소두 해여.

그러면 여기 보주는 주로 누가 하셨어요?

보주? 보주가... 돌아가면서 좀 똑똑해다고 해는 사람이.

아 돌아가면서요?

응.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뽑았네요? 사람들이 보주를 하나씩 뽑았어요? 돌아가면서?

응.

수리조합 물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수리조합 물?

어르신 몇 살 때부터 왔어요?

수리조합 물이... 수리조합 물을... 내가 꽤 커서, 내가 이 발동기 같은 거, 이 근처에서 고장나면 내가 댕기매 다 고쳐줬거든. 근데 거기 저 봇도랑 해다가 물이 많이 새니깨 못해. 그래서 여기 면에 저기 산업계장이 나보고 어딜 좀 가보자고 그래. 그래 가보니까 거기다가 기계를 일곱 댄가 갖다 놨어. 다섯 댄가, 일곱 댄가.

발동기를요?

다섯 댄가, 일곱 댄가 놨는데, 그걸 가서 새로, 하루 해서 손질을 싹 해서 고쳐놓구서는 그 봇도랑에다 인저 집어넣구서는, 다섯 대가 계속 돌아야지 하나만 서면 또 물이 새서 또 일을 못해는 거여. 그래가지구 그거를 내가 해서 고장 없이 또랑 싹 냈더니 양복 한 벌을 해주더라구. 하하...

산업계에서요?

예.

그러면 그 발동기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발동기는 인제 면에서 구해가지구. 면에서두 발동기가 여러 대 있었어요.

면사무소에요?
응.

그 발동기는 어느 들에서 주로 썼어요?
응?

여기는 그 안보하고 새보로 물을 다 대는데, 그러면 그 발동기는 어느 들판에서...?
발전기는 이게, 그거는 논둑 높은 데 같은 데. 올라가지 않는 데는 발동기 놓구 퍼야 되어.

아 봇도랑이 있어도?
예. 높은 데는 안 올라가니까.

그럼 원래부터 발동기를 썼네요?
그랬었다고 봐야지. 발동기가 여러 대 있었어요. 여기... 면사무소에.

면사무소에요?
응. 아유 거기 가면 한 30대가량 있었을 거야.

30대요?
응. 그 그걸 다 내가 손질해서 썼거든.

그러면 어르신은 그전에 기계 같은 거 만지는 일을 하셨어요?
아녀. 만지는 게 아니그, 뭐 어떻게 발동기 기술을 내가 저기 어떻게 해가지구 하여간 다 고쳐서 썼으니까.

그러면 그때 발동기 고쳐주고 이렇게 보수도 받고 그러셨겠네요?
보수... 그게 뭐 보수까지두 못 받았어.

어떻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 뭐 어디 댕기매 배운 건 아니구, 그냥 어떻게 해다 보니깨 발동기 같은 거... 부락에두 저 전기가 없으니깨 발동기 놓구서 봤는데 몇 개 부락두 내 손 안 간 발동기가 별로 없어. 내가 다 고쳐주구.

그때 발동기는 그럼 전부 다 면 소유였어요? 개인 소유는 없고요?
부락 소유지. 부락 소유. 정미소 차려 놓은 거는 부락 소유일 거여.

아 발동기가 인제 부락에 있던, 정미소에 있던...?
정미소여.

그러면 그때 몇 마리 정도 됐어요? 발동기가?
뭐 한 20마리짜리구 있구. 한... 보통 한 20마력 가져야 정미소 돌리거든.

아 여기 정미소가 부락 거였어요?... 개인 게 아니고?
딴 부락들은... 부락 거로다 쓰는 것두 있구, 개인이 있는 것두 있구 그러지.

여기 안말은 어땠어요?
안말두 있었지.

부락 거예요?
안말도에 있었는데... 안말도에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처음에는, 개인 건가 본데 어떻게 나중에는 부락 거로다 됐어.

그러면 그 개인은 마을 분이었어요? 이 마을에 사는 분이 소유했었던 거예요?
예 처음에.

어떻게 부락 걸로 됐을까요? 부락에서 산 건가요?
그 부락에 있던 사람이 피대에 걸려가지구 여기 팔이 하나 떨어졌거든... 피대에 걸려서 팔이 하나 잘라져가지구 인제 못 허겠으니까 인저 부락에서 인저 흡수했나 봐.

발동기 돌리다가 그랬나 봐요? 발동기 돌리다가 사고 나가지고...?
아니. 발동기를 돌리다가 그런 게 아니라, 발동기 피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 걸려가지구.

그때 방앗삯은 얼마 정도? 그 방아는 그럼 마을에서 운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부락에서 소유했는데, 뭐 한 섬에 쌀을 몇 되를 떴나 모르겠어. 한 섬에 쌀을 몇 되 떴나? 생각이 안 나구 그러네.

정미소가 어디 있었어요?
저기 저 부락 가운데 쯤 있었어.

그러면 마을 분들은 방아삯도 좀 쌌겠네요?

마을 분이라고 쌌나? 똑같이 받았지.

방아삯은 얼마나 됐어요? 한 가마 찧으면?

정확하게 그거 잘 모르겄네. 한 섬에 그때, 한 섬에 몇 됫박 떴는데, 잘 모르겄어. 그거는...

한 섬이면 한 가마를 얘기하나요? 두 가마를 말씀하시나요?

저 한 섬 해면은 쌀 두가마 따져가지구 얼마를 했는데... 몇 되를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겄어... 가마당 한 쌀 서너 되 떴나봐.

그 정미소는 없어질 때까지 마을 소유였었어요?

없어질 때까지? 응.

언제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진 제가 꽤 오래됐어.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인제 전기 들어오매 없어졌다고 봐야지 뭐.[5)]

전기 들어오면서요?

응... 전기 들어오면서 모타로 하구.

발동기는 전기 들어오면 없어지지만 그 방앗간은 전기 들어오면 모터로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정미소는 계속 전기 들어와도 있었죠?

꽤 오래꺼정 있었어. 그런데 인제 없어졌어.

그건 언제 없어졌어요?

아마 그게 없어진 제가 꽤 오래됐어... 주로 개인 정미기가 또 그 뒤에 많이 나왔다구... 그 개인 정미기 놓구 많이 쪄먹었지.

개인 정미소가 몇 개나 있었어요?

농사 있는 사람들은 꽤 여러 대 놨지... 나두 놓구. 그게... 한 예닐곱 대 있었나봐.

아 개인 정미소가 집에서 자기 거 그냥 찧어먹는 거 말씀하신 거죠?

응.

어르신 어렸을 때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지요.

---

5) 실제로는 안말 차상석이 1991년까지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반찬, 밥 같은 경우도 뭐 넉넉지 않고?
어려웠지. 옛날이야 다...

옛날에는 인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잖아요? 마을 분들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렇지.

어르신 댁은 그래도 이렇게 밥을 굶지 않고는 사셨을 것 같은데...?
인저 죽들을 많이 쒀먹었지. 죽.

겨울에요?
응 어려서 죽 많이 쒀 먹었어.

무슨 죽?
쌀 절약해느라구 인제 죽을 쒀먹는 거지.

어떤 죽을 많이 쒀먹었어요?
뭐 흰죽을 쑤던지. 거기 저 아욱 같은 거 뜯어다 갖다 섞어서 그거 죽을 쑤던지...

겨울에는요?
글쎄 겨울 그거 가을 끝나면, 가끔 죽두 많이 쒀먹었어.

호박죽 같은 것도 많이 쒀 드셨겠네요?
호박줄두 쒀먹었지.

흰죽은 그래도 좀 있는 집이 쒀먹지 않나요?
흰죽은 있는 집두 그렇구, 없는 집두 흰죽들를 많이 쒀 먹었어.

반찬도 그냥 주로 김치만 드셨나요?
반찬두 뭐 형편없지 뭐, 옛날에.

겨울에는 그냥 김치 주로 먹은 거죠?
겨울에 인제 배추김치... 옛날에 배추 심어서 다 속배기 다 했구 그랬으니깨.

이렇게 속 꽉 차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속백이라는 게 속 꽉 차게...?
응. 양념해서 그 속 넣어 가지구 해서. 이것만 먹는 거여.

그 짠지 같은 건 안 드셨어요?
왜, 짠지 같은 것두 해 먹지.

짠지는 주로 무짠지인가요?
무짠지.

그다음에 인제 봄 되면 나물 같은 것도 많았겠네요?
그렇지 나물도...

봄나물은 뭐 뭐가 있었어요?
봄나물.. 내생이 같은 거, 씀바귀 같은 거.

그다음에 인제 쑥도...
쑥, 그건 그렇게 많이 안 끓여. 그 쑥국 끓여 먹었어요.

인제 씀바귀나 냉이는 반찬 주로 해서 드시고요?
씀바귀도 인저 나물 해먹구.

산나물 종류는 많지 않았겠네요?
산의 나물은 여기 별로 흔해지 않었어요.

산나물은 뭐, 취나물 같은 건 있었나요?
산에 나물을 해러 댕기면, 여기서부텀 저 수월암리까지 그냥 한 10리 길은 돌아댕겨야 한번 먹을 거 뜯어먹구 그래... 나물이 그렇게 귀했어.

아무래도 산이 별로 없으니까 산나물은 좀 귀했겠네요.
그것두 있는 데가 있지, 아무데구 다 있질 않었다구.

그것도, 동네 분들은 있는 데 잘 아시잖아요?
댕겨본 사람들은 좀 알지.

명절 행사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명절에 민속놀이 같은 거?
명절 때 행사래는 것이 농악 치구 돌아다, 농악대 가서 치면 술 대접해구 그러는 거 했지.

집에 가서 이렇게 고사지내주고 이런 거요?
응... 그 집에 가서 인저 마당에서 치다가 장독에 가서 인제 죄 삥 둘러서, 장독에 가서 고사지내구, 장독에 가서 삥 둘러서 치구 나오구. 그러면 그 집에서 술 대접 해구 그랬어.

먼저 들어가면 장독부터 했어요.
응. 장독부터 많이 쳤어.

그리고 인제 뒤란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요.
응.

고사상도 하잖아요. 쌀 한 말 넣고, 이렇게 상에다가 쌀 한 말 올려놓고 하는 거?
아이 그건 거...

그런 건 없었어요?
안 받았어.(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임.)

쌀은 없고?
응. 술만.

그냥 술만 술하고 안주만 차려줬어요.
응.

그때 술은 주로 막걸리죠?
그렇지.

안주는 뭐, 주로 뭘 차려주나요?
아 안주 별거, 별거 없지 뭐.

그러면 인제 이렇게 대문에 들어가서 장독 하고, 뒤로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집에서 인저 술대접을 해요.

인제 뒤란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요?
응.

부엌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부엌두까지 했는데, 대개 안 들어갔어.

어르신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농사 지으신 거예요?
응.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렸지... 내 5학년 2학기 때 해방됐나 봐. 5학년 1학기까정은 일본글 배웠지.

그때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했어요?
그렇지.일본말... 근데 어리니깨 인제 서툴렀지 그때.

일본어는 몇 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1학년 들어가면서 바로 배운 거죠?
그럼. 1학년 때부터 5학년 1학기까지 일본글 배우는 거...

일본말을 국어라고 그랬나요?
그거 잘 기억하질 못허겄어.

출석 같은 경우는 일본말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조금 했으니까, 일본 말도 서툴렀어.

학교에서 일본말 쓰라고 강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쓰라고 강제해지.

그러면 조선말 쓰게 되면, 우리 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로 어렸을 때는 저기고, 해방되기 전까지... 주로 우리말 많이 써먹었지. 쪼끄마서 일본말 핼 줄 알어!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써먹었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한국말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지.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한국말 하면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수업시간에는 떠들으면 혼나니까, 수업시간에는 뭐 한국 말두 못하구, 일본말구 못해구 그냥 조용핸 거지. 나와서는 인저 애들이 인저 한국말로다가 저기하구.

학생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처럼... 대부분 아이들은 그 일본말 잘 못 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인제 조용히 있고, 한국말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한국말 못하게 그렇게 막고 그래는 거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수업시간에는 일본어로 수업했어요?
그렇지 5학년 때, 인제 그때까지 일본 말로 다 해지.

몇 학년 때부터 일본말로 수업을 해요?
5학년 1학기까지 일본 말을 썼어.

근데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본말을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배운대로 배운 거지.

쉬운 일본말로 그냥...?
응.

수업 시간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응. 5학년 1학기 때까지... 우리 동창 지금 다 죽구 그래서는 나하고 두 명 아니면 세 명 살았나 봐.

이 동네에서요?
지금 살고 있는 애들... 세 명 아니면 네 명 있나...

6.25 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한 열일곱 살 됐었나.

열일곱 되면 막 의용군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녀... 나한테 의용군 지원하라고 그냥 저 방앗간에서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모집해는 사람이 우리 삼촌하고 좀 아는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다음에 지원핸다고 그렇게 해니깨 옆으로 빼놓더라구.

그때 형님들은요?
그때 지원해는 사람두 있구.

아니요. 어르신 형님, 위에...?
아 우리 형님은 그전에 저 뭐야 일본 들어갔어. 우리 동네 저 송씨 분하구, 우리 우리 형님하구 일본에 끌려갔었어.

그러면 해방되고 안 돌아오셨어요?
해방되구 나오셨지.

그럼 연세가 그때는 많으셨나 봐요?
그렇지. 의용군도 넘을 나이였지. 형님은.

이 동네에서는 의용군에 간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
의용군에 가서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인제 이북 사람 한 번 상봉했을 때 그때 한번 만났어.

아 그 가족들이요?
응.

그러면 두 분 다 의용군 가갖고 북한으로 간 거네요?
그때 왜 의용군 상봉할 때 있었잖아. 그때 가서, 나도 거기 갔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었어.

그럼 어르신 친구쯤 되세요? 그분이?
그렇지. 친구들. 우리 동창두 하나 있구. 후배두 하나 있었구.

그 두 명이요?
응.

여기는 동네 인민군들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인민군들 많이 왔었지.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나 됐었어요?
인민군들이 그때 뭐 뛰어들어 올 적에는 상당히 여러 명 왔었어.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내려가고, 들어왔다 내려가고 이랬나요? 아니면 동네에 계속 있었나요?
한 번인가 운제 그냥 아주 떼로 몰려왔었어. 한 번 운제.

전쟁 시작됐을 때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오래 머물렀어요? 아니면 잠깐 머물다 갔어요?
잠깐 머물렀어.

하루 정도요?
응.

그럼 인민군 지원하라고 다닌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인민군 지원하라구 핸 사람들은, 그때 따지면은 빨갱이들.

지역 빨갱이들이요?
지역 빨갱이. 그런 사람들이.

그럼 저 도도리 분들이 많았겠네요?
응. 도도리.

그 처음에 전쟁 났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알았었어요?

전쟁 났다구 소문으로 들었나 우떻게 됐나. 그때는 쪼그마서, 그래가지구 내 친구하구 친구 아버지하구, 나는 우리 삼촌하구 나하구, 이렇게 저 아래, 거가 여디여 거가. 뭐 무슨 다린가? 거기까장 갔다가, 피난 거까지 갔다가, 갔다 왔어.

그러면 저기 평택까지 간 거예요? 안성천 있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아녀. 저 아래 전라도. 전라도 어디여 거기가 무심천[6]인가 거까장 갔다왔어.

전라도까지 가셨어요?

응.

전라도까지 가시려면 여기서 며칠 걸렸겠는데요?

그럼.

그럼 마을 분들이 많이 갔나요? 그때.

아니 그때 그냥 그리... 내 친구하구 나하구 친구 아버지하구 우리 삼촌하구 넷이만 떠났어. 딴 사람들은 딴 데로, 또 딴 데구 가구.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딴 사람은 인저 딴 데로 가, 또 헤어지구 그래지.

부모님은요?... 어르신 부모님?

그때... 어디 피신했어요. 여기.

아 이 근처 어디로 피신하고요?

응.

어르신은 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나는 어떻게 가다가... 그렇게 멀리 가게 됐었다구.

가갖고 며칠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냥 내려가시다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인제 가다가 잠자면 빈집이 많이, 나중에 거기서도 피난 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깨 거기서도 자구.

먹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먹는 거라구는 시원치 않았지 뭐.

여기서 뭐 먹을 드실 거를 가져가신 거예요?

6) ‘무심천’을 언급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전라도가 아니라 충북 청주로 보임.

응. 쌀두 쪼끔 싸 짊어지구 …

반찬 같은 경우는...?
반찬 같은 거 뭐 시원치 않았지.

뭐 반찬은 현지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응.

여기 동네에서는 네 분이 가셨지만 다닐 때는 여러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피난 간 사람들?
거의 제 각자 뭐 피난들은 조금씩 다 갔다 왔지. 집에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거여.

이 마을 분들도 거의 다 가셨겠네요?
응.

그러면 인제 갔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그때 한 20일 넘었을 거여.

그럼 몇 월에 가셨어요? 6월에 가셨어요?
몰라. 그때 몇 월달인지...

그냥 한 20일 걸린 것만 기억나시고요.
응.

가을 일 하기 전에... 인제 벼 베기 전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두 잘 몰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혹시 새마을지도자 안 하셨어요?
내 지도자 생활도 해봤지. 새마을운동에.

그때 새마을운동 초기에 했나요?
이장을 내가 두 번, 두 번, 8년을 했다니까... 네 번을 했어... 내가 이 똑똑한 사람, 홍성에서 이사 온 사람이 왔길래 내가 이장을 그때 당시 시키구 내가 그만뒀더니, 그 담에 가서 집주인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논을 팔아 가는 거여. 근데 이 사람이 장례쌀 한 서른 가마 있었다구... 근데 땅을 팔아가니깨 갚을 수가 없잖어. 그러니깨 죽는 날 저녁에 날 불렀어. 그래 집에서 나가서 한...

언제 부르셨다고요?

밤에. 날 불러서, 술집에서 날 불러서. 그래서 ‘아이 가면 또 술 먹자고 그러겠지.’ 그래 반쯤 가다가 도로 집으로 왔지. 내가 갔으면 안 죽는 건데, 안 가는 바람에. 아침에 내다보니깨 아무개 죽었는데 나한테 유서를 써놓구 죽었다구 그러잖아. 그래 나하구 뭐 저하구, 유서, 뭐 나쁘게 지낸 것두 없구 인저. “무슨 유서를 써놨느냐?” 그랬더니, 이장 당장 볼 사람 없으니깨 내가 이장을 봐야 된다구 그래놓구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죽었지 뭐야.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아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요?

내가 갔으면 안 죽었지.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되지, 젠장 뭐. 그것 때문에 죽느냐고.

아 그분은 왜 땅을 파셨대요?

땅 맽긴 사람? 여기서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갔으니깐 인제 하나하나...

그때 장례쌀은 이자가 얼마나 됐어요?

한 가마 먹으면... 닷 말.

맞장례는 없었어요?

맞장례는 없어.

그때는 머슴 산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아이 있었지.

어르신 댁도 머슴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머슴을 안 두구 살았어.

식구가 많으니까 그냥 가족끼리 일 하신 거예요?

삼촌, 삼촌들도 집에서 많이 계시구. 영등포 살다가 피난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사시구.

그 당시에는 그 머슴 살면 새경이 일 년에 얼마나 됐어요?

새경?... 아.... 닷 말을 줬나, 얼마를 줬나?

아니 1년에요?

잘 기억이 없어... 1년에 쌀 몇 가마 줬어.

어르신도 고생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큰 고생이라고는 안 해봤어.

원래 사신 곳은 어디였어요?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요.
(할머니) 응.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 할머니 오실 때?
(할머니) 아니지. 없었지. 그땐 와이프가 살아있었으니깨.

그러면 그때가 몇 년...?
(할머니) 거기서 그니깨, 그 위에서 또 한 번 살다가, 이 밑에 와서 살다가 일로 온 거 세 번째.
이 집 지은 제가 22년 됐어요.
(할머니) 세 번째 지은 거지. 두 번 헐리구.

그 전부 다 길 나면서?
(할머니) 그렇지.
세 번째 헐리는 거야. 이번에 인저.

길이 어디로 나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 부대으로.
여기서 지금... 뭐냐. 여기서 한 500m, 한 500m 전까지 포장 싹 해서, 울타리 까냥 싹 철망 쳐서 내려가게.
(할머니) 인제 부대 앞으로.

저 뒤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거까장 내려왔어.

그 위에까지 도로가 내려왔죠?
응. 고 옆에 산까장 왔어... 거기서 인저 내려와서, 수리조합 밑창에 논 아녀? 거가 이제 톨게트가 돼가지구 하복으로다가 4차선이 빠지구, 이리로다 빠지구... 지금 이게 6차선이여, 6차선.

저수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저수지... 나 쬐끄마서.

어르신 한 10살, 요쯤 되나요?
10살 전에. 그럼

그 보 막는 것보다 먼저 만들어졌네요?
보보덤 이게 먼저 됐나봐.

아 저수지가요?
응.

그 마을 분들이 만든 거예요?
예. 마을 사람들이 만들었지.

그 물 가지면 그 밑에 골짜기에는 다 농사지을 수 있었어요?
그 물 가지구 대개 썼어. 모 못심구 그러지 않았어. 지금은 저 저수지 물이 내려와서 저 저수지 많이 메워내려 왔어. 물이, 지금 있는 거 저 위까지 물이 고여가지구 그 물이 항상 남았는데, 이걸 내가 보니깨 그 위 다 논 맹글었더라구.

저수지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는 거죠?
그 위 논을 많이 맹글어서 방죽이 쪼끄마졌어.

어르신 젊었을 때, 논 한마지기에 얼마 정도나 했어요?
값으로?

예. 쌀로 그때는 계산하잖아요?
그전엔 쌀로다가 몇 가마, 몇 가마 그래요.

여기 인제 헐리면 어디로 가세요?
(할머니) 아직 정하지 않었지. 이거 인저 돈 나와야 정하지. 가는거지.

아직 보상은 안 되고요?
(할머니) 예. 아직 아무 말도 없어요. 내년에도 헐릴까 말까여. 얼른 헐리면 좋은데.

헐리면 뭐가 좋아요?
(할머니) 아이, 얼른 헐려야 가지. 얼른 인제 자리를 잡고 가야지.

여기 (작업은) 이렇게 아드님이 하시는 건가 봐요?
(할머니) 응. 거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뭐 거기 다 헐린다는데, 하고 있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예요?
거기 창고. 집이 세 번을 헐리는 수가 있어 그래! 그때는 거기서 이 다음에 집 헐리면은 따블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괜한 소린가 봐.
(할머니) 인저 그게 옛날이지.
따블만 받았으면 괜찮은데

저기 창고는 왜 이렇게 크게 지었대요?

(할머니) 창고, 원래가 있었어.

서탄면에서 우리 집 같은 거 없지 뭐... 막내가 거기서 집 짓는데 3개월 배운대더니, 일주일 갔다 오더니 "아버지는 나 더 배울 거 없어요." 그러더니 걔가 설계 다 해가지구 걔가 다 지었어.

아 아까 그 막내 분이요?

애들 사형제하구 나하구, 5부자가 진 거여.

집을 크게 잘 지었어요.

(할머니) 잘 지었지. 옛날 치곤 잘 진 거지 아주. 옛날에 저 놓구, 구경들 모다 왔었다잖아.

일주일 배우고 집을 지었다고요?

(할머니) 응. 아들이. 아들이 눈썰미가 있어.

아들이 일주일 갔다 오더니, 내 더 배울 게 없다구 그러구.

아드님이 뭐 집 짓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나 봐요?

(할머니) 아니지. 아닌데 인제 처음 진 거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할머니) 그냥 저거 노가다 했지 뭐. 그러다 지금 회사 들어가서...

나도 저 사업소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못주머니만 하나 차고 나가. 그래서 못주머니를 맹글어가지구 못 박는 데 가면... 그 못 때려박는 거, 저 사다리 같은 데 올라가서 때려박아두 못 한 개 구부려서 내비는 거 없어. 망치질을 그렇게 잘 했다구. 그래 막내가 날 닮은 건지, 걔가 어떻게 그냥 목수로 풀려서, 그때부텀 그냥 목수 생활해는 거여.

아 그 아드님이요? 이 집 짓고 나서?

(할머니) 그렇지... 재주가 있어.

차상석(남, 1957년생) 금암2리 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9월 3일	
장 소	차상석 자택 농자재 창고 앞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안말에서 태어나셨지요?

예. 그렇죠.

혹시 안말이 왜 안말인지...?

안말이래는 데가 이게 그전에 그 왜정시대 그 전에 바위가 많았어요. 우리 고 뒤에 보면 서낭당이래는 데가 있걸랑요. 원래. 서낭이라는 데가. 옛날엔 다 있었잖아요.

저 임광래 어르신 집안 묘 있는데 거기 말고요?

아 고거는 당이구. 고 뒤에가 바위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 서낭이래는 데가.

체육공원 넘어가는 데요?

그렇죠. 고 넘어서 꼭대기 산에. 그니까 거기가 서낭이었었는데, 왜정 시대 때 그거를, 그 바위를 다 캐다가 서탄 입구 철도 교각을 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위가 많이 그냥 없어졌지. 그니께 바위 암자 써가지구 금암리 암말 이렇게 된 거라구. 그리고 저...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금암리는 저 북바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 우리, 금암리 우리 동네에서 서낭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여. 그 바위를 다 캐 가가지구.

그게 왜정 시대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이 저기 철도 놓을 적에.

철도 놓을 적에요?

예.

그러면 1900년대 초반이네요?

아 그렇죠.

그 서낭이, 그러니까 지금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길 오른쪽 수월암리로 넘어가는, 옛날 오산 다니

는 길...?

예. 고 길, 그 길에 바로 우측으로다가 보면은 계곡 모양으로 이렇게 패여져 있다고요. 나무 땜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고기가 우리 동네의 서낭이었었다고요.

어르신은 그 서낭 보셨어요?

저는 못 봤죠. 나이가 적으니까. 어른들한테 인전 말을 들은 거고. 그리구 인저 안말이라는 게 요기가 우리가 금암2리가 먼 데서 보면은 이 산 형태가 금암1리, 금암2리, 3리, 마두리, 요것이 말 형태라구 그래더라구요. 요 생김새가. 그래서 우리 금암2리가 안말이라는 데가 말 젖줄이고, 고다음에 인제 저쪽에 금암1리가 꼬리고. 고 다음에 마두리가 ,마두1리가 말머리라고요. 그래 거기가 이름이 또 말머리에요. 옛날에 애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안말이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샘을 파도 예를 들어서 물이 아무 데나 잘 나와요. 물이. 근데, 요 금암1리는 꼬리 부분이라 물이 없어요. 그전엔 옛날서부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셨다구.

그런데 여기 그 안말에 보면 우물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이니까 그렇지. 다 인저 뭐 내가 아는 게 한우물 있었구, 쪽두리 우물 있었구, 또 인저 5갠가 알어요. 내.

얼마 전에 이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쪽두리 우물은 모르고, 메꾸리 우물이라고...?

예. 메꾸리 우물이라구두 그러구 인저 쪽두리 우물이라구두 그래는데.

아 족쪽두리 우물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인제. 죄 메꿔가지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우물하고, 메꾸리 우물하고 그다음에 이게 족두리 우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거는, 나머지 저기 3개는 모르겠네유.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도, 그 가운데 한우물이 있었걸랑요. 고게. 그것두 인저 그냥 동네에서 그냥 가운데 우물이라고만 얘기 이렇게 붙이고 그랬지...

한우물이 여러 집이 먹었다면서요. 한 50집 정도 먹었다고?

아 그렇죠.

이 친구(홍태준) 집 밑에.

고기 논 가운데, 고기, 고기에 한우물이 있었던 거여. 고기 인제 다 메꿔버렸지.

(홍태준) 예전에 지금 임광래 선생님 바로 앞집, 그쪽에 사셨나요?

나? 아이 옆에지.

골안말도 우물이 2갠가 3개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는 철관 같은 거 이런 걸 박어두 물이 잘 안 나와요. 그쪽에는. 근데 우리 동네는 아무 데나 박어두 물이 잘 나오걸랑요. 그래 옛날 노인네들이 우리 동네는 이 말, 그 형상이 말 젖줄이라 샘이 잘 나온다구 그랬걸랑.

그러면 나중에 그 우물 먹다가 펌프 우물 집집마다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그 펌프 우물은 어르신 어렸을 때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펌프물 했던 거죠. 그리구선 인저 뭐 자가 수도 인저 저기 나오구 그러니까 인저 다 빼버리구 편해게 인저 자가 수도 놓구.

새마을운동 뒤에 간이 상수도는 안 했어요?

했죠.

어디다 관정을 뚫었어요

우린 저, 그게 뭐여, 그 당 있는 데 있잖아요. 옆에. 그 저 체육공원 올라가는 데, 고 옆에다 저거 해가지구, 거기가 제일 높으니까 높은 자리에다가 파서 높은 데서 해서 밑창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고기다가 한 거죠.

관정도 거기다 뚫고?

그렇죠.

물탱크도 거기다 설치하고요?

예. 예.

체육공원 이렇게 올라가면...?

막 올라가는, 저 밑창에서 올라오자면은 커브 트는 데 있죠? 고기요.

여기가 인제 체육공원 가고 여기가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저 수월암 쪽으로 넘어가는 길. 여기 체육공원이 있고요.

여기 체육공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체육공원에 가는데 여기 삼거리, 요기다가 한 거예요. 요기다가.

여기다가 물탱크하고 관정하고?

(차상석) 예.

(홍태준) 지금 없는데?

(차상석) 없애버렸지. 물탱크구 다.

(홍태준) 저희 지하수에서 바꾸면서 없앴나 보네.
(차상석) 아 인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광역 상수도는 언제 들어왔어요?
(차상석) 광역상수도 여기가 저기핸 지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홍태준) 그래가지고 물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원래는 12월에 한 번 리세 낼 때 한 번 냈거든요.
(차상석) 그때 뭐 돈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냈었는데. 전기세만 저기해는 거니까.

간이 상수도는 한 2만 원 정도?
(차상석) 그렇죠. 가구당. 고것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 말마따나 한 6~7만 원씩 나와요. 왜 그런고 하니, 물을 쓰는 만큼 하수도 값을 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홍태준)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 내고, 여름에 인제 애 수영장 좀 해주면 한 만 원, 2만 원 더 나오고요.

가스는 아직 안 들어오죠?
가스는 안 들어와.

여기 연탄은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연탄 들어온 지가...

그 연탄 들어온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연탄두 그때 당시에 좀 돈 좀 있구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집이 연탄 떼구 뭐 하구 그랬던 건데, 보편적으로다가 이쪽으로다 연탄이 활성화가 됐을 때에, 내가 그때 집 지은 게 70, 76년도 77년도 고때쯤이 활성화가, 연탄을 많이 땠어요.

그러니까 76~77년 전에는 인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좀 때고?
응.

76~77년 지나면서 인제...?
고때 인저 보편적으로다 연탄을 많이 땠죠.. 고때, 고때 정도에.

그때 이렇게 연탄이 확 퍼지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소득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든가?
아~, 나무는 그래두 이쪽으로다가는 뭐 구헐 수는 있어도, 이게 연탄을 때거나 뭐 하구 그래면은 사람이 편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살기가 조금 그때만 해도 고 이전에는 밥을 굶어가면서 살았는데, 통일벼, 시골에서도 인저 통일벼가 나오면서 배불리 밥두 먹구 뭐 하구 그래니까, 편해지니까, 연탄두 싸구, 제일 쌌었구. 그래서 인제 고때서부턴 연탄이로다가 많이 돌어갔지. 이

쪽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6년도에 벼 수확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뉴스가 기억나는데, 이때부터 쌀 막걸리 만드는 거, 76년도?

그러게요. 고때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73년돈가서부터 인제 통일벼를 권장을 해고, 내가 알기로는 고때 당시에 저기 추청이나 다른 벼 같은 거, 뭐 뭐 농림입고 같은 거, 그런 거를 심으면 수확량이 적으니까...

추청은 요새 나오는 종자 아닌가요?

고거는 저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원래 그 벼종자가 백금, 다마금, 그다음에 팔달, 농림입고, 고 벼를 주로 많이 심었었어요.

요 네 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못 심게 하고 인제 통일벼로?

인저 그래가지고 인저 고거 못심게 허고 인저 통일벼로다가. 수확량이 2배, 3배 나오니까. 박정희가 그냥, 그냥 강제로다가 해서 면서기들 동원시켜가지구 못자리 핸 것두 막 밟구 다시 통일벼 심구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가.

통일벼 안 심으면 나와서...?

예.

그 속상했겠네요?

아 속상핸 게 아니죠. 그때는 보리고개가 있었으니까. 굶었으니까.

그 보리고개가 60년대 70년대 초반에도 있었나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죠.

어르신은 이 당시에 농사 지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구 뭐 다른 데 뭐 직장생활이나 뭐 이런 거 다녀보지두 않고 여적까지 그냥...

그러면 여기 서탄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예.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가정상 안 좋아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많이 안 갔죠. 그다음에 인저 1학년 다니다가

중퇴했고.

진위중학교 1학년이요?
예.

왜 중퇴하셨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 걸음방(건너방)에 계셨지. 중풍이로다. 아버지 사랑방에 누워 계셨지. 우리 형이라는 사람은 또 안방에 누워 있었지. 누가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형님은 왜?
아 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인데 그때 신경성 노이로제라구 그랬었걸랑요. 그래가지구 우리두 괜찮게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팔아먹었지. 우리 형 땜에. 아파가지구. 자네네(홍태준 처갓집) 그 앞에 땅이 그게 다 우리 거였었어. 하하하... 그래가지구 도저히 뭐 학교 다닐 그 저기고, 엄마 아버지를 누가 보살펴볼...

아버님은 또 어떤...?
우리 아버님은 농사 지으셨죠.

농사 지으셨는데, 어머니가 중풍이셨을 때 아버님은...?
아버지도 중풍... 풍이로다가.

그리고 형제분은 형 계시고...?
예. 저하구.

둘째. 딱 두 분이세요?
(차상석) 형하구 나하구 둘이유. 그 인저 우리 형하구 나하구 인저 22년 차이지. 차이가. 형님하고.
(홍태준) 이 정도요?
(차상석) 내가 막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50에 낳았어. 이 사람아. 하하하. 열일곱에 시집을 와가지구, 어머니가 열일곱에 시집을 와가지구 그 해서부턴 낳기 시작해가지구 나를 50에 막내로 다가 난 거래니까.

그럼 형하고 어르신 사이에도 또 계실 것 같은데요?
누이들이죠. 누나들.

누나들은 몇 분...?
누나들이 다섯 분이 있었는데, 인저 그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6.25 때 좀 죽고...

6.25 때 왜?

아, 우리 동네가 대략 보면 여기 좌익들이 없어요. 한 명두. 근데 저, 나야 인저 6.25 때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몰르지만은, 사람들 얘기가 인저 그 여자들은 그 데리고 나가, 저기 뭐여 그 괴뢰군 애들이 와가지구 작정을 해서 끌구 나가구 뭐 하구 그래면은 거기서 안 갈, 총 들이대는데, 죽인대는데 거 저기해요? 그래 가서 인저 그 노래두 불르구 뭐 하구 인저 그랬었나 봐. 그래가지구 거기서 인제 저기 해서, 죽구 많이 그랬다구 그러더라구. 아버지 얘기가.

끌려가가지고요?

예.

그럼 누나 몇 분이나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가? 거기가?

그 누나 얼굴은 뵙지도 못했겠네요?

저야 못 봤죠.

아이고 부모님 많이 마음 아프셨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농사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농사는 얼마나 됐어요?

그때 농사가, 내가 한 2천 평 정도 됐어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게?

예.

7남매에 부모님 계시고, 그러면 아홉 분이잖아요. 아홉 분에 2천 평이면, 2천 평을 농사지으신 거예요?

예.

2천 평에 밭 포함해서요?

아니죠. 밭을 안 포함했지. 논만 한 2천 평 있었구, 밭은 한 1,500평 정도...

이때 이 정도면 어땠어요? 1년 동안 사시기에?

다른 건 못해구 그냥 밥만 먹구 사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인저 형이 아프구 병원비 내구 뭐 하구 그래니까 인저 또 땅을 파는 거지.

아홉 식구가 이 정도 농사를 지으시면 보릿고개 같은 거 좀 이렇게 안 겪고 사셨어요?
그렇죠. 그전엔 그랬었었어요. 그 정도.

형님은 그래도 나중에 치료를 하셨어요?
했다가 뭐 저기 해가지구 돌아가셨지요.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구. 중풍이로다가.

형님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구, 형이, 우리 형이 원래 술두 그렇게 좋아했었걸랑요. 아버지두 술을 좋아했었구. 그래가지고 나는 형하고 아버지에 질려서 술이래는 건, 아주 술만 보면은 그냥 머리를 흔드는 거구... 술 먹는 사람하구는 말두 안 해요. 그 질려서.

여기 술집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많었지요.

어떤 분은 또 뭐 저기, 지금 우체국, 현재 우체국 밑에 하나 있었다는 분도 있고.
아니요. 왜 하나만이요.

또 어떤 분은 한 댓 군데 있었다고 한 분도 있고.
예. 한 5군데 됐죠.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술집이?
지금 우체국 밑창에, 고 밑창에 그 고기 하나 있었구, 그다음에 요기 초등학교 요기, 이쪽으로다가 지금 이 도로 난 데 있잖아요. 고기가 두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 바루 옆에.

아 초등학교 앞 도로...
아니, 요기 요기 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로가 나서 그걸로 다, 다 저기핸 거지, 없어진 거지. 거기가 구식이네하구, 동원네하구 이종배씨네하구 다 술집 여자들 데려다 놓구 술집 해구 그랬던 거구. 저쪽에 저기 한갑석네 담뱃집이 술집이었었구.

지금 담뱃집이요?
(홍태준) 지금 없어진 거죠.
(차상석) 그 없어졌어. 한갑석네 집이 지금 저쪽 끄트머리에서 담뱃집 옆에. 고 집이가 술집이었었구.
(홍태준) 만물 옆에요?
(차상석) 응. 만물 옆에.

만물상 옆에요?
응.

만물마트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동쪽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4개 말씀하셨는데... 우체국 밑에 하나, 초등학교 도로 건너편에 두 집, 그다음에 만물마트 동쪽에 한 집...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갠데. 김필리씨네 거기서두, 그게 술집이었었는데 그건 쪼끔 하다가 말은 거여. 고건 뭐 칠 필요두 없구.

그러면 한 4개, 4~5개 있었네요?
예.

그 여자 놓고 (하는) 술집이면 여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내가 저기 볼 때 보통 한 2명 정도.

그 여자 놓은(있는) 집이 두 집 있었나요?
아 철물점두 술집이었었다 참. 지금 철물점. 고기 우체국 자리였었다가 바루 끝나구 그 다방하구, 술집하구 두 집이 해가지구, 고기두 여자들 한 두어 명씩 데려다 놓구.

철물점이 원래 우체국이었다가 우체국 옮겨가고 나서?
예. 그래 고기두 술집이었었구.

그러면 여자 있는 집은 한 세 집 정도...?
예. 세 집 정도 됐지.

여자 있고 그러면 그 단골 아저씨도 좀 있었겠어요?
어 그럼요. 술들 거기 가서 저기해가지구 많이 먹구. 마냥 엄마가 누구 말마따나 “아버지 진지 잡수게 해라.” 그러면, 찾아다니면 거기 가서 있어.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러구서. 하하하.

마을, 안 동네에서도 했어요.
저기께 뭐야, 지금 회관 있는 데 넘어서 바로, 고기도 술집이었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금방 해다가 없어지구 그랬던 거니까.

회관 고개 바로 넘어서요?
예. 고기도 옛날에 술집 했었구.

그건 잠깐 있었나 보죠?
예.

어르신은 그러면 인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 때 그만두시고 바로 농사...?

아니요. 제가 인제 막내로 태어나가지구, 옛날에는 홍역을 해야 출생 신고를 했어요. 홍역을 해야. 그래서 내가 3살 때 홍역을 해가지구 3살이 줄어버렸지. 나이가. 그래서 17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그러면 3살을 늦게 간 거네요?

그렇죠.

홍역할 때까지는 인제 출생 신고를...?

출생 신고를 안 했으니까. 홍역 해다 죽구 뭐 하구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10살에 들어가신 거네요?

예.

그러면 선배들이 전부 다 친구일 텐데.

아 그렇죠. 한 3년 선배 애들은, 학교 선배들은 다 친구였어. 친구지. 여기 지금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족보가 이렇게 꼬이잖아요? 동기는 후배고, 친구는 선배고 그러면?

아 그러게, 동네에서 내 동창 애들, 옛날에는 선후배를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가지구 말 안 들으면 집합 시키면, 당산에 가서 두드려 패구 그랬다구. 줄빠따를 치구 그랬다구. 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선배들이.

예. 위에서부터 선배들이 그냥 줄빠따를 쳤다구. 나두 내 동창을 후배라구 나이 후배니까 두드려 패구 그랬다구.

그러면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고, 동창들하고 놀고, 집에 오면...

형이라고 부르구. 걔네들이.

집에 오면 친구들이 인제. 그럼 학교 가서도 형이라고 안 그랬어요?

말을 안 해죠.

학교 가면?

응.

그래도 한 살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세 살이라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홍태준) 관호 삼촌이 58년생 아니세요?
(차상석) 관호가 58년이여. 걔가.
(홍태준) 근데 왜 친구해요?
(차상석) 아이 근데 내가 또 학교는 후배 아녀.

그러면 17살 때부터 농사지으신 거예요?
아니죠.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를 지은 거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쟁기질 같은 경우는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내가 14살부텀 했어요. 쟁기질을. 쇳일을.

그때 농사일 중에 인제 마지막 코스가 쟁기질 아닌가요?
아니죠. 써레 질이죠.

써레질이 쟁기질보다 힘들어요?
아니. 거기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 요령을 몰르는 사람은 못 해는 거요. 이 쇳일이래는, 이 쟁기질을 쇳일이라구 그랜다구. 쟁기질 해는 거, 그 소몰이 해는 거를... 근데 그 쇳일 해기가 보통 힘들은 게 아니걸랑. 그 자네(홍태준) 할아버지가도, 자네 장인이 쇳일을 못해. 그래 자네 그 뭐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보구 “야 상석아 논 좀 갈아달라.” 그래면 내가 가서 갈아주구, 너희 장인은 나하구 10년 차이지만은 커피만 타 갖고 왔어. 그런 거만. 심부름만 해구.

그런 것도 빨리 배우시는 분이 있고 아예 못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인저 왜 그런가 하니,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구. 우리 집에서 핼 사람이 없으니까, 나래두 어려두 우떻게 해더래두 해봐야, 해야 되걸랑. 하하하.

그러면 그걸 뭐 배우셨나요? 연습도 해보고?
그럼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쟁기질 하시고, 저기 써레질은 언제...?
다 그때, 그때 다 같이.

저기 어떤 분은 또 소하려면 ‘아이 소 할려면 한 20살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랬죠. 힘이 들으니까. 내가 14살 때 쟁기를 지구 나가질 못해가지구 딴 사람들이 쟁기질 못해는 사람이, 한 20살 먹은 사람들이 쟁기를 져다가 논에다가 갖다 놔줬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쟁기질 해고.

소일을 하려면 쟁기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인제 보통 한 20살 전후?

그렇지요. 한 17살 이상 되면 다 지고 다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제 한 17살 좀 지나면 인제 쟁기질 할 수 있다고 봐야 겠네요?

아 배우질 못해면 못 해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소만 따라다니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쟁기질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르칠 적에 보면은 쟁기를 흙이 넘어가는 밥을 쳐다본다구. 소 원래 앞다리를 봐야 되는 거걸랑요. 이거는 딱 잡고선 뜸을 맞춰놓으면 고대로 가서, 고대로 가는데, 소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인저 소를 잘 몰어야 되는데, 그걸 소를 안 보구 여 쟁기밥 넘어가는 거를 보니까 소가 어만 데로, 딴 데로 가구 뭐 하구 그러는 거여. 그게.

그때 인제 밭작물은 주로 뭘 심었어요?

그때 밭작물이야. 우리두 저기 때는 뭐 저기해서 보리 많이 심구. 배고플 때니까. 보리두 심구, 밀 심구 다 그랬었죠. 주로 인저 그거죠. 보리, 밀, 콩... 밭작물은 다 그거, 한 99%가 그거였었지. 그냥.

하기야 나머지는 양념 쓰고 그러는 거니까 인제 식량으로 쓸 게 딱 그거죠?

그거죠.

그때부터 농사 지으셨으면 농사짓는 전 과정을 다 아시겠네요? 이렇게 봄에 인제 논 갈기 시작할 때부터?

다 아는 건 알지요.

그럼 보통 인제 대보름 지나서, 아 참 여기 대보름 때 쥐불놀이 했죠?

어유 그전엔. 옛날엔 다 했죠. 쥐불놀이를.

여기 망울은 어디서 했어요?

여기 벌판에서, 이게 여기에 그전에 이게 그 뭐여, 그 농장이 안 될 때는 여기 집두, 우리두 없었구, 우리 동네는 여기서두 해구 그랬어요. 여기서.

요 앞에서요?

예. 예. 왜냐면 동네 안에는 산이니까.

그 망울을 했어요? 안 한 동네도 있더라고요.

아이 우리는 그때 그거, 대보름날 그 액땜 그 저기핸다구 해가지구 그거 해구 그랬었어요.

동네 사람 다 나오고요?
예. 동네 사람들두 구경 나오구.

보통 그 망울 하면 인제 나무 갖다 놓고, 짚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예. 나무 갖다 놓고, 이엉 엮어서 처음에 인저 그걸, 이엉이라구 그러죠. 짚 이렇게 엮은 거. 그거로다가 한 바쿠 돌리구, 안에 갖다가 다 쌓아놓구 해고서는 인저 불 질르는 거지.

그걸 하는, 인제 주체적으로 하는 층이 몇 살 층인가요?
그러게 고때의... 몇 살 층, 지금 우리 형들이 좀 해구 뭐 하구 그랬을 때, 나이 한 스물한 대여섯 살?

아 25~26세 정도 되는?
응.

그럼 인제 결혼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그럼 인제 그 정도 나이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예.

저기 쥐불놀이할 때 옆 동네하고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워요.

어디하고 싸웠어요?
우리는 금암 여기 1리, 얘네들이 밥이었었지. 마냥.

그러면 대보름날 하루만 싸우나요? 아니 14일날?
아니요... 그전에도 이거 이거 망울 돌려가면서 나오면은, 걔네들도 나오구 그러면은 인저 시비 걸러 슬슬 그거 돌리면서 쫓어가서 쌈 해구 그러는 거지.

평소에는 아는 사이일 거 아녜요?
아니 알아두. 우떻게 됐든 간에.

새말하고는 안 싸웠어요?
새말은 사람이 별루 없었어요. 그걸 잘 안 놀었어.

새말하고는 별로 안 싸우고 주로 금암1리하고요?

응.

또 회화리 쪽에 가면 이쪽 금암리 쪽하고 좀 싸웠다고 그러던데요?

인제 원래는 그전에는 미군 부대가 여기 안 앉히구 뭐 하구 그랬을 때는 회화리 쪽이 서탄면에는 중심 지역이있었었걸랑요. 거기가. 그래가지구 6.25 그 이전에는 이 파출소두 회화리 가서 있었던 거래요. 동네 어르신들 말씀하시기를.

회화리에서 이쪽으로 온 게 어느 책에 보면 해방 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해방 후에 온 거예요. 그게 해방 후에 온 거예요? 6.25 후에 온 거예요?

그거는 나두 확실해지는 몰러요. 내가 저기 들은 저기는 거기서 일로 오구, 면사무소두 이인저 일로 오구 뭐 하구 그래가지고 일루 왔대는 얘기만 들은 거지.

면사무소는 저 골안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그거는 누구 말마따나 1919년 이전에.

면사무소도 회화리 쪽으로 갔었어요?

거기서, 거기가 중심지였었걸랑요. 원래. 서탄면의 중심지였다가 인저 모든 게 인저 이쪽으로다가 인저, 하다못해 면사무소, 파출소 이런 게 인저 일로다가 인제 오구 그런 거지.

금암리로요?

응.

그럼 면사무소도 그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겠네요?

그거는 확실하게는 못 들었어요.

그냥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예.

인제 아까 대보름 지나서 인제 농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뭐부터 해요? 농사지을 때?

보름 지나고서부터는 인저 퇴비를 내기 시작해죠. 제일 첨에는. 왜 그런가 하니 그때 당시에는 지게로다가 다 져서 퇴비를 내야 되니까.

그 마차로도 좀 하고?

마차는 별로 없었어요. 마차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마차라고 해면은 그때 당시에 저기 한 서너, 동네도 서너 집 있어가지고 오산 장짐 끌러 다니는 게 마차를 썼지. 그 이전에는 소로다가 저기 해가지구 저 내는 게 길마라고 있어요. 길마. 길마로다가 인저 퇴비두 좀 내구. 소가 뭐, 길이 안 좋으니까. 길마는 등어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인저 해서 저기 해는 거구 그러는 거

니까. 그거루다가 길마루두 좀 내구. 대략 인저 정월 명절 지나구 나서는 퇴비를 인저 지게로다가 져서 갖다 많이 냈지.

마차 있는 집이 한 서너 집 됐어요?

그렇죠. 한 서너 집밖이 안 됐어요.

퇴비 내고 인제 그다음에 논갈이 하나요?

아니. 인저 물 가두기 시작해죠. 그다음에 인저 가래질 해 가면서 물 가두는 거지. 논에다가. 왜 그런가 하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수리조합 그 저기가, 수리 시설이 안 돼 있었으니까. 하늘배기니까 다.

가래질한다는 거는 논두렁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논두럭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보 쌓으러도 가야 될 텐데요?

아 여기 보 저기는, 저 사리 앞에, 그 저기 뭐여 북바위 그 위에 꼭대기요. 거기가 보가 세 군데 있었어요. 보가. 맨 꼭대기가 우리 사는 이 금암리보. 지금 현재 이 저기로다가 물 내려놓은 거.

안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렇죠. 금암리보. 그리구 그게 인저 금암리보구.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내려와서 또 보를 싼 게, 마두리보가 있었다구. 새보라고 그러지, 노인네들 인저. 마두리보. 고 다음에 세 군데 그 지금 미래환경 있는 데에서, 고기쯤에 해놓은 게 인저 회화리보예요. 그래 거기서 인저 회화리로 내려가는 물이라구. 하하하. 그래 보가 3개였었지.

이 보는 언제쯤 쌌어요?

고거는 지금 내가 기억해기로는, 왜 그런고 하니 보 쌓구 그럴 적에 나래로다가 쌓는 거거든. 소로다가 이 써레 모냥 만들어가지구 철판을 대서 나래라고 있걸랑요. 나래로다가 그 밀어가다가 인저...

써레에다가 철판 대가지고?

예. 그래가지구 인저 나래라구 있어요. 고거로다가 인저 갖다가 쌓구 인저 뭐 하구 인저 끌어다가 인저 그 모래로다가 인저 그렇게 쌓았던 건데...

그러면 그게 물에 많이 흘러내릴 텐데 겉에 가마니 같은 거 안 해요?

그게 인저 가마니로두 인저 처음에는 그거루 해구. 인저 안쪽에는 가마니로다가 해서 부어서 다 쌓아놓는 거죠. 올라가게. 그래 장마 한 번 지면 싹 다 내려가는 거지. 다. 그때 당시에.

가마니를 안쪽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쪽에다 흘러내리지 말라고 쌓는 거예요?
아니, 안쪽에다가두 놓구, 배깥쪽에다두 놓구, 또 가마니를 뜯어서 덮기두 해구.

그렇게 쌓아도 장마지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왜 그런가 하니 옛날에는 저놈의 냇갈이 농경지보다 높았어요. 농경지보다. 오히려. 그래가지구 비만 오면은 그냥 저기 해가지구 휩쓸려 내려가구, 논에 침수되구 뭐 하구 그랬던 거지. 다.

강바닥이, 오산천 바닥이 농경지보다 높았어요?
그 논보다두 높았어요 막. 그전에는.

그럼 오히려 물 대기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이 안 그렇죠. 농사 다 지어놓고 침수되구 그러니까.

발동기로 푸고 막...
발동기 푼 거는 얼마, 몇 년이나 돼요? 그전에는 고래두레박이로다가, 용두레로 푸고 고래두레박이로 푸고 그랜 거지. 용두레는 매달아가지구, 나무로다가 이렇게 짜서 혼자서두 이렇게 퍼서 내보내는 거고. 고래두레박은 철판을 네모나게 해서 둘이서 양쪽에서 이렇게 푸는 거고.

그거 해보셨겠네요?
(차상석) 아유 그럼요. 그거 많이 했지요.
(홍태준) 저도 해봤어요. 공주에 가서. 공주 가서 가니까 있더라고요. 체험 하게끔.

그 하루 종일 퍼봐야 한 마지기 퍼요 그거?
아니요. 물 많이 나가요.

그 고래 두레박...
고래두레박두요. 고래두레박두 2인치 이상 물, 모다 그만큼 이상 퍼요.

2인치 모터만큼 퍼요?
예.

그렇게 많이 퍼요?
아유 그럼요. 얼마나 빠른 건데요. 그게.

물만 많으면 그냥 푸겠네요.
아 그렇죠.

용두레는요?

오히려 용두레가 혼자 푸는 거라 힘들어요. 그거 혼자 해는 거라 쉬어가면서 해고 그래가지고. 그것두 있었구 그전에 요 끄트머리에 물레방아 있었구.

물레방아요?

예. 이렇게 양쪽 손 잡구, 막 걸으면서 그 물 퍼올리는 거요.

아 수차요?

예. 예. 고거 물레방아 있었구. 나 어렸을 때도.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지나갔던 거걸랑요. 이게 농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이 금암2리.

예. 안말저수지에서...

아니야. 내려오는 물이 우리 지금 여기 앉어 있는 데, 일루다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예요.

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응. 여기가 73년도에 농지 정리가 된 거걸랑.[7] 원래.

73년도요?

예.

그것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72년도인지 3년도인지. 근데 69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

69년도는 사리서부텀 해왔지. 저 위에서부텀.

아 69년도에 사리서부터 죽 해오고...?

거기서부터 해와가지구 여기가 73년도에 마지막 해고, 74년도에 대정촌. 대정촌이 74년도인가에 농지정리가 된 거여. 여기부터 해구 고기 간 거라구.

69년에 사리부터요?

응. 사리 그쪽서부텀 해오구. 그때에... 64년돈가 65년도에 황동식(황세연)씨가 이 수리조합 똘, 이거 이거 수로, 이 공사핸 거요. 그때 당시. 그게 수차로다가 흙, 레일 깔어가지구 밀어가면서 그거 성축 싼 거걸랑.

60 몇 년도예요?

---

7) 당시 수리조합에 다니면서 해정들 농지정리를 관리했던 회화리 이보철(남, 1947년생)에 의하면 1972년에 완료되었다.

64년돈가 65년돈가 그렇게 될 거여. 확실핸 건 몰르죠. 그걸. 우떻게 기억을 해요. 고때쯤이지.

그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구 그 흙이 어디서 온 고 하니, 지금 진위역 있잖아요. 진위역 앞에 고 산이 왔겄랑요. 고 옆에가. 거기가. 거기 있는 흙을 파가지구 레일 깔어서 수차 저, 수차로다가 밀어가지구 그 뚝...

거기서부터 레일 깔아가지고요? 진위역 있는 데서부터?

응. 거기서부텀

레일 깔아가지고 이 똘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구.

이거는 봇도랑으로 그러면 그때 만들은 건가요?

그때는 봇도랑이로다가 있었죠. 이쪽으로다가.

그러면 이게 안보가 일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아니요. 저거, 저쪽 건 저기고, 안보가 인저 우리 여기 집 끄트머리, 여기가 보가 여기 하나, 둘, 저쪽 끄트머리 셋. 그래가지구 보가 3개가 있어요.

보가 있다는 게 도랑 말씀이잖아요?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무슨 보였어요?

어떤 거요?

이쪽으로 가는 보.

요거는 수리조합 똘 처음에 쟤네들이 낼 적에 새로 낸 거예요. 이게.

그니까 이거는 64~65년도에 그때 냈다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인제...

그 이전에는 또랑 모냥 이렇게 맨들고, 새보라는 게 저쪽에 끄트머리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는 새보라고 그래가지구 넓었지. 우리두 제대로 그냥 저기 못 건너구 뭐 하구 그래가지구 다리를 놓고 건너가구 그랬지.

아 새보는요?

예. 그게 넓었었어요.

그러면 64~65년도에 이 수리조합들, 지금 저 물 내려오는 거 용수로 낸 게 그 수리조합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도랑을 낸 건가요?
아 그렇죠.

내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황세연씨.

이분 저기 사시는, 금암1리 사셨던 분 아니에요?
예. 맞어요... (지금) 새마을촌 앞에 가서 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91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여기도 내셨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그 옛날서부터, 지금도 보면 장골 아니여 몸이. 힘 좋고 그래가지구.

그분 말씀은 북바위가 지금 길까지 나와가지고, 그걸 많이 지금 깨낸 상태라고 그러시던데? 황세현 어르신이?
아 그렇죠. 고쪽 뒤에 보면 공장 있잖아요. 공장 지은 데.

칠성고분자요?
아니 저쪽으로다가 새로 공장...

사리 쪽으로요?
사리 쪽으로다가. 거기에서 다 돌 떴던 자리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가서.

북바위까지 다?
예. 예. 그게 돌 떴던 자리여. 그 길까지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가지고 저 뚝 쌓는 데...?
그거는 인제 여기서부터 이 성뚝 쌓는 데 얘기고.

그분이 그거 그때 이렇게 발파 기술자로 왔다고...?
예. 그거 해구, 그 사람이 저쪽에 장수문, 그 여기서, 여 논에서 냇갈로 나가는 문 있잖아요. 그 문두 그 사람이 맡어가지구, 그거 해구 그랬던 거예요.

이 수로도 그분이 맡고요?
예. 그 사람이 수로두 그때 저기해구.

수완이 좋으시네요?
아우 그 사람이 한학은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도, 하하하. 한학을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이.

가래질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얼음 깨구 했었어요. 얼음 깨구. 살얼음 깨구. 고 가래질은.

그러면 대보름 지나서 퇴비 내고 바로 가래질 하고...?

어 그래서 2월 말, 3월 초순경에서부텀 그냥 가래질 해기 시작핸 거요.

양력으로요?

예.

그다음에 인제 물을 가두고, 그다음에 인제 쟁기질 하는 건가요?

그렇죠.

쟁기질은 언제쯤 해요? 첫 쟁기질은?

첫 쟁기질은, 옛날에는 모를 늦게 심었으니까 5월 한 중순경 고때쯤 해죠. 물갈이를.

이걸 물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물 가둬서 가는 거는 물갈이라구 그러구, 인제 물 가두기 힘든 거는 인제 마른갈이로 다 갈죠... 물갈이는 두 거웃지, 두 거웃지로다가 이렇게 말어서 해놓는 거구. 또 인저 마른 갈이는 네 거웃지로다가 넓게 떠 얹는 거구.

네 거웃지라는 거는 쟁기에 한 번...?

네 번 가는 거요. 네 번. 두둑을 네 번을 맨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씨나락은 언제 뿌려요?

지금 얘기 허는 거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옛날에는 5월 한 10일경에 했을 거여.

그때 인제 씨나락 담그는 거예요?

인저 그때서부터 인저 담궈가지구 인저 못자리 해기 시작해구 막 그랬지... 물 못자리 해구 막 그랬으니까.

못자리에서 보통 며칠 정도나 키워요?

그때는 35일 모.

35일 정도 키우면 인제 모내기?

그렇죠.

그럼 모내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거기서 저기허면, 6월 초순까지 해구 그러는 거지요.

6월 한 15일 정도?

10일 경. 그때쯤 인저 모 한참 심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6.25 때, 6월 25일 날 모침 풀어놓구서 피난 가구 그랜 거 아니여. 옛날에는.

이때가 좀 가물죠?

아 그렇죠.

많이 가물 것 같은데...?

고 때가 많이 가물죠. 가물기는. 계속 누구 말마따나 삼촌 지간에도 그냥 물 대구 그럴 때는 그냥 막 쌈박질 해구. 이 새끼 저 새끼 서로 간에 막 그래구 그랬던 거 아녀. 옛날에는.

여기는 물 사정이 어땠어요?

여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지요. 그 냇갈 물 끌어오는냐고.

오산천 물 가지고 어느 정도 됐나요? 그 봇물 가지고?

인제 요기 사업소, 마두리까지밖에 안 됐었죠. 저 끄트머리까지는 물이 가기 힘들었지. 끝에 머리까지는.

저 끄트머리 쪽도 이쪽 금암리 분들이 가서 농사짓고 그랬었어요? 그쪽은 내천리 쪽 같은데요?

아니 내천리는 그쪽이구, 인저 고쪽으로다가는 나 어렸을 때두, 농지정리 안 됐을 때두 다 묵혀 있었지. 그냥.

아 황무리로요?

갈대, 응. 황무지로다가.

그러면 저 아래쪽은 농지 정리하면서 인제 농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전엔 거기 뭐 수수나 심구, 그냥 뭐 조 심어 먹구 막 그랬던 거예요. 그쪽에는.

(지도를 보며) 그쪽이 이쪽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회화리고요. 저 아래쪽인가요?

이쪽, 이쪽 밑창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밑창으로. 그쪽으로다 농지정리도 안 돼 있었구, 안 됐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 심어, 백모래 땅이었어요.

그쪽인가요? 그 264라는 데?

예. 예. 264 그쪽으루다가.

거기는 저 사업소 분들이 좀 개간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많이, 그 사람들이 많이 개간을 해서 조 같은 거 많이 심어 먹었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들이, 사업소래는 사람들이 다 이북 사람들이었걸랑요. 그니까 황해도에서 군산 갔다가 풀어놓은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을. 군산 풀어다가 놨는데 군산에서 어서 먹을 게 없잖아. 그니까 미군 부대가 일로 오니까, 여 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 미군 애들한테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라고 사업소에다가 루핑집으로다가, 옛날에 각구목으로다가 일자로다가 (집을) 쭉쭉 져가지구, 그래가지구 거기서 살게 해서 미군 애들이 옛날에 쓰리쿼타, 그 차로다가 그냥 빵빵 대가지구, 빵빵대구 오면은 우리 어렸을 때 가보면은 일렬로 집집마다 다 그냥 자루, 광목자루 하나씩 들고 와서 그거 배급 타가고 그랬어.

그때 배급은 밀가루 배급인가요?

아니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보덤 우유를 더 일찍 먹었어요.

우유 배급해주고 그랬었어요?

밀가루도 주구. 우유두 주구. 여하튼 자기네들 저기 해는 걸 다 줬는데, 전지분유를 먹을 줄 몰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니까 밥 해는 데에다가, 가마솥에 밥, 쌀밥 해는 데다가 분유를 동그랗게 쭉 올려서 이렇게 놓구선 밥을 해서 같이 먹는다구. 그러면 밥이 위에가 노랗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저어가지구 해서 먹으면 맛있어.

그 분유하고 밥하고 섞어가지고?

어 어. 우떻게 먹을 줄 몰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개간한 게, 264 쪽 그쪽 주로 개간한 거예요?

264 쪽은 별로, 개간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264 쪽에서 북쪽으로다가 그 쉰섬지기라구 있어요. 논이... 쉰섬지기라구 그쪽에 그 사람들이 개간을 많이 했지. 또 그쪽엔 멀구, 사업소에서. 요쪽으로 곧장 가면은 고기는 인저 가껍고.

그렇게 해서 인제 물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뭐 조나 수수 많이 심는 거예요?

그렇지. 조, 수수 이런 것들.

그러면 그쪽에는 농지정리 되고 난 다음에 인제 논농사 지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물 사정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쪽에는.

호미모 심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호미모를 안 심었지. 별로.

그때 퇴비는 어떻게 줬어요?
퇴비는 집집마다 인제 웬만한 집들 고 돼지 멕이구, 소 멕이구 그래니까.

따로 퇴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했죠.

새마을운동 전에요.
아 그래도, 그래도 퇴비는 했지.

그전에도 좀 했었어요
예. 아니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저기서 개똥 하나 발견해면은, 부모들은 그거 개똥 주어다가 집에 테비가락에 갖다 놓구. 다 그랬던 거지.

실제로 그랬었었어요?
아 그럼요.

개똥 같은 것도?
응.

닭똥도...
닭똥, 아 계분, 계분은 또 최고로 쳤던 거지. 인분하고. 아이 나 그때만 해두 이 학교에서 인분을 얼마를 퍼갔는데요.

어르신 학교 다니실 때?
그럼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퍼갔어요.
아니. 인저 거기 학교에서 인저 학교장한테 얘기해가지구, 저게 뭐야, 저 지게에다가 저기 해가지구, 집에다 갖다가 인저 그 저기 인분을 재에다가 같이 잰다구. 재를 모아 뒀다가. 그래가지구 인저 똥재를 맨들어서 인저 갖다가 저기 가지구 거름 쓰구 그랬지. 옛날에 비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그 학교 인분은 이 마을 분들이 다 쓴 거네요?
99%는 그렇다구 봐야지. 하하하.

그렇게 해서 인분을 거름을 만들고, 보통 이렇게 갖다 뿌리는 거는 보리논에 갖다 뿌리지 않나요? 겨울에?
겨울에 인저 보리밭에 인저, 그니까... 겨울에, 겨울에 뿌리면 안 되구 봄에 했죠. 봄에. 그 막

저기해구 그럴 적에. 저 겨울에는 저 보리를 밟어주구. 밟구 나서 막 움터서 나오고 그랠 적에 인제, 고때 인제 인분 갖다 뿌려주구 그랬죠.

보리밟기를 하고...?
나서 인저 (인분을) 주는 거죠.

그 근데 호미모 같은 거는 거의 안 심었어요?
이쪽에는 별로 안 심었어요.

아 호미모 별로. 마냥모 이런거 별로 안 심으시고요?
마냥묘는 심었죠. 저쪽 고실 쪽에. 산 밑창에. 그런 데 인제.

아 산 밑에.
예. 왜 그러냐면 장마를 져야 인저 심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냥모하고 호미모가 좀 다른가요?
호미모는 인저 비가, 물이 조금 왔을 제, 비가 조금 왔을 제, 요 물이 별로 없을 제 인저 호미로다가 인저 파가지구 이렇게 호미모을 심는 거구. 마냥모는 인저 7월에 7월 장마 지잖아요. 7월 장마 졌을 적에 인저 그 물을 받어서 인저 심는 게 마냥모구.

그래서 인제 산 밑, 천수답 같은 데?
예. 예.

논도 많이 매셨겠네요?
아유 논 많이 맸죠 나는. 논 매구, 논 훔치구. 그니까 그전에 인저 어디 가서 저기 해가지구 "아유 집에 가서 논 훔쳐야 된다." 구 그러면은 시내 사람들은 '저 미친놈' '논을 훔친다.' 고 그랜다구. '훔친다.' 고 그래서. 그게 저 풀 뽑는대는 소리를 논 훔친다구 인저 그래는 건데 못 알아듣구 오해해서 많이 그러지.

논 매기 할 때 그 두레 하잖아요. 혹시 어르신 어렸을 때 여기 두레 했었어요?
그거 제가두 했어요.

두레 거의 마지막 세대네요. 논 매기 할 때요?
아 논매기 할 때 그거 했죠. 당연히. 나갈 제는 길가락을 치구 나가는 거예요. 가락이. 뭐 저 12가락이라구, 12차라구 그래구 그래는데 6가락을 가지고, 이 암새 있고 숫새가 있걸랑요. 이게. 이 가락이 틀려요. 똑같은 가락인데도 암새가 있고, 고 숫새가 있는 거거랑. 고건 내가 정확히 잘 알지.

암새는 뭐고 숫새는 뭐예요?

그러게 내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속촌에서 나보구 와서 그거를, 농악을 놀으라고 우리 집에 마냥 왔었어요. 그전에. 그런데 내가 인저 집안 환경이 그래가지구 못 간 거예요. 거기를. 근데 인저 암새하구 숫새래는 게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 똑같은 4분의 4박자래두 가락이 그냥 딴따단 딴따다 딴따다 딴따다 이렇게 치는 거 하고, 딴따다에다가 고기다가 가락이 한 번 쇠를 굴려서 두 박자가 더 들어가서 빨리 치는 게, 고게 암새란 말이유. 새가. 그러니까 신이 나지 더. 그게 똑같은 가락인데두.

수새보다 암새가 더 신이나요?

예. 그러니까 나갈 제는, 논을 매러 나갈 제는 길가락을 치구 나가는데, 이게 인저 일하러 가기 싫잖아요. 일하러 가기가. 싫으니까 농악도 똑같이 그냥 숫새를 치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덩글렁덩글렁 대가면서. 그다음에 인저 나올 때는 다 해구 들어와서 인저 기분이 좋잖아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암새를 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신나게. 하하하.

농악 할 때 상쇠하셨나요?

예.

마지막 상쇠시겠네요. 여기?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팔이 인제 없어지구, 인저 없어져가지구 여기 서탄면 면장에서부터 내가 사고 났을 때 “농악는 누가 노느냐.” 구 다 걱정들 해구 그랬던 거지. 하하하.

그러면 상쇠를 몇 살 때 하셨어요?

내가 16살 때부터 그랬어요.

16살이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굉장히 빨르죠. 근데 보면은, 보고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해는 것만 보고 들으면 쫓아서 했어요. 제가.

원래 그 감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음악 감각은 조금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젊은 애들, 초등학생 애들 좀 가르칠라고 그 전에 모여가지구 인저 분유통을 쭉 앞에다가 놓구, 내가 때리는 대로다가 한번 같이 해보라구 그래면은 몇 명 추려내기가 힘들더라구. 추려내기가.

그 감각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구 이게요 꽹과리래는 게 보면은 똑같이, 같이 친다구 해가지구 그 음이 나오는 게 아니걸랑요. 왼손에 뒤에 음을 잡어줘야 되는 거거랑. 이거로다가 음량을. 잡어줘가면서 쳐야 이게 부드럽고 듣기가 좋은 거지. 그냥 때리면은, 이 음량을 안 잡어주면 누구 말마따나 양재기 두들기는 소리하구 똑같걸랑. 하하하.

그것도 감각이죠?
아 그럼요. 그 음량 요거 잡아주는 게.

그러면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상쇠 있고요.
상쇠, 부쇠. 징, 장구, 북.

이거 인제 각각 1명씩이죠?
아 원래 두 명씩 들어가요. 행사하러 갈 때는.

아이 논매기 하러 갈 때요.
아이 그렇죠.

그다음에 법고잽이는?
버꾸잽이는, 나갈 때는 버꾸잽이는, 논 매러가고 그럴 때는 별로 안 해요. 그냥 뒤쫓어 나가구.

법고잽이는 그냥 쫓아만 나가고요.
응.

좌상은 없었어요.
왜 좌상이 없어요. 옛날엔 좌상 다 있었지.

그러니까 나갈 때 좌상 하나, 상쇠 하나, 부쇠 하나, 징, 장구, 북. 버꾸집이는 거의 안 갔다는 거죠?
그냥 뒤쫓어온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법고 들고요?
응.

법고 들고 그냥 쭉?
응.

인제 나가서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과정을 인제 어르신들한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땐 그 사람들 들어가서 논머리에서, 가서 인저 처음에 저 길가락으로 쳐서 나가서, 고기에서 인제 자진가락으로, 자진가락이로다 한바탕 놀구 재미나게. 자진가락 쳐가면서 놀구서는 끝나구서 인제 일 해구, 고기다가 고대로 놔놓고서는, 일 다 해구서 인저 또 고거 들고 치구 들어오구 그랬던 거죠.

중간에 뭐 이렇게 치고 이런 건 없고요?

중간에, 80∽90%로 치구 그런 건 없구, 그냥 다른 논이루다가 이저 이동핼 적에, 그때만 치면서 가구 그랬지. 쪼금씩.

선소리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일할 때?

모심을 때만 선소리 해구 그러는 거지. 모심을 때만. 허리 아프니까.

이 논맬 때는 선소리 안 했어요?

아 논맬 때두 옛날에는 선소리 해지. 앞재비가. 앞재비가 선소리를 해야 뒷사람들이 받어가면서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구 한 바퀴 돌어서 논 매구, 논 훔치구 그랬던 거지. 그건. 옛날에는…

아 선소리 하는 분이 맨 앞에 서고…?

맨 앞에 서죠. 선소리가. 그래서 논뚜랑 밑창이루.

논 매기 할 때 옆으로 쭉 서서 하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이게 논을 매고 인전 이게 이렇게 된대면요. 이 사람들이, 선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논두랑 가생이로 서요. 여기에. 그래가지구 이렇게 저기 해가지구 인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저 일 잘, 힘들은 사람은 여길 선다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소리를 줘가면서 쫙 나가잖어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논의 끝나는 데 아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한 바쿠를, 이 사람들은 나이 먹구 힘들으니까 슬슬해구 이 사람들은 빨리 돌어서 이렇게 와가지구,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항시 돌었던 거라구. 논을 훔쳤을 때두.

못줄 잡고 심으니까, 그 줄 따라가지 않나요? 논 훔칠 때, 논매기 할 때?

못줄 나왔을 때는 농악을 별로 그 안 했는데. 옛날에는 판장 모 심구, 마냥모를 심었지.

판장모라는 게 그냥, 그냥 줄을 안 띠고?

아니, 줄을 미리 띠어놓죠. 띠어놓구서 심어놓죠. 그다음에 한 사람이 한 판장모를 들어가지. 고기 들어가서. 자기 그 심을만큼을. 그리구…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 마냥모를 마냥, 저 뭐야 막모를 심구. 줄 안 띠구.

그러면 못줄을, 줄 띠는 모 있잖아요. 못줄 띠는 모, 그건 언제부터 심었어요?

그거 못줄 띤 거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구 그랬으니까, 불과 한 70년, 68년도?

1968년도?

예. 고때 처음 인저 못줄 띠기루다가 우리가 생각해는데, 그전에는 뭐 판장모 심구, 죄 막모

심구 그랬지 뭐.

그 막모라는 걸 인제 막 그냥 심는 거잖아요?
예.

순서대로 인제 뒤로 가면서.
예.

근데 그 판장모라는 거는 어떻게 심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여기다가 (네모난 논을 그리며) 인제 논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요기서 쭉 일자루다가 이렇게 심어놔요. 요기 한 사람 들어갈 것만큼. 고 다음에 또 여기두 해 놓구. 요렇게. 요렇게(줄을 지어 모를 심어서 논을 구획지음). 그래가지구 이게 판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내 것만 심구 오는 거요. 나오는 거요. 남의 거 안 심어주구.

아 그러니까 이게 쭉 한 줄로 심어놓은 게, 아 이거는 줄 띠고 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자루다가 잘 봐가지구, 쭉 가면서 앞으로다가 심어놓구.

그럼 이게(한 구역) 1인분이네요? 한 구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 거네요?
예. 그니까 일을 많이 핼라구 그 저 판장모를 심는 거요.

서로 경쟁하는 거...?
예. 하하하...

그걸 판장모라고 하고. 이게 금암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그랬죠.

그러다가 68년 무렵부터 인제 못줄...?
인제 못줄들 좀, 그때 인저 많이들 저기해구 그랬지.

이 두레, 참 아까 나갈 때 기수도 있잖아요. 깃발 들고?
예.

그러면 옆 동네하고 두레 싸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어우 그럼요. 만나면은 저기 해가지구, 그 깃발 뺏어 오구 그랬지.

혹시 어르신도 그 경험이 있으세요?
나는 그 경험은 없구, 보기만 핸 거지. 그때 당시에.

아 어렸을 때?
응.

여기가 어디랑...?
회화리 사람들하고두 그 많이 저기 했었구. 주로. 보이면 가서 깃발 뺏어오는 거요 그거. 놀다가.

깃발을 빼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꽝털 뽑아오는 거 아녜요?
그러게 그 꿩털 그거. 왜 그런가 하니 옛날헨 그 기가 굉장히 길었다고요. 한 사메다, 오메다씩 평균 됐었다구 그게.

깃대가요?
깃대가. 그러면 그 꿩털을 갖다가 저 고 위에다가 저기 해가지구, 그거를 이 허리춤에다가 해서 매가지구, 그걸 혼자 들고 다녔다구.

깃대를 이 허리춤에다 꽂아가지고요?
그럼요. 그거 꽂구 붙잡구, 이걸 잡구 돌리구 돌려가면서 그냥 그걸 마음대루 해다가 싸움해면, 해구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 꿩털 그거를 인저 그 깃발을, 고 기를 뺏어오는 거걸랑.

꿩털을 이렇게 왕창 뽑아 오나요?
다 뽑아오는 거요. 다. 고 위에 이렇게 끼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인저 고거 뺏어오면 이긴 거지. 하하하.

여기 새말하고 골안말도 그때 두레가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아 새말하고 골안말...
우리, 아니 고 전에는 뭐 있었는지 그거는 몰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우리 동네가, 금암2리가 많았었구. 회화리두 좀 저기 있었구.

회화리하고 여기 금암1리가 막상막하였어요?
그렇죠.

회화리가 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 데?
많죠.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드셨걸랑. 원래.

그럼 회화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보편적으루 그때 당시에두 옛날 얘기가 이종호 씨래는 사람이 전라도에서 머슴 살러 왔는데, 그 사람이 장사였었대요.

이종호요?

응. 이종호씨인가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좋아가지구, 그 사람이 그걸 다 뺏어 왔다구 그러더라구.

아 회화리하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셌네요. 이 두레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내가 91년도에 사고 났으니까, 90년도까지 제가 원래 끌고 나왔었었어요.

그때도 논매기를 했어요?

아니 논 매기는 안 했는데...

아 논매기 두레요.

아 논매기 두레는 그 이전에 없어졌죠.

언제요?

그니까 우리 형님들이 저기 했으니까, 형님들까지 했으니까, 한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이요?

응. 고때까지는 좀 가끔 그냥 가지구 나가서 좀 해구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두 없구 뭐 하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 나오구 나서부터는 없어진 거요.

경운기 나오면서 없어진 이유가 뭐 있나요?

아 그때는 소쟁기로 해구 사람들이 손 모 신구 뭐 하구 다 저기 해구 그럴 땐데, 경운기로다가 인저 나와가지구, 기계루다가 조금씩 조금씩 일원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인저 품앗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 농악, 두레래는 게 품앗이걸랑. 그게. 그래 인저 품앗이가 인저 점점 없어지구, 지금은 인저 완전 다 기계화가 돼가지구 저기해서 인전 구경두 못해는 거구. 하다못해 밥두, 밥 먹구 싶으면 전화루다가 따르릉 해가지구 밥 시켜서 먹구 들에서 일해는데. 하하하.

그러면 두레가 논매기 두레는 없어졌지만, 마을에서 그 풍물놀이는 계속했나 봐요?

풍물놀이는 내가 90년도까지 했던 거요. 제가.

어르신 그러면 이렇게 부상 입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없어진 거예요?

예. 예. 할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상쇠를 쳐줘야 되는데 상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꽤 늦게까지 이루어졌네요?
예.

그럼 그때 인제 논매기도 하고...
아 고때는 논매기 안 했죠.

아니 두레 할 때.
예.

두레 할 때 논매기도 하고, 그 보름 때는 가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 빌어주는 거 하셨죠?
아 그럼요. 아 고사반 다 지내줬죠. 옛날부터... 집 안에 우물이 있으면 우물 고사두 지내주고, 또 미신 믿느냐고 뒤에 터줏대감 이렇게 모셔놓았잖아요.

예. 터주가리.
응. 터주가리. 거기 가서 고사 한번 지내주고. 또 집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문앞에 7월 칠석 쌀 이렇게 매달아놨었잖아요.

제석 주머니.
응. 제석 주머니. 거기 가서 저기 해가지구 고 앞에 있는 데다가 쌀 한 말하구 이렇게 해가지구 저기 해서 걸어놓구 그러면 그거 해서 제사 한 번 거기서 저기 해주구.

제석 주머니를 마루 있는 데, 대청 있는 데다가 했어요?
아니. 방문 들어가는 데, 큰 문 들어가는데, 고기다가 달아놨잖아요. 안방문 들어가는 데. 그럼 고거를 중심으루 해서 고기다가 이렇게 차려놓는다구.

아 제석 주머니 앞에다가?
으 응. 그러면 거기서 저기 가지구 그거...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서 우물 있으면 우물고사 한번 지내주구. 그다음에 부엌에 들어가서 인제 지내주구, 그다음에 뒤에 터주가리, 뒤란이루다가 한 바퀴 돌면서 나와가지구 마루에 가서 인저 고사 지내주구 술 한잔 먹구 뭐 하구 그러구서 인저 다시 인저 나오는 거지.

그럼 고사반으로 쌀 한 말 올려놓나요?
아 그렇죠.

그 고사반은 쌀 한 말 딱 고거예요?

아니. 고기에다가 인저 실하구 해서 촛불 이렇게 하나 큰 거 꽂아놓구, 인저 실을 매달아 놓구 인제 형식상으로다가 그렇게 해놓구 또 저 신주 많은, 저기 보관 잘해는 사람들은 또 신주도 꽂아놓구. 그렇게 해가지구 고사반 지내주구 인저 술 한잔 먹구 나오는 거예요. 그래면은 굿을 핸 거보다 낫다는 거여. 옛날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고사 지내주는 걸?

그 나도 기억을 못해겠는데.

지신밟기 뭐 이렇게 불렀나요?

예. 그런 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걸 한 집도 안 빼놓고 하나요?

아 그때 당시에두 인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두 있구, 교회 다니는 사람두 있구. 이런 사람들은 안 핸다구 안 해. 그다음에 인제 미신 믿는 집들만 다 해구, 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좀 찾아다니면서 해는 겨.

그럼 고사반도 쌀 한 말이면 그 집에 부담되는 집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 오지.

고사반을요?

그거를 안 가지구 나온다구. 그냥 그 집에다가 두고는 온다구.

아 고사반 한 거를?

응. 우리는 그냥 단지 술 한잔 얻어먹구 뭐 하구 인저 그래구 인저 재미루다가 인저 그렇게 해구 그랜 거지.

또 어떤 마을은 그거 갔다가 마을 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응. 마을 기금두 해는 데도 많았어요. 그전에.

근데 금암2리는 그냥 안 가져왔어요?

예. 안 가져왔어요.

아 좀 특이한데요.

하하하...

여기는 인제 예전에 그 벼타작은, 벼타작할 때 인제 벼를 베잖아요. 그러면 베서 논에다 까나요?

줄가리 쳐서 놓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줄갈이라는 게 쭉 세워놓는 거?

예. 묶어가지고 인저 줄가리 인저 논둑에다가 쭉 인저 세워놓는 사람들두 있었구. 바닥에 까는 사람두 있었구. 여러 사람이 있었죠. 인저 논이 잘 말르는 사람들은 저기 해가지고, 모래땅인 사람들은 깔구. 또 인제 고실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묶어서 인저 논두렁에다가 인저 줄가리치구.

그리고 인제 타작 할 때는 전부 다 집으로 가지고...?

집이루 다 갖구 들어왔죠.

그것도 품앗이로 타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품앗이루다가 다 했죠.

그럼 인제 쓰는 도구는... 그네요?

처음에는 인저 그네로다가 했었구. 고 다음에 인저 두 번, 인저 그네에서 조금, 궁글레통 그거 나왔을 때는 인저 궁글레통이로다가 인저 저, 저 집집이 돌어다니면서 했었구. 인제 고게 인저 발전돼 가지구 나온 거 인저 저기 해가지고 인제 탈곡기 나와가지고는 인저 발동이 가지고선 탈곡기 돌려서 또 했었구.

탈곡기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새마을운동 할 무렵에 있었나요?

그러게... 그게... 자네(홍태준) 처 할아버지가 탈곡기는 제일 먼저 했었어.

그분이 성함이?

조재윤.

이분이 탈곡기...?

응. 발동기 가지구서는.

그 보리는 탈곡기로 하잖아요. 그전에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아 자리개질을 했지. 자리개질이라고 해가지구 끈이로다 매가지구 큰 저 절구통 놓구서는 그거로다 두드려 패구.

끈으로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요?

응.

그걸 자리개질이라고 해요?

자리개질이라구 그러죠.

아우 보리타작 잘 돼요? 이거?

아 그럼요.

그냥 절구통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다 때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인저 이게 자리개질이라구 해가지구 저 보리타작이 잘 되는데, 가을보리는 잘 되는데, 이 봄보리는 못 털어요.

봄보리라는 게 인제...?

봄에 심는 거 있었어요. 봄에 심는 거. 그거는 탈곡기로 털어야 돼. 그거 모가지가 톡톡 부러져.

(홍태준) 그렇게 치려면은?

응.

탈곡기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될 거 아녜요?

아 그렇죠. 그거 해가지구, 그렇게 해서 또 도리깨루다가 두드려서. 다 그렇게 했던 거죠.

봄보리는 인제 자리개질 한 다음에 다시 인제 이 도리깨로?

응.

그거 다 해보셨을 거 아녜요?

저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허구 있는 거지.

여기 작업반은 구성이 안 됐어요?

왜요. 작업반 다 돼 있어, 저 작업반두 해구, 4H에서두 그 저기 봉사활동 해구.

작업반은 새마을 운동할 때 구성이 됐나요?

그 전서부터.

5.16 후에요?

응. 고때 여하튼 작업반 조성해가지구 심구 그랬었지.

그 모심을...?

모심구 그랠 때.

작업반이 모심고 뭐... ?

우리 동네는 작업반이 모심을 때 작업반만 있어요.

아 모심을 때만?

응. 작업반 편성해 가지구.

4H는 언제 구성됐어요? 그거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4H는 내가 저기 저기해구 그럴 적에... 한 68년도.

1968년도 무렵에요?

예. 고때 처음 4H 저기 돼가지고, 고때 4H가 생겼을 거여. 68년도 정도에

이때 그러면 어르신이 12살 정도 됐을 땐데요?

예. 그 다음에 인저 그 사람들이, 4H가 우리 동네에서 무마돼가지구 내가 어... 75년돈가 고때 유신 4H를 다시 만들었지.

75년도에요?

응.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다고 했죠? 우리 동네에서 4H가...

4H가 인저 그때 당시에 인저 활성화가 조금 되다가, 그 어떠한 저기두 없구 그러니까 이게 인저 사람들이 그만뒀다고. 처음에 창설만 해놨다가. 그래가지구 내가 인저 고때 당시에 유신4H라구 해가지구 다시 창설을 해놨었지.

이게 72년도...?

74년도일 거예요. 우리가 유신 4H 했던 게.

4H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전에. 68년도에 조직된 4H는?

...

그냥 조직만 돼 있었던 거예요?

조직만 돼 있었구... 농사짓는 데에 조금 인저 와가지구 그 사람들이 저기 해가지구 인저 교육두 시켜주구 다 그랬었죠.

교육이라는 건 인제 농법 같은 거요?

예. 농법 같은 거.

그러면 이거는 농촌지도소 같은 데서...?

아 그렇죠. 지도소 소관이었었어요. 옛날에는 농촌지도소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4H 회원들이?

봉사활동, 4H들이 저 나와가지구 인저 마을 안길 청소두 해구. 풀베기두 해구. 그런 거 인제, 봉사활동을 많이 좀, 그 목적으로다가 했지.

68년도에 조직된 것도요?

아 그렇죠.

그런데 74년도에 다시 4H를 인제 조직하게 된 건 그 68년도에...?

그 사람들이 해다가 흐지부지 해, 어떤 뭐 저기가, 나한테 득이 없으니까. 그냥 봉사만 해라구 그러니까. 저기 했다가 인저 해구. 이 4H래는 게 지덕노체 아니에요. 인제 머리에 알지자 쓰구. 우리가 인저 그래가지구 해서 그 사람들이 4H를 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농어촌 저기로다가 해가지구 돈을, 좀 융자를 좀 많이 해줘서 땅두 사구 막 했잖아요. 그러한 욕심 땜에 인저 다시 엮어서.

아 4H를 하게 되면 융자를, 그러니까 4H가 조직된 동네에 융자를 좀 해 주나요? 아니면...?

그 개인들이 인저 저기해가지구.

4H 회원들?

예. 그 사람들한테 인저 그 혜택이 좀 있어가지구. 그걸 인저 다시 엮어가지구 그거 혜택 좀 볼라구 저기 해구 그랬었지.

어르신이 만 나이로 한 17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그 열일곱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내가 저 그 4H 그때 핸 거예요. 그게 유신 4H.

유신 4H요?

응.

그 욕심에 그냥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 몇 명 정도 했어요?

우리 동네가 그때 한 스물한 댓 명 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때 당시에는 산업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직장 잡기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해거나 뭐 해거나 다 농사짓는 거 아니요. 하하하.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나이 대는 어떻게 됐어요?

나이 대는, 고때 당시에 한 30까지 4H 했었죠.

아 30 초반까지요?

응.

서른 딱 걸릴 때까지 했나요?

아니죠. 서른 넘어서두 했었구. 예를 들어서 40 넘은 사람들은 인저, 우리가 4H에서 인저 해면서 나이가 한 40 넘으면 저 고문이루다가 모시고 있었구. 그렇게 체계가 돼 있었지.

그래서 유신 4H 해가지고, 어르신이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때 평택시에서 유명했어요. 유신 4H에서 우리. 말만 했어두.

요 금암2리가요?

예.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덕노체에서, 체자에서 체육 저기가 꼭 1년에 두 번씩 그 행사가 있었걸랑. 진위에서, 여기는 그때 저 조그마가지구 다 진위루 갔었다구. 진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냥 1등 먹구 뭐 하구 그러니까.

아 진위국민학교에서 인제...?

아 진위중학교에서 많이 했지.

그 4H 대항을 한 거예요?

응. 4H 대항을 했지.

아 4H 대항으로 인제 운동, 축구 했을 거고요?

축구는 우리 때는 별로 안 했어요. 배구를 많이 했지.

4H 대항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으 응.

구성원이 아주 많아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에서 봉사활동도?

아 봉사활동 많이 했죠. 남의 집 모 못 심으면은, 사람 없어가지구 그땐 저기 해가지구 해선 해면은, 그거 집합시켜가지구 가서 모두 가서 심어주구, 겨울에 보리밟기두 그냥 죄 해구.

보리밟기...?

응. 그때는 논보리도 많이 심었었걸랑. 이쪽으루.

논보리를 심으면, 그 이모작을 했나요?

예. 이모작이죠.

여기 이모작 했어요?
아 그럼요. 논 보리 심구, 그거 저기 그 추수 해구서는 또 벼 심구.

여기 이 근처는, 이 근처는 이모작 안 했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나두 이게 논이었는데, 여기다가두 보리 심구.

논은, 그러니까 물이 쯔민 논 아니면 거의 다 이모작을 그냥 했어요?
많이 했죠.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여기 보리를 베고 벼를 심으면 너무 늦다고, 나중에 서리 내린다고, 안 했다고 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저 동천리 같은 데 가면 안 했어요?
동천리 그쪽으로다가는 힘들지요. 왜 힘들은가 하니 동천리 그쪽으로다가는 질잖어요.

아 질어서?
예. 그리구 질은 데는 무조건 대고 보리는 황 걸리기 때문에, 노랗게 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구... 그래서 겨울에 얼어 부풀러 올르고서는 인저 정월 명절 비슷해게 됐을 때, 고때 당시에 얼어 부풀은 거 바람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가서 보리를 밟아주는 거거랑.

그렇죠... 아 이모작을 하셨구나!
아 이모작 여기 많이 했슈. 우리 동네에서는. 요기서는. 요쪽으로다가.

이모작은 언제까지 했어요? 슬그머니 없어졌죠? 이모작은.
그렇죠. 아이구 이 내가 이 논을 이모작을 핸 지가 70 한 5년, 6년?

그때까지요?
예. 고때까지 이모작을 했다구.

여기 참 농지 정리할 때 감보율은 몇 프로나 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감보율은.

농지정리 하면서 저기 기흥저수지 물이 들어왔나요?
이게 기흥저수지 물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물세도, 수세 그때...?
수세 냈죠. 옛날에는.

수세 어느 정도나 냈어요?

그때 기억이, 수세가 벼로다가 낸 건데, 돈이로 안 냈어요. 벼로다가 낸 건데, 보통 한 2천 평 정도 농사지으면은 54kg, 옛날에는 공판이 그거 가마니에 담았을 때는 54kg를 달았었걸랑요. 그거 두 가마 정도 내구 그랬었는데.

2천 평에 54kg짜리 한 두가 정도요?

예. 고 정도, 고거 물세 내구.

이게 언제까지 냈죠? 수세를?

(차상석) 김대중씨가 없앤 거걸랑. 그거는.

(홍태준) 2000년 정도 쯤이요? 99년 2천년?

(차상석) 고 전에 없어진 거여. 그 사람이 저기해가지구. 그때 그래서 없어진 거여.

인제 방앗간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가지구 핸 거죠.

그러면 그전에, 어르신 전에 소유는 임광래 어르신 댁이었나요?

아 임광래 어르신, 임광래 씨가 해기 전에, 해기 전에는 조합방아 있었어요. 조합방아. 조합방아였다가 임광래 씨가 인전 그 맡아가지구, 그 어머니하구 인저 그 사람이 인저 그거를 해다가, 동네에서 또 동네에서 다시 조합방아로다가 해보자 그래가지구 했다가, 뭐 2년인가 해다가 또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저기에서 송인호씨라고 그 노인네가 맡어서 해다가 또 딴 사람이 좀 해구, 그다음에 인제 내가 사가지구 또 핸 거지.

우와 많이 바뀌었네요?

예.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게 임광래씨 어머니가 처음으로 만든 방앗간은 아닌가 봐요?

예 예.

그 전에, 그 전에 조합에서?

예 예.

여기 그 조합이라는 게 인제 이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네 자체 내에 조합이 있었으니까.

그 이동조합은 뭐 방앗간 하나였어요?

그것까지는 몰르죠 저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출자를 조금씩 해가지고...?

예. 그거, 고것만 아는 거지. 그전에 저기 해가지구 뭐 어떤 사업을 핸 건지, 누가 말마따나 나이 100살, 우리 아버지 정도, 우리 아버지가 113살인데, 그 아버지 적서부터 핸 걸 내가 우떻게 알어. 난 태어나지두 않고 아무런 저기두...

그러면 여기서 방앗간이 시작된 건 언제라고 뭐 말씀 못 들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가 이게 전기가 왜정시대 때 들어왔었걸랑. 새말이나 골안말, 저 금암1리나 이런 데는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 우리 동네만 들어왔던 거여. 그래가지구 그, 내가 모다를 쓸 때두 일제를 썼걸랑. 걔네들이, 일본 애들이 맨들었던 모다를.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 방앗간 모터 쓸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보면은 꽤 오래된 거야. 꽤 오래된 거여, 방앗간, 정미소는.

근데 인제 이동 조합이라는 게 사실 5.16 이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제 잘 모르시죠?

그때는, 인저 그 전에는 조그맣게 인저 방앗간을 그냥 우떻게 저기 해다가, 이동조합에서 해면서 인수를 받은 거야 그게.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해서, 해가지구 넘어온 게 몇 사람, 몇 사람, 몇 사람, 이러다가 그게 그렇게 된 거거랑.

아 그러면 맨 처음에 조합방아도 조합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던 걸 인수받은 건가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인제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죠?

몰르죠.

그러니까 방아가 되게 오래됐네요?

예. 우리 동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송인호 씨라는 분은 이 마을 분?

예.

송씨 집안?

예.

그리고 그다음 분은 인제, 어떻게 파신 분을 잘 모르세요?
아! 부천 사람이 와서 사가지구 했었어요.

아 이거 부천 사람이요?
응. 부천 사람이 한 3년 해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저기 해가지구 와가지구 샀다가, 사구서는 해다가 내가 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산 거여.

어르신은 이거 몇 년에 인수하셨어요?
내가... 86년돈가? 86년돈가, 85년돈가 고때여. 인수받아가지구 내가 고때 2,700만 원 주구서 사가지구.

그 당시 2,700이면...?
꽤 큰 돈이죠.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래도 시골에서 방앗간, 옛날에 방앗간 한다고 그러면 유지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논 1구간 돈 480만 원밖에 안 했었는데.

당시에요?
응.

논 한 구간이 1,200평이죠?
1,200평. 그러니까 정미소가 꽤 비쌌던 거지.

아 한구간에 480이요?
응.

그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예.

그때 논을 사셨으면 지금 거부가 되셨을텐데.
하하하. 많이 벌어 먹었잖아요. 그래두.

방아삯은 얼마나 뜨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2부5리. 쌀 한가마에 쌀 2되 반.

좀 많이 싸졌네요? 그전보다?
아니 그전에는 더 쌌었슈.

뭐 한 쌀 한 가마에 네다섯 되 떴다고 그러시던데요?
　그거는 그 후고.

그래요?
　예.

방앗간 하신 분이 딱 하니까 기억 정확하시네. 다른 분들은, 어르신들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 주변에 방앗간은 어디 어디 있었어요? 새말에는 없었을 거 아녜요?
　아 새말두 있었어요... 거기 인저 주인네가 방아 찧다 그 피대에 채여가지고 죽었어. 그 바람에 안 했지.

그 방앗간이 새말에 지금 창고 지은 그 자리에 있나요?
　예 예. 고 자리요. 고 자리에 있었어.

한옥 있는 있었던 자리?
　예.

금암1리에도 있었고요?
　여기는 몰러요. 내가 금암리까지두 그 전서부터 다 방아를 갖다 찧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금암리하고, 그 안말하고 골안말하고 요기 사는 분들만 찧으신 거예요?
　그렇다구 봐야죠. 그때 당시엔.

그러면 수입은 어땠어요?
　괜찮았죠. 왜 했는가 하니. 그때는 쌀값이 비쌌으니까. 쌀이 현찰이나 마찬가지구.

그때는 방앗간을, 방아를 찧어주시기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
　아니요. 여기는 그때는 다 방아를 쪄주구 삯을 받었지.

삯만 받은 거예요?
　응.

그러면 혹시 결산 같은 거 해보셨어요? 1년에 얼마 정도나, 몇 가마 정도 방아삯이 나오는지?
　그때 당시에 내가 찔 적에 저기 하면 1년이면 한 150가마는 삯을 떴어요. 두 되 반씩 떴어도.

그때 150가마면 이게 그러니까 한 논 70마지기 정도 수준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죠.

그때도 논 한마지기에 수확량이 양석 나왔나요?
양석 나왔죠. 잘 먹었으면 양석. 옛날서부터 뭐 양석 양석, 뭐 저기 못 먹는 사람들은 대석까지 먹구. 하하하.

양석에서 삼배출로 넘어간 게 언제쯤 되나요? 그 기흥 저수지 물 들어오고 나서 그런가요?
추청 심구서부터.

추청 심고서?
응. 아끼바리래는 거 심구서부턴, 그리구서부턴 저기 팔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마금 이런 것들은 수확이 없었걸랑. 옛날 우리나라 저기 그 뭐 품종은.

통일벼는 몇 가마 정도 나왔어요?
어유 한마지기에 통일벼는 최하 4가마는 나왔죠.

통일벼요?
응. 밥맛이 없어두, 우리나라가 태국에서 원조를 받아먹은 게 73년도까지 받아먹은 거예요. 73년도까지 우리가 알랑미 갖다 먹은 거예요.

안남미요?
예. 그때까지 배 곯었던 거여. 그래가지구 통일벼 나오는 바람에 그나마 배 안곯은 거라구.

아끼바레라는 게 추청이잖아요?
응.

이게 언제쯤 나왔어요?
그러게?

통일벼 다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가마면, 그 논 70마지기면 시골에서는 엄청 부자 아닙니까?
어우 부자였지요 논 70마지기면. 일꾼 둘 뒀었어요. 옛날에는.

70마지기면 14,000 평인데...
왜 그런고 하니, 그때 당시에 일꾼 1년 두면은 상일꾼이 쌀 열한 가마 줬었걸랑요... 머슴.

이게 이게 70년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70년대. 쌀 11가마 주면 1년 내내 머슴 살았던 거여.

인제 부상당하시면서 못하시게...?
예. 그리구 나서부터 문 닫아버렸죠.

그게 인제 91년이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방앗간은 인제 소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폐쇄시켜 버렸슈. 내가.

그래도 그걸 넘겼으면 어느 정도 받으실텐데...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인제 그다음부터는 임대농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임대 지금 몇 평 정도 하세요?
내가 한 6만 5천 평 정도는 임대해요. 나머지 거는 인제 내 게 한 3천 평 정도 되구.

어르신 건 굉장히 적네요? 돈 벌어갖고 논 좀 사시지? 하하.
아 지금 나이 먹구 뭘 사유? 고생만 허는 거지. 그래 내가 농사짓는 게 지금 한 7만 5천 평 정도 지어요.

전체 7만 5천 평이요?
예.

논만요?
예.

이 정도면, 7만 5천 평 지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근처는?
요쪽에서는 별루 없어요.

보통 요새 임대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해요? 좀 많이 하는 분들이?
한 6만 평 정도 해요. 많이 하는 사람이 한 6만 평 하니까.

그러면 인제 농기계가 다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 이앙기는?

이앙기는 1대면 돼요... 하루에 만 평씩은 심으니까.

이앙기 1대가요?

예. 그래야 뭐 일주일씩 심는 건데 뭐. 허허허.

그다음에 인제 트랙터도

트랙터는 2대는 가져야 돼요... 아니 내가 혼자 쓰더래두 1대밖에 못 부리잖아요. 농기계를 그 뒤에 인제 뭐 로타리구, 쟁기구 이런 거 부속품을, 다른 걸 인저 다룰래면은 고게 달었다 띠었다 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구. 그니까 고 시간을 애끼기 위해서 따루따루 달어놓는 거요. 그게... 그리구 한 대 가지구 해다가 고장이 나면은 일을 못 해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콤바인. 콤바인도 고장이 잦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콤바인은 한 대만 가지면 돼요.

콤바인이 엄청 비싸던데?

지금 얀마 게 1억 9,500인가 돼요.

2억이네요. 트랙터는 이게 큰 거 하고 작은 거 하고 막...

차이가 엄청 지지. 내 게 저게 작년에 산 게 저게 1억 6천 500 주고 사 온 거여. 저게.

몇 마력이에요?

(차상석) 저게 110마력. 프랑스 거.

(홍태준) 두 대 있던데?

(차상석) 고 뒤에 거는 프랑스 거고, 앞에 건 동양 거.

국산은 얼마예요? 트랙터, 같은 급이라고 치면?

같은 급이라구 하게 되면 한 9천만 원 정도 해요.

이앙기는 얼마 정도 해요?

이앙기는 2,600

제일 싸네요?

예. 제일 싸요. 이양기가.

그러면 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1억 8천은 돼요.

쌀로 계산은 안 되죠?

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해가지고구 그냥 농협으로다 다 보내버려서, 거기서 나와가지구 들어간 거 얼마 뭐 이런 거, 인저 대략 그냥 주먹구구식이루다가 인저 재구나면은 한 1억 8천 정도 남더라구 1년에.

그러니까 거기서 제한다는 거는 뭐...?

아니 내가 인저 저기 비료 사구 뭐 하구 이런 것들 인저, 농비 같은 거 인저 제해구 나머지가 저기면은 한 1억 8천 정도는 수입이 되더라구.

아 이게 인제 순이익이라는 거죠?

응.

총 매출액은 어느 정도 돼요?

총 매출액 안 따져봤는데.

그 농기계 감가상각도 좀 따져야 될 거 아녜요?

그거는 안 따졌어요.

감가상각 빼고요?

응. 그런데 감가상각비 빼구 누구 말마따나 전기세 빼구 뭐 빼구 그러면, 그거 남을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감가상각이.

그게 크죠.

콤바인 같은 경우 뭐 몇 년 못 쓴다면서요?

내가 지금 쓰는 것두 20년을 쓴 거요.

그럼 오래 쓰시는데...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소모품을 다 갈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구 수리를 해서 쓰면 되는데, 한 4~5년, 3~4년 4~5년 쓰다가 그냥 뭐 베어링두 나가구 뭐하구 우당탕 되면 그걸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냥 내버리구 바꿔 쓴다구.

보통 임대, 인제 여기다가 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임대해는 거요?

예.

제가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요. 인저 노인 양반들. 농사 못 짓는 사람들. 나이 먹구 한 80 넘은 사람들 인저 저기하구. 기계 없구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 하구. 고 다음에 이쪽에서 또 그 서울 사람이나 외부 사람들 게 많어요. 옛날에 사놓은 것들이. 그래 그 사람들 거...

어느 쪽이 많아요? 노인분들 땅하고 외지인들 땅하고?

외지들이 많죠. 내가 해놓은 거라서. 외지인들 게 많어요. 여기서 보면 외지인들께 전체 농사치면은요 한 60%는 외지인 사람 거요.

여기 들판이요?

예.

근데 외지인들이 이렇게 절대 농지를 사나요?

아 옛날엔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보상받고구 다 나오잖아요. 그럼 대체농지를 해면 양도세를 안 물어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그냥 사놓는 거여. 그 세금 안 낼라구.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구.

그게 한 그러면 70~8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시작됐나요? 과천 이쪽...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사놓은 것들은. 나도 과천 사람 게, 저기 있는 게 저기여. 한 만평 돼. 그 사람들 거 농사짓는 게.

과천 사는 사람들이요?

응.

그러니까 과천 사는 사람들 거는 그때 과천, 개발될 때 이쪽에 와서 대체 농지로...?

그렇지. 자기 논이 인저 들어가니까 거기서... 거기서 살면서 양도세를 낼래니까 대체농지를 사는 거지. 그게.

그럼 도지는 그 마지기로 따지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평수로 따져요. 옛날에는 마지기로 따졌는데, 그래서 200평에 쌀 한 가마씩.

200평에 지금, 아까 세 가마 난다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200평에 저기해면은 쌀 5가마는 나오죠.

그러면 아까 삼배출 말씀하실 때는 150평 한 마지기 말씀하신 건가요?

150평.

1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추청 같은 것두, 지금은 추청 같은 거 심어두 150평에 그냥 삼배출밲에 못 먹어요. 쪼금 더 나오거나 그렇지.

그러면 어르신은 주로 뭐 심으세요?

고시히까리.

고시히까리하고 인제 추청이 요새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아 밥맛이 좋잖어요.

고시히까리가요?

응.

수확량은요?

수확량두 많아요.

그러면 다 고시히까리 심지 왜 추청...?

아 농사짓기가 까다로워요. 그게. 고시히까리가. 잘 넘어가구, 넘어지면 허당이걸랑. 그니까 잘 넘어가구 뭐 하구 인저 이게 지금 이쪽에서두 문제성이...

지금 어떤 문제요?

추청, 아끼바리라고 일본, 일본 종자라구 그거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구 작년서부터 못 심어요.

추청이요?

응. 그게. 로열티 값도 안 주는 거거든 그거는 오래돼가지구. 그래가지구 인제 우리나라 이름으로다가 인제 추청으로다 만들어 놓은 거여.

아끼바리를?

응. 아귀바리를. 근데두 그게 저기라구 고시히까리두, 고시히까리두 일본 벼라구 그것구 25년도까지 끝이여. 법으로다가 그렇게 맨들어놔가지구.

그럼 뭐 대체...

대체 품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12호라 해가지구 꿈마지라구 우리 자체에서 이름, 송탄농협에서 지어놓은 게 꿈마지래는 게 추청만 밥맛이 어림없다구. 근데도 심은 거요. 근데 저놈의 거를 올해 처음 심은 거라, 쌀을 어따가 팔아 먹어야 할지 인저 걱정이여.

농협에서 수매 안 해요?

아 농협에서 수매를 해는데, 농협에서 팔을 게 걱정이래니까요.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뭐 또 수정이 되겠죠.

(차상석) 그게. 지금 저거 25년도에 여기 저기 내년 후년까지 저거 고시히까리가 저긴데, 뭘루, 어떤 걸루 대체 작물 핼래는지 몰러.

(홍태준) 아니 저기 진상, 그거 안 좋아요?

(차상석) 진상은 벌써 이 사람아 이천서 뺏어갔네.

(홍태준) 이천에서?

(차상석) 그럼. 진상이래는 게 그 저 개인이 그걸 브랜드를 만드는 거걸랑. 그거를 개발핸 거걸랑.

품종을요?

응. 그래가지구 그거를 이쪽에서두 원래는 저 팔탄에다가 그걸 뿌려놨던 거, 나두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구 그걸 몰래 갖다가 인저 한 건데, 로열티 값을 다 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구 이천서 가져가가지구, 이천서 그 사람한테 로얄티 값을 주구 딴 데서는 못해게 해는 거여. 그게.

지금은 인제 농사짓는 게 볍씨를 직접 아까 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판.

예. 모판 다 해죠.

옛날하고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옛날에는 물 못자리 해구 저기 해구 그럴 때는 좀 힘들구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구 그랬는데, 지금은 다 기계 모, 판모를 집에서 해가지구 나가니까 편하죠.

그 논매기도 안 해도 되잖아.

아이 제초제 다 뿌리구, 다 저기 약이로다가 농사짓는 거지. 제초제로 그냥 저기 해는 거지 뭐. 논매기를 해구 논을 어떻게 부쳐요.

어르신 연안 차씨시잖아요?

예. 연안 차씨요.

여기 연안 차씨...

강열공파.

근데 회화리하고 여기하고 파가 같더라고요?

똑같애요.

근데 이쪽이 좀 오래됐다는 말씀 하시던데 회화리에 차경환 어르신이?

차경환씨가 저기 핸 게, 여기서 우리 저기가 내게루, 내게루다가, 내 ‘상’ 자(字) 돌림으로다가 여기서 시제지내는 게 17대예요.

아 17대요?
예.

저기 면사무소 뒤 그쪽에?
예. 그 선대조 저기가 17대예요.

17대 윗조상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아니, 17대면은... (한 대에 30년 계산해서) 500년 이상 된 거지. 우리 차씨가.

그러면 그분이 여기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그러면 차씨가 여기는 차씨, 송씨, 조씨 이렇게 많이 사는데, 어느 성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는 별로 없나 보더라고요?
우리 차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구 그러더라구.

차씨가요?
응. 차씨가 먼저 들어오구, 고다음에 조씨 들어오구, 고다음에 송씨가 좀 들어오구.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거걸랑요.

노인분들이요?
예.

그러면 어르신 어렸을 때 여기 차씨는 몇 집이나 살았어요?
우리 동네는 여기 우리 어렸을 때는 한 30세대 됐었지.

차씨가요?
다 나가서 그렇지.

현재는요?
현재는, 지금 여덟 집인가?

그러면 이 차씨,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종중 같은 거. 여기 금암리 종중 같은 게 만들어졌나요?
아유 그럼요.

그 17대 조 할아버지 밑으로요?
아 우리 저기 종중, 인저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의 17대조 할아버지 손들이 종중을 만들 거예요?
아 그렇죠.

종종은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아 운영이 되요. 지금두 운영되고 있는 거지. 우리 종중에 돈 많어요. 허허허.

저기 창고도 있고 그러던데...?
아니, 창고도 그거 팔었어요.

임대 준 게 아니고요?
예. 그 땅을 팔었어요.

면사무소 뒤에 그...?
예. 원래는 우리 차씨 종종 땅이 이 면사무소, 교회, 이 학교, 이게 다 있었어요. 그게. 근데 학교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땐가? 지을 적에 그 우리 저게 게 뭐야, 차씨 문중에서 종종 산 그 희사해구 그런 거예요. 다... 면사무소두 그거 다 희사했던 거구.

그러면 서탄초등학교가 원래 자리가 지금보다 좁았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좁았었죠.

아, 좁았는데...?
그 뒤루다가 물려 짓는다구 인제 크게 저기핸다구 해가지구 운동장두 크게 해구 핸다구, 그때 당시에 저기 해가지구. 땅값이 얼마 안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누가 말마따나 술 한잔 얻어먹구 그냥 희사해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서탄 초등학교가 그래도 꽤 큰 편인데, 얼마나 희사했는지는 잘...?
313평, 내가, 두 번을 희사를 핸 거걸랑요. 근데 마지막 번 핸 거는 나구 고때 기사핼 때두 있었으니까, 313평이래는 게, 내가 기억을 해지.

313평이요?
응. 허허허.

1회는 잘 모르고요?
응.

면사무소는요? 면사무소도 그 조그맣게 있었는데...?

면사무소는 그 언제 핸 거구 뭐 저기는 저기를 뗘봐야지. 구적도를 뗘봐야지. 구적도를 뗘봐야지 알지, 몰라요.

근데 인제 들으신 거는...?

고것까지 다 차씨 종종 땅이었었대요.

면사무소하고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아까 한 군데 또?

그 교회가 하나 있걸랑.

아 금암교회요?

그 옛날에 다 희사핸 거라구 그래더라구.

차씨 문중에서?

응.

그러니까 차씨 문중 땅이에요? 아니면 차씨 성 가지신 분의 개인 땅이에요? 교회는 문중에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종중 땅을 주지는....

아 그게, 그 땅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니까 차병헌 외 2인으로 돼 있었다구. 그게... 등기상으루다가.

병자 헌자 쓰시는 분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예. 그래가지구, 그 양반이 저기 해가지구 그 저기 했었는데, 그니까 장자, 장손이 교회를 다니구 그랬었어요. 그전에... 그래가지구 고것두 주구, 이 학교구 뭐구 다 주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제 종중이라는 게, 종중 땅이 이렇게 장손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 장손이 다 이렇게 기증을 한 거군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옛날에는 뭐 누가 말마따나 여러 사람 앞으루다가 그렇게 뭐 종종 그 저기가,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냥 누구누구 2인, 1인 막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그래가지구 그렇게 됐던 거여. 그래가지구 인저 지금은 인저 종종으루다가 다 해놔가지구.

면사무소도 원래 자리인데, 장소가 좁은 걸 인제 차 씨 집 안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처음에 올러올 적에두 차씨네 땅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핸 거라구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면사무소 자리 잡을 때도요?

어 어.

처음 자리 잡을 때도 주고, 나중에 확장되면서도 인제 좀 주고요?

응.

지금 따지면 굉장히 큰데요. 거기 완전 서탄면의 노른자인데, 중심지인데.
아니, 딴 데루 갔으면 딴 데가 중심지지. 저게.

면사무소 뒤에 선산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몇 평 정도나 돼요?
지금은 얼마 안 돼요 한 350평? 400평? 고 정도만 냉긴 거예요. 다 팔아먹구.

그 뒤에, 마을 뒤에 창고 짓고 이런 것도 다 인제...?
예 예. 그 회관서부터, 금암리 회관서부터 다 이 빵빵 돌러 다 우리...

옛날에 많았을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거기 빼고, 뒤에 이렇게 산이니까 선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넓었을 때는 몇 평 정도나 됐었어?
(차상석) 그 한 5천 평대 있었어요. 다였지 뭐... 고 농협의 뒤에 너머까지니까.
(홍태준) 정자 있는 나무...
(차상석) 응. 그것까지여.
(홍태준) 그 나무는 아저씨네 종중에서 심은 거예요? 그 나무?
(차상석) 그건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종중 땅이여. 심겨져 있는 거지. 팽나무.
(홍태준) 그 뒤에 윤택 그것도...?
(차상석) 그건 해나무... 해나무가 600년이 넘어야 꽃이 피는 거여. 육백 년이 넘어야.

해나무가요?
응. 그게 해를 쫓어다니면서 해모냥 꽃이 핀다구.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랗게. 그래가지구 600년이 넘어야 꽃이 피어서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 열매로다가 창호지 문을, 창호지를 물을 들여가지구, 그거로다가 부적을 써야 진짜 부적이여. 절에서. 그게.

아 부적이 약간 노란색 띤게 해나무...?
예. 예. 해나무 열매로다가 빻아가지구, 그거루다가 물을 들여서 그걸루다가 해서, 결명주사루다가 부적을 써야 진짜 부적이래니까요.

그게 열매를 맺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600년은...?
600년이 넘었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나무가, 팽나무두 그때 좀 비실비실대구 그래가지구,

오래 가지구 얘기를 했더니 400년밖에 안 됐대는 거여.

팽나무가요?
팽나무두 그렇구, 그것도 그렇구. 그래서 내가 있다가...

설명문에는 250년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나무를 한번 비어볼까? 나이테를 한번 쉬어볼려?" 그랬더니 왜 그러녜. 옛날서부터 해나무는 육백 년이 넘어야 꽃이 핀다 그랬던 거여. 이게 꽃이 피는데 임병 고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600년은 넘었다는 거네요?
내가 알기로는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게 홰나무예요? 해나무예요?
(차상석) 해나무. 해. 해나무.
(홍태준) (팽나무와 홰나무가) 같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 뒤가 해나무 있는 대로 해서 공원 옆으로 해서 아까 거기, 그 물탱크 있던 자리 오른쪽 길로 이렇게 해서 인제 오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개를 무슨 고개라고 불러요? 그냥 서낭고개라고 불렀나요? 거기를?
옛날에는 그건 서낭고개지요. 우리 그 서낭이 있었으니까.

어르신도 아까 서낭은 못 보셨다고 그랬죠?
나는 돌 캐 간 자리에 없구,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두 골루 지나가면서 이것이 서낭이라구 그러구, 여기서 돌을 떠다가 서탄 입구에 그 철길 교각을 세웠다구. 그런 얘기를 핸 거예요.

서탄 입구의 철길이...?
영풍제지 옆에 철길.

그러니까 진위천 건너는 거요?
아니 지금 여기서 가자면은 이렇게 굴다리가 되잖아요. 그 다리발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 다리발이 여러 개 있었걸랑. 거기가 그전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 지금 지하도 있는 데, 그 바로 옆에요?
아니 다, 지하도서부터 다. 이쪽 벽선서부터 저 끝까지 다.

위로요? 북쪽으로요?
응. 북쪽으로.

오산 쪽으로?
예.

거기 지금 다 메꿔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메웠는데, 그 교각 다리를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교각이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됐었어요?
그게... 교각이 한 100여 m 됐지? 한 80m.

한 80m 정도가 그러니까 다리처럼 이렇게 갔던 거...?
그렇지요.

그 서탄 입구 현재 지하차도.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오산 쪽으로요?
어 어.

그거 갖다가 거기 교각을?
어 어.

그 당시에 일제가 시멘트가 있었는데, 시멘트로 쓰지 않고 이 돌로 갖다가... 그러면 엄청난 양이었겠네요. 한 80m 정도가 나갔으면.
엄청스럽죠 그러니께 서낭을 다 떠간 거래니까요.

어르신도 그거 보셨어요? 그 교각?
아 그러면 봤지요. 우리는.

그게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돼요.

4~5m 높이의 한 80m 정도가 돌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돌로 다 쌓은 거죠. 저 교각, 다리, 저 비얄을.

이렇게 지금 시멘트 다리 다리처럼?
으 응.

그러면 그 교각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메꿔진 건가 보네요?

그 교각이 있는 상태에서 메꿨던 거여. 그러구선 인저 다시 공사를 해구 세멘트루 또 해구 막 그런 것이지, 그전에는 돌로 다 쌓았던 거여. 그게. 그거 저기 핸 지 얼마 안 돼요. 세멘트로다 핸 지는... 그거 다 돌이었었어요. 그거. 돌루다가.

여기 고개 토고개는 어디예요?
토고개가, 토고개라고 있어요?

예. 토현, 금암리의 토고개. 이게 1911년 기록에 나온 건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건 나도 모르겄네. 못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혹시 들판에 들판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금암2리 앞에 여기. 새말에서는 여기 성가리라고 그러고...
그건 모르겠어요. 나두.

여기는 긴배배, 그다음에 여기 샛들, 뭐 도끼논...
아 여기는, 여기가 샛들이라구 그러구. 여기 자리가, 지금 우리 있는 자리가 이게 뱀밭이요... 옛날에 노인네들이.

(지도를 보며)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가 뱀밭?
(차상석) 여기가 뱀밭이라구 그랬던 거여.
(홍태준) 뱀이 이렇게 와서?
(차상석) 아니 밭이 뱀 모냥 생겼었걸랑. 삐뚤삐뚤 돼가지구. 그전엔, 농장정리 해기 전에 이게 밭이었어.

근데 주인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인제 마을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들판도 굉장히 이렇게 넓으면, 금암 1리에서는 또 여기를 너브내들, 여기를 부아지,...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렇게 불렀어요. 다 부르기를.

여기 너브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부분 이렇게 지명은 없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뒤에 당산 있는 데 있잖아요. 당나무 있는 데, 소나무. 거기 산 이름은 그냥 당산이라고만 불렀나요?
우리 저기 사는 고기는 당산이지. 그냥 당이라구 그러다가, 그냥 산자는 안 붙이구 그냥 당이라구 불렀지.

그리고 고기 고개, 아까 서낭당 있는 데는 그냥 서낭당 이렇게 불렀나요?
으 응. 서낭당 고개라구.

회고개는 어디예요?
회고개는 몰라요. 나도.

장고개라고도...?
장고개, 장고개.

아니면 저기 또 수월함이 거기가 무슨... 거르미 고개?
거르미 고갠 저기 공동묘지 있는 데가, 그게 거르미 고개지.

거기가 수월암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쪽, 행정구역상 이쪽 금암리에 속하나요?
행정구역상이루다가는 그 거리미 저 그 고개가 아마 사리루 들어갈 걸요... 고게 아마 사리루 들어갈 거여.

옛날 새말 사람들이요 오산장에 갈 때, 이쪽 지금 여기 체육공원 서낭당 있는 데, 글로 갔나요?
글루 다 갔죠.

새말 사람들도 글로 가고...
새말 사람두 다 글루 간 거지.

골안말 사람들은 저 뚝방 타고...
아니요. 골안말 사람들두 다 일루 간 거요. 제일 빨른 거요. 그게.

아 이쪽이 제일 빨라요?
예.

근데 골안말 할머니들은 저 북바위 쪽으로 해서...
그거는, 그거는 저쪽 길이 생기구 나서 인저 그렇게 간 것이고.

아 뚝방길이 생기고 나서요?
응. 그전에 농지정리 뭐 저기 않구 저기해구 그럴 때는 그쪽 저 냇갈 제대로 형성 안 되구 그럴 때, 다 그렇게 간 거요. 이게요. 요 금암리 뒤에 있잖아요. 그 공동묘지, 금암리 공동묘지 있잖아요. 고 저 미래환경 고 옆에, 옆이로다 해가지구, 요렇게 해서 우리 동네 그 창덕골루 해가지구 서낭당으루 해서 신의주 철도가 백여 있어요. 지금두. 철도 부지가.

아 어떻게요? (지도를 보며) 공동 묘지가 여기잖아요?

공동 묘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욜로 해서, 이 뒤, 요렇게...

여기가 창덕골이죠. 이 골짜기. 저수지 있는 데.

이거 저수지가 지금 여기 아니요? 저수지 앞에로다가 이렇게 철도 부지가 지금두 백여 있는 거예요. 이건 현황 지도지만은 지금두 철도부지가 4m인가 몇 m로 백여 있어요. 국유지로다가.

국유지로요? 넓이 4m로 해가지고요?

응 응. 그게 왜 그런가 하니 노인네들 얘기가 그전에 신의주 가는 철도 부지를 거기서, 이 송탄서부텀 인저 이렇게 똑바루 인저 거기 와가지구 인저 저 신의주까지 여기서 가는 게 쓰리엠 있는 데루 해서 그렇게 철도 부지가 있었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우리 사는 서낭 밑창에 거기에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대. 사고가.

서낭당이 어디쯤 어디쯤 돼요? 여기 여기 체육공원이 있고, 여기가 지금 길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넘어갔던 거 아녀. 그러면 요게 체육공원 아니요. 요기쯤. 요기쯤 요쪽으로. 요 요 요기쯤 그 산속에...

여기 지금 묘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태준) 이게 저기 아니에요 그러면

(차상석) 헬기장 알아요? 혹시 옛날에 헬기장. 그 산꼭대기 헬기장.

잘 모릅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나요?

지금은 흔적 없어졌을 거예요. 헬기장 밑창이 바로 서낭이었었는데. 그게. 그 산 꼭대기.

그 헬기장은 무슨 헬기장이었어요?

아 미군 애들이 저기 가지구, 고기서 인저 정찰해구 뭐 하구 그래면 내릴 수 있는 헬기장을 고기다 맨들어 놨던 거걸랑.

산 꼭대기에요?

예. 옛날에.

그 헬기장 바로 아래가...?

예.

그러면 길 바로 옆이니까 한 여기쯤 되겠네요?

(차상석) 그 정도 될 거예요. 고 정도. 지금도 옴푹 패져가지고. 옛날엔 그게 무지하게 깊었어요. 돌 떠가서. 다 메꿔져가지구 저기 된 거지.

그러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사리 쪽에 속하겠네요?
예. 그렇죠. 사리, 사리 번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우리 동네 그 저기여... 서낭당.

거기서 뭐 이렇게 제 지내고 이런 얘기는?
옛날에는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두 그렇구, 옛날에두 그게 서낭을 그 돌을 다 떠갔어도 오산장엘 갔다 오다가 보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었다구. 그 위에. 초입에다가.

어르신 어렸을 때도요?
응.

여기는 마을을 옛날에... 마을을 어떻게 불렀어요? 옛날 어떤 동네 가면 윗말, 아랫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여긴 내리.

그러니까 한 마을을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윗말, 아랫말. 동쪽말, 서쪽 말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동네는 건넌말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저쪽을 부를 적에는. 동네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어. 지금 자네가 사는 데 고기 너머는 건넌 말, 그쪽에서 또 우리 쪽으루다가 건넌 말.

아 서로?
서로 건넌 말. 이 가운데 논이 있어, 저 논이 있었어가지구 고걸 건너야 된다구 그래서 건넌 말.

아 이쪽은 저쪽 건너, 저쪽은 이쪽 건너?
응.

그러면 면사무소 있는 데는 뭐라고 불렀어요?
건넌말이예요. 거기두. 이쪽 사람들이 부를 때는.

면사무소 있는 데, 요 앞에 이쪽에 민가들도 좀 많이 있었나요?
여기는 별루 없었어요. 옛날에는. 몇 집 안 됐었어요.

가게집 이런 것만 있었어요?
예. 그냥 술집하구. 허허허.

어르신 어렸을 때 저 학교 앞에 가게는 몇 개나 있었어요?
가게... 애들 그 저 뭐야 문방구 비슷한 게 있었던 가게요? 최고 있던 게 2개지요. 잘 됐던 게.

잡화도 팔고 뭐 그랬던 거죠?

(차상석) 잡화두 팔구. 뭐 이것저것 뭐 하다못해 막걸리, 고무신두 팔구. 하하하.

(홍태준) 80년대인가요 다방이? 90년대인가요? 다방 들어왔을 때가?

(차상석) 여기?

(홍태준) 예.

(차상석) 80년도일 거여. 다방 들어왔을 때가.

그니까 잡화점, 술집, 이런 것만 있다가 80년대에 인제 다방도 들어오고요?

예.

초창기에 다방은 누가 다녔죠?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차상석)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방에 오는 거지. 여기 저기 본토백이들은 안 해요.

(홍태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인어른이 좀 거기 몇 번 갔다고 그랬는데...

(차상석) 에이, 그거는 다방 생긴 제 후구, 백성다방이었을 때구. 그거는 저 그게 뭐여 저기 속리산, 속리산에 살, 고향이 속리산이여. 그 여자가.

처음에 다방 했을 때요?

아니, 아니요. 그 후루 다방 다른, 또 했다가.

차종화(남, 1937년생) 금암2리 안말 거주

날 짜	2023년 8월 13일
장 소	금암2리 경로당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안말 노인회장



몇 년생이세요?

37년. 나이가 좀 줄어가지고, 한 두어 살 줄었어요. 옛날에는 호적을 늦게 출생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37년이 호적?

원 36년생이지.

어르신은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죠.

여기 금암리에 차씨들이 몇 집이나 사나요?

그전에는 한 열두어 집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여섯 집인가? 전부 떠났어요.

금암리는 차 씨 말고도 송씨도 있고, 여기 송씨하고, 조 씨도 있죠?

조씨, 조씨도 인저 또 파가 다르지.

조씨도 2개 집안이 있어요?

순창하고.... 그 하나가 어디 조씨라고 그러던가? 두 저기여, 거기도.

그 어느 집안이 제일 먼저 들어왔대요?

글쎄 그거, 그러게. 하하하. 그게 얘기,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차씨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확실한 걸 모르겠어요.

회화리에서 먼저 살았어요? 금암리에서 먼저 살았어요? 차씨들이.

차씨들이? 그것두, 그것두 자세히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신 거는 없었고요?
예. 그 산소는 여기, 지금 이 선산이 여기거든요. 여기 면사무소 요쪽, 여기 바로.

아 면사무소 뒤요?
예. 근데...

여기 금암리하고 회화리 차씨네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 여 학교 뒤하고, 이게 우리 집안 선산이여.

지금 노인정 앞에 저 건물 서 있는 거요?
예. 이것두, 아니, 여 여 학교 뒤 여 울타리 있어요. 이거 하고 여기 면사무소 뒤에 교회 뒤. 다 이게 우리 선산이예요.

그럼 여기는 결국 파셨겠네요? 여기 학교 뒤에?
아니요. 그 창고는, 그거는 인제 우리 저기서 지은 거지. 차씨네서.

저 뒤에, 저 건물 뒤에? 커피숍 건물 뒤에 창고요?
예. 그래.

선산이 초등학교 뒤하고, 면사무소 뒤. 여기는 지금 그러면 창고 하나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창고만 지어놓은 거지. 그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있지.

그러면 집안이 부자시겠어요?
뭐 부자여. 하하하.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몇 대조 할아버지가 제일 높으세요?
글쎄 그거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어르신은 옛날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러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우리 동생은 잘 나갔는데.

어르신은 왜 안 나가셨어요?
아이 그때는 살기도 어렵구. 참 어려웠었어요. 살기가.

어르신은 몇 형제 중에 몇 째세요?
그 장남이여. 저기 5형제 중에.

그러면 더 힘드셨겠네요?

아이 고생 많이, 참 오늘 이때까지 시골서 농사짓고 이적 살았는데, 진짜 고생 많이, 내 이 부락에서도 내가 고생 제일 많이 해구, 워낙 조상 때부터 없어가지구, 할아버지 때부터 없어가지구 고생을 내가 많이 했어요.

어르신은 36년생이시니까, 이 들판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요 요기 들판두 잘 알지.

금암리 사람들이 자작이 많았나요 소작이 많았나요? 옛날에.
소작이 많았었죠. 소작두 남의 땅 많이 해고 살았지.

지주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왜정때 그 지주인데... 지주, 그건 모르죠.

서울 사람 땅이 많았나요?... 아니면 일본 사람들 땅이 많았나요?
일본 사람들 땅이 있었죠. 일본.

저기 지금 칠성 고분자 자리에요. 그 금암1리 쪽에. 거기 일본 사람 살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고분자, 그 그렇지. 알기야 알죠. 그 왜정 때 고기 지금은 그 다리로 놨지만 그전에는 배 타고 건너댕겼어요. 우리가. 왜정 때.

아 거기 배 타고 건너 다녔었어요?
그 냇갈.

나무다리 같은 거 안 놨었어요?
그때는, 나 어려서 조그마서는 없었지. 나무다리두. 이렇게 저기지 인제 저 징검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다리발 세워가지구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 살에 다리 놔가지고. 그걸 무슨 다리라고 그러나?

섶다리.
섶다리.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다리 해가지고...
그렇지.

다리 위에 또 나무 대가지고
예. 떼 입히구 이렇게

떼 입히고 흙 깔고.
흙 깔고.

그게 넓이가 사람 하나 지나다닐 정도 됐어요.
그렇지. 처음에 그렇게 해다가 또 인제 이게 넓어지니까 배, 배도 인제 하나, 한 대. 배 하나.

그러면 그 다리가 먼저 있었고.
그렇지 그거 인제.

다리로 다니다가 이게 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인제 배로 다녔어요?
그렇지. 배로 다니고.

그럼 노 젓는 배였어요?
그렇지 노 젓는 거지. 이렇게 저기 배에 이렇게 사람 타고서 노 젓는 거지.

그럼 배 하나인데 내가 건너가고 싶은데 배가 저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 이게 넓지는 않았지.

거기가 깊었어요?
깊었지. 그러니께 배로 댕긴 거지.

걸어서는 못 건너다니는 거였어요?
못 건넌 거지. 그러니까 배로 건넌 거지. 못 건너고.

그러니까 인제 배 하나인데, 배가 저쪽에 있으면 뭐 끈 같은 거 매놨나요?
아니 그쪽이 아니고, 주로 이쪽으로. 지금 저 고분자 거기 사는 사람이 그거 배를 부렸으니까. 밤낮 인저 사람 실어다 놓으면 또 이렇게 이쪽에다 매구. 고분자 자리 쪽으루.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인제 소리치면...
그렇지.

그게 왜정 때였어요?
왜정 때.

그럼 뱃삯도 받았겠네요? 한 번 건널 때마다?
그때 그 뱃삯은 뭐 우린 애들 조그맣었으니까, 뱃삯 같은 거는 어른들 따라서 댕겼으니까 몰르지 뭐. 하하하...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뱃삯을...?

아마 줬을 거여. 그전에 그 회화리두, 회화리두 저 야리 그 구장터, 아이 저기로 댕길래면은 남부 저쪽으로 댕길래면 배 타구 댕기구. 회화리도 그랬었잖아.

그 배는 누가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거기도 저기요. 저기 부락에서 가을에 얼마 주기로. 삯을. 보리 때 되면 보리 주고, 추수 때면 저거 벼 때면 벼로 얼마씩 이렇게 부락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 외부 사람들은 타면은 얼마씩 주고. 배삯을.

그 배가 어르신 몇 살 때까지 있었어요

모르죠. 하하하. 배만 부렸다는 건 알고, 뭐 몇 살까지 해는 그건 모르죠.

칠성고분자 자리 일본 사람 보셨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여 저 오산 부산리라고 저 부산리. 글로 이사 간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그리 이사 갔다고. 근데 거기, 그 사람이 어디서 이사 온 건 몰러. 그 사람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일본 사람들 그 집을 지었었다고.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그러면 일본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몰러. 우리는. 하하하.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이 오산 부산리로 이사 간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살았나요?

그렇죠. 아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 시대, 왜정 시대 끝 무렵에는 일본 사람이 없었네요? 거기?

해방 되고선 인저 다 철수했어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그러니께 철수핸 건 아는데, 누가 일본 사람들인지는 그건 모르지... 그 사람들이 살었으니까. 일본 사람, 고기 살던 사람이. 그때 거기서 살던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건 몰르구, 그때 해방되구 바로 그 사람들 다 쫓겨 나갔으니까.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방되고 그냥 쫓겨간 거예요?

그렇죠.

그 해방되고 나서는 그럼 누가 살았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살았대니께.

부산리로 이사 간 사람이?

응.

그 집이 어땠어요 그 집이 컸나요?

그 일본 사람들 집 모냥 그렇게. 저기, 그걸 뭐 어떻게, 일본 사람들 집이 그거 왜 짓잖아요. 그러식루 그렇게 졌다구.

아 일본식으로?

그 새망당인가 뭐 그것두 해놓구. 그 사람들 뭐, 하하하.

아 새 둥지요?

응. 그것두 해놓구. 밤낮 기도해구 그랬다구. 그 사람들. 거기다 건물 있는 그... 건물은, 그런 것두 안다구.

건물 색깔도 이렇게 까만색이었나요?

저런 색깔이었어. 저런 색깔.

아 저 창고, 회색깔.

응. 근데 이렇게... 근데 자세히 모르겄어요. 워낙 오래돼서 뭐.

우리나라식 집은 아니죠?

아니지.

일본식 집으로?

예. 일본식으루 진 거여.

집 규모도 굉장히 컸겠어요?

아이 조그맣었어요.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

울타리는 뭘로 했었어요? 그 집이?

울타리두 생각 안나요.

그 집은 언제 헐어졌어요?

그 모르지 뭐. 언제 헐었는지.

언젠가 보니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지고, 인제 그 사람들 떠나고 없어진 거지.

그 옆에 북바위 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컸다고 그러던데요?

응. 근데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지 뭐.

그 바위를 깨다가 저기 둑방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회화리까지.
　그 바위를 깨다가?

예. 밑에.
　아닐걸? 몰러 그거는.

그 바위에 전설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르신 아시는 거 없으세요?
　없어.

어르신 아버님은 일제 시대 농사는 얼마나 지으셨어요?
　글쎄 남의 농사만 인제 짓구, 그 우리 농사는 얼마 안됐었어요. 내가 알기로.

우리 농사는 얼마쯤 됐어요?
　한 댓 마지기 이렇게.

여기는 150평 한 마지기인가요?
　그렇지. 150평.

그때는 뭐랄까 도지도 그렇게 싸지 않았죠?
　도지두 아유 그때 왜정 때 남의 농사 지어야 저기여 다 해구... 남의 농사 짓기는 또 남의 농사 좀 지었죠. 남의 농사. 이거는 우리 고거 땅이구.

예. 댓 마지기는 인제...
　우리 땅이구. 나머지는 인저 남의 땅.

그러면 도지 줘야 되잖아요?
　도지 주는 거지.

그때는 얼마나 줬어요? 왜정 때는?
　도지를, 그러니께 농사짓는 사람들은 별로 차지 못했어요.

그냥 도지로 그냥 다 줬어요?
　도지루 다 주구, 고기서 얼마 주고 그랬는데 인저 그때는 부모들이 받었으니까. 도지를. 나는 자세한 건 모르지.

여기 마을 두레 있었잖아요?
　농악이요.

두레는 여기가 컸었어요.

예. 두레 우리 부락이 컸었어. 아이 그리구 여기 부락마다 다 있었죠. 두레... 20개 부락이 있었는데, 그때.

서탄면에 20개 부락이 있었는데...

예. 웬만한 부락은 다 있었어요. 농악.

두레싸움하고 그러면 어느 동네 두레가 세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리하고 여 저 회화리하구 지금도 저기 해는데, 우리 부락이 그 상두 타구 그랬어. 평택시에 가서.

평택시에 가서요?

응. 내가 이장 볼 때지. 그때 72년돈가, 그때 1등해서 상도 타구. 하하하.

이장 할 때?

내가 3년 봤어요.

이장 3년이요? 72년부터요?

71년도, 72년도, 73년도. 이렇게.

그때 농악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평택시에서요?

1등두 해구 그랬지. 2등 두 번 했나? 그리구 1등 한 번 해구.

그때는 농악도 잘 됐겠네요?

아아 잘 됐죠.

논매기 할 때는 안 했어요?

논매기도 해지.

그러니까 논매기 할 때 농악 이렇게 나가서...?

가지고 나가서 들에 갖다가 깃대 꽂아놓구. 그리고 인제 막 치구 나가서 논 같은 거 이런 거 매구 그랬어.

그러면 구성이 그 상쇠 있잖아요?

예?

상쇠 1명.

예. 상쇠

부쇠도 있었어요?
부서도 있었죠.

상쇠 하나 부쇠 하나 그다음에 인제 징도 한 명이 있나요?
그렇죠.

장구 한 명 있고요? 한 명씩이죠?
그렇죠.

법고잽비는 몇 명 정도 나갔어요?
버꾸잽이두 일고여덟 명 됐죠.

그때는 인제 논매기 여러 집 하잖아요. 뭐 하루에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집 논매기 할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저 농사 많은 집이 인제 주로 댕겨...

아 농사 많은 집에요?
농사 많은 집.

그러면 나가서 일할 때는 깃발을 꽂아놓고 전부 다 일만 하나요?
그렇죠.

한 사람 이렇게 선소리하고...?
아 그건 인저 벌초해고 나면은 인저 한 사람이 그 북재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저 정고를 울리지. 다 했다고. 허허허.

한 번 나갈 때, 그 논매기 할 때 이 두레가 나가면 일꾼들하고 두레패하고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나가요?
농사 뭐 적은 집이나 많은 집이나 인저 이렇게 몰아서 그전에는 해주구 그래서, 한 열댓 명 될 때두 있다구.

일꾼하고 이렇게 두레패하고 한 열댓 명 정도요?
응.

좌상은 없었어요?
좌상두 있었죠.

좌상도 논 매요?

아유 그러면, 그때는 다 맸죠. 허허허. 안 매는 사람은 인저 거기 참여를 안 허지. 노인네,

그럼 인제 동네에서 이렇게 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은 안 하셨어요?
아 나두 좀 했지요. 상쇠 좀 했지. 나두

아 어르신 상쇠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가락도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하하하.

인제 가면 깃발 꽂아놓고 그 논매기 하고, 논매기 끝나면 다 인제...
인저 북잽이가 나와서 정고를 주지. 끝났다고.

일 끝나면?
일 끝나면. 북으로 정고를 울리지.

그게 인제 일 다 끝났다는 표시인가요?
예. 그렇죠. 논일은 인제 끝났다. 다른 데로 갈 거다 인제. 그렇게.

그래서 어느 벌판으로 갈 거다?
그렇죠. 어느 벌판으로, 누구네 논으로 갈 거다. 또 식화주가 있어요.

예?
식화주라구. 근데 그 사람이 누구네 일, 누구네 일 갈거라는 걸 그 사람이 아는 거지 인저. 장부 이렇게 적어가지구 인저, 그렇잖어 하루 일 핼 사람.

누구네 일하고, 얼마 일하고, 몇 마지기 일하고, 이런 걸. 그 사람을 식화주라고 그래요?
식화주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식화주

식화주, 이 사람이 안제 장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께 인제 장부 정리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사람이 누구네 일 갈 거다 누구네 일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 일할 내용들을 전부 다 적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인제 그렇게 일을 다 끝나고 나면 식화주가 정리해가지고 뭐 일 많고 적고를 이렇게 인제

정리하겠네요?
그렇지. 인저 누구네, 내일은 인저 누구네 일 할 거다 누구네 누구네 어디 인제 핼 거다. 일핼 거다. 인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도 같이 일해는 거여 또. 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일종의 일하는 게 품앗이잖아요?
품앗이지.

그럼 나중에 끝나고 정산을 하겠네요? 누구네 일은 한 마지게 한 사람도 있고, 누구네 일은 뭐 열 마지기, 스무 마지기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인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모르겄네. 돈을, 서로 금전 왔다 갔다 그건 안 했는데 어떻게 핸 건지 모르겠네.

그때 뭐 같이 두레로 나가지만 농사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적은 사람한테 좀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품삯을?
그때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잘 모르겄습니다. 돈을 준 건지. 누구네 몇 마지기 해는데, 내일 몇 시까지 거기 가야 된다 인제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거 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거.

이웃 마을하고 두레싸움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했지요. 그런데 그 싸우는 건 서로 인제, 뭐 약한 부락은 못하구, 주로 인제 우리 부락이 소재지니까, 회화리하구 우리하구 많이 그걸 했어요.

두레싸움을요?
그래서 징두 뭐 깨졌다구 그러구. 징 치는 거 있지? 큰 거. 그것두 깨졌다구 그러구. 뭐 어른들 그전에 그렇다구. 장구도 부서지구. 하하하.

두레싸움하다가요?
두레싸움 해다가. 하하하.

두레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못 봤는데, 그 싸우는데, 들에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둘레 싸움하는 걸 못 봤지만?
그렇지. 얘긴 들었어요... "어저께 뭐 이렇게 싸워서 징이 깨졌다." 뭐 그런 얘기들 해구.

주로 회화리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여기 회화리하구 우리 부락하구. 원래 회화리가 그전부터 컸거든요. 그 회화리, 호수가 많었지.

금암2리는 어르신 어렸을 때는 몇 가구나 살았어요?
대략 그때 아마 한 40가구.

그리고 인제 논의 다 끝나고 들어올 때 치는 거죠?
예. 그렇죠. 두들기면서 들어오는 거지. 하하하.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한 판 놀고 그랬나요?
아이 저 피곤해구 힘들구 그래니까. 그냥 뭐 또 저 있는 집이는 또 가지 말고 막걸리도 한 잔씩 또 하라구 그래서 그때는 또 한마당 또 놀고. 있는 집이. 그전에도 잘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술 내구 그러면 한바탕 놀고 인저 한잔씩 또 먹구 그러구 헤어지구 그랬죠.

그렇게 잘 사는 집이 몇 집이나 됐어요?
그때 그렇게 밥 술이나 먹는 집이가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여섯 집, 일곱 집. 한 일곱 집 됐어.

이런 집은 집도 기와집이었겠네요?
아이 그때는 기와집, 초가집이지 전부. 초가집.

전부요?
그럼요.

여기 금암2리는 새마을운동 전에 기와집은 없었어요?
기와집이... 없었어요.

기와집은 없었고요?
응 전부 초가집이지.

그 두레패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하나지.

그러면 인제 마을에서 그러니까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논매기는 여기저기 많이 맸잖아요?
예.

여기저기 많이 매는데, 제일 많은 데에서 그 두레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서?
아니 그날 그냥 일해러 나가면 그냥 농악을 가지고, 우선 가지고 나가는 거야 농악을. 뚜들기구서 나가는 거여.

그럼 동네 사람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모여서 허는 거지.

뭐 거기에 가입 안 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예. 그렇죠. 인저 저기 늙어서 못하구 그러는 사람은 인저 혼자 조금씩 해구 그러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략 전부 저기했어. 농악에 들어갔어.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남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저기를, 품삯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자세히 몰르겄네.

저기 그러면 인제 그날 갑돌이네 논도 매고, 울순이네 논도 매고 막 여러 논을 매잖아요. 그러면 점심하고 새참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인저 농사 많는 사람이 그, 주로 거기 가서 먹지 인제.

농사 많은 사람이요?
농사 집에서.

들판으로 이렇게 내다주는 거예요?
그렇지. 내다. 인제 아주머니네들이 이렇게 이고. 광우리에다 해서 이고. 들에서 먹는 거지.

그러면 인제 아침 먹고 모여서 나가는 거죠? 각자 집에서?
그럼.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하다가...
뚜들기구 나가는 거지.

새참 먹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새참 먹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제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근데 저녁은 인제 주로 각자 가서 먹었지. 인제 있는 집이는 막걸리 한 잔 있으면 막걸리 한잔 대접해구 그러면 농악 한번 놀구, 그리구 또 막걸리 먹구 각자 헤어지구 그랬지.

그 논 매기가 힘들었죠?

아 힘들었죠.

여기 논은 몇 번 맸나요?

애벌 매고, 두벌 매고. 그리구 인저 훔쳐주는 거지.

보통 모내기 하고 며칠 만에 애벌미기예요?

한 10일, 10일? 한 15일.

15일 후에요. 애벌매고 두 벌은 애벌 맨 다음에 또 한 열흘 있다가 매나요?

예. 한 열흘 있다가.

두벌 매고 며칠 정도 지나서 또 훔치기를 해요?

그것두 한 15일. 인제 풀 많은 집은 일찍 해주구, 풀 없는 집은 인제 늦게 해주구 그렇지.

이게 훔치기까지 다 끝나면 한 말복쯤 되나요?

그렇죠. 인저 훔쳐주고 그러면 인저 말복쯤 되지.

그 훔치기 다 끝나고 인제 말복 지나면 조금 한가하겠네요?

그렇죠. 인저 한가하지.

그 한가할 때는 뭐 해요 인제?

한가핼 땐 인저 뭐 밭일 인저 또 밭일이 있지... 밭에 인저 콩 심은 거. 콩이 인저 보리 베고 콩을 심거든. 인제 훔치기 끝나면 인제 보리 또 그때, 그 무렵에 보리 비게 돼요 또.

보리는, 보리는 일찍 벴잖아요?

아니 5월 달에.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보리 베잖아요?

그러니까 모내기...

예. 모내기 끝나고 보리 베고.

보리 베고 콩 심고. 보리 베고 바로 콩 심잖아요. 거기다.

보리베고. 밭에다가?
응. 밭에다.

여기 논에다가는 보리 안 심었죠?
안 심었지요.

보리 베고 콩 심고. 주로 콩 심어요?
팥, 콩, 수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심었잖아요? 논매기 하기 전에 다 심었잖아요?
그렇지 인저. 아니 보리는 인저 가을에 심는 거니까.

그러면 인제 추수할 때는 또, 벨 때는 또 전부 다 인제 품앗이로 같이 가서 벼 베는 거 하는 거예요?
벼 베기? 그렇지. 품앗이지. 그때는 전부 품앗이 했어.

벼는 베가지고 논에다 까나요?
그때 깔구, 모둠 모둠 이렇게 놓구 그래서 말려서 저기 묶구, 묶어서 논에서 쌓아서 거기서 실어다가, 실어서 탈곡했지.

인제 깔아서 말려가지고?
응. 말려서...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모둠, 한 모둠 이렇게 놨어...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저기 세 주먹씩.

세 주먹씩 묶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묶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둠 모둠 놓나요?
아니 모둠 모둠 놨다가 그 볏짚이루 또 묶는 거여. 그 비어놓은 거를.

인제 나중에 볏단으로 묶어서...
그렇지. 볏단으루 묶어서.

볏단 묶어서 전부 다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인제 자기네 거 인제 자기가 실어오는 거지. 마차로 실어오는 사람은 마차로. 소로 실어오는 사람은 소로, 지게로 져오는는 사람은 지게로.

소는 어떻게? 길마 같은 거...?

소는 길마. 응. 거기다.

와가지고 인제 집에서 타작 하는 거죠?
집에서 타작 허는 거지. 쌓아 놨다가 인제 가을에, 늦가을에.

옛날에는 그네로 많이 타작을...?
그네로 해구, 궁글레통. 이렇게 밟어서 허는 거.

궁글레통은 뭐, 집에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저 잘 사는 사람만 있고. 그네는 다 있구.

공글레통 빌리면 얼마 정도나 줘야 돼요?
그거요? 글쎄 그거 뭐, 일두 하나, 하루 해주구선 빌린 사람두 있구. 그리구 주로 그네루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는, 공굴레통으로 하다가...?
콤바인으로 했지.

그때는 농기구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잖아요?
달랐죠.

그 쟁기...
써레, 쟁기, 그런 것들.

농기구가 쟁기하고?
써레.

그 다음에 논일 할 때는, 논일 할 때 쓰는 거는 뭐 삽도 썼나요? 논일 할 때?
삽을 많이 썼어요.

삽은 어떤 데 쓰나요?
삽은 논두렁 안그고 그럴 적에.

논두렁 만들 때요?
만들 적에.

괭이는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하여튼 삽을 많이 썼어요.

그 밭일에는 쟁기로 갈고... 쟁기, 호미죠?
쟁기, 호미.

괭이. 괭이도 밭일에는 썼나요?
밭일은 썼죠. 괭이 써야지. 밭일은. 호미, 호미하고 괭이하고는 밭에서 많이 쓰는 거지.

그때는 이렇게 다 손으로 하니까 힘들잖아요. 머슴도 또 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농사 많은 사람은 인저 머슴 뒀지요. 혼자 못해는 사람은.

몇 마지기 정도 하면 머슴 둬야 됐어요?
한 20마지기 되면 머슴 뒀다구.

아 20마지기 이상 되면?
응. 150평에 20마지기.

어르신네는 옛날에 인제 한 다섯 마지기 정도 하시고 남의 땅 또 빌려서 좀 농사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토지 분배될 때는 좀 받으셨나요? 농지 개혁될 때?
예. 그때두 남의 농사래두 많이 지었으면은, 상환을 부어 나갔으면 농사두 차지하는 건데, 그 우리는 모르죠. 아버지 적에 그 왜정 때 이 박사, 이승만 박사 했을 적에 그 배당받았거든. 자기가 농사짓던 거 전부 상환 부어 나가가지구 자기 농사 만드는 거 아녀? 그런데 그거 아버지가 좀 똑똑해시고 저기해구 그랬으면 그걸 해는 건데, 뭐 그때 곁방살이, 남의 집의 곁방살이 하다시피 했으니까, 집도 없구. 그러니께 그걸 해질 못핸 거지.

그러면 농지 분배 받을 때도 별로 받지를 못하신 거네요?
내가 내막을 모르지. 아버지가 핸 거니께.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는지는 어르신은 인제...?
몰르지.

어르신이 6.25 났을 때가 한 14살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한 13살.

해방됐을 때는, 그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해방됐었죠?
그렇죠...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서, 댕기면서 해방됐으니까.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두 살기 어려운 사람은 학교두 일찍 못 들아갔다구. 하하하. 그래 늦게 들어갔어.

어르신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9살인가, 10살인가 그때. 9살. 9살 때 들어갔지. 원은 7살에 들어가는 거 아녀. 근데 9살. 두 살 늦게.

9살에 입학하셔가지고. 그 서탄초등학교 몇 회세요?

18회. 그 내 원 동갑내기들은 17회, 17회지.

그러면 1학년 때 해방을 맞으셨어요?

그렇지. 왜정 때 1학년 때.

그때 이 서탄초등학교에 일본인 선생님도 있었나요?

그 있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구 인저 말두 이렇게 일본말 안 해구 한국말 해면... 근데 그때 가서 저기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구선 사무실에 가서 무릎두 꿇구. 일본 말을 안 한다구. 하하하.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일본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니께. 그래두 그전에 그렇게 그냥 말을 해면은 그렇게 일본 말을 못해잖아요. 우리가. 갖다 이르면 인제 사무실에 가서 무릎 꿇구 앉었다가, 너 다음부터 주의허라구, 일본말루 해라구 그러구. 일본 말을 핸 줄 모르는데도 그냥 강제루...

1학년 때도요?

1학년 때 그랬다구. 우리.

그럼 어르신도 가서 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무릎 꿇구 한 두어 시간씩 이렇게 무릎 꿇구 앉구. 사무실에서. 저 뭐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복도요?

복돈가? 사무실 앞에 그 선생들 드나는 데. 거가 무릎 꿇구 앉었어.

무릎만 꿇어요? 손도 들어요?

아이 손은 안 들구. 아이 그것두 한 두어 시간 하고 있으면, 일어나서 걸을라구 그러면 못 걷겠더라구. 하하하.

근데 이렇게 막 벌 주려고 그럴 때는 한국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한국말로, 저는 한국말로 해면서 일본말 안 핸다구 지랄해구 그랬어. 근데 그 일본, 그때는 그 일본 애들은 없었어. 전부 한국 애들이지... 근데 인제 서로 대화를 해두 일본말을 섞여서 이렇게 해라 그거지 인제. 아 순전히 일본말만 해라는 게 아니구.

그러니까 아는 거는 일본말로 해라?
그렇지.

배운 거는...
배운 거... 핵교 책은 저 일본 말로 배우니까.

뭐 노트, 이런 거는 배웠으니까, 배운 거는 일본말로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배웠는데도 그걸 한국말로 하면 가서 일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일르지.

해방될 때는 인제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뭐 국가 찾았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나는 분위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예. 본 장면. 뭐 마을 분들은 어땠어요?
그때 해방 때 됐다고 해가지고... 응. 그때 이런 거 있었어요. 해방되니까 그전에 저 여기 그 새끼, 새끼를 기계로 그 새끼 틀을 맨들었거든. 기계루. 근데 그거를 여기 면사무소 창고에다가 잔뜩, 이빠이 그냥 쌓아놨었어. 근데 그거 죄 그냥 해방됐다구 그러니까, 다른 거 저기는 없구. 그거들 가져가느라구. 그 나두 한 트랙 가져왔지만서두, 그것들 죄 가져갔어.

새끼 꽈놓은 거요?
예. 해방되던 해에. 뭐 별별한 건 없고. 그거만 가져간 거 알어.

새끼를 손으로 꼰 게 아니고...?
기계로 꼰 거지.

기계로 꼰 걸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놓은 걸?
그렇지. 동그랗게 핸 거... 그거 인저 막 아무나 가져갔다구. 그때. 해방됐다 해니까 인저 그거. 여기 뭐 가져갈 게 뭐 있어.

그때 면사무소 창고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 새끼는 누가 꼰 거예요?
글쎄, 그건 몰러요. 거기가 이빠이 쌓였더라구. 한 가득.

손으로 꼰 게 아니고 기계로...
기계로 꼰 거.

그 기계로 꼰 새끼는 좀 약하잖아요?
아니요. 튼튼허지 기계로 꼰 거.

그때 인제 그거 하고, 또 다른 장면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다른 장면은 여기...

사람들 만세 부르고 좋아했다든가?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인제 라디오 있는 집이, 여기두 라디오 있는 집이 인제 그 저 항복해는 거, 그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거?
항복하는 거. 그런 건 인저 듣고 그랬지... 인제 모여가지구.

동네 라디오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라디오 있는 집이 한 서너 집은 있었어요.

당시에요?
예.

그때 라디오 오면 되게 비싸잖아요?
비쌌지. 그러게 있는 집만 한 서너 집이 있었어... 그래 라디오 소리두 들으러 가구. 저녁이면 그러구 그랬지.

그 항복하는 그때도 뉴스도 듣고 그랬겠네요?
아 그 뉴스도 나왔지. 이렇게 뭐라고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지금두 귀에 쟁쟁핸데, 나두 들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막 인제 듣고... 그때 어른들 표정은 기억 안 나세요?
아이 뭐, 하여튼 해방됐다고 좋아하는 기색이었어.

그리고 인제 또 5년 있다가 6.25 나버렸잖아요?
그래요. 6.25.

전쟁 때는 어르신 인제 나이 좀 들었을 텐데, 들었을 때잖아요. 한 국민학교 5학년 때쯤 되나요?
그때 그렇죠. 5학년.

그때 그 어르신은 전쟁 났다는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 뭐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글쎄 뭐 별안간에 얘기를 핼라니께 생각이 안 나는데, 아유 그때 참 무서웠어요. 나두 사람두 많이 죽이는 것두 보구.

많이, 그런 일이 좀...?
아유 그놈들 끌어다가 그냥 패, 그니께 이 저기 빨갱이라구 그래나? 빨갱이두, 그 사람들이 사람 죽였지. 그 사람 죽였다구 그래서 또 여기 수복 수복되구 나서 또 죽였지. 그때 조그마서 어려서 저기니까 그 죽이는 것두 가서 구경, 그때 그거 뭐 구경이라구 했는지 구경두 해구 그러구 그랬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아유 뭐 말 못 해겠어.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때려서 죽이구 그...

뭐 칼로 찌르기도 하고...?
응. 아...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녀.

그럼요?
그 여기 있지, 집이 있어요. 그 집하고, 지서 옆에 거기 구뎅이를 가서 파놨다구.

지금 지서 있는 데요?
응.

그 자리가...
그 인저 건물이, 다 인저 건물 들어섰지.

지금 지금 파출소 있잖아요. 그 자리가 옛날부터 파출소 자리예요?
그럼. 파출소 자리지.

그 지서 옆에요?

응.

그 농협 쪽 말고 이쪽으로?
그렇지.

거기다 구덩이 파놓고 그냥...?
그럼. 그래서... 아유, 아유, 그 얘기 인제 해지 말아야지.

한 번 죽일 때 막 인제 대여섯...?
한 번이 아니지. 인제 몇 번 끌어다가 죽이지... 인저 맞았겠지.

아 한 사람씩 이렇게 끌어다가?
응.

아유 참 끔찍한 얘기죠?
아유 진짜 그런 저기 없어야지. 아유...

여기 서탄초등학교 우물에는 뭐 죽은 사람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혹시 그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거는 몰러.

그럼 지서 옆에 거기서 많이 죽였어요?
응. 지서 옆에.

아니 거기 집이 있었을 텐데, 그 집에서..?
집 없었지. 그때는.

아 그때 거기 공터였어요?
공터여. 그쪽으로.

그러니까 파출소가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서 인저. 길 옆에 바루.

여기 길이 있고 여기 파출소가 있잖아요. 파출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쪽 쯤 되나요?
그렇지. 응.

그럼 시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몰러. 그 사람들이 인제 처리했겠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몰르지. 끌구 가는 것만 봤어.

어려서.

어르신은 피난 안 가셨어요?
6.25 때? 한 일주일 저 저쪽으로 피난 갔다 그 한 일주일, 그 이모네.

이모네?
이모네로 갔다 왔지. 하하하.

이모네가 어디...?
저기 양감면... 대양리... 거기 이모가 살었다구. 예전에.

거기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그렇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럼 온 가족이 다 갔을 거 아니예요?
예. 다 갔죠. 근데 그때 우리 갈 때 거기 한참 후퇴할 때여. 후퇴할 때, 6.25 때.

처음 전쟁 나서 간 게 아니고 후퇴할 때 갔다고요? 1.4후퇴 때?
아니 전쟁 나서. 그니까 두 번인가 갔어요. 그쪽으루.

그러니까 6.25 나서 한 번 가고?
가고. 1.4후퇴 때 한 번 가고. 두 번 간 거지.

두 번 다 일주일 있다 오셨어요?
한 일주일 있었을 거여. 어려워요 또, 거기도 살기가 어려워가지구 얻어먹을 수 있는 것두 없어가지구 그냥...

갈 때는 뭐 여기서 쌀 같은 거 안 가지고 갔었어요?
가져갈 게 있어? 그때는 그냥 한 되, 두 되, 이렇게 팔어서 먹구 그럴 땐데.

그렇게 먹으니까 인제 저기 몸만 가신 거예요?
몸만 간거지 거. 가져가지두 못허구. 그래 거기두 가보니께, 거기두 항아리 닥닥 긁으니 먹을 수가 있어? 하하하, 그래서 도로... 하하하.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오신 거는 미안해서 오신 거네요?
예. 거기 저기, 미안해서 오는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구 그냥, 죽어두 집에 가서 죽는다구 그러구. 먹을 게 없으니께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구 거기 가면은, 거기서 갯벌 갈래면 한, 한 30리 가면은 그 갯벌이 있더라고. 대양리 거기. 거기 가서 거이(게)두 잡어다가 먹구, 맛도 잡어다 먹구.

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물 해가지구 국물 많이 해가지구 그거루 연명을 해구 그랬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거기가 비상도로, 군인들 그 대양리 그쪽으로 비상도로가 있더라구. 그 한참 그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랬는데 거기서두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또 거기서두.

대양리에서요?

응. 대양리, 그래서 그냥 피난민 뭐 할 것 없이, 아유... 부처내 그 지금, 부처내 그쪽으루 그냥 시체가 뭐 그냥 그땐 뭐 말두 못했어.

아 그 부처내요?

부처내... 부처내라구 있지 왜, 저기 내천리.

내천리?

응.

그 황구지천이요?

그렇지. 그게 황구지천으루 내려가는 거지.

내천리에요? 거기가?

거기 내천리.

그 내천리 부처내 쪽에 시신들이 많았어요?

아이 많았었죠... 그쪽으루.

그러니까 그 시신들이, 이렇게 군인들 전투하다가 죽은 시신들이...?

그래, 그 민간두 죽구. 군인들은 그냥 내려가는 것만 봤지. 군인 죽은 건 못 보구. 피난민들.

아 피난민들?

응.

피난민들이 뭐 폭격 맞아갖고...?

폭격 맞구 죽구.

군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인들 시체였나 보네요?
그렇지. 군인들은 거기 그 비상도로가 있더라구. 군인들 그... 그 사람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는 것까지 봤으니까.

어르신은 그러면 6.25 일주일 피난 갔다 왔다가, 여기서 생활했을 거 아니예요?
예. 생활했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교육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인민군들한테?
그전에 그 교육 저기 핸 거는 여기서 살 적에, 살 적에 밤이면 소집을 했다구.

아 밤에 소집해가지고요?
소집해가지구 한청 사무실이라구 있었거든. 우리 동네 가운데 저기.

한청 사무실, 그게 뭐 하는 데예요?
그 인민군 애들 거기 저기, 그니까 인제 지금 말하면 이 면사무소나 똑같은 거여. 거기서 사무 본 거여.

인민군들 본부 같은 데요?
예. 본부 같은 데.

한청 사무실이라고 그래요?
한청 사무실. 그때 한청 사무실이라구 그러더라구.

거기 일반 집인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 거기서 저녁이면 훈련받고 그랬지. 근데 한 20일? 한 20일 받고...

훈련을 받았다고요?
훈련을, 거기서 훈련도 가르키고 그랬다구.

뭐 군사 훈련 같은 거요?
아니. 제식 훈련.

어르신도 그 제식 훈련했어요?
나도 했지... 그때는 15살만 먹으면 저기 데려갔잖아. 걔들이 다.

의용군으로요?
의용군으로

어르신은 그때...?

13살인가 14살인가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갔지.... 의용군, 그 우리 부락에서 의용군 나간 그 형들은 저기여. 다 못 오구, 이산가족 만날 적에 한 사람, 거기서 만났었어. 우리도 부락에서 만난 사람 있어요.

15세 이상 끌려갔으면 많이 갔겠네요?

아이 그것두...

많이는 안 갔어요?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인제 한 몇 분 정도나 가셨어요?

한 대여섯 쯤.

아 5~6명 정도.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아이 한 사람이 이북서 산 걸 여기 이산가족 만나기로 해서 만난 사람이 있대니깨. 다른 사람들은 못 오구. 다.

그러니까 한 5~6명 끌려갔는데 결국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두 거기서 그냥 만나구선 헤어진 거지 또. 이산가족 만나서 거기서 한 사람 살어서 돌어와가지구 그 가족을 만났던,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구.

나머지는 인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행방불명이지.

어르신은 71년에 이장하셨으면, 그때 새마을운동 막 시작할 때 아닌가요?

그려. 허허허.

그러면 어르신이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녀.

어르신 전에도요?

우리 동네 이장이 1년 이장이여. 근데 내가 3년을 봤어요.

그때 임기가 1년이었어요?

1년이었어요. 1년. 그때 그 부정이 많아갖구 1년씩 밲에 못했는데, 그때 나는 3년을 했다구.

이게 뭐 어떤 부정이 있어서 그러나요? 그때 돈이 많았었나 봐요. 마을에?

아이 그거 그전엔 세금이구 뭐구 전부 이장이 걷었잖아요.

아 이장이 세금도...?

세금두 걷었지. 걷어서 면사무소에 갖다 준 거, 그때들은 돈들이 없으니까 얼른 돈을 못 내니까, 이장들한테 분배를 했다구. 그걸 전부. 새마을사업, 아이 그때두 참 골치 아펐어요. 새마을사업 땜에. 그 박정희 시대인데 그때 새마을사업 해느라구 참 이장도 일이 많았었다구. 그때는.

맨 처음에 무슨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새마을사업.

여기? 인제 지붕 개량해구, 지붕 개량해구, 하수구 똘, 똘, 부락 똘 맨들구. 그리구 길.

그 하수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길 넓혔어요?

그랬지요. 예. 그 뭐 아궁이, 아궁이 고치기, 불 때는 거. 나무가 없으니까. 하하하. 그것두.

뭐, 연탄으로요?

정부에서 나와가지구선 그거 전부 분배 해주구. 그리구 그전에는 비료두 전부 저기여. 타다가, 이장들이 타다가, 면사무소에 가서 타다가 노나 준 거여. 근으로 달아서, 전부.

비료도 인제 이장들이 나눠주고요?

세금두 이장들이 걷어서 주구... 전부 그거...

그러니까 그 현금을, 현금 걷어가지고 써버리는 이장도...?

그 써버리니까. 그때들은 또 여기 왜 술집이 이렇게 많았었는지. 그때 살기두 어려웠는데 술집이 이렇게 많았었다구.

술집이 몇 개나 됐었어요?

여기 이 동네? 아마 한 대여섯 개도 됐을 거야. 아마. 술집만 두면 여자 뒀다구 또. 하하하.

여자는 술집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둘두 있는 집 있구, 하나두 있구. 주로 하나 많이 뒀지 뭐.

술집이 여기 어디, 어디 쪽으로 있었어요?

죄 헐렸지. 죄 헐리구 인저.

그니까 옛날에 있었을 때?

그 도로 옆에.

지금 이 면사무소 내려가면?

그 앞에.

지도에 지금 여기가 면사무소거든요... 여기가 면사무소인데, 이쪽으로 있었나요?
이쪽으루 있었지. 이쪽... 이 도로가에 있었지.

도로가로 한 4~5개?
한 댓 집 있었지.

술집에서는 막걸리 팔았어요?
막걸리 팔았지.

아 소주는 안 팔고 막걸리만?
그때는 소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구. 고리 술인가 그거.

막걸리 주로 팔고... 안주는 뭐 주로 어떻게 했어요?
안주는 인제 그 찌개. 두부 같은 거 먹구, 주로 김치하구 많이 먹었지.

주로 김치요?
하하, 김치.

그러니까 안주 값도 안 받았겠네요?
그렇지. 인저 그냥.

그냥 술만 사면 안주는 그냥 주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응. 그러구 그전에는 그 저기여. 돼지, 돼지 같은 건 그냥 몰래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도살해구 그랬잖아. 그거 인제 특별한 뭐 저기 있을 제 그런 거루 먹구 그러구. 주로 김치하고 많이 먹었다구.

술집이 다섯 여섯 개나 쭉, 그 술집이 단골들도 많았겠는데요? 마을에? 주로 이 금암리 사람들이 이용했나요?
아이 타동, 아 면사무소 있는데 일 보러 오면은 인제 그 사람들이 술 한 잔씩 먹구 가구 그래, 그래 장사가 되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야 그거. 하하하. 그 손님들이지. 손님들 인제 외지에서 와서.

아 면 소재지다 보니까?
응.

아까 새마을 운동이 지붕 개량하고, 하수구 만들고, 그다음에 길 넓히기...
길 넓히기, 아궁이 고치기.

그 다음에 아궁이 고치기. 아궁이는 어떻게 고쳐요?
그 저기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저기, 이 저, 그걸 뭐라고 그래? 아궁이...

연탄으로요?
연탄이 아니고 왜... 이 저 쇠로 된 거 이렇게 나왔다구. 뚜껑 이렇게...

아~ 그거, 문 이렇게 달린 거요?
그렇지. 그것두 나왔다구.

그거 달면 뭐가 이점이 있나요?
아니지 인제 정부에서 나와서 그걸 인제 이장들이 그렇게 한번 노놔주고 그랬지.

아궁이는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주는 거지. 정부에서 나온 거여.

그래서 인제 전부 다 그거 붙이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장이 핼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것두 다 했단, 내 얘기는 그 얘기지.

아 그거 아궁이 전부 다 가져다가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인제 그거 개량...

정부에서 그러면 서탄면까지는 갖다 줘요?
그렇지. 그 또 면에서 인제 각 부락으루...

실어가요?
응.

마차로 실어가요?
그거? 그때는 인저 몰르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죄 부락으루 노놔주구 그랬지.

지금 여기 마을길이 넓잖아요. 저 마을회관 앞에도. 그때, 새마을사업 때 이렇게 넓혀놓은 건가요?
그렇지요.

이쪽도 굉장히 넓고, 이 뒤도 가면 아주 넓잖아요?
여기 워낙 큰 길이니까 여기 넓었구, 그전부터 넓었다구 여기.

그럼 옛날부터 마차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 그렇지요.

이 뒤로도 그렇고요?
이 뒤로는, 이건 새로 뚫은 거구. 우리 종산인데 인저 저기 길 낸다구 그래서 준 거지.

그쪽으로는 뚫은 거고, 이쪽에서 저 뒤로 넘어가는, 면사무소...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구... 면사무소 앞으루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넓게 쭉 마을로 이어지게요?
예.

옛날부터 여기는 인제 마차도 다닐 수 있었어요?
아 그럼요. 마차두 댕겼지. 차두 다니구 그랬지.

그럼 새마을사업 때 더 넓혔나요? 아니면 옛날, 아주 옛날 그대로인가요? 이 길이.
이 길이? 옛날부터 있던 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는데. 넓이?
넓이? 넓이두 그때 넓었다구 이 길이. 큰 길이라.

지금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죠. 넓이가.

여기는 나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무 하기?
나무 해기가 어려웠었지. 그 나무 때기가. 우리가 저, 뭐야 용인까지 나무를 해러 가서, 거기서 해다가 저기 지게루 지고 와서 때구 그랬는데.

용인이요? 저기 남사요?
남사.

동천리 지나서?
아이 그렇지. 거기까지 나무를 해러 갔어.

그걸 먼산나무라고 그러나요?
먼산나무라 그러지. 하하하.

그 먼산나무 하려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되겠네요?
아침에 일찍 가서 해가지고 걸머지구.

그러면 하루에 나무 한 짐 해갖고 오는 거예요?
한 짐 해가지구 오는 거여.

여기서 뭐 거의 새벽같이 가야 되겠네요?
아이 그렇게 안 가두. 가서 해가지구. 멀구 얼마두, 거리가 되니까 많이 못 지고 오거든. 쪼끔밲에 못 지고 오지.

도시락도 싸갖고 가야 될 거 아녜요?
밥 싸가지구 갔어요. 밥두 저기, 밥이 없어가지구 죽, 죽두 싸가지구 가는 사람이. 하하하.

그러면 하루에 한 짐 그냥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짐 해가지구 오는 거지.

거기 산 임자한테 뭐 이렇게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이 나무 같은 것두 생 거는 못 해구, 인저 나무 비어서 썩은 거,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해서 걸머지구 오는 거지.

생 거는 못하고 인제 썩은 거, 죽은 거?
썩은 거, 죽은 거. 그리고 잔대, 저 잔디. 이런 거 긁어서 한 동, 조그맣게 한 동 해 묶어서.

아 잔디도 거기까지 가서 긁었어요?
거 가서. 여기, 하여튼 여기는 없었어요 뭐. 나무 하나 뭐 할 게 없었어.

참 옛날에 먹는 것도 힘들었죠?
아이고 힘들고 말고.

인제 어르신 좀 굉장히 그 당시에 힘들게 사셨는데...
예. 우리 부락에선 내가 또 어렵게 살았다구요. 어렵게, 제일 어렵게.

장남이니까. 5형제라고 아까 그러셨죠?
5형제.

5형제에다가 부모님하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아이,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5형제하고 부모님이면 일곱 식구가 사신 거네요?
그렇지요.

일곱 식구가 다섯 마지기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네요?
아이 우린 저기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지. 동생. 그래 여섯 식구가 살었는데.

6남매에 부모님하고...?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먹는 것도 힘들고, 입는 것도 힘들잖아요?
입는 것도 힘들어. 하여튼 저 솜바지 입는 사람들은 전부 솜바지 입었는데, 나는 홑껍데기, 겹바지. 솜두 못 넣어 입구... 겨울 되면 그러니께 나와 돌어 댕기지를 못했지. 추워서.

추워서요?
예. 방에서, 주로 방에서 많이 지냈지.

솜도 있는 집에서만 넣어요?
아 그렇지요. 있는 사람만. 그때 솜 받을려구 죄...

바지도 집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집에서 만들었죠.

광목 사다가요?
광목 사다가.

그 어머니께서 다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다 맨들어, 밤에는 바느질 해구, 낮에는 일, 근데 그때는 그 여자들이 전부 모두 심구 그랬잖어. 그때는.

여자들도 모 심었었어요?
그때 모 심었지요. 전부... 다 여자들두 모 심었지.

또 어떤 데 가면은 여자들은 안 심고, 남자들만 심고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여기, 여기 여자들이 많이 심었어요. 없는 사람들은 많이 심었어. 있는 사람들은 안 해구.

아 여자들이요?
여자들.

여자들은 인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집만 여자들이 일을 하고?
그렇지요.

조금 인제 먹고 살 만하면...?
먹고 살만 하면 밥이나 해구.

광목 사다가, 여름 옷도 광목 사다가?
그렇지.

겨울 옷도 그렇고?
겨울 옷도 그렇구.

그러면 전부 다 하얀 색깔이었겠네요?
하얀 색깔이지. 까만 거 하구... 까만 거하구 하얀 거.

그때는 쌀밥을 먹을 때는 가을 일 끝날 정도...?
그렇지. 인저 가을에나 좀 쌀밥 먹구... 죽으루 사는 거여, 죽.

가을 가을에 쌀밥은 어느 정도나 먹어요?
그거 뭐... 하여튼...

순 쌀밥은 몇 끼 못 드시겠네요?
그렇지. 구정 안에 떨어진다구. 구정 안에.

구정 안에 전부 다 식량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같은 집이. 없는 집이. 그래 인제 그때부터 죽 먹는 거지.

아 식량 떨어지면...?
죽으루 인제
다, 김치죽으루

죽은 주로 인제...
김치. 인제 김장 해니까 김치 넣구.

김치죽에는 김치하고 쌀 조금 넣고요?
예. 쌀 쪼끔 넣구.

그럼 김치죽 말고 다른 죽은 없어요?

흔죽 먹구. 흔죽.

흰죽이요?
응. 흰죽.

흰죽도 쌀로 쑤는 거죠 ?
그렇지. 쌀로 해는 거지... 그리구 그 저기, 여름에는 보리 찧으면 보리 고운 겨가 나와요. 거기서... 그 개떡, 보리 개떡. 개떡, 그 개떡이지 그러니까. 그거 소다 넣구, 뭐야 그 콩 넣구 이렇게 해서 해면은 먹을만 하다구.

아 보릿겨에다가 콩 넣고, 소다 넣고요?
예.

사카린은 안 넣어요?
사카린두 넣지. 쪼끔. 달콤해, 먹을 만... 하하.

보릿겨에다가...?
소다 조금 넣고.

소다하고, 콩가루하고.
콩가루가 어딨어? 콩가루는 그냥 먹는 거지... 개떡은 그냥 개떡 쪄서 먹는 거지, 콩가루 안 묻히는 거여.

그냥 보릿겨에다가 소다하고...
소다하고 콩... 인제 콩을 드문드문 넣고 허는 거지. 개떡에다.

그 콩이 강낭콩인가요?
그렇지 인제. 강낭콩. 강낭콩이 아니구 그게 뭐여? 무슨 콩이라구 그래지?

동부요?
동부두 들어가구.

그 떡은 근데 군것질로 먹어요?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아이 식사 대용품으루 먹는 거죠... 겨울에 그거 먹는 거여, 겨울에. 겨울에두 먹구, 여름에두 먹구.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응. 겨울게두 먹지.

겨울에도 인제 쌀 떨어지면 개떡 먹고요?
응. 그것두 있는 집에 가서 얻어다가.

보릿겨를요?
보릿겨를.

이렇게 뭐 보리 익기 전에 따다가 죽쒀 드시고 이런 건 안 해보셨고요?
누른 방울 나면 그것두 짤러다가, 모가지 짤러다가 말려서 그것두 해먹었죠.

아 보리가 인제 약간 노릿노릿 해지면?
응. 누른 기 나면. 그거 모가지 짤러다가 말려서, 절구에서 짓쪄서 이렇게 해서 해먹었지.

이건 죽 쒀 먹는 거죠?
그러니께 보리밥 해 먹구, 죽 쒀 먹구 그러는 거지.

절구에 쪄가지고 보리밥도 해먹고. 아 인제 그 쌀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쌀알처럼 나오니까.

반찬도 참 열악했죠. 옛날에는.
그렇지요. 반찬은 주로 고추장.

반찬은 인제 겨울에는 김장김치 가지고...
그렇지. 김장김치 가지구.

겨울에는 김장김치하고 뭐 뭐 드셨어요?
김장김치 그거 가지고 먹는 거지 뭐.

동치미는 없었어요?
아 동치미? 그런 건 있지. 동치미...

짠지.
짠지. 싱건지, 짠지.

신건지가 동치미죠?
그래요.

이걸 동치미라고 불렀어요. 싱건지라고 불렀어요?
동치미라고두 해구, 싱건지라구두 해구 그랬죠.

그러면 인제 이것도 구정 지나면 떨어지지 않나요? 김치죽 다 끓여 먹으니까?
인제 떨어지지.

그럼 봄에는 인제 반찬으로 뭐 해 먹어요?
그전에, 난 어려서 그 소금, 소금두 그 고춧가루 넣구, 깨소금 조금 넣구 인제 이렇게 볶어서, 그것두 그전에 그거 쪼끔씩 이렇게 먹었다구.

반찬으로요?
반찬으루.

이건 언제 먹어요?
봄에...

그 이른 봄에?
이른 봄에. 하하.

그다음에 인제 나물 나올 거 아니예요?
그렇지. 인저 나물 나오지.

여기는 나물이 뭐 뭐 있어요?
냉이... 그전에 그 산나물도 있는데, 산나물 그 뭐라구 그러는데?

취나물이요?
두껄나물이라 그랬나? 두껄.

두껄나물이요?
두껄이라구 그랬나. 몰러. 그 산에 있더라구.

그거밖에 없었어요? 산나물은?
아이 뭐 많지요. 산에두.

고사리는요
그러게. 고사리.

그다음에 취나물은요?
취나물두.

이 나물은 주로 반찬으로 먹는 거죠?

반찬이루 먹는 거지.

쑥은 어떻게 먹었어요?
쑥은 인저 삶어서 개떡두 해먹구.

아 쑥은 개떡두 해먹고.
국두 끓여 먹구.

죽은 안 끓여 드셨어요?
죽은, 쑥죽은 몰러.

그 다음에는 인제 뭐 오이 같은 거 나면은 열무, 오이...
그렇지. 열무, 오이, 호박.

그건 여름이죠. 여름이 제일 좋겠네요? 반찬도 많고.
아이 여름 좋죠. 힘들어두 일 댕기면서 하얀 쌀밥, 일 해면, 일 가면은 하얀 쌀밥 먹으니까, 힘들어두. 하하하.

아 일할 때는 보리밥은 안 줘요?
아이 섞어서, 인저 반반 섞어서 해주는데, 부잣집 일 가면 인저 쌀밥 먹지. 하하하.

일할 때는 반찬도 좀 특이하잖아요?
아이 특이해죠.

일할 때 반찬은, 인제 특별 반찬 나오면 뭐 나와요?
그때 인제 뭐 꽁치, 고등어. 갈치는 그때두 드물었어. 갈치는 없어.

꽁치하고 고등어하고, 명태?
명태. 새우, 그런 거.

갈치는 귀했어요?
응. 귀했고 또...

그 조기, 갈치는 좀 귀한 건가요?
응. 귀해.

이거는 진짜 일할 때나 이렇게 특별식으로...
맛보는 거지. 하하하.

그것도 부잣집이나요?
그렇지. 하하하.

가난한 집은 이것도 못 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기 이 하천에 고기도 많았죠?
고기 많었지. 근데 그때는 봇도랑이라 그래, 봇도랑. 봇도랑에 고기 있었는데, 장마 때나 있는 거지... 그, 여름에 농사지을 때하구.

이 봇도랑에 물 내려올 때 인제...
물 내려올 때 인저... 고기 막어서 인제 퍼서 고기 잡아먹구 그랬어.

그러면 인제 주로 무슨 고기 나와요?
메기, 붕어, 그런 거 나오지... 붕어하구 메기, 미꾸라지.

붕어, 메기가 제일 많았어요?
예.

어르신은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기는... 그때두 70년대지.

어렸을 때는 안 다니셨어요?
안 댕겼죠.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안 댕겼지.

회화리 쪽으로는 안 다니셨어요?
회화리두, 그때 인제 애들 가니까 따라서 가구 그랬었는데, 안 갔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 회화리 교회를 많이 다녔죠?
예. 많이 다녔었죠... 많이 안 댕겼어. 몇 사람, 몇 사람 댕겼어... 회화리 교회 많이 안 댕겼어.

그러다가 여기 인제 57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

그때 여기 교회 세울 때 뭐 어떤, 동네에서 논의가 있었나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예요?
한흥석이. 그 장로, 장로였었어요. 그 회화리.

회화리에요?
예.

그분이 여기 교회 분리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니께 교회래두 인제 그 헌금을 많이 내구 그러는 사람이 주로 인제 그 주권이 있는 거 아녀? 그러니까... 교회 의논할래면 그분한테 많이 했지들. 돈을 많이 내니까.

그 장로님이 회화리 교회에 있을 때요?
그 사람이 회화리 교회 댕기다가 이리로, 아마 거기서 맞지 않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 장로님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한흥석.

이분은 회화리 살았었어요?
회화리 살었죠. 회화리가 고향이여. 그 사람이.

회화리가 고향인데 교회는 이쪽으로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하고 뭔가 안 맞은 게 좀 있었나 보네요.
그 있었어요. 그런 내막은 모르지 인제.

그러면 처음에 와가지고 뭐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천막교회 했었죠. 천막.

맨 처음에?
응. 김수철 목사라구.

처음으로 온 목사님이 김수철 목사님이예요?
응. 김수철 목사여... 그 사람이 이북 사람인가 봐.

그 김수철 목사가 인제 이북 출신인데, 이분이 여기다 인제 천막 치고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지금 교회 자리요?

교회 자리.

근데 그 교회가 터가 굉장히 넓던데, 그 정도 마련하려면 그때 좀 뭐 누군가가 돈을...

그때 쌌어요... 아 우리두 저 땅 좀 그전에 있던 것두 그때는 평당 얼마가 아니구, 워낙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거 얼마 하는데 고거 얼마만 내구서 가져가라구 그러구 등기 내주고 그랬다구요. 우리도 좀 땅 조금 있는 거, 아버지가 저 세간 날 적에 가지고 나온 거, 그냥 자식들은 많구 누가 딴 사람은 사지는 않지. 그러니까 저거 어디는 그거 얼만데 그냥 그 얼마만 내구, 쌀 한 두어 가마만 이렇게 주구서 그거 가져가라구 그러구선 등기 내주구 그랬다구. 그전에는.

몇 마지기짜리 정도 되는데요? 한 마지기?

한 마지가 아니죠. 허허허... 한 너덧 마지기, 서너 마지기. 그렇게.

한 서너 마지기, 한 댓 마지기 되는 거를 쌀 두 가마만 주고 가져가라고?

두 가마가 아니구, 그런 건 한, 한 10가마 이렇게...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아니구, 그냥 그 10가마만...

아 이렇게 인제 넓이로 딱 해갖고, 이거 얼마 해갖고 요새 말로 퉁 친 거죠?

그렇지. 하하하... 그 굶을 순 없잖아요. 살래니까. 그래 인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원래 농사짓던 것도 그냥 파신 거네요? 우리 땅 농사 다섯 마지기 있는 것도 그냥 아버님이 파신 거네요?

그거 그렇지. 판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다음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아유.

장례쌀도 많이 드셨겠어요?

장례쌀두 많이 들었지. 그때는 쌀 한 가마 먹으면은 닷 말. 다섯 말씩 줬어요. 쌀 한 가마 갖다 먹으면. 장례... 그리구 밭 같은 것두 저거 얼마 하는데, 얼마만 주구선 가져가라구 그래. 그니께 인저 "아이 비싸서 안 가져가" 그래 자꾸 깎이구 깎이구, 이렇게 해가지구 그냥 쌀 얼마에 그냥, 자식들하구 먹구 살래니까, 하하 어쩔 수 없지 뭐야.

그러니까 흉년 들고 그러면 그냥 헐값에 많이 넘어갔겠네요?

아이 많이 넘어가, 뭐 하여튼 많이 넘어가는지 몰러두 우리는 그 식구는 많구, 먹구 살래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그리고 쌀 빌려오면, 가서 일해 주고 빌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군품이라구 그러지, 군품.

군품, 그거 군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쌀 한 말 갖다 먹으면 일 다섯 가락. 5일을 살어야 해, 5일. 그 집에 가서. 그러면 쌀 한 서너 말만 갔다 먹으면 여름 내 거 가서 머슴 살어야 돼여.

서너 말 먹으면 한 달 이상 가서 살아야 되네요.
그니께 쌀 한 말이면 저기 다섯 가락, 일 5일을 갖다 해줬으니까. 쌀 한 말이면. 하하하.

머슴들은 새경이 얼마나 됐어요?
상몸이 쌀 12가마.

근데 그 옛날에 가면 옛날로 올라가면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제 최근 일 아닌가요? 머슴 마지막에. 어르신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몰르지. 내가 아는 덴, 일 못 해는 거 없이 다 잘하면은 12가마. 그렇지 않으면 10가마, 8가마 그렇지.

상머슴은 그냥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예요?
그렇지. 그 12가마 짜리가.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상머슴인지 아닌지?
아니 이 소 논 갈고, 그 기술이 있어, 그것두 해봐야 쟁기 같은 것두 논을 갈잖아요. 그거 벌써, 일 핸 사람이면 벌써 알지. 잘 했다는 거. 누구네서 잘했대는 거 알구, 일을 잘핸대는 거 알구. 인제 그런 사람은 열두 가마. 그 열두 가마 그 알뜰해게 저기 허는 사람들은 1년 열두 가마, 아이 새경 열두 가마 받으면은 땅 샀다구. 아이 이거 얼마에, 저 몇 가마에 가져가라구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자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살아서.

금암리 사람도 그렇게 해서 부자 된 분이 있나요?
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핸다구. 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 부지는 그러면 누가 누구네 땅이었었어요? 저 교회 부지.
그게... 그 잘 모르겠는데.

인제 어쨌든 뭐 샀던 빌렸던 어떻게 했을 거 아니예요?
그게... 서대길씨? 서대길이... 원 지주가 인제 그 서대길인가, 그 땅이었었어. 서대길

이분도 교회 다녔나요?

천주교. 그 사람은 천주교에 댕겼지. 원 서울 사람이여. 근데 이리 이사 온 거지. 그 사람이. 돈 좀 가지구 내려온 사람이지.

그러면 이분이 땅을 팔은 거네요?
팔은 거지... 교회한테.

그럼 교회 사람들이 그냥 돈 모아갖고 땅을 샀고?
글쎄 그건 모르지 인제. 모아 가지구 샀는지, 누가 사준 건지, 그런 건 모르겠어.

거기 천막 교회가 몇 년간이나 있었어요?
천막 교회가 그때 몇 년 있었다구. 한 4~5년 있었지 아마.

하다가 인제 지금 오른쪽에 교육관으로 쓰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응.

그거 짓느니라고 신도들이 많이 일을 했겠네요?
아이, 그렇지두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럼 그거 인제 업자가 와서 지은 거예요?
업자가 지은 걸거여.

어르신은 어렸을 때는 갔다가, 그다음에 교회 안 다녔다가...
예.

인제 몇 살 때부터 다시 나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몇 살 때가 아니구, 지금두 나가구 있다구요. 지금두.

그러니까 지금도 나가시는데 아까 옛날에는 잘 안 나갔다고 그러시니까.
그러게. 그냥 매일 그렇게 이 일요일 날 나가는 게 아니구, 인제 가고 싶으면 가구.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두 마찬가지지. 그래 교회는 반대 안 하잖아요. 나가는 거야. 자식들이구...

그럼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예.

언제, 몇 살에 집사 되셨어요?
모르지 뭐, 그때는 뭐... 아마 한 40대.

40대에 집사 되셔가지고. 그래도 집사님은 매주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게 반대는 안 해요. 내가. 그러니께 인저 나가구 싶으면 나가구. 또 나가기 싫구, 테레비 보구 인제, 저기 좀 알아듣게 이렇게 똑똑한 목사님이 설교해면 인제 그걸 주로 이렇게 듣느라고 그렇지. 인제 비교해는 거지.

어렸을 때는 여기서 회화리까지 걸어서 갔어요?
그렇죠. 회화리는.

걸어서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논길로?
행길 있었어요. 도로.

아 도로가?
그전에도 이렇게 곧장 있었어요.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됐어요?
지서. 지서 앞에.

지서 앞에서 이렇게?
농협 있는 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길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거. 옛날하고 똑같애요.

아 옛날하고 똑같애요?
예. 변동 없어요. 그거.

글로 해가지고 쭉 걸어가면 교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거기 가는데? 그거 뭐 시간 안 재봤으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구, 거기 한 그래두 20분은 더 걸리잖아? 한 30분.

보통 몇 명이 갔어요?
아이 혼자두 갈 때 있구. 뭐 또 모여서 이렇게, 애들 모여서 한 댓 명이 갈 때두 있구. 거기 몇 안 갔었어요. 회화리는. 그래 여기 바로 교회에 생겨가지구. 회화리가 먼저 생겼지.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가지구. 인제 부흥회 할 때, 그때 인제 가거나.

부흥회 할 때는 좀 많이 갔어요?
예. 그때 인제 애들 모여서 같이 갔지.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께 따라간 거지. 인제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인제 따라간 거지.

부흥회 할 때는 한 아이들 댓 명 가고요?
그렇죠. 댓 명 가고.

어른들은 그 당시에 몇 집이나 회화리 교회를 다녔을까요?
어른들은 안 댕겼죠. 어른들은 회화리 교회에 나간 사람 없어요. 거기서는 왔어두, 여기서, 우리 부락에서 회화리 교회에 나간 사람은...

아니, 여기 교회 생기기 전에요?
안 나갔어요. 회화리두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

거긴 오래됐더라고요.
천주교, 천주교지?

아니요. 교회요. 회화리 교회. 평택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인데요.
아 그건 몰러. 하하하.

그래서 인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회화리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됐으니까.
그때는 안 다녔어요. 우리 부락에서 나간 사람들이 없어.

회화리 쪽으로요?
회화리 쪽으로.

회화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가했다고 그러던데요?
어디? 여기? 아녀.

분가한 게 아네요?
분가핸 게 아녀. 회화리 교회에서 분가핸 게 아녀.

그럼 회화리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 그냥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지. 새로 생긴 거여. 회화리하고는 아무...

그러니까 거기는, 회화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만 다니고 그런...?
아이 인제 부흥회 해구 그럴 때 '가자.' 그러면...

사탕이라도 하나 주니까?

하하하.

부흥회 할 때만 그냥 한 5~6명 이렇게?
그렇지.

여기 천주교 다니는 집들은 좀 있었어요?
천주교는 난, 기독교 교회는 내가 나갔어두 천주교는 모른다구. 그런데 그래 그 동네두 얼마 안 되는데 천주교두 있구, 기독교두 있는데, 그때 그 얘기긴 내가 거기서 많이 했다구. “야 한 교회나 세우지 무슨 기독교 있구 천주교 있느냐.” 구. 한 부락에서. 내가 그랬다구.

어렸을 때요?
예. 어렸을 때.

그때가 몇 살 때 정도였어요?
그때... 한 열댓 살 넘어서지.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렇지 국민학교 졸업해구 거기 그전에 중학교가 있었다구. 야간. 그 교회에서 했다구. 근데...

회화리 교회에서 야학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오래 안 해구, 그 저 몇 달인가, 아이 몇 년인가 이렇게 했다구. 그래서 거기 그거 거기 처음에 그 교회 나온 동기가 그거여. 거기 핵교 좀 댕길라구. 공부 좀 핼라구 그러는 건데. 아이 그때 거기 일해느라구, 거기두 못 나가, 야학에. 저 핵교두 못 갔다구.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친 거예요?
중학교. 야간 학교. 거기 있었구, 저 마두리에 있었구 그런데, 공부 좀 핼라구 나두 했는데, 결국엔 살기가 어려워서 못 핸 거여. 야학이래두 댕겼으면 그때 배웠으면 좀 좋은 건데.

아 마두리에도 중학교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 있었어요.

여기 야학은 언제 생겼어요?
그 몰르지. 그거 언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중학교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 거기두 야간 있었어.

이게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그렇지. 모르지.

어르신은 얼마나 다녔어요? 여기?
나는 한 두어 달 댕겼여. 두어 달 댕겼어.

아 두어 달 다니다가 그냥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예. 낮에 일해구 밤에 또 거 가서... 조느라구 뭐 공부나 돼? 그래서 안 간 거지. 피곤해서.

지금은 여기 금암리서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서탄중앙교회를 다니시나요?
여기 중앙교회.

몇 집이나 돼요?
여기... 그니까 여섯 집인가. 그것두.

금암1·2·3리 다 합쳐갖고요?
아니 저기 1리 말구.

금암2리만?
2리만.

1리는 잘 모르시고요?
응. 1리는 몰러.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농지 좀 마련하셨어요?
농지... 근데... 농지도 없어요. 근데 사실, 아이 경비 생활, 농사 지어가며 경비 생활 한, 한 15년 했나. 내가. 경비 생활 했어요. 농사 지어가매.

어디서요?
그때는 일성제지라구. 거기서 한 7년 해구. 여 덕절리서 4년 해구.... 오산서 한 6년 해구. 아유.

경비 생활 일성제지에서 하실 때는 몇 살 때 하셨어요? 시작하실 때?
그때 40대지.

처음에 첫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그거 생각 안 나는데.

경비하시고 농사짓고 그러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응.

그래서 농지 마련 좀 하셨어요?
아이, 그건 비밀이여. 하하하.

결혼은 몇 살에 하셨어요?
나? 스물일곱.

그 당시에는 좀 늦은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 그 나이에...?
그때 좀 많이 했지.

27세에 결혼하시고. 할머니는 어디 분이세요?
부평.

그럼 어떻게 만나셨죠? 먼데요?
모르지. 하하, 어떻게 만났는지.

중매 결혼하신 거예요? 할머니랑?
나? 아 난 저 엄니, 엄니를 얘기하는지... 오산, 오산 부산리.

그러니까 어르신이 27살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오산 부산리 사는 처녀랑.
예.

그때 할머니 나이는, 그러니까 신부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 스물둘.

중매하셨어요?
아이 교회, 교회 저기구, 그 목사님들이 핸 거여. 내가 교회 나가니께... 오산 목사님이, 저기 목사님... 인저 사람이 착실해니까. 하하하.

아 어르신이 착실하니까, 아가씨를 소개시켜준 거네요?
하하하. 그려. 하하하. 없어두. 아유 아무것두 없어요.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불쌍해요. 그래 지금 잘해줄라구 그래는데두, 그게 또 사람이 그려? 어떨 때는 또 화두 내구 그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

화 안 내실 것 같은데요?
하하하. 그러게 이장두 내가 여기서 오래 봤어요. 이장을. 내가 지금 부락을 위해서 해는 게 한, 한 13년 내가 부락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여.

어떤 일 하시 거예요?
그 이장두 보구, 노인회장두 보고, 총무두 보구... 지금 노인회장 보잖어. 지금.

그 결혼하실 때는 중매로 하셨으면 선도 보셨네요?
아 선 봤죠.

어디서, 교회에서 보셨어요?
아이 집이서 봤지. 거기서. 처갓집이서.

처갓집으로 가셔가지고. 선 볼 때는 누구랑 가셨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지.

첫 선 보시고. 약혼은 그때는 안 하셨죠?
안 했지요.

그리고 첫 선 보시고 얼마 있다 결혼 하셨어요?
아 그만 얘기 해. 고거로 끝내. 하하하.

노인회 회장님이신데, 여기 노인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51명.

회의하면 몇 분이나 나와요?
인제 저기, 회의는 저기여. 대동회 때나 해구. 안 해여.

아 별도 회의는 없고요?
별도 없어. 다 그렇지 뭐. 지회에서 회의에 온다구 그러면 뭐랄거여 뭐, 지금들 회의 안 해잖아요. 회의들 안 해잖아. 코로나 생기구. 하하하.

코로나 전에는 했을 거 아니예요?
전에두, 전에두 마찬가지여.

노인회는 인제 별도로 회의 같은 건 안 하고?
안 했어요. 회장만 가서 지회장 얘기만 듣고 와서 해는 거지.

노인회 행사는 뭐 뭐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놀러도 가고 그럴 거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을에요?

가을에 갈 때두 있구, 봄에 갈 때두 있구.

어디 가세요?

뭐 가까운 데 가지.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루.

올해는 가셨어요?

올해, 봄에 갔어.

올봄에는 어디 가셨어요?

몰러, 거기 어딘지 이름두 잊어버렸어. 하하하. 아이 인저 나이가 있어가지구 금방 들어두 금방 잊어버려요.

한도희(남, 1938년생),문운경(남,1944년생) 금암3리 새말 거주

날 짜	2023년 8월 5일
장 소	금암3리 경로당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문운경) 아니요.

다른 데서 오셨어요?
(문운경) 예.

몇 년생이세요?
(문운경) 44년생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문운경) 영광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 사세요?
(한도희) 여기로 (이사) 온 거여.

어르신은 여기 경지 정리되기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문운경) 응.
(한도희) 경지정리 되구 나서 온 거여. 되구 나서.
(문운경) 아 경지 정리 헐 때 왔어요. 내가.

경지 정리 할 때요?
(문운경) 예. 그때 1972년도.
(한도희) 경지 정리 끝난 뒤에 온 건데.

그러면 1972년도에...?
(문운경) 예. 농지 정리 했어요. 여기... 그래서 안 잊어버려. 그때 보를 대충, 그때 다닌 데를 봇도랑을 대충 알지. 뭐 안보인지 뭔 보인지 새보인지 그건 몰라도.

경지 정리 되고 나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문운경) 이사는, 전체적으로 이사는 (경지 정리 하고) 나서 오고, 나는 초봄에 왔으니까 농지 정리 할 때 오고.

초봄에 이제 농지 정리할 때?
(문운경) 예.

그러니까 72년에 시작해서 72년에 끝난 거네요?
(문운경) 아니요. 그 이듬해까지 끝났어.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 끝났을 거여.

그러니까 73년이나 4년?
(문운경) 예 예. 그 정도에서 끝났을 거여. 확실치는 몰라도 시작은 72년부터 시작했어요. 초봄부터.

72년 초봄에 시작했어요?
(문운경) 예.

영광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문운경) 예. 나는 이제 미리서 봄에 오고, 인자 땅이 인자, 땅 같은 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조금 남은 것이 미비해서 우리 안식구는 그 이듬해 왔지. 1년 후에.

그러니까 73년도에 오시고?
(문운경) 예.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 50년 되셨네요?
(문운경) 그렇지. 한 50년 가지.

근데 영광이면 여기서 엄청 먼데, 어떻게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문운경) 근데 그럴 일이, 사정이 있어서 왔지.
(한도희) 여기가 좋으니까 일로 왔지. 허허허.
(문운경) 아니, 원래는 딴 데로 갈라고 그랬어요. 광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 여건도 다 되고 했는데, 뭔 사정이, 뭐 예상이 좀 꼬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제 그 한마디로 하면 도망 나왔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아셨어요?
(문운경) 아 우리 누나가 여기서 살았어요.

누님은 어떻게 여기 사시게 됐어요?
(문운경) 아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지 다. 식구가 다.

그러니까 그전에 어떻게 여기 사시게 됐어요?
(문운경) 음, 그니까 인자...

시집 오셨나요?
(문운경) 결혼은 인자 이북 사람하고 결혼했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러면 저 마두리에 사신 거 아니에요?
(문운경) 예. 마두리에, 처음에 마두리에서 살았다가.

마두, 그러니까...
(문운경) 1리

마두1리에. 그러니까 이북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요?
(문운경) 응. 새말로.

마두1리 사시다가 이제 새말로 이사 오신 거예요?
(문운경) 근데 우리 매형은 여기서. 새말서 살았지요?
(한도희) 응. 새말, 여기서 살었어. 이사람 매부가 여기서 살었어.

그쪽에서도 농사짓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문운경) 예. 저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시골에서.

시골에서요. 몇 평 지어요?
(문운경) 영광서 많이 지었어요. 한 2만 평 넘겨 지은 거요. 부자 됐어요 그때.

그럼 거기서 사시지 어떻게?
(문운경) 아 그럴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기 농지 사갖고 오셨겠네요?
(문운경) 예 사갖고 왔어요.

그때 평당 얼마에 사셨어요?
(문운경) 평당... 쌀로 닷 되... 제일 좋은 것이 닷 되고, 서 되, 두 되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샀어.

그때는 여기 경지 정리되면서 물, 저기 기흥 저수지에서 물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운경) 기흥이 안 오고... 그... 그니까 여그... 거가 기흥인가?
(한도희) 들어왔어.

예. 저 기흥쪽, 수원쪽.
(한도희) 응. 기흥저수지 물이 왔어.
(문운경) 아니 수원 말고 저기 저 저...

어비리요?
(문운경) 응. 어비리. 어비리 저수지가.

아 여기는 어비리 저수지 물이 들어와요?
(문운경)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한도희) 기흥에서 왔어.
(문운경) 수원 것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경지 정리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봇물을 쓰다가 어비리 저수지에 들어오다가 경지 정리되고 나서 수원물이 들어온 거예요?
(문운경) 예. 수원 물이 나중에 들어왔어.

어비리 저수지 물도 여기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문운경) 처음엔 여기루 들어온 거지.

몇 년이나 들어왔어요? 그게?
(문운경) 그 몇 년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수리조합이 먼저 생겼었어요. 여기는 늦게 생기고, 여기는.

그러니까 어비리 저수지 물은 경지 정리되기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운경) 예 예. 여기 들어왔어. 어비리저수지. 저기 물이, 먼저 저수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여기...

그물이 그러니까 경지 정리되기 전에 들어왔다가 경지 정리되고 나서는 수원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문운경) 예. 수원 물이.

그러면 어르신께서 땅을 살 때는 저수지 물이 들어올 때잖아요?
(문운경) 예.

저수지 물이 들어올 때는 논이 좋고 나쁜 거를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문운경) 근데 농지 정리 허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는 모르지. 근데 인자 교통, 첫째 교통량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인자 그거 갖고 한 거여.

아 인제 기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문운경) 예. 그래갖고 농지 정리 허니까 도로망은 다 뚫리기는 뚫렸지.

그러면 토지를 사실 때 농지 정리 되고 나서 사셨어요? 되기 전에 사셨어요?
(문운경) 농지 정리 되고 나서 샀어요. 가을에, 가을에 샀어.

몇 평이나 하셨어요?
(문운경) 그때 한, 사기는 2천 평 이상 샀어요. 그래 또 그 홀당 다 망해 먹었지.

왜? 농사 지어가지고 크게 돈 벌기도 힘들지만, 망해 먹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문운경) 다 팔아먹고 그랬었지. 그럴 일이 있어서 또 그러고.

다른 사업을 좀 하셨나 봐요?
(문운경) 아니, 사업허잖아, 어떻게 사고 나 갖고 땅두 다 팔아먹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장만하신 거예요?
(문운경) 예.

지금 이렇게 두 어르신처럼 마을에는 이렇게 농사 지으러 그 당시에, 70년대나 80년대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될까요?
(문운경) 모르겠어. 인자 저는 인자 처음에 인자 여기서 땅을 사갖고 한 2년 짓다가 어떻게 이것저것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많이 손해 났지. 밭도 그냥 한, 한 천여 평 샀었어요. 천평도 넘게 샀는데, 그것도 홀랑 다 넘어가 버렸고, 논도 넘어가 버렸고... 인자 마두리 거 하나 딱 남아갖고, 그것도 빚져갖고 있었지.

지금은 몇 평 가지고 계세요?
(문운경) 지금 또, 그 후로 또 내가 또 많이 장만했어요. 벌어가지고. 한 한 4천 평, 5천 평까지 만들어 놨다가 또 다시....

굴곡이 많네요.
(문운경) 굴곡이 많지요.

어르신은 이렇게 살아오신 게 변화무쌍하시네요. 지금은 농사 지으세요?
(문운경) 예.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죠. 근데 돈을 벌라고 해도 안 벌리더라고. 벌면 나가버고 벌면 나가버고. 그 외국 생활도 한 10년 했었어요. 저기 아프리카 리비아까지 갔었어.

그때 한참 중동 붐 일어날 때요?
(문운경) 예. 그 동아건설에서 3년간 있다가 또 유에이이 두바이도 가고. 거기서 2년 있었고. 이라크 가서는 고생 뒤지게 허고. 현대건설 가갖고는 그 바슬라 항구 접안공사 들어갔었는데, 그

후세인허고 호메이니허고 전쟁헌통에, 이란허고 이라크 전쟁헌통에 아주 8개월 만에 오는데 삐쩍 말라갖고 왔지. 아이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왔니라고 다행이여.

그래도 다행이네요.

(문운경) 폭격허고 막... 땅 판 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쥐새끼 마냥 쏙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 짓거리를 한 8개월 동안 했지.

어르신은 여기 오셔서 외국 생활하셨던 거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아주 동네 분들이 많이 관심 있게 들으시겠어요?

(마을 주민) 얘기를 안 해요.

(한도희) 허허허...

말씀 잘 안 하세요?

(문운경) 외국 가서 동아건설에 가서 건설본부장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어르신은 여기서 태어나셨잖아요?

(한도희) 나? 여기서 태어났다가, 인천서두 살구, 서울서두 살구, 저 진위면서두 살구.

진위면 어디서 사셨어요?

(한도희) 대동촌.(대정촌_

원래 근데 여기 청주안 씨 집안 아니세요?

(한도희) 여기여. 여기. 떠돌어 댕겼어, 떠돌어 댕겨.

젊었을 때요?

(한도희) 응.

여기 서탄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몇 회세요?

(한도희) 우리 18회, 18회, 핵교도 안 당겼어. 당겼다가. 핵교도 졸업도 못했어 그냥. 핵교 3학년 댕기다 학교도 못 댕겼어.

왜요?

(문운경) 6.25가 나불고 인자 저기허고 그래서.

(한도희) 아 그전에는 돈이 있어야 또 저기도 내고 해서. 뭐 돈도 없고 그냥 가난해서.

그때 월사금 낸 게...

(한도희) 월사금.

그게 부담이 됐었어요?
(한도희) 응.

몇 남매 중에 몇 째세요?
(한도희) 5남매에서 둘째지, 둘째.

그때 부친께서는 농사를 얼마나 지으셨는데요?
(한도희) 농사두 뭐, 농사두 못 지었어. 남의 땅은, 남의 땅 도지논 해서, 그 전에는 뭐 도지논 해면은 저기...

도지를 얼마쯤 줬어요?
(한도희) 도지 얼마씩 낸 걸 알어? 몰라. 하하하. 정신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한씨 집안이라, 한씨 집안이라 뭐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같이 집안들이 살지 않으셨나요?
(한도희) 그렇지. 그렇게 살은 거지 뭐.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냥 저기 애들 길르면은 그냥 전부 나가 살구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들 많이 살아서, 한 가정에서 작은 집, 큰 집 이렇게들 많이 좀 살었지. 우리가. 근데 시방은 없잖아. 하하, 큰 집만 하나 살구... 다 그냥 각자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국민학교 중퇴하시고 마을을 떠나신 거예요? 다른 데로?
(한도희) 아 여기서 살다가 먹구 살기 위해서 또 돌아댕긴 거지 뭐. 허허.

몇 살 때 타지로 나가셨어요?
(한도희) 그것도 한 30살 돼서 나갔나 봐.

결혼해서 나가셨네요?
(한도희) 결혼해구 나갔어.

결혼은 몇 살에 하셨어요?
(한도희) 결혼은 그래두 스물다섯에 했어.

그때 선 봐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한도희) 응.

할머니는 어디 분이세요?
(한도희) 저 화성군 팔탄면... 팔판면에 살었지. 팔탄면.

누가 중매했어요?
(한도희) 아 여 집안 아주머니가 중매 했지.

맞선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도희) 그렇지. 맞선 봤지. 그전에는.

맞선은 어떻게 봤어요?
(한도희) 맞선은 거기 가서 보고, 보고서는 그냥 결혼... 좋으냐 망했냐 해갖구, 좋다고 그냥 결혼핸 거지 뭐. 허허허.

그럼 맞선 보러 가실 때는 누구랑 가셨어요?
(한도희) 아이 그 집안 아주머니, 중신핸 아주머니.

맞선 보러 가시면 보통 점심 때 맞춰서 가나요?
(한도희) 점심 때는 뭐 점심 때, 그냥 때가 점심 때가 어딨어. 그냥 일찍 간 거지. 아침에.
(문운경) 그럼 점심도, 아무것도 안 잡숴어요?

그러면 점심이라도 대접받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한도희) 점심은 거기 처갓집이서 먹고온 거지 뭐.

점심 드시고 그 신부 되실 분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온 거예요?
(한도희) 응. 그래구 결혼한 거여. 그 해.

그때는 약혼 같은 거는...?
(한도희) 약혼도 안 해고 그냥. 그냥 결혼했지.

맞선보고 얼마 후에 결혼하셨어요?
(한도희) 뭐 맞선 보고 한 5개월, 5개월 됐나?... 여름 해서.
(문운경) 굉장이 늦게 했네?
(한도희) 응. 허허허.

그럼 봄에 맞선 보고 여름에 결혼하신 거예요?
(한도희) 가을에.

아 봄에 맞선 보고 가을에?
(한도희) 여름에, 여름에 보고서는 가을에, 가을에 결혼핸 거지.

결혼식은 거기서 하셨죠?

(한도희) 결혼식은 그전에는 전부 저기...

신부 댁에서?
(한도희) 신부 댁에서 했지. 구식이루, 구식.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도희) 여기서 30리라구, 30리.

그럼 30리를 어떻게 가셨어요?
(한도희) 걸어댕겼지, 걸어댕겨.

그러면 걸어서 결혼식 날 가셨어요?
(한도희) 아 그때는 또 차. 그전엔 뭐 자가용이 있어? 추럭 타고 갔어. 허허.

트럭 타고 아침에 출발하신 거예요?
(한도희) 그럼요.

이때, 가실 때 누구누구 가요? 그 결혼식 하러 가면?
(한도희) 결혼식 핼 때 뭐 신랑 가구, 신랑 아버지, 엄마 가구.

아 부모님 다 가셔요?
(한도희) 아녀.
(문운경) 아버지만...
(한도희) 아버지 가구. 그래구 누가 가? 가기는...

친구들 안 가요?
(한도희) 친구가 무슨 친구여. 그전에.

친구는 안 가고 그러면 신랑하고 아버지 두 분만 가시는 거예요?
(한도희)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결혼식 하시고...
(한도희) 결혼해구 오는 거지 뭐. 바로. 허허허.

식사하시고?
(한도희) 아니 결혼식, 식 해구서는 밥 먹구 오는 거지 뭐.
(문운경) 거기서 안 자고요?
(한도희) 안 자고.

(문운경) 처갓집에서 안 잤어?
(한도희) 안 자고 댕일치기루 온 거여.
(문운경) 결혼허면 거기서 자고 오는데. 남자는.
(한도희) 안 자고 왔어. 그냥 온 거여.

저 남쪽에서는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오지 않나요?
(문운경) 응. 자고 와.
(한도희) 여기는 그냥 와.
(문운경) 자고 오는데 그냥 오네.
(한도희) 첫날 밤은 집에 와서 자. 첫날 밤.
(문운경) 그럼 각자 헤어졌네. 첫날 밤에?

아니죠. 같이 오는 거죠.
(문운경) 같이 와요?
(한도희) 같이 오는 거지.
(문운경) 아!
(한도희) 거기서 끝나고.
(문운경) 같이!

트럭 타고 오셨어요? 오실 때도?
(한도희) 그럼.

그 트럭 타고요?
(한도희) 이제 혼수 핸 거 싣구 그래구 오는 거여.

혼수는 뭐 뭐 해오셨어요?
(문운경) 이부자리
(한도희) 혼수는 뭐 뭐 뭐 이부자리, 그런 거지 뭐.
(문운경) 옛날 오강허고.

이부자리, 옷, 그다음에 장롱도...?
(한도희) 장롱 그런 거지 뭐. 허허.
(문운경) 밥그릇 두 개허고.

밥 그릇도 가져오는 거예요?
(문운경) 예. 수저허고.

혼수에 밥그릇도 있어요?

(한도희) 그럼. 밥그릇. 밥그릇 두벌이지 뭐. 두 식구. 두 개.

수저, 저분도 그럼 같이 해오나요?
(문운경) 응. 수저, 저분도.

오강도...?
(한도희) 오강, 세숫대야 다 오는 거지.

다른 건 뭐 없어요?
(한도희) 없어.
(문운경) 응. 인자 농학고, 그것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부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네요.
예물 같은 건 교환 안 하셨어요?
(한도희) 예물 그런 건 뭐, 예물도 뭐. 허허. 금반지, 금반지 해줬지. 쪼끔 해고 뭐.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금반지 맞교환 하셨어요?
(한도희) 응.

시계는 안 하셨어요?
(한도희) 시계는 안 했어.
(문운경) 옛날엔 시계두 없고. 시계가 드물었어요. 사기가.

그때는 첫날 밤에 문구멍 뚫고 뭐 이런 거 없었나요?
(한도희) 그전에는 진짜 이웃들만 다... 저기 창호지, 창호지 문 발르고 핸 거구... 구멍 뚫고 그랜 거지 뭐.

어르신 때도 그거 있었어요?
(한도희) 그럼.

그쪽에서 결혼하고 식사하고 집에 와서 잔치했겠네요?
(한도희) 동네 잔치지 뭐.

돼지도 잡고 그러겠네요?
(한도희) 국수 잔치 해는 거지.

국수 잔치 음식이 주로 국수하고...?

(한도희) 뭐 이것저것, 떡두 해구. 뭐 뭐 그런 거 해는 거지.

떡도 하고, 전 부치고... 돼지는 안 잡았어요?
(한도희) 돼지 안 잡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잔치하고. 그때는 첫날 밤에 이렇게 구멍 뚫는 건 누가 했어요?
(한도희) 누가 핸 걸 알어요? 허허허.

아니 어르신도 인제 다른 사람 결혼할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도희) 여자들, 여자들이 보는 거지 뭐.

주로 여자들이 해요?
(한도희) 응.

남자들은 안 해요?
(문운경) 남자도 해요.
(한도희) 짓궂은 여자들이 해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그럼 결혼하면 그다음 날,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첫날 밤 보내고...?
(한도희) 그 다음날 또 저기 자양 가는 거지, 자양. 허허.

자양 가는 거는 그 다음 날 바로 가는 거예요?
(한도희) 아니. 3일 있다가. 3일 만에... 그전에 자양.

자양 갈 때는 또 음식 해갖고 가잖아요. 어르신은 뭐 해갖고 가셨어요?
(한도희) 자양갈 제는 안 해갖구 갔어.
(문운경) 떡 안 해갖고 갔어? 떡 해갖고 가야지.
(한도희) 안 해갖구 갔어.

그럼 음식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문운경) 그러면 처갓집에서만 얻어먹었겠네.
(한도희) 허허허.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가셨어요? 처갓댁 가시면서?
(한도희) 허허. 뭘 사 가지구 갔는지 모르겠어.

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한도희) 기억이...

그러면 자양 갈 때는 인제 두 분이서만 가시나요?
(한도희) 그럼. 둘이 가지. 걸어서.

보통 신부는 결혼하고 부엌은 언제쯤 들어가요? 부엌일은?
(한도희) 부엌일은 뭐 대부분 3일, 3일만에 들어가고. 2일, 2일만에 들어가고 그래는 거지 뭐.

보통 3일 만에 들어가고요?
(한도희) 응.

들일은요? 그러니까 인제 신부가 들일은 언제부터 나가요?
(한도희) 들일? 들일은 뭐 안 나가지, 무슨 들일을 나가.

뭐 이렇게 밭에, 밭 매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도희) 그거는 뭐...

그건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한도희) 남자들 해지 뭐 여자들이 그전에 뭐...
(문운경) 여기는 남자들이 밭을 많이 매더라고요.
(한도희) 전부 다 남자들이 매는 거지.
(문운경) 남부지방은 여자들이 다 밭 매요. 밭은 다. 남자는 안 매.
(한도희) 여자들, 여자들 들일을 그렇게 안 했어.

보통 밥 매는 거는 여자가 하고 논매는 거는 남자가 하잖아요?
(한도희) 그전에 색시라구 안 해구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는 거지 뭐.

아 밭 매고 이런 것도 인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하고, 젊은 여자들은 안 하고요?
(한도희) 젊은 여자들은 안 했어.

그럼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는 거예요?
(한도희) 그럼. 허허.

모내기는요?
(한도희) 모내기도 그렇구 뭐. 이 근래는 그냥, 그전에는 저기해지만 인저 저기가 돼가지구 인제 여자, 남자 모심고 핼 적에는 많이 모들 심었지.

아 요새 인제, 이근래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도희) 옛날에는 안 했어.

옛날에는 모심는 것도 그렇고, 잡초 매는 것도...?
(한도희) 안 했어.

아 여긴 다 남자가 했어요?
(문운경) 아니, 전라도 남자가 다 했어.
(한도희) 남자가 했어. 남자가.

모내기 하는 것도요?
(문운경) 예. 모내기고 뭐고 전부, 그런거.
(한도희) 들일 그런 건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문운경) 논에 일은 전부다 남가가 허고, 여자는 하나도 안 했어. 밭일만 허고.

그리고 여자들은 밭일 하잖아요?
(문운경) 응. 밭 매고.

근데 지금 어르신은 여기서는 밭일, 밭에 풀 매는 것도 남자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풀 매는 거예요?
(문운경) 응. 풀 매더라고 여기는. 남자들이.

아 어르신 오실 때도 그랬어요?
(문운경) 예 예.
(한도희) 아이 그때는 여자, 남자 없이 일했지 뭐.
(문운경) 아니 내가 왔을 때, 일 다 끝나고 나고, 모심고 났는데, 또 밭 매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아니 전라도는 밭 맨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그 밥 매러 가니까 아니 또 해 넘어갈 때까지, 컴컴할 때까지 또 밭을 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지.

어르신 여기 오셨을 때도 논매기 같은 거 하셨어요?
(문운경) 예. 논매기 했어요.

손으로요?
(문운경) 예. 손으로 매고 또 호미로도 매고, 손으로도 매고 그랬지.
(한도희) 호미로.

논매기는 몇 번 했어요?
(문운경) 세 번.
(한도희) 아니 저 두 번, 두 번 매구 한 번은 또 훔치는 거여.
(문운경) 한 번 매고, 훔치고, 또 한 번 매고. 세 번 했어.

한 번 매고 두 번 매고 세 번 만에 훔치지 않나요?
(한도희) 세 번 만에 훔치는거지.
(문운경) 예. 세 번만에 훔치는데, 인자 거기서는 인자 풀만 걷어 잡아서 인자 저기허는 거지. 걷어버리는 거지.

논매기 할 때는 둘레 놀잖아요?
(한도희) 도레 놀 때 해구, 두레 한 해기도 해구 그랬어.

두레를 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예요?
(한도희) 두레는 아주 한 동네가 그냥 다 합쳐서 같이 댕기매 일해는 거지 뭐. 허허허. 두레, 두레 놀면서는.

그러면 에벌매기부터 두레를 했나요?
(한도희) 두레 했으면 애벌부텀 해는 거지 뭐...

애벌, 두벌, 훔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도희) 다. 일 끝날 때까지 해는 거지.
(문운경) 저 아냇녘은 만대리라고 있어요. 매벌, 두벌, 제일 나중에 허는 것이 만대리거든. 만대리는 저 두레 놀지.

세 번째 할 때만 두레를 놀았다는 거죠?
(문운경) 응. 그리고 인자 거기서 술도 인자 담가서 먹고, 그러면 인자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인자...

세 벌 매기 할 때요?
(문운경) 예.

남도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초벌, 두벌, 훔치기까지 전부 다 두레를 놀았어요?
(문운경) 근데 여기 내가 와서는 두레 노는 거 못 봤어.
(한도희) 두레는 안 놀았지. 그때는.
(문운경) 여기는 안 놀았어. 여기는.

그러면 두레는 언제까지 했었어요?
(문운경) 언제, 긍게 여기 농지정리 허기 전에 헌 것 같애요. 그 안에는 안 했어.
(한도희) 농지정리 되고는 안 했어.

두레 끝나고 얼마나 지나서 농지정리가 됐어요?
(한도희) 두레두 노는 것두 부락마다 다 틀려. 핸 데 있구, 안 해는 동네 있구. 두레 있는 집은

해구, 우리 동네 그전에 두레 없어서 안 했어.

아 새말은 두레 없었어요? 그 두레 하는 동네는 어디 어디였어요?

(한도희) 그전에 여 큰 동네들은 다 그때 웬만한 동네들은 다 했지.

(문운경) 그러면 금암1리, 아니 아니 2리, 큰 동네면 회화리 정도 돼. 마두리, 내천리 꺼정, 저 사리 그렇게 돼.

(한도희) 금암2리, 회화리, 마두리 그런 데. 내천리...

새말만 안 했네요?

(한도희) 두레 없었어.

(문운경) 나는 못 봤으니까. 근데 예측에 인제 그랬을 것이다 그러는 거지. 내가 여기 농리정리, 72년도 올 때는 그거 없었어요.

(한도희) 없어 여기 두레 안 했어.[8)]

그러면 그때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한도희) 여기? 그때 그래두 한 40호 됐었어.

(문운경) 40호 더 됐어요. 우리 이사 올 무렵에.

72년 무렵에요?

(문운경) 예 예.

(한도희) 한 40...

40호가 좀 넘었네요?

(문운경) 예. 넘었어요. 지금 40호 훨씬. 지금보다 훨씬 많었은게 그때가.

현재는 몇 호 정도 되는 거예요?

(문운경) 지금은 한 40호.

(한도희) 40호는 뭐 40호. 많이 줄었지.

(문운경) 줄었어요. 한 10가구 이상 줄었을 거여.

어르신 어렸을 때는 몇 가구였어요?

(한도희) 그때 뭐 한 마흔, 마흔 서넛 되지. 마흔 서넛 됐을 거여 그때.

(문운경) 우리가 이사 올 때는 그때 당시 셋방살이가 많었어요. 여기와서.

어르신도 그러면 셋방살이...?

(문운경) 아 나는 셋방살이 않고, 집을 사갖고, 헌집 사갖고 와서 살았어요... 그래 몇 번 이사

8) 한도희(남, 1938년생)는 두레가 없다고 했으나, 그보다 세 살 아래인 한무희(남, 1941년생)는 1970년 전후까지 두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혔지.
(한도희) 곁방살이라구 그래, 곁방살이. 허허.
(문운경) 그래 곁방살이.
(한도희) 세는 아니고 곁방살이 그냥.

그런 집이 몇이나 됐었나요?
(문운경) 그때 셋방살이가 내가 올 무렵에 한 일고여덟 집 됐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한도희) 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팔아먹고 사는 거지 뭐. 허허.
(문운경) 없는 사람들이. 머슴살고.
(한도희) 품팔어먹구 살은 거지 뭐.
(문운경) 응.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로 인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한도희)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뭐.

그때 품 팔면 혹시, 인제 어르신은 처음 그때 오셨으니까 품값 같은 것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였어요? 그때 품값?
(문운경) 많이 해야 하루에 쌀 2되 그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

하루 일하면 쌀 두 되 정도 했고요. 머슴은 얼마나 했어요?
(한도희) 머슴은 5가마, 많이 받은 사람은 8가마, 7∽8가마.
(문운경) 머슴은... 8가마. 일 잘 허는 사람은 7가마, 8가마가. 또 쇳일, 저 소 일헐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받고... 그게 상일꾼이거든요. 그러고 인자 그 나머지는 그 하류지. 그 못 헌 사람들.

아 그때는 뭐 5가마도 주고, 어리면 뭐 세가마도 주고...
(문운경) 응. 세 가마도. 한 가마도 받고... 그렇게.

머슴들은 주로 인제, 아까 그 품 팔고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한도희) 그렇죠 뭐.
(문운경) 예. 근데 가족들이 그 셋방 얻어갖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계속은, 나중은 눌러서 앉어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정작은.

다른 동네는 이렇게 머슴 살다가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던데요?
(문운경) 예. 부자 되는 사람도 많이어.
(한도희) 부자 된 사람도 있지. 허허.

여기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문운경) 마두1리도 큰, 마두 본토백이보다도 더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아 마두리에요?
(문운경) 예.

여기 새말은 없어요?
(한도희) 없어.
(문운경) 새말은 없는데, 마두리는 더 부자여.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 이사 온 사람이 아주 부자 돼야부렀어. 김한수 있잖어. 제일 부자여 지금. 땅덩어리 제일 많고.

마두1리에 있어요?
(문운경) 예. 지금 형제 간에 돈 엄청 많어.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았나요?
(문운경) 예. 머슴 살았어요. 그 머슴 살았고 안채도 샀고. 원래 머슴 산 원재 집도 사버리게 됐지.
(한도희) 됐지

그러니까 머슴 주인집도 그냥 사버린 거예요?
(문운경) 예. 대단한 사람이여, 그... 제일 부자여, 지금 거기서. 땅덩어리에서.

여기는 인제 나중에 작업반은 안 만들어졌어요?
(문운경) 작업반도 만들았죠.
(한도희) 모심을 적에나 작업반 있었지 뭐, 모심을 적에.

작업반은 언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도희 · (문운경) 모심을 때만.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했었어요? 새마을 운동할 무렵부터 했었나요?
(문운경) 그때... 모르겄어요. 근데 우리 이사 와갖고 작업반장 만들어졌지.
(한도희) 고 전에 작업반 없었어.
(문운경) 그전에 없었어요? 농지정리 헐 때 없었어요?
(한도희) 없었어.

농지 정리되고 나서 작업반이 생긴 거예요?
(문운경)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확실헌 지는 나는 몰라요. 농지정리 헐 때, 그때 이 저기였거든.

보통 그러면 마을 사람이 전체가 하나요? 아니면?

(한도희) 농사짓는 사람은 다 해는 거지. 다 하는 거지.

(문운경) 농사짓는 사람만.

다 같이요?

(문운경) 응. 다 같이. 몇 집이 몇 집이 요리 어울려갖고, 몇 집 있으면 누구 뭐 언제 심나 언제 심나 그래갖고 땅, 작업반 해.

그러니까 인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마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한 게 아니고요?

(문운경) 응

(한도희) 농사짓는 사람은 다 작업반 들어가지.

작업반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여러 개로 나누겠네요?

(문운경) 예. 그래서 인자 날짜가 틀릴 거 아녀. 각자 심는 날짜. 그리 맞춰서 인자 허는 거지. 그니까 딴 데로 변동사항이 없지. 사람 인자 구허러 헐 필요가 없지 인자.

여기 그러면 외부에서 품일꾼은 안 들어왔어요?

(한도희) 여기, 여기 안 들어왔어 여기. 저 마두리는 농사 많이 지어서 모심을 제는 저 전라도서 많이들 올라와가지구 모들 심었지...

마두리요?

(문운경) 예.

(한도희) 여자들이 많이 왔어.

전라도 쪽에서요?

(한도희) 전라도 쪽에서 미역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미역 팔구, 그래구 못 심구 내려가구 그랬어.

아 인제 올라올 때는 미역을 갖고 와서 그거 팔아서 돈 벌고...

(문운경) 장사하고. 팔아갖고.

(한도희) 돈벌고

또 모심고 돈벌고, 내려가서 자기네 모심고...

(한도희) 모심고 돈 벌고.

(문운경) 자기네 모심고. 쪼금 늦게 심으니까. 거그는. 여가 일찍이고.

어르신 여기 처음에 오실 때도 전부 다 손모 심었죠.

(문운경) 예 손모 심었어요. 계속 심었어.
(한도희) 손모지 뭐, 기계모가 어딨어. 허허허.

또 논 소로 갈았잖아요?
(문운경) 응 소로 갈았어요. 경운기가 없으니까... 경운기도 없었어요.
(한도희) 경운기, 경운기 있었지. 그 농지정리 되구 나서.
(문운경) 정리정리 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때. 그 후로 생겼어요... 그때는 하나도, 한 대도 없었어.

소도 그때는 굉장히 귀했잖아요?
(한도희) 소도 귀했지. 농사 많이 있는 사람들이 소 있지 뭐.
(문운경) 있는 사람은, 농사 많은 사람은 소 있었고.

그럼 소 없는 사람은 얻어서 인제 짓는 거예요?
(한도희) 소 하루 갖다 부리면 일 하루 해주는 거여. 허허허.

아 소 하루에 일 하루예요?
(한도희) 응.

어떤 동네는 소 하루 빌리면 일 이틀 해주는 동네도 있더라구요?
(한도희) 여기는 소 하루 갖다 하루, 하루 일해줬어. 허허허.
(문운경) 그럼 여기가 싸구만 그냥.

또 곡식, 식량이 없는 사람이 쌀 한 말 얻어먹으면 며칠 일했어요?
(한도희) 보통 쌀 한 말 갖다 먹으면은 일고여덟 가락씩 해주는 거여. 하하하.

언제요? 어르신 어렸을 때요?
(한도희) 그럼.
(문운경) 우리 이사 왔을 때는 닷새를 해줬어요. 5일, 한 말.

어렸을 때는, 그때는 한 7일 정도...?
(한도희) 그려. 7일, 5일, 7일 그렇게 해줬지.

그때는 쌀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쌌어요.
(한도희) 인건비는 쌌지 뭐.
(문운경) 쌀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겠어요. 몇백 원, 뭐 몇천 원, 이렇게 했지.

72년도 그때, 인제 아무래도 이사 오니까, 그 계기가 돼서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럼 그때 쌀

한 가마에 얼마 정도 했어요?

(문운경) 한 5천 원 정도 했어요.

아 72년도에...?

(문운경) 응. 5천 원... 벼 한 섬이 5천 원이여 그때... 내가 왜 그러냐면, 5천 원 하는 것을 왜 기억허냐면, 이 조합원 들라고 그때 출자를 해야 하잖에요. 출자를 그 쌀 한 가마니 했어. 벼 한 섬을 했거든. 그게 5천 원이여.[9)]

조합원 출자가 쌀 한 가마?

(문운경) 응. 쌀 한 가마, 5천 원... 지금까지 그래서 조합원 돼갖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합원 하신 거예요?

(문운경) 예.

72년에 조합이 처음 만들어졌나요?

(문운경) 몰라요. 그 전에 됐는가.

(한도희) 그전에도 했지.

(문운경) 근데 조합원이 아니면 비료를 살 수가 없었어요.

조합원만 비료를 팔았어요?

(문운경) 예.

옛날에는 이장님이 이렇게 갔다가 나눠...?

(문운경) 그러게 조합원들 해갖고 이장님이 나눠줬지. 그 비료를.

그때 여기 처음 오셨을 때도 이장님이 나눠줬어요?

(문운경) 예. 나눠줬어요.

조합원만?

(문운경) 응. 일부는 못 가져갔어요.

(한도희) 농사, 농사 평수에 따라서 줬지, 비료를 노놨지 뭘.

(문운경) 조합원이 아니면 비료를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 야매로 샀는데, 비싸고.

야매로는 어디 가서 샀어요?

(문운경) 시장에 팔면 요소 한 가마가 쌀 한 가마... 그 쌀 한 가마 가지고 집적 내가 사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

---

9)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송탄농협 서탄지점 지점장인 한준희(남, 1965년생)는 장부상으로 농협이 결성된 초기 출자금으로 3천 원 전후였던 내용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면 얼마 정도 했어요?
(문운경) 농협에서는 그전에 안 팔아요.
(한도희) 농협에서 뭘 팔았어. 안 팔았지.

그러니까 농협 조합원들은 또 비료값을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냈어요?
(문운경) 근데 얼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인자 우리가 얼마 할당돼갖고, 이장이 할당돼갖고 이장이 다 나눠줘요. 그 집을. 그니까 얼마 얼마 내라고 이장이 또 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요소만 나오면 요소만 주는게 아니라 염화가리, 중과성, 뭐뭐뭐 뭔 여러 가지 것이 나와요. 잡동사니.

요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소하고...?
(문운경) 응, 중과석, 염화가리, 또 뭐 딴 거 또 있어요. 근데 잊어버렸네.
(한도희) 유안, 유안.
(문운경) 유안도 있고... 그것 말고도 또 잡동사니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거 다 섞어서 저울로 달아서 나눠준 거여. 이장이.

그니까 인제 뭐 다 얼마큼 냈는지는...?
(문운경) 음. 가격은 모르지.

이렇게 나눠주는 걸 언제까지 했어요?
(문운경)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것이. 한 근 10년 가차이 했을 거요.

이장이 나눠준 게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초반까지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때 끝나나요?
(문운경) 박정희 대통령 때 계속했을 거여.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까지요?
(문운경) 응

그러면 한 7~8년 했다고 보면 되나요?
(문운경) 근 10년 이상 가차이 나눠줬었어. 이장들이.

그때는 그 비료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 하고 생산 차이가 좀 많았잖아요?
(한도희) 비료 가져야 농사졌지. 비료 안 넣으면 양석도, 무슨 양석을 먹어.
(문운경) 비료를 안 주면 양석도 못 먹고 대석도 못 먹지. 근데 그래서...

비료 안 넣으면 한 마지기에 대석도 못 먹어요?
(문운경) 예. 그래서 못 먹지. 그니까 비료를 야매라도 어떻게 쌀을 한 가마라도 빚을 얻어라

도, 그때는 빚이 꼽쌔꺼리여. 곱쌔꺼리.

그러니까 이자를 2배로 냈다는 거죠?
(문운경) 응. 한 가마면 두 가마를 줘야 돼.

여기 70년대에도 그랬어요?
(문운경) 예. 그때도 비쌌지.

그러면 거의 맞장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운경) 으 응. 맞장례지.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인자 저기 했을 거여. 뭐... 어... 무슨 정책인가 해갖고 그것을 없애버린 거지.

근데 그거는 그전이잖아요. 어르신 여기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그니까 그 맞장례는 저 남도에서, 영광 얘기 아닌가요?
(문운경) 근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첫 해.
(한도희) 여기서두 그랬어.

어르신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72년도에도 맞장례였어요?
(문운경) 응. 맞장례가 됐얐어. 인자 그래갖고 5부 장례로 된 거여.

그럼 한 몇 년 지나니까 인제...?
(문운경) 아니 아니. 한 2년인가 1년 그래갖고 5부 장례 된 거여.

그다음에 인제 몇 부로 바뀌었어요? 한 3부 정도?
(문운경) 근데 인자 그때는 이제 3부 바뀌었지. 계속, 꾸준히 인자 그때부터 3부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

지금은 몇 부예요?
(한도희) 지금은 없지. 없어졌지.

지금은 개인한테 안 얻죠?
(문운경) 누가 장례쌀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도희) 장례가 어딨어.

여기 농협은 어르신 여기 오실 무렵에 만들어진 거예요?
(문운경)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졌을 거예.

오셨을 때는 이미 농협이 있었다는 거죠?

(문운경) 이 형성되갖고 있어서 쌀 한 가마 넣고, 인자 벼 한 섬 넣고 조합 인자 저기 헌 거지.

벼 한 섬이니까 쌀 한 가마로 그냥 계산한 거죠?
(문운경) 예. 그때 쌀 한 가마 나온 거지. 벼 한 섬 찧으면.

아까 왜 저기 비료 안 넣으면, 대석도, 대석 먹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문운경) 응.

그럼 비료를 넣으면 양석 나오나요?
(문운경) 양석, 쪼금 더 넘어 돼요. 양석은.

양석 좀 넘고요?
(문운경) 응. 한 3부 정도 나와... 또 더 많이 넣으면, 비료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나오고. 근데 비싸니까. 쌀 두가 먹는 데 돈 주고 살라면 또 힘들잖에요. 또 장례쌀이라 또 비싸버리니까 안 돼지.

지금은 몇 가마 나왔어요?
(문운경) 지금은 한 구간에, 1,200평에 한 25가마 이상 나와요. 잘 된 사람은 30가마도 나오는데, 우리는...

한 구간이 1,200평이요?
(문운경) 응, 1,200평... 25가마, 쌀... 옛날에는 우리 한 구간에 많이 나와야 18가마, 그 정도라.

농지 정리 후에요?
(문운경) 예.

그때는 왜 그렇게 조금 나왔을까요?
(문운경) 비료가 적어가지고... 거름이 없으니까.
(한도희) 거름이 없어서 뭐. 다 농사도 못졌어.
(문운경) 20가마를 못 넘었어.

아 농지정리 직후에는 한 18가마 나오고...?
(문운경) 응. 잘 됐다고 한 사람이 고 정도 나와... 못 된 사람은 그보다 더 못 나오고.

그러니까 20가마를 못 넘었다는 거죠?
(문운경) 예.

소로 논 갈다가 트랙터가 들어온 건 언제부터예요?
(한도희) 경운기지, 경운기.
(문운경) 경운기가 들어왔어요. 트랙타가 들어오지 않고 경운기.

경운기 제일 먼저 사신 분이 누구예요?
(문운경) 모르겄어요. 누가 샀는지. 동네서. 방앗간이 먼저 샀나?
(한도희) 방앗간 집이, 방앗간 집이.
(문운경) 우희가 제일 먼저 샀지 이.

방앗간집,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문운경) 한우희.

어르신하고 같은 항렬이네요?
(문운경) 응. 거가 제일 먼저 샀을 거여.

방앗간 집에서...?
(문운경) 머슴 데리고 그때 살고 긍게, 그 집이 제일 먼저 샀지.

경운기 산 게 경지 정리되고 나서...?
(문운경) 예.

그러니까 어르신 이사 오시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샀을까요?
(문운경) 그것은 모르겄어요. 몇 년인지.

경운기는 그때 뭐 뭐 했어요?
(한도희) 경운기 뭐 논 갈고, 로타리 해구, 그런 거.
(문운경) 밭 갈고, 밭 써리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다 쓴 거지... 경운기가.

트랙터는 언제 들어왔어요?
(문운경) 트랙터는 한참 후에 돌아왔을 거여.
(한도희) 한참 후에야.

옛날에는, 여기 경지 정리 되기 전에요. 벼를 베면 논에다 깔았나요?
(한도희) 벼서 깔아갖고 말르면 묶어다 다 타작해는 거구.
(문운경) 탈곡기로 타작허고 그랬지.
(한도희) 그네질도 해구. 호롱기, 궁글레통. 궁글레통이루.
(문운경) 궁글레통으로 많이 허고.
(한도희) 그네루 해다가 궁글레통으로 핸 거지. 궁글레통 나와가지구서는.

집으로 전부 다 들어왔나요?

(한도희) 그럼. 다 집으로 꺼 들여가지구... 그 후에 인저 탈곡기, 탈곡기가 나와가지구 경운기루, 경운기루, 아니 경운기 가지구 댕기매 해다가 탈곡핸 거지.

궁글레통으로 하다가 경운기 있는 사람들이 인제 탈곡한 거죠?

(문운경) 응.

(한도희) 탈곡기 사서 핸 거지.

경운기 탈곡하고...?

(문운경) 인자 그 후로 콤바인.

궁글레통 할 때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렇게 발동기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탈곡해 주는 사람?

(한도희)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볏단을 돌리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이렇게 한 주먹씩, 한 주먹씩.

(문운경) 인제 풀어서, 인제 단으로 여기서 집어주면 인자 발로 밟아갖고 궁글통이 돌아가요.

그때는 발동기는 안 하고요?

(문운경) 아니여. 발로 밟아야 해. 수동식이지 다.

여기는 이모작 했었어요? 옛날에?

(한도희) 안했어. 안했어. 이모작 없어. 논에는 벼만 심구, 밭에는 보리, 보리 갈구. 보리 심구, 콩 심구. 허허.

밀도 심었을 거 아니에요?

(한도희) 밀, 보리...

콩, 채소 뭐 이런 거요?

(한도희) 보리 비고서는 인저 저기 콩 심는 거지 뭐.

아 보리 베고 콩 심고요?

(한도희) 응.

그리고 인제 콩 수확하고 그다음에 보리 심고요?

(한도희) 콩 수확해고 보리 심구.

그럼 보리하고 콩을 제일 많이 심었겠네요?

(한도희) 밭, 밭에다 인제 해는 거지.

(문운경) 밭농사는 주로 많이.

그러면 밭에서는 이모작이 됐네요? 보라하고 콩하고.
(문운경) 예. 이모작이 됐어요.

이 특이한 작물 심는 거는 없고요?
(한도희) 없어요. 여기 특이한 작물 없었어요.

옛날에는 비료도 귀하고 그러니까 퇴비 했을 거 아니예요. 퇴비는 주로 뭘 했어요?
(한도희) 퇴비는 옛날에...
(문운경) 부엌 재.
(한도희) 저기 지게지고 댕기매 풀 깎아다 쌓아서 해고 했는데, 뭐 풀이나 있어? 낭구도 없었는데 뭐.
(문운경) 근데 부엌재 갖고 많이 했었어요.

부엌재요?
(문운경) 부엌재가 밥하면 때잖아요. 인제 나무.

아 부엌의 재.
(문운경) 응. 재. 그 재로 해서 통재를 만들어요.

아 재로. 그건 남쪽 얘기잖아요.
(문운경) 여기도 했어요. 그때.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돌 2개 놓고...?
(문운경) 아니 근데 큰 저기 탱크가 있었어요 인자. 용변에 같은 그 탱크로 인제 화관이, 저 변소간이... 거다가 물을 그냥 반을 담어요. 똥 싸면 그 똥물이 섞어져요.

아 물하고?
(문운경) 예 예.
(한도희) 썩히는 거지.
(문운경) 썩히는 거지.

그럼 거기다 재를 넣는 거예요?
(문운경) 아니. 인자 다 뭐 인자 헛간이 있을 거 아녀, 인자. 그러면 그걸 갖다 거기다 찌끄려 인자.

헛간에다가? 아 재 위에다가?
(문운경) 재 위에다가 찌끄려갖고 뒤집어요. 똥재 되야부러. 그럼 거름이 돼야부러요.

그러니까 인제 부엌에서 나온 재를 헛간에다가 쌓아놓잖아요. 헛간에다 쌓아놓으면, 헛간에 쌓았다가...?
(문운경) 많이 될 거 아녀 인자.

쌓이면, 이것이 이제 많아지면 그 위에다가...?
(문운경) 인제 삽으로 뒤집으면서 똥 인자.

똥하고 이렇게 섞는 거예요?
(문운경) 예. 뒤집어요.

저 남쪽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문운경)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쪽에서는 이렇게 돌 2개 놓고, 앞에다 재 싸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변 놓은 다음에 이걸 재로 덮어서 뒤에다 던져놓으면 여기서 재하고 똥하고 섞이고...
(문운경) 아니 근데 남쪽에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항아리가 변소간이라고 그러거든. 거다가 인제 저 나무때기 두개 걸쳐놓고 이만치 사람 빠지지 말라고 거기서 똥을 싸면, 거기도 물어 반을 채워요.

아 원래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문운경) 예 예. 그래갖고 인자 헛간에다가 재위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부엌재가 비료여. 지금 말하면 여 현재 비료허고 똑같은 거여.

그리고 인제 소 키우는 사람은 그거... 소 마구 친...
(문운경) 응. 소 오줌, 똥 같은 것도 다 받았어 그때는.

그러면 인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재하고 인분하고 섞어서 비료를 쓴 거예요?
(문운경) 응.

여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문운경) 응. 여그도 그랬었어. 농지정리 헐 때 오서 보니까 그렇게 허고 있었어.

그 실제로 풀 베는 퇴비는 새마을운동 때 하지 않았나요?
(한도희) 퇴비 뭐 퇴비를 해여. 뭐 퇴비나 있어? 허허. 소 길르는 사람들은 좀 퇴비는 했지 그래두.

(문운경) 근데 부잣집은 여기서도 방앗간집도 다 했잖아어. 머슴 뎃고 댕기매 퇴비 했다고. 그 똥재 만들고 저기하고. 보리밭에 인제 뭐 맨날 보리 심으면 뭐 헐거여. 뭐 부엌재 갖다가 뿌리고...

보리밭에 인재 인분을 갖다가 뿌리는 거죠?

(문운경) 아니, 인분이 아니라 부엌재를 똥재허고 섞었잖에요. 그걸 갖다가, 부엌재를 갖다가 인자 비료 뿌리듯이 뿌려. 골에다가. 그러고 인자 보리 심고 그랬지.

아 보리 심을 때 뿌리는 거예요?

(문운경) 예. 보리 심을 때.

여기서도 보리 심을 때 그렇게 심었어요?

(문운경) 예. 여기서도 그렇게 했어.

보리 심을 때 그 똥재를 갖다가 뿌렸다는 거죠?

(문운경) 예 예.

그러면 겨울에, 2월이나 이 무렵에요. 1월달이나 2월달에 이렇게 보리밭에 인분 끼얹고 이런 건 안 했어요?

(한도희) 보리 인분 갖다 끼얹었지. 허허허.

(문운경) 그것도 끼얹었어요. 1월달, 2월달에 인자 보리 심고 나면 인자 어느 정도 컸었잖아요. 그러면 인자 똥지게 인자 지고댕김시로 보리밭에 뿌려렸지.

보리밭이나 밀밭예?

(문운경) 예. 일단 그것이 거름이니까... 옛날 거름이 귀허니까 그 똥재가 그거 거름. 최고의 거름이지.

(한도희) 인분이 거름이여. 인분이.

(문운경) 용재네 똥지게 몇 번 많이 졌어요 내가. 거기서 저 미자 아버지, 조하영이, 원철이 아버지, 우리 매형, 저기 양재 아버지, 다섯이.

여기 방앗간은 어디로 다녔어요?

(문운경) 방앗간이 여기 동네에 하나 있었으니까.

(한도희) 있었어. 동네.

동네 어디 있었어요?

(한도희) 저 위에 있어.

(문운경) 웃말에 하나 있었어.

여기 여기는 참 그 새말인데, 윗말, 아랫말 이렇게 하나요?
(문운경) 응. 그렇지.

웃말이 이쪽인가요?
(문운경) 예. 산 있는 쪽으로.

산 있는 쪽이 웃말이고, 요 들판 쪽으로가 아랫말이고.
(문운경) 아니 이쪽으로가 아랫말.

아 여기 마을회관 있는 쪽이요?
(문운경) 예.

웃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네요?
(문운경) 예. 더 많이 살아요.

그럼 방앗간은 어디 있었어요?
(문운경) 가운데 중앙에 있었죠... 각 동네 정미소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이 방앗간은 누가 했었어요?
(문운경) 한우희라고, 거기서 방앗간 했지.

옛날에는 방아 찧으면 방아삯은 얼마나 뗐어요?
(문운경) 모르죠 그거는.

어르신 여기서 안 찧어보셨어요?
(문운경) 아 여그서 계속 찧었죠.
(한도희) 찧었지.
(문운경) 그런데 얼마 찧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쌀 한 두세 되 떴나요?
(한도희) 한 가마니, 쌀 80kg 하나 찧으면은... 닷 되를, 닷 되를 떴나? 뭐 얼마를 떴나.

5되면 많이 떴네요?
(문운경) 예. 많이 뗐어요.

이 방앗간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한도희) 방앗간 있는 제가 벌써... 몇 년도에 했는지 몰라.

어르신 기억 안 나세요?

(문운경) 언제 그만둔지 모르겠어.

어르신 어렸을 때부터 있었었나요? 이 방앗간은?

(한도희) 어려서는 없었어. 방앗간.

그럼 어려서는 방앗간 어디로 다니셨어요?

(한도희) 방앗간은 저기 옛날에는 저기 방앗간이 없었고 개인이, 개인 저기로다가 방아, 방아 사가지고 정미기에다가...

(문운경) 응, 정미기. 원동기 쬐끄마한 거 해갖고...

(한도희) 응. 쪼끄만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아 쪄먹구 그랬어.

그거는 인제 정미기는 저기고요.

옛날에는 저기 한 번 빻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리고 또 들려가지고 또 다시 했구. 한 서너 번 내리나보던데.

아 그러면 옛날에 그 똑딱방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운경) 예 예.

발동기 쪼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니고.

(문운경) 예. 발동기.

그때는 이제 똑딱...

(문운경) 똑딱 방아지.

(한도희) 하꼬, 하꼬방아... 집어넣고

(문운경) 인제 승강기도 허고.

(한도희) 집어넣구... 승강기도 허구.... 퍼붓구 퍼붓구 그런 거지 뭐.

나오면 다시 위에다 퍼붓고 퍼붓고 해가지고...

(한도희) 퍼붓구 인제.

이 똑딱방아 하는 분은 어디 분이었어요?

(한도희) 동네서 저기 농사 많이 해는 사람들이 해는 거여. 내 방아 찧구 인제 남의 것도 또 찧어주구. 이렇게.

그럼 이 방앗간은 언제 생겼어요? 한우희 씨가 하는 방앗간은?

어르신 몇 살 때쯤 생겼을까요?
(문운경) 방앗간이 언제 생겼어?
(한도희) 언제 생겼는지 뭐 알어? 몰러. 어떻게 알어.

이 방앗간 없어지고 나서는 인제 어떻게 했어요?
(한도희) 방앗간 없어지고 인저 큰 방아로 가는 거지 뭐. 오산이로도 댕기구, 저기 동네 동네 동네로두 가고 그랬지.

동네면 어디?
(문운경) 크게, 개인이 크게 정미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버린 거여.
(한도희) 안말두 가구.

안말도 가고요?
(문운경) 임동수가 인제 다 저기 해버렸잖어.
(한도희) 그거는 그 후지. 그 후에.

지금은 전부 다...
(문운경) RPC로 가고... RPC, 농협. 지금은 농협으로 가. 일반 방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RPC로 가기 시작한 건 몇 년 정도 됐어요
(문운경)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계약 재배하시나요?
(문운경) 예 예. 계약 재배 해요.

농협 계약재배를 몇 % 정도 해요?
(문운경) 100% 다 해지요. 농협에 100% 다.

아 마을분들 다, 100%?
(문운경) 아니 근데 마을 분이 인제 신청을 해요. 내가 단체장인데 신청을 해. 누구누구 무슨 벼를 심을 거냐, 안 심을 거냐. 그래갖고 안 심은 사람은 안 허고, 심을 사람은 그때 인자.

벼 심는 경우는 무조건 100% 지금 계약 재배예요?
(문운경) 예 예. 계약 재배. 100%

계약 재배 안 하시는 분은 없고요?
(문운경) 안 헌 사람도 있어요.

몇 집 정도가 안 해요? 계약 재배를?

(문운경) 근데 인자 몰르겄어 인자 하여튼 우리 동네 16집이 다 허고 있지.

현재는 16집이 전체요. 농사짓는 집이 16집이예요?

(문운경) 농사짓는 사람이 한 20집 되는데, 한 너덧 집은 안 허고 있지.

20집 중에 16집이 계약 재배로?

(문운경) 응, 계약 재배. 그러면 농협으로 100% 다 출하시키지. 개인이 방아 안 쪄요.

그러니까 현재 논농사 짓는 분이 20집이네요?

(문운경) 예.

그러면 한 40 집 가운데 논농사가 20집이고, 축산하시는 분은 없어요?

(문운경) 축산도 여기 많이 했는데, 다 인자 한 집도 안 해.

옛날에 몇 집이나 했어요?

(문운경) 여 형님도 허고 나도 허고, 축산 여러 집 했지. 한... 몇 집이냐?....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나서) 8집인가 됐는가 본데, 축산 허는 집이... 지금 한 집 딱 허고 있구나.

현재는 한 집이예요?

(문운경) 응, 한 집이. 한 집이 허고 있어. 축산.

그 한 집이 뭐 한우 하나요?

(문운경) 아니요. 젖소여... 다 젖소 길렀어.

아 8집 전부 다 젖소였어요?

(문운경) 예.

한우는 없고요?

(문운경) 예. 한우는 없고.

보통 몇 마리 정도 길렀어요? 옛날에?

(문운경) 그 많은 집... 우리 형님이나 요리는 한 20마리 길렀고, 나머지는 조금 덜 길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

적게 기르면 몇 마리 길렀어요?

(문운경) 적게 길르는 사람이 다섯 마린가 몇 마린가 길렀을 거여. 한문희씨가 제일 적게 길렀어. 그러고 나머지는 한 20마리 다. 한 집만 그러고는 나머지는 20마리 정도, 그렇게 길렀어.

지금 젖소 기르는 분은?
(문운경) 한 사람이여.

몇 마리 정도 길러요?
(문운경) 많이 길르죠 이?
(한도희) 거기는 한 30마리 길르나 봐.
(문운경) 30마리 더 될 텐데. 거기 우사 큰데.
(한도희) 아 젖 짜는 거.
(문운경) 젖 짜는 거, 송아지까지 다 말해야지.
(한도희) 40∽50마리 길러.
(문운경) 그 정도 될 거여. 송아지까지.

이 기르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한도희) 한유희. 허허... 인저 없어, 소 길르는 사람 없어.

여기는 어느 우유 회사에다?
문운경 · (한도희) 서울우유.

그럼 매일 차가 왔나요?
(문운경) 예. 매일 차가 와요.

옛날에는 우유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합격 안 맞으면 빠꾸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문운경) 예. 지금도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한도희) 빠꾸 당하면 가져가지도 않어.

그럼 그거 뭐 해요?
(문운경) 다 폐기처분해야지.

집에서 끓여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운경) 아니 그냥 다 폐기 처분해. 근데 인자 뭐냐면 항생제 들어가면 그래요. 그 유방염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방염 걸리면 철저히 젖꼭지 검사해 갖고 잘 짜야 해. 잘못 짜갖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방염 걸린 젖을 짜도 안 가져가고?
(문운경) 응.
(한도희) 내비려야 혀.

(문운경) 내버려야 혀. 다.

유방염 예방하려고 항생제 줘도...?
(한도희) 항생제 줘도 못 가져가.
(문운경) 긍게 그 소는 별도로 짜갖고 버려버려야 돼.

그럼 인제 유방염 걸리면 젖을 안 가져가니까 항생제를 먹여서 또 그 젖도 안 가져가니까 다 버리고, 완전히 나으면 그때서야 인제 가져갔겠네요?
(문운경) 응.

관리 잘못하면 무지 힘드시겠네요.
(문운경) 응. 아이 저녁에 멀정허다 아침에 유방염 걸리고 그런디 뭐.

손해가 많이 날 때도 있겠네요?
(문운경) 예. 많이 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네, 저 소 길를 때는 병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잘 죽고, 저기허고...

병도 많고 그랬어요?
(문운경) 예. 안 될라면 또 소 수술허고. 전위 수술, 이 형님이나 나나 똑같애요. 그 수술.

무슨 수술이요?
(문운경) 아 전위 수술이라고 있어요.
(한도희) 위, 위 수술해요. 위 수술.

아 소 위 수술해요? 그건 뭐예요?
(문운경) 잘 안 먹고, 말하자면 사람 같으면 그 체인 거허고 똑같지.

그 소 위 수술을 어떻게 했어요?
(문운경) 배 갈라갖고, 칼로 갈라갖고

그러면 수의사가 와서 했어요?
(문운경) 수의사가 와서.

그래서 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한도희) 아니. 이게 위가 꼬인다고. 이게 꼬여... 전위가 와가지구 위가 이렇게 돌어간 거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한도희) 돌려, 돌려놓는 거여.

비용도 비싸겠네요?
(문운경) 예. 비싸죠.

한 마리 수술하면 얼마 정도 그때 비용을 치렀나요?
(문운경) 잊어버렸어. 지금은.
(한도희) 그때 뭐 한 돈 10만원 이상 줬을 거여.
(문운경) 10만원 갖고는 안 돼요.

당시 돈으로요?
(문운경) 그때 돈으로 한 30만 원 돈 이상 줘야 했어. 1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한도희) 전위 수술 해는 데.
(문운경) 송아지 한 마리가 50만 원이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값은 다 들어갔어요.

아 송아지 한 마리에...
(문운경) 응. 50만 원이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다 들어갔어.

이때가 한 80년쯤 되나요?
(문운경) 그 정도 돼, 80년도?

어르신 오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쯤 될까요?
(문운경) 아니 그 후로 했었어. 우리.

그러니까 한 20년?
(문운경) 지금 우리가 그만둔 제가... 내가 왜 외국 갔다 와갖고... 내가 한 90년도 정도에서 그만뒀어.

그니까 이제 그때 돈, 그니까 인제 80년대 돈으로 한 30만 원, 송아지는 한 50만 원?
(문운경) 응.

이때 소 키우는 게 괜찮았어요?
(문운경) 예. 괜찮았어... 농사지은 것보다 나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키우게 됐어요?
(문운경) 힘들었어요. 장소가 좁으니까 아침에 똥 치지, 점심 때 치지, 또 저녁 때 치지, 똥을. 그것이 제일 일거리가 최고, 똥 치는 것이.

똥 치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문운경) 응.

(한도희) 또 환경, 환경적으로다가 동네서 못 길르게 핸 거여.

하루에 세 번 치신 거예요
(문운경) 응. 하루에 세 번... 힘들었지. 긍게 어디 놀러도 못 가는 거야.

아 놀러도 못 가고.
(문운경) 응. 한 사람은 계속 집에 있어야 혀.

또 마을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문운경) 예.

냄새 난다고요?
(문운경) 응. 냄새 난다고.
(한도희) 환경 저기로다가... 동네, 동네에서.
(문운경) 뭐 시설을 잘해야 허는디, 돈도 없으니까 시설도 잘헐 수도 없고. 옛날 재래식이라 힘들지.

그때는 그 똥 치우면 그 똥으로는 이제 거름 한 거예요?
(문운경) 인자 밭에다가 다 갖다 버리지. 논에도 들어가고 밭에도 들어가고... 이 형님이 소 길르니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전위가, 뻔질나게 전위가 잘 와가지고.

아 전위가 잘 와가지고요?
(문운경) 응. 이 형님은.

비용을 많이 들이셨겠네요.
(문운경) 응. 근데 우리는 또 소가 잘 디지고.

잘 죽고?
(문운경) 아~ 소 진짜 잘 죽었어. 근데 운이 안 맞은가 벼. 그렇게 잘 죽어.

소가 죽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문운경) 땅에다 묻어버려야지.

뭐 전염병 걸려갖고 죽은 거예요?
(문운경) 아녀. 갑자기 새끼 낳다가 죽어요.
(한도희) 새끼 낳다가 많이 폐사되는 거여.
(문운경) 많이 죽어요.

새끼 낳다가 많이 죽는 거예요?
(문운경) 응. 새끼 낳고 나서 바로 어떻게 뭘 먹지도 않고 쓰러져서 그래.

그러면 그 젖소는, 젖 짜던 소는 식용으로는 못 쓰나요?
(문운경) 지금은 별로 안 팔려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문운경) 자기 밭에다 묻어버려.

그 소 한 마리 값이 그냥 완전히 날아가는 거네요?
(문운경) 그렇죠.

비육우는 먹는데 젖소는...?
(문운경) 별라 안 먹어요.

사가는 사람도 없고요?
(문운경) 응.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젖 짜먹을 만 에 소가, 좋은 소들이 꼭 죽어요. 다 이상하게.

좋은 소들이?
(문운경) 빨리 죽어요. 수명이 짧아.

벼농사 지을 때 지금은 이렇게 모판 같은 거 전부 다 사다 쓰시나요? 아니면?
(문운경) 예. 일부 다 사다 쓰고 그래요.

여기는 대부분 사다 쓰시는 거예요?
(문운경) 예.

요새는 한 판에 얼마예요?
(문운경) 한 판에 5천 원.
(한도희) 5천원, 허허.
(문운경) 너무 비싸요.

이게 올해 얘기죠?
(문운경) 작년부터 그랬어요. 5천원.

그럼 농협 보조 없어요?
(문운경) 농협보조가, 5천 원인데 그거 1,500원 보조 있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다 가져가요.

5천원 저기해서.

그러면 인제 사는 사람은 3,500원 내면 되네요?
(문운경) 예.

그리고 심어주는 데는 얼마예요? 논 써려 주는 데도 또 얼마씩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운경) 예. 논 썰고 갈고 심게끄롬 그 350원, 아니 3,500원

평당이요?
(문운경) 응. 평당.

갈고, 써리는데...?
(문운경) 응. 3,500원... 또 모심는 건 1,500원.
(마을 주민) 몇 평 심는데?
(문운경) 1평에.
(마을 주민) 1평에 150원이지, 어떻게 1,500원이냐.
(문운경) 150원? 150원인가.
(마을 주민) 갈고 써리는 건, 그 갈고 써리는 건 300원인가...
(문운경) 3,500원.
(마을 주민) 또 3,500원이래!

350원 아녜요? 1평당이니까?
(마을 주민) 300원인지, 350원인지.
(문운경) 350원? 350원 아닐 건디?
(한도희) 300원인가 얼말거여.
(문운경) 아녀. 3,500일 거여.

1평이면 요만큼인데, 요만큼 써리는데 3,500원 받으면 안 되죠?
(문운경) 아 그러니깨 써리고 갈고, 다 모심게끄롬 해주는 거.

그래도 3,5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마을 주민) 저기야. 갈고 써리는 데 300원, 심는 데 150원, 또 저 베주는 데 300원.

농약은요?
(마을 주민) 농약은 난 몰러요.

농약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해주나요?
(한도희) 개인이 허는 거여. 농사짓는 사람이 허는 거여.

그냥 개인이 농약 뿌리는 사람...?
(한도희) 아이 뿌리는 사람, 자작 뿌리는 사람 있구,
(마을 주민) 기계값만 평당 750원이야... 갈고 써리는 데 300원, 심는데 저 150원, 또 비는 데 저기 300원 그래 750원 아녀. 평당.
(문운경) 근디 여기는 저긴데, (갈고 써리는 데) 350원씩이여. 다 전국적으로 저기.

아 다른 데요?
(문운경) 응. 다 그래. 근데 우리 동네 몇 사람들 좀 그 기계 있는 사람이 좀 저렴하게 해 주는데...

아 저렴하면 300원이고?
(문운경) 응. 350원이여.

그러면 인제 800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평당...
(문운경) 아니 저기지. 150원, 350원 허면 500원 아녀.

예. 그리고 인제 베는 거 300원.
(문운경) 500원이면 2천 평이면 100만 원 아니요?

예.
(문운경) 100만원이여.

그리고 베는 것까지. 평당 300원
(문운경) 응. 300원. 진짜 얼마냐면 60만 원... 그러면 160만원, 1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마지기 200평 잡고 16만 원.
(문운경) 응.
(마을 주민) 여기가 1마지기에 150평!
(문운경) 하여튼 마지기 수는, 평으로 허니까, 200평 잡으나 150평 잡으나 똑같애요.

옛날부터 한마지기가 150평이예요?
(문운경) 여그는 150평이고, 딴 데는 또 200평에 또 1마지기여.

예. 보통 산골은 200평 한마지이고...?
(문운경) 아니 여 들판에도 그래요.

근데 여기 진위 이쪽은 산 있는 데는 200평을 한 마지기로 잡고, 들판은 150평을 한 마지기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도희) 이 서탄에는 이 회화리, 거기만 200평이여.

왜 회화리만 200평일까요?

(한도희) 그건 나도 몰라. 나도. 근데 거기가 원래 모래땅이 많아갖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모래땅이 많아.

회화리는 모래가 워낙 많아서 동네도 관만 박으면 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운경) 응. 그래.

(한도희) 20자만 박으면 물 나오는 거여. 허허허.

여기는 안 그렇죠?

(한도희) 여기는 안 그래... 냇갈 여 가차워갖고 냇갈물...

요새 한 구간 농사지으면 이것저것 뭐 농약값, 기계값 빼면 얼마 정도 남아요? 1,200평 농사 지으면?

(문운경) 그러니까 우리가 2,100평에서 1년에 한 총계 다 계산하면 한 700만 원 나오거든요.

아 2,100평에서요?

(문운경) 응. 700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160만 원 빼면, 인자 기계값.

700만 원에서 540만 원이요.

(문운경) 540만 원. 인자 거기서 인자 약값, 비료값 빼보면 한 100만 원씩 또 빼야지.

아 얼마 안 나오네요. 440만 원 나오네요.

(문운경) 예. 그거 나와요.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II.

서탄면 사리 마을조사



김해규

여 백

Ⅲ. 서탄면 사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과 지명

1) 자연환경



서탄면 사리 전경

사리(寺里)는 평택시 서탄면의 마을이다. 주산은 매봉산(해발 75m)이다. 지형은 매봉산을 중심으로 낮은 구릉과 계곡, 평야지대로 형성되었으며 점차 오산천의 하천부지로 확장되었다. 마을은 매봉산의 남동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차 북동쪽 새동네 방향으로 넓혀졌다. 매봉산은 모양이 매의 형국이다. 사리마을은 일명 ‘조탁지’라고 하여 매가 모이를 쪼아 먹는 곳에 위치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풍요롭고 조금만 노력해도 출세할 수 있어 지주와 관직 진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1)]

마을의 위치는 동쪽으로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진위면 야막리, 하북2리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으로는 금암1리, 북쪽으로는 수월암1리와 이웃하며, 서쪽에는 수월암2리 도도리 마을과 접한다.

경작지는 오산천의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매봉산 자락의 방죽밑들, 뒷고실골, 구들을 중심으로 농경이 발달했으며, 조선 후기 야막들, 방꼬지들, 하북들이 개간되면서 오산천 동쪽 건너편으로도 경작지가 확대되었다.

오산천은 진위천의 지류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향린동산 남쪽 350m 고지에서 발원[2)]하여 오산시를 거쳐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탄면 금암1리 금암교 아래에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하천 연장은 12.03㎞, 유역면적은 48.19㎢, 유로 연장은 13.95㎞이며, 2급 하천이다. 예로부터 용인시 구성읍과 기흥읍에서는 ‘신갈천(新葛川)’이라고 하였고, 오산 일대에서는 ‘오산천’이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오산원천(烏山院川),『청구도』에는 토범천(兎汎川),『택리지』에는 오산천(鰲山川),『수원부읍지』에는 오매천(烏梅川),『여지도』에는 오천(烏川) 등 다양하게

1) 윤학수(남, 1941년생) 인터뷰, 2023년 10월 23일
2) 디지털 용인전자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yongin/dir/GC00900080)

불렀고,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오산천(烏山川), 『증보문헌비고』에는 토현천(兎峴川), 김정호의『청구요람』과 진위현 고지도에는 토현천(兎峴川)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오산천'으로 통일되어 지금에 이른다.

사리는 예로부터 단일마을이었다. 경주 김씨, 칠원 윤씨가 대성(大姓)을 이뤘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도 상당했다. 한학이나 근대교육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근대교육과 계몽운동, 3.1운동에 앞장선 윤대선, 3.1운동에 앞장선 윤기선, 윤교영, 사리농업협동조합을 이끈 윤준학, 1970년대 새마을부녀회장 최정희 등 선각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사리의 공간적 범위[3)]

사회 문화적으로 사리는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해방 후 4H운동이 활발했으며, 이것이 이동농업협동조합운동과 새마을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또 근대교육이 활발하여 일제강점기에는 강습소와 야학운동이 활발했고, 해방 후에도 상급학교 진학자가 많았으며, 공직(公職) 진출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도 특징이다. 오랜 전통의 당제는 20여 년 전까지 거행되다가 마을 내 통관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祭)를 지내도록 했는데 근래 땅 주인이 당집을 철거하면서 중단되었다.

2) 인구

사리는 단일마을로 구성되었다. 마을의 형성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안동 김씨 군사공파가 400여 년 전(13대 거주)에 입향했고 칠원 윤씨도 7, 8대를 거주했으므로 양난(兩亂) 이후부터는 사람이 거주했을 것이다. 다만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진위면 이서면에는 야막리, 걸호리, 내천리는 나와 있지만 '사리'는 언급되지 않아서 행정구역상 '리(里)'는 그 이후에 형성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도 야막리와 같은 마을로 기록되어 이 때까지는

3) 구글지도 서탄면 사리

행정 리(里)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호구총수』에서 이서면의 호(戶)는 137, 구(口) 478명이었다.

사리(寺里)가 문헌상에 나타나는 것은 1891년 『진위현읍지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사리를 ‘사동(寺洞)’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른 기록으로는 1911년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이다. 사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사동(寺洞)’ 단일마을로 서탄면에 편재되어 서탄면 사리가 되었다.

1961년 12월 말 현재 서탄면의 면적은 21.610㎢이며 인구는 1,402호 8,162명이었다. 1963년 12월 말에는 1,404세대 8,407명으로 증가했다. 1963년 100세대 665명이었던 사리의 인구는 1970년대 500명대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서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의 발달과 소규모 공장들의 입주 영향으로 파악된다.

1965~1985년 서탄면 사리 인구 변동[4)]

연도	호(세대)	인구	남	여	비고
1963	100	665	310	355	12월 말
1970	99	542	252	290	12월 말
1974	97	581	290	291	12월 말
1979	107	606	306	300	12월 말
1984	120	626	322	304	12월 말
2003	138	392	217	175	12월 말
2008	156	372	208	164	12월 말
2015	151	310	166	144	12월 말
2019	152	292	157	135	12월 말
2023	157	289	158	131	8월 말

3) 성씨

사리(寺里) 마을에 가장 먼저 입향한 성씨는 순흥 안씨와 해주 오씨로 알려졌다.[5)] 하지만 거의 남아 있지 않고 2023년 현재 대성(大姓)은 안동 김씨와 칠원 윤씨다.

조선시대 진위현의 성씨

지역	출처	시기	성씨		
진위현	세종실록지리지	1454(단종2)	土姓	亡姓	續姓
			李·金·崔	柳·宋	趙(稷山來)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중종25)	金 · 李 · 柳 · 崔 · 宋		
	여지도서	1757~1765	金 · 李 · 柳 · 崔 · 宋 · 吳 · 黃		

4) 평택군, 『평택군 통계연보 』, 1965~1985

5) 2007년 1월 10일 김덕영(남, 1933년생), 오완근(남, 1930년생) 인터뷰

지역	출처	시기	성씨
	진위현 읍지	1843(헌종9)	金 · 李 · 柳 · 崔 · 宋
	진위현 읍지	1891(고종28)	金 · 李 · 柳 · 崔 · 宋

안동 김씨 군사공파는 13대 400여 년을 거주했다. 후손 김덕용(남, 1933년생)에 따르면 사리의 안동 김씨는 고려 후기의 명장 김방경의 후손으로 고려 말 연안군사를 지낸 김칠양(金七陽)이 파조(派祖)라고 한다. 서탄면 사리 입향조는 김진(金珍, 1512~1559)이다. 김진은 김언정(金彦楨)의 장남으로 공조참의에 증직(贈職)되었다. 사리 매봉산록 안동 김씨 묘역의 묘비명(墓碑銘)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덕성이 심후하여 진위현 사동(서탄면 사리)에 거주하던 해주 오씨 가문의 오희윤이 사위로 삼으면서 서탄면 사리로 낙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진의 아들 김계선은 형조참의를 지냈는데 아들 가운데는 증직으로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이 내려진 3남 김집(金楫)과 통정대부를 지내고 증직으로 첨지중추부사가 내려진 4남 김격(金格)이 출세했다. 김집(金楫)의 아들은 용양위 대호군과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봉래(鳳來)이며, 김격(金格)의 장남은 가선대부 동지중추 부사를 지낸 봉의(鳳儀)다. 김봉의(金鳳儀)는 칠원 윤씨와 혼인했다. 안동 김씨는 이후 김봉래(金鳳來)의 아들로 통덕랑(通德郞)에 오른 김광운 등 낮은 벼슬에는 진출했지만 점차 관직 진출자가 없어지면서 가문의 위세가 약해졌다. 후손 김찬희(남, 남, 1935년생)와 김구회(남, 1947년생)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까지는 양반신분으로의 체통을 중시하고 한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사리마을의 안동 김씨는 약 40호쯤 된다.




안동 김씨 군사공파 묘역과 칠원 윤씨 판결사공파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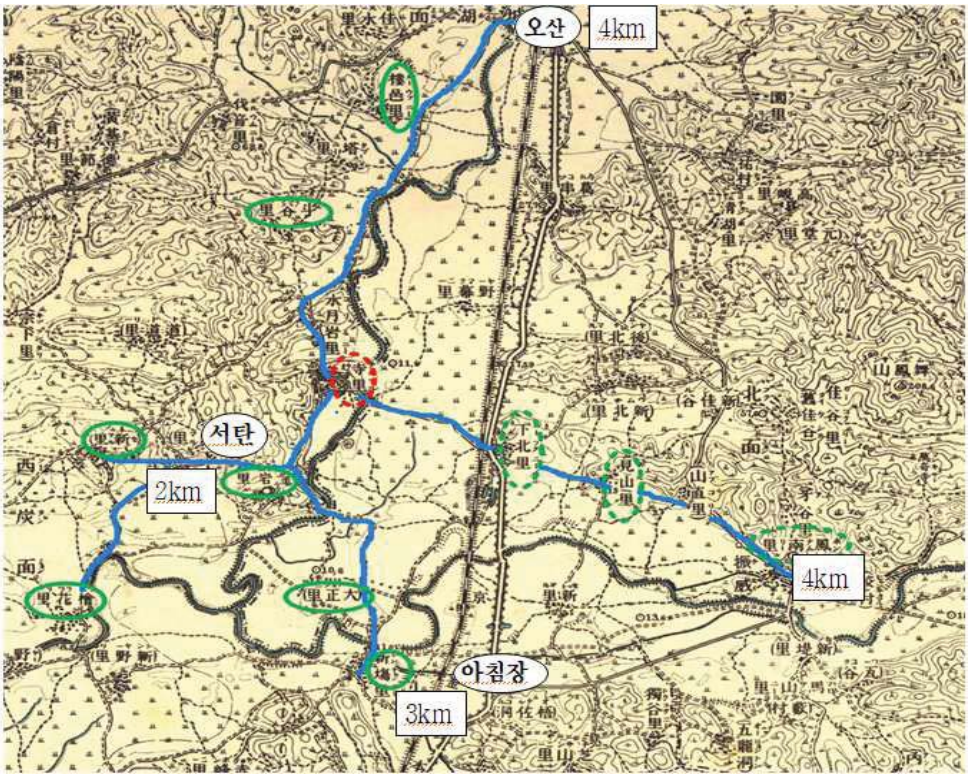
칠원 윤씨는 충효공파와 대원공파, 그리고 감찰공파(1집) 거주한다. 윤학수(남, 1941년생)는 충효공파와 대원공파의 입향시기가 비슷하다고 말했지만, 윤병무(남, 1938년생)는 충효공파가 100여 년쯤 먼저 들어왔을 거라고 말했다. 대원공파 후손 윤병무는 위로 7대조께서 화성시 조암에서 이주했다고 했으며, 충효공파 후손 윤학수는 250여 년 전 윤재순이 화성시 비봉면에서 이주했다고 말했다.

칠원 윤씨의 입향 동기는 혼인 관계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안동 김씨 후손 가운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김봉의(金鳳儀)는 칠원 윤씨와 혼인했는데 이를 통해 칠원 윤씨가 입향(入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 후기 칠원 윤씨는 관직 진출자를 배출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위세를 떨쳤다. 특히 대한제국에서 시종원 시종 벼슬을 하다가 경술국치 뒤 낙향하여 서탄면장을 지냈던 윤기선은 면장 신분으로 3.1운동 주도했다. 윤대선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진위공립소학교 교사

로 부임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으며, 진위군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고 3.1운동에도 가담했다. 같은 가문의 윤교영도 3.1운동에 가담하여 이름을 남겼다. 칠원 윤씨는 해방 직후만 해도 모두 30호 쯤 살았는데 지금은 약간 줄어서 대원공파 8호, 충효공파 8호, 감찰공파 1호가 거주한다.

4) 교통

사리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오산천, 남쪽에는 진위천, 동쪽으로는 황구지천이 가로 막혀 읍치(邑治), 시장, 교육기관, 철도역과의 연결이 불편했다. 조선후기 진위현의 읍치(邑治) 봉남리와는 4km 떨어져 있었다. 근대 이후에도 봉남리에는 진위군청과 공공기관, 진위읍내장, 진위초등학교가 있어 왕래가 빈번했다. 봉남리에 갈 때는 마을 앞 섶다리(사리교)나 징검다리를 건넌 뒤 야막들-하북리-견산리를 지났다. 1930년 서탄면 금암리에 4년제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한 뒤에도 많은 학생들은 6년제 진위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봉남리를 오갔다.



1922년 지도 사리(寺里) 일대 교통망

1914년 일서면과 이서면이 통합되어 서탄면이 되었다. 초기 면소재지는 서탄면 금암1리였다. 금암1리를 갈 때는 매봉산 자락을 넘어 안골방죽을 지나다녔다. 거리는 2km가 채 안 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서탄면사무소가 금암2리로 옮긴 뒤에는 조금 더 멀어졌다. 시장은 오산장을 보다가 한국전쟁 뒤 평택시 지산동 숯고개 아래에 아침장(송탄시장)이 개장되면서 송탄으로도 오갔다. 지산동까지는 4km가 조금 안 됐다. 아침장을 갈 때는 오산천을 따라 북바위 근처에서 매봉산 자락을 넘은 뒤에 금암1리와 하북2리 대정촌을 지나 진위천을 건넜다. 사리에서는 한국전쟁 뒤 평택시 장당동의 효명중·고등학교나 신장동의 태광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 길을 다녔다.

오산(烏山)은 오산장을 보거나 중 · 고등학교에 등 · 하교를 할 때 다녔다. 오산장은 장(場)의 규모도 컸지만 우시장이 발달해서 농우를 거래하기 위해 자주 오갔다. 한국전쟁 뒤 중 ·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오산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오산까지는 백토고개를 넘어 수월암1리(거리미), 두곡리, 누읍리를 지났다. 이 구간은 1960년대 중반 오산천 둑방이 축조되면서 오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신작로 국도 1호선이 개설되었다.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산역, 진위역 서정리역이 설치되었지만 진위역은 곧 폐역되고 오산역과 서정리역만 남았다. 사리 주민들은 오산역을 이용했다. 서정리역까지는 7km였고 오산역까지는 4km였기 때문이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버스는 국도 1호선만 오갔다. 그래서 사리 사람들뿐 아니라 수월암리를 비롯한 주변 마을도 버스를 타려면 1.5~1.7km 떨어진 하북1리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마을 안쪽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온 것은 1990년대부터다. 지금도 평택시내에서 송탄지역을 거쳐 서탄면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온다. 2024년부터는 노인들의 경우 1천 원이면 평택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천원택시도 운행된다고 한다.



'사리교'와 2023년 현재 사리의 교통, 백토고개, 88A시내버스

사리마을에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은 사리교의 건설과 관련 있다. 사리교는 본래 징검다리와 섶다리를 함께 사용했다. 섶다리를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말둑을 박고 그 위에 떼를 올려서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는 잘 썩지 않아서 섶다리 기둥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추석 무렵에 섶다리를 만든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장마 때 섶다리가 떠내려가거나 파손되면 여름에는 징검다리로 넘어다녔다. 물이 불어나서 깊을 때는 힘

들었지만 수심이 낮을 때는 신발을 벗고 넘어다니기도 했다. 한국전쟁 뒤에는 징검다리나 섶다리 위에 아나방이라고 불렀던 철판을 깔고 넘어 다녔다.

1960년대 초에는 마을에서 콘크리트 다리를 건설했다. 콘크리트 다리를 건설할 때는 사리농업협동조합에서 쌀 1백 가마를 출연했고, 사리가 모범농촌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지원금이 투입되었으며,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 윤교직도 기부했다. 당시 국회의원 이윤용도 도움을 줬던 것으로 기억된다.

5) 인물

(1) 윤기선(尹箕善, 1865~1922)

칠원 윤씨 대원공파로 자(字)는 성범이며 서탄면 산 761번지에서 태어났다. 고종 때 관직에 진출하여 1898년(고종35)에는 9품관으로 시종원(侍從院) 시어(侍御)를 지냈다. 시종원은 1895년 기존의 승정원과 승선원을 계승하여 설치된 왕의 비서기관이다. 설치 초기에는 왕명 출납 기능이 제한받아 권한이 약했지만 윤기선이 시어(侍御)로 있을 때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시종원의 기능도 함께 강화되었다. 『승정원 일기』 1900년 4월 21일(고종37)의 기록에는 6품으로 승진하여 시종원 시종(侍從)에 임명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윤기선은 시종원 시어(侍御)로 황제의 각종 비답을 관보(官報)에 싣었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각종 사안과 결과를 관보에 싣거나 인쇄하여 반포하는 일을 수행했다.[6]

시종원 시종(侍從) 벼슬을 하고 있던 윤기선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17년[7] 지방금융조합 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1919년 서탄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기선은 서탄면장으로 재임 중이던 1919년 4월 2일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윤기선 등 4인의 판결문」[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칠원윤씨 판결사공파 묘역 윤기선, 윤교영의 납골묘

“1919년 4월 2일 오전 3시경 경기도 진위군 서탄면에서 면장 윤기선은 면서기 한성수에게 ‘오늘 오전 10경까지 각 주민을 인솔하여 서탄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은 문서를 각 구장에게 발송하도록 명하였다. 한성수는 서탄면사무소에서 위 문서를 작성한 후 소사를 통해 각 구장에게 송달했다. 이에 윤교영은 寺里 주민 100여 명에게 알리고 선동하여 참여하였다. 정오(12시)경 서탄면사무소 앞 광장에 면내(面內) 주민 약 400여 명이 집합하였는데 윤대선은 군중에게 ‘조선

6) 『각사등록』 1898년 5월 7일; 1999년 12월 16일;1900년 5월 9일 외
7) 1917년 8월 16일(大正6年 8月 16日), 「조선총독부 관보」 제1511호
8) 「윤기선외 4인 판결문」, 대정 8년 刑第 1464호

이 독립한 후에는 왜놈의 소유인 토지는 환원하고 왜놈은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연설을 학고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경성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자료에는 구장들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독립만세를 일으키라. 만일 불참하며 뒤에 큰 환(患)이 있으리라"라고 쓰였다고 한다. 윤기선은 정오쯤 면사무소 앞에 4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이자 "세계의 대세로 보면 조선은 독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다같이 경하할 일이며 복 받을 일이다. 이번에 내가 적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으면 면민(面民) 전체를 벌주는 일이니 계속 투쟁하라."라고 연설을 마친 뒤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윤기선이 이끈 독립 만세에는 윤교영과 윤대선이 적극 협력했다. 윤교영(농민)은 사리마을 농민들을 동원하고 각 지역에 격문을 돌렸으며, 윤대선(서당훈장)은 윤기선에 뒤이어 앞에 나서서 '조선이 독립한 후에는 현재 왜놈들이 소유한 토지는 모두 환원하고 왜놈들은 추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며 군중들과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윤기선은 면장(面長) 직위에서 면직당했으며,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석방되었다가 3년 뒤에 사망했으며, 202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9] 후손은 딸만 있어 조카손자 윤영수를 양손자로 들이면서 대를 이었다.

(2) 윤대선



윤대선이 교사로 재직했던 진위초등학교(진위공립보통학교)

윤대선은 서탄면 사리에서 출생했다. 대한제국시기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며, 1904년 진위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 진위공립보통학교는 1899년 진위공립소학교로 개교했는데 윤대선이 부임했던 시기까지만 해도 교사(校舍)가 갖춰지지 못해 진위객사나 향교의 대성전 등에서 교육했다. 1905년 을사늑약 후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거액의 차관을 강요하면서 1907년에는 국채가 1,300만 원에 달해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러자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취지서'가 발표되어 백성들의 힘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의 보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1907년 4월 3일 진위공립보

9)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관리번호 35573, 국가보훈처

통학교 교원으로 있었던 윤대선도 ‘국채보상연의문’을 발표하고 진위군민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10] 윤대선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한 구국운동에 앞장서자 일제는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8월 11일 윤대선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학도가 퇴산하고 학교 상황의 진취가 없다”[11]는 이유로 면직당했다. 다시 말해서 수업에 열중하지 않아서 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명목이었지만 저간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국채보상운동으로 밉보여 퇴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07년 음력 정월에는 전 참봉이며 진흥의숙 숙감이었던 이범철과 전 승지 이범창이 고덕면 율포리에 조직한 한남흥학회에도 참여했다. 한남흥학회는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표방했는데 진위군수 백남규, 경중교의숙 숙감 송순두, 개성보창학교 김종호, 전 주사 이승철도 참여했다.

진위공립보통학교 교원에서 면직된 뒤 윤대선은 사리에 거주하며 서당 훈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19년 4월 2일 서탄면장 윤기선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여기에 적극 호응하였다. 윤대선은 400여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며 진위면 봉남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독립하면 왜놈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부 몰수하고 동시에 왜놈을 추방해야 한다”고 연설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윤대선을 비롯해서 윤기선, 윤교영, 한성수 등은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다.

6) 지명유래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필산리	마을	사리(寺里)	서탄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절골’ 이라고 불렀던 것을 한자로 ‘사리’ 로 표기했다.
		절골	사리(寺里)의 우리말 이름. 마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을 동쪽 일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새터(말)	사리매고개에서부터 수월암리 방향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한국전쟁 뒤 피난민들이 정착했고 이후 주변에서도 이주하면서 현재와 같은 마을이 되었다.
		앞거르미	수월암1리 방향 백토고개 남동쪽으로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본래 7~8호가 거주했지만 대부분 마을 안쪽으로 이사하고 지금은 공장지대로 변했다.
		동뜸, 서뜸	사리마을의 동쪽과 서쪽 마을.
	공공시설	사리농업협동조합	1958년 윤준학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주민들의 출자로 자금을 마련하고, 정미소, 구판장, 공동창고 운영과 대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사리교 건설’, ‘새마을사업’ 등에도 기부했다.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미소 운영이 중단되었고 창고 임대업만 하다가 2015년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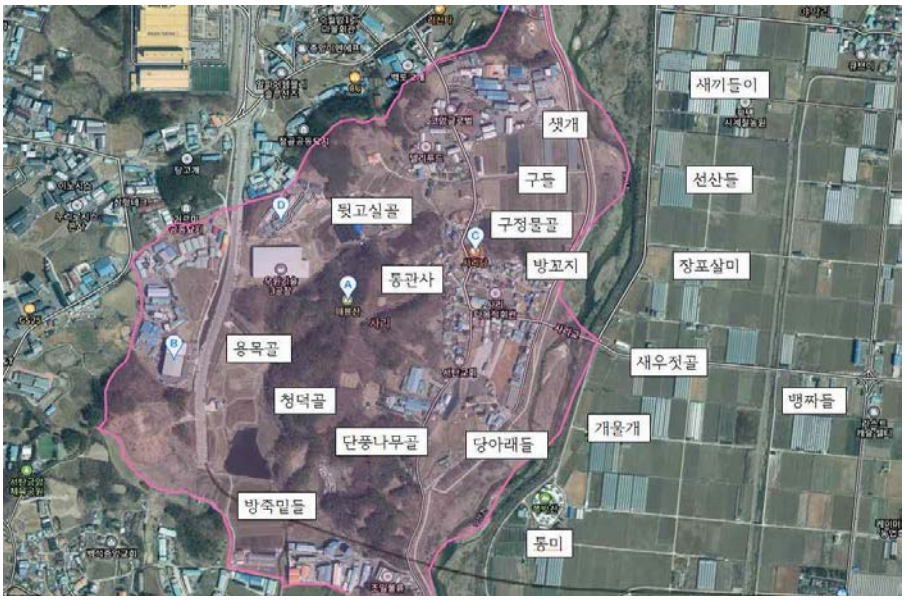
10) 『황성신문』, 1907년 4월 3일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1일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안말저수지	매봉산 서쪽 1944년 축조한 저수지로 사리와 금암2리 안말 사이에 위치했다.
		행성보	해마다 3월경 사리, 야막리, 수월암리 주민들이 오산천 변에 축조했던 보(洑)이다.
		선산보	해마다 3월경 사리 주민들이 축조했던 보(洑)이다. 사리에서만 이용했다.
	산 · 하천 · 문화재	매봉산	사리(寺里)의 주산(主山)으로 해발 76m다. 매의 형국이며 매의 부리가 동남쪽으로 향해 있어 사리 마을에서 공직자가 많이 배출된다고 전한다.
		모정산	'모장산' 이라고도 부른다. 띄풀 지붕을 한 정자가 있어 유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전승되지는 않는다. 권세가였던 경주 이씨 종중 묘역이 있어 죄인들이 숨어도 찾지 못했다고 전한다. 2,000년 이후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묘역은 이장하였고 경관은 크게 변했다.
		쪽박산	사리 남서쪽 오산천 건너편에 있었던 해발 15m 내외의 낮은 언덕으로 통미산, 통가리, 노적봉으로도 부른다. 큰 홍수가 났을 때 용인에서 떠내려왔다는 전설이 전하며, 이로 인해 용인군수가 진위군수에게 도지(소작료)를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주민들은 이 산 때문에 마을이 부유하다고 믿었지만 2000년대 중반 개발되면서 현재는 글램핑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장산	서탄면 사리마을의 동뜸에 있는 산이다. 진위면 갈곶리에서 바라보면 송장이 누워 있는 모양이라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오산천	진위천의 지류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향린동산 남쪽 350m 고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 금암리 적봉교 아래에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하천 연장은 12.03㎞, 유역면적은 48.19㎢, 유로 연장은 13.95㎞이며, 2급 하천이다. 『택리지』에는 오산천(鰲山川), 『수원부읍지』에는 오매천(烏梅川), 『증보문헌비고』에는 토현천(兎峴川) 등으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오산천' 이라고 했다.
		당아래들	서탄감리교회 남쪽에 있는 작은 들이다.
		방죽밑들	안말방죽 아래에 형성된 들판이다.
		뒷고실골	사리마을 뒤 매봉산 북쪽의 골짜기에 형성된 논농사지대다.
		구들	사리마을과 수월암1리 사이의 들판이다. 오산천변에 위치하여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새우젓배가 들어왔다고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전한다.
		행성들	오산천 건너편으로 행성보 몽리구역에 형성된 들판이다.
		선산들	오산천 건너 선산보 몽리구역에 형성된 들이다.
		뱅짜들	오산천 건너 하북2리 쪽 들판 이름이다. 보(洑)에서 멀어서 봇물이 모자라면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천수답이 많았다.
		백토고개	사리에서 수월암1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갯마루에 흰 흙이 있어 유래되었다. 옛날에 배가 드나들 때 북소리가 났다는 전설과,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북소리를 울려 주민들이 대피하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사리매고개	사리에서 수월암1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이다. ‘사루미고개’ 라고도 부른다.
		새우젓골	오산천 건너편의 지명. 옛날 바닷물이 들어올 때 새우젓배가 정박했던 곳인데 지금은 개간되어 논이 되었다.
		장포살미	오산천 건너편의 들판 이름이다. 창포가 많이 나는 곳에서 유래되었다.
		용목굴	요무굴, 용두골, 용지곡이라고도 한다. 용우물이 있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용지사라는 절이 있는데 빈대가 많아 북태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샛개	사리의 지명이다.
		통거리	통미라고도 부른다.
		새끼들이	오산천 넘어 야막리 방향으로 가는 길의 들판이름이다.
		개울개	오산천 건너편의 하천변 들판.
		조뱅이골	매봉산의 골짜기 이름.
		구정물골	절터 뒤쪽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다.
		방꼬지	‘밤꽂이’ 로도 부른다. 송장산 남쪽 끝자락과 오산천 둑이 만나는 지점의 지명이다.
		단풍나무골	매봉산 남쪽 기슭 안동 김씨 묘역 아래에 위치한 골짜기다.
		청덕골	안말저수지 동쪽 칠원 윤씨 묘역이 위치한 골짜기다.
		통관사	본래는 원적사였다가 1970년대 중반 통관사로 바뀌었다.



사리의 지명–마을과 공공시설



사리의 지명–들과 골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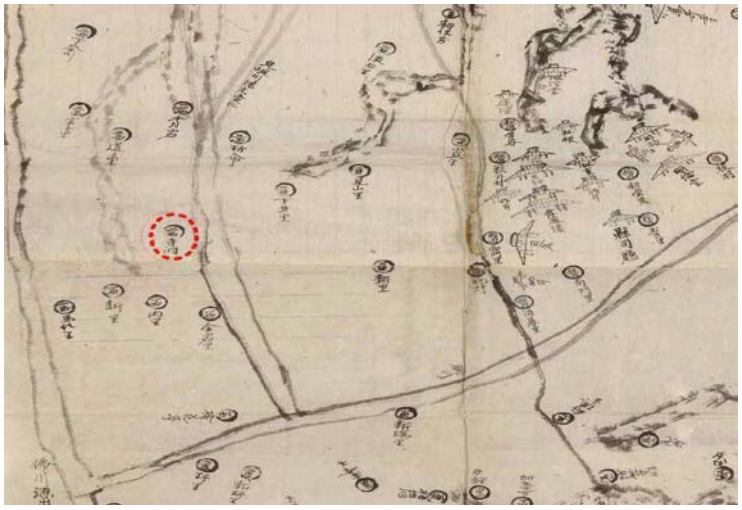
2. 역사적 환경과 마을



서탄면 사리

1) 마을의 형성과 행정구역 변화

사리(寺里) 마을의 형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토호인 안동 김씨 입향조 김진(金珍, 1512~1559)의 생몰년과, 입향 동기가 당시 사리(寺里)에 거주하던 해주 오씨와 혼인 관계[12]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15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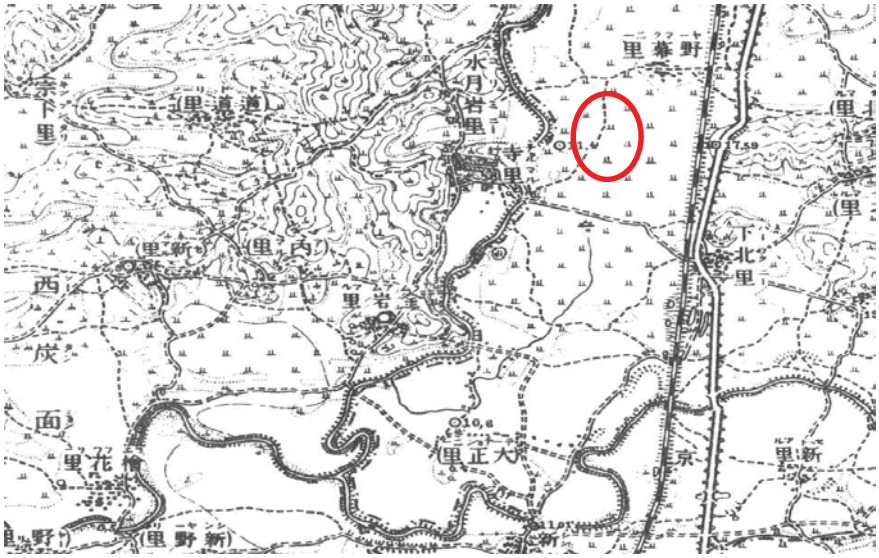
1891년 『진위현 지도』의 이서면 사동

12) 안동 김씨 입향조 김진의 묘비명(墓碑銘)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덕성이 심후하여 진위현 사동(서탄면 사리)에 거주하던 해주 오씨 가문의 오희윤이 사위로 삼으면서 서탄면 사리로 낙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거주시기는 매우 이르지만 문헌에 '사리(寺里)' 또는 '절골'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시기는 19세기 말부터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인 『호구총수』(1789)에도 진위현 이서면의 마을에 '야막리, 걸호리, 내천리'는 나오지만 '사리(寺里)' 또는 '사동(寺洞)'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洞)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료는 1891년 편찬된 『진위현읍지』의 지도이다. 이곳에는 진위현 이서면의 마을로 '사동(寺洞)'이 또렷이 그려졌다.

1911년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도 '사동(寺洞)'이라는 지명으로 기록되었다. 예컨대 이서면의 자연마을로 사동, 수월암리, 야막리, 도도리, 종복리, 상내천리, 하내천리가 언급된 것이 그것이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사리'의 땅들이 모두 '야막리'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1912년 당시 야막리의 범위가 야막리+사리였음을 말해준다.

사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진위군 이서면의 사동(寺洞) 단일마을로 하여 서탄면 '사리(寺里)'가 되었다. 이로써 사리(寺里)라는 마을이 행정리(里)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1922년 근대지도

사리는 예로부터 마을규모가 컸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100호(戶) 665명이나 되었다. 2000년대에는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층의 도시정착으로 인구수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세대는 150세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세대 수 증가는 야막리와 하북2리 일대의 저습지 개간으로 경지면적이 확대되고, 사리 일대에 중소규모 공장들이 난입한 것과 관련 있다.

2) 역사적 경험

(1) 윤대선의 국채보상운동

일제는 1904년 제1차 한일협약과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식민지지배체제 구축에 착수하였다. 통감부를 설치하고 거액의 차관과 국채를 도입하여 식민지화 작업의 재원으로 삼은 것은 식민지정책의 일환이었다. 일제의 차관도입정책은 1904년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다가 주도하였다. 메가다는 1905년 1월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 화폐정리채(貨幣整理債)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차관 300만 원을 도입하였다. 그 뒤에도 세계부족보충비(歲計不足補充費) 명목으로 200만 원, 금융공황 타개를 위한 자금으로 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는 시정개선 및 기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 같은 차관 공세로 대한제국은 1906년 당시 원금만 1,65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일부를 정리하고도 1,300만 원의 부채가 남게 되었다. 국채 1,300만 원은 1907년 대한제국의 1년 세입 총액 1,318만 9,336원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거액의 국채로 대한제국정부의 대일예속이 심화되었으면서도 정부의 외채상환 능력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민족에게 국권상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에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이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서’를 발표하면서 국채를 백성들의 손으로 갚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국채보상취지서의 내용을 보면 ‘국가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3개월 동안 금연하여 국채를 상환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구 광문사에서는 대동광문회를 조직하여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고 국채지원금수합사무소를 설치하여 모금에 나섰다.

대구 광문사의 국채보상운동 소식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에 보도되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가 뒤따랐다. 서울에서는 김성회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되었고, 서병염, 윤흥섭은 ‘국채보상중앙의무사’를 조직하였다. 고종도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에 동참하여 단연(斷煙)을 선언했고, 언론기관들은 연일 진행상황을 보도하였으며, 대한자강회, 기독교청년회 등 민족운동단체들은 토론회, 강연회를 통하여 의식을 환기시켰다. 이밖에도 각급 학교와 종교계, 상인단체, 해외동포, 부인회, 노동자, 천인들까지 운동에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전 계층이 운동에 동참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윤대선의 국채보상연의문 발표를 보도한 황성신문

1907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27개소의 국채보상회가 조직되었다. 같은 해 4월 말까지는 약 40,000명이 성금을 기탁하였다. 1907년에는 각 지방의 수금을 총괄하는 통합기구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대한매일신보 내에 설치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개, 경상도 15개, 강원도 3개, 충청도 12개, 전라도 14개, 황해도 7개, 함경도 7개, 평안도 13개의 보상소가 설립되어 홍보 및 의연금 수합을 담당하였다.

경기남부에서도 1907년 3월 9일 수원에서 이하영, 임근수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취지서가 발표되었으며 4월부터 7월까지 지역별로 활발한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평택지역(진위군)에서는

1907년 3월 평택군청 주사 박준화가 군민들에게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연금을 모금했다. 이에 호응하여 합정리의 최응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성금을 납부했으며, 평택군 읍내면 상궁리(팽성읍 평궁리) 주민 40명은 730원을 모금하여 납부했다. 진위군 율포의약사(고덕면 율포리) 김교행, 이기종 등 수십 명도 33원 10전을 모금했다.[13] 진위군 병파면 오산리(합정동) 숙사(塾舍) 학동 13명은 한 사람에 10전씩 모두 1원 13전을 모금하여 납부했다.[14] 진위군 이북면(진위면) 구가곡(가곡2리) 이봉오(李鳳梧), 이봉의(李鳳儀), 권태선(權泰善) 등 주민 수십 명도 7원 70전을 모금하여 납부했다.[15]

진위공립보통학교 교원(교사)이었던 윤대선은 1907년 4월 3일 '국채보상연의문'을 발표하고 진위군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16] 이 사건으로 윤대선은 진위공립보통학교 교원에서 면직되었으며 고향 사리 마을에서 서당 훈장으로 있다가 1919년 3.1운동 때 서탄면장 윤기선을 도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후에도 1907년 4월 17일 진위군 병파면 합정리 신석범 등 십 수 명이 4원 17원을 모금했고[17], 1907년 5월 1일 진위군 소고니면(고덕면)의 갈평리, 가재동, 율포리 등에서 조동빈 등 80여 명이 21환 30전을 모금했으며[18], 1907년 5월 2일 진위군 여방면 중리와 시동(평택시 가재동)에서도 각각 5환 20전(새 화폐)과 3환을 모금했다.[19] 1907년 7월 5일에는 진위군 여방면 여좌동(도일동 하리)에서 원제석, 원제국 등 수십 명이 27원 60전을 모금했다.[20]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국권수복운동이었으며, 평택지역에서도 상당수의 민중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리의 3.1운동

사리는 안동 김씨, 칠원 윤씨 등 이름 있는 집안이 거주하고 근대교육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았던 마을이다. 이것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리의 3.1운동을 이끈 사람은 윤기선, 윤대선, 윤교영이다. 윤기선은 대한제국에서 6품 벼슬인 시종원(侍從院) 시종(侍從)을 지냈으며 족보에는 통정대부 유원군수를 지냈고 3.1운동 당시 서탄면장이었다. 윤기선(尹箕善, 1865~1922)은 진위현 이서면 사동 710번지에서 출생했다. 『승정원 일기』에 9품관인 시종원(侍從院) 시어(侍御)로 등장하는 시기가 1898년부터이므로 대체로 이때 관직에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윤기선이 관직에 진출했던 1898년은 신분제와 과거제가 폐지되었던 시기다. 다시 말해서 1894~5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와 과거가 폐지되고 정식 관리 등용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엽관제(獵官制)[21]에 따른 관리 등용이나 다양한 근대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기술직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기선도 비슷한 방식으로 임용되었을 것이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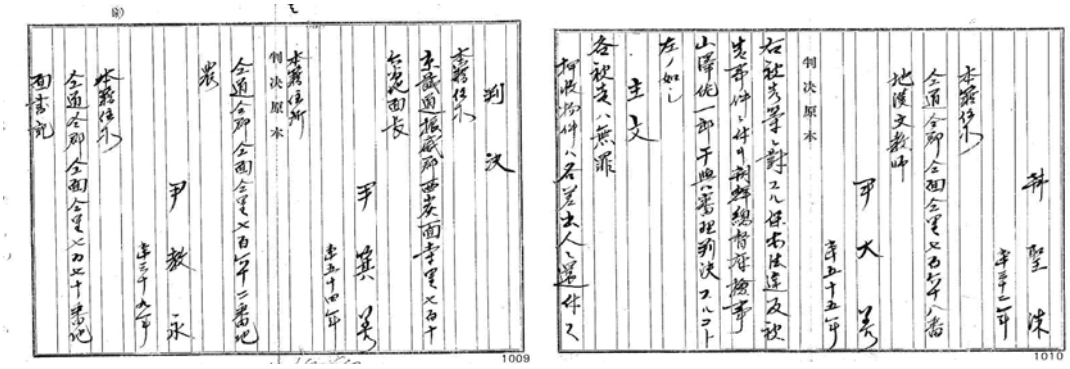
13) 『황성신문』 1907년 3월 18일
14)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3일
15) 『황성신문』 1907년 3월 30일
16) 『황성신문』 1907년 4월 3일
17) 『황성신문』 1907년 4월 17일
18) 『황성신문』 1907년 5월 1일
19) 『황성신문』 1907년 5월 2일
20) 『황성신문』 1907년 7월 5일
21) 대한제국 시기 관리를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측근들을 임용했던 방식을 말한다.

술국치(庚戌國恥) 후 대한제국의 관료들 중에는 낙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기선도 낙향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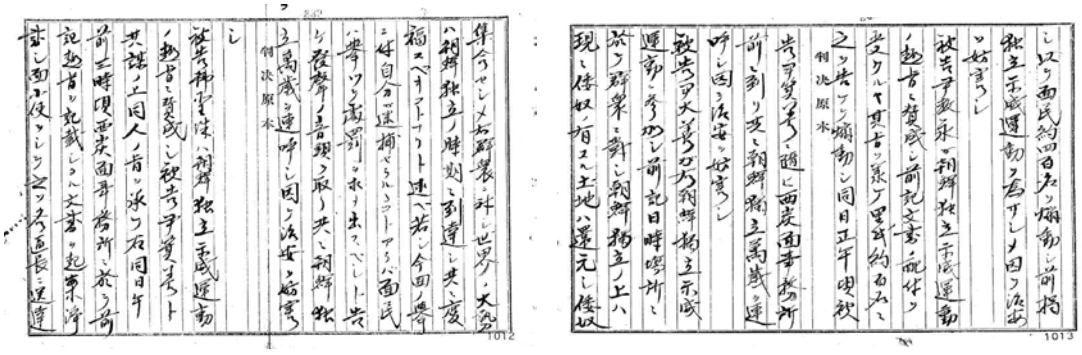
일제는 1906년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면(面)의 명칭과 소속, 수를 조정했다. 1910년에는「지방관제」와 「면(面)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면(面)’이라는 행정구역상 명칭을 통일했다. 1913년에는「면(面) 경비 부담방법」이 공포되어 면(面)에 조세징수권을 주었고, 1917년 일명 ‘면제(面制)’가 시행되고 세금조달과 사업능력을 부여받았다. 1920년에는 제1차 지역제도 개혁에 따라 지정면은 선거제, 보통면은 임명제로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설치했다. 1930년에는 총독부령으로 「읍·면제」가 개정되어 지정면은 읍(邑)으로 보통면은 면(面)으로 개칭되었다.[22]

‘면제(面制)’ 시행 후 일제는 식민통치에 협조적인 조선인 유지들로 면장(面長)을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관리였으며 칠원 윤씨라는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의 윤기선은 우선 고려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 윤기선이 언제 면장(面長)에 임명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1917년 ‘면제(面制)’ 실시 이후부터라고 판단된다. 비록 일제와 지역사회의 추대로 면장(面長)으로 임명되었지만 윤기선의 의식은 존왕주의(尊王主義) 또는 복벽주의(復辟主義)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면장(面長) 신분으로 3.1운동에 앞장섰던 것도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과 고종의 독살설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윤기선이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은 4월 2일이다. 4월 2일은 양성이나 평택역 등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던 다음 날이었다. 윤기선은 4월 2일 새벽 3시 면서기 한성수를 불렀다. 그는 한성수에게 각 마을의 구장(이장)들에게 오전 10시까지 주민들을 인솔하여 서탄면사무소 앞에 모이도록 통보하고, 사리 마을 주민이며 같은 집안 사람인 윤교영에게는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이니 만약 불참하면 큰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격문을 돌리게 했다. 정오쯤 되자 면사무소 앞에는 4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기록에 따르면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열성적으로 시위에 동참한 인물은 사리마을의 윤교영과 윤대선이었다. 특히 윤교영은 사리마을 주민 100여 명을 모아서 참여했다. 윤기선은 모인 군중들에게 “세계의 대세를 볼 때 조선의 독립이 목전에 있다. 내가 잡혀가더라도 계속 투쟁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이어 등단한 윤대선은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왜놈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부 몰수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22) 홍순권,「일제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관한 일고찰」,『국사관논총』제64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23)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독립운동사』제2권, 「삼일운동사(상)」,1971



윤기선 외 4인「판결문」

시위대는 금암1리 서탄면사무소를 출발하여 매봉산을 넘어 사리방향으로 나아갔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윤시종 영감(윤기선)이 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자 북바위 아래 살던 일본인 산전(山田)이 말렸다' 고 한다. 결과는 뻔한데 애써 고초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윤기선은 호통을 치며 일본인을 설득하여 함께 만세 부르게 했다. 시위대는 사리를 지나 '사리교(섶다리)' 를 건넜다. 야막리 주민으로 당시 서탄면 3.1운동을 목격했던 박종구(남, 1914년생)는 '절골(사리)을 지나 섶다리(사리교)를 건넌 시위대가 사리에서 하북으로 나가는 큰길을 가득 메우며 만세를 불렀는데 수백 명은 되었다고 말했다. 일제가 파악한 인원도 400명이어서 400~500명 이상의 군중이었을 것이다.[24]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했으며 윤기선, 한성수, 윤대선, 윤교영은 검거되어 재판받았다. 하지만 재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서 4인은 모두 석방되었다.

(3) 한국전쟁 경험

사리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사이에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김씨, 윤씨를 비롯해 상당수가 좌익활동에 동조했다. 윤씨는 한의원을 운영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군인을 했고 경부선 철도건설에도 관여했다. 그 후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지식이 풍부하고 사리에 밝아서 지역사회의 신망(信望)이 높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남하하면서 윤씨는 좌익들의 추대를 받아 서탄면 인민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두 달 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인민군이 밀려 올라가자 좌익에 가담했던 사람들 일부는 월북하고 일부는 경찰과 우익세력에게 잡혀 고초를 겪었다. 윤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 자녀들도 연좌제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했다.

김씨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였다. 유학 과정에서 좌익사상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운동가가 되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경기도 책임자로 활동했다고 전한다. 김씨의 삼촌과 형도 한국전쟁 중 완장을 찼다. 김씨는 국군이 올라오면서 월북했지만 삼촌과 형은 우익들에게 잡혀 죽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좌익 4~5명, 우익 1명이었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행방불명된 사람도 7명이나 된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 5학년(당시는 중학교가 6년제였음)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다.

(4) 4H운동과 사리농업협동조합

24) 윤기선 외 4인「판결문」

농촌마을에는 예로부터 두레, 품앗이, 계, 향약과 같은 상호협동, 상호부조의 전통이 있었다. 협동조합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관념이 종래의 상호부조 전통과 결합되면서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 조합설립운동은 관(官)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회운동단체에서 설립하는 경우도 많았다.

관(官)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으로는 1907년에 설립한 금융조합과 산업조합 그리고 하부조직이었던 식산계와 농회가 있었다. 하지만 관(官)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착취를 위해 설립한 것이어서 사회운동단체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했던 민간협동조합과는 목적과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민간협동조합은 1920년에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었다. 그 뒤 1921년에 조선노동공제회 부속으로 소비조합이 조직되었고, 1926년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협동조합운동사를 조직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민중계몽과 단체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YMCA가 만든 농촌협동조합도 있었다.

종교 및 사회운동단체들이 민간협동조합을 설립을 추진한 것은 자본가의 경제적 수탈에서 민중을 보호하고,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민중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였다. 일제강점기 협동조합운동은 193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중단되었다. 일제는 협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관(官) 주도의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여 지방협동조합을 부락진흥회에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후 협동조합 설립은 농지개혁과 함께 사회운동단체와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침략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피폐해진 민중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었다. 여론이 확대되자 제헌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조합의 설립목적과 형태, 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세력 및 사회운동단체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난항이 거듭되었다.

표류하던 협동조합설립운동은 한국전쟁 뒤 농업은행 및 구 농협 설립과 이동협동조합(里洞協同組合)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동협동조합은 리(里) 단위 기초협동조합이었다. 이동협동조합은 설립 후 주민들의 출자로 대출업무를 비롯하여 소득증대사업,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다. 1958년 전국적으로 설립된 이동협동조합은 21,042개였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였고 영세하여 제대로 운영되는 조합이 많지 않았다. 그러자 제3공화국에서는 마을별 통폐합을 추진하여 1972년에는 1,567개만 남게 되었으며, 이듬해 이것을 토대로 읍·면 단위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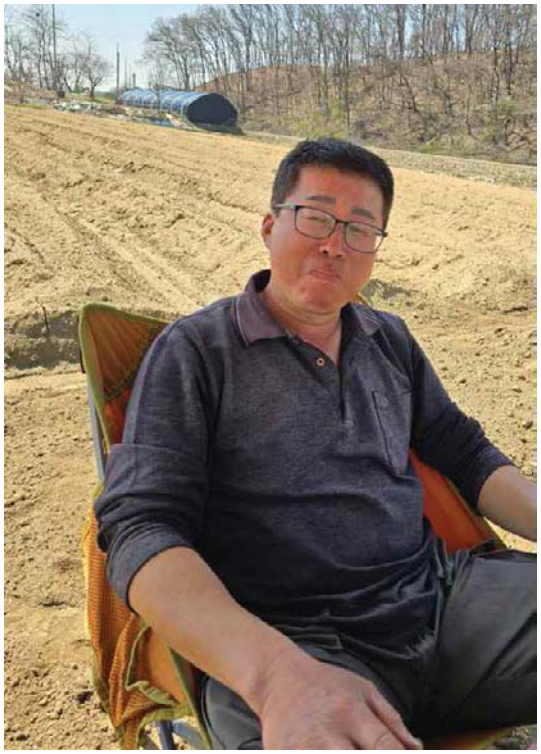

사리 모범농촌 3등 상패 및 4H운동 주역들(2013)

사리(寺里)는 4H운동, 이동농업협동조합운동, 새마을운동,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마을이다.

4H운동은 1954년 윤준학(작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회원이 4명에 불과했다. 나중에는 김항묵(남, 1935), 공상렬(남, 1936), 김경용(남, 1935), 김찬희(남, 1935)를 비롯해 마을 청년들이 대부분 가입했다. 초대회장은 윤준학이었고 그 아래에 부회장과 총무를 두었다. 윤준학은 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회원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했다. 사리 4H는 회원 계몽운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950년대 말에는 김항묵(남, 1935년생)이 회장이었다. 당시 4H 회원들은 목재를 구해서 초가로 회관을 건립하고 양재학원을 설립했다. 주변에 양재학원 공고를 붙였더니 1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들어 그 가운데 60명을 선발했다. 4H에서는 가정용 재봉통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사는 마을에 거주했던 윤병연이라는 여성이었으며,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했다. 양재학원은 10여 년 동안 운영했으며, 5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인희(남, 1938년생)가 4대 회장으로 있을 때는 고구마 공동재배를 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으로 봉사활동과 공공사업을 추진했다. 여자회원들은 양묘사업도 했다. 여자회원들의 양묘사업은 그 후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졌다.



4H운동을 했던 김인희와 윤병삼

윤병삼(남, 1965년생)도 10대 후반이었던 1980년대 초반 4H운동을 했다. 당시 4H도 마을진입로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등에 참여했다. 1950, 60년대에는 정월이나 추석에 소인극(적은 인원으로 하는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는 음악공연과 콩클대회도 개최했다. 콩클대회가 열리면 주변 마을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여 즐겼다. 음악공연은 대체로 드럼, 리드기타, 베이스 기타, 보컬로 이뤄진 4인조 밴드가 했는데 이들은 필요에 따라 주변 마을 콩클대회에도 순회하며 공연했다. 정월의 척사대회(윷놀이)도 잊지 못

할 행사였다. 척사대회를 하면 마을 유지들과 출향인들이 기부하여 푸짐하게 상품을 준비하였다. 윤병삼에 따르면 콩클대회와 그룹사운드 공연은 자신의 아랫 기수(1966, 67년생)까지 했고, 척사대회는 2008년, 9년 사이에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사리이동협동조합은 1958년에 설립되었다. 이동조합 설립이 빨랐던 것은 관(官)보다는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김형인에 따르면 사리이동조합은 1958년 수원 농업진흥청에서 농업요원교육을 실시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당시 농업요원교육에는 윤준학(작고), 윤영흠(작고)이 참가했는데, 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와서는 마을공동회의를 소집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초대 조합장은 김재국이었다. 상무는 윤준학이었고 감사 2명에 이사 5명으로 조직하였다. 조합원은 마을 주민들 가운데 농지(農地)를 소유한 사람으로 논 1,500평에 1주씩(김인희의 기억으로는 1천 평 이하는 1주, 3천 평 이상은 3주) 출자하도록 하였다. 1주는 쌀 2말이었다. 초기에는 주민들 가운데 70%만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조합운영이 잘되자 이듬해에는 나머지 30%도 가입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협동조합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은 마을정미소운영이었다. 정미소는 주민들 출자금으로 김재국의 방앗간을 임대하고 기관수 2명을 고용하여 운영했다.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정미소의 절반밖에 안 되는 벼 1가마에 3되의 도정료를 받았다. 첫해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익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는 김재국의 땅을 매입하여 방앗간을 신축했다. 방앗간 뒷집에서 쌀겨가 날려 고통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하자 뒤쪽 땅 3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구판장을 운영했다. 김인희(남, 1938년생)에 따르면 정미소는 도정료를 싸게 받았으면서도 년 쌀 1백 가마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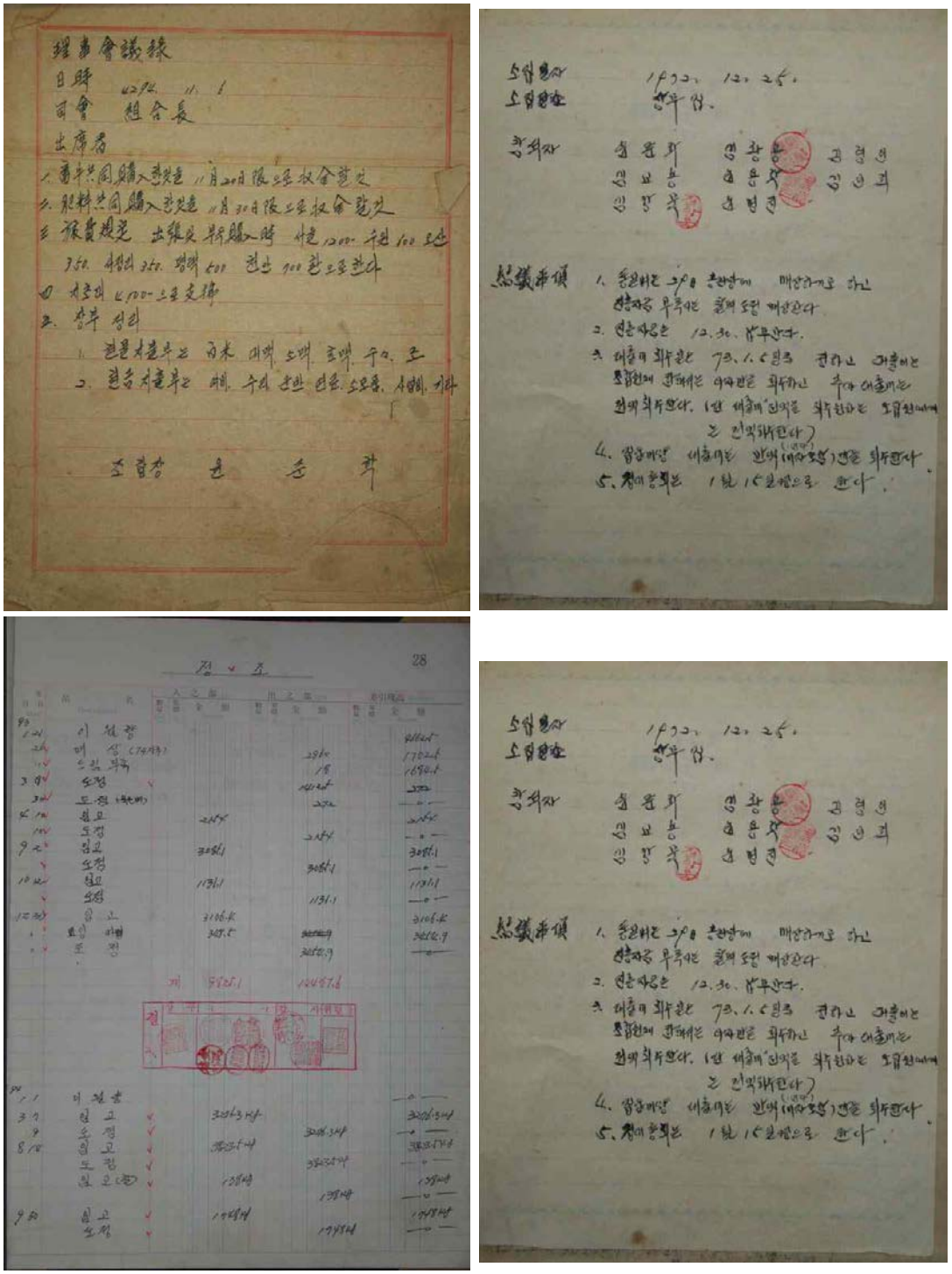
사리농업협동조합 정미소, 초대총무 김형인(좌)과 서기 김인희(2007)

이익에 대한 분배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했다. 이익금에 대한 증자도 실시했으며 이윤을 배당해줬다. 마을 숙원사업이었던 사리교 건설에도 쌀 1백 가마를 내놓았다. 춘궁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리의 장리(長利) 쌀을 대부했다.

50~100% 이자를 받았던 시기에 쌀 1가마에 2말의 이자만 받았다. 덕분에 고리채 정리와 농가자립이 다른 마을에 비해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 1972년에는 80평 규모의 마을공동창고를 김윤성씨 밭에 신축했다. 공동창고는 한때 농협 쌀 수매창고 및 보관창고로 이용되어 임대료 수입에 도움이 되었다.

모범적인 운영 덕분에 사리이동조합은 1970년대 초 이동조합 통폐합 과정에서도 살아남았다.

당시 이동조합의 재산이 워낙 많은 데다 이익배당금도 많아서 조합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사리농업협동조합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자료

그러다 보니 관(官)에서도 사리이동협동조합의 단위농협 가입은 큰 관심사였다. 심지어 서탄단위농협(초대 조합장 유래천)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해 직원까지 상주시키면서 가입을 종용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은 하되 사리농업협동조합은 유지하기로 결정' 했

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단위농협가입비는 마을조합에서 1주에 1천 원씩 대납하였다.

사리농업협동조합은 새마을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도자들의 책임의식과 열정, 이동조합에서의 넉넉한 재정지원으로 진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곧고 넓은 도로를 만들었고, 마을 안길도 조성했으며, 오산천 제방축조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리농업협동조합은 2015년 해체되었다. 정미소는 그보다 20년쯤 전인 1994년경 운영을 중단했다. 이동조합관련 사료는 마을회관에 보관했다가 2018년 서울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업박물관’에 기증했다.




제2018-03호

기 증 증 서

기증품 : 사리마을회 운영관계 서류 11건

기증자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마을회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숭고한 기증정신을 받들어 관람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농업박물관 관장 김재균

사리농업협동조합 청산을 주도한 조합장 윤학수와 농협박물관 기증서, 기증과정을 주도했던 윤학수와 이장단(2018)



(5) 사리 새마을운동

사리 새마을운동은 4H운동, 사리이동조합운동과 연결선상에 있다. 4H운동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이동조합운동을 이끌었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의 중심인물은 김인희(남, 1938년생)와 공상열(남, 1936년생)이다. 공상렬은 1972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실시

한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다녀왔다.



사리마을의 주택과 마을안길



사리 4H운동과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공상열과 마을주민 김덕용

사리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확장, 지붕개량, 미비한 사리교 완공이었다. 사리교는 1960년 콘크리트 교량을 건설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는 불완전했다. 마을에서는 정부에서 일괄 지급한 시멘트 330포를 가지고 주민들을 부역 동원하여 다리를 완공했다. 주민들은 오산천 냇가의 모래를 퍼서 직접 손으로 시멘트를 비벼 콘크리트를 쳤고 심지어 늦은 밤까지 횃불을 켜 들고 작업을 진행했다.

사리교를 완공했더니 이번에는 다리에서 하북리의 경부선 철교까지 진입로가 문제되었다. 진입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농기계의 운행이 불가능했다. 당시 평택군에는 사리(寺里) 출신의 공무원들이 60~70명이나 되었다. 더구나 서탄면 총무계장은 마을출신의 윤학수였으며, 그 아래 차석이 김인희였으므로 관(官)의 지원을 받기에 용이했다. 관(官)의 입장에서도 사리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월등히 앞선 성과를 냈으므로 지원의 명분이 분명했다. 1978년 서탄면 총무계장이었던 윤학수(남, 1941)는 사리에서 진위면 하북리로 나가는 도로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량과 농기계가 원활하게 지나다니려면 5m 도로를 만들어야 했는데 평택군에서는 4m 도로를 건설할 예산만 지원했다. 그래서 사리에서는 마을 기금을 투자하고 300여 명의 주민들을 부역 동원하여 5m 도로로 완공했다. 마을 안길의 확장도 순조로웠다. 사리 주민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 마을에 양보하고 헌신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안길 확장과정에서 수용되었던 약간의 토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 기부로 해결했고, 지나치게 많은 토지가 수용된 김민수외 1명만 보상비를 지급했다.

새마을운동에서 부녀회의 역할도 지대했다. 사리의 초대 부녀회장은 최정희였다. 최정희는 1950, 60년대 4H운동 과정에서도 여성회원들 중심으로 양묘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맛봤다. 1972년부터는 국가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산림계를 조직하여 조림사업, 유실수 단지조성, 외곽 연료림, 용재림 조성사업이 전개되었다. 최정희는 오산천 변의 자신 소유의 밭 1천 평을 희사해 소나무 묘목을 식재했다. 1974년 묘목을 출하했지만 3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남편마저 작고했다. 하지만 당시 내무부 장관 김형옥의 관심과 각계의 성원을 받아 다시 묘전(苗田)을 일구어 1976년에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리 부녀회는 수익금으로 재래식 부엌 개량, 화장실 개조, 공동구판장 설치,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업적이 널리 알려져서 사리는 새마을운동 홍보마을이 되었고, ‘읍·면장 교육’을 할 때 현장교육 대상지로 각광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공적으로 최정희는 1981년 새마을훈장 노력장[25]을 수여 받았다.

3. 경제생활

1) 농업

(1) 경작지와 수리시설

가. 경지면적과 경작지

사리(寺里)는 매봉산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초기의 경작지는 매봉산 골짜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오산천으로는 바닷물이 유입되어 대략 17,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마을 주변의 저지대는 개간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지도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면 뒷고실골, 용목골, 청덕골, 단풍나무골 등이 초기 경작지로 예상된다. 초기 경작지는 대부분 논보다는 밭이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저지대 개간이 이뤄지고 수전농업이 발달하면서 구들, 당아래들, 방죽밑들이 개간되었고, 일제강점 전후에는 오산천 건너 야막리와 하북2리 일대의 선산들, 행산들, 장포살미, 뱅짜들, 개울개 일대가 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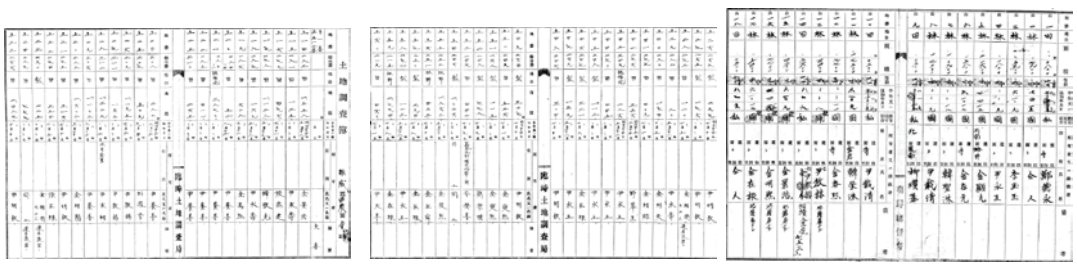
25) 새마을훈장 중 제5등급의 훈장이다.



매봉산 주변의 경작지와 경지확장과정

1910년대 사리 일대의 경작지는 논보다 밭이 많았다. 1912년 작성된『토지조사부』에도 경작지 중 논보다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저지대라고 할지라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논보다는 밭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1912년『임야조사부』에 따르면 사리 일대의 임야는 대부분 국유지였다가 점차 민유지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토지소유주도 답(畓)의 경우에는 일본인이나 부재지주의 소유가 많지만 전(田)의 경우에는 사리(寺里) 토착지주 소유가 많았다.

농지의 확장과정에서 오산천 건너편의 야막들과 하북들의 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12년『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야막리나 하북2리 일대의 경작지는 용주사나 일본인 지주, 조선인 부재지주의 땅이 많았다. 사리 주민들은 논보다는 밭을 소유한 사람이 많았고, 논은 야막리나 하북리 일대에 소유하고 있었다. 야막리에 농지를 소유한 사리(寺里) 사람으로는 윤교영(답(畓) 1,121평, 전(田) 393평), 윤교석(전(田) 3,417평), 김재원(답(畓) 1,073평, 전(田) 482평), 김준희(답(畓) 817평), 윤하선(답(畓) 3,876평, 전(田) 580평), 김경호(전(田) 311평), 윤대선(전(田) 1,511평), 김춘희(전(田) 1,197평), 윤교덕(답(畓) 3,414평) 등이었다.


1912년 사리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사리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수원의 양성관과 차유순(차준담), 용주사를 꼽았다. 그런데 『토지조사부』에는 수원 용주사(龍珠寺)의 토지는 나타나지만 양성관이나

차유순, 차준담의 토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양성관이나 차유순(차준담)이 사리와 야막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시기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농지개혁 전까지 부재지주들의 농지를 소작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농지개혁으로 기존에 소작하던 땅을 분배받았고 상환과정을 거쳐 자영농으로 성장했다.

2023년 현재 사리 주민들의 주 경작지는 매봉산 주위와 오산천 건너 야막리와 하북2리 일대다. 이곳에서 벼농사와 함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한다.

나. 수리시설

근대 이전 사리(寺里) 일대의 수리시설은 보잘것없었다. 사리(寺里)의 주산인 매봉산이 해발 76m에 불과하고 마을 근처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었다. 주민들은 저수지를 쌓거나 오산천에 보(洑)를 축조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금암저수지(안말저수지)는 1945년 해방 직전에 축조했다. 총 저수량은 15,000톤이고 몽리면적은 10ha이다.[26]

오산천의 보(洑) 축조는 19세기 중반에도 있었다. 1843년과 1899년『진위현 읍지』에는 ‘금복보(金福洑)’를 언급한다. 예컨대 1843년 읍지(邑誌)에는 “수원땅에 있다. 예전에는 서면에, 지금은 이서면에 물을 댄다”고 하였고, 1899년 읍지(邑誌)에는 “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물의 근원이 수원 땅으로부터 나온다. 이서면 전평(前坪)에 관개한다”고 하였다. ‘물의 근원이 수원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오산천이 수원부(현 화성시, 오산시)를 거쳐 흘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이서면은 야막리, 사리, 수월암리 지역이다. 읍지(邑誌)에는 보(洑)를 축조할 때는 진위현에서 감관(監官)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농민들이 동원되어 쌓았다.

일반적으로 보(洑)의 축조는 추수가 끝난 11월경이나 이듬해 2, 3월경에 많이 한다. 윤병무(남, 1939년생)에 따르면 사리(寺里)는 3월 초에 축조했다고 말했다. 관(官)에서는 감관(監官)을 파견하여 보(洑)의 수축을 감독하게 했고 봇물의 몽리지역 농민들을 동원하여 축조했다. 보(洑)는 가마니에 강변의 모래를 넣어 쌓았다. 그런 다음 물을 가둬두었다가 못자리와 모내기 때 사용했다. 들판에 물을 공급하려면 봇돌(도랑)을 만들어야만 했다. 사리는 행산보와 선산보에서 마을부근까지 봇돌을 만들었다. 봇물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보(洑)와 가까운 행산들이나 선산들에는 잘 공급되었지만 거리가 멀었던 하북2리 빵짜들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빵짜들은 천수답이 많아서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사이에는 식량증산이 가장 큰 화두였다. 전쟁물자와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벼농사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곳곳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농민들이 직접 오산천변에 보(洑)를 축조했다. 보(洑)의 이름은 선산보와 행산보였다. 윤병무(남, 1939년생)는 행산보는 사리(寺里) 위쪽 야막리 근처에 있었고 선산보는 그보다 1백여 미터 아래쪽에 쌓았다고 말했다. 행산보는 사리 주민들 일부와 야막리, 수월암리 사람들이 축조했다. 반면 선산보는 대부분 사리 주민들이 축조했고 사리 지역 논들에 관개하였다. 보(洑)는 매년 다시 축조했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면 터트리기도 했고 장맛비에 쓸려나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

26) 행정안전부,「경기도 평택시 저수지 현황」,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data/15116433/fileData.do), 2023.12.




선산보, 행산보가 있었던 오산천 사리부근과 안말저수지

보(洑)와 거리가 멀어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논들은 추수가 끝난 겨울부터 보(洑) 도랑으로 물을 끌어들여 논에 물을 가뒀다. 이런 논들을 '물논(논방죽)'이라고 했다. 겨울부터 논에 물을 채우면 논갈이에도 유리했지만 모내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봇물이나 논물은 가뭄이 계속되면 말라버렸다. 가뭄이 들면 오산천 바닥을 긁어내서 물이 고이면 용두레 등으로 퍼 올렸다. 1970년 전후부터는 면사무소나 마을에 양수기가 보급되어서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졌다. 농번기나 가뭄이 지속되면 물싸움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물을 확보하지 못해 농사를 폐하면 생존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964년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가 준공되었다.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는 오산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57년 착공하여 1964년에 완공을 보았다. 유역 면적은 5,300㏊이고 저수 면적 225㏊, 제방 길이 225m이다. 유효 저수량이 10,692,000t이나 되며 2,512㏊의 농지에 관개한다.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사리(寺里) 일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었다. 주민 김구회(남, 1947년생)는 사리, 야막리, 하북2리 일대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에서 차관을 끌어다가 수리조합(신갈저수지)과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포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가 거의 없어 순전히 주민들의 노동력만으로 평택작업과 수로를 만들었다. 저수지와 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주민들이 분할상환하였다. 그래서 김구회는 사리, 야막리, 하북2리 일대의 경지정리사업은 정부 돈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민들의 돈과 노동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70, 80년대 경지정리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리, 야막리, 수월암리 일대 농민들만 손해본 것이라는 것이다.



오산천과 사리 일대의 경작지

2000년 이전까지는 수세(水稅)도 징수했다. 김구회(남, 1947년생)는 수세(水稅)는 부담스러울만큼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수세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폐지했다. 저수지나 보(洑)는 기호수리조합(기호농조, 농어촌공사)이 관리했다. 기호농조에서는 수세(水稅)를 징수하는 대신 보(洑)의 관리나 봇물의 공급을 책임졌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마다 수감(水監)을 1명씩 두고 농업용수 관리와 공급을 담당시켰다. 수감은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았다. 수리조합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합장 선거도 치열했다. 지금도 수감(水監)이 있지만 윤병무(남, 1939년생)와 김구회(남, 1947년생)는 알지 못했다.

(2) 지주 · 소작관계

가. 농지소유와 지주(地主)

사리(寺里) 주민들의 농지 소유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史料)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자료인 1912년 「토지조사부」와 해방 후 『토지대장』이다. 하지만 2023년 현재 『토지대장』은 전쟁과 관리소홀로 대부분 유실되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912년 『토지조사부』와 주민구술을 통해 추정한다. 다음은 1912년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서탄면 사리 토지 소유현황이다.

1912년 『토지조사부』 서탄면 사리 토지소유현황[27]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김경호	전(田)	1,358	
	전(田)	187	

27) 부재지주만 비고에 표기했으며 토착지주는 표기하지 않았다. 또 농지 1,000평 이하는 소농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제외하였다.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전(田)	509	전(田) 311평(야막리) 답(畓) : 235평(하북2리, 종중재산)
한경선	전(田)	1,138	
윤양선	잡종지	3,870	전(田): 3,271평 답(畓): 725평+1,285평(하북2리) 잡종지 : 3,870평 대지(垈地): 79평
	전(田)	411	
	전(田)	265	
	전(田)	282	
	전(田)	1,103	
	전(田)	1,011	
	답(畓)	240	
	전(田)	199	
	대지(垈地)	79	
	답(畓)	485	
윤영상	전(田)	1,329	
김상국	전(田)	1,602	
이희철	임야	14,860	군내면 마산리
	임야	452	
홍순우	전(田)	251	경성부 부재지주
윤하선	답(畓)	6,045 ※야막리	답(畓): 6,045평 전(田): 2,002평 대지(垈地): 225평
	전(田)	580 ※야막리	
	전(田)	742	
	전(田)	341	
	전(田)	339	
	대지(垈地)	225	
양구환	답(畓)	681	이북면 가곡리
	답(畓)	246	
	전(田)	525	
윤재청	답(畓)	150	이서면 수월암리
	전(田)	168	
윤교석	전(田)	1,237	이서면 수월암리 전(田): 4,396평+3,417평(야막리) 답(畓):214평+1,121평(야막리)+11554평(하북2리) 대지(垈地): 342평 임야 : 2,464평(하북2리)
	대지(垈地)	288	
	답(畓)	214	
	전(田)	270	
	대지(垈地)	54	
	전(田)	487	
	전(田)	1,045	
	전(田)	1,195	
	전(田)	162	
신굉식 (辛宏植)	답(畓)	243	경성부 부재지주 전(田): 2,666평 답(畓): 2,678평 대지(垈地): 2,456
	답(畓)	578	
	전(田)	1,857	
	답(畓)	766	
	대지(垈地)	88	
	전(田)	472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대지(垈地)	809	
	답(畓)	512	
	답(畓)	579	
	대지(垈地)	348	
	대지(垈地)	664	
	전(田)	337	
	대지(垈地)	547	
유기선	전(田)	1,191	
김재원	전(田)	2,290	전(田):5,496평+482평(야막리)+709평(하북2리) 답(畓):3,594평+1,837평(야막리)+2,225평(하북2리) 임야: 325평 대지: 188평
	전(田)	2,566	
	답(畓)	1,136	
	답(畓)	1,178	
	답(畓)	207	
	전(田)	640	
	임야	325	
	대지(垈地)	188	
김명근	답(畓)	701	경성부 부재지주
장재근	답(畓)	1,359	전(田):1,440평+5,639평(하북2리) 답(畓):5,991평+8,247평(하북2리) 대지(垈地): 1,070평
	답(畓)	1,286	
	답(畓)	573	
	전(田)	189	
	전(田)	334	
	답(畓)	426	
	대지(垈地)	609	
	대지(垈地)	461	
	전(田)	482	
	답(畓)	2,347	
	전(田)	435	
김재근	대지	331	전(田): 1,763평+495(야막리) 답(畓): 1,335평(야막리) 대지(垈地): 725평 잡종지: 2,290평 임야: 2,774평
	대지	394	
	임야	2,774	
	전(田)	1,763	
	잡종지	2,290	
김재규	임야	2,285	전(田):1,994평+1,548(야막리)+2,025평(하북2리) 답(畓):1,347평+4,054평(하북2리) 임야: 2,285평
	답(畓)	372	
	답(畓)	223	
	전(田)	1,097	
	답(畓)	752	
	전(田)	897	
윤교덕	답(畓)	533	수원 부재지주 전(田): 4,768평 답(畓): 533평+3,414평(야막리)
	전(田)	487	
	전(田)	388	
	전(田)	3,893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이만영	답(畓)	364	양평군 부재지주 전(田): 824평(야막리) 답(畓):2,232평+10,668평(야막리)
	답(畓)	343	
	답(畓)	1,131	
	답(畓)	379	
	답(畓)	379	
이희철	임야	14,860	군내면 마산리
	임야	452	
정성조	임야	3,099	이북면 가곡리
유동린	임야	2,136	남양군 부재지주
이용민	전(田)	528	경성 부재지주
	대진(代盡)	210	
	답(畓)	1,058	
윤명흠	전(田)	816	전(田): 5,272평+126평(하북2리) 답(畓): 4,597평+1,282평(야막리)+9,180평(하북2리) 대지(垈地): 473평
	전(田)	122	
	답(畓)	178	
	전(田)	516	
	전(田)	2,487	
	대지(垈地)	297	
	대지(垈地)	176	
	전(田)	304	
	전(田)	179	
	답(畓)	946	
	답(畓)	265	
	전(田)	192	
	답(畓)	463	
	답(畓)	655	
	답(畓)	768	
	답(畓)	352	
	답(畓)	552	
	답(畓)	418	
	전(田)	656	
이오영	전(田)	318	서탄면 금암리
윤교문	전(田)	1,138	
	답(畓)	1,001	
안흥선	전(田)	960	경성 부재지주 전(田):5,103평 대지(垈地): 72평
	전(田)	22	
	대지(垈地)	72	
	전(田)	1,435	
	전(田)	2,686	
윤교원	답(畓)	791	전(田):1,004평+548평(하북2리) 답(畓): 791평+1,389평(하북2리) 대지(垈地): 693평
	대지(垈地)	563	
	전(田)	155	
	대지(垈地)	130	
	전(田)	566	
	전(田)	283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유진규	답(畓)	943	죽산군 부재지주
	답(畓)	545	
	전(田)	633	
윤교영	답(畓)	176	전(田):4,206평+393평(야막리)+2,160평(하북2리) 답(畓): 1,105평+1,121평(야막리) 대지(垈地): 443평 잡종지: 809평
	대지(垈地)	103	
	전(田)	1,063	
	전(田)	239	
	전(田)	240	
	임야	441	
	전(田)	598	
	전(田)	173	
	대지(垈地)	340	
	답(畓)	929	
	잡종지	809	
	전(田)	1,903	
김춘희	대지(垈地)	270	답 :2,363평(하북2리)
	전(田)	749	
	답(畓)	517	
	답(畓)	318	
	답(畓)	174	
김준희	임야	1,863	전(田): 2,214평(야막리)+1,423평(하북2리) 답(畓) 817평(야막리) 임야: 1,863평
윤대선	전(田)	460	전(田):826평+1,511평(야막리)+466평(하북2리) 답(畓):1,054평+3,332평(하북2리) 대지(垈地): 752평
	답(畓)	824	
	전(田)	366	
	대지(垈地)	752	
	답(畓)	261	
김윤식	전(田)	226	병파면 통복리
	전(田)	1,174	
안규선	전(田)	340	천안 부재지주
용주사 (龍珠寺)	전(田)	96	수원소재 전(田): 258평+19,796평(야막리) 답(畓): 441평+76,021평(야막리) 대지: 357평+4,754평(야막리)
	대지(垈地)	357	
	전(田)	162	
	답(畓)	441	
암기구미 (岩崎久彌)	답(畓)	422	동경시 본향구 출신 답(畓):422+32,375평(야막리)+19,366평(하북2리) 전(田):7,578평(야막리)+2,006평(하북2리)
김석희	전(田)	1,120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잡종지	216	
윤교석	전(田)	511	
	전(田)	1,662	
간학모 (簡學模)	전(田)	782	
	답(畓)	729	
	전(田)	261	
안호선	답(畓)	546	수원부재지주
윤영달	답(畓)	829	전(田) :895평(하북2리)
김상주 외 2인	답(畓)	895	
	답(畓)	90	
	답(畓)	404	
김상록 외 5인	답(畓)	326	
	답(畓)	244	
	전(田)	179	
	전(田)	282	
조달현	전(田)	944	일서면 금암리
조경상	전(田)	1,149	일서면 금암리
	답(畓)	367	
	전(田)	999	
송원호	전(田)	497	일서면 금암리
평생팔삼랑 (平生釰三郞)	전(田)	285	인천의 일본인 부재지주 전(田): 285평 답(畓):17,980평+5,077평(야막리)+1,865평(하북2리)
	답(畓)	4,661	
	답(畓)	855	
	답(畓)	636	
	답(畓)	990	
	답(畓)	553	
	답(畓)	6,806	
	답(畓)	3,479	
서병두	답(畓)	626	남양군 압정면
	답(畓)	320	
윤헌영	답(畓)	2,062	답(畓): 2,962평
	답(畓)	428	
	답(畓)	472	
이계관	답(畓)	49	일서면 금암리
	전(田)	228	
오인묵	답(畓)	463	수원 부재지주
	답(畓)	756	
	답(畓)	379	
이선일	답(畓)	291	수원 부재지주
	답(畓)	481	
	답(畓)	531	
이면규	답(畓)	432	성남면 지제리
김상우	답(畓)	907	경성부 부재지주
	답(畓)	958	
서준필	답(畓)	408	수원 부재지주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송영호	전(田)	574	일서면 금암리
조의규	전(田)	94	일서면 금암리
조덕현	전(田)	535	일서면 금암리
조의직	전(田)	668	일서면 금암리
	전(田)	159	
	답(畓)	41	
	답(畓)	35	
봉은사(奉恩寺)	전(田)	618	경기도 광주군 전(田): 618평 답(畓): 2,093평
	답(畓)	637	
	답(畓)	609	
	답(畓)	847	
산구태병위 (山口太兵衛)	전(畓)	520	경성부 일본인 부재지주
이성규	전(畓)	1,418	수원 부재지주
조존서	전(田)	383	남양군 부재지주
양호천	전(田)	261	일서면 금암리
김명현	畓	357	수원군 성호면 부재지주
조동현	전(田)	518	일서면 금암리
국유지(國有地)	답(畓)	884	답(畓): 2,383평
	답(畓)	1,499	
정성천	전(田)	97	죽산 부재지주
	전(田)	355	
	전(田)	115	
	답(畓)	61	
이경우	답(畓)	288	수원 부재지주
조의진	답(畓)	176	남양군 부재지주
차병원	답(畓)	1,223	일서면 금암리
장세윤	전(田)	376	일서면 금암리
윤태형	전(田)	1,439	수원 부재지주
장세윤	전(田)	50	일서면 금암리
장덕달	답(畓)	25	
	전(田)	834	
윤재청	전(田)	625	이서면 수월암리
김영희	전(田)	639	
	전(田)	141	

위 표의 1912년 『토지조사부』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1912년 당시 진위군 이서면 사동(寺里)에는 안동 김씨, 칠원 윤씨가 대성(大姓)이었다. 둘째, 경제력도 안동 김씨와 칠원 윤씨가 양분했다. 칠원 윤씨 가운데 대농(大農)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명흠이다. 윤명흠은 사리, 야막리, 하북2리 일대에 전(田) 5,398평과 답(畓) 15,059평, 대지(垈地) 473평을 갖고 있었다.

칠원 윤씨 가운데 중농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하선, 윤교영, 윤양선, 윤대선, 김재규 등이다. 윤하선은 사리 일대보다 야막리 일대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전(田) 2,002평, 답(畓) 6,045평, 대지 225평을 소유했다. 윤교영은 야막리, 하북2리의 농지를 포함해서 전(田)

6,759평, 답(畓) 2,226평, 대지(垈地) 443평, 잡종지 809평 등 1만여 평의 토지를 소유했다. 하지만 논보다 밭을 많이 소유했고 잡종지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다. 윤양선은 전(田) 3,271평, 답(畓)은 2,010평, 잡종지 3,870평, 대지 79평이어서 윤교영과 비슷한 처지였다. 윤대선은 사리, 야막리, 하북2리에 전(田) 2,803평, 답(畓) 4,836평, 대지 752평을 소유했다.



사리 사람들의 농지가 분포된 하북2리 일대와 야막들

안동 김씨에서는 김재원이 대농(大農)으로 분류된다. 김재원은 전(田) 6,687평, 답(畓) 7,656평, 임야 325평, 대지 188평 등 1만 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여 윤명흠과 대등한 경제력을 갖췄다. 중농(中農) 수준으로는 김재근, 김재규를 꼽을 수 있다. 김재근은 전(田) 2,258평, 답 1,335평, 대지 725평과 잡종지 2,290평, 임야 2,774평을 소유했다. 농지에 비해 잡종지와 임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김재규는 전(田) 5,567평, 답(畓) 5,401평과 임야 2,285평을 소유하여 김재원에 근접한 경제력을 소유했다.

셋째, 토착 지주보다 부재지주의 땅이 많았다. 부재지주는 서울을 비롯해서 수원, 안성, 평택과 이웃 마을인 수월암리, 금암리, 가곡리, 수원 용주사, 서울(경기도 광주) 봉은사 등 다양했다. 서울의 부재지주로는 신굉식(辛宏植)이 주목된다. 신굉식은 전(田) 2,666평과 답(畓) 2,678평, 대지(垈地) 2,456평을 소유했다. 이밖에도 안흥선은 사리, 야막리, 하북2리 일대에 전(田) 7,286평, 답(畓) 11,086평, 잡종지 156평에 대지 72평을 소유했다. 수원의 부재지주 윤교덕은 전(田) 4,768평, 답(畓) 3,947평을 소유했으며, 양평의 부재지주 이만영도 야막리 일대의 논을 비롯해서 전(田) 824평, 답 12,900평을 소유했다. 이웃인 수월암리의 윤교석은 전(田) 7,813평, 답(畓) 12,889평에 대지(垈地) 342평, 임야 2,464평을 소유했다.

넷째, 경기도 광주의 봉은사와 수원 용주사 농지(農地)는 사리(寺里)에는 적지만 야막리 일대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예컨대 용주사는 사리와 야막리, 하북2리 일대에 전(田) 26,447평과 답(畓) 100,027평이라는 대규모 농지를 소유했다. 봉은사는 사리 일대에 전(田) 618평, 답(畓) 2,093평을 소유했다. 국유지(國有地)는 사리(寺里)지역만 답(畓)으로 2,383평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 궁방전(宮房田)이나 역둔토(驛屯土)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사리, 야막리, 하북2리 일대에 일본인 땅도 존재했다. 이들은 경성(서울)이나 수원에 거주하면서 농장을 경영했던 부재지주였다. 사리와 야막리 일대에 농지를 소유한 일본인 지주로는 산구태병위(山口太兵衛), 평생팔삼랑(平生釰三郎), 암기구미(岩崎久彌)를 들 수 있다. 산구태병

위(山口太兵衛)는 사리에 전(田) 520평을 소유했고, 암기구미(岩崎久彌)는 답(畓) 422평을 소유했지만 야막리 일대에는 전(田) 7,578평과 답(畓) 32,375평, 하북2리에는 전(田) 2,006평, 답(畓) 19,366평이라는 대규모 농지를 소유했다. 평생팔삼랑(平生釰三郎)도 사리에 전(田) 285평, 답(畓) 17,980평의 농지와 야막리 일대에 답(畓) 5,077평, 하북2리에 답(畓) 1,865평을 소유한 지주였다. 1912년 이전 일본인들이 대규모 농지를 보유할 수있는 방법은 간척과 개간, 매입인데 일제강점 초기 진위천 중상류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개간과 간척, 매입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농지를 확보했을 것이다.



일본인 농지와 용주사 땅이 많았던 사리, 야막리 일대

다섯째, 1912년 당시 사리(寺里) 일대는 논보다 밭의 비율이 높고, 야막리는 밭보다 논의 비율이 높다. 주민들은 전체적으로는 옛날에는 6:4비율로 논이 많았고 2023년 현재는 6:1 비율로 논이 많다고 했다. 이것은 오산천 변의 개간이 덜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간된 지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논보다는 밭으로 경작했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논보다 밭을 많이 소유하고, 일본인이나 용주사와 같은 사찰은 밭보다 논을 많이 소유한 것은 ‘간척’의 주체들이 궁(宮)이나 관청(官廳), 부재지주나 일본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농지소유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농지개혁 당시의『지주명부』나 1960년대 이후 『통계연보』를 통해서도 단편적 지식 외에 마을별 및 개인별 토지소유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해방 후 농지개혁 당시의『농지원부』를 확인한다면 토지 소유 변동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리(寺里) 주민 김찬희(남, 1935년생)는 해방 전후 부재지주로는 차유순과 양성관, 마을 지주로는 김재원(김태동)과 윤해임(윤주신)을 기억했다.「농지개혁시 피분배 지주명부」에 따르면 수원의 부재지주 차유순(차준담)은 답(畓) 88정보, 전(田) 48.9정보, 도합 136.9정보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양성관(梁聖寬, 1867~1947)은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부자였다. 그가 소유한 토지는 경기 남부 일대에 전답(田畓) 90만여 평이었고 소작인만도 600여 명이나 되었다. 그의 아들은 양규봉, 손자는 양인석인데 해방 후에 작성된 「농지개혁시 피분배 지주명부」에는 소유 전답이 답(畓) 262.6정보, 전(田) 41.4정보, 도합 304정보였으며 소작료가 7,151석이나 되었다. 사리(寺里) 주민들은 양성관은 만석지기, 차유순(차준담)은 5천석 지기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성관은 7, 8천석 지기, 차유순(차준담)은 3천석 지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지주 김재원(김태동)은 전(田) 6,687평, 답(畓) 7,656평, 임야 325평, 대지 188평 등 1만 4천 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였다. 이정도 수준이면 대지주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리(寺里)의 상

황으로는 대농(大農) 수준에 해당된다. 김재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오완근(남, 1930년생)의 경우 '천석꾼' 이라고 말했지만 윤병무(남, 1938년생)는 이삼백 석 지기쯤 될 거라고 말했는데 윤병무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김재원은 머슴을 둘씩 두고 자작을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 때에도 재산이 대부분 유지되었다고 말한다. 현재 그의 집은 후손들에 의해 '사리당' 이라는 카페로 운영된다. 내부는 현대적으로 변형되었지만 옛집의 고풍스러움은 여전하다.



마을지주 윤명흠(윤주신), 김태동(사리당)의 옛 집터

마을지주 윤주신(남, 1943년생)의 조부는 윤명흠(칠원 윤씨 족보에는 윤종대)이다. 윤명흠은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水軍) 만호(萬戶) 벼슬을 지낸 윤형원(족보에는 윤준영)이고, 그의 부친은 인제 현감을 지냈다. 하지만 윤형원은 아들이 없어 윤명흠을 양자로 들였고, 윤명흠의 동생 윤영수도 윤기선(尹箕善)의 양자가 되었다. 윤명흠의 재산은 윤해인, 윤주신에게 상속되었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윤명흠의 재산이 사리, 야막리, 하북2리를 모두 합쳐 전(田) 5,398평과 답(畓) 15,059평, 대지(垈地) 473평이었다. 윤명흠의 재산은 전(田)보다 답(畓)이 월등하게 많아서 토지면적이나 농업생산력 차원에서 사리(寺里)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윤명흠(윤주신)은 농지의 대부분을 소작으로 경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거치며 상당량의 농지가 분배되었고 일부는 처분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의 임야나 대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윤기선, 윤형원, 윤교선 등 칠원 윤씨의 위세는 대단했다. 이들은 경제력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 월등했기 때문에 마을뿐 아니라 주변 마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탄면장을 지낸 윤학수(남, 1941년생) 등은 윤명흠의 옛집은 문을 세 개나 지나야 안채에 당도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윤병무(남, 1938년생)는 다른 마을의 노인이 오산장을 가려고 담뱃대를 물로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놈이 누구 앞이라고 담배를 꼬나 물고 가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평생 동안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사리 주변에서는 선전관 댁(윤명흠)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도 했으며, 울타리 공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일을 도와주며 고깃국에 밥을 얻어먹었다고 한다.

주민 김찬희(남, 1935년생)는 사리(寺里) 일대에는 수원 용주사(龍珠寺)와 태고사(太古寺) 땅도 많았다고 하였다. 수원의 용주사는 정조가 일으킨 사찰로 경기남부지역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했다. 태고사는 1937년 각황사를 서울 종로로 옮기면서 삼각산의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이 1954년 불교정화운동 과정에서 '조계사' 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태

고사의 땅이라는 것은 현재 조계사의 땅이 된다. 하지만 농지개혁 시기의『지주명부』에는 두 사찰이 언급되지 않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1912년 『토지조사부』에 용주사의 땅이 사리와 야막리 일대에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사리에는 경기도 광주(서울)의 봉선사 땅도 있어 해방 후 태고사 땅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다.

『안성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76년 12월 말 현재 사리(寺里)의 호(戶)는 100호다. 이 가운데 95호(戶)가 농가이고 5호(戶)가 비농가였다. 1980년 12월 말에는 전체 104호 가운데 91호만 전업농이고 13호는 비농가였다. 1984년에는 전체 120호 가운데 농가 94호 비농가 26호였다. 이후에도 사리(寺里)의 비농가 비율은 점차 높아졌다.

나. 소작관계와 농지개혁

1912년『토지조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사리(寺里)의 지주는 윤명흠, 윤하선, 김재원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는 수원 용주사, 신굉식, 윤교덕, 이만영 등 부재지주와 평생팔삼랑(平生釰三郞), 암기구미(岩崎久彌)와 같은 일본인 지주들이다. 해방 전후에는 이들 외에도 수원의 차유순(차준담), 양성관 등이 대지주였다. 김구회(남, 1947년생)는 백서방네 땅도 많았다고 말했지만 지주가 아닌 마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윤병무(남, 1938년생)는 차준담의 마름은 진위면 갈곶리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김재원(김태동)은 머슴 둘을 고용해서 자작(自作)했다고 했고, 윤주신의 조부(윤명흠)와 부친(윤해임)은 주로 소작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또 용주사의 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신굉식, 윤교덕, 이만영과 같은 부재지주는 알지 못했으며, 평생팔삼랑(平生釰三郞), 암기구미(岩崎久彌)같은 일본인 지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국유지, 용주사 땅, 일본인 땅이 많았던 내건너 들판과 뒷고실골

사리(寺里) 사람들은 일부 지주(김재원, 윤하선, 윤명흠 등)와 대농(大農), 중농(中農)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작지었다. 윤병무(남, 1938년생)는 본인도 어려서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농지개혁 전까지만 해도 소작농이 90%는 상회했을 거라고 말했다. 몇몇 주민들의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린다면 소작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졌고 소작료는 일제 말에는 수확량의 50%,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정책에 따라 수확량의 30%를 납부했다. 하지만 타작 감독관을 속여 소작료를 적게 내기 위한 노력이나, 마름과의 갈등문제, 각종 공출에 대한 증언은 들을 수가 없었다.

농지개혁은 1949년 법령이 만들어지고, 150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지만 6.25전쟁으로 중단되

었다가 휴전 후 재시행되었다. 사리(寺里) 마을에는 농지개혁 과정을 소상하게 기억할만한 인물이 없었다. 최소한 1930년대 초반 출생쯤은 되어야지만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1938년생이다 보니 농지개혁 전의 지주·소작 관계와 농지분배 과정, 상환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1938년생인 윤병무는 "농지분배를 했으니 자작(自作)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머슴이나 되었지 별수 있어" 라고 말해 농지개혁이 농민들을 자작농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했다.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의 재산상속은 철저하게 장자 우선이었다. 아들 중에서 차남 이하는 결혼 후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분가할 때 3~5마지기 정도를 분배받았다. 윤병무의 사례는 당시 분가와 재산분배 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윤병무(남, 1938년생)의 부친은 4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다. 조부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줬다. 부친은 거의 빈손으로 분가(세간) 나와 토지매매과정에서의 거간(현재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으로 땅을 매입하고 동생 두 명의 분가를 도왔다. 일제강점기에는 남의 땅을 소작지었다. 능력을 인정받아 소작지가 30여 마지기나 되었다. 당시 지주들은 남편이 죽어 여자만 살거나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작을 주지 않았다. 농지분배는 30마지기쯤 받았다. 통상 평택지역 소작농가들이 1호(戶)에 많은 경우에는 15마지기, 적을 때는 5, 6마지기를 소작지었는데 반해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 농지를 확대하면서 집안 형편이 나아졌다.

(3) 작부체계와 농사관행

가. 농사의 시작

농사는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시작되었다. 윤병무(남, 1938년생)은 양력 3월경이라고 말했다. 양력 3월이 되면 농사가 많은 집에서는 머슴을 들였다. 머슴은 같은 마을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 이웃 마을이나 멀게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을 채용하기도 했다. 머슴(고공)은 능력에 따라 상머슴과 애기머슴으로 구분되었다. 상머슴의 기준은 소쟁기질과 써래질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품꾼을 얻는 등 농사 전반을 총괄할 수 있어야 했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상머슴의 세경은 쌀 6가마를 주었다. 그것이 나중에는 8가마로 올랐고 1970년대 중후반쯤에는 10가마까지 올랐다. 애기머슴은 17, 18세쯤 되어서 머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일종의 견습생이었다. 사리(寺里)에서 애기머슴은 세경 없이 밥만 먹여주었다. 3월이 되어서 계약이 성사되면 머슴들은 가장 먼저 새끼를 꽈서 집 둘레에 말장을 박고 수수깡을 엮어 울타리를 둘렀다. 쟁기와 농사 도구를 손보고 논둑의 마른 풀들을 베어내기도 했다.

4월쯤 되어서 땅이 풀리면 마른논의 논갈이부터 시작했다. 물논인 경우에는 5월에 갈았다. 밭갈이도 비슷한 시기에 해야만 채소를 심을 수 있었다. 이른 봄에 논갈이는 무척 힘들었다. 논들은 겨울에 물댄 논도 있고 마른 논도 있었는데 물논들이 논갈기가 수월했다. 물댄 논들은 땅이 부드러워서 쟁기를 갖다 대면 잘 갈리는데 마른 논들은 딱딱해서 갈리지 않았다. 그래서 물논은 두 번만 갈면 모내기 전에 써래질을 할 수 있었는데 마른 논은 두 번, 세 번씩 갈아야 했다. 윤병무(남, 1938년생)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물논은 좌우를 합치도록 갈았다가 가운데를 뽀개서 갈아야 했고, 마른 논들은 얇게 갈아서 세 번씩 가는 거야. 그래서 인자 써래질할 때 마른논은 한 번 더 중간을 질러줘야 돼. 고랑이 너무 넓으니까 중간에 쟁기로 질러서 논을

판판하게 만드는 거여” 라고 말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되도록 겨울에 논에 물을 가둬 물논을 만들려고 했다. 물논을 만들려면 추수 후에 오산천에 보둑(선산보, 행산보)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보도랑을 만들어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월 초에 보(洑)를 막았다. 보(洑) 막이 공사는 몽리지역 내의 농민들이 동원되었다. 선산보는 주로 사리(寺里) 사람들이 쌓았고, 행산보는 사리, 수월암리, 야막리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된 농민들이 동원되었다. 보(洑)를 쌓을 때는 가마니에 오산천 변의 모래를 담아서 축조했다. 그러다가 장마가 심하면 둑이 터져버려 다음 해 봄에 다시 쌓곤 했다.

나. 못자리와 모내기

못자리는 4월 20일경에 했다. 절기상으로는 곡우(穀雨) 때하였다. 못자리를 하려면 열흘쯤 전에 보돌을 다니며 가래로 도랑을 쳤고 같은 시기에 볍씨 소독도 했다. 못자리 방식에는 물못자리와 밭못자리, 절충못자리 등이 있었는데 사리(寺里)에서는 절충못자리를 많이 했다. 절충못자리는 논에 물을 가두고 볍씨를 뿌린 뒤 모판에서는 물을 빼고 좌우 고랑에만 물을 가두는 방식이다. 1970년대에는 면사무소에서 식량증산을 한다며 터널식 못자리 등 선진화된 방식들을 보급하기 위해 지도하러 다니기도 했다.

옛날에는 볍씨를 뿌리면 모판에서 35일에서 40일쯤 생육했다. 손으로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크기가 작지 않았다. 그래서 5월 말부터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손모를 낼 때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6월 하지 때까지 모내기를 했다. 하지 때 모내기를 하는 사람은 보리·밀과 벼의 2모작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내기철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칠월 칠석까지 기다렸다가 호미모를 심기도 했다. 칠석이 지나면 모내기를 포기했다. 포기한 농지에는 메밀을 비롯해 다른 작물을 심기도 했다. 모내기의 노동력은 가족노동과 품앗이로 해결하거나 외부에서 인력을 사왔다. 품앗이는 서로 품을 나눈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농지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품을 나눌 때는 일을 더한 만큼 품삯을 쳐줬다. 가난한 농민들은 여자들도 품을 팔러 다녔지만 농지가 많으면 밥하거나 참을 내오는 일을 하였다. 윤병무(남, 1938년생)도 “그것은 규모에 따라 각자 다르지. 농사가 많으면 사람을 사서 해야되고 적으면 식구끼리도 심고. 아니면 품을 사다가 심고 여러 가지지” 라고 말했다. 품앗이도 남의 도움을 받으면 품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어야 남의 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60년 전후에는 전쟁 피난민이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품삯이 매우 쌌다. 농지가 거의 없는 빈농들이나 전쟁 피난민들 중에는 품을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른 봄에 식량이 떨어지면 장리쌀의 경우 가을에 50%의 이자를 주거나 심하면 100%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그런 경우에는 봄·가을에 일해주기로 하고 미리 품삯을 받아서 먹었다. 이것을 ‘선품’ 이라고 했다. 품삯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쌀 1말에 5가락(5일)을 해주기도 했지만 점차 나아져서 나중에는 3가락을 해줬다. 선품을 받을 경우에도 쌀 한 말에 닷새를 일해줬다. 윤병무(남, 1938년생)는 같은 한 말이라고 해도 고봉말(약 10kg)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양이 많았다고 말한다. 윤병무(남, 1938년생)는 일꾼을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꾼을 사는 이유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르지. 논 한섬지기 하는 사람은 내외(부부)가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 10마지기라도 보름은 일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논갈고 써래질을 해야잖아.

그러니까 1마지기에 20명이 들어간다면 20일 모두를 모심기하는 게 아니고 5일은 논 갈고 그래야니까 여자가 도와줘도 15일밖에 일할 수 없단 말이여. 그러면 5일이 부족하니 일꾼을 다른 데서 사 와야지."

모내기의 가장 큰 변화는 1980년 전후다. 농촌에 이앙기가 보급되면서 품앗이를 하거나 일꾼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축우(畜牛)를 이용한 논갈이나 써래질도 경운기나 트랙터가 대신하였다. 이앙기는 처음에는 일본제가 들어왔지만 사리(寺里) 마을에는 보급되지 않았고 대동이나 국제에서 나온 농기계가 널리 보급되었다. 농기계로 모내기를 하면서 모판에서 생육기간도 짧아지고 모내기도 일찍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30일이 채 자라지 않은 모를 5월 10일경부터 심기 시작한다. 심지어 농협에서는 모를 길러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때문에 10마지기나 20마지기 농사를 짓는 영세농의 경우에는 모판을 만들 일도 없다. 이앙기로 모내기를 할 경우에는 이앙기를 운전하는 사람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1명이면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수리시설도 잘되어 있어서 가뭄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모내기를 한다.

다. 김매기와 추수

1960년대에는 모내기 후 15일이 지나면 김매기를 했다. 김매기는 통상 3번을 했다. 첫 김매기는 애벌매기라고 했다. 애벌매기가 끝나고 15~20일쯤 뒤에는 두벌매기를 했고, 다시 15일쯤 뒤에 훔치기를 했다. 김매기는 백중 때쯤 끝났다. 백중이 지나면 벼가 많이 자랐고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생육에 지장이 없었다. 김매기 뒤에도 '피사리'는 했다. 피는 생육기간이 짧고 잘 자라기 때문에 벼가 다 자란 논에도 삐쭉삐쭉 모가지를 내밀었다. 그러면 논에 들어가 뽑아주거나 모가지를 쳤는데 일부 농민들은 벼의 생육에 큰 지장이 없다며 그냥 방치하기도 했다.


사리의 주경작지 야막들의 가을, 오산천과 하북리 일대 여름

김매기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리(寺里)에서는 두레를 조직했다. 주민들은 1970년대 초까지는 두레 조직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두레는 두레 조직이 변질되고 해체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우선 두레를 질문했을 때 공동노동조직보다는 '두레풍물패'를 먼저 떠올렸고, 두레의 형식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억이 없었다. 윤병무(남, 1938년생)는 '일꾼을 얻으려면 힘드니까 두레를 둘러댔다'는 말로 필요성을 말했다. '누구네 논을 맨다고 해서 일해주면 나중에 마지기 수 따져서 품삯을 분배했다'는 기억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1970년 전후까지는 두레가 존재했다. 둘째, 두레 조직은 좌상과 상쇠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두레패에 가입한 회원들의 논들을 좌상의 지시를 받아 김매기를 했다. 넷째, 임금은 각자의 논의 넓이를 파악하여 농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일정한 품삯을 내도록 했고 적은 사람은 타가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두레패의 훔치기가 끝나면 백중이었다. 백중에서 추수 때까지 한달쯤은 휴식기였다. 농지가 많은 지주들은 이날 수고한 머슴들에게 용돈을 주어서 집에 다녀오게 하거나 장터에 나가서 먹고 마시며 즐기게 했다.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백중이 지난 뒤에는 논의 물을 조절해주고 간간이 피사리를 하며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

벼는 생육기간은 140~150일쯤 되었다. 양력 4월 10일 이전에 볍씨를 담그면서 시작되어 모판에서 35일 이상 자라고, 모내기를 한 뒤 양력 10월 중순쯤에 수확했다. 추수는 가족노동과 품앗이로 했다. 벼베기는 모내기에 비해서 촌각을 다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에 벼베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첫눈이 내려서 베어서 논바닥에 깔아 놓은 벼 위에 눈이 쌓이기도 했다. 벼를 베어서 논바닥에 1주일쯤 널어 놓은 뒤에는 볏단을 묶어 한 줄로 세워놓았다. 지금은 5월 10일경 모내기를 시작하면 9월 20일경부터 벼베기를 한다.

벼는 품종에 따라 생육과 추수 기간이 서로 달랐다. 조생종은 일찍 추수한다면 만생종은 그보다 뒤에 추수했다. 현재 평택시의 대표브랜드 슈퍼오닝쌀에서도 아끼바레(추청벼)와 고시히까리의 생육기간도 다르다. 고시히까리는 20일 정도 생육기간이 짧은데 반해 아끼바레(추청벼)는 10월이 넘어야 추수했다.

1970년대에는 통일벼를 권장했다. 식량증산을 통한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던 제3공화국 정부는 읍·면 공무원들을 다그쳐 다수확품종으로 계발된 통일벼를 농민들에게 보급하도록 강요했다. 통일벼는 추청벼에 비해 수확량은 10~30% 더 나오지만 밥맛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했다. 그러자 읍·면 공무원들을 마을로 보내 볍씨 담글 때부터 검사하고 모판을 뒤져 추청벼를 심었을 경우 발로 밟거나 뽑아버렸다. 통일벼 재배는 제3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재배가 거의 중단되었다.

마. 탈곡과 도정

벼를 베어 말리고 나면 탈곡을 했다. 일제 말 벼를 탈곡할 때는 그네(쇠홀테)를 많이 사용했다. 그네는 홀치기라고도 불렀다. 그러다가 궁글통이 나왔다. 정식 명칭은 ‘족답식 탈곡기’ 인데 발로 패달을 밟으면 쇠를 박아놓은 통이 돌아가면서 벼를 탈곡하는 방식이었다. 윤명무(남, 1938년생)는 ‘족답식 탈곡기는 왜정 때도 있었다’ 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마을에는 보급되지 않아서 6.25전쟁 전까지는 그네를 주로 사용했다. 그네나 족답식 탈곡기로 탈곡을 하면 볏단의 벼가 모두 털리지 않아서 도리깨로 낫알들을 털어내야만 했다.

6.25전쟁 뒤에 궁글통(족답식 탈곡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1970년 전후 전기가 보급되면서부터는 전기 모터를 활용한 자동식 탈곡기도 사용되었다. 태기질(태질)은 개상이나 나무절구를 뉘어 놓고 볏단을 후려쳐서 탈곡하는 방식이다. 태기질은 벼 탈곡보다는 보리나 밀 탈곡에 많이 사용되었다. 궁글통이나 태질로 탈곡을 할 때는 볏단을 작게 묶었다. 크게 묶은 볏단은 털어내도 낫알이 많이 남아 도리깨질로 다시 털어야만 했다.

1970년대 중반 경운기가 보급되고, 1970년대 말부터는 기계식 탈곡기가 보급되었다. 기계식 탈

곡기가 보급되면서 탈곡은 더욱 쉬워졌다. 탈곡기의 전성기는 짧았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바인더, 1980년대 초·중반부터는 콤바인이 보급되었다. 바인더나 콤바인은 수확용 농기계다. 콤바인의 경우 1971년 ㈜대동(주)에서 2조식을 계발하여 처음 보급했다. 그 뒤로 3조식, 4조식, 6조식으로 발전했다.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면서 가족노동이나 품앗이의 필요성, 탈곡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지금은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마지기, 20마지기 농사를 짓는 소농들도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에게 삯을 주고 벼베기를 위탁하기 때문에 추수철이라고 해서 특별히 바쁘지 않다.

바. 도정(搗精)과 유통(流通)



사리이동조합 정미소(2007)와 구판장

사리(寺里)의 농가에서는 탈곡한 벼를 마당이나 아스팔트 위에 말렸다. 벼는 수분함량이 20~18% 쯤에서 벼베기를 한 뒤 탈곡하고 건조하여 수분함량 14%대에서 저장하거나 판매한다.

일제강점기 사리(寺里)에는 디딜방아가 2~3개쯤 있었다. 디딜방아는 크기가 다양하지만 사리(寺里)는 3명이 한 조가 되어 도정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말에는 발동기가 도입되었다. 윤병무(남, 1938년생)나 김구회(남, 1947년생) 등은 발동기의 이름이나 제조회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5마력 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마을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일제 구보다 발동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방 전후의 발동기는 우마차에 싣고 다니며 마당에서 도정을 해줬다. 윤병무(남, 1938년생)도 "5마력짜리 발동기인데 우마차에다 싣고서 끌고 다니는 거여. 벼를 마당에다가 쌓아 놓고 발동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도정을 하는 거여"라고 증언했다. 윤병무에 따르면 당시 구보다 발동기를 싣고 다니며 도정을 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한다. 수익성이 높자 사리(寺里)에서는 여러 사람이 발동기로 도정을 했다. 부자였던 김재원(김태동)이나 윤병무의 당숙도 발동기 도정을 했다.

6.25전쟁 뒤에는 정미소가 만들어졌다. 정미소는 김태동과 김재국이 운영했다. 주로 벼를 도정했지만 밀과 보리도 했다. 그러다가 1958년 사리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김재국의 정미소를 임대(월세)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상열(남, 1936년생)은 조합정미소에서는 기관수 2명을 고용하여 운영했다고 한다. 도정료는 일반 정미소에 비해 싸고 받았다. 농민들은 값도 싸고 도정기술이 뛰어난 조합정미소로 몰려들었다. 1년 뒤에는 빚을 거의 갚았고 2년 뒤에는 월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김재국의 땅을 매입하여 정미소를 건립했다. 나중에는 정미소 뒤쪽 집에서 분진으로 고

통을 호소하면서 30평을 더 매입하였다. 조합정미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김태동 정미소는 곧 문을 닫았다.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쌀의 유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하나는 미곡도매상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매집하는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서정리장, 오산장과 같은 시장에서 미곡상들이 쌀을 매집하여 도매상들에게 넘기는 방식이었다. 시장에서 쌀을 매매할 때는 미곡 거간꾼들이 중간다리를 놨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쌀 두어 말씩 이고 시장에 들어서면 거간꾼들이 매매할 것인지를 묻고 상인들에게 연결시켜준 뒤 구전을 받았다. 김덕용(남, 1933년생) 등은 말감고 이야기도 했다. 시장에는 쌀말을 가지고 쌀의 수량을 계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싸전에서는 말감고의 현란한 솜씨에 혀를 내두르거나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00년을 전후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영세 정미소는 운영이 어려워졌다. 시장의 싸전들도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곡점이나 말감고, 거간꾼도 사라졌다. 평택시에서는 슈퍼오닝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련된 쌀은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낸 직후 물벼 상태로 도정공장으로 옮겨 건조와 도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윤병무(남, 1938년생)도 수확한 벼는 대부분 농협에 보내고 식량할 것만 신리의 농업회사법인 미아토 도정공장에서 찧는다고 했다.

(4) 농기구와 농업기계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리(寺里)에서는 재래식 농기구를 사용했다. 논농사 관련 농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쟁기였다. 농가에서는 농사를 위해 집집마다 축우 1, 2마리씩 길렀다. 축우는 오산장에서 구입했다. 오산장은 삼남 각 지역에서 올라온 소들이 거래되었다. 소를 농사에 사용하려면 일정한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 멍에를 얹고 훈련하여 목덜미에 굳은살이 박혀야만 논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다.



내건너 들판의 10월 말

사리에서 처음 사용한 농기계는 경운기다. 윤병무(남, 1938년생)는 1970년대 중반쯤부터 경운기가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읍·면 단위로는 일제 경운기가 도입되었지만 마을에서는 대동경운기를 구입해서 사용했다. 1970년대 말 이앙기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평택군청에서 시범적으

로 도입한 뒤에 나중에 대동이나 국제와 같은 국산제품이 나올 때 구입했다. 트랙터와 콤바인 중에서는 트랙터를 먼저 도입하고 콤바인은 나중에 들여왔다. 1980년대에는 평택군청에서도 농기계 구입 때 지원을 많이 해줬다. 농기계는 메이커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 자기 농지와 남의 땅을 수만 평씩 농사짓는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을 쓰지만 자기 땅만 경작하는 사람은 작고 가격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모내기를 할 때 논에 심을 어린 모도 농협에서 사온다. 구입 자격은 조금씩 다른데 전업농가들은 한 판을 사 올 때마다 1,000원씩 할인해준다. 그렇게 구입해도 한 판에 3,500원에서 4,000원 가량한다. 그것도 10마지기, 20마지기 농사를 짓는 영세농들에게는 1인 300판밖에 주지 않는다. 통상 논 1,200평이면 100~125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판이면 3,000평 정도를 심을 수 있다. 이앙기는 산파와 조파가 있다. 옛날에는 두가지 형식을 모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산파이앙기만 사용한다. 조파는 골진 곳에 모를 길러 심기 때문에 모내기를 한 수량을 측정하기에 유리하지만 산파에 비해 나머지 기능에서 뒤지기 때문에 산파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농기계가 도입되어 사용 중이다. 심지어 요즘에는 드론을 도입해서 농약을 치는데 사용하고 있다.

(5) 두레와 작업반

두레는 들이 넓은 농촌지역에서 김매기를 위해 조직된 공동노동조직이다. 벼농사는 크게 모심기, 김매기, 추수로 구분되는데 각자의 특성에 따라 노동형태가 각기 달랐다. 모내기는 가족노동이나 품앗이, 품꾼을 고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리에서는 1심지기 농사를 지으면 머슴을 고용하기도 했다.



사리 두레를 증언한 오완근(남, 1930년생) 및 주민들(2007)

김매기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노동력과 숙달된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들이 넓은 지역에서는 두레를 조직하여 숙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상호협동하여 단기간에 많은 노동을 하려고 했다. 추수는 비교적 기 기간동안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족노동이나 품앗이로 해결했다.

사리(寺里)는 두레가 조직되었다. 사리(寺里) 두레도 논매기를 목적으로 조직했다. 윤병무(남,

1938년생)도 “논매는데 다녔지. 일꾼 얻기 싫으니까 두레를 둘러대면 그럴 필요 없거든”이라고 하여 논매기에 동원된 공동노동조직이었음을 증언했다.

두레의 조직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좌상으로 모셨다. 다른 마을에서는 그 아래에 총무 역할을 했던 ‘공배’를 두기도 했는데 사리는 없었다고 한다. 두레에는 반드시 기수와 풍물패를 두었다. 기수는 뚝심이 있고 힘이 쎈 사람에게 맡겼다. 기수는 농기를 들고 다니는 일 외에도 이웃마을 두레와 두레 싸움을 할 경우 농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야했기 때문에 뚝심과 왈력이 필수적이었다. 풍물패는 상쇠를 중심으로 부쇠, 장구, 징, 북, 법구잽이로 구성되었다. 사리 풍물패의 상쇠로는 작고한 오완근(남, 1930년생), 기수는 한기철이 유명했다. 한기철은 완력이 대단하여 야막리와 두레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레싸움에서는 야막리에 연전연패했다. 100호(戶)가 넘는 마을에서 40호 남짓한 마을에 연전연패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윤병무(남, 1938년생)는 ‘사리(寺里) 앞에서는 이겼지만 마을의 농지가 대부분 야막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완근(남, 1930년생)에 따르면 사리 두레는 20여 명으로 조직되었다. 모내기가 끝나면 두레패는 악기를 손보고 준비를 했다. 모내기 후 15일쯤부터 애벌매기를 했다. 논매기 순서는 좌상이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농가에서 논매기를 요청하면 좌상이 일의 규모나 논의 위치를 보고 순서를 정했다. 논매기를 나갈 때는 기수와 풍물패가 앞장서고 풍물패들은 길거리장단을 치면서 들로 나갔다. 두레꾼들은 허리춤에 호미를 꿰고 함께 나갔다. 논에 나가서는 농기를 꽂아 놓고 일을 시작했다. 상쇠는 작은 북을 들고 선소리를 했고 두레꾼들은 이를 되받으며 일을 해나갔다. 과거에는 두레패가 매우 엄격했다. 하지만 윤병무(남, 1938년생) 등이 활동할 때는 해체기에 가까워서 조직의 운영이나 규범이 엄격하지 않았다.

김매기는 애벌매기 후 15일 간격으로 두벌매기, 훔치기 순으로 하였다. 초가을에 피가 자라는 것은 방치하거나 가족노동으로 해결했다. 김매기는 백중 때까지 했다. 김매기가 끝나면 각자가 일한 날짜와 시간을 따져서 셈을 했다. 예컨대 10마지기 소유한 농민이 20마지기를 소유한 농민과 함께 김매기를 했다면 일을 더 많이 한 것을 품값으로 지불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제초제가 보급되었다. 제초제가 보급되면서 논매기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제초제를 두 번 뿌린다. 풀은 모내기를 할 때 제초제를 뿌려도 한두 달이 지나면 풀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손으로 풀을 맸다.

주민들은 사리 두레는 1960년 전후쯤에 중단된 것으로 기억했다. 윤병무(남, 1938년생)도 본인이 군대 입대(1962년도)하고부터 없어졌다고 말했다.

작목반은 1960년대에 조직되었다. 조직은 반장을 중심으로 남녀 농민들로 조직되었다. 작목반은 주로 모내기를 했다. 제초제가 출시되면서 김매기는 많은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목반이 해체된 것은 1980년 전후다. 이앙기를 비롯해서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공동노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하는 사람들끼리 작목반을 조직한다. 평택시청에서도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기술 전수를 하고 있다.

2) 축산업과 시설재배

(1) 축산업

평택지역은 고덕면의 한뉴목장과 ㈜매일유업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축산업이 발달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논농사는 정부의 저곡가정책으로 이익이 적었다. 논농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젊은 농민들 중에는 축산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에는 젓소 5, 6마리를 키우면 자식들 대학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사리 축산업의 흔적

1960, 70년대만 해도 사리(寺里)의 농가들은 집집마다 농우(農牛)를 한두 마리씩 길렀다. 어떤 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농우를 길러주고 새끼를 낳으면 삯을 송아지로 받기도 했다. 농우는 주로 오산장에서 구입하거나 팔았다. 오산장은 전라도의 소들이 집결하여 서울로 반출되었을 정도로 우시장이 발달했다. 때로는 수원장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다니지 않았다.

농우(農牛)는 길들여야 농사에 이용할 수 있었다. 보통 송아지를 사다가 6개월쯤 지나면 코뚜레를 해줬다. 코뚜레는 쇠꼬챙이를 불에다가 달궈서 코에다가 찌르는데 아무나 할 수 없어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했다.

코뚜레를 하고 1년에서 1년 반쯤 지나면 길들이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 목 부위에 멍에를 올렸다. 처음 멍에를 진 소는 무척 아파했다. 그래도 멍에를 올리고 굳은살이 박힐 때까지 계속 끌고 다녀야만 했다. 멍에는 처음에는 가볍게 하다가 점차 무게를 늘렸다. 그렇게 하면 굳은살이 두꺼워져서 무거운 것을 올려도 아프지 않게 된다. 같은 소라고 해도 황소를 길들이는 것이 다른 소보다 훨씬 빨랐다.

멍에 훈련이 끝나면 논으로 데리고 갔다. 윤병무(남, 1938)는 '막 길들인 소는 논갈이를 할 때 두 명이 붙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 사람은 코뚜레를 잡고 앞에 서고 또 한 사람은 쟁기를 논밭을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한 두 달 논갈이, 밭갈이를 하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잘했다.

젓소 사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축산업 농가에 혜택을 많이 줬다. 젓소를 사육할 땅과 초지(草地)만 있으면 젓소 5마리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줬다. 당시에는 오산천 변이나 들판에 나가면 소에게 먹일 풀들이 많았다. 사리(寺里)에서 가장 먼저 젓소 축산업을 시작한 사람은 김항묵(남, 1935년생)이었다. 돼지 축산업은 김정용이 시작했고 외지에서 들어온 송씨도 젓소를 키우다 폐업했다. 1980, 90년대에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 2집,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2집쯤 되었다. 하지만 사육두 수가 5, 6마리에 불과해서 규모면에서는 작았다.

윤병무(남, 1938)는 1970년대 말 축산업을 시작했다. 비육우를 분양받아서 3, 4마리쯤 키웠다.

젓소를 하고 싶었지만 땅(草地)이 없어 비육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축산업을 시작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몇 년 하다가 그만두었다.

(2) 비닐하우스시설재배

사리(寺里)에서는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야막리와 하북2리 일대에서 많이 한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우스와 노지에 무를 많이 심었다. 이것을 수확해서 수원이나 서울의 농수산물시장에 팔았다. 당시의 무농사는 2모작이었다. 이른 봄에 무를 심었다가 이것을 뽑아서 팔고 난 뒤에 하우스를 걷어버리고 모내기를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애호박과 오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오산천 일대 비닐하우스시설재배 풍경

1980년대에는 사리(寺里)에서 15호 내외가 하우스농사를 지었다. 이때가 되면서 하우스재배도 전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종래 2모작을 하던 사람도 논농사를 하지 않고 하우스농사만 짓기 시작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무 재배에서 오이, 토마토, 애호박 농사로 전환했다.

재배규모는 천차만별이었다. 비닐하우스 한 두 동으로 농사를 짓는 소규모 영농에서 12동, 13동씩 하는 대규모 영농까지 다양했다. 요즘에는 이중하우스를 하면서 하우스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옛날에 12동, 13동씩 하던 사람들도 같은 면적에 5동 내외밖에 만들지 못한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물이 중요하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관정을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다. 요즘에는 수막재배라는 것을 하는데 수막재배는 물이 좋아야 한다. 수막재배는 이중하우스에서 가능하다. 안쪽의 하우스 피복재에 살수하여 보온 및 단열 효과를 높인 뒤 무가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안쪽 하우스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한 뒤 이것으로 보온 및 단열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 농가들은 작목반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1960, 70년대 작목반은 모내기를 위해 조직되었지만, 비닐하우스시설재배 작목반은 장비나 물품을 공동구매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다. 평택시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도 작목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사리(寺里)에서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는 13호(戶) 정도다. 윤병무(남, 1938)도 축산업을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종중 땅 논 2마지기(600평)에 비닐하우스 2동을 지어 농사를 지었다. 작물은 애호박만 심었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뒤에도 부부가 하우스 농사를 지어 생활했는데 70세가 넘어서 힘도 들고 타산도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3) 장시와 유통

사리(寺里)에서 면소재지인 서탄면 금암2리까지는 3km가 조금 안됐다. 오산까지는 20리쯤 되었고 송탄은 2~3km에 불과했다. 사리(寺里)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는 오산, 6.25전쟁 뒤에는 송탄 신장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

장시(場市)는 오산장을 보다가 6.25전쟁 뒤 신장동 기지촌의 영향으로 지산동 쑷고개 아래에 아침장(송탄전통시장), 신장동 기지촌 안에는 저녁장(국제중앙시장)이 섰다. 송탄기지촌이 잘될 때는 아침장, 저녁장도 장사가 잘됐다.

1960, 70년대만 해도 장(場)에 갈 때는 쌀이나 잡곡을 이고 갔다. 김용순(여, 1935년생)은 주로 쌀만 가지고 장에 갔다. 콩이나 깨, 고추를 가져가서 파는 사람도 있었다. 농산물을 가져가서 팔 때는 현금으로도 받지만 외상도 줬다.

장(場)에 갈 때는 걸어서 갔다. 하북이나 금암교에서 버스를 탈 수 있을 때도 돈이 아까워서 걸어서 다녔다. 오산장을 갈 때는 사리매고개를 넘어 모장산 기슭을 돌아서 오산천 둑방을 타고 걸어다녔다. 송탄 아침장을 갈 때는 북바위 앞 둑방을 걸어서 오산천을 넘어 구장터를 지났다. 1970년대에는 버스비가 5원씩을 했는데 그것을 아껴서 아이들 학비에 보태려고 걸어서만 다녔다. 당시 논둑길은 좁고 비라도 내리면 질퍽했다.

옛날에는 버스를 타려면 1번국도가 지나는 하북1리까지 걸어갔다. 마을에 버스가 들어온 것을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은 평택-송탄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금암리와 사리를 거쳐 간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송탄 아침장(송탄전통시장)만 가는데, 2, 3년 전부터는 평택시가 농촌마을 노인들을 위해 1천 원 택시(택시비 1,000원)를 운영하고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 서울에 가려면 송탄시외버스터미널까지 나가서 서울행 직행버스를 탔고, 철도는 오산역에서 탔다.

지금도 간혹 송탄 아침장(송탄전통시장)을 다니지만 오산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 잘 다니지 않는다. 생필품은 송탄의 대형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 굳이 장날이 아니어도 쉽게 구할 수 있다.

(4) 산업시설

사리(寺里)의 산업시설

회사명	위치	업종	비고
백만볼트 컨퍼니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47 1층	철물	
조일물류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	물류, 유통	
송원포장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13	포장용상자제조	
도원물산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15	무역	
진성 아이엔씨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21	식료품제조	
엘케이테크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25 1동	반도체제조	
와텍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25	일반기업	
듀라소닉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26 프로텔	일반기업	
케이엠피산업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26	전자부품제조	
세진산업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53-22	유리제품제조	
우원기술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76-25	기계장비제조	

회사명	위치	업종	비고
메모텍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76-23	무역	
성보정밀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76-17	산업용기계제조	
티에프티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76-17	플라스틱물질제조	
진성화학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76-9	화학물질제품제조	
케이티엔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82	알루미늄제품제조	
아이엔씨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82	일반기업	
일진테크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82	일반기업	
서탄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206	미술, 공예품	
에스케이에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206	자동차부품제조	
에이아이코리아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206-24	반도체, 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제작	
거성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206-20	일반기업	
모스텍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206-22	일반기업	
원 테크놀로지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206-23	금속가공제품제조	
유경식품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89	식료품제조	
티엠씨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71-13	전자제품제조	
loetek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71-12	제조업	
델리푸트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71-18 1동 1층	농수산물	
아이맥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79	반도체제조	
신정창호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87	농공시설	
맛자곡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89 B동	식료품제조	
프로이노텍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89	일반기업	
티에스티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204	전자부품제조	
한폴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204-9	플라스틱제품제조	
엠에스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26	접착제 제조	
제노기업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20	일반기업	
코멘텍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51	일반기업	
서현테크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51	일반기업	
한성특장공업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41	산업용기계제조	
이노켐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17	화학물질제품제조	
일진레이텍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84	기계장비제조	
한솔지게차	평택시 서탄면 사리	중장비업체	
예원식품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37	식료품제조	
가온푸드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28	물류, 유통	
제이에스시스템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28	제조업	
이레테크	평택시 서탄면 사리안길 6	가정용전기기기제조	
엔스텝	평택시 서탄면 사리안길 12	일반기업	
효천	평택시 서탄면 사리안길 12	일반기업	
제이오푸드	평택시 서탄면 사리안길 12-14	가공식품	
티에스에스	평택시 서탄면 사리안길 12-16	일반기업	
명인건축설비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116-5	배관, 냉난방공사	
그린테크놀로지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78-27	화학물질제품제조	
진보이엔지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95-6	제조업	
한진금형공업(주)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95-5	금형제품제조	



사리 일대의 산업시설

4. 사회생활

1)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마을회관



옛 사리 마을회관과 조합정미소, 2015년경 신축한 마을회관

사리(寺里)에 마을회관이 신축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마을의 공공모임은 동네 사랑방에서 이뤄졌다. 사랑방을 운영하려면 집의 규모가 크고 사랑방이 넓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서 동네사람들이 마실을 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했다. 연말 대동회도 마을사랑방에서 개최했고, 주요 여론도 이곳에서 형성되어 마을에 영향력을 주었다. 마을 사랑방도 원로급들의 사

랑방과 중년들의 사랑방, 젊은층의 사랑방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사리(寺里)에는 공회당이 없었다. 최초의 공공시설은 1950년대 후반에 건설된 4H회관이다. 4H회관은 1954년부터 시작된 사리(寺里) 4H운동의 결실이다. 회관건축은 당시 4H회장이었던 김항묵(남, 1935년생)이 주도했다. 회원들은 통관사로 올라가는 입구(마을제당) 옛 성공회 사리교회 옆에 회관을 신축했다. 4H회원들은 목재를 구해서 옮겨오고 흙벽돌을 찍어서 초가로 건물을 지었다. 이곳에서 마을회의라든가 양재학원을 운영했고 다양한 4H사업도 추진했다. 마을회관은 1980년대 초에 신축했다. 기존의 사리 이동조합정미소와 구판장 사이에 1층 슬라브조로 신축했다. 2013년에는 사리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되면서 정미소 자리에 현재의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했다. 신축한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하고 있다.

(2) 우물과 수도시설

1960년대 사리(寺里)의 공동우물인 4개쯤 되었다. 현재 마을회관 앞의 동뜸우물, 연못골 우물, 삼박골 우물, 새터말 우물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우물은 삼박골 우물이었다. 주민들은 매년 양력 7월이면 우물청소를 했다. 음력 정월 보름경에 당제사를 지낼 때는 함박골 우물로 목욕 재개하고 제사음식을 만들었다.

우물들은 두레박과 물지게, 물동이로 길어 먹었다. 그래서 가정에는 큰 물항아리를 구비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김용순은 물지게로 물을 길어 먹었다. 고향에서는 물동이로도 물을 길었다. 사리마을에서는 대체로 80대(2023년 기준) 이상의 여성 노인들은 물을 길어 먹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물동이는 양철통으로 만들었다. 물지게는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좁고 질퍽한 길을 지날 때 중심을 잃으면 고꾸라졌다. 여성노인 한 사람은 자신은 물지게의 중심을 잡지 못해 물길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동우물을 증언한 여성노인들과 간이상수도 집수정

1972년에 결혼해서 사리에 정착한 여성 노인은 물을 길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결혼했을 때는 관정을 박아 펌프를 설치하거나 모터를 달아서 자가수도를 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다른 여성은 새마을운동 직전에 결혼했는데 집을 신축하면서 관정을 박아 펌프를 설치했다고 했다. 다른 여성은 자가우물을 팠다가 이곳에 펌프를 박아서 길어먹었다고 했다. 이상의 증언을 종합하면 1960년대 중반에는 모든 주민들이 공동우물을 사용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관정을 박거나 자가우물을 팠고, 1970년대 초 전기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자가수도를 설치한 사람도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사리(寺里)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 마을에서는 관정을 깊

게 파서 매봉산으로 올라가는 곳의 집수정에 끌어올린 뒤 이것을 각 가정에 공급했다. 2010년대 초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식수를 구하기가 쉬워졌다.

(3) 전기




사리마을의 전신주

사리(寺里)에 전기가 가설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앞섰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1972년 시집왔을 때 전깃불이 있었으며, 새마을운동할 때도 전깃불을 켜고 야간작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또 김용순(여, 1935년생)은 새마을운동 전에 들어왔다고 말했으며, 김구회(남, 1947년생)는 1970~71년 사이로 기억난다고 했고, 여성 노인은 1971년 혼인했을 때 호야를 켰었다고 말해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은 1971년 전후에 몰려 있어 이를 종합할 때 사리(寺里)의 전기도입은 1971년 말쯤으로 판단된다.

전기의 도입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의 변화는 텔레비전의 도입과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이었다. 자가 우물이나 펌프에 전기모터를 달아서 자가수도를 설치하는 집들이 늘었으며, 198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는 가전제품을 구비하기 시작했다. 전기의 도입과 가전제품의 설치는 전통의 농촌생활이 도시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전후에는 가스랜지나 전자랜지의 도입으로 아궁이 없이도 요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개량이나 신축을 통해 입식부엌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으며, 인분이 거름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랑채나 집밖 있었던 화장실도 정화조를 설치하고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2024년 현재 사리(寺里)에서 전통의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는 가정은 없다. 거의 대부분 입식으로 개량하거나 신축했으며 입식이 아닌 경우에도 아궁이를 활용하여 요리를 하는 경우는 없다.

(4) 의료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사리(寺里)는 근대의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근대의료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민간의료나 한의사, 무당의 도움을 받았다. 1950년대 후반에 결혼한 김용순(여, 1935년생)은 여름에 아이가 배앓이를 하면 인진쑥을 달여서 먹였다고 말했다. 심하게 아플 경우에는 송탄 지산동의 근대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김용순이 이용했던 의료기관은 남산의원이었다.



지산동 숯고개 중앙의원

윤병무(남, 1938년생)의 당숙은 한의사였다. 대한제국시기의 군인 출신이었던 당숙은 군대가 해산된 뒤에는 한의학을 배워 진료했다.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신봉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재수굿을 물론이지만 자녀들이 아프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하였다.

김구회(남, 1947년생)은 어릴 때 배앓이를 해서 약쑥 다린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쑥은 낫이나 칼로 베인 상처를 지혈할 때도 요긴하게 쓰였다. 또 베인 상처에는 숯을 곱게 갈아서 뿌리면 잘 나았다. 배앓이를 할 때는 솜에 불을 붙여 배 위에 붙이기도 했다. 벌에 쏘일 때는 된장을 바르기도 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폐렴이나 홍역으로 많이 죽었다. 김구회의 형들도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김구회도 생후 1살 때 폐렴을 앓아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서울 영등포의 사촌누님에게 부탁해서 그곳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살아났다. 김구회는 성장하여 서울에서 학교에 다닐 때 사촌누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2) 마을조직과 운영

(1) 이장(里長)조직

해방 후 정부 수립 전까지 사리(寺里)의 마을 조직은 대동회-구장(이장)이었다. 대동회는 1년회 1회, 12월 말에 개최되었다. 대동회에서는 당해연도 사업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 예결산을 했고, 2년에 1회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일제강점기 면제(面制)가 시행되면서 면(面)에도 면장(面長)이 임명되었고 공무원들이 배치되었다. 면(面)이 지방행정의 말단기관으로 행정적 권한을 갖게 되면서 리(里) 단위에는 구장과 이장이 임명되었다. 구장은 행정 리(里)를 책임지는 역할이라면, 이장은 법정 리(里)의 책임자였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구장은 면장이 임명했다. 그만큼 권한도 막강해서 구장회의 참석하여 면(面)과 마을의 행정을 담당했다. 구장의 역할에는 세금징수(지세, 지주세, 잡종금, 지방비) 독려, 양잠, 목화재배, 축사개량 등 농사개량과 지도, 자원수탈을 위한 역할, 공출과 징용, 징병, 근로보국단 징발 대상자 선정 등이 있었고, 일제 말 전시체제기에는 송진 채취, 기우제 거행과 같은 일들도 책임졌다.

윤병무(남, 1938년생)도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구장(區長)을 면장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일제 말에는 권한이 막강해서 근로보국단이나 징용, 징병의 권한이 구장에게 있었다. 구장은

마을에서 구장에게 밉보이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징용이나 근로보국단에 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정부수립 후 이장(里長) 체제가 정착되면서 마을의 공식적인 조직은 이장-반장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직책이 신설되었고 마을 운영위원회 격인 개발위원회도 신설되었다. 사리(寺里)는 과거에는 1개리(里) 7개 반(班)으로 조직되었지만 지금은 1개 리(里) 5개 반으로 조정되었다.



사리마을과 이장 홍성각

해방 전후에는 이장의 역할이 면(面)에서 공무 출장을 온 면직원들을 접대하거나 비료, 소금, 석유 배급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반장들은 이장을 통해 마을에 전달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반(班)에 배당되는 세금을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분배하고 징수하는 역할도 했다. 1970년대에는 이주나 퇴거 신고를 할 때도 반드시 이장의 도장을 받아야했다.

1960년대 초 호적정리사업이나 농가고리채정리사업, 독립운동가 훈·포장 수여에서도 이장의 역할이 컸다. 호적정리사업에서는 6.25전쟁으로 피난을 내려오거나 호적이 불타버린 사람들, 좌익에 가담해서 속칭 빨간 줄이 쳐진 사람들의 호적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정비되었다. 독립운동가 훈·포장 과정에서는 과거 행적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로 상신하여 거짓 독립운동가가 양산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새마을운동 때 빛났다. 제3공화국 정부에서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수원의 농촌진흥청 등에 모이게 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새마을사업 때 추진된 사리(寺里)의 마을진입로 확장과 마을안길 확장, 지붕과 담장개량 등 각종 사업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주도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부터 이장에게는 약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일반 활동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었고 지금도 월 40만 원에 불과하다. 마을에서는 이장-반장의 수고비 지급과 당제를 위해서 리세(里稅)를 징수했다. 리세(里稅)는 종교와 각자의 사정을 불문하고 호(戶)에 쌀과 보리를 1말씩 걷다가 지금은 2만 원~3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징수한다.

근래의 이장은 역할이 많이 줄었다. 마을의 기본행정이나 사업들 외에 면(面)이나 농협(農協)의 전달사항을 전달하거나 마을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분배하는 것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사를 오거나 퇴거를 할 때도 이장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사 오고 떠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새마을부녀회

1970년 4월 22일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각 지역에 새마을부녀회가 설립되었다. 사리새마을부녀회는 1972년 최정희(여, 1932년생)가 설립했다. 최정희는 1대 회장에 취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치수녹화사업에 동의하고 회원들과 함께 양묘(養苗)사업을 전개했다. 양묘사업은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3년차에는 크게 성공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1981년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수여하고 칭찬하였다.

이후에도 사리새마을부녀회는 마을의 대소사에서 음식준비와 행사지원, 헌옷모으기와 김과 미역 공동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1980,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마을운동이 쇠퇴하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청년회

사리(寺里)는 청년운동이 활발했다. 특히 1954년부터 시작된 4H운동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심어주었다. 윤병무(남, 1935년생)에 따르면 청년들은 해방 직후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연극(소인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고전극에 아리랑이나 천안삼거리 같은 민요를 섞어 공연했고 한때는 빨간마후라같은 노래도 불렀다. 청년들이 공연한 작품은 ‘이차돈’, ‘심청전’, ‘박효랑전’ 등이었는데 주로 권선징악이나 효(孝)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는 콩클대회도 개최했다. 윤병무(남, 1935년생)는 콩클대회는 1972년 조합창고를 짓고 이듬해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억했다. 주로 주민들끼리 노래자랑을 했다. 윤병삼(남, 1965년생)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는 밴드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마을 콩클대회에서 밴드공연을 하면 주변마을 청년들이 모여 함께 즐겼으며 또 다른 마을에서 콩클대회를 개최하면 그 마을로 몰려가서 함께 즐겼다고 기억했다. 윤병삼(남, 1965년생)에 따르면 콩클대회는 자신의 아래 기수들까지만 했다고 말했다. 그 뒤로는 청년들의 도시정착이 많아지면서 활동이 약해졌다고 한다.

청년들은 마을의 대소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상(喪)이 나면 부고를 돌리고, 상여를 메거나 매장준비를 하는 것을 모두 청년들이 했다.

(4) 노인회

1960, 70년대에는 노인회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마을 사랑방에 열 대여섯 명씩 모여 역사이야기나 자신이 경험했던 기억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회관 겸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과 노인회 총무 김각회

노인회는 1981년 마을회관을 짓고 평택군노인회 사리 지부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에는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회원 수가 무척 많았다. 창립 초기에는 남자회원만 단체관광을 떠났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매년 단체관광을 떠났다. 현재 사리(寺里) 노인회 회원은 80여 명에 달한다. 회장은 김경회, 총무는 김각회가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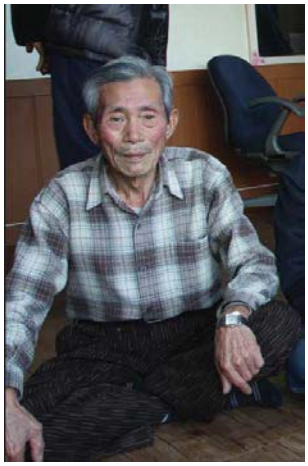
3) 관혼상제(冠婚喪祭)

(1) 상례(喪禮)

상례(喪禮)는 관혼상제 가운데 가장 엄숙한 의례다. 혼례나 제례와 달리 상례(喪禮)는 예고없이 닥쳤기 때문에 민가(民家)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상례(喪禮)의 어려움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 상계(喪契)를 조직했다.

사리(寺里)의 상계는 '연반계' 라고 불렀다. 연반계는 일제강점기 한의(韓醫)였던 윤치학이 조직했다. 윤지학은 대한제국시기의 군인 출신으로 한의학을 배워 일제강점기에는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윤병무의 당숙, 새마을부녀회장을 지낸 최정희의 시아버지이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상(喪)이 나면 상여는 천한 사람들만 멨다. 윤지학은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양반 상민층의 구별 없이 모두가 협동하여 상(喪)을 치러야 한다며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연반계를 조직했다. 사리 연반계는 가입비가 없었다. 다만 회원들 중 상(喪)이 나면 쌀 2~3되를 상가에 가져다주었고 장례 일체를 도왔다. 연반계는 회원들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젊은층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단되었다. 그러자 나중에 장권식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었다.

사리(寺里) 상여집은 송장산 뒤편에 있었다.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어 1칸짜리 상여집을 지었다. 옛날에는 나무 상여를 사용했다. 상(喪)이 나면 연반계원들이 상여를 짜 맞춰서 사용했다. 나무 상여는 무척 무거웠다. 멜빵은 칡덩쿨을 엮어서 만들어 어깨도 무척 아팠다. 그래서 1980년대 초 알루미늄(아연 특수강) 상여로 바꿨다. 알루미늄 상여는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가벼웠다.



상례와 마을일을 도맡았던 공상렬과 사리 상여집 터

1970, 80년대부터는 청년들이 상례의 허드렛일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을 5개 조로 편성하고 상(喪)이 나면 2개 조씩 투입했다. 투입된 2개 조는 다시 운구조와 산악조로 나누었다. 운구조는 상여를 메는 사람들이었고 산악조는 미리 가서 매장준비를 하고 마무리까지 모두 관여했다. 상여소리는 공상열(남, 1936년생)이 잘했다. 공상열은 상여소리와 함께 염도 잘해서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묘의 좌향을 정하는 지관(地官) 역할도 했다. 출상할 때는 중간에 노제(路祭)를 지낸 뒤 매장지까지 갔다. 옛날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매장지까지 가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좁은 논둑길을 지날 때는 다리를 V자 형태로 모은 뒤 서로 발이 엉키지 않게 순서대로 나아갔다.

안동 김씨와 칠원 윤씨는 종중묘가 있었다. 안말저수지 동쪽 창덕골에는 칠원 윤씨 충효공파의 묘역이 있다. 안동 김씨는 매봉산 동남쪽 단풍나무골에 묘역이 있었는데 근래 묘역과 납골묘까지 조성했다. 군사공파는 2022년 한진금형공장 뒤편에 새로 묘역을 조성했다. 안동 김씨와 칠원 윤씨는 상(喪)이 나면 종중묘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른 성씨나 상황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용목골 부근의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2) 혼례(婚禮)

사리(寺里) 김용순(여, 1935년생)은 전라도 광주가 친정이다. 22살에 결혼하여 사리로 왔다. 중매는 사리에 살던 사람이 했다. 시어머니와 신랑이 전라도까지 와서 맞선을 봤다. 신랑은 동갑나기 청년이었다. 얼굴도 마주 보지 못하고 부모님께서 결정하는 것에 따랐다. 결혼식은 구식으로 했다. 전라도 광주의 친정 마당에서 혼례를 치렀다. 신랑 얼굴을 마주 본 것은 첫날 밤 신혼방이었다. 친정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차를 타고 사리로 왔다. 차를 타고 사리교 입구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집에까지 왔다. 시댁은 가난해서 결혼예물도 없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독자였으며 시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시댁에는 시어머니밖에 없었다. 시댁은 논 10여 마지기, 밭 600평으로 농사지어 근근이 먹고 살았다. 10마지기 농사를 지어서는 세금 내고 뭐 제하고 나면 식량도 모자랐다. 시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왔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자헌과는 이종사촌 간이었다.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이 남달랐다.

남편과는 3녀 2남을 두었다. 딸을 내리 셋을 낳고 아들 둘을 낳았다. 딸만 내리 낳았어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눈치가 보였다.



혼례와 육아, 의료 등을 증언한 김용순 외 마을주민들

이향자(여, 1941년생)는 장안동이 친정이다. 농협조합장을 지낸 이우재가 당숙이다. 중매는 시댁과 잘 알던 안성시 원곡면 사람이 했다. 혼례는 장안동 친정에서 구식으로 했다. 예물은 은반지를 받았고 시어른들 옷을 예물로 가져갔다. 혼례는 6.25전쟁이 끝나고 6개월쯤 지난 뒤에 했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시댁으로 왔다.

(3) 출산과 육아

김용순(여, 1935)은 3녀 2남을 낳았다. 아이를 낳을 때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 낳았다. 이상하게도 옆에 누가 있으면 긴장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 산파가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미리 아이 낳을 준비를 다 해놓고 아이의 탯줄을 잘라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 놓은 뒤 본인도 목욕까지 하고 나서야 남편과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했다.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산통을 오래 했다. 첫 경험이지만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 많이 들어서 혼자 낳을 수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산바라지를 해주지 않았다. 아이 다섯을 낳을 동안 젓국 넣은 밥을 한 끼 해주면 그걸 먹고 다음 날부터는 나와서 밥하고 일했다. 본인도 방안에 앉아서 밥해주는 것을 받아먹는 성격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집안 일만 했다. 아이들 키우고 돌보는 일도 시어머니가 해줬다. 그래서 밭농사를 비롯해서 들일은 김용순(여, 1935년생)이 했다. 남편이 일찍 사망한 뒤로는 공장에도 다니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았다. 공장은 나이를 먹은 뒤에 다녔다. 가곡리 롯데제과나 오산까지 걸어서 통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잘 자랐다. 아이들이 아프면 가벼운 것은 민간요법을 이용하고 심하면 송탄 남산의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배앓이를 많이 했다. 배앓이에는 약쑥(익모초)을 말려두었다가 다려먹었다.

(4) 의 · 식 · 주

① 의(衣)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느질이었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옷은 여자들이 재단과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재봉틀은 보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느질을 잘하는 여성은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김용순(여, 1935년생)은 1956년 결혼했다. 결혼 초에는 광목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몇 년 뒤 나일론이 나왔지만 일부 부잣집을 제외하고는 쉽게 사서 입을 수가 없었다.



2007년 사리마을 남성주민 및 2023년 여성주민들의 의복

김용순(여, 1935년생)은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들을 옷을 직접 지어서 입혔다. 남편은 양복이 되었든 한복이 되었든 닥치는 대로 입었다. 여름에는 반바지도 입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나일론이 보급되어서 주로 나일론제품을 구입해서 입혔다. 나일론은 피부에는 좋지 않았지만 질기고 빨래와 건조에 유리해서 아이들 옷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서울에 사는 이모네 아이들이 입던 헌 옷도 가져다가 입혔다. 이모 댁은 부자여서 좋은 옷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입혀서 내보내면 동네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좋은 옷을 사서 입혔냐’ 며 부러워했다. 1960년 전후까지만 해도 나이를 먹은 노인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었고 아이들 중에는 광목옷을 입은 아이들도 간혹 있었다.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옷을 사입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전후부터다. 기성복을 사 입으면서 여성들은 옷을 짓기보다는 구멍나고 찢어진 옷과 양말을 꿰매는 일이 많았다.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다. 고무신은 일제 말에도 구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특별 배급되었다. 그래서 구장댁과 친하면 한 꾸러미쯤 배급나오면 한 켤레쯤 얻어신었지만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신지는 못했다. 일반인들은 짚신도 신고 게다도 신고 다녔다. 6.25전쟁 뒤에는 대부분 고무신을 신었다. 시집와서는 짚신이나 와라지를 신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노인들 중에는 간혹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하면 나막신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 아이들이 중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운동화가 보급되었다. 옛날에는 한 철에 옷 두 벌이면 만족했지만 요즘에는 옷이 흔하다. 여자들은 옷 한 벌로 한 철을 나고, 가난하면 겨울에도 홋치마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빨랫비누가 흔치 않았다. 그래서 시부모의 흰 한복은 물에 삶아서 방망이로 두드려 빨았다. 양재물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전후쯤부터 쌀겨를 섞어 만든 시커먼 색의 빨랫비누가 나왔다. 일반 비누는 1960년대 중반쯤이나 지나서 보급되었던 것으로 기

억된다. 다리미도 시원찮았다. 뚜껑이 없는 숯다리미는 잘못 사용하면 숯이 튀어서 옷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동정은 인두로 다렸다. 빨래는 오산천 냇가에서 했다. 오산천은 매우 깨끗해서 김장을 할 때는 배추도 씻고 무도 씻었다. 오산천에서 빨래하고 김장 재료를 씻는 일은 1973, 4년경까지 했다. 1971년에 시집온 주민(여성)은 결혼 후 2년 동안은 오산천에서 빨래하고 배추를 씻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초, 중반에는 자가우물을 많이 팠다. 전기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자가 우물에 모터를 달아서 자가수도를 만들었다.

(2) 식(食)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사리(寺里)는 논보다 밭이 많았다. 논들은 대부분 야막리나 하북2, 3리 일대에 분포했고 매봉산 일대의 경작지는 대부분 밭이었다.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논들은 수확량도 매우 적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리에서는 쌀밥보다 보리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몇몇 부잣집만 쌀밥을 먹었고 일반 가정에서는 보리쌀에 쌀을 섞어서 밥을 짓거나 순 꽁보리밥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에는 밥보다 죽을 먹을 때도 많았다. 보리쌀은 정미소에서 도정하기도 했지만 소량은 여성들이 절구통에 방아를 찧어서 먹기도 했다.

김용순(여, 1935년생)은 보리밥에다가 쌀은 한 종지쯤 얹어서 밥을 했다고 한다. 한종지 얹은 쌀은 시어머니와 애들에게 섞어주고 나머지 식구들은 순 꽁보리밥만 먹었다. 보릿고개에는 푸레기죽을 쒀먹었다. 그것도 식량이 부족해서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다. 수제비도 많이 먹었다. 밭이 많다 보니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식량을 삼았다. 거친 보릿쌀에 콩이라도 얹으면 먹을 만했다. 밀과 보리를 베면 고구마를 심었다. 고구마는 겨울철 중요한 식량이었다. 쌀밥을 먹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1970년대 후반쯤부터로 기억된다. 식량증산되고 통일벼도 재배하고, 농업생산력도 높아지면서 비로소 평소에도 쌀밥을 먹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궁이 부엌에서 요리를 했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부엌개량, 아궁이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탄아궁이가 생겼다. 주택개량을 했던 집들도 연탄아궁이를 만들었다. 김용순(여, 1935년생)도 새마을운동할 때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 주택이었어도 모든 아궁이를 연탄으로 바꾸지 못했다. 안방 부엌은 아궁이와 연탄을 함께 사용했고, 쇠죽을 끓였던 건넌방은 아궁이였다.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면서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갈 일들이 줄어들었다.

통상 밥은 아궁이의 가마솥에서 했다. 연탄아궁이는 난방도 하고 국이나 탕, 반찬같은 것을 했다. 풍로(곤로)도 사용했고 석유 난로도 썼다. 곤로에다가 국을 끓이거나 하면 아이들은 냄새난다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밥은 가능하면 아궁이에 불을 때서 했다.

식생활에 있어 땔감은 무척 중요했다. 땔감이 넉넉해야 밥을 해먹고 난방을 할 수 있었다. 사리(寺里)는 땔감이 부족했다. 매봉산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주변 마을에 산이 없어 너도나도 나무를 해가다 보니 헐벗어서 채취할 솔가리조차 흔치 않았다. 땔감은 솔가리나 음력 7월경에 소나무 잔가지를 쳐뒀다가 말려서 땠다. 산과 들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들도 낫으로 베어서 말린 뒤 땔감으로 사용했다. 볏짚은 새끼나 가마니를 치고 초가지붕을 올려야만 해서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다만 보리나 밀집은 종종 땔감으로 사용했다. 땔감이 덜어지면 청솔가지를 베어다가 때기도 했다. 청솔은 연기가 심하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화력이 좋았다. 나무를 하다가 산주인에게 걸리면 빼앗겼다.

지붕개량하고 연탄을 때면서 땔감 걱정이 크게 줄었다. 마대자루가 나오면서 가마니치기도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볏짚도 땔감으로 사용했다.

1980년 전후에는 연탄보일러를 설치했다. 1990년 전후에는 기름보일러나 심야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가스랜지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사람들은 입식부엌에 화장실을 갖추고 냉장고와 세탁기, 전화기, 컬러텔레비전을 구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김용순(여, 1935년생)은 2019년쯤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 전까지는 계속 연탄과 아궁이 부엌을 유지하다가 새로 지으면서 바꿨다.

(3) 주(住)




사리 김태동의 옛집과 카페로 리모델링한 ‘사리당’

일제강점기 마을의 큰 부자는 윤명흠과 김재원이었다. 일명 ‘선전관댁’으로 불렀던 윤명흠의 집은 마을에서 유일한 기와집이었다. 윤학수(남, 1941년생)의 기억에 따르면 안채까지 가려면 문을 세 개나 지나야 했다는 것으로 볼 때 사랑채와 안채가 담장과 중문으로 분리된 중부지방 양반가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의 댁은 해방 후 기와집으로 신축했다고 한다. 지금 그 집은 후손에 의해 ‘사리당’이라는 카페로 개조되었는데 아직도 지붕과 처마의 날렵한 선이 아름답다.

1956년 혼인한 김용순(여, 1935년생)은 결혼하고 시댁에 왔을 때 가옥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초가집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순의 초가는 방 두 칸에 가운데에 마루가 있고 안방 아래에 부엌이 있는 전형적인 중부지방 서민가옥의 모양을 갖고 있었다. 당시에는 어지간한 농가주택에는 사랑채를 별도로 두었다. 사랑채는 방과 화장실, 헛간 또는 외양간으로 썼다. 가옥들은 전부 아궁이를 두었다. 이것이 1970년대 연탄아궁이를 병설했고, 1990년대 주택개량이나 신축을 하면서 대부분 입식으로 고치고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다. 김용순의 주택은 2019년 신축했다. 신축비는 김용순이 열심히 일해서 마련했다. 설계비에 500만 원을 투자한 덕분에 김용순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건축되었다.

5.문화생활

1) 교육

서탄면 사리(寺里) 일대에서 가장 먼저 개교한 근대학교는 1899년 개교한 진위공립소학교(현

진위초등학교)다. 오산시의 성호초등학교는 1913년 4월에 개교했다. 그러다가 1930년 서탄면 금암2리에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했다. 중등학교는 1950년 5월 설립 인가된 오산중학교가 있었고 오산고등학교는 1954년 개교했다. 수원에는 1903년 개교한 삼일상업고등학교(현 삼일고등학교), 1909년 개교한 수원고등학교, 1936년 개교한 수원농업고등학교가 있었으며, 수성고등학교는 1955년에서야 개교했다. 진위면 하북리에는 1953년 진위고등공민학교(현 진위중 · 고등학교)가 있었고, 송탄에는 1953년 효명중학교, 1957년 효명고등학교가 개교했고, 1962년 설립된 태광중 · 고등학교도 개교했다. 사리(寺里)에서 진위면 봉남리까지는 5km쯤 된다. 오산까지는 4km이며 서탄까지는 산길을 고려하면 1.5km쯤 된다. 서정리역 부근까지는 9km가 넘었고, 수원까지는 20km가까이 되었다.



사리(寺里)와 주변 학교까지 거리

윤병무(남, 1938년생)에 따르면 자신의 형님들 세대는 가까운 서탄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진위초등학교로 다녔다고 말했다. 그것은 서탄초등학교는 4년제인데 반해서 진위초등학교는 6년제였고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탄초등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진위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1942년 서탄초등학교도 6년제로 승격되었다. 그 뒤로는 사리(寺里) 아이들은 모두 서탄초등학교를 다녔다.

일제 말에는 초등학교 입학도 시험을 치렀다.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입학이 의무가 아니었고, 입학희망자보다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입학시험은 사물의 명칭이나 간단한 셈 등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해서 걸러진 학생들은 1년을 재수하거나 인근의 강습소, 야학, 개량서당 등에서 공부했다. 1936년 9월에는 대한성공회 사리교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에 들어온 성공회는 교회부설 신명강습소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큰 역할을 했는데 윤병무(남, 1938년생)에 따르면 사리교회도 강습소를 운영했다고 한다.

일제 말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는 꼴망태를 짊어지고 갔다. 학교를 오가다가 좋은 풀이 있으면 그걸 뜯어다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전쟁 군수품 공급을 위해 식량증산에 열을 올렸다. 광솔이나 아주까리를 채취해서 학교에 가져오라고도 했다. 광솔과 아주까리의 기름을 짜서 전투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은 하교해서도 농사일을 도왔다. 그래서 어른들

만큼이나 쉴 틈이 없었다.




진위초등학교와 서탄초등학교

윤병무(남, 1938년생)은 해방 이듬해 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 라고 했다. 일제 말에 입학한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했다. 중일전쟁과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일제 말에 초등학교에 다닌 사람은 조선말을 못했겠네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수업내용을 설명하려면 조선말, 조선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말은 할 줄 알았지’ 라고 대답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했다. 일제 말에는 입학시험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 가난해서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도 한꺼번에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다 보니 윤병무(남, 1938년생)보다 3, 4살 더 많은 학생들이 부지기수였고 17세에 장가들고서 입학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한 학급에 60, 70명은 기본이었고 심하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가르쳤다. 해방 후 서탄면에 금각초등학교가 설립된 것도 학생 수 급증에 따른 대책이었다. 윤병무는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산중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오산중학교 3년을 졸업하고 오산고등학교까지 진학했지만 공부에 회의가 느껴져서 그만두었다.

일제 말과 해방 후에는 사리에도 ‘사리강습소(야학)’ 가 운영되었다. 윤병무(남, 1938년생)에 따르면 사리강습소(야학)는 절골은행나무 옆 윤병렬씨 댁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그곳은 윤병무의 사촌 윤병철이 살았는데, 마을의 뜻있는 인사들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움을 파고 기둥을 세운 뒤 움짐을 지었다. 사리강습소(야학)는 6.25전쟁 직전까지 운영되었다. 교사는 윤병철과 김한용, 김금용이었다. 특히 윤병철은 움집 터도 내놓고 직접 가르치기도 해서 강습소 운영에 큰 공을 세웠다. 교사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농촌지식인들이었다. 주로 야간에 가르쳤으며, 교수(敎授) 과목은 한글, 산술, 한문이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서탄면장을 지낸 윤학수(남, 1941년생)는 2남 3녀의 장남이다. 윤학수는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북중으로 진학했다.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좋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윤학수는 서탄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우수했다. 당시 윤학수의 형편으로는 수원으로 진학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아서 진학이 가능했다. 수원북중을 졸업하고는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당시 수원에는 수원고등학교, 수원농업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등이 있었고 수성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때 신설되었다. 부모님은 명문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한양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진학할 형편이 되지 못해 1년 뒤 해군에 입대했다. 위생병과였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100여 명 중에서 1등했다. 1등한 사람에 대한 특혜로 해군본부 의무감실에서 군대생활을 했다. 전역 후 1년 뒤에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했다. 1966년 경기도에서 실시

한 제1회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었다. 평택군 서탄면사무소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평택군청 병무계장, 관리계장을 지냈고 서탄면장으로 퇴직했다.



사리강습소 터와 윤학수(남, 1941년생)

김용순(여, 1935년생)은 딸 셋과 아들 둘을 두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면서 혼자 일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다. 자녀들 중에는 공직이나 공기업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 딸 둘은 농협, 우체국 등에 근무하고 사위들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한다. 아들도 쌍용자동차와 평택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무척 힘들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매달 육성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략 150~200원쯤 냈는데 큰돈이 아니었어도 가난한 집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헌 교복을 얻어다가 입혔다. 교복 빨래도 자녀들이 스스로 했다.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해서 집으로 쫓겨오기까지 했다. 그래도 아이들의 심성이 착해서 어려운 생활 중에도 좌절하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줘서 감사하다.

2) 종교

사리(寺里) 주민들은 종교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

1927년 4월 『동아일보』에는 진위군의 종교상활이 보도되었다. 당시 사찰로는 만기사, 망한사, 심복사, 약사사가 꼽혔고, 평택역 부근(통복동)에 동양선교회(성결교)가 있었며, 1906년 김인순 전도사가 팽성읍 객사리에 설립한 수원성공회교회 평택지부도 있었다. 성공회는 부설 신명강습소와 유아원을 운영하며 전교활동을 폈다. 결과 1927년에는 안중읍 덕우리교회, 칠원동 새말교회, 진위면 봉남리 성모마리아교회, 견산리 산직말교회 등이 설립되었다. 1936년 9월 5일『 조선총복부 관보』에는 진위군 서탄면 사리에 '천주공교 성공회 교회당' 이 설립되었다고 보도했다. '성공회 사리교회' 의 공식 이름은 '성공회 성 힐다교회' 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안중교회 설립자 이택화와 담임교역사 박병무신부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사리(寺里)의 성공회 성 힐다교회의 담당교역자도 알 수 없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조차 성공회교회의 존재유무를 잘 알지 못했는데 근래 윤병무(남, 1938년생)을 통해서 일말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윤병무는 성공회 성 힐다교회가 사리매고개 정상부의 마을제당(통관사 입구) 우측에 있었다고 말했다. 작은 기와건물이었는데 6.25전쟁 때는 이곳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신자는 김각회의 서 증조모 한 명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분을 '성당할머니' 라고 불렀

다. 그러다가 1960년경 성당할머니가 사망하면서 헐렸다고 한다. 윤병무의 기억으로는 성공회 성 힐다교회에서도 신명강습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성공회 성 힐다교회 터와 서탄감리교회

사리(寺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탄교회’가 있다. 서탄교회는 1978년 4월 5일 창립했다. 교인인 허진순(여, 1938년생)에 따르면 1980, 9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 수가 30명은 넘어서 농촌교회로는 나름 규모를 갖췄다. 1998년에는 규모가 큰 교회당(현 건물)을 신축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젊은층의 도시이주와 노령층의 사망으로 교인 수가 점차 줄어 이제는 마을 주민들 중에서 노령층 7명 내외만 출석한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3, 4명쯤 된다. 천주교인들은 송탄성당으로 다닌다. 불교신자는 10여 명쯤이다. 불교신자들은 대부분 마을 내 통관사를 다니지만 일부는 진위 만기사로도 다닌다.



통관사 법당과 부모은중경

사적기에 따르면 통관사는 1982년 권영원 등의 시주를 받아 강시동 스님이 창건했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원적사였다. 1988년 강시동 스님이 74세를 일기로 입적하였고, 부인 이인우, 아들 영모, 창모, 종모, 상모이 사찰 대지를 기부하면서 법장무일(김상성)이 주지로 부임했다. 법장무일 김상성 스님은 1990년부터 1년여에 걸쳐 극락보전, 명부전, 원통전 등 당우들을 신축하고 이름을 성불(정)사로 바꿨다가 다시 통관사로 바꾸었다. 경내에는 앞의 당우들 외에도 관음전과 석조관음보살입상, 석조미륵보살입상, 오층석탑, 부모은중경탑 등이 있다.

3) 문화재

(1) 사리 은행나무




서탄면 사리 558번지에 있는 보호수로 수령 590년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단오에는 그네를 매고 놀았으며, 나무에 은행이 열리면 전쟁과 환란이 닥친다는 속설이 전한다. 실제로 숫나무여서 열매가 맺지 않지만 6.25전쟁 때는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2) 평택 사리유적





사리 지석묘

사리 모정산(해발 66.5m)은 경주 이씨의 선산이 있었던 유서 깊은 산이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경관이 크게 변하고 경주 이씨 묘역도 해체되어 이장했다. 이곳은 현재도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어 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에 시굴한 내용으로는 구릉 정상부와 북동측 능선부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환호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 지석묘(고인돌) 7기, 석관묘 1기, 채석장 1기,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1기, 매납유구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회곽묘 4기 등이 발견되었다. 개석의 암질은 편마암질이고 형식은 개석식이다. 개석은 타원형 또는 장발형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130cm×100~300cm×170cm이다.

4) 마을신앙



사리 마을제당의 옛 모습(2007)과 철거된 현재모습

사리(寺里)는 당제(堂祭)가 발달했다. 사리 당제는 산신제적 성격이 강하다. 당산은 마을 북동쪽 사리매고개 정상부에 있다. 당산에는 엄나무(주민들은 느티나무였다고 주장하기도 함) 당목으로 이룬 숲이 조성되었고 당목 옆에는 1칸짜리 당집이 있다. 당집은 본래는 이엉을 엮어 터주가리를 만들었지만 1999년 기와를 얹은 목구조로 신축했다. 본래의 당목은 1970년대쯤 죽어버렸고 현재의 당목들은 죽은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들이 자란 것이다.

옛날에는 당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일(祭日)은 옛날에는 10월 상달 중 좋은 날을 잡아 지냈고, 근래에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지냈다. 옛날에는 리비(里費)로 매년 쌀 한 말씩 걷었고 나중에는 돈으로 2~3만 원씩 거출했다. 이것으로 이장과 반장 등 마을 일꾼들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일부는 당제의 제비(祭費)로 사용했다. 근래에는 1호(戶)에 5천 원씩 거둔다. 제일(祭日)이 가까우면 생기복덕을 따져서 제관(주)을 뽑았다. 제관은 1년 중 흠 없는 사람을 골랐다. 제관이 선출되면 집 입구에 황토를 펴고 청수를 떠다 놓았으며 당샘의 물로 목욕하고 금기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다. 마을 제당 주위에도 금줄을 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주민들도 외출을 삼가도록 했다. 만약 부정을 타면 해당년에는 제를 지내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다.

제물(祭物)은 당주가 준비하거나 마을에서 구입해 온 재료로 제관의 부인이 준비한다. 일제 말까지만 해도 제물로는 소를 잡았다. 그러다가 형편에 따라 소를 잡거나 소머리로 대체되었고, 새마을운동 뒤에는 소머리만 사용하다가 근래에는 돼지머리를 사서 올린다. 소를 잡았을 때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도축을 했다. 제사음식을 만들 때도 당샘의 역할을 했던 함박골 우물로만 만들었다.

제(祭)는 밤 12시경에 지냈다. 제당에는 제관과 유사 몇 명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다. 제물은 소머리나 돼지머리와 떡, 삼색 과일, 북어 등을 올렸다. 제의방식은 유교적 형식이었다. 제관이 축문을 읽고 절을 하며 헌작이 이뤄졌고 이후에는 소지를 올려 제(祭)를 마무리했다. 축문은 마을 주민 윤승학이 작성하고 뜻풀이까지 해놨다. 소지는 공동소지를 올렸다.

당제를 지낸 뒤에는 마을로 내려와 제물을 한지에 나눠 담은 뒤 집집마다 돌렸다. 이렇게 돌린 제물은 액막이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한 해 동안의 액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리의 마을제는 2000년대 들어와 마을 안의 통관사에 위탁했다. 그래서 통관사에서 비용을 받고 매년 지내주다가 2023년 당산을 소유한 땅 주인이 제당을 헐어버리면서 중단되었다.

5) 전통놀이

사리(寺里)에서는 거북놀이를 했다. 거북놀이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뷰한 노인들은 추석 때 거행했다고 했고 윤병삼(남, 1965년생)은 정월대보름에 놀았다고 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윤병삼의 기억은 정월대보름 복조랭이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오곡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아닐까 생각된다. 거북놀이는 경기남부지방에서 연희되었던 놀이로 수숫대로 거적을 엮어 뒤집어 쓰고 동네 사람들 집을 찾아가 놀아주고 복을 기원하며 음식을 얻어먹는 놀이였다. 대체로 추석 때 연희했고 부잣집을 중심으로 놀아주고 술과 음식을 얻어먹었다.

윤병삼(남, 1965년생)은 정월대보름에 더위를 팔거나 호두를 깼던 풍속도 말했고, 저녁에 야막리 아이들과 투석을 했던 일들도 기억했다. 두레패들은 세벌매기가 끝나는 백중에 호미걸이를 했다. 이날에는 머슴에게 용돈을 주고 휴가를 보내기도 했고 시장에 나가 마음껏 술과 음식을 먹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두레풍물패는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했다. 먼저 마을 공동우물에 예를 갖추고 집집마다 돌며 놀아주고 복을 기원하며 마을 기금을 모금하거나 술과 음식을 대접받았다.

6) 무속신앙

옛날에는 무속신앙이 성행했다. 윤병무(남, 1935년생)는 모친을 비롯해 대다수 마을주민들이 무속에 의지했다고 말했다. 추수가 끝나면 무당을 불러 굿하고 몸이 아플 때나 집안에 우환이 닥쳐도 굿을 했다.

마을에는 무당이 한 명 거주했다. 주민들은 마을 무당을 불러오거나 다른 마을에서 무당을 불렀다. 굿을 할 때는 쌀을 계량하는 말(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은 뒤 위에는 밥사발에 다시 쌀을 담아서 수저를 꽂고 돈과 실을 얹혔다. 굿이 끝나면 특별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고 굿할 때 올렸던 쌀만 무당이 가져갔다.

마을 노인들은 정월에는 신년 점을 치러 다녔다고 했다. 밖에서 물건을 잘못 가져와도 동티가 나서 굿했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무당에게 찾아가 푸닥거리를 했다. 남자들은 토정비결을 많이 봤다. 결혼할 때는 사주를 봤고 큰일을 시작할 때도 무당에게 물었다.

김용순(여, 1935년생) 외. 사리

이름	김용순	성별	여	
생년	1935년	거주지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직업	농업	거주기간	1956~현재	
일시	2023.10.17.	장소	사리 경로당	
면담자	김해규	소속	평택인문연구소	
약력	김용순은 전라도 광주가 친정이다. 22살에 중매로 결혼하여 사리 마을에 정착했다. 30대에 상처해서 혼자 2남 3녀를 키웠다. 경제적으로도 유복하지 못해서 농사도 짓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키웠다. 이렇게 키워낸 자녀들은 현재 공무원, 체신공무원, 농협 직원이 되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혼인 관계를 먼저 여쭐께요. 김용순 어르신은 친정이 어디세요?

나는 전라도 광주

몇 살에 결혼했어요?

스물 두 살

중매는 누가 했고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 했어.

어르신 연배에는 결혼식을 구식으로 해요, 신식으로 해요?

우리는 구식이지.

친정에서요?

전라도 광주에서

결혼식을 하고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우리 친정에서 사흘을 묵었다가 차 타고 여기로 왔지.

가마는 안 탔어요?

차 타고 여기 다리(사리교) 넘어와서 걸어들어왔어.

예물은 주고받나요?
예물, 그런 게 어딨어.

결혼했더니 시댁은 살만했어요?
가난했어. 뭐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

이향자 (여, 1941년생) 어르신은?
나도 구식으로 했지.

친정이 어디세요?
여기 장안동. 송탄 장안동의 이우재라고 아는가 몰러. 조합장 했던 양반이 우리 당숙이예요.

어르신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 그냥 하자고 해서 했지 뭐.

옛날에는 누가 중매했어요?
동네 들어오는 옷장수들이 하기도 하고, 아는 친척들이 하기도 하더라고.

어르신은 누가 중매했어요?
원곡에 아는 사람이 있는디 그 사람이 우리 시댁하고 오갔던가벼.

예식은?
우리 집(친정)에서 했지.

예물은 뭘 받았어요?
옛날에는 있는 사람은 은반지도 받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야.

시어른들 선물은?
차단은 해 갔지. 시부모 옷 해가고. 그때는 가난하면 함도 안 보냈다고.

결혼하고 며칠 만에 시댁으로 왔어요?
당일날 오지 뭘 어떻게 와.

언제 결혼했어요?
전쟁 끝나고 6개월이 지났나. 우리는 해방도 보고 6.25도 겪고 다 해봤어.

6.25 때 몇 살이었어요?
나 8살. 본래는 10살이고.

나이가 줄어서 1943년생이군요?
그려, 줄었어. 우리는 난리 났을 때 그때 내가 뱀을 물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업고 은산리로 갔어요. 거기는 산골짜기니까. 거기 가서 다리를 못 쓰니까 그냥 엎고 댕기고.

어르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어요?
국민핵교지 뭘.

김용순 어르신은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고 하셨죠?
광주 밑에 고흥.

멀리도 시집왔네요. 초등학교는 다니셨어요?
나는 핵교 댕길 때 육상선수로도 나가봤어.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무슨. 안 갔슈.

당시에는 여자들이 중학교 가기가 어려웠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갔지. 고등학교까지 간 사람도 있어서 선생노릇하고 그랬어. 우리네는 부모가 자식은 많이 낳고 재산은 없고 그러니까 못 가르치고. 그때는 초등학교도 잘 나온 거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못 가는 애들도 많았어.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 많았어.

초등학교를 졸업시킨 것만 해도 잘한 거네요?
부모가 의욕이 있었던 거지. 눈이라도 띄워주려고 우리 엄마가 노력했지.

어르신은 시험봐서 들어갔네요?
그렇지, 우리는 시험봤지.

시험을 뭘 봤어요?
그게 언제 때인데 생각이 나. 잘 몰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뭘 했어요?
졸업하고는 그냥 집에서 책도 읽고, 친구들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결혼한 거지 뭐. 그때는 뭐가 있어. 그냥 어떻게 해서 시집 보내면 억지로 가는 거지.

그래도 집안사람은 하잖아요?
아니 나는 엄마가 젊어서 그러고 숙모, 고모들도 젊고 그래서 하나도 안 해봤어. 일이라고는

안 해봤다니까.

식구들이 대가족이었나봐요?
그렇지. 고모들, 작은 엄마들 다 같이 살았으니까 일할 사람이 많지.

성장할 때는 귀여움도 많이 받았겠어요?
귀여움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중매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맞선도 봤겠어요?
맞선은 안 볼 때가 많아. 신랑이 전라도까지 보러 왔어.

맞선도 안 보고?
옛날에 맞선은 무슨. 그냥 중매가 그렇다고 말하면 시집 장가가서 만나 사는 거지.

그럼 결혼식장에서 신랑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뭐. 지금에서야 선을 보고 뭐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혼례를 올릴 때 신랑 얼굴을 처음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뭘 알아.


사리마을 경로당 풍경

신랑은 몇 살이었어요?
동갑내기.

그러면 신랑 얼굴을 처음 본 것은 언제예요?

신혼방이지.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사나, 돌아누워서 자지. 그렇지, 부끄러우니까. 뒤에서 자고 무서우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어리니까.

옛날에는 결혼했다고 곧바로 세간 내주지 않고 부모하고 몇 년 살다가 분가하더라고요. 어르신은 어땠어요?

나는 시부모 모시고 살았어.

남편이 큰아들이었던가 보네요. 큰아들은 단점도 많지만 재산분할 때 더 많이 주더라고요?

재산도 없었어. 시댁에 없는 집이었어,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니까 논이 몇 마지기였어요?

논 10마지기.

겨우 입에 풀칠했네요?

그것도 모자랐어.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모자랐어.

밭은 얼마나 되고요?

밭은 하천부지라 몰라. 600평이나 됐나.

좀 가난한 집이기는 했네요?

없어, 없어. 내 노력으로 살았다고.

결혼했을 때 시동생들은?

독자였어.

시누이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시집 가버리고.

시부모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배움이 있는 시어머니여. 옛날 분인데도 배움이 많아.

배움이 있다는 것은 품격이 남달랐다는 말인가요?

옛날 평택군일 때 평택 시내에서 독선생 놓고 배우고 그랬다더라고.

시어머니 친정이 평택이었어요?

그렇지, 평택이었어요. 배우기도 했지만 집안이 잘살아서. 이자헌씨 알어.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함평 이씨 집안?

거기하고 다 이종 간이고 그려. 거그 어머니 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한 형제지.

이자헌씨 아버님이 교장선생님이었는데요?
맞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배움이 좋았다고. 그 집안내라 덕성 좋고.

이장헌씨하고는요?
거기는 모르지.

평택에서는 알아주는 집안들이죠?
맞어, 포승에서는 다 알아주는 집이여. 옛날 독선생 놓고 배웠데여 노인네가.

시아버지는?
결혼 전에 돌아가시고.

아이는 몇을 뒀어요?
3녀 2남

딸을 먼저 앞세우시네. 다들 아들을 앞세우는데요?
우리는 딸 다음으로 아들.

딸만 셋을 내리 낳으신 거예요?
딸만 셋 낳은 거야, 내리. 밑으로 아들 둘.

처음에는 좀 긴장했겠어요. 시집살이도 하시고?
딸만 낳으니까 눈치가 보이지.

애를 낳을 때는 누가 받아줬어요?
나는 나 혼자 낳았어. 나는 사람 있으면 애가 안 나와. 나 혼자 낳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 혼자서 애 탯줄 자르고 다 했어. 그냥 사람 있으면 애가 안 나와서 사람이 없어야 해. 애 받아주는 할머니가 있어도 안 나와. 나가면 나오고. 그거 이상하더라고.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혼자 탯줄 자르고 목욕물 달래서 나 혼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서 한쪽으로 밀어 놓고는 나도 목욕 싹 하고 들어오라고 하지.

대단하시네요?

첫 아이는 산통을 오래 했지. 오래 가는데도 혼자했어. 옛날에 노인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어. 노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듣고서 배웠지.

산후조리는 며칠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산바라지를 안했어. 다섯을 낳는 동안 젓국 들어간 밥을 한 끼 해주면 그거 먹고 바로 나와서 밥해 먹고 일하고 했어.

아니 귀한 손주 낳아줬는데 밥도 안 해줘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친근하게 앉아서 주는 대로 먹질 못해. 그냥 나와서 해 먹어야지.

애 낳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했으면 나이 들어서 손발이 저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손발 저리고 그러지는 않아. 일 많이 해서 저녁에 파스 붙이고, 허리에도 붙이고, 다리에도 붙이고 그러지.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면 집안일만 해요 농사 일도 했어요?

나는 다 했어.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해서 별 일 다하고 그랬어. 시어머니가 애들도 길러주고 그냥 죽도록 일만 했다고.

들일이라면?

모내기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공장에도 다니고 나무해다 팔기도 하고 벼라별 일들을 다했지 뭐.

완전히 머슴이었네요?

동네머슴, 집안 머슴이었지.

공장은 언제 다니신 거예요?

나이좀 먹어서지. 젊어서는 어디 공장이 있었나.

어디로요?

저 건너편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멀리 다녔지. 롯데제과 같은디로 걸어서.


사리교에서 바라본 사리마을

시어머니가 함평 이씨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서 시집올 정도면 시댁이 명망이 있었던 가봐요?
옛날 우리 시할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하더라고.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몰라.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들 아플 때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어땠어요?
우리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아픈 걸 올라요. 감기도 안 걸리고 자랐어. 엄마가 바쁜 줄 알고 안 아팠나봐. 내가 힘들게 살아도 애들이 안 아프니까 그렇게 산 거야.

애들이 아프면 주변에 병원도 없잖아요?
송탄에 남산병원이 있었어. 우리 애들 기를 때는 거기 다녔어. 많이 아파야 병원에 가지 누가 쉽게 갈 수 있나.

배 아프고 그러면 뭘 먹여요?
애들 배아프고 그러면 쑥 대려 먹였지. 익모초인가 뭔가. 여름에는 배 아프고 그러잖아.

옛날 결혼하고 시집왔을 때는 어떤 옷들을 입었어요. 나일론이나 광목 같은 거 입었나요?
그거야 대중없었지. 나일롱 입은 사람도 있고 광목치마를 입은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바느질을 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느질이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뭐. 바느질해서 옷도 만들고. 재단해서 가위로 잘라서 바느질하고. 시어머니 옷들은 다 그렇게 재단해서 만들어준 거지.

미싱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싱이 어딨어.

바깥어르신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양복도 입고 한복도 입고 그랬어요. 반바지도 입고 여름에는. 그때는 닥치는 대로 입었지 지금처럼 가려 입을 수나 있었나.

애들은?
나일롱같은 거 입혔어요. 우리 애들 자랄 때는. 나는 서울에서 사는 이모들 아이들이 입었던 거 갖다 줘서 입혔어.

옷은 잘 안맞아도 좋은 옷들이었겠네요?
그거는 좋지, 좋은 거지. 장에가서 사 입히는 것보다는 좋지 좋은 거지. 우리 애들 옷을 입히면 어디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사 입혔냐고 그랬어. 그러면 사입히지 않고 가져다가 입혔다고 그랬지.

헌옷인 데도 마을에서는 굉장히 좋은 옷처럼 보였네요. 마을 아이들 중에도 광목옷을 입은 아이가 있었나요?
간혹 있었지. 나일롱도 있고.

당시에는 농사짓는 것도 힘들지만 여자들은 방아찧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보리방아 찧어서 문대서 닦아 먹고 그랬지.

어르신 댁은 보리밥만 먹었어요 쌀보리를 섞어 먹었어요?
보리밥에다가 쌀을 조금 얹으면 그것은 어른들 주지. 우리는 순 꽁보리밥만 먹었어.

저도 꽁보리밥 세대인데?
어디서 쌀밥을 먹어봐, 조금씩 얹어서 가마솥에 한웅큼 얹어서 어른들 주고 애들 조금씩 섞어 주고 그랬지. 집에서 보리밥을 가마솥에 잔뜩 해서 놓고 들에 갔다가 오면 애들이 안 먹고 굶어. 그렇게 세상 살았어.

어르신은 보릿고개 때는 죽도 먹고 그랬겠네요?
그럼. 여기는 푸레기죽 같은 거 쒀서 먹고. 옛날에는 아이고 그런 것도 배가 부르도록 못 먹었어.

옛날에는 푸레기죽도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메밀을 껍질째 갈아서 죽을 먹기도 하던데?
여기는 메밀이 없잖어. 그런 것은 강원도에나 있지 여기는 없어.

여기도 비가 안 와서 호미모를 심으면 메밀을 심더라고요?

여기는 밀하고 보리하고 많이 심었지.

밀·보리를 많이 심었군요. 고구마도 심었어요?
고구마도 심어 먹고 가지가지 다 했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어째든 쌀 말고 식량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심었네요?

집안에서 바느질 안 하고 사입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네.

새마을운동할 때쯤 아닌가요?
아니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도 사 입는 사람들은 사 입었지. 대중없어.

신발은 와라지라는 거 신어봤어요?
와라지가 뭐여. 그 나무때기로 만든 신발인가.

짚신인데 발목을 감쌌던 신발요?
그건 모르겠는데.

고무신은 언제부터 신었어요?
해방 전에는 구장이나 반장 보던 사람들 까만 통고무신 있잖아. 그런 거 한 꾸러미 배급 나오면 얻어 신고 그랬지. 그러다가 해방되더라고.

왜정 때는 배급나왔어요?
배급나왔지 그때는.

그럼 특별한 사람들만 신었겠네요?
이장, 반장집네 애들은 신었지. 구장이니, 지금이 이장이고.

6.25사변 지나면 다들 고무신을 신었죠?
그랬을 거여.

6.25사변은 어디에서 겪었어요?
고향에서, 나 어렸을 때니까. 아니 어릴 때도 아니지, 15살, 16살 되었으니까. 남들은 피난가는데 나는 안 갔어. 책가방 메고 돌아다녔어.

어르신 친정 쪽은 6.25전에 좌익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잖아요. 고생들이 많았죠?
고생 많았지. 그쪽은 말도 못혀.

제일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것도 없네... 다 잊어버렸어.

사실 전라도 쪽은 피난갈 데도 없죠?
피난온 사람들이 우리 고향으로도 많이 왔어.



사리마을 민가 풍경, 윤학수 면장 댁

결혼하고 시댁으로 왔을 때 집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초가집이지 뭐.

방은 몇 칸이었어요?
방 두 칸 있고 마루 있고 안방 아래쪽에 부엌 있고. 마루 지나면 건넌방이고.

사랑채는 있었어요?
그럼, 사랑채는 있었지.

사랑채에는 뭐가 있었어요?
화장실하고 한쪽은 헛간으로 쓰고.

그럼 방이 2개였네요?
그렇지. 방 2개에서 안방에 시어머니 살고 우리는 애들하고 건넌방에 살고 그렇지.

애들 클 때는 바글바글했겠어요?
그렇지.

당시에는 아궁이 부엌이잖아요?
그럼 불 때는 아궁이 부엌이었지.

연탄아궁이로 바꾼 것은 언제쯤이예요?
헌집에서 살다가 새마을운동할 때 바꿨어. 살다가 새로 지어서...

아궁이를 전부 연탄으로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소 아궁지(쇠죽 끓이는 아궁이)는 불 때고. 쇠죽 쑨다고. 이쪽 안방은 불 때는데 하나고 또 탄(연탄) 때는데 하나고. 그래 갖고 쓰는 거지.

건넌방은요?

건넌방이 쇠죽 쑤는 방이지.

연탄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왜, 계속 썼지. 가운데에 연탄아궁이가 있으니께 불 꺼뜨리지 않고 계속 불을 땠지. 연탄 들어가는 디가 안방이니께 계속 땐 거지.

다른 마을에서는 연탄아궁이를 만들면서 땔감 사용이 적어져서 여자들 나무하러 가는 수고가 덜어졌다고들 말하던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연탄을 계속 때고 밥할 때나 국을 끓일 때도 사용하니까 나무를 땔 일이 많이 없지. 밥은 불을 때서 하고, 찌개나 탕, 반찬 같은 거는 연탄에다 하니께 아무래도 적게 썼지.

곤로도 사용했죠?

옛날에는 곤로도 썼지. 석유난로도 쓰고.

저도 고등학교 때 자취하면서 많이 썼던 거 같아요?

그럼 석유난로도 써지.

여기에다가 찌개도 하고 반찬도 하고 그랬네요?

곤로에다가 뭘 하면 애들 중에는 냄새난다고 안 먹었어.

사리가 땔감은 흔하지 않았어요?

흔하지는 않했어. 사람들이 하도 해다 때니까 산에가도 없어. 없어서 솔가리도 때다가 소나무도 몰래 가지를 쳐다가 때고 그랬어.

그럼 땔감으로는 뭘 사용한 거예요?

그냥 산에서 뭐 아무거나 땔만한 것들 가져오고 그랬지. 풀도 베다 때고 나뭇가지도 속 가지를 쳐다가 때고. (다른 사람) 나는 청솔가지도 꺾어다가 때고 그랬어(웃음).

산주인들이 나무해 가도 뭐라고 안 했어요?

주인이 알면 가만 안 두지. 산주인한테 걸리면 다 빼앗겼잖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붕개량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나무하러 안 다니게 되었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쯤 되면 연탄아궁이에다가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보일러도 안 놨어. 아궁이에 불 때다가 그냥 집을 바꾼 거야. 아니 보일러(연탄) 조금 했나, 그러다가 석유보일러로 바꾸고.

그럼 연탄보일러는 언제 놨어요?

모르겠네. 몇 년 썼는데...

1980년대 초반에는 보통 하잖아요?

우리도 그때 했을 거야. 오래됐지, 언제 한지는 모르고.

여기는 무슨 보일러를 많이 했어요?

심야전기도 많이 하고 기름보일러도 많이 하고.

어르신네는 집을 고쳤어요, 새로 지었어요?

우리는 지었어.

언제요?

몇 년 안 됐어. 6년인가 7년차 됐겠다. 그거 짓고 나서 1년되니까 코로나가 생겼어.

그럼 2019년이네요?

아녀 더 됐어. 내가 80살에 허리 수술하고 와서 그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6년 된 거여.

새로 지은 집은 도시하고 비슷하게 지었겠네요?

잘 지었어. 내가 돈 빌려다 놓은 거로 우리 아들이 지었어.

집을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네요?

설계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줬지.

설계비에 많이 투자했네요.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 튼튼하게 잘 지었어. 내가 일부러 식구가 많으니까 거실을 조금 넓게 해줘라, 화장실은 어떻게 해라고 다 말해가지고 한 거지.

어르신이 세심하게 신경을 썼네요?

그래서 화장실 수돗물도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오게 하고, 화장실이 부엌 정면에 있어서 옆으로 옮기고 화장실 자리에 다용도실을 만들고 그랬다고.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맞어, 세 번은 지어야 좀 될 거 같어.

마을 사람들 성씨는?
여기는 김씨, 윤씨가 많아.

어디 김씨예요?
김해 김씨지. 여기 조합장했던 김영호씨가 나보고 같은 성씨라고 누이하기로 했거든. 여기 향수 어머니도 김해 김씨라고 그렇게 잘해줬어.

윤씨는?
파평 윤씨인가, 칠원 윤씨라던가...

칠원 윤씨가 많잖아요?
그런가, 파평 윤씨는 없나봐.

여기는 두 개 성씨가 가장 많네요?
아냐, 칠원 윤씨도 파가 달라. 26대에 가서 갈라진다고.

결혼해서 오셨을 당시에 우물은 몇 개가 있었어요. 물 길어 먹던 동네우물요?
서너 군데는 있었나 봐. 아녀 네 군데여.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제가 잘 모르죠. 첫 번째 우물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을 회관 앞쪽에 있었지. 거기도 두레박 우물여.

우물 이름은요?
동뜸우물, 연못골에도 있었고, 삼박골에도 있었고, 저넘어 새터말에도 있었고. 그럼 됐네.
(주민)나는 1972년도에 시집 왔는데 물을 안 길어 먹었어요.

그때는 자가우물이나 펌프가 많을 때잖아요. 전기들어오면서 자가수도도 많이들 놨고요?
맞어, 우물 쓰다가 얼마 안 되어서 관정 두드려 박아서 펌프들 놓고 그랬어.

그러면 80세 이상은 물을 길어 먹은 세대네요?
우리도 길어 먹다가 펌프를 박았지.

물길어 먹을 때는 물지게를 지었어요, 물동이로 길었어요?
옛날에 철로 만든 거(물통) 있잖아.

양철통요?

그거로 길었지. 물지게로 져다가 항아리다가 부어서 쓰고.

동네사람들 중에도 물지게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주민)나는 물지게는 안 졌어.

집안이 잘살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균형을 못 잡아서 어그러져버려. 이리출렁 저리출렁 거리다가 엎어지고...



사리 간이상수도 집수정과 오산천

펌프는?

펌프는 집 짓고 나서 박았지.

그게 새마을운동 전인가요?

새마을운동이고 뭐고 내가 어떻게 알어.

그러니까 관정을 박은 것이 새마을운동 전이냐고요?

그려, 새마을사업 전에. 1960년대에 우물이 있었는디 그거를 길어서 먹다가 거기다가 펌프를 박았어.

집안에 자가우물이 있었네요?

그거 쓰다가 펌프를 박은 거지.

전기들어오고 나서는 자가수도를 놨나요. 동네에서 간이상수도를 놨어요?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수도가 들어왔지. 저기 산 꼭데기에다가 (집수정) 했다가 저기 누구네 뒤로 옮겼지. 거기 누구네더라...

간이상수도는 새마을운동 때 한 거죠?

그렇지.

광역은 언제 들어오고요?

한 10년.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물동이에 물이 가득하고 땔감이 쌓여 있고 집안에 곡식이 있어야 든든했겠네요?
그럼, 사는데 그거 밖에 더 있어.

어르신은 자녀들을 어떻게 두셨어요?
딸 셋, 아들 둘.

학교는 어디까지 보냈어요?
다들 고등학교까지 나왔지 뭐.

혼자 몸으로 열심히 가르쳤네요?
지금은 다들 공무원이야.

모두 잘 됐네요?
애들도 공무원 사위도 공무원. 셋 다 공무원이여.

어디에서 공무원을 해요?
둘은 수원, 하나는 송탄.

그럼 평택시 공무원이네요.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나요?
그애는 출장소가 아니고 농협에 있지.

농협은 공무원이 아니죠?
한 사람은 우체국이고.

아, 체신공무원이군요?
둘이 거기에 있고.

아들들은요?
아들 하나만 쌍용자동차 다니고 하나는 평택우체국에 다니고.

다들 공무를 왠만치 했네요. 아들들은 대학을 다녔어요?
하나도 안 보냈다니까. 내가 대학을 가르칠 능력이 돼야지. 나 혼자서 5남매를 가르쳤어.

바깥어르신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간신히 가르쳤지. 고등학교도 힘든데 대학교는 무슨. 대학교 이름도 몰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이들 기르고 가르칠 때 얼마나 고생했나를 물어보려고요?
옛날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

혼자 일하셨으면 애들 교복도 제 때 다려주지 못하잖아요?
나는 교복을 빌려다가 입혔어 그때. 다들 졸업한 선배들 교복을 비려다가 입혔다고. 어디서 교복을 해줘. 교복도 안 다려줘 봤어. 자기들이 알아서 다닌 거야. 교복 빠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나는 에리(카라)는 깨끗하게 빨아서 싹 다려주고 그랬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풀렸지.

바깥어르신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갔어. 애들만 낳고 가벼렸어.

바깥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키운 거네요?
하여튼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육성회비)을 낸 거여. 달달이 내느라고 고생했어.

육성회비를 말하는 군요?
그려, 육성회비 그다음에는 수업료. 달달이 그때는 200원인가. 그러니까 큰애는 200원 작은 애는 150원씩 내고 그랬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료 안 낸다고 엉덩이를 맞고 그랬어요?
그거 집안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거잖아. 또 쫓겨와, 학교에서 집으로 보냈다니까. 애들이 산넘어 갔다가 다시 넘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니까.

아픈 추억이 많으시네요?
아픈 추억이 많지. 그거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써야해요. 지금 말로 해서는 다 말 못해.

사리는 동네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여기는 오산천 냇갈에 가서 빨래하고 그랬지. 그전에는 오산천이 좋았어. 지금 저렇게 된 거지. 김장을 할 때는 거기다가 배추도 씻고 그랬다고. 물 밑에 모래알이 보였다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오산천이 무척 맑았군요?
그려. 거기다가 지고(김장배추) 나가서 씻어 놓으면 이고 나가서 가져오고. 맞어, 손은 왜 그렇게 시렸는지..,.
(주민)내가 1971년도에 시집왔는데 2년쯤 냇가에서 빨래하고 김장했던 거 같어. 그 뒤로 우리 집 우물 파고서부터는 안 갔어.

빨래터는 사리교 다리 아래쪽인가요?
다리 밑이예요. 그냥 두 명쯤 나가서 빨래도 빨고.

나갈 때는 빨래판이나 이런 것을 들고 가나요?
그렇지, 빨래판은 가져가야지. 빨래판 가져가서 해. (주민) 사리에 다리 없을 때는 돌맹이 놓고 건너다녔데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아줌마들은 홑치마 바람으로 넘어가고 남자들은 빤스만 입고 건너고(호호)

시멘트 다리를 놓은 것은 언제죠. 새마을운동 때인가요?
해방 전에 했지. (주민) 아니야 내가 시집오니까 구녕(구멍) 뚫어진 다리(아나방 다리)를 했다가 나중에 바꾼 거여...

나무 교각에다가 아나방 깔은 거 말이죠?
그려, 나는 거기 건너가다가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주민)나는 서울서 뾰족구두 신고 가다가 그 안에서 구두 굽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구 얼마나 .... 구두 굽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붙여서 다녔나 몰라.

어르신은 서울댁이었네요?
(주민)집에 와서 보니까 부러졌던 게 그냥 콱 박혀가지고 그냥 댕겼어.

그러니까 어르신은 서울댁이었죠?
(주민)그렇지, 서울댁이지.

서울댁이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요?
(주민)서울 댁인데 농사짓고 다 저기 했어요.

사리 마을이 이동조합이 잘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조합하다가 잘 운영되어서 돈이 생기자 다리를 놓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죠?
(주민)내가 1972년에 시집왔는데 다리가 있었으니께 아마 1960년대일 거야.

전에 1961년이라고 들었네요?
맞다, 맞어.

이동조합해서 돈이 생기자 첫 번째 사업으로 다리를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어. 질퍽질퍽해서.

옛날에는 보(洑) 같은 거 쌓았잖아요. 냇가에 농사지으려고?
보또랑같은 거요.

도랑 말고 보(洑)는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거는 남자들이 아는 거죠. 남자들에게 여쭤봐야 하는 거고. 둑을 쌓아서 하는 것은 모르고 경운기에 호스를 달아서 물을 댔던 것은 기억나지.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주민) 전기도 아마 등잔불을 켜다가 얼마 후에 들어왔던 거 같어. 그래도 전기가 다른 동네보다 빨리 들어왔지.

처음 시집왔을 때는 전깃불을 켜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초꽂이(등촉)에다가 초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불 켜놓고 바느질도 하고 그랬지. (주민) 호야, 호야도 키고. (주민) 석유등잔 같은 거 켜다가 호야도 켜고 촛불도 켰지. (주민) 사발 같은 거에다가 불을 켰지. 그거하다가 등잔 켜고.



오산천과 서탄면 사리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께요. 둥그런 접시에다 구멍을 뚫어서 심지를 내어서 불을 붙이다가 뚜껑이 있는 등잔이 등장하잖아요?

맞어, 맞어.

세 번째 경우가 호야등(양등)에 불을 켜는 거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는 촛불도 켜고?

양등이 밝았지. 우리 제사 지낼 때나 그럴 때 켜고 그랬어. 밖에서 일할 때 켜놓고 그랬어. (주민) 그거 환하게 켜 놔야 일하지 일할 수 있나. (주민)호야 나오면서 등잔도 없어지고.

저희 아버지도 책을 본다며 등잔불 심지를 올려놓으면 기름 닳는다고 혼냈어요?

(주민) 옛날 어른들 다 그랬어. 노인네들이 다 그랬다고.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전기는 우리 큰아이 몇 살 때더라...

새마을운동 전이예요 후예요?
전기는 새마을운동 전에 들어왔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왔네요?
(주민) 나는 1971년 시집왔을 때도 호야켜고 그랬는데.

그럼 1971년 뒤에 전기가 들어왔네요?
(주민) 나는 저 너머 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 (주민) 이불빨래하고 그러면서 호야켜고 일했다고.

마을의 거리와 교통을 여쭐께요. 서탄까지는 몇 리예요?
(주민)여기서 서탄까지 한 10리는 되나. (주민)서탄까지 10리는 안 될걸. 4km가 10리인데. 3km나 될 꺼야. (주민) 서탄도 산밑으로 돌아가면 꽤 멀던데. (주민) 그러면 하북이 10리면 서탄도 10리는 돼.

오산까지는?
오산은... 20리 길인가.

장(場)을 볼 때는 어디 장(場)을 봤어요?
오산장 보고 송탄장 보고 두 군데.

송탄까지는 몇 리예요?
송탄은 여기에서 가깝지. 5리나 되나.

송탄장이라면 아침장을 말하나요?
아침장도 가고 옛날에는 오후장(국제중앙시장)도 가고. 지금은 오후장은 안가고 아침장(송탄시장)만 가지.

그러니까 아침장도 보고 엄마들은 오후장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오후장도 봤는데 지금은 안가.

오산장은요?
오산장도 지금은 안가. 송탄 아침장만 가지. 머니까 지금은 안 가더라고.

장날에는 무엇을 팔러 갔어요?

나는 팔러 다니지 않아서 몰라.

쌀이라도 팔아야 다른 것도 사오죠?
그것은 옛날에, 옛날에는 오산장에다도 팔고 송탄장에서도 팔고 그랬잖아.

뭐 팔러 다녔어요?
쌀만 팔았지.

콩이나 깨같은 것은요?
다른 사람은 팔았는데 나는 안 팔았어.

농산물을 팔면 돈으로 가져와요 다른 것을 구입해요?
외상도 줬다가 받아오고 그런 거지 뭐.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외상도 아는 집에다가 줬다가 받아오고. 옛날 사는 거 다 그랬지 뭐.

옛날에는 걸어다녔어요?
다 걸어다녔지. 걸어가지 돈이 아까우니까. 옛날에는 차비를 내는 것도 아가웠잖아.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걸어가고 애들 돈 주려고 걸어오고.

서탄으로 걸어갈 때는 냇가 따라서 쭉 갔어요?
(주민)한길로 쭉 걸어가지. 북바위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되지 뭐.

송탄은 어떻게 걸어갔어요?
옛날에 차비가 5원씩 할 때 냇가 넘어서 구장터 지나서 걸어갔다고.

구장터 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주민)나가 보면 북바위 앞 둑방을 걸어서 냇가 건너면 저기 미군부대 들어가는 고가다리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로 걸어 다닌 것 같은데.

걸어 다니는 길도 험했겠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길은 없고 논길로 다녔다고. 논길이 넓지 않고. 냇가 건너서 걸어갔다고, 지금은 길이 좋아졌잖아.

오산 갈 때는요?
여기 산모퉁이로 해서 성둑지나서 금성전기(LG) 지나서 걸어간 거지.

백두고개 쪽인가요?
백두고개(백토고개) 쪽으로는 안 갔어. 개울을 건너서 둑으로 둑으로만 갔다고.

갈곶리 쪽으로 빠졌군요?
그렇지. 옛날에는 순 걸어만 다녔지.

버스는 언제 들어왔어요?
이 동네 버스 들어온 지는 얼마안됐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

옛날에는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갔어요?
하북까지 걸어나갔지. (주민) 나도 하북가서 많이 타고 다녔어. (주민) 하북까지 걸어가서 탔지 여기는 버스 들어온지 얼마 안 됐다니까. (주민) 그러다가 여기 냇가 건너에서 버스 돌려서 나가고 그랬잖아.

마을 사람들은 서울가려고 해도 송탄까지 나가야 했네요?
송탄가서 급행인지 뭔지 그거 타고 그랬어. (주민)저기 하북으로 나가면 수원이나 천안 가는 차가 있어서 그것도 타고 다녔지.

송탄에서는 어디에서 버스를 탔어요?
쑥고개. 옛날에는 송탄을 쑥고개라고 했지. 쑥고개 밑에 터미널이 있었어.

아침장 있는데 거기 있었던 터미널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사리는 기차를 이용하지는 않았나요?
기차는 서정리역이나 가야 되잖아. (주민) 버스로 가서 오산역에 가서 타고 그랬지.

오산역이 가깝겠군요?
오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가려는 사람들은 타고 다녔지. 우리는 안 갔지만.

이 동네가 교회는 많이 다니나요?
교인들이 없어요. 한 대여섯 명쯤 되나.

그럼 다른 동네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오지.

교회는 크게 건축했더만?
그전에는 꽤 많았는데 다 죽고 안 댕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

마을에 성공회 교회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세요. 당집 아래에 성공회 교회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

마을 교회에 교인은 얼마나 되요?
(주민)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 없어. 나는 지금 다니는데 동네 전체가 잘 안 다녀.

그럼 불교신자는?
불교신자가 많지.

마을에 있는 통관사를 다니나요?
통관사도 다니고 …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되요?
열 명이나 되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서너 명 되나봐.

마을 사람들의 종교분포가 다양하네요. 마을에서 당집을 없앴더라고요?
없앴어.

마을에 있는 교회가 7명 내외면 목사님 월급은 어떻게 해요?
(주민)그래도 내가 다니던 교회를 끝까지 다녀야지.

옛날에는 교인이 얼마나 되었어요?
(주민)옛날에는 많았어. 30명인 되었지. 그런데 이사 가고 서울로 가고 늙은이들만 남았지 뭐.

어르신은 교회에 안 다니세요?
나는 안 믿어. 나만 믿을 거여.

당제사는 최근까지 지냈죠?
당 없애고 안 지내는 거지. (주민)절에서 가져갔다는 말도 있어.

아니 마을에서 절에다 맡긴 거죠?
(주민)옛날에는 깨끗한 집에서 지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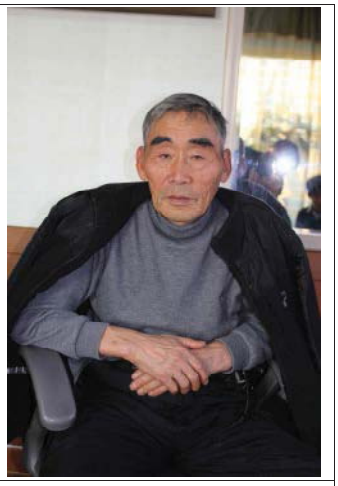
정월에 동네서 지낸 것은 기억하죠. 그런데 왜 없앴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남자들이.

마을에서 통관사에 맡겼는데 땅 주인이 당집을 갈아엎었는가봐요?

그런가 봐.

윤병무(남, 1938년생) 사리

이름	윤병무	성별	남	
생년	1938년생 호적 1939년생	거주지	서탄면 사리	
직업	농업	거주기간	8대 250년	
일시	2023.11.17.	장소	사리 경로당	
면담자	김해규	소속	평택인문연구소	
약력	윤병무는 칠원 윤씨 대원공파의 후손이다. 250여 년전에 입향하여 대대로 사리에서 거주했다. 오산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사리에 밝고 기억력이 좋다. 마을의 임원을 맡거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정에는 정통하다. 고등학교 중퇴 후 논농사를 짓다가 1970년대 말에는 소규모 축산업도 했고 1980년대부터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로 애호박을 생산했다. 70세에 하우스 시설재배를 그만두고 지금은 소규모 영농하면서 살아간다. 주로 근현대의 기억이나 농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어르신은 칠원 윤씨죠?

칠원 윤씨는 본래 5개파요. 이 동네에는 충효공파하고 대원공파가 살지. 저기 서탄면장했던 윤학수가 충효공파고 우리는 대원공파지.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어느 파가 먼저 마을에 들어왔어요?

충효공파가 100년 앞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대원공파가 100년 뒤에 화성 조암에서 옮겨왔고.

대원공파가 늦게 입향했군요. 이주 동기는 뭐였어요?

우리가 위로 13대부터 후손들이 아들을 하나씩만 낳았어. 손(孫)이 적지. 그러다가 9대부터인가 아들을 둘을 낳았지. 우리가 큰집인데, 작은집은 감찰공파이고.

어르신이 큰집계통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큰집계열인데 사실은 우리가 손이 없어서 감찰공파에서 양자를 들여왔단 말여. 큰집에서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형님은 충자 적자이고 동생은 의자 적자인데 거기서 두 갈래로 갈라졌지.

그러면 의자 적자 할아버지 후손들이 사리로 들어온 거네요?

아녀, 그 후로다 내 위로 7대조여, 그분들이 들어왔어.

마을로 들어오신 분의 이름은?

… 아이고 내가 생각이 안나, 생각이 나야 말이지. 내가 종친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억나시면 말씀하고요?
사리로 이사 온 거여.

그러면 사리로 이사 온 뒤에 후손들은 얼마나 늘었어요?
우리가 이사 오고 조암에는 6호만 남았어. 여기로 들어온 게 우리 7대조잖어. 그 양반은 외아들을 두고, 6대조도 외아들 그러다가 5대조 때 아들을 둘을 두었어. 고조부도 아들 하나고 증조부 때 아들 3형제를 두었지.

아들 셋을 낳은 것은 칠원윤씨 집안에서 특이한 경우네요?
그렇지. 우리 마을 칠원 윤씨는 증조부부터 퍼진 거지. 그러니께 우리 마을 같은 파들은 다들 8촌, 6촌 그러잖어. 고조부가 다 같어. 사실 가차운 편이지.

마을에는 대원공파가 몇 집이나 있어요?
대원공파, 8집. 옛날이나 지금이나 호(戶)는 비슷혀. 젊은 사람들은 이사 가고 그래도 노인네들은 남았잖어.

인구는 줄어도 호(戶)는 비슷하네요?
그려. 감찰공파는 한 집인디 저기 윤병삼이라고 그 집.

마을 전체로 보면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을이 윤씨 말고 김씨가 많잖어.

김씨는?
40~50%는 돼지.

칠원윤씨는요?
한 스무 집. 윤학수네(충효공파)가 열 집쯤 되고 우리가 열 집쯤 되고.

윤씨끼리는 돈독하시죠?
그것도 서로 하기 나름이야. 8촌 간에도 갈등 있고 재판하는 데 뭘.

마을에서 두 성씨 중 경제력은 누가 나았어요?
누가 나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는요?
김태동씨가 잘 살았는디 벼슬은 없었고, 윤주신네가 잘 살았지. 그 사람이 부면장까지 했잖어.

그 두 집이 부자여. 윤씨는 벼슬이 있었고.

윤씨 중에는 윤기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던데요?
아, 있었어. 서탄면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양반이 저기 3.1운동 때 주도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분이 대한제국에서 시종벼슬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시종벼슬했어. 그런데 바로 죽었어요. 1921년에.

이분이 후손이 없다면서요?
후손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지.



마을의 부자였던 윤주신, 김태동의 집(사리당)

윤주신 댁이 그 집인가요?
아녀, 영수라고 있어. 그 형은 윤동수라고 전쟁 때 육군으로 나가서 전사했지.

윤영수라는 분이 양자인 거죠?
아니지 손자야 손자.

이분의 아버지는?
그 양반은 뭐여... 뭐라고 하더라 ...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기’자 돌림 아래로 ‘교’자죠?
‘교’ 자 돌림이 본래는 ‘원’ 자여.

그러면 윤기선 같은 분은 대원공파 후손인가요?
아녀, 그분들은 판결사공파여.

판결사공파요?

충효공파에서 갈라진 지파지. (윤)학수네 파.

윤교선, 윤교영, 윤대선같은 분들은 들어봤어요?
내가 잘... 긴가민가혀.

야막리에 박종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 사리 사람들이 다리를 넘어오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을 경찰이 막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 아마 서탄 사람들이 북바위 앞의 다리(금암교)를 넘어서 갔던 거여. 우리 주변에서는 야막리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

어르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천도교 진위교구 중심이 야막리였고 밀양 박씨들이 대부분 천도교인이었는데 사리는 천도교 믿었던 사람이 없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 천도교가 3.1운동 때 33인에 들어간 사람이 14명이여, 기독교는 15명이고 불교는 3명.

마을에 성공회 사리교회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있었어요,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요?
저기 우리마을 당(산)이 있잖어. 거기 위에 있었어.

통관사 아래라고들 하던데요?
아녀, 통관사는 아니고 당산 위에여. 거기에서 6.25 때 회의도 하고 그랬어. 거기도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각회(김각회, 노인회 총무) 증조할머니가...

이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당할머니라고 했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당을 지켰어. 신자가 없어서 혼자 지켰는디 돌아가시고 없어졌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1960년 그쯤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헐렸어.

증손자인데도 기억해요?
생전에 같이 지냈으니까. 외려 자기 아버지보다 증조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어.

성공회에서 학교도 운영했다고 하던데요?
이야기만 들었지. 애들을 가르쳤다고 얘기만 들었지.

왜정 때인데 사리강습소도 있었다던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은행나무 맨 끄트머리 있어. 거기에 윤병렬이라고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왜정 때는 윤병철이라고 내 사촌이 살았는데 움짐을 지어서.

움을 팠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기둥을 박고 빵 둘러서 움짐을 짓고 거기서 가르쳤어. 6.25 때까지 가르쳤다고.

어르신이 보셨네요?

아이 봤지요?

누가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했지. 김한용이라고 했고, 저기 윤병철이... 윤병철이가 다 했어. 터도 내놓고 교사도 하고. 김금용씨도 했네.

윤병철씨가 주도하셨네요?

그렇지.

교사들 학력은?

그래도 다들 중학교는 나왔지.




성공회 사리교회 터와 윤병철이 세운 사리강습소 터

언제 세웠어요. 193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1930년대는 아니고 1940년쯤... 왜정 말기에는 일본이 못하게 하고 그랬어. 그래도 6.25 전까지는 했지.

뭘 가르쳤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산술, 한문도 가르치고.

야학이예요 주간에 가르쳤어요?
야간에 했어.

이곳에 다는 사람은?
나는 아니고, 학교에 못 다녔던 사람들이 다녔지.

어르신은 정규 학교를 다녔군요?
그럼. 초등학교 다니고 오산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조금 다니다 말았지. 우리 때는 초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다고.

어디로 다녔어요?
우리 어릴 때는 서탄에도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진위초등학교로 다녔다고.

진위가 멀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는 6년제잖어. 서탄초는 4년제라고 안 다니고 6년제로 다니는 얘들이 있었지.

진위까지는 얼마나 되요?
진위는 4, 5km는 된다고 했지.

걸어서 다녔어요?
다들 걸어다녔지. 그때(일제 말)는 학교 갈 때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꼴망태 하나씩 걸머지고 다녔어. 학교 가다가 좋은 풀이 있으면 그거 뜯어다가 퇴비 만들려고. 전쟁을 하려니까 학생들까지 들들 볶았던 거지 뭐.

일제가 학생들에게도 퇴비증산을 강요했나요?
그럼, 얼마나 심했다고.

쇠조각이나 송진도 공출하지 않았어요?
광솔도 가져오라고 했고. 광솔에서 송진 채취해가지고 일본에 보냈잖아. 비행기 기름한다고 아주까리도 가져오라고 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도 공부할 시간이 없었네요?
학교에서야 했지만 집에 오면 일해야 했어. 어디 놀 시간이나 있었나.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도 똑똑했어.

공부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죠?
그렇지, 그건 맞어.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은 배불러서 공부할 기회가 많아도 안 하잖아. 우리

큰아버지도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똑똑해서 법원에서 불렀는데도 일본놈들 밑에서 일 안한다고 안 갔어. 집에 있으면서 애들이나 들들볶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는 똑똑하게 잘 키웠지.

어르신은 언제 입학했어요?

나는 해방되고 나서 학교 들어갔지. 해방되고서 이듬해, 9살에 들어갔어.

일제(왜정) 말에는 창씨개명도 강요했잖아요. 어르신도 했나요, 집안 전체가 안하면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입학하려면 해야지, 그거 안 하고는 입학할 수 있었나. 그때는 그랬어요.

일본어도 강요했다면서요?

처음에는 조선말을 썼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쳤는데 중국하고 전쟁하면서 못 쓰게 했어.

왜정 때 학교 다닌 사람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네요?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들 한글은 깨우쳤지. 아무리 일본어로 써놓았어도 설명하려면 조선말을 해야잖아. 그러니께 다 깨우쳤다고. 글자는 안 가르쳤어도 말은 가르친 거 아녀. 자동으로 깨우쳤지.

일제 말에는 아무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잖아요?

월사금도 있고, 시험에 떨어져도 못 들어가고 하니께 많이 못갔지. 그러니까 해방 뒤에 막 몰려서 들어갔다고. 내가 9살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3살 4살 위 애들도 입학했어. 저기 공성열이라고 있어.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장가들었다고. 17살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 저 사람(주민) 사촌도 우리보다 4, 5세 위인데 동창이라고. 그때는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게 했잖어. 그러니까 학교에 못 들어갔던 애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간 거지.

그많은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반에 60명, 70명씩 들어가고 오전반 오후반도 하고. 처음에는 두 학급으로 늘리고 하더니 저기 진위천 넘어 애들은 금각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거기로 다니게 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했지. 학교가 모자라니까.

금각초등학교가 처음에는 적봉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적봉리 있다가 금각리로 옮겼지. 거기 사람들은 거기로 가라고 학생들이 많아서 교실이 모자라니까 만든 거여. 그 애들은 물 건너서 와야잖아.

사리에서 진위를 걸어다니려면 어떻게 갔어요?

옛날에는 오산천이 넓었거든. 냇갈이 깊지 않고 넓어서 왠만하면 걸어서 넘어갔어.

그러면 신발 벗고 걸어갔어요?

물 많으면 못가지. 여름에 얇으면 걸어가고.


사리와 사리교

징검다리는?

징검다리도 놨는데 장마지면 떠내려갔다고. 그래서 8월 추석 전에 나무다리를 놨어.

나무다리라는 게 섶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을 박아서 위에다가 뗏장 올려놓고 건너가는 거. 여름에는 징검다리로 건넜어도 겨울에는 그게 안 되니까 나무다리를 놨다고. 아카이시아 나무가 잘 썩지도 않고 좋았어.

마을 주민들이 놓았어요?

그거 매년 해야 돼. 장마 때는 떠내려가잖아. 재료가 문제인데 기둥이 남았으면 그거 다음 해에도 사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만들었지.

시멘트다리는?

그거는 1960년에 조합(사리농협)에서 쌀 100가마 내고, 윤교직이라고 있어. 마을 사람인데 서울로 가서 사업해가지고 공장을 운영했다는데, 그 사람이 절반은 냈을 거여. 여기 우리동네 윤종만이라고 있어, 그 사람 삼촌이여. 송탄에서 국회의원하던 사람... 누구지..

이윤용씨요?

그려 이윤용. 그 사람도 조금 도왔고.,

지금 것은 그때 놓고 다시 놓은 건가요?

저건 나라에서 놨는디 근래에 부수고 다시 놨지.

마을에 인물(人物)이라고 할만한 분이 있을까요. 사리는 공무원 출신도 많고 교육열도 높던데요?

큰 인물은 없고 김인희씨 조카인디 별을 단 사람은 있어.

계급은요?

별 두 개. 김시묵이라고 중령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고.

어르신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6남매. 4남 2녀지.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교도관을 하시다가 퇴직하고 작고하셨지. 아래 동생은 45세에 죽었고. 그 동생이 중위로 제대한 뒤에 농사를 지었는데 요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우리 막내는 진위고등학교에서 교직을 했는데 죽었고 여동생만 남았네.

어르신 학력은?

서탄초등학교 나왔고 오산중학교 졸업하고 오산고등학교 조금 다니다 말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

집안이 어려워서 그만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녀. 내가 공부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우리 당숙이 무척 똑똑했어. 그런데 6.25 때 자살해서 죽는 것을 보고 공부는 해서 뭘하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했지.

6.25 때 면장을 한 분이 당숙이었군요?

그려, 면장이라고 한두 달밖에 더 했어.

그러면 인민군 치하에서 좌익계열 면장이네요?

그렇지, 한두 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야. 그런데 자살했어.

그러면 서탄면 인민위원장을 한 거네요?

그렇지.

그럼 자녀들이나 친척들도 연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다들 회사로 빠진 거 아녀. 한두 달 억지로 시켜서 한 건데 그것으로 자식들까지....

참 아픈 역사죠?

무엇인고하니 우리 당숙이 한의학을 했어. 한의학을 하니까 똑똑하고 굉장히 지식이 높지. 한의뿐 아니라 조선 말에 군인도 했어. 철도 있잖아, 거기를 걸어다녔다고 하더라고.

해방 후 수월암리 도도리 마을이나 금암3리 등이 좌익이 쎘다고 말하더라고요?

여기도 쎘어. 왜그러냐면 김광O이라고 그 양반이 일본까지 유학 갔다 왔어. 유학을 갔다 왔는

데... 전쟁 때는 이 양반이 도(道) 책임자로 일을 보고 있었던 거여. 그래서 자기 형도 죽고 자기 삼촌도 죽고.

동네사람들이 이분에게 포섭당했던 거네요?
포섭당하나 마나 그거 벼슬이면 다 좋은 줄 알고 했다가 죽은 거지 뭐.

몇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5명인가, 4명인가 내가 알기로. 의용군 나간 사람도 7명 있고. 그 사람들 이름 지금도 다 외워. 죽었나 살았나는 모르지만.

이산가족찾기 때 연락이 안 왔어요?
신청을 안 하더라고. 연세가 90살에서 100세가 다 된 양반들인데....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용욱이라고 우리하고 5살, 6살 위여.

당시에 18세 이상이면 끌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만 되면 다 끌고 갔어요. 한 양반은 고등학교 5학년 때 그냥 끌려간 거여, 학교에서. 학도병이지.

사리도 전쟁 때문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잡혀가고 피해가 컸네요?
많아요.

우익들이 올라와서 해코지는 안했어요?
그쪽은 1명밖에 안 죽었어. 당시 위험하다고 해서 숨었는데 밥을 가져다주다가 발각되어서 죽은 거여. 꿈같은 이야기지.

어르신은 마을일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을 일은 안 했어. 이장, 조합장 이런 것 일절 안 맡어.

그러면 고등학교 중퇴한 뒤에는 무엇을 했어요?
농사지었지 뭐.

무슨 농사요, 논농사요?
처음에는 논농사를 지었고 하우스도 하고 축사도 조금 하다 말고.

하우스에는 뭘 심었어요?
애호박.

축사 규모는요?

하우스 하기 전에 3, 4마리 키우다가 땅이 없어서 더 하지 못하고 팔았지.

마을 직책을 맡은 것은 없어요?

없었어.

어르신에게는 농사(農事)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여쭐께요. 농지개혁을 하기 전 사리의 지주는 누구였어요. 부재지주도 있지 않았어요?

여기는 용주사 땅이 많았지. 마름이라고 해서 보는 사람도 있었어. 차준담이 땅도 많았고. 차준담이네 마름을 갈곶리 사람이 봤어.

마름 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허허.

그럼 용주사 땅, 차준담 땅, 마을에서는 김태동씨하고 윤주신 댁이 지주였네요?

윤주신네 땅은 직접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지개혁 때 조금 빼앗겼어요. 김태동씨는 자작을 했기 땜에 뺏기지 않고.

윤주신, 김태동씨 땅은 얼마나 되었어요. 몇백 석씩 되었나요?

아녀, 잘해야 100석 그랬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김태동씨도 머슴 둘을 두고 자작을 했지.

지주들 땅은 분배가 잘 되었나요?

그럼, 정부에서 소작 짓는 땅은 모두 분배를 했지. 소작 짓는 땅은 모두 나눠줬어. 5년인가 7년인가 상환하고. (김구회)백서방네 땅도 많았지.

백서방이라는 분은 마름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르지.



사리의 주경작지 야막들과 하북들

그래도 농지개혁 때문에 자작농으로 성장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자작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머슴이나 되지 별수없어.

어르신 댁은?

우리는 큰집에서 세간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수단이 좋았어요. 수단이 좋아서 남들이 땅을 사고 팔려고 할 때 거간을 잘 놔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 우리 아버지가 아래로 동생이 둘이거든. 큰집에서 큰아버지가 자기밖에 몰라.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큰아버지가 다 갖고 동생들은 우리 아버지가 세간 내줬어.

분배는 얼마를 받았어요?

우리는 30마지기쯤 받았나.

많이 받았네요. 어르신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재산이 제법 있었네요?

한섬지기쯤 되는 거지 뭐. 일꾼은 꼭 뒀으니까.

일꾼(머슴)이야기가 나왔는데 머슴 세경은 얼마씩 줬어요?

여섯 가마밖에 안 줬어요. 나중에 8가마, 10가마까지 올랐는데 그때가 되면은 기계가 나와서 머슴이 필요가 없더라고. 어린애들 17살쯤 되는 머슴은 밥만 먹여줬어, 세경은 없고.

상머슴의 기준은 뭐예요?

머슴 자체가 논밭 갈고, 모내기할 때는 자기가 다니며 일꾼을 얻을 수 있고, 써래질도 해야 하고 모든 농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지 뭐. 때로는 주인하고 같이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든 농삿일

을 할 줄 알아야 상머슴이지.

농사는 언제 시작해요?
3월경.

음력이예요 양력이예요?
양력. 이때부터 일꾼을 들이면 제일 먼저 새끼를 꽈서 집 둘레에 말장을 박고 수수깡으로 집 주위를 뺑 둘러서 울타리를 두르는 거야. 옛날에는 수숫대로 울타리를 쳤잖아.

울타리를 먼저 했군요?
옛날에는 논 갈기가 여간 저기해. 겨울에 물 댄 논도 있고 없는 논도 있고. 물댄 논이 논갈기는 훨씬 수월해. 물논은 쟁기를 갖다 대면 그냥 넘어가는데 마른 논은 딱딱해서 안 넘어가. 그러니까 더뎌. 얇게 갈아서 두 번 세 번 가는 거야. 그래서 인자 써래질 할 때 마른논은 한 번 더 중간을 질러야 돼. 고랑이 너무 넓으니까 중간에 쟁기로 질러서. 그렇게 해서 논을 판판하게 만드는 거여.

물논과 마른 논의 논갈이가 서로 달랐군요?
달랐지. 겨울에 야막리 쪽에 보둑을 막아서 보또랑으로다가 물을 끌어들이는 거라고. 야막리 앞에 방죽이 있어. 겨울에 방죽에 물을 가두고 그거를 끌어들여서 물을 대는 거라고.

보(洑)는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선산보하고 행산보. 행산보는 야막리 쪽에 있었고 선산보는 사리 쪽에 있었고.

오산천을 막는 거죠?
옛날에는 모래를 가마니에다 담아서 막았는데 장마지면 터지는 거야. 그러면 또 쌓고.

언제쯤 쌓아요?
못자리를 4월 20일경에 하거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4월 10일경에 우선 똘을 다니며 가래로 치고 다녀.

정리해서 여쭐께요. 물논인 경우에는 논갈이를 한 번만 하면 되나요?
그건 한 번만 하지.

한 번만 갈면 되네요?
아니다, 그것도 두 번 갈아야 되는데 처음에 갈 때 맞 엎어져. 물논도 좌우를 합쳤다가 가운데를 한 번 더 갈아주니까 두 번이네. 가운데를 뽀개서 갈아주는 거지.

이게 몇 월달에 해요?

마른 논은 일찍 갈고, 4월에 먼저 갈고 물논은 5월에나 갈고. 6월 6일에 모내기를 많이 했잖아. 못자리 생육기간이 35일에서 40일은 한 단 말여. 4월 20일에 못자리를 한다면 5월 말부터 모심기를 시작하는 거여. 늦으면 하지 때까지 심으니까. 하지 때 심는 사람들은 보리 밀하고 벼하고 2모작을 하는 사람들이지.

모내기는 가족끼리 해요 사람을 사서 해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 각자 다르지. 농사가 많으면 사람을 사서 해야 되고 적으면 식구끼리도 심고. 아니면 품을 사다가 심고 여러 가지지. 품앗이라는 것도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나도 갚아야잖아.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되면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그러면 일꾼을 사다가 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일꾼을 사오는 군요?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르지. 논 한섬지기 하는 사람은 내외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 10마지기라도 보름은 일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논갈고 써래질을 해야잖아. 그러니까 1마지기면 20명이 들어간다면 20일을 모두 모심기에 쓰는 게 아니고 5일은 논갈고 그래야니까 여자가 도와줘도 15일밖에 일할 수 없단 말이여. 그러면 5일이 부족하니 일꾼을 다른 데서 사와야지.

모자란 노동력은 사와야했군요. 사온 사람들 품삯을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요?

6.25 끝나고는 품팔려는 사람이 넘쳤어. 피난민들 내려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았지.

다른 마을을 보면 쌀 한 말에 5일을 일해주고 했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에 식량이 떨어지면 부잣집에서 쌀을 빌려온단 말여. 그러면 이자가 곱 이자여, 장리쌀. 한 말을 빌려 먹으면 가을에 두 말을 갚아야 했다고. 그런 것도 있고 봄에 일해줄 테니까 미리 곡식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선품 받는 것을 말하는 군요?

잉잉 그렇지 선품. 한 말에 닷새를 일해주고 그랬지. 그래도 옛날에는 인심이 좋았어요. 그때는 한 말이면 고봉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양이 많았어.

대두 한 말이예요, 소두 한 말이예요?

소두 한 말이지. 대두 한 말이면 1.8리터가 대두인데. 한 10kg은 되는 거지. 고봉으로 담으니까 무게가 더 났지.

사리는 농업용수 사정은 어땠어요?

여기는 좋았지. 보(洑)가 있으니까 아주 좋지. 옛날에는 발동기가 있어, 보(洑)에다가 호스를 대서 끌어올리기도 했잖아. 봇물도 마르면 냇가를 파면 물이 고인다고 그거를 퍼올리고. 바닥이 모래니까 쉽게 파고 물을 구할 수 있었지.

사리는 농업용수가 어디 물이 들어왔어요?
어비울 것은 안 오고 용인 …. 거기가 어디여.

기흥저수지 말인가요?
맞아 기흥저수지, 거기가 컸어. 기흥저수지 물이 여기까지 내려왔지.

기흥저수지가 준공된 것이 1960년대인가요?
아마 1960년대 중반쯤 될 꺼여.

지금은?
지금도 계속 그 물이여.

기흥저수지 물이 들어오면서 농사짓기가 좋아졌네요?
그렇지, 아주 좋아졌지.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갔잖아요?
그렇지,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지.

수세는 얼마씩 받았어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 수리조합장한다고 돈도 많이들 썼어.

수감은?
수감은 수리조합에서 월급을 줬고.

사리에도 수감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있었지. 지금은 수감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수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면서… 먼 지역에 한 명씩만 두었지. 6개월인가 8개월만 받았지.

모내기가 6월 15일경이면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말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때까지 했지.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고 그러지.

두레는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추석에 놀고 설에 놀던 거.

아니 두레농악패 말고 논매기 다니던 두레요?

잉, 그 두레. 논매는데 다녔지. 일꾼 얻기 싫으니까 두레를 둘러대면 그럴 필요 없거든. 누구네 누구네 논을 맨다고 해서 일해주면 나중에 마지기 수 따져가지고서 품삯을 분배하는 거여. 일 많이 한 사람은 돈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내고 그랬지.

두레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나.... 농지정리하고 1970년대 초까지는 있었나. 나 군인 가고 나서는 없어졌어.

언제 가셨어요?

1962년도. 1961년도에 박정희가 5.16한 거 아녀.

두레 조직은?

좌상은 없었고, 상쇠하고 기수. 두레들끼리 만나면 싸움도 하고 대단했다고. 야막리하고 만나면 싸우고 화해하고.

어디 두레가 쎘어요?

사리가 쎄지. 우리는 100호가 넘고 야막리는 40호인데. 그런데 우스운 것은 우리가 농사짓는 농토가 야막리에 있거든. 그러면 야막리 사람들한테 째는 거여. 허허. 정월에는 큰소리치고 농사지을 때는 조금 숙여주고 허허.

논매기는 몇 번을 했어요?

본래 3번을 하는데 비료를 쓰게 되면서 두 번으로 줄더라고. 나중에는 제초제 나오면서 그만두고. 제초제를 뿌려도 풀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풀을 뽑아줘야 해.

제 기억으로 제초제를 뿌린 뒤에도 초가을이면 피가 나왔거든요?

피는 지금도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라는 게 생육기간이 짧고 어디서나 잘 자라. 8월에 배추를 심을 때 자라기 시작해도 벼보다 더 자라. 제초제가 성장억제제기 때문에 모내기할 때 뿌려도 늦여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풀들이 자란다고. 한 두 달 지나면 피가 나와. 그거는 뽑아주고 그랬지. 지금은 제초제를 두 번 뿌려주거든, 그래도 나와. 풀을 다 잡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초제를 두 번 뿌려. 그렇게 해도 풀은 나오고 하니까 한 번씩 매주고 그런다고.

추수는 몇 월에 시작해요?

지금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죠. 벼가 일러가지고. 옛날에는 양력 10월 중순은 넘어야 해요. 옛날에는 벼를 베면 그 위에 눈이 쌓이기도 했다고.

그러면 벼가 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벼는 눈 속에서는 상하지 않지. 그리고 또 말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지금은요?

지금은 양력 9월 20일이면 베기 시작하지.

그러면 생육기간이 무척 짧네요?

생육기간이 100일이 넘지. 보통 볍씨는 4월 7, 8일에 담그잖아. 모판에 뿌리고 한 달 이상은 자라고. 지금은 5월 10일경이면 심기 시작하더라고. 5월 20일이나 25일이면 기계로 심는 것은 모두 끝나. 옛날보다 20일은 짧아졌지. 그래도 생육기간은 짧아진 것이 아냐. 지금은 한 달도 안 된 어린 모를 가져다 심는데 옛날에는 35일, 40일 된 모를 가져다 심었잖아.

그럼 생육기간을 따지면 140, 50일쯤 되네요?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 만생종, 조생종에 따라 다르지. 고시히까리와 아끼바래도 각기 달라. 고시히까리는 20일 정도 생육 기간이 짧아. 아끼바래는 보통 10월이 넘어야 되거든.

1970년대에는 통일벼를 심으라고 난리였잖아요?

통일벼 심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방아를 찧어보니까 쌀이 질이 나빠.

통일벼는 얼마나 수확량이 많았어요?

한 10~15% 정도. 그것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정부가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 거지.

길게는 진행되지 않았죠?

한 10년은 했나. 10년밖에 안됐을 거여.

옛날에는 탈곡도 힘들도 도정도 힘들었더라고요. 사리는 어땠어요?

탈곡은 왜정 때는 그네(쇠홀태)라고 있었어. 사람 손으로 한주먹씩 쥐어서 흩는거.

그걸 홀치기라고 했나요?

그려 홀치기. 벼를 손으로 잡아서 흩는 거. 그다음에 나온 것이 궁글통(족답식 탈곡기)이라고 있어.

궁글통이 나온 것은 언제죠?

왜정 때도 있었어. 여기(사리)는 보급이 안되서 그렇지.

해방 후에 보급된 거네요?

6.25 후에 보급되었지 뭐.

절구통을 옆으로 뉘어 놓고 두드려서 탈곡하기도 하던데요?

그건 보리를 할 때. 태기질(태질)이라고 하는데 보리나 밀을 탈곡할 때 썼지.

기계식 탈곡기가 나온 것은?

탈곡기가 나온 것은 1980년대에 나왔나. 경운기는 조금 일찍 나왔는데 경운기보다 좀 늦게 나왔지.

그다음에 농기계가 등장하고요?

그렇지.

도정은 조합방앗간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디딜방아라고 있잖아, 왜정 때는 우리 동네에도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도정하다가, 왜정 말기에는 발동기가 나왔지.

구보다 발동기를 말하나요?

5마력짜리 발동기인데 우마차에다 싣고서 끌고 다니는 거여. 벼를 마당에다가 쌓아 놓고 발동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도정을 하는 거여. 그거 했던 양반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당숙도 그것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중에는 우리 당숙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하고. 우리 동네 김태동씨네도 하고.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정미소가 생긴 거네요?

그렇지.

마을에서 정미소는 누가 운영했어요?

김태동씨네도 하고 협동조합에서도 하고. 둘이 했어요.

김태동씨네는 언제 시작했어요?

6.25전쟁 후지.

조합방앗간은 1958년부터 한 거고요?

그렇지.

조합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김태동씨네는 그만둔 건가요?

아녀 몇 해 동안은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조합방앗간에만 가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만둔 거지.

경쟁이 안 되었겠죠?

조합의 도정비가 쌌으니께 경쟁이 안됐지. 나중에는 자기네 것만 도정하다가 그만뒀지.

어르신이 축산업도 하셨잖아요. 마을에서는 축산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집집마다 한 마리씩은 다들 키웠고...

그것 농사지을 때 쓰려고 키우는 농우죠?

그렇지 농우.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인데.

옛날에는 남의 집 송아지를 키워주고 새끼를 받거나 하던데요?

그럼, 그런 사람이 많았지.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사준단 말여.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그 중 한 마리를 키운 사람에게 삯으로 주고 그랬지.

소는 길들여야 쟁기질을 할 수 있잖아요. 길은 어떻게 들여야 해요?

송아지를 키우다가 6개월쯤 지나면 코뚜레를 해줘. 쇠꼬챙이를 벌겋게 달궈서 코에다 찌르는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런 뒤에는요?

코뚜레를 하고 1년에서 1년 반쯤 지나면 길들이기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 붙어서 소에게 멍에를 올려야 돼. 멍에를 올리면 소가 아플 것 아녀. 그래도 계속 끌고 다니면 굳은 살이 박혀. 그러면 무게를 더 올리고 더 올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굳은살이 두꺼워져서 무거운 것을 올려도 아프지 않게 된다고. 그것도 황소는 조금 빠르다고.

멍에 올리기가 끝나면?

그것이 끝나야 논으로 데리고 가지. 막 길들인 소는 논갈이를 할 때 두 명이 붙어야 해. 한 사람은 코뚜레를 잡고 앞에 서고 뒤에서 쟁기로 논밭을 갈고. 그렇게 한두 달을 길들이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논갈고 밭갈고 하지.

소는 어디에서 구했어요?

우시장에서 샀지. 오산장에 우시장이 있잖아.

수원 우시장이나 평택우시장도 컸잖아요?

그래도 오산이 제일 컸어. 거기가 평택장보다 컸다고. 안성우시장도 있고 전라도 소들까지 모였다고. 서울사람들이 소고기도 많이 소비하고 그러잖아. 전라도 같은 데서 서울로 소를 보낼 때 오산 우시장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크지.

안중우시장도 있었고?

안중장은 쬐그만했고.

축산업은 젖소를 사육한 건가요?

젖소는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줬어요. 땅이 있으면 소 5마리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조건이 땅(풀밭-초지)이 있어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이게 1970년대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외려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들판에 나가도 넝쿨풀이 많지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없어. 풀도 자꾸 깎아줘야 자라는데 안뜯으니까 자랄 수가 없어.

마을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김항묵이라고.

김항묵씨요?

돼지목장은 김정용이라고 그사람이 많이 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송 누군가도 있었는데 5마리쯤 키우다가 때려치웠지.

마을에서 가장 많이 할 때가 1980년대인가요?

1980, 90년대라고 할 수 있지.

처음에는?

소 키우는 사람이 2집(5~6마리), 돼지 키우는 사람이 2집 정도.

어르신도 축산업을 했다면서요?

나는 비육우를 키웠지. 많이 할 때가 3마리 4마리 했나.

언제요. 소값파동 전인가요?

소값파동 전이지.

그럼 1970년대 말이네요?

그쯤여.

왜 어르신은 젖소를 안하고 비육우를 했어요?

땅이 없잖아, 넓은 땅이. 땅을 빌릴 데도 마땅찮고 초지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집에 땅좀 있었잖아요?

집안 것은 큰집 거라 내가 터치를 안하지.

30여마지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래도 내가 세간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여나믄 마지기 가지고 나왔지 ... 그래도 큰집은 계속 30마지기 40마지기를 유지했어. 내가 세간 나오면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보충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러셨다고.

아버지 능력이 대단했네요. 어르신은 몇 마지기 농사지었어요?

처음에야 10마지기밖에 더 있었나. 나중에 밭 10천여 평 사가지고 농사짓고.

어르신은 농지가 많지 않았네요?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스무 서너 마지기는 되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고 그랬네요?

요즘 농사지어서는 적자여. 우리에게 밭이 하나 있는데 900평이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도 의료보험이 몇백만 원, 한 달에 16만 원씩 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안식구가 농사지어서 배추고 무하고 심어서 팔면 돈이 좀 되었는데 안식구가 아파서 활동을 못하잖아. 그러니 뭐가 나와. 채소를 심는데 가져다 팔지 못하니까 먹다 남은 것은 내다 버리더라고. 그러니 뭐가 돈이 되겠어. 생활이 어렵지.

축사해서는 돈을 못 벌었네요?

그렇죠. 몇 해 하다가 바로 그만두었죠.

축산업 그만두고 곧바로 하우스를 하신 건가요?

그런 셈이지. 그것도 내 땅도 아니고 종중에서 논 2마지기를. 600평인데 하우스 두 동을 했어. 종중에서 지은 건데 나하고 우리 안사람 하고 농사를 지은 거지. 그것도 70세가 넘어서는 해체시켰어.



사리의 전설을 간직한 쪽박산(야영장)

하우스에는 뭘 심었어요?

애호박만 한 거지.

사리 마을에서는 하우스 농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이 하죠. 옛날에는 처음 한 사람들이 무를 농사지었다고. 왜그러냐면 봄에 무를 심었다가 뽑아서 팔고 하우스를 걷어치우고 거기다가 벼농사를 했다고. 2모작을 한 거지. 두 번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지.

이게 1970년대 이야기인가요?
1970년대 이야기지. 그러다가 나중에 애호박을 하고 오이를 심고.

몇 집이나 되었어요?
15호 이상은 되었지. 그런데 나처럼 하우스 2동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중없었지.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면 12동은 했지. 지금은 하우스를 크게 지으니까 이중하우스로 5동밖에 못 짓더라고. 관정 박아서 물을 끌어 올리는데 물이 많은 사람은 수막재배를 많이 해.

수경재배하고 다른가요?
수경재배는 영양분이 있는 물을 줘서 키우는 거고. 수막재배는 물이 좋아야 해.

하우스재배가 전문적으로 바뀐 것은?
1980년대쯤이지. 그때가 되니까 2모작을 안하고 하우스만 하더라고. 무를 심던 사람들도 오이나 토마토, 애호박을 심더니 지금은 순전히 오이하고 토마토만 하더라고. 2010년대를 넘어서는 오이하고 토마토.

지금은 몇 집이나 되요?
13집 내외일 거야. 작목반을 꾸렸는데 운영이 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

작목반이 1960년대에도 있었죠?
그렇지.

그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모내기를 했지.

처음에는?
그렇지. 그 작목반하고 지금 하우스 작목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게 왜 그러냐면 공동구매를 하느라고. 비닐 같은 거 살 때. 정부가 지원도 작목반 단위로 하고, 교육도 받고.

사리가 농기계를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1970년대 경운기 사용하고.

일제 농기계도 들어왔죠?
일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사리는 대동부터 썼지. 이앙기도 일제는 군청에서만 섰고 시범적으로

만 사용했지.

대동하고고 또 어디요?
대동하고 국제, 양모인가 … 몇 군데 되었지.

트랙터가 먼저예요 콤바인이 먼저예요?
트랙터가 먼저고 콤바인이 나중이지.

그게 언제죠?
1980년대인가.... 아니 1970년대 말인가 그런데.

지금은 농기계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죠?
그럼 힘들지. 지금은 그것도 힘들다면서 모도 농협에서 사다가 심잖어.

농협에서 사오는군요?
그럼, 전부 농협에서 사 오지. 농협에서 사 오면 한 판에 1000원씩 할인해주거든. 그렇게 사도 한 판에 3500원, 4,000원씩 하는데. 실제로 5,00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300판밖에 권한을 안 줘.

300판 이상은 구입할 수 없어요?
농사 많은 사람은 많이 주지만 우리처럼 쬐끔 하는 사람들은 300판까지여.

한 판에 모가 몇 개나 들어가요?
몇 개라고는 나도 모르고, 그게 왜그러냐면... 옛날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골로 된 것 하고 판떼기로 된 것이 있는데 골로 된 것은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판떼기는 그게 어렵다고. 둘 다 장단점이 있지. 1,200평이면 100~120개 또는 125개 정도가 들어가지.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에게 300개 제한을 두는 군요?
그렇지. 지금은 전부다 산파를 하거든. 옛날에는 조파도 했거든. 골로 되었다는 거. 조파는 몇 모를 심었는지 확인되지만 산파는 그게 안돼.

사리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요?
우리동네, 우리 동네는 냇가 건너 야막리, 하북리(2리) 그쪽에서 농사짓지.

옛날부터 그랬죠?
그렇지.

마을의 지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주세요?

우리동네 뒤편 매봉산 골짜기를 조뱅이골이라고 해. 골짜구니를 조뱅이골이라고 하고 여기 새동네 넘어가는 고개를 사루미고개, 거기서 쭉 가면은 원 수월암하고 우리 동네하고 사이에 넘어가는 고개를 백토고개. 거기가 옛날에 흙이 하얗다고. 지금은 흙이 없어졌어, 공장들 세우느라고.

백토고개가 본래 석회석이었어요?

석회석은 아닌데 거기만 하얗게 보였어. 그러고 요기 산 뒤에 구정물골.

구정물골은?

저기 절터 뒤쪽 제방으로다 물내려오는 골짜기. 저기 꼭대기 공장 있는데 있잖아. 거기를 밤꽂이. 제방둑 올라가면 산하고 마주치는데.

밤곶이는 옛날에 밤나무가 있었어요?

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비가 오면은 거기가 위험했었단 말여. 도둑놈들이 숨어서 뺏고 그랬는데 '밤을 조심하라' 는 뜻에서 그렇게 전해졌나봐. 옛날에 들은 이야기지 뭐.

쪽박산은 없어졌어요?

거기를 쪽박산이라고도 하고 통미산이라고도 하고. 통미라는 게 통가리라고도 부른단 말여. 그것 때문에 마을이 부유하다고들 했는데... 거기 전설이 기가막히지. 본래 산이 없었는데 옛날에 물난리가 나서 용인에서 떠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나중에 산을 파보니 돌산이여 돌산.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옛날 용인 군수가 진위군수에게 도지를 받아간다느니 그런 전설이 있었어.

평택 시내에도 됏박산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 땅 주인이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고 없앴는데 땅이 2천 평 조금 넘었나 그렇지. 그게 윤주신네 땅이었는데 25년 전쯤 전에.

들판 이름은?

행성보 있는 곳은 행성들. 선산보 몽리구역은 선산들. 그리고 구역별로 하북리, 야막리... 하북리 앞은 빵짜들이라고 했어. 보(洑)를 쌓고 방죽이 있을 때는 물(농업용수)가 거기까지 못갔어.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땅값이 쌌어.

하늘바라기였네요?

하늘바라기였어. 저짝 산모퉁이 한진공장이 있는 골짜기는 용목골이라고 하고, 지금도 용목골이라고 하고.



용목골과 칠원윤씨 판결사공파 묘역이 있는 청덕골

북바위로 넘어가는 곳은 뭐라고 했어요?

저기 뭐여....

안동 김씨 묘역 아래는요?

단풍나무골. 거기 묘역은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다시 정비한 거지. 저쪽으로 산너머 금암1리와 사리 경계 저수지 옆의 산골짜기를 청덕골이라고 해. 윤씨네 묘역 있는데.

그쪽 윤씨 묘역은 어느 파의 묘예요?

판결사공파.

어르신 계열은요?

우리는 여기는 300평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안성으로다 가져가고 조암리에 있고 그래.

조암리에 있겠네요?

아녀, 안성에 많아.

안성에 모여 있으니 시제 때는 편하겠네요?

그럼 한 곳에 있으니 편해.

시제 때는 많이 모이나요?

많이 모여, 60명은 모이니까. 오기만 하면 남녀 구분하지 않고 10만 원씩 줘. 그래서 그런지 많이 와. 애들이 와야 하는데 잘 안 오고.

윤학수(남, 1941년생) 사리

이름	윤학수	성별	남	
생년	1941년생 (호적 1942)	거주지	서탄면 사리	
직업	전 공무원	거주기간	토박이	
일시	2023.10.17.	장소	사리 경로당	
면담자	김해규	소속	평택인문연구소	
약력	칠원윤씨 충효공파 후손으로 사리(寺里) 토박이다. 서탄초등학교와 오산중, 수원농고를 졸업하고 평택군청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서탄면장으로 퇴직했다. 자녀들도 큰딸과 아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경기도청 국장과 병무청 과장으로 있다. 사리농업협동조합 마지막 조합장을 지내며 조합 청산에 공헌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실 나이는 1941년생인데 호적에는 1942년으로 되었어.

본관이 칠원윤씨잖아요. 파(派)는 어떻게 되세요?

충효공파

충효공은 어떤 분이세요?

....

그냥 넘어가고요, 본관이 칠원이어서 저는 평택시 칠원동인줄 알았는데?

맞아, 경남 함안군이 옛날에 칠원이었어. 시조묘가 그곳에 다 있어.

시조는?

윤시영, 시자 영자셔. 이분이 김춘추(신라 태종무열왕) 때 김춘추의 고명대사를 했다고 해. 고명대사라는 게 왕이 아끼는 신하가 맡는데 선대 왕이 죽으면 후대 왕을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을 말하지. 특별한 신임이 없이는 맡을 수 없지.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조상이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렇지.

칠원윤씨가 마을로 들어온 것은 언제죠?

우리로는 위로 7대조까지 있어. 그 윗대는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의 사우에 모셔졌고.

7대 정도는 거주하신 거네요?
7대조 할아버지가 화성에서 여기로 이사온 거지.

그럼 200년쯤 사셨네요?
내가 80살이 넘었으니 조금 더 잡아야지.

면장님 어릴 때는 칠원윤씨가 몇 집이나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 충효공파가 있고 대원공파가 있어.

파(派)가 두 개군요?
윤치원이라고 아나,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대원공파지. 대원공파하고는 20대쯤에서 갈라졌어.

대원공파는 몇 대를 거주했어요?
그 양반들도 7, 8대는 돼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네요. 두 파는 어디에서 갈라졌어요?
20대에서 갈라진 거지.

충효공파는 몇 집이 거주해요?
가만있어라 지금은 몇 집이 안 되지. ....(숫자를 센다) 지금은 8집이 살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15호쯤은 살았지.

대원공파는?
옛날에는 그 집안들도 우리하고 비슷해. 15호는 되었지.

김씨도 많았지만 칠원윤씨도 상당히 많았네요?
김씨가 더 많았어.

집성촌은 아니어도 김씨와 윤씨가 대성(大姓)이었네요. 경제력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옛날에 윤씨네가 경제력이 좋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발이 좋은 거지.

끝발이 좋았네요?
저기 윤주신이라고 아는지 몰라, 부면장을 지냈던. 그애가 종손인데 그러니까 5대 내에서 그렇

죠. 내 앞으로 따지면 4대이고. 5대 내에서 군수라든가 청와대 비서관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니까.

칠원 윤씨에서는 공직에 나간 사람이 많네요?
그럴 때는 윤씨네 재력이 대단했지.

그럼 공직에 나간 분들을 열거해줄 수 있을까요?
청와대 같은 곳에 있었어요. 옛날이야기고.

옛날이라도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족보를 보고 이야기할까.

그러시죠?
잘나갔던 사람은 윤종각이라고 서울시청 세무과장을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

윤종각씨는 몇 년생이세요?
91세나 92세쯤 될 꺼여.

그러면 1932년 전후겠네요?
그럴 거여.

이런 분들은 대학을 나왔나요?
대학교는 안 나왔고, 옛날에는 고용원이라고 했나,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이. 현덕면사무소에서 청소도 하고 잡일을 했는데 그분이 …

옛날에 소사라고 불렀던 분들이군요?
그런데 워낙 똑똑하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서 공무원으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세무과장까지 했어.

입지전적인 분이네요?
그 아들은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과학기술처 국장까지했지.

이분도 생존해 계세요?
그렇지, 아들이니까.

이름은 어떻게 되요?
윤대수

퇴직한 지는 얼마 되지 않겠네요?
4, 5년쯤 됐을 거여.

드른 분으로는요?
다른 쪽으로는 우리집 옆에 윤흥수라고 교장하던 양반이 있지.

이분은 몇 년생이세요?
우리보다 여섯 살 위니까.

그러면 1935년생쯤 되시네요?
초등학교 교장을 했는데 우리하고 고등학교 6년 선배야.

공무원을 했던 분들은요. 어르신은 면장을 하셨고?
우리 아들은 서기관. 큰딸은 경기도청에 있는데 윤영미라고.

윤영미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큰아드님은?
윤상만이라고 병무청 본청에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그럼 아드님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나요?
아니 수원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똑똑했어.

본청 과장급이잖아요. 본청에서 과장이면 지청에서 국장급 일텐데?
지청에서는 지청장급이지. 제주도나 강원도같은 데는 지청장이고 다른 데는 국장이고.

윤씨 집안이 공직에 많이 나갔네요?
옛날부터 그쪽으로 많이 했지.

김씨들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김씨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어.

경제력은 어땠어요, 논밭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가 훨씬 나았지.

윤씨 집안의 재력가라면 누구를 꼽았어요?
윤주신이라고, 지금도 제일 부자지.

이분댁이 가장 부자예요?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으니까. 여기 마을 옆 산 하나만도 4천 평은 되니까.

이분은 몇 년생이세요?
진위면 부면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1943년생일 거여.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였네요?
할아버지가 부자였지. 할아버지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재산을 물려받은 거지.

누구네 양자였어요?
옛날에 큰집이 있었는데 '선전관(宣傳官)'이라고. 그 양반네 양자로 들어가서 재산을 상속받은 거지.

선전관을 지낸 집이네요. 선전관은 높은 벼슬은 아니거든요?
선전관이 뭐 저기인가 봐요, 그냥 낮은 벼슬.

지금으로 말하면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무관 중에서도 낮은 벼슬이죠?
그렇지, 특별한 벼슬은 아니었다고 봐.

그래도 선전관 벼슬을 했다는 것은 시골에서는 양반이라는 증표니까 위세가 대단했겠죠?
그런데 나는 선전관했던 그분을 봤으니까.


칠원 윤씨 판결사공파 묘역

선전관하셨던 분을 보셨어요. 함자가 어떻게 되요?
윤교원, 윤교원이었어.

윤교원이라면?

그 양반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를 했다는데. 이분의 아버지, 삼촌 이런 분들이 출세하셨어. 통정대부도 하고 유원군수라던가 뭐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양반집으로 위세가 대단했겠네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대단했지.

위세가 어니정도였어요?

옛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오산장에 가려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양반 집앞으로 어느 노인네가 담뱃대를 물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자 이 양반이 ‘저놈이 누구 앞이라고 담배를 꼬나물고 가냐’ 며 호통을 치자 그 사람이 평생동안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세도가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저놈 누구 앞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가냐’ 고 말했지.

위세를 보여준 거네요?

그 집을 다 헐어버렸는데 …

그 집 위치가 어디예요. 카페하는 집인가요?

아니 저쪽에 2층집(윤학수의 남동쪽)인데 옛날에 그 집을 들어가려면 대문이 세 개를 거쳐야했다고.

그정도였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옛날에는 고기같은 거를 못 먹잖어. 그럴 때 그 집 울타리를 보수하거나 잔치를 하면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몰려들고 그랬다고. 공짜로 고깃국에 쌀밥을 얻어먹으려고.

잔치하거나 큰일을 할 때 말이죠?

이제 그만큼 잘 살았고 이 근처에서 그집 땅을 밟지 않으면 못 다녔다고 그랬다고.

세도가 대단하고 재력도 엄청났네요. 그러면 천석꾼은 되었나요?

그렇지, 천석꾼은 된다고 봐야지. 세도도 대단했고.

동네 사람들이 이집 땅을 소작도 많이 지었겠네요?

그거는 …

어째든 그집 재산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최고 부자지. 마을 안에 집 주위 땅들만 해도 4천 평이 넘잖아. 산도 1만 평 이상 되

고.

4천 평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주신의 아버지가 말을 못했어요.

언어장애가 있었군요?
그렇지, 그래서 몰락을 한 거지.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옛날의 위세를 이어가지 못했네요?
그렇지.

면장님 옛날에는 농지개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분배농지라고도 하는 거. 그때 농지분배가 잘 됐나요?
어릴 때라, 열 몇 살일 때라. 농지개혁이 아니고 땅을 지주한테 사가지고...

그건 아니예요. 물론 땅값을 지불했지만 강제적으로 소작농들이 기존에 농사짓던 땅을 분배하도록 하고 5년 상환을 하도록 했어요?
맞어, 그집 논들이 많이 줄었어. 안들이라는 하는 데가 있는데 농지개혁하고서도 한두 구간이 남았는데 제일 좋은 물건인데 그것도 2,500평 팔았지. 또 여기 아래에 쪽박산이라고 있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그 사람(윤주신)네 건데 그것도 팔았지. 물론 이 땅도 그 집 건데 우리가 샀던 거고.

마을 주변에서 그집 땅이 아닌 것이 없네요?
그렇지.

윤교영이라던가 윤대선이라던가 그런 분들 들어보셨어요?
그 양반들도 우리집안 저기여.

그분들을 본적이 있어요?
나는 못봤지. 그런데 그양반은 ..... 여기는 안 살았는지.

이분들 후손들은 마을에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윤기선은?
내가 족보좀 가져올게.

윤기선이라는 분이 1849년생이고 무과 급제하셨네요. 이분이 통정대부까지 올랐고. 윤기선의 아

드님은 누구예요?
이분은 자손이 없어. 그래서 양자를 들인 거야.

그러면 윤주신 댁이 윤기선의 후손이군요?
윤교원이라고 이분이 선전관을 지냈어.

그럼 윤교원씨가 윤기선의 조카네요?
맞아 조카지.

조카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선전관집 양자로 들어간 거군요. 윤기선이라는 분은 대한제국에서 시종 벼슬을 했거든요. 족보를 보니 언양현감을 했다는 분이 윤기선이군요?
이 양반도 통정대부를 하셨고.

통정대부에 군수를 했네요?
윤기선이라는 분이 또 있어.

그러네요. 윤기선 이분도 무과급제 후 통정대부를 했고... 이분과 앞서 말씀하신 윤교영이나 선전관 하신 분은 어떤 관계죠?
‘선’ 자 돌림이니까 선전관보다는 윗대지. 앞에 기선은 ‘기’ 자 돌림이고. 이 양반들이 한가닥 한 거야.

그럼 윤교원, 윤교영은 어디에 있죠. 윤기선의 손자벌인데. ‘원’자 돌림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윤광석의 손자?
윤기선이라는 분의 형의 아들이지. 손자뻘이네.

아까 보니까 윤기선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네요. 윤광석이라는 분이?
홍릉 참봉을 했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윤대선은?
통정대부하셨네. 한성사범 나와서 교원(교사)을 하셨네.

윤대선의 후손은?
지금 팽성에 사는데.

팽성읍에 사는군요. 사실 윤기선, 윤대선, 윤교영 이분들이 서탄면 3.1운동의 주동자들이거든요. 특히 사리마을 3.1만세운동이 유명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윤기선, 윤대선, 윤교영의 역할이 컸는데 이분들의 흔적을 여쭤본 겁니다?
항렬에서 ‘선’ 자 들어간 분들의 활동이 대단했다고.

제가 보기에도 ‘선’과 ‘교’자 들어간 분들의 활동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기선, 대선 이런 분들이 양자를 들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자손이 끊겼어.

이분들의 양자가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부자(윤주신)와 관련 있는 거지요?

아냐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럼 3.1운동을 주도한 윤기선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 달원이고 손자가 종원, 종만이고 여기서 대가 끊긴 거지. 이 사람들이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 살아요?

낳아주신 아버지는 종원이고, 동수씨도 돌아가시고, 손자가 있는데 상현이고, 상현이가 지금 팽성에 살지. 동생 윤상훈은 무슨 동사무소 사무장을 하다가 시청 어디에 있다고 하던데. 팽성사니까는 제사 때나 한 번씩 만나는 거지...

산소는?

우리 산소는 저 산(매봉산) 너머에 있는데 납골묘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다들 여기 계신다고.

김씨네 산소를 넘어서 가는 건가요?

그렇지, 김씨네 산소는 근래 만든 거고. 우리 산소는 서탄초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조금 못미처 금암1리에 방죽이 있어. 방죽에서 둑방 따라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우리 산소가 있어.

이곳에 칠원 윤씨 충효공파만 있어요?

그렇지.

대원공파는 다른 곳에 있나요?

다른 데 있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칠원윤씨 그리고 윤기선이나 윤대선같은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동네로 볼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 양반들이 달원이고 기선씨고 대단한 양반인데 손이 끊겨서 그 형도 죽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관심했어. 양자로 들어가니까 산소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지.

더군다나 둘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네요?

양자로 들오가서도 자손이 많고 하다못해 면직원이라도 했으면 관리도 하고 챙기기도 했을 텐데 자손이 끊겨 양자로 들어왔으니 관심이 없는 거지.

다른 이야기를 할께요. 이 동네에 성공회 교회가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 교회가 있었데.

직접 보셨어요?
어디 있었다는 것만 대충 알어.

어디였어요?
저기 우리마을 당(마을제당) 있잖어. 그 아래에 있었다고 그래.

성공회에서 학교도 운영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모르겠고. 참고로 내가 말하면 저기 보이는 산(마을 서북쪽 산)이 매봉산이거든. 그런데 요쪽이 조탁지라고 그랬어. 새가 보기를 매봉산이 ‘매’ 모양이잖어. 우리 마을이 매가 모이를 쪼는 위치에 만들어졌데. 그래서 ‘조탁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노력만 하면 출세한다는 데다 여기여.

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 형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 뒤가 면장 아녀. 옆이는 교장이지, 우리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면장님댁 주위가 조탁지라는 말이죠?
그렇지. 새가 모이를 쪼는 장소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출세하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선조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집을 팔지말고 왠만하면 후손에게 물려줘라 그러셨어.

그럼 이 집자리를 구입한 것은 언제예요?
집터를 구입한 게 한 50, 60년은 될 꺼여.

아버님이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부친이 윤주신씨 댁에서 매입한 거네요?
그렇지 아버님이.

그래서 팔지 말라?
윤주신의 삼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맡아들(윤주신의 부친)이고 삼촌이 지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똑똑했어요. 옛날에 지수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자기 형님이 말을 못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한 거지.



윤학수의 집과 텃밭

집안 대소사를 삼촌이 다 처리하신 거네요?
그렇지.

어째든 윤주신씨 댁으로부터 구입한 거네요?
그렇지.

윤주신씨 댁에서는 그런 내용을 몰랐나요?
....

면장님 할아버지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서탄면 면서기였어.

언제요?
왜정 때지.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기억에 없고.

조부님 함자가 어떻게 돼요?
... 나이가 먹으면 가물가물해. 교헌, 윤교헌.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면사무소에서 재적등본을 떼오니까 이것이 너희 할아버지 필체라고. 아마 호적계에서 무슨 자리를 했나 봐.

면서기만 했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대단히 교육열이 심했어.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은 가르치려고 ...

아버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독신이야 독신.

독자였어요?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독자였어. 내 동생이 중학교 때 태어나서 그렇지.

부친 함자는?

윤영흠.

부친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농사지었나요?

그냥 특실하게 농사꾼이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은 가르치겠다’ 라고 생각한 거지.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수원으로 학교를 간 것은 나 하나요. 그래서 수원농고가 옛날에는 최고였지. 먹고 살기 힘든데도 우리 아버지가 거기를 보낸 거지.

아버님이 교육에 대해 한이 많으셨네요?

그렇지.

면장님의 형제는?

우리 형제들. 우리는 형제가 많지. 누님이 둘,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5남매네요?

나는 수원북중을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 형편에 수원으로 진학할 엄두가 안날 정도야.

아버님 계실 때 논이 몇 마지기였어요?

한 15마지기쯤 되었던 거 같아. 그중에 한 자락은 처갓집에서 사준 거래.

그런 형편에 자녀교육에는 남다른 열성을 보이셨네요?

대단한 거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양공대를 합격했어도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갔어. 그래서 바로 해군으로 지원해서 군대를 간 거지.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을 못했네요. 그게 한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나는 부모에게 원망은 안 해. 어쨌든 우리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가르친 거니까. 나도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최고라는 거야.

수원북중에 진학할 때는 시험을 치러서 갔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시험을 봐야 갈 수 있지.

그러면 서탄초에서는 공부를 잘하셨네요?

요 근처에서는 최고였지.

당시에 수원고와 수성고 수준은 어땠어요?

수성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신설됐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기만 하면 가는 거야. 김상회 아버지도 수성고를 나왔는데 그집 아버지도 교육열이 대단해서 수원으로 학교를 보냈어.

수원고등학교는?

거기는 괜찮았어. 삼일상고도 있었고.

수원농고에 진학했으면 명문고에 간 거네요. 집에서 부모님도 뿌듯해했을 거고?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해군에 입대한 거네요?

그려. 해군을 갔을 때도 운이 좋았는지 위생병과로 배정되어서 거기에서도 1등을 했어.

위생병 후반기 교육을 말하나요?

내가 위생병 94기인데 94기부터 96기까지 한데 모여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100명이 다 되는 인원인데 1등을 했어. 해군에 있을 때는 규칙이 1등을 하면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있어.

훈련소 후반기 교육에서 1등하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고 싶냐고 그래. 해군본부 의무감실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리로 보내더라고.

좋은 데 계셨네요?

군대생활도 없고 맨날 장교들이 시키면 대칠이나 하고, 집에 가서 뭘 가져오라고 하면 그거나 가져다주고 그러면서 지냈지.

전역 후에는 뭐했어요?

제대하고는 바로 1년 있다가 공무원 시험을 봤어. 그때가 최초로 공무원 시험이 생겼어.

그러면 1969년도에 시험을 본 거네요?

아니 1966년도.

그럼 경기도 것을 봤어요, 평택 것을 봤어요?

나는 경기도. 행정직으로.

1966년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거네요?

그렇지, 경기도 공무원시험 행정직이지. 농림직이랑 다른 것은 쉬웠는데 행정직은 어렵지.

발령은 어디로 났어요?

합격하니까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평택군으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에 포승면으로 발령을 내주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나는 독신이니까 나는 포승으로 옮겨갈 수 없으니 서탄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부탁하라' 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승으로 발령을 내길래 '나는

안 간다’ , ‘서탄면으로 발령을 내기 전에는 안 간다’ 고 했더니 당시 서탄면에 이진우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를 넣어주더라고.

그렇게 서탄면에 임용된 거네요. 그러면 서탄면에서 본청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탄면에 근무하다가 팽성 개발과장 조금 하고 그다음에 군청 병무계장도 했고. 관리계장도 했고. 그다음에 서탄면장으로 온 거지.

대부분 서탄면에서 근무했네요. 공무원을 몇 년 하셨어요?

33년, 군인까지 36년을 했으니까는.

그럼 몇 년도에 퇴직한 거예요?

1998년. 그 당시에 면장(面長)은 정년이 있었어요.

맞아요. 전에는 별정직으로 하다가 1990년대 중반쯤 정년제가 시행되었죠?

당시에는 정치면장들이 많았어. 국회의원들 빽으로 들어오고, 군수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때 정리되었지.

평택시 의회 의장도 지내고 안중농협장도 지내고 청북면장, 팽성읍장도 지낸 이익O씨 같은 분도 그렇게 발탁된 분이죠?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정치감각이 뛰어나더라고. 내가 병무계장을 할 때 이 사람이 면장을 했잖아. 내가 불시에 방문해서 뭘 요청해도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준비해뒀다가 탁하고 가져다주고 설명하더라고.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정도가 아니야.

결국 나중에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형이 나하고 동창이여. 수원농고 동기동창이어서.

이익O씨 형님은 나중에 뭘 했어요?

이문O라고 시청 국장까지 했지.

마을이야기좀 여쭐께요. 면장님 어릴 때는 몇 호나 되었어요?

그때도 컸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80호가 넘었을 거야. 세대 수는 지금이 많아도 호(戶)는 그대로야. 큰 변화가 없어.

마을에서 경제력이 윤씨가 좋았다고 했는데 김씨 중에도 부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동이라고 여기 다방(카페)을 하는 사람. 김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증조할아버지가 갑부였어.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김태동씨 증조부가 갑부였단 말이죠?

그렇지. 부자였어도 인심이나 신용을 잃지는 않았어. 내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님이.... 옛날에는 가마니를 쳤잖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가마를 치는데 무릎을 베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가마니짜고 있는 우리 아버지 무릎을 베고 돌아가신 거여. 그래서 장례비용이 필요했는데 김태동네 증조할아버지에게로 돈을 빌리러 갔다는 거야. 그때는 장례 치를 때 돈이 많이 들잖아. 그게 내가 생각해도 같은 값이면 윤씨니까 윤주신네로 갈 텐데. '장례비용이 없으니 돈을 좀 꿔주시오' 라고 했는데, 옛날 장리는 곱장리라고. 한 가마를 빌려오면 두 가마를 갚아야 했어. 그랬더니 두말 안 하고 선뜻 빌려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주니까 이자는 받지도 않고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러더라고. '이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잘해라.' 그래서 나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집은 5만 원씩 부조해도 꼭 10만 원씩 했어. 옛날에도 꼭 10만 원씩 했다고.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했네요?

옛날에는 부자하면 욕을 먹잖아. 그런데 그 집은 욕알 안 먹고 했던 거야.

그집은 김태동씨 증조부 뒤로는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김태동의 할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술태보여. 김진연씨라고 아주 술을 좋아했어.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

일찍 작고했고요?

또 그 아들도, 그러니까 김태동의 아버지지. 그 양반도 그렇게 술을 좋아했어. 그래서인지 이분도 일찍 돌아갔어.

두주불사였으면 집안 재산을 돌보지 못했겠네요?

많이 탕진했지. 그런데 지금도 부자야. 우리 동네에서는 윤주신네가 가장 부자지만.

지금 김태동씨가 카페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지.

나이는?

환갑 조금 지났을 걸. 그 사람도 착실해요. 이장도 보고 착실해요. 마음 쓰는 것도 잘 써.

그 성품이야 어디 가겠어요. 사리에 이동조합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 관계는 인정할만 하지. 그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



사리이동조합 정미소 터에 건립한 마을회관과 조합창고

평택지역에서 사리처럼 협동조합을 오래 운영한 마을이 세 군데쯤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리가 가장 우수한 것 같아요. 사리이동협동조합은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조합장을 했었는데...

창립할 때 중심인물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중심인물이 윤준학씨, 우리 아버님, 또 있는데... 김구혜 아버지. 셋이서 기본여.

아버님은 함자가?

윤영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교육을 다녀왔어. 그런데 갔다 오면서 뭘 지고 오셔 이만한 것을.

아버님은 언제 작고하셨어요?

1987년도.

윤준학 조합장은?

그 양반은 더 일찍 돌아가셨지. 이 양반들은 우두머리 노릇을 한 거고 실제 역할을 한 사람은 김동현이라고 그 사람이여. 동네서는 댕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서기를 했다고. 밑에서 그런 거를 다 했다고.

실무적 역할을 다하셨네?

옛날에는 결산을 하더라도 전부 다 주판을 가지고 한다고.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갔어. 그런데 뭘 쥐고 있더라고. 옛날에 백노지라고 있잖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백노지야. 그걸 100장짜리를 교육받을 때 받았던 프린트를 조합원들이 문서작성할 때 쓰라고 그걸 인쇄로 찍어왔더라고. 옛날에는 종이가 무척 귀한 거 아녀.

귀했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뒷면을 서류 작성하고 할 때 쓰라고 가져온 거야.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기록이 다 있으니까. 첫 번째 할 때 기본 출자금이 쌀 한 말이고 농사가 많은 사람은 세 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 말, 어려운 사람은 한 말로 조합을 만든 거야. 그것으로 조합정미소를 만든 거고.

조합정미소 전에 마을에 정미소가 있었나요?

있었지.

그럼 마을 정미소와 조합정미소는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조합정미소가 만들어지고 스스로 없어졌지. 김태동네도 정미소가 있었고... 스스로 없어졌지.

조합정미소가 도정비가 싸서 기존의 정미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요?

두 가지 장점이 있었어. 도정비가 쌌고 적립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줬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돈이 모이니까 쌀이 모이니까 그 당시에 바깥에 나가면 쌀 한 말에 다섯 되 장리를 놨다고. 그런데 조합에서는 싸게 대여를 했어. 조합원은 세 되, 두 되씩만 이자를 받았어. 조합원에게만.

조합 가입만 하면 큰 이득이네요?

그렇지. 옛날에는 장리(長利)도 50% 장리가 많았고 그 옛날에는 곱장리도 있었다고. 곱빼기였어. 그다음에 닷되 장리고, 나중에 서되.

그런데 20%, 30% 이자만 받으니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이익이네요?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조합이 큰 의지가 되네?

그러니까 단합이 잘 되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저기 다리(사리교) 놓을 때도 쌀 100가마를 조합에서 냈을 걸.

저 다리는 언제 놨어요. 저게 1960년대에 놓은 건가요?

우리 어릴 때는 나무로 말둑을 박고 위에다가 구멍뚫린 철판(아나방)을 위에 깔고 다녔지.

그게 6.25 후인가요?

그럼 6.25 후지.

나무다리 그러니까 섶다리에 아나방을 놓은 거네요?

그렇지, 나무다리에다가 비행장 철판, 하루방인가 뭔가 그걸 깔고 다녔지. 그것도 장마만 지면

떠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다시 해야 하니까 힘들었지.

이 다리를 콘크리트로 바꾼 것은 군대가기 전이예요 후예요?
군대 가기 전인데.

그럼 이동조합 설립 초기인데요?
내가 1961년도에 갔으니까.

그럼 최소한 1960년에 놨다고 봐야하네요?
그렇지, 콘크리트 다리로. 조합비로 다리를 놓은 거지.

당시에는 다리를 놓는 것이 마을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네요?
그렇지, 최고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다리 말고도 조합 이익금으로 새마을사업도 추진했다고 들었거든요?
새마을사업은 특별하게 돈을 투자한 것은 없고.

누가 주도했어요?
사실 면사무소에서 주도했지. 내가 서탄면 총무계장을 할 때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동원시키면 마을에서 150명이 나와. 애들이랑 다 나오니까. 앞에 사람이 이유를 대면 내가 총무계장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는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한참 떠드는 거여. 그런데 동네가 단합이 잘 되다 보니 인원이 150명이다 보니 15분 20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일을 다 해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따지고 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사리마을이 그런 맛이 있죠?
그러니까 마을 안길 확장을 할 때도 3m 폭인데 그냥 되더라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넓히는 거지. 당시 사람들이 참 양순했지. 그리고 단합이 잘 되서 다른 마을은 새마을사업한다고 난리 치는데 우리는 잘 됐어. 여기 도로가 곧바르게 된 것도 그때 한 거여.

새마을사업을 이끌었던 분은?
윤종만이라고 지금은 죽었는데.

이분이 이장을 한 건가요?
그렇지. 최고 공로자는 공상열씨여. 그양반도 참 착실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지금 시청 과장이지 공재영이라고. 저 앞집이 그집이여.

공상열씨가 지도자였네요?
그양반은 내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새마을지도자여.

공상열씨가 했던 역할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새마을지도자인데 사람이 착실하니까 인원 동원도 잘하고 그 양반이 나오라고 하면 다 나와.

그리고 동네 초상나면 염해야 되잖아. 염은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지. 그 양반은 그것도 해여. 잠도 안 자고 나서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모두가 인정했어.

솔선수법을 했네요?

진짜 새마을지도자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사리 마을안길과 사리교

새마을운동 때 지붕개량하기 전 마을에 기와집이 있었나요?

있었지.

누구네집요?

지금은 헐렸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 마포구청에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 서울 마포구청에. 그 양반인데 지금은 마을을 다 떠나고 없지.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가물거리네. 김씨인데 아들이 '시대장' 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

김태동씨 댁은 기와집이 아니었나요?

그 후에.

새마을운동 뒤에 기와집을 지었나요?

그렇지.

윤주신 댁은?

윤상권으로 되어 있어. 이 사람네도 초가였다가 기와로 바꿨고.

새마을운동 시기에 기와집을 지은 건가요?

그때는 기와보다는 함석집이나 슬레이트집이 많았지. 초가집을 함석집이나 슬레이트집으로 바꿨다가 기와집으로 바꾼 거여.

마을 전체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슬레이트나 함석집으로 바꿨네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다 초가집이었지.

사리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부녀회 역할이 컸다면서요?
부녀회, 그것도 자랑스런 역사라.

부녀회를 이끌었던 분은?
최정희, 지금은 치매가 와서 고생하는데.

나이는?
아마 90세가 안됐을 걸. 88세인가. 그 사람이 고종사촌을 나에게 중매한 거야.

그럼 남이 아니네요?
남이 아니지. 그러니까 외사촌 동서간이지.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부녀회장을 하면서 최초로 양묘장을 했는데, 미루나무를 잘라 심어서 묘목을 길렀다고. 이양반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읍면장들, 동장들이 와서 양묘장에서 교육을 했다고.

현장교육을 할만큼 대단하고 모범적이었네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 불도저 내무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김현옥이, 이 양반이 여기에 몇 번 왔었어. 그래가지고 상도 타고. 부녀회가 잘되니까는, 부녀회는 인력동원이 가장 중요하거든.

부녀회가 언제까지 잘 운영되었어요?
…

부녀회는 요즘에 어렵죠?
새마을운동이 시들하면서 이것도 힘들어진 거여. 그래서 동네가 길을 낸다고 하면 별로 이의가 없어. 동네사람들이 온순하고 단합이 잘됐어. 어쨌든 동네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을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거죠?
아참 아까 새마을운동 이야기하면서 마을에 공헌한 사람으로 김인희라고 있어.

김인희 부면장님요?
나 면장할 때 총무계장을 했는데 참 열심히 했어. 성격도 외고집이고.

지금 건강이 많이 안좋으시던데요?
몸이 좋지 않지. 특히 무릎이 안 좋아. 나보다 두 살 위인데. 성격이 깐깐하면서도 화끈해서 일을 하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여.

김인희 부면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던 가봐요?
그렇지. 공직자로 일하면서 새마을 담당도 하고. 같은 공직자지만 누구는 협조를 안했어. 마을 사업에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대우를 못 받아.

김인희 부면장님 총기는 괜찮죠?
괜찮아. 아들이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했지.

사리 다리 넘어서 사시잖아요?
원래 당집 옆 초가집에 살았는데 거기다가 집 짓고 살고 있지.

오래전에 김인희 부면장님이 이동조합 서류도 보여줬어요?
그 사람도 이동조합 서기도 했어.

사리만큼 이동조합 서류가 잘 된 마을도 없더라고요?
농업박물관에 보관되었어.

홍성각 이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사실 굉장한 자료인데 아쉽죠?
이동조합도 나중에 정미소 사업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창고만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하나 갖고 맹탕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돈이 많았으면 부동산이라도 하나 사죠?
어디 투자할 곳도 없어, 국가에서 다 해줘서.

평택에다가 건물이라도 하나 사서 이익좀 보시죠?
아 뭐, 그때 공헌한 사람들은 죽고 없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돈을 왜 꽁꽁 묶어만 두냐고 뭐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을 회의에서 가결이 되가지고 해체되었지.

언제요?

한 7~8년쯤 됐을 거여.

그럼 2015년쯤 되네요?

그렇게 했는데 법을 알아야 해산할 거 아녀. 그래서 나를 조합장을 세운 거여. 그래서 많이 알지. 그래서 저걸(창고) 팔았더니 소송이 걸려가지고 또 3년을 고생하고.

마지막에 남았던 재산이 방앗간과 창고였는데 방앗간은 마을회관이 되고 창고는 매각한 거네요?

그렇지 저기 길옆의 창고는 매각한 거고.

누구한데 매각했어요?

아니 정식으로 부동산 통해서 팔았는데,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공공시설을 그냥 지은 거 아녀.

그렇죠?

창고 지은 땅이 팔려고 보니까 대지가 아니고 전(田)으로 되었더라고. 팔려고 보니까 관공서에서 불법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허가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헐어버린다고 하고서 등기를 옮겨갔어. 등기를 이전하니까 관공서에서는 헐어버리라고 할 거 아녀. 그러자 이놈들이 나에게 쫓아와서는 위원장님도 관계되었으니 면사무소에 가서 말 좀 해가지고 건물을 헐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여. 그런데 성격상 나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랬더니 전(田)인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매각했다고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나하고 중개인하고, 부동산연합회 뭐 이렇게 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 이기니까 나는 빼놓고 중개인하고 부동산연합회만 걸어서 항소를 했더라고. 우리는 재판을 하면서 들어간 변호사비를 받았지. 그 돈이 1천만 원은 되는데 400만 원쯤 받았어.

여 백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V.

서탄면 수월암리 마을조사



김해규

여 백

Ⅳ. 서탄면 수월암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과 지명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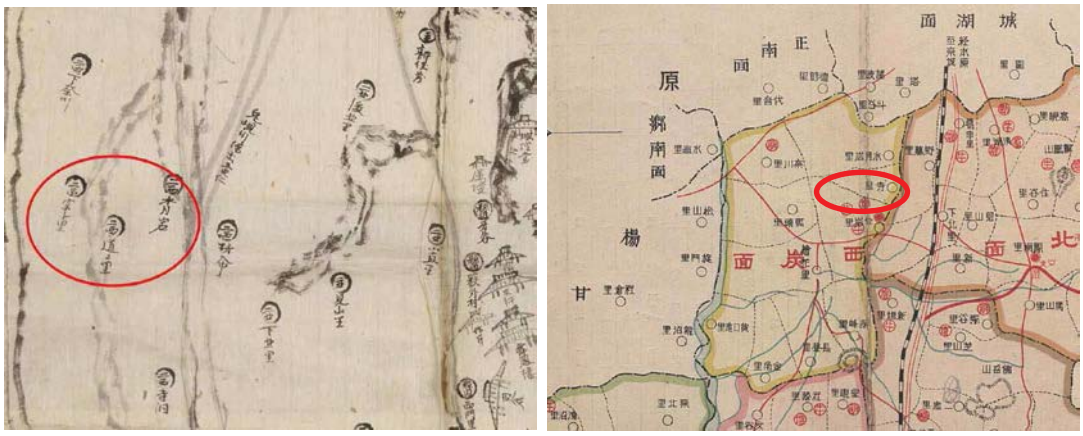


수월암리 전경

수월암리는 동쪽으로는 오산천, 서쪽으로는 황구지천 사이에 형성되었다. 북쪽으로는 발안에서 오산방면으로 향하는 82번 지방도를 경계로 화성시 팔탄면, 오산시 두곡동 등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사리, 금암리, 마두리와 경계를 이룬다.

역사적으로 수월암리는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천장부곡’ 이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세기 전반에 작성된『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 고적조에도 “천장부곡(川場部曲) 현 서쪽 13리 지점에 있다” 라고 쓰여 있다.

부곡(部曲)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 사이에 정복지거나 반란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인구와 생산력이 낮은 지역에 설치했다. 주민들은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주현이나 주군의 통제를 받았고, 조세와 부역을 더 많이 수탈당했으며, 주민들도 농민이나 수공업자였지만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여기에서 향(鄕), 부곡(部曲)은 농촌이고 소(所)는 수공업자 마을이었다.



1891년『진위읍지』지도 및 1929년『진위군세일반』의 수월암리

수월암리는 지형적으로 구릉이 넓게 발달하고 계곡과 하천 변을 중심으로 논과 밭이 발달했다. 마을은 구릉과 하천부지가 만나는 지점(수월암1리, 수월암3리)이나 구릉의 분지지형(수월암2리)에 발달했다. 경작지는 본래 분지지형이나 계곡을 중심으로 밭농사가 발달하다가 조선 후기 궁방전이나 역둔토, 사찰의 토지 등으로 간척이나 개간이 이뤄지면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선 전기『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땅이 메마르다"고 했으며 생산물도 벼나 보리와 같은 곡물보다 잡곡이나 약재가 생산되었다.



수월암리의 공간적 범위

해방 후에는 계곡 사이의 평야지대나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벼농사와 보리농사가 발달했다. 또 수월암2리의 경우에는 해방 후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과수농업이 발달했다. 현재도 토박이들은 농업에 종사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월암1리, 2리, 4리일대에 산업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공장지대와 농업지대가 뒤섞인 상태다.

생활권은 오산이나 발안과 가깝다. 특히 거리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오산과 연계되어 학교, 장시(場市), 철도, 시외버스를 오산에서 이용했다. 근래에는 평택시에서 송탄-금암리-수월암리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송탄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있다.

2) 인구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5세기 중반 진위현의 호(戶)는 221호, 인구는 535명이라고 하였다. 당시 진위현의 범위는 오늘날 진위면과 서탄면, 지산동 일부에 불과했다. 전체 호구(戶口) 가운데 읍치(邑治) 주변 인구가 120호 정도였다면 서탄면 지역에는 100여 호 미만이 거주했을 것이다.

같은 기록에는 "진위현은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2,841결"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간전(墾田)은 '경작하는 땅'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까지 서탄면 일대에는 '천장부곡'이 설치되었으며, 주요 생산물도 벼와 보리, 밀같은 주곡보다는 오곡과 조, 팥, 녹두, 참깨, 뽕나무와 삼, 약재뿐이었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이서면에 야막리, 걸호리, 내천리가 있었고, 호(戶) 137호, 인구 478명으로 나와 있다. 앞의 마을 수월암리와 관련된 마을은 걸호리로 짐작된다.[1] 3개 마을의 호(戶)가 137호라면 평균 40~50 수준의 마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수월암1리의 자연지명이 '거리미'인데 이것이 한자화하면서 걸호리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수월암리 인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해방 후 편찬된 『지명조사철』과 『평택군 통계연보』이다. 1956년 편찬된 『지명조사철』에는 수월암리 전체 호(戶)는 94호이고, 인구는 545명이라고 기록했다. 마을 별로는 수월암1리(뒷거리미)는 21호(戶) 139명, 2리(도도리)는 50호(戶) 267명, 3리(깊은다리)는 23호 139명이었다. 다음은『통계연보』에 나타난 인구 변동이다.

1964~2023년 수월암리 인구 변동[2)]

연도		호(세대) 수	인구(세대)	남(명)	여(명)	비고
1964		101	585	287	298	12월 말 기준
1969		104	574	298	276	12월 말 기준
1976		131	701	365	336	12월 말 기준
1980		119	695	334	361	12월 말 기준
1985		187	797	416	381	12월 말 기준
2003	1리	50	121	71	50	12월 말 기준
	2리	110	289	155	134	12월 말 기준
	3리	58	141	81	60	12월 말 기준
	4리	116	253	152	101	12월 말 기준
2010	1리	48	104	62	42	12월 말 기준
	2리	139	281	163	118	12월 말 기준
	3리	74	159	93	66	12월 말 기준
	4리	120	231	135	96	12월 말 기준
2017	1리	59	113	64	49	12월 말 기준
	2리	132	242	147	95	12월 말 기준
	3리	76	154	88	66	12월 말 기준
	4리	114	201	114	87	12월 말 기준
2023	1리	63	91	58	33	8월 16일 기준
	2리	124	210	121	89	8월 16일 기준
	3리	81	142	95	47	8월 16일 기준
	4리	101	173	98	75	8월 16일 기준

『통계연보』의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경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2000년대 초가 되면 334세대로 급증한다. 이것은 수월암리 일대의 공업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20여 년 동안 완만히 증가하여 2023년 8월에는 369호가 되었다.

3) 성씨

2) 평택군, 『평택군 통계연보 』, 1965~1985 및 서탄면 인구통계

조선시대 수월암리의 성씨 분포와 변동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읍지(邑誌)와 지리지(地理志)에 수록된 대표 성씨는 확인할 수는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진위현의 대표 성씨다.

조선시대 진위현의 성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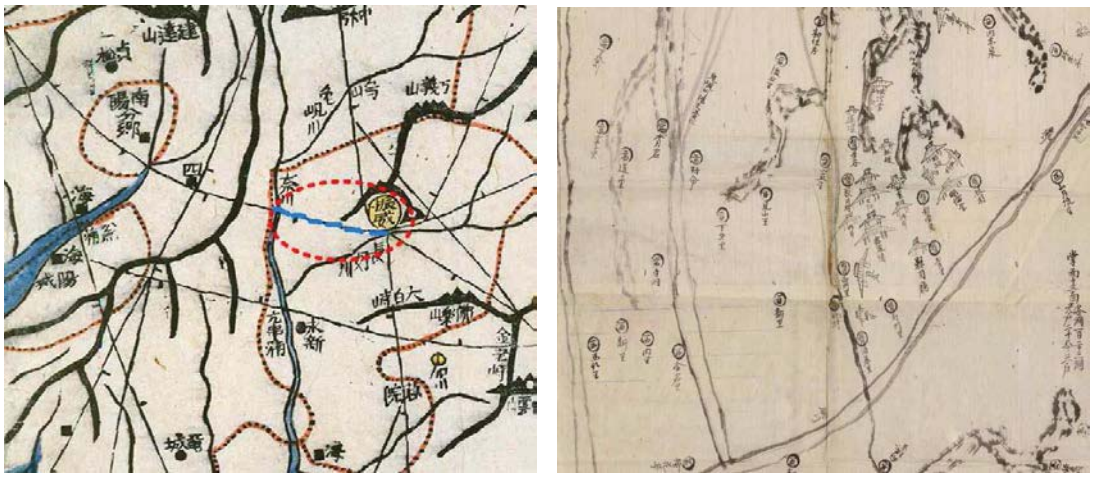
지역	출처	시기	성씨		
진위현	세종실록지리지	1454(단종2)	土姓	亡姓	續姓
			李·金·崔	柳·宋	趙(稷山來)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중종25)	金 · 李 · 柳 · 崔 · 宋		
	여지도서	1757~1765	金 · 李 · 柳 · 崔 · 宋 · 吳 · 黃		
	진위현 읍지	1843(헌종9)	金 · 李 · 柳 · 崔 · 宋		
	진위현 읍지	1891(고종28)	金 · 李 · 柳 · 崔 · 宋		

수월암1리 거리미는 원주 원씨, 파평 윤씨, 전주 이씨가 대성(大姓)이다. 수월암2리 도도리는 곡산 강씨가 대성(大姓)이다. 강영배(남, 1949년생)는 곡산 강씨 19대손이다. 곡산 강씨는 13대 때 입향했다. 8대 250년쯤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주 동기는 알 수 없다. 이들은 194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60호 중에서 45호가 거주했다. 다른 성씨로는 경주 최씨가 많았다. 경주 최씨는 곡산 강씨가 45호일 때 10호쯤 거주했다.

수월암3리 심교(깊은다리)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가 대성(大姓)다. 이길현(남, 1949년생)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후손이다. 해방 후 이길현의 증조부가 이웃 마을인 내천2리에서 이주했다. 수월암4리는 1995년 수월암2리에서 분동(分洞)되었다. 화성시, 오산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공장들이 난립하였고 토착 성씨들도 없다.

4)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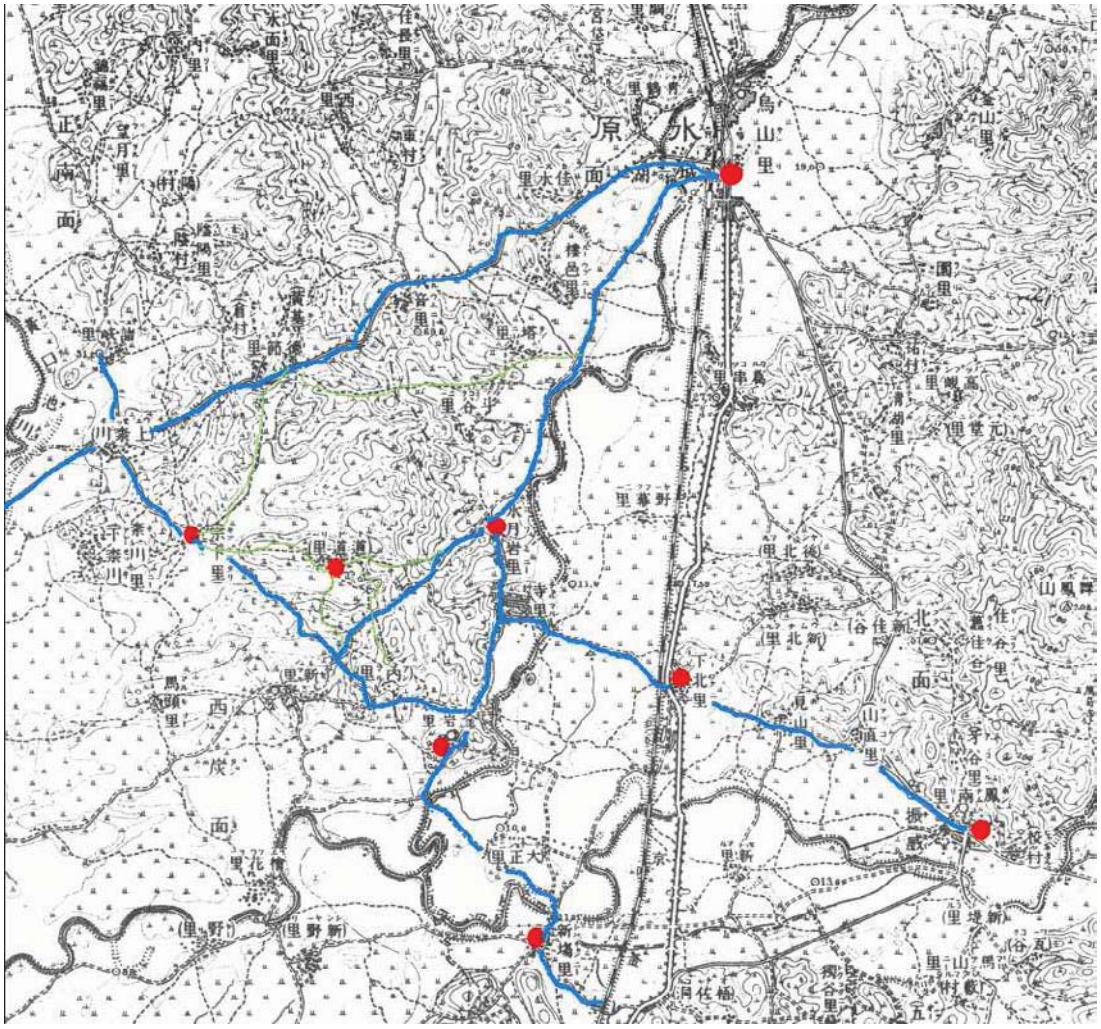
수월암리는 서탄면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진위현의 읍치(邑治) 봉남리와도 교류가 있었지만 오산시나 화성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며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조선후기 수월암리는 교통의 오지였다.



대동여지도 봉남리-수월암리 도로(우), 1891년 『진위현읍지』 지도

위에 제시한 19세기 중엽 『대동여지도』와 1891년 『진위현 읍지』 지도를 보면 『대동여지도』에만 봉남리-내천리 사이의 도로가 표기되었다. 이 도로는 화성시(옛 남양도호부) 발안 부근의 분향과 정송 방면으로 나아간 것을 알게 한다. 수월암리 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해 발안장을 오갔을 것이며 서해안의 어염(魚鹽)을 들여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도로가 수월암리 주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1891년 『진위현 읍지』 지도에는 봉남리와 수월암리 사이의 교통망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월암리가 근대교통과 연결되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판단된다. 일제는 서탄면, 진위면 일대의 간석지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일본인 농장과 ‘진위흥농’ 같은 농업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생산된 식량은 열차를 통해 인천으로 실어나른 뒤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를 위해 국도 1호선과 연결된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탄면과 수월암리도 근대교통과 연결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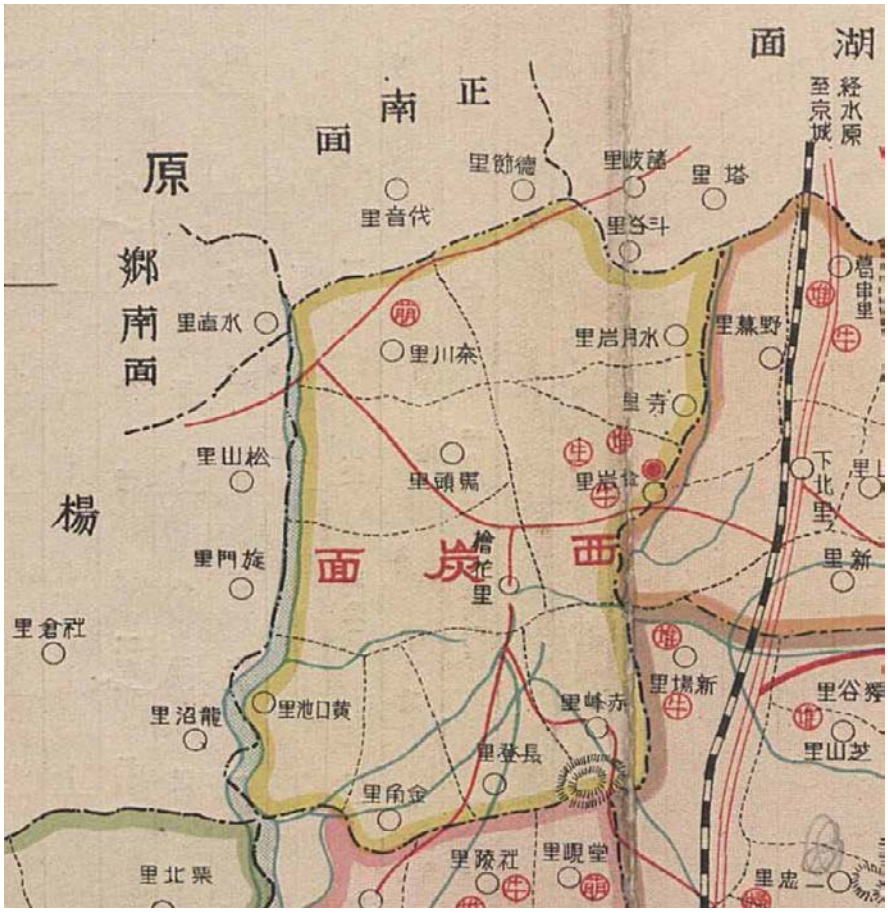
1922년 근대지도의 수월암리 도로망

위 지도는 1914년 실시된 행정구역개편 내용을 반영한 1922년 근대지도이다. 근대 이후 서탄면, 진위면 일대는 철도와 국도 1호선이 건설되고 주변 습지가 개간되면서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오산역전에 발달한 근대도시 오산과 오산장의 발달은 인접지역인 수월암리에 많은 영향

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한다.

6.25전쟁 뒤에는 신장리(동) 일대가 근대도시(기지촌)로 발전했다. 신장동은 조선 후기 진위현의 읍치(邑治)였던 진위면 봉남리와 진위현 해창(海倉)이 있었던 고덕면 해창리 구간의 길목에 위치하여 장시(場市, 구거리장, 신장)가 발달했다. 그러다가 6.25전쟁 중 K-55오산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정문 앞에 기지촌이 발달하면서 근대도시로 성장했다.

반면 철도와 도로 등 근대교통망에서 소외된 진위면 봉남리 옛 진위현의 읍치(邑治)는 급격히 쇠락하였다. 우선 1914년에는 진위군청이 경부선 평택역 앞 평택리(군문리)로 이전했으며, 근대교통의 발달로 조선 후기 삼남대로의 기능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주막거리와 진위읍내장은 크게 쇠퇴했다. 일제강점기 봉남리는 근대교육의 중심지로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수월암리에서도 1930년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진위공립보통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음은 1929년에 발간된 『진위군 군세일반』의 행정지도이다.



1929년 『진위군 군세일반』 지도의 서탄면 도로망

1929년 『진위군 군세일반』의 행정지도는 1930년 전후의 근대도로망을 잘 보여준다. 1929년이 되면 진위면 하북리 국도 1호선에서 갈라진 서탄로가 금암교를 건너 금암2리와 3리-마두리-내천1리를 지나 내천2리 북쪽에서 화성시 발안-오산 간 82번 지방도와 만나도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서탄면의 각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小路)가 연결되었다.

소로(小路)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길은 금암교에서 금암1, 2리를 거쳐 수월암2리-수월암3리를

거쳐 내천2리에서 82번 지방도와 만나는 서탄로이다. 서탄로는 도보로 발안장을 갈 때 최단거리여서 통행량이 많았고 내천2리 부근에는 서낭당도 있었다.

근대도로망과 이와 연결된 소로(小路)가 형성되면서 금암2리가 교통의 요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서탄면사무소도 금암1리에서 2리로 이전했으며, 해방 후에는 경찰지서, 1930년에는 서탄초등학교 등이 자리 잡았다. 도로가 지나는 길목에는 주막이 발달했다. 1911년 작성된 『조선지지자료』 경기편에는 종복리(수월암 3리)의 심교주막과 하내천의 조산점을 언급했다. 종복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까지 수월암3리의 행정 지명이었다. 종복리는 단일마을로 마을 앞 하천에 낮은 돌다리가 있어서 ‘깊은다리’, 한자로는 ‘심교(深橋)’라고 불렀다. 하천과 다리가 있다 보니 발안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고 그래서 주막이 발달했다고 판단된다.

깊은다리(심교)에는 전설이 전해온다. 깊은다리 앞의 서밭이천은 하천 폭이 좁아서 평소에는 바지만 걷어 올리면 쉽게 건널 수 있었지만 조금만 비가 많이 내리면 범람하여 건너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해 힘쎈 장사가 나타나 큰 바위를 머리에 이어다가 하천 사이에 돌다리를 놨다. 이 다리가 둑방 아래 낮은 곳에 있어 깊은다리라고 불렀고 이것이 나중에는 마을 이름으로까지 명명되었다. 주민 이길현(남, 1949년생)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돌다리였으며 콘크리트 다리를 놓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말했다.



깊은다리에 놓인 수월암교와 서밭이천

주민들에 따르면 수월암1, 2리에서 서탄면소재지 금암2리까지는 5리(2km)라고 하였다. 하지만 마을마다 거리 차이가 있어 1995년 분동(分洞)된 수월암4리까지는 약 3.5km쯤 되고, 수월암2리에서는 2km가 안 된다. 수월암2리의 강영배(남, 1949년생)도 옛날에는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지금은 힘이 빠져서 30분은 걸리지만 통상 5리쯤 된다고 말했다.

오산까지는 10리길이라고 했는데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수월암1리는 3km쯤 된다고 말했지만 수월암 3리는 10리가 넘을 거라고 말했다. 해방 전후 오산장까지는 걸어다녔다. 오산장을 갈 때는 수월암1리로 연결된 당고개를 넘어 오산천 둑방을 따라 걸었다. 발안장은 193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많이 다녔다고 했지만 오산장이 발달하면서 주로 오산장으로만 다녔다.

6.25전쟁 뒤 신장동에 기지촌이 발달하면서 지산동 숯고개 아래와 신장1동에 장시가 발달했다. 지산동의 장시는 ‘아침장(현 송탄시장)’이라고 했고, 신장동의 시장은 ‘저녁장(오후장, 중앙국제시장)’이라고 불렀다. 수월암리 사람들은 지산동까지 연결된 버스노선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아침장을 많이 봤다. 주민들은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았지만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아침장까지 걸어서 갈 때는 금암1리를 거쳐 오산천을 건넌 뒤 하북2리를 지나 진위천을

건넜다.

서정리역으로 가는 길은 금암2리-회화리-야리-금각2리(농소리)-고덕면 문곡리 황조곡을 지났다. 이 길은 서정리역으로 가는 최단거리였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지 않았다. 특히 철도는 오산역을 이용했기 때문에 굳이 먼 길을 걸어서 서정리역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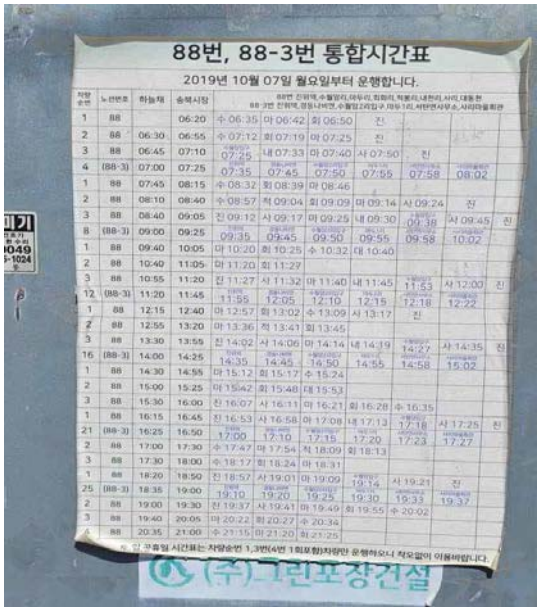
수월암3리 심교마을에서 오산을 갈 때는 화성시 양감면의 제기리 입구까지 10분쯤 이곳에서 발안-오산 간 버스를 탄다. 걸어갈 때는 수월암2리 당고개를 넘어서 덕절리 쪽으로 나가 신작로를 따라 걸어갔다. 이렇게 걸으면 50분쯤 걸렸다. 서탄면까지는 2km이고 송탄까지는 6km였다.

현재 수월암3리는 송탄, 평택과 교통망이 연결되었다. 송탄, 평택에서는 88번, 88-3번 시내버스가 하루 28회 정도 들어온다. 88번 버스는 서탄면 일대의 마을을 돌아 진위역과 송탄을 경유한다. 88-3번 버스는 사리 일대와 경동나비엔을 거쳐 진위역과 송탄까지 간다. 차고지가 서탄면에 있어 오산과 병점을 경유하는 301번 시내버스도 운행된다. 그래서 시내버스만 타면 진위면 하북이나 신장동과 지산동, 오산 등 주변지역을 손쉽게 갈 수 있다.

시내버스는 손님이 적어 적자 노선이지만 평택시가 지원하여 지금도 운행된다. 2023년부터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천원 택시' 도 운영한다. 평택시가 보조해서 노인들이 1천 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갈 수 있다. 천원 택시가 운행되면서 그나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청장년층은 자가용을 이용한다. 철도는 오산역, 전철은 진위역을 많이 이용한다.







301번 버스, 82번 지방도와 만나는 서탄로, 수월암3리 버스시간표

88B 시내버스 노선도

88B번

코오롱하늘채북문→ 코오롱하늘채아파트동문 → 코오롱하늘채아파트남문 → 코오롱하늘채아파트서문 ↔ 반지초교 · 송탄고교 ↔ 반지마을3단지 ↔ 이충고교.반지마을3단지 ↔ 정암마을2단지 ↔ 반지마을1단지 →/← 이충중학교 ↔ 부영아파트2단지(이편한세상A) ↔ 이충초교 · 부영아파트1.2.3단지 ↔ 평생학습센터 ↔ 송탄문예회관 ↔ 송탄출장소 ↔ 라온중고교 ↔ 경기평택교육도서관 ↔ 서정더샵A

↔ 현대상가 ↔ 복창육교 ↔ 송탄역(1)↔ 송탄클래시아 ↔ 신장육교 ↔ 송탄시장 ↔ 송탄우체국 ↔ 영동빌라 ↔ 오좌동 ↔ 송탄소방서 ↔ 진위면신리 → 서탄입구 → 진위역(1)→ 서탄사리마을회관 → 수월암1리마을회관 → 경동나비엔 → 수월암2리마을회관 → 수월암2리 → 웰스토리 → 수월암2리입구 → 나비뜰 → 내천2리 → 마두1리 → 나비뜰 → 마두2리 → 회화리 → 적봉리 → 서탄면사무소 → 서탄119안전센터 → 금암1리 → 하북3리 → 하북2리 → 서탄면입구→ 진위면신리

5) 성씨와 인물

수월암리에는 곡산 강씨, 전주 이씨 등이 많이 거주한다. 수월암1리 뒷거리미는 원주 원씨, 칠원 윤씨, 전주 이씨가 대성(大姓)이다. 수월암 2리는 곡산 강씨가 대성(大姓)이고 경주 최씨도 다수다. 수월암 3리는 전주 이씨가 대성(大姓)이다. 수월암4리는 전형적인 각성바지다.

곡산 강씨는 13대부터 거주했다. 강영배(남, 1949년생)는 곡산 강씨 19대손이다. 아들까지 포함하면 20대쯤이니 7대 200년 이상 거주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입향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해방 전후 수월암 2리가 60호쯤 될 때 45호가 곡산 강씨였다. 경제력에 있어서도 곡산 강씨가 앞섰다. 그밖에 경주 최씨가 10호쯤 거주했고 나머지 성씨는 한두 집씩 살았다.

수월암3리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가 거주한다. 2023년 현재 25호 가운데 15호는 전주 이씨다. 전주 이씨의 입향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종중산과 묘가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 이주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후손 이길현(남, 1949년생)의 증조부는 이웃마을 내천리에 거주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 수월암3리로 이사했다. 그래서 증조부부터 후손들의 묘는 수월암2리에 있다. 집성촌이다 보니 친족 사이의 관계가 끈끈하다. 어릴 때는 설날이나 추석에 차례를 지낼 때 마을 전체를 돌면서 지냈기 때문에 모두 끝나면 오후 2, 3시가 넘었다.

6) 지명유래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수월암리	마을	수월암리	수월암리의 행정 지명이다. 1922년 지도에는 백토고개 남쪽의 앞거리미(사리)를 ‘수월암’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는 앞거리미(사리)와 뒷거리미(수월암1리)를 합쳐 ‘수월암리’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전해오기로는 ‘오산천에 뜬 달의 모습이 아름다워’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수월암’이라는 암자가 있어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수월암, 도도리, 종복리를 통폐합하여 ‘수월암리’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행정지명이 되었다.
		뒷거리미	수월암1리의 자연마을이다. 백토고개 남쪽 마을(사리)을 앞거리미, 수월암1리를 뒷거리미라고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뒷거리미만으로 수월암1리를 만들었다.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도도리	수월암2리 자연지명이다. 길(道)이 많아서 유래되었다. 거리미를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아랫말	수월암 2리 남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중간말	수월암2리의 중간쯤에 형성된 마을이다.
		늠말	'능말' 에서 비롯되었다. 옛날 큰 무덤이 있었다.
		심교	수월암3리의 마을 이름으로 자연지명으로는 '깊은다리' 다. 본래 징검다리만 있었고 하천이 범람하면 건널 수 없었지만 옛날 힘쎈 장사가 있어 먼 곳에서 큰 바위를 이어다가 다리를 놓으면서 '깊은다리', 한자 지명으로는 '심교(深橋)' 라고 하였다.
		종복리	수월암3리 심교마을의 옛 지명이다. 종복리는 1789년 『호구총수』에는 나오지 않지만 1891년 『진위현 읍지』 지도와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는 나온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수월암, 도도리와 통합되어 수월암 3리가 되었다.
		윗말, 아랫말	수월암3리의 자연마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공공시설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경동나비엔 서탄공장은 2014년 수월암1리 당산에 준공된 세계 최대의 보일러 및 온수기 생산공장이다. 전체 면적은 12만㎡이며 가동 당시 생산규모는 연 120만대였지만 지속적인 확장으로 2023년 말 현재 200만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탄초등학교 내수분교	수월암3리에 있는 초등교육기관이다. 1967년 6월 1일 서탄초등학교 내수분교로 개교했고, 1968년 내수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95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서탄분교 내수분교가 되었고 이듬 해 서탄초등학교 내수분교로 개칭되었다.
		서탄일반 산업단지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다. 공사기간은 2018~2024년까지로 2024년 말에 준공되어 입주한다. 면적은 280,000㎡(84,672평)이다.
		도도리앞방죽	일제강점기에 축조한 저수지다. 수월암2리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새말저수지	수월암2리에 있는 저수지로 일제강점기에 축조했다.
		거리미 공동묘지	서탄2로 185번길 일대의 수월암1리 공동묘지이다.
		라온어린이집	수월암4리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서밭이천	수월암3리 앞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서밭이똘이라고도 부른다.
		돌다리	어거지 아래쪽에 돌로 만든 다리이다.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수월암교	서탄로 수월암3리에 있는 교량이다. 본래 돌다리였지만 콘크리트 교량으로 건설했다.
		깊은다리	수월암3리 수월암교 자리에 있었던 돌다리다. 옛날 힘쎈 장사가 큰 바위를 머리에 이어서 서밭이똘을 건널 수 있도록 놓은 다리라고 전한다.
	산 · 고개 · 들 · 기타	심교주막	수월암3리 깊은다리 너머에 있었던 주막이다. 19세기 읍지(邑誌)에는 나오지 않지만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는 나오고 있어 근대 이후에 형성된 주막으로 판단된다.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주민들의 기억에 없는 것으로 볼 때 해방 후 문을 닫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정산	수월암1리 남쪽 백토고개 좌측의 낮은 구릉이다. 경주 이씨 종중산이었지만 현재는 공장지대로 변했다.
		매서울산	수월암1리에서 서북쪽 산이다. 경동보일러 공장이 있다.
		매서울고개	매서울산을 넘어가는 고개다.
		돌팍재	수월암2리 동쪽 도도리저수지 동북쪽, 배욱재 아래의 고개다. 돌맹이가 많아서 유래되었다.
		당산	수월암1리와 2리 사이의 산이다. 수월암2리 도도리마을의 당숲과 마을제당이 있어 유래되었다.
		당고개	수월암1리와 2리 사이의 당산을 넘어가는 고개다. 옛날에는 맹수가 우글거렸고 도깨비가 나타나 사람을 홀렸으며 강도가 출몰하기도 했다.
		백토고개	사리 앞거리미 마을에서 수월암1리 뒷거리미로 넘어가는 고개다. 백토(석회질)가 있어 유래되었다.
		술청고개	수월암1리에서 금암2리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옛날 학생들이 서탄초등학교를 다닐 때 넘었다.
		도도리고개	수월암1리에서 2리 도도리 마을 서쪽을 비껴 암말저수지 서쪽으로 지나는 고개이다.
		앞산	수월암2리 앞쪽에 있는 구릉이다.
		앞산고개	수월암2리 앞산을 넘어 금암리 방면으로 가는 고개다.
		큰고개	앞산고개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고 높은 고개다.
		민릉구지	수월암2리에서 3리 방면으로 길게 뻗은 구릉이다. 밋밋한 능선에서 비롯되었다.
		함박산	수월암3리 깊은다리(수월암교) 북동쪽의 구릉이다.
		함박골	함박산에서 남쪽으로 형성된 골짜기다. 함박골낚시터가 있다.
		당고개	수월암3리에서 내천리-덕절리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산마루쯤에 서낭이 있다.
		도깨비굴	수월암2리 도도리 마을의 서쪽 모퉁이에 있다. 도깨비가 자주 출몰하였다. 마을주민 강희분(여, 1925년생)은 집

마을 명	분류	지명	유래
			옆에 디딜방아를 놓았더니 도깨비들이 밤새 가지고 노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뒷고실골	수월암1리 뒷거리미 앞의 들이다.
		마새울	수월암2리 북쪽에서 경동보일러 공장까지 길게 형성된 골짜기로 임야와 들로 이뤄졌다.
		뒷굴	마새울에서 수월암 2리 방면으로 내려오는 골짜기다.
		어거지	수월암2리 서북쪽 뒷굴 아래의 들판이다. 지금은 공장지대로 변했다.
		원마틀	어거지에서 수월암3리와 내천리 방면으로 내려가는 들판이다.
		비성거리	원마틀 아래의 논농사지대이다.
		방죽배미	수월암2리 논방죽 아래의 논농사지대다.
		건방죽	본래 논방죽이었지만 말라버렸다.
		여수애	원마틀 위쪽 밭농사지대다. 옛날에는 애장(어린아이 무덤)이 많아서 여우들이 자주 출몰했다.
		김양굴	수월암1리에서 당고개를 넘어 왼쪽에 형성된 골짜기다.
		배육재	수월암2리 동쪽의 구릉지대다.
		도간새골	금암리에서 들어오는 수월암2리 입구의 들이다.
		요새골	새말저수지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골짜기로 논농사지대다.
		앞골	내수분교 앞으로 펼쳐진 들판이다.
		오래뜰	수월암3리와 마무리 경계의 들판이다. 침교마을의 주경작지 가운데 하나다.
		흔니히	내수분교 앞쪽의 들판이다.
		당골받	수월암3리 북서쪽의 밭농사지대다.
		대례밭	수월암3리 북서쪽의 밭농사지대다.
		앞밭	수월암교 앞쪽의 밭농사지대이다.
		비렁뱅이골	수월암2리 북쪽에서 경동나비엔 공장까지 길게 형성된 골짜기로 논농사지대다.
		해운목장	수월암3리 1146번지에 있는 목장이다.
		함박골 낚시터	수월암3리 함박골에 있는 실내 및 실외낚시터이다.

(1) 수월암1리



수월암1리, 백토고개, 모정산, 뒷고실골







수월암1리 전경

(2) 수월암2리





새말저수지, 도간새, 도도리저수지





수월암2리

(3) 수월암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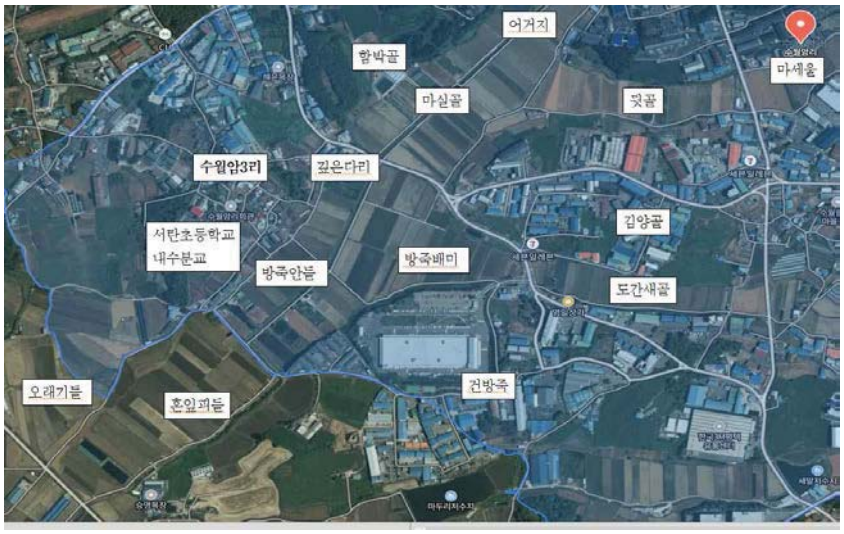




수월암교, 오래기들, 방죽안들 일대



수월암3리



(4) 수월암4리



수월암4리







초원빌라, 삼두빌라, 수월암4리와 화성시 경계

2. 역사적 환경과 마을

1) 마을의 형성과 행정구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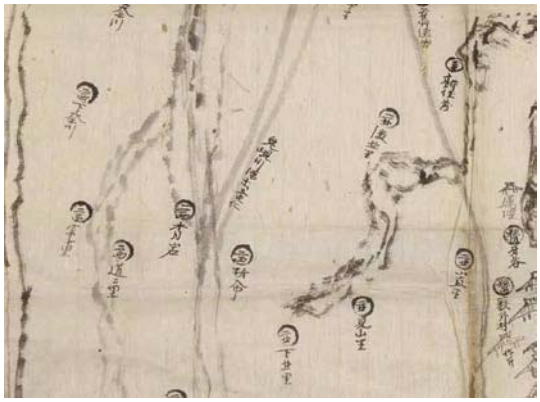
서탄면 수월암리 면적[3)]

수월암리는 조선 후기 서탄면 서면지역이었다. 이것이 18세기 일서면과 이서면으로 분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서면에 속하였다. 15세기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진위현의 호(戶)는 221호, 구(口)는 535명이라고 하였다. 당시 진위현은 지금의 진위면과 서탄면 지역이다. 당시의 경제력으로 볼 때 이서면의 호(戶)는 50호가 넘지 않았을 것이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이서면의 마을로 야막리, 걸호리, 내천리가 있다. 이 가운데 걸호리가 지금의 수월암1리로 추정된다. 이서면의 호(戶)는 137호이며, 구(口)는 478명이다. 당시의 호(戶)는 조선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양상이다. 이것은 오산천 변과 황무지의 개간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당시의 야막리와 내천리의 마을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수월암리(걸호리)의 호(戶)는 40~50호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수월암리의 자연마을 지명이 문헌에 등장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다. 예컨대 1891년 『진위현 읍지』지도에는 수월암리를 비롯해 도도리, 종복리가 나오고 있으며, 1911년 편찬된 『조선지지자료』경기편에도 앞의 3개 마을이 기록되었다. 이서면에 속한 수월암리, 도도리, 종복리 등 3개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통폐합되어 진위군 서탄면 수월암 1리~3리가 되었다.[4]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었던 수월암리는 1990년대 오산시와 화성시(군)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2020년대 전후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 이어 따라 1995년 수월암2리 일부가 분리되어 수월암4리가 되었다.

지도로 살펴보는 수월암리 마을의 변화



1891년 『진위현읍지』 지도의 수월암리
(수월암, 도도리, 종복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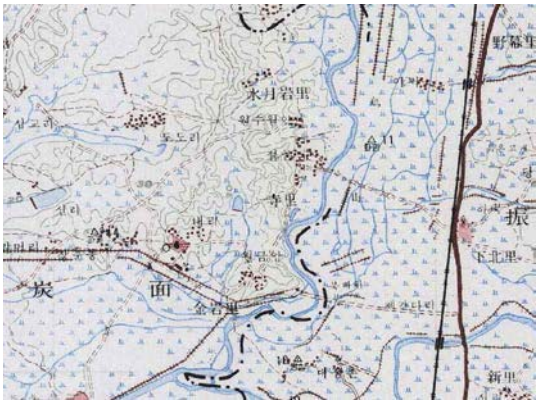


1922년 지도의 수월암리
(수월암리, 도도리, 심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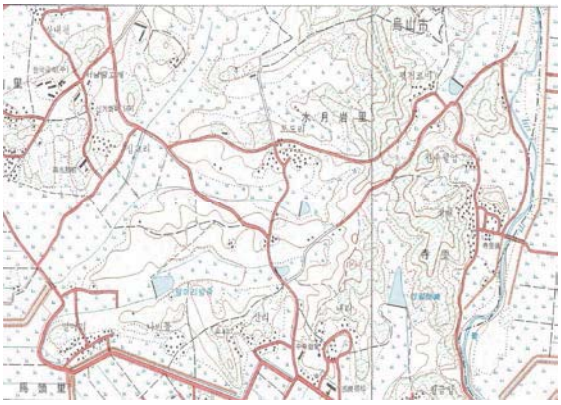
3) 카카오맵
4) 오치 다다시치[越智唯七],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중앙시장, 1917



1963년 지도의 수월암리
(수월암리, 도도리, 심교리)



1973년 지도의 수월암리
(뒷거르미, 도도리, 심교리)



1987년 지도의 수월암리
(수월암리, 도도리, 심교리)



2021년 평택시 행정지도의 수월암리

1891년 지도에서는 수월암리가 오산천과 서밭이천 사이에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자연마을 명은 수월암, 도도리, 종복리였는데 수월암은 서탄면 사리에 속하는 원수월암(앞거리미)와 수월암1리 뒷거리미가 같은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수월암3리 심교마을은 당시만 해도 종복리(宗卜里)로 불렀음도 확인할 수 있다.

1922년 지도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수월암, 도도리, 종복리가 수월암리로 통폐합된 사실을 알게 한다. 1963년 지도의 수월암리의 마을 중에서 수월암2리 도도리가 가장 컸으며 나머지 마을은 호구(戶口)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또 당시까지만 해도 도로망이 매우 불편해서 수월암리 자연마을의 도로는 모두 비포장이었으며 제대로 된 도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은 1973년 지도에서도 변화가 없었다가 1987년 지도부터는 현재와 비슷한 도로망이 구축되고 주요 간선도로가 포장되었음을 보여준다. 2021년 지도에는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31번 지방도, 16번 지방도가 확포장되고 주요 도로가 정비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현재 수월암리는 수월암1리~4리까지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의 중소기업들이 화성시와 오산시 경계지역에 내려오고 근래에는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시설의 증가와는 반대로 인구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예컨대 2003년 수월암1리 50세대 121명, 수월암2리 110호 289명, 수월암3리 58세대 141명,

수월암4리 116세대 253명이었던 마을 규모가, 2023년 8월 말 현재 수월암1리 63세대 91명, 수월암2리 124세대 210명, 수월암3리 81세대 142명, 수월암4리 101세대 173명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다.

현재 수월암1리 일대는 경동나비엔 서탄공장을 비롯해서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수월암리 일대에 분포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난개발인 경우가 많으며, 회사원들도 마을에 거주하기보다 가까운 수원이나 오산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을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마을의 분포와 발전

(1) 수월암1리



수월암1리는 자연지명이 뒷거리미다. 거리미는 백토고개를 중심으로 앞거리미와 뒷거리미로 구분되는데 수월암1리는 뒷거리미라고 했다. ‘거리미’라는 지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세기 읍지(邑誌)와 고지도(古地圖)에 ‘걸호리’라고 했고 여기에 산기슭에 마을이 형성되어 ‘뫼(미)’가 뒤에 붙으면서 ‘거리미’가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수월암’이라는 지명은 1891년 『진위현 읍지』 지도에 나오고 있어 최소한 19세기 후반부터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 2001년에 편찬된 『평택시사』에는 “마을에 사는 젊은 과부가 홀로 긴긴 밤을 지새우기가 힘들어 냇가를 거닐다가 냇물에 비친 교교한 달빛에 취하여 “개울물(水)은 바위(岩)를 굽이쳐 흐르는데 둥근 달[月]은 고요하다”라는 시를 읊펐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근거가 미약하다. 또 1986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지명총람』에는 “오산천 변에 달처럼 생긴 작은 산이 있어” 유래되었다고 하였지만 이것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1891년 고지도에 앞거리미(서탄면 사리 지역)를 ‘수월암’이라고 하고 있어 이곳에 동명(同名)의 암자(庵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수월암1리의 인구는 20호 내외였다. 『평택군 통계연보』의 1965년 12월 말 수월암리 전체 인구가 106호 621명이었으므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작았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의 규모가 작았던 것은

경작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해방 후 오산천 변의 개간과 야산개발로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2003년에는 50호 12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56호 110명, 2023년에는 63호 91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세대는 증가했지만 남녀 별 성비에서 남성이 유난히 많았고,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확대되면서 세대는 증가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씨는 원주 원씨, 칠원 윤씨, 전주 이씨가 많이 살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업 인구가 가장 많다. 문화적으로도 특별한 것이 없다. 지금도 주변에 공장이 입주해 있지만 회사원보다는 농업 인구가 대다수다.

(2) 수월암2리



수월암2리의 자연지명은 도도리(道道里)다. 도도리는 '거리미'의 한자 지명이다. 문헌상으로 도도리는 1891년 『진위현 읍지』 지도와 1911년 편찬된『조선지지자료』경기편에 나온다. 그렇다면 18~19세기 초에 마을이 형성되었지만 호구(戶口)가 적어 수월암1리 거리미에 포함되었다가 19세기 경작지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분동(分洞)되는 과정에서 한자로 '도도리(道道里)'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도도리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수월암리로 통폐합되어 수월암2리가 되었다.

수월암2리 도도리 마을은 아랫말, 중간말, 늠말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은 다른 마을에서도 일반적이다. 다만 '늠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옛날 큰 무덤이 있어 '능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음이 변하면서 '늠말'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많다.

수월암2리는 해방 전후 60호가 조금 넘었다고 한다. 1956년 작성된『지명조사철』에는 수월암리 전체 호구(戶口)는 94호 545명이었고, 1965년 수월암리 전체 호구가 106호 621명이었을 당시에도 60호 내외였다고 하므로 다른 마을에 비해 두 배쯤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110세대 289명으로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 호(戶)와 세대수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2010년에는 139세대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138세대로 변화가 없다. 2023년 8월 현재 수월암2리의 세대는 124세대로 이전보다 줄었다. 이것은 농촌의 고령화와 사망, 산업시설 확대에 따른 증가가 둔화된 점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성씨는 곡산 강씨가 대성(大姓)이다. 곡산 강씨는 8대 250년 내외로 거주했다. 해방 전후 수월암2리가 60호쯤 되었을 때 곡산 강씨는 45호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주 최씨였고 타성들은 한두 집씩 있었다. 지금도 곡산 강씨는 20호 내외로 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역사적으로는 해방정국에서 수월암리 농민폭동의 중심이었고 한국전쟁 중에도 좌우익의 갈등을 크게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반반이다가 1970, 80년대를 거치며 과수재배가 크게 증가했다. 과수로는 배농사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2000년대 이후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크게 줄었다. 문화적으로는 마을 당제가 유명했는데 2013년 경동나비엔 공장이 당산에 들어서고 당목이 벼락을 맞아 부러지면서 중단되었다.

(3) 수월암3리



수월암3리는 교통이 발달하고 들이 넓은 지형에 자리 잡았다. 자연지명은 ‘침교(沈橋)’다. 침교는 우리말로 ‘깊은다리’다. 옛날 힘쎈 장사가 발안으로 가는 길목의 서밭이돌에 큰 바위로 낮은 다리를 놓으면서 ‘깊은다리’ 한자로는 ‘침교’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다른 유래로는 ‘옛날 잡초만 무성하여 길이 없던 시절에 어느 과부가 달밤에 함박골에서 큰 바위를 머리에 이어다가 다리를 놓았다’는 설도 있다.

문헌상으로 수월암3리가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당시의 행정지명은 진위현 이서면 종복리(宗卜里)다. 하지만 주민 이길현(남, 1949년생)이나 이장 이기성은 ‘종복리’라는 지명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냥 깊은다리라고 불렀지 종복리라고 부른 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891년『진위현 읍지』지도에도 그렇고,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도 종복리이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도 수월암, 도도리, 종복리가 통폐합되어 ‘수월암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침교마을은 본래 현재보다 북쪽에 위치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넓은 들을 앞에 두고 큰 길가에

마을이 위치하여 200호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도둑과 강도가 많고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아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해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부는 화성시로 이사하고 또 일부는 현재 위치로 이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주민 이길현(남, 1949년생)은 현재 마을은 개간으로 전답이 많아서 농사가 잘되고 장마 때 수해를 입지 않아서 마을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인터뷰했던 이기성은 뒷동네에 살 때는 마을의 위세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하였다.

주민들은 마을 규모가 예나 지금이나 26~27호 정도라고 했다. 2003년 서탄면사무소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에는 58세대 141명이라고 되어 있어 주민들의 기억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세대수는 2010년에는 74세대 159명으로 증가했고, 76세대 154명, 2023년 8월에는 81세대 1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젊은층의 도시 이주와 노령층의 증가가 원인이다.

수월암3리도 농업이 주산업이다. 주민들은 앞들, 비렁뱅이, 흔니히(피), 오래뜰, 진구정에 경작지를 갖고 논농사를 한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경작지는 넓었지만 옛날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다. 논 7, 8천 평만 소유해도 대농이라고 했다. 지금도 대부분 농사를 짓는다. 문화적으로는 줄다리기가 성행했다. 추석에는 그네를 뛰고 거북놀이도 했다.

(4) 수월암4리

수월암4리는 본래 수월암2리에 속했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1995년에 분동(分洞)된 마을이다. 개발되기 전에는 비렁뱅이골을 중심으로 하는 논농사지대와 구릉을 중심으로 하는 밭농사지대였으며 민가는 거의 없었다. 밭농사지대에는 배 과수원, 포도과수원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중소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삼두빌라, 전원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인구가 급증했다.

마을은 82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화성시 덕절리, 오산시 두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은 평택보다는 오산시와 밀접하다. 버스도 평택과 연결된 노선은 없고 화성시 발안에서 오산시로 연결된 노선을 주로 이용한다.



수월암4리 전경

주민들은 각성바지다. 빌라에 주변 공장들의 기숙사가 많아서 한국인도 많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의 직업도 회사원이거나 상업인구가 대다수다. 이금석(남, 1961년생) 이장도 농업 인구는 4~5명뿐이라고 말했다.

수월암4리에는 2023년 현재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2024년 12월 말에 종료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공업화는 더욱 촉진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오산시와 인접하여 공장 수의 증가가 반드시 인구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한다. 상업인구도 마을이 거주하기보다 오산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3) 역사적 경험

(1) 수월암리 3.1운동

평택지역 3.1운동은 1919년 3월 9일 천도교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일대에서 일어났다. 그 뒤로 평택역(3.11, 3.31) 등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평택 북부지역은 봉남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봉남리에서는 3월 23일, 3월 31일 등 대규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북부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도 봉남리를 향해 진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탄면은 다른 지역보다 늦게 만세시위가 시작되었지만 가장 늦게까지 전개되었다. 먼저 1919년 4월 3일 서탄면장 윤기선과 직원 한성수, 서탄면 사리 주민 윤대선, 윤교영 등 4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날의 시위는 현직 면장이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서탄면 사리 주민들이 중심을 이뤘다는 점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4월 10일에는 서탄면 금암리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시위에는 1백여 명의 군중이 참여했다. 일제는 만세운동이 크게 확산되자 총칼로 과잉진압을 했다. 금암리에서도 일제의 발포로 여러 명이 죽고 다쳤다. 같은 날에는 서탄면 사리에서도 400여 명이 만세를 불렀고, 수월암리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수월암리 만세시위는 주도자나 시위 규모, 일제의 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 도도리(수월암2리) 농민폭동

1945년 남한이 진주한 미군정은 그해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을 공포하여 일제의 식량통제정책을 폐지하고 미곡의 최저 가격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미곡판매의 규제가 해제되었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해방 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미곡상의 매점매석으로 미곡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자 미군정은 1945년 10월 30일 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선고등」을 공포하여 생필품 폭리를 위한 매점매석과 과도한 가격인상을 금지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일반고시 제6호 「미곡통제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미곡의 최고가격제를 고시했다.

하지만 이것마저 미곡(米穀) 수급을 안정시키지 못하자 1946년 1월 25일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을 공포하고 농가의 잉여 양곡을 수집하여 비농가에 배급하는 양곡 공출과 배급제를 실시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미곡 공출을 시작한 1946년 2월은 이미 많은 농가들이 미곡 판매를 실시한 뒤였고 수집가격이 너무 낮아서 농민들의 저항이 거셌다. 결국 미군정은 목표했던 551만 석 중 69만 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실질적으로 미곡공출은 실패했다.



도도리 농민폭동을 증언한 강희분(여, 1925년생)의 2007년과 2023년 모습

1946년에는 미곡공출 실패로 도시지역의 식량부족이 심해졌고 이것이 농촌의 춘궁기와 겹치면서 식량폭등의 조짐이 보였다. 이에 미군정은 서울과 부산에 자가용 미곡반입을 허용하고 13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여 배급했다. 이와 함께 식량통제를 강화하여 1946년 5월 29일 중앙실략규칙 제1호 「하곡수집」을 공포하여 하곡수집에 착수했지만 이것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가을에는 식량규칙 제2호와 제3호를 공포하고 1946년산 미곡을 공출했다. 1946년의 미곡공출은 강력한 행정력과 사전준비에따른 강제집행 등으로 목표량의 82.9%를 달성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미곡수집에 강력이 반발했고 각 지역에서는 식량수집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미군정은 1947년 5월 8일 「하곡수집령」을 다시 공포하고 하곡수집을 실시했다. 이 해의 하곡수집은 전년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공권력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저항을 억제하였고 100%에 달하는 공출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춘궁기 식량이 부족했던 농민들의 반감을 샀다. 또 같은 해 9월 27일 남조선과도입법의회에서는 법률 제6호「미곡수집법」을 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공출을 단행한 결과 목표량 98.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군정의 강제 공출은 공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데다 무리한 공권력 동원으로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농민폭동이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충돌이 발생했다.

1947년 7월 28일[5], 서탄면 수월암리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평택경찰서 직원과 서탄면사무소 직원인 한현수 · 이종진 외 3명은 하곡공출 독려차 마을에 나왔다가 이장 최창선 집에 들렀다.

5) 『부인신보』 1947년 8월 5일자

서탄면 수월암리에는 서탄면 지역 민전(民戰) 간부를 비롯해 좌익계열의 인사들이 많았다. 농악을 울리면서 들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던 이들은 이장 집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을 만났다.

농민들은 농기를 앞세우고 공무원들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민청원들을 동원하여 공무원들을 잡아치우자며 달려들어 구타해 납치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평택경찰서는 초기에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경찰관을 출동시켜 난동을 제지하려고 했다. 이에 서탄면 수월암리 주민들이 이웃마을 오산시 두곡리(당시 오산면)의 주민들까지 선동해 삽·낫·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저항하는 농민들은 천여 명에 이렀다. 경찰관들은 10여 명으로 폭동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윤부섭·최일용 경관이 납치됐다. 평택경찰서는 수원경찰서, 서탄면 우익청년단들과 합세하여 겨우 진압했다.


故呂運亨氏葬儀

民戰「테로」警官을拉致

面目一新

釜山港

解放記念龍球戰

五大「팀」리-그戰


放送局事件首都廳發表

平澤農民衝突 七十名이被檢

署長級異動發令

도도리 농민폭동을 보도한 『부인신보』와『자유신문』

1947년 8월 6일자 『자유신문』에는 좀 더 자세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7월 28일 하곡수집 문제로 경찰관과 면직원 등 3명과 수월암리 농민들이 충돌하여 앞의 3명이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8월 3일 사복경찰관 2명이 도도리 마을에 출장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우익단체로 오인하여 납치하였다. 급보를 접한 평택경찰서는 수원경찰서에게 연락하여 경찰들이 함께 출동했고 산 위에 집결해 있던 농민 7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농민폭동으로 규정하고 문초했다. 이와 함께 제1관구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평택경찰서장 홍성표를 2주 동안 정직처분을 내리고 수사 주임 서장대를 직무대리로 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했다.

주민 강희분(여, 1925년생)은 수월암2리 토박이로 도도리 농민폭동을 직접 경험했다. 강희분은 일제강점기 서울의 부재지주 한광호의 땅과 용주사 땅을 소작지었다. 1944년 수월암 2리에서는 서울의 부재지주 한광호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농민폭동이 발생했다. 농민폭동은 강희순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마름의 횡포 때문에 발생했다. 소작농들은 서울로 지주를 찾아가서 마름을 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주동자가 확실치 않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뒤로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 1947년에 발생한 도도리 농민폭동에서도 좌익했던 사람들이 식량공출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남편이 ‘남의 것을 거져 먹으려고 하면 되냐’며 그런 일에는 일체 가담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폭동에 참여했다가 잡혀갔던 사람들은 큰 고초를 겪었다.

(3) 6.25전쟁 경험

수월암2리는 한국전쟁 당시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다. 일부에서는 '평택의 모스크바' 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심인물은 강O배, 최O태 등이었다. 주민들은 강O배가 인민위원장을 했다고 말했다. 좌익들은 지주나 경찰이나 군인가족,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당시 좌익은 빨갱이 우익은 파랭이라고 했다. 마을에서는 대부분 좌익이었는데 몇 집만 우익 쪽이었다. 6.25전쟁 중 좌익들 세상이 되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지주나 공무원 가족들을 죽이거나 구박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걸핏하면 '이놈의 빨갱이 새끼들 내가 쳐죽일 거다' 라고 말하고 다니자 좌익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4형제를 모두 죽였다. 수복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오자 좌익활동을 했던 중심인물 2명은 월북했다.

수복 후 좌익들이 물러가고 국군과 유엔군이 북상하자 이번에는 우익들과 경찰이 좌익 부역자들을 찾아 나섰다. 주민 강씨의 조부와 부친도 가족 중에 좌익한 사람이 있어 서탄면사무소 창고에 잡혀가 갇혔다. 당시에는 빨갱이 전력만 있어도 죽이던 시절인데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저 사람은 좌익 그런 거 한 게 없다' 고 변호하는 바람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심사하고 죄를 묻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마을은 상당 기간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

(4) 이동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운동 기억

수월암2리 도도리는 이동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수월암리농업협동조합은 1958년 설립되었다. 강영배(남, 1949년생)에 따르면 이동조합에서는 정미소(방앗간) 운영과 구판장 운영을 했다고 한다. 당시 강영배 부친은 정미소를 운영했다. 그런데 이동조합에서 정미소를 운영한다고 하니 물러났다. 이렇게 시작된 이동조합정미소는 2년쯤 운영되었다. 2년 뒤 운영이 부실해지면서 개인에게 넘어갔고 1968년부터 면 단위로 이동조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업했다. 구판장은 잡화와 농기구를 판매했다.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은 서탄면사무소에서 시켜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면사무소에서는 마을마다 330포의 시멘트를 지급하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하여 수원의 농촌진흥청 등에서 교육했다. 수월암2리의 경우에는 마을안길 확포장, 도랑 개보수작업, 지붕개량사업을 주로 했다. 이장은 주민들을 부역 동원하여 오산천에서 모래를 퍼다가 마을 진입로와 안길을 시멘트로 포장했다. 새마을운동은 1979년 박정희대통령 서거 및 10.26사태가 발생하면서 크게 약화되었고 제5공화국 시기에 도시나 직장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려다가 흐지부지되었다.

3. 경제생활

1) 농업

(1) 경작지와 토지소유

가. 경작지

수월암1리의 주경작지는 마을 앞 뒷골과 앞고실, 오산천 하천부지나 건너편 야막리 일대였다. 마을 주변은 산이 낮고 계곡이 좁아서 경작지가 많지 않았다. 마을 주변의 앞고실이나 뒷골은 대부분 밭이었고 오산천 하천부지나 야막리 일대는 논이 많았다. 논농사는 주로 남자들이 일했다면 밭농사는 여자들의 몫이었다. 이송자(여, 1940년생)는 야막리가 친정으로 수월암1리로 시집왔다. 시댁은 논도 많고 밭도 많은 편이었다. 이송자의 밭도 대부분 마을 주변에 있었고 논들은 야막리 일대에 분포했다.

수월암2리 도도리의 강영배(남, 1949년생)는 마을 전체 농지가 600마지기 수준이라고 했다. 이것을 60, 70호가 나눠서 경작했다. 농지 중에서도 논보다는 밭이 많았다. 강영배의 조부와 부친은 논 50~60마지기를 농사지어 마을에서는 대농(大農)이라고 했다. 주경작지는 마을 북쪽의 마세울과 뒷골, 비렁뱅이골, 마을 앞의 도간새, 요세굴, 방죽배미, 어거지 등에 분포했다.

수월암3리는 마을 앞 앞들, 함박골, 방죽안들, 마실골, 방죽배미와 함께 마두리 지역인 흔잎피들, 오래기들, 진구정에서 농사지었다. 이길현(남, 1949년생)도 이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다. 주민들이 경작하는 지역은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된다.

수월암4리는 농업인구가 거의 없다. 이장 이금식(남, 1961년생)도 농업인구가 4~5호쯤 된다고 말했다.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릉지대는 배밭과 포도밭이었고 논농사는 비렁뱅이골에서 많이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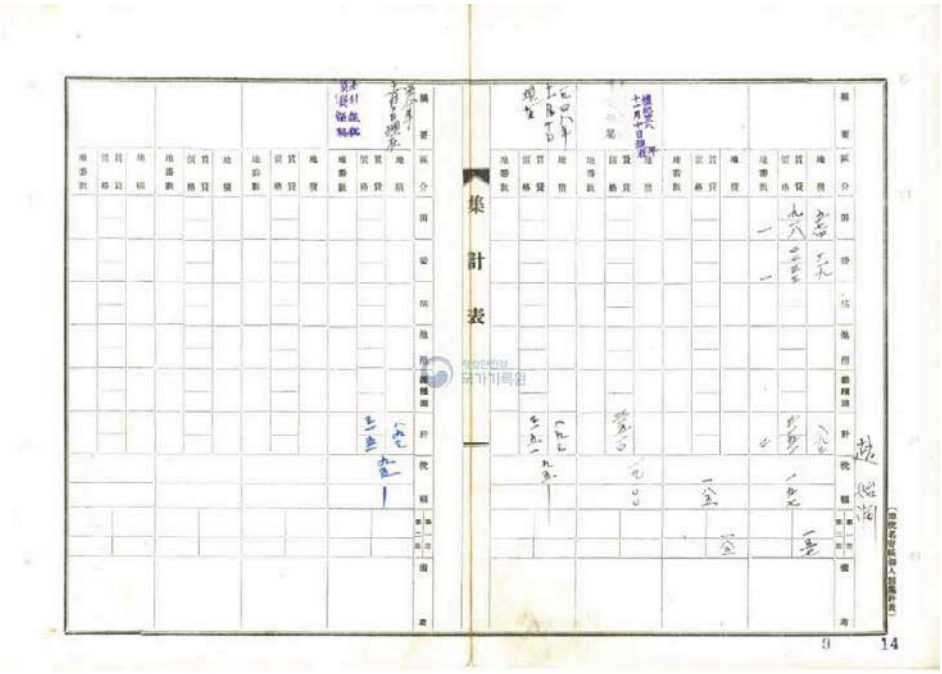
수월암3리 심교마을과 주변 경작지

(2) 토지소유

19세기 수월암리의 토지소유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료는 없다. 다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추수기(秋收記)를 통하여 국가의 토지소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추수기(秋收記)에는 진위현 일서면과 이서면 추수기 5건이 나온다. 토지의 소유자는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과 같은 왕족이나 군영(軍營)이었고 소작료를 대부분 왕실의 재정을 관리했던 내수사(內需司)에서 걷어갔다.

수월암1, 2리는 논보다 밭이 많았다. 수월암2리의 경우에는 구릉까지 많아서 경지면적이 적었

다. 마을 주민들은 2007년 조사 때나 지금이나 600마지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논에는 벼를 심었고 밭에는 밭벼와 보리, 밀, 담배를 재배했다. 1970, 80년대에는 배농사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1948년 조시연의 「지세명기장」[6]

강희분(여, 1925년생)은 경제적으로 빈촌이었다고 말했다. 농지들도 대부분 대지주들이 소유해서 주민들은 소작을 지었다. 대지주로는 수원의 양성관과 서울의 한광호, 수원의 임종재가 있었고 마을 지주로는 강오산이 부자였다. 양성관은 수원지역에서도 만석꾼으로 알려졌는데 1937년 『지주명부』에는 7, 8천 석지기로 나와 있다. 한광호는 경성부 관철정에 거주했다. 수원과 용인에만 43정보의 땅이 있다고 소문났는데 『지주명부』에는 답(畓) 39정보, 전(田) 13정보, 소작인 39명이었다. 마을지주 강오산은 몇백 석 지기로 회자된다. 다음은 1912년 『토지조사부』의 토지소유 현황이다. 『토지조사부』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이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

현재 1950년 농지개혁 이전의 토지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광무양안』, 1912년 작성된『토지조사부』, 일제하와 해방 후 『토지대장』,『지주명부』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수월암리 『광무양안』은 확인하지 못했고, 해방 전후의 『토지대장』은 대부분 소실됐으며, 『지주명부』는 지주들의 소유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농지개혁 시기의 『토지조사부』가 토지 소유관계의 가장 객관적인 사료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1912년 수월암리의 『토지조사부』에서 수월암리 주민들의 토지소유 내용이다.

1912년『토지조사부』수월암리 주민들의 토지소유현황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6) 국가기록원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최승순	대지	676	전(田) : 3,911평 답(畓) : 8,671평 대지(垈地) : 676평
	전	685	
	답	692	
	전	166	
	전	1,106	
	전	183	
	전	342	
	답	279	
	답	1,175	
	답	600	
	답	765	
	답	1,832	
	전	405	
	답	2,940	
	답	278	
	답	110	
	전	1,024	
윤재덕	전	1,080	전(田) : 3,931평 답(畓) : 2,225평 대지(垈地) : 646평
	답	1,140	
	답	614	
	전	75	
	전	552	
	전	485	
	전	1,424	
	답	16	
	답	455	
	전	315	
	대지	646	
이교영	임야	4,471	
윤대의(尹大誼)	전	646	
	답	51	
	전	59	
이용규	답	667	
	전	210	
윤도의	답	362	
	답	105	
이종헌	전	574	
	대지	317	
	전	273	
	전	66	
	전	1,354	
	답	277	
	답	154	
김태성	전	417	
	전	267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전	126	
	전	522	
이교영	전	40	
김성희	전	150	
이성구	전	353	

위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초기 수월암리의 마을 지주(地主)는 최승순(崔承舜)이다. 하지만 최승순의 소유 면적도 전(田) 3,911평, 답(畓) 8,671평에 불과하여 지주라기보다는 머슴 2명 정도를 고용하여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일부는 소작을 주는 경영형 부농(富農)이라고 할 수 있다. 최승순 외에 윤재덕이 약 6천여 평의 농지를 보유하여 부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밖에도 이종헌, 김태성 등이 약간의 토지를 소유했지만 자작(自作) 수준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소작이거나 순 소작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부재지주(不在地主)들은 무척 많다. 다시 말해서 농지의 대부분을 부재지주가 소유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수월암리 일대를 개간한 주체가 권력자나 외부 자본가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농민들은 개간된 농지를 소작 짓기 위해 정착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석된다. 다음은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수월암리 부재지주 명단이다.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윤병오	답	213	수원군 초평면 탑동
	답	225	
	전	273	
윤형식	답	160	경성부 중부 전동
	답	779	
안흥선	답	429	경성부 북부 사제감계 대동 전(田) : 293평 답(畓) : 6,263평
	답	672	
	전	293	
	답	2,087	
	답	1,160	
	답	281	
	답	931	
	답	683	
백백만	전	538	수원군 초평면 탑동
	전	237	
윤재청 외 2인	전	784	
최승우	답	1,070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전(田) : 3,027평 답(畓) : 8,526평 대지(垈地) : 261평 임야(林野) : 14,430평
	임야	14,430	
	전	313	
	답	3,536	
	답	2,021	
	전	992	
	전	1,396	
	대지	261	
	답	1,899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전	326	
한규복	답	954	수원군 북부면 선시동
박문회	답	932	수원군 북부면 군기동
이병묵	답	1,505	경성부 북부 대린방 모교
백희선	답	44	수원군 초평면 탑동
최승한	답	30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전	737	
鄭釗拂 (정쇠불)	임야	4,675	수원군 초평면 탑동
장재근	전	1,175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전(田) : 8,988평 답(畓) : 9,013평
	전	137	
	답	2,367	
	전	790	
	답	2,714	
	답	790	
	답	1,916	
	답	413	
	답	453	
	전	1,869	
	전	496	
	답	49	
	전	355	
	전	2,069	
	전	1,319	
	전	778	
	답	311	
지수영	전	304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임야	815	
원덕수	답	121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이용민	답	355	경성부 남부 미동 전(田) : 682평 답(畓) : 4,481평
	답	619	
	전	682	
	답	407	
	답	1,740	
	답	738	
	답	622	
최진화	전	126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전	1,213	
	전	35	
	답	234	
	답	622	
백경수	답	467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답	1,018	
최장화	전	1,355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윤대선	답	843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답	624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답	748	전(田) : 384평 답(畓) : 3,038평
	답	442	
	답	381	
	전	384	
윤태선	전	495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안창근	답	261	용인군 하동면 어비동
	전	506	
	답	223	
차재형	답	720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이근태	답	581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조예석	답	949	경성부 북부 매동
최공열	전	2,197	수원군 초평면 탑동
최중순	전	1,586	수원군 초평면 탑동
최승대	전	392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이재성	전	229	수원군 초평면 석우리
최승철	전	793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전	628	
서자성	전	475	수원군 남군면 북수동
한장열	답	801	수원군 종덕면 두릉리
박창훈	답	356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답	654	
안인호	답	356	경성부 중구 전동
윤영오	전	1,154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용주사(龍珠寺)	전	116	수원군 안녕면 송동 전(田) : 116평 답(畓) : 2,027평
	답	1,127	
	답	171	
	답	307	
	답	195	
	답	407	
이희철	임야	411	진위군 군내면 마산리
	임야	4,488	
한규설	답	2,781	경성부 대평방
최승열	답	654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최중화	전	1,060	수원군 초평면 두곡리
홍순우	대지	312	경성부
	전	198	
	전	41	
	답	428	
	답	150	
윤교원	답	26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김태흥	전	748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답	671	
오정옥	답	964	경성부 금천교
	전	1,570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전	80	전(田) : 5,527평 답(畓) : 4,517평
	답	1,263	
	전	105	
	답	786	
	답	1,504	
	전	356	
	전	1,384	
	전	2,032	
국유지(國有地)	답	822	답(畓) : 1,507평
	답	685	
정성조	임야	3,779	진위군 이북면 가곡리
황재은	전	338	충청남도 평택군 계양면 돈두정리
	전	617	
홍순우	전	391	경성부 축정동
	답	548	
	답	446	
	답	409	
	전	278	
	답	139	
정성집	전	424	진위군 이북면 가곡리
박용보	전	517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모영관	답	876	수원군 어탄면 산척동
	답	166	
한영수	답	718	진위군 일탄면 지산리
차재형	답	779	수원군 남창동
임종진	전	140	진위군 이서면 야막리
	전	755	
이근태	전	818	수원군 남창동
한상직	답	1,890	죽산군 원삼면 사전리
홍순찬	전	669	진위군 이탄면 금각리
서필진	답	573	수원군 초평면 발음리
박재덕	답	222	수원군 정림면 덕절리
	답	180	
서연팔	답	409	수원군 초평면 발음리
이병열	전	299	수원군 초평면 발음리
서붕진	전	882	수원군 초평면 발음리
김병석	답	412	경성부 북부 하한동
이형순	전	321	수원군 정림면 황기동

위 표에서는 부재지주의 거주지가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수월암리 인근의 오산시 두곡리, 탑리, 진위면 야막리의 부재지주들이다. 둘째는, 수원지역 부재지주들이다. 셋째는 서울의 부재지주들이다.



수월암2리 부자였던 강영배(남, 1949년생), 이복년(여, 1951년생) 부부

수월암리 인근의 부재지주로는 진위면 야막리의 장재근을 꼽을 수 있다. 장재근은 전(田) 8,988평, 답(畓) 9,013평을 소유했는데 이곳 말고도 서탄면 사리, 진위면 야막리, 하북2리 일대에도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지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같은 마을의 윤대선도 수월암리 지역에 전(田) 384평, 답(畓) 3,038평을 소유했는데 장재근과 마찬가지로 야막리와 사리 일대에도 상당량의 농지를 소유하여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위 표에 언급된 윤대선, 윤교원 등은 사료(史料)에는 야막리지만 실제로는 사리(寺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1912년까지만 해도 사리(寺里)가 사동(寺洞, 절골)으로 불렀지만 분동(分洞)되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

수원(오산시, 화성시 포함)의 부재지주로는 최승우(崔承祐)를 꼽을 수 있다. 수월암리 이웃마을인 오산시 두곡동에 거주했던 최승우는 전(田) 3,027평, 답(畓) 8,526평, 임야(林野) 14,430평, 대지(垈地) 261평을 소유한 지주였다. 이밖에도 오산시에 속하는 두곡리, 탑리, 화성시의 덕절리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들이 매우 많다. 이것은 수월암리의 농지를 주변 마을과 함께 공유했음을 알게 한다.

서울의 부재지주로는 오정옥과 이용민, 안흥선이 꼽힌다. 서울 금천교에 살았던 오정옥은 전(田) 5,527평, 답(畓) 4,517평을 소유하였고, 서울의 미동에 거주했던 이용민은 전(田) 682평, 답(畓) 4,481평을 소유했으며, 서울 대동에 살았던 안흥선은 전 293평, 답(畓) 6,263평을 소유했다. 서울 부재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는 이들이나 이들의 선조들이 수월암리 일대를 개간하여 농지를 일궜을 가능성이 많다. 이밖에도 국유지 1,507평과 수원의 용주사 소유 농지도 전(田) 116평, 답(畓) 2,027평이 있었다. 국유지나 용주사 농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개간의 주체가 국가나 왕실, 관아, 군영이 아니었고 서울이나 수원의 권력자나 자본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912년 『토지조사부』의 수월암리 일본인 토지소유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암기구미 (岩崎久彌)	답	322	동경시 본향구 답(畓) : 3,965평
	답	978	
	답	530	
	답	2,135	
평생팔삼랑	답	1,086	인천부 중정 삼정목

소유자	지목	면적(坪)	비고
(平生釰三郞)			답(畓) : 1,086평

위 표는 1912년 『토지조사부』의 수월암리 일본인 토지소유 현황이다. 일제 초기 수월암리 일대에 농지를 소유한 일본인은 암기구미(岩崎久彌)와 평생팔삼랑(平生釰三郞) 둘 뿐이었다. 동경에 주소를 갖고 있는 암기구미(岩崎久彌)는 답(畓)만 3,965평을 소유했으며, 인천에 집을 둔 평생팔삼랑(平生釰三郞)은 답 1,086평만 소유했다. 이것은 수월암리 지역이 일본인이 침투할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됐음을 말해준다고 판단된다.

(3) 지주 · 소작관계

1912년 작성된『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수월암리의 부자는 마을에서는 최승순, 부재지주로는 최승우, 장재근, 오성옥, 이용민, 안흥선 등이다. 하지만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년생)은 일제 말에는 앞에 언급한 지주 및 부재지주는 없었고, 마을 지주로는 강오산, 부재지주로는 수원의 양성관, 한광호가 대표적이었다고 말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없지만 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앞의 지주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도태되었고 새롭게 성장한 지주들이 마을 주변의 농지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수원 용주사의 농지(農地)도 있었다. 『토지조사부』에는 수월암리의 용주사 땅은 전(田) 116평, 답(畓) 2,27평이었다. 강희분(여, 1925년생) 부부는 마세울의 용주사 땅을 소작지었다. 용주사는 마름을 두어 소작인들을 관리했고 소작료를 징수했다. 일제 말에는 소작권 이동도 빈번했다. 해방되기 전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50%)이었다. 일제 말 전시체제기에는 공출도 있어서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내고 공출(약 30%)을 당하면 먹을 식량이 없었다. 그래서 타작할 때는 ‘빗자루를 들고 가서 빈 빗자루만 들고 온다’ 고 말했다. 용주사는 농지개혁 직전에 강희순의 소작권을 빼앗았다. 소작권이 이동하면서 농지개혁 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는 마을의 지주였다. 마을 전체의 농지가 600마지기쯤 될 때 조부와 부친은 약 50마지기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다. 밭도 2천 평쯤 되었다. 농지경영은 머슴을 2명 두고 자작하는 경영형 부농이었다. 임야도 무척 넓었는데 큰아버지와 사촌이 상속받아 대부분 팔아먹었다. 큰아버지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되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강영배의 부친이 큰아들 역할을 대신했다.

집안의 재산은 증조부(강경일)가 일으켰다. 증조부는 고물(古物)을 일본에 수출하여 재산을 모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물은 철물계통과 청자나 백자와 같은 자기류, 그림, 일반 민속품을 망라했다. 부친은 농지경영과 함께 정미소를 운영했다. 정미소는 마을정미소(이동조합 정미소)가 생기기 전까지 운영했다.

(4) 농사관행과 작부체계

해방 전후 수월암리는 가난했다. 세 마을 가운데 도도리의 경제사정이 가장 나빴다. 주민들은 대농(大農)이었던 강오산과 몇몇 자작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작농이었다. 수월암2리는 오산천

과 거리가 멀었고 지대가 높아서 마을 앞과 뒤에 방죽(저수지)을 만들어 농작(農作)에 사용했다. 하지만 수량이 적어서 모내기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대기가 힘들었다.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칠월 칠석까지 기다렸다가 호미모를 심었다. 칠석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했다.



수월암3리 함박골과 앞들 일대 경작지

해방 후 농지개혁 때는 수월암1리나 3리는 혜택이 컸지만 2리는 농지가 적어서 분배받은 땅이 매우 적었다. 그러다 보니 농지개혁 뒤에도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였다. 보릿고개에는 피를 흩어와서 이것을 가마솥에 찐 뒤 말려서 밥을 해 먹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농민들은 자작(自作)하면서 품을 팔아 먹고사는 사람이 많았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반 사이의 품삯은 쌀 한 말에 3일~4일을 일해줬다.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년생)은 일제강점기 수월암2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고 말했다. 지주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수원의 부재지주였다. 그래서 마을에 마름을 두고 농지를 경영했다. 마름들은 소작권 이동이나 소작료 징수를 했다. 소작료는 수확량의 50%였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서 수확량의 30%로 낮췄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는 정미소와 농사를 병행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에 식량이 떨어지면 선품을 팔아서 곡식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선품'이라는 것은 '선쌀'이라고도 했는데 농사철에 일해주기로 하고 미리 품삯을 받아가는 것을 말했다. 1960년대 선품으로 쌀 1말을 얻어가면 봄에 3일은 일해줬다고 말했다.

거름은 인분(人糞)을 썼다. 화학비료는 값이 비싸서 빈농들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밭농사가 많았던 도도리에서는 여자들도 똥지게를 졌다. 지게가 없으면 머리에 이고 날랐다. 함지박에 인분을 담아 머리에 이면 출렁이는 바람에 엎질러지기 일쑤였다. 그럴 때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함지박에 넣으면 덜 엎질러졌다. 강희분(여, 1925년생)은 송탄에서 똥 두 차를 사다가 감자밭에 뿌려 큰 수확을 얻었다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는 비료 사용이 늘었다. 비료는 농협에서 이장을 통해 배급했다. 이장은 농협에서 비료를 타다가 농지면적에 따라 저울에 달아서 분배했다.

수월암리는 1리와 2리는 논과 밭이 반반이었고 수월암3리는 논이 많았다. 작물은 밭이 많을 때에는 밭벼와 보리, 밀, 콩, 채소 등을 심었다. 그러다가 제3공화국 때 축산과 특용작물을 권장하면서 담배 농사와 젖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수월암2리 경작지 마세울과 4리 비렁뱅이골

수월암1리는 뒷골과 오산천 건너편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수월암2리는 마세울을 비롯해서 당산 줄기의 계곡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수월암3리는 마을 앞과 남쪽의 너른 들에서 농사를 지었다. 과거 벼농사는 대부분 아끼바래라고 불렀던 추청벼를 심었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정부에서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강요했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에 따르면 들이 넓은 수월암1리나 3리는 상황이 달랐지만 2리의 경우에는 통일벼 재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수렁논이라 질퍽해서 벼베기를 하면 논바닥에 볏단을 뉘었다가 산 같은 데로 가져가서 말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통일벼는 이삭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도 강요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확량은 논 1마지기에 농사를 잘 지으면 양석 그렇지 않으면 1석 반쯤 나왔다.


수월암2리에서 담배농사를 지었던 전애란과 주민들(2007)

1960, 70년대만 해도 담배농사는 특용작물재배라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재배작물이었다. 담배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담배인삼공사(KT&G)에 재배신청을 했다. 전매청에서는 300평을 1단으로 하여 각 농가에 분배해주었다. 주민들은 3, 4단이나 5단 내외를 농사지었다. 담배농사는 고랑을 내서 비닐을 씌우고 모종하는 일과 추수해서 잎을 말리는 일이 힘들었다. 일할 때 손에 진액이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았다. 담뱃잎을 잘못 말려 낮은 등급을 받으면 손해가 컸다. 2007년 인터뷰한 전애란(여, 1936년생)은 1960, 70년대 15년 동안 담배농사를 지었다. 나중에는 우수농

가 표창되어 상품으로 선풍기를 받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과수재배도 많이 했다. 특히 구릉지대가 발달한 수월암2리 도도리는 1970, 80년대에는 10여 호가 과수농업을 했다. 수월암2리는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서 배수가 잘돼 품질 좋은 배가 생산되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수월암2리에서 학명농원을 운영하는 강학배가 배 재배로 평택시 농업인 대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강봉섭이 받았다. 강학배는 군대에서 전역하면서 배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8,000여 평의 과수원을 일궜다. 강학배는 땅의 기운을 살려 친환경농사를 짓는다. 농약과 비료를 최대한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제초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조류방지망을 씌워 까치와 같은 조류의 피해를 줄인다. 나무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과학영농도 실천한다. 수확한 배는 일부는 국내 소비를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해외수출도 한다. 성과가 좋은 평택시농업인대상을 비롯해 새농민상, 새마을지도자상 등 20여 번의 상을 수상했다.

수월암3리는 150평이 한 마지기다. 토박이 이길현(남, 1949)은 수월암3리에서 7~8천 평을 소유하면 부자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마을에는 이소의가 유일한 1만 평 이상 소유자였고, 이길현은 6천 평(2섬지기) 정도를 소유했다.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1섬지기면 머슴을 두었다. 이길현 댁은 부친 때부터 머슴을 두고 농사지었다. 그러다가 14세에 부친이 작고했는데 큰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대문우체국에서 체신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형은 건축사업을 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막내인 이길현이 집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다.

부친이 작고하면서 이길현도 4, 5년쯤 머슴을 두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상머슴에게 년 쌀 7~8가마를 지급했고 중간머슴은 3~4가마, 애기머슴은 밥만 먹여주고 일을 시켰다. 이길현이 2월 경에 머슴을 구한다고 소문을 내자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의 박동섭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박동섭과는 연 9가마를 주기로 계약했다. 그러자 박동섭은 쌀 1가마를 선급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 식량이 떨어졌다고 했다.

머슴은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게를 달라고 하더니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갈퀴로 솔가래 등을 긁어다가 하루에 한 짐씩 나무를 하고는 소여물을 쒔다. 20일쯤 지나자 땅이 풀렸다면서 쟁기와 보습을 갈아서 논갈이를 준비했다. 이길현이 논의 위치를 알려주자 논갈이를 시작했다. 소에게는 1끼 식사로 여물 3동이를 먹였다. 머슴은 하루 종일 논갈이를 하더니 오후쯤 집으로 돌아왔다. 겨우내 쉬었던 소를 너무 많이 부려먹으면 탈 난다고 했다. 다음 날에는 늦은 저녁까지 일했다. 이길현이 논으로 나가봤더니 소가 힘들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러자 머슴 박동섭은 소의 콧잔등을 입으로 물었다. 그러자 소가 벌떡 일어났다. 다음날은 쉬었다. 쉬다가 오후가 되자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5월 20일경부터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머슴은 모내기철이 되자 품도 얻고 사람도 사 와서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가 끝나자 심교 두레패에 들어가서 김매기를 했다. 김매기는 3번했다. 백중 때까지 논매기가 끝나자 이길현은 머슴에게 용돈과 함께 휴가를 주었다. 휴가는 4~5일쯤 주었다.

추수는 남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주로 남자 노동력에 품앗이를 통해 해결했다. 벼베기는 조생종일 경우에는 조금 이른 9월 말부터 벼를 베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력 10월쯤부터 시작했다. 벼를 베어서는 논바닥에 2, 3묶음씩 깔아서 말렸다. 벼가 마르면 1뭇(6묶음)씩 묶어서 탈곡을 했다. 옛날에는 그네로 탈곡을 하다가 수동 궁글통(족답식 탈곡기)이 나왔고, 전기가 도입되면서 모터를 달아서 사용했다. 1970년대 중반 경운기가 도입되면서 탈곡기를 사용했다. 탈곡기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볏단을 작게 묶어서 탈곡했다. 1980년대 바인더가 보급되면서는 논에서 직접 탈곡이 되었

다. 지금은 계약재배가 많다.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서 탈곡이 되면 농협에서 물벼 상태로 실어다가 건조와 도정한다.

(5) 수리시설

수월암리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다. 1899년『진위현 읍지』에는 진위현 이서면 지역에 금복보(金福洑)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예컨대 “금복보(金福洑) 현(懸)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물의 근원이 수원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하지만 금복보의 위치는 내천리와 수월암3리 사이에 있어 마을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었다.


수월암2리의 도도리저수지


수월암2리 새말저수지

수월암1리 주민들은 오산천에 보(洑)를 축조하고 도랑으로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다. 수월암1리 주민들이 사용했던 보(洑)는 행산보였다. 행산보는 수월암1리와 야막리 사이에 축조했다. 주로 수월암1리와 야막리 주민들이 쌓았고 사리 주민들 가운데 행산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일부가 참여했다. 보(洑)는 매년 축조했다. 가마니에 모래를 담아서 쌓았기 때문에 장마 때 터져버리기도 했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일부러 터트리기도 했다. 보(洑)의 축조는 양력 3월경에 했다. 보를 쌓은 뒤에는 봇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보(洑) 도랑을 정비했다.

수월암2리, 4리는 지대가 높아서 오산천의 봇물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앞방죽(도도리저수지)과 뒷방죽(새말저수지)을 축조하여 물을 공급받았다. 도도리저수지는 1945년에 기호수리조합에서 축조했다. 총 저수량은 6,000톤이며 몽리면적은 4ha다. 새말저수지는 1944년 축조되었다. 저수량은 5,000톤이며 몽리면적은 3ha이다.[7] 하지만 앞방죽(도도리저수지)과 뒷방죽(새말저수지)은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고 경작지의 상당수는 밭으로 경작할 수밖에 없었

다. 수월암3리도 마두리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았지만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다.

농업용수 부족은 1964년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 준공으로 해소되었다.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는 오산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57년 착공하여 1964년에 완공했다. 신갈저수지(기흥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수월암리 일대는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중장비가 거의 없어 순전히 주민들의 노동력만으로 경지정리를 했다.

(6) 두레와 작업반

수월암2리에는 두레가 조직되었다. 두레는 논매기를 위해 조직되는 공동노동조직이다. 주로 모내기가 끝난 뒤 15~20일 사이에 조직되어서 백중 때까지 일했다. 두레조직은 마을의 덕망 있는 원로를 좌상으로 삼고 그 아래 총무 역할을 하는 공배를 두며, 두레풍물패를 따로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두레풍물패는 논매기에도 역할을 했지만 추석이나 설, 정월대보름처럼 명절의 각종 행사에도 동원되었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는 어려서 두레패를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농기들고 풍물패를 앞세워 논에 나간 뒤 농기를 꽂아 놓고 논매기를 하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두레패는 일을 나갈 때에도 풍물을 쳤고 들에서 돌아올 때도 풍물을 쳤다. 하지만 두레패의 조직이나 운영,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두레는 1960년대 중반쯤 해체되었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1960년대 중반에는 제초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김매기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서 두레패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작업반이 조직되었다. 작업반은 모내기와 논매기를 위해 조직된 공동노동조직이었다. 강영배(남, 1949)도 20살 전후에 작업반 활동을 했다. 작업반은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남녀가 함께 참여했다. 강영배(남, 1949)의 기억으로는 도도리작업반의 경우 1팀만 조직되었고 전체 인원은 20명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반장은 주로 이장이 맡았다.

작업반이 등장하는 1960년대 중후반에 여성들이 논일에 동원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논일은 남자가 했으며 여자는 밭일만 했고 농번기에는 식사와 참을 해 나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수월암2리(도도리) 작업반도 모내기와 논매기를 했다. 추수는 가족노동과 품앗이로 해결했다. 작업반은 1980년 전후 이앙기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수월암3리에도 두레가 조직되었다. 이길현(남, 1949년생)은 16, 17세에 두레패 활동을 했다. 수월암3리 심교두레는 좌상과 상쇠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상쇠로는 김연식이 유명했다. 이길현은 법구잽이와 호미잽이를 했다. 논매는 순서는 좌상이 정했다. 좌상은 연세가 많고 존경받는 인물이 담당했다. 논매기를 하려면 농가마다 논매는 시기를 조사해야만 했다. 각자의 논매는 시기를 고려하여 좌성이 조정하고 결정했다. 김매기는 애벌매기를 한 뒤 보름 간격으로 두 벌매기, 훔치기로 마무리했다. 김매기가 끝나면 백중이었다. 두레패들은 풍물패의 실력과 기수의 두레싸움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심교 두레는 금암2리와 두레싸움을 했다. 두레싸움에서 승리하면 꿩장목을 빼앗아서 깃대에 달았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작업반이 결성되었다. 작업반장은 이장이 하였다. 작업반의 특징은 남녀가 함께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작업반으로는 모내기를 했다. 논매기는 두레가 하거나 남자들이

7) 행정안전부, 「경기도 평택시 저수지 현황」,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data/15116433/fileData.do), 2023.12.

했고, 추수도 남자들 중심으로 했다. 수월암3리는 1980년 전후 이앙기가 보급되면서 작업반이 중단되었다.

(7) 농업기계화와 변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우(農牛)로 논밭을 갈고 우마차로 농산물을 운반했다. 농우는 좋은 송아지를 구입해서 잘 먹이고 훈련시켜야만 농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는 농사가 많아서 좋은 소가 필요했다. 더구나 수월암2리 도도리의 농지는 대부분 수렁논이어서 발목 힘이 쎄고 힘도 좋아야만 했다. 오산우시장에서는 ‘옥산 소’를 높게 평가했다. 강영배는 길들인 옥산 소를 사다가 쓰기도 하고 송아지를 사다가 길들여서 사용하기도 했다. 오산장에서 소를 사오고 길들이는 일은 강영배가 직접했고 쟁기질이나 써래질은 머슴들이 했다. 머슴들도 상머슴은 쟁기질을 비롯해서 농사일 일체를 할 줄 알아야 했다. 20세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길들이고 쟁기질하는 것을 직접하기 시작했다.


수월암리를 달리는 트랙터

1970년대 중반에는 경운기가 보급되었다. 1970년 전후에는 일제 경운기가 들어왔다가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동과 국제에서 국산경운기를 보급했다. 수월암2리에서는 이용화가 가장 먼저 경운기를 구입했고 두 번째로 강영배가 구입했다. 경운기는 마차가 했던 농산물 운반이나 논밭갈이와 써래질 등을 담당했다. 동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지만 농우를 길들이지 않고도 논갈이나 써래질을 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농지(農地)가 많은 사람은 쟁기로 농사짓는 것보다 경운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다. 농우에 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경운기 다음으로는 탈곡기가 보급되었다. 탈곡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궁글레통이라고 하는 수동식 족답기가 사용되었다. 이것이 전기가 들어오면서 모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1970년대 중후반에는 경운기의 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탈곡기를 사용했다. 탈곡기는 몇 사람이 함께 일했다. 앞에서 볏단을 나르고 넣어주고 나오는 벼를 뒤에서 받아 자루에 담아야 했다. 강영배는 탈곡기를 구입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탈곡을 해줬다. 삯은 탈곡량의 10%를 받았다. 이것으로 함

께 일한 품꾼들과 나눴다.

강영배(남, 1949년생)는 는 1970년대 말쯤 이앙기를 도입했다. 농지가 많다 보니 이앙기도 필요했다. 이앙기를 구입하면서 모내기 때 품을 사지 않아도 됐다. 머슴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어 자신의 논을 모내기한 뒤 품삯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논도 모내기를 해줬다. 이앙기와 탈곡기를 사용하면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강영배(남, 1949년생)의 부인 이복년(여, 1951년생)은 탈곡기를 사용할 때 본인이 따라다니며 작은 자루에 벼를 담았고, 이앙기를 할 때도 모판을 올려주는 역할을 도와줘야만 했다. 이앙기를 사용할 때는 삯을 돈으로 받았다.

콤바인과 트랙터는 1980년대 중반쯤 구입했다. 정부가 농업기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때 처음으로 도입했다. 농기계를 구입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교육도 시켰다. 농기계 값은 비싸서 본인의 농사만 지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과 주변마을 영세농들의 논들을 농사지어주고 삯을 받았다. 농기계는 오래 사용하지 못했다. 특히 수월암2리처럼 수렁논이 많은 경우에는 푹푹 빠져서 농기계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요즘에는 기계값도 올랐고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많다.

강영배(남, 1949년생)는 지금도 4,500평 농사를 짓는다. 농사일을 많이 하다 보니 허리를 다쳐서 모내기와 벼베기는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논 관리만 한다. 벼농사는 계약재배를 한다. 추수하면 물벼 상태로 농협에서 실어간다. 실어간 벼는 농협도정공장에서 기계 건조하여 도정한 뒤 슈퍼오닝, 꿈마지와 같은 상표로 시중에 판매된다.

1970, 80년대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했다. 농협에서는 면사무소와 협력해서 수매량을 높이려고 무척 노력했다. 통일벼 수매도 많이 했다. 농가에서는 먹을 것을 빼놓고 전량을 수매했다. 수매할 때는 농민들이 직접 벼를 말렸다. 멍석을 깔고 말리는 것이 정석이지만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말렸다. 말린 것을 가마니에 담아 우마차나 경운기로 싣고 가면 검사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 벼를 늦게 베어서 말리면 등급이 떨어졌다. 그래서 적기에 벼베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비료만 많이 줘서 재배해도 쌀이 푸석거리고 뻣뻣해서 미질(米質)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월암3리 이길현(남, 1949년생)은 농기계의 시작은 족답식 탈곡기부터라고 말했다. 이것이 전기가 들어오면서 모터식으로 바뀌었고, 1970년대 중반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일반 탈곡기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경운기로는 논밭을 갈고 써레질을 했다. 경운기는 소에 비해 생산력이 뛰어났다. 수월암3리에서 이앙기를 사용한 것은 1980년 전후쯤이다. 이앙기는 보행식과 승용식으로 구분되고, 2조, 4조, 6조, 8조로 발전했다. 대체로 2조, 4조는 보행용이 많고, 6조, 8조식은 승용식이다. 1980년대 초, 중반부터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트랙터와 콤바인이 보급되었다. 논을 갈고 써레질을 하는 데는 트랙터가 잘했고 벼베기도 콤바인으로 하면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 일할 수 있었다.

(8) 과수재배

수월암리 가운데 2리 도도리마을은 과수재배가 발달했다. 과거에는 10호 이상이 과수재배를 했고 지금도 4~5호가 재배하고 있다. 수월암2리에서 과수재배를 처음 시작한 것은 강영배(남, 1949년생) 댁이다. 1966년 묘목을 심었고 몇 년 뒤에야 수확했다. 강희분(여, 1925년생)도 1970년대 과수농업을 시작했다.



수월암2리 도도리 마을의 과수재배 풍경(2007, 2023)

강영배(남, 1949년생) 댁이 과수농업을 시작한 것은 1966년이다. 강영배의 부친이 소유했던 밭 2천평에 2천 평을 더 매입하여 모두 4천 평의 농지를 조성한 뒤 만삼길이라는 품종을 심었다. 강영배의 부인 이복년(여, 1951년생)도 결혼하기 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사과보다 배값이 훨씬 비쌌다. 묘목을 심고 3년이 지나면서 수확을 시작했다.



수월암3리의 과수원, 평택시농업인대상을 수상한 강학배 부부[8)]

수확한 배는 서울 용산의 청과물시장이나 인천으로 보내 유통시켰다. 당시에는 농협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차에다 실어 보낸 뒤 도매상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1970년대 초부터는 신고 배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장십량이라는 조생종도 재배했다. 그러다 보니 수확할 때는 장십량을 먼저 따서 팔다가 만삼길을 땄고 나중에 신고를 따서 팔았다.

부친의 과수원은 강영배가 서울에서 내려온 뒤 물려받았다가 나중에는 동생에게로 넘어갔다. 초기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수익률이 낮다가 1977년 동생이 물려받은 뒤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평택지역에 과수농업 붐이 일어나서 수확량도 크게 증가하고 수익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9) 축산업

8) 평택시민신문 제공

1970년대에는 축산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았다. 당시 축산업은 젖소 값이 너무 비싸고 초지와 축사를 지을 자본이 필요해서 가난한 사람은 시도하기가 힘들었다. 축산업 방식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농우를 한 마리 또는 다른 사람의 송아지를 위탁받아서 기르는 방법, 둘째는 젖소사육, 셋째는 비육우 사육이었다.

강영배(남, 1949년생)도 한때 축산업을 했다. 젖소 송아지를 분양받아서 6마리를 몇 년 동안 길렀다. 1980년 전후에는 다른 집들도 축산업에 뛰어들었다. 사육 두 수는 6~10마리로 강영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1990년 전후에는 수월암2리에서만 10여 호가 젖소사육을 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젖을 짜는 일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젖을 짜주지 않으면 유방염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다. 젖을 짜면 서울우유, 매일유업 같은 우유 회사에서 수거하고 15일마다 우유 대금을 입금해줬다.

젖소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면 큰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현금을 만질 수 없는 농촌에서 15일마다 입금되는 우유 대금은 매우 요긴했다. 강영배 댁에서는 부인 이복년이 주로 젖소사육을 담당했다. 농사를 지어서는 현금을 만질 수 없어서 젖소를 기르고 꽃집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아이들 학비 등을 충당했다. 젖소를 사육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젖을 짠 뒤 여물까지 주고 나서 아침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는 출근했다. 저녁에도 퇴근한 뒤 젖을 짜고 여물을 준 뒤에서야 밥을 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우리가 소만 못하냐' 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강영배와 이복년의 축산업은 몇 년 만에 끝났다. 남편이 홧김에 상의도 하지 않고 젖소를 팔아버린 것이다.

수월암3리 심교마을의 이길현(남, 1949년생)도 축산업을 했다. 마을에서는 1970년대 초 김신환이 처음 시작했다가 정해동이 그 다음으로 뛰어들었고 그다음으로 이길현이 시작했다. 이길현은 처음에는 사과나무 묘목을 100그루쯤 심었다가 뽑아버린 뒤 26살 때부터 축산업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결혼도 했다. 이길현은 젖소 1마리부터 시작했다. 1974년 4월 안양에 가서 6개월 된 송아지 1마리를 220만 원에 구입했다. 송아지를 1년 기르자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송아지만 160만 원에 팔아 수익을 올렸다. 당시에는 소 1마리에 30kg의 젖을 짰다. 우유는 1kg에 6, 7천 원, 20리터 한 통에 1,2000원쯤 했는데 해태유업에서 아침마다 수거했다. 수익률이 높다 보니 1970년대 중반에는 젖소 1마리면 자녀들 대학을 보낸다고 말했다.

1년 뒤에는 우사(牛舍)를 신축하고 사육 두 수를 늘렸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익으로 450만 원에 새끼 밴 암소를 한 마리 샀고 이것이 1달 후 새기를 낳자 15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1년 뒤에는 투자금을 회수했다. 사육 두 수가 점차 늘면서 나중에는 50마리까지 늘렸다. 1990년대 젖소 50마리면 제법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 속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젖소를 모두 팔아버리고 비육우로 대체했다. 부인이 몸이 아파서 함께 축사를 돌볼 수가 없어 젖을 짜지 않아도 되는 비육우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다. 비육우는 10마리에서 시작해서 20마리쯤 길렀다. 초기에는 비육우도 수익이 좋았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소고기 소비가 증가한 탓이 컸다.

이길현은 2023년 5월 축산업을 폐업했다. 소고기값도 싸고 사료비가 비싸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더구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평택시청에서는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태양광 분뇨말리기까지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태양광 분뇨말리기까지 하려면 추가비용이 1억~1억 5천만 원이 소요되어 폐업을 결정했다.

(10) 도정(搗精)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도정(搗精)은 디딜방아나 연자방아, 물레방아, 절구와 같은 것으로 했다. 하지만 수월암리 주민들은 디딜방아나 연자방아의 존재유무와 개수를 알지 못했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 댁에서는 정미소를 운영했다. 정미소는 부친이 설립했다. 부친은 멋쟁이였는데 정미소만큼은 인부 2명을 고용해서 직접 운영했다. 정미소는 휴전 직후(1954년)부터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미소는 10년쯤 운영했다. 그러다가 1965년쯤 수월암2리에 도도리농업협동조합 정미소(마을정미소)를 만들 때 팔았다.




수월암2리와 도도리정미소가 있었던 강영배, 이복년씨 자택

정미소에는 구보다 발동기를 썼다. 시동을 걸면 탕탕탕하고 큰 소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른 정미소들도 같은 발동기를 썼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농민들은 벼 말리기를 했다. 보통 마당에 멍석을 갈고 4~5일쯤 말렸다. 도정(搗精)을 하려면 농민들이 직접 소달구지에 싣고 정미소까지 왔다. 강영배 댁 정미소는 벼와 보리를 모두 찧었다. 그래서 6월에는 보리방아를 많이 찧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는 벼 방아를 찧었다. 수월암리에서는 정미소끼리 경쟁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도정(搗精)했고 정미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옆 마을의 정미소를 이용했다.

수월암리에는 1리에 소규모 정미소가 있었고 2리에 강영배의 ‘도도리 정미소’가 있었다. 그러다가 3리에도 기련씨 부친이 정미소를 열었다. 내천1리의 조상현씨 정미소는 규모가 컸고 내천2리에도 오준석씨 부친이 운영하는 정미소가 있었다. 수월암2리 도도리 정미소는 강영배의 집터에 있었다. 현재 태양광발전기가 있는 위치가 옛 정미소라고 했다. 정미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수월암2리, 3리가 주로 이용했고 1리 사람들도 일부가 왔다. 1960년대 초를 기준으로 삯은 벼 1가마니에 쌀 두 되를 받다가 나중에는 세 되까지 인상했다. 벼 외에도 보리와 밀도 도정했다. 삯은 비슷했다.

도도리농업협동조합(속칭 이동조합) 정미소는 1965년경에 만들었다. 도도리농업협동조합 설립은 강세일(초대조합장)이 앞장섰다. 주민들은 각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었다. 통상 이동조합은 정미소운영, 농업자금 대부, 구판사업 등을 했다. 도도리이동조합은 설립 후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다가 1965년 정미소 사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강영배에 따르면 조합에서 정미소를 운영할 테니 강씨네에게 정미소를 그만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영배의 부친은 저항했지만 일하던 사람들이 조합정미소로 옮겨갔고 도정료도 쌌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아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마을 정미소는 오래 운영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2년쯤 운영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 뒤로는 최

원태가 인수해서 운영했다. 최원태는 강영배의 도도리 정미소의 기술자 출신으로 도정기술이 있었다. 최원태의 정미소는 아들이 물려받아 1990년대까지 운영하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위탁영농한 벼들만 도정한다.

수월암리에서는 최원태 말고도 허은태, 정민석, 최종솔 부친, 최고태 등도 운영했다. 최종솔 부친이 운영할 때는 마차나 경운기로 수월암1, 3리까지 가서 벼를 실어다가 도정해서 배달해주기도 했다. 지금은 대부분 농협 계약재배(수매직불제)를 한다. 그래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품종을 심어 추수하면 물벼 상태로 가져다가 농협도정공장에서 건조하여 도정한다. 수월암3리에서는 내천리 임동순의 정미소를 많이 이용했다. 요즘에는 다른 마을처럼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많이 한다. 수월암3리 이길현(남, 1949년생)은 식량할 것만 남기고 농협에 납품한다.

(11) 유통(流通)

과거 농가에서는 잉여농산물을 장시(場市)를 통해 유통했다. 대체로 농민들이 쌀이나 잡곡, 채소를 실어다가 장에 내다 팔고 현금을 가져오거나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수월암리 일대에서는 '오산장' 이 가장 컸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위 읍내장' 도 봤다. 6.25 전쟁 뒤 신장동 일대에 기지촌이 건설되면서부터는 지산동 구 버스터미널 옆에 아침장(현 송탄전통시장)과 신장동의 저녁장(현 중앙국제시장)도 이용했다. 평택장이나 서정리장, 수원장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수월암1리 이송자(여, 1940년생), 이계희(여, 1938년생)

수월암1리 이송자(여, 1940년생)는 옛날에는 오산장을 봤는데 지금은 송탄전통시장을 본다고 말했다. 오산장은 3일, 8일에 개시(開市)했다. 오산장을 볼 때는 걸어다녔다. 장날에는 쌀 두세 말이나 잡곡을 이고 3km를 걸어가서 옷과 양말,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만들어 다시 걸어왔다. 농산물을 팔아서 얻은 현금은 용돈으로 쓰거나 아이들 학비로 사용했다. 송탄전통시장을 보게 된 것은 평택시에서 마을을 거쳐 송탄과 평택으로 연결된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반면 오산장과 연결된 버스노선은 없어서 택시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오산장은 규모가 커서 노인들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이동거리가 길어서 불편하다고 말한다. 반면 송탄전통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필수품만 간단히 구입하기에는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남자들은 우시장에 많이 갔다. 오산우시장은 규모가 커서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다 키운 소를 팔 때 많이 이용했다. 우시장은 수원장도 컸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용하지 않았다.

1960년 전후 수월암1리에서 오산장까지 걸어다닐 때는 논둑길을 걸었다. 고무신을 신고 논둑을 걸으면 땅이 질어서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경지정리와 오산천 둑방이 건설되면서부터는 둑방을 따라 걸었다.

(12) 농가부업

수월암리의 농가부업으로는 해방 전후에는 가마니치기와 새끼꼬기, 목화재배, 잠업 등이 있었다.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년생)과 아들 송상기(남, 1949년생)

강희분(여, 1925년생)은 송아지 기르기와 가마니짜기로 부업을 했다. 농지가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가마니를 짜서 생활하고 땅을 넓혔다고 말할 수 있다.

송아지 기르기는 어릴 때 남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길러서 오산장에 판 뒤 이윤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통상 이윤을 나눌 때는 송아지값을 제외하고 반반씩 나눴다. 송아지 기르기는 가난한 농가에서 목돈을 쥘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강희분 부부는 목돈을 손에 쥐면 무조건 땅을 샀다.

가마니치기는 일제 말부터 강요했다. 전시체제기에 군량미를 확보하려면 쌀과 함께 튼튼한 가마니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희분은 해방 후 농지개혁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순전히 가마니치기로 농지를 확대했다. 가마니를 치려면 좋은 짚을 마련해야만 했다. 강희분 부부는 농사가 많지 않아서 충분한 짚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짚을 구입하여 가마니를 쳤다.

수동식으로 가마니를 치려면 2명이 한 조가 되어야 했다. 강희분은 남편과 한 조가 되어서 가마니를 쳤다. 겨울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마니를 치면 하루에 19~20장씩 쳤다. 일반적으로 하루 8~10장, 잘 치는 사람이 12장을 쳤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다. 매일 가마니를 치다보면 손 끝에 피멍울이 맺혔다. 심할 때는 멍울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강희순 부부가 가마니를 잘 치자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덜컥하면 가마니 하나 떨어지고 또 덜컥하면 떨어지고 한다' 고 말했다.

해방 전후에는 가마니공출을 했다. 해방 전 강희분 남편은 가마니가 많아서 지고 갈 수가 없어 마차에 싣고 하북으로 갔다. 진위면 하북리에는 가마니 검사원이 있었다. 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 강희분 부부는 솜씨가 좋아서 항상 1등급을 받았다. 나중에는 가마니왕에 선발되어서 상으로 광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 강희분 부부에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마니를 가져갈 때마다 1등급을 받냐' 며 부러워했다.

가마니에는 쌀가마, 비료가마, 거름가마가 구분되었다. 강희분 부부가 쳤던 가마니는 '개량가마니' 였다. 개량가마니는 쌀을 담았는데 짚을 물에 불린 뒤 빻아서 쳤다. 개량가마는 쌀 10말씩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쳤고, 비료가마는 작게 쳤다. 친 뒤에는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들었다. 개량가마로는 쌀 공출미를 담았다.

가마니는 1970년대 후반 마대자루가 나오면서 중단했다. 강희분은 '요즘 사람들은 호강한다. 남편과 본인은 만고풍상을 겪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편하게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린다' 고 말했다.

2) 산업시설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수월암리는 201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를 겪고 있다. 특히 화성시, 오산시 경계의 수월암1리와 2리, 4리 지역의 공업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지역은 주변 자치단체와 접경지역에 속해 부품제조나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했다. 중소공장들의 입주는 전통

의 경관 훼손뿐 아니라 주민들의 농업생산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평택시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하여 서탄면 수월암리 산82번지 일대 84,786평에 서탄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 HRS(대표 김진성), ㈜경동나비엔(대표 손연호), CJK얼라이언스(대표 김상욱), ㈜경기실업(대표 윤재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 23일~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서탄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지만 3차례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한 끝에 2022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전개되었다. 산업단지에는 산업시설용지가 192,527㎡(68%)이고 지원시설용지가 3,843㎡(1.4%)이며 복합시설용지 2.9%, 공공시설용지 26.9%로 구성되었다. 서탄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고 기업들의 입구가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통해 서탄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표는 수월암리 지역의 산업시설이다.

수월암리의 산업시설[9)]

회사명	주소	종업원	생산품
인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54-19 외	3	반도체용 진공장비 프레임 등
(주) 우리정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69-4	7	장비 부품
대동이앤티(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40	10	철도차량 및 부품제조
(주)엠제이인터내셔널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50, 나동	3	마스크(KF-94,80,AD)
(주)이룸조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3-209	2	조명
엠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3-96	8	가공공작기계 등
(주)한양기술공업 2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31-7 한양기술공업	60	반도체 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부경글로벌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54	7	복합비료
(주)클린글로벌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62-24	9	부직포
(주)디케이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0-3 외	22	OLED Mask Frame, 반도체장비 외
주광전기(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69-6 외	25	전기부품
(주)중앙플라텍-3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86-2 외	12	플라스틱제품
이젠임플란트(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6-32	22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시술기구
에스에스아이(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62-7	19	부스바가공, 배전반부품
(주)햅컴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66	9	화장품용 필링 패드
현성하이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55 외	10	양면테이프
(주)이노벡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94-19	21	Wing TV, Spin TV 외
(주)경동엠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95	7	페이스트
고광산업(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755	30	포장용박스, 복합단열재,플라스틱원단
크레인코리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48	15	바켓,굴삭기붐대
(주)티엠씨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68-4 외	13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
동화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994-40	5	플라스틱 난좌
유에스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50	2	반도체 장비 자동화부품
(주)민영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704	7	플라스틱사출제품

9) 2022년 평택시 공장등록 현황 참조

회사명	주소	종업원	생산품
(주)디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02 외	18	진공배관,GasCabinet,VMB,VMP
(주)디오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61-9	14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부품
(주)에스티씨엔지니어링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191-32 외	49	자동화장비, 검사장비
(주)써밋필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82-9	3	펀프류, 하수처리장치
(주)아인스이엔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75-7 외	32	반도체부품, 치과용 덴탈제품
(주)파인솔루션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88-12	138	반도체장비 및 OLED 장비제조
엠에스필터 ㈜	평택시 수월암길 15 -26 A동	14	산업용에어필터
(주)티와이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91	6	LED, PCB
(주)케이엔에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07-9	20	자동화설비
주식회사 정진넥스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77	21	LED리드프레임
혜성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55	6	골판지 박스
(주)스펙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6-52	12	반도체장비 제작용 부품
(주)에이엔씨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1-7	13	자동화설비 기계부품
(주)임호엔지니어링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10-5	4	전기수배전반
제일테크(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86-3	45	강관
(주)광진피앤엘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1276	6	은박용기
(주)원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99 외	19	자동화기계,FA장비 등
(주)매봉엔지니어링 제2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67-1	40	디스플레이자동화기계
주식회사 이화다이케스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98-40	55	자동차부품
(주)스리에스엠코리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46	22	위생용품
신우이엠(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1-22	16	탄성매트, 자동차부품
(주)한양기술공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33	295	valve box, jungle box
(주)우리비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46	60	액정용 광학필름
삼형테크(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60-9 외	22	주기억장치(RAM)
(주)천상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83, 2층	1	반려동물용 우유
(주)다람기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5-21	67	카메라모듈검사기,휴대폰FPCB검사기
한양전공(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98-23	56	수,배전반, 무정전전원장치,태양광인버터
(주)명인이엔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37 외	27	스터터 장비 타켓 베이스
샤프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60-8	2	가솔린엔진, 농업용양수기
세창프라스틱(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62	40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
(주)인플러스알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52-7	8	경질우레탄, 포장용박스, 복합단열재
트레스코	평택시 수월암4길 117	5	전자컨트롤박스
사회복지법인 길상복지재단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85-1	3	D형랙크,암타이랙크밴드,단일형내장완철 등
(주)빌드윈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7, 2동	12	교량난간,울타리,금속명판,금속제창
유이포장	평택시 수월암4길 26 -5 B동	2	종이박스
(주)정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68-38	2	기능성 미용비누
(주)대명유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3-20	3	유리제품

회사명	주소	종업원	생산품
(주)상지 제2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0-27	17	자동차부품
티엠에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6-56, A동	3	반도체 밸브
디에이치(주)평택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12-8번지	75	LCD액정 검사 기기
(주)조현기초기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5-25	6	어스앵커
주식회사 공덕기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0-22	19	로봇부품,방산품 부품가공 외
(주)이포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28-9 235-1,-2번지	6	반도체장비
(주)피에스원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82	9	필름
태광전기공업(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85-1	16	D형 랙크, 암타이랙크밴드
홍익카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38	4	반도체캐소드링
번환정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785	4	절삭공구
(주)엘에스디이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5-86	9	PC Rack, Power Rack, Masker Chamber
(주)일렉켐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70-10	8	접착제 , 에폭시
광성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785-15	5	농자재부품
리얼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3길 41	3	배전반 외
지우케미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73	15	일회용 플라스틱용기
(주)삼정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786	24	라바패킹
메타폴라아로마(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83	11	입욕제 화장품
대창정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56	5	금융기기 부품가공
휠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6-36	5	생크(Shank)
(주)경동나비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95	395	보일러
(주)경동원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95	100	룸콘 및 콘트롤러
형제정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38	22	휴대폰 밧데리 케이스
(주)경동에버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95	20	버너 및 열교환기
(주)아이비기술	평택시 수월암5길 45 -10	21	금속 및 세라믹 제품
(주)동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04	28	도마, 시트, 파레트, 컵
(주)중앙플라텍제2공장	평택시 수월암4길 244 -12	12	플라스틱식품용기류
평원화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39	40	원단
(주)클라인즈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5-76	20	LED TV 및 전자제품
우진카바링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90	5	연사
주식회사 안진화성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90	12	플라스틱 시트, 부품
(주)아름터제2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06-1	19	시럽류 외
(주)대지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6-34	6	금속사다리
(주)신광화학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53	23	접착제,에폭시
(주)아이앤씨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76	3	산업용테이프
주식회사 세운쇼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24-21	8	철 구조물
세륭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92	18	플라스틱 사출품
에이치케이테크(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55	30	Focus Ring 외
(주)경림코퍼레이션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32-9	24	옵셋인쇄
(주)금강산업플랜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140-28	8	빠차,사이로,탱크
세명엔지니어링(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47	21	배전반,제어반
(주)상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6	61	브레이크&클러치 S/W

회사명	주소	종업원	생산품
(주)아름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32-18	33	식품첨가물,소스,커피원액
(주)에스엔에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59-18	142	히터 프레임제작 외
(주)화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41	39	자동화 장비 부품 외
(주)아드반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74번지	6	REAR CAP 등
챔프다이아(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3-109	36	초경공구
화인클린(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70-40	9	반도체설비부품 외
(주)삼우다이캐스트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72	8	다이게스팅
(주)대협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3-119	48	초경공구
상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6	84	브레니크,클러치s 외
(주)알파어셈블리솔루션즈코리아	평택시 수월암길 111	43	전자부품용접착제
(주)상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6	79	브레이크,클러치s/w
(주)이화다이케스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75번지	49	엔진부품
(주)정진넥스텍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76	32	LED리드프레임
오토바른정비(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60	27	건설기계정비
씨엔에스인터네셔널(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75	2	전자제품, 리드와이어
(주)일강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40	179	요오크류
(주)동광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113-22	3	축사용바닥배출틀
대명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24-16	9	자동차워셔통
테라테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38	14	LCD반도체 부분품
건영몰드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24	4	몰드금형 및 설계
동화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62	5	플라스틱난좌
덕성전자부품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89	3	POC
(주)한국지엠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24	26	실크인쇄, CD생산 외
대경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09	15	LCD케이스 인쇄
유한종합포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5	3	골판지상자
제원정공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7	0	중장비부품
(주)덕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길 50	4	스탬핑호일
서광이앤피(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71-12	58	에어컨 커버
경원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37-4	55	자동차 사출품 도장
(주)태화케미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82-11	8	플라스틱재생재료
대승정밀(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02	160	컨로드
(주)중앙정공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02	31	플라스틱류
혜성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55	7	골판지 박스
우진섬유(주)	평택시 수월암4길 194 -17	40	연사
국제화성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82-3	5	에폭시수지
성진산업(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81	44	쿨러,실외기,열교환기
태영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85	8	그라비아인쇄
영동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24-11	12	통신장비부품
(주)한성칼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94-19	94	메뉴얼,홍보물
(주)제원산업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17	20	브레이크부품, 특장차부품,

회사명	주소	종업원	생산품
			중방비부품
(주)성우정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91	37	무선통신장비부품
안진화성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90	10	플라스틱시트
(주)한국알테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14	44	순간접착제
(주)중앙플라텍-1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02	107	플라스틱 제품
한국산노프코(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175	39	조제 계면 활성제
(주)대승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00	149	홀더, 분할대, 자동차부품
(주)신성금고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49	19	철재금고, 금고비
동성화학공업(주)제2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3길 96	84	플라스틱제품 제조
동성화학공업(주)제1공장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3길 78	108	ps-sheet
덕흥전자부품(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15-1	35	냉장고 도아판넬
대전기계공업(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4길 239	37	구리선, 주물 외
(주)내쇼날플러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11-1	33	플라스컴, 도마, 파렛트



수월암1, 2리 일대의 산업시설


수월암2리 산업시설

4. 사회생활

1)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우물과 수도시설

수월암1리는 공동우물이 한 개였다. 우물은 현재 마을회관 앞쪽 공장이 입주한 자리에 있었다. 공동우물은 수량이 풍부했다. 마을 주민들은 두레박과 물지게로 식수를 길어 먹었다. 물긷는 일은 여자들이 했지만 지대가 높은 집이나 거리가 먼 집들은 남자들이 도와주기도 했다. 이송자(여, 1940년생)는 1959년 결혼 직후에는 물을 길어 먹었지만 3년 뒤에 관정을 박아서 펌프를 놨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다른 집들도 너도나도 관정을 박아 펌프를 설치했다. 자가수도는 1972년(이송자는 1973년 가을이라고 주장)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설치했다. 1975년에는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놨다. 수도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들어와서 관정을 깊게 박고 산 위에 집수정을 만들어 집집마다 공급했다.



수월암1리와 3리 마을회관 및 수월암1리 공동우물 터(공장)와 이송자, 이계희씨

수월암3리는 공동우물이 3개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집집마다 물항아리를 구비하고 물동이나 물지게로 물을 길었다. 1970년 전후에는 자가우물이나 관정을 박아서 펌프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전기가 도입되면서 자기수도를 놓았고 1970년대 후반에는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 2000년 전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다. 수월암리는 화성이나 오산과 가까워서 일찍 들어왔다.

(2) 전기

수월암1리가 전기를 도입한 것은 1972년 또는 1973년이다. 주민들은 1972년 수월암2리와 함께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송자(여, 1940년생)는 1973년 가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을 신축했는데 그해 가을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수월암2리는 1972년 전기가 도입되었다. 당시 전기를 도입하려면 보증금을 내야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마을은 도입이 늦었다. 수월암2리 이복년(여, 1951년생)은 1971년 결혼 당시에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이장을 볼 때 노력을 해서 전기를 끌어왔다고 했다. 수월암3리도 1970년대 초반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했다. 마을주민 이길현(남, 1949년생)은 자신이 군대 갔을 때쯤 전기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수월암2리의 전봇대, 수월암1리 골목길 풍경

전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서 등잔을 닦거나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바쁠 때는 밤에도 불을 켜고 일할 수 있었고 족답식 탈곡기(궁굴통)에 모터를 달아서 탈곡할 수도 있었다. 자가우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관정을 새로 판 사람들은 모터를 사다가 자가수도를 만들기도 했다.

가전제품 가운데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은 텔레비전이다. 전기도입 초창기에는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 많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먼저 구입한 집으로 시청하러 다녔다. 가전제품으로는 1980년대로 들어와 전기밥솥과 전기다리미, 선풍기를 구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나중에서야 구비했다.

2) 마을 조직과 운영

수월암3리는 대동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장단, 부녀회, 노인회와 같은 조직이 있다.

대동회는 연말 총회다. 대동회에서는 예결산과 사업보고, 임원선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조직되었다. 마을의 주요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모여서 논의하는 회의체였는데 25년 전(1990년대 후반) 중단되었다.

이장단은 이장-새마을지도자-반장으로 조직되었다. 이장은 연말에 개최되는 대동회에서 선출한다. 이장은 본래 임기가 2년이었는데 마을에서 일할만한 사람이 줄어들면서 3년으로 늘렸다. 새마을지도자와 반장은 지목한다. 수월암3리에는 2개 반이 있고 반(班)마다 반장이 있다. 반장은 이장과 마을사업을 상의하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의 각종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부녀회는 여성들로 조직되었고 1970, 80년대에는 청년회도 있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에는 청년들만 30명이 넘었다. 청년회는 마을환경개선사업과 계몽운동을 했다. 2010년 이전에는 서탄면 마을대항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축구대회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개최하다가 점차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65세 이하까지 참가했다. 그러다가 젊은층의 감소로 더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2010년경 중단했다. 새마을부녀회는 197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노령화되고 부녀회장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2024년 1월 해체되었다.



수월암3리 풍경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역할이 많았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새마을연수를 다녀와 마을안길 넓히기, 지붕개량, 퇴비증산운동에 앞장섰다. 비료나 농약 배급, 통일벼 재배, 식량증산운동도 하였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의 전달사항 전달, 각종 회의 참석, 마을에 출장 온 공무원 접대도 이장의 역할이었다. 수월암3리의 새마을운동은 이기호 이장이 주도했다. 그 뒤로 이보의가 20년 간 이장으로 활동했고 윤흥로, 김신환을 거쳐 지금은 이기성이 12년째 봉사하고 있다.

이장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2023년 기준 면(面)에서 지급하는 활동비는 40만 원이다. 마을에서는 리세(里稅)를 징수하여 이장, 반장들에게 지급한다. 과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한 말, 벼를 수확하고 한 말씩 거뒀는데 근래에는 현금으로 연 2만 원씩 걷는다. 이장의 역할도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입퇴거를 할 때도 이장의 도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의 입퇴거 상황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는 새마을지도자가 반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수월암3리에는 4H운동도 활발했다. 4H운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다. 심교마을 4H는 늦가을 추수가 끝나면 소인극(연극)을 공연했다. 공연장은 사랑채가 있고 마당이 넓었던 이길현(남, 1949년생) 댁 사랑에서 개최했다. 작품은 춘향전, 쇠돌이, 전원일기 같은 민중계몽과 의식개혁, 효(孝)와 관련된 작품을 공연했는데,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본을 외우고 밤늦게까지 연습에 열중했고, 공연 날에는 다른 동네에서까지 구경왔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3) 혼례(婚禮)

수월암2리 이복년(여, 1951년생)은 친정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살림을 돕다가 21세가 되던 1971년에 결혼했다. 친정에 있을 때는 밭 매고 농번기에는 밥해서 나르는 일을 했다. 당시 21세 결혼은 일찍 하는 편에 속했다. 대부분 25, 6살쯤에 결혼했고 남자들도 27, 8살은 되어야 했다. 이복년은 딸 셋 중에 둘째였고 위로 혼인하지 않은 언니가 있었지만 신학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복년을 먼저 결혼시켰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딸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니 딸 셋 가운데 한 명이라도 먼저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을 서두른 것은 신랑 강영배(남, 1949년생)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장남인 데다 집안에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없

어 농사도 많은데 밥하고 집안을 건사할 사람이 필요했다.

중매는 동탄 친정마을에서 수월암리로 시집왔던 사람이 했다. 남편은 두 살 연상으로 23살이었다. 친정에는 남편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막내 시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결혼 당시에 13살에 불과했다. 신랑 강영배(남, 1949년생)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낙향한 뒤 남동생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방위를 받고 있었다.

맞선은 송탄의 숯고개 아래 오산다방에서 봤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다방에서 만나 자장면을 한 그릇 드신 뒤에 둘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자리를 떴다. 둘만 남았을 때 이복년은 남편에게 ‘어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자’ 고 말했다. 강영배도 동의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신장동의 삼보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했다. 그래서 함께 찍었더니 나중에 사진에다가 ‘약혼기념’ 이라고 써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본인의 의사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채 몇 달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오산의 이린각 호텔에서 했다. 남편은 새 양복을 해서 입었고 이복년은 하얀 한복을 새로 지어서 입었다. 아무래도 빌려서 입는 드레스는 한 번 입고 돌려줘야 해서 계속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지어 입었다. 예물은 금반지와, 다이아 반지, 목걸이를 받았다. 시댁에서 시계는 해주지 않았다. 혼례 때 받은 목걸이와 반지는 끼워보지도 못하고 시동생에게 줬다. 막내 시동생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예물로 반지를 만들어준다며 목걸이를 가져가려고 해서 ‘그것은 놔두고 반지를 가져가세요’ 라고 했더니 ‘곗돈을 타면 다시 해주마’ 라고 하면서 가져간 뒤로 다시 해주지 않았다. 목걸이는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해줬다. 그런데 그것마저 IMF 금모으기행사 때 기부했다. 기부하고 받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는데 그것마저 남편이 막내 시동생을 줘버렸다.

결혼할 때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서 동네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자 시부모님이 억지로 신혼여행을 가라고 했다. 그래서 얼떨결에 온양온천으로 1박 2일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수월암2리 강영배와 내천리 이무전, 강영배의 처 이복년

결혼 후 이복년은 가사노동과 밭일을 모두 도맡았다. 시부모님은 농사일이나 집안일에서 손을 놓고 도와주지 않았다. 시동생도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쯤 결혼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복년 혼자서 가사노동을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

강희분(여, 1925년생)은 수월암2리 토박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5세에 부친이 돌아가셨다. 형제는 강희분 아래로 4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동생들도 장수해서 지금도 모두 생존해 있다. 17살에 화성시에 속하는 이웃 마을 덕절리에서 송영국을 데릴사위로 들였다. 혼례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남편은 술도 마시지 않고 노름도 멀리했으며 매사에 성실했다. 남편은 데릴사위로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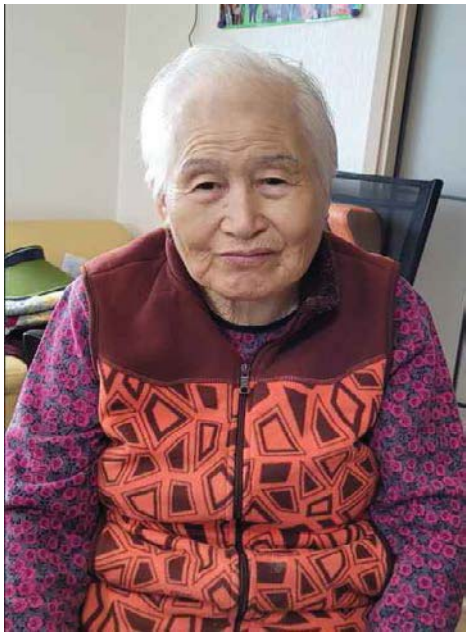
와서 강희분과 가마니치기 등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논과 임야를 장만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53세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과수원도 5,700평이나 운영했다.

이송자(여, 1940년생)는 야막리가 친정이다. 남편은 7남매 중에 외동아들이었다. 위로는 누님이 3명 아래로도 여동생이 셋이었다.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하여 집안을 일으켰다. 남편은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중매는 교사를 했던 임광래가 했다. 임광래의 밭이 시댁 밭과 이웃이었는데 시어른들이 중매를 요청했다. 당시 남편은 21살이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친정에서는 집안 경제사정도 괜찮고 시어른들이 부지런하며 신랑도 착하다면서 혼사를 서둘렀다.

맞선은 형식에 불과했다. 당사자의 마음보다 부모님의 결정이 중요했다. 추석 이튿날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며 맞선을 보고 두 달이 조금 지난 음력 10월 24일에 혼례를 치렀다. 처음에는 이듬해 봄에 혼례를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시집간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잘못되기 전에 혼례를 해야 한다며 날짜를 앞당겨 10월에 했다. 혼례를 치를 때는 남편은 오산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며칠 동안이지만 결혼 후 남편의 등교를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방학을 했고 명절을 쇠자 졸업했다. 결혼 후 남편은 입대했다. 남편이 입대할 때도 훈련소까지 배웅하지 않았고 친정 오빠가 동행했다. 군대생활도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논산훈련소 조교로 편하게 마쳤다.

4) 식(食)

이송자(여, 1940년생)는 진위면 야막리에서 시집왔다. 명절에는 같은 마을의 큰집으로 가서 쇠었다. 차례는 지내지 않았지만 떡과 부침개를 많이 했다. 떡은 시루떡을 비롯해서 서너 가지는 했던 것같다. 두부도 만들었고 엿도 고았다. 엿 고는 일은 시어머니가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송자가 직접했다. 정월 대보름에는 부꾸미를 만들었다. 찹쌀가루를 빻아서 반죽을 한 뒤 팥을 넣어서 기름에 부쳤다. 추석에는 송편을 한 말씩 했다. 송편을 빚으려면 새벽 한 시까지 일해야만 했다. 콩떡도 한 말쯤 했다.



수월암1리 이송자와 이계희

술도 많이 담갔다. 시댁에는 술 항아리가 세 개씩 있었다. 1960, 70년대에는 밀주 단속을 했다. 밀주 단속을 오면 걸릴까 봐 술항아리를 감추느라 정신을 못차렸다. 식량 자급자족을 해야하는데 쌀로 술을 담근다며 단속한 것이다. 술은 좋은 쌀로 담가야 맛있다. 하지만 양식도 부족한 마당에 좋은 쌀 나쁜 쌀을 따질 수가 없었다. 술을 담글 때는 저녁에 멥쌀을 물에 담가야 했다. 그런다음 아침에 고두밥을 지었다. 고두밥이 식으면 누룩을 넣고 비벼서 자루에 담아 아랫목에 재웠다. 그러면 찹쌀처럼 뽀얗게 변했다. 누룩은 쌀 한 말에 두되 정도를 넣었다. 아랫목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자루에 넣은 쌀에 술약(이스트)를 사다가 섞어서 술항아리에 담았다. 술항아리는 헛간에도 묻어두기도 했고 광에다가 이불을 둘러서 두기도 했다. 그렇게 삼일쯤 지나면 술이 익는 소리가 들렸고 일주일쯤 지나면 용수를 박거나 가라앉혀서 약주를 떠냈다. 약주를 떠낸 뒤에는 물을 적당히 부어서 자루에다가 받쳐서 내렸다. 그러면 막걸리가 되었다. 농번기에는 술을 담그지 않으면 품꾼들을 부릴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도 논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참 먹을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와서 술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다시 들에 나가서 일했다.

수월암1, 2리는 주변에 산이 많아서 땔감이 흔한 편이었다. 땔감으로는 잔솔가지와 솔가리, 낙엽과 풀을 뜯어뒀다가 말려서 사용했다. 땔감은 시아버지나 남편이 했다. 풀을 뜯는 것은 음력 7월에 했다. 음력 7월이면 집안의 남자들이 솔가지나 나뭇가지를 쳐내고 풀을 뜯어서 말렸다. 그것을 산에서 두 달쯤 말리면 거둬다가 집 옆에 쌓아두고 겨우 내내 땔감으로 사용했다. 볏집은 특별하지 않으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2년마다 초가지붕을 올리고 가마니 치고 새끼를 꼬려면 짚이 많이 필요했다.

시아버지는 땔감을 자주해왔다. 그래서 연탄아궁이를 다른 집보다 늦게 했다. 1990년 전후 집을 입식으로 고치면서 보일러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기름보일러를 놨는데 나중에 심야전기보일러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교체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2011년에 신축했다. 신축한 집에는 기름보일러를 설치했다. 2023년 추석 전에는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난방도 가스보일러로 교체했고 밥을 할 때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만 이송자의 집은 마을 건너편에 위치해서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5) 주(住)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의 집 내부와 수월암4리 삼두빌라

1960년대 초 수월암1리는 모두 초가였다. 당시 부자는 3집뿐이었다. 부자들의 집은 규모만 컸고 기와를 올리지는 않았다. 1973년 신축했던 이송자(여, 1940년생)의 집은 방 3개에 대청마루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사랑채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랑채에는 방과 외양간, 광이 있었고 화장실은

바깥쪽에 따로 있었다.

1970년대에는 아궁이 개량으로 부엌에 연탄아궁이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연탄아궁이가 설치됐어도 밥을 할 때나 난방을 할 때는 여전히 일반 아궁이를 사용했다. 석유풍로(곤로)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었다. 하지만 석유풍로는 조리를 했을 때 석유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1980년 전후에는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다가 1990년 전후에는 입식으로 주택을 개량하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이 많았다. 입식 주택에서는 화장실도 실내로 이동했다. 2000년 전후에는 심야전기보일러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많았다. 1990년대 주택개량을 하면서부터는 가전제품의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가스랜지를 비롯해서 전기밥솥, 냉장고 등이 가정 필수품이 되었다.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년생)은 결혼할 때 작은 오두막에 살았다. 남편은 데릴사위였다. 오두막은 작은 쪽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있었고 안방에는 부엌이 딸려 있었다. 건넌방 아궁이에는 여물을 쒔다. 그러다가 소작을 짓고 가마니치기를 해서 돈을 모아 1970년대 중반 최기태의 집을 매입했다. 당시 최기태의 집은 남편이 살아 생전 매입하고 싶어하던 집이었는데 대지가 넓고 안방과 건넌방, 대청마루, 사랑채가 고루 갖춰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탐을 냈다. 그래서 강희분이 집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협잡 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내며 매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기도 했다. 집주인이 요구한 매입가격은 1백만 원이었다. 당시 강희분은 집안 장독대 항아리에 20만 원을 모아 놓은 것이 있었다. 이것을 들고 당장 찾아가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네줬다. 1990년대 초에는 집을 입식으로 고쳤다. 입식으로 고치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가전제품을 구비하여 살기가 편해졌다.

5. 문화생활

1) 교육

수월암리에 근대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일제강점 전후에는 진위초등학교(1899년 개교)에 다녔다고 하므로 1900년대 초반부터 근대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다. 1930년에는 서탄면 금암2리에 서탄초등학교(개교 당시 서탄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다. 개교 초기에는 4년제로 운영되었다가 1942년 4월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6년제로 승격했다. 그래서 4년제로 운영될 때는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진위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6년제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가난한 학생이나 초등학교 입학시험에서 탈락한 아이들은 강습소를 다니다가 편입하기도 했다. 강습소는 주간에 교육하고 교육과정이 일반 학교와 동일하여 학력을 인정받았다. 1935년부터는 2년제 간이학교가 설립되었고 일제 말에는 황국신민화정책에 따라 국어강습소(일보ᄂᆡ어강습소)가 설립되었다.

해방 후에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이 폭증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3부제 수업을 했다. 이에 따라 1954년에는 서탄면 적봉리에 금각초등학교를 개교했다가 미군기지 건설로 금각리로 이전했다. 1967년에는 서탄면 내천리와 수월암3리 사이에 내수

분교가 개교했다. 이듬해에는 내수국민학교로 승격되었지만 학생 수의 급감으로 1994년 내수분교로 다시 격하되었다. 1967년 내수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수월암1, 2리는 서탄초등학교, 수월암3리 아이들은 내수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도도리야학이 있었던 수월암2리(2023)와 졸업생 강희분(2007)

중등교육은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들은 서울이나 수원, 오산으로 다녔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진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산에는 1907년 5월에 개교한 오산중·고등학교가 있었다. 6.25전쟁 뒤에는 1953년 진위면 봉남리에 진위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고, 1962년에는 신장동에 태광중학교가 개교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금은 진위면 하북리의 진위중학교로 진학을 많이 한다. 고등학교는 송탄의 효명고등학교나 태광중고등학교, 진위면 하북리의 진위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적이 우수하면 평택시내의 평택고등학교나 오산시의 오산고등학교,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교육이 시작됐지만 가난한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1934년 수월암2리에 ‘도도리 야학’ 이 설립됐다. 설립자는 강말구였다. 강말구는 마을의 커다란 사랑방을 빌려 교실로 사용했다. 같은 마을의 강춘섭과 강은섭이 교사로 참여했다. 과목은 국어(한글), 한문, 산술이었다. 야학은 농한기에만 열었다. 남녀학생을 모두 가르쳤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던 빈농들의 자녀들과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배움의 장소였다.

수월암2리 도도리마을 토박이 강희분(여, 1925년생)은 15살부터 2년 동안(5달) 도도리 야학에서 공부했다. 강희분은 당시 야학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도 깨치고 산술도 읽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되었다며 고마워한다. 강희분은 작문을 잘해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다. 상으로 공책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반복해서 써볼 것을 권했다. 공부하다가 모르겠거든 일할 때도 머리속으로 써보고, 잠자기 전에도 배 위에다 써서 완전히 익히면 그때 잠을 자라고 가르쳤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는 강기석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이 부유해서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유학갔다. 서울에서는 만리동의 균명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47년 개교한 균명중·고등학교는 1974년 환일중·고등학교로 개명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시험을 치렀다. 서울에서는 방을 얻어서 누나와 자취를 했다. 누나는 중앙여

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낙향해서 농사를 지었다.



수월암3리 내수분교

수월암1리 이송자(여, 1940년생)는 진위면 야막리가 친정이다. 남편 차연희는 수월암1리에서 유일하게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송자는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진위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논길을 걸어서 철둑을 넘어다녔다. 중학교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다니다가 중퇴했다. 오빠가 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어서 근무지에 데리고 가서 중학교에 보내줬다. 그러다가 1학년 말에 오빠가 전방으로 전출하면서 야막리 집으로 돌아왔다. 군산에서 올라오니까 진위면 봉남리에 진위고등공민학교가 개교했다. 부모님은 이곳으로 편입하라고 했지만 혼자 학교 다니기가 무서워서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강희분(여, 1925년생)의 자녀들을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가르쳤다. 큰아들과 딸들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막내만 대학교를 다녔다. 마을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진할율이 높아진 것은 마을에 전기와 버스가 들어오고 경제사정이 조금씩 나아졌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다. 지금은 교통사정이 훨씬 좋아졌지만 젊은층이 없어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다.

2) 종교

수월암1리의 종교 분포는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이다. 이송자(여, 1940년생)는 불교신자였다. 마을에서는 이송자와 다른 한 명이 절에 다녔다. 송탄소방서 앞의 불법사(佛法寺)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나이를 먹고 거동이 불편해서 다니지 않고 있다. 개신교는 2집이었다가 지금은 한 집만 남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오산으로 다녔다가 지금은 하북장로교회로 다닌다. 원불교 신자도 있고 일본종교인 남묘호랑개교 신자도 있다. 남묘호랑개교 교당은 오산에 있다. 이들은 아침부터 주문을 외우며 1시간쯤 기도한다.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년생)은 성당에 다닌다. 해방 후 천주교를 믿는 친구들이 나가자고 했다. 지금은 송탄성당으로 나간다. 송탄까지는 10리쯤 된다. 옛날에는 사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송탄으로 나갔다. 어머니 영향으로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고 모두 영세를 받았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장성하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야한다고 다그치면 '곧 나가겠다고' 대답만 한다. 현재 수월암2리 도도리에서 성당에 나가는 사람은 5, 6호쯤 된다.



금암리 서탄중앙교회, 천주교 송탄성당

강영배(남, 1949년생), 이복년(여, 1951년생) 부부는 개신교인이다. 강영배가 개신교를 접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이다. 그가 다녔던 서울의 균명중·고등학교는 기독교 계통이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 내려왔을 때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서탄면소재지 금암리의 서탄중앙교회로 다녔다. 1970년 전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부인 이복년(여, 1951년생)은 어려서부터 언니 따라 교회에 다녔다. 언니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은퇴했다.

수월암2리에는 ‘풍성한 교회’라는 개신교회가 있었다. 하지만 이복년은 언제 창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복년의 시어머니는 작고하기 전까지 풍성한 교회를 다녔다.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도 식사를 하고는 배고프다며 교회에 가서 밥은 얻어먹고는 했다. 풍성한 교회는 장애인 목회를 했다. 교회에는 장애인들이 많았는데 몇 년 동안 있다가 오산(병점)으로 이사 갔다. 하지만 이사간 뒤에도 마을의 교인들과는 인연을 맺어 시어머니가 임종할 때는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주었다. 아직도 마을에는 권사님 한 분이 오산의 풍성한 교회를 다닌다. 일요일이면 풍성한 교회에서 차량을 보내 태워간다.

강영배, 이복년 부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 나가는 교회는 서탄면 금암리의 서탄중앙교회다. 마을에서 서탄중앙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강영배 부부와 유용훈 등 두 가정이다.

수월암2리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다. 현재 7호(戶) 정도가 성당에 나간다. 성당은 송탄성당으로 나간다. 주민들이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불교신자는 1명 정도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보면 교회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불교적 성향이라고 봐야 한다.

3) 문화생활

(1) 교육

수월암리에 근대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일제강점 전후에는 진위초등학교(1899년 개교)에 다녔다고 하므로 1900년대 초반부터 근대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다. 1930년에는 서탄면 금암2리에 서탄초등학교(개교 당시 서탄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다. 개교 초기에는 4년제로 운영되었다가 1942년 4월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6년제로 승격했다. 그래서 4년제로 운영될 때는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진위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6년제로 졸

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가난한 학생이나 초등학교 입학시험에서 탈락한 아이들은 강습소를 다니다가 편입하기도 했다. 강습소는 주간에 교육하고 교육과정이 일반 학교와 동일하여 학력을 인정받았다. 1935년부터는 2년제 간이학교가 설립되었고 일제 말에는 황국신민화정책에 따라 국어강습소(일보ᄂᆡ어강습소)가 설립되었다.

해방 후에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이 폭증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 3부제 수업을 했다. 이에 따라 1954년에는 서탄면 적봉리에 금각초등학교를 개교했다가 미군기지 건설로 금각리로 이전했다. 1967년에는 서탄면 내천리와 수월암3리 사이에 내수분교가 개교했다. 이듬해에는 내수국민학교로 승격되었지만 학생 수의 급감으로 1994년 내수분교로 다시 격하되었다. 1967년 내수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수월암1, 2리는 서탄초등학교, 수월암3리 아이들은 내수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도도리야학이 있었던 수월암2리(2023)와 졸업생 강희분(2007)

중등교육은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들은 서울이나 수원, 오산으로 다녔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진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산에는 1907년 5월에 개교한 오산중·고등학교가 있었다. 6.25전쟁 뒤에는 1953년 진위면 봉남리에 진위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고, 1962년에는 신장동에 태광중학교가 개교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금은 진위면 하북리의 진위중학교로 진학을 많이 한다. 고등학교는 송탄의 효명고등학교나 태광중고등학교, 진위면 하북리의 진위종합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적이 우수하면 평택시내의 평택고등학교나 오산시의 오산고등학교,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교육이 시작됐지만 가난한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1934년 수월암2리에 '도도리 야학' 이 설립됐다. 설립자는 강말구였다. 강말구는 마을의 커다란 사랑방을 빌려 교실로 사용했다. 같은 마을의 강춘섭과 강은섭이 교사로 참여했다. 과목은 국어(한글), 한문, 산술이었다. 야학은 농한기에만 열었다. 남녀학생을 모두 가르쳤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던 빈농들의 자녀들과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배움의 장소였다.

수월암2리 도도리마을 토박이 강희분(여, 1925년생)은 15살부터 2년 동안(5달) 도도리 야학에서 공부했다. 강희분은 당시 야학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도 깨치고 산술도 읽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되었다며 고마워한다. 강희분은 작문을 잘해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다. 상으로 공책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반복해서 써볼 것을 권했다. 공부하다가 모르겠거든 일할 때도 머리속으로 써보고, 잠자기 전에도 배 위에다 써서 완전히 익히면 그때 잠을 자라고 가르쳤다.

수월암2리 강영배(남, 1949년생)는 강기석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이 부유해서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유학갔다. 서울에서는 만리동의 균명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47년 개교한 균명중·고등학교는 1974년 환일중·고등학교로 개명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시험을 치렀다. 서울에서는 방을 얻어서 누나와 자취를 했다. 누나는 중앙여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낙향해서 농사를 지었다.



수월암3리 내수분교

수월암1리 이송자(여, 1940년생)는 진위면 야막리가 친정이다. 남편 차연희는 수월암1리에서 유일하게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송자는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진위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논길을 걸어서 철둑을 넘어다녔다. 중학교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다니다가 중퇴했다. 오빠가 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어서 근무지에 데리고 가서 중학교에 보내줬다. 그러다가 1학년 말에 오빠가 전방으로 전출하면서 야막리 집으로 돌아왔다. 군산에서 올라오니까 진위면 봉남리에 진위고등공민학교가 개교했다. 부모님은 이곳으로 편입하라고 했지만 혼자 학교 다니기가 무서워서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강희분(여, 1925년생)의 자녀들을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가르쳤다. 큰아들과 딸들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막내만 대학교를 다녔다. 마을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진할율이 높아진 것은 마을에 전기와 버스가 들어오고 경제사정이 조금씩 나아졌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다. 지금은 교통사정이 훨씬 좋아졌지만 젊은층이 없어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다.

(2) 종교

수월암1리의 종교 분포는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이다. 이송자(여, 1940년생)는 불교신자였다. 마을에서는 이송자와 다른 한 명이 절에 다녔다. 송탄소방서 앞의 불법사(佛法寺)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나이를 먹고 거동이 불편해서 다니지 않고 있다. 개신교는 2집이었다가 지금은 한 집만 남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오산으로 다녔다가 지금은 하북장로교회로 다닌다. 원불교 신자도 있고

일본종교인 남묘호랑개교 신자도 있다. 남묘호랑개교 교당은 오산에 있다. 이들은 아침부터 주문을 외우며 1시간쯤 기도한다.

수월암2리 강희분(여, 1925년생)은 성당에 다닌다. 해방 후 천주교를 믿는 친구들이 나가자고 했다. 지금은 송탄성당으로 나간다. 송탄까지는 10리쯤 된다. 옛날에는 사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송탄으로 나갔다. 어머니 영향으로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고 모두 영세를 받았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장성하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야한다고 다그치면 '곧 나가겠다고' 대답만 한다. 현재 수월암2리 도도리에서 성당에 나가는 사람은 5, 6호쯤 된다.




금암리 서탄중앙교회, 천주교 송탄성당

강영배(남, 1949년생), 이복년(여, 1951년생) 부부는 개신교인이다. 강영배가 개신교를 접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이다. 그가 다녔던 서울의 균명중·고등학교는 기독교 계통이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 내려왔을 때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서탄면소재지 금암리의 서탄중앙교회로 다녔다. 1970년 전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부인 이복년(여, 1951년생)은 어려서부터 언니 따라 교회에 다녔다. 언니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은퇴했다.

수월암2리에는 '풍성한 교회'라는 개신교회가 있었다. 하지만 이복년은 언제 창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복년의 시어머니는 작고하기 전까지 풍성한 교회를 다녔다.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도 식사를 하고는 배고프다며 교회에 가서 밥은 얻어먹고는 했다. 풍성한 교회는 장애인 목회를 했다. 교회에는 장애인들이 많았는데 몇 년 동안 있다가 오산(병점)으로 이사 갔다. 하지만 이사간 뒤에도 마을의 교인들과는 인연을 맺어 시어머니가 임종할 때는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주었다. 아직도 마을에는 권사님 한 분이 오산의 풍성한 교회를 다닌다. 일요일이면 풍성한 교회에서 차량을 보내 태워간다.

강영배, 이복년 부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 나가는 교회는 서탄면 금암리의 서탄중앙교회다. 마을에서 서탄중앙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강영배 부부와 유용훈 등 두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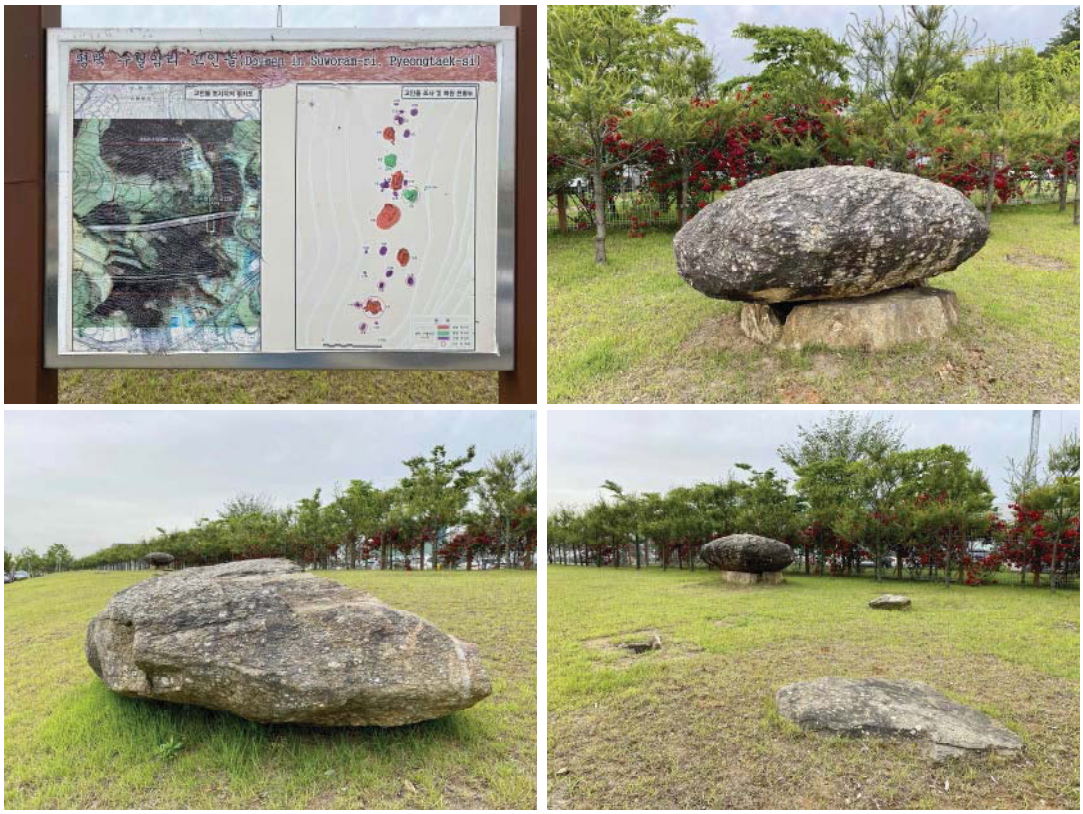
수월암2리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다. 현재 7호(戶) 정도가 성당에 나간다. 성당은 송탄성당으로 나간다. 주민들이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불교신자는 1명 정도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보면 교회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불교적 성향이라고 봐야 한다.

(3) 문화재

수월암리에는 선사유적이 많다. 지형적으로 좌우에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흐르고 구릉이 발달해서 신석기, 청동기인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① 수월암리 고인돌

- 위치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1리



평택 수월암리 고인돌 분포도 및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다. 농경문화와 관련 있어서 하천이 발달한 평야지역에 많다. 고인돌은 바둑판식, 개석식, 탁자식으로 구분된다. 수월암리 고인돌은 1리에서 2리로 넘어오는 당산 정상부에 위치했다. 대형 탁자식 고인돌 2기와 주변에 소형 개석식 고인돌 22기 등 총 24기의 고인돌군이 형성되었다. 2호 고인돌은 탁자식이며 덮개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크기는 227~190㎝×98cm이다. 덮개돌은 표면 전체를 둘글게 치석하여 거북이등 모양을 하고 있다.

덮개돌 하부에는 사방에 굄돌을 놓은 석실이 있다. 석실은 장방형의 판자돌을 나라히 세우고 양쪽 끝에 얇은 판자돌로 막음한 형태로 바닥에는 시신이 놓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평한 판석을 배치하였다. 탁자식 고인돌 주변에는 중소형의 개석식 고인돌이 있으며 지하 토광무덤에 화장 후 남은 재와 인골을 묻고 그 위에 석관을 만든 다음 덮개돌을 얹는 특이한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4) 마을신앙

수월암1리 뒷거리미와 2리 도도리에서는 당제를 지냈다. 음력 10월 상일에 지냈으므로 당제보

다는 산신제라고 할 수 있다. 마을제당은 수월암1리에서 2리로 넘어오는 당산에 있었다. 본래 이곳에는 참나무와 동백나무로 이뤄진 당숲이 있었다. 당숲 옆에는 당집을 만들었다. 당집은 매년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짚을 걷어서 이엉을 엮어 터주가리처럼 둘렀다.



수월암1, 2리 마을제당이 있었던 당산

이송자(여, 1940년생)는 수월암1리의 당제(산신제)를 기억했다. 제(祭)는 음력 10월 상순에 날을 잡아서 지냈다. 제물은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제를 크게 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사음식은 특별하지 않았는데 제기와 양동이, 시루와 같은 도구들은 매년 새로 장만했다고 했다. 제물(祭物)은 돼지머리를 사다가 적하고 백설기를 해서 올렸다. 과일은 올리지 않고 술은 약주로 대신했다.

강영배(남, 1949년생)와 이복년(여, 21951년생)은 당목을 엄나무로 기억했다. 제일(祭日)은 음력 10월 보름쯤에 지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주(祭主)는 생기복덕을 따져서 선발했다. 제주로 뽑히면 추운 늦가을인데도 당목에 인사를 드리고 당샘에서 목욕재개를 해야만 했다. 제주(祭主)로 뽑히면 집앞에 황토를 펴고 청수를 떠 놓았으며 각종 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 함부로 외출할 수도, 부부관계도 허락되지 않았다. 제물(祭物)은 검정색 통돼지를 잡았다. 통돼지를 잡을 때는 반드시 당샘 옆에서 당샘의 물을 길어 잡았다. 당샘은 복근씨네 밭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산꼭데기에 있었는데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과일은 밤, 대추, 배를 올렸다. 그밖에 포도 올렸고 술은 약주로 대신했다.

수월암1, 2리 산신제는 2007년 인터뷰한 노인들은 1970년대 초에 중단되었다고 말했고 이번에 인터뷰한 주민들은 2010년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제주 맡기를 싫어하는 바람에 일찍 중단됐다고 한다. 당목은 벼락을 맞아서 부러졌는데 그 옆으로 새순이 돋아 있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당샘도 메워져서 이젠 볼 수가 없다.

5) 전통놀이

수월암리에는 줄다리기와 거북놀이, 소인극 공연, 노래자랑같은 놀이가 있었다.

수월암3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했다. 줄은 암줄과 숫줄로 나누고 집집마다 짚을 거둬서 마을 남자들이 새끼를 꼰 뒤 줄을 만들었다. 줄을 만들면 마을의 대로변에 길게 늘어뜨렸고 대보름 낮에 오곡밥을 얻어먹고 윳놀이를 하다가 달이 떠오르면 망월과 함께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줄다리기는 암줄에는 여자와 노인들, 소년들과 아이들이 잡고 숫줄에는 남자들만 잡았다. 풍농을 기원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면 반드시 암줄이 이겨야만 했다. 줄다리기가 끝

난 뒤에는 쥐불을 놀고 달집도 태우며 놀았다. 수월암3리 심교마을 줄다리기는 1970년대 초 중단되었다. 노령인구가 늘고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월대보름 줄다리기를 했던 수월암3리 심교마을

거북놀이는 추석에 아이들이 놀았다. 아이들은 추석이 가까우면 수숫대로 거적을 엮어서 뒤집어 쓰고 거북놀이를 했다. 거북놀이를 할 때는 대장이 거북이에게 줄을 메서 앞장 섰다. 그런 뒤 집집마다 돌면서 놀아주며 복을 빌어준 뒤에 밥을 얻어먹었다.

소인극(연극)은 일제강점기부터 했다. 마을 청년들이 마을 사랑방 마루에 무대를 만들고 극을 꾸며서 공연했다. 극의 내용은 흥부전이나 별주부전, 효(孝)를 강조하는 계몽적인 내용들이었다. 소인극 공연은 1960년대까지는 했지만 그 뒤로 중단되었다. 1970, 80년대에는 노래자랑을 많이 했다. 마을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상품을 걸어 놓고 노래자랑을 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밴드를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6) 설화와 전설

(1) 과부가 달밤에 놓았다는 깊은다리



수월암3리에는 깊은다리가 있다. 깊은다리는 조선 후기 서탄면 금암리에서 발안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옛날에는 이곳에 징검다리가 있었다. 그런데 징검다리는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리

면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살던 과부가 달밤에 건너편 함박골에서 큰 바위를 머리에 이어다가 돌다리를 놨다. 이 다리를 깊은다리 한자로는 '심교' 라고 불렀다.

(2) 당고개



당고개는 수월암1리에서 2리 사이 당산을 넘는 고개다. 이 고개는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던 시절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도둑이나 강도가 출몰했다. 깊은 밤에는 여우가 출몰했고 도깨비도 자주 보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당고개를 넘어오는 것을 주저했다.

(3) 도깨비굴

도깨비굴은 수월암2리 도도리 서쪽 모퉁이에 있는 지명이다. 옛날 이곳은 도깨비 소굴이었다. 토박이 강희분(여, 1925년생)의 집은 도깨비굴 옆에 있었다. 8, 9살쯤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집 옆에 디딜방아를 놓았더니 밤새 가지고 놀아서 잠을 자지 못했다.

강영배(남, 1949년생), 이복년(여, 1951년생) 수월암2리 도도리

이름	강영배 이복년	성별	부부	사진	
생년	1949년생 1951년생	거주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리		
직업	농업	거주기간	토박이		
일시	2023년 10월 21일	장소	자택		
면담자	김해규	소속	평택인문연구소		
약력	강영배는 수월암2리 토박이다. 마을에서는 대표적인 부자였다.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낙향하여 농사를 지었고 이복년과 결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복년, 여, 1951년생)

형제는?

저희 친정이 6남매인데 위로 딸이 셋이고 밑창이로다가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6남매 중에 몇째세요?

그러니까 딸로 셋이 나란히 있고 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언니가 나중에 교회 목사님이 되었죠.




강영배(남, 1949년생) 이복년(여, 1951년생)부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네요?

아니 우리 엄마는 안 다니셨어요. 언니하고 저만 다녔죠.

어머니는 왜 안 다녔어요?

언니는 목사님하다가 지금은 은퇴했지. 78살인가...

자녀들이 목회하면 부모님들도 나중에 교회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환갑도 못되어서 돌아갔죠. 위암에 걸려가지고 ...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대부분 돌아가셨죠?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환갑이 안 되어서 돌아가셨고 그래도 엄마는 사셔갔고 70세가 넘어서 별안간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편히 돌아가셨네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죠.

어르신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살림만 했어요?

집에만 있었죠. 어디 직장도 안 다녔어요. 직장에도 안 다니고 친정에 밭이 있어서 밭매고 뭐 그런 거 했어요. 동생들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안 했지. 그러다가 21살에 시집왔어요. 아이구 일찍 왔어요. 그 나이에...

그때는 좀 이른가요?

그때는 다들 나이 좀 먹어서 갔죠.

그랬었나?

딸이 셋이니까 언니는 안 간다고 하고 그래서 저걸 했죠.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시집보낸다고, 언니가 안 갔는데도 먼저...

언니는 왜 시집을 안 가려고 했어요?

언니는 교회 저거 신학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언니는 신학공부를 했죠?

언니하고 나하고 5살 차이나잖아요. 큰언니가 결혼 안 하니까 둘째인 나보고 결혼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큰언니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네요. 누가 중매했어요?

이 동네에 사는 수월암리 사람이.

부모님은 왜 딸자식 결혼을 서둘렀어요?

큰언니가 나이 먹도록 안 가니까. 딸만 셋이 있는데 누구라도 먼저 혼인시키려고 한 거죠.

강영배(남, 1949), 이무전(남, 1942, 내천2리)

(이무전) 여기는 도도리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수월암2리거든.

이름을 잊으면 안 되죠. 거리미도 잊으면 안 되고?

여기 수월암 3리가 침교리고.

깊은다리를 한자로 써서 ‘심교’가 된 거죠?

그 다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다리를 못 건너갔어.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다 없어진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카센터 가기 전에 시멘트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야.




강영배 이무전씨, 공장이 뒤섞인 수월암2리

내천리에서 넘어가던 길 가운데의 서낭나무도 없어졌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서낭당. 그래서 다시 다른 나무를 심었어. 작년에 옮겼는데 버드나무를 옮겨심었어. 그래서 우리 집 나무를 내가 주겠다. 내가 면사무소 뒤에 있는 걸 가져다가 17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커요. 그걸 주겠다고 했더니 내천1리 이장이 와서 보더니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더니 그냥 심어 놓은 것을 쓰겠데.

(강영배) 버드나무가 아니고 벚꽃나무던데, 아니 느티나무.

(이무전)느티나무인데 팽나무가 더 좋은 거지.

팽나무가 좋죠. 단단하고 잘 크고?

본래 나무는 그 옆의 공장에서 죽인 거 같아. 약을 넣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버드내 마을도 곁에 있으니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은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천리에서 200만 원 들여서 옮긴 거야. 옮기기 전에 내가 알았으면 우리 거 가져가라할 건데 심어 놓고 보니까 시원찮은 걸 심었어. 그래서 이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다시 캐내고 옮기는데 300만 원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희 동네에서 100만 원을 내서 옮기라고 했는데 꼼지락거리기 싫다고 안 해.

(강영배)우리 수월암리도 당나무(당목)가 있었거든. 저기 경동보일러 있는데 거기. 엄나무로다가 당나무를 삼았는데.

엄나무 당목은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보여.

죽었어요?

아니 그게 벼락을 맞아 쓰러졌거든. 그래서 그 옆에 다시 나무가 자랐는데 이제는 안 보여.

그게 마을에서 경계석을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해야지 보존되기 힘들죠?
거기에 수월암2리에서 당집 짓고 그랬어.

(이무전)그러면 너희 동네에서 살려야지?
거기에 우리동네 사람들이 당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

(강영배)
강영배 어르신은 본관이 어디세요?
곡산 강씨.

함경도 곡산요?
응

무슨 파세요?
우리가 저기 이성계 부인이 강씨였는데.

맞아요. 수월암리에서는 언제 들어와 사시게 되었어요?
나는 뭐 여기에서 낳았으니까 저기하는데 역사는 모르겠네... 내가 곡산 강씨 19대손인데 ...

그렇다고 이 마을에서 19대를 사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13대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면 7, 8대를 거주한 거네요. 그럼 200년에서 250년쯤 사신 거네요?
그런 거 같어.

수월암2리에 강씨가 몇 집이나 살아요?
옛날에는 거진 다였는데 지금은 한....

강희분 어르신도 이 마을 출신이죠?
그 어른은 마을로 시집간 거지. 그러니까 상기(강희분씨 아들) 아버지가 데릴사위로 온 거지.

그럼 토박이시네요. 옛날에는 집성촌이었네요?
그렇지.

다른 성씨는 없었어요?
경주 최씨.

어르신 어릴 적 수월암2리가 몇 호나 되었어요?

어디 중학교 나왔어요?
균명(중학교)[1].

시험 봐서 들어가셨나요?
그냥 그때는 시험 봐서 들어간 거지.

균명중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만리동.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도 균명고등학교.

당시 서울로 유학가는 사람은 방을 얻어 놓고 살아요, 친척집에서 살아요?
서울에서는 방을 얻어 놓고 자취했지 누나하고.

누님과 형제들이 모두 서울에서 학교다녔나요?
아니예요, 누이하고 나하고만.

누님은 어르신 밥해주라고 보낸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누님도 공부를 잘했어요. 누나는 중앙여중, 중앙여고 다녔지.

그러면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했네요?
그전에는 뭐 괜찮았죠. (이무전) 지금도 괜찮지.

경제력은 논밭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논 몇 마지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가장 좋을 때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인데 한 50마지기는 되었지.
(이무전)그 정도면 엄청 많은 거야.

그 정도면 수월암리에서는 대농이셨네요?
(이무전)그럼, 대농이었지. 밭도 많아.

밭은 얼마나 되었어요?
밭은 한 2천 평 정도.

산도 많았어요. 당시에는 산은 무척 쌌죠?
산은 사촌이 다 가져다가 팔았지.

---

1)1947년 6년제 균명중학교로 개교했다가 1974년 환일중학교로 개명했다.

그 혜택을 아버님까지는 본 거구요?
(이무전)아녀, 얘까지도 덕을 봐. 많이 안 팔아 먹었어.

이쪽도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비싸졌어.

어르신 연배에는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어땠어요. 특히 도도리같은 경우는요?
진학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무전) 한 반에 60명 중에 10명. (강영배) 이 동네는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다들 다녔지.

어르신 연배에도 중고등학교를 많이 다닌 것은 아니네요. 이무전 의원님 때보다는 조금 나았겠지만?
그렇지.

아버님은 농사를 지었어요, 다른 사업도 하셨어요?
농사는 직접 안 하시고 주로 정미소를 운영했지.

정미소를 운영했군요?
(이무전) 정미소도 직접 운영하기보다 사람 두고 일 시킨 거지.
(강영배) 그래도 정미소는 직접하셨지.

논농사는?
그것은 사람들 둘을 두고는 농사지었지.

머슴 둘을 두셨군요?
그렇지, 사람 두고서 일 시킨 거지.
(이무전) 백구두라니까 백구두. 아버지가 일을 안 한 대신 어머니가 많이 하셨지. 남자가 안 하면 여자가 다 하잖아.

의원님이 선친께서 무척 멋쟁이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멋쟁이였어요?
그냥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 입고 아침에 송탄으로 나가시면 다방에 가서 신문이나 보시고 놀다가 저녁에나 들어와.

송탄에 나가서요?
(이무전) 송탄하고 오산. 순전히 돈 쓰러만 나가.

의원님 말씀대로 어머니가 고생했겠어요?
그렇지, 어머니가 일꾼들 다 밥해 먹이고 농사일 거들고 고생했지. 어머니 할머니가.

그래도 아버님이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으셨던 거 같아요. 사업에 대한 감각도 있으셨고?
그렇지,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어도 정미소 운영이라던가 그런 것을 관리를 잘했지.
어르신은 정미소 운영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겠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내가 어릴 때니까..... (이무전) 휴전하고 나서쯤 아녀.

그러니까 1954, 1955년쯤 아닐까요?
그때쯤일 거여. 허은태씨가 하기 전에는 정민석. 최고태씨도 아버지 밑에 있다가 나중에 인수받아서 운영했고.

얼마나 운영했어요?
한 10년은 했어. 마을에 조합방앗간(수월암리 이동협동조합)이 생겨갔고...

조합이라면 1960년대 운영되었던 이동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을 조합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자고 해서 그때 팔은 거야. 그때가 1965년은 될 거야.

수월암리이동조합요?
아녀, 도도리 동네가 별도로 방앗간을 운영했다고. 당시에는 동네 별로다가 방앗간들이 다 따로 있었다고. 서탄면은 따로 있었어.

그러면 ‘도도리 농업협동조합’이었네요. 그러면 방앗간을 운영했던 기억은 많지 않겠네요?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아니 열 댓살 때까지는 했네.

발동기는 뭘 썼어요. 구보다 발동기 썼나요?
조그만 발동기인데 탕탕탕하고 큰 소리가 났다고. 처음에는 다 그걸 썼어.

방앗간에서 도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아 찧을 사람들이 벼를 싣고 와요, 아니면 방앗간에서 가서 실어와요?
사람들이 가지고 왔지. 그때는 다 가져왔어. (이무전) 그 때는 다들 가져가서 찧었어.

그러면 벼 방아만 찧었나요?
우리는 보리방아도 찧었어.

옛날에는 경쟁이 심하면 방앗간에서 마차나 경운기를 보내서 실어오고 했잖아요?
여기는 경쟁이 없었어.

거의 독과점이었네요?
방앗간이 없는 동네에서는 옆 동네로도 가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실어오기도 했어. 최종솔이 아버지가 운영할 적에는 수월암 1리, 3리까지 가서 실어오고. 사람들도 실어다 달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

방앗간 위치는 어디였어요?
지금 우리 집 있는데 태양광 발전기 있는데.

방앗간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우리동네(도도리)하고 거리미. 거리미는 방앗간이 있었어. 조그만 거. 3리 깊은다리는 없었고. 그러다가 기련이 아버지가 방앗간을 했을 거야. (이무전) 우리 부락에도 있었어. 준석이 오준석이 아버지가 그거 했지. 거기(내천1리)는 큰 방앗간이 있었던 거고, 조상현씨가 운영했던 거. 내천 2리는 개인 방아가 있었고. 조그만 발동기로 탕탕탕하는 거 있다가 나중에 크게 지었지.

삯은 얼마나 받아요?
여기는 두 되를 뗐나.

보통은 3되, 많이 떼면 5되를 공제하더라고요?
2되인가 3되인가 떼었을 거여.

한섬에 2, 3되요. 어르신이 조합방앗간이 1965년경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정도죠, 조합방앗간을 만든 건.



수월암2리 마을회관과 풍경

이동조합을 만들 때 중심인물은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다 주동이 되었지.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요?
강세일씨.

이분이 초대 조합장이었나요?
그렇지.

이동조합 사업은 방앗간 말고는 무엇을 했어요. 구판장 같은 것은 운영하지 않았나요. 대출 이런 거?

구판장이나 다른 것은 안 했고 우리가 방앗간을 운영할 테니 당신네 방앗간을 없애라고 한 거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

아버님은 순순히 방앗간을 내놓으셨나요?

우리 집에서 방앗간 일하던 사람들이 그리로(조합방앗간) 가니까는 더이상 할수가 없었지.

방앗간 직원들이 마을방앗간으로 옮겼네?

일 봐주던 사람들이 가니까는 할 수가 없었지. 방앗간 운영이 잘 안 되니까는 .....

조합방앗간 도정료가 쌌던 가봐요?

농협조합 쪽이니까 좀 쌌지. 그런데 그것도 얼마 하지도 못하고 개인에게 넘어갔어.

어르신네가 방앗간을 할 때 이름이 ‘도도리 방앗간’이었나요?

그렇지, 도도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앗간에서 벼와 보리말고는 다른 것 도정은 안 했어요?

밀도 했지. 밀가루를 빻았지.

고춧가루는요?

그런 것은 안하고.

마을방앗간은 몇 년 운영했어요?

2년쯤 했나봐.

오래하지는 못했네?

운영하다가 어려우니까 개인에게로 넘어갔어요.

어떤 분에게 넘어갔어요?

최원태씨라고, 그 사람에게 기술이 있으니까.

어르신네 방앗간에서 일했던 분 말이죠?

그렇지.

이분은 언제까지 운영했어요?

그분이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아들도 같이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대신 운영했고.

상당히 오래했네요?

그럼요, 아주 오래했죠.

1990년대까지는 운영했나요?

그럴걸요.

농협 도정공장이 생길 때까지는 했나요?

지금도 소형도정공장은 만들어 놓고 자기네 방아는 찧어요. 자기네 것은 찧더라고. 그 사람네가 남의 농사를 대신 짓고 하는데 그거로 찧는 거지.

위탁영농을 겸업하는 거네요?

자기가 찧어서 도지쌀도 주고 그러지. 지금은 다들 농협하고 계약재배하고 그러니까는 수매직불제를 많이 하니까는 옛날처럼은 안하지.

옛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방앗간이 도정비를 받아서 부자된 것이 아니라 장리쌀을 놓아서 부자되었다고요. 어르신 방앗간에서는 장리쌀 놓는 것은 안 했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미리 쌀을 가져다 먹고는 대신 일해주고는 했죠.

장리쌀 먹고요?

아니 장리쌀이 아니고 겨울에 쌀을 가져다가 먹고는 봄에 그걸로다가 일해주고 그랬죠. 그걸 '선쌀' 이라고 했어요. 선쌀 갖다가 먹고 봄에 일해주는 거지.

소작 짓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죠?

이 동네가 농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600마지기나 될까. 밭이 많았어요.

밭이 많고 논이 적어서 전체 농지 가운데 논이 600마지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쯤 되었을 거예요.

전체 600마지기 중에서 어르신 댁이 50~60마지기를 소유했으니 마을 농지의 10% 이상을 소유했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겨울에 선쌀을 먹고 농번기에 일해서 갚았던 거였네요. 옛날에 품앗이 품삯은 기억나세요?

나도 품앗이를 다녔는데 그때는 돈으로 몇 천 원 했을 건데...


공장들로 가득찬 수월암2리와 경작지

어르신도 품앗이를 했어요?
그렇지.

돈으로 품삯 받을 때는 나중이잖아요. 1950년대 기준으로 쌀 한 말을 가져다 먹으면 며칠을 일해 줬어요?
세 가락. 쌀 한 말에 3일은 일해주지.

그때가 1960년대쯤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 때 3일씩 일해준 거 같어.

도도리 마을에 두레가 있었나요. 농기 들고 풍물패 앞세워서 들에 나가서 논매기했던 조직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있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꽹가리 두들기며 들에 나가서 깃발 꽂아 놓고 논매고.

1960년대 초반쯤 이야기네요?
나갈 적에 풍물치고 들어올 때 치고.

그러니까 하는 것만 봤지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네요?
아니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작업반 식인지 뭔지 하더라고.

이게 역사적 순서로 보면 두레로 논매다가 작업반이 조직되어서 모내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부

분 마을에서는 1960년대 중반쯤 작업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도 작업반이 있었지.

작업반을 어르신도 해봤어요?
했지.

마을에 작업반이 몇 개 있었어요?
내가 농사지을 때는 19살이나 20살 때인데 그때 작업반이 생기고 그랬어.

작업반이 했던 일은?
모내기하고.

논매기도 했어요?
모내기하고 논매기.

추수 때는?
추수는 안했지.

작업반은 몇 명으로 조직되었어요?
20명쯤 되었던 것 같은데.

작업반장은?
반장은 주로 이장이 했지.

작업반은 언제 왜 없어졌어요?
이앙기 나오기 전까지는 작업반이 있었지.

제초제 나오면서 논매기가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렇지, 제초제 뿌리니까 논맬 필요가 없지.

이앙기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쯤에 나오더라고요.
보행이앙기.

그전까지는 작업반이 있었던 거네요?
몇 사람이 했었지.

그렇다면 1980년 전후해서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때 없어진 거지.

농기계는 어르신이 먼저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사용한 농기계는 뭘까요?
아무래도 경운기가 먼저 나왔지. 그다음에는 탈곡기.

탈곡기가 있었네요?
그렇지. 경운기, 탈곡기, 이앙기 그다음에 콤바인하고 트랙터.

도도리에서 경운기를 가장 먼저 구입한 집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산 사람이 이용화라고 그 사람인데 여기서 살지 않고 이사 갔지.

어르신은?
나는 두 번째.

어르신은 왜 경운기를 구입했어요?
그게 빠르잖아. 아무래도 농사가 많으니까 안 살수가 없었지.

소보다 빨라요.
소보다는 빠르지.

소로 논갈이를 하고 그럴 때는 소도 두 마리쯤 먹였겠네요?
아니 한 마리 가지고. 그러니까 실한 소가지고 하지.

어디 소가 좋은 소였어요?
여기는 옥산 소를 제일로 쳤지. 옥산 소가 수렁에서 쟁기질을 잘한다고 시장에서도 높이 쳐주더라고.

수월암리가 수렁논이 많았어요?
그럼.

그럼 무조건 옥산 소를 사와야 했네요?
송아지를 사다가 집에서 길러서 쓰기도 하고.

쟁기질이나 농사일은 거의 머슴이 하지 않았어요?
머슴이 했죠. 소를 길들이고 하는 것은 내가 했지만.

소 길들이기 같은 것은 직접 하셨네요?
내가 스무살부터는 머슴을 안 두고 직접 농사를 했으니까.

이 동네는 소를 팔거나 살 때 오산장을 가나요?

주로 오산장을 가요.

수원장은 잘 안 가는 편이죠?
거기는 멀어서 아무래도 잘 안 가죠.

어르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생각을 안했어요. 집안 형편은 가능했잖아요?
공부를 잘 안 했지. (이복년) 공부를 안 했겠지 뭐.

대학진학의 꿈을 포기하고는?
포기하고는 집으로 내려왔지 뭐.

누나도 대학진학을 안했나요?
안했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그냥 시집간 거여.

어르신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곧바로 농사를 지으신 거네요. 농사지으면서부터 머슴들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하신 거고요?
1년은 머슴하고 같이 일했죠.

머슴을 두지 않고 50마지기 넘는 농사를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도 동생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지.

(이복년) 그때 50마지기였어?
50마지기였지.

동생이라면?
둘째 동생이지 뭐. 막내는 늦게 낳아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복년) 막내는 나보다 8살이 적어요.

결혼하셨을 때 초등학생이었네요?
그렇지, 초등학생이었지.

둘째 동생하고 농사를 지으셨네요. 군대는 언제 가시고요?
군대는 안 갔어요. 그냥 저기했어요.

면제받았어요?
방위, 방위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집은 떠나지 않았네요?

우리는 방위 초창기인데 훈련을 6주 받았어요. 사단에서 6주를 받고 와서 3주씩 보충병 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어르신은 조교요원으로 선발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방위 받으면서 결혼한 건가요?

(이복년) 신랑은 23살, 나는 21살. 방위 끝날 무렵에 결혼한 거지.

어르신 연배를 보면 당시에는 27세, 8세에 결혼하던데 조금 빠른 편이 아닌가요?

빠르죠.

이렇게 빨리 서두른 것은 부모님이예요 본인들이예요?

부모님들이 서두른 거지. 이제 집에서 밥할 사람 없으니까는. (이복년)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무보수로 여지껏 살은 거예요. 고생만 많이 시키고....

그런데 부잣집이었잖아요?

부잣집이 뭐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일을 하나도 안 했지. 시어머니는 밭일이고 뭐고 하나도 안했어.

며느리 시집 오고 나서 손을 딱 떼셨네요?

(이복년) 쓰레기 하나 안 치우고 고추하나 안 따주고... 진짜 나 이 집에 와서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어.

둘째 며느리도 있잖아요?

둘째는 우리 애 셋째 낳고서 결혼한 거여.

늦게하셨네요?

그러니까 큰 애 낳고, 이제 딸내미 하나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셋을 낳고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사모님 업고 다녀야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업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허허.

(이복년) 시어머니 치매 걸리셨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한시도 가만히 안 계세요. 5분마다 화장실을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얼마 있지도 못하고 쫓겨오셨어.

병간호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노인네가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니까 그냥 옆 사람들이 같이 못 있겠다고 해서 병원에서 쫓겨난 거여. 한 일주일은 계셨나. 우리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간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환자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었지.

어르신도 큰아들이잖아요. 집안에서 큰아들이 역할은 확실이 크지요?

(이복년) 그러게요. 둘째나 셋째가 시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면 어림도 없어요. 가까이 살아도 잘 와보지도 않아요.

어르신은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했나요?

우리는 예식장에서 했죠.

맞선은 어디에서 봤어요?

다방에서 봤어요. 오산다방. 당시에는 송탄을 쑥고개라고 했으니까.

당시에는 맞선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당시 어른들하고 같이 다방에서 보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어른들은 가셨잖아요. 짜장면인가 뭘 드시고 가셨나. 어른들 보내고 나하고 신랑하고 둘이만 있는데 그랬어요. '이제 어른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자'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예전에 송탄을 쑥고개라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로 극장 구경(영화구경)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쫄래쫄래 쫓아가서 영화를 봤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에다가 '약혼기념'이라고 박아서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로 당했네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그냥 집에만 있고 어디 나가지도 않았고 근처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어디 나간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시던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 당시에 바깥어르신이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죠?

안 다녔어요. 이 집의 식구들이 아무도 안 다녔어요.

극장은 어디로 가셨어요?

삼보극장. (이복년) 그래가지고 어처구니없이 결혼하게 되었죠. 우리는 몇 달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오산 이린각 호텔.

호텔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복년) 저는 그때 드레스를 안 입고 하얗게 한복을 해갖고 입었어요, 드레스 대신. 드레스는 내 것도 아니고 빌려 입는 거니까 그 돈이면 한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죠.

남자어르신에게는요?

양복을 해서 입었죠.

바깥어르신 정도면 레벨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서울로 유학가서 공부까지 하셨고 서울 물을 먹었고 집안도 괜찮고?

(이복년) 제가 시집올 때 여기(수월암리)는 전기가 없었어요. 동탄에는 전기가 있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어르신이 결혼한 것이 1971년이니까 그 때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 큰애를 낳고서 우리 시아버지가 구장도 보시고 서탄면의 유지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전기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시집와서 초롱불을 닦고... 아이고.

그럼 큰아이 낳고서 전기가 들어왔나요?

그렇죠.

그게 언제쯤이예요?

결혼하고 이듬해니까.

그럼 1972년에 전기가 들어왔네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안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는 결혼식을 하면 집에서도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다고 별안간 신혼여행을 가라고 그래서 온양온천인가 거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를 가져서 다음 해 9월에 낳았지.

허니문 베이비네요?

큰애 나이만 알고 나머지 아이들은 나이도 잘 몰라요. 제가 22살에 낳고 그 애가 지금 52살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1972년생인데 그렇게 따져야 할지 몰라요.

어쨌든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거네요. 당시에 예물은 뭘 받았어요?

세 가지 세트 받았어요.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시계는 안 해주고 눈깔반지. 알이 박힌 반지요.

잘해주셨네요?

뭘 잘해준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해요. 찰 새도 없이 반지도 껴보지 않고 목걸이도 안 걸고 다니고 막내 시동생 장가들 때에 우리 아저씨가 목걸이를 달라고. 그거로 목걸이하고 반지를 만

들어서 동생네 준다고. 그걸 시어머니가 우리 아저씨에게 시킨 거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걸이는 그냥 놔두고 반지는 잘 안 끼니까 그걸 가져다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계를 들었는데 그거 받으면 다시 해주마'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가신거야. 그래서 '나는 반지도 싫으니까 그거 갖고 해 주세요' 그랬더니 굳이 목걸이를 달라고 가져가서는 막내네 목걸이를 해준 거예요. 막냇동생 결혼할 때. 나는 그런 거 가질 저기가 안되나 봐요.

결혼예물이어서 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아쉬웠겠어요?

사실 쌍가락지를 가져가서 반지를 해주고 목걸이는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어코 목걸이까지 달라고 해 가지고는 팔아서 뭘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계를 타서도 다시 해주기는 뭘 해줘요. 해주지도 않았어요. 금 닷돈 계 들어서 타시더니 나보고 갖고 있으래요. 그러더니 시 고모부 환갑 때 그것을 달래서 고모부 반지에다 넣어 주었어요. 그래도 섭섭한 걸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러자는 대로 따랐는데 없으니까 ....

쌓인 것이 많으시네요?

나중에 우리 집 양반이 직장을 다니면서 목걸이를 해줬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 사랑한다고 이걸 팔자고 하자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거를 팔았어요. 이제 집에 있던 반지랑 해서 팔아서 통장에 넣어 뒀더니 이 아저씨가 막내 시동생이 돈이 없다고 자기는 수중에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 통장에 있는 것을 주라고 해서 그걸 또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동네 이야기를 몇 가지 여쭐께요. 옛날에는 도도리가 60호쯤 되었잖아요. 지금은 몇호예요?

지금은 한 40호.... 돌아가시고 이사 가고.

동네 주민들이 농사만 지어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다 농사만 짓지. (이복년) 지금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몇 사람 있죠. 전에는 소를 먹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1960년대 말 1970년대쯤 되면 축산업도 많이 하고 과수농업도 많이 한단 말예요?

여기가 과수원도 많았지.

맞아요, 여기가 과수원이 많았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몇 집이나 있었어요?

10집 정도 했었네.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씩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세집, 네집. 봄이네, 각섭이네, 공섭이네, 영민네.

(이복년) 아 영민네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집이 네 집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네 집.

과수원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과수농업으로는 어떤 분이 가장 유명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집은 우리 집이지. 우리가 하다가 동생 줬잖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복년) 나 시집오기 전부터 했어요. 그때는 만선길(만삼길)이 많았지.



수월암2리 배 과수재배(2007년)

어르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려오기 전부터 과수원을 한 건가요?
그 전부터 시작했지, 아버지가.

시작은 할아버지가 한 건가요?
할아버지는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한 건데, 먼저 나무를 심었지.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이네요. 방앗간 운영을 그만두고 나서요?
맞아요, 그 후에 시작했어.

방앗간을 그만둔 것이 1965년이니까 1966년쯤이나 묘목을 심었던 거네요?
심었을 때는 제대로 따지도 못했지.

그러면 묘목 심고 몇 년 지나서 수확해요?
3년.

그럼 1965년이나 66년경부터 수확이 시작됐겠군요?
아냐, 1964년, 65년쯤에는 수확했을 거예요.

어르신 댁은 몇 평 농사를 지었어요?

4천 평.

4천 평이면 규모가 상당하네요. 다니면서 보니 보통 1천평, 2천 평이 고작이던데. 4천 평 과수원을 만들 때는 야산개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밭에다 심은 건가요?

저 아래 밭 2천 평에 2천 평을 더 샀어요.

아버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수확한 배는 어떻게 유통시켰어요?

서울로다가 올라갔지. 용산 청과물시장으로. 인천으로도 보냈고.

도매상들이 수확물을 한꺼번에 사가는 방식인가요?

차에다가 실어서 도매상으로 올렸지.

수익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얼마 벌지 못했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품종은?

(이복년) 처음에는 만삼길이었다가 내가 시집오고 나서 신고를 심었어요. (강영배) 장십량도 심었어. (이복년) 장십량이라고 있어요. 일찍 따는 품종이고 만삼길은 늦게 따고 신고는 늦게 따고.

장십량 따고 만삼길을 딴 뒤에 신고를 따네요. 과수농업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수익은 동생이 과수원을 물려받고 나서 올라간 거 같어.

그때가 언제일까요?

1977년쯤 되네.

평택지역 전체가 과수농업이 많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졌던 시기인데 그 영향을 받았군요?

네.

축산업은 몇 집이나 했어요?

젖소를 많이는 안 먹였어도 10마리, 6마리. 우리도 6마리를 몇 년 했어요.

6마리를 길러서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수익이 높지는 않아도 농촌에서는 농사보다 이거는 보름에 한 번씩 현금을 만질 수 있으니가 현금 유통에 도움이 되지. (이복년) 농사지어 갖고는 나올 것이 없으니까 .... 제가 젖소의 젖을 짜면서도 꽃집에 일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우리 아저씨가 젖소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은 울었나 봐요. 어떻게 사나 하고요. 별안간에 젖소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야기도

안 하고요.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인터뷰 어려워져요?

그 당시는 뭐랬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하고 싸우고는 홧김에 팔았다고 했거든요. 아버지하고 그랬는지 엄마하고 싸웠는지 잘 모르지만. 아니 제 이야기좀 들어보세요. 제가 일 다니지, 논에 갔다 와서 저녁에 들어와 젖을 짜야지, 밥해야지, 아침에 젖 짜고 밥해야 하고 그걸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는 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그랬나 시어머니가 그랬나. ‘우리가 소만도 못하냐, 밥을 우리 먼저 차려줘야지.’ 그랬어요. 소는 그때 밥을 안 주면 왝왝 울잖아요. 그러니까 소 밥을 주고 젖을 짜고 밥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했네요?

그럼요, 일찍 일어나야죠.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갖고 … 아이고.

겨울에 젖소들이 추위를 많이 타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호감같은 곳에다가 소를 6마리 키우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젖을 짜려면 젖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집안이 넉넉한 편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었잖아요?

농사만 30마지기 지으면 뭐해요. 뭐가 있어요. 밭에서는 암만 해봐야 돈도 안 나와요. 그때는 그렇지 논에서는 큰돈이 안 나오지, 그런데 애들은 넷이지, 시부모님 있지. 우리 집이 식구가 8명인가 9명인가 그랬어요.

농지가 많이 줄었네요?

저기 뭐야, 사촌이 와서 팔아가고 해서 …

사촌이 무슨 권리로 팔아가요?

이제 큰아버지 앞으로다가 땅이 있었고 그거 돈을 달라고 하니까.

큰집 땅이 좀 있었군요?

큰아버지가 이북으로 넘어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 갖고 그 당시에.

도도리가 그게 좀 있었죠. 6.25 전에 좌익활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복년 어르신은 꽃집에도 다니고 젖소도 키우고 집안 일도 하시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꽃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꽃 따러 갔죠. 4월에서 11월까지인가.

화원에 다니신 거예요?

화원이 우리 마을 뒤쪽에 있었어요. 저기 일산인가 어디에서 이사 와서. 화원을 크게 했죠. 그때는 후리지아를 많이 심었어요.

옛날에 후리지아 많이 좋아했죠?

그래갖고 맨날 꽃 따러 다녔죠. 주일에는 안 가고. 그날은 교회를 가니까.

다른 이야기좀 여쭐께요. 도도리는 이동조합이 언제 끝났어요?

방앗간 2년 하고 그다음에는 운영이 안되니까는...

1967년부터 개인에게 넘어간 거네요?

개인으로 넘어가고는 끝난 거지.

1968년부터는 이동조합이 모아져서 단위농협으로 발전하잖아요. 이 마을도 방앗간 사업 2년 하고 난 뒤에 흐지부지되다가 1968년에 통합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어르신은 직책을 맡은 것 없었어요?

없었어.

동네 직책도 맡지 않았고요?

새마을지도자는 했었지. 아니 그때는 반장을 했네.

이 동네 새마을운동은 누가 주도했어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면(面)에서 시작됐잖아. 그래가지고는 각 동리로다가 전파되어서 마을 안길 확장이라던가 하수도 콘크리트로 만들고. 저기 서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도 흙바닥이었다고. 버스도 안 다녀서 버스 타러 나가려면 장화 신고 나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동네서 흙길을 포장하고 그랬던 거지. 모래 실어다가, 냇가에서 모래를 퍼다가 시멘트를 짖이겨서 포장한 거지. (이복년) 그때 나 시집 와서 포장하고 그랬어요.




수월암2리 당고개와 마을 뒷길(2007)

새마을운동이 대단히 활발했네요?

마을 길도 포장했고, 또랑도 개보수하고.

다리를 놓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 주로 했던 것이 도로확장하고 지붕개량.

주로 했던 게 도로확장과 포장이군요?
여기는 개울이 있어야지, 없잖아.

도도리가 지대가 높은 마을이죠?
새마을운동이 되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이 동네도 그랬나요. 도도리는 구판장 사업은 안 했나요?
구판장이라.... (이복년) 동네에서 했잖아. 그래서 뭐 팔고 그랬다며. (강영배) 동네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구판장이었어요. 한 4, 5년을 운영했는데 그게 동네 구판장이었어요.

언제요, 새마을운동 대요?
네.

구판장에서는 무엇을 팔았어요?
잡화나 술, 식료품같은 거. 농기구도 팔고.

어르신은 이앙기를 언제 구입했어요?
이앙기는 1970년대 말쯤....

빨리 구입하셨네요. 당시에 이앙기를 구입하면 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내기 해주고 품삯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했어요. 우리는 이앙기도 있었고 탈곡기도 저거 말고 조그만 자루에다 담는 거 있었지. (이복년) 그거할 때 내가 쫓아다니며 담고.

그건 콤바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콤바인. 우리는 이앙기도 있었어.

이앙기를 구입할 때 탈곡기도 같이 사용하신 거네요?
탈곡기도 있었죠. (이복년) 탈곡기할 때는 손으로 모심고 그러지 않았어. (강영배) 경운기할 때 탈곡기를 했지. 경운기에다가 탈곡기를 달고 탈곡해서 삯 받고 그랬지.

탈곡할 때 삯은 얼마였어요?
모르겠어. 이제 그게 무게를 달잖아. 거기서 10개이면 1개씩은 가져간다고.

그럼 1/10은 됐네요?
그렇게는 될거예요.

제법 쏠쏠한데요?
그런데 사람 데리고 하는 거지.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탈곡하고 나면 일한 사람들하고

나눠야잖아. 기계 주인은 더 먹기는 하겠지.

한 짓수는 더 먹어도 떼돈을 벌지는 못하네요?
이앙기를 할 때는 논 한 마지기를 심어주면 얼마씩 받았어요?
(이복년) 그때는 돈으로 받았지. (강영배) 기억안나.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1980년대 농업기계화정책을 추진할 때 구입하신 거네요?
그렇지. (이복년) 이 동네가 이앙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시동생 뻘 되는 사람이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이앙기나 콤바인을 구입해도 내 농사만 지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았죠?
안맞쥬, 농기계값이 얼마인데.

그럼 어르신도 남의 농사 지어줘서 타산을 맞춘 거네요?
그렇지. 남의 논 모내기 해주고 남의 벼 베어주고... (이복년) 기계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갚으려면 에휴~~ 나도 쫓아다니며 별일 다했어요.

지금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하던데 어르신도 결국은 남의 농사를 지어서 타산을 맞춘 거네요?
지금은 기름 값 오르지, 기계값도 올라가지 농사지어봤자 이것저것 주면 남는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논농사만 하세요. 몇 마지기 농사지어요?
우리가 4,500평.

많지는 않네요. 논농사는 위탁해요 자영하세요?
(이복년) 지금도 직접 짓지요.

농기계로요?
모심는 거하고 벼 베는 거하고는 남에게 맡기죠. 지금은 허리 아파서 일을 못해요. 허리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일을 아주 못해요.

지금은 위탁영농도 하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도 하더라고요. 벼도 말리지 않고 물벼 상태로 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960, 70년대만 해도 수매를 했잖아요. 수매를 하면 보통 생산량의 얼마를 수매했어요. 보통 전량 수매를 안 하잖아요?
먹을 것만 빼고는 다 수매했죠. 그것도 집에서 다 말려같고 가마니에 담아서.

직접 말려야 했나요?
(이복년) 그럼요, 다 말렸죠. 길에다가 멍석을 깔고 며칠을 널어서 말리고...

맞아요, 옛날에는 길바닥에 벼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 같고는 가져가야 했죠.

수매는 어디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했어요?
농협까지 차로다가 싣고 가서 하는 거죠.

이것도 등급을 받아야죠?
등급을 받아야했죠. 잘 말려야 좋은 등급을 받았어어요. (이복년) 그리고 쌀도 보죠. 늦게 벤 것은 질이 떨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영배) 비료만 많이 줘서 농사지으면 미질이 떨어져요.

비료와 미질의 상관관계가 있었네요?
비료 많이 주면 쌀이 통통하지 않고 푸석거려요.

비료를 많이 주면 웃자라서 그런가요?
검사원들이 이렇게 도정을 하잖아. 이렇게 누르면 바숴지는 게 많아.

통일벼 재배를 강요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1970년대 중 후반쯤에요?
여기는 통일벼를 많이 안 심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수렁논들이 많아가지고 통일벼를 하면 베어서 바닥에다가 뉘어 놨다가 산 같은 데 말려야 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지대가 높아서.
(이복년) 여기 쌀이 맛있어요.

수렁논 쌀들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농사일을 해서 이걸 말려야 하는데 수렁논은 그게 어려워서 통일벼 재배가 힘들었지.

그런데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볍씨를 담갔거나 모판을 만들었을 때 통일벼가 아니면 다시 하라고 하거나 심지어 논에 들어가 밟아버렸다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나봐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적으로다가 심지 못하는 지역이다 보니 안된다고 인정을 해줬던 거지. 볏단을 추스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락이 떨어지는데 어떡혀.

그럼 추청벼는 안 떨어져요?
그거는 안 떨어지지.

그럼 주로 추청벼를 심었던 거네요?
추청벼를 심었지.

어쨌든 면(面)에서 인정해준 거네요?
그렇지.

도도리도 당제사를 지냈어요?
(이복년) 당제사 지냈지유, 저기에다.

당고개 쪽에 당목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거리미(1리)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었지.

당목은 무슨 나무였어요?
엄나무.

당제는 언제지냈어요?
추울 때니까 음력 10월 달에. 10월 보름에 지냈던 거 같어.

추울 때면 정월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음력 10월인지 정월인지 하여튼 아주 추울 때 지냈어.

이 동네도 제주를 뽑을 때 깨끗한 사람 뽑으려고 이것저것 따졌나요?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거기(당목)에 당물(당샘)이 있거든. 거기 가서 목욕하고 그랬다고.

제주(祭主)는 언제 뽑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전에 뽑았어요. 며칠 전부터 부부끼리 잠도 안 자고 그랬어. 제사 지내려면 당산에 가서 그러는 거야. 금줄 쳐 놓고 마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황토 펴고.



수월암4리의 진주 강씨 묘역

이복년 어르신은 교회 나가셨으니까 이런 것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했네요?
보통 성의가 아니더라고.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집 앞에다가 물도 떠다 놨어.

그것을 청수라고 했죠?

부정한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지. (이복년) 이 동네에서는 누가 제를 지내고 그랬데야. (강영배) 양일이네 집이 하거나 그 양반 아니면 동섭이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했지.

그분들 생존해 계셔요?
다 돌아가셨지.

제물(祭物)은 뭘 올렸어요?
돼지 잡았어요. 통돼지. 그것도 거기(당샘) 가서 잡았는데. 거기 복근네 밭 끄트머리에 당물이 있어. 거기는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거기가 산꼭데기인데 물이 있었다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흙으로 매립됐어요.

나무(당목)는요?
나무는 부러져버린 것들이 남아 있을 거야. 지금 남았겠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나무 옆에 터주가리도 했어요?
당집은 아니고 짚으로 해놔갖고 1년에 한 번씩 짚으로다가 두르고 그랬다고.

그걸 터주가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던데.

터주가리도 크게하면 사람 한둘씩은 들어가죠?
노름꾼들이 거기 가서 노름하고 그랬다고 허허.

터주가리를 아주 크게 했네요?
컸지. 우리 4H활동을 할 때인데 거기서 무슨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보이는 거야. 오줌누러 들랑거리니까 거적대기 제칠 때마다 불빛이 보였던 거지. 이상해서 거기에 가보니까 노름꾼들이 거기 앉아서 노름을 하고 있어.

동네에서는 못하게 하니까요 허허.
그렇지.

제물은 통돼지하고 과일도 올렸어요?
올렸지. 밤, 대추, 배.

삼색과일을 올렸네요. 포하고 술은 뭘 올렸어요?
술은 약주. 집에서 담근 약주 있잖아.

조라술은 안 담갔네요. 언제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아까 말했던 양반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냈는데...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0여 년은 됐어요?
10년은 훨씬 넘었지. 나도 제사 지내는 것은 말로만 들었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르신도 무속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는 교회 저기가 많아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에도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옛날에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어디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기 서탄으로 다녔지.

서탄 무슨교회요?
서탄중앙교회[2]인데...

교단은요?
(이복년) 글쎄 통합이지 거기가.

마을에서 서탄중앙교회에 나갔던 사람은 멀마나 됐어요. 마을이 60호일 때?
두 사람. 형섭이 아저씨하고 ...

지금은 좀 많아졌어요?
여기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 교회는 없잖아요?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어요, 풍성한 교회라고. 이 노인네가 밥 먹고도 배고프다며 풍성한 교회에 자주 가셨어.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던 날에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여름이었는데 거기 밥 얻어잡수로 가시는지 매일 잘 가셨어. 그러면 애들이 데리고 왔지. 거기에 장애인들도 많았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쯤에 오산으로 이사갔지.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쯤에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해주시고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저씨가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를 몇 번 다니고 말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다닌 거죠.

---

2) 서탄면 금암2리 124-4에 있는 예장 통합측 교회.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 영향으로 마음 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술만 먹으면 교회를 갔어요.




수월암리 당산(2007)과 강영배 부부가 다니는 서탄중앙교회

풍성한 교회는 동네에 몇 년 없었네요?

몇 년 없었고요, 여기 윗집 사시는 분도 다녔고 … 어째든 네 분이서 다녔어요. 본래 3분이었는데 우리교회 권사님이 또 그 교회로 다니셔서 병을 고쳤다고 다녔는데 오산으로 옮긴 뒤에는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이 남았는데 지금도 주일에는 오산에서 모시러 오고 있지. 여기서 서탄중앙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하고 저 위 유용훈 집사님.

서탄중앙교회에 두 집이 다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저씨도 같이 다니고.

이동네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성당은 옛날부터 다녔어요?

예, 여기 송상기씨네 할머니도 성당에 다니고…

몇 집이나 되요?

둘, 셋, 넷, 다섯 집인가, 여섯 집인가. (강영배) 저기 이사온 사람도 천주교 다닌다며. (이복년)그럼 일곱 집. 일곱집이 맞네.

성당은 어디로 다녀요?

송탄요, 송탄성당.

여기는 교회도 멀고 성당도 머네요. 불교신자는?

불교신자는 별로 없어요. (강영배) 교회 나가고 천주교 나가는 사람 빼면 불교라고 해야지. (박복년) 불교는 저 은준이 아저씨 다니잖아. 열심히 다니더만. (강영배) 그럼 한 사람. 나머지는 유교지.

사실 불교는 많지 않네요?
그렇지 한 사람.

마을로서는 아픈 이야기 좀 물어볼께요. 옛 어른들께서는 해방되고 좌익운동이 활발했던 동네여서 한국전쟁 뒤에도 많이 힘드셨다고 하던데요. 오랫동안 그 영향이 있었나요. 전쟁 때 돌아가시거나 월북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게 6.25때 없어진 사람들이 많았지 이 동네에. 우리 큰아버지가 지금 평택시장같은 그런 권력이 있었데.

인민위원장을 하셨군요?
어째든 그만큼 권력이 쎘다는 거여.

어르신 댁은 마을에서는 지주에 속하잖아요. 전쟁 중에 피해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면(面) 창고에 붙들려갔었데요. 아버지하고. 그런데 그 창고에서 아버지가 살아나오셨어. 이거 빨갱이다 하면 다 죽이고 할 때인데(우익단체들이) 아버지가 잡혀가니까 심사하던 한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런 거 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오셨데.

우익들에게 잡혀갔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어째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1970년대 전까지는 면사무소나 경찰지서에서 감시하고 차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 가서도 전방에는 못 가고 후방에만 떨어지고 ... 많이 저기했지. 어디 가면 신원조회해야 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차별과 감시가 심했네요?
우리마을이 과부들이 제일 많데잖아 허허. 그만하자고. (이복년) 지금은 노인네들 몇 없어요. (강영배) 젊은 애들도 없고. 광기 그 애가 46살인가.

마을과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마을에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市)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신고라도 했는데 지금은 신고도 없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면 뭐 들어올 거냐고 물어봐서 아는 거죠. 전에는 피해되는 것은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이복년) 너무 많아.

지금으로서는 피해가 생길 때마다 평택시에 민원을 내야해요. 주민들로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죠?
민원을 내도 소용없어요. 벌금 내고 다시 하는데 뭘.

예전에는 마을에 들어오면 참 좋았어요. 산이 둘러서 있고 배밭이 많아서 꽃피면 아름다웠고?

마을 뒤쪽이 다 산이었어요. 공기가 맑아서 살만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난개발된 거죠. (이복년) 공기 나빠지듯이 인심도 나빠졌어요.

외지인들 많이 들어오고 땅값이 오르고 하면 인심이 좋아질 리가 없죠. 땅 한 평 갖고도 싸우잖아요?

지금은 동네에서 욕을 하던지 말던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 많아요.

끝으로 마을 지명들 몇 개만 가르쳐주세요. 이 마을은 왜 도도리예요?

길이 많아가지고.

어르신 댁은 언제 지었어요?

3년 되었어요. 마을 가운데로 길이 나면서 옆으로 다시 지은 거예요.

도도리에서 서탄면사무소까지는 몇 리예요?

서탄요, 옛날에는 20분이면 걸어갔는데 지금은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오산장도 걸어다녔죠?

오산도 걸어다녔죠.

발안장은요?

그전에는 다녔던 거 같은데 주로 오산장으로 많이 다녔죠. 나중에 송탄에 아침장(송탄시장)이 생기면서는 버스타고 거기로들 다니고 그랬죠.

몇 리예요?

몇리는 모르고 송탄으로 버스가 다니니까 그리로 간 거죠. 버스가 마을 앞으로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노선이 바뀌어서 마을 뒤에 큰길 있죠. 거기로다가 다니죠.

옛날에는 오산도 걸어다녔죠?

걸었죠. 거기는 한 10리 되요. 10리가 조금 넘을 건가...

강희분(여, 1925년생) 수월암2리 도도리

이름	강희분	성별	여	
생년	1925년 호적 1927년생	거주지	서탄면 수월암2리	
직업	농업	거주기간	토박이	
일시	2023.11.11.	장소	강희분씨 자택	
면담자	김해규	소속	평택인문연구소	
약력	수월암2리 도도리마을의 토박이다.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집안의 큰딸로 부친이 일찍 작고하면서 17세에 데릴사위를 들여 결혼시켰다. 해방 전후 부부가 새끼와 가마니를 짜서 팔아 땅을 매입하고 부를 축적했다. 강희순이 45세 되던 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과수원을 경영하며 자녀들을 키워 자립하게 하였다. 도도리 마을의 근현대사를 간략하게 인터뷰했다.			

친정이 어디세요?

여기여. 우리 어머니가 일찍 혼자되어서, 나 15살 먹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동생들 넷을 내가 다 키워서 시집보내고...

동생이 몇 명이었는데?

여자만 넷이요. 그 딸들이 지금도 다 살았슈.

그건 기적인데요?

동생들, 내 아래 동생이 3살 차이. 97살. 막냇동생은 88살이유. 우리 아들이 그래유. 엄마 그게 흉이냐고. 이모들도 여적 살고 계시니께 '장수하는 집' 이라고 알려져서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요.

어르신 바깥어르신 이름은?

송영국씨.

언제 돌아가셨어요?

나 45살에 돌아가셨어요. 애들 7명을 낳고 돌아가셨는데 맏딸만 시집보내고 그거 길러서 중학교... 막냇 딸만 대학교를 보내고. 그 자식들 다 잘 살아요.

바깥어르신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53살에.

그러면 그 많은 자녀들 무엇을 하면서 길렀어요. 집안은 잘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우리 남편을 데릴사위로 들였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양반이 들어와서 열심히 살아서 토지도 매입하고 집안을 일으켰시유.

성실한 분이었네요?

야, 술도 안 먹고 얌전했시유.

술도 안 드시고요. 남편은 제대로 얻었는데 오래 살지 못해서 아쉽네?

그렇쥬. 남편이 일찍 가는 바람에 내가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살았으니....

진짜 고생하셨네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집안에 논이 얼마나 있었어요?

남편이 죽을 때 산도 5천 평 사놓고. 지금 거기서 손자가 장작 장사해요. 우리 남편이 있어서 과수원을 사놓았는데 내가 그것을 농사지었시유.

어르신은 과수원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키웠네요?

야,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76살에 돌아가셨어유.

어르신도 고생 참 많이 했네?

우리 돌아가신 양반이 고생 무척 했어유.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내가도 땅을 많이 장만했어유. 여기 집터도 내가 장만하고.




2007년 강희분, 2023년 강희분(여, 1925)

땅도 사시고?

땅도 사고 했던 거 팔아서 우리 아들이 오산에 건물을 사 놓았는데 거기서 세를 받는 것만도 한 달에 700만 원씩이나 되요.

과수원은 몇 평을 하셨어요?
5,700평.

과수원이 무척 컸네요?
그거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팔아서 오산에다가 땅 사놨시유.

오산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드님 내외분이 그거 생각하고 잘 투자한 거예요?
예, 오산극장 옆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지금은 세를 받아 먹고 있슈. 한 달에 700만 원씩은 받나봐.

잘하셨네. 과수원 세를 받아서 그렇게 받겠어요?
허허허. 우리 아들도 머리를 잘써유.

현명하게 머리를 썼네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해요.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는 졸업시켰어요?
네. 우리 막내는 대학교까지 가르쳤고.

막내는 아들이예요 딸이예요?
딸이유. 우리 아들도 효자예요.

어르신은 학교는 다녔어요?
학교는 못 다녔슈. 그래도 야학당을 다녀서 글자는 다 깨우쳤슈.

옛날에는 여자들은 학교에 안 보냈죠?
워낙 어려우니께 학교를 안 보냈죠.

동네 여자 아이들도 학교를 안 다녔어요?
똑같았어유, 다들 어려워서.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들만 보내고 딸은 안 보내더라고?
그렇쥬.

야학당은 어디에 있었어요?

동네에, 도도리에.

몇 살에 다녔어요?
15살에.

야학당을 운영했던 분은?
강말구라고 하고 강은섭하고.

집안 친척들이네요?
다들 친적이었어유.

교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마을 중간에 방하나 얻어서. 동네 사랑방을 얻어서.

주로 무엇을 배웠어요?
국문도 배우고, 산술도 배우고, 한문은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한문은 잊어버렸는데 국문은 다 알아요. 쉬운 글자나 쉬운 셈은 다 알아유.

몇 달을 배웠어요?
한 5살은 배웠나.

짧은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야학 선생님이 잘한다고 상장도 주고 히히.

야학에서 배워서 나중에 과수원도 운영하고 다 하셨네요?
우리 남편도 천재였어요.

똑똑했어요?
네. 술도 안 잡수고...

남편도 동네 사람이었어요?
덕절리라고 거기 사람유. 옛날에는 처가살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살고 그랬슈.

덕정리에서도 어려워서 처가살이를 보냈는데 여기서도 고생을 많이 했네요. 어르신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17살인가 18살인가.

어르신 다른 것 좀 물어볼께요. 왜정 때 마을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는 누구였어요?

왜정 때 땅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다 팔아버렸지.

옛날에 용주사 땅 이런 것 많았잖아요?

여기도 용주사 땅 있었시유. 용주사 당이 마세울이라는 데가 있슈. 들 이름이 마세울. 우리도 그 땅을 소작했슈. 용주사 도지를 우리 바깥양반도 농사짓고.

도지가 얼마였어요?

도지가 비쌌시유.

수확량의 절반을 줬어요?

네네, 그만큼 줬슈.

농사짓고 남는 것이 없네요?

그래도 남의 송아지를 키워서 주고 어려웠슈 … 그래도 지금은 동네서 제일 잘 산다고들 하지.



강희분 부부가 농사짓던 방죽배미와 도간새골 일대

어르신하고 남편 분이 재산을 키운 거네요?

그류, 우리 바깥양반이 일만하다가 돌아가셨슈. 술도 안 잡수고 얌전했슈.

용주사 땅 농사짓다가 분배농지를 할 때...?

분배농지는 못 받았슈.

이승만대통령 시절에 농지분배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사람네들 것 농사짓다가 떨어져서(소작권을 빼앗겨서) … 용주사에서 죄다 팔아갔슈. 우리는 분배받은 것도 없슈. 죄다 팔고 하나도 못 받아서 우리 두 내외가 가마니쳐서 팔아서 땅을 샀슈.

가마니치기를 많이 하셨네요?

겨울이면 남의 것 짚을 사다가 밤낮으로 그걸 하고 손끝에서 피멍울이 맺히고 아이고 고생 많았슈.

하루종일 가마니치면 몇 장이나 했어요?

밤까지 치면 20개씩은 했슈. 하여튼 눈만 뜨면 앉아서 가마니를 쳤슈.

남들은 보통 하루에 12장 치면 많이 했다고 하던데 대단하네요?

낮에는 그렇고요 밤까지 했슈. 우리는 밤까지 하니까 이웃사람들이 ‘저 집은 떨컥하면 하나 떨컥하면 하나’ 씩 한다고 그랬슈. 허허

동네사람들 중에는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있쥬, 소작 짓던 거 받아서 부어 나가던 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슈. 지금도 그러는 거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벌은 돈은 오랫동안 남고 쉽게 버는 재산은 다 망한다’ 고 그래유. 지금도 아들보고 그래유, 쉽게 벌은 재산은 금방 나간다고. 그러면 그래유. ‘엄마는 100살이 되었어도 정신이 똘똘하다고 허허’.

가마니를 치잖아요. 어디에다 팔아요?

오산에다가. 거리가 머니께 마차에 싣고 갔슈. 아니다 가마니는 하북에 가져다 팔았네.

하북에도 가마니장이 섰나 봐요?

예, 거기에 검사원이 있었슈.

그게 해방되기 전이예요?

해방되기 전이쥬. 그때도 우리가 가마니를 잘 쳤다고 상도 받았어요. 상으로 광목을... 허허 옛날이쥬, 옛날.

누가 상을 줬어요?

우리 남편이 가져다가 파는데 검사원이 줬쥬.

그럼 검사원이 면사무소 사람이예요 다른 데 사람이예요?

가마니를 파는 데가 있었쥬. 하북에 있는 거기서. 우리는 가지고만 나가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슈. ‘어떻게 가마니를 가져가기만 하면 1등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냐고’ 요. 허허

그럼 1등이면 비싸게 쳐줬겠네요?

네. 검사원이 그런데요. 조금만 바짝치지, 조금만 바짝 치지.

가마니 중에도 쌀 담는 가마가 따로 있고 비료 담는 가마가 따로 있었다는데요?

개량가마, 짚을 빻아가지고 그걸 친 거유.

개량가마라는 게 있었어요?
예, 비료가마도 하고.

서로 달라요?
개량가마는 쌀을 담는 거고 비료가마는 비료를 담는 거고.

그럼 비료가마는 좀 엉성하게 치는 건가요?
아니오, 비료가마도 빻아서 촘촘히 쳐요. 다 치고 나서 담듬어야 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비료가마는 좀 작고 개량 가마는 컸어유. 미련하게 쌀 10말씩 들어가게 만들었지 허허.

개량가마로 쌀 공출같은 것을 했군요?
그런가 봐유.

어르신도 공출을 당했겠네요?
벼공출, 벼공출은 안 당했슈. 가마공출은 내가 가봤어도 벼공출은 안 가봤슈.(공출현장에 나가봤냐는 질문으로 오해함)

가마니는 언제까지 쳤어요. 새마을운동할 때까지는 쳤어요?
예. 마대자루 나올 때까지는 했지. 지금은 다들 호강해유.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만고풍상을 다 겪었지만 지금 호강하며 사는데, 우리 그분(남편)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요. 소나무도 손가락만한 걸 5천 평 산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그것이 일취월장하도록 컸는데, 그만큼 세월이 갔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었는데.

아랫집 보다도 부자예요?
그집 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그집은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슈. 내가 극성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다들 그래유. 우리 아들이 나를 무척 위해유. 지금도 저녁이면 머리 맡에다가 팔팔 끓는 물을 가져다 놓고 참 잘해유.

도도리가 왜정 때 강습소도 있었죠. 도도리강습소요?
생각이 안나는디유.

해방되고서 도도리에서 좌익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우익좌익할 때 좌익.

도도리 폭동 기억나세요?

그럼 나쥬. 그거 우리는 딱 금지했슈.

중립을 지키신 거네요?

빨갱이들이 회의를 하자고 모이라고 하면 우리 바깥양반이 ‘왜 남의 재산을 거져 먹으려고 하냐’ 며 안 갔슈. 그런데 빨갱이하고 파랭이하고 거기 엉겨서 다니는 사람들이 6.25 때 상극이 되어서 죽이고 어쩌고.

대장들은?

대장들은 다 넘어갔슈.

이 동네서는 몇 명이나 넘어갔어요?

2명. 그 사람들이 넘어가고 조금 나아졌슈.

전쟁나기 전에 넘어갔어요 전쟁 나고서 넘어갔어요?

전쟁나고서.

이름은?

강구배라고 하는 사람이 두목이고 또 저기 최광태라는 사람도 있고. 빨갱이 노릇하다가 북으로 넘어갔슈.

동네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네요?

동네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몇 집만 파랭이라고 빨갱이들이 와서 죽이고 그랬지. 그 사람들도 가만히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에이 이놈의 빨갱이 놈들을 내가 쳐죽일 거라’ 고 했다고. 그래서 빨갱이들이 밤에 찾아와서 4형제를 모두 죽였슈.



강희분이 최기태로부터 매입한 집

그럼 그집은 빨갱이라면 이를 갈겠네요?

예... 이를 가는데 이제는 하도 오래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없슈. 지금은 잘 지내요.

사리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쥬. 회화리도 그렇고. 회화리는 파랭이가 많았슈.

왜정 때 보니까 도도리 사람들이 서울의 부재지주에게 대항해서 소작쟁의를 일으켰더라고요. 그것도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도 죄다 죽었슈.

소작인들 이끌며 폭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마름이라고 있었슈. 여기 우리 집 아래 할아버지가 마름을 했는데 그 양반이 좀 안 좋았어요.

소작쟁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똑똑치 못해서 주동한 사람은 없었슈.

기록을 보니까 마름이 너무한다고 서울에 있는 지주한테 쫓아가서 마름을 자르라고 하고 그랬던데요?
아, 지주가 한광호던가 그래쥬. 그런 땅도 우리가 소작을 지었슈.

한광호 땅도 어르신이 소작을 지었네요?
그렇쥬.

어르신은 결혼할 때 구식으로 했어요?
그럼유.

그럼 마당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저 아래에 조그만 오두막집이었슈. 지금 사는 이 집은 내가 샀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껄댔어도 내가 사버렸슈.

본래 집 주인은 누구예요?
최기태.

최기태의 집인데 팔았군요?
팔려고 하는데 방앗간집에서 자기가 사려고 훼방을 놨슈. 지금 집은 사서 꾸민거유. 내가 손녀딸을 업고 나가는데 못 팔게 협잡을 놓길래 내가 흥정꾼을 둘을 놓았슈. 그러니까 방앗간집에서 그 집은 귀신이 나오는데 누가 사려고 하냐고 그래요. 내가 천주교를 믿어유. 귀신은 무슨 귀신 하면서 주인하고 협상을 하니까 1백만 원이면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샀어요.

집을 구입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한 30년이나 되나.

30년은 아니겠죠?

그런가, 집을 고친게 30년 전이네. 50년은 넘었네.

바깥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이예요 후에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뒤지. 내가 장독에다가 20만 원을 모아 놓은 것이 있었슈. 그거를 들고 가서 당장 사자고 하고는 아랫집에 데리고 가서 계약서 쓰고 거래를 했쥬. 우리아들은 미군부대를 다녔는데 아들도 없는데 사버렸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유. 왜 엄마 마음대로 사고 그러냐고.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죠?

잘한거지 뭐 허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엄마는 체구도 작은데 그렇게 배포가 크냐고. 지금은 좋데요.

오막살이 집은 작았어요?

아주 작았어유. 안방하고 거른방하고 마루도 쬐그맣고.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바깥 양반이 이 집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슈. 그런디 마침 이집에 살던 노인네가 죽었슈. 죽고 나니까 농사도 안 짓고 이사가버려서 그래서 팔은 거유.

어르신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와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것 땅을 팔아서 가져갔슈. 시댁이 어려워서 우리 집 양반이 10년을 머슴살아서 그것을 다 갚아줬나봐. 그러고서 이리로 데릴사위로 왔슈.

집안을 살리고 오신 거네?

좋은 일만 하다가 돌아갔슈. 천당에 갔을 거유.

어르신은 성당에는 언제부터 나갔어요?

성당을 나간 것은 해방되고 나갔나 봐유.

어떻게 나가게 되었어요?

천주교 믿는 친구들이 나가자고 해서...

성당이 멀잖아요?

송탄성당 나가요.

송탄까지 멀잖아요. 얼마나되요?

10리. 절골까지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갔슈. 우리 애들도 다 가르쳐서 영세받게 하고.

집안이 모두 천주교시네요?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야단하면 ‘나도 다녀야죠’라고 그래요.

이 동네서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6집이었슈. 지금은 몇 집 안 되유. 5집인가 6집인가.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마을 중앙으로 큰길이 나면서 마을이 훵해졌어요?
맞아요. 마을 뺑 둘러서 죄다 공장이유.

당제사를 지내는 것을 봤어요?
옛날에는 지냈쥬. 지금은 안 지내유. 거기 경동보일러라고 거기에 당이 있었는데.

지명들 몇 개만 가르쳐주세요?
경동보일러 거기가 당고개유.

거기에는 당집이 있었죠?
나무도 있었고 오막집 지어 놓고 있었고.

당집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 해놓고 움막처럼 지어 놓은 것인데 경동보일러가 들어 앉았지.

수월암 4리 쪽으로 가는 들판은 이름이 뭐죠?
거기는 마세울. 경동보일러에서 아래로 쭉 이어진 들판.

저수지는 수월암2리 것이 두 개잖아요?
지금도 수월암리유.

방죽은 누가 사용해요?
같이 쓰는 가 봐요. 지금은 죄다 관정을 파는데 뭘.

들이름으로는?
도간세도 있고, 거기서 쬐끔 더 가서 하천 있는 데가 요세굴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김양굴.

산 이름은?
산은 그렇고 뒤쪽에 있는 골짜기가 뒷굴이고, 우리 동네 서쪽으로 공장이 많은데가 있잖아유. 거기를 어거지라고 했고.

어거지를 썼나봐요?

어거지는 이야기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돌다리가 있고. 거기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작로가 되었고.

돌다리는 마세울 쪽인가요?

아니 깊은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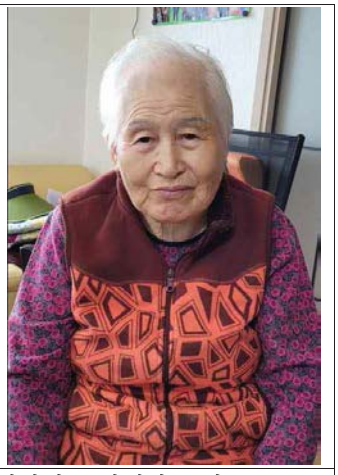
언제부터 과수원을 많이 했어요?

50년 전부터인가.

6.25 후부터인가요?

6.25 한참 지나서.

이송자(여, 1940년생) 외. 수월암1리 아랫거리미

이름	이송자	성별	여	
생년	1940년생	거주지	서탄면 수월암 1리	
직업	농업	거주기간	65년 전후	
일시	2023.10.23.	장소	수월암1리 마을회관	
면담자	김해규	소속	평택인문연구소	
약력	이송자는 진위면 야막리가 친정이다. 군인이었던 오빠를 따라서 군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야막리로 올라와 중퇴했다. 19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차연희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낳았다. 비교적 유복하게 살았으나 남편이 50대 후반에 사망하고 큰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남모를 아픔도 겪었다.			

이송자 어르신은 친정이 어디세요?

야막리.

거기는 박씨들 동네인데?

박씨가 많았죠.

냇가를 건너왔네요?

냇가 건너서 왔는데 지금도 농사는 거기서 지어요. 지금은 하우스 지어서 다 남 주고.

그러면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일찍 왔지. 이 동네에서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양반(남편)만 고등학교를 나왔슈. 자손들이 워낙 귀해서 일찍 장가들였어. 여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럼 몇 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집 양반이 21살, 내가 19살. 바깥양반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르신이 연상이었어요?

내가 두 살 아래지.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도 안하고 장가들 생각을 했데요. 바깥어르신 함자는?

차연희씨라고 아까 갔어.

어르신 친정은 좀 살았어요?
괜찮지도 않고 못살지도 않고 그래.

평범한 가정이었네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신 거예요?
초등학교 나왔다고 봐야지. 중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께.

초등학교는 어디?
진위국민학교지. 내가 6.25 때 4학년이었어.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 세대이네. 중학교는 어디로 다녔어요?
중학교는 전라도에 가서 조금 배웠어요. 우리 오빠가 군인이었거든. 오빠가 장교를 지냈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더 가르쳤지.

전라도 어디요?
군산.

군산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어요?
1학년 말에 오빠가 일선으로 발령이 나면서 여기(야막리)로 왔다가 그냥 안 간 거지.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 오빠가 전방으로 전출한 게 원인이었네요?
맨날 칠성부대, 백마부대 같은 디를 이야기하더라고.

칠성부대 같은 데는 강원도 산골짜기죠?
거기(군산)에 갔다 오니까 진위에 진위중학교가 생겼어. 그래서 진위중학교를 다니라고 했는데 혼자 다니려니까 무섭더라고.

왜 무서워요?
혼자 철둑을 넘어서 다니려면 무서웠어. 혼자다니면 무서워서 싫다고 했어. 지금도 그때 친구들 만나면 ‘애 나도 무서워서 그만뒀는데 그때 알았으면 같이 다닐걸’ 하고 말해. 그때는 서로 말을 안하니까 알았나.

그래도 집에서는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노력했네요?
그렇지, 그런데 혼자 철로길로 걸어서 다니려면 무서워서 그만둔 거지.

(이계희, 1937년생)

이계희 어르신은 ‘계’자 돌림인 것 보니까 함평 이씨네요?
옛날에 여자는 뭣하려고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나 몰라.

그래도 있는 집이니 그렇지 지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언년이, 삼월이였을 거예요?

나도 어릴 적에 이름대로 부르지도 않았어.

그럼 뭐였어요?

언년이, 동네 언년이였어. 이름이 부르기가 좋지 않으니께 그랬나봐. (주민) 지금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로 만들었을 텐데.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을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려, 언년이 간난이 그랬지(웃음)



이계희(여, 1937년생)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친정은 어디세요?

안중 화양리 용동마을.

몇 살에 결혼했어요?

22살에.

바깥어르신은?

21살.

연상의 여인이네요?

22살에 결혼하러 왔더니 아직도 졸업(고등학교)도 안했더라고.

바깥어르신 함자는?
차정부

이름이 멋있네요?
옛날에 노인네들이 성공시키려고 공부를 가르친 건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서울로 보냈는데 결혼도 했으니 나한테서 떨어지려고 들어. 서울로 올라가더니 며칠 살고는 그냥 내려오더라고.

졸업하고요?
결혼하고서는 졸업하고 남편이 직장에 다닌 거여. 그렇게 보냈는데 며칠 안 되어서 그냥 내려왔어,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농사꾼이 된 거지. 군대는 공군을 다녀왔고.

(이송자) 그때는 직장 같은 직장이 어딨어?
그래서 저기 있잖아. 여기 살던 사람 금돌네라고. 거기다가 부탁했어. 노인네들이 그 사람들을 잘 알잖아.

(이송자) 우리 시아버지도 거기 가서 조금 있었다는데.
누가

(이송자) 은경 아버지도 그집에 가서 있었데요?
동네에서는 그집이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거기다가 부탁을 한 거여. 그래서 거기서 직장을 해줬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

그렇게 썩 좋은 데가 아니었던 가봐요?
아니 그러고 딸들만 있고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귀한 자손이고 부모 곁에서 떨어져 보지 않았어. 그러니 견디기가 힘들지.
(이송자) 성공시키려고 한 건데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죠, 농사꾼 아들들이?
진짜여.

그럼 낙향해서는 농사만 지었어요?
농사만 지었지.

바깥어르신은 언제까지 사셨어요?
57세에 작고했어.

일찍 가셨네요?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 명에 못죽은 거여.

그러시네요?

그래도 부모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어. 부모보다 앞서지는 않았지. 자식들도 내가 넷이나 낳았는데 모두 결혼시키고. 우리 작은 아들이 26살에 결혼했으니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일찍 결혼한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안 보고 죽었겠지. 그래도 자식들 결혼하고 손자 하나씩 낳는 거 보고 그러고 죽었어.

그래도 볼 것은 다 봤네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쉽지만?

나는 오래 살아서 증손자까지 봤슈. 증손자며느리 둘이나 봤고.

이계희 어르신은 친정은 어땠어요?

친정은 왠만치 살았지, 남에게 손 안 벌릴만큼. 옛날에는 우리가 방죽 밑창이에 있는 가운데 논을 했어.

그러니까 한촌 아래 방죽을 말하는 거죠?

거기를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 거야. 우리 아버님이 그 논을 사려고 그렇게 원했데요. 그래서 고생을 징하게 했지. 벼를 베다가 묶어서 산으로 날라가지고 말려서 털었으니 그 고생이 얼마여.

그래도 가뭄을 타지 않고 가뭄에도 모내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양식 걱정은 안 하고 살았지. 힘들어서 그렇지. 가물면 꼬챙이로 모심고 호미모 심고 그랬슈. 그래도 양식 먹을 것은 나오고 그랬지.

어르신은 그럼 구식결혼했네요?

그냥 싫어도 보내는 대로 갔지 뭐.

어르신 연배면 맞선은 봐요?

맞선은 보러 오더라고. 그런데 부모들은 맞선만 보게 해주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 여기도 직접 와서 보니까 살만하더래요. 아들이 하나지만.

동네까지 직접 와서 살폈네요?

논도 좀 있고 농사짓는 것도 괜찮고. 너 하나는 배 안골고 먹고 살겠다고 생각해서 보낸 거래요.

그러니까 바깥어르신이 외동아들이었네?

아들은 하나지, 딸만 넷인가. (이송자) 그집은 셋, 우리는 여섯.

1남 3녀 가운데 외아들이었네요. 집안에 재산도 왠만치 있고 고등학교도 나왔고?

옛날에는 먹고살 만하면 그냥 보냈어.

시댁은 논 몇 마지기 농사를 지었어요?

몰라, 들에 너마지기가 있고 여기 마을 옆에 10마지가 있고.

그럼 14마지기였네요?

그랬나 봐. 그게 이제 우리 신랑이 살면서 들에다가 논을 산 거야. 남편이 사고 옆에 논은 팔아가지고 저기 수원에다가 빌라를 사서 애들한테 주고. 옛날에는 1천만 원만 주면 빌라를 샀어. 나중에는 애들이 오산에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거기도 보태줬어.

바깥어르신 살아 계실 때 논을 몇 마지기까지 늘려놓고 돌아가셨어요?

한 군데에 21마지기고, 이쪽 것이 18마지기고.

많이 늘리셨네요?

그걸 두 아들에게 모두 상속(인계)하고 간 거여.

따지면 돌아가실 때 40여 마지기를 장만하셨네요?

그런가 봐유.

자식들 먹고 살게는 했네. 빌라 사주고 아파트 사는데 보태주고?

그랬지.




수월암1리 뒷골과 가을 채소수확

어르신은 결혼할 때 가마를 탔어요?

가마 타고 댕겼지.

여기 시집올 때도 가마타고 온 거예요?

가마는 못 타본 거 같은디.

(이송자) 나는 타봤어.

이계희 어르신은 도라꾸(트럭)를 탔어요?

도라꾸 탔지. 도라꾸 타고 마을 입구까지 와서 가마를 탄다고 했는데 밤이니까 그냥 걸어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 도라꾸 뒤에서 까만 옷 입은 학생들이 노래 부르고 그냥 하하. 그 앞에는 신

랑하고 택시 타고, 운전수하고.

(이송자)어르신은 친정 형제들이 몇남 몇녀였어요?
1남 4녀

아들들이 정말 귀했네요?
아들은 죄다 잃어버리고 딸만 길렀데.

딸로는 몇째였어요?
둘째.

아들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오빠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장교를 했는데 제대하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결혼도 못했네요?
결혼은 했지. 애들이 5남매인데.

장교였으면 계급은?
6.25전에 지원해서 군대에 갔는데 전쟁이 터지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장교 계급장을 달아라고 하더래.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께 말하자 '소위는 앞에서 싸워야 한다며 그건 안 된다' 고 말하셨데. 전쟁에서 총알받이지. 그래서 하사관을 하다가 소위까지 올라갔지.

전쟁 끝나고 소위까지 진급했네요?
소위까지 진급했다가 54세로 돌아가셨어.

바깥어르신은 몇 남매에 몇째였어요?
7남매인데 아들이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지.

그렇죠, 진짜 힘들죠?
그런데다가 이 양반이 몸도 약하고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만 힘들었지. 우리 아버님은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살게 해 놓고 돌아가셨어.

시아버지는 부지런했네요?
시어머니하고 우리 남편은 일을 안 해.

그럼 어르신과 시아버지만 일했어요. 귀한 아들이라고 일도 안 시켰네요?
그거 잃어버려서 그려.

시부모님이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앞세우신 아드님이 있었네요.

그럼 바깥어르신은 고등학교를 어디로 다녔어요?
오산 오산고등학교. 3회로 졸업했어요.

농사일 하기 싫으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야하지 않아요?
몰라.

그럼 7남매 가운데 몇째였어요?
넷째. 위로 누나 3명, 아래로 누이동생 3명.

그럼 결혼할 당시에는 손아래 시누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겠네요?
아래로 셋은 안 했지.

그럼 시누이 셋은 전부 어르신이 혼례를 치러줬어요?
아버지 엄마가 계시기는 하지. 나는 뒤에서 일이나 하지 뭐.

상황으로 볼 때 어르신 시집살이좀 했을 거 같은데요?
안했다면 거짓말이고 심하게는 안 했어.

사실 20살 새댁이 뭘 알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일은 안하면서도 좋게 봐주지를 않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남의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 것같고 우리 며느리는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 그게 힘들더라고.

칭찬에 인색했네요?
다른 건 심하게 안했고 배고프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실 배고프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죠?
내가 시집오니까 이 동네에서 세 집만 넉넉해. 그런데 우리도 그중에 한 집이었어. 다른 집들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난한 집들도 애들이 공장에 나가서 벌어들이니까 다들 괜찮아지더라고. 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지.

그럼 마을로 공장이 들어온 것이 도움이 되었네요?
이동네로 공장 들어온 것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 다른 데로 다니지, 오산 같은 데.

어르신은 결혼할 때 구식으로 했어요?
구식으로 했지.

구식결혼하면 친정이 냇가 건너 야막리잖아요. 그러면 혼례는 어디서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서탄면 사람들좀 알어. 임광래선생이라고 그분 밭이 우리 시댁하고 붙었는데 일하다가 그분에게 아들 중매좀 해달라고 한 거여. 그래서 우리 동네로 와서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다면서 중매를 해달라고 한다' 며 우리에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사람 착하고 먹고살만하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낸 거야.

옆 동네라 어떻게 사는지는 다 알았겠네요?

한 들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께 다 알았지. 그래서 오게 되었지.

그러네요.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그 집은 먹고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네요?

우리 시아버님이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시고....

맞선을 볼 때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우리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도 없어. 그냥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앉았다가 오는 거지.

사실 결혼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당사자들은 발언권도 없고?

그려.

맞선을 보면 결혼할 때까지 며칠이 걸려요?

추석 이튿날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고 맞선을 보고 두 달 조금 지나서 음력 10월 24일에 혼례를 올렸지.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됐냐면 여기(시댁)에서는 봄에 혼례를 하자고 하더라고. 딸이 하나 시집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기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딸내미 병원부터 갔다 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별안간에 10월에 한다고 바꾸더라고.

그럼 결혼 당시에 바깥어르신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던 거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했지.

오산고등학교에 다녔던 고등학생이 결혼했던 거네요(웃음)?

그려.

결혼 후 남편 학교 가는 것도 뒷바라지 했어요?

며칠동안은 한 거지. 그러고서 방학했지. 12월이면 방학이잖아. 금방 방학하고 명절을 쇠니까 졸업했지.

그렇긴한데 고등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재밌기는 해요.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죠?

우리 때는 아주 드물었지만 가끔은 있었지.

바깥어르신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돈 벌러 가신 건가요?

누가 소개해줘서 가긴 갔는데 잘 안 됐나봐. 그리고 큰 매형이.

어르신하고 같이 안 가고요?

같이 안 가고… 우리는 군대갈 때도 안 가봤어. 우리 오빠가 군인이니까 면회를 갔지. 오빠 덕분에 논산훈련소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했어요.

편하게 군대생활하셨네요?

우리 오빠가 도와준 거지.

바깥어르신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오래한 것은 아니네요?

쬐끔 있었지. 그러고 내려왔는데 우리 시댁에서 다시 내보낼 생각을 안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시아버지 혼자 농사를 지으니까 내보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아들은 끼고 같이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수월암1리 마을전경

당시에는 다 그랬죠. 시아버지도 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셨네. 어르신은 나가고 싶었고요?

아이, 시어른들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나가고 싶지도 또 나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 어른들이 그렇게 누르는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어른신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네요?
내가 권리가 없었어 집안에서. 돈도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쓰고 그랬으니까.

결혼은 했어도 결정권이나 돈에 관한 부분은 권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동네로 시집와가지고 제일 편하고 좋았는데 … 이제는 몸이 아파서 제일 걱정이여. 돈을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데도 그게 또 나가기도 어렵고. 마땅히 쓸 데도 없어. 좋은 옷 사입으면 모양이 나겠어, 이 나이에. 돈을 써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도 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하세요?
우리 동창들 죄 죽었어.

결혼 당시에 수월암1리 사람들은 모두 농사만 지었나요?
그렇지, 이 동네야 농사짓고 살았지.

동네에 논이 많았어요 밭이 많았어요?
많지도 않았어. 여기가 (계곡이) 좁잖아요. 저기 진위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어. 여기 냇가(오산천) 건너면 진위면이잖아.

그렇죠, 야막리 쪽에?
거기 가서 농사짓고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고.

수월암1리는 밭농사도 많았나요?
밭농사도 많았지, 산기슭으로. 우리는 밭도 많고 논도 많았어.

옛날에는 밭농사는 주로 여자들이 했잖아요. 논은 남자들이 일하고?
밭은 여자들이 많이 하지.

그럼 어르신은 밭농사도 하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했네요?
애는 시어머니가 키워줬어. 밭일 집안일은 안 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애들이라면 벌벌 떨고 그랬어.

그렇죠, 자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당시에는 시누이들도 있었잖아요. 시집살이는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 에이 그만해요.

다른 이야기를 할께요. 결혼하셨을 때는 수월암1리가 모두 초가였어요?
동네가 모두 초가였어요.

어르신 댁은 방이 몇 개였어요?
방은 세 개. 부엌하고 안방, 건너방, 사랑방. 대청마루도 있고.

사랑채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야 소를 기르지.

사랑채에는 사랑방하고 외양간하고 화장실이 있었네.
화장실은 바깥에 있어.

여기는 땔감이 흔했어요 귀했어요?
그래도 흔했지. 필요하면 산에서 긁어다 때면 되니까.

나무는 누가 하러 다녀요?
할아버지.

나무는 남자들이 했어요. 나무할 때는 솔가리같은 거 해오나요?
7월이 되면 산에 나뭇가지를 쳐내고 풀을 뜯어놔. 그것을 두어 달 말렸다가 가져다 때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것도 긁어다가 때고.

볏짚으로는 땔감을 할 수 없잖아요. 짚으로 새끼 꼬고 지붕올리고 해야잖아요?
그래도 지붕은 한 해 걸러서 올리니까 괜찮지.

물길어 먹은 거 하나만 더 여쭐께요?
물은 동네가 전부 길어다 먹었지.

당시 공동우물은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

어디에요?
여기 회관 앞쪽으로 공장 있는데 바로 옆이 우물자리였지.

우물이름은 없었어요?
이름은 없어. 동네사람들이 모두 먹었지. 우리 집은 동네우물 길어 먹다가 펌프를 놨어요.

언제쯤요?
내가 결혼하고 3년 지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관정 박아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팠어요. 우리가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너도나도 하더라고.

자가수도는 언제쯤?

전기들어오고 새마을운동을 할 때지.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주민들) 우리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졸업할 때쯤이죠?

(주민들) 그정도 되겠죠. 1972년쯤인가. 우리도 호롱불에 살다가 전기들어왔지.

1972, 3년쯤 되겠네요?

(주민들) 졸업하기 직전이다. 아니 졸업하고 들어왔다. (이송자)내가 그거 알어. 우리 집이 1973년에 집을 지었는데 그해 가을에 들어왔어, 확실해.

수도는?

전기 들어오고 한 2년쯤 있다가 들어왔나, 3년쯤 되었나.

수도는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하지 않았어요?

맞어, 수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 거지, 도시수도가 아니라.

그럼 1975년에 간이상수도를 한 거네요. 그럼 물을 길을 때는 물동이로 했어요 물지게를 지고 다녔어요?

물지게로 했지. 우리 동네가 물은 넉넉했어요.

그럼 물 때문에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동내가 조그만해서 그런지 그러지는 않았지.

아궁이에 불 때다가 연탄아궁이를 만든 것은 언제예요?

연탄은 우리가 늦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하도 나무를 많이 해오니까 만들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늦게 했는데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2007년 수월암1리 뒷거리미

동네사람들은 연탄을 땠을 거 아네요?

몇 년도부터 땠는지는 몰러.

보일러는 언제 놨어요?

집 고치면서, 새마을운동 지나서 집 고치기 시작할 때(1980, 90년대) 놓기 시작했지. 1980년대 지나서 1990년대 되어서나 놨지.

그러니까 집 고치고 입식 부엌 만들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기 시작했네요. 보일러는 어떤 것을 놨어요?

처음에는 기름보일러를 놨는데 나중에 전기보일러로들 바꿨지. 우리 집이 2011년에 새로 지었거든. 그런데 그때는 전기보일러가 없더라고.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다시 놨지.

요즘에는 전기세가 비싸서 전기보일러를 놓지 않더라고요?

기름보일러를 썼는데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 건너편 우리집 있는데 3집은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집은 도시가스가 없어, 그게 싼데. 정부에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며 내년에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도시가스는 언제 들어왔어요?

추석(2023년 추석) 전에.

어르신 옛날에는 마을 곳곳에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백토고개.

어디가요?

사리로 넘어가는 고개. 거기가 흙이 하얗다고 해서 백토고개래요.

그리고?
술청고개라는 디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때는 그리로다가 서탄면으로 갔슈. 욜로다가 여기 조금 지나서.

당고개 말고, 당고개와 백토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고개네. 그 고개가 도도리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도도리는 또 있어요.

그러면 술청고개로는 서탄면 금암리로 가는 고개인 거죠?
거기로 학교도 다녔어요.

도도리고개는요?
여기가 알으셔, 길 새로 난데.

당고개 넘어가는 거요?
거기 옆이 도도리고개여.

도도리 사람들은 당고개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당산나무가 있었잖아요?
아, 우리는 도도리 넘어가는 고개라 도도리고개라고 하지. 맞어 거기에 당산나무가 있었어.

산 이름들은 어떻개 돼요?
여기는 산 이름이 없잖어.

뒷산은 이름이 없어요?
매서울산, 매서울고개라고, 저기 공장(경동보일러) 들어온데.

마을은 웃말 아랫말 구분했어요?
우리는 그거는 없었어.

들판은?
마을 앞 들판은 두곡리(오산시) 사람들이 농사지어.

농사는 어디서 지었어요?
농사는 냇가 건너에서 지었다니까. 여기는 앞고실이라고 하지.

거기가 행정구역상 야막리죠?

아녀, 거기는 여기(수월암리) 땅이여.

냇가 건너면 야막리잖아요?
아녀, 냇가 건너기 전에 마을 앞쪽으로. 야막리에 고실(골짜기)이 어딨어.

수월암1리는 당제를 안 지냈어요?
우리도 위(뒷산)에 당이 있었지. 그런데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돼서 안 지내게 된 거여.

당산나무는 무슨 나무였어요. 회나무예요 뭐예요?
몰라요.

당제사는?
그거 안 지낸지가 10년은 됐나.

언제 지냈는데요?
10월(음력)에.

당제사 지낼 때는 돼지잡았어요 소잡았어요?
그렇게 크게 안 해요.

돼지머리 갔다가?
여기는 제사음식은 특별하지 않고 그릇만 매년 사요. 바께스(양동이), 떡 찌는 솥 이런 거. 적하고 떡하고.

떡은?
떡은 백설기를 하고,

술은요?
술은 약주.

과일은?
과일도 안 올리고.

참 특이하네요. 장(場)은 오산장을 많이 봤죠?
지금은 송탄장을 봐. 버스가 거기에서 댕기니가. 오산장을 보려면 택시 타고 가야허니께 어렵지.

버스다니기 전에는 오산장을 봤네요. 오산장은 며칠 장이예요?

3일, 8일 장인디 주로 쌀 세 말을 이고 갔지.

오산장에 갈 때는 어떻게 걸어갔어요?
그냥 걸었지.

어디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기는 둑방 따라서 걸었지. 옛날에는 논둑으로 갔는디 둑방 생기고나서는 둑방길로 걸어다녔지.

오산까지는 얼마나되요. 10리쯤 되요?
3km.

멀지는 안네요. 그럼 송탄장은 버스 들어오고 나서 다니시기 시작한 거네요. 요즘에는 장에 잘 안 나가죠?
뭐 필요한 거나 있어야 가지.

주변에서는 오산장이 크지 않았어요?
오산장은 커서 우리가 댕기기가 힘들어. 여기서 뭐 하나 사면 저기로 가야하고. 그런데 송탄은 장이 조그마하니까 편하지. 버스정류장도 두 군데나 있고 가깝잖아.

지금은 송탄장을 많이 이용하는군요?
옛날에는 소 팔러도 오산장으로 많이 갔지. 오산 우장터라고 저 위에 있었지.

학교는 서탄초등학교에 다녔나요?
여기는 서탄으로 다니지.

서탄까지는 몇 리예요. 10리쯤 되나요?
오산보다는 조금 가까워.

생각보다 가깝네요. 중고등학교는 오산으로 많이 가나요?
여기는 진위로 가지. 행정구역이 그렇게 가라고 되어 있는 걸 어떡해.

자녀는 몇을 두셨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이여.

아드님 한 분은 잃으셨다면서요?
딸 하나 있고 그게 큰아들인데 오산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 나쁜 놈들한테 맞아 죽었어.

맞아서요?

어떻게 많이 때리지도 않았다는데... 40년 되었어. 지금 살았으면 59세야. 지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몸이 달아 죽겠는데... 그러다가 나이가 43살 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며느리는 대학원까지 나왔어.

며느리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돈만 자꾸 써, 일은 잘 안하고.



2023년 수월암1리 전경과 주변 경작지

아드님은 직장 다니세요?

직장도 아니고 저기 내 건너 야막리 근처에 논이 3천 평 조금 못 되게 있어. 두 배미쯤 되는데 그거에다가 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무렵에 결국 하우스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 맘대로 하라고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힘드니까 남주고 저거를 냈어요,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군요?

부동산을 하면서 저기 가서 일해. RPC라고 하나, 농수산물집하장. 거기서 뭐 배달도 조금 해주고.... 어쨌든.

어쨌든 열심히 사시네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배운 거니까, 애들도 세 살... 딸 둘을 낳고 안 낳아. 그러니 내가 몸이 닳잖아유. 우리 때만 해도 남의 집에 시집을 가면 손을 이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우리 집 2층에 살 때인데 나는 아래층에 살고. 며느리가 친정에 친척 잔치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고모가요 너도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잖니’ 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요’ 라고 그랬데. 그런 소리를 하기에 내가 받아가지고 그랬지. ‘나도 손자 하나 보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돈을 몇 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애를 낳았지 뭐여. 손자 하나를 낳았어.

그래도 아깝지는 않죠?

그려. 우리나라는 불법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합법이라는데 내가 뭘 알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거로 돈이 4, 5천만 원 들었나봐.

그래도 손주 낳아준 것이 어디예요?

그렇게 낳았는데 그걸 영어학교에 넣은 거여. 영어학교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여.

아마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된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낳고 들어왔나 봐요?

그 소리는 못 들었는데.

손주 나이가 몇 살이예요?

지금 5살이여.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 내가 그 애들 클 때까지는 살 수 없지만.

수월암1리 사람들은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에 댕기다가 지금은 못 댕기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집이다가 지금은 한 집인가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또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고,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

절은 많이 다니고, 교회는 한 집이고, 원불교도 다니고?

여기 옆집은 '남묘호랑개교'라나 뭐라나 거기를 다니고.

특이한 경우네요?

그건 종교도 아닌가봐.

아뇨, 일본 불교계통이예요?

그런가, 그 사람들 일본 아베수상 어쩌고 그러고. 아침 식전부터 뭐라고 주문을 외면 1시간이나 넘게 하더라고.

남묘호랑개교가 몇 집이나 되요?

한 집여 한집.

원불교도 한 집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요?

오산. 남묘호랑개교도 오산으로 다니고.

절은 어디로 다녀요?

그전에는 절에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절에 댕기는 사람도 없나봐. 나는 저기 다녔거든. 불법사라고, 여기 송탄소방서 옆으로 쭉 나가면 거기에 있는데.

불법사는 처음 듣는데요?
송탄소방서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동령사를 말하나요?
그거 말고 불법사라고 있었어요. 둘이 다녔는데 한 사람은 죽고.

여기 말고는?
여기 말고는 안성으로 다니더니 이제는 안 다니더라고.

교회는 어디로 다녀요?
하북에 있는 하북교회. 오산으로 다니더니 하북장로교회로 나가더라고.

어르신은 제사도 많이 지냈겠네요?
아녀, 큰 집이 있어서.

큰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는 지내지. 아까 회관에 왔던 젊은 여자 있잖아, 그 사람이 큰 집 며느리야. 제사는 안 지냈는데 명절날만 되면 떡 하느라고 고생했지.

명절에 떡은 몇 가지를 했어요?
뭐 부침개도 많이 하고 두부도 해야지, 엿 고아야지.

엿 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은 시어머니가 많이 했어. 나중에는 내가 했지만. 겨울에는 찹쌀가루 빻아서 부쳐가지고 부꾸미라고 그걸 종일 불 때가며 그걸 부치고.

이 동네도 부꾸미 해 먹어요?
먹어유. 추석에는 송편을 한 말씩 한다고 새벽 1시까지 앉아서 만들고.

한 말이면 많은 양은 아닌데?
송편 한말하고 시루에다가 콩 섞에서 찌는 것 또 한 말.

콩떡은 당연히 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술도 많이 담궜어요?
술 많이 담궜지. 우리 집에 술항아리가 세 개씩이나 있었어. 술 조사하러 나오면 벌벌 떨고.

옛날에는 밀주단속을 했었죠?
지금은 그런 거 단속 안하잖아. 옛날에는 양식이 귀한데 술 담궈 먹는다고 조사하고.

식량 자급자족이 목표니까 강제로 못하게 한 거죠. 술은 어떻게 담궈야 맛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쌀은 어떤 걸 써요?
그냥 집에서 밥해 먹는 쌀이지 뭐.

좋은 쌀로 담궈야 술이 맛있잖아요?
덜 좋은 쌀로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묵은 쌀이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엿 고지, 떡 해야지, 술 담그지 하다 보면 모자랐는데 지금은 쓸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엊그제는 찹쌀을 샀어요. 섞어 먹으려고.

옛날에는 멥쌀하고 찹쌀을 섞어서 술 담궜어요?
멥쌀을 시루에다가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동안 담가야 해요. 저녁에 담궈서 아침에 하면 되지. 이제 그걸 쪄서 술약(이스트) 그거를 사다가 비벼. 이스트를 뿌려 놓고 비벼 아랫목에다가 재우면 찹쌀처럼 뽀얗게 되요. 그렇게 해서 술이 되면은 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걸리가 좀 많이 나와. 그걸 자루째 넣어요. 그냥 자루째 넣으면 빨간 술이 돼.

누룩은 쌀 한 말이면 얼마나 섞어야 돼요?
두 되박. 두 되나 한 되나 되는대로 넣는 거여.

누룩은 많이 넣어야 좋아요 적게 넣어야 좋아요?
그거야 많이 넣는 게 좋지. 그래서 깨끗한 자루에다 담아 놨잖아. 뽀얗게 된 거를 약을 넣어서 자루에다 담아.

누룩을 섞어서 자루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누룩을 할 때 약칠해 갖고 자루에 넣고 아랫목 뜨듯한 곳에 놓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자루에 넣어둔 것을 꺼내서 이스트하고 섞어서 물항아리에다 넣어 놓으면, 그것 헛간 같은 데다 묻어 두어도 괜찮치. 그렇게 한 일주일이 되면 익어요. 그걸 뒀다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헛간에다가 놔야 하겠네요. 헛간에 일주일쯤 놓으면 술이 익는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추울 때는 거기다 놓으면 안되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다 익은 술항아리를 걸러내지 않고 그냥 떠먹던데 그래도 되나요. 줄어들면 다시 물을 붓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하루종일 일하시다가 참 먹을 때가 되면 집안에 들어와서 술 한 사발을 드리면 그걸 잡수고 다시 나가서 일하고 그랬지.

한마디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술이 에너지원이네요. 술이 익으면 용수를 박아서 약주부터 떠내기도 하나요?

자루에다 넣으면 그냥 떠다가 먹어도 돼요.

약주를 걸러내려면?

그냥 가라앉아. 그러면 위에 뜬 말간 술이 약주지 뭐여. 나중에 거의 다 떠먹었으면 자루에다가 물 좀 붓고 걸러내면 막걸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주 떠먹고 나머지를 물 부어서 걸러내는 게 막걸리란 말이네요?

물은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 조금만 부어가지고 짜서 받쳐먹으면 되지.

여 백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

서탄면 회화리 마을조사



장연환

여 백

Ⅴ. 서탄면 회화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

1) 자연환경



서탄면 회화리 위치

회화리는 진위천 북쪽 들판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금암리와 적봉리를 접하고 북쪽으로 이어지는 들판은 마두리와 공유하고 있다. 서쪽 황구지천 건너로는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가 있다. 진위천 건너 남쪽으로는 K-55 미공군기지이다. 회화리는 단일 마을로 1891년『진위읍지』지도에 회화정(檜花停)이란 지명으로 등장하는데, 차경환(남, 1941년생)은 밀양 박씨가 처음으로 정착하고, 이어서 연안 차씨가 들어왔다고 했다. 마을의 시작은 대략 3백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회화리 자연 마을은 해정들의 남쪽 끝이자 진위천변에 형성되었다. 회화리 앞 진위천에는 ‘없는 물고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어종이 다양했고, 마을 앞으로는 백사장이 발달했다. 진위천 남쪽 들판에 미공군기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유지됐던 야리나 신야리 같은 마을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다. 현재는 진위천 제방으로 2차선 도로가 지나갈 정도로 치수(治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오산천과 진위천, 황구지천의 범람이 잦았다. 낮은 들판을 지나는 큰 하천들이어서 큰 비가 내릴 때면 유로가 바뀌는 일이 잦았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하천의 중간을 경계로 삼아 하천 건너 장등리나 적봉리와 구분 지었는데, 회화리의 남쪽 경계가 지금의 진위천 모습보다 훨씬 구불구불한 모습이다. 가령 진위천은 적봉리 북쪽 금암리와 경계를 이루며, 적봉리와 회화리의 경계로 하천이 지나갔다. 예전에 하천이었던 자리는 두 마을 사이로 흐르는 배수로가 있고, 배수장과 배수장 남쪽 연못 형태의 낚시터에서 옛 진위천 물줄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1922년 지도의 회화리와 진위천



현재의 회화리와 진위천

차경환은 아산만에 방조제가 조성되기 전에는 회화리 마을에서 1km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지점은 하천을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오는 물이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마주치며 멈추는 곳이었다. K-55 미군기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회화리에 300m의 백사장이 2km 가량 이어졌다. 진위천의 물이 맑고 모래사장이 넓고 좋아서 회화리 사람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다섯 살만 되면 헤엄을 칠 수 있었다. 여름이면 맨날 냇갈에서 놀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모래 바탕에서 씨름하면서 아무리 뒹굴어도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모기가 많았던 여름밤에 백사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모기가 없어서 밤이면 백사장에서 자는 사람도 많았다. 차경환은 어렸을 때는 진위천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식수로도 썼고 김장 배추도 냇갈에서 씻었다. 진위천과 모래사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도중에 그는 몇 번이나 "(회화리가)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렇게 맑았던 하천과 하얗고 좋았던 모래가 있는 좋은 환경이 비행장 시설이 들어서고 제방이 쌓이면서 망가졌다고 한탄했다.



1963년 회화리[사진출처: 평택문화원]



1963년 회화리[사진출처: 평택문화원]

넓게 펼쳐진 모래가 처음에는 미군기지 조성에 쓰였고, 1972년부터 199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평택군청 허가를 받은 건축업자들이 퍼갔다. 업자들은 허가 낸 양보다 훨씬 많은 모래를 채취했다. 가령 허가 낸 범위가 3천 평이면 5천 평에 걸쳐 작업을 하는 식이었다. 업자들의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차경환은 평택군청에 가서 강하게 항의도 해봤지만 막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회화리의 넓

은 모래사장은 사라져갔다. 차경환은 옛날 모래사장이 그대로 존치되었다면 굉장한 관광자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위천이 만든 환경이 넓은 모래사장과 맑은 물만은 아니었다. 여름 장마 때면 불어난 하천물로 물 피난도 많이 갔다. 물 피난처는 주로 서탄초등학교였다. 1960년대 초반 경기도에서 제방을 축조한 후로는 물피난이 뜸해졌다. 차경환은 1958년에 제방을 쌓기 시작해서 3년 정도 공사가 진행된 뒤 제방이 완공됐다고 기억했다. 골안말 이장을 지냈던 황세연(남, 1934년생)은 20대의 나이에 발파 기술자로 골안말에 와서 북바위를 깨뜨려 안말에서 회화리까지 오산천 제방을 보강하는 일을 했다. 그는 당시 서울 용산에 본사를 둔 협창토건이라는 회사가 정남면 가지내에서 회화리를 거쳐 금암리까지 제방 쌓는 공사를 맡았다고 했다. 차경환은 원래 모래사장을 포함한 진위천 양쪽 제방의 폭이 400m 정도 되었는데, 미군부대 비행장이 들어서고 진위천 제방이 축조되면서 300m로 줄었다고 했다. 진위천과 오산천 제방을 크고 견고하게 쌓으면서 구불거리던 하천의 직강공사가 병행되었다. 이로 인해 회화리 있었던 수백년 된 전나무도 사라지고 새로 쌓은 제방 너머에 있는 15가구 정도가 마을 안쪽으로 이주했다. 직강공사로 제방이 마을을 치고 나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제방이 완공되면서 수해는 대폭 줄었다. 차경환은 제방 축조 이후로는 1972년과 1984년 무렵, 두 번의 큰 수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이보철(남, 1947년생)은 “제방이 있었지만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물피난을 갔다.” 고 했다. 이보철과 부부인 차수영(여, 1946년생)이 기억하는 물 피난은 40여 년 전인 1984년 마을이 크게 침수됐던 일이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친척 집이나 서탄초등학교로 피난을 했다. 1984년 수해를 입은 후 진위천 직강공사와 더불어 제방을 보강했다. 이보철은 옛 제방 위로 마차 1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다고 기억했다. 제방 보강으로 1985년 이후로는 큰 수해를 입는 일은 없었다.



진위천을 만나 회화리 남쪽으로 흐르는 오산천

차경환은 1972년 장마 때 이틀 사이에 54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기억했다. 이때 마을 서쪽 방수문(防水門)이 터지면서 약 70m가량의 제방이 유실되었고, 제방 기준으로 3km 정도나 침수되었다. 이때 해정들이 400정보, 내천 지구가 300정보 해서 모두 700정보의 들판이 피해를 입었다. 들판 뿐 아니라 마을까지 침수되어 차경환 주택 앞마당까지 물이 차올랐다. 수해로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이듬해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1973년 33세의 나이로 이장을 맡은 차경환은 평택군청 건설과에 찾아갔으나 "예산이 없다."는 변명만 듣자 경기도청으로 올라가서 제방 복구 계획을 문의했다. 그래서 치수과장을 면담했는데, 치수과장이 1960년대 초 진위천 제방을 쌓을 때 측량 담당자로 회화리에 왔던 인물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차경환과 마을 친구들이 제방 공사 콘크리트 타설에 쓰는 합판으로 탁구대를 만들어 함께 탁구 치면서 놀았던 사람이었다. 회화리 이장인 그가 그간에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니까, 듣고서는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서 다음날 '신아일보'에 홍수로 입은 수해 상황을 보도하고 이어서 다른 신문들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그동안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서상린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까지 찾아가 사정을 얘기해도 안 돼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며칠이 안 돼서 제방 복구를 위한 자재를 갖다 놓았다. 이후 3개월 만에 제방은 완벽하게 복구되었다. 장마 전에 복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73년 농사는 무난하게 지었다.

제방 사이의 거리가 300m였는데도 1972년과 1984년 큰 수해를 입었는데, 1988년 전후에는 K-55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하천 쪽으로 제방을 80m를 밀고 나오려 했다. 이러한 사실에 놀란 차경환은 미군부대를 방문하여 시설대장을 면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미군기지 쪽 제방이 회화리 마을 앞 제방보다 1m 낮추는 선에서 결정되었다. 이후 2006년 대정촌으로 이어지는 적봉교가 가설되면서 제방 위로 2차선 도로인 정문회화로가 개설되면서 제방은 더욱 견고해졌고, 오산이나 송탄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도 편리해졌다.

2008년 발행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Ⅲ'에는 일제 강점기 가마골 적봉리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사금을 채취했고, 사금 채취로 일제 말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서술되었다.[1] 이에 대한 질문에 차경환은 "그때 한국 사람들이 관정을 박고서 석유가 나온다고 일본인을 속여먹으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석유 시추를 해봤다는 얘기다. 박흥덕(남, 1935년생)은 사금 채취 때문에 모터를 돌리려고 전기가 들어온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모래를 퍼 올리고 사금을 걸러낸 장면을 어렸을 때 봤다. 하지만 상흥광업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사금은 검은색이었는데, 박흥덕은 일본 사람들이 무기 제조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흥덕은 그 당시 사금 캐는 일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명이 회화리에 살았다고 기억했다. 야리 출신이면서 현재 금암 2리 안말에 거주하는 임광래(남, 1938년생)는 석유와 관련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금 채취하는 장면은 차경환도 봤고, 임광래도 목격했다. 차경환의 기억에 의하면 해방 후에도 6.25 전쟁 전까지 사금 채취가 이루어졌다. 사금 채취가 이루어진 곳은 회화리 마을 동쪽에서부터 현재 회화리 교회 앞까지의 진위천 변이었다. 땅에 나무 말뚝을 세우고 비스듬하게 광목을 쳐놓은 다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광목 위로 모래와 물을 번갈아 끼얹으면 사금은 광목에 붙고 모래만 흘러내렸다. 사금 채취하는 인원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사금을 채취했다고 전해지는 일본인 회사 '소림광업사'에 대해서 물으니, 차경환은 "회사 이름은 잘 모르지만, 소림광업사라는 회사 이름은 들어본 기억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제방을 쌓으면서 하천변의 흙을 긁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사금'이 발견되었다.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땅을 파고 많은 양을 묻어 놓았던 것이다. 그가 보았던 사금은 황금색이 아니라 거무스름하며 네모진 것 같은 모양으로 광(光)이 났다. 그는 "이게 그 무슨 광케이블인가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그랴"라며 황금(黃金)이 아니라고 했다. 안말 임광래도 야리에 거주했을 때

1)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429쪽.

봤던 광물 채취 장면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는 사금이 아니고 철이라고 했다. 야리에 살던 시절 비가 내려 빗물이 흙길 위를 쓸고 가면 길바닥에 쇳가루가 쫙 깔려 있었다. 일본인들은 나무로 삼발이를 하고 융을 미끄럼틀처럼 깔아놓은 다음 그 위에 하천에서 퍼 온 모래를 수북하게 쌓았다. 오줌 바가지로 물을 퍼서 모래 위로 끼얹으면 모래만 흘러내리고 쇳가루는 융 위에 붙어 있었다. 쇳가루가 어느 정도 모이면 천을 털어서 모았다. 그의 집 행랑채에 광업사 직원이 기거했다가 해방 후에 떠났고, 6.25 전쟁 때 부친의 지인이 일본인이 기거했던 행랑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임광래도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장난삼아 철장(鐵杖)으로 땅을 쿵쿵 찍으면서 장난하다가 일본인이 땅에 묻어놓은 쇳가루 더미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터 밑에 쇳가루가 묻혀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광래는 석유 시추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한편, 회화교회 교인이었던 차금봉은 타계하기 전 초기 회화교회에 대한 기록을 친필로 남겼는데, 여기에는 ‘쇳가루’라고 했다. 즉, 1943년 일제가 쇳가루를 채취하기 위해 모집한 인부들의 주거 장소로 회화교회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기록은 진위천에서 채취한 광물이 전쟁물자 생산에 긴요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진위천에서 채취한 광물이 금(金)이 아니었다는 기억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진위천 광물 채취 장소



회화리와 적봉리 사이 옛 진위천 흔적

회화리는 미공군기지와는 진위천을 경계로 마주 보고 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비행기 소음이 크다 보니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그래서 회화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외지 사람들은 “왜 싸우느냐?”고 묻곤 한다. 얘기하는 사람끼리 목청을 높였기 때문이다. 회화리 사람들이 조용조용 얘기한다고 해도 옆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란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회화리 사람들이 70년을 그러한 소음 속에서 살아왔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소음 피해 보상으로 이중 유리창을 무료로 해준 것을 가리키며 “그깟 유리창 겹으로 꼈다고 소리 안 들립니까?”라면서 유리창이 이중이라도 비행기 소리는 여전히 크게 들려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우완숙(여, 1945년생)은 “전투기 소음이 너무 커서 여름에 무더위가 찾아와도 집안의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집단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불만이 높다.

2) 성씨

회화리는 예로부터 100여 가구가 훨씬 넘는 큰 마을인데, 차경환(남, 1941년생)은 6.25 전쟁 직후에는 138가구가 거주했다고 기억했다. 현재 회화리 노인회장인 박흥락(남, 1946년생)에 의하면 현재 회화리에 30여 개 성씨가 살고 있다. 마을이 큰 만큼 성씨도 다양하지만, 밀양 박씨와 연안 차씨 강열공파가 대성을 이룬다. 차경환은 300여 년 전 밀양 박씨가 먼저 입향하고 차씨는 그 다음에 들어온 것으로 말했다.

회화리에 거주하는 차씨는 모두가 연안 차씨 강열공파지만 같은 집안 내에 두 계열이 있다. 두 집안은 회화리로 들어온 시기가 서로 달랐다. 먼저 들어온 마을 이장 차태영 집안은 금암 2리 안말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금암 2리 차종화(남, 1937년생)는 금암리 차씨와 회화리 차씨가 같은 집안이라고 했다. 지금도 이 집안의 묘역이 서탄면행정복지센터 북쪽 사면에 있고, 그 주변으로 종중 땅도 상당한 넓이였다. 묘역의 가장 북쪽에 입향조 차해영(車海永) 묘가 있다. 차해영 이후 17~8대를 내려오고 있어, 안말의 차상석(남, 1957년생)은 차씨의 금암리 입향을 500년으로 잡았다. 안말에서 살던 차씨가 300여 년 전후 회화리 쪽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반면에 차경환 집안은 차태영 이장 집안과 같은 연안 차씨 강열공파지만 향남면 상신리에 살다가 7~8대조가 회화리로 이주했다. 차경환은 젊었던 시기에 연안 차씨 강열공파는 대략 25가구 정도 거주했지만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외지로 많이 떠나고 현재는 8가구가 살고 있다.



금암2리 안말에 있는 연안 차씨 묘역

밀양 박씨 판서공파 17세손인 박흥덕(남, 1935년생)은 차씨에 앞서 박씨가 회화리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흥덕은 어렸을 때는 밀양 박씨가 20여 가구가 살았던 것으로 기억했고, 같은 집안인 박흥락(남, 1946년생)은 14가구라고 말했다. 박흥덕에 의하면 특별히 종중 같은 조직은 없었고, 종가집을 중심으로 제사나 차례를 지낸 정도였다. 박씨들의 선산은 수월암 1리 82번지에 3천 여 평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수월암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선산의 묘들을 지난 2022년 모두 정리하여 화장했다. 지금 회화리에 밀양 박씨는 6가구가 살고 있다.



밀양 박씨 집안의 종손 박흥덕 목사 부부



연안 차씨 차경환

회화리에서 차씨와 박씨가 대성을 이루었다고는 전해지지만 전체 가구 수에 비하면 비중이 큰 것은 아니었다. 한편,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해정들(회화리와 금암리 들판) 토지 소유주로 차씨(車氏) 6명, 박씨(朴氏) 4명, 장씨(張氏) 3명, 이씨(李氏) 2명이며, 오·조·송씨가 각각 1명이다. 회화리 노인회장인 박흥락은 현재 마을에 실거주하는 78가구의 성씨가 30여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3) 인구의 변화

조선 후기에 형성된 회화리에 대한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만큼 이 시기 회화리의 인구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회화리 인구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1959년에 작성된 「지역별 지명조사철」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회화리에 141호(戶) 817명이 살았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마을이었다. 야리 출신인 진병호(남, 1944년생)는 야리가 회화리보다 큰 마을이라고 했는데, 「지역별 지명조사철」이 작성될 시기에 야리가 이미 미군기지에 수용되어 인구통계가 누락 되었다. 당시 회화리의 인구를 주변 마을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회화리	골안말	안말	새말	신야리	황구지	원장등	원적봉	상금각	농소리
호수	141	40	74	45	20	34	68	151	43	24
인구	817	247	454	244	109	247	367	855	295	145

마을 이장과 이동협동조합장 등 마을 일에 많이 관여했던 차경환(남, 1941년생)은 6.25 후에 138호가 거주했다고 기억했다. 또한 진병호가 마을 이장을 맡아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던 1976년에는 123호가 거주했다. 진병호는 회화리가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 촌락을 이룬 마을이라고 했으나, 마을 호수(戶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인구 변화는 아래와 같다.

1960~1980년대의 인구 변화[2)]

연도	호수(戶數)/세대수			인 구 수			서탄면 합계		비고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기준일)
1963	117	19	136	433	425	868	1,404	8,407	1963.12.31.
1971	132	3	135	378	362	740	1,311	7,699	1971.12.31
1976	117	13	130	340	337	677	1,342	7,212	1976.10.01
1980	121	7	128	290	317	607	1,383	6,935	1980.01.31
1984	100	26	126	266	288	554	1,427	6,690	1984.10.01
1986	99	20	119	242	263	505	1,456	6,628	1986.11.01

1986은 1963년에 비해 호수가 12.5%가 줄었고, 인구는 40.82% 줄었다. 호수에 비해 인구 감소가 많은 것은 젊은 층이 외지로 이주한 결과 가구당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서탄면 전체로는 호수가 3.70% 늘었고, 인구는 21.16%가 줄었다. 서탄면 전체에 비해 회화리의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마을이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고, 교통상으로도 접근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인구 변화[3)]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서탄면 합계		비 고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기준일)
2003	101	141	142	283	1,675	4,499	12월 31일
2006	115	145	152	298	1,762	4,362	12월 31일
2010	124	146	148	294	1,778	4,007	12월 31일
2015	118	124	134	258	1,944	4,161	12월 31일
2020	121	110	113	223	1,965	3,683	12월 31일
2023	133	118	117	235	1,973	3,602	8월 16일

2023년의 인구통계를 보면 호수로는 1963년의 136호에 비해 몇 가구가 부족하지만 1960년대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하지만 인구수에서는 1963년 868명의 27.07%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1963년 6.38명에서 2023년 1.77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2023년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회화리에 133세대가 있지만, 회화리 노인회장인 박흥락(남, 1946년생)은 78가구 거주한다고 말했다.

4) 교통의 변화

조선 후기에 작성된 지도에 표시된 길은 대로(大路) 중심이어서 회화리의 교통로를 파악하기 어렵다. 회화리의 경우 마을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금암리를 거쳐 오산 쪽으로 이어지는 마을 어귀는 '서울나들이', 양감면 정문리로 가는 서쪽은 '정문백이'였다.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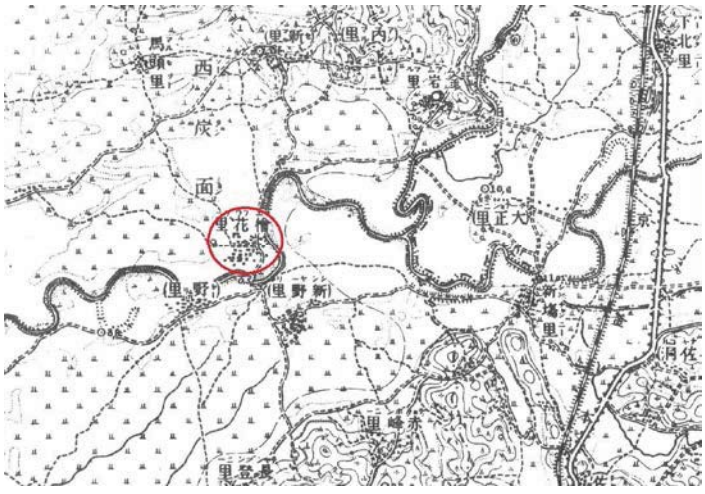
2) 『평택군통계연보』 참조
3) 서탄면사무소 제공 자료

위천을 거슬러 소금과 어물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은 ‘소금나들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 남쪽 진위천은 배로 건넜기 때문에 마을과 진위천이 만나는 곳에 뱃터가 있었다.



회화리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과 관련된 지명

1914년에 측량하고 1922년에 인쇄된 지도에 회화리의 교통로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것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 신작로를 제외한 근대 교통로 개설 이전의 지도여서 전근대 시기 교통로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래의 1922년 지도에도 금암리로 이어지는 길과 양감면 정문리로 이어지는 길이 각각 표현되어 있다.



1922년 지도의 회화리와 주변 교통로



1929년 지도의 교통로

1922년 지도에 보이는 회화리 주변 교통로는 지도에 ‘신장리(新場里)’로 표시된 지금의 신장동의 구장터가 중심이다. 조선 후기 이곳에 5일장이 열렸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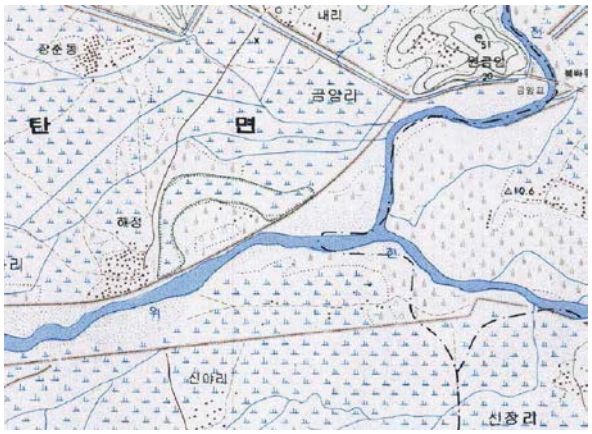
다. 신장리는 19세기 말 시장이 열렸고, 진위천을 따라 배가 들어오는 나루가 있었다.[4] 1922년 지도상으로는 신장리에서 금암리, 마두리, 적봉리, 장등리, 진위면 하북리 등으로 방사형 교통로가 있다. 이것은 신장동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열리는 시장을 이용한 사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신장동 구장터는 폐장된지 오래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승된 내용은 '나루와 장터가 있었다'는 사실 뿐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 개설되자 신장리의 장이 폐쇄되고 서정리 장이 열리자 회화리 사람들은 서정리 장을 이용했다. 차경환(남, 1941년생)은 "해정들 위 금암리나 내천리 사람들은 오산장으로 다녔고, 회화리는 서정리 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소를 거래하는 우시장을 출입할 때는 오산장으로 갔다. 서정리 장으로 가는 코스는 1929년 지도에 표시되었는데, 서정리장은 회화리-야리-장등리-금각2리(농소리)-고덕면 문곡리 황조곡-서정리역 코스를 이용했다. 이 길은 회화리 사람들이 서정리역을 다니는 코스이기도 했다.

골안말에 있던 서탄면사무소가 1927년 안말로 이전되고 1930년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하자 금암 2리 안말과 회화리의 통행량도 늘어났다. 이보철(남, 1947년생)은 금암리로 이어지는 길이 마차 한 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이였으며 구불구불했다고 말했다. 이 길은 1972년 농지정리와 새마을 사업으로 넓게 확장되었다. 새마을 사업이 진행될 때 회화리 부녀회에서는 길도 넓히고 꽃을 심는 사업에 참여했다. 이 길은 서탄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면사무소에 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고, 오산장에 다니는 길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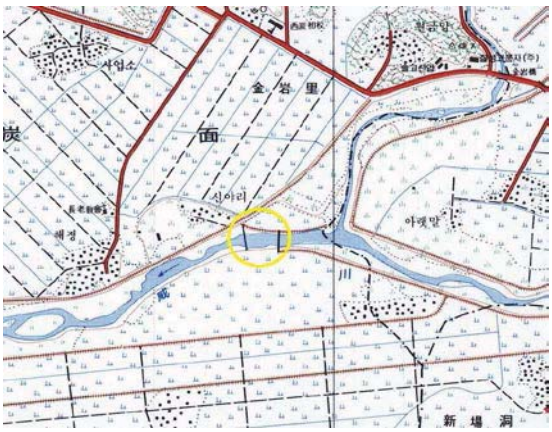
남쪽 진위천으로는 나무 말뚝을 하천 바닥에 박아 교각을 설치하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무다리를 놨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천 바닥에 나무 말뚝을 박아 교각을 만들고 그 위로 나무를 걸치고 거적때기에 흙을 담아서 깔았다. 회화리는 산이 없어서 굵은 나무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금암리 산에 가서 베어 오곤 했다. 이 다리는 예전에 서정리 장을 다니거나 진위천 남쪽 들판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건너다녔다. 미공군기지가 들어선 이후로는 송탄장을 오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나무다리는 여름 홍수에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다리가 떠내려 가고 없으면 배로 건너다녔다. 배로는 신야리 쪽으로 건너다녔다. 뱃터는 마을 남쪽에 두었다가 나중에는 회화교회 앞쪽으로 옮겼다. 뱃사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름에 보리 1말, 가을에 벼 1말을 받았다. 외부인의 경우는 현금을 받았다. 배를 부렸던 사람은 여럿이었다. 차경환이 기억하기로는 상여 나갈 때 선소리를 잘했던 홍촌성이 배를 부리다가 연로하게 되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이○○이 이어받았다. 그 후 다시 박준옥으로 바뀌었는데, 1960년대 초반 제방이 완공되면서 배를 댈 곳이 없어지고 하천 수심이 얕아지면서 더 이상 배를 운영하지 않았다.

배가 없어진 이후로는 나무다리만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건넜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새마을 사업 할 무렵에 금암리 안말 뒤에 가서 굵은 나무를 몰래 베다가 다리 놓았던 경험을 얘기했다. 진병호의 부인 우완숙(여, 1945년생)은 다리가 유실되고 없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는데도 그냥 건너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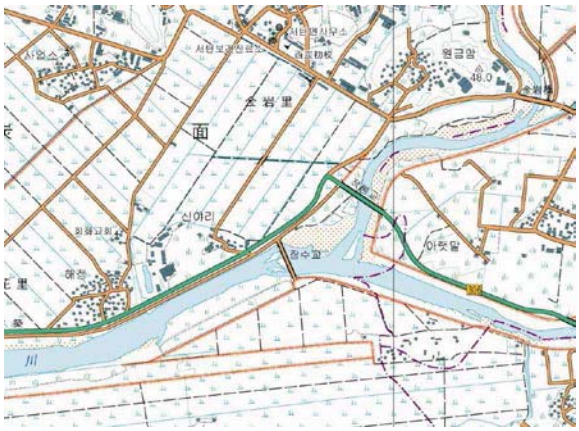
4)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Ⅰ, 평택문화원, 2005, 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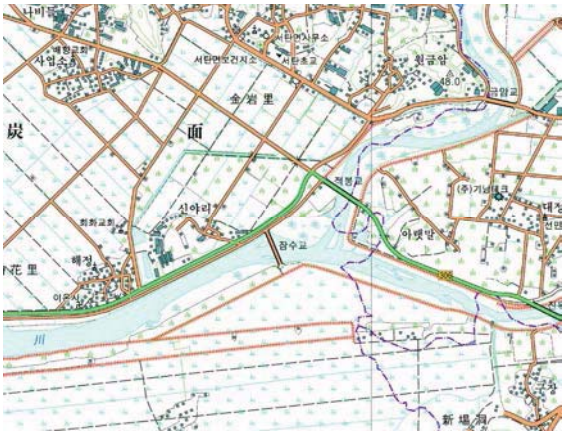
1969년 회화리 교통로



1992년 지도의 회화길 포장, 진위천 다리



2007년 지도의 교통로_적봉교와 잠수교



2007년 지도의 교통로_서탄1로 개설

오산천과 진위천 직강공사와 더불어 제방이 새로 조성되면서 제방 위로 마차길 정도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1969년 지도에는 지금의 적봉리 둘레로 옛 하천의 흔적이 보이며, 금암1리 골안말까지 이어지는 제방 위로 난 길이 보인다. 1952년 남쪽으로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오산천 제방이 조성되면서 회화리의 교통 여건이 변하게 되었다. 서정리 장길도 구장터-목천동-신장동-서정동 코스로 바뀌고, 송북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신장동에 채소나 반찬을 팔러 나가는 사람도 이 길을 이용했다. 멀리 타지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오산천 제방길을 따라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걸었다. 장용재(남, 1954년생)는 제방둑을 타고 금암교를 거쳐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나가서 국도 1호선을 타고 효명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당시 제방둑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았다고 기억했다. 외지로 나가려 해도 오산천 제방둑 위를 걸어서 금암교를 지나 하북리에 있는 서탄입구 삼거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탔다. 대개 1시간 가량 걸렸다. 결혼식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송탄에 있는 택시를 이용했다. 차경환(남, 1941년생)은 26세에 결혼식을 올리려 처가가 있는 양감면 대양리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전세냈다. 당시 송탄에는 시발택시 3대가 있었다. 진병호(남, 1944년생), 우완숙(여, 1945년생) 부부 역시 송탄의 한성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회화리 집으로 택시 타고 들어왔다.

회화리에 처음으로 버스가 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외지를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우완숙은 1968년생인 큰아들이 중학교 졸업 직후에 협진여객 버스가 들어왔다고 기억했으

니, 회화리에 버스가 들어온 것은 1983년 전후가 된다. 우완숙은 처음 버스가 들어왔을 때 송탄까지 버스비는 50원이었다고 했다.

1992년 지도에는 적봉리 동쪽에서 진위천을 건너는 다리가 보인다. 이 다리는 송북장을 오가는 사람들이나 송탄쪽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통학로였다. 회화리의 교통로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06년 적봉교의 개설과 관련이 깊다. 적봉교가 놓이면서 정문회화로가 2차선 도로 확·포장되어 회화리의 교통 편의성은 현저하게 높아졌다. 2010년 전후에는 해정들에 서탄1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교통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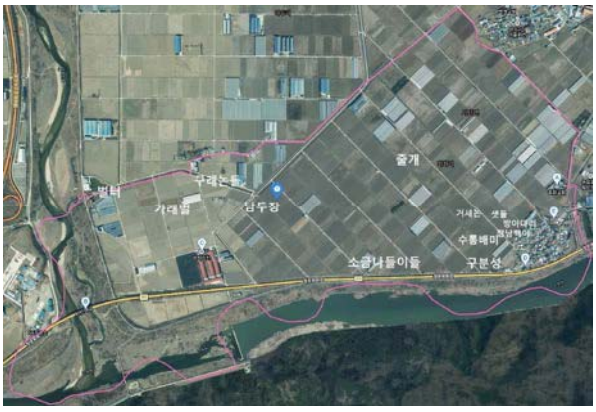
적봉교에서 회화리로 이어지는 도로


회화리 남쪽 제방의 2차선 도로(정문회화로)

5) 지명



회화리 마을 지명



회화리 들판 지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자연 마을	해정이	회화리의 옛 지명으로 '홰쟁이', '해쟁이' 또는 '수풀홰쟁이'로도 불린다. 1755년 문헌에는 '회화정(檜花亭)'으로 기록되었고, 1891년 진위현 지도에는 '회화정(檜花停)'으로 표기되었다. 1911년『조선지지자료』에는 '회화정리(檜花停里)'로 표기되었다.
	당뒤	회화리 동북쪽 마을 입구에서 회화교회 쪽 길가에 있으며, 예전에 마을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당나무 뒤편이다. 이곳에는 아름드리 기롱나무 30여 그루가 빼곡하게 있었다. 마을 당목도 기롱나무였다고 한다. 직강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 뒤 동편으로 진위천이 흘렀는데, 수해 방지를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기롱나무 숲이 없어졌다.
하천	진위천	금암리 남쪽에서 오산천이 합류되어 회화리 남쪽을 흐르며, 하천 남쪽으로 미공군기지가 있다. 진위천 제방 위로 정문회화로가 지난다.
	뱃터	마을 남쪽에 있으며 진위천을 건너는 배를 탔던 장소이다.
들	해정들	회화리와 금암리 사이의 넓은 들판을 통칭하는 지명이다. 아래에 서술된 들판은 모두 해정들 내의 작은 들판의 이름이다.
	구분성	해정들 내에 있는 작은 지명으로 마을 서쪽 끝 진위천 바로 북쪽 들판이다. 구분성은 ‘굽은성’의 발음이 바뀐 말이다. 직강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해 방지를 위해 쌓은 제방이 굽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통배미	구분성 북쪽의 들판명이다.
	샛들	마을 서북쪽, 수통배미 북쪽에 있다.
	방아다리	샛들 동남쪽, 마을 옆에 있는 들판 이름이다.
	거새논들	샛들 서쪽 들판명이다.
	줄개	금암리 창덕골에서부터 해정들을 가로질러 벌터 있는 곳으로 낮고 길게 이어졌다. 줄개가 낮고 양쪽 지형이 높아서 장마가 지면 금암리 창덕골에서부터 줄개 양쪽의 빗물이 줄개로 모여 벌터 남쪽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도랑은 아니고 논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장마가 져서 침수되면 벼알이 썩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다. 침수되어 벼이삭이 썩은 것을 ‘대동바지’라고 불렀다.
	남두장	소금나들이 서북쪽에 있다.
	구래논들	남두장 서북쪽에 있는 들판명이다. 이 들판으로 배수로가 지난다.
	가래벌	남두장 서쪽 들판명이다.
	벌터	해정들 회화리의 서북쪽 끝 황구지천 동편이다. 옛날에 민가가 몇 채 있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쪽의 회화리 벌터와 북쪽의 마두리 벌터로 나뉜다.
보	회화리보	오산천 남쪽 새보(금암리보)에서 200m 아래에 제방을 쌓아 회화리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새보	회화리보 아래에 조성했으나 농업용수를 제대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도로	서울나들이	마을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목 이름이다. 예전에 오산이나 수원, 서울쪽으로 나갈 때 통과했던 길목이다.
	정문백이	마을 서쪽 길목 이름이다. 예전에 양감면 정문리로 이어지는 길이 지났다.
	소금나들이	마을 서쪽 끝에서 400m 지점이 되는 곳으로 예전에 소금이나 새우젓 배가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들어왔다.
	회화길	송탄농협 서탄지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회화리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이름이다.
	정문회화로	원금암삼거리로부터 진위천 남쪽을 따라가다 회화리와 양감면 정문리를 차례로 지나 양감면 사창리에 이르기까지의 도로명이다.

2. 역사적 환경

1) 행정구역의 변천

진위천을 회화리는 서탄면의 남쪽에 위치하며, 조선 후기 간척과 더불어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수풀이 우거진 황무지로 추정된다. 진위천의 배후습지가 농지로 개간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회화리의 옛 지명인 '수풀홰쟁이'에서 배후습지로 수풀에 둘러싸인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진위천 배후습지가 농지로 개간되기 전에 사람들은 구릉성 산지에 마을을 일구고 살았다. 내천리나 수월암리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부터 회화리 주변에 일정한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전해준다. 수월암리를 중심으로 한 서탄면 일대의 개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발굴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마두리에서 출토된 청동 말모양 허리띠고리나 마두리 출도 유리구슬은 일찍이 독자적 정치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 없다. 평택이 그렇듯이 회화리를 포함한 서탄면 지역은 삼국시대에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영역에 차례로 편입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서탄면을 포함한 평택 북부 지역의 행정 구역 명칭은 진위면 봉남리 또는 견산리를 중심으로 등장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구려가 남하하여 부산현(釜山縣)을 설치했고, 연달부곡(淵達部曲), 금산현(金山縣), 송촌활달(松村活達) 등으로 불렸다. 또한 삼국 통일 후 경덕왕 16년(757) 진위현(振威縣)이 설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천장부곡(川場部曲), 진위현 서쪽 12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진위현의 읍치(邑治)인 지금의 진위면 봉남리를 중심으로 보면 천장부곡은 서탄면 지역에 속하는데, 아마도 금암리와 마두리, 내천리, 수월암리 지역일 것이다. 천장부곡은 조선시대 들어 진위현으로 통합되었고, 진위현 서면으로 편성되었다. 1860년 무렵 편찬된 『여지도서』에 진위현 관내 면리(面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마산면(馬山面), 성북면(城北面), 서면(西面), 탄현면(炭峴面), 송장면(松庄面), 여방면(餘方面), 병파면(丙坡面), 성남면(城南面), 고두면(古頭面), 현내면(縣內面) 등 10개의 면이 있다. 회화리는 신리(新里), 마두리, 내천리, 야막리와 더불어 진위현 서면(西面)에 속했을 것이나, 아직은 회화리를 가리키는 마을명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 정조 때인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서면이 남쪽의 일서면과 북쪽의 이서면으로,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탄현면이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각각 나뉘어져 13개의 면으로 기록되었다. 이때까지 회화리는 언급이 없고, 1891년 『진위현읍지』에 수록된 지도에 '회화정(檜花停)'으로 등장한다. 회화리의 역사를 300년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문헌상의 마을명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1914년 지방 행정구역이 대폭 통폐합되면서 진위군 전체와 양성군 및 수원군의 일부가 진위군으로 편성되었다. 이때 일서면과 이서면, 이탄면, 수원군 율북면에 속했던 황구지리를 합치고, 일서면의 '서

(西)’ 자와 이탄면의 ‘탄(炭)’ 자를 취해서 서탄면으로 편성하였다. 이때 회화리는 진위군 서탄면 회화리가 되었다가, 1938년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되면서 다시 평택군 서탄면 회화리로 바뀌었다. 1995년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가 되었다.

2) 역사적 경험

(1) 3·1 운동[5)]

1919년 3월 9일 현덕면에서 시작된 평택의 만세 시위는 여러 마을로 확산되었다. 3월 11일 진위면 야막리와 봉남리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4월 2일에는 서탄면사무소가 있는 골안말에서 서탄면장 윤기선의 주도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1919년 4월 2일 오전 3시경 서탄면장 윤기선(尹箕善)은 서탄면 면서기 한성수(韓聖洙)에게 명령하여 각 구장들에게 당일 오전 10시까지 주민들을 인솔하여 서탄면사무소 앞에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윤기선은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키라, 만일 불참하면 뒤에 큰 환(患)이 있으리라” 는 격문을 작성하여 각 구장들에게 보냈다.

4월 3일 정오경 서탄면사무소 앞에 400여명의 면민들이 모였다. 여기에서 윤기선 면장은 “세계의 대세로 보면 조선은 독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다 같이 경하할 일이니 복받을 일이다. 이번에 내가 적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으면 면민 전체를 벌주는 일이니 계속 투쟁하라” 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면장 윤기선이 선두에 서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윤교영(尹敎永)과 윤대선(尹大善)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윤교영은 격문을 돌리는 책임을 맡아 열성적으로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윤대선은 윤기선의 연설이 끝난 후 군중에게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왜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는 전부 몰수하고 동시에 왜놈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 고 격려하며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하였다.

4월 10일 금암리 주민 100여 명이 뒷산에 모여 봉화를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회화리에 있는 주재소를 습격하고 만세를 부르며 격렬한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일경이 출동하여 조선독립만세 시위운동에 관하여 수사하자 주민 40여 명이 경찰관을 포위하고 돌을 던지며 폭행하였다. 이에 일경이 발포하여 약간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사리와 수월암리에서 주민들이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자진하여 해산하였다.

차경환은 회화리교회 첫 번 째 장로인 차덕경이 서탄면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차덕경이 사리의 윤씨 성을 가진 인물과 함께 주도했다.” 는 얘기를 부친으로부터 들었다. 만세를 부르러 모인 군중들이 회화리 벌판에서 횃불을 밝히며 “와~” 하고 소리 질렀다가 순사들이 회화리 쪽으로 출동하면 불을 딱 끄고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면 다시 안말 산에서 “와~” 하면서 횃불을 올린다. 회화리 쪽으로 오던 순사들이 방향을 틀어 안말 쪽으로 몰려가면 안말에서는 횃불을 꺼버린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순사들이 왔다갔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차경환은 회화교회가 회화리 사람들이 3.1운동 참여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차덕경이 회화교회 최초의 장로였다면 교인들 사이에 명망을 갖고 있던 그가 교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5) 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 171~172쪽. 참조

(2) 6·25 전쟁

1935년생인 박흥덕(남, 1935년생)은 서탄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았고, 5년 후인 15세에 6.25 전쟁을 겪었다. 전쟁이 일어날 당시 그의 삼촌이 대전경찰청 소속으로 천안 철도경찰대에서 근무했다. 박흥덕은 회화리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천안의 삼촌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부모님은 피난을 멀리 가지 않고 잠깐 옆 동네로 피신했다가 그냥 돌아왔고, 장남인 박흥덕만 피신하라고 해서 혼자서 내려간 것이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차강열 부인 친정이 천안이어서 어린 박흥덕은 차강열 부인 및 처남과 동행했다. 그는 천안에서 2~3일 있다가 대전으로 이동했다. 그의 삼촌이 철도경찰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철도 화물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대전에서 1년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 체류하다 다시 기차를 타고 평택으로 올라왔다.

박흥덕은 서탄초등학교 내에 있는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인물들이 모두 사회주의자들한테 끌려가서 총살당했다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서탄면의 마을 출신들이었다. 인민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연맹이 조직됐다. 박흥덕은 그때 중학생이어서 강제로 학생연맹에 가입되어 청북면 쪽으로 끌려가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을 했다. 작업하던 중에 9.28 수복 소식이 들리자 현장에 있던 인민군들이 모두 빠져나갔다. 인민군들이 달아나자 학생연맹 학생이 모두 귀가하여 그 역시 집으로 돌아왔다.

(3) 수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노력


회화리 안전을 도모한 차경환

진위천변에 있는 회화리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마음을 조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1960년대 경기도에서 제방을 쌓아 수해가 줄어들었다. 제방 조성으로 예전에는 하천의 하천 부지를 포함하여 400m에 이르렀던 하천은 300m 정도로 좁아졌다. 제방 공사가 이루어지자 잦은 수해에서 벗어났지만 1972년과 1984년에 큰 피해를 입었다.

1972년 여름 이틀 사이에 540mm에 이르는 큰 비가 내려 회화리 마을 들판 서쪽의 방수문이 터지면서 하천물이 들판과 마을로 흘러들었다. 제방 길이 기준으로 3km나 되는 들판과 마을이 침수되었다. 큰 피해를 입었데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1973년에 들어섰는데도 제방 복구에 대한 계획은 오리무중이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마을 이장을 맡은 차경환씨는 마을을 대표해서 면사무소와 평택군청 건설과에 찾아갔으나 “예산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서상린씨와 최영희 같은 정치인들도 면담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터진 제방을 다시 쌓지 않으면 모내기를 해도 장마철 침수로 헛농사를 지을 판이었다. 차경환씨는 도청을 찾아가 이러한 마을 사정을 얘기하고 치수과장을 만났다. 치수과장은 1960년대 초 진위천 제방을 쌓을 때 측량기사로 회화리에서 기거하며 당시 고등학생인 차경환 등 마을 청년들과 탁구치며 놀았던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차경환씨는 제방을 쌓지 않으면 서탄지구 400정보, 내천지구 300정보 농경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정을 얘기했다. 그러자 치수과장이 자신의 친구인 신문 기자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신문 기자는 “내일 우리『신아일보』에 기사가 나고, 다음 날은 중앙지에 다 나간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다음날 기사가 나고 이후『조선일보』에도 회화리 제방에 대해 보도되었다. 신문에 보도되자 며칠도 안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약 3개월에 걸쳐 제방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 제방공사 후 회화리 앞 진위천 제방 사이가 300m였는데, 회화리 남쪽 미군기지에서 하천 쪽으로 제방을 80m를 밀어내려는 계획이 있었다. 제방 사이가 300m인 상태로도 1972년과 1984년의 수해를 경험했던 마을에서는 하폭이 좁아지게 되어 침수될 것을 염려했다. 이때도 마을 사람들은 면사무소와 평택군청을 찾았지만 군청에서는 ‘국방부가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러자 카투사 출신으로 미군 부대가 운영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차경환씨는 K-55 비행장에 면담을 신청해서 여자 중령 시설대장과 통역을 사이에 두고 논쟁했다. 시설대장은 하폭이 80m 좁아져도 폭우 700mm까지는 문제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응하여 차경환씨는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맞섰다.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고 귀가했는데, 중앙정보부 경기도 조정관이 방문해 있었다. 다소 놀랐지만 알고 보니 같은 연안 차씨 집안으로 송탄·고덕·서탄 지역의 연안 차씨 강열공파 유사를 맡았던 차경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왔다. 당시 족보 편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일러주려던 목적이었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차경환씨는 족보 편찬 문제와 더불어 회화리 앞 하천 폭이 좁아지는 문제를 얘기했다. 이후 군청에서 건설과장이 나와 “지금 난리 나고, 지금 평택군 죽게 생겼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차경환씨는 “내가 평택 건설과에 한두 번 갔었냐!”고 쏘아붙였다. 그렇게 며칠 동안 경찰서나 평택군청 건설과에서 죄다 나와서 마을이 소란스러웠다. 며칠 후에 국방부로부터 서탄면사무소에서 이 문제로 회의를 열테니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참석 대상은 회화리 대표 2명, 면장, 서탄면 산업계장, 평택군청 건설과장과 치수계장, 오산비행장 시설대장, 군산비행장 시설대장, 성남비행장 시설대장, 국방부 징발과장 등이었다. 회의 자리에서 옛날과는 달리 비행기가 대형화 되었기 때문에 활주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차경환씨는 “주민의 감정이 지금 나쁘니까 이것을 해소하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회화리 쪽이나 비행장 쪽으로도 제방을 좀 더 높이 쌓아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여러 논란 끝에 비행기장 쪽 제방을 회화리 쪽 제방보다 1m 낮추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장 쪽 제방이 낮게 되어 있다. 만약에 진위천이 비행기장 쪽으로 범람하게 되면 황구지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차경환씨는 황구지리 사람들한테 “저희만 살고,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는 원망을 듣기도 했다.

(4) 새마을운동

회화리 출신인 박흥덕(남, 1935년생)은 수원농고를 졸업한 후 군 복무를 마치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던 해인 1960년 8월 14일부로 공무원에 특채 됐다. 농고 출신인 그는 서탄면사무소 산업계 일을 맡은 이후 새마을 운동에 투입되었다. 그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면장, 군수, 도지사 등이 모두 군 출신이었다. 경기도지사는 준장 출신인 박창훈이었고, 평택군수는 소령 출신이었으며, 읍·면장들도 위관급 출신이었다. 공무원인 된 박흥덕은 이후 산업계 공무원으로서 마을길 넓히기, 지붕개량, 변소 개량, 산림녹화 등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 그가 담당한 마을은 내천리, 마두리, 금각리, 장등리 등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담당한 마을로 가서 청소 하기, 퇴비 증산, 마을길 넓히기, 지붕개량

등을 독려했다. 박흥덕은 “그때 박정희가 아무리 독재라고 그랬어도 그거 독재 안 하면 절대 이거 바꾸질 못해요.” 라고 하면서 “마을길 넓히고 했는데, 국가 재정이 있습니까? 가서 ‘이 땅 기증해라’ 그래서 그때…… 그때는 공무원들 말이라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붕개량도 거의 강제로 했다. 스레트로 하려면 정부 융자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집이 있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초가지붕을 뜯어냈다. 그러면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농협 융자를 받아서라도 지붕개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새마을 운동 1순위가 마을 청소와 퇴비 증산이었다고 했다. 그 당시 서탄면에서 새마을 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한 마을을 묻자 ‘사리’ 라고 답했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 회화리 이장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이장을 맡았을 때 마을에는 기와집이 2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초가 지붕은 2년에 한 번은 이엉을 엮어서 교체해야 했다. 진병호가 이장을 맡았을 때 초가 지붕을 모두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했다. 그는 마을 전체 지붕개량에 슬레이트가 3천 몇 백장을 한꺼번에 들여왔다고 했다. 지붕개량하는 데는 목수가 필요했다. 목수는 어디서 데려왔냐는 질문에 그는 “뭐 송탄 인근에 있는 목수, 뭐 망치질 하는 목수라는 건 다 불러서 하는 건데 뭐”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목수들을 많이 불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집마다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붕 개량을 마칠 수 있었다. 목수들의 일당은 지금 기억할 수가 없다고 했다.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던 진병호와 부인 우완순

지붕 개량 다음으로 정부에서 시멘트가 지원되었다. 진병호는 시멘트는 마을마다 똑같이 할당되는 게 아니고 이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만큼 지원된다고 했다. ‘몇 가구 살고 있으니 몇 포’ 하는 식이다. 정부에서 지원된 시멘트로는 우선 하수도 시설을 했다.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진위천에서 모래를 퍼다가 콘크리트를 비벼서 공사를 진행했다. 하수도 시설을 하려면 콘크리트 틀을 버틸수 있게 하기 위한 굵은 통나무가 필요했다. 주변에 산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금암리 산에 가서 베어왔다. 이장인 진병호가 마을 일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경운기를 끌고 서탄면사무소 뒷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온 것이다.

3) 마을의 형성과 변화



회화리 마을 원경

회화리는 해정들이 진위천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회화리라는 지명은 1756년(영조 32)년 간행된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振威縣西面檜花亭伏在內需司屬儲慶宮田畓打量成冊, 이하 ‘저경궁전답타량성책’)’이라는 문헌에 처음 등장한다. 이것은 경기도 서면 회화정(檜花亭)에 있던 저경궁(儲慶宮) 전답이 내수사(內需司)로 이속되면서 1756년 진위현에서 이 토지의 넓이를 헤아려 작성한 내용이다. ‘회화정’이란 지명에도 ‘머무를 정(停)’자가 아닌 ‘정자 정(亭)’자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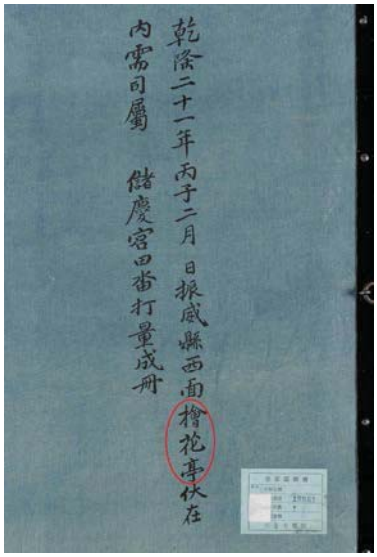
저경궁(儲慶宮)은 선조의 후궁이자 인조의 할머니인 인빈 안씨의 사당이다. 그녀의 독립된 사당이 영조 때 건립되었고 저경궁으로 칭하게 된 것이 1755년이다. 이듬해에 경저궁에 속했던 전답을 내수사로 이속하여 관리하게 한 것이다. 이는 회화리 간척을 궁방에서 주도했음을 말해준다. 회화리 들판(해정들) 간척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1760년 무렵에 편찬된『여지도서』나 1789년의『호구총수』에 마을명이 수록되지 않았던 점이 주목된다. 이로 보아 이 시기 회화정(檜花亭)은 호수(戶數)가 매우 적었거나, 아직 마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회화정’이 길손이나 내수사 관련 인물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정자(亭子) 이름일 수도 있겠다.

‘회화정(檜花亭)’은 1891년에 작성된 진위현지도에서 ‘회화정(檜花停)’이란 지명으로 표기되었고, 지금까지 머무를 정(停)자로 표기하고 있다. 2014년『평택시사』에는 “회화리라는 지명은 마을 앞에 훼화나무 정자가 있어 ‘회화정이’ 또는 ‘회화나무정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화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훼화나무 정자가 있어 ‘홰정이’, ‘회화나무정이’ 등으로 부르다가 소리나는 대로 ‘해정이’ 야리와 구분해 ‘아래해정이’라 불렀다.”고 부연했다. 또한『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Ⅲ에는「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표」의 ‘회화정리(檜花停里)’라는 지명과 ‘마을에 큰 전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화리라는 지명의 유래를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와 연결했다.

위에서 언급한 두 책의 내용은 모두 회화리라는 지명을 모두 ‘큰 회화나무(또는 전나무)’와 연관지어서 그 유래를 유추했다. 그런데『평택시사』의 내용대로 ‘해정이’가 야리이고 ‘아래해정이’가 지금의 회화리를 가리킨다면 회화나무는 야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해정이’와 ‘아래해정

이’ 로 각각 두 마을을 불렀다면, ‘해정이’ 가 지명 유래의 중심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완숙(여, 1945년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원래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수풀 홰쟁이’ 라고 불렀다.” 고 했다. 야리와 회화리는 모두 진위천의 배후습지로 지형이 유사하고 두 마을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을 개척했는데, 토질이 비옥하고 농업용수 확보가 쉬운 야리가 조금 먼저 개척되었기 때문에 ‘해정이’ 라고 부르고, 회화리가 조금 늦게 형성되어서 ‘아래 해정이’ 로 불리지는 않았을까 추정할 수도 있다. 진병호(남, 1944년생) “예전에는 야리가 회화리보다 컸고, 회화리는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촌락을 이룬 곳” 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바닷물이 진위천을 거스르다 멈춘 지점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해정(海停)’ 으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회화리 입구 마을 표석(標石)에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해정(海停)’ 으로 마을명을 새겼다.


乾隆二十一年丙子二月 日振威縣西面檜花亭伏在內需司屬 儲慶宮田畓打量成冊

1756년 문헌의 ‘회화정’



회화리 마을 입구 표석의 ‘해정’

수풀이 우거진 평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수풀에 둘러싸인 형태였고, 수풀위로는 하늘타리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었다. 그래서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다. 마을 서쪽 끝에서 400m 정도 아래로는 양감면 정문리로 통하는 정문백이가 있고, 마을 북쪽으로는 서울나들이가 있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어지고 토박이들 사이에 지명으로만 전해진다. 이 지명을 갖는 지점의 안쪽이 마을이었다고 간주한다면, 마을의 규모는 지명이 생길 때와 지금이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 박씨 참판공파 17대손이며 회화리의 밀양 박씨 종손인 박흥덕(남, 1935년생)은 그의 조상이 300여 년 전에 회화리에 입향했다고 말했다. 밀양 박씨의 입향 시기는 궁방에서 해정들 간척을 시작했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지만 입향 동기는 분명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 박흥덕이 어렸을 때 회화리에 그의 집안이 20여 가구가 살았다. 박씨 집안의 선산은 수월암1리에 있었으나 수월암리가 개발되면서 선산의 묘지를 모두 정리했다. 박씨에 이어 이어 연안 차씨 강열공파가 들어왔다. 회화리의 연안 차씨는 금암 2리 안말에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암 2리 안말 서탄면사무소 북쪽으로는 차씨 지안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밀양 박씨와 연안 차씨 외에는 모두 각성바지이다. 회화리 노인회장인 박흥락(남, 1946년생)은 현재 회화리에 거주하는 78가구의 성(姓)이 30개에 이른다고 했다. 인구통계로 보면 회화리는 전형적

인 농촌 마을이면서도 거의 100세대 이상을 유지해 온 큰 마을이다.

회화리의 해정들은 왕실에서 간척을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1912년「토지조사부」에는 회화리에 용주사의 전답(田畓)이 240,565평, 국유지가 113,775평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회화리 전답 전체 면적 671,807 중 용주사가 35.81%, 국유지가 16.94%에 이르는 면적이다. 정조 때 용주사가 사도세자 원찰로 정해지면서 왕실 소유의 토지의 상당 부분이 용주사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2년 기준으로 국유지와 용주사의 농지를 합치면 회화리 농지 전체 면적의 52.75%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차경환(남, 1941년생)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까지 회화리에 소작지 관리를 위한 용주사의 말사(末寺)가 있었다. 박흥덕(남, 1935년생)은 회화리 사람들 중 농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용주사의 농지를 소작했다가 해방 이후 농지개혁 때 불하받았다고 기억했다.



1952년의 회화리 마을[사진출처: 평택문화원]

남쪽 들판과 마을이 미공군기지로 수용되면서 회화리 농민들 가운데 농지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이곳은 북쪽의 해정들에 비해 토질이 좋고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했는데, 농지 수용으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이 많았다. 이후 회화리 농민들의 농지 소유는 거의 해정들로 제한되었다. 1912년「토지조사부」에 수록된 농지는 논과 밭의 비율이 54:46이었는데, 1972년 농지정리에 의해 대부분 논으로 전환되었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했던 마을에는 두레나 지신밟기 등 민속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1970년 전후에 사라졌고,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당제는 더 빠른 시기에 중단되었다. 1901년 평택 최초의 교회인 회화교회가 건립되어 개신교 신자가 많고, 회화리 공소의 건립으로 진위천 북쪽 서탄면 천주교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다. 회화리 공소회장인 이보철(남, 1947년생)은 회화리의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고, 차경환은 마을 전체 주민 가운데 50%는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라고 했다.

현재 평택지역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자연마을에 회사와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회화리에는 자연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거의 없는 편이다.

3. 경제생활

1) 농업

(1) 경작지 분포와 관개

회화리 들판은 보통 해정들로 불린다. 차경환은 회화리와 금암리 사이 토지가 300정보, 마두리와 내천리 들판이 400정보라고 했다. 박흥락씨는 해정들을 '회화리 평야' 라고 하면서 그 넓이를 30만 평으로 잡았다. 해정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그마한 들판별로 이름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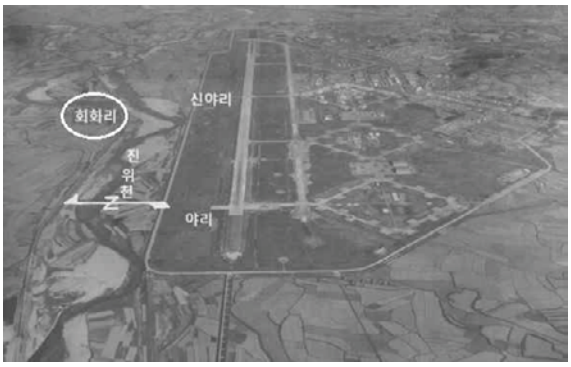


해정들 내 작은 들판명

회화리 사람들은 행정구역상 회화리에 속하는 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 진위천 건너 야리 들판에도 회화리 사람들 논이 많았다. 회화리 쪽 들판은 모래질 땅이 많고 지대가 높아 봇물을 대기가 어려워 밭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많았던 반면, 야리쪽은 토질이 좋아 농사가 잘됐다. 특히 야리 쪽에는 미수보와 댕수보가 있어 농업용수도 풍부했다. 차경환(남, 1941년생)은 '북쪽 해정들은 가물면 200평 한 마지기에 쌀 1가마 나고 보통 2가마였지만, 야리나 신야리 쪽으로는 물이 풍부해서 가물다고 해서 소출이 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고 했다. 야리에서 태어나 회화리로 이주한 진병호(남, 1945년생)는 '야리 쪽이 농사짓기에 토질이 훨씬 좋아서 회화리에도 부자는 야리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1952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이 비행기장으로 수용되었다. 수용된 지 10~15년 후에 채권을 지급했는데, 채권 장사가 모두 헐값에 매입해 갔다. 차경환 부친도 야리 쪽에 10마지기 2천 평 정도의 농지를 수용당했다. 나중에 채권을 줬지만 액수만 적혀있고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한이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채권을 모두 채권 장수한테 싸게 팔아버렸다. 야리 쪽에 있는 자신의 농지 70∽80%의 좋은 땅을 잃게 된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까지 오기도 했다. 이보철(남, 1947년생) 집안에도 신야리쪽으로 농지가 많았는데 거의 다 수용됐다. 그는 진위천 남쪽 농지가 대부분 회화리와 야리 농민들 땅이라고 했다. 신야리는 조그만 마을이어서 농지 소유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보철은 "이 비행기장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도 쫄딱 망했어.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철조망 딱 치고 나면은 그냥 뭐 보상을 했어? 뭘 줘! 그냥 다 뺏긴건데." 라고 회상했다.



금암리에서 바라본 회화리 주변 농지



미군 기지로 수용된 야리와 신야리 벌판(1963년)

앞서 금암리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했듯이 오산천에는 안보, 마두리보(새보), 회화리보 세 개의 보가 있었다. 그중 회화리에 물을 대는 회화리보는 마두리보 아래를 막아 차경환씨 주택에서 100m 정도 뒤로 해서 서쪽으로 봇도랑이 났다. 여기에 더하여 차경환은 마두리보를 가리키는 새보와는 다른 새보를 언급했다. 즉 회화리보의 물이 부족해서 그 아래로 새보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보는 봇도랑과 수위(水位)가 맞지 않아 들판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 써먹지 못했다.



오산천의 보 시설



회화리보가 있던 위치의 오산천

보는 일종의 협동조합과 같았다. 즉 농사에 특정 봇물을 이용하면 해당 보에 가입을 한다. 협동조합같이 구성된 보에 가입된 사람들이 책임을 맡을 만한 믿음이 가는 사람을 봇주로 선출했다. 회화리 보는 봇주가 2명이었는데, 차경환은 "봇주가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고, 신망이 높은 양반이 하지."라고 말했다. 가을에 특정 보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산총회를 해서 봇주가 1년 사용된 비용을 산출하고 이미 걷었던 비용보다 더 들었으면 초과 비용을 걷었고 잉여금이 있으면 다음 해로 이월했다. 또한 다음 해 예산을 세워 평당 비용을 계산해서 구성원들에게 거출했다. 거출한 비용으로 봇주는 말뚝이나 가마니 같은 보막이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고 봇밥을 장만하는 비용으로 지출했다. 보를 막을 때는 모래와 흙을 넣은 가마니를 계단식으로 착착 쌓고 나무 말뚝으로 지탱하게 한다. 비가 와서 보에 물이 차면 가마니 위로 넘치도록 했다. 물이 넘어가는 곳을 '운행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자그마한 장마에는 보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큰 장마가 지면 터져나갔다. 8월 말 이전에 보가 터지면 다시 막았지만, 그 이후에 터지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

회화리보는 회화리 들판인 해정들에 물을 대기는 했지만, 바로 위에 마두리보가 있어서 물이 적었다.

그래서 가물 때는 회화리 교회 앞에서 하천 바닥을 파고 물길을 막아서 6인치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 회화리보 봇도랑에 떨어트렸다. 오산천은 완전히 마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물이 조금씩 흐르는 곳에 가래를 이용해서 깊이 파기도 하고, '나래' 라는 도구를 소 멍에에 매달아 불도저처럼 모래를 긁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차경환의 기억과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농사를 지어 온 진병호(남, 1944년생)는 회화교회 앞 하천에 보를 막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매년 봄에 가마니에 흙을 넣어서 보를 막고 도랑을 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차경환은 이곳에서는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올린 장소였다고 했다.



가뭄에 물을 퍼 올리는 양수기 설치 장소


들판을 지나 회화리 쪽으로 흐르는 배수로

양수기는 전기 모터를 이용했고 발동기는 없었다. 물을 퍼 올리는 장비는 모두 회화리보 재산이었다. 이 외에 회화리보 재산으로는 회화리 교회 위 물레방아앗간도 있었다. 물레방아는 안보에서 내려온 물을 이용했다. 양수기는 모두 전기 모터를 이용했고, 이동 방아를 찧을 때만 4마력짜리 구보다 발동기를 사용했다. 양수기는 물레방아 조금 아래쪽에 설치했다. 가뭄에도 그런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차경환은 "회화리에서는 가뭄에도 모내기를 못 하는 논을 본 적이 없다." 고 하면서 회화리가 곡창지대라고 말했다.

수리조합 물이 내려오면서 더 이상 보를 쌓는 일은 없었다. 차경환은 1962년도 무렵부터 기흥저수지 물이 내려왔다고 했으나, 이 저수지는 1964년에 완공되었으니, 그가 말한 것보다는 2년 후였다. 수리조합 물이 내려오면서 예전의 봇도랑은 모두 폐기되고 수로(水路)를 새로 조성했다. 당시 수로는 지게로 흙을 날라다 둑을 쌓았다. 이때 회화리 청년들은 마을 공회당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에 참여했다. 이때 조성된 수로는 금암리에서 회화리와 마두리를 거쳐 황구지 마을 경유하고 고덕면까지 이어졌다. 차경환은 처음에는 기흥저수지 물이 공급되었으나, 이후에는 1972년 완공된 이동저수지 물도 함께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철(남, 1947년생)도 해정들 농업용수는 기흥저수지와 이동저수지 물을 모두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70년 24세에 수리조합에 입사해서 다니면서 진위와 서탄, 동탄까지 경지정리 상황을 관리했다. 이보철은 동탄이 경지정리를 제일 먼저 한 다음에 회화리 경지정리 하고 나서 진위면 견산리 앞 장호들 순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지정리는 농사가 끝난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마쳐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수로 공사는 좀 크게 했지만, 농지를 정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는 일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이보철은 해정들 농지정리에서 감보율이 10~20% 사이였던 것

으로 기억했다. 경지정리 전에는 밭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논이 더 많았다. 보(洑) 시설이 있어서 농업용수 공급이 비교적 원활했기 때문이다. 경지정리 후 밭은 모두 논으로 바뀌었다.

(2) 농지 소유 관계

1912년 토지조사부의 토지 소유 내역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비고
회화리	박경관	전	1	1,084	
	박경선	전	1	1,234	
	박경수	전	1	1,557	
	오세문	답	1	1,076	
	이호연	전	3	3,993	
	장성구	답	1	596	
	장순명	답	1	1,893	
	장순창	답	1	1,391	
	정중연	전	1	1,051	
	조예경	답	1	313	
		대	1	401	
		전	1	1,816	
	차명수	답	2	1,815	
		대	2	448	
		전	6	4,081	
	차석규	답	4	3,857	
		전	4	5,330	
	차원후	전	1	545	
	차인규	전	1	1,808	
	차종학	답	2	1,746	
		전	2	1,315	
	차창수	답	1	45	
		전	1	1,922	
계루지리	한호석	답	1	1,388	
금암리	김영보	답	1	87	
	서경옥	답	1	1,550	
	송기호	전	1	1,083	
		전	1	158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비고
금암리	송종현	전	2	1,720	
	조경상	답	1	1,435	
	차응규	답	1	74	
		전	2	2,760	
	한건석	답	1	847	
	한범석	답	2	1,237	
	한영석	잡종지	1	543	
	한윤석	답	1	265	
		잡종지	1	368	
	한은교	답	1	123	
	한학수	답	2	439	
	한흥수	답	2	615	
	한희석	잡종지	1	615	
두릉리	김홍식	대	1	1,594	
마두리	송경순	답	1	175	
	유태린	전	1	439	
	이필성	답	1	361	
수월암리	최학수	답	1	1,048	
안화리	이영복	전	1	1,184	
야막리	장재근	전	3	1,885	
적봉리	김병위	답	2	3,310	
		전	2	2,626	
수원군 남면 송곡동	이규삼	전	1	590	
수원군 남면 요동	김지현	전	1	410	
수원군 남부면 귀천동	김문환	답	2	3,317	
	이선익	전	1	782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고성팔	대	1	334	
	최암	답	1	5,824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나중석	전	1	1,232	
수원군 동북면 반송리	권중언	전	1	5,396	
수원군 산성면 세교리	최완희	전	2	2,722	
수원군 상홀면 송산동	송규섭	전	1	955	
	정규현	답	2	1,896	
	정범섭	답	1	2,293	
	정범섭	전	1	615	
	한정교	전	2	899	
수원군 상홀면 정문동	김구현	전	2	1,817	
	박명순	전	1	852	
	박승문	전	1	1,376	
	박용덕	전	1	1,599	
	박제선	전	4	2,119	
	박제옥	전	1	615	
	박제화	전	3	2,425	
	박종국	전	1	609	
	박준양	전	2	3,089	
	박초양	전	1	1,007	
	박흥양	전	1	415	
	박희수	전	2	1,412	
	엄명섭	전	1	1,004	
	이기춘	전	1	490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비고
수원군 상홀면 정문동	이종원	전	2	1,453	
	장제익	전	5	3,174	
	조중응	전	1	928	
	최광현	전	1	4,360	
	최필현	전	3	1,553	
	한경수	전	1	865	
	한덕교	전	3	2,562	
	한명교	전	1	888	
	한명석	전	1	1,788	
	한민교	전	1	809	
	한선교	전	1	156	
	한순교	전	3	1,384	
	한영석	전	1	1,113	
	한영수	전	2	2,967	
	한원교	전	3	3,688	
	한익교	전	2	564	
	한준교	전	1	943	
	한창교	전	4	3,335	
	한철교	전	1	793	
수원군 상홀면 후곡동	이용도	전	1	880	
수원군 청호면 오산리	이경우	답	1	717	
용인군 기곡면 내서동	김철순	답	2	3,817	
		전	1	1,365	
경성부	오정옥	답	1	1,651	
	이건춘	답	1	710	
	이근수	답	1	197	
		전	1	552	
	이봉래	전	1	1,453	
	임종상	답	1	1,519	
		전	1	2,083	
	조중응	답	1	808	
		전	4	4,497	
	허영순	답	3	972	
		잡종지	1	410	
		전	1	299	
	황종원	답	5	33,918	
용주사	용주사	답	34	136,112	
		잡종지	3	2,057	
		전	25	104,453	
국유	국유	답	28	35,126	
		대	4	8,310	
		분묘지	1	294	
		임야	2	2,821	
		잡종지	12	115,871	
		전	26	78,649	
양근군 서악면	이만영	답	1	1,347	
충청남도 천안군	임봉규	답	1	2,182	

주소	소유자	지목	필지수	면적	비고
일본인	승본희팔랑	임야	1	4,536	
		잡종지	21	123,859	
		전	1	315	
	심전여삼병위	전	2	2,075	
	암기구미	답	5	6,904	
		잡종지	4	3,419	
		전	6	5,403	

회화리는 인근 마을에 비해 서울지주의 토지소유 비중이 낮고 용주사와 국유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울 지주 가운데 임종상(林宗相)은 진위군 전답 113정보(밭 17정보, 논 96정보)를 포함하여 경기도 일원에 681정보(밭 228정보, 논 453정보)를 소유하고, 소작인 수가 1,524명에 이르는 대지주였다.[6] 용주사는 1938년 기준으로 수원군에서 10정보의 전답을 소유했고, 진위군에 48정보의 농지를 소유했다.[7] 그런데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회화리 240,565평, 금암리 14,698평, 진위면 하북리 29,958평, 야막리 95,817평으로, 4개 마을에서만 용주사 소유 농지가 127정보(381,038평)에 이른다.

일본인 심전여삼병위(深田與三兵衛)는 1913년 '금암리 28번지'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진위흥농주식회사의 대표였으며, 하북리에 잡종지 154,613평, 밭 196,673평, 논 6,424평을 갖고 있었다. 그가 금암리에서 소유했던 잡종지 23,946평은 금암 전체 잡종지 32,375평 가운데 73.96%이다. 또한 미시비씨[三菱] 창업자 암기미태랑(岩崎彌太郎)의 장남인 암기구미는 금암리에 진위면 하북리에 밭 2,006평과 논 19,366평, 야막리에 밭 7,578평과 논 32,375평을 소유한 대지주였는데, 금암리에는 논 2,218평이 있다. 승본희팔랑(升本喜八郎)은 금암리에 밭 159평이 있을 뿐이고 야막리, 하북리 등에는 소유한 농지가 없는데, 회화리 전제 잡종지 가운데 50.12%인 123,859평을 소유했다.

회화리 농지 소유주의 거주지별로 합계를 산출한 토지 소유 상황은 아래와 같다.[8]

회화리 토지에 대한 지역별 소유 상황

거주지	전			답			대지			잡종지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회화리	12	23	25,736	7	14	12,732	2	3	849	·	·	·
금암리	4	6	5,721	10	13	6,672	·	·	·	3	3	1,526
마두리	1	1	439	2	2	536	·	·	·	·	·	·
수월암리	·	·	·	1	1	1,048	·	·	·	·	·	·
야막리	1	3	1,885	·	·	·	·	·	·	·	·	·
적봉리	1	2	2,626	1	2	3,310	·	·	·	·	·	·
정문동	32	60	53,277	·	·	·	·	·	·	·	·	·
계류지리	·	·	·	1	1	1,388	·	·	·	·	·	·
두릉리	·	·	·	·	·	·	1	1	1,594	·	·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부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109쪽.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의 책, 144쪽.
8) 공동명의로 소유한 토지는 인원수를 1로 계산하였음.

거주지	전			답			대지			잡종지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안화리	1	1	1,184	·	·	·	·	·	·	·	·	·
수원군	10	12	14,481	5	6	12,458	1	1	334	·	·	·
용인군	1	1	1,365	2	2	3,817	·	·	·	·	·	·
용주사	1	25	104,453	1	34	136,112	·	·	·	1	3	2,057
경성부	5	8	8,884	7	13	39,775	·	·	·	1	1	410
경기도 양근군	·	·	·	1	1	1,347	·	·	·	·	·	·
충청남도 천안군	·	·	·	1	1	2,182	·	·	·	·	·	·
국유	1	26	78,649	1	28	35,126	1	4	8,310	1	12	115,871
일본인	4	9	7,793	1	5	6,904	·	·	·	2	25	127,278

토지 소유자의 각 거주지별 회화리 토지 소유 면적 비율은 아래와 같다.

토지 소유자 거주지별 회화리 소유 토지 비율(%)

거주지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회화리	8.40	3.48	7.66	0	
금암리	1.87	1.83	0	0.62	
마두리	0.14	0.15	0	0	
양감면 정문리	17.39	0	0	0	
용주사	34.09	37.25	0	0.83	
국유지	25.66	9.61	74.95	46.88	
경성부	2.90	10.89	0	0.17	
일본인	2.54	1.89	0	51.50	

1912년에 작성된 회화리의 토지조사부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회화리 주민의 토지 소유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이다. 이웃한 금암리나 야막리, 진위면 하북리에 비해 해당 마을 거주자의 토지 소유 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한 회화리 토지를 소유한 회화리 마을 인물이 모두 16명에 지나지 않는다. 해정들을 공유하고 있는 금암리 토지를 소유한 인물이 13명이지만, 회화리 토지 소유 인물과 중복된 사람을 제하면 모두 4명에 지나지 않는다. 회화리와 금암리 들판의 농지 소유주를 모두 더해도 그 숫자가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회화리 인근 마을 거주자의 자기 마을 토지 소유 비율(%)

마을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회화리	8.40	3.48	7.66	0	
금암리	53.39	26.57	49.50	20.87	
야막리	36.15	25.52	1.51	16.54	
하북리	19.56	27.62	93.65	0.10	

두 번째 특징은 국유지와 용주사 토지 소유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용주사가 회화리 농지에서 차지하는 전답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된다.

용주사의 마을별 토지 소유 비율(%)

마을	전	답	대지	잡종지	비고
회화리	34.09	37.25	0	0.83	
금암리	1.23	5.25	1.83	0	
야막리	10.26	15.05	98.49	0	
하북리	1.54	9.87	0	0	

차경환(남, 1941년생)씨는 '옛날 지주들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서탄면 땅이 옛날에 거의 용주사 땅 아니면 일본놈 땅이야." 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집 뒤에 용주사 말사가 하나 있었고, 토지를 관리하는 스님이 기거했다. 이 절은 일제 강점기에 회화리에서 없어졌다. 그런데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용주사 소유의 대지가 전혀 없고, 금암리에 327평의 대지 1필지가 있다. 이로 보아 용주사의 농지 관리 스님의 거주지가 처음에 금암리에 소재했다가 회화리로 옮기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차경환은 용주사 소속의 절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회화리 농지 소유 상황에 대한 박흥덕(남, 1935년생)의 기억도 차경환과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농지 개혁 전에는 다 소작농이지 자작농 없어요." 라면서 회화리에 자작농이 적었고 농지의 대부분이 일본인이나 용주사 땅이라고 했다. 이러한 얘기는 1912년 토지조사부의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그가 기억하는 회화리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많이 소유했던 부자는 차병호, 차병식 등이었다. 그의 부친이 소유했던 농지 7~8천 평도 소작이었다가 농지 개혁 때 불하받은 것이었다. 타작할 때마다 지주들이 보낸 감독관인 '타작꾼' 이 와서 수확량을 산출해서 도지를 바치게 했다. 타작꾼이 오면 닭 잡아서 먹이고 대접도 잘 해야 도지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

7남매의 둘째 아들이었던 차경환씨 부친은 1만평에 가까운 농지를 소유했다. 해방 후 농지 개혁 당시에 약 7천 평 정도 됐는데, 그 이후 좀 더 장만해서 1평에 가깝게 되었다. 차경환은 회화리 사람 중에 그 정도 소유한 집이 많았다고 했다. 둘째 아들이었던 차경환은 결혼 후 분가하면서 부모로부터 1,600평을 받았다. 여기에 나중에는 형님 소유의 농지 1,500평 정도를 임대 받아 3,100평 정도 농사지었다. 당시 공무원 봉급이 1달에 쌀 3가마 정도 되었으니, 농사 짓는 차경환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20~30년 지난 후에는 수입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게 밀리게 되었다.

야리에서 태어난 진병호(남, 1944년생)는 그의 부친이 야리에서 많게는 머슴을 넷씩이나 부리면서 농사를 짓다가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회화리로 이주했다. 회화리에 이주한 그의 부친은 이곳에 3천 평 정도의 농지를 장만했다. 그는 당시에 논값이 평당 1되 내지 1되 반에서 비싸면 2∽3되에 거래되었다고 했다. 6남매 중 둘째 아들인 진병호는 결혼 후 분가하면서 부모로부터 논 9백 평을 받았다. 그의 부인인 우완숙(남, 1945년생)은 "9백 평 농사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맨날 남의 품팔러 댕기구 내가 별짓 다 했지 뭐." 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에 사우디에 다녀온 후 논 2천 평을 장만하여 시설농업을 하다가 1995년부터 논농사만 짓고 있다. 자신의 농지 4천 평에다 5천 평을 임대하여 벼농사를 짓는다. 주로 동생네나 친척들 논이며, 친척이 아닌 남의 소유 농지는 없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남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200평 1마지기당 쌀 1가마라고 했다. 지금은 외지인 땅이 있어서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는 남의 논을 임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진병호는 현재 회화리 농지 가운데 3분의 2가 외지인 소유로 추정했다.

박흥락(남, 1946년생)은 현재 회화리에 있는 농지 중 10∽15만 평이 외지인 소유라고 했다. 회화리 땅을 소유한 외지인은 오산이나 송탄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 상당수는 부모님 타계 후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다.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는 마을 농민에게 임대하고 있다. 박흥락은 “마을 사람 중에 외지인의 농지 임차가 많은 사람 3명 정도가 있다.” 고 했고, 진병호의 부인인 우완숙(여, 1945년생)은 회화리에 4만 평을 임대해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흥락에 의하면 현재 회화리에 거주하는 78가구(서탄면사무소에서 제공한 인구통계로는 133호가 거주) 가운데 30여 호만 농사를 짓는다.

우완숙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회화리의 농지 가격이 제일 싼 지역이라고 했다. 들판이 발달한 회화리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 우완숙은 회화리의 농지가 가장 비싼 경우가 30만 원이라고 하면서 “아유 30만 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4) 농사 과정



회화리 농사 기반, 해정들

금암리가 논 150평을 1마지기로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회화리는 논 200평을 1마지기로 계산했다. 가물 때는 수확량이 줄어 1마지기에 1가마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100평당 쌀 1가마, 즉 1마지기에 2가마 소출을 봤다. 진위천 남쪽 야리나 신야리 들판의 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을 안 했다. 토지도 비옥해서 날이 가물었다고 해서 수확이 덜 나오는 곳이 드물었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회화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4월이면 논갈이를 하며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논에다 퇴비를 실어 날랐다. 퇴비는 주로 소나 돼지 우리에서 나온 축분이었다. 우리에 넣어준 지푸라기와 축분이 섞인 것을 쌓아놓았다가 봄이면 논으로 실어냈다. 차경환은 어렸을 때도 농사짓는 집은 웬만한 집은 대부분 소를 길렀던 것으로 기억했다. 간혹 소를 기르지 않는 사람은 남의 소를 빌려서 부렸고, 하루를 쓰면 사람이 하루 일해줘야 했다. 이보철(남, 1947년생)은 회화리 사람 70~80%가 일소를 길렀다고 말했다.



해정들의 봄



해정들의 가을

차경환은 회화리에서 이모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벼농사를 짓는 논은 오직 벼농사만 지었다. 보리와 밀은 밭에 심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콩, 팥을 파종하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가령 7월 초에 심는 팥을 6월 15일께 심으면 넝쿨만 뻗고 열매가 잘 맺지 않았다. 심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 팥이 여물기 전에 서리가 내려버렸다. 심는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보리를 수확한 밭에는 콩을 심었고, 밀을 수확한 밭에는 팥을 심었다.



남편과 둘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농지를 장만한 고이자

가곡리에서 21세에 회화리로 시집온 고이자(여, 1941년생)은 “경지정리 되기 전에는 순전히 수수밭하고 건파(밭벼)밭이었다.” 고 옛 들판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녀는 그때 “다 밭이었지 뭐! 농지정리 되고나서 지금 밭이 됐지!” 라면서 밭에는 수수, 밭벼, 조를 많이 심었다고 말했다. 둘째 아들인 장경옥은 분가할 때 9마지기를 받았다. 이후 두 부부가 부지런하게 농사짓고 살면서 농지를 3천 평을 넘게 추가로 장만해서 5천 6백 평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특히 농지정리 할 때 논을 1,200평으로 맞추려고 넘어온 다른 사람 농지를 많이 샀다. 고이자는 옛날 농지를 매입할 당시 평당 밭은 쌀 1되 반, 논은 쌀 3되 값으로 기억했다. 소금나들이 들판의 1,200평 짜리 논은 평당 쌀 1되 반값으로 사기도 했다. 땅을 살 때 돈이 모자라면 장례쌀을 얻었다가 농사져서 갚았다. 당시 이자는 50%였다.

그녀의 남편인 장경옥은 식사를 하고나면 일만 할 만큼 부지런했다. 장경옥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택도 모두 혼자 지을 정도로 손재주도 좋았다. 늘 바쁘게 집안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일 좀 해달라면 바로 가서 해줄 정도로 인정도 많았다. 옛날에 농지가 꽤 많은 편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품앗이를 거의 하지 않고 아내인 고이자와 농사를 지었다. 송탄이나 마두 2리 사업소에서 일꾼 30여 명을 얻어다가 모내기를 마치고 나면 이후 벼를 베고, 묶고, 집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과정의 일을 두 부부가 했다. 그녀는 그때 돼지고기 비계를 사다 무와 김치를 썰어 넣고 보온 통에 담고, 밥과 김치 두어 가지를 싸서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부부 둘이서만 벼를 벴다. 들에서 아침, 새참, 점심, 새참은 집에서 갖고 온 밥과 반찬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두 명이 종일토록 일하면 1,200평 짜리 논의 벼를 이틀 동안에 벨 수 있었다. 엎드려 하루 종일 일을 하다보니 허리 통증이 심했다. 허리가 아프면 당시 마두2리 사업소 사는 사람이 구해준 진통제를 먹고 일을 했다. 고이자는 그렇게 평생토록 일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온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농기계와 보관 장소

진병호 부부는 지금 연로하여 아들들이 와서 농사짓고 있다. 농협에서 모를 구입여 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병호는 “모 1판에 4천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거 사서 심고 그러면 남는 거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못자리 하우스를 조그맣게 지어서 손수 모를 기르고 있다. 9천평 농사에 트랙터와 이앙기를 갖추고 있다. 남의 기계를 빌려 쓰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기구를 갖추었고,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만 남의 손을 빌리고 있다. 작년(2022년)의 경우 6천 평 농사를 지었는데, 콤바인 임대료로 2백 몇 십만원이 나갔다. 진병호와는 달리 마을 농민들 중에는 연로하여 손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집들이 많다고 한다. 손수 농사를 짓는 진병호(남, 1944년생)는 40마지기(8천 평) 농사를 지으면 쌀 140가마의 소출을 얻는다. 가마당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2,8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 인건비와 농약값, 기계 연료비, 농기계 사용료 등을 제하면 1,500만 원 정도가 순익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병호는 결국은 내 인건비 정도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커피 한 잔에 4~5천 원이 되는데, 필수 먹거리인 배춧값이 100원 오르면 비싸다고 난리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부인인 우완숙(여, 1945년생)은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커피 한잔에 8천 원인 것을 보고 동생더러 “8천원이면 쌀이 한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웃었다.



야리에서 태어나 회화리에 정착한 진병호

(5) 노동 관행

농사일은 대체로 품앗이로 해결했지만, 일손이 부족하면 일꾼을 사왔다. 차경환은 평택역이 인력사무

소라고 했다. 품을 팔러 오는 호남과 영남 사람들이 평택역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면 평택역까지 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다. 평택역에 가서 일꾼을 사오는 시기는 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모내기 할 때와 추수할 때였지만, 논매기 할 때도 일꾼을 사오는 경우가 있었다. 남쪽 영남과 호남에서 서탄리로 품팔러 오는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회화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차경환은 그 이유로 "회화리 사람들은 먹자주의, 내천리 사람은 가르치자주의, 마두리 사람들은 모으자주의"를 얘기했다. 그는 회화리 사람들이 '먹자주의'로 별호가 붙여진 것은 진위천 남쪽에 있던 논을 읽게 되면서 홧술을 많이 마셨던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내천리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수원지검장까지 지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학구열이 높았고, 마두리의 정착사업소는 자립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는 평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모내기 후 모를 둘러보러 나가는 우완숙

부친이 1만 평 가까이 농지를 소유했던 차경환씨네는 형님이 주로 농사를 주관했는데, 농사철이면 평택에 가서 일꾼 5~6명을 샀다. 모내기가 시작되면서 들어온 일꾼들은 모내기 끝나고 논매기까지 최소 40일은 묵으면서 일하고 떠났다. 머슴과는 달리 이들은 일당으로 품삯을 계산했다. 가을에 벼를 벨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꾼을 썼지만, 벼베기 할 때보다 모내기 때가 일꾼 수가 약간 더 많았다.

머슴의 경우는 보통 양력 3월쯤에 일을 시작해서 11월이 되어 마쳤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엉 엮어서 지붕을 얹어야 끝을 맺었다. 머슴의 품삯인 새경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차경환씨가 젊어서는 5가마였는데, 나중에는 8가마까지 갔다. 금암리 마을에서는 머슴 새경이 나중에는 10~12가마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차경환은 10가마까지 오른 것은 못 봤고, 8가마까지만 봤다고 했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논일을 1:1 품앗이로 해결해서 나 하나 가면 너 하나 오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그러다 5.16 이후 작업반이 만들어졌다. 우완숙(여, 1945년생)은 작업반은 모심을 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작업반이 되면서 농사가 많은 사람은 면적 크기에 따라 돈을 내고, 농지가 적은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당시 하루 일당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선분(여, 1954년생)에 의하면 작업반 인원은 20명 정도 되었는데, 이앙기가 나오면서 작업반 조직이 없어졌다.

(6) 시설농업



해정들의 시설농 분포

진병호(남, 1944년생)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 분가하면서 농지 900평을 받았다. 그는 32세인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마을 이장을 맡았다. 이장을 하는 동안은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사람들을 만나면 들어가는 경비가 적지 않았지만,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당시 이장조로 마을 사람들에게 가을에 쌀 1가마를 받았지만 한창 진행되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중에 외부 사람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1979년 이장을 그만두면서 90만원의 빚을 안게 되었다. 당시에 쌀 1가마에 6천 원이었으니 90만원이면 큰 돈이었다. 게다가 자녀 3남매 중 위로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막내는 4살이었는데, 그는 여러 궁리를 하다가 해외 근로자로 나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사우디에 1년을 갔다와서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이후 두 번째로 사우디에 가서 번 돈으로 논 2천 평을 장만하게 되었다. 그후 1980년대 후반부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다. 한 동이 200평인데, 남의 농지까지 빌려서 모두 남의 농지까지 임대해서 모두 13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진병호는 시설재배를 하게 된 것은 야막리나 대정촌의 영향이라고 했다. 시설재배가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당시 회화리에서는 7~8가구가 시설재배를 했다. 배수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서만 시설재배를 할 수 있었다. 진병호 부부는 호박과 배추 농사를 지었다. 일꾼으로는 회화리 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기도 했다. 당시 하루 품삯은 5천 원이었다가 조금씩 올라서 그가 시설 재배를 그만둘 무렵에는 8천 원까지 갔다. 시설재배가 다른 농사에 비해 소득은 좋은 편이었지만 일이 고됐다. 농한기가 없어서 1년 열두 달 동안 쉬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6년 동안 짓다가 1995년 그만두고 논농사로 전환했다. 6년 동안 비닐하우스 농사지어서 세 아들 장가보내고, 농지도 1,900평을 추가로 장만할 수 있었다.

(7) 도정시설



회화리 정미소 위치


조합정미소 자리

차경환은 “적봉리에 정부미를 찧는 대형 정미소가 있었는데 유광열이라는 인물이 운영했다.”고 했다. 이 정미소는 전기 모터를 쓰지 않고 배 엔진을 동력으로 썼다고 했다. 그러나 회화리 사람들은 냇갈 때문에 이 방앗간을 이용하지 않았고, 금암 3리 새말 사람들이 이용했다. 새말 한도희(남, 1938년생)는 새말에 정미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새말 사람들이 벼를 지게에 지고 적봉리에 가서 방아를 찧었다고 했다.

회화리에는 물레방아가 있었다. 직강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위천이 회화리 교회 앞으로 흘렀는데, 안보에서 진위천으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였다. 이 물레방아는 일종의 협동조합처럼 운영되는 회화리보에 속한 재산이었다. 차경환(남, 1941년생)씨는 이 물레방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물레방아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 회화리 마을 내에 일본인이 모터 방아를 가동하면서 물레방아는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세운 정미소는 해방 후 차병식이 불하받아 운영했다. 해방 후 전기 생산이 부족해서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자 모터로 돌리던 정미소를 운영할 수가 없어 이동 방아를 찧었다. 이동 방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4마력짜리 구보다 발동기를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마당에서 찧는 방식이었다. 한 집 마당에 이동방아를 설치하면 보통 그 집 주변으로 5~6집의 방아를 찧었다. 이후 끊겼던 전기가 다시 공급되면서 정미소가 다시 가동되었다. 6.25 전쟁 때 차병식이 좌익들에게 죽음을 당하자 서울 경복고에 다니던 그의 아들이 내려와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방아를 돌리다가 다리가 끼는 사고를 입고 죽어서 정미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후로 정미소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마을 협동조합 방앗간과도 경쟁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운 정미소와 경쟁은 힘들었다.

회화리 1964년 수리조합 물이 내려오면서 회화리보가 없어지게 되자 그동안 축적된 회화리보 재산으로 발동기를 사다가 협동조합 정미소를 세웠다. 차경환은 이때 구입한 20마력짜리 발동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디젤 발동기로 ‘풍년호’라는 상표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미소를 ‘봇방아’라고 불렀지만, 조합 명칭은 ‘정미소조합’이었다. 조합원은 예전에 회화리보에 가입된 사람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회화리 마을 주민이 모두 가입된 것은 아니었다.

조합정미소가 들어서면서 회화리에는 일본인이 세운 정미소를 인수한 사람이 운영하는 개인 정미소와 더불어 2개의 정미소가 가동되었다. 두 정미소는 197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다가 모두 문을 닫았다. 임동순이라는 인물이 두 정미소를 모두 매입해서 폐쇄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서탄면 각 마을에 있는 정미소를 모두 매입하여 폐쇄하고 내천 2리에 대규모 정미소를 운영했다.

우완숙(여, 1945년생)은 조합방앗간에 인부를 3명 두었다고 기억했다. 방아삯은 쌀 1가마에 2~3되를 떴다. 회화리 조합방앗간은 이윤이 많았다. 40대 초반에 정미소조합장을 5년 정도 맡았던 차경환은 조합방앗간에서 도정료(방아삯)로 300가마 정도 재산을 축적했다고 했다. 이 쌀을 장례쌀 먹는 사람들에게 연리 10% 정도로 대출했다. 대출은 회화리 마을 사람들로 제한했는데, 당시 장례쌀이 보통 연리 50%였으니 정미소조합의 대출 이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차경환은 1970년대 초반 조합정미소 매각 대금을 120만원 정도로 기억하면서, 당시에 상당히 큰돈이라고 했다.

2) 축산업

이보철(남, 1947년생)은 군대를 마치고 24세가 되던 1970년 수리조합에 입사했다. 처음 월급은 2만원 정도였다. 그의 옆에 있던 아내 차수영(여, 1946년생)은 “그래도 처음에 직장들어갔을 때 그거 쌀 두 가마 반이었어!” 라고 말했다. 2만원의 월급이 그래도 공무원이나 농협 직원보다 많은 액수였다. 그런데도 그때 과장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근검한 생활을 하는데도 아들 하나 대학 교육 시키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직장생활 해서는 전망이 없겠다.’ 고 판단했다. 그래서 목장 일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1979년 무렵 9년 동안 다니던 수리조합을 그만두었다. 그는 “수리조합이 설립된 이후 자진해서 사직한 사람은 내가 1호여!” 라고 말했다.


든든한 직장을 그만두고 축산업을 일군 이보철과 부인 차수영

수리조합을 그만두고 바로 마을 입구 400평 부지에서 목장을 시작했다. 처음에 젖소 두 마리를 키웠다. 그때 젖소 1마리가 230만 원 정도로 비싼 값이었다. 이보철이 젖소를 키우기 시작하기 전에 서정리에서 한의원을 하던 그의 처당숙인 차상영이 회화리에서 젖소를 기르고 있었다. 서정리의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시작한 이 목장은 회화리에서 최초로 젖소를 키우는 목장이었다. 그의 목장은 젖소 20마리 정도로 당시에는 많은 숫자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젖소를 키우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외국에서 도입된 젖소 7마리를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20마리까지 늘렸다.

차상영에 이어 고경환이 두 번째로 낙농업을 시작했다. 고경환은 1~2마리로 시작해서 역시 나중에는 20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보철이 시작한 젖소 목장은 고경환에 이은 세 번째였다. 이보철이 시작한 이후 회화리에서 한 사람 더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시작한 사람이 없었다. 젖소 두 마리로 시작한 이보철·차수영 부부는 점차 숫자를 늘려가서 30마리까지 길렀다. 새끼를 낳기도 하고 중간에 사오기도 하면서 숫자를 늘렸다. 당시 서탄면에 두세 마리에서 대여섯 마리까지 주택 마당에다 젖소를 키우는 이른바 ‘마당 목장’ 이 다른 마을에는 많았지만 회화리에는 없었다.

이보철은 젖소를 키우면서 종자개량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종자 개량은 외국의 좋은 수소의 정자를 받는 것이었다. 특히 젖소는 우유가 많이 나오는 소가 좋은 소이다. 그는 어미소를 임신시킬 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종자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대를 거

듭하면서 조금씩 좋은 종자로 바뀌었다. 이보철은 종자 개량을 하는 데 15년 정도가 걸렸다고 했다. 종자 개량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숫자의 젖소인데도 그는 더 많은 양의 우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장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종자개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서탄면 낙우회장도 맡았다. 서정리 낙우회에서 서탄면 낙우회가 독립될 때였다. 서탄면에 낙농 농가가 늘어나고 서정리까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탄면 낙우회가 독립하게 된 것이다.

"목장 해서 돈 좀 버셨냐?"는 질문에 그는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 큰 돈은 못 벌었어도..."라고 대답했다. 소 한 마리에 논 몇 평 정도의 수입이 되냐는 물음에 그는 "아유 논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라고 했다. 낙농은 365일 일을 해서 논농사를 짓는 것보다 2배 일하고 수입은 논농사의 2배 남짓 되었다.

이보철은 젖소를 기를 때 아내가 도와준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크다고 했다. 목장의 청결 상태나 송아지 키우는 일에서 바로 드러났다. 여자가 송아지 관리할 동안 남편은 풀 베오는 일 등을 했다. 이보철 부부는 목장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둘이서 일했다.

이보철은 20여 년 목장을 운영하다 58세에 그만두었다. 정년퇴직 할 나이가 되면 그만두려고 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가 젖소를 그만둘 무렵에 다른 목장들도 그만두었다. 이보철은 목장을 그만두면서 금암리 창덕골에서 낙농업을 하는 조희상(남, 1960년생)에게 자신이 기르던 젖소를 넘겨줬다. 조희상은 이보철이 서탄면 낙농회장을 할 때 총무를 맡았었다.

4) 상업 및 유통

(1) 이동조합 구판장과 가게

1964년 무렵 회화리에서는 공회당을 건립하고 공회당 내에 이동협동조합 구판장을 개설했다. 구판장에서는 대부분의 가정 생필품을 갖춰놓고 팔았다. 그러다가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문을 열었다. 1980년 전후 마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구판장이 경쟁력을 잃어 문을 닫았다. 가게는 마을 남쪽에 있었는데, 제방 위로 2차선 도로(정문회화로)가 개설되면서 터가 수용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구판장과 개인 가게 위치

(2) 5일장 이용

해정들 북쪽의 금암리 사람들이 주로 오산장을 이용했던 반면에 회화리 사람들은 오산장과 서정리장을 같이 이용했다. 차경환(남, 1941년생)은 보통 여자들은 서정리장을 많이 가고, 남자들은 오산장으로 많이 다녔다고 했다. 이보철(남, 1947년생) 역시 "오산장은 대개 남자들이 쌀 같은 거를 마차에 싣고 가고, 이쪽(송탄장)으로는 여자들이 반찬 그런 거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고 그런거지"라며 오산장이 주로 남자들이 다닌 장임을 말해줬다. 남자들이 오산장을 많이 다닌 이유는 오산장에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산장은 금암리 농협 앞까지 길을 따라 안말 뒤 산길로 해서 거르미를 거쳐 사리를 지나 제방둑으로 다녔다. 차경환은 "오산장까지는 20리가 채 안 되는데, 오산장까지 가려면 2시간은 간다고 말했다.

서정리장은 오산장보다는 가깝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한 거리였다. 회화리에서 서정리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야리-장등리-금각2리 농소-고덕면 문곡리 황조곡-서정리’ 코스로 추정된다. 1952년 K-55 미공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신야리-구장터-목천동-숯고개-서정리’ 코스로 변경되었다. 이 길은 회화리 학생들이 효명중학교에 등교하던 코스이기도 하다. 회화리에서 태어난 우완숙(여, 1945년생)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서정리장에 가본 적이 있다. 서정리장을 가기 위해서는 마을 남쪽 진위천을 건너 신야리로 해서 철조망을 따라 구장터를 지났다. 서정리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됐다.

미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송탄장이 들어서면서 송탄장을 많이 이용했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진위천을 건너 송탄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했다. 송탄장은 4·9일에 열리는 송북장이다. 진위천을 건너 신야리를 지나 미군 부대를 철조망 옆으로 해서 구장터로 돌아서 송북장까지 걸어갔다.

송탄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 여자들은 부업으로 반찬 장사를 많이 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집안에 먹는 김치나, 무장아치, 콩자반 등 반찬을 만들어서 송탄에 내다 팔았다. 이보철은 “하여간에 각종 반찬을 다 했어! 고구마 줄거리 따가지고 볶어서 가고 뭐.” 라고 말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재배하는 채소로 각종 반찬을 만들어 다라에 이고 신장동 저녁시장에 가서 팔았다. 그렇게 장사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자식들 용돈을 줬다. 이보철네도 진위천 남쪽 들판에 주로 농지가 있었는데, 미군기지에 수용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그의 어머니도 송탄으로 반찬 장사를 다녔다. 그는 회화리에서 한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장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회화리 뿐만 아니라 사리, 금암리, 마두리 사람들은 거의 다 머리에 이고 가서 장사했다. 저녁시장 안 골목길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팔았다. 이보철의 부인인 차수영(여, 1946년생)은 그때는 새시장(송북시장) 쪽은 다 논이어서 사람이 없었고 안쪽(신장동)에만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골안말 사람들도 채소 장사를 했다는 필자의 얘기에 이보철은 골안말 사람들은 늦게까지 장사를 다녔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차수영은 골안말에 논이 많지 않아 그랬다는 얘기를 보탰다.

5) 회사 / 창고

회화리는 마을 안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 변경이 어려워 회사나 창고가 입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 서탄면의 다른 마을과는 달리 회화리에는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없고, 음료수를 공급하는 창고 1개소를 비롯하여 창고 2~3 군데가 있다. 반면에 동쪽 적봉리 쪽으로는 여러 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적봉리 회사 밀집 지역

4. 사회생활

1) 회화리 순사주재소

일제는 1910년 8월 수원경찰서 아래 6개소의 순사 주재소를 설치했는데, 평택지역에는 진위 순사주재소, 안중장 순사주재소, 평택 순사주재소를 두었다.[9] 이어 1914년 8월에 경찰서와 파출소 및 주재소 수를 늘리면서 진위경찰서가 신설되고 그 아래에 백봉·안중·진위·서정리 순사주재소가 설치되었다.[10] 1919년 3·1 운동 영향으로 보통경찰제를 실시하면서 경찰의 규모를 늘렸지만 평택의 경우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조선총독부고시」 제215호(1919년 8월 20일)에 의해 진위경찰서의 명칭을 평택경찰서로 변경했다.[11]



차경환이 기억하는 주재소 위치

일제강점기 회화리에 순사 주재소가 설치되었다가 금암리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를 문헌으로는 찾기 어렵고, 회화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된 내용이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화리 주민인 차경환(남, 1941년생)은 어렸을 때 건물만 남은 주재소가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집 뒤라고 했다. 그는 15세 전후 되었을 무렵까지 그 건물을 봤다. 50여 년 전에 헐었던 주재소 건물은 20~25평 규모로 문고리가 엄지손가락 만큼 굵었고, 유리창이 있었다. 그는 이 건물이 주재소 겸 직원들의 숙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8.15 해방되고 주재소가 금암리로 이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발행된 『평택의 독립운동가』에서는 회화리 주민의 증언으로 회화리주재소 터를 고증했으나, 3.1운동 당시 서탄면에 주재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서탄면민이 몰려간 주재소를 봉남리주재소였을 것으로 추정했다.[13] 반면에 안말 조재관(남, 1933년생)을 비롯한 금암리 주민들은 서탄파출소가 처음부터 안말에 있었다고 말했다. 회화리 출신이면서 공무원으로 18년 근무하다가 목사가 된 박흥덕(남, 1935년생)은 "차경환씨가 (회화리에 주재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허는데, 나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서탄파출소의 연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14] 여기에 일제 강점기 서탄면에 파출소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고, 1929년 설치된 하북지서의 관할하에 있다가 해방 후인 1947년 7월 서탄지서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2) 회화리보/이동협동조합

회화리 이동협동조합은 회화리보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회화리보는 금암교 남쪽의 오산천을 막아 회화리의 해정들에 물을 대선 관개 시설 명칭이면서, 동시에 회화리보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보의 운영을 위해 조직한 일종의 협동조합 명칭이기도 하다. 회화리보에서는 매년 가을 총회를 열

9) 『한국경찰사』1권, 1972, 736-737쪽.[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자료실]
10) 『한국경찰사』1권, 1972, 785쪽.[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자료실]
11) 『한국경찰사』1권, 1972, 877쪽.[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자료실]
12)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426쪽.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2, 2014, 435쪽.
13) 평택시, 『평택의 독립운동가』, 2018, 183-184쪽.
14) 평택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ggpolice.go.kr/pt)

어 1년 결산을 하고 다음 해 예산을 세우고 그 비용을 각출하였다. 또한 회화리 교회 앞 진위천에 안보에서 내려오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운영했다. 물레방아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마을 안에 정미소를 세우면서 중단되었다.

1964년 기흥저수지 물이 공급되면서 회화리보는 그동안 모인 재산으로 20마력짜리 풍년호 발동기를 구입해서 마을 안에 조합정미소를 차렸다. 조합 명칭도 ‘회화리보’에서 ‘정미소조합’으로 바뀌었다. 조합에서 정미소를 세우자 회화리에는 예전에 일본인이 세운 정미소와 더불어 2개의 정미소가 운영되었다. 두 정미소는 모두 1970년대 초반 매각되어 폐쇄되었다.

정미소조합은 이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당시 회화리 마을 130여 호 가운데 100호 정도가 조합원이었다. 조합원은 예전 회화리보에 가입된 사람들이었다. 회화리 이동조합에서는 마을 구판장도 운영했다. 구판장은 공회당 내에 두었다. 구판장에서는 가정 생활 필수품을 주로 판매했다. 구판장을 운영했던 것은 생필품을 구하려면 오산이나 송탄으로 나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마을 남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생겼다. 1970년 전후에 마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고, 가게가 들어서면서 이동조합 구판장은 경쟁력을 잃어서 결국은 문을 닫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2차선 도로가 나면서 문을 닫았다. 한편, 마을 구판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

차경환에 의하면 옛날 진위천이 흐르던 하천부지 1,600평이 1960년 전후 직강공사를 하면서 웅덩이가 되었다. 차경환이 이장을 봤을 때 새마을 사업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매일 나와 흙을 퍼다가 국유지였던 이 웅덩이를 메웠다. 변변한 장비가 없던 시절이어서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흙을 날랐다. 작업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까지 이어졌다. 결국 논 1,600평을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국유지였던 이 땅에 대한 점용(占用) 허가를 얻고 정부에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어 마을 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런데 이 논 남쪽에 배수펌프장이 들어서면서 정부에 반납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초반 차경환이 이장을 맡았을 때 마을 공동답으로 논 1,200평을 구입해서 2022년에 평당 27만원에 매각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 매각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각 대금으로 한 호당 4백만 원씩 나눴다. 매각해서 대금을 나눌 때 차경환은 회의 장소에 가지 않았다.

3)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마을회관



마을회관 위치 변화



옛 공회당 건물

수리조합 수로 공사가 시작될 무렵, 당시 차경환보다 나이가 10~15세 정도 많은 마을 청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마을 공회당' 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얘기했다. 마을 청년들은 공회당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손수 지게를 지고 수로 공사에 참여했다.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자 마을 이장이 "동네 사람이 쓸 건데 다 나가자!" 라고 제안하여 마을 사람들이 수로 둑 공사에 모두 나가게 되었다. 수로 공사에서 얻은 수입으로 부로쿠를 쌓고 기와를 얹은 20평 건물을 지었다. 건물터는 독지가가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나중에는 세를 받았다.

차경환은 "서탄면에서 무슨 정부 지원이 있으며, 사리와 회화리가 맨 먼저여. 시범부락, 모범부락이니까." 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와 이전의 공회당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려 하자 차경환은 옛 건물을 두고 새로 짓자고 제안했으나, 새로 건물을 지을 터가 없어 처음 지은 공회당을 헐고 신축했다. 이때 지은 마을회관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건물은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회화리 마을회관



차상운 공적비

마을회관을 새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 1990년 무렵 다시 신축비용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되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신축 부지를 모색했다. 마을 외곽인 회화리 교회 근처에 1,600평 정도의 마을 공동답이 있지만, 이곳은 마을을 지나치게 벗어난 곳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 상수도 시설 터를 제공했던 차상훈을 다시 찾아갔다. 이전처럼 마을 사람들은 세를 낼테니 마을회관 신축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차상훈은 "내가 그걸 야박하게, 어떻게 그걸 세를 받느냐" 면서 즉석에서 자신의 토지 138평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로 넘겨주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1층 20평, 2층 10평의 건물을 새로 지었다. 1층은 회의 장소로 쓰고 2층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나 도서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다.

2010년 미군기지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차원에서 마을에 4억원이 지원되었다. 회화리는 비행장과 근접해 있어서 시팽기 소음 피해가 커서 우선권이 있었다. 이때 지원으로 1·2층 40평 규모로 현재의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마을회관 입구에 토지를 기증한 차상훈 공적비가 있다.

4) 가정 생활

(1) 혼례

차경환은 군 제대 후 1년만인 26세에 외가(外家)가 있는 양감면 대양리로 장가들었다. 그는 26세에

결혼하는 것은 당시에 약간 이른 나이라고 했다. 차경환보다 5세 정도 선배들은 결혼하고 군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또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대를 마치고 결혼했다. 할머니는 당시 24세였는데, 그녀 역시 “그때 늦고 이르고 그러지는 않았다.” 고 말했다. 중매는 외삼촌이 섰다. 25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는 신부를 외삼촌이 조카에게 소개했던 것이다. “맞선보러 누구랑 가셨냐?” 는 질문에 차경환은 “남자가 먼저 가는 거지. 항상” 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하고 동탄면에 사는 이모와 함께 맞선보러 갔다고 했다. 그는 “양가(兩家)가 사전에 서로 알아볼 만큼 알아봤기 때문에 맞선에서는 예비 신랑·신부가 둘이 따로 방에서 잠깐 만나서 서로 좋은지 싫은지를 확인했다.” 면서도, “우리 때만 해도 그냥 부모님이 해라 그럼 하는 거지. 뭐 눈 애꾸고 곰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말했다. 그렇게 봄에 맞선을 보고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만 해도 약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고, 약혼식이라는 것은 보통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고 사진에다 ‘약혼기념’ 이라고 썼다. 결혼식은 양감면 신부댁에서 전통혼례식으로 올렸다. 차경환은 송탄에서 트럭 1대, 택시 1대를 하루 세를 내서 타고 갔다. 당시 송탄에는 시발 택시가 총 3대 있었는데, 회화리에서 택시 타고 시집오는 경우는 그가 결혼할 때 처음이었다.

아침에 떠나서 오전에 결혼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점심은 신부댁 마을 잔치였다. 결혼식 당일날 신랑 집에서도 결혼식 잔치를 벌였다. 신랑과 신부가 혼례식을 올리고 집에 도착하면 잔치가 진행되고 있어 신랑은 축하하러 온 어르신들게 술 한잔씩 따라드리며 인사를 올린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 8시 무렵이 되면 조상에게 결혼 사실을 고하는 사당 차례를 지낸다. 사당이 따로 있지 않아 차례는 대청에서 지냈다. 사당 차례는 고조(高祖)까지 지방을 써서 신주를 모시고 제사 때와 같이 제물을 차린다. 사당 차례가 끝나면 폐백을 드린다. 폐백을 드리는 것으로 결혼식 일정은 모두 끝이 나고 신방으로 들어간다. 첫날밤에는 신랑의 형수뻘이 되거나 시집간 누이들이 방문에 구멍을 뚫고 엿보는 장난을 했다.



차경환 부부

결혼식 후 3일만에 재행을 갔다. 재행 갈 때 이바지 음식으로 엿을 만들었다. 당시는 엿이 귀한 음식이라 주로 엿을 가져갔다. 엿과 정종 술 1병을 들고 신혼부부 둘이서 송탄까지 걸어가서 수원 가는 버스를 타고, 수원에서 다시 버스 타고 발안에서 내려 걸어갔다. 버스를 타지 않고 회화리에서 걸어가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 타고 수원으로 돌아 하루 종일 걸렸다. 재행 간 첫날 저녁 마을 청년들이 다리 묶어 매다는 과정을 겪고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 과정을 통해 처갓댁 마을 사람들과 안

면을 트고 친분을 쌓았다. 재행 간 처가댁에서는 이틀 밤을 자고 하루 종일 걸려서 본가로 돌아왔다. 처갓댁에서도 이바지 음식으로 엿을 해줬다.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만에 분가했다. 둘째 아들인 차경환는 분가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조그만 집 한 채와 논 1,600평을 받았다.


진병호 부부

진병호(남, 1944년생)와 우완숙(여, 1945년생)은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각각 26세와 25세가 되어 결혼했다. 결혼식은 송탄 좌동에 있는 문화예식장에서 올렸다. 당시 송탄에는 문화예식장과 더불어 신장동에 한성예식장이 있었다. 진병호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택시타고 집으로 왔다."고 했다.

가곡리에서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나고 자란 고이자(여, 1941년생)는 21세에 5세 연상인 장경옥과 결혼했다. 부친의 큰 누님인 고모가 회화리 서강열네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조카딸을 장경옥에게 중매를 섰다. 35세에 혼자되신 시어머니와 회화리로 시집간 고모가 함께 선을 보러오셨다. 선보러 오신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고 고모랑 얘기하다가 그날 저녁 식사까지 하고 돌아갔다. 혼담이 성사되자 원래 종교를 갖지 않았던 고이자는 천주교 교리 공부를 시작했다. 남편인 장경옥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라 혼배성사를 하려면 교리를 배우고 문답을 외워서 영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집 가려고 오랜만에 문답을 외우려니까 내용이 자꾸만 햇갈려서 본인은 포기하려고 했다가 부친에게 야단도 맞았다. 고이자는 "진위초등학교 졸업하고 진위고등공민학교 다니다가 1년도 안 돼서 그만뒀다."고 했다. 부친의 성화로 결국 문답을 외워서 공소에서 치르는 찰고를 통과해서 영세를 받고, 서정리 성당에서 혼배성사로 혼인식을 올렸다. 남편인 장경옥의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회화리 시집으로 올 때는 지프차를 타고 왔다. 시댁에서 1년을 살다가 둘째 아들인 남편과 함께 분가해서 살았다.

(2) 출산과 육아

결혼하고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내천리 조변호사 댁에 있는 향나무 가지를 잘라다 삶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변호사 댁은 아들이 8형제였는데 그 집 향나무를 잘라다 먹으면 아들을 얻는다는 속설이 있어서였다. 그래서 그 나무가 수난을 겪다가 결국은 죽어버렸다.

차경환 부부는 결혼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임신하고 나서도 금기시 하는 음식이 없이 보통 집에서 먹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었다. 준비물로 처음 준비한 것은 배냇저고리였다. 시어머니와 함께 옷감을 떠다가 집에서 배냇저고리를 만들었다. 귀저기와 포대기는 친정어머니가 해 왔다. 귀저기는 천을 끊어다가 만든 것이었다.

아기 낳은 지 백일이 되어서는 팥단지와 떡을 해줬다. 돌이 되어서는 별도로 잔치를 하지 않고 백일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 팥단지와 떡을 해주고 기념 사진을 찍어줬다. 차경환은 "돌잔치가 어딨어. 그 당시에"라며 회화리에서 일반적으로 돌 잔치를 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돌잔치는 하지 않았지만, 친 형

제만 집으로 불러서 식사를 했다. 사촌도 안 불렀다. 여러 사람들을 부르는 돌잔치는 그의 손주대에 와서야 했다. 차경환 부부는 아들과 딸, 둘을 낳았는데 남매 모두 젖은 두 살이나 세 살까지 먹였다.

21세에 결혼한 고이자(여, 1941년생)는 출산 때 아이를 시어머니가 받았다. 그녀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죽네사네 해도 그냥 집에서 다 낳죠.” 라고 했다. 그렇게 다섯 아이를 낳아 길렀다.

(3) 장례 문화 / 상여집

차경환(남, 1941년생)은 회화리에 연반계 혹은 상포계 같은 조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회화리는 상(喪)이 나면 이장이 자동적으로 호상(護喪)이 되기 때문에 상포계가 필요없다면서 상포계 조직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상여를 관리하는 등 이장이 장례식 전반을 주관하였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상가(喪家)에서 상장례 과정을 도왔다. 지금은 상가에서 상주들이 먹거나 문상객을 대접하는 음식의 제한이 거의 없지만, 차경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염습(殮襲)하기 전에는 콩죽이나 팥죽을 먹었고, 염습이 끝나야 밥을 먹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팥죽 품앗이를 했다. 자신이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다른 집에 초상이 나면 팥죽을 쒀다 상가에 부조를 했다. 팥농사가 흉년인 해는 콩죽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팥죽이나 콩죽 품앗이 외에 별도로 부조하는 일은 없었다. 차경환은 자신이 어렸을 때만 해도 문상만 하고 부의를 하지 않았지만 5.16 군사 정변 후인 1960년대 초부터는 거의 의무적으로 부조하는 문화로 바뀌어 갔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친한 친구나 친척 간에서나 부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상만 했다는 것이다.



회화리 두 번째 상여집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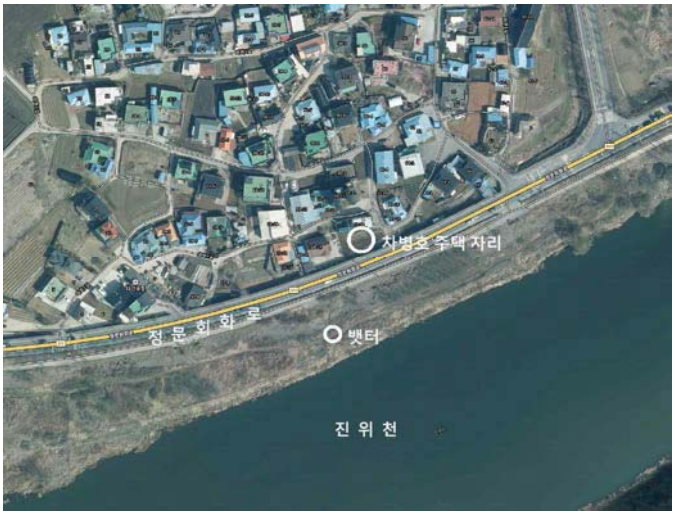
마을에서 마련한 상여집은 두 번 옮겼다. 처음에는 들판데 있었다가 1970년대 초반 마을에서 여러 죽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자 마을 위에 상여집이 있으면 안좋다고 해서 마을 서쪽 길가로 이전했다. 그런데 길가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피해서 아예 금암리 공동묘지로 옮겼다. 장지는 보통 집안의 선산으로 가지 않으면 금암리 공동묘지로 정했다. 상여소리는 임창묵이 잘했다. 차경환은 “임창묵이 성대가 좋고, 학교 교육 같은 것은 받지도 않았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들은 얘기를 잘했고, 상여 나가면 선소리를 많이 했다.” 고 하면서 상여 나갈 때 선소리로는 회화리에서 최고라고 말했다. 회화리 앞 진위천에서 배를 부리던 홍춘성도 상여나가거나 달궁질 할 때 선소리를 했다. 상여가 나갈 때 상주에게 받은 노자(路資)나 달궁질 할 때 받은 돈은 마을 기금으로 돌렸다. 상주는 각자 경제적 사정에 따라 넉넉한 집에서는 좀 많이 내놓고 생활이 어려운 집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박흥덕(남, 1935년생)은 24세에 전도사와 함께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갔다. 기도원에서 우연히 어느 부부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그 부부의 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18세 딸인 이정옥이 너무 어리다고 승낙을 미루었다. 이정옥의 부모가 기도원에 가고 없는 사이에 전도사를 모시고 둘이 약혼서 약혼 예배를 올리고, 아버지께도 약혼 사실을 말씀드렸다. 박흥덕이 22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재혼을 권했지만 거부하셨다. 그러던 중 약혼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살림할 사람이 없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종용했다. 군입대 후 1등병이었을 때 휴가 나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 다시 귀대했다가 특별 휴가를 받아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서울 예비 처가댁에 들렀는데 사촌 동생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처부모는 딸더러 "기왕에 맺어진 거니까, 너 따라가라"고 권했다. 부랴부랴 둘이서 기차를 타고 회화리까지 왔는데, 집안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박흥덕이 아버지를 모셔놓은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집안 어른들은 "장손이 굴건을 쓰고 장례를 모셔야 한다."면서 집안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말렸다. 총각으로 모시면 보자기를 써야 하니, 여자가 왔으니까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다. 그래서 신부 부모님을 오시라고 밤에 사람을 보내고, 밤 11시에 가곡교회 김흥종 목사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 부모님은 결혼식이 다 끝난 새벽에야 도착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집안 어른들이 "가서 뵈라"고 해서 돌아가신 후 처음 뵈었다. 결혼식을 앞뒀기 때문에 술도 담가놓고 콩나물도 길러 놓는 등 음식 장만을 했었는데, 결혼식 하려고 준비한 음식으로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다.

(4) 제사에 관한 에피소드

차경환(남, 1941년생)의 당숙인 차병호는 한학에 밝았고 달변이었다. 차병호의 집은 진위천 제방 너머 진위천 쪽으로 있었고, 집 앞쪽으로 뱃터가 있었다. 그는 약 4만 평 정도의 농지를 가진 부농이었다. 사랑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머슴들이 기거했고 다른 하나는 오가는 길손들이 묵어가는 접견실이었다. 진위천을 건너려다 너무 늦어서 못 건넌 사람들은 그 집 사랑방에서 노상 묵고서 가곤 했다. 길손들이 묵어갈 때면 식사까지 제공했다.



차병호 집터와 뱃터 위치

어느날 길손이 진위천을 건너려고 차병호의 집 앞에 와서 머슴에게 뱃사공네 집을 물었다. 길손이 부지런히 뱃사공을 찾아갔으나, 뱃사공은 시간이 너무 늦어 배를 띄울 수 없다고 버텼다. 할 수 없이 길손은 당숙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밤이 되자 적적한 맘에 차병호는 사랑방에 들러 길손과 얘길 하면서 길손에게 저녁밥을 먹었냐고 물었다. 길손이 못 먹었다고 하자 식모를 불러 길손에게 저녁밥을 내오라고 했다. 저녁 식사상을 내왔는데, 길손은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멀거니 밥상만 들여다봤다. 그래서 당숙이 "아 왜 안 먹느냐?"고 묻자, 길손은 "사실은 오늘이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배를 못 타서 못 갔다. 지금 밥을 보니까, 뒀다가 12시에 절이라도 한 번 하고 먹어야 할까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차병호는 "어여 밥 먹으라."고 하면서 "일식 삼찬이면 제사 지낸다는데, 아 내가 일식 삼찬 못해주겠냐!"고 하면서 길손에게 먹기를 권했다. 12시가 돼서 제사상이 차려지자 길손은 사랑방에서 모친의 제사를 지냈다. 그 과정을 다 보고 당숙이 안채로 들어오니까 그의 어머니가 자다가 깨서 방금 전에 꿈꾼 이야기를 했다. "방금 자다가 깼는데, 어떤 하얀 노인네가 감사하다고 절을 하면서, 아이

구 참 오래간만에 참 밥 잘 먹었다. 잘 얻어먹었다.” 고 말하면서, 닭 우는 소리에 놀라서 깼다는 것이다. 차병호가 그의 어머니더러 그 모습을 물으니 어머니는 그 노인네의 생김새를 상세하게 얘기했다.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차병호는 다시 사랑방으로 가서 길손 어머니의 모습을 물었다. 길손이 말하는 형상이 자신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모습과 꼭 닮았다. 이후 그는 제사 지낼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사는 꼭 지내야지.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제사를 소홀히 하느냐!” 고 말하곤 했다.

4) 의식주

(1) 식수 사용

회화리가 진위천 바로 옆에 자리하고 하천 물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차경환(남, 1941년생)이 어렸을 때는 하천 옆에 사는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고 김장 배추를 씻기도 했다. 마을이 하천 옆에 있고, 마을이 들어선 터의 토질도 모래가 많아서 5~6m만 파 내려가면 맑은 물이 나왔다. 차경환은 “우물이 거의 10가구당 1개 정도로 많았다.” 고 했다. 반면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완숙(여, 1945년생)은 마을에 공동 우물은 두 개 있었다고 했다. 진병호(남, 1944년생)에 의하면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대부분 마당에 관정을 박고 펌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공동 우물이 거의 없어졌다. 바닥이 순 모래 땅이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할 때 땅을 따로 파지 않고 1인치짜리 파이프를 망치로 두들겨서 박았다. 회화리 마을 아무데나 파이프가 6~7m 정도만 들어가면 맑은 물이 나왔다. 25세에 결혼한 우완숙은 자신이 처녀였을 때 대부분 펌프를 설치했다고 했으니, 1970년 이전에 펌프 우물이 대세였던 것이다.


마을 공동우물이 있던 자리(박흥락 집 앞)

수량이 많고 맑았던 회화리 우물의 수질이 점차 나빠지게 되었다.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모래 사이를 지나며 정화되어야 하는데, 진위천 상류 쪽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마을 앞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의 모래를 파가면서 정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정부 지원으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할 터를 구할 수가 없자, 이 마을 출신이면서 안양으로 이주한 차상훈으로부터 임대를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차상훈은 “동네 사람이 물 먹는 거를 내가 무슨 세를 받냐. 물을 생명수라는데 좋은 물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무료로 터를 제공했다. 예전에는 관정을 20자만 박아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물이 오염되어 암반을 뚫어야 했다. 그래서 암반을 200m 가량 뚫고 간이 상수도를 설치했다. 물탱크가 설치된 곳은 현재 마을회관 앞 정자를 지어놓은 자리이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관정은 폐쇄되었다.

진병호(남, 1944년생)는 1984∽5년 무렵 회화리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다고 했다.

(2) 식생활

부친이 약 1만 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한 차경환 집안은 마을에서 부자에 속한 편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 혼식은 했지만 꽁보리밥은 먹지 않았다고 했다. 박흥덕은 옛날 마을 사람들의 식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보릿고개, 아 풀뿌리 삶아서 먹구, 여름엔 쌀밥 구경두 못해요. 무슨 쌀밥이여." 라고 옛날을 회상했다. 그는 옛날에는 보리밥도 먹을 수 있으면 부자라고 했다. 보릿겨로 개떡을 쪄먹으면 맛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밀을 빻은 밀기울(밀 껍데기)로 떡을 해먹으면 대변에 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있었다. 봄이면 나물 뜯어다 쌀을 조금 섞어서 죽을 쒀먹기도 했다. 박흥덕은 호박죽 같은 것은 고급이라고 말했다.

(3) 의료

마을 사람들은 크게 아프지 않으면 집에서 민간 요법으로 해결하거나 무당을 찾곤 했다. 차경환(남, 1941년생)은 6∽7세 되었을 무렵에 배가 아프면 어머니께서 야리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이 손으로 배를 쓸어주면 배 아픈 증세가 없어졌다. 해마다 여름에 창궐하는 눈병인 개시바리[개씨바리: 눈에 핏발이 서고 눈곱이 끼며, 환한 데서는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 어려운 눈병을 속되게 이르는 말(다음 국어사전)]를 앓게 되면 조그만 헝겊 조각ㅇㄹ 가지고 눈물을 닦았다. 개시바리가 오게되면 수건을 함께 쓰는 식구들에게 옮겼다. 또 삼스는 눈병이 오면 끄을음이 묻은 굴뚝에 사람 형상에 눈을 그리고 눈에다 바늘를 꽂았다. 차경환은 "그렇게 낫는 사람이 많은 겨" 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서 눈이 좋지 않았는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바가지를 머리에 씌우고 "새눈 캄캄, 내 눈 밝다. 새눈 캄캄 내 눈 밝다." 라고 주문처럼 외면서 바가지 위를 통통 쳤다. 밤에 대변을 자주 보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밤중에 아이를 닭장 앞에 데리고 가서 "닭이나 밤똥 누지, 사람도 밤똥을 누느냐." 라고 주문처럼 외었다.

머리에 뾰루지가 나면 칼로 째고 상처가 잘 안 나으면 산에서 오이풀을 뜯어다 삶은 물에 4∽5시간 담그면 이튿날이면 짓무르던 상처가 꾸덕꾸덕해졌다. 예전에는 오이풀이 지천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낫에 베인 상처 같은 데는 쑥을 쪄서 싸매거나 된장을 발랐다. 두드러기에는 화장실 위 초가지붕 조금 썩은 지푸라기를 한 주먹을 뽑아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끝에 불을 붙였다 끈 다음에 두드러기 난 부위에 그 연기를 쏘이면 금방 나았다. 입이 돌아가는 구안와사에는 미나리아재라는 풀을 짓찧어서 질척질척 한 것을 입이 돌아가는 반대편 얼굴에 붙였다. 너무 많이 붙이면 입이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른 떼야 했다. 미나리아재라는 풀은 도랑에 많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다. 예전에 남자 아이들이 '산증' 이라는 게 많았다. 이것은 음낭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적어지는 증상인데, 창자가 음낭쪽으로 밀려나오는 탈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탈장이 일어나면 도랑에서 장구애비라는 벌레를 잡아다 구워서 붙이면 정상으로 돌아왔다. 차경환은 "그게 아주 직효약이지" 라고 했다.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발랐고, 예전에 많았던 다래끼는 곪은 자리 눈썹을 뽑으면 나았다.

차경환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곤 했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때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아이들을 키울 때 송탄에 병원은 3군데가 있었다. 정문 앞 남산병원, 송북시장 근처 이갑재 병원, 좌동의 우송병원이 있었다.

(4) 연료

회화리는 주변에 하천과 들판만 있고, 산이 없기 때문에 땔나무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차경환은 땔나무가 부족한 것이 큰 고역이이었다고 했다. 들판이 넓었기 때문에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짚을 많이 땠지

만, 농사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짚도 귀했다. 벼 수확이 끝난 들판에서 검불을 긁어다 때기도 하고 수수대와 콩대 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뽑아다가 연료로 썼다. 금암리 쪽에 있는 산으로 솔방울도 따러 다녔지만 그것도 산 임자가 못하게 했다. 차경환은 “여기는 산 나무는 몰러”라면서 연료 확보의 어려움을 표했다.

연탄은 진병호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인 1970년대 초반에 처음 들어왔다. 금암리에 도매상이 있어서 연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송탄 좌동에서 사오기도 했다. 연탄은 보통 100∽200장 단위로 샀다. 연탄이 들어오면서 부엌에 연탄 아궁을 만들었다. 부엌 아궁 3개 가운데 연탄 아궁은 가운데 1개를 하고, 양옆 두 개 아궁은 짚을 땠다. 진병호 부인인 우완숙(여, 1945년생)은 “연탄 아궁은 주로 난방용으로 쓰면서 찌개 같은 것을 끓이고, 밥을 하거나 소죽 끓일 때는 모두 짚을 땠다.”고 했다. 연탄이 들어올 무렵에는 석유 곤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암리에 석유 가게가 없어서 석유를 사려면 송탄으로 나가야 했다. 진병호는 “경운기 글구 나가서 석유를 사가지구 오는 겨 그냥.”이라며 웃었다.

5. 문화생활

1) 교육

회화리에는 2개의 강습소가 있었다. 하나는 경신학교 1회 졸업생인 황모(黃某)와 배재학당 출신의 최기환(崔基煥)이 주도하여 1920년 회화리에 세운 4년제의 회화리강습소이다.

회화리강습소는 수료 후 진위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서울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상당한 교육 성과를 올렸으나 1930년 서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폐교되었다.[15] 다른 하나는 1924년 서탄면장 이필성(李弼成)의 주도로 회화화리에 들어선 진서강습소(振西講習所)이다.[16] 진서강습소는 이필성의 발기로 예산 천 원을 들여 설립되었다. 천 원의 예산 중 5백 원은 면장인 이필성이 출연하고, 5백원은 일반 학부형들이 부담했다. 1924년 4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진서강습소는 17칸의 교실에, 모집된 학생이 80여 명에 이르렀다.


李面長敎育熱 京畿道
振威郡西炭面은從來敎育機關이
完全치못하야一般任民은男女를
勿論하고遺憾으로지내든바同而
長李弼成氏의發起로經費千圓豫
算을세운後同而檜花里에振西講
習所를設立케되엿는데去十日부
터敎室十七間을建築하게되얏스
며임의募集된學生은八十餘名에
達하얏슴으로날마다敎室落成되
기만苦待하는中이오經費千圓으
로말하면李面長의活動으로全部
周旋되엿슬뿐만아니라그中五百
圓을自己가擔當하기로하고其餘
五百圓은一般學父兄들이擔當하
게되얏다고(平澤)

진서강습소 신문 기사(『동아일보』, 2014.04.14.)



회화리강습소 터

15)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하권, 2001, 744쪽.
16) 『동아일보』, 1924년 4월 14일.

차경환(남, 1941년생)은 설립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강습소의 이름도 모르지만, 회화리 박찬옥 집에 강습소가 1개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회화리강습소에 대해 '『평택의 지명과 마을이야기』Ⅲ'에는 박찬옥과 직접 인터뷰하여 '그의 집터에 1920년 4년제 회화리강습소가 설립되어 서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1930년대 폐교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차경환은 박찬옥 집에 있던 강습소가 서탄초등학교가 개교하는 1930년 이후인 1940년 무렵에 설립되었다고 하면서, 함석으로 지붕을 했고 교실은 조그맣게 4칸짜리 건물이었다고 말했다. 1920년 설립된 회화리강습소가 문 닫은 후 다시 설립된 강습소가 아닐까 하고 추정해보지만 단정은 어렵다.

차경환은 강습소로 쓰는 건물은 봤지만 그 때 자신은 너무 어려서 다니지 않았고 6∽7년 선배들이 강습소에서 공부했다. 차경환은 예전에 "강습소에 다니면서 배우고 시험 봐서 서탄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사람 얘기도 들었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강습소에서 배웠다. 차경환은 강습소가 해방되면서 그만두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흥덕(남, 1935년생)은 자신의 당숙인 박찬옥의 집에서 운영된 강습소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으나, 강습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차경환의 형님은 서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송탄 지장동에 있는 고등공민학교에 다녔다. 당시에 송탄이나 오산 쪽에 중학교가 없어서 정식 중학교가 아닌 고등공민학교에 진학한 것이다. 고등공민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났고, 폭격을 맞은 학교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았다. 이후 그의 형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농사 일을 했다.

서탄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인 차경환(남, 1941년생)의 초등학교 회화리 동기는 13~14명이었다. 그중 중학교는 차경환을 포함한 3명이 진학했다. 1명은 오산중학교로 갔고, 다른 1명은 영등포 중학교로 갔다. 오산중학교로 진학한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영등포 중학교로 진학한 동기는 후에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는 서울에 사촌 형이 살고 있어서 서울 환일중학교에 다녔다. 그때만 해도 웬만한 사람은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웠다. 경제적 여건도 맞아야 했고, 입학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도 갖추어야 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농사 안 짓던 때이다. 차경환은 환일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인 회화리 집에 있으면서 큰아버지 댁에 가서 한문 공부를 했다. 큰아버지는 교회 장로였는데, 한문 학자였다. 큰아버지 댁에 기거했던 회화리 교회 전도사와의 인연으로 중앙고등학교 강의록을 신청해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농사 관리를 하면서 틈틈이 전도사한테 배우면서 공부했다.

박흥덕(남, 1935년생)은 서탄면에서 공무원 생활 18년을 하다 목사가 되어 서안성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은퇴했다. 그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를 졸업했고, 농지를 7~8천 평 소유했다. 박흥덕은 서탄초등학교 16회 졸업생으로 일제강점기에 입학하여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그는 당시 학교에 일본인 교사가 몇 명 있었고, 2학년 때 가네모도라는 일본인 교사가 담임을 맡았다. 학교생활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고 일제 말기 공무원들이나 순사들이 와서 강제로 숟가락이나 유기그릇 등을 빼앗아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초등학교 동기는 87명이 졸업했는데, 2개 반으로 나눠서 공부했다. 동기생 가운데 중학교는 5~6명이 입학했다. 당시는 중학교 입시가 있어서 중학교 진학을 할 아이들은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과외 수업처럼 따로 소집해서 수업받았다. 보통 선생님이 나와서 지도를 해주고, 자습도 하고, 숙제도 내줬다. 6세 때부터 회화교회에 다녔던 박흥덕은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로 나갔다.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는 절구에다 보리타작 하는 태질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그다음 날 "아 이놈이 이거 다 틀렸다!"면서 아들의 책가방을 뜨물 통에 넣었다. 하지만 부친의 교육열이 대단해서 큰 아들인 박흥덕을 수원으로 유학시켜 그는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자식들 학비 마련을 위해 소도 팔고 농지도 일부 팔았다. 수원농고를 졸

업한 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고, 농고 출신들은 무조건 공무원을 특채했다. 그해 8월 14일부로 특채된 박흥덕은 서탄면사무소 산업계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24세가 될 무렵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셔서 박흥덕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다. 그때 그의 동생인 박흥일은 서울의 명문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학비를 책임져야 했던 박흥덕은 동생에게 철도고등학교 전신인 운수고등학교를 권했다. 형의 권유에 따라 운수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철도국 발령이 났지만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교사로 부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국가공무원 시험을 거쳐 상공부 산하의 과학기술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1급 공무원인 차관보까지 승진하고 은퇴했다.

박흥락(남, 1946년생)은 서탄초등학교 26회이다. 회화리에서 그의 동기생은 25명 정도나 되었고, 그중 여학생 13~14명이었다. 회화리에서 학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그때 1개반에 60여 명씩 2개반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회 졸업생인 차경환 동기생들 보다 1학급당 인원이 10여 명 늘어난 숫자이다. 박흥락은 당시 학교 시설이 모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었다고 했다. 해정들 북쪽 금암리나 마두리는 오산중학교에 진학했지만, 회화리는 송탄으로 다녔다. 박흥락의 회화리 동기 가운데 10명 정도가 서정리 성당 내에 있는 효명중학교로 진학했다. 진위천을 건너 신야리-구장터-목천동 건널목-숯고개-서정리 역 앞 코스로 서정리 성당까지 걸어갔다. 박흥락과 동창인 이보철은 20리 거리라고 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이 걸렸다. 등하교에 매일 왕복 3시간을 걸어서 운동화 밑창이 빨리 닳아 1달 정도면 버려야 했다. 중학교 동기 가운데 2명이 수원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박흥락과 함께 서탄초등학교 26회인 이보철(남, 1947년생)과 차수영(여, 1946년생)은 생년은 다르지만 생일은 1달 차이의 부부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회화리에서 서탄초등학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회화리의 동기생들은 남학생이 14명이었고, 여학생도 그 정도 숫자였다. 학교 동기생은 한 개 학급에 63~64명씩 해서 3개 학급이 있었다. 차수영은 “그때는 그만큼 많았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초등학생이 1명이다.”고 했고, 옆에 있는 이보철은 “그것도 이사온 사람이여”라고 말했다. 저학년 때는 금암 1리 북바위나 하북리 쪽박산으로 소풍을 갔고, 5~6학년 때는 진위면 동천리에 있는 만기사나 멀리는 용주사까지 걸어서 갔다. 이보철은 용주사까지 지름길로 걸어갔는데도 두어 시간은 걸렸다고 했다. 소풍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닭싸움 게임을 하며 전체가 노는 시간을 가졌다. 회화리 동기생 28명 중 남학생은 5~6명 정도, 여학생은 2명이 중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는 대부분 서정리 성당 내에 있는 효명중학교로 걸어 다녔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은 회화리에서 부유한 집 막내아들 1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걸어 다녔다. 차수영(여, 1946년생)은 중학교에 걸어 다니면서 나무내(목천동)을 지나면서 이곳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꿀꿀이죽(미군부대에서 나온 잔반을 끓인 죽)을 깡통에 담아서 사먹는 장면도 보았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했다. 동기인 박흥락의 기억과는 달리 이보철은 중학교 동기생 8명 중에 고등학교는 3명이 진학한 것으로 기억했다. 그 중 하나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이보철은 수원으로 다녔다.

회화리 출신으로 평택 시내에 거주하는 장용재(남, 1961년생)은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효명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지금보다 많이 낮았던 제방둑길을 타고 금암교-서탄입구-국도1호선-효명중·고 코스로 통학했다. 시간은 대략 50분~1시간이 소요됐다.

2) 종교

(1) 회화교회

■ 소재지: 서탄면 회화길 33 (회화리 35-8)

박흥덕(남, 1935년생)은 6세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회화리 밀양 박씨 종가의 장손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어디 절하지 말아라' 라는 신앙 교육을 받아서 제사 때 다른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도 그냥 서서 기도만 했다. 그는 군 제대 후 서탄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8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30세에 회화교회 장로가 되었다. 그는 차기용과 더불어 회화리 교회 초대 장로였다. 박흥덕은 장로 시절 회화교회 영수인 차덕경의 고증을 받아서 회화교회 연혁을 정리했다. 박흥덕은 18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목사가 되어 1982년 서안성교회를 개척했다.



회화교회 마지막 이전과 현재 위치


회화교회

다음은 회화교회에서 정리한 연혁의 내용이다. 박흥덕은 회화교회의 초기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차덕경 영수에게 고증받아 주요 연혁을 정리했고, 회화교회에서도 이를 토대로 교회 연혁의 내용을 완성했다.

- 1901. 10. 조예경 권사 외 10여 명이 변조진(G. M. Burdick) 선교사 협조로 감리교회 설립
- 1902. 04. 초가로 예배당 6칸 신축
- 1908. 05. 도서원 선교사 시무, 장로교회로 가입
- 1928. 03. 노애리 선교사 시무
- 1933. 07. 박승명 전도사 시무
- 1936. 02. 황희철 전도사 시무
- 1938. 09. 예배당 4칸 신축
- 1943. 08. 홍수로 예배당 훼손, 9월에 홍승열 집사 대지 기증하여 3칸 신축
- 1944. 04. 홍승열, 노승호 초대 영수로 초대
- 1950. 05. 예배당 이전 신축(대지 150평 홍승열 영수 헌납)
- 1952. 09. 강창오 장로 교역자로 시무
- 1953. 11. 임경재 전도사 시무

- 1954. 03. 고등공민학교 설립
- 1954. 05. 마두리에 제일교회 개척
- 1955. 03. 김춘태 전도사 시무
- 1957. 11. 고등공민학교 운영난으로 폐교, 제일교회도 동시 폐교
- 1958. 05. 한만석 전도사 시무
- 1959. 05. 전동대 전도사 시무
- 1960. 03. 서정덕 전도사 시무
- 1961. 05. 이군재 전도사 시무
- 1963. 04. 임창극 전도사 시무
- 1964. 10. 차기용, 박흥덕 초대 장로 장립
- 1968. 03. 예배당 이전 신축(서강열 집사 대지 600평 기증, 건평 40평, 사택 13평)
  - 현재 교회 자리
- 1969. 08. 15. 헌당식
- 1969. 12. 서성준 목사 취임(1대)
- 1972. 04. 교육관 27평 신축
- 1974. 02. 최경섭 목사 취임(2대)
- 1977. 05. 박동규 목사 취임(3대)
- 1978. 05. 김광호 목사 취임(4대)
- 1981. 10. 80주년 기념으로 목사관 신축
- 1981. 11. 김재용 목사 취임(5대)
- 1992. 10. 구자환 목사 취임(6대)
- 1998. 05. 18. 예배당 신축(현재의 교회당 10월 3일 헌당)
- 2006. 04. 30. 임동식 목사 취임(7대, 부임: 1월 22일)
- 2011. 08. 28. 최병찬 목사 취임(8대, 부임: 7월 26일)
- 2012. 08. 15. 대교육관 신축
- 2013. 06. 교회 본당 내외(內外) 전체 리모델링
- 2017. 04. 02. 옛날 교회 종 복원 설치
- 2023. 08. 권순영 목사 취임(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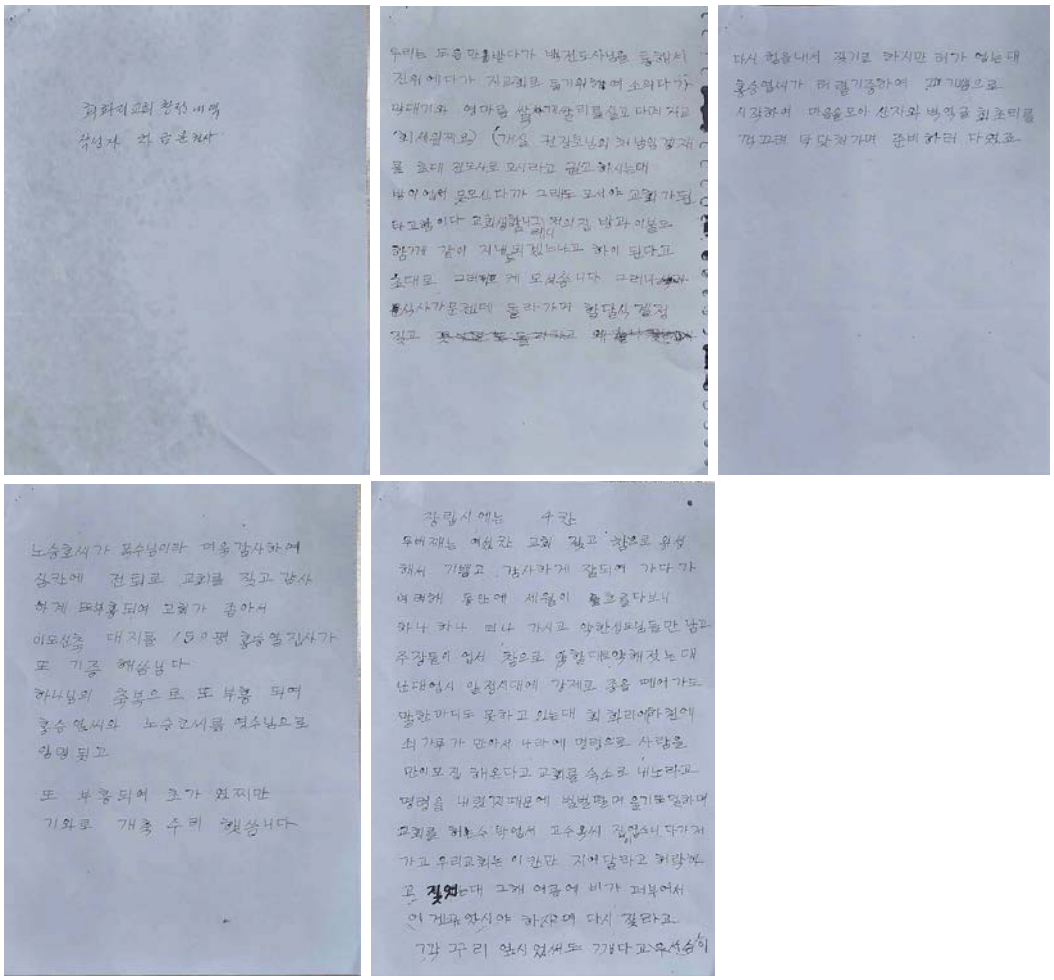
회화교회는 변조진(G. M. Burdic) 선교사 1901년 감리교회로 설립되었고, 선교구역 조정에 따라 1908년 장로교회로 전환되었다. 박흥덕은 교회 설립 초창기에 차기용 장로가 교역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재웠을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기억했다. 차은봉 권사 역시 전도사를 집에서 재워주는 등 교회 발전에 힘썼다.

회화교회 연표에는 1902년 예배당을 6칸으로 짓고, 1938년 4칸으로 지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회화교회 초기 신자였던 차금분이 사망 전에 남긴 손수 남긴 기록에는 창립시에 4칸이고 두 번째가 6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홍수가 났던 1943년에는 일제의 명령에 의해 회화리 마을 옆 진위천에서 쇳가루를 채취하려는 인부들에게 교회를 내주었다는 내용도 있다. 이로인해 다시 교회당을 2칸으로 지었다가 그 해 여름 홍수로 교회 터마저 유실되자 홍승열이 터를 기증하게 되었다.

1950년 홍승열이 또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토지 150평을 기증하여 교회를 새로 지었다. 이후 1968년

당시 서탄초등학교 교사였던 서강열이 회화리 35번지에 596평을 기능하여 새로 건물을 신축했던 곳이 현재 위치이다.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은 1998년에 신축하였고, 2013년에 리모델링한 모습이다.

차금분의 육필 기록에는 회화교회 발전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만 하다가 소 마차에 쌀을 싣고 다니며 지교회인 가곡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도 실려있다.



회화교회 차금분 권사의 생전 친필 기록 사본(자료출처: 박흥덕 제공)



1950년 신축교회와 경기노회 성경학원 기념사진(사진출처: 회화교회 제공)

회화교회 연표에는 6.25 전쟁 후인 1954년 3월 마두2리 사업소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같은 해

5월에는 마두리에 제일교회를 개척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박흥덕은 회화교회 전도사였던 임경재의 동생 임형재가 주축이 돼서 마두2리에 토담집을 짓고 고등공민학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두리 고등공민학교는 회화교회가 뿌리가 되었고 후원은 했지만 교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했다든가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회화교회를 다녔다. 임경재와 임형재 역시 회화리에 거주하면서 회화교회를 다녔으며, 진위학교를 설립한 권오겸의 처남이다.

회화리 주민인 차경환도 회화교회에서 고등공민학교를 세웠던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고등공민학교가 3~4년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고 했다.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Ⅲ’에 서술된 6.25 전쟁 때 전쟁고아 구제 대한 질문에 차경환은 ‘6.25 전쟁 때는 피난민을 재워주는 등의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박흥덕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전쟁고아 구제에 대한 사실은 회화리에 거주했던 자신의 증조모 때부터 회화교회를 다녔으며 현재 이 교회 장로인 서현택(남, 1957년생)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마두리에 있었던 고등공민학교에 대해서는 장소까지 기억했다.



마두리 고등공민학교 위치


회화교회 장로 서현택

박흥덕에 의하면 6.25 전쟁 후에 들어서 마두리정착사업소 사람들이 대부분 회화교회를 다녔다. 당시에 서탄면 일대에 교회가 없었지만 교통편이 안 돼서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은 회화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박흥덕은 내천리나 야리, 신야리 사람들도 회화교회에 다녔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숫자가 많지는 않았다. 예배를 보는 기준으로 20~30이 통상적이었다. 1963년에 부임한 임창극 전도사가 시무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때 마두2리 정착사업소 주민들이 대거 교인이 되었던 것이다.

서강열은 당시 서탄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교사 재임 중에 자신이 소유한 596평을 기증하여 교회를 지은 것이 지금 위치이다. 그때 박흥덕은 건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교회 건축 전 과정에 참여했다. 교인들이 손수 진위천에서 모와 자갈을 퍼 날랐고 시멘트를 비벼서 브로쿠도 찍었다. 모래와 자갈은 마차로도 날랐지만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나르기도 했다. 당시 모인 교인들이 60명에 달했다.

차경환은 큰아버지가 회화교회에서 두 번째 장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나 형제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차경환의 형수가 결핵을 앓으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에 나가기가 멋쩍어서 동서에게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차경환 부인은 첫째 아이가 10살 될 무렵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집안에서 며느리 둘만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시어머니도 돌아가실 무렵에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차경환은 그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차씨가 20가구 정도 살았는데 그중 절반이 교회에

다녔다고 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집안사람들이 모여 제사 지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서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절했다. 그러니 절반은 서 있고, 절반은 절하는 모습이었다. 제사로 집안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교회 다니더라도 죽은 조상을 잘 모셔야지" 라는 말이 오가며 논쟁이 있었지만 큰 갈등은 없었다.

(2) 송탄성당 회화리공소



회화리공소 위치


회화리공소

■ 위치: 서탄면 회화1길 35 (회화리 49-24)

회화리공소 회장인 이보철(남, 1947년생)은 할아버지 때부터 성당에 다녔고, 할아버지 아들 3형제 중에 그의 부친을 포함한 2명이 신자였다. 이보철의 부인인 차수영(여, 1946년생)은 몇 년 전에 당시 84세 된 그의 4촌 시누이께 회화리에 천주교가 들어온 사실을 물은 적이 있다. 그녀가 고모에게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 전쟁 때 회화리에 수녀님 두 명이 회화리로 피난을 와서 기도를 드렸다. 당시 이보철의 큰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굿을 하실 정도였는데, 수녀님들의 영향으로 이보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보철은 그때 천주교를 받아들인 자신의 조부모가 회화리에서 최초의 천주교 신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보철의 누이와 사촌 누이는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사촌 누이는 환속하고 이보철의 친누이는 수녀가 됐다.

차수영은 옛날에 회화리공소에서 일종의 정신병인 '마귀병 환자' 를 많이 고쳤다고 했다. 당시 공소회장은 이보철의 전임 공소회장인 장경옥의 모친 전월병이었다. 장경옥의 부인 고이자(여, 1941년생)는 남편 장경옥이 회화리공소회장을 맡은 햇수가 42년이라고 했다. 장경옥은 치매가 걸리고도 남 보기에는 멀쩡해서 회장을 봤다. 전월병의 손녀이자 장경옥의 형인 장경진의 딸 장춘재(여, 1961년생)는 자신의 할머니가 큰며느리를 양감면의 천주교 집안에서 데려올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고 했다. 차수영 기억으로는 정신 이상자들이 당시 공소회장인 전월병의 치료에 의해 제정신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 차수영과 장춘재는 그 당시 환자들을 '마귀병 든 사람들' 이라고 표현했다. 환자들을 많이 치료한 것이 전교에 큰 보탬이 되어 신자들이 크게 늘었다.



회화리공소회장 이보철 부부



수녀가 된 이보철의 누이
(사진출처: 이보철 제공)

회화리의 천주교 신자들은 처음에 서정리 성당이 본당이었다가, 송탄성당이 독립되면서 송탄성당으로 옮겼다. 서정리 본당 시기에 마을 신자들은 서정리 본당까지 걸어서 다니고 가끔 공소에서 예절을 했다. 고이자는 옛날 성탄절 때 미사 하러 걸어갈 때는 엄청 추웠다고 기억했다. 한번은 막내 아이를 데리고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에 서정리 성당까지 걸어갔는데, 아이가 옷 안에 오줌, 똥을 다 쌌던 적도 있었다. 이보철은 서정리 본당 시기 회화리에 천주교 신자는 20가구가 채 안 됐다고 했다. 이후 천주교 신자가 많았을 때는 40가구가 넘었지만, 연세 든 노인들이 죽거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서 현재는 25가구 정도 된다.



장경진 가옥



장경진 가옥 뒤 옛 공소 터

서정리 본당 시기에 장경옥의 모친 전월병이 자기 집 뒤 토지를 내놓아 조그맣게 16평 규모의 공소를 지었다. 전월병의 장남 장경진의 딸인 장춘재(여, 1961년생)에 의하면 장경진은 논이 50마지기가 넘었고 머슴을 두 명씩 두었다. 처음 공소가 있던 자리는 현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1976년 무렵에 다시 지금의 공소를 신축했다. 공소 강당 자리는 고이자 부부가 분가하면서 살던 집터였다. 고이자의 남편인 장경옥은 집 옆의 밭을 사서 주택을 짓고 자신이 살던 집터 140평은 공소 부지로 내놓았다. 공소 신축을 위해 회화리공소 신자들이 발동기와 탈곡기를 구입해서 벼 탈곡을 하며 기금을 모았다. 그렇게 3년가량 기금을 모아서 공소 신축 비용을 마련했다. 건축에 필요한 벽돌도 신자들이 손수 찍었고, 벽돌 쌓는 기술자 2명과 미장공 1명을 고용한 것 외에 모든 일은 신자들 스스로 해결했다. 두 번째 공소 부지는 당시 공소회장인 장경옥이 희사했다. 그렇게 해서 완공된 회화리공소는 대지가

250평 정도이며 건평이 70평으로 공소로서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차수영은 성당으로 독립할 줄로 예상하고 규모를 크게 지었다고 했다. 차수영은 공소가 완공되던 해 막내딸 100일 기념으로 신축 당시 공소 회장을 맡았던 이보철의 다섯 형제가 성모상을 헌납했다고 말했다. 공소 건물을 건축한 후, 강당 앞에 있는 집터를 수원교구에서 550만 원에 매입해서 마당을 넓게 했다.

회화리공소 출신으로 이보철의 누이를 포함해서 수녀 3명과 3명의 신부가 배출되었다. 회화리공소는 적봉리와 회화리 신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적봉리는 대부분 본당으로 가고 주로 회화리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다. 코로나 이전에는 공소에서 예절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성당차가 마을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본당으로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서탄면 지역 신자들의 회의 정도로 교육관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가끔 본당 어린이들의 피정 장소로 이동된다. 공소회장인 이보철은 천주교 신자가 서탄면 전체로는 100여 명이 되고, 금암 1리에 5집, 금암 2리가 7집, 금암 3리가 3집, 마두2리가 좀 많은 편으로 20집, 마두 1리가 4집 정도이다. 회화리는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수가 비슷한 편이다.

3) 민속

(1) 당제



기롱나무가 많았던 당뒤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Ⅲ' 에 회화리에서 예전에 당제를 지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17]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마을 사람 사이에도 당시 80대와 60대의 당제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달랐다는 내용이다. 당제는 금암리에서 회화리 쪽으로 오다가 마을 입구 직전 위치에 있었던 기롱나무 숲이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당뒤' 라고 부른다. 차경환은 이곳에 아름드리 기롱나무 30여 그루가 있었는데, 당시 그 동쪽으로 흐르는 진위천 제방을 쌓으면서 나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을 당목도 기롱나무였다. 그런데 1941년생인 차경환은 당제 지내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당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제가 일찍 사라진 이유를 차경환은 개신교와 천주교 신앙에서 찾았다. 그는 일찍이 1901년에 회화교회가 설립되고 천주교 신자가 늘어난 것이 당제가 사라진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회화리 주민 가운데 50%가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라고 했다.

(2) 두레

회화리는 100가구가 넘는 마을이어서 농사일에 한 집당 한 명씩만 나와도 1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15∽20명씩 한 팀으로 해서 몇 개 팀이 움직였다. 여러 팀이 있다보니 두레는 일꾼이 제일 많은 팀에서 놀았다. 두레패는 상쇠와 부쇠가 있고 장구, 징, 북은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었고, 좌상은 없었다. 차경환의 기억으로 상쇠는 장철희였다. 장철희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차경환은 그의 얼굴이

17)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432쪽.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법고에도 상법고가 있었는데, 상법고는 강습소 자리에서 살았던 박찬옥이었다. 호적은 상여 나갈 때 선소리를 잘했던 홍춘성의 형님이자 차경환 친구의 부친인 홍○○이 서탄면에서 최고수였다. 장구는 백길남이 잘쳤다. 북과 징도 잘 치는 사람이 있었지만 차경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차경환이 어려서 두레를 봤을 때는 꼭 최고수인 이들이 두레를 놀았다. 차경환은 “가까운데 사람 보기 좋고, 먼데 사람 듣기 좋은 게 농악이야! 그래서 신명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농악을 높게 평가했다. 차경환은 두레싸움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싸움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 그는 회화리가 워낙 크고 사람들이 억세니까 옆 동네에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차경환은 새마을 운동 이후에는 두레를 본적이 없었다. 두레와 지신밟기는 사라졌지만, 농악은 계속 전승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3) 지신밟기

회화리에서는 설을 쇠고 10일 쯤 니난 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 빌어주는 지신밟기를 했다. 마을에서는 지신밟기를 ‘고사반’ 또는 ‘고사반 한다’로 표현했다. 차경환은 ‘고사반을 하면 쌀 한 말두 내구. 거기다가 잘 사는 사람은 만원도 냈겠지만 보통 2∽3천 원씩 냈다’고 했다. 지신밟기는 차경환이 40세가 될 무렵까지 이어졌다고 했으니, 1980년 초반에 중단된 것이다.

지신밟기는 성주신한테 ‘이 집 잘 지켜달라’고 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청마루 대들보 위에 성주대를 매달아놨기 때문이다. 차경환은 “어떤 집이든지 제일 큰 신은 성주신이여. 고 다음에 인제 장독대 터주신이 두 번째고.” 라고 했다. 성주신한테 빌기 전에 마루에 고사반을 차려놓는다. 상 위에 쌀을 고봉으로 1말을 올려놓고, 돈도 2~3천 원 놓는다. 고사반에서 성주신에게 빈 다음 장독대의 터주신, 부엌의 조왕신 순으로 돌고, 우물 고사를 올린 다음 외양간, 뒤란 등 집안 구석구석을 돌면서 쇠를 올린다. ‘쇠 올린다’는 것은 꽹과리를 친다는 표현이다. 풍물패가 집안을 돌면서 제를 올릴 때 부엌에서는 안주인들이 술상을 준비한다. 지신밟기를 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마당에 사람들로 가득했고, 흥겹게 춤도 추고 해서 잔치분위기가 났다. 그렇게 집집마다 돌면 대개 5일 정도 걸려서 대보름날 정도 되면 끝이 났다. 고사반으로 올린 쌀이나 돈은 마을 기금으로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집에서는 고사반은 안 해도 꽹과리는 다 쳤다.

(4) 쥐불놀이와 망울

회화리에서 쥐불놀이를 할 때면 야리 아이들과 싸움을 많이 했다. 야리에서 태어나 회화리로 이주한 진병호(남, 1944년생)는 어렸을 때 대보름이면 회화리와 야리 사이에 있는 나무다리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이 불깡통을 던지며 싸움을 벌였다.

차경환은 회화리에서 망울은 별로 했던 기억이 없다고 했다. 마을이 넓은 들판 끝 하천 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망울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거북놀이

추석 때 놀이로 차경환은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부터 중학교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놀았다.”고 말하면서 “13~14세부터 20세 전 또래들의 놀이였다.”고도 했다. 마을이 크고 아이들이 많아서 3~4개의 그룹을 지어서 각기 움직였다.

4) 전설

(1) 색시구비[18]



색시구비 위치

색시구비는 회화리 소금나들이 남쪽에 작은 웅덩이 이름이다. 제방이 축조되고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웅덩이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2.5m 깊이의 이 웅덩이가 큰 가뭄이 계속되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웅덩이 물은 매우 차가워서 삼복더위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바로 옆 소금나들이는 소금과 새우젓을 실은 배가 들어왔던 나루였다.

옛날 9살의 신랑에게 16살의 처녀가 회화리로 시집왔다. 첫날 밤 어린 신랑이 오줌을 싸고서는 신부가 오줌을 쌌다고 부모에게 일렀다. 신부는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억울하면서도 창피한 마음으로 지내는데, 5일째 새벽에 또 신랑이 오줌을 싸고 색시가 쌌다고 부모에게 일렀다. 시부모는 새며느리가 야뇨증이 있는 환자로 단정하고 이튿날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새색시는 너무 억울하다며 시부모에게 신랑이 오줌 싼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시부모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신랑이 오줌을 쌌다고 하면 자식이 바보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부는 죽음으로 결백을 보여주려고 결심하고 새벽에 웅덩이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이후 매년 이 웅덩이나 냇물에서 8~9세의 어린 아이들이 익사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새색시의 원혼이 아이를 잡아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1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상권, 2001, 1178쪽.

박홍덕(남, 1935년생) 회화리 출신, 화성시 봉담읍 거주

날 짜	2023년 9월 2일
장 소	화성시 봉담읍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회화교회 초대 장로 출신의 목사, 서안성교회를 개척하여 목회 활동 후 은퇴



회화리에서 태어나신 거죠?

예. 회화리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을 했죠.

회화리에 박씨들이 좀 많이 살죠?

예. 박씨들이 옛날에 대성이었고, 지금은 몇 집 안 돼요. 다들 외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차씨가 좀 또 대성이고.

밀양 박씨세요?

예. 밀양 박씨고. 차씨는 연안 차씨고.

밀양 박씨 무슨 파세요?

우리는 그 밀양 박씨 진사공파라고... 내가 17댄가 모르겠네. 하여간 그렇게 돼.

거기 박씨들이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뭐... 저도 뭐 오래 전에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그 가족이 상당히들 많았어요. 소대가 저기 저 일가들이. 그래서 뭐 내가 종갓집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저 차례 지내는 거, 예를 들어 차례 지내는 거 명절 때 그걸 쭈욱∞.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몰려다니면서 함께 그... 일가들이 몰려다니면서 뭐 제사하고 그런 일을 좀 했지요.

그럼 몇 대나 거기서 사신 거예요?

글쎄, 그거는 모르는데 난. 내가 아까 판서공파라고 했나?

진사공파요?

아 판서공파여. 판서공파... 판서공파 내가 17대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그 이전은 뭐 우리가 그전엔 족보가 있었는데, 요즘은 족보도 없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그 후로. 족보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 애들한테 정리를 해 주고.

차경환 어르신 말씀 들으면 차씨보다 박씨가 먼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예. 그래요. 맞아요. 박씨가 먼저 들어왔어. 근데 그 몇 해는 제가 모르죠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전에 시제는 어디로 지내러 다니셨어요?

아 시제. 우리는 그 수월암리에 선산이 있어요. 서탄면 수월암리에.

수월암 몇 리에요?

수월암1리지. 예. 수월암 1리.

그럼 이 수월암 1리의 선산에는...?

82번지에... 그 3천 평입니다.

지금도 있겠네요?

지금 지난해 정리가 됐어요. 그 얘기는, 거기 산업단지 그 개발이 돼서 다 산 밀고 지금 현재 그 공업단지 조성이 돼요. 그 일대가 다.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모셨나요?

지금... 저는 그 조상들 다 화장했어요. 왜냐면 여기 인저 그 산지 이동해야 되니까 어디 다 오셔서 뭐 이런 벌초하고 그런 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다 그냥 화장해서 분산시키고 그랬죠. 그러니깨 지금...

그럼 거기에 목사님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가장 위대 할아버지셨나요?

나는 그 우리 할아버지인데 박승구라고. 인제 그분이 종가 장손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그래 종가 쭉 내려온 거니까.

거기는 그 할아버지만 계신 거 아니고 그 윗대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위는 잘 모르겄어요. 내도 어리고 그러니까. 기억은 좀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할아버지를 내가 모셨으니까.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인제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마는. 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어진... 요즘 젊은이들은 뭐 족보두 사용 안 하구, 그냥 이름두 그냥 다 각기 다 짓구 그러드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는 언제부터,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나는, 동네가 그때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원래 불신자 가정이지마는, 그래서 내가 6살 때부터...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재미를 들이구,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6살부터.

목사님 어렸을 때 박씨 집안이 몇 가구나 살았어요? 회화리에?

그때는 내가 기억이... 한 20여 가구 됐나?

아 박씨가 20여 가구요?

예.

그러면 그 동네 박씨들 집안에 뭐 이렇게 종중 같은 게 만들어졌었나요?

종중, 종친회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종갓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제사드리고 뭐 인저 그 정도지, 다른 거 종중에서 뭐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르신 인제 종손인데,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 제사가 인제...?

아 그렇죠. 그게 인제 가장 문제였었는데, 이 돌려가면선 이렇게 그 차례 지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때 어렸을 때두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신앙교육은 ‘절대로 어디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 인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꼿꼿하게 섰죠. 내가 장손이지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서 있었어.

그냥 기도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남이실 거고,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3형제가 있죠. 4남맨데, 4남맨데 하나는 죽고. 여동생이 죽고. 지금 남자만 삼형제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박흥일 장로라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고 행정대학원 나오고...

바로 밑에 동생분이요?

예. 대단하죠. 그 사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저 그 당시는 어려웠으니까 그 내가 철도 고등학교지 옛날, 운수학교라고 그러지. 옛날에 말입니다 이.

동생분이 그러니까 철도고등학교?

운수학교. 옛날에는 운수학교인데 거기는 국비루 모든 걸 교육을 시키니까. 내가 인제 그 아버지가 내가 스물 네 살에 아버지가 돌아, 아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연거푸 돌아가셨어요. 1년 새에. 그러니까 내가 인저 그 어... 뭐여, 가장 노릇을 하면서 그때 뭐 농사짓는 거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을 뭐 그때 있는 거 많이 팔어먹었는데, 그래두 동생들더러 “야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운수고등학교 가라.” 거긴 국비루 다 하니까. 처음에는 얘 꿈은 “아닙니다. 나는 그 법 계통으루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그때 뭐 예를 들어 휘문중학교나 그 다음에 이런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길 간다고 그러는 걸 “야 그건 뭐 내가 감당 못한다. 아버지 돌아가시구 그러니깨 운수고등학교를 선택해라.” 그래서 인제 그 운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국 그 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 꿈이 “난 끝까지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인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구, 서울대학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이 교사 발령까지 받았죠. '나 그렇게는 안 간다.' 그래서 행정대학원을 하고, 자기 앞으루 그 법 계통으로 나가겠다. 이제 그러더니, 그게 인제 그렇게 뭐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 얘가 인제 그때 당시 국가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공채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근무한 데가 상공부에 근무를 했죠. 그 다음에 인저 거기서 인저 자격을 또 이전을 해서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소. 옛날.

과학기술원?

예.

그러면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상공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상공부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잠깐 공부하다가 인제 과학기술소지 옛날. 지금은 부가 되지만은 옛날에 과학기술소거든요. 그리 이전해서, 걔가 인제 거기에서 끝까지 근무하다가 인제 그 차관보까지, 1급 공무원까지 했죠. 그러고 인제 은퇴해서 지금두 선, 그 사람은 오직 선교 목적에 최선을 다하구. 시간과 재산 다 그, 애들 걔가 삼남매가 있는데 "나는 너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키구, 그 이후로는 자립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자기두 인제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운수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사범대학을 들어간다. 영문과.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

워낙 뛰어나셨나 봐요?

예. 아주 그 머리보다두 그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공부하시고 싶었지만 결국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인제 가장이 되니까 어떡하고 동생들을 거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저 그놈이 그렇게 성공했지요. 그래서 과학기술처에 있으면서 미국 대사관 근무도 하고 또 미국 하와이 대학 가서 연구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인제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활동도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과학기술처/부에서, 그때 인저 그 장관이 누구냐 하면, 그 과학자 누구지? 전... 그때 장로인데 그 사람두...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은퇴하구. 지금 저기 광주에 살죠. 경기도 광주에. 근데 지금도, 뭐 지금 연금 받고... 그 대단하죠. 무슨 뭐 과학기술처에서 차관보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구 하여간...

그 당시에 그 회화리 출신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형제분... 그 나이 또래에 이렇게 고등 교육 받은 경우가...?

그 사람 하나요. 당시에는 물론 저기 이영희라고 하는 사람두 대학을 나왔구.

이영희요?

이영희. 근데 다 죽었지마는... 그 다음에 인제 회화리에 그 학교는 대개 그렇구. 고등학교도 나온 사람들 있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별루 없어요.

목사님도 수원으로, 수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연세만 되더라도 중학교 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더군다나 농촌에서 그 도시에 가서 그 저 이렇게 유학한다고 하는 얘기는 참 보통 힘든 일 아니죠.

그때 아버님이 좀 경제력이 좀 되셨나 봐요?

예. 아버지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려워두 땅을 팔아서라두 내가 자식은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 근데 아버지는 또 소학교밖에 안 나왔죠. 옛날에 소학교 나왔는데, 그 머리가 좀 깼어요.

아버님도 소학교 나오시면, 또 그 연배에서 소학교 나오시면 그래도 좀 배우신 분 아닌가요?

아유 그러믄요. 옛날에 그 국방부라는, 왜정 때, 뭐라더라? 그... 국방단이라고. 이런 거 자구 뭐 훈련두 받고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는 그 정도면 유지죠. 소학교만 했어두.

아버님이 논이 몇 마지기 정도나...?

논이... 그때 내가 몇 마지기라고 해야 될까? 지금 하여간 그래도 농사를 한 7~8천 평 졌어요.

논 농사만요?

논농사, 밭농사 해서.

다 합쳐서요?

예. 그랬어.

논밭이 7~8천 평이면 그래도 많네요?

그땐 뭐 그, 아버지가 인저 그 나를 옛날에 소를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교육을 시킨 거죠.

수원, 수원에 인제 중고등학교 다니시고 그러는데 아버님께서 인제 그 학비 마련하려고?

그렇죠.

소도 팔고...?

예. 소도 팔고.

논밭도 좀 파시고?

예. 그렇게 열정을 다 했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 동생은, 지금 그 박흥일 장로, 동생은 인제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니까, 지금 저기 내가, 삼촌 경찰관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마는 그 대전에서 근무를 했어요. 대전에서.

삼촌 되시는 분이요?

예. 삼촌이. 근데 얘를 그 저기 양아들 모냥 데려다가 그 중학교를 졸업했어. 대전 한밭중학교를 졸업시켰어. 그리구 그 바로 인저 종료가 되고 와가지구 내가 인저 운수고등학교를 그때부터 가게 한 거지. 중학교는, 그건 삼촌이 대전에서 가르쳤어요.

목사님은 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3년 동안 근무하고 나왔는데 5.16 혁명이 났잖아. 60년도에. 5.16 혁명, 그때 그 박정희가 인제 정권을 잡으면서 야 이거 농촌 개발하구, 새마을사업을 해야 되구, 뭔가 이게 좀 현대 문화루,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게 새마을 정신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두 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나온, 농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특채여. 농고. 내가 농고를 나왔거든.

수원농고요?

수원농고. 그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특채 받아가지구. 60년도 내가, 그 이 사람들이 5월달에 혁명이 났잖아요? 내가 8월 14일부루 특채 받았으니까. 그 해 바루. 그래가지구 그 새마을운동에 인저 투입돼가지구. 아이고 난 뭐 새마을운동을 아주 적극 한 사람이였어.

그러면 평택에 근무하시면서 인제 새마을운동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서탄면에 들어가서, 서탄면 들어가서 저 산업 그 새마을운동을...

서탄면에 산업계 하시면서요?

예. 산업계를 했어. 나는 계속, 이 농고 출신이니까 여전히 다 산업계 개통으로 내가...

그때 힘드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인저 그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아 정말 강제, 옛날 공무원들이 강제를 많이 썼어요. 강제, 강제... 강제 아니면 해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마을길도 넓히고, 그다음에 뭐 초가집도 없애고, 뭐 변소 개량 뭐 산림 녹화, 이런 거 전부 그 새마을운동이거든요.

예. 퇴비 증산하고요.

그래서 그때에 인저 내가 그 앞장서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퇴비 증산 운동, 동네 새벽에 다니면서 마을 청소,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마을 청소 하게 하구. 그 다음에 퇴비 증산. 그래서 아침 전에, 먹기 전에 풀 한 지게 갖다가 퇴비 쌓고...

목사님은 그러면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서탄면에 근무하셨어요?

서탄면에서, 서탄면에 있다가 내가 인저 평택으루 또...

군청으로요?

산업계장으로 했고 그다음에 인제 팽성으루 가서 산업계장하구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나는 원래 뭐 농업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계속해서 그 계통으루 내가 일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서탄면에서 근무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탄면의 새마을운동 시작은 아주...?

아 그렇죠. 그건 뭐 내가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새마을을 가꾸세’ 이게 노래거든요. 새마을 노래. 그냥 그거 합창하면서, 아침에 가서 그냥 마을 사람 동원해서 “야! 우리 마을 청소하자! 거리부터 청소하자!” 그러면 다 동원돼요.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어... 퇴비 운동 인제 그거 시작해서, 그냥 퇴비도 강제로 하여간, 그냥 이거 뭐 시키니까, 이 퇴비 구덩이 만들구. 인저 그거 시켜요.

그때 사시기는 회화리 사신 거죠?

예. 회화리에 살았죠.

그러면 회화리 새마을운동에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셨겠네요?

뭐 회화리뿐 아녀, 서탄면 전체죠. 내가 담당 부락이 또 있으니까, 담당 부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마을을 담당하셨어요?

내가 그때 담당을 뭐 여러 마을 했어요. 거기 뭐 내천리두 내가 담당을 했고, 마두리도 담당을 했고. 회화리는 내가 출신이니까 거기 또 담당이 안 되고 그렇게. 뭐 저 금각리, 그다음에 장등리 뭐 이쪽으로 가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지금도 자책하면서두, 그때 그랬으니까 어느날 한국의 농촌이 되고 이렇게 잘 사는 환경이 됐지. 그때 박정희가 아무리 독재라고 그랬어도 그거 독재 안 하면 절대 이게 바꾸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마을길을 넓히고 했는데, 아 땅이 좁은데 어떻게 넓혀요. 그러면 국가적인 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깐 자꾸 거 이렇게 넓히는 데, 가서 ‘이 땅 기증해라.’ 그래서 그때 한 게 뭐, 저희들이 그때, 그때는 공무원들 말이라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공무원들의 입김이 좀 셌죠?

아이구 세고말구. 절대적이죠. 그래서 “좀 내, 땅 내놔.” 그러면 그냥 뭐, 마을길 넓히고... 뭐 지붕 개량, 생활 개선 이거 할 때, 아 글쎄 옛날 짚으루, 볏짚으루 지붕 했잖아요. 아 ‘그거

를 뜯어내라.' 안 뜯어내요. 왜냐면 스레트로 갈았거든, 스레트로. 근데 그 돈 들어가잖아요. 물론 정부가 융자해주구 그러지마는 가서 말 안 들어. 그러면 자발적으루 말 듣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안 들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뜯어내요. 그 지붕을 계속 뜯어내.

아 공무원들이요?

예.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떡할 거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주인이 그 정리를 하고 인제 스레트를 농협을 통해서 인저 융자해 주구, 지붕 개량을 했죠. 이 새마을운동이 지붕 개량뿐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제 그, 저 마을길도 그렇지마는 그다음에 인저 그 저... 벼 농산 증강 운동으로 쌀 농사 증강 운동, 통일벼를 이렇게 심...

처음에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 어떤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순서 같은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런 순서 같은 게 딱 있었나요?

그렇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루.

그럼 맨 1순위가 지붕개량...?

1순위가 저기 뭐야, 마을 청소, 퇴비 증산.

1순위가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인제 저기 그 시간상 순서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그때 뭐 내가 뭐 그때 196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961년도로 봐야죠 뭐. 새마을운동 61년도. 박정희가 60년도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61년도에. 5.16이 61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아 61년도였지. 60년도는 4.19지 참. 그래서 그때 들어갔으니까... 아... 62년도 봐야 되나?

그 62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을 인제 관청에서는 추진을 한 거예요?

예. 새마을 사업이. 그때는 면장두 군 출신이구, 군수두 군출신 현역들이 와서. 아 도지사두 그때 박창훈 도지사라고 그 별 하난데,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 처음으로 온 거죠. 박창훈씨가 인제 그 유신학원 고등학교 그 세우고. 나중에 인제 아주대 뭐 이런 거 다 연결됐지마는, 박창훈 씨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준장, 별 하나여 별 하나... 도지사를 했고, 그때 군수두 이름은 잘 모르지만 군수두 소령 출신인가. 인제 그렇게 하구. 읍·면장들은 보통 장교급 출신. 장교급 뭐 어쨌든 장교급으로 그냥. 없는 데는 일반 사병 중에서 좀 고참 뭐 이런 거.

서탄면에서 새마을운동이 그래도 가장 잘 추진됐다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그때 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사리요?
그 사리가 인저 우리 경기도 모범 마을이죠. 그 새마을운동을 제일 잘해서 상 받고 그랬죠.

그 뭐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배경은... 그때에 그... 이장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부녀회장은 기억이 나는데, 김정희라고.

김정희요?
김정희. 돌아가셨지마는 아주 여걸이여. 그래서 그냥 새마을운동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렇게 개발을 했죠. 그 사리가 새마을운동은 모범부락이었어요. 서탄면에서는.

목사님은 35년생이시면 학교도 일제 시대에 좀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저기 6.25 전에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48년도에, 해방 이 45년 아니에요? 근데 내가 48년도... 그때 아니 내가 어쨌든...

서탄초등학교 다니셨잖요?
그렇죠.

그러면 서탄초등학교에서 북바위 가는 데, 지금 칠성 고분자 있는 데. 거기 일본인 집 보셨어요?
예. 알어요.

거기가 어떤 집이었어요?
그때 그 나는 잘 모르지만 햐튼... 그 좀 일본 그,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살구 뭐, 그런 것만 기억이 나요.

혹시 진위흥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위흥농을 모르는데.

서탄초등학교는 몇 회세요?
나 16회.

그러면 목사님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해방됐죠?
4학년 땐가.

그럼 일제시대 학교 경험이...?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교사한테 교육을 받았죠.

그때 서탄초등학교에 일본인 교사가 많았나요?

아 그럼요. 가네모도라고, 가네모도.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일본 교사들이 흔하진 않았죠. 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담임하셨나 봐요?
가네모도가 담임 했죠.

몇 학년 때 담임했어요?
내가... 그때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땐지 모르겄네. 하여간 뭐... 담임을 허고, 내가 지금도 그 구구단 같은 거는 좀 일본말로 얼른얼른 해요. 얼른얼른 하지... 근데 일본어는 내 교육을 받았어두 안 써 먹으니까 다 잊어 먹었어요.

그러시죠. 일본인 교사하고 한국인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느끼기에 차이 같은 게 좀 있었나요?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인 교사도 있고 한국인 교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선생님하고 한국인 선생님하고 약간 학생들의 느낌의 차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가르치는 거라든가?
그때는 억압 정치니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뭐 물론 국민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국 교사들 하지마는 또 뭐 와가지구 그 사람들이 뭐 교권을 찾구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상황이었고, 내가 모르겠어...

아까 4학년 때 해방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해방됐을 때 인제 조금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과거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해방됐을 때 그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었나요?
해방 되었을 때... 그 나는 왜정 시대 때 그 폭압 정치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일본인들이 와서 다~ 모든 생활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뭐든지 다 그 사람들을 따라야지, 그 사람들을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농사하구 뭐 교육이고 인저 그랬죠. 근데 난 내 눈으로 본 거는 일본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아니면 경찰, 순사라고 하죠. 순사. 주재소라구 하기도 하구. 그 옛날 일본 그 순사들이 와서 그 폭압 정치 하는 거. 그 당시 인저 면서기들은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 거의가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루 숟가락을 뺏어가는 거 이런 거 나는 눈으로 봤거든.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 유기 그릇이 있었어요. 유기 그릇이. 인제 밥 그릇 뭐 요강 같은 거, 또 대야두 놋대야 썼구. 근데 이걸 다 수탈해 가는 거야. 강제루 다 그냥. 그래서 뭐 그 뺏어가는 장면을 난 봤으니까. 내 눈으로. 그니까 전부 주방에 가서, 부엌에 가서 있으면 뭐...

그냥 가져가요?
어디 숨기거나 그러면 나중에 또 발각되면 그렇구. 그런 수탈 정치를 내 눈으루 봤고. 그 다음에 그 주재소 순사들 긴 칼 차구 다니면서...

그때 주재소가 회화리에...?
주재소가 회화리에 있다가 인저 저기 금암리루.

그게 언제 옮겼어요?
언제 옮긴 거는...

해방되고 나서 옮겼나요?
해방 되고나서... 아니, 주재소? 아녀. 해방 전에 일본 순사들이 줄지어서 주임으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회화리에 있었던 주재소가 금암리로 갔잖아요. 그 금암리로 간 게 언제쯤 돼요?
글쎄 그것 참...

해방되고 나서 갔나요? 해방되기 전에 갔나요?
해방 전이죠. 주재소라고 하는 게 해방전.

그러니까 회화리에서 금암리로 옮겨간 게 인제 지금 파출소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그쪽으로 옮겨간 건가요? 아니면 해방되고...?
해방. 해방 되구나서... 그 금암리루 옮겼지... 근데 그때 인저 일본군이 해방되기 전에 금암리로 옮겼어요. 그래서 긴 칼을 차구 왔다 가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그 주재소가 금암리로 옮겨간 거예요?
글쎄 그거는 난, 회화리 주재소가 있었, 차경환씨가 얘기를 허는데, 나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회화리에서 사금 캔 거 보셨어요?
아유 그러면. 뭐 그거 다 봤죠. 앞에서 그거 뭐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회화리가 전기가 일찍 들어온 거예요.

사금 때문에요?
예. 그 사금 때문에. 그거 들어와야 모타가 돌아가니까. 그 모래 그냥 퍼서 올리면 쭉 채로 내려가요. 그러면 걸러내요. 인저. 그거를 난 어렸을 때부터 다 봤으니까.

사금이 많이 나왔나 봐요? 거기서?
사금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기까지 끌어왔잖아요.

거기 광업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광업소? 그거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금 혹시 보셨어요?
예.

색깔이 어떤 색깔이예요?
색깔이 좀 검은 색으로 나오던가?

검은 색깔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금이 아닌가 봐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무기 개발에 인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 금덩어리는 아닌 것 같애요.

일반 금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예. 그 사금이 모래금이라구 하는데, 나는 그 무기 만드는 소재로 그걸 채취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때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 그 회화리에 일본 사람들이 모두 와서 살구, 이렇게 허는 거 다 관리허느라구.

회화리에도 일본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그럼요. 봤죠. 나는. 그때 살구 하는 걸 다 내 눈으로 봤어.

마을에 어디쯤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떤 집인가?... 그 사람들이 살었어.

몇 집이나 살았어요?
난 뭐 일본 사람들 한 사람만 봤어요... 그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인지...

아 거기 광산, 사금 관계 해서요?
예. 와가지구 한국 여자 막 희롱하구... 그런걸 내가 봤으니까. 지금두 그 어른해요. 어렸을 때, 아이 저 대낮에두 그 일본놈이 그냥 그 여자 끌어안구 그냥 행동을 하구 그냥.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도 짓궂어서, 내가 이렇게 가다 장면을 보고 문을 딱 뚜들기구 그냥 내뺐어요.

6.25 때는 피난도 가고 그러셨겠어요?

피난 갔죠. 피난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때는 천안에, 우리 삼촌이 대전경찰청 소속인데 천안에 근무했거든요. 철도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철도경찰서?

철도경찰서라고 그래요. 그때는… 경찰대라고 하기도 하구 그래… 그래서 거기 근무를 해서 그 내가 천안까지 걸어갔어. 회화리에서. 회화리에서 걸어간 거야. 천안까지.

그러면 1번 국도 따라서 걸어가셨나요?

그렇죠. 1번 국도라고 봐야죠. 뭐 천안까지 걸어갔으니까. 1번 국도여.

하루에 걸어가셨나요?

아 그럼요. 천안 하루에 가죠. 내가 수원두, 회화리에서 수원두 내가 어떤 때는 걸어가구 그랬는데.

그때… 35년생이니까, 25살 정도 되시지 않았어요?… 아 15살!

예. 그 정도였을 거예요. 인저 그래가지구 천안까지 가서, 그 피난민들 행렬을 다 내가 봤고. 가다가 그냥 해산의 고통을 당하구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는 여자들…

그러면 혼자 가셨어요? 다른 분들은, 가족 다른 분은?

내가 거기 누구와 같이 갔냐면, 동네 그 차씨 부인인데, 차강열씨 부인인데, 그 사람 처남이… 처남인지, 하여튼 같이 갔어. 그 사람하구.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 하나만 가구.

왜 다른 가족들은 안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뭐… 부모님들은 안 갔어요. 옆에 동네루 잠깐 피신했다가 그냥 들어오구. 나는 그래두 인저 그 장남이구 하니까 날 피신시킨 거여. 부모님이. 그래 가가지구…

차상열씨랑 같이 가셨다고 했나요?

아니, 그분은 아니고 차상열씨 부인하고.

차상열 씨 부인하고.

(이정옥) 왜 부인하고 가? 하하하…

그 사람이 친정이 거긴가 봐. 그래서 같이 갔어.

천안에서는 며칠 있다 오셨어요?

아 거기서 인제 2~3일 있다가 다 계속, 남침이 계속되니까 뭐 경찰대두 이전을, 이동을 해야 되구.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삼촌이 그때 철도경찰대에 있었으니까 그 화물차를 이용할 수가 있었어. 철도를. 그래서 철도 이용해서 대전까지, 대전까지 간 거지.

아 철도로 내려가는 화물차요?
화물차지. 뭐 여유가 어딨어. 화물차지 그러니까.

멀리 가셨네요.
아이 그러믄요. 그때 그냥 화물차 위두 그냥 사람들 타구.

화물차 위에?
위에, 그 기차 위에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내 지금두 생생하죠. 그래서 그냥, 하이구.

그리고 대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왔죠.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올 때는 인저 기차 타고 왔죠.

기차 타고 평택까지?
예. 삼촌이 철도 경찰에 있으니까 철도 이용은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왔지.

그리고 인제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출발할 때 하고?
그때 시간이... 뭐 길지는 않었어요. 한 1년 됐는지 모르겠네.

예?
한 1년 채 못 됐을 거여.

그러면 1.4 후퇴 지나서 돌아오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 지났다가 인저 회복되니까.

수복되고 나서?
예.

그러면 1.4 후퇴는 대전에서 맞으셨어요?
예. 1.4 후퇴 때는 내가 대전에 있었지.

그러면 6.25 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못 보셨겠네요?
알죠. 마을에서 소위 그 유지로 있던 사람들 뭐 옛날에 차병식이나 또 아니면은 그 이모가 있어. 이모가... 차병식, 그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요. 그니까 인제 뭐 똑똑하지. 마을에서. 그니깨 그 사람들 죄 잡어다가, 지금 서탄 농협 앞에 그 비석 있잖아요.

예. 비석이요.
그거 다 죽인 거예요. 걔들이. 인민군들이.

아 거기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예. 이름 있는 사람들. 다 총살시킨 거여.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을 한 군데다 몰아놓고 죽였나요? 아니면?
몰아 놓고 죽였는지, 하여간 뭐 끌고 가서 그 죽었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죽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인제 왜냐하면 그때 인제 머슴으로 있던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인제 그 천대받은 서민들이죠. 이것들이 그때 완장 차구 뭐 인민위원회 뭐 위원장이다. 뭐 한다 해가지구. 애들이 세력을 얼마 쓴 지 알아요? 내가 설움 받았으니까 머슴살이루 설움 받았으니까 느그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마을 출신들이었나요?
그것두 그 마을 출신들이죠. 그 마을. 마을마다 인저 그 마을 출신들.

그러니까 회화리는 회화리 출신들도 있고?
예.

그러면 전쟁 끝나고 서로 반목이 좀 있었겠어요?
전쟁 끝나구?

예.
그 사람들 뭐 인저 다 처벌 받았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거기서 못 사니까. 인저 그랬죠. 그래 나는 6.25 때 인제 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학생연맹이라구 해서 인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인민군 활동에 도움 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청북면 어딘지 잘, 천상 청북면 어디 끌려갔었는데, 소외 그 근로작업대라구 하던가? 뭔데. 인저 그런 거를 난 경험을 했어요.

아까는 피난 가셔가지고 대전에서?
예.

올라오실 때 그러면 1.4 후퇴 전에 올라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학생연맹이요?
예. 학생연맹에, 내가 그 중학생이었으니까.

강제로 아이들을 가입시킨 거예요?

예.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들 다 모아가지구 학생연맹 교육을 시키구.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 이거 행정에서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근로대라고 하던가 복구되라고 하던가 뭐 그래가지구 동네 사람들하구 같이 가서 복구 작업을 하구 뭐...

아 그건 전쟁 끝나고요?

전쟁... 6.25 전쟁 일어나고죠.

전쟁 중에요?

예. 전쟁 중에.

그러면 학생연맹은 인민군들이 조직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조직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에 그 사람들 영향을 받고 인제 적용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익, 그러니까 이른바 우익 조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연맹은 인민군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 자발적으로 일본 군정에 협조하라고 하는 각 단체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구 작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아 이게 9.28 소식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9.28! 그래서 인민군들이 철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철수 했지 뭐.

그러니까 학생연맹이 인민군들이 조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조직한 거예요?

그거는 인민군이 아니라 그 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 했잖아요

아 전쟁 중에?

예. 전쟁 중에.

그러니까 거의 강제로 그냥 데리고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거기 끌려가서, 싹 끌구가서 뭐 일을 하구. 근데 거기서 인저 소식이 들리는 거여. 9.28 수복됐다구. 그 인민군도 그냥 거기 있었거든. 우리 현장에. 우리 일하는 현장에. 다 그냥 빠져나가.

그러면 거기서 무슨 복구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산에서 뭘 했나? 뭘 하여간 그 파괴된 거를 이렇게 좀 고치고 뭐 그런 역할을. 인저 전쟁 피해 본 거지 뭐.

이렇게 폭탄 맞은 길 파인 거 복구하고 이런 거 하셨나요?

예. 그랬구. 아니 뭐 자세한 건 내가 그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아이고 9.28 수복이다.’ 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감격을 했고. 아이고 인민군들 그냥 다 나가, 나가니까. 현장에 있던 인민군들이 싹 빠져나가. 그래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게 9.28 수복이 된 거야. 그게.

회화리에서 예를 들어서 ‘좌익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질 않아요. 몇 사람 되질 않는데, 좌익이 있었죠.

아까 왜 농협 앞에 비석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비석이 지금 서탄초등학교로 가 있거든요.

서탄초등학교?

예. 근데 그 비석은 누가 세운 거예요?

그전에 그 서탄면 유지들이 이게 그, 그 아주 성금 모아가지구.

아 성금 모아가지고요?

예. 핸 거죠.

유지들이 인제 자기 돈 이렇게 출연해가지고요?

이름 보면 몇 사람은 내가 기억을 하죠. 근데 다는 모르지마는 옛날 사람들 어느 정도 기억을 하니까, ‘아 이 사람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회화리에 강습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혹시 목사님 보셨어요?

강습소? 아 있지요. 예. 강습소 있었죠.

그 강습소가 언제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 뭐 없어진 건 잘 모르겠네. 내가 인저 그때에는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어... 그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목사님은 강습소 안 다니셨어요?

강습소 안 다녔어요.

그 강습소는 어떤 학생들이 다녔어요?

뭐 강습소라고 하는 게 일본인들이 와서 일본 문화 공부시키구. 그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어쨌든 그 사상 교육이지 뭐. 사상 교육.

아니요. 저기 일제시대 강습소.

아 일제시대 때?

예.

일제시대 때 강습소가 그... 물론 여기 한국 사람들이 개입을 했지만은 일본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상 교육... 강습소 했어요. 학문적으로 했는데...

그 강습소가 박찬옥씨 집이 있는 데 있었나요?

글쎄 그런 것 같애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 강습소가 운영되는 걸 보신 거죠?

내가 본 거지만 내가 참여는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그 박찬옥씨는 내 당숙된 사람이요. 박찬옥씨가.

아 그러세요. 이분 집에 강습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 얘긴 듣구, 그 모습 상황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있었다구 하는 건 나 알아요.

회화리 교회가 어떤 책에는 1901년에 세워졌다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1902년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1년이 맞습니까? 2년이 맞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역사를 알 길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인저, 그때 내가 인저 고등 교육을 받고, 내가 우리 회화리교회 장로를 우리 나이 30살에, 공무원 다니면서 장로를 받았거든요.

아 30살에 장로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18년 동안, 어... 이게 면 행정두 보면서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교회 관리나 뭐 이런 거 제가 다 했거든요. 그땐 배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64년도에 초대 장로가 된 거여. 회화리교회... 나하구 인제 차기용 장로라는, 그분도 인제 돌아가셨지만은 둘이 장로님이 된 거여.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차기용.

초대 장로가 인제 두 분이 되신 거예요?

초대 장로가 돼가지고. 그때에 인제 그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오늘날까지 그 목사님들을 못 모시고 그냥 뭐 학생 전도사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했거든. 요 자료 보셨죠? 이거, 회화리교회 연혁.

아 연혁.

한 번 보세요. 거기 인제 그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901년이 맞네요.

예. 그래요. 근데 그것두, 그것두 뭐냐 하면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고증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았는고 하니 차송웅이 아버지 차덕경씨라구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영수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구 있었어요. 그분이 장로는 아니구. 그 분이 그 차씨가 인저 먼저 교회 내역을 알죠. 좀. 그 송웅이 아버지가 차덕경씨인데 그분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목사님 젊었을 때 회화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문헌이 없어가지고 차송웅 교장 선생님 아버지 차덕경 영수님한테...

찾아가서 고증을 받은 거여. 그래서 이게 1901년이라고 하는 것두 인제 그 사람이 다 고증해준 거구. 그 선교사 이렇게 활동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쭉 그, 그 당시 모습을. 감리교회두 뭐 이렇게 대충 그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가 된 거거든요. 처음에 감리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한테 고증받어가지구 이 기록을 내가 하는 거여.

아 요 초기 기록이요?

예. 고증받어가지구. 그 다음에 인제 전도사들은, 거긴 먼저는 모르고 전도사 사람들 다 아니까. 뭐 학생 전도사 뭐 이름 목사들까지 그걸 다 아니까 그니깨 그거는 내가 한 거구 옛날 고증은 그분한테 받었어.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3.1운동 때 여기 회화리 교회가 3.1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음... 다만 일본 시대에 그 교회를 여기도 나오지만은... 옛날에 초가 여섯 칸짜리 그 집은 지었어요. 여섯 칸짜리.

초가 여섯 칸짜리요?

응. 초가 여섯 칸짜리. 인저 고건 나중에 증거를 보여드릴게. 근데 거기서 일본시대 때지, 그 난 교회를 나갔지. 근데 그때는 뭐 그 신앙의 박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제 그땐지 몇 년돈가 홍수가 나가지구, 대홍수가 나가지구 그냥 죄 쓸어버렸어.

아 여섯 칸짜리 집을요?

예. 여섯 칸짜리.

그때가 해방되기 1년 전이라고 그러던데요?

여기 그 차송웅 누나가 이거를, 자기가 생전에 그 역사 기록을 해서 자기 장롱 속에 있는 걸 자녀들이 뒤늦게 발견한 거여. 장롱 속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인제 그분의 그 저기가 있어.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그게 다 나와. 그분이 쓴 거여. 그 글씨가. 차송웅이 누나가. 고 뒤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아 여기는 네 칸으로 나오네요?

예. 고건 네 칸도. 이사 간 거지. 인저 그리.

그러면 목사님이 볼 때는 여섯 칸이고...?

그 다음에 네 칸 간 것두 내가 알구.

네 칸에서 여섯 칸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누가 대지 기증한 거 이런 거 다 나오죠. 거기.

이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나요?

이거?

예.

기록이 없지. 이 사람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생전에 쓴 거를 그 아들이 발견한 거니까. 나두 최근에 알았어. 이거는.

그 홍수가 난 거는 해방 1년 전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러면 그 위치는 초기에도 지금 위치였어요?

지금 위치가 아니죠. 그 저기 누구네 집이라면 알겠어요? 근데 인저 바루 제방 둑 옆에 있었어요. 옛날 여섯 칸짜리가.

여섯 칸짜리가 제방 길 옆에요?

예.

그러면 그 자리가 네 칸짜리 있던 집에 6칸짜리를 다시 지은 거예요?

여섯 칸짜리 제일 첨에 있었죠. 일본 시대 지어진 거니까.

처음 자리가 그러면 누구네 집이에요? 제가 마을에 가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지금 누구네 집이냐 하면은 백남명, 지금은 죽었지만은 그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흔적이 없어졌겠지마는 어쨌든 백남명. 바로 고 옆에, 뚝 아래, 그 제방뚝 아래 있었어요. 제방 뚝은, 옛날에 제방이 없었죠. 그러니까 인저 그냥 물이 넘쳐갖구, 홍수가 나면 그냥 동네 그냥...

이거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회화리 지도인데요. 지금 회화리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현재... 여기가 마을이고요... 그럼 마을 안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안...

옛날에 물이 이렇게(회화리교회 앞쪽) 흘렀다고...

응. 그러면 마을 안쪽이여 그게. 요기 하천 주변에.

하천 주변에 있었어요?

예.

그럼 지금 여기가 옛날에 제방 둑이고요. 그러면 어디쯤 있었을까요?

바로 밑에 어디 쯤 있었을 거여.

여기 어디쯤에요?

응. (지도에서 회화리교회 옆 길을 보며) 잘 모르겄네. 이거.

여기 길이고요. 지금 새로 길 난 거.

이게 제방 둑에 새로 난 길 아녀? 이게?

이 근처 어디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재 자리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한 번 옮긴 거예요?

예. 한 번 옮겼는데 인제 고 옆에 홍승열씨라구 하는 분이, 홍승열 영수여, 그런데 그분이 땅을 기증했어.

현재 땅을요?

예. 홍승열. 거기 다 나와 인저. 홍승열 씨가 그 땅을 몇 평 기증한 것도 거기 다 나와. 그다음에, 그리구 인저 고다음에 세 칸짜린지, 네 칸짜리인지 한, 여기 그 사람 간증에 나오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 그 교회를 다녔고. 인저 그 교회 다니다가 그게, 일제 시대 진 홍수로 무너진 그 교회가 바로 인제 그 홍성렬씨라구 하는 사람이 옆에다가 자기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옛날 교회를 지은 거여. 근데 그것두 인제 초가집이구. 근데 거기서 있다가 인저 그 지금, 아니 지금 교회가 아니라 옛날부터 교회가 또 있어요. 옛날 그게, 다시 말해서 거기가 몇 군데가 있었거든. 하여간 동네 바깥인데 거기다가 인저 그, 그때 홍승열씨가 땅을 또 기증했어.

현재 자리요?

아이 현재 자리는 아니구. 현재 자리 전에 또.

현재 자리 전에 걸 인제 홍승열씨가 기증을 했고...?

예. 기증을 해서, 거기 인저 간증에도 나오지만은 그 노승호씨라구 하는 사람이 목수 일을 했어요. 교인이여. 교인. 노승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인저 그 홍성열이랑 같이 작품 해서 그 목조, 저기 옛날 교회를 졌죠. 그때 목조, 목조여. 그때두 목존데, 나중에 인제 그 초가를 기와로 다 올리고 했지만은. 거기서, 내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진을 회화리교회에 제공을 했어. 그걸.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회화리교회 가면 있겠네요?

내가, 그 최병찬 목사 있을 때 여기를 왔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소장한 걸 다 줬어... 그래가지구 그 사람이 인저 뭐 기록을 한다구 그러는데 내가 어저께 전화를 했거든. 그랬더니 '아직 그냥 기초만 잡아놓고 아무래도 후임자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기록만... ' 나한테 와서 자문받았거든요. 그 사람 다 녹음을 했어. 그때 최병찬 목사가. 그 서현택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와가지구. 그래서 그 자료를 주고, 자기가 그 녹음한 걸 가지구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했는데 아직 기록으로는 안 남구 대충 정리를 해서 후임자한테 넘긴다구. 그래서 요거 후임자가 와서 정리하면 어떤 윤곽이 나오겠지. 난 그렇게 자문만 하구 조언만 했으니까. 이런 설명을.... 자문 받고, 그다음에 인제 고증 듣고. 아직도 대충 정리만 했는데 아직 기록으로는 결론을 안 냈다구. 인저 그런 얘기고.

그때 물난리 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

그게 맨 처음 지은 교회가 무너진 건가요?

내가 기억허기에 처음 지은 교회가.

그리고 네 칸짜리가 인제 무너지고 아까 홍승열씨가 땅을 기증해서 인제 거기다 여섯 칸짜리를 지은 거네요? 그 목수하고?

응.

그러다가 지금으로 옮긴 거는 언제예요?

지금 옮긴 거는, 난 그 해가... 음... 여기(연혁 정리한 것) 나와. 여기 저 50년도에 예배당 이전 신축한 게 150평, 홍승열 영수 기증. 그다음에, 여기 홍승열씨라구 하는 사람이 땅을 두 번 기증 한 거여. 땅을. 그래서 그분도 뭐 홍승열씨 집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저기 현대, 아니 옛날 구교회 거기 또 땅도 기증해서 두 번 기증핸 거여.

두 번 기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 인저 집을 짓는데 당시에 노승우라고 허는 사람이 목수였거든요.

이분도 그러면 회화리 사셨나요?

다 죽었지.

(이정옥) 아니, 회화리 살았냐고?

그러믄요. 회화리 살고,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여. 근데,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인제 그 당시에 누가 왔는가 하면 임창극 전도사라고 하는... 임창극이라구 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인저 그 사람이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두 아닌데, 황해도에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이거든. 근데 그 송탄 성광장로교회라구 허는 곳에서, 거기서 집사로 있었어. 그분이. 그래서 그 저기가,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인저... 우리가 쌀 그때 두 말 줬나? 하여튼 그냥 왔어. 와가지구 전도, 담임교역자로 왔어. 신학도 안 헌 사람인데. 물론 우리 교단 소속도 아니고, 성광교회는 통합측 아녀. 그 와가지구 그 사람이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헌 거여. 그래서 그냥 뭐 교회가 인저 발칵 뒤집어졌지. 그 얘기는 막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냥 장막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뭐, 그냥 예언도 하고. 인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나를 보고, 나는 보고 아 이 “박집사는...”, 그때 박집사지 옛날 교회. 지금 교회 전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기도도 많이 다니고. 젊었을 때. “박집사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요. 그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고.” 그 뭔 얘기냐? “그랬더니 ” 우선 당장 장로가 돼야 된다. “구. 그 나이 30살에, 내가 그때 열정으로 공무원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 날 장로 추대해가지구. 인저 교인들 추대받구.

그때는 인제 서탄 쪽에 교회들이 없었잖아요?

없었지.

그러면 회화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왔겠네요?

아 그러믄요. 주로 인저 마두리 그 저 황해도 이주민들이, 사업소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주로. 거의 다 왔지. 황해도 사람들이...

아 거의 다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구 인제 원래 회화리 본토백이하고. 인제 그렇게 교회를 허는 거지. 다른 데서 뭐 교통이 있나? 먼 데선 못 오구.

금암리도 멀지는 않잖아요?

아 금암리는 나중에, 내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세워졌을 때 금암리 사람들도 회화리교회로 좀 왔나요?

더러 좀 있었는데 그 구역은, 저기 내천에서두 오구 몇 군데 왔어요. 마두리서두 오구.

사업소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니고요?

예. 고담에 그... 야리, 그쪽에 뭐 아래 홰쟁이라구 그런가? 뭐 신야리, 야리가 있잖아요. 거기서두.

그 진위천 건너편이요?

예. 진위천 건너 저... 그 적봉3린가 그렇지 아마 신야리가? 인제 거기서두 오구. 그래서 인저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임창극 전도사라구 하는 사람이 아까두 얘기했듯이 그렇게 열정적이여. 아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구. 그 뭐 신학은 안 했지만 그냥...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한참 부흥됐어요... 그래서 뭐 기도 운동 몰려오구, 사방에서 몰려오구.

그러면 그전에는 교인이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때는 뭐...

그 임창극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예. 몇 명 안 되죠. 그 몇 명으루 기억을 하나? 하여간 뭐...

한 20~30명 정도 됐나요?

20~30명 정도. 그 정도였어요. 통상적으루다.

그럼 임창극 전도사님이 기도 운동 하시고 나서는 좀 많이 불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인제 그랬어. 그러구 나서 인저 그 황해도 사람들이 다, 그짝으루 다 황해도 사람이니까. 그 마두2리 사업소 부락에서 그냥 거의 다 오구.

그 기도 운동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두2리 분들이 교회에 온 거는 기도 운동 때문에 인제 거의 온, 그 이전에는 그럼 별로 안 왔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별루 없었어. 그냥 피난민들이 모여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그 회화리에 서강열 교사라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탄초등학교 교사여... 그 부인이 아주 신앙 열심히 하고, 박옥순 권사라구. 그 할머니가, 서강열이 할머니가 이마리아 권사라고 그냥 그 가족이 호랭이 집안이여. 차씨 어른들이 호랑이 집안이구. 어떻게 완강한지 절대 교회라고는 용납을 안 해. 근데 인제 그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며느리를 제일 먼저 끌고 나간 거예요. 며느리. 박옥순씨라구, 서강열 선생의 부인 박옥순씨라구. 그 며느리를 제일 먼저 교회를 끌구 나갔어.

이분은 어디 사셨어요?

지금 서울 살다 죽었어.

그 당시에 어디 사셨어요?

그 당시에? 어 그 당시에 지금 그 집이서 죄 헐었더라구. 그건 아래쪽이여. 아래쪽인데, 노수봉씨네 바로 앞집인데...

회화리 사신 거예요?

그러믄요. 회화리 살았죠. 그런데 그 서강열 교사가 아버지가 엄격하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그 옛날 농토를 많이 확보하고. 머슴을 두구 살 정도였으니까. 머슴을. 그래서 머슴 두 내외 가서 그냥 그 집 살림을 다 안팎의 일을 해준 거예요. 사실 그때는 뭐 노예같이, 그냥 뭐 밥만 먹여주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열심히 그냥 퇴비 운동하고, 밤에 일어나서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퇴비하고 저녁이면 또 이엉 엮어요. 이엉. 지붕 하느라고 이엉 엮어. 지금 그 당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눈으루 봤지. 인제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한 사람들의 얘기. 근데 지금... 인저 그래서 했는데, 인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구 서강열 교사가 아내의 인도를 받아서 박옥순씨 인도를 받아서 인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자기가 교사하면서 오로지, 자기 아버지가 산 게 아니라 자기가 교사 재임 중에 거기 저 그 500평을, 그 지금 현재 교회여. 그게.

지금 현재 자리요?

예. 지금 현재 교회. 그걸 기증헌 거여. 그거 다 서강열 교사, 나중에 장로 됐지만은, 그 사람이 그 기증한 거여. 연혁에 나와. 연혁에 보면.

그러면 아까 홍승열 이분이 기증한 게 아니네요?

홍승열씨는 먼저 교회. 두 교회를... 첫 번째는 일본 시대에 진 건데 그건 홍수로 물러가구.

홍승열 씨가 기증한 게 맨 첫 번째 교회하고 두 번째 교회. 아니 두 번째 교회요?

아니.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고담에 두 번째 교회.

아 두 번째 교회를 홍승열씨가 기증하고.

고담에 인저 세 번째 지금 말이지. 저 먼저, 전에 교회. 그 둘을 다 인제.

그러면 서강열 씨가 기증한 건?

서강열씨는 현재. 회화리 35번지, 현재 교회.

그러면 맨 첫 자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현재 자리로 간 거예요?

나는 현재 기억이 하나, 둘, 셋, 네 번째루 알고 있어.

아 현재 자리가 네 번째예요?

예. 네 번째 교회. 하하.

그러면 그 자리를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데...

난 기억을 하죠. 어디 쯤이라는 걸. 그걸. 근데 저 뭐 저 집들이 다 그냥 때려부수구 새로 져 가지구.

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지도 봐도 좀 어렵죠?

예. 어렵더라구.

(이정옥) 이거 볼 수 있어?

아이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고, 인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 동네 바깥으로 떨어졌어. 세 번째 교회가

예. 세 번째 교회가... 금암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회화리 교회, 회화리 좀 떨어진 데 가서. 그때 인제 교회, 홍성열씨 땅 중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왜냐, 노승호씨라구 하는 사람이 인저 목수거든요. 인저 같이 홍승열이하구 건축을 할라고 했던 거구. 세 번째 교회를. 지금 현재 교회는 네 번째여.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서탄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서강열 씨가...?

예. 서강열씨가 그 500평인가 600평인가 모르겄네. 하여간 여기(연혁지) 나와 이게. 그 500평이.

예. 그 시기도 거기 나오죠?

예. (연혁지를 보며) 아 596평인가.

목사님은 아까 인제 제사 지내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거기다 종손인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리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두 아버지가 깬 사람이여. 할아버지는 좀 엄했는데, 아버지는 좀 깬 사람이여.

예?

할아버지는 아주 엄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받어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인저 교회 나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잖아요. 6학년이 되면, 그래서 인제 그때 또 과외 수업이라구 저기 저 학교에서 중학교 갈 사람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좀 있었어.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그 인저 일요일두 소집을 하는 거여. 일요일 날도. 그 뭐 일요일 날 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 그 학교에서는 오래는데, 난 안 가구. 그러니까 난 그냥 학교 안 가구 그 교회로 빠지는 거지. 주일날이면은.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진 일만 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들판에 소를 매구 풀을 뜯기구 했거든요. 그래 우리 소를 그 뚝에 매였길래 그걸 풀을 뜯기구, 어 인제 집으로 돌아오지. 집으루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때 뭐냐 그 보리타작을 하는데, 절구에다 놓고. 절구, 거기다 그 태질 하는 거야. 태질.

절구질이요?

아니. 손으로 털어서...

보리 타작이요?

응. 보리 타작을 하는 거여. 근데 아버지 혼자 인제 그거를, 난 좀 도와줄 줄 알았지. 주일날이면. 아버지가 도와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인제 교회 빠지구 하니까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긴 뭐라구, 점심도 굶구, 저 뚝에 있는 소를 풀을 뜯기고 인제 집에 들어가는 거지. 그때 마침 그때 아버지가 혼자 보리 태질을 하구 있어. 근데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놈이 좀, 일을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나한테 그 태질하는 거를, 나한테 와서 태질하면서, 내 머리에다가, “야 이놈아!” 그러면서 “이 소는 내 소인데 왜 네가 끌고 댕기냐!” 그거 억지 소리지. 그리구 그냥 막 나한테 태질을 하길래... 나는 그때 불붙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회개하구 예수 믿으라.’ 구. 그때 뭐 찬송을 내 부르면서 그랬더니 뭐 도리 없더라구. 자식이니까 그 이상은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적두 내가 있고. 아까 또 주일날 교회 안 가구 가방을 메구 인제 학교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구 그러니까. 근데 인저 아버지가 그 이튿날 하는 얘기가 “아 이놈이 이거 다 틀렸다.” 그래 내 책가방을 그냥 뜨물통에 넣었어. 뜨물통, 옛날에... 옛날에 뜨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 멕일라구 죽을 쑤는 거여. 그 뜨물 가지구.

아 저기 쌀 씻어가지고...?

쌀 씻어가구 그런 거를 소죽 쑤는 거지. 옛날에. 아 거기다 그냥 버려버리더라구. 그래두 그냥 내 신앙을 굴복하지 않구...

그때 초등학교 동기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우리 졸업생이 87명 졸업했으니까... 1반, 2반으로 나눴어요.

87명을 2개 반이요?

예.

그중에 중학교는, 인제 중학교 가려고 공부한 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그때... 몇 명이었나? 뭐 한 몇 명 안 있었는데, 누구라고 지금 기억두 못 하는데.

대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몇 명 정도?

뭐 한 너더댓 명, 대여섯 명 됐나? 그 정돌일 거야. 아마.

인제 따로 공부하는 학생이?

예. 따로 공부한 학생이지.

대비반 준비가 한 4~5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두 뭐 정확하게는, 어떻게 기억을, 오래 돼서.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자습하나요?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죠. 지도를 해주구, 그 자습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 근처에 중학교가 없잖아요?
　없지.

그럼 어디로 중학교를...?
　난 중학교, 수원 중학교를 다녔대니까.

예. 수원이고.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저 평택 아니면 수원이여. 그러 않으면 서울로 가든지. 뭐 없으니까 다른 데는. 진위중학교두 없었구.

아 평택 아니면 수원 다녔는데, ... 그때 시험 봤잖아요? 중학교.
　예.

몇 명 합격했어요?
　합격이! 허허. 그건 뭐, 그 당시에 몇 명이라고 할까. 아 소수여. 소수.

떨어진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떨어진 학생두.

3명 정도 합격했나요? 중학교 합격?
　한 서너 명은 됐을 거여.

그러면 합격률이 높네요. 네다섯 명 공부해서 서너 명 합격하면 많이 합격한 거 아니에요?
　예... 87명 중에서.

그때는 중학교 가기도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험도...?
　힘들고. 시골에서 중학교 간다고 허는 얘기는 뭐 좀, 어디 유학 가는 거나 마찬가지여.

지금 유학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경제적으로두 부담을 해야지. 또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구. 이게 부모가 다 교육 사상이 있어야 되니까. 아 옛날에 다 농사꾼이지 뭐.

중학교 시험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글쎄... 뭐... 그냥...

그 당시 느끼기에?
　중간쯤이 됐을 거야.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냥 당연히 합격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면 합격하는...?

예.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인제 교회 문제. 저... 지금 서강열 씨가 제공한 그 교회 대지에 임창극 전도사라구 하는 사람이 내 옛 전 교회에 있었거든요. 같이 가가지구. 나하구, 내가 인저 건축위원으로. 내가.

지금 교회 지을 때요?

예. 지금 고 전에, 지금 건물 전에 또 건물이 또 있었어. 옛날 브로크로 그냥 짓구, 지금 다시 했지만은. 근데 부로크를 쌓을 때, 그 인저 회화리는 앞 개울에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가. 그때 그 브로크 틀 빌려다가 전도사하구 또 우리 하구, 교인들하구 그 찍어. 브로크를 찍어. 거기는 물두 많구 모래두 많으니까. 인저 그 브로크를 찍어가지구, 거기서 인저 자갈을 개울에서 실어다가, 교회로 나르구. 나를 때 무슨 수단이 있나?

마차로 나르지 않았어요?

예. 마차두 있지만, 뭐 여자들 다 이거 머리다 이구.

자갈을?

예. 자갈을. 그렇게 해서 브로크도 물론 마차에 싣지만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그런 노동을 했구요. 그래가지구 임창극 전도사라구 하는 사람이 나를 건축위원장 세워서 같이 일을 한 거여.

건축위원장 하셨어요?

예. 그 역사가 또 어디...

그래서 그때 지은 교회가 몇 평 정도 됐어요? 건평이?

그때가... 신축... 아 대지 596평에다가... 교인들, 아 기증한 사람이 40명이구. 신축 사택... 교회 몇 평이라구 하던가? 그 꽤 컸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그 한 60여 명 모였으니까. 그 수용할 만한 건물이지.

처음에 교회가 설립될 때 변조진 선교사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거 나는 모르지. 변조진. 얼굴은 못 봤어. 난 못 봤는데, 그 차송웅씨 아버지 고증 받아가지구, 고증 받아가지구 변조진이라구 하는 사람 인저 그 기록이 된 거지.

1933년에 박승명 전도사가 처음으로 부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혹시...?

박승명?

예.
나는 그분을 잘...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자라고 그러시던데 혹시...?
나두 이름만 그렇게 고증받았지, 그 사람 얼굴은 잘 몰라.

이 회화리 교회가 생길 때 그 차씨 집안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어떤...?
차씨 집안? 그거는 아까 얘기허듯이 뭐 차기용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이 도움을 줬죠.

금전적으로요?
예.

건축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인저 그 당시 교역자들 자기 집에서 재우고. 고 다음에 고 차은봉 권사라구 그 차송웅이 누나. 그 사람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거기 그 전도사도 거기서 재우고. 그 기록에 나와. 그거.

그래서 인제 그 차씨 집안하고 좀 관계가 깊은 건가요?
예.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박씨 집안은 나, 내가 초대니까, 박씨 집안에서는 내가 교회에 그 첫발 들여놓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도자가 됐고, 건축 과정을 쭉 내가 지켜보았지. 또 학생 시절에 지금 그 홍성열씨가 기증한 거기다 교회 짓는 있는 것도 다 내 눈으로 봤지. 나는 그거 어렸을 때, 왜정 때는 그 홍성열씨, 그 무너진 교회. 거길 나 좀 다녔으니까... 그다음에 인저 그 어쨌든 그 교회, 회화리교회 부흥은 임창극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송탄 성광교회 집사로 있다가 와가지구, 그 사람이 인저 교회 부흥 운동을 시켜서 옛날, 전 교회를 그 사람이 지은 거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교회는, 어 그게 인저 홍승열 장로하구 인저 노승호 장로, 목수가 인저 그거 지은 거구. 그 다음에 인저 새로운 교회, 지금 현재 교회 전에, 전에는 서강열 교사가 그 기증헌 걸로다가 임창극 전도사가 지은 거여.

임창극 전도사님하고...?
나하구 인저 같이.

참 여기 6.25 때 뭐 전쟁 고아를 구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 난 그런 기억은 잘 없네.

그 기억은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학교도 운영했다고 그러던데요? 54년에.

그거는 임경재 전도사라고 하는, 다시 말해 진위중학교 설립자 권오겸의 그 저기여, 저기 처남... 지금 미국 가 있어. 살아 있어... 그이가 한국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목회는 안 하구. 그 전에 두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전도사, 전도사루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동생 임형재라고 있어요. 그 내용적으루 고등공민학교 세운 거는 그 임형재가 인저 좀 주축이 돼서. 그게 뭐냐 면 저기 권오겸 장로의 처남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권오겸 장로하고 좀 대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오겸 장로가 인제 그 진위 고등공민학교를 세운 사람 아녀. 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근데 그 당시는 여기 회화리에서 또 거기 가야 되니까, 진위를. 그래 여기서 인저 마두리 그 2리 그 뒤에다가 토담집을 짓고 고등공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아 마두2리 뒤에다가요?

예. 그래 인제, 그때 처음 1회 졸업생이 나하구 동기인데 서온순이라고 서강열이 동생이지. 그 1회 졸업생이여.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그 권오겸, 그 진위중학교 설립하신 분의 처남이 임경재와 임형재가 있었는데... 동생이었던 임형재씨가 고등국민학교를 세운 거죠?

중심 역할을 했죠.

그러면 임경재씨는 같이 참여를 한 건가요?

참여는, 그냥 후원만 하고. 직접 고등공민학교 세운 거는 참여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마두2리 뒤에 토담집에서 운영하다가,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지.

그러면 회화리교에서 운영한 건 없었어요?

회화리교회에서 기초가 된 거지. 기초가 된 거지. 그 인제 선생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임경재, 임형재 이분들이 회화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임경재가 인저 담임 전도사로 있었지.

인제 교사들은 회화리교회를 다녔고요?

예. 회화리. 이름은 잘,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 임형재라고 하는 사람이 수단이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회화리 사셨나요? 그 당시에?

그렇죠.

회화리에 사신 분들이면서 회화리 교회에 다녔고 그래서 인제 회화리교회에서 고등공민학교를 시작했다가 마두2리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애초에 거기 토담집을 짓구 거기서 시작했어. 애초에. 교회서 한 게 아니구.

교회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 건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냐. 그러니깨 후원만 한 거지, 뭐 운영비를 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여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가 뿌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형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뿌리가 돼가지구 나간 거지.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인물이 없었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참 성장해서 깨우쳤으면 내가 학교를 살렸을 거다.' 지금 내가 그 활동하는 그 과거를 보면, '내가 살려서 그 중학교는 됐을 거다. 최소한.' 인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땐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

서탄에 아주 좋은 중학교 하나가 생길 뻔했는데...

그거 생길 뻔 했죠. 그건 내가 인제 아쉽게 후회하는 거여. 지도자가 없었다. 지도자가. 다시 말해서 '그걸 챙겨서 끌고 나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 그겁니다.

금암교회는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아 금암교회는 이... 김춘태 전도사라고 연혁에 나와. 김춘태 전도사라구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장신대 신학을, 우리 기장하고는 좀 멀어요. 근데 아주 그 특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어... 이렇게 총각 전도사 하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랬나? 근데 그 당시에 교인이 저 차금분, 그 차송웅이 누나 차금분이라구. 그다음에 인저 고일만씨라구 하는 사람, 고다음에 한흥석, 회화리 사람 한흥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몇이, 그다음에 인저 한 너덧 가정이 이렇게 뭉쳐가지구 그냥... 처음에는 그거 바꿔 얘기하면, 중앙교회가 생긴 원인두, 이게 그 김승태 전도사라구 하는 사람이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 따로 교회를 분리하자.' 그래가지구 인제 회화리 고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언덕교회, 제3의 교회. 거기 근방에다가 누가 땅을 내놨나? 그때 배명봉씨가 땅을 내놨나? 차금분씨 권사 인저 남편이지.

배명봉이라는 분이 땅을 내놔서...

거기다 인저 그 따로 교회를 짓는 거여. 옆에다 인저 교회 옆에다가. 가는 길에. 그래서 나는 그거 인저 그 달궁질 하는 것두 내가 눈으루 봤고. 근데 이 김춘태 전도사라는 사람이 폐결핵을 얻었어. 그래서 뭐 떠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하니까, 교회를 중단했어. 교회를 짓다가 중단했어.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터를 닦다가 그냥 그 김춘태 전도사가 인제 그 나가는 바람에, 인저 폐결핵이 심하니까 나갈 수밖에. 전도사가 인저 가는데, 이 교인들이, 거기 출발하는 교인들이, 네 가정이 그 서탄중앙교회, 금암리에다가 개척을 한 거여.

그럼 인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김춘태 전도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분을 따르던 분들이 분들이 한흥석...

한흥석, 차금분, 고일만, 그 부부가 김훈민 뭐. 그게, 차금분이 남편이 배명봉이거든. 배명봉

차금분 두 내외...

그러니까 인제 배명봉, 고일만, 한흥석 이분들이 그러면 그 김춘태 전도사님을 모시고 따로 교회를 분리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김춘태는 안 가구. 어쨌든 가가지구 저희들이 이렇게 김춘태 전도사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인제, 왜냐하면 안말에서 나오는 교인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누구더라? 그 저기인데, 윤모인데 죽었어. 그니까 거기 인저 터를 준비를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운거야.

그럼 윤모라는 분이 그 땅을 기증한 거예요? 거기에다?

글쎄. 그건 그럴까 하는데, 그건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랬어. 윤, 윤경호인가?

목사님. 그러면 이분들은 왜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 교회 사람들이 가가지구, 왜냐면 김춘태 전도사라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갈라놓은 거여.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정옥) 그분 들어오면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김춘태 전도사님이요?

(이정옥)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교파가 좀 달랐나요?

(이정옥) 그랬나 봐요. 교파가 달랐나 봐.

교파? 그 예장이지.

거기요?

응.

지금 여기는?

우리는 기장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교리가 조금 달라서?

(이정옥) 예. 교회를 갈러놓고 나갔대요.

윤경원이여. 그 사람이.

(이정옥) 쉬었다 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힘들어. 거동이 불편하구 인제 나이 내년이면 90인데, 여기 와서 건강하게 등산두 많이 하구 나는 취미 생활이 등산, 여행이여.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산은 안 가본 산이 없이 다 등산을 했어. 다시 말해서 설악산서부터 오대산, 여기 뭐 치악산 또 그다음에 어디 뭐, 저기 태백산, 소백산, 뭐 이런 저런 다 등한 헌거여. 등산으루. 내가. 근데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구. 내가 중국두, 중국에 가서두, 여행 가서 이 뭐, 뭔 일이지. 하여가 그 유명한 산들 등산하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래도 건강하시죠.

여행을 즐겨서 국내 여행은 물론 안 가본 데가 없어. 우리나라두. 국내 여행은. 백령도에서 저 홍도 뭐 이런 데, 섬까지 뭐 울릉도 다 가봤으니까. 우리 한국은 전역을 내가 안 가본 데가 없구, 세계 여행두 내가 미국을 한 번 갔던 거 하구, 동부 서부 다 여행하구. 그다음에 인제 그 뭐 저기 하와이, 괌 다 가봤지. 그다음에 여기 동남아는 그냥 내 집 같이 갔고. 그래서 유럽도 동유럽, 다 가보구.

목사님이 보면 활동적이시면서도 호기심도 많고 그러실 것 같애요.

(이정옥) 예. 굉장히 활동적이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내가 타고 다닌 사람이여. 오토바이. 그 참 그때는... 내가 평택두 오토바이 타구 출퇴근 헌 거야.

회화리에서 평택군청까지요?

회화리서

(이정옥) 그때 차가 없었어요... 별루 없었어요.

오토바이 타구 출퇴근 하고.

두 분이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결혼은 내가 1958년인가?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만난 거는... 우리 사생활인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인제 생활사니까, 그 당시에 결혼 풍습 이런 거...?

아 결혼 풍습. 그땐 거의 중매죠. 거의 다 중매지. 이게 동네마다 중매쟁이가 다 돌아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전문꾼이 있어요.

그럼 회화리는 주로 중매 전문꾼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그 여자가 나 이름이... 짤막한 할머니인데,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뭐 안 간 데가 없이 많이 짝을 지어줬어. 그 사람이.

서탄 일대요?

응. 옛날에. 그래서 발안두 가구 뭐 어디 가구. 그때 걸어다니면서. 제가 외갓집이 지금 조암

리, 우정면 조암리 거기가 내 외갓집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거길 회화리에서 걸어 다닌 거여.

회화리에서 조암리까지 걸어다녔어요?

그래 걸어서. 교통편이 없는 걸.

거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하하하. 시간이 뭐 그냥...

(이정옥) 하루 종일 걸리겄지 뭐. 하하.

응. 시간이. 저기 뭐 니쿠사쿠 걸머메구 뭐 그냥... 뭐 갖다 주구, 가져 오구 할래니까 그냥. 그 기억이 나고. 그 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구... 이 사람 만난 거는 그... 6.25 전에 내가 인제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나운몽 장로가 경영하는...

기도원이요?

예. 거기 김천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 새벽, 서정리서. 서정리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구. 김천서, 여기서 내려서 또 한참 산골로 걸어갔어...

거기 가셔가지고...

예. 거기 갔는데, 그때 내가 이교섭 전도사라구 역사에두 나오지만은, 이교섭 전도사라구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같이 갔지. 근데 이 사람 만나게 된 동기는, 내가 보니까, 난 그때 부모님 없고, 아유 어떤 중년 신사, 숙녀가 그냥 멋있게 옷을 입구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모습 보구, ‘아유 딸 있으면 내가 그냥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 이 사람 보지도 못했지. 인제 그 이교섭 그분하구 그냥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이 사람 부모를 본 거야.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부모를 본 거여. 그래서 그 이교섭, 그분한테 ‘그분 집에 어디 딸이 없나?’ 그랬더니, 그 극성맞어서 그걸 찾었어요. 그거를.

그 전도사님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상하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거든요. 부모들이 돈 벌러 간 거여. 거기 돈 벌러.

돈 벌러요? 상하이로?

예. 가가지고 거기서 5년 살았나? 6년 살았나? 중국에서 5년 살았어?

(이정옥) 아녀. 많이 살았어.

인제 그래가지구 인저 해방이 되니까...

사모님은 몇 년생이신데요?

허허. 아이 이 사람은 나보다 6살 아래인데.

(이정옥) 41년생.

41년 생이여. 나도 6살 아래여.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원래 그 아버지가 하북리 출신이여. 하북

리.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정옥) 고향이 하북이에요. 그니까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피난을 그 부모들이 하북리루 온 거여. 고기 형제들이 있으니까.

해방되고 나오신 거예요?

(이정옥) 6.25 후에

상하이에서 계시다가?

(이정옥) 아닌데. 해방될 때 나온 걸. 인제 6.25 지나서 하북 와서 살았어요.

그럼 해방되고 어디로 나오셨어요?

(이정옥) 서울에 있다가... 6.25 때 지나고 인제 저기 피난을 하북으로 왔어요. 여기가 고향이니까.

6.25 때 인저 피난 온 거지. 하북으로. 근데 이 전도사, 이교섭 전도사라는 사람이 뭐 그냥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었어. '내가 그 부모를 봤는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냈어. 그때 나이가 몇이냐 하면, 열여덟, 열여덟 살에 시집 왔으니까. 나는 스물네 살에 장가들구.

스물 네 살에 결혼 하시고.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스물넷에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정옥) 예. 22세에.

스물둘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스물넷에 장가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차이예요. 2년 차이. 근데, 내 그걸, 사연을 얘기하면 너무 애처로운 얘기가 많아요.

(이정옥) 간단 간단하게 해. 하루 종일 해도 못 다하셔.

근데, 그래 찾었어. 이 여자를. 그래 내가 인저 그 전도사하고 같이 인저 영등포 신길동에 살었는데, 그 찾아갔어. 그 찾어가니까...

(이정옥) 인저 몰르는데, 우리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사가. 나를 만날려고. '저분들 딸이 있다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하하...

그러면 하북으로 오셨다가 피난을 하시고 다시 서울로 가신...?

(이정옥) 예. 서울로 가셨는데 거기 찾아온 거예요.

서울까지 찾어간 거여.

주소를 어떻게 아셨대요?

(이정옥) 그러니까 인저 우리 부모를 만나구서 인제...

만나서 내가 드나들기 시작한 거지.

아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부모를 만나셨구나. 전도사님이.

(이정옥) 예. 만나서. 전도사가 우리 부모를 찾아갖고 인제 주소를 알아낸 거여.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하하하...

그때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았는데 내가 보구, 아이고! 완전히 열여덟이래두 숙성을 했어. 내가 보니 완전히 숙성을 했어요.

성숙했다고?

예. 그래서 좋다. 그러면 결혼하자. 그래서 인저 몇 번 만나고 그럼 우리 이제,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실 땐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아버지 결혼을, 내가 재혼을 시킬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때 마흔여덟인데 말 안 들어.

재혼을 권했더니 안 하신다고?

응. 내가 그 권해도 안 들어. “야! 내가 뭐 니들 데리구 살지, 그 무슨 재혼하겠느냐.” 그 거절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누굴 붙여줄려구 그때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두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완강허게...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색시감이 생겼으니까 며느리를 얻자.”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스물네 살인데 군대... 아니 군대 가기 전에, 가서 약혼 얘기를 들었어. 이교섭 전도사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날 “서울가자.” 그러드만 부모두, 이 사람 부모두 그 기도원에 가구 없는데 둘이 있는데 약혼식을 하는 거여. 그런 기막힌 일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응.

(이정옥) 허락도 안 받고. 하하하...

둘이 약혼식을...

(이정옥) 허락도 안 받고.

그때 몇 번 만나셨어요? 두 분은?

그때...

(이정옥) 몇 번 만났는데, 덮어놓고 약혼 예배를 드리라고...

목사님은 마음에 들었어요? 맨 첫 인상은 어땠어요?

(이정옥) 그땐 어렸으니까. 하하하...

그런데 내가 인저 그렇게 사귀구 나서 군대를 간 거여. 군대를. 군대 내가 그때 영천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인저 중앙선 타구 영등포까지 이 사람 만날라구 가끔 댕겼죠. 인제 그 와가지구, 인제 댕겼는데, 몇 번 사귀구 그랬죠. 근데 부모가 나를 좋아하지만 아직 어리다. 딸이.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반대 의사를 밝혀요. 근데 그 전도사가 그냥 강제루 맺어준 거여. 그리고 약혼식 예배를 드리구. 나는 그 사람 좌우간 어떻게 엉뚱한 짓을 했는지.

(이정옥) 맺어주면 괜찮을 거 같으니까.

두 분 다 두 분 다 마음에 드셨으니까?

(이정옥) 예. 인제 강제로 그렇게. 옛날이니까 그렇죠. 하하

그리구 인제 와가지구 "아버지 나 약혼했어요." "뭐? 아이 그 예물두 안 해주구 무슨 그 약혼이냐?" 아이 그러니까 "전도사가 데리구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그 패물을 해주거라." 아버지가 "(이거)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는 뭐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의 허락이 1순위잖아요?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이정옥) 그 전도사가 강제로 맺어준 겨.

"나는 마음에 들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 때가 아니다."

좀 파격적인 것 같애요?

예. 파격적인 만남이죠. 파격적인 만남이지. 그래서 하여튼 전도사가 그냥, 이교섭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맺어준 거여. 그래서 인저 내가 또 그 얘기하면, 결혼 얘기를 하지.

(이정옥) 간단하게. 한도 없어.

아버지가 "빨리 결혼해라."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구 살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할머니가 살림을 했어요. 8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날 키우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근데 이게 저 그래서 날짜를, 군대 가서 내가 그때 1등병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군대에서는 저기 허락을 받어야 되겠냐 뭐 뭐인가... 그다음에 인제 그때는 통신 관계가, 그 뭐지? 우체국에 가서 하는 게 뭐지?

전보요?

전보. 그 전보를 관보라고 해. 인저 관보. 여기서 관보를 쳐야 그 여기 지역에 뭐 관, 뭐 승인을 받어야 그게 휴가가 되여 인저.

결혼 휴가요?

예. 결혼 휴가.

그러면 군대 계시는 동안에 결혼하신 거예요?

(이정옥) 예.

아 그래서 결혼, 와서 인저 휴가 와서 결혼 날짜를 정했어. 부모님하구 결혼 날짜를 정했어. 그때 한두 번 보구. 아직 어린데. 사진두 못 찍으러 나가게 해요. 부모님이. 아직 어린데 뭔놈의 결혼이냐구. 아직 때가 이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혼 날짜를 그때 11월 9일로, 10일, 9일날로 정했나? 인제 관보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관보를 친 거여. 결혼한다구 부대장한테. 그래 부대장이 휴가, 특별 휴가를 줘가지구. 나는 어차피 결혼식을 영등포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 올라, 중앙선 타구 올라왔어. 여기 와서 이 집을 들렀는데, 내 사촌, 지금 회화리 살아요. 박흥식이라구. 걔가 내 사촌인데, 그때는 뭐 전화가 있나 뭐. 그러니까 수단이 사람이 가서 전달허는 수단이여. 모든 수단이. 올러왔어. "아 너 어떻게 올라왔니? 나 내일 모레 결혼식이라구 그래서 올

라온 건데.”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뭔 얘기여? 내가 관보받구 이렇게 왔는데 무슨 뭐 아버지,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냐?” 내 아버지지. 별안간 뇌졸중으루 쓸어진 거여. 뇌졸중으루... 그래서 내가 ‘결혼이구 뭐구 가야지.’ 그리구 내려오는데, 이집 부모들이 “그러면 기왕이 맺어진 거니까, 너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인저 그걸 같이 기차타고 내려와서 서정리역에서 내려가지구 걸어오는 거여. 회화리까지. 그랬더니 그 마당에 채를 쳐놓구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여. 그랬더니 내가 들어갈래니까 집안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장손이, 큰아들인데 이게 굴건을 쓰구 장례를 모셔야지. 총각으로 모시면 보재기를 쓰거든. 보재기, 이렇게. 옛날에. 보재기를 쓰구, 장가간 사람들은 이거 굴건을 이렇게 쓰고 그랬어. 옛날 제도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니가 장손이구,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그 왜? 여자가 왔으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이정옥) 돌아가시구, 우린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응. 못 가게 다른 집으로다 가는 거여.

(이정옥) 그러니까 그 밤에 결혼식을 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혼식을...

(이정옥) 내일 모레 인제 할 거니까.

하라구 집안 어른들이 권해요... 결혼했어. 이거 큰 걸로 쓰구.

이걸 굴건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써야 되니까 밤에 결혼식을 해고 집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 내가 밤 11시에, 밤 11시에 사람을 보내서 그.. 이 부모님 오라구 그러구. 그게 뭐 그 교통 없어서 뭐 사람이 다 댕겨야 허니까.

연락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 사람을... 사람이 올라가서 전달해야 돼. 전화도 없구. 데리구 내려오는데, 내가 세간은 들구 가구. 이렇게 11시가 됐는데. 그때 가곡(교회)의 그 김흥종 목사라고 하는... 가곡교회에 김흥종 목사라구 있었어.

(이정옥) 그분을 모셔다가 밤 11시에 결혼식을 했어요.옷두 그냥 입은 채루. 부모님두 안 왔고. 결혼식을 올렸어. 교회에서. 밤 11시에.

아 이분 주례로요?

예. 김흥종 목사 주례로. 그래서 그 내가 첫날 밤에, 인제 그 결혼식 올리구 인제 아버지 장례방에 들어간 거지. 그때. 못 들어가게 했는데, 결혼식 올리구 나서 인제 “가 뵈라.” 인저 처음 아버지 뵀는데, 그러니깨 우리 첫날밤도 못 치른 거여. 첫날밤두. 일이 그 지경이니까. 근데 부모들은 밤늦게 왔어. 새벽에 왔나, 밤 늦게 왔나 모르겠네. 아유.

(이정옥) 새벽에 왔지.

그 영등포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가 나 결혼 준비를 다 이런 술두 집에서 담구, 콩나물도 다 기르고 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준비를 해놨어. 술두 담가놓구. 콩나물두...

(이정옥) 결혼식 핼라고 준비한 음식 가지구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 결혼식...

(이정옥) 결혼식은 밤에 올리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밤에 올리셨는데 만약에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면 그 다음날...?

(이정옥) 핼 거지.

그다음 날 잔치 준비를 다 핸 거여.

인제 그다음 날 잔치하려고

(이정옥) (잔치)핼 음식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

그 음식을 가지구 장례식을 치렀어.

(이정옥) 옛날에는 시골에서 두부도 하고, 콩나물도... 다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 잡아놓은 하루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정옥) 예. 돌아가셨으니까 음식 준비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 음식 갖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인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채로 가서 이렇게 상주 노릇을 하고 그런데 왜 굳이 결혼식을 올리고 들어가시라고...?

(이정옥) 이거 쓰는 것 때문에. 모자 쓰는 게 틀려요.

집안 어른들 주장이여.

(이정옥) 결혼한 거 하고, 안 한 거하고 모자 쓰는 게 틀려요... 그거를 씌울려구.

그게 어떤 유교적 효의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종가집 장손인데, 그 유교 사상이지 뭐.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상주 노릇을 하라는 거죠?

(이정옥) 예. 그거 시킬려구 밤에 결혼식을 해구. 그 음식 갖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내가 결혼 당시에도 그게 불행한 과정이여. 그게. 내 잔치 음식 가지구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만나신 것도 참 특이한 만남이신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부부 간에 24시간 떨어진 일 없어.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예. 뭐 내가 어디 가든지 하다못해 마트를 가두 같이 가야 되구, 여행을 가두 같이 가야 되구. 지금도 노인이 한 침대 한 이불에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두.

(이정옥) 하하하...

사모님 성함 안 여쭤봤네요.

이정옥

(이정옥) 근데 물어볼 거 다 물어보셨나 모르겠네.

오늘 피곤하셔가지고...

아이고 됐어요. 괜찮어. 내가 옛날에는 말도 잘하고, 뭐 행정력이... 뭐 면서기 18년 동안 했으니까 행정력이, 옛날에는 다 문서두 그 수기로 썼어. 공문서 하더라두. 그랬거든요. 타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래 내가 인저 기억력이 좋아요. 그 참 뭐 웬만한 건 다 외우고, 그다음에 인제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교회 섬길 때도 기록을 쫙 해놔. 이거 교회, 회화리교회 이것도 시작이 그렇게 된 거여. 기록으루.

이보철(남, 1947년생)·차수영(여, 1946년생) 부부, 회화리 거주

날 짜	2023년 8월 12일	
장 소	이보철 자택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회화리에 거주하는 강향린(여, 1946), 박복선(여, 1949)과 함께 인터뷰	

몇 년생이세요?
47년

이 마을 출신이세요?
예.

저 문패 보니까 사모님께서 차씨이신 거 보니까 사모님도 이 동네 출신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마을에서 결혼하신 거예요?
예.

사모님 성함은?
차수영

몇 년생이세요?
(차수영) 46년

한 살 어리시네요.
(차수영) 예. (남편이) 효명학교 나왔어요.

47년생이면 굉장히 일찍 다니셨는데?
(차수영) 효명학교 6회.

고등학교 6회요?
(차수영) 아니 중학교.

효명중 6회시면 굉장히 빠르네요?

이(이보철) 우리는 7회, 7회
(차수영) 7회, 우리는 6회. 그때 했어.

그때는 여기서 오산 쪽으로 학교를 안 가고 효명 쪽으로 많이 갔어요?
요기서 이 동네를 이렇게 경계해서 요 동네 저 위쪽은 오산으로 대니고, 요쪽은 효명으로 다니구 그랬어. 그 지역적으로도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눠지더라구.

그래서 금암리 쪽은 오산 쪽...?
오산으로 가구, 여기 회화리는 이리 가구.
(강향린) 연흥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효명이 1회래, 1회. 우리 신랑이 1회여. 옛날에는

지금 계세요?
돌아가셨지.
(차수영) 그때가 1회여. 그때 새로 생긴 거여.

그때 어르신이 학교 다니실 때는 진학률이 높지는 않았잖아요?
(차수영) 아니요. 효명은 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나온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비율이 많지는 않았죠?
(이보철) 그래두 많이 갔지 뭐. 중학교는 많이 갔어.
(차수영) 다 가다시피 했어요. 중학교는.

어르신이 여기 서탄 초등학교 몇 회세요?
(이보철) 27횐가?
(차수영) 26회

26회고, 사모님이 27회죠?
(차수영) 아니, 26회. 다.

같이 동기이세요?
(차수영) 예.
(강향린) 한 달 차이여. 한 달 차이... 똑같이 들어갔지.

초등학교 동창끼리 결혼하셨으면 뭐 속속들이 다 아시겠네?
(차수영) 다 알지 뭐. 하하하...

코 흘렸을 때, 뭐 나쁜 버릇 이런 것도 다 아시겠네?
(차수영) 그런 거 몰라요. 이쪽 살고, 저쪽에 살아서 몰라.

같은 회화리래도요?

(차수영) 예.

(박복선) 동네가 컸어. 그땐.

이(이보철) 아랫말, 웃말 해가지구.

여기는 아랫말 윗말 이렇게 했어요?

이(이보철) 예. 아랫말, 웃말 해서. 안식구는 웃말 살구, 나는 아랫말 살구 그랬어.

아랫말, 웃말하고 이렇게 내외하고 그랬나 봐요?

(이보철) 아니, 그런 건 없어두 그냥 이렇게 동네가 크니까 한 100호가 넘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더라구.

그때, 어리셨을 때는 몇 호 정도 살았어요? 여기에?

(이보철) 여기가 100호가 넘었지요... 100호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110호 정도요?

(이보철) 예.

(박복선) 그땐 동네 컸지.

차경환 어르신 말씀 들으면 많을 때는 130호도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보철)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구 100호는 넘었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갈 때는 어디로 가셨어요?

(이보철) 요 서탄초등학교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갔어요?

(이보철) 지금 나오는 길 있잖아요. 고 길.

2차선 도로요?

(이보철) 예. 그거 옛날 그 고기, 고기 조그맣게 길 났었어요. 그 길루. 지금 그 길이 이렇게 커진 거지 인저. 경지 정리하면서부터.

새말 앞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지금 농협 쪽으로 이렇게 난 길이요?

(이보철) 예.

그때도 이 길이 있었어요?

(이보철)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그만 농로였었지. 농로. 농로고, 저거는 경지, 72년도에 경지 정리해면서 생긴 도로여. 그게.

아 그 도로가요?
(이보철) 예.

그러면 대략 그 길 쪽이...
(이보철) 예. 그 길이 됐어.

그니까 인제 논길로 쭉 조그마한 논두렁길이었는데 72년도 경지 정리되면서 인제 반듯하게 일자로?
(이보철) 예. 반듯하게.

그때는 지금처럼 넓지는 않았겠네요?
(이보철) 넓지 않았지. 조그마한 인저 마차 정도 댕길 정도였지 뭐.
(강향린) 부녀회에서도 돈 내서 넓혔잖아. 그 길.
(차수영) 부녀회에서도 넓혔어. 돈 내서 넓혔다구.

아 부녀회에서도요?
(차수영) 예.

그 새마을사업 할 때요?
(이보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핼 때.
(차수영) 옛날에 애들 거기서 꽃길을 했을 때 찍어준 사진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다.

그 길에다가 코스모스도 심어놓고 그랬어요?
(차수영) 양쪽에 쫘악 심었었어요.
(이보철) 예전에는 다 그런 것두 심구 그랬지. 지금 이 길이여. 그게. 코스에서 심었던 길이 이 길이여.
(차수영)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2차선 도로요?
(차수영)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강향린) 그때 돈 대구, 걷어서... 부녀회 돈을 내구서 했다구.
(차수영) 길 넓히면서.
(강향린) 넓히는 데.
(차수영) 50년 됐는데. 콩크리트 치느라구.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흙길이었다가 콘크리트 친 지가 한 50년 정도 됐어요?
(차수영) 50년 안 됐지.
(강향린) 안 됐지.
(차수영) 안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나 했을 거, 80년대쯤?
(차수영) 새마을사업으로 그전에 했었잖아? 새마을사업.
(강향린) 아 어떻게 됐든, 저기 누구야...
(차수영) 애들 국민학교 댕길 때 했을 거야.
(강향린) 국민학교 댕길 땐데. 저기 복년 엄마 부녀회장 할 때. 부녀회장 저기 할 때.
(이보철) 그때가 내가 저기 했었는데, 그게 몇 년도던가?
(강향린) 연도는 몰라.

그 연도 알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가 지금 2차선 도로 된 건 언제예요?
(강향린) 그때 된 거 아녀.
(이보철) 72년도에 이거 경기 정리가 됐을 거여.

72년 경지 정리 할 때?
(이보철) 그때, 그때 생긴 거여. 이게.

그 넓이도 그만큼, 그때는 마차길 정도 넓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보철) 그때는 저, 저기 지금 부녀회에서 해구 뭐 새마을사업으루 그 길을 좀 콩쿠리 친 게 그때 친 거구. 인제 경지 정리해면서 그건 다 없어지구 새로 생긴 길이여. 이게.

그러니까 원래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길을 넓히고 꽃도 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길이 72년도 경지 정리할 때 없어지고 다시 일자로 쭉 낸 거죠?
(이보철) 예.

그럼 그때는 좀 구불구불했었겠네요?
(이보철) 아니 그때두 어느 정도 새마을사업해면서 곧게 했어요.

72년 경지 정리 때...?
(이보철) 완전히 인저 없어지구, 옛길은 다 없어지구 새로 핸 거여.

그 길이 인제 주로 금암리 쪽으로 이렇게 다니던 길이었어요?
(이보철) 예.

회화리에서?
(이보철) 예. 학교 다니던 길이지 뭐. 초등학교 다니던 길이지.

그 새길 생기면서 2차선 정도의 넓이로 만들었나요?
(이보철) 예. 그거를 저 정도로 똑같이 맨들은 거예요.

지금처럼 인제 규모는 똑같이 하고... 그 포장은요?
(이보철) 포장두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하고요?
(이보철) 콘크리트로 하구, 아스콘은 나중에 해구.

그러면, 이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두리에서 저쪽으로 이어지는 길, 저 적봉교 쪽으로 이어지는 길 있잖아요. 그 길도 그 경지 정리 때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차수영) 아니, 아니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보철) 그거는 생긴 지 얼마...

그거는 저 적봉교 다리 놓으면서 생긴 건가요?
(이보철) 예.
(차수영) 워낙은요. 여 교회 앞에가요 내 깔이었었어요... 그게 냇갈, 냇갈이었는데 그거를 다 메우구 저쪽으로 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직강 공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천이 구불텅거리는 걸 이렇게 반드시 펴는...?
(이보철) 그게 이거 이거 제방. 제방 쌓으면서 인제 그게 옛날 하천이 없어지구 인제 이게, 이게... 제방을 맨들었어요.

여기 제방은 아주 옛날에도 쌓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보철) 예. 쪼끄맣게 싸졌지. 낮게. 그래가지구 인제 뭐...

그럼 지금처럼 된 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집강 공사한 게.
(이보철) 이것이 된 게... 한... 우리가...
(차수영) 그때. 그때 우리 물난리 났을 때, 피난 갔을 때 거기 냇갈이었잖아?
(박복선) 응.
(차수영) 우리가 애들, 애들 낳아갖고 고때, 어 지금 52살 먹은 애 낳아갖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물피난을 갔었잖아.
(강향린) 우리 재영이도 낳고 갔어.
(이보철) 그거는 물피난 갔을 때는 제방...
(차수영) 이쪽에 그때 냇갈이 있었다고. 그때.

그러면....
(차수영) 그러니까 한 40 몇 년 됐겠지? 그치?

40년이면... 1980년대 그때 물난리가 좀 있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가?

(차수영) 대통령 모르는데, 애들 기억을 핸 거야. 애들 데리고 피난갔어. 하하하...

지금 52세 된...?

(차수영) 52세 된 애들 뭐 금...

(강향린) 우리 아들이 47인데, 그때 얘도, 재영이도 갔어. 피난.

(차수영) 어... 그러면 그때 저기해서 갔네.

그러니까 한 40년 좀 넘은 거네요?

(차수영) 예.

(강향린) 넘었죠.

그러니까 그 물난리 나고 난 다음에 이 제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차수영) 예, 예.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그때 물피난은 어디로 갔어요?

(강향린) 저기 학교요.

서탄 초등학교요?

(차수영) 예. 그래구 인제 그 뒤에 인제 친척 있으면 친척집들두 가구.

서탄초등학교요?

(차수영) 예.

거기는 지대가 좀 높은가요?

(이보철) 높지. 여기보더.

그 물피난은 자주 갔었나요?

(강향린) 아녀. 세 번 갔어. 나 시집와서.

(이보철) 세 번 갔나? 우리가?

(차수영) 응.

할머니는 언제 시집 오셨어요?

(강향린) 나 23살에. (차수영씨와) 동갑이여.

동갑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1: 저는 강향린.

1946년생이요?
(강향린) 예.

23살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세 번이요?
(강향린) 아녀. 그때 세 번이지. 이 뚝방 쌓고는 안 갔지... 그게 한 40년 된 것 같은데. 요 뚝방 싼 거?
(차수영)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보철) 옛날에 그 뚝방이 있었어두 그게 이쪽으로는 안 넘었는데, 저 아래쪽에서 터져가지구서는 이리 물이 쳐들어 왔어.

아 물이 역류해서 이렇게 올라...
(이보철) 이쪽에는 그냥 넘실넘실넘실 터질둥 말둥하구서는 터지지는 않았어. 이쪽에. 근데 대부분 이 미창에서 터져 가지구서는 올러와서.

이게 1960년대에, 제가 어제 만난 금암리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암리에 가면 북바위 있잖아요. 그 북바위가 원래 굉장히 컸다면서요?
(차수영) 예.
(강향린) 거기 컸지.

근데 그거 그 돌 캐내가지고, 이 폭파해서 캐내서 이 뚝방 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수영) 금암리 누구 보셨는데?

황세연 어르신, 그분 아세요?
(이보철) 예. 알어요.
(차수영) 북바위가 컸어요. 옛날에 우리가 서탄초등학교에서 소풍 가고...

북바위로요?
(차수영) 응. 북바위로 가고, 쪽바위, 쪽박산이라고 산이 있잖아. 쪽박산.

예. 지금은 없어졌죠.
(차수영) 없어졌어. 쪽박산으로 소풍 가구 그랬어요.

아 그래요?... 소풍을 북바위랑...?
(차수영) 응. 쪽박산... 그래서 먼 데 갈래면 인제 5학년, 6학년이면 저∞기 만기사. 진위면 만기사.

예. 고학년은 만기사.
(차수영) 그렇게 가지.

(이보철) 소풍은 저기두 갔지.
(차수영) 응. 용주사 용주사도 걸어가구.
(강향린) 용주사는 여기서 멀어.
(차수영) 용주사두 먼데두 걸어갔어.

용주사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렸어요?
(박복선) 엄청 먼데!
(차수영) 몰르죠. 멀죠. 저쪽으로 질러 갔으니까.
(이보철) 질러 가는 길로 갔으니깨 그거 한 두어 시간 걸릴 거여.
(차수영) 응. 질러갔으니까.
(박복선) 그건 수원 쪽인데, 엄청 멀지.
(차수영) 아니 저 이렇게 해서 오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질러 갔어.

그때는 소풍 가면 뭐 하시고 놀았어요?
(차수영) 보물찾기 해구 뭐 그런 거 했죠.

보물찾기, 참 고전적이네요.
(차수영) 보물찾기 해구 뭐 저기 남자들은 뭐 이렇게 해구 해는 거 있어.

아 닭싸움이요?
(차수영) 닭싸움 해구 뭐. 그런 거 해구 놀았죠 뭐.
(강향린) 걸어갔다 걸어오면 시간 다 갔지.
(이보철) 응. 그려.

그때는 도시락도 김밥은 쉽지 않았죠?
(차수영) 그래도 나는 김밥을 싸준 것 같은데.
(이보철) 김밥 뭐...
(차수영) 응. 밥 싸주고. 나는...
(이보철) 근데, 도시락, 이렇게 그냥 밥 싸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뭐.

여기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이보철) 여기서?
(차수영) 서탄초등학교요?
(이보철) 한 20분 정도 걸렸을까?
(차수영) 응. 20분 정도.
(강향린) 20분 안 걸릴걸?
(차수영) 우리가 남자가요, 그때는요 남자가 14명인가 그랬어요.

이 마을에서요?

(차수영) 이 마을에서요. 근데 여자도 그만큼 됐어요... 3반까지 있었는데요. 3반까지 있었는데, 63명, 64명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한 반에. 서탄초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어.

지금은 다 합해도...

(차수영) 지금 여기서 한 명두, 한 명이래나?

(강향린) 한 명두 없어. 아, 하나 다니는 것 같아. 하나.

현재는 한 명이요?

(차수영) 응. 이 동네서 하나.

(이보철) 그것두 이사 온 사람이여. 저기 원 바닥이 아녀.

이사 오신 분이에요?

(이보철) 응.

(박복선) 3년밖에 안 됐어요.

(강향린) 3년은 넘었어.

(박복선) 4년째인가 3년째여. 그렇게밖에 안 됐어.

요새는 뭐 어느 마을 가나 아이들 보기가 참 귀해요.

(이보철) 예. 귀해요. 다 그래.

그때 그 28명이 그러면 전부 다 중학교는 진학했나요? 그 당시에?

(차수영) 여자는, 여자는 2명 가구요. 남자들은 뭐 얼마 안 갔어요.

(이보철) 중학교 다 못 갔어요.

중학교 진학은...?

(이보철) 반도 안 될걸?

(차수영) 반도 안 갔어.

여학생이 2명이고, 남학생은...?

(차수영) 남자들 여섯이여?

(이보철) 몰라 확실히.

(차수영) 한영이, 흥령이, 당신, 뭐여... 응... 저기 영안이...

(이보철) 대여섯 되나봐.

(차수영) 응. 여섯 명. 동네서.

그때만 해도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이보철) 그렇죠 뭐.

(차수영) 걸어다닌 거여. 철로길 따라서.

그러면 저기 여학생들 중학교는 어디로 갔어요?
(차수영) 효명이요.

그때 중학교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차수영) 그러믄요.

저 왔을 때는 남학생만 있었는데...
(차수영) 응 여학생, 옛날에 이쪽, 이쪽 저기 짓기 전에. 지금 저기 성당에 있는 데.

아 성당 쪽으로?
(차수영) 예.

성당, 옛날 성당 건물 그쪽에서?
(차수영) 예. 그쪽에 학교에서.

그 당시에 서정리 성당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이보철) 예.
(차수영) 옛날에는 서정리 거기 성당 다니신 거예요. 여기서... 걸어서.
(이보철) 공소가 그때 생긴 거여. 오래됐지.

그 남학생들은 중학교 또 어디로 갔어요? 효명으로 다 갔어요?
(이보철) 여기 이 동네는 거의 다 그쪽으루.

이 동네는 효명중학교로요?
(차수영) 예. 저쪽 애들은 오산 다니는데. (중학교는) 얼마 안 갔어요. 몇 명 안 갔어요.
(이보철) 거의 대부분이 글루 갔어.

그러면 인제 이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농사 짓나요 아니면 외지로 또 돈 벌러 가고 그랬나요?
(이보철) 농사짓고...
(차수영) 아이 농사짓구, 집에서 밥 먹구 놀었죠 뭐.
(이보철) 농사 졌어. 농사. 대부분 다 농사여. 농촌 사람들이니까.

(외지로) 돈 벌러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보철) 거의 없어요. 거의.

집안일하고...
(이보철) 조금 더 지나서 인제...
(차수영) 효명학교는 여기서 그렇게 걸어다녔어요.

그러면 이 중에 또 고등학교는 많이 못 갔네요? 어르신은 고등학교는?
(이보철) 수원으루 갔어.

몇 분이나 갔어요?
(이보철) 우리 갔을 때는 둘.

그러니까 (중학교 나온) 남학생, 여학생 8명 중에서 2명이 고등학교 수원으로 가고요?
(차수영) 응. 서울루 가구 또. 성영이 서울루 갔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이 세 분인가요?
(차수영) 응. 성영이 서울루 가잖아... 아 저기, 저기 아저씨. 아저씨는 여기서 안 다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동기 중에, 동기 중에 고등학교는 세 분이 가신 거예요?
(이보철) 셋 갔을 거여.

대학은...?
(이보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지 뭐.

그때는 뭐 대학이 워낙 적어가지고요.
(차수영) 아이 떨어지셔서 못 갔지 뭐... 아이 서울대 가셨으니까 못 갔죠. 일반대학은 가셨지.

학교 다닐 때부터 성당을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뭐 부모님도 성당을 다니셨나요?
(이보철) 예.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부터요. 그러면 성당에 다니시게 된 어떤 집안이 전체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보철) 우리는 할아버지서부터 생겼으니깨. 저기 작은 아버지가 안성으루 가구. 그 양반만 안 다니구 두 집은 다 다녔어.
(차수영) 큰집.
(이보철) 큰집, 작은집.

그러니까 아버님 형제가 삼형제인데...
(이보철)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어... 할아버지 때부터 다니구, 그 아들이 삼형제인데 둘은 다니구, 하나는 안성으루 가서 안 다니구.

그럼 할아버지는 여기 사셨어요?

(이보철) 예.

그러면 회화리의 천주교는 신자가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할아버지 때가 처음인가요?

(차수영) 내가, 우리 이니가, 내가 저기 천주교 들어온 거를 물어봤어요. '천주교 어떻게 했느냐?' 고.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못 물어보고. 지난번에 우리 사촌들 모이는데, 응 84인가 되는 고모가 있어요. 근데 서정리 성당에 열심히 댕기셔요. 서정리 성당에. 그래갖고 '고모 도대체 천주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느냐?' 고 '알게 됐냐?' 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수녀님 계시잖아요. 수녀님. (남편의) 큰 누난데, 옛날에 저기 뭐야? 피난 가고 막 그랬잖아요.

6.25 때요?

(차수영) 예. 6.25 때 피난을 가고 막 그러는데, 그 저기에, 큰 집에, 큰 집에 저기가 오셨대. 수녀님인 것 같대. 그 고모 기억이. 어렸을 때. 어려서 그 고모 기억에 수녀님인지 그냥 두 분이 피난을 오셨는데, 뭔가 들고 댕니면서 기도를 해드래요. 기도를 해구 그랬는데 그게 수녀님이셨대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저니 큰엄마가, 큰엄마가 1년에 한 번씩 굿을 해셨대요. 아파 갖고 그렇게. 보영이 엄마가.

(강향린) 응.

(차수영) 굿을 해구 그랬는데, 그렇게 허구 나서 인제... 수녀님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간에 그때 해갖고 천주교를 믿었대나 봐. 그러데요. 그 고모가. 내가 '어떻게 천주교에 들어왔느냐?' 고 물어봤어.

(강향린) 그러면 여기 신누이님은 수녀가 언제 됐어?

(차수영) 우리 저기 수녀님은 이니가...

(이보철) 나 중학교 들어가면서.

(차수영) 응.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 저 누님...?

(차수영) 예. 그래서 그 고모하고 같이 갔었대. 거기를. 그 수녀원에를 같이 갔는데 우리 고모는 계시고, 그 고모는 인제 사춘 저 사촌 누나는 왔대요. 집으루.

사촌 고모가 아까 84세 된 고모님이, 고모님이 아니고 시누이세요?

(차수영) 저니 사촌 누나.

아, 그러면 사촌 시누이님이네?

(차수영) 예. 내가 지난번에 자세해게 얘기 물어봤어. 누가 아무도 모르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인제 6.25 때 여기서 그 큰어머니 되신 분이 인제 굿 하고 그러셨는데, 어르신 큰어머니 되신 분이 굿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수녀님이 피난을 오신 거네요?

(차수영) 예. 몰러, 어서 왔는지 오셨대요. 그것도 몰러. 어리니까 몰르죠.

사촌 누님이 어리셨을 때. 84세 되신 분이. 그래서 인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인제 신자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거네요?

(차수영)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 회화리에서는 처음으로 신자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보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차수영) 그때 인제 저 집들두 다. 근데 우리 이 공소에는요 우리 공소에는요 어 옛날에는 좀 미쳤다고 그러는 병이 있었잖아. 미쳐서 정신...

(박복선) 마귀병 들려서.

(차수영) 마귀병 들려서. 그거를 많이, 공소 회장님이 여자였었는데 많이 고쳤어요. 그래갖고 전교가 됐어. 처음에는.

그 공소회장님은 어디 분이세요?

(차수영) 아이 돌아가셨죠.

회화리 분이요?

(차수영) 예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차수영) 몰라요. 하하하...

(강향린) 남의 집 여자라 어떻게 알어.

(차수영) 우리 이니 하기 전에 공소 회장님이 계셨는데, 장경옥씨라구.

(강향린) 그양반 아들은 장씨여.

(차수영) 엄마.

장 경자 옥자 되신 분의...?

(차수영) 어머니. 그렇게 하여튼 간에 그런 은사를 받으셨나 봐요.

그 장경옥이라는 분은 몇 년생이세요?

(이보철) 돌아가셨어.

(차수영) 돌아가셨는데 그니 몇 살이야?

(강향린) 나보다 10살 더 먹었으니까.

(차수영) 여든여덟.

(강향린) 팔십아홉일 거야. 아마. 어떻든 쥐띠여... 쥐띠가 아니라 무슨 띠지? 쥐띤가, 돼지띤가 뭐여.

이분의 어머니께서 인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정신이 돈 사람들을 제 정신으로 많이 돌아오게 해서...?

(차수영) 예. 그래서 많이 전교가 됐어요.

(강향린) 그래서 많이 믿었죠.

(차수영) 그래서 많이 믿었어요.

이게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보철) 옛날에는 마귀병 들렸다구 그랬어.

(박복선) 마귀병이라고 그랬어. 하하하.

그러니까 인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어르신 댁에서 받아들여서 이게 인제 조금 조금씩 퍼지다가 그 공소회장님, 그때 이분이 인제 그 마귀병을...

(차영수)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그분이 먼저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회화리에서 누가 처음으로 천주교에 입교를 했는지는...?

(차수영) 응. 그거는 몰라. 그거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 고모한테.

(이보철) 할아버지가 먼저걸.

(차수영)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강향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장씨래는 집에서 저기를 지었어. 공소를.

(차수영) 할아버지 본명은, 이름은 모르는데 요왕이야.

요왕이요?

(이보철) 옛날에 요왕이라구 그랬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보철) 요한.

(강향린) 그래서 나는 지금두 저기허면 요왕...

(차수영)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저기 뭐야 미사에만 올려면 얘 요왕, 요왕, 그랬어. 하하하. 그게 요한이야?

그래서 인제 공소가 없을 때는 성당은...?

(이보철) 서정리로.

서정리 되다가 송탄 본당이 85년도인가요? 84~5년도쯤 된 것 같은데요. 서정리 본당으로 다 니다가 송탄 본당에 속하게 된 거고요?

(이보철) 응. 공소는 서정이 있을 때, 다닐 때...

(차수영) 있었어요.

(이보철) 서정리 본당에 다니면서 공소가 생긴 거여. 그때 서정리 본당에서 있을 때.
(차수영) 그 회장님네 저기 뭐야 그 뒤에다가 쪼끄만 공소가 있었어요.

현재 지금 공소 있는 자리요?
(차수영) 아니예요.
(이보철) 그 자리린 아니구 그 전에 쪼끄맣게.
(차수영) 이쪽에 있었는데, 그 아들 장경옥씨가 자기 집터, 집 옆에다가 그 땅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옥씨 집에, 장경옥씨 집 뒤에 조그만 공소가 있었는데...
(차수영) 옛날 어려서.
(이보철) 그 커.
(차수영) 옛날 거?
(이보철) 옛날 것두 저기여. 그것두 몇 십 평 되어.
(차수영) 그게 있었으면 옛날에 저ㅇ기 강원도 무슨 공소 하나, 우리가 저기 성지 갔을 때 그 공소보다 더 이쁜 공소였었어.
(이보철) 이쁘지.

그 공소 사진 혹시 있었어요?
(이보철) 없어요.
(차수영) 없어요. 옛날이니까 없어요. 그거 공소 참 이뻤는데.
(이보철) 옛날에 사진이 뭐, 사진이 있기나 있었나 뭐. 하하하.

그러면 공소 전에는 성당으로 갔잖아요? 공소가 없을 때는?
(이보철) 예. 공소가 있으면서도 서정리루 많이 다녔어요. 인저 못 가는 사람은 여기서 하구.

그때는, 서정리로 이렇게 미사 보러 다니고 이럴 때는 마을에 천주교 다니는 집이나 아니면 신자수로 보면 얼마나 됐을까요?
(이보철) 그 당시에는 뭐 몇이나...
(차수영) 그래두 많었지.
(이보철) 그렇게 많지 않았어. 서정리루 다닐 때는 뭐... 몇 집이나 됐을려나?... 20가구 안 됐을걸.
(차수영) 몰르지. 아저씨네 이사 안 갔을 때니까. 그때는.
(이보철) 20가구 안 됐을걸...

아 20가구가 채 안 됐다고요?
(이보철) 응.

지금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이보철) 지금은 한 스물대여섯?
(차수영) 25집가 몇 집.
(이보철) 25 가구 될거야. 많았을 때는 한 40가구 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차수영) 아이 죽구 이사 갔잖아요.
(이보철) 이사 가구 뭐. 허허허.

아 40가구 정도가...
(차수영) 예. 저거 공소 지을 때는 많았어요. 저거 공소 지을 때.

저 공소는 언제 지었어요?
(차수영) 저거 공소요? 어 70년, 70년도인가 봐.
(박복선) 몰라. 나는 기억 안 나.
(차수영) 저거 공소 저기 했을 때, 70년돈가 71년도 고때 했을 거여.

지금 저 건물이요?
(차수영) 예. 새로 지은 거.

그렇게 오래됐어요?
(차수영) 예. 저것도 한 50년 됐나 봐. 우리 본당이 지금 있는 게 저쪽에 지을 때 먼저 지었어. 먼저 오고 이쪽에 지을 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지금 성당.

그 본당이라고 하면 송탄 성당이요?
(차수영) 예.
(이보철) 송탄 성당보다 여기가 더 먼저지.

송탄 성당보다 먼저요?
(차수영) 예.
(이보철) 72년돈가 누구 저기 때...
(차수영) 나 결혼해구 얼마 안 돼서 저거 지었어.
(이보철) 그렇지!
(차수영) 그래서 내가 저거 새로 지어갖고, 고 민정, 우리 민정이 100일 돼 갖고, 100일에, 우리 막내딸 100일에 내가 그 성모님 이렇게 핸 거여. 안에 성모님.

그러면 막내 따님 태어날 때 지었겠네요?
(차수영) 예. 그거 낙성식 했어요.

막내 따님이 몇 년생이세요?
(차수영) 우리 민정이가 몇 년생이여? 걔가 지금, 우리 막내딸 몇 살이여? 70년 생이여?
(강향린) 76 아녀? 76. 재희보다 한 살 더 먹었지. 용띠니까.
(차수영) 76인가 77년 생인데...

용띠면 76년생입니다.
(차수영) 예. 맞어.

막내 따님 백일 때 낙성식을 하셨으면, 76년생이면 72년도가 아니고 76년.
(차수영) 그러면 걔가 마흔 몇 살이여?
(강향린) 마흔 일곱이여. 마흔 여덟.
(차수영) 응. 그렇게 된 거여.

아 백일 때?
(차수영) 응. 그거 성모상 안에 해놓은 거여.
(강향린) 걔가 용띠잖아.

그 건물 지어놓고 성모님상 모셨을 거 아니에요?
(차수영) 예.

그러니까 같은 해일 거 아니에요?
(차수영) 그때. 예.
(강향린) 그렇지 같은 해 지은 거야.
(차수영) 그때 지은 거여. 그래서 완전히 기억을 해는 거야. 하하하.
(강향린) 송탄 본당을 지을 때는 수진 아버지가 댕기면서 지었어.
(이보철) 김남수 주교님이 와서...

김남수 주교님이요?
(이보철) 굉장했어. 그때 굉장했어.
(차수영) 근데 그때는 신자가 많아서 우리 이거 저거 해서 지었어요. 콤바인, 콤바인.

예. 콤바인...
(차수영) 콤바인, 타작해갖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보철) 여기, 왜냐하면 벼, 벼 꺼들여가서는 인저 발동기 해가지구서는 이렇게 궁굴레통 같은 거, 큰거로 해서 인제 타작을 했는데, 그거 인저 우리 공소 사람들은 인제 그거를, 그 작업을 우리 공소 사람들이 했어. 그래가지구서 거기서 나오는 이문을 가지구 한 2∞3년 모아가지고서는

저 공소를 지은 거여.

아 그러니까 그 타작할 때 타작을 궁들레통으로 그때...?
(이보철) 궁글레통이 아니라 인제 방아를 시켜서, 그때만해두 큰 거지.

그 방아를 그럼 사셨어요?
(이보철) 그거 다 사가지구 했지.

그 공소 천주교 신자들이?
(이보철) 응.

그 발동기요?
(이보철) 응. 이렇게.
(강향린) 탈곡기지, 말하자면 탈곡기.

발동기하고 연결되는 탈곡기.
(차수영) 예.

발동기하고 탈곡기를 인제 회화리 공소 분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차수영) 예.
(강향린) 그때 고생 무진장 했다.
(차수영) 고생 많이 했어.

구입을 해서 탈곡을 해주고, 그 대가 받은 걸로?
(차수영) 응. 몇 년 모아갖고.

한 2~3년 모으셨나요?
(차수영) 몰라요. 그건.
(이보철) 한 3년 됐던 것 같애.
(차수영) 그래구 돈 걷구 그래서 손으루 진 거여. 손으루 그냥.
(이보철) 그리고서는 저기 그 손으루 다 벽돌두 여기서 찍구.

신자들이요?
(이보철) 응. 신자들이 찍었어.
(차수영) 장경옥씨 그, 거기서 터를 내놨어요. 땅을.

터는...?
(이보철) 장경옥 회장님 회장님이 내놓구.

옛날 공소 터도 장경옥 회장님...?
(차수영) 어머니, 그 어머니.
(강향린) 형. 형이 있지.

이분이 희사한 거고, 옛날 터는, 집 뒤에는?
(차수영) 어머니.

장경옥 회장님의 어머니가 희사한 거고요?
(이보철) 희사했는데, 도로 가져가셨지 인제.

새로 지으면서 반환한 거죠?
(이보철) 예.

그러면 벽돌 찍고, 그 모래는...?
(이보철) 여기서 파다가.

하천에서 파다가 벽돌 찍고, 쌓고 이런 것도 다 하셨어요?
(이보철) 다.

목수는 안 부르고요?
(차수영) 안 불르구.
(이보철) 한두 명 저기 미장하는 거 하는 사람 하나, 벽돌 기술자 2명.

아 벽돌 기술자 2명하고...?
(이보철) 다 공소 사람들이...
(차수영) 하여튼 간에 다 하다시피 했지 뭐.

벽돌 기술자 2명하고...
(이보철) 이게 인제 저기 미장하구 인저.

미장 1명이요?
(이보철) 미장하구 같이 해는 거여. 그 사람들이.

아 벽돌 기술자 2명이요?
(이보철) 그래 인저 우리 공소 사람들두 인제 따라서 쌓았던 거여.
(차수영) 그때 열심히 했어 다들.

그때가 신자 수가 한 40가구 정도 됐다는 거죠?

(이보철) 예. 많었지. 그러니까 인제 공소두 크게 진 거여. 저렇게 크게 졌지.
(차수영) 성당 핼 줄 알구 저렇게 크게 지었어요. 성당, 성당 핼라고.
(강향린) 신부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크게 졌지.
(차수영) 모실라고. 그 교육관도 있잖아요.

아 신부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정식...
(이보철) 그게 아니라 인저...
(차수영) 신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 본당으로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네요?
(이보철) 예.

몇 평이나 돼요?
(이보철) 그 지금 한 70평 정도 될걸. 건물만. 건평.
(강향린) 저기네, 저기네 것도 샀잖아?
(이보철)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대지구. 건평만.

대지는 얼마나 돼요?
(이보철) 대지는 그게 한... 이거 우리 거보다 크지?
(차수영) 크죠. 우리 거보다야.
(이보철) 한 300평 되나. 얼추. 2백 한 50평 될 거야.

250평 정도요?
(이보철) 응.

그러면 처음에 장경옥 회장님이 기증한 거에다가...?
(차수영) 샀어요. 조금.
(이보철) 앞에 그, 경당 앞에 그 개인 집이었었는데, 고걸 인제 그 사람들이 팔구서 딴 데 집 져서 나갔는데 그걸 우리가 샀지.

아 개인 집도?
(이보철) 사서 저기 그 운동장을 맨든 거여. 그 앞에.
(박복선) 주차장이지.

그건 인제 성당 지어놓고 난 다음이겠네요?
(이보철) 아이 그렇지.

근데 공소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건물이.

(이보철) 하하하. 그래요? 우리는 예쁜지 모르는데.
(차수영) 우리 수녀님 이쁘죠? 아 저기 성모님. 거기 성모님.

저는 건물만 봤어요.
(차수영) 바깥에 성모님이, 어디가 봐도 우리 성모님보다 이쁘지 않아.

그럼 뭐 특별히 이렇게...?
(차수영) 우리 성모님, 우리 성모님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이 형제들이 성모님 모실라고 누나 생각해서 거기다 성모님 모셔놓은 거야. 우리 형제들이 했어요.

아 형제들이?
(차수영) 응.

그러면... 성모님 조각상을 주문할 때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뭐랄까...?
(이보철) 몰라요.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거는 저기 공소, 본당 회장님한테 의뢰해가지구서는 저기 주문받아 해 온 거여. 우리는 인제 돈만 걷어서 드린 거구.

형제분들이요?
(이보철) 예.

어르신 형제가 몇...?
(이보철) 다섯.

다섯 형제인데, 인제 수녀님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이서...?
(이보철) 다섯.

수녀님까지?
(이보철) 여섯이요.
(강향린) 따님은 하나고 아들이 5명이예요.
(이보철) 우리 누나가 제일 맏이여.
(차수영) 맏딸이여. 맏딸.

그러니까 누나를 생각하면서 그 남동생, 남동생 다섯 명...
(차수영) 성모님... 성모상을 했어.
(강향린)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셋째 아드님이요. 다섯인데.

6남매 중에 넷째?
(이보철) 넷째지... 그 당시에 내가 잠깐 공소 회장을 봤었지. 그래서 그걸, 성모상을 했지.

(차수영) 그때 봤어.

그러면 어르신 형제는 어르신만 여기 사시고?
(이보철) 아니. 내 동생. 밑에 동생 하나하구.

형님들은 다?
(이보철) 나가구... 큰 형은 돌아가시구. 누님두 돌아가시구.

그러면 이 마을 출신에서는 수녀님이나 신부님 되신 분이...?
(이보철) 수녀는 하나고.
(차수영) 그래서 고모까지 셋이지... 아이 또 저기.
(이보철) 요기 저 요새...
(차수영) 응. 이미선
(이보철) 미선이. 그리고 또 저기 하나, 김 누구야?
(이보철) 그러게... 그 누나가 가고, 한 2년 있다가 또 한 분이 가셨어.
(차수영) 수녀원.
(이보철) 고담에 인제...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보철) 이 동네 사는 분이었어.

그다음에?
(이보철) 요즘에, 요즘에서 인제 또 수녀님 하나 저기 태어났지. 몇 안 됐지 나이?
(차수영) 미선이가 53살이지. 지금 53살이여.

신부님은 안 나오셨나요?
(이보철) 공소로는, 이 공소에서는, 공소 출신으로는 셋이여. 셋
(차수영) 송탄 본당 회화리 공소.

어디 마을 출신이에요
(차수영) 여기 적봉리.
(이보철) 적봉리라고 여 옆에. 거기두 여기 공소였으니까. 거기가 그 조그만 동네에서 세 분이 되셨어.

아 다 적봉리 출신이에요?
(이보철) 예.
(차수영) 최주교님은 저기, 저기 우리 서탄면에 최주교님 계셨잖아요.

황구지잖아요?
(차수영) 황구지가 아니라 저기...
(박복선) 도도리.
(차수영) 수월암리. 최덕기 주교님.

그분이 수월암리인가요?
(차수영) 예.

도도리가 수월암2리인가요?
(차수영) 예. 거기 최덕기 주교님.

거기는 사회주의도 굉장히 유명한 동네던데요?
(차수영) 예?

사회주의. 옛날에.
(차수영) 예. 맞아요. 거기는 저기가 많았어요.
(이보철) 여기서두 그 당시에 신학생이 넷이었어. 여기 장회장 아들하구, 적봉리에 셋. 저 장회장 아들이 다 이렇게 해서 복사 스면서 같이 이렇게 데리구...
(차수영) 여기 장경옥씨 아들이 하나 저 신학대학 갔어요. 근데 그만두셨어요.
(이보철)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와가지구선 해서 같이 고 또래가 다 댕긴거야. 넷이.

이분들이 그 세 분의 혹시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다 신부님들인데?
(차수영) 전상용 신부님. 또 김... 아니 지금 카톡 신학대에 있는 김기정인가? 김...
(이보철) 아니야. 아니야. 고만두셨잖아. 김신부, 김 뭔데? 이름이.
(차수영) 아 지금 카톨릭 대학 저기 해시는 신부님...
(이보철) 아 기신부.
(차수영) 기신부지.
(강향린) 그이는 기씨지.
(이보철) 응. 기신부.
(차수영) 기정남.

기정남 신부님, 이분은 가톨릭대에 계세요?
(차수영) 가톨릭대 계신 것 같은데.
(이보철) 몰라 어디 계신지, 난 그것까지는... 추석 때면은 오지.
(차수영) 추석 때 미사 보러, 미사 하러, 저기 양감면 산, 양감면 천주교 산이 있어요. 응, 거기 미사 보러 오시대.
(이보철) 미사 드리러 오셔. 1년에 한 번씩 그리 오셔.
(강향린) 그 한분은 전씨잖아.

(차수영) 전상용.

그 다음에 김씨는요?
(차수영) 김씨는 그만두셨어요.

세 분이었다면서요?
(차수영) 근데 그만두셨어.
(이보철) 신부로 계시다가....
(차수영) 저기 부안 성당에 계시다가.
(이보철) 어디 본당이 용인인가 어디 그쪽 본당 맡으셨는데...
(차수영) 부안, 부안. 저기....

그러니까 이 세 분에다가 장경옥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경옥씨 아들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한 분은 인제 신부님 되셨다가...
(강향린) 돌아가셨어. 장경옥씨 아드님은 돌아가셨어.

그래도 꽤 많네요. 수녀님 세 분, 그다음에 신부님 세 분.
(차수영) 주교님도 계셨잖아.

최덕기 주교님은...
(이보철) 그분은 여기가 아니니깨.

여기 공소가 아니잖아요?
(차수영) 서탄이죠. 그 복 받은 거지. 거기는, 최덕기 주교님 그쪽에는 수녀님들도 계셔요.
(강향린) 그 집이 딸두.
(차수영) 딸도 수녀구. 최덕기 주교님 위에가 수녀님이셨어... 먼저 누나가. 저기 뭐야 사촌 누나가 수녀님 계셨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 옛날 분이시지... 거기 또 저기 조카두 수녀님 계시구.

조카 딸도요?
(차수영) 응. 많아요. 그리구 사리두 수녀님 계시구.

이 서탄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가 봐요?
(차수영) 옛날에는 그래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노인네들이라.
(박복선) 지금도 꽤 돼요.
(차수영) 지금은 봉고차가 돌아다녀요. 차가.

여기 그 공소는 어디 어디 마을 분들이 오세요?

(이보철) 여기 회화리만.
(차수영) 응. 회화리만.

회화리만?
(강향린) 아녀. 저기 사업소두 오구.
(차수영) 아녀. 여기 회화리만.
(이보철) 여기에 공소 세우고는 회화리.

회화리 신자들만 오는 거예요?
(차수영) 예.
(이보철) 회화리 신자들만... 적봉리하구. 적봉리는 근데 대부분 안 왔어. 일루. 냇갈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안 오구, 본당으루 많이 가구. 여기 회화리 사람만.

여기(회화리 옆 적봉리)는 바로 인제 바로 옆이니까 이쪽 신사들은 이쪽으로 오고요?
(차수영) 예.

그러면 금암리나 이쪽은 어디로 가요?
(차수영) 저 송탄 성당... 우리두 지금 다 성당으로 가지, 여기는 지금 공소 예절은 안 해요. 왜냐면, 차가 돌아다녀 주일날이면. 차가 와요.

그럼, 공소에서는 그럼 언제까지 예절을 했어요?
(차수영) 공소 예절은 핸 지가...
(박복선) 코로나 해고 나서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했어요?
(차수영) 응. 그리고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성당에 가서 인제 성체 모셔야죠.
(이보철) 코로나 이전까지는 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보철) 성당으로 가라구 그랬어.
(차수영) 그리고 지금은 성당으로 가야지 성체 모시죠.
(이보철) 왜냐면 그전에는 뭐 차가 안 댕겼는데, 지금은 차가 대니니까.

성당 차요?
(이보철) 예. 성당 차 댕기니까 다 그냥 본당으루 나가. 여기는 그냥 건물만 지키는 거여. 있는 거. 하하하.

그러면 건물은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한 거네요?

(차수영) 예. 요즘.

(이보철) 근데 인저 여기 교육관이라고 해서 지어놓은 데서 인저 가끔씩 가다 뭐 이렇게, 여기 우리 저기 뭐야, 주위에 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뭐 회의하구 그랠 때 인저 이용두 해긴 해지. 가끔... 여기 우리... 저기 저 지역, 8지역이라구 있구. 여기가.

8지역이요?

(이보철) 예. 근데 인제 거기서...

(차수영) 본당에 8지역.

아 인제 구역 얘기하시는 거죠?

(차수영) 예. 그분들이 와서, 인저 간부들이 와서 가끔 회합하구 그럴 때 사용해지. 그것만 사용해는 거여.

본당 8지역 회합할 때요?

(이보철) 예. 그다음에 인저 또 뭐 이 본당에 어린이들 뭐 이렇게 피정 올 때. 피정... 어떻게 뭐 한 1년에 한두 번... 그전까지만 해두 왔지.

(차수영) 그전에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

(강향린) 작년까지 왔잖아.

(이보철) 작년에두 왔었지.

(강향린) 응. 올해만 안 왔지.

(이보철) 교구촌에서도 왔었는데, 피정.

본당 8지역은 어느 마을이에요?

(이보철) 서탄면 다.

(차수영) 서탄면 전체가 8지역이에요.

서탄면 전체가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돼요?

(이보철) 그 그렇게 보면 꽤 되지? 100여 명 될려나?

금암리나 이쪽은 어때요?

(차수영) 우리가 제일 커요... 우리가.

회화리가요?

(차수영) 예.

금암리는 신자가 어느 정도예요?

(차수영) 금암리는 신자가... 열 몇 집 되나?

(이보철) 그 정도 될거여. 지금 인제 앞 부락, 골안말, 저기 안만, 새말.

(차수영) (헤아리고 나서) 한 열다섯 집...
(이보철) 열다섯 집 안 될걸.

골안말이 몇 명 정도 돼요?
(차수영) 골안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인가 보다!

안말은요?
(차수영) 안말은 지역장네, 또 그 뭐야 소라네, 소라 삼촌, 또 임 선생네, 또 저기 뭐야... 한 여섯 집인가, 일곱 집 되나봐. 한 일곱 집 되겠다. 이쪽 집은, 새말은 몇 명이여? 새말두 있잖아.
(이보철) 새말에 그 저 저기...
(차수영) 한 세네 집 되나보다.
(강향린) 사업소가 많잖아.
(이보철) 셋 정도 되나봐.
(차수영) 응.

사업소도 많아요?
(이보철) 사업소가 좀 되죠.
(차수영) 사업소가 좀 되죠.
(이보철) 거기가 꽤 되요.

거기 한 뭐 20집 정도 되나요?
(차수영) 20집은 안 되구.
(이보철) 20집은 안 되구, 한 열댓 집 되나. 마두리에, 원마두리, 마두1리가... 셋.... 네 집 정도 되나봐.

여기는 주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면 성당 다니시는 분 그러겠어요?
(이보철) 예. 반 반.
(차수영) 예. 그래요. 반반 되요.

교회는 몇 집이나 다녀요?
(차수영) 교회하고 옛날에 반반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박복선) 불교하고, 성당하고 교회하고 똑같애.

불교하고 교회하고 성당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고요?
(강향린) 예. 비슷해요. 그래도 꽤 큰 거야. 동네가.
(이보철) 100여 가구가 넘었으니까.

그럼 교회는 인제 회화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주로 성당은 또 여기 공소 다니시고. 그럼 절은 어

디로 가요?

(강향린) 아유 절은 각자 그냥.

(차수영) 아니 그냥 절두 댕기구, 안 댕기구 그냥 가만히 그냥 무신론으루.

동네가 커서 무당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마을에.

(강향린) 무당은 없어유.

무당은 없었어요?

(차수영) 무당은 요기 하나 이사 와서 했었는데요. 안 돼서 나갔어요.

(강향린) 안 되지. 교회 다니구, 성당 다니는데.

동네에 굿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옛날에도?

(차수영) 없어요. 없어.

(이보철) 옛날에 있었지.

(차수영) 옛날에는 있었지.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무당 찾아갔어요?

(이보철) 그때 뭐...

(차수영) 저기 뭐 북바위, 북바위 저기 북바위 있는 데, 고기 저기 있었어요. 무당이 살았어요. 북바위 밑창에. 아주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없었는데, 그 북바위 밑창에 무당이 없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인가 생겼더라구요.

(이보철) 어서 데려다가 해는지 굿해는 건 봤어. 나두.

그 북바위 있는 데서요?

(이보철) 아니. 여기서, 동네 와서.

그 무당이 거기 한 20~30년 살았나요?

(차수영) 북바위 무당 얼마 살았어?

(강향린) 얼마 안 살었어요. 사고 나갖고 돌아가셨어.

사고 나가지고?

(차수영) 응. 거기들 많이들 댕겼어요. 거기두.

그때 거기 무당 있을 때가 사모님 몇 살 정도 됐어요?

(차수영) 아이 나 저기 뭐야 결혼해구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박복선) 꽤 있었어.

(차수영) 응. 결혼하구나서 생긴 거 같애. 나 어려서는 없었어.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차수영) 26에요. 근데 없었어 그때.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결혼 후에 그 무당이 있었다는 거죠?
(차수영) 예. 얼마 안 있었어.

한 10년 있었어요?
(차수영) 그건 모르겠네.
(이보철) 고기? 10년 더 있었지. 그 무당. 고기 사는 게 그 사람이 살었는데. 꽤 됐어.
(차수영) 거기가 좋은 데였는데 그냥 그 북바위가 참 좋은 곳이었는데 그 솔고, 아니 저기 뭐야 본드 회사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어요.

칠성고분자요?
(차수영) 칠성고분자 들어오면서. 거기가 참 좋은 자리였는데.

그 무당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차수영) 예.
(이보철) 교통사고로 죽었어.
(차수영) 옛날에 거기 가면, 우리가 소풍을 가면은 거기 바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면은 뭐 빨갛게 나오면 손톱에 물들이구 그랬거든. 우리가.

뭘로요?
(차수영) 거기 바위에 긁으면 뭐 이렇게 뭐가 나오데.
(이보철) 이끼.
(차수영) 이끼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놓으면은 고게 빨가지데.

그 어디서 놀았어요? 지금 북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차수영) 거기 그...

바위 위쪽으로 갔어요?
(차수영) 바위 위에서 저기 했는데, 고 밑창에서 놀었죠. 그니까 바위 그 옆에.

옛날에 인제 깨내기 전에?
(차수영) 예. 우리 공소에서도 거기 저기 뭐야 소풍 가서, 저기까지 다 싣고 갔어요. 그래갖구 우리끼리 공소 예절 가서 해구. 옛날에. 그랬어요.
(강향린) 공소 소풍도 글로...
(차수영) 예. 공소 소풍 거기 가서 공소 예절 해구 그냥 놀구 그랬는데.

칠성고분자가 언제쯤 글로 왔어요?
(차수영) 칠성고분자요?
(이보철) 꽤 오래 됐지. 그것두.
(차수영)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려, 저기해서 소풍 가구 그랬을 때도 그거 없었는데,
(박복선) 없었어.

한 30년 정도 됐나요?
(차수영) 30년은 더 된 것 같애요.
(이보철) 30년 더 됐어.
(차수영) 우리 애들 어려서 내가 고기 소풍 가서, 애들 적이구 그랬었는데, 그게 생겼어.

그 어르신(황세연씨) 말씀으로는 그 바위를 깨낸 그 양이 트럭으로 100대 이상 깨냈었다고 그러시는데?
(차수영) 그 밑창에.

그 밑에요?
(차수영) 예.
(이보철) 집진 데.
(차수영) 고 위에 거는 지금도 북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땅 파고요?
(차수영) 예. 그 밑창에.

땅 속에 박힌 거를 이렇게...
(차수영) 고 밑창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 절 생기구 그런 거 아녀. 고기는 그랬어요.

아니 그 북바위가 있으면 여기 도랑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지금 그 용수로.
(차수영) 예.

그러면 집은 어디 있었어요? 그 용수로 있는데 거기를 깨낸 건가요?
(차수영) 용수로 쪽이 아니라 그 북바위 그 밑창에.
(이보철) 집 있는 데.
(차수영) 예. 집터 바로 거기 있잖아.

그 주택이요? 일반 주택?
(이보철) 예. 거기를 드러내구서는 인제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거기 가 살게 됐는지도 몰라 그게.
(차수영) 그러니까 칠성고분자 앉은 데, 거기 좀 돌을 가져갔나.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 북바위 자체는 지금도 있데요. 근데 그 칠성고분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칠성고분자 자리는 그러면 산이었나요?

(차수영) 산이었어.

거기 일본 사람 살았다고도 하던데요?

(차수영) 그건 모르겠는데. 산이었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간에 소풍 해면 애들은 골로, 어려서는 골로 갔어.

진병호(남, 1944년생)·우완숙(여, 1945년생) 부부, 회화리 거주

날 짜	2023년 8월 3일
장 소	진병호 자택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몇 년생이세요?

44년생이요. 근데 원 내 나이는 43년생이지.

태어나시기는...?

서탄면 장등리 9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거기가 야리인가요?

야리.

야리하고 신야리가 인제...?

떨어져 있죠. 신야리는 저쪽에 동쪽으로 있었구, 야리는 이쪽 중앙 쪽에 있고. 지금 활주로 중앙 쪽에... 요 건너 활주로 중앙쪽이지. 거기가 옛날 야리지.

그럼 야리하고 신야리가 활주로가 되면서 동네가 둘 다 없어진 건가요?

다 없어진 거지.

일부는 남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신야리 쪽은...

이건(회화리 동쪽 적봉리) 이쪽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 사람들도 그 신야리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거여.

그러니까 활주로 이쪽에 좀 일부 남아 있던 게...

그렇죠. 일로.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거기 몇 가구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마지막에 몇 가구 정도 남아 있었어요?

거기 몇 가구 안 됐었어요. 그거... 그거 뭐...

(우완숙) 지금은 다 적봉리로 돼 있지.

그 옛날에 그 저기 저기 얘기하는 겨. 그 신야리 도씨네 살던 그 나머지 그거. 고때 한 뭐 대여섯 채었나 고거. 지금은 없어진 거지.

인제 그것까지도 인제 완전히 수용된 거죠?

예. 지금 완전히 수용....

구장터 수용될 때 수용된 건가요?

예 그때 된 거여.

그러면 야리에서 사시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나는 학교를 여기,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여기 적봉리 그 분교가 있었어요. 저쪽에.

예. 금각?

아니. 지금 금각이 아니고 적봉리에 옛날에 그 서탄국민학교 분교가 있었다구.

무슨 분교였어요?

글쎄 그 적봉리 거기,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학교를 거기 다니죠. 초등학교 처음에는 거기 다녔죠. 그래가지고 비행기장 나면서 인제 이 서탄국민학교는 4학년 초에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왔었어요. 서탄국민학교에.

예. 서탄 국민학교로요...

그랬다가 나는 인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인제 그 저쪽에 남사면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학교를 인제 초등학교를 인제 4학년 때 거기로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남사초등학교, 남사중학교요?

예.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구 부모님들이 다시 인제 고향 찾아 여기 오셔가지구 지금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지.

아 회화리요?

예.

그럼 회화리에 정착하신 거는 어르신 연세가 몇 살 때쯤 될까요?

그때 중학교 졸업 맡고 바로니까, 뭐 열 일곱 살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토박이나 마찬가지시겠네요?

그렇죠 뭐. 여기 그때부터 계속 살았으니까.

야리에 살 때도 이 회화리 쪽하고는 가까웠죠?
그렇지. 그 뭐 냇가 하나, 요 사이니까.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아이들은?
노는 건, 노는 거는 인제 그 뭐 정초, 그 정월 대보름, 그때 되면은 이 동네허고 쌈박질 많이 했지. 하하...

뭘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는 뭐 애들제 그냥 막... 그땐 뭐 여기 저 다리라는 게 뭐야 조그맣게 사람 하나 간신히 다니는 고런 다리를 놨었어요.

아나방 다리 같은 거요?
그런 거 같은 거.

회화리-야리 사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고거 사이다 두고 애들이 쌈박질 많이 했지.

정월 대보름 때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불깡통 던지고 막 그러나요?
그렇죠. 뭐 물놀이하고 그냥 애들적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두 동네만 싸웠나요?
이 두 동네죠. 여기 부락이 크잖아요. 이 두 동네가. 그러니까.

그때 야리에는 몇 가구나 살았었어요?
야리... 여기 회화리보다 오히려 규모가 컸을 걸요... 그 당시에. 내가 어렸으니까, 그때 규모가 컸을 거여.

회화리가 한 60가구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글쎄 고 정도... 그때 이 회화리는, 실질적으로 야리는 이 본 저기였어요. 이 서탄면에서도 이 부락이 굉장히 큰데, 거기가 농사가 그쪽에 짓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는 개발이 된 데거. 회화리는. 여기는 그 인제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 촌락을 이룬 데예요. 여기가. 그런 동네입니다. 이게.

그럼 야리가 회화리보다 좀 오래된...
그 오래됐죠. 거기가.

야리가 교통도 좋았죠? 이렇게 오가는 교통...

그때는 교통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 뭐 차가 있나. 뭐 마차지, 마차가 댕기는 건데 뭐.

그 야리에서 농사는 어느 정도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내가 어리니까 얼마나 뭐 지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많이 졌어요. 좌우지간.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우완숙) 머슴이 둘씩 있었다는 거여.

둘, 넷, 이렇게 인제 머슴을 두고 살았고, 우리 집에, 굉장히 정말 대궐같은 집이었어요. 기와집. 옛날에 그 재목을 전부 서울서 이렇게 인제 마차로 실어다가, 말마차가 실어다가 집을 진 거거든.

그럼 농사도 많이 지었겠네요?

농사 많이 졌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부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쪽에 임씨들도 좀 있지 않았나요?

임씨도 있었죠. 임씨들도 살기 괜찮았고, 다.

그러면 임 씨하고 진 씨가 좀 부자였나 봐요?

진씨는 뭐 우리 한 집이니까 거기. 야리에.

그럼 대대로 거기서 사신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린 뭐 인제 고덕 쪽에, 인제 우리 선조가 그쪽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고덕 어디...?

글쎄, 어디라고 정확하게 내가, 그 선산도 거기 있었어요.

고덕에요?

예. 고덕에 인제, 그 일대가 우리 증조께서 그 고덕 일대의 토지를 전부 관여를 하셨대요.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평택 이야기니까요.

응.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황새가 이렇게 와서 앉으면은 쫓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쫓아야 내 논에 앉는데 왜 쫓느냐.

(우완숙) 30리 안쪽은 내 논이다.

이 황새가 인제 날아오면 논에 짓밟고 그러잖아요. 그거 쫓지 말아라. 어차피 날아가야 내 논에 앉을 거다.

그 정도로 땅이 넓었다는 거죠?

예.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완숙) 어머니 말씀 들으면 옛날에 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할아버지께서는 말을 타고 다니셨대요.

굉장한 부자셨네요.

예. 그리고 오산을 가셔도 말을 타고 가셔가지구 반찬을 사오셔두 그냥 짝으루 막 사다, 머슴도 있구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대요.

머슴도 많을 때는 넷까지 뒀었어요?

예. 넷까지.

그러면 그 넓은 땅이 다 수용된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다 수용된 거지.

보상도 제대로...?

보상, 그땐 없었어요. 내가 알기론. 글쎄 우리 어르신들이 뭐 보상, 없는 걸로 알아요. 그때, 이사 나올 적에 그 집집마다 송판때기는 몇 장씩 주더라고. 송판때기.

송판이요?

응. 송판 이거. 그거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어디가서 살라고 주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그걸 주더라고요. 그거 싣고 나온 기억은 있어요.

천막 같은 건 안 줬어요?

그런 것도 난 기억 없어요. 내가 어려서, 그때 어려서 기억이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억두 없구요.

그냥 송판만 기억나시는 거예요?

예. 송판 싣고 나온 거, 그런 건 기억 나요.

그럼 부자로 사시다가 굉장히 인제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화리 오실 때는 17살 때였으니까, 어느 정도 인제 기억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 그 아버님께서 농지를 마련해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인제, 저쪽에 남사면 그 땅을 인제 일부 정리해서. 그 저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거 있더라고. 그래도 뭘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땅을 좀 사신

거예요.

몇 마지기나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시게 한 열댓 마지기 돼요.

여기는 한 마지기가?
200평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열다섯 마지기 구입해갖고 여기에 정착하신 거예요?
예. 가지구 인제 살다가 인제 그 뭐 큰 자식, 장자가 인제 또 뭐 가져갈 거 가져가고.

어르신 몇 째세요?
난 둘째죠. 아들로는 둘째.

몇 남매 중에요?
6남매.

어르신은 몇 마지기 정도 받으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900평.

그때 200평 한 마지기에 몇 가마나 났어요?
그때 뭐 쌀 한, 백미 한 되도 있고. 한 되, 뭐 되 가웃 뭐 이런 식이니까, 뭐 값이라고 뭐 얼마나 갑니까 그거. 그때 쌀로 거래하니까 이렇게 곡물로.

아 매매할 때 인제...?
응 곡물로 거래했거든요. 그때.

한 되 반 이런 식으로?
응. 한 되 반, 인제 한 평에... 두 되, 세 되, 인제 비싸면 두 되, 세되,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거라서...

그러면 200평 한 마지기에 소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뭐 비료가 있나요? 뭐 지금 이렇게 소출이 좀 난다고 그러지마는, 그 당시에 뭐 양석, 그냥 그렇게 두 가마, 한 마지기에 두 가마.

아 두 가마요?
양석 먹으면 잘 먹는다고 그런 소리 났었지.

여기 물 사정은 어땠어요?

그땐 보라고 있어가지구, 이 똘을, 여기 똘이 있어가지구, 저 냇갈을 인제 틀어막아가지구 물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 진위천이요?

예.

진위천을 어디서 막았어요?

(우완숙) 이 동네 입구에. 동네 입구에서 막어가지구... 봄이면 봇도랑 치러 부역해러 나가가지구.

지금요. 지금 저 이 천(진위천)이 요 바로 동네 앞에 하천이었어요... 교회 그 앞으루.

회화리 교회 앞으로요?

예. 그게 하천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제 길이 이리 뚫리구 메꿔졌으니까 논이 돼버린 거지. 거기가 그냥. 하천이 논이 돼버린 거여.

(현재 남아 있는 흔적이) 봇도랑 아니고요?

하천이여. 그게. 그 교회 지금 앞에. 그쪽에 그게.

(우완숙) 교회 앞으로 해서 적봉리 뒤루 해가지구.

뒤루 해서 그게 이렇게 옛날 하천이여 그게. 옛날 하천인데, 옛날에는 거기를 막어가지구 물을 인제 끌어온 거지.

아 보를 막아가지고요?

(우완숙) 교회 앞에서 막어가지구.

회화리 교회 앞에서요?

응.

(우완숙) 그래가지구 그 푸기도 해구.

그 교회 앞에 바로 앞에서, 그 몇 미터 정도나 보를 막았어요? 넓이가?

그래도 넓었지. 저 뭐야 하천이니까 그게. 냇갈...

본 하천이었어요?

본 하천이여 그게.

인제 직강 공사하기 전에?

예. 옛날엔 본 하천이여 그게. 그니까 굉장히 넓었지 그게.

그러면 봄에 막았나요?
그렇지. 농사질 무렵에 인제 그걸 막아가지구, 물을 인제 똘로 인저 이어 빼는 거지.

그러면 여름 장마에는 터졌겠네요?
장마면 터지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 장마지면 또 막고요?
그러면! 그거 인제 물 댈려면 또 그냥 부락 사람들이 나가서 또 그냥 그 틀어막구 인제 그렇게 해가지구 물 대고 그랬었지.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막아야 되겠네요?
허물어지면 막는 거니까.

그러면 가마니에다가 흙을 넣어서 막았나요?
그렇지. 그렇게.

이쪽 논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농사 있는 사람이.

그러면 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일은 같이 합니까?
일은 같이 하죠. 그건 뭐 그땐 ‘농사 많으니까 너 사람 더 나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녀.

어르신은 인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학교는, 워낙 아버님이 여기 저 뭐야 평택 평고를 좀 가라구 그때 그러셨어. 근데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인제 기울어지니까 뭐 댕기기가 저기해서 고등학교 못 갔어요.

어르신 연세에 뭐 대부분 그렇죠. 집안 사정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인제 농사 계속...?
예. 농사, 여기서 농사짓고 살았죠.

보통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농사 시작? 5월달부터 해죠.

인제 대보름 지나면 논 갈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옛날에 한 6월달 돼야 그 저기여. 5월 말 6월 달 돼야 논갈이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씨나락은 언제 뿌리나요?

그때 못자리. 6월 달에 통상 못자리 했어요. 6월 달에. 그지?
(우완숙) 아이 5월 달에.
지금이니깨 5월 달에 해지.
(우완숙) 아녀. 5월 달에 해구 6월 달에 모를 심었어.
아 그렇게 됐겄네.
(우완숙) 4월 달에 논갈이를 해는 거야. 저기 퇴비 실어 날르고.
그때는 인제 뒤엄 마차로...
(우완숙) 소 달구지로 실어 날르구.

그 두엄은 뭘로 만들죠?
그 소를 멕이잖아, 인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소가 인제 짚을 넣어주니까. 그걸 인제 소가 밟고 인제 거기다 배설핸 걸 한 데 모아놓는 거지.

퇴비를 따로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럼 인제 그게 바로 거름이죠. 이게.

그거 인제 쌓아놨다가?
예. 쌓아놨다 인제 그걸 봄이면은 논으로 실어내는 거여.

봄에요?
응.

퇴비는 뭐 그 정도로 했나 봐요?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그때는. 그것뿐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인제 새마을 운동할 때는 왜 그 풀 베다가 쌓아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박정희 때. 그때는 내가 이장을 봤기 때문에 잘 알죠. 하하하...

이장을 몇 년에 보셨어요?
76년돈가부터 내가 이장 본 것 같은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76년도면 인제...
(우완숙) 42살 땐가?

박정희 대통령의 끝 무렵이네요. 거의. 79년도까지 했으니까.
(우완숙) 지붕 개량, 울타리 개량 다 했어요.
그렇게 됐나.

어르신께서요?
예. 슬레트, 요거 지붕 개량이 뭐 울타리 내가 다 했죠.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이장하면서 지붕 개량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이거 인제 사업을 올려가지구 전부 끌어내린 거니까. 이거.

회화리에 기와집은 몇 채 정도 있었어요?
기와 집이... 없어요. 없어.
(우완숙) 없었어. 여기 한 집 있었는데, 다 지금 헐어냈어.

한 집도 없었어요?
누구네가 기와집이었어?
(우완숙) 그전에 있었어. 그전에.
아 요 앞에.
(우완숙) 근데 다 걷어냈지.

그 집은 좀 부자였나요?
(우완숙) 몰라요. 부자였는지 몰러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뭐 농촌에서... 뭐 부자는 무슨 부자가 있겠어요.

한 집 정도가 인제 기와집이고 나머지는 다 초가집이었어요?
농촌에는 솔직한 얘기가 남의 빚 없구 밥만 먹으면은 잘 사는 거유. 그게.
(우완숙) 옛날에 태영네두 기와이었어.
태영네두. 태영네.

그러면 지붕은 몇 년에 한 번씩 했나요?
초가집은 1년 1년, 2년 지나면은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여... 2년에 한 번은 바꿔야 돼여.

그러면 짚도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니까 곡초 갖다가 인저 이엉 일일이 엮어가지구 인제 올리는 거지. 인제 그렇게 하다가 지붕 개량하면서 싹 벋겨냈어. 아주 그냥 저기. 싹 뱃겨냈구 전부 슬레트, 지금 저거 우리 배깥에 스레트가 바로 저거거든.

그때 해놓은 거예요?
그때 핸 거여. 저게. 슬레트가...

마을 전부 다 지붕 개량하는 데는 뭐 한 1년 걸렸나요?
아니 금방 했어요. 이거 슬레트를 그때 삼만... 아이 삼천, 삼천 몇백 장인가 내가 들려다가 그

냥 뭐 목수들 그냥 뭐 집집마다 목수 그냥 막 데려다가 그냥 두들겨 박고 그냥 한 거니까. 금방 했어요. 이거.

목수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 뭐 사방에. 뭐 송탄 인근에 있는 목수, 뭐 망치질 해는 목수래는 건 다 불러서 하는 건데 뭐.

그럼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럼요. 그냥...

그 목수들은 일당은 얼마나 됐어요?

글쎄요. 그걸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나? 하하하...

지붕 개량하시고, 그 다음에 인제 시멘트 국가에서 나왔죠?

예.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인제 그 하수도. 하수도 사업 그거 다 그거 인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인제 사업을 올리잖아요. 이장이 인제 그 사업을 계획대로 올리고 하면은 '아 세면 몇 포.' 딱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일일이 인제 주민이 다 나와서 그걸 스스로 그냥 모래 파다가 그냥 개서 그걸 해야 되는 거여.

그러니까 그때는 마을마다 이렇게 거의 똑같이 할당된 게 아니고,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할당되는 건 아니지.

몇 가구 사니까 얼마 그러면...?

예.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인제 시멘트 처음 나올 때 하수도...?

예. 하수도 공사 한 거여. 여기

그럼 시멘트로는 다 하수도에 쓰고요?

예. 하수도 공사

그리고 인제 하수도 공사하고, 길도 좀 넓혔을 것 같은데요?

길은 그때 길까지 포장을 못 했어요. 안 해놓은 거여. 못 했어요. 길포장은 못 했어요. 그때. 동네 안길 포장을 그때 못한 거고, 그거는 그 이후에 지금 포장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 이장님 끝나신 다음에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여기 포장은, 마을 안길 포장은 한 80년대쯤 됐나요?
그 이후일 거야 아마. 이거 포장 한 게 뭐 이렇게... 아이 내가 뭐 기억을 이렇게 일일이 뭐 적어놓지 않아서. 하하하....

요 앞에 보니까 연못 같은 거 하나 있던데요?
아 저 공장 바로 앞에.

그거는 어떤 용도였어요?
(우완숙) 그게 지금 옛날에 낚시터 했었어요.

농사하고는 관련없고요?
관련없는 거여. 그게 옛날에 냇갈이여. 그게.
(우완숙) 냇갈 길이었는데 그게 인제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그게 인제 또 낚시터가 된 거여.
그게 지금 국유 소유여 그게. 나라 땅이여 그거.

아 옛날 하천이니까요?
예. 옛날 그 진위천 냇갈이지.

여기는 옛날에는 이쪽 다리가 없었죠? 이쪽 송탄 쪽으로 건너가는 길,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좋았죠?
그렇죠. 이쪽 저 냇갈을 건너서 걸어댕긴 거예요. 옛날에.

장은 어디로 다녔어요?
송탄장 보러 갔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갔어요?
글로 가는 거지 뭐. 걸어가는 겨 그냥.

이 구장터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렇지. 구장터 그리로.
(우완숙) 신야리 길로 해서 구장터로 건너갔지.
지금 수용됐던 그 신야리, 옛날에 몇 채 안 남았었잖아요. 글루 댕긴 거여 인제. 글루 해서 지금 구장터로 지나서 송탄 가서 장보고 그랬지.
(우완숙) 걸어댕겼지.

근데 송탄은 비행장 생기고 나면서부터 그 장이 서지 않았나요?
그렇죠.

비행장 수용됐는데 어떻게 걸어갔죠?

지금은 인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얘기....?

그러니까 비행장 생기고 나서 바로요.

(우완숙) 바로 생기고 나서 고 옆에 신야리, 비행장을 뺑뺑 돌아서 구장터로 돌어댕겼지.

그 구장터로 해서 이렇게 다닌 거여.

아까 말씀하신 그 다리 건너서요?

예.

그 다리는 나무 다리로 놓은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인제 그 봄 되면은 인제 동네에서 인제 또 인원들 출원을 해가지고 그냥 그 말뚝 갖다 뚜들겨 박어서 그 요만허게 사람이 건너다니게 만든 거여 그냥.

위에는 아나방을 놨었어요?

아니.

(우완숙) 안나방이 어딨어.

그때 인제 나무를 요렇게 놓고, 인제 그 흙, 거적대기 같은 거 인제 흙담어서 깔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밟고 댕겼었고, 옛날에 여기 배가 있었어요. 그 노 젓는 배. 장마지면 그 배가 건너댕기고 그랬어요.

아 다리 떠내려가 버리니까요?

예. 못 당기니까 인제 그 배가 인제 댕긴 거지.

그러면 다리도 1년에 몇 번씩 놓아야 되겠네요?

그게 인제 봄에 놓고 장마가 져가지고 한 번 뜨면 끝나는 거여. 끝나는 거여. 그거 뭐 도리가 없는 거여.

(우완숙) 물이 여기 차도 건너댕기는 거지.

아 허리까지 차도요?

그렇지. 벗고 댕기는 거지.

(우완숙) 벗구 건너댕기는 거여.

그러다 장마가 많이 지면 그 배가 있었으니까 고거 타고 인제...

여기는 주변에 산이 없어서 그 다리 놓는 목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죠. 그게 그러니까 인제 그... 옛날에 새마을 사업 했잖아요. 내가 그 아까 얘기한 그 배수로 이런 거 해서. 그게 인제 그런 나무가 필요한 거잖아. 이 뻗치고 뭐 인제 핼래면은... 토벌을 나갑니다. 밤에.

예?
토벌을. 하하하... 산에 토벌 나가는 거여. 하하하... 밤에.

어디까지요?
밤에 인제 경운기 끌구 인제, 그 인제 동네 일 보는 사람들 데리고 인제 가는 거여. 비어 오는 거여 밤에.

어디로...?
그 저쪽에 그냥 뭐 산들 있잖아 저. 아무 산이나 갔다가.

진위 쪽으로 갔나요? 하북리?
거까지는 안 가구 여기 인제 면사무소 그쪽 인제 저 옆으로 이 산들 있잖아요.

아 저 금암리 쪽이요?
예. 금암리 쪽에. 지금들은 뭐 집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간신히 경운기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서 그냥 뭐 그냥 토벌 해 오는 거지. 싣고 오는 거지. 몰래 해가지구. 밤에 도둑질 해 오는 거지.

아 그거 인제 시멘트 치려면 이렇게 대야 되니까?
예. 그거 그렇게 해가지구 저기 하수도 공사하구 그랬었지.

몰래 가서 베갖고? 남의 산에서요?
그럼요.

그 동네에서 난리 나지 않나요?
뭐 난리나마나 뭐 그 아이구.
(우완숙) 몰래 훔쳐오는 데 뭐. 몇 개 가져오는데 뭐 알아요!

여기는 나무해서 때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곡초뿐이 없어요. 짚.

나무는 거의...?
(우완숙) 옛날에는 이 수수깡 뿌리두 이렇게 패가지구 그걸구 말려서 때고 갈대 그런 거 비어다 때구 그랬어요. 볏짚 없는 사람들은.

산 에 나무는 안 하시고요?
에이 못 가죠.
(우완숙) 에이유 산에 안 가지. 너무 멀으니까 어떻게 가. 검불 나무만 해다 때는 사람두 있구

그랬었는데. 농사 없는 사람들은.

연탄은 언제부터 들어왔죠?

(우완숙) 연탄은 우리 애들 낳아서니까. 그것들이 50, 걔들이 56년 됐지? 걔들 낳아서, 55년 전에? 우리 애들 낳아서 연탄...

55년 전이면 한 70년 초...?

(우완숙)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될 건데.

연탄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우완숙) 아이 장사가 팔지.

여기 그 연탄 도매 장사가 있었어요... 금암리 쪽에. 그 사람들이 인제, 그때 연탄 공장이 여기 송탄 어디 있었나? 그때?

(우완숙) 송탄에 있었어. 좌동에.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사서 인제 때고 그랬지.

아 좌동에서 이쪽 금암리 쪽으로 오면, 금암리에서 이렇게 배달 해줬어요?

예 배달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경운기로요?

(우완숙) 경운기루

아 차루지. 차루 다녔지 그 사람들.

(우완숙) 차두 댕기구, 그 공장에 차도 오구.

소매 하는 사람은 경운기로 배달 허구.

보통 한 번 살 때마다 몇 장씩 연탄 사시나요?

100장, 200장이지 뭐.

인제 그렇게 100장, 200장씩 사다가 연탄 사다가, 연탄 때다가... 그때는 아궁이었죠?

그렇지. 아궁이여.

(우완숙) 연탄 아궁은 한 군데만 있구, 두 군데는 짚 때는 거야. 짚... 아궁이에 짚.

그때 연탄이 좀 비싸서 그랬나요?

(우완숙) 아니 집 때다가 인제 우리 애들 낳고 나서부터 인제 그 아궁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때기 시작을 핸 거지. 우리가.

그러면 밥은 연탄에다 해 먹어요? 아니면...?

(우완숙) 짚 때서 했어요.

짚 때서 하고 연탄은 그냥 난방용으로 쓰고요?

(우완숙) 그리구 소죽 끓이구 그러는 거는 짚 때서 끓이구. 물 디어 쓰구 그러는 건 다 짚 때서 해구, 그 찌개 해 먹구 그래는 걸루. 인제 난방 해는 거죠. 인제 가운데다 연탄 아궁 하나 해 놓구.

그 무렵에 곤로도 들어왔죠?

(우완숙) 석유 곤로... 석유 곤로 썼죠.

그 석유 곤로하고 연탄하고 어느 게 먼저 들어왔어요?

(우완숙) 글쎄, 모르겠네요.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애.

고 무렵인데 그냥. 고 무렵인데...

곤로 처음에 들어올 때 할머니 어떠셨어요? 편하시죠? 쓰니까?

(우완숙) 몰러요.

아 그땐 편했지. 그거 들어왔으니까.

(우완숙) 불날 뻔 했슈. 그것 때문에. 하하하...

아 잘 못 다뤄가지고요?

(우완숙) 예.

석유 가게도 다 금암리에서 받아왔나요?

(우완숙) 몰러.

아 그땐 금암리에 석유 가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사러 갈라면 송탄 나갔었어. 저 주유소루. 송탄으루...

(우완숙) 기름 한 통씩 사다가.

경운기 끌구 나가서 그걸 사가지구 오는 겨 그냥.

경운기를 끌고 가서요?

경운기 끌구 가서.

경운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그... 아이구 내가... 그거 경운기...

(우완숙) 군대 갈 적이지. 스무 살 때?

65년도...

(우완숙) 60년 60...

63년도에 내가 군대 갔거든. 63년도 고 무렵

(우완숙) 고때 경운기...

63년도에 경운기가 있었나요?

(우완숙) 예. 우리 군대 갈 적에...

맞아. 맞아.

(우완숙) 경운기 샀잖아.

맞아 맞아. 63년도, 그러네.

(우완숙) 아니 아니다. 아니다. 군대 갈 때가 아니라, 마흔 두 살 때 저 해외 갈 적에 경운기 사놓구 갔었잖아. 그때.

그때는 저기여. 79년도여... 79년도 고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마을에 경운기가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처음에 여기 들어온 게, 나하구 그 세 집뿐이 없었어요. 경운기 세 집 뿐이 없었어. 그 경운기.

그럼 어르신이 세 번째로 사신 거예요?

그렇게 되겄죠 뭐.

79년에요?

예.

79년에 어디 가셨어요?

(우완숙) 42살 때? 외국 한번 갔다왔지. 해외.

어디요?

사우디.

그 사우디 가시기 전에...?

(우완숙) 이장 봤죠.

고 전까지, 고 전에도 이장 보고, 이장 끝나면서 바로.

그러니까 이장을 2년 보신 거예요?

3년.

그러니까 76년, 77년, 78년 이장 보시고 79년에 해외에 가신 거예요?

79년도 해외 가구. 내가 이장하구 여기서 동네 일 본 것이 약 한 12년 봤나 봐요. 일을.

아 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동네 일.

그러니까 해외에 갔다 오셔서...?

갔다 와서도 인저 하고 그냥.

(우완숙) 72살 때두 이장 보라고 막 했는데 한 해 보구는 안 핸다고 그래.

그 해외 가시게 된 건 어떻게 가신 거예요?

(우완숙) 먹고 살라구 갔지 뭐. 없으니까 돈 벌라구.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으로 논이 딱 9백 평뿐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애들은 인제 전부 삼남매가 다 인제 큰 애들, 둘째는 학교를 다니구. 또 인제 막내 애가 인제 그때 걔, 걔두 학교 다녔나?

(우완숙) 현미? 현미는 4살.

그니까 900평 가지구 살 도리는 없잖아요.

(우완숙) 우리 아들들은 중학교 다녔고.

그리구 또 옛날에는 뭐 이장이 무슨 보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장 보면 다 망했어요. 빚지게 돼 있어요.

이장 보면 왜 빚을 지죠?

대외 관계는 해야죠. 그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 경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비 충당은 이장이 다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리세 받잖아요?

지금이니깨 리세죠... 그거 그때는 마을에서 쌀 인제 그 가을 되면 한 말씩 주거든요. 한 말씩 내거든요. 그거 가지구 뭐가 됩니까 그게. 그게 그때 쌀 한가마에 저 뭐야 6천 원인가, 6만 원인가? 뭐야 어떻게 된 거여? 그 당시에?... 이장일 보면은 좌우간, 나가면은 그냥 좌우간 이 대회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녀. 이 사람 만나구 저 사람 만나구 이렇게. 그러면 사교비가 들어가잖아. 그 전부 이장이 그 감당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해외에 가게 된 것이, 78년도 79년도까지 그때 인제 이장을 보다보니까 새마을 사업하구 막 그냥. 저쪽에 옛날 회관 짓구 그냥. 내가 다 그 회관도 짓구 그랬거든요. 그걸 해다 보니까 그냥... 아 빚이 있는 거여. 인저 빚을 진 거여. 딱 그냥 이장 내놓구 보니까, 인계해주구 보니까 내가 떠안은 빚이 그 당시에 90만 원인가 됐었어요.

9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해외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해외에 가서 겨우 그거 갚았지. 하하하...

해외는 몇 년 갔다 오셨어요?

1년 갔다 왔다가, 갔다 왔다가 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구 인제 농사를 조금 인제 장만했죠.

그래서 몇 마지기 정도 장만 하셨어요?
그때 한 2천 평이라두 샀으니까 그래두. 하하하...

그럼 원래 가지고 계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셨네요.
그렇죠.
(우완숙) 그러구 나서 하우스를 한 6년 지었어요. 하우스.

하우스는 몇 년부터...?
(우완숙) 한 6년

해외 갔다 오시고 나서요?
(우완숙) 하우스 2년 해가지구 또 여기 애들 장가 다 보내놓구 또 여기 땅 또 한 1,900평짜리 또 사구. 그렇게 해구 살은 거여.
아 그 내역서를 뭐하러 자꾸 알려줘.
(우완숙) 하하하...

하우스는 얼마나 하셨어요?
(우완숙) 열한 동
그때 열한 동이 뭐여, 열네 동이지.

그러니까 한 동이면 200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걸 열네 동을 하셨어요?
열네 동인가, 열세 동인가 했어요.

열네 동이면 2,800평 정도, 거의 3천 평 가까이 하셨네요?
(우완숙) 그 옆에 논, 남의 논까지 했어요.
그렇죠.
(우완숙) 열세 동이다. 열세 동.

사우디 갔다 오시고 나서, 두 번 갔다 오시고 나서 바로 하셨으면 한 80년대 중반쯤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죠.

그때 여기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지었었나요? 그 대정촌이라든가 야막리는 그때...?
그때 많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때만 해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우완숙) 그때는 단동으루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지.

그때 회화리에서는 하우스를 몇 가구 정도 했어요?

그거 숫자로 치면 한 일곱, 일곱 여덟 가구 되나?... 일곱 여덟 가구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 하우스를 질 만한 땅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지대가 얕아지구. 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은 좀 했었지.

그게 뭐 토질이 좀 달라야 되나요?

아니 뭐 토질은 같애두 깊으니까 인제 물이 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배수...?

예. 문제 때문에. 이 토지가 좀 높다 해는 데는, 그런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하우스를 좀 했었죠.

이쪽에서 하우스 한 건 아무래도 이 대정촌이나 야막리 영향을 좀 받았나요?.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해가지구 좀 뭐, 조금 소득이 좀 있다 하니까 인제 여기두 대들어 본 거죠.

하우스는 뭐 뭐 하셨어요?

그땐 뭐 호박, 배추. 그거요. 그거.

재미는 좀 보셨어요?

어떤 때는 그냥 갈어엎구, 어떤 때는 좀 재미 보구. 그런 거지 뭐. 하하하...

논농사보다 소득이 좀 나았죠?

그래 나니까 한 거지.

그때 일꾼들은 어디서 왔어요?

(우완숙) 일꾼은 못 얻었죠. 옛날에 우리는 외국 사람 쓰는 걸 몰렀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또. 외국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 없었어. 그때는 여기 이 부락 사람들 아녜요? 부락 사람들하구 저 타지 사람들도 일용 이렇게 뭐야 하면은 그때는 또 품값두 싸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못하지만 그때는 싸니까.

그때는 뭐 몇천 원씩 했나요?

그렇죠 뭐, 그 정도지 뭐 옛날에.

(우완숙) 처음에...

뭐 한 4~5천 원 했나요?

(우완숙) 3천 원. 아니요 5천 원 했어요. 5천 원, 8천 원.

그러니까 5천 원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서 8천 원까지?
(우완숙) 맞어.

그 하우스를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95년도에 그만뒀으니까.
(우완숙) 6년 했어요. 6년... 7년인가 6년인가 허구 안 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아유 힘드니까 그만 한 거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계속 했을 텐데 그 수익에 비해서 힘이 많이 드셔서?
그게 이래요. 하우스를 하면 1년 열두 달 쉬는 날이 없어요. 만날 거 살아야 돼 아주 거기.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여. '에이 인제 그만 해야겠다.' 하고 인제 고만 둔 거지.

그리고 인제 다시 논농사로 바꾸신 거예요?
예. 논농사로 인제.

지금은 논농사만...?
예. 지금은 농사만 하구 있어요.

몇 평 정도 하세요?
자작이 한 4천 평 되고, 임대가 한 5천 평 돼요. 그래서 한 9천 평.

임대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해요?
여기는 통상 인제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

그러니까 200평당 쌀 한 가마?
예. 200평에 쌀 한 가마. 지금 임대료가 그래요. 그렇게 주구 하는 거여.

지금은 인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졌잖아요? 옛날에는 더 비쌌죠?
똑같애요. 옛날에도 한 가마 했어요. 옛날에도. 옛날에도 그냥 200평 한 가마.

어르신 처음 농사지었을 때, 열일곱, 열여덟 됐을 때, 그때는?
그때는 임대 논이 어디 있었나요? 다 아 눈이 벌개, 누가 농사 내놓나. 지금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구 그러니까 임대 논이래는 게 있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 70년대는 또 농촌을 많이 떠나서 서울로 이주해 간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때...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서울로 인제 가족이 전체 서울로 이사 가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거는 인저 하천이 인제 확장되면서 거기에 인제 저 이주하구 저 뭐 저기가 된 사람은 전부 떠나가구.

인제 살다가 더 뭐,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간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로, 없어요.

그냥 농사짓고 사셨어요?
농사짓는 거, 그거지. 그때는 임대 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땐 땅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짓지 무슨 임대를 줘. 하하하... 지금이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놓구 그 저 지들이 못 지으니까 임대 내놓구 허는 거지. 그땐 없었어요.

어르신만 임대를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임대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많죠. 뭐 몇만 평 하는 사람 있어.
(우완숙) 이장네는 뭐 4만 평을 핸대요.
남의 논.

남의 논이요? 그럼 외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우완숙) 그럼.
여기 아마 3분의 2는 외지 사람 땅일 거여. 여기가. 회화리.

그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고?
아녜요.

외지에서 그냥 이렇게 돈만 가지고 와서 땅 산 사람들?
그렇죠.

3분의 2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여기.
(우완숙) 우리는 우리 동생네 논. 동기간들, 동생들이 나가서, 외국에 나가구 외지에 나가서 살고 그래. 동생네 논. 친척 저기 그... 친척네 논이지 남의 논 없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하하...
(우완숙) 난 이 동네 토백이구. 아저씨가, 아저씨가 인제 여 동네 들어와가지구 어떻게 만난 거지 뭐.

어르신이 17살에 이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 보셨어요?

(우완숙) 그땐 안 본 거 같은데 몰르겄슈. 스무 살 넘어서 본 거 같은데.

할머니는 몇 년생이세요?
(우완숙) 45년생이에요.

연애 결혼하신 거네요?
(우완숙) 그런 거 같애요. 하하하.

여기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눈이 맞으신 거잖아요? 두 분이서.
(우완숙) 눈이 맞았는지 뭐가 맞았는지. 하하하...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인제 3년 전에 뇌경색으루 쓰러져 갖구. 지금 많이 지금 회복되신 거죠.

아유 그래도 뭐 인제 정상이신 것 같은데 말씀은...
(우완숙) 걷는 건 불편해가지구.

데이트는 어디서 하셨어요?
(우완숙)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를 해유. 하하하....

그래서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우완숙) 25살

양가에서는...
반대했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25살?... 어르신 25살이요?
(우완숙) 내가 25살이야.

저는 아까 "군대 가기 전에 샀지 뭐"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가시기 전에 결혼하셨나?' 그랬는데,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셨으니까 다 아시는구나.
(우완숙) 내가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서정리장에 가실려면 여기서 냇갈을 건너서 그냥 직방 간 거야. 직방 가가지구 어디루 가냐면 거기가 그러니까 서정리, 서정리 그쪽으로 그냥 쫓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장에 간다구 하면 이 쌀을 걸머지고 가시는 거야. 두 말을. 그러면 내가 "아버지 나도 갈 거여." 그러면 쫓아간다구 쫄랑대구. 조그만 게. 그러면 아버지가 "너 장에서 가만히 앉았어." 그러면 장에 쫓아가면 가만히 앉았으면 아버지가 쌀 팔어가지구 신발 사주구 점심 사 먹여가지구 날 데리고 오는 거, 인저 그 생각이 나더라구.

맨 첫째신가 봐요?
(우완숙) 아녀. 셋째. 오빠, 언니 다 있구. 셋째.

삼남매 중에 셋째요?
(우완숙) 아니 우리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셋째요
(우완숙) 7남매. 다 죽구 우리도 인제 4남매 밖에 안 남았어.

아버님께서 많이 아끼셨나 봐요?
(우완숙) 아니 내가 이렇게 쫓아 댕겼어요. 아버지만 장에 가면.

그때는 인제 송탄장은 없었던 거죠?
(우완숙) 없죠. 서정리장... 아니면 오산장.

오산장을 많이 봤어요? 서정리장을 많이 봤어요?
(우완숙) 노인네들이 서정리장 많이 갔죠.

여기서는 서정리장을 많이 갔어요?
(우완숙) 서정리가 좀 가꺼우니까.

저 금암리는 오산장을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요. 실제적으로 금암리 저쪽으로, 내천리, 사리. 솔직한 얘기가 저건 오산권이에요. 저 사람들. 금암리 여기는 그래두 송탄장을 많이 가는데, 그 넘어 쪽으로는 전부 오산권이에요.

금암리까지는 송탄장을 가고...?
(우완숙) 응. 사리 그쪽으로는...

사리하고 저기 수월암...
(우완숙) 내천리. 다 오산장이여.
다 오산권이여. 그쪽이.

금암리도 오산장을 좀 많이 갔다고 그러던데요?
(우완숙) 그렇게 저기 지금 농협 그 길로 이렇게 들어서면 그 길로 쭉 가면 당이 있어. 그리구 글루 넘어가면 오산, 글루 다녔어요.

그 면사무소 뒤에 그쪽이요?
(우완숙) 아뇨. 농협 옆에 길루.

거기 지금 나무 큰 거 있는 거...?
(우완숙) 글루 쭉 가면 인제 오산, 글루 다녔어요. 그러면 걸르미 고개 나오구. 그래가지구 오

산 다녔어요.

여기는 인제 서정리장으로 다니고요.
(우완숙) 응. 글루 해서 이렇게.
옛날에 서정리로 장 보러 다녔지.
(우완숙) 물 건너서 서정리장 다녔지.

여기는 그러면 학교는 서탄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로?
(우완숙) 진위.
진위로 많이 간 거지.

고등학교는 주로 어디로 가요?
그 진위중고등학교 있잖아.

근데 옛날에 진위고등학교도 잘 안 갔잖아요?
잘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제 뭐 갈 데가 없어요. 여긴 거뿐이 갈 데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들은 여기 젊은 사람도 없지마는 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두 서탄학교 안 보내요. 전부 송탄, 오산이루 보낸다구. 이 초등학교두 그리 보내는데. 서탄초등학교 지금 학생이 몇 명 되도 안 해요... 내가 3∽4년 전인가. 그때 들은 얘기로. 풍문으로 들었는데, 뭐 폐교해야 되겠다는 뭐 이런 소문까지 났었는데 뭐.

3~4년 전에요?
응. 그런 소문까지...
(우완숙) 30∽40명밖에 안 된다구 그려. 우리 댕길 때는 한 학급에 70∽80명이 됐는데. 하하하...

참 옛날에... 900평 정도면 이 두 분이서 생활하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는 면적인가요?
아유...
(우완숙) 택도 없지유.
택도 없는 얘기지.
(우완숙) 남의 품팔러 댕기구 내가 별짓 다 했지 뭐. 애들 학교 댕기니까.
품팔러 댕기구 남의. 근데 맨날 그렇게 해가지구 우리두 그 저기...

품팔로는 어디, 무슨?
(우완숙) 밭일.
동네서 하는 거지 뭐.

밭일이요? 그 하우스 일이요?

이 사람은 인저 밭일 뭐 그런 거 그냥 댕기구, 나는 인제 어디 논 일이 생기면 논일 그냥 그런 거.

저기 밭일은 저 대정촌이나 이런 데 하우스...?

(우완숙) 그런 데두 다녔어요. 여기 솔고. 내가 솔고를 한 7년 댕겼어요... 거기두 다니구, 뭐 안 다닌 데 있어!.

그러니까 어르신 사우디 갔다 오기 전에?

그렇지. 그 전이지.

(우완숙) 갔다 와서두.

사우디 갔다 와서는 인제 농지도 많이 마련하셨으니까.

그래두 집에서 누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녀. 뭐 시간 나면 그냥 일 다니구.

(우완숙) 나두 문화재 저 발굴하러두 댕겼어요.

실질적으루 농촌에 살면서 아무리 내가 여유롭다 하더래두 그냥 쉬구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루 없어요. 다 그래두 움직이구 뭐래두 할라구 그러는 거지.

옛날에 논일 할 때는 품앗이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어요.

(우완숙) 그렇게 했지.

그러면 인제 농지가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값을 어느 정도 쳐줬나요?

아니지 그 1 대 1이니까... 나 하나 가면, 너 하나 오면 되구.

작업반은 안 만들었고요?

아이 작업반두 있었는데...

(우완숙) 그건 모심을 때.

그것두 박정희 대통령 되면서부터 작업반이 생긴 거예요. 이게.

5.16 후예요?.

예. 공동 작업이 인제 그때부터 이루어진 건데... 그럼 농사 많은 사람은 농사 많은대루 돈을 내야 되는 거구. 그렇잖아요. 적은 사람은 돈을 받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여.

그때 작업반 할 때 품삯 ,그러니까 돈 받으면 하루 일당으로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때 얼마 받았어?

(우완숙) 아우 모르겄네.

기억이 뭐...

(우완숙) 그때 3천원인 거 같은데, 3천원.

여기 옛날에 디딜방아 같은 건 있었어요?
(우완숙) 있었지.

디딜방아가 어디 있었어요?
(우완숙) 요 앞에, 우리집 앞에 있었는데... 동식이네 앞에 디딜방아 있었지... 나 어렸을 때.

마을에 우물은 몇 개나 됐어요?
(우완숙) 하나, 두 개? 요 한씨네...
한씨네 하나 있구.
(우완숙) 저 차돌네.

공동우물이요.
(우완숙) 차돌네하구, 두 개.

그때 여기 가구 수가 얼마나 됐어요?
(우완숙) 그때 당시...
이거 아주 옛날 얘긴데. 그 우물. 아주 옛날 제방 나가기 전 얘기야. 지금 그러면.
(우완숙) 그렇지... 그때는 별로 사람...

할머니 어렸을 때... 한 50가구 됐나요?
아니요. 동네 큰 동네에 있어요. 여기.
(우완숙) 100호가 넘을 때두 있었는데.

어렸을 때도요?
(우완숙) 응. 100호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 이장 볼...
(우완숙) 그 무렵에 100호 넘었어.
그때만 해두 123혼가...

76년에요?
응. 고때...
(우완숙) 근데 고 앞전에 우물들은 다 없어졌지.

그 앞전에요?
(우완숙) 그럼요.

새마을 사업하면서요?
(우완숙) 그 앞전에 벌써. 그때 다 이거 박었죠.

관정 박은 거예요?
예. 전부 박어가지구. 전부 (손으로 펌프질 하는 시늉을 하며) 이거였어. 이 펌프였었지 뭐.

관정 박은 게 그러면 두 분 결혼하실 무렵에?
그 이전부터 다 그거 썼어요.
(우완숙) 그전에. 나 처녀 적에 박었어요. 다.

할머니 처녀 적이라고 말하시면... 60년대에 이미 박았네요?
(우완숙) 그렇죠.

그럼 땅을 파서 박았을 거 아녜요?
아니요. 두들겨 박으면 나와요. 그냥 박으면 물 나와요.

그냥 때려 박으면요?
응. 여기는 순 모래. 순 모래. 여기 바닥이.

아 바닥이 순 모래였어요?
응. 그래서 이거 비행기장 날 때두 이 비행기장 지질 조사를 핸 거여. 이쪽하구 저쪽하구. 근데 이짝이 순전히 보명이구 그래가지구, 지질이 저짝이 났거든요. 농사도 거기가 훨씬 좋아가지구, 여기 사람들이 부자는 거기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저 동네, 장등리에 가가지구.

야리 쪽?
야리.

회화리 사람들도 부자는 저쪽에?
예. 부자는 그쪽에 농사를, 거기였어요. 그런데 거기 지질이 좋으니까 지금 비행기장이 거가 앉은 거예요.

거기도 모래땅 아니에요?
아 거기는 밑창이 전부 개흙이여... 거기는.

그 소출도 많이 났겠네요?
땅이 훨씬 여기보담 낫죠. 여기는 순전히 보명갠데 거기는 안 그렇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모래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행장이 지금 거 가서 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쪽이 바닥이 훨씬 단단하겠네요?

예. 단단한 거여. 그래서 남 망하게 맨들은 거지... 에유...

오랜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두 이 동네가 이 저 소음에 대해서는 알지요?

예.

(우완숙) 보상두 안 해주구 뭐...

이거 무슨 참 해결이 나야지. 여기 사람들 솔직히 70년을 참 이렇게 버티고 살은 거야. 그 숱한 소리 지금. 여기 사람들 이 대화를 해잖아요. 그럼 "왜 싸우느냐?" 고 그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워낙 목소리가 다 크니까. 여기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커요.

(우완숙) 귀까지 먹었어요.

귀가 인제 저거허니까. 목소리 자체가 크니까 우리가 조용조용 얘기하는 것두 옆에 사람이 다 들어. 여기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건강상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이번에는 무슨 뭐, 그 뭐 국제 무슨 공항이 생긴다구 어쩌구 저쩌구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것도 뜨고 그러대.

송탄에요?

여기 여기.

회화리에요?

예.

그게 뭐 생긴다고 계획하는 게 아니고 인제 여러 구상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 그런 거 하나죠. 근데 뭐 그 공청회두 할 모양이더라구. 여기.

이쪽에다가 인제 민간 공항...

근데 그게 인제 이 경기도에서는... 아 그거 잘 알 텐데 왜 나보구. 또 그 내 얘기를 들어봐?

저는 잘 모릅니다.

군민 공항을 만든다는 거죠. 군민. 그러니까 옆에 군공항이 있어야 되구,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구. 근데 그 공청회 해는 걸 다 들으니까 제 1순위가 해화리, 여가 제일 적합이다. 왜냐 수원비행장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완숙) 이전 확정 됐대?

그럼 이전 하면은 여기 K-55 비행장 미군을 군산으로 한 2개 대대를 빼구 뭐 일로 인제 수원병장이 오구. 여기는 국제공항이 앉으면은 여가 최적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한 거 같으더라구.

근데 미군이 여기 있는데...

저건 군산이루 뺀다는 거지.

그런 계획을 인제 구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인제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구.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을 하는 거죠?
예. 공청회를 한 번 했더라구요. 근데...
(우완숙)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못 살어.

다른 데로 이주...?
(우완숙) 이 동네 사람들 다 나가길 아주 바라는데....
근데 뭐가 나가든지 나가야지. 이 70년을 진짜 이 속에서 산 거여. 이거... 그래 나 이거, (창문 새시를 가리키며) 이거 전부 시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핼 제 내가 욕을 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미친 짓 해구 있다.’ 구. 그깟 유리창 겁이루 꼈다구 소리 안 들립니까 이거. 이거 아무짝에두 소용없는 짓거리 한 거지. 이거.

아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여. 저거 해놓은 거.

그래도 창호를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하면 소리가 좀 덜 들리지 않나요?
덜 들리기는 뭘 덜 들려. 덜 들리기는...
(우완숙) 여름에 꽉 닫아놓고 살아.
아니 무슨 뭐 뻔데기 모냥 이 굴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구. 아 나가 돌아댕기는데 사람이 그런 거 소리 있는대로 다 들리는 거지 뭐. 미친 짓을 한다고 내가 욕을 했어요. 그거. 해준대니까 해긴 핸 거예요.

참 아까 그 60년대 관정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인제 새마을운동 하면서 간이 상수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나요?
상수도. 여기 마을 자체 상수도를 만들었었지.

그건 언제쯤 만들었...?
지금 회관... 고것이 80...아유, 70년대 중반쯤 됐을 걸요. 그때. 그 지금 회관 앞에 거기 상수도...
(우완숙) 정자. 정자 그거 상수도 자리여.
거기다가 2층으루 물탱크를 맨들어가지구 지하수를 퍼 올렸어요. 지하수를. 퍼 올려가지구 그 갔었구. 그렇게 해가지구 공급해는 거지. 그 물 공급. 동네 물 공급을 핸 거지.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새마을운동으로 다 핸 거예요.

어르신 이장 보실 때요?
아니. 내가 내놓구... 그 이후인가?

사우디 가시고 그 이후에?
아니 고 전. 사우디 가기 전. 그 전 전이니까 70년도 중반쯤. 75년도, 4년도 요렇게 되겠네... 고 전 이장이 핸 거니까.

그리고 인제 그거 쓰다가 상수도 들어온 거죠?
그렇죠. 상수도. 요것이 인제 내가 일 볼 제 상수도 새로, 상수도 공사 했지.

상수도는 몇 년쯤 들어왔어요?
그때 그 나 해외 갔다 와선데... 갔다 와서, 팔십... 팔십 사오년도

아 사우디 갔다 오신 다음에...?
예. 갔다 와서.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우완숙) 오래 됐어요. 상수도 들어온지.
내가 이장 보면서 이 상수도 한 거거든.

전기는 여기 언제 들어왔어요?
전기는 이거 왜정 때부터 있는 거여. 이거. 여기... 저기 뭐야 먼저 생긴 건 아까 얘기했던 저 동네 야리. 그 동네는 왜정 때부터 전기가 있는 거구. 요거는 인제 마을 형성되면서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지.
(우완숙) 어려서 들어왔어. 나 어려서.

거기는 왜 이렇게 전기가 일찍 들어왔어요?
그짝에 뭐 무슨 일본 애들이 무슨 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구. 그 무슨 그런 소문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왜정 때부터 거긴 그 전기 들어왔으니까.

사금 채취하고 이런...?
글쎄 그런지. 그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뭐가 있었던 모양이여.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두 분 결혼식 할 때는 구식으로 하셨어요? 신식으로 하셨어요?
(우완숙) 신식으루.

그러면 예식장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완숙) 좌동.

거기 무슨 예식장이었어요?
(우완숙) 문화예식장이라구. 인제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송탄에 예식장이 하나였었나요?
(우완숙) 그거하구. 한성예식장인가 어디... 두 군데여.
한성 있었어. 한성.

신혼여행도 가셨어요?
(우완숙) 안 갔어.
에이 그때는 무슨 신혼여행이 어딨어.

그래도 저기 온양온천 이런 정도로...?
(우완숙) 예식해구 그냥 택시 타구 들어온 거지 뭐... 그땐 버스도 안 다녔어요.

여기는 외지로 나가려면 하북리까지 걸어가야 걸어가 됐나요?
(우완숙) 걸어갔지.

여기서 하북리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우완숙) 한 1시간 걸리지?
그렇지.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 적봉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 건너서 대정촌으로 가나요?
(우완숙) 아니요. 그냥 이렇게 쭉 갔어요. 요 금암리 산길 있죠? 골로 해서 다리를 건너서.

금암교 건너서?
(우완숙) 예. 그래가지구 새마을촌, 글루 다녔어요. 옛날에 새마을촌에 동네 (집) 하나 없었어요. 우리 어려서.

그러면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려서 하북까지 나가서...?
(우완숙) 거 가서 버스 탄 거지. 하북 가서.

지금은 버스 들어와요? 마을에?
(우완숙) 들어오죠.

진위여객 들어오나요?

진위여객은 잘 안 다녀 여기.

(우완숙) 협진여객. 진위여객은 아니구 평택 협진여객에서 와요.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버스가?

그걸 일일이 기억을 어떻게 해! 적어놓지 않구 뭐.

그러시죠.

(우완숙) 버스 요금이 50원일 때부터 왔는데, 모르겠제... 우리 애들 중학교 댕기기 전이니까.

아까 56세 됐다는...?

(우완숙) 우리 애들이 중학교 댕기구 나서구나! 중학교는 자전거 타구 진위학교를 다녔어. 중학교.

맞어. 그랬어.

(우완숙) 자전거를 사줬어요 내가. 그래 중학교 댕기면서 중3 됐을 때 버스 들어왔나봐.

졸업할 때, 그 졸업하구 들어온 거 아녀?

아드님이 72년생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완숙) 지금 56이니까... 68년생.

그 68년생 아드님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어려서... 자전거 사준 생각 나네요. 자전거두 타구 댕겼어요.

지금은 인제 논 농사만 지으시는 거죠?

(우완숙) 예.

그러면 모판이나 이런 거는 손수 만드세요?

그렇죠. 손수 집에서 해죠.

요샌 농협에서 많이 사던데요?

(우완숙) 아이구...

아이구. 그게, 그거 사서 심구 그러면 남는 거 없어요. 진짜.

모판 사면 얼마 정도 해요?

지금 모판 하나에 뭐...

(우완숙) 4천 원,

4천 원? 한 판에 그 4천 원이라구 그러더라구. 우리는 뭐 못자리 키우는 하우스를 하나 지었어요. 쪼그맣게 그냥. 내 못자리 심을 만큼 그거 지어놓은 거니까. 딱 고거만... 못자리 해면 그냥

심는 거니까 그냥.

농사를 9천 평...?
(우완숙) 아들들이, 아들들이 져요.

9천 평 정도 하실려면 농기구도 다 갖춰야 되겠네요?
농기구 다 있죠. 웬만한... 그리구 이게 만약에, 만약에 임대농을 한다. 임대농 하면서 내 기계가 하나두 없다. 전부 남의 기계를 사용한다. 남는 거 없어요.
(우완숙) 남는 거 없어.
그럼 남는 거 없어요.

지금 9천 평 정도 지으시는데, 못자리도 손수하시고, 손수 이앙기 뭐 농약...
(우완숙) 인제 비는 것만...

베는 것만 콤바인...?
콤바인, 콤바인 그것만 인저
(우완숙) 콤바인 있었는데, 버렸죠.

콤바인으로 베면, 베는 데 얼마나 돼요?
(우완숙) 그것두 많이 나가요.
아이 그거...

평당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평당으로 계산해지.

평당 얼마 정도 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완숙) 200만원이라고 했나? 300만원이라고 했나?
2백 몇십만 원 줬는데 내가 작년에.

작년에 2백 몇 십만 원이요. 9천 평에요?
예.
(우완숙) 아니. 작년에 9천 평 안 했어.
작년에 6천 평.

6천 평에 2백 몇 십만 원이요?
2백 몇 십만 원인가 줬어. 지금 기계 그 임대료두 아이 그 굉장히 비싸요. 지금들은 그... 전부, 대부분 늙어서 이 농사두,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제 그 농기계를 이용하는 건데.

(우완숙) 아무것두 안 남어.
안 남어요. 내 손이루 내 농사 못 지으면은 진짜 농사 포기해야 돼. 질 생각 말아야 돼.

9천 평 정도 지으면은 따져보기가 좀 어렵지만 순익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순이익?... 지금 저 40마지기거든. 이게 40마지기.

40마지기면 8천 평이신데?
(우완숙) 40마지기두 넘는 건데.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려 했으나, 오류가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되었음.)

옛날에 여기 방앗간은 어디로 다녔어요?
(우완숙) 요기 있었어요. 요 지금...
지금 저기, 저 뭐 공장 그 저기 뭐야...
(우완숙) 공장 있어. 동네 가운데, 저 쪽에. 거기가 정미소였어요.

하나 있었어요?
(우완숙) 하나.

그건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요?
(우완숙) 나 어렸을 때 요, 요쪽에, 들어오는 데, 여기 음료수, 거기가 방앗간이었는데. 인제 거기는 개인 방앗간. 근데 인제 나중에 인제 공동방앗간이 생겼지.

아 마을 공동방앗간이요? 그럼 그거는 인제 박 대통령 있을 때부터 생겼겠네요?
(우완숙) 그렇겄지요.

그럼 공동방앗간 생기면서 개인 방앗간은 없어진 거예요?
(우완숙) 그렇지.

그 개인 방앗간은 마을 분이 하셨어요.
(우완숙) 응.

그때 방아삯은 얼마 정도 했어요?
(우완숙) 방아리삯 두 되 떴어요? 한 가마에?
두 되, 두 되 뜨구...

한 가마에 두 되?
응.
(우완숙) 응. 두 되, 서 되 떴나봐. 한 가마에... 인부 두고 동네에서 공동 방앗간 했었어 요.

인부 몇 명이나 뒀어요?
(우완숙) 세 명.

그 방앗간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거, 그 내가 그, 그때 내가 그 조합장을 봤거든요. 정미소.

정미소 조합장이요?
여기 근데 옛날에 농협이 없었어요.
(우완숙) 그때두 우리 애들 어렸으니까 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있었나? 아니지...
중학교 다닐 적이여. 걔들.
(우완숙) 중학굔가... 초등학교 다닐 때여.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큰아들이요?
(우완숙) 응.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만들긴 그전에 만들었는데.
(우완숙) 그전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있었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완숙) 응

그러니까 한 70년대
(우완숙) 그렇지. 그 저기 때 없어졌나봐.

68년생이니까 한 80년대까지 있었네요.
(우완숙) 8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 내가, 내가 인저... 그땐 조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보고, 조합장을 보고 2년 있다가 없어진 거여. 내가 조합장 끝나고 나서 2년 있다 끝난 거.

정미소가요? 그럼 몇 년 안 했네요? 한 10년도 안 하는 것 같은....?
(우완숙) 그 앞전엔 또 딴 사람이 봤지

아니요. 방앗간, 조합방앗간을...?
(우완숙) 그러게 딴 사람이 봤지.
아 방앗간, 그 방앗간 있는 운영, 그 방앗간 사용한 저기가 길질 않다는 얘기지.
(우완숙) 그렇지. 개인이 해다가 인제 조합, 협동방앗간 생긴 지는, 한 10년이나 한 그 정도 했나 봐요... 없어졌나 봐.

왜 왜 없어졌어요?

(우완숙) 뭐 조합...

그때는 그 인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어르신 (작년 논농사 순익에 대한) 계산하신 것 같은데?

하하하....

순익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순이익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기는 어렵죠.

저 뭐 인건비, 기계 사용료 다 이걸...

(우완숙) 농약 값

농약 뭐 제외하고 난 다음에 뭐. 나 별론데 이거. 쌀 한 백 한 40개 난다구 치구, 그 20만 원을 계산해 봐. 그러면은 2800만 원인가? 거기서 인제...

(우완숙) 다 제하고 나면 돈 천만 원 남나?

인제 기계 사용료, 뭐 인건비 이런 걸, 막 이거 계산 한대면은 한 천만 원 돈 인제 빠져나간다구 봐야 되겠네.

(우완숙) 그렇지.

인제 내 인건비는 포함시키고요.

그러게 결론적으루 그걸, 결론적으루 내 인건비를 빼먹는 거다는 얘기지. 이 농사진다는 게 결론적으루. '내가 농사짓구 내 힘으로 해는 거니까 내 인건비 빠지는 거지 무슨 다른 소득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여.

그러니까 2,800 정도에서 인제 콤바인이나 기계값하고 농약값 기름값 이런 거 싹 빠지면 한 한 1,500만 원 정도...?

예. 1,500만원 정도 뭐 그리 나올 거요.

아유 어렵네요.

이 솔직한 얘기가, 내 정부에다두 불만인 것이, 정부보다두 국민들 소비자, 소비자한테도 불만인 것이, 지금 저기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얼마나 마시나요? 커피 그...?

한 4~5천 원 하죠.

그렇죠. 그건 비싸다 소리 안 해요. 근데 배춧값 100원 오르면 그거 비싸다구 난리가 나요. 이 나라가 이게.

아무래도 농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 이건 쌀값 쪼끔 오르면 비싸다고 난리 나고. 아 저희들은 커피 한 잔에 만 원씩 턱턱 가서 사 먹구. 그 지금 쌀 한되박에 몇 푼이나 가느냐고요. 글쎄. 커피 한 잔 값두 안 되는데, 그게 농산물 비싸다구 뭐...

(우완숙) 아 소금값이 쌀값보다두 비싼데 뭐.

이런 세상에!... 이게, 이게...

(우완숙) 우리 동생이 지금 정년퇴직했지만 옛날에 종합, 종합청사를 다녔어요.

종합청사에요?

(우완숙) 예. 거길 다녔는데, 한번 오라구해서 갔어. 그랬더니 “누나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 그래서 내가 갔더니 최하가 8천 원이래. 한 잔에.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쌀이 한 말이여!” 내가 오죽해면 “쌀이 한 말인데.” 내가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인제 비싼 데 커피 사지 마.” 그랬더니 “아유 누나 커피 한잔 해구 가야지.” “얼만데? 최하가?” 그랬더니, 최하가 8천 원짜리래. “야~ 8천 원이면 얘 쌀이 한 말이다!” 내가 오죽해면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인제 아무것도 못 드시죠.

(우완숙) 못 마시지 시골 사람은. 그러니까 시골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해는 게 그거여. 농사지어가지구 뭘 마시고 살어!

그리구 문제는 이 농민이 문화를 압니까? 뭘 압니까? 여기 농민들 솔직한 얘기가 어디 기껏 나가봐야 송탄장이나 갔다 온 거지, 뭐 도시 사람들처럼 ‘무슨 영화를 본다.’, ‘무슨 뭐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농촌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기껏 보는 건 이거(TV),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여. 이렇게 사는데두 못 사는 것이 농민이다. 근데 아 이 정치하는 분들 좀 뭔가 좀 자각을 좀 해야지.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구는, 농민들 내 팽개치구. 아니 농사는 절대농지다 뭐다 꽉 묶어놓고 이러지도 못하구 저러지도 못하구. 옮기지도 못하구 저러지도 못하구 맨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너희는 농사꾼이니까 그거나 처먹구 살다 죽으라는 얘기 아녀.’ 그렇잖아요. 그 소리뿐이 더 됩니까? 자! 도시는 지금 보세요. 이 집, 아파트 같은 거 땅값이 그래두 유동 인구 이렇게 마음대루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농지는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이거 그냥 그 박어놓은 거라는 얘기여.

(우완숙) 아 여기는 오지야. 여기가 제일 싼 데가 여기여.

이걸 박어놓구 아무것두 못허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배운 기술 없구, 뭐 가진 것은 박어놓은 농사 요거, 요거 하난데, 뭐 어떡할 도리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요거 해다 죽는 거라 는 얘기여. 다른 계획이라는 게 없잖아요. 농민은. 무슨 계획이 없어요. 뭐 희망이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건 희망이 없는 건데. 내가 뭐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뭔가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꽉 박아놨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냔 얘기여.

(우완숙) 아유 비행기장 나갔으면 좋겠어요. 볼 거 없이.

지금은 여기 농지는 평당 얼마 정도 해요?

여기는 뭐...

(우완숙) 30만 원... 최고 비싼 게.

절대 농지요?

(우완숙) 아유 그 30만 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해놓구, 정부에서도 이렇게 묶... 지금 뭐 정부에서 툭 해면 뉴스로 나온 것이 쌀이 남어 돈다고 난리 아니에요. 왜 묶어 놔 그러면.

(우완숙) 절대 농지두 풀어줘야지.

절대 농지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풀어 놓지. 그러면 농지 적으면 쌀 덜 날 거 아녀. 왜 그런... 하하하...

그 방앗간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맨 처음에?

가만있어 봐요...

(우완숙) 지금 공장 자린데...

아니 글쎄, 가만 있어봐, (지도를 보며)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집이지?... 이게 중간길이지, 중간길로 가면은... 이 공장이 여기 어디 있겄는데 여기? 여기 어디 있겄는데?

공장이요?

공장이 아니라 창곤데 그냥 이거.

여기 아닌가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가 어떤 건지.

아 창고 자리.

창고예요? 고기? 정미소가 고기예요. 고기 있었어요.

이게 조합 정미소요?

그렇지.

개인 방앗간은 어디 있었어요?

(우완숙) 개인 방아는 여기 지금 저기 음료수집 들어오는 데 있어요. 2층집.

요기 지금, 요리 꺾어 들어올 제 무슨 음료수 거 있지. 무슨 음료수라고 써 있지. 그 자리여.

(우완숙) 그 자리가 개인 방앗간 자리였지.

그리고 우물은 어디 있었어요? 두 군데가?

그 동네 사람이 퍼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우완숙) 요기.

요 요기 옆집에 있었구.

바로 옆집에요?
옆에 옆에 집... 고기 있었구.
(우완숙) 귀탱이에.

동쪽으로 옆에 옆에 집.
요 공터 옆에. 그집이 있었어요.
(우완숙) 공터 옆에 노랗게 칠한 집. 고 옆에집하구 사이에, 고기에 있었어요... 하나는 저 아래에 있었어요. 저 아래로.

저기 하천가로요?
그렇지. 공동 방앗간 있는 쪽 이쪽으로 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뚝방, 뚝방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인제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지.
그리구 여기 대부분이 그 파이프 박어가지구 다 그거 썼어요. 옛날에두.

그냥 이렇게 망치로 때려 박는 거예요?
(우완숙) 예. 박었어요. 함마로두 박구.
그냥 망치루. 망치루 두들겨 박구, 함마로 박구 그랬어. 여기. 그냥 말뚝 박듯이 들어가는 거여... (손가락으로 파이프 구경을 표시하며) 요거지. 요거.

구경 5cm 정도 되는 거요?
1인치. 1인치... 1인치짜리 뚜들겨 박으면 그냥 들어가요. 여기.

그럼 가운데 흙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 박으면?
자꾸 인제 푸는 거지 인제. 그렇게 때려 박으면 물을 부어가면서, 뭘로 막 쑤셔 가면서 흐트러지게. 그 퍼내는 거여.

그럼 한 2~3m 박았나요?
한 20자 들어가야 되니까... 6미터?

6미터, 6~7미터 정도...
고 정도 들어가야지.

아무 데나 막 박아도 나오나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나와. 여기는 아무 데나 나와. 여기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 다 박어, 박어 놓은 데 많아. 하하하...

(우완숙) 다 있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두 박아놓은 거 있지. 지금은 박기 쉽지. 포크레인 불러다가 박으라구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가니깨.

어르신 몸도 안 좋으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더워서.

차경환(남, 1941년생) 회화리 거주

날 짜	2023년 6월 18일, 8월 12일, 8월 22일	
장 소	차경환 자택	
면담자	장연환	
특기사항		

여기서 몇 대째 사셨어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살기로는 뭐 거의... 1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한 300년은 살았겄지.

여기서 한 10대 사신 거예요?

그렇지. 한 10대 정도로

그러면 그 집 안의 선산은 어디 있어요?

우리 선산은 또 양감면. 양감면 있고 저기 저, 본래는 저기여. 향남면 상신리가 본래 거기야.

그러면 향남면 상신리에서 이 회화리 쪽으로 이주해 오신 거네요?

그렇지. 일부가 그게 원소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원뿌리는 거기 있고, 인제 지손이 우리야. 밑창이. 그래서 일로 온 거지.

그럼 어르신 한 10대 조상부터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응. 10대?... 한 8대, 7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그 묘 쓴 걸 보면 그렇거든. 묘 쓴 걸 보면...

한 7~8대 조상부터, 할아버지부터 이쪽 해화리 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 그 여기 차씨가 두 저기야. 지금 이장 보는 사람, 거가 더 오래 살았지 여기서. 그 조상이.

아 한 집 안이 아니고?

아니 그 같은 연안 차씨고. 같은 파야... 같은 판데두 그분들이 여기서 더 오래 살았어. 그분들은 뭐 한 300년 꽉 됐다고 봐야지.

아 이장님 집안이요?

응.

이장님 집안은 그러면 한 10대 사신 거네요?
그렇죠. 맞어.

연안 차씨 무슨 파예요?
강열공파.

여기는 차씨하고 또 다른 성씨는 어떤 성씨 있어요?
여기가 저기요, 성씨가 많어요.

오래 사신 집안이요.
오래 사는 사람은 아마 우리 차씨들, 박씨가 먼저일 거여. 박씨.

박씨는 밀양 박씨인가요?
응. 밀양 박씨지.

밀양 박씨가 더 오래 산 거예요?
예. 더 먼저여.

그러면 어르신 어렸을 때 차씨가 몇 가구 정도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추 한 스물댓 가구 이상 살았지... 스물다섯 가구 이상 살었는데, 뭐 지금은 몇 집 없어.

차씨만 25가구 이상 됐었어요?
그렇지. 우리 차씨가 대성이지. 회화리에서는 차씨가 대성이었었어. 박씨하고, 차씨하고.

박 씨는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박씨도 그 정도로 봐야 돼.

그러면 이 마을에 한 50가구 정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유, 옛날에는 저기요. 최고 많았을 때는 138가구까지 있었어... 그 저 6.25 나고, 그 무렵에는 한 백 한 삼십 가구 정도 살았어. 정확히는 138가구... 동네가 제일 크지요. 여기가.

현재는 차씨 몇 가구 정도 살아요?
차씨가, 지금 아마 8가구던가 몇 가구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어. 없어.

박씨는 몇 가구 살아요?

박씨도 마찬가지야. 박씨도 그래... 현재 가구 수가 여기 100가구가 안 돼요. 잘해야 한 90가구, 90가구도 안 될걸.

어르신은 여기 서탄초등학교 다니셨죠?

아 나 서탄초등학교 나왔죠.

여기 옛날에 회화리 강습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강습소가 있었지.

그 강습소 자리가 어디였어요?

강습소 자리가... 어디라면 알아? 여 동네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윗집에 있었는데... 강습소가 있었지. 옛날에.

그 집이 박찬옥, 옛날에 박찬옥 어르신...?

맞어. 그 잘 알고 있네.

이 강습소를 어떤 분들이 세웠다는 말씀 들었어요?

강습소는 본래 몰래 요 비행장 있죠? 비행장 안에 임씨네가 대성이었었어요. 1개 마을이. 근데 인제 거기두 임씨가 대성이었는데, 그 임씨네에서 강습소를 열어가지구 가르킨 거야. 여기두, 근데 거기가 먼저구, 회화리에두 회화리 마을 자체에서 강습소 여기도. 근데 거기가 먼저고 회화리두 회화리 마을 자체에서 누가 그 돈을 출연해서 강습소를 세웠는지 나도 몰라요. 좌우지간. 근데 또 누가 그래두, 이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그걸, 돈을 출연해서 그 집을 지어가지구. 그 함석으로 그래도 그렇게 집을... 옛날에 함석집이 어려운 거 아녀? 힘들지 함석이. 그래도 함석으로 이렇게, 크질 않고 그게 한 네 칸 정도, 조그맣지. 4칸.

어르신도 보셨네요? 이거 강습소?

공부는 못 봤지. 나는.

공부하시는 건 못 보고?

공부하는 건 못 봤지. 아 내가 41년생이니까, 19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난 어렸지. 그래 공부하신 분은 있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 다 돌아가셨어요. 뭐 90세 이상 된 분들이지. 90세 이상 된 분들이 거기 다녔어. 거기서 다니다가 인제 초등학교를 가는 거지.

여기서 몇 년 다니다가 갔대요?

여기서 이 초등학교 가기, 초등학교,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뭐야 처음에는 그게 4년제였었다고 옛날에. 4년제였다가 6년제로 바뀌었는데, 인제 보통학교다 그래가지고 6년 됐는데,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나이가 많았어요. 적어두 열다섯, 열여섯. 그 4년 배우고 나왔으니까 한 16살까지

다녔겄지. 강습소에.

그러면 이 강습소에서 공부하다가 인제 서탄초등학교에...

그렇지. 예. 근데 여기서 인제 한 일고여덟 살까지 인제 열 살까지 다니다가 인제 초등학교 다니구 인제 그런 것 같애요. 내가 생각해 보면...

어르신은 서탄초등학교 바로 입학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6년제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41년생이시면 서탄초등학교 몇 회세요?

나 20회요.

그때 학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때는 많었죠. 학생 수가 3개 반이었으니까... 3개 반에, 여기가 2개 반, 인제 비행장 나간 자리. 이게 서탄면 땅이여, 다 이게. 이 비행기장은 완전히 땅은 서탄면 땅이야. 거기두 이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다구.

금각...

금각국민학교 전신이 적봉리 분교야... 금각국민학교 전신이. 그게 그거로 가가지구 금각국민학교로 인가가 났지. 그렇게 되는 거여. 이게.

적봉리 분교는 언제 생겼대요?

그건, 언제 샌긴 건 나두 잘 몰라요.

어르신 다니실 때는 없었죠?

있었죠.

그때도 있었어요?

아 그러믄요. 6.25 나구서 없어진 거니까 이게. 비행기장 나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 적봉리 분교 빼놓고도 서탄초등학교가 3개 반이었어요?

그 후에 내수 분교가 났는데, 내수분교가 있었지. 그 인제 통합 관계로 해서 인제 그 내천리다가 그래서 내수 분교여 그게.

그러면 어르신 다니실 때는 여기 서탄초등학교만 3개 반이었어요?

여기 2개 반, 적봉리 1개반.

그럼 한 반에 몇 명이나 됐어요?

한 반에 적어두 한 50명. 45명 내지 50명은 될 것 같애요.

그때 여기서 학교까지는 걸어다니셨잖아요?
그러믄요. 옛날엔 뭐 다 걸어다니는 거지.

그때 길은 어땠어요?
아 길은 그래도 좋았어요. 여기가. 회화리는 그 마차가 다닐 정도의 길이 있었다구. 면까지, 초등학교까지 마차 다닐 정도의 길이 있었다구.

아 일자로 이렇게 쭉 났었어요?
마차 다니는 길이. 이 다른 동네들은 뭐 꼬불꼬불한 소로로 그냥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는, 회화리는 좋았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 그 키로 수로는 1.5키로 정도.

여기 바로 진위천 있잖아요? 보통 바닷물은 어디까지 왔어요?
아 바닷물은 요기까지 왔어. 이 동네에서 한 1키로 정도? 요 밑창까지 바닷물이... 요기 직선에서 아래로 1킬로 정도까지 바닷물이 왔지.

근데 들리는 얘기하면 은산리도 바닷물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은산리. 그렇죠. 그∞ 옛날에 그랬겠지. 그 옛날에는 이 은산리, 이 금암리까지두 깊었으니까. 이게 다 메꿔진 거 아니요! 산이 깎여 자꾸. 뭐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메꿔져가지구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르신 어렸을 때는 요 1키로 밑에까지...?
그렇죠. 바닷물이 와가지구.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수위가 좀 많이 높아졌나요?
그렇죠. 물이 서 있는 거지. 인제 바닷물이 딱 부딪히면 섰는 거지. 근데 바닷물이 빠지면 또 내려가구... 그랬어요.

어르신 어렸을 때는 여기 고기도 많았겠어요?
아 그러믄요. 고기가 뭐, 없는 고기가 없었지 뭐. 여기. 참 이게, 그 개발이라는 것두 그래. 좀 냉겨 둬야 되는데 무턱대고 개발이라구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따가 그 질문을 할른지 모르지만, 회화리 백사장이래는 게, 회화리 백사장!... 지금 저 비행기장은, 이쪽이 비행기장이구, 이게 냇갈이야. 이게 회화리 제방이구, 이게 비행기장 제방이라구. 여기 이거야.

(지도를 보이며) 여기가 회화리입니다.

이게 300메다요. 옛날에는 뭐 한...

그러니까 하천 부지가 300미터?

하폭이 옛날에는 거의 한 400메타는 됐을 거야.

이 물 내려가는 데 말고요?

그렇지.

백사장까지 합쳐서?

백사장까지 다 합쳐가지구

한 300미터 정도요?

응. 한 400메타 되는데, 인제 비행장 하고 제방 쌓으면서 300메타로 줄었지. 그랬다가 또 인제 이 비행기장에서 80메타를 더 나와가지구 지금 240메타여.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어려서 여기서 이 하천물이 저 비행장 쪽으로 흘렀어. 여기 회화리가 여기면은. 그러니까 이게 백사장이지. 백사장이 뭐야 적어두 한 300메타는 되는 거여.

폭이요?

그럼. 모래만 순. 풀 한포기 없는 거여. 그야말로 백사장이야. 글자 그대로,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서(마을에서) 여기를(진위천을), 인제 멱 감는다구 그러지? 또래끼리. 멱을 감으려면, 지금이맘 때 멱을 감으러 가면, 이게 모래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모래를 파. 그래서 발 올려 놓구, 식히구. 거 뜨거워서 못 가니까

아 뜨거워서 한꺼번에 못 가니까요?

못 가니까. 또 쪽 가다가 식혀가지구 가구. 그 옛날에는... 그리구 인저 고기가 많았냐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냥 맨 고기지 뭐 물고기. 그래서 지금 이 백사장이 그냥 살아있다 허면은 그 관광자원도... 근데 이거를, 이 모래가 인제 다 없어졌는데, 제방 쌓면서 인제 저기를, 건축붐이 인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이 지방에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필요해니까. 뭐 한때는 뭐 이북에서도 모래를 가졌 왔다고 그런 소리도 있었어. 모래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파 쓴 거야. 그래 첨에는 이 비행기장 시설을 허는데, 이 모래가 여기서 여까지가 한 2키로 정도가 그냥...

폭 300미터에, 길이가 한 2키로 정도요?

그럼... 잘 뵈지 뭐 끝이. 그 백사장이. 그걸 비행기장에서 다 파다가 비행기장 돋워가지구 비행기장 지은 거여. 그 나머지는 인제 팔어먹는 거야. 인저 군청에서. 그러니깨 (손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요 정도 허가를 내줘. 예를 들어, 뭐 3천 평 허가를 내주면은, 이 업자가 어떻게 해 가지구 이만큼 파먹어... 그렇게 해가지구 죄 파먹더니 나중엔 땅속에 있는 모래까지 펌프를 집어넣어

가지구 퍼올려서...

그때가 어르신 몇 살 때 정도였어요?

아 그때가, 이 모래 파서 쓰기 시작한 때가 한 72년도. 고때부터 계속 한 20년을 파먹은 거여.

아 72년도부터 한, 그러니까 90년대까지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 모래가 전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모래가 전혀 없어... 내가 전에 이장도 봤어요. 내가 이장도 봤는데... 아니 그래 가서, 시청 가서 인저 항의를 허고, 옛날 군청이지. 그 인제 가면 하천계장, 건설과장 인제 만나서 “그렇게 수 있는 거냐. 이게 도둑질해 먹는 거 아냐. 눈 감는 거 아냐. 업자하구... 그 허가 면적 좀 보자.” 그러면 뭘 보느냐고 그래.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좀 왜소헌데, 지금은. 젊어서는 내가 한 90키로 나갔지. 몸무게가 90키로, 보통 90키로 유지됐다고... 내가 기운이 세잖아.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하천계장보구 대놓구 “이 자식이야” 이 사람이 안 뵈주니까, “아 이 자식이 민원인이 보자면 뵈줘야지 왜 안 뵈줘. 그게 기밀이야?” 무슨 군청 기밀이냐고. 옛날 군청이니까. “관공서가 여기만 있냐. 너희 상급기관 없어? 난 거기로 가서 물어볼 거야. 허가는 너희가 줬지만은 내가 상급기관에서 그거 좀 알아봐달라고 할거야.” 그게 뭐 한 3천 평 (허가가) 나면, 5천 평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훨씬 넓게 그냥 파가지고...?

그게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아 옛날에는 그 뭐야 월남 상이용사라나 뭐 이런, 그런 데서 해.

그 골재 채취를요?

응. 못하게 내가 인제 그러지. “이 회화리 하천과 회화리 이 제방은 우리 생명선이여.” 왜? 이거 범람해서 넘으면은 우린 죽어. 여기 이거 제방이 얼마나 높아요. 그 물이 다 일로 들어오는... 우리가 여기 무슨 뭐, 허허벌판에서 어디로 가? 물이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지. 또 제방은 우리 생명선이지만, 또 우리 먹는 물은 옛날에 펌프 물을 먹었잖아요. 펌프 물을 먹으니까, 그 흐르는, 진위천 흐르는 물이 그 모래가 있어야 그게 정화를 거고, 자정을 해서. 자정 정화를 해야 스스로 정화를 해서 내려가는 거야. 그게 이!

그게 그렇죠.

“그물, 우리가 펌프 물을 먹는데, 여기서. 그 모래 파가면 우리는 그 공장 폐수, 그냥 빨아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 못하게 허는 거지. 달래 못하게 허것냐! 좀 봐달라고.” 아 그래도 안 통해요... 안 통했어요.

끝까지 안 보여줬어요?

아이. 지금이니까, 참 공무원들이 얌전해졌지. 지금은 얼마나 얌전해. 아 옛날에는 거칠기가 노가다 판보다도 더 했어요. 지금은 인제 뭐 여기 수돗물이 서울 수돗물이야... 팔당물이여 이게...

옛날엔 그래서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공무원들하고. 그래 월남서, 뭐 상이용사라고 그래. 그래 못허게 허니까, 다리 부러진 사람을, 월남전에서, 모래 바닥에 갖다 놔... 업자들이. 못허게 허니까 내가. 나두 대단한 놈이지. "너 뭐 하는 놈이여" 내가. 뭐 아편주사래나 뭘 지가 찔러 놔. 나 보는 데서. "살아야 하는데 왜 못 허게, 우리 살어야 되는데..." "야 이자식아 월남전 안갔다 온 놈이 어떤 뭐 이!" 나는 그때는, 우리 제대허고 나서 월남전이 생겼으니까는 모르지만은 "이 동네도 월남전 들어갔다 온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어. 여기도 많아. 너만 갔다 왔어!" 아 그 자식이 땡깡을 부려. 그때 소를 먹였으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소가 있잖아. 작두가 있잖아. 그 여기 냇갈에 사무실 차리고 있어. 현장. 가서 "그거 안 데리고 갈 거냐. 그냥 둘 거냐." 내가. "알아서 허슈." 하 이래. 알어서 허래. "그 새끼 손마디 자를게, 작두로. 이 자식이 말이야." ... 손을 척 올려. 작두를 갖다가 "너 이 새끼 손마디 자를거야. 이노무 새끼야." "내가 임마 너들 공갈 협박에 넘어갈 줄 알아! 나두 임마 바닥 기는 사람이야 지금." 그래두 작두로 해서 손을 넣으니까 손을 휙 빼요. "이 자식아 그런 간 가지고 이 자식아 어디 와서 땡깡을 부려. 누구한테" ... 그런 적도 있어요.

막기는 그래도 어려웠겠네요?

그러믄요. 참 옛날에 좋았어요. 참 환경이, 이 옛날에는 한강 백사장이 참 넓어서 좋았지. 나도 그 노량진에서 흑석동으로. 우리 회화리 사람들이 다섯 살만 되면 다 헤엄쳐. 남자구, 여자구 자동적으로. 여 냇갈에서 맨날 놀으니까.

여름 내내 놀았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믄요. 그 빨래, 빨래 거 가 다하고. 식수두, 근처 사람들 식수도 썼어요. 어떻게 깨끗한지. 물이. 우리 어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 뭐야, 김장 씻잖아. 배추. 것두 거기서 다 씻었어. 냇갈 가서... 옛날에.

여기 우물도 잘 나왔을 텐데요?

그전에는 펌프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동네 우물은 하나였어요?

아뇨. 많죠.

우물은 몇 개나 됐어요?

우물은 아마 한 열 집에 하나 정도 있었을 것 같애. 많았어. 우물은. 물이 흐르니까 바닥에. 파면 우물이니깐 여긴.

그러면 이렇게 바가지로 펐나요? 아니면 두레박...?

두레박이지. 두레박을 인제, 한 뭐 5∽6메타. 5∽6메다만 내려가면 물이 있으니까. 10메다, 그 정도만 내려가면 물이 흔허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인데, 이게 비행장 이렇게 나와서 일단 마을이 버리고. 이 하천이 이게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수해도 좀 입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수해도 많았죠... 우리 어려서는 으레 먹으면 나가서 씨름허고. 모래 바탕에 가서. 으레 그때는 어른들두, 또 시키구 어른들이. 지금은 남의 애들 시름해라 시켜서 이런 데 상처나면 큰일나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하하,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씨름을 해.”

그러면 이 회화리에서 자란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모래사장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겠네요?

그렇지. 거기서 노는 거지. 잠두 자요. 거 가서. 밤이면. 요즘이면...

여름에요?

응. 여름. 거기 모기 없잖아.

여름에 모기가 없어요?

예. 거기는 백사장이, 가운데는, 지금이니까 모기장 때문에 모기가 하나도 없지만, 옛날엔 파리, 모기가 얼마나 많아. 옛날에, 우리 어려서. 그 고 백사장에 가서 그냥 드러누워 자는 사람도 많어 그냥. 거긴 모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모래밭이 넓으면 가운데 모기가 없는 거예요?

응.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었는데.

그럼 비행장 피해가...?

비행장이 시설허면서, 이 제방 쌓구 이렇게 허면서 인제 그 환경이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졌다고 봐야지 뭐. 좋은 환경.

여기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위험허죠. 장마가, 옛날에는 물피난도 많이 갔지.

물피난이요?

저 초등학교로.

서탄초등학교로 주로 간 거예요?

응. 지금 한 50 먹은 아이들. 고 정도까지. 50살 먹은 다음에는 이 제방이 생겼으니까 인제 안 그랬는데. 하긴 이 제방이 생기고두 두 번을 갔어.

이 제방이. 그러면 70년 무렵에 생긴...?

이 제방 축조헌 게 60년도 초에 헌 거예요.

60년대 초에요?

그래가지고 72년도에 큰 수해가 한번 나고, 84년돈가? 그 해에 홍수가 크게 나고서는 안 났어

요. 그렇게는 없어. 대한민국이 인제 그때부터 물 부족국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90년대, 2000년대는 수해 같은 건 인제 전혀 없었어요?

없어. 이 저 85년도 이후에는 큰 수해가 없었어. (큰)비가 안 온걸.

60년대 초에는 이거 누가 인제, 군청에서 막았나요?

경기도에서 막은 거여... 시간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선생님 시간 여유가 있어?

예.

그게 내가 참 그게 사람 인연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72년도에, 장마에 저 아래 방수문이, 그게 다 터져 나갔어.

아 72년도 장마예요?

칠십 몇 년돈가 그냥 그 방수문이 무너져서 터졌는데, 그 당시에 비가 540미리인가 몇 미리가 왔다고 그래요. 내 기억으로는.

하루 사이에요?

아니. 한 이틀 사이에 그런 거지.

한 이틀 사이에요?

응. 그렇게 왔는데, 그게 터졌는데, 그래서 그 물이 여기서 키로 수로 따지면 한 5키로 될걸 아마. 3키로는 좀 넘어. 한 3키로. 넘어 제방이. 나간 데가. 그물이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왔어. 이집 터. 여까지 들어왔다구.

제방이 무너져가지고요?

제방 터져가지고. 물이. 그래가지고 그 해 농사 망친 거여.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장을 봤어. 73년도에. 하하.

그러니까 수해가 72년도가 아니고 73년도인가요?

72년도 장마가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으루 말하면 내가 생각하면 철도 안 났는데 나보고 이장을 보라구 그래가지구. 내가 이장을 보게 됐다구. 나이가 그때 서른 한 댓 살 먹었나? 지금 같으면 장가도 안 가는데. 애들이. 나는 그때 이장, 동네 어른들이 보라구 그래가지구 봤어. 아 근데 그게 터졌는데 이게, 그걸 막아야 농사를 짓지 그걸.

아 그 다음 해요?

응. 내가 73년도에 이장을 봤으니까. 아 이걸 뭘, 안 막어. 그래서 내가 면장한테도 찾아가구, 평택 인제 뭐야 건설과에도 가서 얘기허면 '예산이 없다' 소리 만 해. 그 인제 큰일 났더라고. 그래 경기도청을 갔지. 경기도청을 가니까, 그때만 해도 경기도청에 가니까 달라. 공무원들 허는

게. 친절허고. 거 가니까, 도청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왜 왔느냐고 그래서 뭐야 이 제방 문제 때문에, 이게 터져가지구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농사를 지면 헛 짓는 건데, 물 들어오면은. 그 제방을, 군청엘 가보니깐 군수두 예산이 없어서 못 헌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허는 겁니까? 그리구 내가 인제 ‘그걸 여쭤볼라고 여기를 왔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치수과가 있어요. 경기도청에 치수과가 있어요. 이 물 다루는 데. 치수과장을 면담을 성사시켜주더라고. 그 양반이 책임지라구. 그래서 인제 그 과장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날 보더니 좀 이상하게 봐. 자꾸 봐. 그래 그 양반이 그래. “날 뭘로 보느냐?”고 그러더라구. 치수과장이. 그래서 “글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허시는 분이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장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장을 보느냐 이거여. 벌써. 그때는 아주 그냥 애기 이장이지. 애기지. “그 이장을 보느냐?”고 그랴.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구” 그래 그분이 이 제방 쌓을 적에 측량 담당자, 측량 기사로 회화리에 와서 있었어요.

60년대 초에요?

그렇지. 제방 쌀 적에. 제방 쌀 때, 60년대 초에, 제방 쌓을 적에 측량기사루, 여기서 방을 하나 얻어놓구, 임시 사무실이지. 거기가 그러니까 이!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양반이 한가허니까. 그때 우리는 인제 고등학교 졸업, 한 20 전이고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심심허니까,... 지금은 뭐 공구리를 쳐두 네모지게 거푸집이 딱딱 나오잖아. 옛날에는 삼육합판, 3메타 3메타구 저기... 그 합판으로 해서 맨날 공구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판을 잘라다가 탁구 다이를 만들어 놓고 즈그 마당에다가, 즈그 하숙집 마당에다 만들어놓고 불러 우리를. 심심하니까 탁구 치자고. 그래 마냥 그 양반, 탁구 치고 놀던 양반이야. 그래 보니까 그 양반이야 그래. 그 최씨인데. 아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양반을 만나보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가!’

민원은 빨리 해결했겠네요?

13년 만에. 그렇게 인제 13년 만에 치수과장을 그냥, 그때는 치수과장이 높은 거지. 상당히. 그래 그분이 그 예산을 못 세웠다구, 죄송해서 어떡허냐고 그러더라구. ‘아니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급헌 게 있냐?’ 내가 그랬어요... 지금 면적이, 이 서탄이 400정보, 내천 지구가 300정보, 700 정보야... 그 피해보는 지역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느냐고, 더 큰 사고, 저 위험한 데가 있느냐고... 그래도 순위에 밀려서... 다른 데...

그 해에 다른 데도 인제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나봐요?

올핸 못 한다고 그러더라구.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친구, 신문 기자 친구를 소개를 해주더라구. 그 당시에 그 신아일보가 있었는데... 그 전화를 부르더니, ‘아 여기 이 양반 좀 도와주라.’고 그려. 그래 기자가 물어보길래 지금 얘기 다 핸 거여. 지금 얘기를 했더니 좀 긁적긁적거리더니 “내일 기사 날거요.”... 내일 기사 우리

신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나가고, 다음 날은 중앙지에 다 나간다 이거여. 자기가 팔아먹는 거여.

기사를요?

기사를... "그렇게 알고 계슈." 그러더라구. 아 그 이튿날 신문을 보니까, 나 그때 조선일보를 봤는데, 신아일보, 송탄엘 갔어. 지국에. 아 나왔더라구. 그래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난 조선일보를 보니까 보니깨 나왔더라구 보니깨. 이게. 근데 그냥 뭐 내가 국회의원도 만나보구 그냥 별짓 다 해도 그냥... 하하. 국회의원도 그 당시에 서상린씨라고, 그 5.16 군사... 세력이 큰 양반이야. 군인 출신인데. 그 서상린씨두, 저 서상린씨. 또 여기 뭐야 최영희씨, 이런 양반들 다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두 다 찾아보구. 근데 그 신문에 나니까. 며칠 안 되니까 자재 갖다 놓더라구. 현장에. 그래서 공사를 해가지구 농사를 지어본 기억이 있어요.

복구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금방이지. 그까짓거 뭐 한... 그러니까 모내기 직전, 모내기 직전부터 그랬으니까, 인제 장마 오기 전에 끝났지... 한 3개월 만에 그냥 완벽하게 해놓았지.

그때는 중장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중장비두 있지.

60년대 초반에도 중장비로 했나요? 여기 재방 쌓을 때?

그러믄요... 중장비가 들어가지.

뭐 지게로 짐져 나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그건 아니구. 중장비로.

제방 쌓을 때도 중장비로 했어요?

제방 쌀 때두 다 도자로 밀었어. 중장비루.

이장님으로 큰 일 하셨네요. 그때.

나 큰일 한 거 많아요. 하하하...

그때 어르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 해 농사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지어봐야 불안허구, 장마 물 밀고 들어오면은...

제방 무너지면 뭐 100프로 침수될 텐데...

그 물이 들어오는 거지. 70메다 짤라진 데루 그냥. 장마 물이 밀구 들어오는 거지.

바닷물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바닷물은 아니구. 그때는 장맛물이지. 아산물 꽉 막었으니까.

아산만 막기 전이잖아요? 72년도면?

그때는 아산만 있었을 것 같은데?

아산만이 74년도에 막히네요.

바닷물이 이렇게 맞서면은, 바닷물이 맞서면은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쪽 수위가 이마침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구... 또 이 비행기 저기 자꾸 밀고 나오면서, 또 뭐야... 하폭이 좁어지니까. 물이 넘어올 거 아녀! 그래서 이 비행기장에, 뭐야, 이것도 군수부터 시장 뭐 다 그 사람들 만나서, 이거 이렇게 밀면 회화리 이거 하폭이 좁어지면, 그 물 넘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 죽어도 그냥 두는 기여? 요거 얼마 전이야. 한, 그때가 88년돈가? 이게 밀고 나왔는데, 88년 돌 거야. 아 이게 정부에서, 위에서 하는 거라 모른대. 좌우지간. 군인이 허는 일이고, 국방부가... 이 군청에서. 군청에서 인저 그런 식으로 나와. 면장은 그 모른다 소리지. 아 내가 나서 면담 신청을 했어.

미군 부대에다가요?

응. 비행기장 면담실. 비행기장, K-55 비행기장 이 정문에 가가지구. 좀 만나뵐 일이 있다구 내가. 정문에 가서. 그래 “왜 그러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그랴. 아니 지금 300메타도 좁어서 물이 넘어올라구 그랬는데, 72년도하고 84년도에 넘어올라고 그랬는데, 이게 80메타 밀고 나오면 어떡할 거여. 그 물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 제방을 더 높이 싼다든지 해야지. 그랬는데, 신청을 허니까 이 시설대장이 나오더라고요. 아 시설대장이 중령이더라구. 여자야 또, 여자 중령이야. 공군인데. 그래 거기서 인제 만났어요. 내가. “영어를 허느냐?”고, “헐 수 있느냐?”고. “난 영어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통역을 부르더라구 인제. 그래 통역이 나와가지구 나보고 이래, “어째서 왔느냐? 면담 신청을 했느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80메타를 밀고 나와서 내가 그것 좀 대책을 또 세우고 있는 거를 좀 알아야겠다.”구 그랬지. 그래서 왔다구 그러니까, 그럼 들아가자구. 저희 사무실로. 그 찝차에다 싣고 들어가더라구, 저희 사무실루. 그 인제 현황판을 내놓구서는 인제 얘기를 허는데, 나는 옛날에 장마져서 물 넘는 얘기를 해면서, 그거를 대책을 세웠느냐고만 따져 묻구, 그 시설대장은 하는 얘기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은 하상이 얕아져서, 하상이 얕아져가지고 이 540미리, 관계없다 이거야. 저희는 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여기 비행장 주변에 측량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물어. 그래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매년 측량을 두 번씩 헌데. 이 비행장에서. 그 지형이 어떻게 배뀌었나. 안 배뀌었나, 배뀌었나? 그래서 배뀌면... 70년도에 그 하상 높이하고 지금 현재의 하상 높이는, 뭐 몇 메타가 낮아져가지구 700미리를 카바할 수 있다고 그랴. 그 시설대장이. 그래 괜찮대. 그래서 내가 “우리 주민이 불안한,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이 주민들이 불안한 게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대책을, 제방을 높인대든지 뭘 해야지. 난 그걸 요구하는 거요.” 그랬더니 괜찮대야. “그러면 700미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장님이. 미국에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를 이럴 때에 많이 쓴다. 천재지변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압니까? 하늘이 허는 일은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을 못하는 게 천재지변이라고 그래. 그리구 삼재래는 게 있는 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삼재라는 걸 많이 믿어요. 바람, 비.... 불. 삼재래는 걸 우리 한국 사람은 상당히 믿고, 그거를 그야말로 열두 갑자, 잘 모르시는 얘기지만은 오행설에 의해서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것까지 따지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유. 그런데 덮어놓구 이렇게 80메타를 밀고 나오면은, 이게 말이나 돼, 주민이 가만히 있느냐구. 내가 오늘 여기서 결과를 가지구 가서 얘기허면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대는데도 그런다고. 나부구. 답답허지. 저희는 학술적으로 허는 거구, 나는 옛날에 장마진 걸 얘기허니. 그런데 뭐 집에 오니까, 새까만 차가, 세단에 와 있어. 뭐 무전기가 두 개가 달린 게 그냥... 이, 들어오니깐. 그때 나 자전거 타고 댕겼지... 들에 갔다 왔는데, 막 뭐 쏼라쏼라 하고 뭐 무전기가 소리나고... 아 그래 내려와서... 난 또 그 비행기장 갔다 온 게 잘못됐는 줄 알구, 그때는 중앙정보부래는 게 셌잖어. 아 그래, 그게 붙잡으러 왔나? 아이구, 속으루...

그때 겁도 좀 나셨겠어요?

그 이 붙잡으러 왔는 줄 알고 깜짝 놀랬어. "나 붙잡으러 왔나 봐? 우짠 일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들어가 보세요. 우리 대장님 오셨어요." 그래 와보니까, 중정(중앙정보부) 경기도 조정관이,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차씨야... 옛날에 중정 조정관이...

중앙정보부 조정관이요?

예. 중정. 그래 군청까지 나와서 파견나와 있었어 옛날에. 그때는, 그때는 그 군청까지 파견 나와 있으면은 경찰서장, 군수가 그 앞에서 발발 기어. 옛날에 그랬어.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정보부에서 나오긴 나왔네요?

어. 그래 보니까 몰르는 사람이야. 근데 "아유 나 몰르지요?" 그래. 그래서 "난 글쎄 몰르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나 누군데, 나 대구에, 저기 그거 명함을 주는데 경기도 조정관이야. 중정. 중앙정보부... 그래 "우짠 일이슈?" 그러니깐, 우리가 그때 파보, 강열공파 파보, 족보를 냈어요. 그 무렵에. 내가 근데 이 연안 차씨 강열공파의 이 송탄 · 고덕 · 서탄, 내가 유사를 했어. 그러니깨 인제 유사하면, 관리해구 심부름 해구 그러는 거지. 이 종친들한테. 소식 알려주구 인제 이러는데. "아이 유사님 날 모르지유. 나는 알지유." ... 그래 그 사람이 그 책임자야. 족보 허는 책임자야.

아 그분이요?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그래. 아유 반갑다구. 그때는 내가 여기 집이 쬐끄맣어. 이 살림집이라. 옛날 집이, 이 집이 아니구. 지금도 쪼끄맣지만은... 아 그래 내가, 나보고 그래... 아 그냥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니까, 인제 족보를 허는데, 그 내용을 읽어주는 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확해가지구 빠짐없이 다 해라. 빼놓구 가지 말구. 이왕에 30년 만에 한 번 허는 거니까. 빼놓지 말구 다 해라. 잘해라구. 그리 일러주러 온 거여. "아이 그러냐."

어쨌든 처음에는 좀 놀라셨겠어요?

아 그래 나보구 그랴. 그 저기, 여기 인제 전부 조사해 놓은 거, 족보 해놓은 거, 좀 보자고 그랴. 근데 그땐 이런 책상두 아니구 앉은뱅이 책상, 그걸 집구 앉어서, 뵈주니까, "아유 대단해유!" 그래. "뭐이 대단해요?" "어째 글씨를 잘 쓰슈?" 그래. 내가 글씨를 좀 써요 옛날부터.

그래도 이 동네 상량, 집 지으면은 상량보는 내가... 상량보를 내가 쓰구 그랬어.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슈?” 나부구 그래, 그이가. 그이 권한이 경기도지사가 그 앞에서 발발 기는 권한이야. 그때는. 그러지 뭐 이런 군수 같은 거, 경찰서장 이런 건 그 앞에 가두 못해. 그때는... “뭐 어려운 일 없느냐?” “나 이렇게 살아두, 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유. 어렵게는 안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셔야쥬. 그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슈.” 그래. 그래서 인제 비행기장 얘기를 했어. “아이 그 자식들이 어째 그럴까? 그래 군수가 모른다구 그래요?” 그랴. “면장두, 군수두 죄 모른대요. 아무것두 모른대요.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있어 보슈. 그럼 내가 들어가서, 좀 알아볼게요.” 아 거 그 이튿날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저기 뭐야 정보과 형사하구 사법계 형사들이, 내가 다, 거의 다 알지 인제. 그 경찰들. 이 사건 나면, 그때는 쌈박질을 애들이 많이 해가지구, 만날 합의봐주러 하하, 가면. 거기 경찰서 가야해, 내가, 이장이.

아 마을에서 싸움 나면 인제...

무슨 억울한 일 있거나 그러면 또 가야 허구 그렇지... 아이 그 정보과장이 “나 좀 봐유” 그래. “아 우짠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양반 계시면 좀 같이 알구 지내야지. 그냥 대구 그 양반한테다 얘기를 허면 어떡허느냐?” 구. 어 완전히 죽을 똥 싸, “지금 경찰서장이 지금 그냥 목이 달랑달랑허게 생겼으니 어떡허느냐?” 구.” “아 뭐 난 비행장 들어가서 핸 얘기밖에 없구, 그 양반이 물어봐서, 아 이거 좀, 난 그렇게, 동네가 이렇게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만 했을 뿐이지... 다른 얘기헌 거 없다.”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지금...” ... 아 그랬더니 건설과장이 나와.

군청에서요?

군청 건강과장이 나와, “지금 난리 나구, 지금 평택군 죽게 생겼다.” 구 지랄 해... 내가 그랬어. “이 시팔 내가 건설과에 한두 번 갔느냐!” 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구, “내가 한두 번 갔어! 당신한테!” 그 현상태래는 사람인데, 나하구 한 또래여. 그래서 내가, 인제 서로 만녹수허구 인제 반말을 허구 그러는 사이인데, “내가 너희헌테, 평택 건설과에 몇 번 갔느냐?” 고. 근데 비행기장 어떻게 갔느녜. 그래서 “왜 비행기장 못 가? 내가 카투사 출신이지 않아.”

카투사 나오셨어요?

나 카투사 출신이에요. 이 미군 부대가 돌어가는 그 통로를 내가 알지. 민간인이 억울허먼은 이 훈련해다가 피해 줄 때가 많어요. 전방에서. 탱크가 그냥 밭으로두 들어가. 어떨 때는 밤이니까 들어가구 그냥. 그 몰르고 들아가. 인저 걔네들이, 미군들이. 그 피해 보면 보상해 줘야 하잖아. 그런 통로를 알지 내가 인제 군대...

카투사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어르신 나이에 카투사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잖아요?

많지 않지.

근데 어떻게 카투사를 들어가게 되셨어요?

내가 이 저 대구에 있었는데, 거기 그 장거리 통신단... 이... 단에 그 사병 기록계가 차씨더라구. 그런데 그 사람 매형이 육군본부 이사감이여. 준장이야... 그 나하구 그. 사병기록계 병인데, 내허구 종씨인데, 인제 그게, 자기가 카투사를 갈라구 우에다가 올려놓은 거여.

아 본인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놔주나 단장이? 안 놔주지. 그러니까 저는 못 가니까 나를... 나보다 고참이야. "종씨가 갈래?" 그래. 나는 당번병이가 단장, 우리 여단장 당번병이, 당번병인데 나두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여. 단장이 가래야 가지. 내가 커피도 처음 먹어본 사람이여. 이등병 적에 거 가서. 단장실에 근무허니까, 단장... 오는 예하부대, 상급 부대여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커피를 대접했어. 커피 포트도 처음 봤어. 거기서.

그때 커피 포트는 전기가 아니라...

그때는 인저 톱밥 같은 걸 끓이는 거여. 그렇게 처음 갖다 주니까, "야 이리 와 봐라." 그래 우리 단장이. "이거 너 먹을라구 끓였냐? 나 줄라구 끓였냐?" 맛이 안 맞는대는 얘기지... 아니 그래, 뭐야 난리가 났어, 동네가 그냥. 경찰서에서 그냥, 건설과에서 죄 나와가지구. 아 그래... 뭐야 며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몇 월 며칟날 서탄면사무소에서 회화리 대표 2명, 면장, 서탄면 산업계장, 건설과장, 치수계장하고 오산비행기장 시설대장, 군산비행기장 시설대장, 성남비행장 시설대장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핼 테니까 몇 시에 나오라고 면사무소로. 연락이 왔어 국방부에서. 그래 가니까... 뭐야 우린 인제 다 나왔지 인제. 그 왔더라구 미군들두 인저. 국방부에서 나오고. 국방부 징발과... 징발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뭐 그, 뭐 민간인 옷이라 계급은 몰르겄더라구. 아이 그래 앉어서 인제, 내가 또 지금 지금 한 얘기 고대루 하는 거여. 뭐 건설과장이 얘기를 해나, 무슨 면장이 얘기를 해나.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건설과장 뭐 벙어리마냥 앉았는 거지, 벙어리마냥. 그 여기 시설대장하고 얘기... "주민의 감정은 지금 나쁘다. 주민의 감정은 나쁘니까, 이거를 해소핼라면은 내가 요구허는대로 제방을 좀 높이 쌓아 더. 회화리 제방을 높이 쌓아! 비행장도 높이 쌓구.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두어 시간을 인제 옥신각신허구. 인제 걔들은 700미리까지 충분허다는 걸, 만날 그 얘기 허는 거고. "아유 천재지변은 어떡헐라고. 응, 천재지변은 어떡헐라고." 그러다가 인제 이 저 국방부 징발과장이, 땅 징발헌 사람이여. 그러니까 여기 80메타를 징발허는 그 사람이여. "그 징발과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다 그림 그렸느냐."구 근데 인제 그 징발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엔 비행기가 개벼워서 지금 현재 활주로 쓰는 거루 충분히 썼는데, 지금 비행기가 대형화돼가지고 그 활주로는 내리면 흔들린대 앞쪽으로. 그래서 대형 비행기장, 대형 비행기 맞는 두께가 두꺼운, 공구리가, 그런 활주로가 꼭 필요허구, 여기가 전략사령부인데, 전략사령부라 꼭 부득이 해야 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구. "그거 모르고 핸 거는 제 실수다. 내 착오가 있었는데..."

활주로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인제 두께가 비행기가 내려두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그걸 맨들라고서 핸대는 거래. 그래서

꼭 해야 한대 이거는. 뭐 제방을 높게 쌓든지, 무슨 일이 있어두 꼭 그걸 해야 헌다고 그러더라구. 그 인제 저희끼리 얘기를 허대. 그 저 비행기장, 인저 군산비행기장허구 성남비행기장허구... 그러면 현 상태에서 저희 비행기장 제방을 1메타를 낮추겄다 이거야. 이 회화리 제방보다. “1메타 낮으면은, 물이 넘을라고 그러면 거기루 빠질 거 아니냐.” 그런 식으루 인제...

제안을 하더라고. 물 넘으면 위로 넘을 테니까, 우리는 그걸 낮춰두 700미리를 카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허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건설과장이 “아 이장님 그렇게 하면 되겄느냐? 괜찮겠느냐?” 고 그래 물 넘으면 괜찮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녀. 아니 여기 다 해야, 그땐 펜팀기여. 펜팀기 두 대 값도 안 된대는데, 수확량이. 여기 수확량이 펜팀기 두 대 값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카바한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저게 얕어요. 현재. 회화리쪽보다 낮구. 근데 그 다음 그 물이 어디로 빠져야 되냐면, 넘으면, 옛날에 황구지가 있었어. 비행장에 철수핸 동네. 그리다가 가게 돼 있어 또 물이. 아이 그러니깨 또 황구지 사람들이 또 “아 차경환이 죽일 놈” 이라구. “저희만 살구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구. 물이 넘으면 그리 빠지니까. “아 당신네들은 언제 뜰 거 아냐. 언젠가는 너희 땅에서 뜰 거구. 우리는 영구 아냐. 이 서탄은. 그러니깨 당신네들이 그 이해를 해야지.” 그래 그런 경우두 있었어요.

황구지가. 그럼 그때도 그렇게 수용되기로 돼 있었던 건가요?

그때두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인제 조만간에 수용될 걸로 예상이 됐었나 봐요?

그렇지. 거기는 언제든지 수용될 거니까. 그 인제 수용된 지가 한 10년 돼 가나? 10년...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 돼 가나 몰러. 거기두 좀 똑똑헌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구. 잘 했어요 그 당시에.

---------- 〈2023년 8월 12일〉

여기 적봉리 가마골에서 석유 시추도 하고 그랬어요?

석유... 내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 들어와가지구 이 한국 사람이, 그때 조선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그 일본놈 속여먹을라구 그 관정을 박고선 석유가 나온다구 그랬다구 그런 얘긴 들었어.

아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석유를 저장해 놓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뭐야 관정을 박어놓구, 거기다 석유를 부어놓구, 석유가 나지 않느냐. 그 뭐 그렇게 일본 사람을 속였다구 그러는데...

아 그렇게 속였다고요?

예. 아 몰라요. 그러게, 그렇다고 그래. 옛날에 거기 그 석유 시추를 해봤다고 그랴.

아 석유 시추를... 그러니까 어르신은 뭐 직접 보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못봤어요.

그 자리도 보신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들은 얘기여, 나두 어른들한테.

그리고 사금 채취는 많이 했대요?
사금 채취하는 걸 봤지.

해방 후에도 했어요? 사금 채취를?
해방 후도 쪼금 했어요.

아 해방 후에도요?
응.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했나요?
그렇지. 전쟁...

6.25 나고 나서는 안 하고요?
6.25 전에 벌써, 인제 남북이 갈려가지구 전기가 끊어지니까. 옛날에 북한에서 오는 거 아냐. 전기가 이! 여기는 발전소가 없으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때 관둔 거여. 그러니까 8.15 해방되고 바로 그만뒀다고 봐야 돼야. 사금 채취는.

사금 채취를 어떻게 했어요?
아 사금 채취는... 이렇게 광목, 여기다 말뚝을 박고, 이 광목을 여기다 이렇게 쳐요. 그리고 인제 삽으로 모래를 여다가 얹는 거여. 퍼 끼얹으면 인저 물 퍼 끼얹구. 한 사람은 모래, 모래를 퍼 끼얹구, 한 사람은 물을 퍼 끼얹구. 그러면 인제 흘러내릴 거 아냐? 그러면 그 사금은 무겁고, 그 날이 있으니까 이! 각이 있으니까 광목천에 붙는 거요... 그걸 모으는 거야 인제.

근데 이거는 전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전기가 관계 없어도, 근데 왜 그랬는지 몰러 나도. 전기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래도 이 사금 채취 때문에 전기가 들어왔다구. 그러니까 인제 한 사람은 이 뭐야, 모래를 퍼 끼얹구. 이렇게 여기 흘러내리게 해놓구선. 한 사람은 물을 퍼 끼얹구.

그러면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많었어요. 여기 지금 이 제방 안이야. 이 도로, 이 위에서 했다구. 이 앞에서 핸 게 아니고, 이 제방 있죠? 도로. 도로 위에서 했어요.

도로, 그러니까 마을 쪽에요?
예. 마을 쪽, 마을 옆에서. 그리 쭉, 쭉 해가지고 교회 있는 데까지.

지금 여기가 진위천이잖아요. 여기가 진위천이고, 여기가 마을이거든요.
회화리 마을이라고 이게?

예. 여기가 어르신 댁이고. 그러면 사금 채취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지. 여기서.

여기서 사금 채취 했어요?
예. 위치가. 주욱...

여기 사금 채취하는 범위가 넓었나요?
아 넓은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냇갈이지, 이렇게.

옛날에는 하천이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렇지... 적봉리루.

적봉리로 이렇게 흘렀는데, 그러면 이 코너 부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이쪽에서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이 막, 한 100명 뭐 이렇게는 안 됐고?
그렇죠. 그렇게 또 봐야지.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이건 어느 회사에서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회사? 글쎄 나는 회사는 몰러요.

그럼 개인적으로 와서 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해니까, 회사겄지.

어떤 조사에 보니까 소림광업사라고 그러던데요?
그 소림광업이라는 건 들어본 얘기여. 내가.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뭐 광케이블을 만드는 데 그게 들어간다구 그러지.

광케이블이요?

광케이블, 하여튼 굉장히 그 저 뭐야 중요한 그 기계 만드는 데 하여튼 그게 들어가 같더라고... 그게.

그럼 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나 봐요?

아니지. 사금, 그것만 하는데, 그게 나오는 양이 그게 많은 게 아니유. 보니까. 그 인제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채취해놓은 거를, 이 땅을 네모지게 이렇게 파가지고 묻었더라고. 묻고선 도망갔더라고.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옛날에 그 냇갈 이렇게 거기 있는데, 자꾸 이렇게 뭐야 저 제방이 좁어지니까, 인제 제방 더 쌓느라고 이렇게 뭐야, 건드렸는데 그 근처 이렇게 인제 흙을 파올렸는데 그 묻어놓은 게 나오더라고.

사금을 묻어놨어요?

예. 그걸.

그 사금은 그러면...?

그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쓸 줄도 모르는 거고. 그냥... 그냥 없어진 거지 뭐.

그 양이 많았어요?

아 많았어요.

그러면 그건 정부에서 가져갔겠네요?

글쎄 정부에서 가져갔는지는 몰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쓸 저기가, 못 썼을 거야.

금이 그냥 일반 순금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녀. 사금이라고. 이게 모래바닥에 보면 거무스름 한 게, 이 네모진 거 같은 게 그건게 까뭇까뭇 해, 그게. 근데 빤닥빤닥하지, 인제.

아 이렇게 금 색깔이 아니고?

아녀. 검은 거여 이건.

아 검은 색깔이에요?

이게 그 무슨 광케이블인가 그거 만드는 데 그거 들어간다고 그랴... 이렇게 황금이 아냐.

아 황금 아니에요?
응. 사금이라고 모래에서 나오는 금이라고. 그래서 사금이지.

이 마을에서는 사금 채취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게 마두리 쪽에서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마두리 앞쪽?
글쎄, 마두리는 어서... 마두리는 할 만한 데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만 있어요? 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코너 여기에서...?
응. 그래요. 요 앞이여, 바로 요 앞.

그러네요. 마을, 도로 만나는 데요.
지금 교회 앞에, 교회 저 동쪽이루.

옛날 보가 교회 앞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아 보는 없었지. 보는... 아 옛날에 여기 봇도랑 있는 데!... 이 물방아.

아 물레방아...
물레방아지. 물방아가, 이 저 금암리, 저 금암리 알죠? 원금암, 골안말. 거기도 냇갈 있잖아. 거기서 보를 막아가지고 이 들을 적신 거여.

그 보가 새보인가요?
새보래는 거는, 이 바로 위에 마두리보가 있고. 마두리들을 적시는 보가 있고. 바로 밑에 회화리들을 적시를 보고 있다구. 두 개여, 나란히.

(지도를 보며) 오산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오산천이 이렇게 흘러오면...
그려. 진위천 또 흘르지, 그 옆에 거기. 거기가, 들이 너브내라고 그랴.

진위천이 흐르고, 여기 인제 금암교가 있잖아요?
합치는 데가 있지. 진위천하고. 여기 요 적봉리에 가면.

여기가 지금 합쳐지는 데예요.
응. 합쳐지는 데가 있어. 그 인제 거기에다가, 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물이 회화리보가 물이 없으니까 새보래는 걸 밑창으로 내려 뚫었다구.

그러면 저기, 원래 저기 금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보는...?
그거는 구보요.

안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리 앞에서 막은 거요.
사리 앞에서 막었지.

회화리보는 어디서 막았어요?
그 담에 마두리보. 그게 저 원금암리, 골안말. 원금암리 고기서 막었어.

그 다리 있는 데서 막았다고요?
다리 밑창에서 바로... 거기서 막고, 고 밑창에 또 회화리보가 또 있었다고.

아 마두리보가 다리 바로 밑에서 막고, 회화리보가 바로 또 있었어요?
그렇지. 인저 한 100메타나 200메타, 고거 떨어져서.... 그러니까, 물이 적으니까 인제 새보를 이 밑창으로 뚫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측량기를 보고, 기계를 봤겠지. 근데 그때 육안으로 보고 해니까 물이 안 넘어오더라구.

여기가 인제 마두리보가 있고...
회화리보가 있었지.

회화리보는 어디쯤 있었어요?
바로 밑창, 한 150메타?

그럼 여기가 마두리보, 회화리보, 새보, 이렇게 간 거예요?
응. 회화리보는 둘인데, 하나는 구보구, 하나는 새보구 그러지.... 그런데 그거는(새보는) 못 썼어. 써먹질 못했어.

새보는요?
응. 못써먹었어.

마두리보는 봇도랑이 어디로 났어요?
거기서 지금 저... 골안말서 막어가지고, 인제 지금 그... 뭐냐... 지금 저기 적봉교, 적봉교 위에서 인저... 가는 거여. 여기서 막어가지고 인제 서쪽으로 가는 거지, 계속.

여기(마두리 앞 들)에 물을 대는 거예요?
이게 마두리들이여?... 그렇지 마두리들에 물 대는 거지.

마두2리 앞에요?
그렇지.

이 들판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나비들인가요?

나비들이라구. 들판 이름도 많지. 나비들이라고두 있구, 그 조금 더 가면 뭐 새들이라고도 하고 뭐. 들 이름도 많어.

그다음에 인제 여기 회화리보는...?

회화리보두 고기 밑창으로 따라서 인제... 이 동네 뒤루... 회화리 뒤... 회화리 뒷길로 인저 오는 거지. 바로 여기, 얼마 안 돼 여기서. 한 100메타? 여기 우리 집이서 100메타 뒤루 회화리봇들이 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거거든.

그러면 이 회화리 이쪽은 인제 회화리보에서 물을 대는 거예요?

그렇지?.

그담에 새보는 어디 들판에...?

새보는 안써먹었어. 새보는 막어가지구, 구보하구 합쳐가지구 물을 팔라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안 맞어가지고, 수위가 안 맞어서 못 써먹었대니까.

해정들은 어디예요?

전체를 해정들이야. 이게... 해정들에 이 저 성구비, 뭐 저 거세논이구 뭐구 다, 구레논, 그게 다 해정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해정들이여.

나비들은 어디예요?

나비들은 저기 저, 지금 마두2리 동네를 나비들이라고 그러는 거여. 마두2리 전체를, 그게 나비들이여.

너브내들은 어디예요?

너브내가 저 골안말, 금암리들이여... 거기가 이 저기 오산천하고 진위천하고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굉장히 넓지. 그래서 너부러졌다고 너브내여. 하하하... 넓다고, 거기는.

그러면 적봉리 위에는요?

적봉2리는 그냥 적봉리라고 그랬어. 그냥. 거기는 그냥.

그러면 이쪽에는 회화리 사람들 논이 별로 없었나 봐요?

없었지.

회화리 사람들은 주로 이 해정들에 있고요?

응.

미수보하고 댕수보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어요?

그건 비행기장.

그러면 거기가 야리 쪽인가요? 신야리인가요?

신야리... 신야리가 있구, 야리가 있어. 그 비행장 안에. 야리가 커. 신야리는 쬐끄맣구. 야리라고 바로 물 건너 있어. 비행기장 동네. 그 보는 대단한 보여.

미수보요?

미수보, 댕수보. 봇주는 그 권세도 대단해구, 옛날에 그랬대여.

봇주는 어떤 사람이 주로 해요?

농지 인제... 지금은 협동조합이라구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뭐야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들판을 중심으로, 들판을 이 아우르는 그 보가 있어. 보가 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제 보를 구성허면은 면적이 다 포함될 거 아냐. 이 면적이... 이게 마두리 보여. 마두리 보면은 마두리 매여 있는, 마두리보를 막어가지구 그 물을 대는 농지는 마두리보에 다 속해 있는 거여. 회화리보는 회화리보에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회화리 그 보에 가입을 해가지구, 보에 가입을 해가지구 인제, 거기서 인제 그야말로 인제 그 책임을 맡을 만한 사람, 맡을 사람을 선출허는 거지.

아 그건 선출하는 거예요? 땅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출을 해가지구... 뭐야 이름이 올른 사람이 봇주야... 그래 봇주가 회화리두, 이 회화리보도 봇주가 두 분이 나와. 전에 보면은. 두 분인데, 그 사람이 1년 보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면, 그걸 다 적어가지구, 가을에 가서 인제 회의를 허지. 이게 돈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뭐 평당 얼마만큼 돈을 거출을 허는 거여. 그 보에서 봇주가. 만약에 인제 회화리보에서 1년 사용하는 돈이 만 원 들어갔다 하면 또 만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녀. 그래 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구, 세워주면 또 봇주가 또 인제 1년 동안 뭐 보를 막을 때는 말목두 사와야 하고 가마두 사와야 허고, 또 밥두 이...

보 막을 때는 저기 이 가마니에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막죠?

그렇지. 그 말뚝 박아놓구선 인제 걸쳐놓는 거지. 그 대단한 공사예요. 보 막는 게.

근데 저 금암리 어떤 분은 그냥 모래를 쌓기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

아이 모래 쌓아가지고 되나 그놈의게 가마로 해가지구, 이 지금 뭐야 이 발전소 댐도 물이 차면 넘게 만들잖아. 보도 그렇게 똑같이 막는 거여. 비가 와가지구 장마가 지면 운행기라고 해가지구, 그 위로 물이 넣게끔 가마로 이렇게.

가마 위로요?

가마 이게 쌓으니까. 착착착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인제 쌓았으니까 별안간에 비가 오면은 글루 넘지. 그 나머지는 또 모래로 높게 쌓지. 쌓기야. 그 인제 가마로.

그러면 장마 져도 보는 뭐...?

쪼끄만 장마는 안 나가지.

안 나가고 큰 장마에나...?
큰 장마에는 그냥 터지지는...

큰 장마에 터지면 다시 쌓나요?
다시 또 해야지.

여름 지나면 그 물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안 쌓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인제 농사 다 지으면 안제 안 해지.

그럼 언제까지, 인제 언제 터지면 다시 쌓고, 언제 이후에 터지면 안 쌓는 거예요?
그게 보통 보면는 이 8월 달까지는 물이 있어야지. 옛날에 8월... 지금이 8월 달 아냐! 그 8월 말까지는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8월 말 이전에 터지면...?
또 막어야지.

또 막고, 그 이후에 터지면 인제 내깔려는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경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 쌓을 때 봇밥 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봇밥도 경비에서 쓰나요?
그러믄요. 경비에서 하는 거지.

저 안보 쌀 때는, 금암리에서는 쌀을 한 말씩 가져갔다고 그러던데요?
그때 우리 회화리보는, 이 마두리보는 예산을 세워. 경비가, 한 번 해봤으니까 알잖아. 올해 경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인제 쓰고선 인제 결산총회를 해는 거지, 가을에 또. 결산총회를 해가지구 얼마를 거뒀는데, 돈이 모자랬다든지, 남어가지고 잉여금이 있다든지, 그 결산처에 보고 허면은, 보고허고서는, 예를 들어서 ‘보를 어디를 또 수리를 더 해야 핸다. 또 돈이 더 들어야 헌다.’ 그러면 돈을 좀 더 걷고. 평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구 운영하는 거여. 그래서 그 봇주가 대단한 권위 있는 사람이 허고, 신망이 높은 양반이 하지 두 양반이 허더라구.

그러니까 두 분이 번갈아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한 번에 두 분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 봇주, 두 분이 허는 거야.

그러다가 인제 여기 경지 정리되면서...?
그렇지. 수리조합이 인저 생기구. 어비울 거, 저 동탄에 있는 거 인저 생기면서, 인제 보가 없어졌지.

그러면 여기는 어비울 물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 쪽에 동탄, 그게 먼저 됐지.

그럼 동탄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비울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여, 그게.

그럼 이 들판이 다 똑같이 두 물이 다 공급되는 건가요?
안보고 뭐고, 회화리 마두리보 다 하니까. 수리조합 물 쓰는 거지.

이 경지정리가 몇 년에 됐어요?
경지정리가 이게 몇 년 됐나? 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새마을운동하기 전에 했나요? 후에 했나요? 시작되고 나서 했나요?
이게, 수리조합 여기 물 내려온 게.... 60... 60년대 초. 60 한 2년도, 62년돈가 고 정도에 물 내려왔어.

경지정리 안 됐을 때요?
그땐 경지정리 아니지. 그냥 보지. 보에다 떨어뜨린 거지, 물을.

그러면 저 금암리 안쪽, 금암리 쪽에서 이렇게 수로 지금 난 거 있잖아요. 그 수로가 옛날 안보수로인가요?
아녀. 거 수리조합이 쌓은 거지.

그 수로는 새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수리조합이에서. 옛날에 봇돌은 그렇게 크지 않었어요.

봇돌은 그냥 그러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다 없어졌지. 하나도 없지, 봇돌은.

그리고 인제 70년대는 저쪽(송전저수지) 물...?
아니 거의 같이 된 것 같애.

저기는 72년도에 된 건데요.
72년도에 됐다고 그래요?

72년도에 완공된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암3리에서는 여기 72년도쯤에 경지정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겄지. 경지정리가 그렇게 됐을 거여.

그런데 경지정리 전에도 동탄물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지. 수리조합물 썼지.

근데 그 동탄물 가지고는 부족했었나요?
그래두 그거 가지고 썼지. 그럼.

그전에는... 회화리보물 가지고 여기 해정들 물을 다 댔는데...
그렇지. 다 적셨지.

가뭄에는 어떻게 해요?
아 가물제는 그 지금 저 사금 채취했다는 자리, 거기에, 이 회화리보는 물이 적어. 바로 위에 마두리 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 모다(모터), 6인치 저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가지구 봇돌에 떨어뜨렸어. 회화리들은...

사금 채취했던 곳에서요?
응. 고기서, 6인치 양수기를 놓구선 모다로. 그 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데 어떤 분은 여기 보가, 회화리교회 앞에 보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아녀, 그게. 회화리교회 앞에 있는 건 보가 아니야. 그거 저 물 퍼넣는 거지. 양수기로.

그러니까 양수기는 회화리교회 앞에, 거기를 막고, 거기 파내고, 물 마르니까 파내고 거기서...?
물을 그냥 봇돌로 퍼넣었지.

그러니까 이게 보가 아니었는데, 또 어떤 분은 보라고 착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녀. 이 회화리보에 속해 있는 거지. 그 물 푸는 저기가, 시설이 회화리보 재산이야.

물 푸는 시설이요?
그 물 퍼올리는 양수기, 모다, 방앗간, 물방앗간이 회화리보의 재산이라니까.

그 자리에 물방앗간도 있었어요?
옛날에 물방아는 고 위에여, 바로. 교회 조금 지나서. 그건 나도 못 봤는데....

어디쯤에요? (지도를 보며) 여기 교회가 여기 있거든요?

회화리교회가 요기여?... 그럼 요기쯤 있었어... 물방아가 있어... 그 저 거기서, 저 뭐야 골안말, 원금암리, 거기서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끌어내려가지고, 요가 깊으니까, 그 낙차를 이용해서 물방아를 이용했다구.

그러면 양수기는 물방아 아래쪽에 있었겠네요?

그렇지. 쪼끔 아래 있어.

이 물방아는 회화리보에서 소유했다고요?

그렇지. 회화리 사람들이 쓰는 거지.

회화리 공동이었어요?

회화리 사람들이 보를 막아가지구 물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거기 가서 방아 찧구.

발동기도 있었어요?

발동기는 없었어, 여기.

그럼 모터를 썼어요?

그때는 저기여. 전기 모다로 물 펐지.

이 물레방아는 벼하고 보리만 찧었나요?

글쎄 난 못 봤어요.

어르신이 계실 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방아는 어디서 찧었어요?

벼 방아가 내가 기억허는 거는, 그때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발동기, 구보다 발동기래는 게 있었어. 구보다 발동기 그 4마력인가 그렇게 돼. 그걸 가지고 마을에 댕기면서 방아를 찧었어.

아 집집마다요?

응.

누가 하셨어요? 그건?

그 인저 그... 주인이, 방아. 발동기, 그 좀 재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발동기를 사구, 정미기 사구, 이래가지구. 예를 들어서 저 집이 이렇게 집이 여러 집 아녀? 그럼 요 가운데서 차려놓으면 요 근방 사람이 다 와 방아찧은다구.

이게 공터가 있으면 공터 주변에 있는 여러 집이?
응. 마당... 한 대여섯 집씩, 이렇게 인제 방아 찧고 그러는 걸 내가 어려서 봤지.

물레방아는 인제 있었다는 말씀만 듣고?
그렇지. 그 인제 이 발동기가 나오니까 그게 없어진 거여.

마을에 정미소는 없었어요?
아 정미소가 있었, 정미소두 저기여. 인제 그 늦게 있었지.

새마을운동 전에 있었나요?
아이 그럼. 저, 아이 저기 여기 뭐야 8.15 (전에는) 일본놈이 가졌던 방앗간도 있었어.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방앗간은 있었네요?
응. 방앗간 있었다구.

방앗간 있는데,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방아 찧고 그랬었어요?
아 그게...

그건 탈곡 아닌가요?
여기 전기로 했거든. 전기로 인제 방아를 찧다가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혀. 그래서 발동기루 찧었지. 그래서.

그 방앗간에서요?
아녀. 방앗간에서 하는 게 아녀. 그건 그 소규모로 그냥... 근데 여기 비행기장 안에 적봉리라고 있잖아. 적봉리가 저기 지금 저 비행장 산, 여기. 산 거기 가까이가 적봉리여. 거기. 거기에 방앗간이, 큰 방앗간이 있어서. 그 정부미 방아 찧는 방앗간이 거기 있었어. 대형 방앗간.

일제 시대부터요?
응. 근데, 그 방앗간은 발동기로 돌렸어. 그 저 배 발동기라고, 배 엔진이지 그러니까. 그 엔진을 갖다 놓구선, 거기서 방아를 찧었어.

그러면 이 마을분들도 다 거기 가서 방아...?
거기 못 가지. 냇갈 때문에.

아 냇갈 때문에 못 가고... 근데 저기 새말(금암3리) 사람들은 그 방앗간으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게에다 지고.
글쎄, 인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지.

근데 여기는 일제 시대 모터 방앗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회화리는 모타 방아고.

그 방앗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방앗간에 들어오는 길이 어디여? 회화리 들어오는 길이.

여기요.
그리 들어오는 길이면 한 여기쯤 있었겄네.

여기가 그 음료수 회사 있는 데, 거기인가요?
지금 그... 대리점이지, 음료수 대리점.

아 여기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응. 일본사람 방앗간이지... 저쪽 방아는 발동기로 해니까, 적봉리는. 그 계속 돌아갔지.

비행장 수용될 때까지 돌아갔겠네요?
그럼. 그건 정부미까지 찧던 방앗간이야.

그 방앗간은 누구 거였어요?
소유자는 유광열이라는 분이야. 유광열이라는 분인데, 그 뭐 얼굴만 얼핏 몇 번 봤지, 내가 어려서.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이 6.25 때, 그 저 뭐야, 북한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어. 6.25 때 바루.

이분은 적봉리 분인가요?
적봉리 본토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지.

그러면 인제 그 뒤에 이동방앗간이 있다가, 이동방아를 계속 찧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방앗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가 살으니까 인제 다시 돌렸지... 돌리다가 인제 결국은 그 저 회화리 보가 없어지니까, 수리조합물이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인제 보가 필요 없으니까, 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잖아. 재산을 가지구 인제 협동조합 방앗간을 만들었어. 이 저... 협동조합, 조합방앗간이 아니지. 그냥 회화리보, 봇방아지 인제 그러니까. 봇방아가 생겼어.

보조합 방앗간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 보에 속해 있던 그, 봇방아라고 그래. 그 방앗간이 생겼어. 그 발동기를 20마력짜리 사다가...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방앗간은요?

그건 개인이 허는 거구.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생긴 거네요?
경쟁이 생긴 거...

20마리 짜리 발동기요?
발동기 20마력짜리 사다놓구서는.

큰 거 썼네요?
대한민국에서 풍년호 발동기가 그때 처음 나온 거여... 저 디젤 발동긴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거여. 그게.

그 상표 이름이 풍요로예요?
풍년

풍년호 발동기?
발동기, 그 마크지. 그니까... 상표...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발동기야, 그게.

풍년호 발동기로 조합방앗간을 했고. 그러면 저기 모터 방앗간은 문 닫았겠네요?
조금 같이 허다가 결국은 다 문 닫었지. 둘 다.

몇 년이나 하다가 문 닫았어요?
어유 꽤 오래했지, 그게... 한 70년대까지두, 70년대까지 했지.

70년대까지 운영하면, 그 이후로는 인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인제 또 그 재벌가가 하나 또 나타나가지고. 저기 저 임동순이래는 사람이 방앗간을 다 샀어.

아 임동순이라는 사람이요?
응. 방앗간을 다 사가지구 뭐 폐쇄시키고, 지가 큰 방앗간을 내천리에다 맨들어 놨어... 내천2리. 2리에다가 큰 방앗간을 맨들어 놔.

그때 여기 방앗간도 넘긴 거예요?
그렇지. 그때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임동순이라는 인물이 내천2리에 방앗간을 만든 게 70년대?
그렇지.

그러면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말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일 거여... 우리 동네 정미소는... 그 뭐야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구, 그래도. 이윤이 많이 남었어. 옛날에는 고리채래는 게 있었어. 장례쌀. 장례쌀이내는 게 있었는데, 그 정미소에서 그 수입된 그 쌀, 이익이 나면 그 쌀이지 그러니까. 도정료지 그러니까. 도정료로 모은 게 한 300가마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구, 이렇게 그 장례쌀 먹는 사람들 대출을 해주고 그랬어.

회화리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마을도?

아니 회화리만... 한 300∽400가마 정도 가지고서는 이렇게 없는 영세민들 이렇게 대출을 해줘. 지금 은행에서 대출해듯이, 은행에서... 그런 식으루 했다고. 싸게.

이자가 좀 싸게요?

그렇지. 이자가 10%니깨 싸지.

이자를 10% 했어요? 그때요?

그럼.

1년 연리 10%요?

그때는 50%여. 쌀 한 가마 갖다 먹으면 다섯 말을 줘야 혀. 그때 뭐야 쌀 한 말 받고.

그러면 방아삯은 얼마씩 받았어요?

방아삯은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 나두 거기 그 종합장을 나두 했었는데, 그 정비소조합장을 나도 하긴 했었는데 잘 몰르겠네.

그 다음부터는 봇조합이 아니고 정미소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인제.

정미소조합장을 몇 살에 하셨어요?

그때 한 40 됐을걸.

40대 초반쯤이요?

그렇지. 40대 초반이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5년 했지. 많이 했지.

근데 인제 방앗간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은 전부 노놨어요.

방앗간 팔고 다. 집집마다?
예.

거기에는 옛날에 그 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만 가입돼 있는 거죠?
그렇지... 같은 마을 사람도 보에 있는 사람이 있구,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구.

돈을 그때 얼마씩 나눠줬나요?
글쎄 그때 아마... 그때 돈으로 120만 원 정돈가? 상당히 큰 돈이야.

몇 집이나 됐었어요?
그때두 한 90호 됐겄지.

그중에 인제 보조합, 그러니까 방아 조합원이 몇 집이나 됐어요?
그렇지. 그 조합원이니까, 동네에서 전부는 아니지.

그러면 그 조합원이 몇 집이나 됐어요?
그러게 한 100호 정도 됐을 거야.

그럼 그때 (마을 전체는) 100호가 훨씬 넘었겠네요?
아이 여기 그때는... 최고 많을 제는 130가구가 넘었대니까.

그러면 100호쯤 이렇게 이 돈을 나눈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아이 그때 큰 돈이여.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시범 마을이었어, 옛날에. 그래 그래구서 혁명이 나니까 이 협동조합이 생긴 거더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인가 협동조합법을 발표한 거 아녀. 그래가지고 농업협동조합으로 그냥 이름이 배낀 거여, 그냥.

그러면 여기에 이동협동조합은 없었어요?... 농협 생기기 전에?
있었지. 그 구판장이라고. 보에서 해는 게 다 있었지.

아 보에서 방앗간도 운영하고...?
그렇지. 구판장도 운영하고.

거기는 보에 가입된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권리는 그 사람만, 보에 있는 사람만 있는 거지.

구판장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구판장은 점원이 있지.

그러니까 아예 구판장 하는 자리가 있었네요?

아 그 구판장... 건물이 참 그 역사적인 건물이유. 왜 그러냐면은 이 수리조합이 날 적에, 아까 그 똘, 그 얘기했잖아. 금암리 앞에 그 똘, 넓고 크잖아... 그게 쭉 내려오면서 인제 마두리를 거쳐서 인제 회화리로 해서 이렇게, 이게 황구까지, 고덕까지 가는 거여, 이게.

그러니까 저기 수리조합 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수리조합 물이, 이게 와가지구 이 비행기 끄트머리. 거기 냇갈 있잖아. 냇갈 잠관으로 해서 해서 고덕까지 가는 물이여.

잠관, 이렇게 물에 관을 묻어가지고...?

관이 아니지 공구리로 저 뭐야... 네모지게, 이렇게 물을. 이 고덕까지 가는겨... 고덕까지 가는 물인데, 그 도랑, 그 시설을 맨들 적에 회화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구 "야 우리가 그..." 나보다 인제 한 15살 그렇게 더 먹은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10살 이상 15살 (더) 먹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회당이라는 게 생겼더라... 있어야겠더라. 모든 거를 할래면, 거기서 의논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구석에서 사랑방에 앉아서 이게 되겠느냐. 우리가 그 공사 구간을 좀 맡자.' 똘을, 물 내려가는 똘 그거 허는 데, 시설을 허는 데. 그래 그거를 한 구간을 맡아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 청년들이 나가서 지게질해서. 그거 다 지게질루 싼 거유, 그게. 수리조합 똘 그거. 옛날에 무슨 차로 실어다 부은 게 아냐. 다 지게로 져갖구... 크게 그냥 높은, 논보다 이렇게 높고 깊잖아.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고 이거 흙으로...?

다 흙으로 핸 거여, 그거.

아 흙으로 인제 양쪽에 둑 쌓고, 그 똘을 만든 거죠?

그럼. 똘 뚝 쌓는 걸 다 (지게로) 져다 핸 거야. 그거를 맡아가지고서는 해가지구 20평 건물을 지었어. 벽돌로 그 당시에.

그 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

글쎄 그건 잘 모르고. 어려서 그때. 하하하...

20평 건물을 졌어요?

응. 그래서 인제 그 젊은 층들만 해기가 뭐해니까, 그 인제 동네 이장이 "야 이거 청년들만 데리고 가냐? 동네 사람이 쓸 건데 다 나가자."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나가서 그걸 지게로 져다가 뚝을 맨들어 가지구, 그 돈을 받어서 그 구판장 건물을 20평을 지은 거여. 부로꾸 건물 기와 얹어서. 그리고 간판을 '회화리공회당' 이라구 그랬다구.

그거 혹시 남아있나요? 사진 같은 거?

아니, 그걸 인제 없애고, 이 새마을 이 건물, 저기 혁명이 나가지구 인제 뭐야 마을마다 다 주잖아. 인제 지원을 해주잖아. 그래니까 회화리라고 또 안 받을 수가 없지. 항상 서탄면에서 무슨 정부 지원 있으면, 이 사리, 사리, 회화리가 맨 먼저여. 뭐 시범부락, 모범부락이니까 회화리가. 그래서 그때 인제 헐구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은 거지, 옛날에. 그래 그 건물을 그냥 뒀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때 “이 건물을 그냥 두자.” 아 그랬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따 질 터도 없는데 그걸, 회관을 왜 두 개씩 힘들게 관리를 허느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 자리인가요?

아니여. 거기 지금 저, 고 앞에. 지금 뭐야 새로 지은 건물, 새로 지은 거여. 그 공회당을 허물구 그 지은 건물이 지금도 남어 있어. 정부 지원이루.

아 정부 지원으로 그때 새마을운동 때 지은 건물이요?

그렇지. 정부 지원이루.

그게 지금 마을회관...?

아녀. 지금 마을회관은 여기 새루 졌지.

그건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회관 바로 앞이여, 앞.

아 마을회관 앞에요?

어, 마을회관, 지금 현재 마을회관 고 앞에 있어.

그 부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회당 지을 때...?

아 부지는, 처음에는 그... 독지가가 그걸 무상으로 줬는데, 나중에는 또 그 세를 받드라고.

아 인제 마을 분이 무상으로?

응. 마을 분이 제공을 해줘는데, 그걸 나중에는 뭐이 또 틀렸든지, 얼마씩 또 그 토지세를 내라고 그래서 얼마씩 내고 그랬다구. 몇 푼 안 되지만.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새마을운동 때 지은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마을 회관은 마을 소유가 아니네요?

아녀.

지금 마을회관 자리는 어떻게...?

아 현재 마을회관 자리는, 이것두 저기여. 거기 이 차상훈씨라구 허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그 터를 희사를 했어... 처음에 여기가 인제, 이 저 뭐야. 냇갈을 자꾸 파서 모래 파가니까 회화리 수질이 나빠지는 거야. 펌프 물을 먹었는데, 옛날에. 그 모래가 있어야 그게 스스로 자정을 해서 이 물이 좋은 물을 먹는데, 자꾸 저 위에 공장은 생기지. 그러니까 상수도를 허라고 그러더라고. 저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해준다구. 그래서 인제 상수도를 거다가 할래도 터가 있어? 그래 그 양반 보고 가서 그런 얘기를 허니까, 그 양반은 인제 이사를 갔어. 안양이루. 이사를 가셨는데, 그 터 좀, 사용료를 낼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걸, 동네 사람 물 먹는 거를 내가 무슨 세를 받느냐고, 아이 물은 생명수래는데 어떻게 좋은 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선 인제 지하로, 그전엔 여기 8메단가 그게, 파이프 하나 그것만 막으면 물 먹었어, 그냥. 20자만 박으면... 20자만 박어도 그냥 물을 먹었는데, 물 맛이, 물이 틀렸으니까, 암반을 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니까 그 인제 그 암반을 뚫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차상훈 씨가 제공해 준 그 자리...?

응. 터에다가. 200메단가 몇 메다를 뚫고 들어갔어. 뚫고 들어가서, 인제 그걸 해서 물을 먹었는데. 아 나중에 또 회관을... 또 지원해 준다구 그랴. 아 회관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어따가 동네 뭐, 어떻게 질 데가 있어야지.

땅이 없어가지고요?

터가 없어가지구. 그게 인제 138평인데, 그 인제 또 갔지, 어떡햐.

차상훈씨한테...?

응. 차상훈씨, 그 안양. "우짠일들이여?" 그래. 그래 "아 거다 회관을 지어야겄는데. 아 정부 지원이 있는데, 터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우리 동네 터라는 건 저기 공동답이 있어. 옛날에 우리 동네... 1,600평짜리가. 그 저만치 있는데, 거기밖이 없는데...

공동답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 교회 있는데. 아 그래, 그 거기다 지어서 뭘 해. 그래 여기다 지을 테니까, 사실 저희가 동네 형편상 살 수는 없구. 그냥 사용료를 내게끔 허게 하자구. 그랬더니 "그것 참 그..." 그러시더라구. 그러더니 그 며느리 보구 그 무슨 저 궤짝인지 뭔지, 뭘 다락에 가서 내려오라구 그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상자를 이렇게 내오는데, 옛날에 큰 부잣집이여, 그 집이가.

어르신 같은 집안 아니세요?

집안이지. 그래 "야! 내가 그걸 야박하게 어떻게 그걸 세를 받느냐."고, "내가 거기 그냥 동네다 줄 테니까, 거기다 회관을 짓는데..." , 근데 거기 조그만 집이 있었어. 아주 가난한 집이. 노인네가 살았는데, "그 양반 어떻게 해냐?" "꼭 회관 질라면은 그 노인 보고 어디로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노인, 그 늙은이를 어디로 나가라고 그래야 허니, 그 어떻게 헐 거냐? 그게 걱정이다." 그래. 그래서 "그럼 우리 회관 질 적에 옆에다가 조그맣게 방 하나, 노인 양반한테 살게끔 부엌하고 방 하나하고 옆에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면은 너희 마음대로 써.” 그래서 그냥, 토지문서, 저거 가지고 인감증명. 그때는 위탁 인감증명 이게 쉽게 냈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 며느리가 가가지구 어떻게 저 위탁해가지고서는...

소유권 바로 넘겨줬어요?

인감증명, 도장하고 그냥 주더라구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등기, 소유권 동네로 돌려놓구, 마음대로 써.” 그래가지고 이 현재 회화리회관이 있는 거여.

대단하시네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고 그때가 저거... 그때가, 그게 70... 70년대 중반?

아니 새마을운동 때 회관을 졌는데...?

그 지었는데, 또 지원을 해줘가지구.

그러니까 바로 새마을운동으로 지원을 또 해준 거예요?

응.

그러면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아니었...?

그때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인지 전두환 대통령인지 몰러 좌우지간.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마을회관을 한 20년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겠네요. 그럼?

그건 운젠지 잘 몰라. 그거는 나도. 그런데 그걸 지었어... 그래서 인제 밑창에 20평, 우에 10평, 30평을 지었는데.... 인제 2층에다는 인제 도서관을 맨들었어. 2층에다 도서관을 맨들어가지구 책두 많이 기증을 받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인제 편지를 해가지구 책두 많이 했는데.근데 그게 어떻게 그냥...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이장을 한번 보게 되더라고. 그래 그때 그냥, 관리를 안 허니까 뭐 책두 개판이구, 정리두 안 하구 그냥 그래. 그래 없어졌어...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바로 또 인제, 뭐야 지금 현재 있는 회관, 정부에서 지원을 또. 그 이거를 인제 이 비행기 소음 피해로, 지금 지은 건물은 비행기 소음 피해로 지원해 주는 건데, 회화리가 제일 비행기 소음 피해가 많으니까 회화리가 제일 우선권이지 뭐여. 근데 또 4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예. 군에서 4억이요?

그래가지구 그냥, 그 건물이 쓸만한 건물인데 그냥 헐구서는 그냥. 다 헐어치고서는... 그래 지금은 잘 지어놨지.

지금 몇 평이에요?

지금 저게 30평. 지금도... 1·2층 해서 한 30평... 아 1·2층 해서 한 40평 되나보다... 그려, 1·2층 40평, 연건평 40평인데 잘 지었지.

그 4억 가지고 진 거예요?

응.

부지는 몇 평이나 돼요?

138평.

그러니까 그 자리, 138평 그 자리에 관정도 뚫었었고?

그렇지. 거기다... 물탱크도 했었고. 그 인제 팔당댐 들어오니까 그것도 다 헐구... 그 인제 물탱크도 헐구, 다 헐구서 인제 회관, 잘 지었지 누가 봐두.

광역 상수도, 팔당댐 물은 언제 들어왔어요?

그 운젠지 잘, 내가 기억 못해요.

그 자리에 옛날에 구판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회당 자리, 옛날에.

옛날 공회당 자리? 그거는 구판소, 옛날 거기 있었지.

이동조합 할 때...

이동조합 할 때니까 거기 있었지.

구판장이요?

응. 그게 그냥 협동조합으로 돼버렸지. 인제.

구판장에는 뭐 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 잡화지 뭐 그냥... 먹는 거 뭐, 주로 먹는 거지... 가정 생활 필수품은 다 팔은기여, 거기서.

그거 구판장을 그럼 그 공회당 헐 때까지 운영했었어요?... 협동조합 생길 때까지?

협동조합이 생기구두, 농협협동조합이 생기구두 계속 헌 거여.

그럼 언제 왜 없어졌어요?

그게 인제 왜 없어졌느냐. 인제 교통편이래는 게 생겨. 버스가. 옛날에는 사람이 이동을 못허니까 뭘 살래면 걸어가는 거여.

어디로 걸어다녔어요? 살 때?

그 공판장에루 가 사야 하는 기여. 근데 지금은 인제, 그러다가 교통편이, 버스가 들어오구 그러니까, 송탄 자주 나가니까. 나가면 싸거든 아무렇게도 여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여, 인제.

그럼 버스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인제 버스 자주로 들어오니까. 인제 그때부터 없어진 거여.

버스는 언제 처음 들어왔어요?

글쎄, 그거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

어르신 연세로 따지면 몇 살 때쯤?

내가 한 50살 먹어서 들어왔을걸. 여기 버스... 가만있어봐 맞어! 우리 애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 다녔어. 어 그러니까... 60... 70년도 직전에 없어졌나봬 이게. 버스가 그때 들어왔나 봐.

아 60년대 말쯤에요?

60년대 중반에 들어왔나 봐. 아니, 60년대 말쯤에 들어왔나 봐... 그려... 그러고 인제,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그려. 자꾸 인제 약어지니까, 인제 술도 덜 먹구. 그러니까 가게가 안 되더라고. 또 개인 가게가 생기니까.

마을에 개인 가게가 인제 생기게 된 거예요?

개인 가게가 인제 생기니까, 개인 가게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지. 그럼. 인제 개인 가게가 생겼어. 참 맞어!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지금.

버스 들어오면서 생겼나요?

그렇지. 그것두. 인제 그... 개인이 가게를 하나 내고선 허니까 인제 경쟁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게는 어디에 생겼었어요?

가게는 지금 없어졌어. 지금 그 터도 없어지구, 다 없어졌어.

자리는 어디쯤 돼요?

자리는 그 저 회화리 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예. (지도를 보며) 가운데 여기요.

거긴데, 그 도로가 나가는 바람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정자나무 있던 자리인가요?
그 자리는, 정자나무는 그거 아니지. 냇갈, 냇갈 바닥이지. 그 저기 그 전나무가 있던 자리는.

그럼 여기(지도) 보시면 전나무는, 여기에 전나무가 있었어요? 여기가 마을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이게 지금 도로 아녀. 그래 이만치, 이만치 있었대는 거여. 냇갈 바닥에. 지금 냇갈 바닥에.

정자나무가 여기 있던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아카시나무 그 정자가 있었지.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고, 전나무는?
그럼 전나무는 이만치 이게, 냇갈에 떨어져... 나도 못 봤어요. 그거... 지금 냇갈 바닥이여. 거기가 지금 저 도면에 보면 옛날 밭이야. 도면상에.

그러면 물 있는 데가?
그렇지. 폐천 된 거지.

(개인 가게는) 도로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 도로는 몇 년이나 됐어요?
도로 난 지가 한 10년 됐나 모르겠네. 10년 좀 넘었을 거여.

저 적봉리 다리 만들어지면서 도로 난 거죠? 그전에도 도로가 났었나요?
그때는 그냥 제방길이지. 그렇지, 그게 그거 나면서 인제...

2차선 된 거죠? 차 다닐 수 있게?
응.

옛날에는 그냥 제방 길 이렇게 좁게 있었고?
예.

마을의 이동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방앗간하고...
구판장

2개 했었어요?
예.

나중에 인제 (농업)협동조합으로...?

그렇지. 협동조합이 된 거지. 협동조합도 옛날에는 마을, 리동조합이야. 그게 인제 그냥 유명무실허거든. 유명무실허니까 면 단위루 합병을 헌 거야. 면 단위로 합병을 했는데, 면 단위두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

출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인제 하나, 또 묶은 거야. 합병 한 거야. 그 합병이라는 게 이 송탄농협이 고덕, 송탄, 지위, 서탄이 합친 게 송탄농업협동조합, 지금은 서탄 저 지점이지. 옛날엔 저기 서탄 요거 지점, 요거만 했어. 그래 요것만 해니까 거기 무슨 수익이 나가지고, 직원 봉급도 못 주지. 그러니까 이거 합병시킨 거여. 정부가 전부.

그러면 이동조합에서 협동조합으로 갈 때는 이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돈을 출자했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출자를 했나요?

아 여기서는 우리 이동조합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했어. 면 단위. 그리고 개인, 그때는 뭐야 저 출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강제지 뭐 그냥. 이 저 벼 수매해러 가잖아? 그러면 그냥 강제로 몇 가마씩 제끼는 거여, 그냥.

한 해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여러 해를 그렇게 했어요?

아이 여러 해 했지... 그래두, 아이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그래두 그때는 그 조합장이 뭐 막 말 해가면서 말야, “좀 해야지. 좀 할만한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누가 해느냐!”고, “세 가마 끊어! 세 가마 짤러!” 아이 막 조합장들이, 하하하...

그래서 조금 뺏기는 기분이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아 그럼. 그래두 뭐야 그냥 그, 조합장이 그냥 그런 식으루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조합이라는 게 살아 있는 거여. 그렇게 해서 이 뭐야 농협이 농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참 지대하다고 보는 게, 그때는 그 저 고리채래는 게 있어가지구, 장리쌀이라는 거, 그게 농협 때문에 없어진 거여.

장리쌀 이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쌀 한 몇 가마 장리쌀 먹으면은 그 이자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워낙 못 사는 거지 뭐. 농사지어서 또 장례쌀 먹구. 또 농사 지어서 또 장례쌀 또 갖다 먹구, 농사짓구.

마을에도 장례쌀 먹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 그때 그게 농협 때문에 없어진 거여.

여기 옛날에 지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주라는 건 옛날 저 왜정 때 있었었지. 8.15 해방되고는 지주래는 게 없었지.

그때 여기 일본 사람 땅도 많았었다고 그러던데요?

거의가 다 일본 사람 땅이지 뭐. 여기는 전부 용주사 땅이야. 거의가. 용주사 땅이고 서탄면이. 서탄면 땅이 거의 용주사 땅 아니면 일본놈 땅이야 옛날에.

그럼 마을 분들은 소작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지. 인제 소작헌 거지. 용주사 땅 소작허는 거지.

용주사 땅 소작할 때 여기 스님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절이 있어서. 여기, 집 뒤에 여기가... 우리 집 뒤에 그 농지 관리하는 말사가 하나 있었다고.

아 용주사 말사가 있었어요?

그래. 토지 관리하는.

스님 한 분 나와 있었겠네요?

그럼 스님이 관리허는 거지.

동네 사람하고 절하고의 관계는 어땠어요?

그건 몰르지. 그때는 나는 나는 낳지도 않았으니까.

여기 토지 분배됐잖아요. 그때 인제 마을 사람들이 다 갖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인제 다 분배를 해준 거지. 이 저 용주사 땅두 전부 몰수해구, 뭐야 일본놈 땅두 몰수헐 걸 몰수해가지구. 그래가지고선 인제 분배해 준 거지. 그래 여기가... 저기 뭐야 마두리 저기 마두2리 정착촌사업소, 인제 사업소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농지 분배허구두 정리 안 된 땅이 뭐 20만 평인가? 뭐 몇 만 평이 있었는데...

그게 저기 마두2리 쪽으로요?

아니. 이 서탄면 전체 관할.

이쪽 들판에? 해정들 뭐 이쪽 해가지고요?

내천리까지, 다.

여기가 400정보라고 그랬죠?

그렇지. 여가 400, 여가 300, 700정보지.

회화리 들이...?

금암리하고 300... 마두리, 내천리가 400... 700정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20만 평인가 얼마 남은 거 있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 피난민을 어떻게 해나 이거, 멕여 살릴 건 없구 그러니까, '그거 죄 짤러 줘라.' 100가구 갖다 놓구, 그거 죄 노나 줘. 그러니깨 이 사람들

은, 피난민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은지 알고 왔다 이거야. 왔는데, 아 이거 몇 평 돌아오지도 않는 거여. 정리가 안 돼서 대장이 없으니 말이야. 그래가지구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여. 그걸 짤러주면은 이 사람들이 한 집이다 뭐, 100호에 20만 평 주면은 몇 평 돌아가. 그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살지... 그리구 그게 좋은 땅이래야지. 그저 물도 안 넘어가는 땅 그냥. 뭐 밭두 아니구 논두 아니구 이런 땅을. 그러니까...

여기 땅은... 농지 정리되기 전에 주로 논이었나요? 아니면 논밭이 많이 섞여 있었나요?

여기 밭이, 논이 많았지 그래도... 밭도 많고.

근데 여기 모래가 많다면서요?

모래가 많지.

그러면 금방 (물이)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아이 그렇지는 않아, 그 정도는 아녀... 그래도 저 뭐야, 이 들에도 가보면 어떤 데는 이 요만큼만 파도 모래 나오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도...

‘요만큼’ 이라는 거는 한 50센티 파면 그 밑에 모래...?

모래가 데가 있어 더러. 그런데, 그 인제 그거 보고 백변지 백였다고 그러지.

백변지 백였다고요?

말, 그 글자 자체가 한자루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는데, 그냥 백변이라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어른들도 백변지대니까, 나도 백변지라고 그러는 거여... 근데 그래두 여기 땅이 거의가 한 길 이상 다 흙이야... 한 길 이상 다 흙이야. 한 뭐, 그리구 인제 그 속에 들어가면 인제 회화리는 모래가 많지 여기두.

아 흙이고 인제 그 밑에는 모래고요?

그러니깨 물 스며들지 않아 쉽게. 근데 백변 백인 땅은 (물을) 대면 그 이튿날 물 없어.

아 물 대면 그다음 날...?

모래가 있어가지구 그러잖아.

논으로 쓰기는 어려웠겠네요?

그렇지.

여기는 가뭄은 많이 안 탔어요.

가뭄 타지. 근데 뭐, 그래두 보가 있고, 수리조합 물 이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리 조합물 내려오기 전에요?

아 전에는 인제 가무는 경우가 많았죠.

모 못 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두 모 못 심는 거는 못 봤어. 다 심었어 그래두... 내가 어려서두.

엄청 가물면, 그 물을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 모다로 퍼 넣는 거여. 냇갈 물도 주로 없어.

그럼 인제 웅덩이 파가지고 고인 물 퍼 올리나요?
아이 냇갈 물은 쫄쫄쫄 흘러. 그러면은 이 모래를 가래로 똘을 치는 거지. 깊어지라고 이! 깊어지면 물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 소에다 이렇게 '나래' 라구 이 저 멍에 해가지구선 이렇게 불도저마냥...

아 모래를 퍼 올려서?
여울친다고 그러지. 그래 저 여울 파가지구 물을 퍼 넣는 거여 그냥. 모다로 그냥.

그러니까 모를 못 심을 정도로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겠네요?
그 못 봤어요 나는.

그러면 여기 농사가 좀 잘 되는 편이었겠네요?
그렇죠. 곡창지대라고 봐야지 여가 그럼.

여기는 한 마지기가 몇 평이에요?
200평.

한 마지기에 얼마나 나왔었어요? 어르신 어렸을 때?
뭐 수확량이? 내가 저기 핼 제는 진짜 가물었다, 가물었다면 이게 모래땅 같은, 이 좋지 않은 논은 그 쌀 한 가마 나는 논두 있었구. 보통 100평에 쌀 한 가마를 봤어.

가물었을 때는 200평에 쌀 한 가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래도 200평에 한 가마는 먹었다고 봐야지.

100평에 한 가마. 그러니까 200평에 2가마. 그러니까 양석은 보통...?
그렇지. 양석 먹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 지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렇해도 여기.

이 벌판에서 제일 비옥한 땅 그러면 어디예요? 금암리 앞쪽 회화리 사이에서 가장 비옥한 데?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돼.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돼.

아 이쪽 들판이요?
어. 비슷하다고 봐야지 뭐.

저 앞에 비행장 들어선 자리 있잖아요? 적봉리. 그쪽 땅은 굉장히 기름졌다고 그러던데요?
아이 거기는 뭐, 거기는 아주 뭐, 가물고 뭐 그런 걸 모르는 땅이야, 거기는... 거기 참 좋은 땅이유.

수확량도 많았고요?
그럼. 수확도 많지. 전천후 농사니까 거기는. 뭐 가물다구 해서 수확이 덜 나오는 데가 드물지. 거기는 전천후 농사.

전천후 농사라는 거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을 안 하는데. 비행기장 땅이.

어르신네는 비행기장 쪽에는 땅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쪼금. 여기 사람들이, 회화리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 비행기장 땅을. 회화리 사람들이. 근데 그 뭐 허겄어. 비행장으로 그냥 다 들어갔으니까.

보상 같은 건...?
아 보상, 그냥 내빌었어. 그냥 내빌었다가 한 10년... 15년 후에 무슨 저 뭐 채권이라고 그러나 뭐라나 그걸, 채권이라나 뭘... 해줬어. 근데 그게 뭐 운제 뭐 보상해 준대는 조건두 아니구. 그냥 너희는 몇 평 여기 점유됐다고 그런 것만 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채권 장사가, 그것도 사러 댕기는 사람이 있어 그걸.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사간 거여 그냥... 하하하...

어르신네는 거기 몇 평 정도 있었어요? 몇 마지기나 있었어요?
우리도 한 10마지기 정도 한 2천 평 있었어.

아 10마지기 정도. 나중에 채권 받을 때는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깨 무슨, 거기 무슨 금액 같은 건 있었겄지. 근데 뭘 준다는 기약도 없는 걸 뭘.

그래서 파셨요?
그러니깨 채권 팔은 거여. 채권 장사한테.

얼마에 파셨어요?
글쎄 난 몰르지. 하하하... 이 동네 사람이 다 그렇게 팔아먹었어.

그냥 굉장히 싼 값으로 팔았겠네요?
  아 그럼 헐값이지 그게.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시고요?
  그렇지. 그거 뭐 얼마나 됐겠어.

좋은 땅을 많이 뺏겼네요. 마을 사람들이...?
  아 그럼. 그땐 뭐 그야말로 그냥 불도저 대고 막, 집도 막 밀었는데 뭐, 그냥 대고...

그때 그 신야리나 야리가, 동네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야리, 신야리 없어진 거지.

근데 이쪽에, 비행장 저 구장터 쪽으로 몇 가구 있었잖아요? 적봉리.
  그렇지. 거기.

거기 있었던 집이 한 6가구가 있었잖아요?
  어디?

이쪽에 비행장 동쪽으로요.
  비행장 동쪽, 저 활주로 끄트머리?

예. 활주로 끄트머리 쪽에, 이쪽에 몇 가구 있다가...
  아 거기 있었지. 집.

황구지 쪽 수용될 때 같이 쫓겨났다고 그러던데...
  응. 수용된 거지.

근데 거기 산 사람들은 원래 거기를 수용을 안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쪽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아니. 거기는 수용을 당한 게 아니야.

수용당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녀 거기, 원래, 그 저기, 그렇지 신야리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글루.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살았는데 수용을 안 당한 게 아니고, 신야리 사람들이 수용당하면서 이사한 거예요?
  그렇지. 글로 왔지. 글로 왔다가 또 인제 그 수용돼가지고, 수용하는 바람에 현재 적봉리래는 마을이 생긴 거여 여기. 그때 생긴 거여 여기 적봉리 마을.

이쪽 길 건너 적봉리요?
응.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야리하고 야리가 수용됐을 때 처음에, 그 자리가 남아서 그 집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다.
아냐. 그 거기 저기 그 사람들이 글로 왔어... 철조망이 나니까, 철조망이 끊어지니까 그 나머지 땅이 있으니까.

새로 집 짓고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 그래 거기서 살다가 인제 뭐야 또 인제 2차 점유되니까, 현재 적봉리가 온 거지. 다 거길로 또.

옛날에는 퇴비 같은 거는, 거름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거름이 옛날에 뭐 퇴비지 뭐... 가축이지 뭐. 축분... 저기 저 소 멕이면은 저 소가 밟은 거.

소 거름나 돼지우리 치운 거요?
돼지, 돼지두 키웠지. 돼지 키운 사람 키우구.

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지 않았잖아요?
소는 집집마다 다 있어야지. 농사 지으면은

그때는, 어르신 어렸을 때도 소는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럼요.

어떤 동네 가면 소가 귀해가지고 몇 집만 소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근데 여기는 그래두 농사가, 그래도 꽤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집은 소가 다 있지. 아 저기 산비탈 같은 데, 그거 논 몇 마지기 있는 사람이 소 어떻게 멕여. 소 못 멕이지.

그때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죠?
그 재산이죠.

그래서 다른 데는 소를 빌려다가 농사짓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가 큰 재산이지 반 재산이라고 봐야 돼. 그 당시에 소는.

그러면 소 빌려서 농사짓고 이런 집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소 하루 정도 빌리면...

도지소라고 저기 이 품 파는 소. 그것두 있지. 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혀? 소 있는 사람한테 일 해달라고 부탁해면은, 가서 인제 그 소 하루 갖다 쓰면은, 옛날에 우리 여기서 보면은 하루 일 해줘야 돼. 가서. 사람이

도지소는 뭐예요?

도지소라는 거는 인제 어떤 돈 있는 사람이래든가, 이 정부에 인제 그... 이 평택 군이다 그러면 이 서탄면이잖아. 그러면 이 종모 소라는 게 있어. 종모. 인제 그 소 임신시키려면 수소가 있어야잖아. 그거를 서탄면에도 한 세 마리 정도 있어. 그게 정부 소여. 그거는. 인제 그거 저... 그거 인제 길르는 사람이 인제 일만 시키는 소 길르는 거지. 그리고 인제 그 종모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소로 인제 임신시켜주고, 암소 임신시켜주고...?

인제 그 사람은 일만 시켜먹는 거지. 소를... 소 살 돈은 없고, 소 살 돈은 없으니까. 서탄면에도 몇 마리 정도 있었어. 옛날에.

여기 일손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들판은 넓고...

그렇지.

그럼 인제 서로 품앗이로 옛날에 일...

품앗이도 허구. 또 저기 저 평택역이 인력사무소여. 옛날엔. 그 저 호남 사람들, 저기 저 영남 사람들이 인제 일하러 와.

봄에, 모내기 때 주로 오나요?

가을이고 저기고, 인제 일해러 오지. 그러면 저기 평택역에서 다 내리면은 여기두 평택역에 가서 데리고 와야 해, 사람을.

그 사람들이 인제 하루 품 이렇게...?

와서 인제, 인제 일 많은 집은 오래 허는 거고. 또 인제 모만 내고 인제 보내는 사람도 있구.

그럼 주로 그 사람들을 쓸 때는 모내기 할 때 하고 추수할 때인가요?

그렇지.

논매기 할 때는 안 썼어요?

논매기 할 때도 있지.

머슴도 왔을 거 아니에요?

머슴도 있지.

머슴은 몇 월 달에 와요?
머슴은 저기여. 논 갈기 전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뭐 3월...?
그렇지. 3월 달이면.

음력 3월에 오나요?
음력 3월은 늦죠. 양력 3월이면 들어와야 혀.

양력 3월이요?
그럼. 그러면 인제 가을, 11월 달쯤 되면은. 가을 일은, 인저 초가집이니까 지붕 끝나야 일 끝나는 거니깨.

지붕 이엉 엮어서...?
그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종잡을 수 없지 뭐. 일찍 나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붕을 해야 허니까.

머슴 세경은 얼마나 했어요?
머슴 세경은 일곱 가마. 쌀 일곱 가마.

언제쯤인가요? 이때가?... 그러니까 인제 머슴 세경도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달라졌지. 우리 젊어서는 다섯 가마. 자꾸 올라가더라구. 나중에 여덟 가마까지 가더라고.

나중에 인제 머슴이 없어질 무렵...
그렇지. 인제 비싸니까 없어지는 겨. 그것도.

10가마까지 가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여기서는 열 가마까지는 안 갔어. 여덟 까지는...

이 머슴은 주로 어디 쪽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근데 그 뭐...

대중없어요?
대중없어요. 여기 사람들도 머슴 사는 사람 많어... 또 저 와서, 뭐 호남이나 영남에서 와서두 살다가 가는 사람두 있구 그런데...

옛날에는 인제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죠?
아 그럼. 힘들고말고. 아이고 먹는 것두 부실했구... 먹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지치지.

그래도 회화리는 벌판이 많아서, 벌판이 넓어서 먹는 거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하하 인제 그 얘기 허면 웃기는 얘기인데, 회화리 사람은, 먹자주의자 회화리 사람... 왜냐면 저 내천리 사람은 가르키자주의... 가르키자. 공부를 시킨다. 마두리 사람들은 모으자주의... 회화리 사람들은 먹자주의라고 그러는데, 회화리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영남이나 호남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은 값이면 회화리로 온대는 겨. 먹는 게 낫대는 거야. 회화리가.

아 인제 먹는 걸 잘해 먹으니까요?

응.

내천리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았나 봐요.

교육열이 높지. 왜냐면 거기에 검사, 그 저 사법고시 핸 사람이 하나 있잖아. 거기. 그 양반, 내천리에. 사법고시 핸 양반이 60년 그때, 그 양반이 나보다 10살 더 잡숬나 그런데...

아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르키잖아.

그래서 인제 그분이 사법고시 되고 검사 되면서 인제 동네 사람들 이 학구열이 높아진 거예요?

인저 교육열이 높어지는 거지. 아무렇해도.

그래서 인제 거기는 가르키자주의?

응. 그래.

그다음에 마두리는...

모으자주의, 인제. 재산, 재산을 모으자.

그 사업소 분들이 많이 독하게 모았나 봐요.

아 그 마두리 보통 1리. 1리 사람 보고 하는 얘기여. 마두리 사람.

그분들이 이렇게 저축 많이...?

구두쇠... 그러니깨 그 사람들이 그게... 그런 내력이 있어가지구, 친구하구 술 먹어두 돈 낼 때는 그냥 도망가구....

재밌는 말씀이세요. 금암리는 어때요?

거기를 그런 호는, 별호는 없어, 거기는... 근데, 회화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비행기장에다 도지를 많이 (소용) 당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별안간에 재산이 줄으니까, 이게 먹는 게 자꾸 술...

화가 나니까?

응. 그 홧술... 돈은 더 써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자라고. 땅은 저렇게 잽혀가지고선, 저거 허니까 홧술을 인제 이렇게 많이 먹고, 어떤 분은 정신 이상까지 된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쪽에 토지가 많았던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많던 사람이여 그냥. 다 없어지니까 그냥. 거 전 재산의 한 70~80%가 그냥 없어지니까.

그것도 좋은 논인데...?

그거 좋은 논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홧술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술 먹는 저기가 많이 생기지. 홧술이.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냥 먹구. 술 먹구, 술 먹구. 술이 술을 먹구 인제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먹구 보자라고.

술 먹으러 가면 인제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술 먹으러 가면 어디로 가세

아 그전에는 그 대포집이래는 게 이 마을에도 있었어. 술 먹는 건. 술집이.

그 구판장 말고요?

아 그전에 그, 옛날에 우리 구판장도, 거기도 술을, 막걸리가 있구, 소주가 있구. 다 있었잖아.

마을의 대포집은 또 따로 있고요?

응?

그 구판장에서도 막걸리, 소주를 팔고?

그럼.

근데 구판장에서는 이렇게 거기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거기서 한 잔 먹을 수 있었지.

또 대포집이 따로 있고요?

응. 인제 저기 저 그 술집이 또 하나 더 있어구. 술 파는 집이가.

대포집은 어디 있었어요?

그래 술 먹는 집이 저 그 제방 둑 있는데. 아까 가게 있는데, 개인 가게 있는데 그 집이여.

아 개인 가게요. 그 가게가 아까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언제 생겼냐고? 글쎄 그건 언제 생긴 건 잘 몰르겠는데, 좌우지간 뭐... 우리가 한 70년대 초에 생겼다고 봐야지. 그것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할 무렵에요?

그럼. 새마을운동 할 때지. 그래서, 회화리 그래서, 그까짓거 재산이 뭐 가지고 있으면 뭘 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봐, 그냥 없어지는 걸. 내가 관리핸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것두 아니구. 그러니까 자꾸 인제 술을 먹게 되구, 그려.

이 마을에 농사가 많아서 두레도 컸을 것 같은데...?

두레 크지.

두레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두레 인원 구성이?

두레라는 건, 이 뭐야 회화리 두레라는 거는 그 명단, 숫자가 정해져 있질 않아. 이 근방에 두레라는 건 그래. 이 숫자가 정해지질 않는데, 아 그 인제 정월 달, 정월에 인제 그 대부분 인제 그 뭐 고사반 헌다, 고사반이라고 그래.

고사반이요?

응. 고사반이라고 인제 그... 그 저 상쇠, 상쇠가 인제 고사반을 허는데, 지금은 인제 나도 그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몰러. 못 알아들어... 복 빌어주는 거지. 집집마다 댕기면서 죽∞. 그러면 이 쌀 한 말두 내구, 쌀 한 말 내구 거기다가 돈 또, 잘 사는 사람은 돈 만원도 내겠지만은 보통 한 2∞3천 원씩 내구 인제, 그러면 인제 그 상쇠가 인제 복 빌어 주구, 이 우물고사, 그 우물에 고사 지내주고. 이 성주, 그 인제 그때는, 옛날에는 분합이래는 게 없었잖어.

예?

분합.

분합?

분합문이 없었잖어. 그냥 들어가면 마루지... 이렇게 들어가면 마루가, 대청이 보이는 거지. 그래 성주신이라고 그러잖어?

예. 성주신은 여기 마루 위에다가...?

마루 위 대들보. 거기다 인제 성주대 매달어놨으니까 거기다 인제, 성주신한테 인제 이 집 지켜달라고. 이 집의 제일 큰 신은, 어떤 집이든지 제일 큰 신은 성주신이여. 고 다음에 인제 장독대 터주신이 두 번째고.

그래서 인제 마루 위에 성주한테 먼저 빌고, 그 다음에 장독대에...?

장독대에 가서 터주신한테 또 빌구. 인제 고 다음에 또 부엌, 조왕신한테, 조왕신한테 또. 다 그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 돌고 뚜들기고 놀고 그러면 술 내가고...

그러면 성주, 터주, 그다음에 조왕, 부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우물로 가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인제 그 나머지는 인제 우물 고사도 허고.

나머지는 인제 우물 가고, 뒤란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구 뒤란두 댕기면서 다 쇠 올리구 그냥. 그 ‘쇠 올린다.’ 고 그러지, 꽹과리 치는 거. 쇠 올려서.

그걸 ‘쇠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인제 빌고 그러면 인제 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부엌에서는 안주인들이 술상 준비허구, 그거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지 뭐 그냥. 마당에 그냥.

그럼 고사반은 어디다 놔요?
아 그 마루 위지. 성주신 밑창에 있지.

그러니까 인제 성주신한테 빌기 전에 고사반부터 놓나요?
그래. 성주신한테 먼저 빌어야 주신한테 먼저 빌어야 되니까 허는 거여.

예. 그러니까 고사 반을 놓고 비는 거예요?
그렇지. 그 쌀. 모말에다가 쌀 한 말, 고봉. 고봉 한 말에다가 돈 3천원이면 3천원 올려놓구.

놓고 인제 그 고사반 앞에서 성주신한테 빌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장독대 터주신한테 가고 그리고 조왕신...
조왕신, 부엌에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인제 우물 뭐 외양간 할 거 없이 다 댕기구, 다 하지 뭐.

집안 구석구석...
그럼.

이런 지신밟기를 언제까지 했어요?
여기 허면 한 닷새 정도는 걸리나 봐.

정월 대보름 때 하나요?
전에 해여.

정월 대보름 전에요?
정월 대보름 전에.

그러면 뭐 설 지내고 한 2~3일 후에?
설 지내고 인제 한 일주일 이상 지난 다음에... 한 열흘깨쯤해서 인저.

아 열흘깨쯤 해서?
인저 보름깨쯤 끝나지.

그러니까 한 4~5일 걸리는 거네요?
그렇지. 한 5일, 한 5일 걸릴 거여. 여기 할래면은.

집집마다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집도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다 해지.

못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못하는 집도 있구.

교회 다니는 집인가요?
인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집은 그거 안 해, 그때는 교회두 많이 안 다녔지. 옛날엔. 지금은 다 교회 다니지만은. 그래, 그럼 인제 그게 안 핼래야 안 핼 수 없는 거야. 그게 동네 인제 재산 되는 거거든. 그게.

고사반으로 올린 쌀이?
그럼. 동네 기금이야. 그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거나 말거나 이 고사반은 안 해두, 이 꽹과리는 다 치지.

아 마을 기금으로...
마을 기금으로 쓰는 거여 그게.

이 동네가 커서 그러면 기금도 많이 모이겠어요?
그럼요.

이거를 언제까지 했어요?
그게, 그 고사반 핸지가, 내가 한 40살까지는 한 거 같애여.

40세요?
응. 40살 때까지는 한 거 같애여.

그럼 오래됐네요? 한 40년 넘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전에 끝났네요?
그렇지. 그 정도 됐다고 봐야지.

70년대 말?
참 동네가 잔치 분위기지 뭐. 매일 그냥... 뭐 흥겹게 뭐 춤추는 사람 춤두 추구.

아 매일 술도 그렇게 드시고...
응.

어르신도 약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요? 나는 술을 안 했어요. 잘.

논매기 할 때는요?
논 맬 제두 그 두레 노는 걸 가지구 나가지.

논맬 때는 인제 농악 구성이, 상쇠 하나 있고요?
그건 또, 그때는 뭐 일꾼들이 보통 한 열댓 명 뭐 20명 이렇게 되니까. 한 팀이. 이게 이쪽... 이쪽, 들마다 이! 동네 사람이 한 집에서 하나씩만 나와두 100명은 될 거 아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지 일터가. 뭐 열 명 허는 데두 있구. 그럼 인저 큰 일터가 그 두레 가지구 나가서, 그 더운데 그 지금 생각하면 내 이해가 안 가. 그 더운데 쉬지 그거 술을 먹고, 두들기고. 하하하...

그러면 여러 군데 일터면 일터가 제일 많은 데로 두레가 가는 거예요?
응. 두레가 있어. 젊은 청년들이 저희끼리, 젊은 청년들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깃대가 있잖아 깃대. 깃대 꽂어놓고.

그러면 깃대 나가고 상쇠 하나 있고요...?
상쇠두 다 가는 거지 뭐... 그 저 뭐야 장구, 징 뭐 다...

다 한 사람씩이예요?
하여튼 농악, 풍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지.

몇 사람씩이었어요?
뭐가?

그러니까 꽹과리 치는 사람 하나...
그 저 노는 사람?

예. 인제 두레 나갈 때요. 깃대 하나 나가고...

일단은 상쇠가 하나 있구. 꽹과리가 또, 부쇠가 또 있는 거여. 부쇠가 있어. 상쇠, 부쇠가 있어. 그리구 장구, 징, 북, 사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지.

장구하고 징, 북은 한 명씩이었어요?

한 명씩이지. 그거는.

좌상은요? 좌상... 이렇게 양반 관 쓰고 이렇게...

그런 건 안 해여. 또 일헐 때는...

옆 동네하고 두레 싸움 같은 거는 안 해요?

그 두레 싸움두 옛날에 좀 했다는데, 나는 못 봤어. 근데 회화리 사람이 워낙 동네가 크구 억셔서 근처에 뭐 싸우러 오질 않지. 그니깨 싸움이 안 되는 거여... 워낙 이 동네가 크구 억세니까 옆 동네에서 뭐 싸울라구 그러질 않지.

이것도 저기 지신밟기랑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다 없어진 거지. 그럼.

지금은 뭐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허는 사람두 없구, 헐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게 참... 우리 농악이라는 게 참 신명나는 거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 농악 그 일하는 게 가까운 데 사람 보기 좋고,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그 소리... 풍물 소리. 그래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까운 데 사람 보기 좋은 게 풍물이고. 그 얼마나 신명나는 음악이냐고 그게.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좀 서운해. 지금 보면. 지금은 헐 줄 아는 사람이, 전수자가 없으니까. 지금... 사물놀이 뭐 가르킨다고 그 면, 이런 데서 그 어떤 때는 허더라고. 가르킨다고.

요새는 면 단위로 좀 하죠.

어 근데, 옛날 그 상쇠들이 허는 거마냥 그렇게 신명나질 않더라구.

여기 구판장 옛날에 생겼잖아요. 구판장 생기기 전에 가게는 어떻게 갔어요? 물건 사러는 어떻게...?

물건 사는 거 옛날에 오산장가고 서정리장 가야지.

오산장이나 서정리장이요?

그렇지.

여기는 어디를 많이 갔어요?

보통 여자들은 서정리장을 많이 가더라고. 남자들은 오산장으로 많이 가고. 그거 왜 그러냐면, 오산장에 우시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산장이 크구, 그러니까 오산, 인제 장에 가서 내도 소가

있으니까 내 소 값이 얼마나 나가나. 또 송아지두 또 낳았으면 송아지두 다음 장에 또 팔어야 되니까, 송아지값도 미리 보러 가고.

여기서 소 끌고 오산장 가려면 여기 금암1리 골안말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요?
저기 저 농협 있지? 그 금암리 산등성이루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뭐...

글로 해가지고 저 거르미로 해가지고요?
수월암1리, 거르미. 글로 가는 거지.

여기 회화리에서... 그러니까 안말 쪽으로 가네요?
그렇지. 안말쪽으로.

골안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말로, 그 산등성이루.

안말 마을회관 뒤에 큰 나무 있는 데, 거기요?
아니 글로는 안 들어가. 그 옆에 길이 있어. 산등성이루. 산등성이 인제 안말 동네 뒤로 해서 그리 넘어가면 거르미가 나와. 거르미라구 수월암1리, 거루 가는 거지 뭐.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회화리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여기 금암체육공원 있는 데?
그렇지. 체육공원 글루 가는 겨. 체육공원이 있는 데, 그게 산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오산장까지 소 끌고 가면 얼마나 걸려요?
사람이 걸어가면은 1시간 40분 걸린다고 그려. 장까지 갈라면 2시간은 가야지. 20리라고 그러니까. 20리는 안 돼여... 옛날엔 뭐 20리, 50리 길도 그냥 걸어가는데 뭐.

서정리장은 몇 리라고 그래요?
서정리장도 여기서... 쪼끔 가찹다고 그러지 오산보다는. 근데 비슷해여. 쪼끔 가찹다고는 허는데, 비슷핸 거 같애여.

서정리장 갈 때는 대정촌으로 해서 가나요?
아녀. 그냥 저 냇갈 물 건너가가지구. 그 옛날에 그 신야리에 드문드문 집이 있었잖아. 그쪽으로 철조망 타고 쭉 가는 겨... 그래가지구 구장터... 구장터로 가는 거지 뭐여.
그래서 서 있잖아. 그래서 서정리장으로.

구장터로 해서 신장동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나무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큰~, 옛날에 고역이었었지. 그게 부족해가지구. 그래 좀, 농사 좀 짓는 사람들은 이 곡초가 많으니까, 짚을 많이 땠지. 여기두. 근데 인제 뭐 농사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넉넉헌가? 그저 들에 가서 저 검불 긁어, 나무 뿌래기도 캐다, 하다못해 콩 뿌래기두 뽑어다가 땠으니까 거 뭐 말해 뭘 해. 옛날에... 연료가 부족해가지구 저 수수대 뿌래기, 콩대 뿌래기 또 저 벼 베고 그러면 그 검불 떨어진 거 있어. 그런 것까지 다 긁어다 땠다고. 참...

나무는 안 했어요? 산도 없죠?

여기는 산이 있나? 산이 없지.

그러면 뭐 이렇게 강 옆에서, 진위천 옆에 풀도 베다 때고 그랬겠네요?

저기 인제 저런 데 가서, 산에 가서 솔방울두 따러 다니구 그런 사람두 있었는데, 거기두 그 산주가 그걸 못허게 허지. 그래 산주가 인제 안 나오면은 좀 솔방울두 좀 따고, 따다가 때구 그랬지. 근데 여긴 나무, 산 나무는 몰러.

옛날에는 이렇게 벼농사만 지었어요? 이렇게 뭐 길쌈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왜 벼농사만이야. 뭐 콩농사 뭐 수수, 조 뭐 다 했지.

예. 밭농사하고...

그럼.

여기 이모작 했어요?

아 이모작이 없어.

아 이모작 없고... 논하고 밭이 그냥 구분된...?

그럼. 이 모작 할 만한 게 없지 뭐. 뭘로 이모작을 해.

그럼 보리하고 밀 같은 거는 다 밭에다 심었겠네요?

그렇지. 그거 보리, 밀은 가을이면 콩 심으니까, 그걸 보고 이모작이라 할까. 그 보리, 밀 비고 콩, 팥을 심으니까.

아 보리하고 밀을 심었다가 인제 콩 심고...?

보리 심은 데는 콩 심구, 밀 심은 데는 팥 심고.

왜 그런... 차이가 있나요? 보리하고 밀하고?

그렇지. 그 수확 시기가 있고, 심는 시기가 있어. 작물이 다. 이 아무 때나 심는다구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보리, 밀이 심는 시기가 비슷하고, 콩, 팥이 심는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허지. 얼마 차이는 안 나. 그래두 그 차이가 있는 거여, 분명히... 예를 들어서 팥을, 팥을 인제 그 7월 달에 심는,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심는다고 그랴. 팥을. 근데 그거를 6월 15일께 심으면 안 돼여.

아 일찍 심으면 안 돼요?

쪼끔 일찍 심어두 안 되는 거여. 넝쿨만 뻗구 안 돼. 또 늦게 심으면 일기가 또... 서리가 오니까 안 되구. 그래서 그것이 꼭 심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보리 빈 다음에는, 보리밭은 콩 심구, 밀밭은 팥을 그래서 심는 거여.

아 심는 시기가 다르니까.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가 있어가지구.

회화리 강습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회화리 강습소가 언제 있었어요?

강습소가 그게... 45년도에 해방 됐다고 그러는데, 해방됐는데, 그 전에, 한 십 년 전 내 생겼다고 그러면은... 이 이 서탄학교가 30년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그러면 그보덤은 늦게 생겼다고. 이게 강습소가.

강습소가 더 늦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0 한, 얼추 한 40년도... 여길 댕기다가 갔으니까. 학교를, 강습소.

그러면 회화리 강습소는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이 다닌 거예요?

그렇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강습소 한 1~2년 다니다가 서탄초등학교로...?

그렇지.

근데 또 어떤 문헌에는 서탄초등학교 생기기 전에 있었다고 그러...?

아이 전에는 없었지. 전에는 서당이지, 그럼. 초등학교 나기 전에 서당이지... 서당이여 그때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회화리강습소 있었다는 자리가?

그 저기 저, 여기 그 음료수 대리점 바로 그 옆집이여... 터가.

거기가 혹시 최기환씨 댁인가요?

최기환... 최기환이도 듣던 이름인데. 박찬옥씨가 살았어, 거기.

음료수 대리점이 이렇게 있으면...

길 건너... 동쪽으루... 옛날에 그게 집은 세칸 집이고, 지붕은 함석으로 돼 있고 그랬어. 나도 봤어.

----------〈2023년 8월 22일〉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할머니) 중매했지.

중매는 누가 하셨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저기 외가집에서 했시유. 한 동네요... 외갓집하고 우리하고.

아 차경환 어르신 외가댁이 양감면...?
(할머니) 예.

양감면 무슨 리예요?
대양리.

어르신은 몇 세였어요?
스물여섯

할머니는?
(할머니) 스물넷.

중매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외삼촌. 내 외숙.

외삼촌이 하셨으면 두 분 다 확실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이겠네요.
(할머니) 그럼요. 한 동네서.
그 동네가 뭐 스무 집밖에 안 되는데, 뭐... 스물댓 집 되나...

그 맞선 보러는 누구랑 가신 거예요?
남자가 먼저 가는 거지. 항상.

그러면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외삼촌 되시는 분이...?
(할머니) 그 여기 이렇게 저기...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인제... 외삼촌이 말 해신 거지.

맞선 보러는 신랑 되시는 분하고 누구랑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구 우리 이모하구, 인제 내 이모님.

이모님은 어디 사셨는데요?
저 동탄면.

맞선 보러 오면,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집으로 가는 거지.

인제 맞선 보고 뭐 무슨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절차가 뭐 있어. 이렇게... 서로 미리 인제 양가에서 다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인제 두 사람이 “좋으냐?”고 이렇게 1 대 1루... 인제 한 자리에서 얘기허게. 좋은지 망한지 알야 될 거 아녀.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나요?
아니야 그때 따로지.

따로 둘이 나가서...
인제 방 하나에 둘이 잠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없고?
좋으냐 망하냐. 그때는, 우리 때만 해두 그려 그냥, 부모님이 해라 그럼 해는 거지. 뭐 눈 애꾸고 곰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냥 허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가 있지 않으면?
그럼.

부모님 뜻을 받드는 거죠?
그렇지. 부모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인제 맞선 보신 지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맞선을 봄에 보구서 가을에 했으니까.

약혼 같은 거 그때 있었나요?
약혼식 같은 건 안 했어. 약혼식이라는 건 서로 말이 맞으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구 거기다가 ‘약혼기념’이라고 써가지고, 사진에다가.

그 당시에는 약혼하는 게, 그냥 약혼 사진만 찍는 거네요?

그렇지. 그게 인제 약혼식이지 뭐. 약속하는 거지 인제. 결혼허기로.

그 당시에 어르신 말고 다른 분들도 약혼식이라고 양가 식구들 모여가지고 하고 이런 건 없었죠?
아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약혼식이라는 게 없었어.

어르신 스물여섯 살에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좀 늦으신 나이인가요? 아니면...?
보통 나이야. 인제 군인 갔다 왔으니까. 근데 쪼끔 일렀다고 봐야지.

그때만 해도 군대 가기 전에 결혼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내 나이는 아니구, 나보다 다섯 살 더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많이 갔지... 다섯 살 연장자들은 이 군인 가기 전에, 저 결혼을 하고선 군인 간 사람이 많어. 근데 우리 또래 부텀은 그 가정 형편이 그 꼭 결혼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갔어.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다 군인 갔다 와가지고 장가갔지.

할머니는 어때요? 그때 보통 스물넷에 이렇게 가시고 그랬나요? 더 빨리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아니 그때 늦구 일르구 그러지는 않았시유.

결혼식은 인제 저기 양감면에서...?
전통혼례 올렸지.

여기서 어떻게 가셨어요?
여기서 저 뭐야 트럭 하나허고, 저기 택시라고 요 송탄에 그때 세 대가 있었어. 송탄에 택시가. 그 시발 택시라고, 그게 세대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가자고. 세 내서 가지고 갔지.

전세처럼 이렇게 오늘 하루...?
그렇지. 하루.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줬어요?
글쎄 그거 몰르겄네. 지금... 그때 그거 꽤 비쌌을걸. 그때는 그 차가 없어가지구. 이 동네에서 택시 타고 시집 오는 사람은 처음일 거여. 그 동네 장가 간 사람두 택시 가지구 간 사람 없어. 그렇게 차가 그때는 없었지.

그러면 어르신 댁이 좀 사셨나 봐요?
그렇지. 아버지가 잘 살았어.

어르신이 몇 남매시라고 그랬죠?
우리 7남매.

7남매 중에 어르신이...
둘째.

아들로 둘째예요?
응. 아들로.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경제력이면... 아버님이 논을 몇 마지기 정도나 지셨어요?
한 만 평 가깝다고 봐야지.

논이요?
응.

그 정도 가지신 분이 또 이 동네에도 계셨나요?
그럼. 많지 그게... 그때는 저기여. 이 저 8.15 해방되고선 토지 개혁 핼 적에 9천 평밲에는 못 가지고 있는 거여... 그 외에는 인제 좀 어떻게 해가지구 더 가지구 있는 게 쪼끔 있지.

어르신 댁은 그 전에, 그러니까 토지 개혁되기 전에도 그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토지개혁 후에, 토지 개혁할 때는 한 7천 평 정도 있었는데 내가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더 마련을 헌 거지.

근데 여기는 땅들을 저기 용주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용주사 땅.

그리고 또 국유지도 많았더라고요.
아이 많고말고, 많지. 국유지라는 게 저기여. 저 일본회사. 일본놈들이 그 가지고 있던 게 다 국유지지.

그러면 일제시대에도 이 정도 땅을 가지셨으면, 7천 평 정도 땅을 가지셨으면 굉장히 부자셨네요?
그렇지. 괜찮았다고 봐야지. 그렇게 뭐 크게 보리밥은 안 먹었으니까.

그때도 쌀밥을 드셨어요?
아니. 보리밥을 먹긴 먹는데, 그렇게 그냥 보리만 삶어서 먹구 그렇지는 않었어 우린.

보리만 삶아서 먹고 그런....
그럼 옛날에, 아니 보리두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 뭐.

논 1만 평이면 가족끼리는 농사 못 짓고 머슴도 많이부렸겠네요?

우리 형님이 6.25, 이 송탄 여기에 이 그 중학교가 있었어. 이 송탄에. 저 그, 그러니까 고등공민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직 인가가 안 난 학교야. 근데 그때는 효명두 없었구, 오산, 이나 있으면 있었을까. 오산학교. 그때는 효명이 없었지 학교가... 그 송탄에 있었는데 저 지장절이라구 있는 데, 저 지장국민학교 있는 데, 거기쯤인데, 중학교가 거기 있었어. 그래가지구 우리 형님이,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다 그 학교 다녔어.

지금 지장국민학교 있는 데예요?

그게 그 근처여. 나두 확실한 건 잘 몰러. 근데 2학년 다니다가 전쟁이 났다고. 6.25가. 그래가지고서는, 뭐 근데 학교가 그냥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아가지구 학교가 없어졌어. 날라갔어. 그러니까 뭐 어디 학교 다닐 데 있어! 그땐 뭐 효명도 없구, 오산학교두 그때 생겼을까 말까여. 그러니까 학교두 갈 데가 없으니까, 농사 형이 다 헌 거지. 그래 인제 사람을 사가지구 저 인력공사, 저 평택에 가서 사람 사다 일시키구. 대여섯 명씩 데려다가.

어디서 사왔어요? 평택역에서요?

평택역에 가면 이 호남 사람, 영남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일해러.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 일해는 거지 뭐.

한 번 데리고 올 때 한...

한 너덧 명, 다섯 명 그래. 계속 시키는 거지 뭐.

모내기 할 때 사 오면, 모내기 끝날 때까지 하나요?

그래 일 다해, 논 매구 뭐 다 끝나야지. 논 매는 것까지.

머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머슴하고는 틀리는 거지.

이런 걸 달몸이라고 하나요?

달몸은 또 틀려, 머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매기 할 때 사서...

그건 일공리라고 그래야지. 날짜 한 대로 돈을 주니까.

아 일당으로 계산을 해요? 이거는?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묵어요?

우리 집이 있지. 방에, 사랑방... 행랑방에서. 거서 인제 자고, 먹고 이래는 거지.

그러면 밥값은, 그냥 밥은 공짜로 주는 거네요?
일을 시킬래면 밥을 줘야지... 하하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모내기 시작할 때 와요?
그렇지. 모내기 시작할 때 오지.

그러면 모내기 시작해서 와서 언제까지 일을 해요?
보통 여기서는, 그게 인제, 모내는 게 한 20일 정도 허고, 논 매고 하니까, 적어도 한 40일 정도 이상 일해지. 그럼, 아무리 못해두 한 40일은 해야지.

벼 벨 때는요?
벼 벨 때두 마찬가지지. 그때 또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구. 저의 고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인제 모내기 할 때 온 사람들이 모내기하고, 논매기 하고 떠나고, 또 벼베기 할 때는 별도로?
예. 그게 그렇더라구. 이 모내기는, 이게 저 아래서부터 해온대나봐. 그러니깨 그 사람들이 저 대전쯤에서 일해구, 또 천안쯤에서 일해구, 또 평택 와서 일해구, 저 위에까지 계속 일해구...

근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지 않나요?
그 벼 베는 거는 추위가 저 위에서 오니까, 위서부터 내려 베는 거니까. 그러니깨 저 위서 일을 허구, 또 여기서 일허구, 천원쯤 가서 일허구, 대전쯤 가서 일허구. 옛날에 그렇게 헌 것 같더라구. 그 사람들이.

근데 인제 저희 생각은 저 위에가 먼저 추우니까 벼를 일찍 심어야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벼, 모내기 할 때도 해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안 그랬나봐.

그러면 인원은 벼베기 할 때나 모내기 할 때나 비슷하게 썼나요? 한 4~5명?
그렇지. 그 정도 써야지.
(할머니) 모내는 게 더 많이 들어가지.

그 1만 평 정도면 당시에는 부농, 엄청...
만 평 정도.

그래서... 집이 경제력이 되니까 택시도 빌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당연허지.

아침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시고

그렇지.

결혼식 끝나고 점심 드신 거예요?
그렇지. 결혼식 끝나고 점심 먹어야지.

점심이 거기서는 잔치죠?
그렇지. 잔치지, 동네 잔치지.

점심 잔치하고, 인제 택시 타고 이쪽으로 오셔서...
그렇지.

여기 와서는 뭐 별도 식 같은 건 안 하죠?
아이, 여기서는, 거기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인제 안 하고 인제.... 여기와서는 인제 저 사당차례허구... 폐백허구 그러는 거지 뭐. 사당차례라는 거는, 봤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제사지내는 5대 봉사 하잖아. 5대 봉사 지내니까...

4대 봉사 아닌가요?... 고조까지.
그려. 근데 5대 봉사라고 그러지. 그런데 인제 그,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해는 거여. 이 제물 차리구 다. 차려놓구... 우리 웃대 조상한테 시집왔다고 고해는 거여. 나 장가갔다구 고해구.

그 사당이 별도로 있었어요? 집 안에?
아니 사당 없어 여기, 우리 집은 사당이 없었어. 여기 사당이 있는 집은 이 서탄면에두 이 사리에 윤규신이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네 집이 5대 신주 다 모시고 있어. 조상 대대로 신주를 다 모시고 있는 거지... 옛날에 공무원 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다 없앴을거야. 집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전엔 집이 엄청 커가지구, 이 마루에 몇 대, 몇 대, 몇 대 있어가지구 문 열면은 그 신주가 다 있더라구 거기에. 우리는 인제 여기는, 우리두 그런 저기는 없었어. 우리두 또 지손이고. 우리 큰 댁이 있으니까. 그게 인제 제물 다 준비허구서는 인제... 고허는 거지.

안방에다가요?
아니. 마루, 대청에서.

대청에서요?
그럼. 제사 지내는 거 마냥. 시집 왔다고 인제 고해고, 나는 장가갔다구. 신한테.

지방 다 써놓고요?
지방 다 쓰구.

그러니까 제사하고 똑같이 하고...
똑 같이 해지.

그냥 고하는 것만 좀 다르네요?
똑 같은 거야 아주 그냥. 이 강신허구, 이 제사 지내는 것두 똑같이.

아 제사 지내는 절차는 똑같이 하고?
메 올리고구, 메 올리구 응! 다 하는 거야. 그 절차가 다 똑같해여. 그렇게 사당 차례 허고서는 인제 폐백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 사당 차례는, 여기 회화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집이 사당 차례를 하나요?
근데 거의 다는 안 해. 그래도 뭐 좀, 좀 안대는 사람,..

좀 뼈대 있는 집안이요?
문중에도 좀 아는 사람이 있잖아. 식자가 있는 사람이. 아 이 동네 저기 저 저희 조상 신주 제사 지낼라면 제방도 못 사는 사람이 옛날엔 천지였었어. 이 동네.

여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그때는 교인은 많지 않았었지. 교인이 많지 않았어두 제방 쓸래면은 그걸 못 써가지구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써가지구 가는 사람이 많었어. 제방을, 옛날에... 그러니깨 쪼금 밥술이라도 먹구 살구, 그 저 문중에서 좀 식자가 있다 그런 사람은 그 뭐 ‘우리는 이렇게 헌다.’ 라고 과시하는 건가, 그 정도로 이!

아까 그 왜 일꾼들 사 왔다고 그랬잖아요? 형님이.
그랴.

근데 그 일꾼들 말고 머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동네 좀 많지.

아니 어르신 댁이요?
우리는 머슴 없었어... 형님이 일을 허시니까.

형제들이 몇 분인데요? 7남매 중에 아들이 몇인데요?
네 명.

그러면 아들 4명하고...
딸 셋이지 뭐.

아들 네 명하고, 일꾼들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아니 일해는 사람은 우리 형 하나지. 형 하나지. 나는 인제...

어르신은 일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인데?
나도 일을 해긴 해지. 그 저 뭐야, 물 대는 일. 논이 여러 군데니까. 물 대는 사람도 하나가 있어야 해여. 그래 물 대구, 비료 뿌리구 이러는 거는 내가 또 허구. 힘드는, 소로 일허는 거는 우리 형님이 다 하시구... 내동생, 밑창 애들은 일해는 거 몰르지.

인제... 사당 차례 지내고 폐백하고 그러면 인제 잔치하는 건가요?
잔치는 그전에 벌써 다 핸 거여.

신랑 떠났을 때?
그럼. 그 저 사당차례 때는 벌써 시간이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거여.

저녁 때쯤 되나요?
한 8시나 이렇게 됐는데, 저녁. 그리고서는 폐백을 받아야 핼래니까... 그 전에 거 잔치는 낮에 다 핸 거여... 그런거지.

그러니까 신랑 신부 없을 때 잔치는 다 하고?
그렇지... 아니 우리 왔어두, 우리는 해지고 여기 왔으니까, 그때까지 동네 잔치 다 허는 거지.

잔치하고, 어른들 술 한 잔씩 따라드리고 뭐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럼...

저녁 때 인제 사당차례하고...
그럼. 8시쯤 넘어서 사당 차례.

그럼 폐백은?
폐백은 인제 사당차례 끝나야 하지.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인제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먼저는 죽은 조상한테 인사 헌 거구.

그럼 폐백 할 때는 한 저녁 9시쯤 되겠네요?
그렇죠. 저녁 9시는 돼야지.

그리고 인제 첫날 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폐백 끝나면.

신방으로 가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문에 구멍 뚫고 그러나요?
그럼. 그건 다 허는 거지.

그 구멍 뚫고 이런 건 누가 해요?
그건 동네 인제 그 형수뻘 되는 양반들. 이 저 시집간 누나들. 이 잔치보러 왔잖어. 그 형수뻘 되는 이들하구, 그 누님뻘 되는 사람들이 하는 기여.

그냥 동네 사람이 몰려들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안이 있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허지. 여럿이, 집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인제 보통 신부들은 부엌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할머니) 그래도 그 뒷날부터 들어갔나? 잊어버렸네... 바로 들어가지.
그 저기여. 새색씨가 이렇게 시집을 오면은 그 이튿날 부엌에 가는 게 아니여. 3일 만에 부엌에 나가는 거여, 그게.

3일 만에요.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신 할머니는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어르신은 기억하고 계세요?
(할머니) 하하하....
아니 그거, 그건 전례가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 전례가 여기 시집가면 그 전례가 그러니까.

그러면 3일 만에 부엌 들어가고 인제 재행도 그때 가고요?
아 재행이야... 그렇지 재행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재행가는 날 부엌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갔다가, 인제 재행 갔다가 하루 만에 오는 사람두 있구, 뭐 이틀 만에 오는 사람도 있구. 그건 대중없는 거여.

재행 가실 때는 그 음식장만 해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이바지 음식을 해는 거지.

이바지 음식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때는 뭐 엿이야... 엿이야.

떡도...?
그래도 떡은 잘... 뭐 가져두 가겠지 그것두. 근데 그래두 엿이 귀핸 거라, 그래두 우리 집 안

네 보면 거의가 다 엿이더라구.

떡은 별도로 안 하고요?
응.

그리고 인제 술 같은 것도...?
술은 뭐 정종병 하나 사서 가는 거지.

정종 댓병 하나?
응.

그러면 엿하고 정종 댓병하고...?
그렇지.

고기는?
고기 같은 건 안 가지구 갔어... 고기 같은 거 가져가는 거는 우리 애들적부터 했어... 그때는 저기여. 저기 엿 가져가면은, 거기도 큰집, 작은집 있잖어. 이웃이 있구. 그러면 엿 몇 조각씩 다 노놔주는 거야 그게.

거기 가서요?
그래. 그게. 다 노놔 먹는 거여.

가실 때는 그러면 인제 두 분이서 이렇게 가셨나요?
그렇지 둘이 가는 거지.

짐 손수 들고요?
그렇지. 손수 들고다는 거지. 어떻게 해. 지금같이 차가 있나 뭐.

어떤 집은 또 이렇게 짐 들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요.
그렇지. 그런 적도 있겄지. 그 저 뭐야 큰 부잣집이면은, 음식을 많이 했으면 짐꾼 데리구 가야겄지.

여기서 인제 재행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재행 땐 수원으로 갔어. 송탄 가서, 수원 가서, 발안 가서... 그랬어.

아 버스 타고요?
버스 타구.

여기서 송탄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걸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혀!

회화리에서 송탄까지는 걸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인제 나머지는 버스 타고 수원, 발안...
그렇지. 수원, 발안. 거기서 또 인제 걸어가야지. 집으로.

그러면 아침에 떠나시면 저녁 때쯤 되겠네요?
그럼.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가. 여기서.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가는데, 그래도 자양 가는 놈이 걸어갈 수 있어? 버스 타고 가야지. 그래서 이 수원으로...

어차피 마지막에는 걸어가시잖아요?
하하하... 걸어가면 2시간 반이면 가. 대양리. 근데 거기 버스타고 가면 저녁 때 가야 해.

버스 타고 가면 하루 종일 걸리고요?
하루 종일 걸려.

그때는 버스 타는 거 자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호사 아니었나요?
아녀. 그렇지는 않았어. 그때 그래두 버스를 많이 활용을 했어.

인제 거기서 하룻밤 자셨어요?
그건 몰러. 하룻밤인지 이틀 밤이었는지는 몰르는데,

가면 또 인제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처갓댁에서.
거 뭐 다리 묶어가지구 매단다구 그러는 거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 그것밖에 더 할게 뭐 있어. 그 청년들이,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구.

청년들이 매달면서 뭐 내놓으라고...?
술 가져구 오라는 거지. 술 가져오라구... 그러면 인제 술상 내오면 인제 그거 가지구 먹구.

그러면서 더 그분들하고 친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또 죄 알지 동네 사람이 누군지... 같이 놀았으니까.

그리고는 인제 하룻밤 주무셨어요?
몰르겄어 그때 하룻밤 잤는지, 이틀 밤 잤는지. 아마 이틀 밤은 잤겄지 거기서. 가가지구 이튿날, 자양가가지구 그 이튿날... 이틀밤은 잤을 거여.

올 때도 또 하루 걸려서 오셨겠네요?
그렇지. 하루 종일 걸려서... 또 거기서 또 이바지 음식 해줘가지구, 또 들고 또 여기까지 오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엿을 해주시나요?
그렇지. 엿.

그리고는... 인제 두 분이 사시면서... 분가해서 사시지 않고...?
내가 분가 해 나온 거지.

바로 분가하신 거예요?
아니 1년. 1년만에.

그러니까 큰아들은 대체로 부모님이랑 사시는데...
그렇지.

둘째부터는 부모님이랑 보통 1년 정도 사시나요?
그렇지.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분가를 허지.

분가하려면 또 집도 새로 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이, 조그마한 집이 있었어. 요 터에. 우리 집은 본래 저쪽인데, 그 쪼끄만한 집 하나 사주더라구.

분가할 때 재산도 좀 떠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인제 논 잘러주는 거지.

논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난 1,600평을 주더라구.

1,600평이면 여덟 마지기네요?
그렇지. 여덟 마지기지. 그때는 농사를 내가 안 해봐서, 이 다들 (내가) 농사를 안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농사가 되더라구 내가 또. 우리 형제 중에 또 나만 농사짓잖아. 다른 사람은 다 농사 안 짓는데, 나만 농사진 거여.

어르신은 그때... 학교를...?
나? 나는 인제 고등학교 중퇴했지... 서울에서.

그러면 여기 학교는... 여기 서탄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지.

서탄초등학교 다니실 때 마을에서 몇 분이나 다니셨어요?
맞지 뭐 그때는. 몇 명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아니 어르신 동기?
아 내 친구들이? 한 열서너 명 될걸.

그중에서 중학교는 몇 명 정도 갔어요?
두명... 아 세명 갔어.

중학교는 어디로 가셨는데요?
나?... 그때 여기 학교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야, 환일이라구, 환일이야.

서울의 환일중학교요?
예. 환일.

아 서울로 가셨어요?
그래 난 서울로 갔지. 여긴 학교가 있나! 중학교가 없지.

오산도 그때는...?
그때 있었어.

평택에도 있었잖아요?
평택 있는데, 서울에 사촌형이 있어 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 오라고 그래가지구 나도 글루 갔어.

그 당시에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 가시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아유 그때 웬만한 사람 가도 못해여. 재력도 그렇구, 실력도 그렇구 못 가. 여간, 그때는... 그땐 서울에도 학교가 몇 개 없었잖어. 우리가.

그렇죠. 중학교 그때 시험 봐서 들어가셨을 거 아네요?
그럼. 시험 봐서 들어가야지 그럼.

그러면 어르신만 서울로 가시고, 나머지 동네 동기들 가운데는... 중학교는?
뭐 농사짓구 뭐... 중학교가 없으니까.

동기 열서너 명 중에서 중학교 간 사람이 세 명...

세 명이여.

나머지 두 명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는 오산 중학교. 그때 갔었지. 오산두 있었어 학교가 그때. 오산두 하나 있구.

오산중 하나 가고?
응... 하나는 또 영등포 중학 가고, 영등포.

그 집도 좀 잘 사는 집이었나요?
아 그렇지 다.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셨어요?
환일이여.

나머지 두 분도 고등학교까지 가셨나요?
그럼. 걔들은 졸업했지. 하나는 영등포 간 애는 대학 나오구... 오산 간 애는 그냥 고등학교 나오구.

그때는 학교 가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럼. 어렵고말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농사 잘 안 지었죠?
안 졌지.

그래서 어르신이 학력이 높아가지고 농사짓는 생각은 별로 안 하셨나 보네요?
응. 농사를, 동네 사람들이 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인줄 알았어. 안 질 거구.

공부도 잘하시고 그랬으니까?
아이 공부를 잘하진 않었어.

지금도 기억력 좋으신 거 보면 그때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제 고등학교 그만두고 바로 시골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인제 군인 갈 때가 되니까. 인제 한두 해 있다가. 또 저기 우리 큰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양반이 한문학자야. 근데 그 큰아버지 댁에 가서 공부 좀 했지. 거기에 또 그 전도사가 있어... 우리 큰 집에... 교회 전도사가 인제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때 이 중앙고등학교, 지금 중앙고, 중앙고에 이 강의록이래는 게 있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통신학교야. 중앙고, 지금 중앙고에 이 통신 강의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그 공부를 핼라고 인제 그 학교를 인제 교재를 좀 보내달라고 인제 신청을 해. 나는 학교가, 공

부를 얼마나 핸 사람인데, 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끔 그 강의록을 보내달라고 신청을 해여.

중앙고등학교에다가요?
응. 중앙고등학교. 그럼 거기서 인제 교재가 나와. 그래서 내 그걸 마쳤어.

그러면 강의록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책, 교재만 보내주는데, 그러니깨 이해 못해는 게 많지. 그러니깨 거기 인제 우리 큰집이 저기 전도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 아녀. 인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지, 많이. 물오보구...

아 전도사한테 배우면서...?
응. 모르는 거 인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구, 전도사가 갈켜주고. 그래두 군인 갈 때까지는... 뭐야 또 인제 형님이 군인 가니까 인제 농사 관리를 내가 해야지. 관리를. 그래 사람 사오구 뭐 그런 거. 비료 주고 그런. 우리 아버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 아버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인제 어머니, 우리 어머니하구 농사를 인제 관리를 허는 거지. 형이 군인 갔으니까. 근데 뭐 공부, 겨울엔... 인제 공부해가면서 전도사한테 좀 배우가면서.

그 전도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몰라. 한씨래는 것만 알지. 몰라 지금. 워낙 오래된 얘기라, 한씨래는 거만 알지.

큰아버님이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기자 용자야.

이분이 여기 교회 장로님이셨고...
응. 장로님

몇 번째 장로님이세요?
두 번째... 첫 번째두 차시구. 첫 번째 장로님두 차씨구. 저 먼저 송웅이라구 얘기했지? 차송웅이. 차송이 할아버지여. 첫 번째 장로가... 저 3.1 만세운동 헐 적에 서탄면을 주도핸 양반이여. 그 양반이.

이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저기 송웅이 할아버지? 덕자 경자.

이분이 인제 초대 장로라는 거죠?

그렇지.

3.1운동도 주도하시고?
그럼.

서탄면 3.1 운동은 그러면 이분이 중심이 됐었어요?
사리 분하구, 사리에 윤씨, 이름은 몰러.

윤기선, 서탄면장하고 그랬었죠... 윤기선, 윤대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하고 둘이. 근데 내... 그 평택시독립운동사래는 책을 보면은 그 양반이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합병이 되니까 인제 소용없는 거지. 임명을 안 할 거 아냐. 공무원으루. 그러니까 그냥 낙향을 했더라고. 낙향을 해가지구 여기 있던 분인데, 그 양반하고 이 우리 덕자 경자 그 양반하고, 송웅이 할아버지, 그 양반하고 어떻게 해 가지구... 그야말로 이 안말 산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야. 우리 아버님 얘긴데, 회화리 이 벌판에서 와∞ 하고 불을 올리면은 인제 그 순사들이 일리 몰릴 거 아냐. 그럼 불 딱 끄면 또 안말 산에서 또 와∞ 하고 불을 올리구 이러면 또... 그러니까 순사들이 왔다 갔다... 가면 없어지구, 이쪽으루 오면 또 없어지구.

그러면 인제 안말 쪽 금암 2리?
그렇지.

산에서?
산에서 인제 횃불 올리면은 인제 순사들이 글로 몰려갈 거 아니야. 그럼 불 딱 꺼지는 겨. 그럼 또 회화리 벌판에서 또 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구 와∞ 불을 또 올리구 그러면은 또 순사가 일로 와. 또 와보면 또 어디로 죄 없어지구.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 얘기야, 그건.

그때 서탄면사무소가 골안말에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글쎄, 그건 몰라. 어디 있었는지.

여기 순사 주재소가 회화리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여기 있었지. 주재소.

그 주재소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집 뒤여.

(지도를 보며) 어르신 댁이 여기잖아요.
그거여? 그럼 그 뒤겄지. 뭐 여기쯤 되겄지... 바로 우리 집 뒤여.

여기가 주재소 자리예요?
그렇지. 주재소 자리라고 봐야지.

바로 집 뒤가 여긴데요.
그려 바로여. 집이 있어. 지금두.

주재소할 때 집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직원이 살던 관사라고 그러나? 그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 30∽40년, 한 40년 전인가 혈구선 다시 개축을 했지. 그래 그 집이 아니지. 근데 문고리는 이렇게 굵어.

아 엄지손가락 만큼이요?
어. 문고리가. 굵고, 유리창이 있고. 옛날 집인데.

직원이 살던 집이...
그렇지. 사무실 겸, 주재소 겸, 그 직원들 그... 숙소. 그거여.

그게 바로 이 집 뒤에요?
응.

어르신 댁하고 붙었어요?
안 붙었어. 여기 바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어르신 댁 앞마당이잖아요... 여기가 어르신 댁 앞마당이고, 여기가 옆집이고요... 그럼 주재소 자리는 어디예요?
요짝에 요기기여.

아 이거 파란 집이요?
그려. 그려 거기. 옛날에 우리 어려서 봐두, 유리창이 있었구,

문고리가 엄지손가락만 하고.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지 문고리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문고리가 그렇다구. 창살이 굵구.

집 크기가 몇 평쯤 됐어요?
집 크기가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한 25평?

건평이 한 20평에서 25평 정도요?

20평에서 한 25평. 고 정도여. 아유 옛날엔 20평만 해도 큰 집이지 뭐.

이게 30~40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려. 40여 년 전까지 있었다고 봐야지... 아녀. 한 40년 전이 뭐여, 내가 열대여섯 살 정도 됐으니까. 아이 한 50년 전까지 있었네. 한 50년.

그 어르신이 15살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 내가 한 열댓 살까지 봤어. 그때까지두. 근데 그 이후로 잘 모르지. 그 인제 그 집을 어떤, 그 집을 사가지고 살다가 다시 지었어, 집을. 그러니깨 그 건물은 아니지.

그 주재소가 저쪽으로 옮겨간 거는 언제예요?

그건 몰러요. 아마 8.15 해방되구 나서 글루 갔을 거야.

지금 금암리 쪽으로요?

응.

지금 현재 자리가 옛날부터 파출소였나요?

그렇지. 내가 본 건 그래. 내가 본 거는 거기가 첨부터 파출소 자리야.

여기가 3.1운동이 일어난 게 주재소가 있는 거하고도 뭐 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회화리 교회...

교회 관련이지 저 주재소 있는 거 하고는 관계 없을 거여.

여기 옛날에 강습소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강습소 자리는 어디였어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 그 저게 있어. 음료수 도매상. 바로 그 길 건너 집이여... 길 건너 동쪽으루. 거기 강습소 있었어.

이 강습소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해방 될 때까지 있었겄지... 그럼.

어떤 책에 보면 30년, 저기 서탄초등학교 생기면서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두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긴데. 여기 학교가 가차우니까. 근데 이 학교에 못 간 사람두 많었어. 초등학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강습소를 다녔다구. 또 학교 가기 전에 또 배웠구. 학교를 가기 전에, 나는 그걸 모르지만은 그 강습소 다녔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강습소에서, 다녀가지구 시험을 봐서 학교를 갔다.' 그런 사람도 있어.

아 입학 전에 들어가서 배우고... 시험 봐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응. 그런 사람두 있어. 난 모르지, 그 사람들 얘기니까.

인제 (초등학교) 못 간 아이들도 거기서 배우고?
못 간 사람들 여기서 배우구.

어르신은 거기서 공부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죠? 거기 있었다는 말씀만 들으신 거예요?
그렇지. 있었대는 거만 알지.

그 음료수 도매상 자리가 옛날에 방앗간 자리...?
그건 방앗간 자리구.

그쪽 길 건너 집이 강습소 자리고요?
응. 강습소 자리. 그 지붕이 함석이구 그러는 거는, 함석 집은 봤지. 그 집은. 3칸 집.

세 칸집이었어요?
응 세 칸.

세 칸이라는 건, 방이 3칸이었어요?
인제, 한 칸, 두 칸, 세 칸 허는 거.

아 기둥이 이렇게 세 칸이 있었어요?
응. 세 칸 집이여 그게.

그 집이 옛날에 그 박찬옥이라는 분이 살았던 집인가요?
그려. 박찬옥이가 살았었지 그전에.

그럼 최기환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최기환이래는 사람은 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거기(강습소)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난 몰러요.

진서강습소는 못 들어보셨죠?... 서탄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글쎄 그건 모르겠네.

회화 교회에서도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했다고 그런 얘기...
했지. 옛날에.

그 고등공민학교는 누가 세운 거예요?
그건 그... 그 당시에 그 전도사지. 그 당시에 전도사가.

성함은 잘 모르시고요?
임씨라는 것밖에는 몰라.

또 여기 그 6.25 때, 저기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6.25 때 고아들...
그건 뭐, 그렇게 고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수용허는 거는 못 봤구.

전쟁 고아를 이렇게 구제하고 뭐...
그런 건 못 봤는데, 인제 교회에서 인제 피난민들 인제 거기서 지원을 해주구 했을 거여.

아 피난민 지원이요?
어. 피난민들. 많으니까.

고아들을 이렇게...
어디 잘 때 없으면 거기서 잠도 자구 아마 그랬을 거여.

회화 고등국민학교는 언제까지 있었어요?
거기 한 3년 있다가 없어져, 한 3∽4년? 한 4년?

어느 책에 보니까 1954년에 생겼다고 그러던데요?
1954년 난 잘 몰르겄네.

오래된 건 아니고 한 3~4년 운영한 거예요?
응.

혹시 박승명 전도사라는 분은 들어보셨어요?
몰르지. 난 그 이. 교회 내용은 난 잘 몰라.

여기 예배당이 1943년에 홍수가 나고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잘 모르겄네 이거는... 교회서나 알지.

다시 아까 결혼 생활을 여쭤봐야죠. 1년 살다가 이렇게 분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때 논만 1,600평...?
그렇지.

그때부터 인제 두 분이 사셨겠네요?
그렇지. 아버지두 인제 그걸 주면서, 임시로 좀 있어, 임시로 나가 있어라. 식구가 많으니까. 인제 그 식구가 많으니까 임시로 나가 있으라구 나왔는데, 그냥 주저앉은 거지 뭐. 하하하...

어차피 뭐 장남이 아닌 이상은 분가하잖아요?
그럼.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인제 재산 같은 경우는 장남이 좀 많이 받죠?
그렇지.

어르신은 1,600평 받으시고, 형님은 몇 평 정도 받으셨어요?
장남인데 다 갖고 있는 거지 뭐.

동생들 떼주고 나머지는?
그럼. 아니 나하구 다 떼주고 나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다음 동생분요?
그담에 장가 가면, 인저 동생 장가가면 인제 떼주구.

동생분들은 얼마나?
다 똑같이 줬어 그냥.

1,600평씩이요?
그럼.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동생들한테 주고...?
절반 정도 동생 준 거지.

절반 정도는 형님이 인제 받으신 거네요?
그래.

1,600형 가지고 그 당시에 두 분 사시면은 충분했나요?
아 그때는 1,600평 가지구 인제 또 저기 뭐야 형이 농사 관리 못하니까, 인제 나를 쪼끔 더 주지... 그래 인제 내가 인제 한 또 1,500평을 또 이렇게 경작해라구.

형님이요?
그렇지. 인제 큰집 땅을 주면은 인제 내가 도지를 짓는 거여. 도지라구. 인제 형님네 쌀 몇 가마 주고, 내가 먹고. 인제 그렇게 해는 건데, 그때 그걸 지면은, 그때는 공무원 봉급이 공무원 봉

급이 쌀 세 가마 값이야.

한 달에요?

응. 한 달에. 그때는 이 공무원 봉급이 쌀 세 가마 값이야. 내가 얘기를 안 해려다 해는데, 내가 이 수로국이고 지금은 항만청이지. 지금은 항만청인데 그때는 수로국이야... 거기를 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기 갔어. 거기 갔는데, 인제 뭐야... 이렇게... 그 교통부 관할이야... 그때는 그 수로국이 교통부 소관이이야. 그래 거기를 갔는데, 뭐야 이 봉급이 쌀 세 가마 값이야. 그래 하숙을 핼라고 그러니까 하숙비가 이 8,5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다음 하숙비를 제허고 나니까, 하숙비가 한 65%로 돼요. 봉급에.

그때 썰 한 가마가 얼마였어요?

그 쌀 한 가마가 그때 아마 8천 원이나 했나? 그 정도 안 했을 것 같애여! 몰라 지금 자세히. 근데 좌우지간 그래. 근데 그때 또 담배를 피웠네.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우고 뭐 교통비 하니까 뭐 남은 것도 없어. 서울서.

8,500원이 서울 하숙비였어요?

응. 뭐야 한 며칠 다니다 보니까 그때 또 군사혁명, 그 저기 뭐냐... 뭐야 과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해군 출신이더라고.

그때 참 군대가 결혼하시기 전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여.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 계시고요? 두 분이서 서울 가서 생활하신 거예요?

아니. 집에 있고 나만 가서 인제 있을라고, 임시로 있을라고 그러니까 그려. 그래서, 아니 이거 뭐 도대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 그거 가지구, 쌀 세 가마 가지구. 아 내가 농사를 지어 두 쌀 세 가마 충분히 나오는데. 그러니 그거 뭐... 그 인제 계장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거기 뼈가 굵은 사람이구. 그 과장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은 낙하산으로다 내려온 사람이고 그러는데. 아유∞ 결재 서류를 끼구 가서 결재하러 섰으면은, 이리 보고 제 맘에 안 들면은 그냥 "이거 밥 좀 먹고 일해느냐?" 고, 이러고서 확 뿌려버려요. 계장은 늙은이지 뭐여. 그 당시에. 그거 또 줍느라고 말이야. 아 그걸 보니까. 난 또 성질이 또 그런 걸 못 보는 사람이여. 애들 적부터 누구 쌈박질해두 들여다보고. 보면은 잘못핸 놈이 있지. 그래두 잘했다구 덤벼. "이거 봐. 당신이 잘못했잖어! 그 사과 한 마디 해구 끝내여!" 내가 그런다구. 그러면 또 그놈이 술에 취핸 놈이면 "너는 새끼가 뭔데 참견이냐!" 고 그래 나보고. 내가 공부는 못했어두 싸움은 쪼끔 했어.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하하...

공부를 잘못했고 싸움을 쪼끔 했다구.

그래서 얼마나 다니셨어요?

석 달 다녔잖아... 3개월을.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농사 쭉 지으신 거네요?

그리구선 인저 농사지은 거지... 아녀. 그리구 그전에는 또 저기 경기도청에 중기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인제 불도자, 그때는 불도자밖에 없어. 저 중장비라는 게 뭐 포크레인이나 그런 거 없어. 그거 한번 임대해가지고 토목 사업을 한번 해본다고 임대를 한 대 했어. 경기도청에 가서... 불도저 한 대를. 임대를 내가 1년 사용료를 내구선 그걸, 토목사업을 허는데, 아이 안 되데 아∞... 그냥 이 뭐야 저 경부고속도로 그게 끝날 무렵인데 그 장비가 풀려 나오니까 맨 장비 천지지 뭐여 그냥. 그러니까 장비가 노는 게 많지 뭐여. 아이 그래서 그때두 많이 손해좀 봤지.

그거는 인제 수로국에 다니시기 전에 그러신 거예요?

응.

결혼은 하셨고?

그때, 그렇지 결혼은 했지. 결혼하고 나서. 아 저기 군인 갔다 와가지구 1년 만에 장가 갔는데 뭐... 뭐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돼. 그래 에이 까짓거 농사지어도 먹구 살겠지 하구 그냥.

인제 그래서 두 분이 신혼 하셨고, 그 아이는 몇 얼마 만에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 그 이듬해 낳았지 뭐.

아이 태어나면 옛날에는 준비물을 뭐 뭐 해요?... 배냇저고리하고요...

(할머니) 그렇지유. 저기 배냇저고리라고 그거 집에서 만들어서 입히구.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 그냥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시어머니께서?

(할머니) 응.

포대기는요?

(할머니) 포대기는 사구... 포대기는 친정어머니가 해오시구.

신발 같은 건 안 사나요?

(할머니) 애기 신발? 아유...

그건 돌 때나 사는 거지 뭐.

아 신발은 돌 때 사주는 거예요?

그때, 돌 때 걷는 걸... 그때는 다 저기여. 기저귀구 뭐구 다 어른들이 해줬지. 포대기구 뭐구.

기저귀는 보통 시어머니가 해줘요 아니면 친정어머니가 해줘요?

(할머니) 친정엄마가 그때두 해줬지. 만들어서. 집에서. 천 끊어다가.

그래두 그때 저기여. 농사 지어가지구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으면 직장 댕기는 애들 점심 못 사. 내가. 농사짓는 놈이, 내가 점심 사주구 그러는 거.

어르신께서 그래도...

그럼. 내가 여유가 더 있는데. 직장 댕기는 놈보다. 근데 그게 인저 20년, 30년 지나니까, 직장 다니는 애들 봉급두 많어지구 또 뭐 퇴직금두 많어지구. 또 연금 타는 애들은 연금두 타구.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부터 인제 내가 찌글어들은 겨. 그때는 인저 걔들이. 직장 댕기는 애들이.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밥도 못 샀는데...

그럼. 내가 사줬는데.

한 30~40년 되니까...

한 30년, 20년 넘어서, 넘어가니까 인제 걔들이 더 좋아지더라구.

농사짓는 사람들은 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쌀값이 내려가니까?

응. 자꾸 인저 가라앉구. 그랬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인제 아이 태어나면, 아이가 잘 되라고 빌고 이런 건 없었어요?

에이 그런 건 없었지.

아 그때 교회 다니셨나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시집와서 바로 댕겼지 뭐, 교회.

(할머니) 우리 애, 우리 아이 열 살 됐나?

열 살 됐을 무렵부터요?

(할머니) 예.

와서, 시집와서 바로 댕겼어. 교회.

그러면 그 어르신 댁도 전부 다 교회 다니신...?

아녀. 나는 안 다녔어.

그러니까 어르신만 안 다니고 부모님이랑은 다?

아이 우리 아버지두 안 다니셨는데, 그 얘기해면 길어... 우리 형수가, 우리 형수가... 이 얘기 허면은 한 시간도 더 해야 되는데... 이 뭐야 6.25 전쟁 전에는 서울서 살았는데, 그렇게 피난을 김포로 갔다구. 해변가루. 그래 집이 있어 뭐 있어? 그 해변 가에다가 인제 방 한 칸을 어떻게 인제 부엌 한 칸 얽어가지구 살았다구.

형수님이요?

그렇지. 인제 피는 와가지구. 우리 형수가. 그땐 우리 형수가 아니지.

아 그렇죠. 김포 해변가에서요?

그럼. 그 인제 전쟁이 끝나가지구 가보니까 집이 없는 겨. 서울 사람인데. 폭격 맞아가지구. 그러니깨 도로 간 거여, 글루. 형수가. 그러니까 돈이 있어 뭐 있어. 해먹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지. 근데 미인이야. 상당히 예쁘다구 우리 형수가... 그래 내 사촌 형의 처가, 처남의 처제인데. 복잡했지. 그 우리 사촌 형이 처갓집에 가보면 이쁘장한 처녀가 거기 노상 와서 있거든... 그 내 형수는 인제 형부네 집에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이 우리 형을 소개를 해준 거여. ‘이 집이 좀 가난해도 사람은 똑떨어진다.’ 그래 그땐 뭐... 사촌형이 인제 해라는 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구, 저기 뭐야 인제 시집을 왔는데... 대강 해야지 오래하면 뭐 이거 한도 없어.... 이 못 먹어 가지고 결핵에 있었어. 우리 형수가. 그렇게 시집 오자마자 이 기침을 허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깨 ‘잘 모르겄다.’고 그랬겄지. 나 결핵 있다고 그랬겄어? 그러니까 이게 인제 먹질 못해가지구 허약해가지구선. 또 일은 여간 고되어. 농사가 많으니까 그냥 그 일꾼들 밥해주랴, 시동생들 밥해서 도시락 싸주랴, 뭐 그냥... 내가 물 길어다 주구, 내가 응, 상도 잘 못 들구 해서 내가 밥상 차려놓으면 밥상... 물 솥에 물을 데워야 세수해지. 내가 다 해거든. 군인 가기 전에. 밥 앉혀놓으면 밥 솥에다 불 때두 내가.

그러면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뭐이가 치료를, 뭐를 해여. 천상 요양원에 가는 건데. 그때 가는 건 요양원에 가는 거여.

그땐 결핵이 무서웠죠?

그럼. 그때 무서운 병이지. 그래가지구 이때 내가 군인을 갔어. 군인을 가게 돼, 내가, ‘큰일이야. 군인 가면서.’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여. 내가 다 해줬는데. 아 그래 인제 아유, 이게 요양원에 가면 끝나는 겨 우리하고 인연이 인저. 그래 그 못 가는데, 군대에서 인제 내가, 인제 가가지구 인제 집에는 일찍 왔어. 어떻게 기회가 되어 와가지구. 아 와서 보니까 형편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 그래서 5.16 혁명 난 지가 한 2년 됐는데.

그러니까 휴가 나오신 거죠?

아 외출 나왔었는데. 그래 보니까 그래. 그 당시에 인제 그... 면사무소에 인제 그 모자 보건 담당, 결핵 담당이 그때 생겼더라구. 근데 거 결핵 담당이 내 육촌 동생이여. 여잔데, 차순자라고. 그래서 “야 너”, 나 군인가기 전에 그게 없어, 몰랐거든. 근데 오니까 그래서 걔 보구 “야! 너 뻔히 알면서... 저기 우리 형수 어떻게 허느냐. 어떻게 좀 약이라도 줘라.” 그러니깨... 그 인저 “알았다.”고 그러더라구. 내가 가서 이 등록핼래니까 신상명세서를 써야 될 거 아냐. 그 인저 조사를 해가지구 들어가서 걔가 인제 약을 보내주는 거여. 인저 매주 약을 보내주구... 그때는 인저 약이, 우리나라 약이 있나! 미제 약이지. 미제 약이니까. 사람이 살라고 그랬는지 말여 그 약을 뭐 계속 먹고서는 한 1년 만에 상당히 좋아진 거여. 상당히 좋아진 거여.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이, 하도 인제 골골허니까 "너 뭐 원인이 뭐냐?"고 그랜 거여. "너 원인이 뭐, 소원이 있느냐?" 인제 어떻게 하면 자칫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소원 있으면 너 들어주마." 그런데 우리 형수가 하는 얘기가 "난 시집오기 전에 교회두 다녔었는데, 교회 나가고 싶다."구. "그게 네 마지막 소원이냐?" 그러니까 "예. 저는 소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교회 가라." 큰아버지가 장로니까. 하하.

그러면 아버님의 형님이 장로이지만 동생 되신 아버님은 그냥 교회 안 다니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제 교회 다니니가, 혼저 교회 다닐래니까 멋쩍잖어. 일요일날 교회를 가니까,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혼자 가기 미안해니까. 아랫동서 아냐. "아유 저 동서 교회 좀 같이 가자."구. "혼자 가기 미안하구. 아유 그냥 면목두 없고..." 그래 인제 우리 아버님 보구 "동서하고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우리 형수가. 그래 그냥, 오히려 안 가면 시집살이 하는 걸... 손위 동서 시집살이 해게 생겼으니까, 끌려간 거지 뭐. 끌려간 게 교회 여태 다닌 거여... 그래서 교회 간 거여.

그때 마을에 교회 다닌 사람은 몇 가구나 됐었어요? 그 할머니 나가실 때?

그때 모르지 뭐. 그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었지. 많었는데, 다 인제 이사 가구 저 지금은 많지 않어요. 동네.

그러면 인제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 형님은 안 다니시고 형수님만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지. 형수님만 다녀... 인제 그 애들은 다 다녔지. 그리구 나중엔 인저 어머니도 돌아가실 무렵엔 인제 교회 다니시구 그랬지.

그러면 그전에 인제 제사 쭉 지내시다가,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지. 제사 안 지내지.

그럼 언제까지 제사는 지내셨어요?

우리? 우리는 제사는 저기여. 지차기 때문에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구.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인제 아버님 돌아가시구 나서, 그때부터 인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지.

큰댁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인제 제사...?

아 그위 또 있어. 근데 거기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에는 그... 뭐야 신경을 안 썼어. 제사는.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인제 제사를 모시는데, 그 제사는 계속 지금까지 지내시지는 않 을 거 아녜요?

우리 형네서 지내는 거지. 형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안 해구.

형님은 인제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아 그래두 교회식으루 했어요. 형수가 교회 다니니까. 그럼. 그 제사 준비해는 사람이 교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어르신은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나? 나는 교회 지금두 안 간대니까... 지금도 교회 안 가. 나는.

지금도 안 가세요?
그럼... 하하하...

회화리 교회도 그 설립 과정에 차씨들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러던데요?
몰러. 그건.

뭐 차씨 집 안에서 거의 새우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르지. 교회 내력은 잘 몰러.

여기 차씨 집안이 많았잖아요. 차씨 집안들은 교회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차씨 집안이... 반은 다녔어. 교회.

그때 몇 가구 정도 사셨어요?
아이 그때는 거의 한... 차씨 한 17에서 20가구 정도 있었을 걸. 얼추. 많었지 그때는.

인제 그중에서...?
한 반은 교회 다녔어... 그래서 제사 지내면은... 반은 서 있구, 반은 절 해구. 교회 댕긴 사람들은 섰구,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절 해구.

그러면 뭐 이렇게 갈등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응?

교회 다닌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제사 지낼 때 서로 막 이렇게 좀....
그렇지, 인제. 가끔 인제 그, 그 신앙에 대해서 질문허는 사람이 많지. 왜 그러냐면 아마 조상 죽은 신을, 죽은 조상을 받드는 거로는 유교가 잘 받들지, 기독교이나 이 천주교인은 유교 믿는 사람만큼 못 받들어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면 어떡허느냐. 죽은 조상두 잘 모셔야지.’ 유교 믿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두 잘 모셔야지. 그래 너희 하나님만 잘 모시구, 죽은 우리 조상은 그냥 대강 해도 되는 거냐.’구. 그리구 인제 아우 나중에는 ‘있냐. 없냐.’까지 인저. 술을 취해 가지구.

아 제사 지내는 날?

술 먹으니까. 그리구 그 내가 들어봐도 그래. 그게 신이라는 건 있는 것도 같구, 없는 것도 같구.

첫째가 아들이세요. 딸이세요?
(할머니) 우리? 아들.

그러면 첫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옛날에 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인제 백일 찾고, 돌 찾고 이런 것만 하셨어요?
(할머니) 그렇지.

옛날에는 임신하면 이렇게 금기시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옛날 말이지. 뭘 금기시 해.

아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두 우리는 그런 걸 안 가렸어.

할머니 막 뭐 아무거나 막 다 드셨어요?
그렇지 뭐.

그 아이들 젖은 보통 어느 정도 먹이나요?
(할머니) 3살까지 멕였나...

인제 동생 바로 낳으면 못 먹고, 동생 없으면 3살까지요?
(할머니) 예.

근데 애는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젖은 어떻게 떼요?
(할머니) 근데 그게 애기 낳으면 또 떨어지더라구요.
제절로 떨어져. 근데 이거 끝까지 먹을라는 애두 있대는데, 우리 애들은 먹다 그냥 안 먹더라고.

막내는 오래까지 먹잖아요. 막내는 얼마까지 먹었어요?
(할머니) 걔도 많이 못 먹었어.

막내는 막 5살, 6살까지 먹고 그러던데요.
두 살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뭐. 밥 먹는 거지.

돌잔치, 아니, 아이는 몇 남매 낳으셨었요?
돌잔치가 어딨어 그 당시에.
(할머니) 둘.
그 손주 대에 와가지구 돌잔치 했지. 그때는 사진 찍어주는 거여. 첫돌 기념, 그러구서.

100일은요?
100일은 무슨 100일이여.

100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사진도 안 찍고요?
안 찍었어.

보통 100일 날 이렇게 좀 시루떡이라도 해놓고...?
아이, 없었어.
(할머니) 떡은 해줬지.

떡만 했어요? 백설기요?
(할머니) 예. 백설기... 팥단지.

팥단지 떡하고, 그다음에...
(할머니) 흰설기.

돌 때는요?
돌 때두 그거지 뭐.

돌 때도 그냥 백설기만 했어요?
그 팥단지라구 있지.

그러면 돌하고 백일하고 똑같네요.
수수팥단지.

수수수팥단지하고 백설기하고...
그렇지.

돌잔치는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 식사라도 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러지. 밥 먹는 거지 그건 그냥.

아침으로요?

그럼. 그 친족, 친 형제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뭐. 사촌도 안 불르는 거구... 집안 식구들 먹는 거여. 옛날엔 그랬어... 인제 손주대에 와가지구 인제...

근데 어르신 연세 치고는 아들, 딸 딱 둘만 낳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가족 교육을 하신 건가요?

그 우리 둘째 딸 낳을 적에, 난산을 해가지구, 난산으로 해서 더 못 난 거여.

그러면 인제 피임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피임이지.

옛날에 국가에서 가족 교회 가라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대단했지. 둘만 낳아서 기르라고.

그 둘째 따님 낳을 무렵에는 그 국가에서 막 그렇게 광고 많이 했죠?

그럼 많구말구.

근데 마을분들이 대체로 그 광고에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아니 그리구 또 가족이 많으면은 힘들다는 거는, 아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힘든 거여. 옛날 우리 속담 있잖어. 자식 많은 소 길마 벗을 날 없다구... 그래 고생한다는 얘기지. 정부에서두 자꾸 이렇게 하구. 또 맞는 얘기고 또, 그게 또 이! 지금은 더 낳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어가지구 국력이 준다구 그러는데...

자녀분들이 클 때, 어렸을 때 병치레 같은 건 안 했어요?

아 우리 큰 아이는 병치레는 안 했구, 이 딸아이가 저 병치레를 좀 했어. 어, 힘들었지.

그러면 병원은 어디로?

여기 병원이, 옛날에 무슨 송탄에 병원이래는 게 3개밲에 없었어. 저기 저 남산병원, 이갑재 병원, 또 우성병원... 우송병원이라고 있었어. 어린 애들 보는. 거기 다녔지.

남산병원은 남산터에 있었어요?

아녀. 정문.

아 정문 앞에 있고, 이갑재 병원은요?

이갑재 병원은 저기 저 버스터미널 저 지금 택시터미널.

아 국민은행 앞에?

응. 택시터미널 거기.

우송병원은요?

우송병원은 그 좌동.

인제 따님이 어떤 병치레를 했어요?

아 기력이 약해, 애가 기력이 약해가지구 이 감기를 잘 앓고 그래. 그때 그 수원 도립병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걸 들쳐업구. 근데 걔가 한 댓 살, 대여섯 살 먹었나? 근데 여기 저 우리 여기 차씨네 한의사가 있어. 한의사가 서정리에서 개원했어. 서울한의원이라구... 지금 없어... 근데 그 양반이 형뻘이여 내게. 내가 얘기를 해니까, “아이 그 애가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걸 병원에만 다니면 되느냐?”고 그러더라구. “병원에서 주사 맞고 와서 그 낫느냐.”구. 기력이 없어 기력을 보충해주야... 약 그 세 첩을 지어주더라구. 세 첩을 지어주고서.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여.” 그래. 아이 그래 그거를 인제 재탕해서 멕였어. 걔가 추운 데 잘 못 나가. 추운데를 못 다녔는데. 그 세 첩 먹구 났더니 인제 밥을 먹기 시작해. 그전에는 밥을 안 먹구 그냥... 그랬는데, 그걸 먹구 나더니, 약을 먹구 나더니 인제... 밥을 먹기 시작허는데, 그때는 연탄불 아녀? 아랫묵만 뜨듯허지 연탄불이. 거기다 요 펴 놓으면 따뜻하니까, 만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었어. 안 가거길. 더운 데를 안 가. 저 웃묵에 가서, 찬 데 가서 앉었구. 그렇게 달러지더라구. 그래서 건강해졌어.

그럼 뭐 이렇게 집에서 뭐 조약이라고 그러나요? 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해먹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이 없어.

옛날에는 민간요법 많이 했잖아요?

아이 민간요법은 많지.

옛날에 민간 요법으로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서 배 아플 제는 이 저 비행장(으로) 나갔는데 거 동네에 무당이 있었어.

저 야리 쪽에요?

그렇지. 야리래는 동네에. 그래 물 건너지. 그래 우리 어머니 거기 날 데리구 가. 그러면 그 무당이 이 배를 쓸어. 배를 쓸어 줘. 배를 쓸어주구... 그러면 또 괜찮아지는 거지 뭐여.

그래요? 그때가 어르신 몇 살 때...?

아 내가 기억에는 뭐 여섯 살 뭐 그렇게 먹었겠지. 일곱 살이나... 그 배 쓸어주구... 그러면 낫구 그러더라구. 그래도 우리 애들 자랄 때는 병원에 갔지. 그럼.

그럼 어르신 자랄 때 머리 뭐 아프거나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아이고 그전에는, 나 지금 눈을 잘 못 보는데, 그전에는 '개시바리' 라고 하는 눈병이 유행이야.

개시발이요?

개시바리라고 그래. 개시바리라고 그러는 그 눈병이 여름이면 창궐을 해. 해마다...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겨. 옛날에는 이, 지금은 타월도 제각각 쓰는데, 그땐 쪼끄만 베 조각을 가지구선 그걸로 만날 닦으니까.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옮기는 겨. 그리구 '삼슨다' 라고 눈에. 그러면 그게 희안한 겨. 이 옛날에 불을 때니까 굴뚝 여기 나는 데가 새까매여. 거기다가 뭐야 사람 형상을 그려.

굴뚝에다가요?

응. 벽에다가. 그 검으니까.

아 굴뚝, 나오는 데 그 벽...

벽이 껌으니까 거기다 그림을, 사람 형상을 그리구, 눈을 그리구. 거기다가 이 바늘을 꽂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낫는 사람이 많은 겨. 그렇게 하면 또... 그리구 내가 그 어려서부터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여. 그게 인제 우리 어머니가 바가지를 여기다 씌워. 밤에 해 지면은.

아 그러니까 눈이, 인제 눈에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눈이 잘, 그때두 안 좋았었나 봐. 그러면 바가지 씌우고선, 뭐야 여기를 때리면서, 바가지 위를 때리면섬 부지깽이로. "새나 밤눈이 어두..." 새는, 어떤 날짐승이든지 나는 짐승은 해만 지면은 죄 잘 곳으로 가는 겨. 다 그렇잖아 지금두. 어! 해만지면은. '새나 참새나 눈이 어두워서, 새나 눈이 어두워서 그러지, 사람두 밤눈이 어두워서 캄캄허냐.' 고. 여기를 이렇게 통통통통 때려.

아 새나 눈이 어두워서 그러지...

새나 밤이면은 제 집 찾아가지. 저 잘 자리로. 사람이, 사람두 이렇게 밤눈이 어둡냐구. "새눈 캄캄, 내 눈 밝다. 새눈 캄캄 내 눈 밝어" 내 눈은 밝어지리, 그러니까 이! "내 눈은 밝구 새눈은 캄캄헌 거다." 그래 동동동동 해구. 하하...

아 "새눈 캄캄, 내 눈 밝아" 이렇게 해요?

응. 내 눈은 밝구 새눈이나 캄캄. 그리구 인제 그 동동동동 두들겨... 그리고 또 인제 그 뭐야, 밤에두 그 밤똥 누는 아이가 있어. 밤똥 누는 아이 있지. 얘들은 그 외양간에, 외양간 위에 이렇게 살강이라는 걸 매여.

예. 시렁처럼.

그렇지. 시렁리라구 그래. 살강을 매는데, 닭이 거기서 자거든. 그러면 그걸, 닭이 밤똥을 누면서 자. 그러면 인제 거기 데리고 가서 또 이 "닭이나 밤똥 누지, 사람도 밤똥을 누느냐." 고...

자는 걸 깨워가지구 가가지구... 그런 것두 옛날에 내가 보고 그랬지.

만약에 상처나 부스러움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상처 나면은 그건 민간요법 약이 있는데, 이 오이풀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없어졌어. 하나 없어. 이 근방에.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흔핸 게 그거여. 이렇게 뜯으면 오이 냄새가 나. 저기 인제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이 후발지라고 생기고. 나도 이 후발지 상처가 여기 있는데...

후발지요?

응. 뾰루지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머리) 나는 건 후발지라고 그려... 그리고 인저 이런 데가 인제 생연손이라고 그래. 여가 괜히 곪아.

예. 손이요?

응. 여기가. 이 속이. 이 발이 이게...

바닥이요? 손바닥, 발바닥이요?

이런데 사이가 그냥... 그냥 여가 그냥 속이 곪고 말이야. 생연발이고 그래. 여기는.

그러면 후발지하고 생연손, 생연발...

그전엔 많이 살았었어. 그게. 그러면 이 동네에, 이 그래도 좀 그 한문 좀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 바수라고 그래. 그 째는 걸. 칼. 이게 곪으면는 째야 핼 거 아냐. 지금은 칼이라구 그러지만 옛날엔 바수라구 그랬어.

바수요?

응.

그게 어디 말인가요? 바수가?

무슨 소린지 몰러. 나두.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바수라구 그랬어. 근데 바수로 째. 근데 이게 안 들거든. 이게 숫돌에 갈은 건데두 이게 안 그어져... 인제 기운 센 사람이 이걸 붙잡어주구 그 사람이 째여. 이거를... 그런데 여간해 안 나아. 안 나으면은 인제 저기 여기 산에 가면 그 풀이 천지여. 그 풀을 이렇게 삶아가지구, 물에.

아까 그 오이풀이요?

응. 물에 오이풀을 삶어가지구 한... 한나절, 한 서너, 너덧 시간 이걸 담궈. 발에 났으면,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그 이튿날이면 꾸덕꾸덕해. 근데 이거를 약으로 치료를 핼래면은 적어두 10일 내지 15일은 또 걸려야 핸다구. 그러니깨 그 저 민간요법두 이 저 아주 특, 저기가 특효한 약

이 있더라구.

오이풀 그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들어봐? 오이풀이여. 오이 냄새가 나... 하나도 없어. 지금은.

쑥도 이렇게 상처에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쑥두 이 상처에 바르는 건데.

그 오이풀은 상처에는 안 발랐어요? 칼로 베고 이런...
  아니. 그건 담궈. 물에.

오이불이 아까 부스럼 같은 거 나는 거 말고, 생연손, 생연발이나 후발지 이런 거 말고...
  근데 발르구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잘 듣는데.

후발지는 이 뒤통수에 나는 건가요?
  그렇지. 뒤통수에. 후발지야.

그냥 이렇게 낫으로 벤 상처는 그러면 오이풀 삶은 물에 안 담갔어요?
  아 일반 상처. 일반 상처는, 이렇게 찢어지면 만날 된장 발러주는 거지 뭘. 하하하...

쑥 쪄가지고 바르잖아요?
  쑥 쪄서두 얹지. 얹기는 얹는데.

그 두드러기 같은 거 나으면 어떻게 했어요?
  두드러기 특효 약이 있지. 저기 저 식중독이지. 그게 이! 식중독인데. 지금은 인제 변소가 없지. 변소가, 화장실이 옛날엔 초가집이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짚이 썩어. 이렇게 비에 썩구 그냥. 그거를 석은 새라구 그래. 썩은 새지 그러니까. 썩은 짚이지. 그걸 좀 생생핸 놈으루, 덜 썩은 놈으루. 그거를 이렇게 인제 뭐야 한 다발 이렇게 요만큼 해가지구.

한 주먹,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구 거기다 불을 붙여. 그럼 연기가 날 거 아냐.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렇지. 지붕에서 뽑아가지구. 오래된 짚이지. 그러니깨 짚이. 햇짚이 아니구 오래된 짚이여 이! 그 연기 쐬면은 그냥 낫는 건데 뭘... 그럼. 여기 연기 쐬면은 이렇게...

잘 나아요? 그게?
  아이 금방 나은다구. 아주 그냥... 그리구 또 저기 뭐야 미나리아재래는 게 있어. 미나리아재라

는 풀이 있는데, 구안와사, 입 돌아가잖어. 그러면 그게 특효약이지 뭐야 그냥.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 풀두 하나두 없어. 지금. 아이고, 그 풀을 짓쪄. 뽑어다가. 짓쪄 이렇게. 짓찧으면 인저 그 질척질척헐 거 아녀. 근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입이 돌어갔으면은 인제 이쪽에다 붙이는 거여.

아 돌아간 반대편에다가요?

응. 반대편에다 인저.

거의 뭐 백발백중 다 낫나요?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붙이면은 너무 또 이리 와.

그래요?

응. 너무 많이 붙이면은. 그거 얼른 떼야 돼.

옛날 미나리아재라는 풀이 흔했어요.

아 흔했지. 옛날에. 또랑에 가면. 이 또랑에 가면 저 흔했는데, 지금 없어... 그리구 저 내가 아는 거는, 옛날에 이 부락에 저 애들이, 그게 병 의학적으로 산증이라고 그라는데...

산증이요?

응. 산증. 산증인데, 토산불알이라구 그랴... 근데 지금 애들은 그게 없어.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 토산불알이. 산증. 근데 그 뭐야, 이 불알이 한쪽이 크구 한쪽이 적은 겨. 불알이. 그리구 창자가 그리 나오는 수가 있어... 창자가 글리 빠지는 수가 있다구.

창자가요?

응. 그러면 그게...

그걸 토산불알이라고 그래요? 창작을 글로 빠지는 걸?

응. 탈장이라고 그러지 인제 그거. 근데 인제 탈장이 있구, 토산불알이 있는데. 토산불알은, 그저 지금은 또랑이 없어가지구 그걸 못 잡어. 장구애비라는... 장구애비라는 저기가 있어.

벌레요?

벌레지 그러니까 이!

아 물 위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요?

응. 장구애비라구 있어 그게. 그전에는 그게 흔했어. 그것두. 또랑에 보면은 그... 그거를 이렇게 구워가지구 여다 붙이면은 그게 정상으로 돼. 아주 뭐 그게, 아주 직효약이지. 다 그냥 그게.

벌 같은 거 쏘이면 어떻게 해요?

벌 쏘이면 어떻게 해? 된장 발르는 거지 뭐. 하하하...

다래끼 나면요?

다래끼, 별 약 없지. 다래끼는. 다래끼는 둬야 혀.

옛날에는 삼거리에다 이렇게 사금파리 놓고, 침 뱉고 눈썹 뽑아놓고 그런 거 하셨어요?

이 저기는, 다래끼는 옛날에 많이 났지. 그것두 영양실조에서 오는 거야. 그 곪은 자리, 거기를 눈 밝은 사람이 쪽지개루, 눈썹 있잖아 거 눈썹. 그걸 뽑으면 바로 나아. 그 곪을라구 그럴 적에 그거 잘못 건들면 눈 큰일 나는 겨 그거.

어르신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옛날 민간요법은 어르신한테 다 들었네요.

뭐 아는 것도 좀 더 많었는데, 인제 기억이 안 나.

옛날에는 인제 여자들이 임신 못하면, 지금이야 뭐 인제 불임시술을 받지만, 옛날에는 또 다른 방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임신 못 하면 옛날에 부처님 돌 갈아다 먹는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애기 못 낳으면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구. 하하하. 근데 그거 보구 임신을 돕기 위한 그 처방. 그 지금 말핸 거 마냥 뭐 어디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돌 갈어 먹는다라고...

옛날에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아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치고 이런 건 없었요?

안 했어요. 그런 거.

할머니들이 이렇게 점치고 하잖아요. 쌀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건 우린 안 해봤어. 그 저기 저 상내천리라고 허는 그 조변호사, 조변호사 댁인데. 옛날에 그 뭐야 향나무, 향나무가 이렇게 굵어. 그렇게 몇 길, 한 서너 길 이렇게 높어. 높은데, 그 집이가 아들이 8형제여... 그래서 그 집의 그 향나무를 짤러다 삶어 먹으면은 임신을 허고 아들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수난을 겪었어. 어. 그래가지구 결국은 죽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은 없어.

잘라다가 삶아 먹으면요?

응. 하두 짤러다 먹어서. 그 저 조변호사 댁인데, 그 집이 아들이 8형젠데. 그래 그거 베다 먹

으면 임신허구... 죄 가죽 뱃겨다 먹어가지구. 가죽 뱃겨다 먹어서 죽었어. 그 밤에 뱃겨가는 걸 어떻게 알어. 그 지키나? 어떻게 알어. 여기서는 그런 저기가 있어... 근데 내가 한가지 그 저 아까 제사 지내는 데서. 인제 그 우리 집안의 전통 얘기를 내가 인제 하나 허는데 인저. 우리 당숙 어른이 아주 대단한 양반이야. 유교 사상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명심보감, 소학을. 한문책 명심보감, 소학. 명심보감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선생님이시니까.

예.

근데 소학이래는 책은 수신해는 책이야. 그게, 소학이. 그 내용이 전부. 보면은 아주 그 사상이 투철헌 양반이야. 내가 말을, 이렇게 사회생활 허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좀 많이 좀 해보고 그러지. 많은 사람들 알으니까 내가 뭐 그 고덕, 송탄, 진위, 뭐 서탄은 이 면이니까. 이 근처 사람들은 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핸다는 사람, 했대는 사람은 나 몰르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 대화를 이렇게 해보구 해두 우리 당숙만큼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은 못 봤어.

5촌 당숙이요?

아주 그야말로 삼단 논법에 의해서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딱 떨어지게 해는 양반이야. 우리 당숙이.

아까 큰아버지께서 한학자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당숙두 대단해. 근데 우리 그 당숙은 들은 것두 많구, 말씀은 잘하시는데, 아주 내가 지금 보면은, 글씨를 못 써. 악필이야. 악필... 그렇게 말씀을 잘해두 이 연필만 쥐면 덜덜덜덜...

원래 천재가 악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필만 들어. 그래서 무슨 집안에서 무슨 뭐를 쓴다든지, 뭘 작성하면 내가 경환이니까, “얘! 경환아 경환아!”

어르신은 잘 쓰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잘 쓰지 못해도 웬만큼은 써요... “얘 경환아 네가 와서 써라.”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구, 들은 게 많은데... 우리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들은 것두 많은데, 글씨는 달 쓰시는데, 말 표현을 못해 또. 그 장로 허시는 부. 말 표현을, 잘 안 돼. 글씨는 잘 쓰시는데. 글씨는 저 아주 석봉체루. 한호 석봉체루 쓰시는데, 잘 쓰셔. 그 우리 당숙네가 옛날에 엄청 부자야. 논이 한 4만 평 정도 갖고 있었어. 왜정 때. 이 근처에 부자, 최고 부자지. 그래 그 집도 인제 그 옛날에 일루, 비행장으루 건너댕겼어. 냇갈. 배 타고 건너댕겼으니까. 위로. 그러니까 뱃사공이 해 지면은 노를 가지구 집으로 가는 거여. 저희 집으루.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배를 타구 건너가야 되는데 뱃사공이 없거든. 그러니까 인제 바로 그 길 너머에, 뚝 너머에, 성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 너머에 우리 당숙네 집이야. 요기 바로.

저 적봉리요?

아니. 요기 우리 동네 요기.

여기 성이 있었어요?
아니 저 물 막는 제방 둑. 그래 먼저두 구분성이래는 게, 그게 물 막는 제방이여... 그런데 그 배를 타러 가 보니까... 그 여가 300메타야. 모래가.

그 배터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요기여. 요기.

여기 소금나들이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소금나들이 있지.

소금나들이가 어디예요?
이짝(서쪽) 아래여. 그건. (지도를 보며) 우리 집이 어디여? 여기래매... 지금 배터가 여기쯤 있었어... 여기여. 이게 모랜데 300메다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터덜터덜 대고 가보니까 배만 있거든.

여기가 뱃터예요?
그럼.

근데 어떤 분은 또 여기 여기가 뱃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아 여기 회화리 교회로 간 거는 그 후에고요?
응. 거기가 또 배턱이 있었구, 여가 배턱이구 그래.

배턱이라고 그래요?
응. 배턱.

이것이 나중에 여기로 간 거예요?
응. 여기도 있었구, 여기도 있었구 그래.

회화리 교회가 여기인데요.
그러게 여기쯤 있었어. 여기. 건너가는 게.

교회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교회 밑창이여. 바로... 그 교회서 한 50메다 아래... 그래 이 길손이 가다가 배를 탈래니까 사람이 없거든. 뱃사공이. 그니까 우리 그 큰댁은 사랑방이, 사랑이 둘이여. 하나는 머슴 자

는 방이고, 하나는 우리 그 5촌 당숙 그야말로 그 손님들 접견실이여. 하나는. 그래 인저 머슴은 노냥 있으니까. 사랑방에. 그래 인저 길손이 문을 뚜들기구선, 그래 나가보면, 머슴이 나가보면.... 그 길손이 “아이 사실 나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이 뱃사공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어디 집이냐?” 고 이러더라구. 그래 “저기 집” 이라구, 어디라구 일러줘. 그래 이 사람이 가는 거여. 그 배 부리는 사람이 거칠지. 다. “너 같으면 임마 지금 이 추운데 임마 배 부리러 가느냐?” 고. 이 자식이 이 자식 어쩌고 어쩌고 인저 이래는 겨. 호통을 치니까 도로 와가지구 하루저녁 좀 묵어가야겄다고. 머슴 한테. 그래 인제 머슴이 우리 당숙, 안에 들어가서 “오늘 길손이 하나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아 거 모셔야지!” 노상 여기 사람 있는 거여 그냥. 배를 못 타가지구. 밤이면. 그래 인제 그러고는, 또 밥까지 해줘야 돼야.

그 당숙네가 어디였어요? 집이?

그 집두 옛날 집인데. 헐었어.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한 여기쯤 되지 뭐. 여기쯤 된다고 봐야지... 아이 그 인제 뭐야, 노냥 그 배 못 탄 사람이 와서 자구. 밥 얻어먹구 그래는 거여... 인제 하루는 그렇게 저 배를 못 타가지구 들어와서 인제 사랑방에서 그러구 인제 있는데, 인제 “저녁이나 먹었느냐?” 고 그러니까, “아직 안 먹었다.” 구, “못 먹었다.” 구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저 길손이 저녁을 안 먹었댄다.’ 구. 그러니깨 당숙이 “그러냐” 고. 그래서 인제 심심해서 인제 사랑에 나가 보니까 그 있어. 그래서 “어딜 가는데 그러느냐?” 구 그러니까, ‘여기 어딜 가는데, 평택 거기쯤 가는데 배를 못 탔다.’ 구. 아이 “그러냐.” 구. 그래서 자고 내일 가라구. 그래 ‘알았다.’ 해구 저녁 내오라고, 저녁을 못 먹었댄다구. 그랬더니 안에서 인제, 그땐 식모가 있었어. 내가 어려서. 그 식모가 인제 밥을 해내와서 인제 주니까, 그 사람이, 배 못탄 사람이 멀건히 들여다 보고 있더랴. 밥을. 아 그래 ‘아 왜 먹지, 안 먹느냐?’ 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이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그래서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배를 못 타 못 가서 여기 밥을 보니까... 잠깐 절이래두 한 번 하구, 이따가, 뒀다가 12시에 절이래도 한번 하구 먹어야 할까 보다.’ 고 그러더래. 우리 당숙 보고. 그러면 ‘어이 밥 먹으라.’ 고. ‘내가, 아 일식 삼찬이면은 제사 지낸다는데, 아 내가 일식 삼찬 못 해주겄느냐.’ 고. ‘어여 먹으라.’ 고 그러니까. 아이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인제 ‘어이 먹으라.’ 해서 먹구서 인제 한 12시가 돼 가지구 인제 그 제사밥이 나온 거지. 그때 그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 거기 사랑방에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사를 지내구 나서 인제, 뭐야 더 자시려면 더 자시라 그러구. 인제 제사 지내라 그러구. 인제 우리 당숙 어른은 안으루 들어오지. 안채루. 안채루 들어오니까, 그때 인제 우리 그 큰할머니지. 우리 당숙의 어머니지. 그래 ‘어머니 주무시느냐?’ 고 그러고 인제 인사를 허니까, 편히 주무시라구, 왜 그렇게 안 주무시느냐구. 아녀 이 사람아. 지금 자다가 깼는데, 우떤 할머니가 ‘참 잘 먹었다.’ 구. 하얀 노인네가 ‘아이구 참 오래간만에 한번 참 밥 잘 먹었다.’ 구, ‘잘 얻어먹었다.’ 구 그래드랴. 그 우리 할머니가. “아니 우떤 할머니가, 나 죽으려나 보다 얘!” 그러더랴. 우리 할머니가 이! 아 우짠 하얀 노인네가 ‘잘 얻어먹었다.’ 구, ‘감사하다.’ 구 그 절을

허니. 그래서 깼다 이거야.

제사 지내는 시간이네요?

응. 아 그래서 닭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구.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꿈에 나타난 노인네가 이! 어떻게 하관이 어떻게 생기구... 어머니가 인제 말씀을 허시니까, 사랑방에 도로 나온 거여. 우리 당숙이. 그러니깨 제사를 다 지내구 인제 앉었더랴. 그래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채에서 그 어머니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그림이 나오거든. 형상이. 그래서 우리 당숙이 제사 지낼 때마다 그래.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 신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사는 꼭 지내야지. 내가 이런 경험을 허고도 어떻게 제사를 소홀히 허느냐!"

당숙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병자 호자여... 그 양반이 그래가지구 제삿날은 절대 참석을 해야지, 안 해면 안 된다구... 그런 저기두 있어요. 우리 집안네. 그래서 제사에 꼭 참석해라고.

VI.

현덕면
구술로 본 평택 여성의 삶



양선아

여 백

구술로 본 평택 여성의 삶
— 현덕면 8인의 여성의 구술사 —

양선아 (전북대학교 쌀 · 삶 · 문명연구원)

머리말

『구술로 본 평택 여성의 삶 — 현덕면 8인의 여성의 구술사 —』는 평택문화원의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사업 과정에서 수집한 구술자료 중 평택시 현덕면에 거주하는 여성 8인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인문지리〉와 〈구술조사〉로 구성되었으며,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을 통해 다량의 구술자료가 수집되었다. 마을의 변화상을 생활문화의 차원에서 조사하여 정리한 〈인문지리〉 작업은 제한된 조사 기간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제보자 선정도 대개 마을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술조사〉 작업은 이와 같은 〈인문지리〉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별도로 기획된 구술자료의 수집 · 정리 작업을 통해 마을 내에서의 상이한 경험과 기억을 들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수 포함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사업에 참여했던 필자는 필자가 조사했던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방 이후 ~ 1960년대 농촌 마을의 공동 활동과 공동체 감각의 변화 —평택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2022, 『실천민속학연구』 39호)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분석 자료는 필자가 조사 · 정리한 〈인문지리〉 편이었으며, 〈구술조사〉 편은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특히 아쉬웠던 것은 평택의 여러 농촌 마을에서 만났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넣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수집한 구술자료 속에는 부녀회나 모내기 작업반 등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험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가 여성들이 마을의 공동 활동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모습이 누락된 마을상을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평택 농촌 여성들의 구술사를 별도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남기고 싶었다.

이미 보고서에 수록된 〈구술조사〉 자료를 재정리한 이 작업은 녹취록 형태의 구술자료를 가공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에 실린 〈구술조사〉 자료는 구술 과정을 풀어쓴 녹취록 형태로 되어 있다. 구술 과정의 전면적인 녹취는 1차 자료로서 중요하지만, 구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가 구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원자료에 해당하는 녹취록 형태의 구술자료의 접근성 및 학술적 · 대중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술 녹취록에 대한 재편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필자가 참여했던 현덕면 마을조사 중 생애 이야기가 비교적 충실하게 조사된 8인의 여성 구술자료를 뽑아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녀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출생에서부터 혼인 전, 결혼과 혼인 생활로 크게 구분되나, 개인에 따라서 생업활동이 부각되기도 하고, 마을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개인의 생애

에 대한 구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술 주인공들이 거주하는 마을 명은 밝히지 않았으며, 인명은 가명으로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8인의 구술 주인공들은 1920년대 후반 ~ 1930년대 태생으로, 일제 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경제개발 시기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생애사로 수집된 자료가 아닌 까닭에 각각의 삶의 이야기들은 전체 생애를 다루고 있지 못하며, 파편적이다. 8인의 여성의 부분적인 생애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이야기가 근현대 격변기를 살아온 평택 농촌 여성들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글 문장이 될 줄 알았는데 평생 바느질을 하고 있다
한순길 (1927년생)

낮에는 여맹에 다니고 밤에는 지하공작단 하느라 맘고생이 심했지
이진수 (1929년생)

처녀 시절에 양재학원에서 재봉질 배워서 그걸로 돈도 벌었지
정인숙 (1933년생)

남편 죽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도 팔고 생선도 팔고
이옥희 (1931년생)

애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지게 짊어지고 장리쌀 얻고
정순택 (1936년생)

부녀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 여자들끼리 서로 사귀게 되고
윤봉열 (1937년생)

내가 산 생각하면 기가 막혀 말도 잘 못 하겠고 이렇게 눈물이 나
홍정화 (1936년생)

처녀 적부터 맨드라미 심어서 시집와서도 그 씨앗 받아다 심었다
박순희 (1932년생)

글 문장이 될 줄 알았는데 평생 바느질을 하고 있다
한순길 (1927년생)

한순길씨는 평택시 오성면 출신으로, 1927년생이다. 친정 동네는 청주한씨 집성촌이었다. 종손인 큰댁에 있는 문중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웠으며,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익혔다. 일본군 위안부로 모집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열여섯에 현덕면 경주김씨와 결혼하였다. 풍양조씨인 친할머니로부터 수의 짓는 법을 배워서, 동네에 상이 나면 수의 짓는 일을 도맡아서 해왔다. 한순길씨 인터뷰는 2015년 9월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출생 ~ 혼인 전

친정은 평택시 오성면 ○○리 청주한씨 집안이다. 청주한씨들이 대성해서 마을에 오륙십 호가 모여 살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씨네가 종도 두고 머슴도 두고 살았다. 형제는 일곱 남매로, 딸이 다섯 있었다. 나는 딸 중에 넷째였다.

큰아버지가 종손이었는데, 우봉산 밑창에 집이 있었다. 우리 문중에서 큰아버지 사랑에 훈장 선생님을 모시고 서당을 앉혔다. 동네에 소학교가 없어서 여기에서 동네 아이들이 다 한문을 배웠다. 오전에는 딸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아들들을 가르쳤다. 훈장 선생님은 큰아버지 댁에서 살았다. 공양이라고 해서 우리 문중에서 선생님에게 쌀을 줬다. 또 아이가 천자문을 다 떼면 책씻이라고 해서 선생님에게 의무적으로 옷 한 벌과 함께 떡과 술을 드렸다. 내 사촌들은 논어, 시경, 서경까지 다 배운 이들이다.

큰아버지네는 잘 살아서 종도 여러 명 있었고 머슴도 따로 두었다. 할머니들이 종들이랑 머슴들이 돌아다니는데 딸들을 어디 문밖에 내놓느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나도 자랄 때 문밖에 나가지 못했다.

친할머니가 딸들에게 예절을 많이 가르쳤다. 어른 앞에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어른 진짓상 차릴 때는 반찬을 어떻게 놓고 수저는 어떻게 놓고 이런 걸 다 가르쳤다. 손님이 집에 와서 밥을 잡수고 가면 그 집이 얼마나 예절을 잘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할머니가 고종 양어머니 집안인 풍양조씨 집에서 시집을 오렸다. 그래서 딸들을 엄청 가르쳤다.

나도 문중 서당을 다녀서 다섯 살에 천자문을 뗐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가서 선생님 앞에 데려다 놓았는데 선생님이 책을 펴고 “하늘 천, 따 지” 하고 짚으면 내가 책을 보지도 않고 다 외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너무 어릴 때 공부를 하면 머리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열 살 넘어서 다시 가르치라고 해서 집에 있어야 했다. 집에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바느질을 따라 했다. 어리니까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많이 찔러서 곪기도 많이 했다. 어머니가 때리기까지 하면서 바느질을 하지 못하게 말렸지만, 나는 틈만 나면 바느질을 했다. 어머니가 높은 곳에 반짇고리를 올려놓아서 내가 손댈 수 없게 했는데도, 내가 이불 베개 다 쌓아놓고 그것을 꺼내려고 하다가 쌓아놓은 이불이 쓰러져서 팔이 부러졌다. 우리 집에서 병원이 있는 평택 읍내까지 70리 떨어져 있어서 병원을 갈 수 없었다. 그

래서 시골에 다니는 돌팔이 노인네가 버드나무를 깎아서 부러진 팔을 붙잡아 매줘서 얼마 동안 그렇게 다녔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병신이 되었다. 내가 극성맞아서 어른들이 말려도 몰래 바느질을 해서 아홉 살에는 내 저고리까지 만들었다. 그러자 우리 할머니가 나를 보고 글 문장이 될 줄 알았는데 바느질을 한다고 했다.

아홉 살 때부터 내 옷은 내가 만들어서 입었고 누가 해주는 옷은 입지 않았다. 이 나이 먹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평생 바느질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디를 다녀도 바늘과 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

다섯 살에 천자문을 뗀 뒤 글공부를 하지 않다가 열 살 되고 다시 배우려니 따라가기 힘들어서 한문 공부는 더하지 못했다. 한글은 집에서 손위 오빠에게 배웠다. 시집와서는 시댁에 식구가 많고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 더 배울 수 없었다. 내가 배웠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집에서 바느질만 하다가 열여섯에 혼인을 했다. 우리 오빠들 올케들이 있어도 어르신들 시중드느라 필요한 바느질을 제대로 해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당숙들 옷 바느질을 내가 많이 했다. 시집가기 전날까지 바느질을 했다. 내가 시집을 가게 되니까 우리 올케들이 아가씨 보내면 우리 집 바느질은 누가 하느냐고 걱정을 했다. 혼인할 때 신랑은 나보다 두 살이 많은 열여덟 살이었다. 그때가 왜정 말기 대동아전쟁 때였는데, 지금은 위안부라고 하는 정신대에 내가 평택군에서 제일 먼저 뽑혔다.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당숙들이 사랑에 앉아서 논의를 하고 얼른 임자를 찾아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서둘러서 여기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중신은 우리 시할아버지 따님 사위가 섰다. 이분이 만주에 가서 살았는데, 소련놈들이 조사를 하니까 도망을 쳐서 우리 친정 동네 외떨어진 옹달집에 와서 살았다. 이 분이 많이 배운 학자여서 큰아버지 서당에 자주 놀러 왔다. 우리 집이 큰아버지 집하고 가까웠는데, 혼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분이 서둘러서 중신을 섰다. 친정에서는 양반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시댁을 알아보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선을 보러왔다.

혼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시집보내면 죽어버린다고 했다. 우리 친정 논 가까이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 빠져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당장 가서 죽으라고 야단을 했다.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집을 가는 것이 싫어서 시어머니가 선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 울타리 밑창에 가서 숨어버렸다. 할머니, 큰어머니, 어머니 모두 나를 찾는다고 야단이었는데, 숨어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바로 그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러 온 것이라고 하니 한번 보자 하는 생각으로 입었던 옷 그대로 만났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그냥 좋다고 하고 가시고 난 뒤, 얼마 없어서 혼인 날짜를 잡고 사주가 왔다. 사주를 받아야 혼례를 올릴 수 있었다. 혼인 날짜까지 정해지니까 어린 맘에 시집간다는 것이 지옥 같았다. 남의 집에 가서 살 자신이 없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남편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끌려오다시피 시집을 왔다.

혼인과 결혼 생활

지금 옛날 육례 지내는 것을 보면 형식적이고, 옛날 지내던 것하고 달라서 아쉽다. 신랑이 신부 집에 올 적에는 신부 동네 동구 바깥에 사채[사처]를 잡아주고 음식을 대접했다. 여기에서 신랑이 준비하는 동안 사돈 친척들을 상면해서 봤다. 신랑이 대례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신부 집에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동아 던진다고 짚 꾸러미에 재를 묻혀서 던져서 신랑이 홀랑 뒤집어썼다. 신랑이 재를 떨고 청에 들어와서 전안을 드리면 신부 어머니가 치마를 벌려서 기러기를 받고 방에 있는 시루 밑창에 갖다 놓았다. 그러고 나서 대례청에서 대례를 지냈다.

대례 때 입었던 원삼은 친정 문중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친정 문중에서 원삼과 도포, 관복 등 혼례 때 입는 옷을 갖추고 있었다.

시집올 때 신부가 입는 옷은 친정에서 다 장만해서 가지고 가야 했다. 나는 치마저고리 스무 개, 버선도 한 이삼십 켤레 가지고 갔다. 딸들이 있는 집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입을 옷 준비를 해두어야 했다. 그래서 시집 한번 가려면, 하인이 열댓 명, 이십 명 따라가고, 신부가 타는 가마도 네 명이 메야 하고 장롱 지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이불 보따리에 옷 보따리 져야지, 폐백상자 져야 하지, 이 사람들이 줄을 지어 신부 가마를 따라가니 대장관을 이루었다.

갑자기 시집오고 나서 고생을 엄청 했다. 대례를 올리고 신랑이랑 열흘을 같이 살았어도 신랑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열흘이 지나고 신랑은 일본에 갔다가 이 년 후에 돌아왔다. 남편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 대례 지내고 겨울을 나고 나는 시집살이에 들어가서 신랑이 없는 동안 시집살이를 엄청 했다.

시집은 부자라고 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살림을 잘하지 못하고, 친정에서 보던 거랑 풍속이나 문화가 사뭇 달랐다. 시집올 때 종을 데리고 왔는데, 시댁에서 받지를 않았다. 종 한 명을 두려면 방을 따로 줘야 하니까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나랑 같이 온 종을 내쫓아서 돌려보냈다.

신랑은 오남매 중 맏이였다. 시부모에 시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았는데, 시동생까지 있어서 대식구였다. 시할아버지는 내가 바느질도 잘하고 잘 모시니까 나를 아끼셨다. 시어머니는 바느질도 못하고 살림을 잘하지 못했는데 무척 무서웠다. 신랑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놈 본다고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욕을 하고 구정물을 통에 가져다가 내 머리에 끼얹기까지 했다. 이렇게는 더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할아버지께 친정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왔다. 친정이 우봉산 밑이니 우봉산만 찾아가자 생각하고 길을 헤매다 친정집에 도착했다. 밤이 다 되어서 친정집에 갔는데, 친정아버지가 출가하면 그 집 식구인데 당장 돌아가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그 밤에 나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갔다. 중간에 디딜방앗간에 들어가서 쉬는데, 친정어머니가 시댁에서 대문 열어주면 무조건 들어가고, 다시는 친정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새벽에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대문을 열어놓았다. 내가 부엌에 가서 밥을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다시 야단을 하는데, 내가 아침밥 하고 사랑에 조반 갖다드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다시 나가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그렇게 나를 미워해서 시집살이를 시켰다.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으나 친정어머니를 생각

해서 참고 살았다.

신랑이 돌아오고 나서는 맘이 편해졌다.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어서 나에게 참 잘해줬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살 수 있었다. 시부모들이 난리를 쳐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두둔해주었다. 내가 열아홉에 큰애를 낳았는데, 그때부터는 식구들이 아이 자라는 데 온 신경을 써서 내가 잠을 자든 밥을 퍼다 먹든 일절 말을 하지 않아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시어머니도 나를 며느리처럼 대해주고 맨날 손자를 업고 안고 그렇게 손자를 아꼈다. 그러다 큰애가 두 살 먹던 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스물한 살에 시할아버지에 시동생들까지 있는 큰집 살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보다 네 살이 어렸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생전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옷 곱게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셨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름 만에 새마누라님을 얻어서 들어오면서, 열다섯 살 먹은 아들과 아홉 살 먹은 아들, 이렇게 둘을 같이 데리고 왔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가, 안 되겠는지 집을 사서 나가셨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장 담가서 대고 시아버지 빨래 수발을 다 들었다. 사시던 마누라님이 다시 나가고 시아버지가 다시 부인을 얻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재산도 탕진하고, 그 일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웃 할머니들이 나한테 시아버지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돌아가신 분 욕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고 말았다. 시아버지가 예순두 살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신도 며느리한테 미안했는지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시할아버지는 몇 해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수발을 내가 다 들었다. 시할아버지가 똥오줌을 싼 자리를 십 리밖에 있는 벌우물에 가서 빨아왔다. 방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말린 쑥을 문 앞에서 태워서 방안에 연기를 피웠다.

남편은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사람을 두고 정미사업을 하다가 8.15 되고 나서 경찰전문학교에 다시 들어갔다. 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이랑 도 경찰국에 다녔다. 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떨어져 지냈다. 중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평택에 이 년 정도 나가서 산 것을 제외하고는 시집오고 계속 여기에 살았다.

수의장이 되기까지

수의를 만드는 법은 친정 할머니에게 배웠다. 우리 할머니가 왕비 친정 집안이어서 예법을 잘 아셨다. 그래서 딸들한테도 예법을 똑바로 가르쳤다. 처음 수의를 지은 것은 시집온 이후에 큰아버지 수의를 지을 때였다. 큰아버지가 환갑이 되던 해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후에 수의를 지었다.

수의 한 벌을 짓는데 여섯 명이 필요했다. 초상이 나면 동네 여자분들이 모여서 한쪽에서는 재단을 하고 한쪽에서는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다. 수의를 만들 때는 벙어리처럼 말도 하지 낳고 서로 조심하면서 일을 했다. 수의를 만들고 삯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바느질을 잘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르면 가서 수의를 만들었다. 동네에 상이 나면 수의 짓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 내가 수의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오래 사나보다 그런 생각도 든다. 평생 수의를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장인으로 지정되었다.

낮에는 여맹에 다니고 밤에는 지하공작단 하느라 맘고생이 심했지
이진수 (1929년생)

이진수씨는 충남 천안시 수신면 출신으로, 열세 살에 외가 동네인 평택시 서탄면으로 가족이 이사를 왔다. 서탄면에서 육학년을 마치고, 서울에서 양재학원을 다녔다. 고모의 도움으로 대전에서 양장점을 개업하려고 할 무렵 모친의 병환으로 서탄 집으로 돌아왔다가 6.25를 맞게 되었다. 북한군 점령기에 여성연맹과 지하공작대 활동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다. 23세에 현덕면 함평이씨와 혼인하였다. 이진수씨 인터뷰는 2015년 가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출생 ~ 혼인 전

천안 수신면 석장리에서 태어나서, 열세 살에 서탄면 ○○리로 이사 갔다. 친정집 원 고향은 북면인데, 철마가 지나가면 광주이씨가 망한다고 해서 거기 사는 광주이씨들이 함께 천안으로 옮겼다. 기차를 철마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 열다섯 살 때 일이었다. 우리 광주이씨가 병조판서만 팔 판서가 나온 집이라고 했다. 석장리는 면 소재지여서 백 가구가 넘게 살았다. 그때는 참의라고 했는데, 동네에 오참의, 윤참의, 이참의라고 참의댁이 세 집 있었다. 우리가 이참의댁였다. 그리고 민대감네라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일본하고 민가하고 '저거 해서' 대감이 된 집이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면에서 대소사 보는 일을 했다. 서탄면에는 외가가 있었다. 홍참봉댁이라고 했는데 잘 살았다. 외삼촌은 고려대학을 나와서 서탄면 면장을 했다.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없어졌다. 우리 아버지는 서탄면에서 면의장을 했다. 아버지는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큰아버지는 서울 중앙감찰위원회 총무과장을 하셨고, 작은아버지는 한국은행에 다니셨다.

형제는 언니와 나뿐이었다. 언니는 나보다 세 살이 많았다. 아들 본다고 아버지가 작은마누라를 들였지만 자기가 병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어서 아들을 못 봤다. 언니는 서울 중학교에서 수신을 배워서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부인양성소에서 염소와 양을 키우고 털을 깎아서 짜는 것까지 배웠다. '그거[위안부]' 가려고 일찍 시집을 갔다. 언니 시댁은 안성 수운면에 있는 민씨댁이었다.

나는 석남면에 있는 석남학교를 다녔다. 수신학교는 나중에 생겼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개울을 세 개나 건너야 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짚신을 삼아 본 적이 없어서 게다를 신고 학교를 다녔다. 눈이 오는데 게다를 신고 쪽다리를 건너가려면 너무 힘이 들었다. 우리 반에 칠십 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스무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는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많이 안 보냈다. 학교에 가면, 일본 자기네가 이겼다, 필리핀 어디 어디 다 함락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있으면 눈이 오는데 게다짝을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다교레쓰" 하라고 시켰다. "하다교레쓰"는 국기를 들고 행렬을 하는 걸 말한다. 겨울이면 산에 가서 토끼몰이를 해서 토끼를 잡은 다음 그 가죽을 벗겨서 공출을 했다. 깡통 같은 고철도 모았다. 그때는 고철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이라,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숟가락 부러진 거나 호미 부러진 거라도 가지고 가야 했다. 아침에는 '조까이'라고 해서 애들 훈련시킨다고 조회를 했다. 한번은 조회를 하는데 내가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거기에서 병원을 가려면 사십 리 떨어진 천안읍까지 나와야 해서 목탄차를 타

고 갔다. 병천이 유관순네 동네인데, 수신면에서는 병천 아우내장터로 장을 보러 다녔다. 우리 아버지는 면사무소 대소사를 하면서 학교 후원회장을 했다.

열세 살에 천안에서 서탄면으로 이사를 와서 육학년을 다녔다. 여기는 사학년만 있는 학교였는데, 내가 왔을 때 처음 육학년을 만들어서, 먼저 졸업한 사람들이 육학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육학년에 애 아버지도 있었다. 선생 하나가 육학년 애들, 사학년 애들, 두 반을 가르쳤다. 중학교를 가려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해서 선생님이 사는 요만한 방에 같이 가서 공부를 했다. 선생님도 개인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여름 방학에 장질부사에 걸리게 되었다. 그 동네에 병원이 없어서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했다. 굿을 하는데 내가 듣기 싫다고 울고 펄펄 뛰면서 못하게 하니까 귀신이 싫어해서 그러는 거라고 귀신 나가라고 징을 더 두드렸다.

이듬해 봄에 서울 동덕에 시험을 보러 갔다. 큰아버지가 서울역 뒤에 있는 봉래동에 사셔서 그 집에서 묵고 혼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봉래동에서 동대문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 우리 사촌 언니하고 육촌 언니는 숙명을 다녔다. 언니들이 입학할 때는 입학시험으로 구두시험만 보고 신체검사를 했다. 동덕 구두시험에서는 나한테 대동아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사촌 언니와 육촌 언니가 간 숙명은 산수시험이 없었는데, 동덕은 별안간 산수시험을 봤다. 내가 장질부사를 앓느라고 공부를 못한데다가 산수시험까지 있어서 시험에 떨어졌다. 구두시험을 보고 신체검사를 하는데 옷을 싹 벗겨서 보따리에다 싸놓고 드러누워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옷을 벗으면서 빤스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뒀는데, 어디로 빠졌는지 잃어버려서 돌아올 때는 봉래동까지 전찻길을 따라서 걸어서 왔다. 동덕 떨어지고 나서 어머니 육촌 오빠가 성심여고에 넣어 준다고 원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큰딸 학교 보낸다고 없으니, 막내딸은 자기 옆에 더 둔다고 올해는 안 보낸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 노인네여서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어머니가 꼬셔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작은아버지네 살면서 양재학원을 다녔다. 작은아버지는 봉래동에 사시다가 삼청동에 더 좋은 집을 사서 살았다.

아버지는 작은마누라를 얻어서 서울에서 살고 나는 서탄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다. 대전에 당고모가 사셨는데, 내가 집에서 놀기도 뭐해서 양복점이라도 낸다고 혼자 대전에 갔다. 당고모부는 대전세무서에 다니셨는데, 당고모 집에 방도 있고 재봉틀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양복점을 하라고 해서 대전에 갔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고 6.25가 나서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접어야 했다.

대전에 가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통학차를 타고 서정리까지 가고 이십 리를 걸어서 우리 동네에 가니까 우리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굿을 한다고 불이 환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겨우내 앓고 봄에 일어나셨다. 봄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일꾼을 두어야 해서 땅을 좀 팔았다. 그런데 6.25가 나서 서울에서 아버지가 작은마누라랑 작은마누라 애들이랑 우리 외사촌 공부하는 애들, 큰아버지네 식구 다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지냈다. 그래서 농사지을 일꾼을 얻는다고 땅을 팔아서 만든 쌀을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말았다.

6.25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아버지가 면의장이고 외삼촌이 면장를 지내서 빨갱이들이 붙잡으러 왔다. 우리 외갓집에서 제정 때 강습소를 열어서 그 근처 없는 애들을 다 가르쳤다. 나도 초등학교만 나와서 국문도 잘 모르고 한문도 잘 몰랐는데 거기에서 한문을 배웠다. 강습소에 다녔던 애

들이 다 빨갱이였는데, 빨갱이들이 우리 외삼촌을 붙잡으러 오니까, 외숙모가 “강습소 선생하면서 당신들 가르쳤는데, 저렇게 아픈 데 데려가느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눈물도 있고 피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픈 면장님을 모셔 가느냐.”하고 데려가지 않고 국민회장 하는 외삼촌 당숙만 데리고 갔다. 아침에 붙잡아가서 밤새도록 두드려 패고 돌려보내니 식구들이 똥물을 퍼서 먹였다.

여맹에서 젊은 여자들을 데려간다고 해서, 외삼촌이 다른 애들이 가면 그 물이 드니 나랑 나보다 나이 덜 먹은 이모 둘만 다니라고 해서 여맹에 들어갔다. 우리 옆 동네 남자가 아주 빨갱이여서 날마다 그 사람 뒤를 따라 서탄면사무소에 갔다. 그때 일 기억나는 게 천지다. 국도가 절단났는데, 차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걸 복구해야 한다고 길 고치러 다니고, 훈련받고 난리였다. 여맹만 다녔으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텐데, 경찰들이 군인 갔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몰래 지하공작단을 조직했다. 거기에 여자들이 여섯 명 들어갔는데, 나도 포함되었다. 낮에는 여맹에 다니고 밤에는 지하공작단 하느라 맘고생이 심했다.

여맹에 다닐 때 보국단원을 뽑아간다고 우리보고 뽑아오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함부로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 내가 강습소 한문 선생한테 가서 조카딸을 데려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 아이는 나랑 한동갑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댔던 것은, 그 아이가 가는귀가 먹어서 뽑혀서 가도 퇴짜를 맞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선생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다행히도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한 셈이 되었다.

라디오에서 인천 상륙에 성공하여 9.28 수복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외숙모가 국군 환영 삐라를 잔뜩 쓰고, 여자 공작대원들이 밤에 그 삐라를 들고 온 동네에 싹 붙였다. 외숙모가 붓글씨를 잘 썼다. 삐라를 붙이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일로 붙잡힐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가 팔월 추석 전이었다.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모하고 나하고 같이 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다. 몸을 숨기기 위해 둘이 색시처럼 머리를 올리고 긴 치마를 입고, 지금 나가면 수수밭에서 잘지 어디에서 잘지 모르니까 오바를 싸서 장사꾼같이 이고 양감면 쪽으로 갔다. 서탄면에서 황구지천을 건너면 바로 화성 양감면이다. 나룻배를 타고 황구지천을 건넜다. 나룻배는 우리 외갓집 배였다. 천을 건너고 양감면 산에 올라서서 우리 동네 쪽을 보니 동네가 사람들로 하얬다. 조금 있다가 우리 외사촌 언니가 쫓아와서 빨갱이들이 우리 잡으러 하얗게 들어오니까 “안집 색시 말이냐? 그저께 나가서 안 들어왔다.”하고 또 우리 집으로 오니까 큰어머니가 “안집 색시 말이냐? 그저께 나가서 안 들어왔다.”라고 둘러댔다고 알려줬다. 조그만 늦게 출발했으며 붙잡힐 뻔했던 것이다.

양감면에 외갓집 일가들이 살았는데, 길가에 사는 일가 아주머니가 자기 집 장롱 뒤에 우리를 숨겨주었다. 그 아주머니가 예전에는 잘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때는 길가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살았다. 우리를 장롱 뒤에 숨겨주었는데, 낮에도 장롱 뒤로 쥐가 기어올랐다. 추석 때라고 돼지국을 끓여서 장롱 뒤로 주는데 모래 맛이어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 아주머니가 오가리가 자기 친정이라고 거기로 가자고, 달밤에 우리 둘을 데리고 그 동네로 갔다. 그 아주머니 친정에 가서 해놓은 떡을 먹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 색시들이 빨갱이인지 흰둥이인지 모르면서 데려왔다

고 그 아주머니에게 막 야단을 쳤다. 조그만 할머니가 앉아 있다가 나를 따라가자 했다. 그 할머니는 딸 해산 때문에 그 동네에 왔다고 했다. 그 할머니를 따라가니까 딸이 사는 집이었다. 방 두 개가 있는 집이었는데, 문간방에는 딸 시어머니가 살았다. 딸 시어머니는 장님이었다. 우리를 문간방에 살게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다.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거기에서 처음 봤다. 옛날에는 횃대를 방에 해놓고 거기에 옷을 걸었다. 거기에 이불을 걸어놨는데 이가 뚝뚝 떨어졌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한다고 우리 보고 뒷간에 가지 말라고 뚝배기를 주고 거기에 일을 보라고 했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었다. 알고 보니 우리를 데리고 간 할머니가 그릇장사를 다니는 할머니였는데, 우리 동네로도 그릇을 팔러 왔었고 또 사위도 머슴으로 품을 팔러 왔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네 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 데려간 것이었다. 애를 낳았는데 산모에게 쌀밥을 해서 먹이지 못하고 수수 모가지를 따서 그걸 찧어서 수수알갱이로 밥을 해서 먹였다. 쌀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그 밥을 주니까 한 그릇은 그이들 먹으라고 도로 줬다. 일주일 그 집에 숨어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애기 구경한다고 쭉 왔다. 인제 얼추 난리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빨갱이 놈들을 죄다 잡아 들였다. 냇가에 홈을 파서 빨갱이들을 잡아들이고 거기에 가뒀다. 김 아무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수류탄을 던져서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났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동을 부리니 서탄면이 난리도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당숙인 국민회장이랑 그 동생이랑 우리 편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국민회장은 계곡에 뒹굴어서 살아서 왔고 동생은 안성 뒷산에서 총 맞고 죽었다.

우리 쪽 사람들이 빨갱이 쪽에서 일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면서 여맹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불렀다. 우리 지하공작대 애들은 다 겨울옷 까만 치마저고리에 솜바지를 입고 갔다. 그렇게 입고 갔더니 지하공작대원인 것을 알고 도로 돌려보내주었다. 빨갱이 일을 한 사람은 죄 잡아다가 평택 농업창고에 집어넣었다.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민청위원장을 했던 사람도 붙잡혀 갔다. 그 사람이 내가 여맹에서 교육받을 때 언제 뭐가 있다고 그런 것을 알려줘서 우리 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피난을 보내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평택에 가서 그 사람을 빼줬다. 우리 고모부도 선생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로 끌려갔다. 내가 뭘 사서 가지고 가서 민청위원장 했던 사람을 주고 왔다. 그랬더니 내가 시집갈 적에 그 사람이 놋요강을 해왔다.

그렇게 서탄에서 살다가 1.4 후퇴 때 작은어머니 애기까지 해서 우리 식구가 피난을 갔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천안 수신면에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거기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호두나 나는 동네인 광덕으로 갔다. 그 동네에서도 제일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니 터가 좁아서 곡식을 널어도 볕을 못 본다고 방에서 벼를 말리고 있었다. 방 벽도 흙에 콩을 갈아서 만든 콩물을 바른 벽이었다. 그런 벽을 나는 거기에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해도 흙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살다가 이듬해 봄에 집으로 돌아왔다.

혼인 생활

혼인은 스물세 살에 했다. 남편은 평택조합에 다녔는데, 조합장이 큰아버지를 통해서 중매를 섰다. 남편은 딸 하나가 있는 홀아비였다. 죽은 마누라가 애를 낳으려고 발안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죽었다고 했다. 남편은 나보다 열두 살 많았다. 시집올 때 딸은 열일곱 살이었는데, 수원여고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재취로 보낸다고 반대하고 천안에서도 우리 당숙들이 와서 광주이가가 함평이가네 재취로 가게 생겼냐고 야단이 났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군인 사위를 얻으면 맨날 친정 와있어서 작은마누라하고 싸울까 무섭다고 결혼을 서두르셨다.

신랑은 팔남매 중 장남이었다. 어머니가 남편을 낳고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칠남매를 더 낳았다. 내가 시집와서 이 집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시어머니는 저쪽 집에서 자기애들을 데리고 살았다. 시동생들이 이복동생이어도 우리가 다 가르쳤다. 남편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업학교를 다녔다.

가을이면 바느질을 해놔야 하는데, 언니가 자기 집에 와서 바느질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다. 형부는 비행장에서 경찰을 했다. 그렇게 언니 집에 가 있는데, 자다 말고 시아버지가 언니를 부르더니 언니가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다. 언니가 돌아와서 자기 시아버지가 거기로 시집가면 너희 친정이 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 이튿날 어머니가 사돈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나를 데리러 왔다. 선 자리에 보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선은 평택조합 사택에서 봤다. 사택은 조합 사무실에 붙어있었다. 선을 보기 전에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연결되는 사람들을 통해 나에 대해서 다 알아봤다고 했다.

선을 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혼례를 올렸다. 동짓날 열이렛날이 혼례일이다. 집에서 혼수를 뜨러 수원을 가자고 해서 아버지하고 수원으로 갔다. 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어린 사촌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갔다. 어느 정도 가니 어떤 늙은이가 나를 휙 쳐다보고 노리고 가서 속으로 "별사람 다 보네." 하고 생각했다. 가다가 서탄학교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정거장에 가니까 그 사람이 과자를 이만큼 사서 사촌 동생에게 주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남편이었던 것이다. 그때는 뽀쁘리 와이샤츠가 유행을 했는데, 남편은 꾀죄죄한 광목 와이샤츠를 입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속이 뒤집히기 시작해서 "어떻게 결혼을 고만 둘까,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만 들었다. 수원 남문 병원 앞에서 내리고 아버지가 중국집에 들어가시고는 술을 잡수지 않는 분이 그렇게 술을 마셨다. 사촌 애를 식당에 들여보내고, 신랑이랑 시장에 갔다. 수원시장이 다 폭격을 맞아서 포장을 치고 시장이 들어서 있었다. 거기에 가서 반지도 맞추고 옷도 맞추는데, 신랑이 분홍색 남색이 아니라 회색 뉴똥 늙은이 입는 색으로 골랐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서 반지에도 관심이 없어서 아무거나 하거나 말거나 가느다란 것으로 했다. 도망갈 생각만 하면서도 귀에서는 "면의장 딸 시집 안 가고 있더니 도망갔대요." 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오는 수원 차가 끊겨서 나는 이모할머니 집으로 가서 잔다고 했다. 수원에 외할머니 언니네가 살았다. 그 집에 갔더니 사촌 언니하고 우리 언니하고 신랑을 보러 가자고 했다. 신랑은 여기 오는 차를 기다리면서 껌을 씹고 앉아있었다. 내가 저 사람이라고 했더니 언니 둘이 기가 막혔는지 "아이고 세상에 저걸 하고 말지." 그랬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라 엄마가 죽고 없는 외사촌 동생이 생각나서 케잌을 하나 사서 딸 갖다 주라고 쥐어서 보냈다. 딸은 얼마나 무서운 엄마가 올까 그 생각을 했는데, 케잌을 사서 보냈더니 "무서운 엄마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신랑 집에서 택일을 하고 혼서와 채단을 보내고 우리 집에서 대례를 지냈다. 채단을 받은 옷감

으로 신부 옷을 해서 입는데, 남들이 빨강 치마 남치마 입는 것과 달리, 나는 회색으로, 늙은이 같은 옷으로 했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고, 나는 빨강 치마 노랑 저고리에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신랑은 중매를 선 조합장하고 같이 왔다.

대례를 올리고 그날 신랑 집으로 왔다. 나는 넷이서 메는 가마를 탔다. 서정리 반까지 오니까 가마를 멘 사람들이 씩씩하는 소리가 아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쇳부리 고개에 와서 쉬는데 내가 나와서 걸어간다고 했다. 조합장이 와서 “왜 신부가 내리셨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걸어가신대요.” 하고 답했다. 그러자 조합장이 “아휴 잘 하셨다.” 라고 했다. 서정리에서 고덕으로 가는 큰길까지 걸어가서 트럭을 타는데, 창에 유리가 없었다. 서정리장이 서는 날이어서, 길에 사람이 많았다. 장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개 딸 시집간다고 트럭 안을 다 들여다봤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주 수건으로 머리를 감아 얼굴을 가리려고 하니까, 신랑이 색시 무안할 줄도 모르고 수건을 채갔다. 평택조합 앞에서 트럭에 장롱을 싣고 이 동네로 오는데 바람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남편이 또 제 등으로 바람을 막아주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른다. 이 동네로 오니 큰 소나무가 쭉 서 있어서 캄캄했다. 내려서 들어오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혼수로 장롱, 놋요강, 놋대야, 이불 네 채 등을 가지고 왔으며, 내가 입을 옷도 죽으로 해왔다. 밥그릇, 국그릇, 수저도 두 벌씩 해왔다. 폐백버선이라고 시댁 식구들에게 줄 버선도 있었다. 폐백은 시댁에 와서 드렸다. 혼수는 신랑 신부가 타고 온 트럭에 싣고 왔다. 혼수를 잘 해왔는데, 헌 이불만 덮고 새 이불은 손님을 대접한다고 못 덮게 했다. 그런데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일꾼으로 있던 사람이 혼수로 해온 목원단 이불이랑 양단 이불하고 목원단으로 만든 내 두루마기를 훔쳐갔다.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내가 서울로 시어머니 생신 보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집에 짐 갖다 주고 와서 내가 없으니까 홀딱 훔쳐서 간 것이었다. 집에 있던 개도 드나드는 사람이어서 안 짖었던 것 같다.

잔치하는데 나는 사당놀음한다고 앉아있었다. 조합직원들이 와서 상을 차리는데 음식 담아놓는 것이 시원치 않아서 내가 같이 상을 차렸다. 외삼촌이 면장이고 아버지가 면의장이어서 나는 친정에서 사람들 대접하는 상을 많이 차렸었다. 조합 직원들이 신부를 찾고 노래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하고 했다.

신랑 집 와서 삼일이 되면 친정에 가는데 전날 채단으로 가지고 온 비로도(빌로드)로 옷을 해 입고 가자고 했다. 비로도로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미끄러져서 잡아당기면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 잘나가지 않아서 속을 썩였다.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고 친정에 갔다 왔다.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안방을 쓰고 시아버지는 건넌방을 쓰시고 시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은 근처에 있는 집에 살았다. 사랑에는 난리통이어서 병원 의사가 와서 살고 있었다. 병원 의사는 우리 둘째 낳을 때까지 있었다. 이 집은 시할아버지 환갑을 지내려고 지은 집이다. 환갑이 섣달에 있었는데, 정월부터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깎아서 지었다고 한다. 내 산이니까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왔다. 안채가 스무 칸, 사랑채가 스무 칸으로, 이 집을 지을 때 현덕면에서 가장 큰집이었다고 한다. 평택에서 제일가는 부자는 검덩굴에 살았다.

우리 시댁은 재산이 많지는 않았으며, 논 열두 마지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평택농협에 다녀서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남편은 빗자루 하나 안 들어봤던 사람이었다. 우리 시아

버지도 농사를 짓지 않으셨다. 하루는 마당에 벼를 쌓아 놨는데, 저녁때 소나기가 막 쏟아져도 사랑에서 시아버지 시조 읊는 소리만 나고 나가보지를 않으셨다. 날마다 노인네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시조를 읊곤 하셨다. 우리 시아버지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고 함평이씨 화수회장을 하셨다. 시아버지는 시집오고 나서 십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집 농사일은 일꾼이 했지만 나는 논 때우고 콩 타작하는 일 같은 것들은 했다.

동짓달에 혼인하고 남편은 평택조합 사택에 가서 살고 이듬해 봄부터 집에서 다녔다. 조합으로 출퇴근할 때는 안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오십 적까지 조합에 계속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십 년을 약을 먹었다. 그 약을 먹으니까 위가 다 터져서 육십에 위를 다 잘라냈다. 일흔 일곱까지 살았으니 20년을 병원으로만 다니다가 돌아가셨다.

자식은 아들 셋에 딸 하나 낳아서, 큰딸까지 하면 모두 오남매이다. 결혼하고 바로 아들을 낳았다. 우리 시누이들은 시집을 가서 다 애를 일고여덟씩 낳았는데 우리 남편은 딸 하나만 낳고 자식이 없어서였는지, 큰아들이 태어나니까 시아버지가 매우 예뻐해서 아이가 밤에 울어도 데려다 주무셨다. 위로 둘은 안중에서 의사가 와서 받고 아래 둘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받았다. 우리 때는 산아제한인가 그런 거 한다고 서울 차병원에 가서 일 년에 두 번씩도 떼고 세 번씩도 떼고 그랬다. 육만 원만 있으면 아주 안 낳게 해준다고 했는데 시동생들 학비 대느라고 돈이 없어서 그냥 떼기만 했다. 떼고 와서도 콩 타작한다고 종일 일을 해서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다. 서울병원에 다니다가 여기 서울의원에서 고쳤다.
우리 시어머니는 착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셨다. 넷째 아들을 서울로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하루는 쇠죽을 쑤는 데 오셔서 “쟤 쌀을 줘서 보내야 한다.”며 쌀을 얻으러 왔다. 그 집에 쌀이 일곱 가마나 쌓여 있는데도 거기에서 쌀 서 말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우리가 논을 사서 돈이 없어서, 그 시동생 입학금은 내 결혼반지를 팔아서 댔다. 그래서 내가 “쌀은 데리고 살아도 드는 거니까 식량은 어머니가 대시면 돈은 우리가 대겠다.”라고 했다. 그 시동생이 성균대학 나왔고 막내 시동생은 고대 나왔다. 그이들은 다 잘 산다.

친정에는 집안일이 바빠서 잘 못 갔다. 우리 집이 종갓집이어서 제사가 많았다. 제사를 지내려면 우리 집안사람만 육십 명씩 모였다. 예전에는 여름에 호열자를 많이 앓아서 여름 제사만 여섯 번 있었다. 제사를 하려면 놋그릇 닦아야지 술 올려야지 떡방아 해야지 일이 많았다. 제사를 지낼 때는 동서들이 같이 와서 일을 했다.

우리 애가 서울대에 떨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 떨어진 거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죽겠다고 해서 그래서 봉은사에 다니게 되었다. 허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절에 더 못 다니고 며느리가 다니고 있다.

처녀 시절에 양재학원에서 재봉질 배워서 그걸로 돈도 벌었지
정인숙 (1933년생)

정인숙씨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출신이다. 20대 초반에 현덕면이 고향인 함평이씨와 결혼하여 서울에서 8년가량 살다가, 남편 고향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1970년대에 마을부녀회장을 10년 정도 맡았다. 부녀회장을 하면서 마을에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모내기 작업반을 조직한 경험도 있다. 처녀 시절에 평택에 있는 양재학원을 다녀서 재봉질을 잘했다. 서울에 살 때는 집에서 옷을 만들어서 업자에게 파는 일을 하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칠순 생신을 앞두고 사고로 돌아가신 일을 평생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인숙씨 인터뷰는 2018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출생 ~ 혼인 전

충남 천안시 성환읍 ○○리 청주정씨 집안에서 칠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이름은 인숙이지만 집에서는 오빠들, 사촌들, 육촌들이 다들 언년이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마흔넷에 혼자가 되셔서 고생을 많이 했다. 아버지 장삿날에 막내가 태어났다.

성환 정서방네는 양반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곧잘 살아서 사랑채에 일꾼을 두고 일을 부렸으며 어머니가 비단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불쌍했다.

아버지는 당숙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큰아버지, 아버지 형제였는데, 집이 어려워서 당숙에게 양자를 보낸 것이었다. 당숙은 돌아가셨고 당숙모 혼자 있는 데로 가서 살았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양자 몫을 조금 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다. 집에 글방 선생을 두어서 오빠들을 가르쳤다. 글방 선생님이 담뱃대로 회초리 때리고, 아이들이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르 황 집 우 집 주” 따라 하는 것을 항상 들었다. 내가 쪼끄마해서 글방 선생님 무릎에 앉으면, “아이고, 언년아.” 하고 귀여워해 주셨다. 내가 선생님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서 뽀뽀를 안 한다고 하면 “경칠 것” 하고 물려 앉히고 했던 기억이 선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 혼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살길이 막막했다. 어머니가 노상 우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막내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나도 어머니를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다. 내가 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학교를 바로 못 가고 아홉 살에 들어갔다. 오빠들이 딸일수록 더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나, 어머니가 막내는 어떻게 하고 나를 학교에 보내느냐 그랬다. 남동생이 나풀나풀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일을 나가서 “보리쌀 국물이라도 삶아서 먹이고 뜨겁지 않게 우산 하나 씌어놓고” 해서 내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도 막냇동생을 업고 다니고 젓 얻어 먹이러 다니고 했다. 아버지가 논 여덟 마지기를 남겨서 농사가 많았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머니가 오

빠들하고 농사를 지었고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치우는 일을 했다. 내가 워낙 행동이 재서 집에서는 심부름꾼이었다. 막내는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공부를 잘 해서 대학교까지 마쳤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있다가 동네 사람이 막내를 보고 사위로 얻고 싶어 해서 서둘러 잔치를 했다.

어머니는 칠순 생신 직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가 큰아들이 초등학교 일학년을 다닐 때였다. 어머니 생신이 시월 초하루였는데, 생신에 도토리묵을 쒀서 가져가려고 산에서 도토리를 한 말 이상을 주었다. 어머니 칠순 생신인데 해드릴 게 없어서 도토리라도 주어서 묵을 쒀서 가져가려고 했다. 그때는 이 동네 마을회관 방을 빌려서 살 때였는데, 마을회관 밑에 사는 안노인네가 그것을 보고 "이걸 어디에 쓰려고 주웠어?" 그러길래 우리 어머니 생신이 시월 초하루인데 도토리묵을 좋아하셔서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휴 많이 주웠네." 하면서 그 집 우물에다 담가두게 해줬다.

막내가 대학교 다니다가 어머니 생신이라고 집에 잠깐 내려왔는데, 오빠가 생신 전에 농사일을 끝내려고 동생에게 논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다. 막내는 형 밑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형이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했다. 막내가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니까 노인네가 아들 밥 먹이려고 밥, 국, 물 등을 챙겨갔다. 집에서 논에 가려면 철로를 건너야 하는데 기차가 쌩하고 지나가니까 몸이 높이 떠서 돌아가셨다. 생신날에 성환에 가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챙기고 있는데 문을 여니 이장이 와서 전보를 쥐여주면서 "밤에 가시질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모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아침에 가지고 왔다며 어머니 소식을 전해 주었다. 큰아들은 학교를 가야 해서 둘째 형님에게 맡기고 밑으로 동생 남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안중으로 해서 차를 네 번 갈아타고 친정에 가니 아침 일찍 떠났는데도 오후 한 시가 다 되었다. 집에 들어가니 마당에 차알[채일]이 쳐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냐." 라고 물으니 동창 한 명이 와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나를 끌고 갔다. 칠순에 그 일을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그때는 기차 사고는 보상도 하나도 없었다. 염을 할 때 내가 어머니 시신을 보기 위해 자리 친 것을 들춰보니 팔이 부러져 있고 얼굴이 뽀얀 게 핏기가 없었다. 시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더니 오빠들이 염을 하게 그만 울라고 말렸다. 나는 "노인네가 아들 한 끼 굶어서 죽을까 봐, 막내아들 밥 먹일라고 하다가 돌아가셨네." 하면서 지랄하고 막내아들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지랄하고 해서 다들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올케들도 내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말을 못 했다. 그래도 형제들이 도와서 막내 대학은 끝마치게 해줬다.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속상하고 아버지가 밉다. 어머니 삼우제를 지내고 "아버지 앞에는 나 절 안 할 거야, 엄마한테만 할 거야." 하고 실컷 울었더니 오빠들이 "울어도 소용없어, 가실 곳으로 가신 건데." 그랬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중학교까지는 다녔을 텐데,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 하라고 했다. 성환학교를 졸업하고 오육 년이 지났을 때 하루는 동창을 만났는데 평택에 양재학원이 생겼다고 가보자고 했다. 동네에 계집애들만 동창이 일곱인가 있었는데 같이 양재학원을 다니자는 것이었다. 내가 궁금해서 먼저 혼자 평택에 기차를 타고 가봤다. 평택에 가서 "여기 양재학원 생겼다는데 어디에요?" 하고 물었더니 나사렛교회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정식 학교는 아니고 "아침나

절에는 예배꾼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내외가 가르치는데,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되어서 나와서 “해먹을 게 없어서” 양재학원을 하게 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동네에 와서 친구들에게 했더니 여섯 명이 간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졸라서 허락을 받았다. “나 양재학원 보내줘, 엄마, 육 개월인데.”하고 조르니 어머니가 “너 무얼 바라고 조르느냐.”라고 하면, “그럼 나 이렇게 바보 돼요?” 하면서 졸랐다. 내가 어렸을 때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 내가 일학년인가 이학년인가였을 때였는데, 어느 날은 손이 붓기 시작하더니 손가락까지 다 부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부어있기만 하고 곪지 않았다. 오빠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살아있는 새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안이 따뜻해서 손가락이 빨린 곪는다고, 새를 잡아 와서 내 손가락을 새 항문에 넣고 잡아 매주었다. 그런데 대여샛가 지나도 손가락이 곪지를 않아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언년아 씻자.”하는데 내가 아프다고 엄살을 떨었다. 그때 씻었으면 “병신이 안 되었을 건데”, 바보같이 엄살을 떨다가 손가락을 자르게 되었다. 병원에서 나를 재워놓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 받기 전에 내가 무서워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곪지도 않은 손가락을 의사가 냄새가 나니까 곪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을 했던 것이었다. 내가 씻고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인데, 엄살을 떨다가 병신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그래서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양재학원에 보내달라고 억세게 조르니 허락을 해줬다.

그렇게 동창 여섯 명이 함께 육 개월 양재학원을 다녔다. 매일 오전 세 시간 수업이 있었다. 학원에서는 양재 기초와 재봉질 등을 가르쳤다. 동네에서 역까지 걸어가서 기차로 다녔는데, 돌아올 때는 군대 트럭을 얻어타고 오기도 했다. 여럿이서 다니니까 군대 트럭을 만나면 태워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다. 재봉질을 배우니까 공짜로 동네 사람들 옷을 꿰매줬다. 연습 삼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돈 달란 소리는 하지 못 했다. 실값이나 하라고 얼마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에는 예전부터 재봉틀이 있었다. 어머니는 농사일로 바빠서 재봉질을 할 시간이 없었다.

스무 한두 살쯤 되었을 때 고모가 중매를 서서 세 살 위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 친정이 평택이었는데, 고모가 어머니 외사촌 올케였다. 고모가 “함평이서방네도 여기서도 알아준다.”라고 하자 어머니가 “우리 막내딸 여우자[시집보내다].”라고 중매를 부탁했던 것 같다. 그때 나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머니에게 외갓집에 한 번만 가보자고 졸랐다. 외삼촌과 외사촌들은 우리 집에 뻔질나게 와서 곡식을 얻어가고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외갓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를 보고 싶었다.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갔더니 외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고 쑥을 뜯어다가 쑥개떡을 해놓았다고 먹고 가라고 해서, 어머니는 먼저 가고 나만 혼자 남아서 이틀인가, 사흘인가를 외갓집에서 묵었다. 그 동네에 양재학원 다닐 때 알았던 동갑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아이를 만나봤으면 하니까 어머니 외사촌 아들이 그 집을 찾아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사 가고 없어서 만나지를 못했다. 그때 어머니가 어디에서 신랑 자리를 봤는지, 아니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봤는지 혼담이 오고 갔다. 나는 신랑 얼굴 한 번 보지도 않고 시집가냐고 싫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성만 상놈이 아니면 된다.”라고 해서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상놈 그런 거를 퍽 따져서, 어머니는 신랑네가 “어렵게 살아도 양반이니까 뼈대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혼인과 신혼 생활

남편은 이 동네 함평이씨 출신이라고 하나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혼인할 때는 서울에서 매형과 함께 양은냄비장사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다섯 형제 중 셋째였으며, 손위로 누이가 둘 있었다. 이 동네는 시아버지 고향인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주, 이천 등에 나가서 살았다고 한다. 아이를 낳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갓난쟁이를 두고 시아버지 혼자 살 수 없어서 부인을 얻어 들였는데, 살만하면 도망가고 그래서 또 얻어서 살면 도망가고 해서 살림이 궁하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고생고생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해서 다시 이 동네로 와서 살게 되었다. 그때 딸들은 모두 시집을 보낸 상태였다. 아들 오형제 중에 이 동네에 정착한 형제는 큰형네와 우리 집뿐이다.

이 동네에 들어와서 시아버지는 새터에 혼자 살았고 둘째 형네는 안중 하오개에 벽돌집을 짓고 살았다. 둘째 형 집은 방 둘에 부엌 하나가 있는 세 칸짜리 집이었는데, 며느리도 있고 해서 시아버지가 있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 사셨던 것 같다. 둘째 시아주버니는 동네 사람 머리 깎아주고 쌀 얼마씩 받고, 또 시간 있으면 품을 팔면서 생활했다.

시댁은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다. 시집으로 올 때 혼행 손님으로 같이 왔던 사촌 오빠가 시댁 사는 것을 보고 어려운 집 같다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 시댁이 오두막집에 문도 삽싸리문[사립문]이어서 사촌 오빠가 그것을 보고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가서 술을 잔뜩 먹고 그런 집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땡깡을 부리니, 우리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봤다고 한다. 첫날밤에 신랑이 나보고 "아휴 내가 저기 했으면 머리라도 지져줬을 걸." 그런 소리를 했다. 돈이 있어야 머리를 지질 수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살림이 어려운 집에 시집온 신부에게 미안해서 했던 소리였다. 그때는 다 생머리를 댕기 따고 다녔다. 나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를 감으면 종일 말리고 귀찮았다.

시집오기 전에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초례청에서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봤더니 광대뼈가 나오고 삐쩍 말라서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얼굴을 미리 봤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군대를 다녀온 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서울에 사는 집안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가, 매형과 양은냄비 장사를 하고 있었다. 지게에 양은냄비를 싣고 다니면서 "양은 사려" 하고 외치고 다니면서 양은냄비를 팔았다. 서울에서 장사하면서 장가는 가야 했고 방법이 딱히 없어서 둘째 형에게 부탁하니 둘째 형이 자기 벽돌을 빼서 방 하나를 만들어 줬다. 나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한 일주일은 서울로 가지 않고 있다가 이월 초이틀이 자기 생일인데 생일상 얻어먹고 한 이틀 있다가 혼자 서울로 갔다.

신부를 둘째 형네 집에 혼자 두고 갔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남편이 집에 왔다. 나를 데리고 있던 둘째 동서가 자기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보고 친정 가서 여름을 나라고 부추겼다. 시댁 형도 그렇고 남편도 볼품없고 혼자 사는 것도 싫어죽겠는데, 남편이 오자 내가 "친정집이 밭도 많고 엄마 혼자 허덕이니까 거기 가서 여름 나고 온다."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서울에 데리고 갈 거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시집와서 보니 큰동서가 도망을 가고 없었는데, 큰시아주버니가 보급대에 나가서 큰동서가 혼자였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기 형수처럼 내가 친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했던 것 같다.

남편이 서울로 가며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러는데, 거짓말이고 뭐고 석 달도

살지 않았는데 남편 말을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울을 가면 여기보다 친정에서 더 멀어져서 친정을 더 못 가게 될 것 같았다. 이웃에 육촌 동서가 살길래, “형님 나 돈 몇천 원만 꿔달라.” 하고 부탁을 했다. 동서가 묻자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서 보고 오겠다.” 라고 했더니 얼른 다녀오라고 돈을 꿔줬다.

친정에 가서 내가 어머니를 보고 “엄마, 돈 꿔서 여기 왔어. 시집을 그런 데로 보내 가지고.” 라고 했더니, “서울로 데리고 간대? 해. 그럼 됐다. 그럼 거기서 살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보리쌀, 고춧가루, 깨소금 그런 것을 싸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평택 시누이 가게에 들렀다. 시누이가 평택 시장에서 호떡장사를 했는데, 호떡 하나를 얻어먹고 서울로 간다는 소리를 했다.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를 혼자 다 가지고 가기도 그래서 시누이한테 맡겨 놓고 왔다. 집으로 와서 둘째 형님에게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던지 쌀 한 되도 못 주고 시아버지가 수숫대로 엮은 빗자루 두 자루를 주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가서 몇 년을 살았다.

서울 생활

서울에서는 염리동에서 사오 년 살다가 큰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가 되자 고향으로 내려왔다. 서울에서 살면서 삼 남매를 두었는데, 가운데가 딸이고 아래위가 아들 둘이다. 그때가 산아제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남편이 하나 더 낳자고 하자, 내가 “우리 친정도 골치 아픈 집이고, 당신네도 칠 남매, 우리도 칠 남매인데, 내가 여기서 더 낳아서 무슨 낙을 보려고 또 낳냐” 고 하고 막내 낳고 나흘 만에 연대 세브란스 가서 루프를 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데, 그러고 보면 내가 조금 깼던 것 같다.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재봉틀을 하나 사서 잠옷, 파자마, 팬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 천을 가져다주고 다 만든 옷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과 거래했다. 이웃에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이에게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만든 옷을 사 가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 가서 보니 주인이 이북 사람인데 재봉틀이 있는지 물어봐서 살 거라고 하니까 하자고 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니 재봉틀을 사자고 해서 시골에 장리쌀 놓았던 것을 가지고 재봉틀을 샀다. 재봉틀 가격이 비싸서 그때 쌀 일곱 가마를 줬다.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돈이 생기면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장리를 놓고 있었다. 내가 극성맞게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서울에 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가 서울에서 재봉일을 하고 있으니까 옥양목을 구해서 시아버지 한복을 해드렸다. 시골에 내려갔을 때 재봉틀 있는 집에서 삯을 조금 주고 하루 빌려서 조끼까지 옷을 해드렸더니 이 동네까지 입고 와서 셋째 며느리가 해줬다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시누이네랑 같이 살았다. 우리가 집을 샀는데, 안채는 시누이네 주고 우리는 단칸방에서 삼 남매 데리고 살았다. “형님네 집 사서 나갈 때까지 화목하게 살자.”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조카며느리를 얻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초라니 마냥 뭐든 앞장서서 흔들고 다녀서 할머니는 손자를 말리고 며느리는 자기 자식 나무란다고 툭하면 싸웠다. 내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남부끄럽기도 하고 이사 가셔야겠어.” 그랬더니, 얼마 없어서 방을 얻어서 나갔다. 우리는 원래 우리 집이니까 안채로 옮겨서 살았다.

남편이 벌어서 쌀 한 가마라도 생기면, 친정으로 보내서 장리를 놓았다. 큰아들이 일곱 살쯤 되었을 때 별안간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고향으로 가자고 했다. 자식들을 키우려면 일부러 시골에서도 올라오는데 내려가자고 하니까 내가 "고향에 뭘 바라고 가느냐, 땅이 있냐, 집이 있냐, 어디로 가냐. 난 안 간다." 하고 하면서 혼자 가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여기에 있다가는 당신 폐병 걸려 죽고 애들도 더 배고프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자." 라고 사정했다. 내가 방안에서 융 같은 것으로 재봉질을 하니 천에서 나오는 먼지가 날려서 방 공기가 안 좋았다. 내 뜻대로만 할 수는 없어서 결국 남편 고향으로 내려왔다.

남편 고향으로 귀향

남편 고향에 내려왔지만, 가족이 살 곳이 없으니 마을회관을 얻어서 살았다. 회관은 방 한 칸짜리로 부엌도 없었다. 남편 고향은 새댁인 나에게는 딴 동네나 마찬가지여서 일 년을 그렇게 사는데 송구스러웠다. 지금 있는 회관은 우리가 살았던 회관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것이다. 회관 터는 이 마을 함평이서방네 사람네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서울에서 비단장사를 하면서 부자로 잘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회관을 짓게 터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터를 내준 것이라 한다. 아산만 물을 쓰기 전까지는 여기가 순 산골이고 소나무 천지였다. 서울에서는 연탄을 땠지만, 시골은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서 그것으로 불을 땠다.

마을회관 방 하나짜리에서 일 년을 살고 지금 집터에 오두막집을 지었다. 여기는 당숙네 산이었다. 남편이 당숙에게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 얻어달라고 부탁하니 자기 집터를 내줬다. 나중에 이 집터를 사서 처음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우물도 팠다. 육촌 시동생이 돌만 사놓으면 자기가 공짜로 우물을 짜준다고 해서, 그 동생이랑 남편이랑 같이 작업했다. 하루 종일 마차를 얻어다 우물을 짤 돌을 사서 들여놨는데, 열다섯 마차인가가 들어왔다. 남의 우물을 쓰다가 내 우물을 파고 나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

처음에 내려와서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품을 팔러 다녔다. 농사일이나 집 짓는 일을 많이 했다. 쓰레트[슬레이트] 지붕 올리고 담장 하고 방고래 뜯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남편이 기술이 좋아서 많이 불려 다녔다. 저쪽 1반에 육촌들 집이 세 집 있었는데 잘 살았다. 노상 방 뜯는다며 하며 와라 가라 궂은일을 많이 시켰다. 남편은 다른 동네로는 다니지 않고 이 동네에서만 품을 팔았다. 우리 집 근처는 예전에 산이었다가 나중에 집 몇 채가 들어섰는데, 다들 어려워서 동네 품 팔러 다니고 저쪽은 부잣집들이어서 품을 사러 왔다.

나도 시간이 있으니까 재봉질로 동네 아이들 옷을 꿰매주고 했다. 학교 운동회가 있으면 "운동빤스 감을 따다가" 만들어 줬다. 공짜로도 해주고 삯을 조금 받기도 했다. 뭔가 뜯어져서 가지고 오면 그냥 박아주기도 했다. 이 동네에 재봉틀을 가진 집이 없었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재봉틀을 사니까 나중에 이 집 저 집에서 하나둘씩 장만하였다.

서울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친정어머니에게 장리쌀을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육칠 년쯤 지나 이 동네에 논 여덟 마지기를 샀다. 그동안은 “남의 방 뜯으러 다니고, 담장 하러 다니고, 또 쓰레트 바람이 불어서 그거 하러 다니고, 그런 거 해주면 몇 푼씩 받아서 그걸로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다. 어떤 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진저리가 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이런 게 연속극으로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논을 사야 하니 남편이 나에게 친정에 가서 그동안 장리 놓은 쌀값을 받아오라고 보냈다. 그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여서 오빠가 우리 장리쌀을 관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장리를 놓을 때는 “한 말 모자라면 한 말 보태서 해주고 또 자기네 꺼 얹어서” 주고 그랬던 것이라 쌀값을 돌려달라고 하니 오빠가 “그거 다 니 꺼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서운했다. 아들들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는 쌀 한 말도 받은 것이 없는데, 장리쌀 좀 늘려줬다고 얼마를 달라고 하니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내가 속상해서 쌀값 받은 것을 오빠에게 통째로 주고 알아서 떼서 달라고 하니 삼천 원을 떼고 주었다. 그렇게 삼천 원을 떼고 나니까 우리 땅값이 부족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하니까 “요것밖에 못 받아 가지고 왔어.”라고 했더니 “됐어, 여기서 얻어서 쓰고 우리가 벌어서 농사지어서 갚으면 돼, 신경 쓰지마.”라고 했다. 남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치만 봤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쌀 다섯 가마인지 여섯 가마인지 얻어다가 논을 사고 한 해 농사지어서 갚았다. 나중에 이 집터도 사고 뒤에 논 삼천 평을 더 샀다.

논을 사고 난 뒤에 남편은 더이상 품을 팔러 다니지 않았으나, 지붕 같은 거 올릴 때는 품앗이도 하고 품값도 받고 그랬다.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기계모를 제일 먼저 했다. 남편이 큰집에 두 집이 이앙기를 같이 사자고 했는데, 목돈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는지 자꾸 미뤄서, 우리가 그냥 먼저 샀다. 내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우리가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고 하고 남편에게 사자고 했다. 이앙기 산 후에는 삯을 받고 다른 집 모내기를 다녔다. 남편이 이런저런 품을 팔러 많이 다녀서 고생을 많이 했다. 남편이 술도 먹지 않고 일도 꼼꼼하게 잘 해서 ‘반 목수’였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

남편이 함평이씨이지만 동네에 들어와서 산 것인데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아서, 남편은 품 팔러 다니고, 나는 육촌 동서네 일 한다면 가서 밥 해주고 하면서, 동네에서 살 수 있었다. 육촌네가 잘 살아서 김칫거리도 얻어다 먹고 그랬다. 또 집 앞에 육촌 형님이 살았는데, 그 양반이 우리 내외를 가르쳤다. 내가 그 양반에게 의지하면서 이서방네 풍속을 배웠다. 바깥양반이 홀아비가 되니까 또 그 양반이 우리에게 의지했다. 며느리 얻을 때 채단 뜯으러 가야 하니까 그 양반이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안중에 뜨러 가고, 치마저고리도 내가 만들어주었다. 내 동생들 장가들이고 조카들 장가보낼 때도 내가 한복을 만들어서 줬다.

남편이 고생고생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논 섬지기 장만하고 했는데, 그러고 세상을 떴다. 남편을 생각하면 제일 속상했던 것이 이 동네에 와서 남편이 상여 나갈 때 요령을 잡은 일이었다. 옛날에는 상여 나갈 때 요령 잡는 일은 중인이나 하는 일이었다. 성환에서는 다 그렇게 알았다. 중인은 상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남편이 요령을 잡는 것이었다. 중인이나 하는 일을 남편

이 하니까 속이 아팠다. 우리가 없이 사니까 요령잡이를 시키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도 속이 상해서 큰집에 쫓아가서 "서방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요령잡이는 형님이 말리라고, 전 그게 싫다고, 속이 아프다."라고 했더니 "장난하고 노는 거랑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그냥 두었다. 요령잡이도 총기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이 요령잡이 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이 소리가 좋아서 계속 불려갔다. 상여 나갈 때 남편의 소리를 듣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활동

아산만수로 들어올 때쯤 마을 부녀회장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이장이 와서 아주머니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다고 하면서 부녀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나는 "내가 뭘 할 줄 아냐."라고 하면서 싫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앞에 사는 육촌 동서가 "자네가 좀 봐. 나는 바빠서 잘 못 보니까, 자네가 봐." 하니까, "싫다고,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됐다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안 해요." 그랬더니 이장이 부녀회장을 뽑아오라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이름, 성명만 적어놓을게요." 하면서 내 이름을 적고 갔다. 그때 이장은 최씨 양반이었다. 그 전에도 부녀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놓으니까 할 사람은 못 찾았던 것 같다. 그렇게 부녀회장을 맡게 되어서 10년 정도 그 일을 하였다. "촌아줌마들이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부녀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부녀회장을 하는데, 하루는 경기도 전체가 놀이를 간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 아산만수로가 놓이고 여기 멧갓을 다 벌목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동네 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주위가 순전히 다 멧갓이었다. 경기도 부녀회장 전체가 가는 것이었는데, 현덕면에서는 나 혼자 갔다. 아래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모여있는 데서 자기 동네 좋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나보고 평택군에서 한 분이 오셨으니까 자랑을 하라고 했다. 내가 "시골에 뭔 자랑이 있냐."라고 하니까, "한마디만 하라."고 해서, "학교도 멀고 애들은 고생이지, 자랑거리는 없는데, 쌀밥은 실컷 먹어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쌀밥을 실컷 먹어요?"라고 물어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로 놓고 멧갓에 나무 베서 달뱅이[다랑이논]를 맨들어 줘서 쌀은 먹는다."라고 했더니 박수가 막 나왔다. 그때는 쌀이 퍽 귀했다.

부녀회에서 했던 일로는 절미가 있었다. 절미쌀이라고 아침저녁으로 밥을 할 때 쌀 한 숟가락씩 덜어서 모았다. 나라에서 절미를 많이 시켰다. 구판장은 하라고 했지만 가게 터가 없어서 부녀회에서 할 수 없었다. 부녀회장을 하면서 가끔 면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내 말이라면 다들 잘 들었다. 놀이를 갈 때나 음식 등을 해야 할 때 모이라고 하면 다 오고, 일을 나눠서 했다.

멧갓을 논으로 만들어서 동네에 논이 많아지니까 평택에서 이십 명, 삼십 명, 오십 명 모내기꾼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평택에서 모내기꾼을 사오는 것도 있는 집에서나 할 수 있었다. 열 마지기, 스무 마지기, 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품을 살 수도 없고 품앗이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여자나 남자나 나서서 부잣집들은 제쳐놓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품앗이 하자, 내외 나오면 몇이냐, 열 집이면 스무 명이고. 뒷짐 지고 뭐 할 거여. (…) 우리들 앉아서 뭐 할 거냐.

나와서 빨간 줄에라도 하나씩만이라도 꽂자.” 하면서 이 집 가서 사람을 구하고, 저 집 가서 사람을 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 모내기를 해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처음 심어보는 사람은 나 다섯 개 여섯 개 심을 때 그제야 하나 겨우 심고 했다. 나는 친정에서 농사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왜정 때 학교에서 시켜서 모내기를 해봤다. 일학년 때였는데, 애들이 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거머리 같은 거 보면 오두방정을 떨었다. 내가 얼른 가서 거머리 떼어주고 해서 학교에서는 내가 왕이었다. 성환은 모래땅이어서 모를 심으면 옆으로 자꾸 쓰러져서 심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진흙이어서 모심기가 쉬웠다. 품앗이로 모내기를 할 때는 그날 자기 논일을 하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 죽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
품도 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도 팔고 생선도 팔고
이옥희 (1931년생)

이옥희씨는 경기도 연천군 서남면 출신이다. 6,25 때 가족과 헤어져 혼자 피난을 나와서 광주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전남 해남 신기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같은 피난민인 남편과 재혼하였다. 이후 스무 차례 이상 옮겨 살다가 현덕면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품을 팔고 각종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아산만수로가 놓이면서 화양리에서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했다. 자녀는 4남 1녀를 두었다. 이옥희씨 인터뷰는 2015년 가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피난 생활

내 고향은 연천군 서남면이다. 스물한 살에 피난을 와서 전라도 수용소로 갔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피난은 6.25 이듬해 오월에 나왔다. 열일곱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형제들과 함께 먼저 월남을 가서 동네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있었다. 폭격으로 동네 집들이 다 타서 두 집만 남아있었다. 우리 집도 새집이었는데 타버려서, 남아있는 동서네 집에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있었다. 그런데 미군이 와서 며칠만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 동네 사람들 모두 산에 가서 숨었다. 그때 나는 염병에 걸려서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누워있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무렵이 되니까 싸리 울타리 바깥에서 쏼라쏼롸 소리가 났다. 혼자라 무슨 일을 당할까 무서워서 큰집 동서네 울타리 밑 앵두나무 아래에 숨어 있으려고 기어나가다가 바깥에서 미군들하고 마주쳤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총으로 쏜다고 하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끌려왔다. 그렇게 동네 사람 중에 안 아픈 사람들은 산에 가서 숨었고 아픈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입던 옷 그대로 끌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와 임진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가 가물 때였다. 한국군들이 강가에 있다가 끌려온 사람들을 업어서 건네고 붙들어서 건네고, 미군들은 차를 갖자 들이대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서 트럭 뒤에 탔다. 나처럼 아픈 사람들은 서울 순화병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졌다. 거기에서부터 나는 동네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지금까지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낸다. 처음 2년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순화병원에서 보름가량 앓다가 병이 낫자 광주 수용소로 보내졌다. 수용소에는 2,500명 정도가 살았다. 밥은 하루에 두 끼씩 아침, 저녁으로 배급받았다. 점심은 없었다. 정부에서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요만큼씩 넣고서 국물을 잡아서 두 끼씩 줬다. 내가 고기 한 덩어리라도 더 얻어먹어 보려고 식당 반장 노릇도 해 보고 별짓을 다 해봤다. 배급하는 밥 덩어리가 어떤 것은 크고 하나

는 어떤 것은 작으면 안 되니까 식당 반장이 밥을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소금물로 해서 덩어리 짓는 일을 했다. 그러면 또 남장 반장이 나와서 자기네 몇 명이라고 하고 타서 가서 나눠줬다. 나는 남장 반장이 시키는 대로 똑같은 크기로 밥 덩어리를 짓는 일만 했는데, 하루는 순경들이 와서 밥 덩어리가 작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반장들이 밥 짓는 쌀을 몰래 빼돌렸던 것이었다. 순경들이 밥 지은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순경들이 막 팼다. 내가 그런 고생을 했다.

그렇게 광주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해남으로 왔다. 군에서 면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나는 해남 북평면 남창리 신기로 왔다. 열 명이 같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마을회관에 같이 있다가 동네에서 방을 줘서 따로 살았다. 나라에서 밀가루와 통수수를 배급으로 줬다. 그때가 흉년이었는데, 우리는 배급받은 거라도 먹었지만 주인네들은 먹을 게 없었다. 주인네가 남자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은 많은 집이었다. 우리는 맷돌이 없으니까 주인네한테 맷돌을 빌어서 수수를 갈고 거기에 쑥을 뜯어놓아 푸레기를 해먹었다. 우리는 그거라도 먹었는데, 주인네는 식구도 많은데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 수수 잎사귀에 붙은 알을 빼먹고 그랬다. “노상 쑥 뜯어다가 먹고” 그랬는데 하루는 나갔더니 미나리아재비가 많이 나서 그걸 뜯어다가 푸레기를 썼다. 미나리아재비가 독해서 먹으면 목구멍이 아프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미나리아재비를 넣은 푸레기를 못 먹고 있으니까 주인네가 그거 먹고 죽겠냐고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적도 있었다. 우리가 들깨를 놓고 푸레기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훔쳐 먹기도 했다.

한 이태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피난 나온 남편과 재혼을 했다. 남편은 나보다 열 살이 많았다. 남편은 황해도 옹진 단천 사람인데, 육이오 나던 해 섣달에 남쪽으로 나왔다. 바깥양반도 고향에 할머니와 아내, 아들딸이 다 있었는데, 가족들을 두고 월남했다. 시동생도 둘 있었다. 막내 시동생은 먼저 나와서 군인을 가고, 바깥양반이랑 둘째 시동생, 그리고 친척 시동생, 사촌 시누이 이렇게 같이 왔다. 둘째 시동생은 남편이랑 같이 있다가 군인을 갔다.

우리 양반은 고향에서 9년 이장을 봐서 농사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우리 양반 어렸을 때 아편을 해서 자손들도 못 살게 한다고 집을 나갔다. 그날이 팔월 초이렛날인데, 그날 아버지 제사를 지냈다. 남편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결혼하고 딸 둘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앙금앙금 기어 다니는 거 보고 내려왔다고 한다. 집에 논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장 일을 보고, 품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남편이 고향에서 살 때는 형편이 괜찮았다고 한다. 전라도에 살 때 “치과쟁이, 사진쟁이” 그런 친구들도 모두 피난을 와서 해남에서 만나서 서로 돌아다니고 놀고들 했다.

신기는 바다 근처여서 땅이 별로 없었다. 거기 사람들도 농사는 별로 안 짓고 바다에서 김이나 미역 같은 것을 따서 살았다. 신기에서 바다를 건너면 완도였다. 나는 바닷일을 하러 다니지는 않았다. 동네에 밭은 있어서 품으로 밭을 매러 다니고, 길쌈하는 데 가서 길쌈하고 물레질도 하고 했다. 길쌈은 기계 베틀로 했다.

오육 년쯤 신기에서 살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동네를 떴다. 여기 와서 살기까지 남의집살

이를 했는데, 스물두 군데를 이사 다녔다. 신기에 있는데 하루는 사촌 시누이 남편이 우리를 찾아왔다. 시누이 남편은 부산 범일동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시누이네가 먼저 와서 사는 원곡에 오라고 해서 노자만 가지고 거기를 갔다. 그때 우리가 남매를 두었는데 딸은 네 살이었고 아들은 돌이 막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다. 노자만 마련해서 원곡으로 가니까 먹고 살길이 막막했다. 전라도에서는 배급이라도 먹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노자 해가지고 오니까 원곡에서는 먹을 게 없었던 것이다. 우리 양반이 어디 갔다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달머슴 찾는다고 해서 그래서 화양리 용골로 혼자 왔다. 남편은 달머슴 석 달을 살고 쌀 두 가마를 받아서 방을 얻어 살았다. 남편 주인네 동생이 군인을 갔다가 죽어서 보상금을 받으러 인천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어디로 오라고 주소를 주고 갔다. 그래서 원곡에서 안중까지 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딸은 걸리고 아들은 업고, 이고 왔던 보따리는 안중에 맡겨 두고 남편 있는 데를 찾아왔다. 그때가 시월 초열흘날이었다.

현덕에 정착

용골에 와서는 남편이 남의 집 농사일 다니고 구들 놓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남편이 고향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는데, 살아야 하니까 달머슴을 했던 것이다. 쟁기질도 여기 와서 배웠다. 구들 놓은 일도 이 동네에 와서 배운 것이었다. 정부에서 월남민들에게 정착하라고 기술을 배우라고 했다. 구들은 오래되면 뜨뜻하지 않아서 다시 뜯어서 새로 놓아야 했다. 그래서 칠월에는 구들 놓으러 다녔다. 하루 구들 놓는 일을 다니면 쌀 한 말씩을 받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밭 사백여덟 평을 샀다. 밭 값으로 쌀 두 가마를 주고 흥정붙인 값으로 두 말을 더 썼다. 우리 양반이 “십 년만 더 살면 아이들 다 밥 먹고 살 텐데…” 말하고 했는데, 그러더니 마흔하나에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묘지 쓸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에 쓰려고 하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밭에다 쓴다고 해서 남편 묘지를 밭에 만들었다. 여기 와서 아들 넷을 더 낳았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남편 산소에 난 풀을 깎지를 못해서 속이 많이 상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이태 전에 용골 사는 아저씨 병간호를 해주고 논 말가웃지기를 받았다. 그 아저씨는 가족이 모두 서울 가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프게 되니까 우리 양반이 가서 병간호를 싹 해줬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고 자손들보고 우리 양반한데 논 말가웃지기를 주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가 어려서 나는 농사는 짓지 않고 아이를 업고 아산만에 나박 따러 가고 사방 공사 아카시아나무 심는 일을 다니곤 했다. 내가 아이를 업고 사방 공사를 다니니까 남편이 “그 힘으로다가 논 말가웃지기 개울에다 우물을 파라” 라고 해서 우물을 판 적도 있었다. 사방 공사에 나가면 정부에서 배급으로 밀가루를 줬다.

용골에 와서 처음에는 남의 집에서 살다가 집을 지었다. 달머슴으로 사는 집 헌 사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자기 셋째 동생네 집이 안방만 꾸미고 건넌방은 꾸미지 않았다고 거기에 가서 방을 놓고 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방을 꾸미고 거기 가서 살았다. 몇 년 그렇

게 살았는데, 동네 아저씨 하나가 자기네가 산이 많다고 아무 데 산이 있는데 소나무를 베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라고 해서 거기에 집을 지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며칠 후에 서까래 올라간다고 나무를 다 말려놓았는데 누가 싹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둘이서 벽돌을 찍어서 벽돌집을 지었다. 방 두 개 부엌 하나, 삼 칸 집이었는데, 남의 기와집보다 더 좋았다.

아산만 수로가 집이 있는 산으로 나서 집을 헐어야 했는데 용골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 데를 구하지 못했다. 이 동네로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동네 아저씨가 자기 산에 집을 지으라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 소문난 부잣집이어서 바깥 머슴들도 있고 집안에 밥하는 여자랑 아이도 두고 있었다. 우리도 삼 남매가 그 집의 일을 했다. 큰아들은 배과수원에서 배가 자랄 시기에 지킨다고 몇 달 있었고 둘째 아들은 머슴으로 일 년인가 살았다. 딸은 몇 년 그 집에서 살다가 길러서 시집을 갔다. 그 양반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 하나를 잃었다. 아들이 아홉 살, 일학년 때였는데, 들에 나가는 나를 쫓아갔다가 논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 아들이 자식 중에서 제일 똑똑했다. 바깥양반이 죽어서 아들을 제 나이에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아홉 살에 보냈다. 봄이었는데 그날은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내가 밭에 강낭콩을 심는다고 지게에 쇠스랑을 지고 밭에 가는 데 아들이 따라왔다. 꿩이 있으니까 아들이 작대기를 주면 자기가 꿩을 쫓는다고 하면서 따라나섰다. 우리 아들이 글갱이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갔다가 동갑 친구가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 이 동네 아저씨가 날이 가물어서 논에 파놓은 우물이 있었다. 이 논 우물이 샘이 잘 나서 다른 데는 물이 안 나도 여기는 물이 찰찰 넘쳤다.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여기서 손을 씻고 또 내가 코 닦으라고 삔으로 꽂아준 가재 손수건을 빨아서 널고 하고 있었다. 이리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강낭콩 두 되 심고 집으로 왔는데, 아들이 올 때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불 때다 말고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오늘 오지 않았다고 했다. 오다 보니까 둑에 가재 손수건을 널어놓은 게 보였다. 여기다 손수건 두고 갔구나 하고 집에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서넛이 논 우물 있는 데 가서 아들을 쇠스랑으로 건져 놓았다. 그때 딸이 남의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와서 딸이 아들을 업고 집으로 왔다. 동네 사람들이 아들 몸을 덥힌다고 불을 때도 몸이 뻣뻣하고, 그렇게 갔다.

장사를 시작하다

우리 양반이 세상을 뜨고 나서 용골에서 술장사를 시작했다. 뱀골, 살치미, 구루물, 검덩굴, 진틀에서 안중으로 가려면 우리 집을 앞을 지나야 했다. 우리 양반이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술장사를 하라고 권했다. 술을 주전자에 담아서 팔았는데, 소주는 사다가도 팔고 막걸리는 집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

하루는 아는 사람이 영업자를 들여오자고 하니까 내가 영업자 부르면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부르냐고 걱정하니까 그 사람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영업자를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영업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주니까 영업자가 나보고 양푼을 하나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다 받은 술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부은 술을 다시 주전자에 담아서 파니까 곱이 남았다. 그러나 외상으로 술 먹고 떼어먹어서 얼마 남는 게 없었다. 우리 집이 벽돌집이라 겨울에는 뜨뜻하고 여름에는 시

원했다. 여기 사람들도 장에 오다가다 하나가 우리 집에서 물 먹고 앉았다 가고 했다.

이삼 년 술장사하다가 관두고 품을 팔러 다녔다.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들도 같이 일하고 여자 품삯을 받았다. 주로 했던 일을 밭 매고 씨앗 뿌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아들과 같이 품을 파니까 보리쌀이 모였다. 남의 집 농사일 품 파는 중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도 팔고 과일도 팔고 생선도 팔았다. 내가 십 리 안쪽은 다 다녔다. 처음에 했던 것은 떡장사였는데, 아침에 집에서 계피떡을 만들어서 이고 다녔다. 절구에 쌀을 빻아서 시루에다 쪄서 다시 절구에다 곱게 펴고 주물러서 떡을 만들었다. 하루 나가서 팔고 오면 하루 품삯이 떨어졌는데, 계피떡은 곱이 남았다. 내가 떡 팔러 다닐 때 우리 딸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때 우리 딸이 열한 살인가, 열두 살인가 먹었는데, 내가 떡을 팔러 나가면 쑥을 뜯어다가 삶아놓고 쌀은 절구에다 빻아놓고 했다. 내가 일을 나가면 술 갖다 놓고 자기가 죄 팔고 했다.

떡 팔러 다닐 때 우리 집 건넌방에 와서 사는 여자랑 같이 다닌 적도 있다. 그 집에 애가 셋이 있었는데, 형편이 우리 집보다도 더 어려웠다. 그이가 자기 집안네 있는 데로 같이 가자고 해서 나는 계피떡을 만들고 그이는 마른 새우를 이고 해서 갔다. 그때가 삼월이었다. 나는 계피덕을 가지고 가니까 아이들이 먹는다고 좋아했다. 한 집에서는 떡 한 되를 사주고, 한 집에서는 국수를 삶아주고, 한 집에서는 보리밥을 줬다. 그이가 남자만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지고 간 새우를 한 되 팔고 그러고 다시는 그 동네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그이랑 옛날얘기 하면서 아주 우스워 죽는다고 그랬다. 그이도 술장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다.

떡을 팔다가 나중에는 안중에서 과일도 떼다가 팔고 생선도 떼다가 팔았다. 과일은 주로 복숭아, 사과 같은 것을 팔았다. 과일 한 접 백 개를 이고 다니면 무거웠지만 돈 번다고 무거운지도 모르고 다녔다. 생선은 주로 동태, 오징어 같은 것이었다.

한번은 처녀 아이하고 나하고 성냥, 비누, 바늘 그런 잡화들을 가지고 전라도 신기에 팔러 간 적도 있었다. 그때가 구월이었다. 거기 다녀오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해는 다 지고 배를 못 탔다. 그래서 동네에서 자야 했는데 이 집에서도 안 재워주고 저 집에서도 안 재워줘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때는 스파이들이 온다고 남을 함부로 재워주지 않았다. 한 집에 가니까 저기 외딴 데 가면 아들은 군인 가고 며느리 혼자 자는 노인네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고 다시는 전라도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내려가서 물건을 팔면 곱이 남았다.

내가 이러저런 고생을 해봐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홀애비고 과부고 노인네고 재워주고 보리밥이라도 해먹였다. 우리 집이 방 두 개라 이런 사람들은 건넌방에 재웠다. 꿀장수, 체장수, 별 장사꾼들이 다 들어왔다. 한번은 당진에 사는 부부가 아이 하나를 업고 와서 보름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갔다. 남자는 체 미고 여자는 그걸 갖다 팔았다.

사십 넘어서는 외지로 작업하러 당진에도 가봤고 강원도에도 가보고 영광에도 가봤다. 알타리무 심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뽑는 일까지 다 해봤다. 다른 동네 반장이 차로 다니면서 사람을 모았다.

남의 집 품 팔고 장사하러 다니면서 집안 농사를 지었다. 남편이 이태 논 말가웃지기를 짓다가 죽었는데, 나는 논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다. 집터 준 아저씨가 못자리를 자기 논에 하라고 하면서 바람 불기 전에 볍씨를 쳐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볍씨를 치러 갔더니 용골 아저씨가 자기가 쳐준다고 해줬다. 못자리에 약을 주고 비료를 주니까 시커멓게

잘 자랐다. 그해 봄이 가물었지만 모내기를 할 때는 비가 많이 왔다.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나도 우리 아이들도 벼나 알지 피는 모르니까 벼 같은 거를 뽑았다가 말가웃지기에 가서 심었다. 그 이튿날 이상해서 동네 아저씨에게 모를 가지고 가서 물어보니 다 피라고 하는 했다. 우리가 벼랑 피를 다 뽑았다가 심은 것이었다. 그래서 심은 걸 죄 다 뽑아서 모만 심으려니 아홉 줌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모를 얻으려고 하니까 동네 아저씨가 우리 모가 남을 테니까 하루 와서 모 심어주면 남은 모를 다 준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 종일 그 집 모를 심고 남은 모를 받아 가지고 왔다. 그 이튿날 심으려고 했는데 무거워서 도랑 둑에다 재워놓고 왔는데 다음날 가보니 누가 홀랑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모를 심지 못하고 밭벼, 밭에 심은 찰벼, 메벼를 가져다 심었다. 구월 초나흘이 제사인데 밭벼 심은 것으로 송편을 하는데 멥쌀이 아니어서 떡을 하기는 아닌데 다 늘어졌다.

애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지게 짊어지고 장리쌀 얻고
정순택 (1936년생)

정순택씨는 충남 공주시 탄천면 출신이다. 친정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면장을 지내고 광산을 운영하는 등 유복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 6.25 무렵에 부모님 두 분 모두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친정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26세 때 현덕면 평창이씨와 혼인을 하였다. 시댁에서 2년가량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서정리와 부산에 나갔다가 다시 현덕으로 돌아왔다. 44세에 남편을 잃고 3남 1녀를 혼자 키웠다. 신학교에 들어간 남동생의 영향으로 결혼 전부터 감리교회를 다녔다. 현덕면 감리교회 개척 시기부터 관여했으며, 현재는 권사로 있다. 정순택 인터뷰는 2015년 가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출생 ~ 혼인 전

내 고향은 공주 탄천면 ○○리이다. 충청도는 공주 지방만 가도 연일정씨라 하면 최고로 알아줬다. 옛날에 산골이라고 해도 우리 집이 판서공하고 벼슬들을 해서 굉장했다.

아버지는 탄천면 이장을 이십 년 하셨다. 왜정 때는 서울에 집을 사놓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셨다. 우리 집은 옛날에 쌀 천 가마씩 농사짓는다고 해서 천석꾼이라고 했다. 일꾼을 네 명 두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 명은 집에서 살고 나머지 일꾼들은 다른 집에서 살았다. 다른 집에서 사는 일꾼들에게는 농사지으라고 논 열 마지기에 밭도 주고 집까지 주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 일꾼 새경을 주었고 일꾼 빨래도 해줬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일꾼들 빨래를 해주지 않아도 되었다. 일꾼들이 사는 집을 행랑이라고 했는데, 행랑 여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 제사 음식도 차리고 했다. 또 집에 어른 식모가 한 명 따로 있었고, 밥하는 여자애도 둘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아서 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목화도 한 천 평 재배했는데, 일 할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할 일이 없었다. 목화는 추석 전부터 따기 시작하는데, 목화를 따기 시작하면 친정어머니랑 행랑 여자들, 식모들 이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일을 했다. 우리 어머니가 유난 맞아서 딸들을 시집보낼 때 한 해 딴 목화로 이불을 해서 보냈지, 올해 딴 거 내년에 딴 거 후년에 딴 거 이렇게 모아서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우리 집은 옛날에 정씨네 재실로 지어서 엄청 컸다. 대청이 육 칸이고, 안방이 삼 칸이었다. 건넌방이 두 칸이고 그리도 작은방이 또 있었다. 방 뒤로는 툇마루가 다 붙어 있었다. 집이 대궐 같이 넓었다. 집에 연못도 있었는데, 논 너덧 마지기 될 정도로 넓었다. 연못 가운데 섬 같이 만들어놓고 미루나무 그런 걸 심었다. 봄에 연잎이 물 위에 뜨기 시작하면 냄새가 그렇게 좋았다. 내가 시집 온 다음에 오빠가 빚보증 서주고 재산이 다 절단 나서 서울로 이사 갔다.

형제는 오빠 하나에 언니가 셋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다. 친정어머니가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아서 사십 리 떨어진 절에 가서 삼신을 받아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절을 우리 동네 근처로 옮겨줬다. 그 절 이름이 미암사이다. 절 뒤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중 하나가 오막살이집을 짓고 사는데 바위에서 하루에 중 혼자 먹을 정도의 쌀이 나왔다고 한다. 쌀이 더 나오라고 중이 막대기

로 바위를 쑤셨더니 새 두 마리가 날아가더니 그다음부터는 쌀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절 이름이 미암사였다. 우리가 거기에서 빌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 면 사람들, 유지들이 그 절을 다 믿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빠를 낳았다. 우리 셋째 언니가 대전으로 시집을 갔는데, 외할아버지 성 한 자와 이름 한 자를 넣어서 그 언니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남동생을 본다고 했다고 한다. 외갓집은 용인이씨다. 남동생은 나 낳고 나서 논산 은진미륵 돌부처에 가서 빌어서 낳았다. 거기는 멀어서 직접 가지 못하고 돈을 잔뜩 갖다 주고 언제 축원해달라고 하고 돌에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

8.15 해방 전에 아버지가 광산을 하기 위해 강원도에 두 군데나 산을 사놓고 고향에도 하나 사놓으셨는데, 광산을 하면서 인부들 품이 안 나오니까 빚을 져서, 천석꾼 재산을 다 잃었다. 그때 면장하고 면서기들 열 명하고 열한 명이 형제를 삼았다. 그때는 유지들이 다 면에 다니고 그랬다. 한 사람이 “형님 내가 내 땅문서 다 줄 테니 다시 잽혀가지고 하라.”라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을 담보로 광산을 하는데, 송아지만한 금덩어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서 서울로 올라가셔서 적선동에다 집을 사놓고 작은 마나님을 두고 살았다. 친정어머니도 왜정 때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셨다. 시골에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서울 사람같이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가 작은마나님이 나가고 적선동 집을 팔고 충신동에 집을 사셨다. 그때가 해방 이후 일이다. 그러다 위장이 안 좋아서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 국회의원을 처음 뽑을 때 고향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국회의원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는 싫다, 내 몸도 그렇고 안 한다.”라고 하고 집에 내려오셨다.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변이 나서 병원을 못 가셔서 돌아가셨다. 그해에 어머니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쉰세 살이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가니까 여자가 마흔이 넘으면 피가 준다고 수술을 못 한다고 했다. 그렇게 두 분이 한 해에 돌아가셨다. 그때가 사변이 나던 해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다 흐지부지 날아갔다. 또 사변 전에 토지 분배를 했는데, 그 행랑 사람들 한 삼십 년씩 우리 행랑에서 살아서 토지 분배를 하니까 논 열 마지기씩 준 거랑 받하고 모두 그 사람들 땅이 됐다.

오빠는 왜정 때 용산중학교에 다녔다. 그때는 용산이 경기, 서울, 경복, 경동이랑 같이 서울 5대 중학교에 속했다. 그런데 사변이 나서 오빠가 중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집에 살림할 사람이 없어서 오빠가 일찍 결혼을 했다. 오빠 장인이 어디 취직시켜준다고 그때 돈으로 칠백만 원을 달라고 해서, 서울 충신동 집 팔고 소 팔고 또 밭 이천 평짜리 팔고 해서 칠백만 원을 장만했는데, 장인이 떼어먹어서 어디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빚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이 다 절단 나고 집도 헐었다.

큰언니는 왜정 때 서울로 시집가고 둘째 언니는 군산으로 시집을 갔다. 셋째 언니는 서울 숙명여고에 떨어져서 대전여고를 다녔고, 시집도 대전으로 갔다. 남동생은 신학을 했는데, 오빠가 머리가 좋아서 판사라도 할 줄 알았다고 야단을 해서 일반 대학 법과에 편입을 했다. 그런데 2차 시험을 보지 못해서 목회도 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이리저리 사업하다가 세상을 떴다.

나는 공주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6.25 사변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 다니지를 못했다. 내가 그 큰살림을 맡아서 행랑 사람들 데리고 일하고 일꾼들 일 시키고 그러다가 시집을 왔다. 우리가 올케를 잘못 얻어서 살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사람이 활달해야 발전성이 있고

그런데, 요령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다. 내가 넓은 바닥 청소 다 해주고 애기 똥걸레 다 빨아주고 해도 그걸 감당을 하지 못했다. 올케 친정어머니가 와보고 시누 시집가면 큰일 났다고 할 정도였다. 남동생이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도 자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혼인

스물여섯에 중매로 여기 평창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우리 집안 할머니 중에 남편이 유성면장을 지내는 분이 있었다. 그 어른이 우리 친정과 촌수가 멀어도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중매를 섰다.

교회 믿는 집으로 시집오려고 했는데 안 믿는 집이라고 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양반이라고 해서 여기로 시집을 왔다. 그때만 해도 양반 상놈을 굉장히 가렸다. 그렇게 근본을 가리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혼인하자고 해도 하지 못했다. 시댁이 양반이라고 속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도 얼마인지 모르고 왔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 신랑이 직업이 없었다. 친정에서는 나도 떵떵거리고 살던 집인데, 시집와서 고생을 무척 했다. 신랑은 칠 형제 중 셋째로, 쌍둥이였다. 칠 형제 중 시누이는 하나였다.

신랑은 평택중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6.25 사변 전에 두 달인가 임시선생을 하다가 사변이 터지고 대구로 남하해서 내려갔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본인 확인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근데 본인이 없으니까 합격취소가 되었다. 큰시아주버님은 안성에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집에 있다가 인천 교육청에 다니는 시당고모 시아주버니가 소개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댁에 돈이 있어서 시아버님이 어디 돈을 들여서라도 남편 취직을 시켰으면 했는데, 그런 머리를 쓰지 않으셨다.

대례는 친정집에서 지냈다. 충청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양반은 신랑신부 첫날밤을 친정에서 재워서 보냈지, 그날로 시집으로 보내지 않았다. 시집으로 올 때 오빠랑 남동생이랑 큰언니 아들이 같이 왔다. 그때 큰언니 아들이 서울 공대에 다니고 있었다.

조그만 트럭에 장롱, 이불 등을 싣고 왔다. 셋째니까 얼른 세간 날 줄 알았다. 이불은 솜이불로 세 채 해왔다. 목화솜도 집에서 다 장만했다. 재봉틀도 가지고 왔다. 장롱은 한 칸짜리로 해왔다. 장롱은 안중에서 샀다. 치마저고리 감은 셋째 언니하고 광장시장에 가서 떠왔다. 쌀 삼십 가마 가지고 가서 사 가지고 왔다. 진주 뉴똥으로 감을 떠서 치마저고리를 만들었다. 이불 겉감은 진주 뉴똥이랑 양단으로 두 개 했다. 그때는 최고로 한 것이었다. 버선도 몇 죽 하고 속옷, 팬티, 앞치마 안 해 온 게 없었다. 모시 적삼도 해 왔는데, 안 입게 되고 들에 가서 일하는데 모시 적삼이 필요가 없어서 밭 매러 온 노인네들 다 줘버렸다. 화장품도 일제 우데나 모나분 그런 것으로 해왔지, 시시하게 국산은 안 샀다. 고무신은 네 켤레 가져와서 시누이 하나 줬다.

시댁에서는 예단으로 친정에 치마저고리 감을 청색, 홍색으로 두 개 보냈다. 충청도 양반은 그렇게 했다. 수 치마저고리 분홍색 한 벌 감하고 양단 한 벌 감이었다. 중인들은 사주 보낼 때 사주 저고리 하고 그랬는데 충청도 양반들은 그런 것 없었다. 친정에서 시댁으로 따로 보내는 것은 없었다. 대신 잘 사는 집에서는 대례 때 신랑상과 시아버지상을 큰상으로 잘 차려서 대접했다. 교자상에 음식을 높이 괴어서 신랑과 신랑 아버지를 대접했다. 신랑상은 그 자리에서 풀어서 먹고 신랑 아버지상 음식은 신랑 집으로 보냈다.

결혼 생활

우리 친정이 두메산골이어서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면에 갈 수 있었는데, 시집에 오니까 여기가 더 촌이었다. 처음에 시집와서는 시부모님하고 이 년 정도 같이 살았다. 큰시아주버님은 서정리에 살고, 남편과 쌍둥이인 둘째는 여기서 한 해 같이 살다가 안중으로 나갔다. 넷째 시동생은 서울 경동학교를 나와서 군대 갔다 왔고, 다섯째 시동생은 연대 다니다가 군대 가고, 여섯째 시동생은 대동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었다. 막내 시동생은 안중중학교, 시누이는 안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시댁에 식구가 많아서 일이 많았다.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이 많아서 농사일은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 바지저고리 꿰매야지, 애들 키워야지, 부엌일 해야지, 집안일을 하다 보면 밤중이 되었다. 시댁에서는 남자 일꾼 한 명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일꾼은 이 동네 사람이었다.

시댁에 살다 보니 내 살림이 아니고 세간을 내준 것도 아니어서 돈이 궁했다.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고무신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와도 사달라고도 못하고, 애들 양말이나 옷도 사줄 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퉁퉁거리게 되었다. 우리 남편이 제일 착하고 자상하니까 시부모는 우리를 데리고 살려고 했지만, 기회가 되면 남편 직장을 구해서 나가 살려고 했다.

이 년 정도 시댁에서 살다가 남편이 서정리 미군 부대에 취직된다고 해서 서정리로 갔다가 취직도 못 하고 일 년을 놀다가 다시 들어와 살았다. 서정리에 살 때는 남편이 일이 없어서 시댁에서 갖다 주는 쌀로 살았다. 다시 남편이 부산에 미군 부대 사택 경비직으로 가게 되어서 부산으로 갔다가 신랑이 아파서 도로 올라왔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간이 안 좋았다. 부산에서 올라와서는 시댁에 근처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사주면 나가 산다고 하니, 시댁에서 용골에 집을 얻어주었다. 그래서 용골에 9년을 살았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별안간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자식은 사 남매로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다. 내 나이가 마흔넷이고 남편 나이가 마흔여덟이었다. 시어머니는 같이 살던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큰아들네로 갔다가 다시 딸네로 옮겼다. 서울에 아들이 여럿 사니까 아들 집으로 옮기며 살다가 여든여덟에 돌아가셨다.

용골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우리가 시형제들 농사까지 구천 평 농사를 지었다. 구천 평 농사를 지으려니까 품을 사서 일을 해야 했다. 우리는 시아버지한테 삼천 평 논을 받았는데, 여기 야산을 개발하면서 시아버지가 그 논을 도로 가져가고 우리는 산에 볕 안 드는 데 천 몇 마지기 받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애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 내가 지게 짊어지고 장리쌀 얻고 억척 맞게 일을 했다.

종교 생활

남동생이 신학대학교에 가면서 나도 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시집와서는 바로 교회에 다

니지는 못했다. 집안에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내가 투정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겼다.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제사는 남자들이 지내는 것이고, 얼마 없으면 세간을 나가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서정리에 살 때도 애들이 어려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 용골에 살면서 일 년에 한두 번 교회를 나갔다. 그때는 현덕에 감리교회가 없어서 안중 나사렛교회를 다녔다. 나사렛교회를 다니다가, 감리교 믿는 사람들하고 감리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현덕감리교회 개척 멤버고, 권사로 있다. 내가 일이 많아도 교회에서도 무섭게 일했다. 교회 새벽기도 가서도 교회 강대상 다 닦고 교회 빨래도 다 했다. 지금은 교회 나가다 겨울 빙판에 세 번 넘어져서 자주 못 가고 주일에만 가고 있다.

부녀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 여자들끼리 서로 사귀게 되고
윤봉열 (1937년생)

윤봉열씨는 경기도 장단군 대남면 출신이다. 일제 말기에 오빠의 징용을 피해 가족이 고향 마을을 떠나 인근 산속에 가서 살았으며, 해방 후 38선으로 남과 북이 나뉘게 되자 장단역 인근으로 옮겼다. 1.4 후퇴 때 남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발안수용소에서 일 년가량 살다가 인근 양감면에 정착하였다. 이후 현덕면 출신 전주이씨와 혼인한 후 시집 동네에서 평생을 살고 있다. 시집이 있는 동네는 아산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윤봉열씨 인터뷰는 2016년 여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혼인 전 겪었던 피난 생활이 인터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난을 나오면서 헤어진 친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윤봉열씨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농촌에서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 농가의 주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마을에 부녀회가 조직되고 나서 있었던 변화도 윤봉열씨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던 대목이다. 어린 시절에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 배우지 못한 것을 가장 한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

피난 생활

우리 친정은 양감 ○○리인데, 원 고향은 장단, 구장단이다. 장남군 대남면이라는 데서 살다가, 일본 정치 시절 내 나이 아홉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징용에 안 보낸다고 가족들이 산속으로 가서 숨어 살았다. 우리 어머니가 딸 삼 형제에 아들 하나, 이렇게 사 남매를 두셨다. 우리 조카딸들이 나보고 고모가 할머니 닮은 데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활달하고 좀 극성맞은 양반이었다. 아들을 징용에 안 보내려고 살던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려서 산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도 장단이라고 했다. 무섭게 생긴 산을 넘어서 굴바위라는 데에 가서 살았다. 하도 산골이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거기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해서 살았다.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계셨고 오빠는 결혼해서 조카딸이 있었다. 할머니랑 조카딸까지 해서 우리 식구가 모두 같이 살다가 거기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언니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일본 정치 때 징용으로 붙들려 갔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우리가 데리고 있었다. 8.15해방이 되고 그이가 나오니까 바로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1년 후에 38선이 갈라졌다. 그 후에 우리는 밤에 38선을 넘어서 장단역 있는 데로 나왔다. 거기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장만하고 도지로 밭을 얻어서 개성인삼을 심었다. 자기 땅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 언니는 시집을 가서 같이 오지 못했고, 38선을 넘어서 한 번 우리를 보러 왔다. 6.25가 나서 우리가 남으로 내려와서 언니랑 헤어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몇 년을 거기에서 살아도 언니를 보지 못했다. 우리 집 앞으로 신작로가 났는데 그 앞으로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 우리 언니 같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보지 못했다.

6.25가 났을 때 처음에는 피난을 오지 않았다. 피난이고 뭐고 나갈 사이가 없었다. 밭을 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북에서 쳐 나온다고 호미들을 들고 피난을 나오는 것을 봤다. 우리도 피난 가야지 하고 방에 들어가서 뭐 할 새도 없이 인민군들이 왔다. 그래서 피난을 가지 못해서 거기에

그냥 있었다. 우리 오빠가 또 의용군에 붙잡혀 가게 생겨서 우리 어머니가 오빠를 감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들 안에다가 이만한 구덩이를 파고 땅 위에다가 지붕을 하고 그 위에다가 호박 넝쿨을 씌워서 밭처럼 해놓고 우리 오빠를 거기 안에다 집어넣었다. 하나는 큰대문간에서 망을 보고 하나는 샛대문간에서 망을 보면서 한 명이 밥을 집어넣어 줬다. 그렇게 몇 달을 사니까 사람이 볕을 봐야 살지, 하얗게 세니까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오빠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뛰어나왔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극성맞은 사람인지 산에 가서 옻나무를 뚝 꺾어 가지고 오시더니 껍질을 벗겨서 옻진을 오빠 몸에 문질렀다. 그러니까 옻이 올라서 오빠 다리가 벌겋게 부었다. 인민군이 보고 병이 났다고 생각하고 오빠를 붙잡아 가지 못했다. 옻이 오른 데 약을 해도 잘 낫지 않아서 오빠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인민군이 물러가니까 우리 오빠가 나 이제 살겠다고 하고 일어났는데, 좀 살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나서 다시 피난을 내려갔다.

피난을 가기 위해 임진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넜다. 임진강은 밤에 건넜다. 임진강에 오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배를 타겠다고 바글바글 있었다. 강바닥이 뻘이어서 발목이 빠지면 자꾸 안에서 잡아당겨서 나오기가 힘들었다. 이 다리를 빼내면 다른 다리가 빠지고 해서 계속 빠졌다. 그러다가 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기도 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삿대로 사람을 건져서 건너가고 했다.

파주 문산에 가니 '깜댕이'가 바글바글했다. 거기에서 일 년을 살고 또 인민군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발안수용소에서 일 년을 살고 양감에서 개인 사랑방을 얻어서 몇 년 살았다. 문산에서 나올 때 아버지는 "나는 집을 지킬 테니 너희는 나갔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와라." 라고 하고 같이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나오고 비행기가 그 동네에 폭탄을 투하해서 집들이 다 탔다. 다행히 아버지는 무사하셔서 사랑방이 타지 않은 집에 계시다가 오빠가 돌아가서 모셔왔다. 발안수용소에서 살 때 오빠네는 딸을 한 명 더 낳아서 둘이 있었다.

발안수용소에서 일 년을 살았다. 수용소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수용소에서 조그마한 이불을 준 것 말고는 따로 배급 같은 것은 없었다. 이불밖에 받은 것이 없어서 바닥에 아무거나 가져다가 깔고 잤다. 먹을 거는 우리가 장만해서 싸 가지고 다니던 것을 먹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구워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고향 사람들이 같이 내려온 게 아니어서 의지할 데가 없었다.

우리 식구는 발안수용소에서 살다가 충청도, 경상도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길을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잘 곳을 찾아야 하는데, 다 피난민 천지라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신작로 옆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어디에 잠 잘 집이 있을지 물어보니까, 그 집 남자가 자기 집에 방은 없는데 외양간이 비니 거기에서 자라고 내주었다. 그래서 그 집 외양간에 들어가서 바닥에 아무거나 깔고 잤다. 그 집 남자가 와서 더 내려가 봐야 소용없다고 여기에 정착하라고 했다. 그이가 우리 오빠랑 얼추 또래여서 둘이 이야기를 하더니 거기에 정착하기로 했다. 안동네에 들어가서 큰 사랑방을 얻고 살고 아버지는 그 집 옆에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주무셨다. 그렇게 한 2년을 살았다. 그때는 세는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방을 빌려줬다. 우리가 방을 내준 안집 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러다가 양감 ○○리에 벽돌을 찍어서 조그맣게 집을 지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빠는 남의 일을 다녔고 어머니는 장사를 다니셨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

안에서 양념, 화장품 그런 물건들을 팔았다. 물건은 발안장에서 떼왔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몇 년을 다니셨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살림도 버리고 의복도 버리고 몸만 나와서 고생을 안 할 도리가 업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아프다. 그렇게 살다가 땅을 조금 사서 농사도 조금씩 짓고 살 수 있었다.

나는 집안일도 돕고 천 짜는 공장에서 1년 일을 했다. 신포에서 더 들어가면 독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있었다. 시골에서 회사를 하니 잘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어 더 다니지 못했다.

혼인과 결혼 생활

집안일을 돕다가 중매로 선을 보고 여기로 시집을 왔다. 다방에서 선을 봤는데 나는 우리 오빠하고 나가고 신랑은 시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시어른 한 분과 같이 왔다. 그렇게 한 번 남편 얼굴을 봤다. 우리 집에서 대례를 올리고 트럭을 타고 시댁으로 왔다.

시집이 30마지기 농사짓는 부잣집이라고 해서 여기로 왔다. 내가 여태까지 가난하게 컸으니까 부잣집에서 살아보자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말만 부자이지 사람 부자였다. 시부모님 두 분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모두 살아계셨고, 시동생이 5명, 시누이가 3명이었다. 시집을 왔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살다 보니 애가 생기고 그럭저럭 살게 되었다. 시동생 한 명은 서울 가서 살고 한 명은 평택에서 살고 둘은 이 동네에서 산다. 시동생들 세간 날 때 모두 집을 사줬다. 한 해에 시동생 두 명 집을 해주려고 하니까 논을 팔지 않으려고 돈을 얻어서 했다. 시누이들이 시집갈 때는 이불과 농 정도 해줬다.

시집와서 신혼부부는 안방을 쓰고 큰 사랑방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고, 작은 사랑방에는 시부모님이 사셨다. 안채 건넌방에는 시동생들이 살고, 다락에는 시누이들이 살았다. 부엌 위에 마루를 놓고 다락을 만들었다. 온돌이 안 되니까 다락이 추워서 여름에는 시누이가 거기 올라가서 잤지만, 겨울에는 안방에서 잤다. 아이들은 안방에 많이 데리고 있었다.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할머니가 작은 사랑을 쓰고 시부모님이 큰 사랑을 쓰게 되었는데, 할머니 혼자 자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 모시고 자기도 했다. 우리 할머니가 84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62살, 어머니는 93살에 돌아가셨다. 우리 시어머니가 8년을 들어앉아 있다가 돌아가셔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다.

방이 4개여서 나무를 많이 때야 했다. 가을이면 나무를 해서 말려서 묶어서 집에 쌓아뒀다. 우리 남편은 겨울에도 맨날 나무하러 다녔다. 집에 산이 있어서 나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다들 나무를 때니 겨울에는 시퍼런 청솔 개비를 해다가 밥을 했다.

시집에는 논 30마지기가 있었다가 하나 있는 산을 개간해서 2,000평을 더 마련했다. 시동생들 세간 날 때 그 땅을 조금씩 나눠줬다. 나는 집안일이 많아서 밭일을 하러 갈 새가 없었으나, 밭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같이 밭매는 일을 같이 하기도 했다. 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집에 식구가 많아서 집안일이 많았다. 우리 시할아버지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두루마기를 안 입으면 밖에를 나가시지 않으셨다. 네 분 어른들이 입는 옷을 손으로 바느질해야지, 빨래해서

입혀야지, 애들 옷 다 꿰매서 입혀야지, 시동생들 옷 빨아야지, 먹을 거 해야지, 이렇게 일이 많아서 집안에서도 어슬렁거리면 안 되고 매일 뛰어다녀야 했다.

내가 바느질 같은 것을 잘 했다. 시집에서 목화를 재배해서 틀어서 실도 빼고 솜으로 이부자리도 만들었다. 시집와서 몇 년 있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환갑이 되었는데, 시어른들이 옛날 광목으로 된 이불을 덮고 있었다. "애들이 많으니 오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시부모님 환갑 때 새 이불을 해드렸다. 솜을 틀려고 안중에 솜을 이고서 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바람에 솜 보따리가 날려서 갈 수가 없었다. 가사에 아는 집이 있어서 거기에 솜 보따리를 맡기고 집으로 도로 왔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다시 가서 솜을 틀고 이불을 만들었다. 좋은 것으로, 색깔 예쁜 것으로 해드리고 싶었으나 돈이 모자라서 남색 양단에 빨간 깃을 달아서 해드렸다. 원래 남색 이불은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 꺼림칙했지만 그냥 해드렸다. 남색 치마 해주면 남 된다고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 돈이 없으니까 "다 사신 노인네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불을 해드렸다. 자식이 수북이 있었는데 나만 그렇게 챙겨드렸다.

친정어머니는 양감에서 물레질도 하고, 무명도 짜고, 삼베도 짜고, 명주도 짰는데, 시집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고 솜 틀고 실 빼는 것만 했다. 시누이들이 시집갈 때 내가 이불까지 다 만들어줬다. 시누이들 이불 겉감은 뉴똥으로 했다.

시누이들 시동생들 시집 장가를 보내야 하다 보니, 까닥하면 내 새끼들 못 가르칠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기를 쓰고 살았다. 우리 아들 세 명을 가르치는데, 땅 하나도 팔지 않으려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 했다. 채소를 심어서 아산만에 가서 팔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맛도 잡고 했다. 아산만 생기고 사람들이 구경 오니까 거기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아산만 상가를 길게 지어놓은 곳 근방이 다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런 데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애들 공부시키고 살아야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집에서 심은 것들, 열무, 김치거리, 고추, 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팔았다. 아산만에 나가서 장사하는 일은 애들 장가보내놓고 나서 싹 끊었다. 돈이 떨어지면 온양으로 쌀도 이고 가서 팔았다. 아산만이 막히니까 차를 타고 온양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집간 막내 시누이가 언니가 극성맞다고 그랬다. 바다에 가서 맛도 잡았다. 백합은 어촌계에 들어가야 잡을 수 있었지만, 맛은 아무나 캘 수 있어서 이 근방 사람들, 안중 사람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맛을 잡았다. 맛은 도매상이 차를 가지고 와서 받아갔다.

마을 생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면에서 여자들 부녀회를 만들라고 가르쳐서 동네에 부녀회가 있었다. 부녀회장은 돌아가면서 했다. 그전에는 이 동네 최 서방네 여자들은 이 서방네 집에 안 오고, 이 서방네 여자들은 최 서방에 집에 다니지 않았다. 길에서 봐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다니고 그렇게 살았다. 부녀회를 조직하니까 이제 최 서방네, 이 서방네 가리지 않고 여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내가 부녀회장 할 때 회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 사랑방이 크니까 바깥 사랑방에서 회의를 했다. 사랑방에 여자들이 자글자글 끓고, 얘기하고, 놀고 해서, 우리 사랑방에서 회의를 하려면 나는 아주 바늘방석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방 밖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려면 빨리하

고 가지 뭐 저렇게 수다들이 많냐고 중얼중얼하는데,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그러저럭 회의를 했다. 또 부녀회가 장사를 해야 해서 집집마다 한 달씩 방을 빌려서 장사를 했다. 빈방에 물건을 놓아서 팔고, 부녀회장이 밤새 계산을 해서 인계를 했다.

부녀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 여자들이 서로 사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업반을 꾸려서 모내기를 하자고 하게 되었다. 나가서 일을 하면 허리는 아파 죽겠지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때는 재미있었다. 작업반에는 남자 여자 다 나갔다. 한 집에서 한 명이 나갈 수도 있고 두 명이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루에 한 집에서 두 명이 나가면 자기 집 일할 때 이틀 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나갔다. 품값은 따로 없었고 일한 일수대로 품으로 돌려받았다. 작업반장은 주로 남자가 했다. 기계로 모를 내기 전까지는 작업반으로 모내기를 했다.

나는 작업반 하면서 모내기를 처음 해봤다. 집안 시동생들이 형수 어디에서 모 심어봤냐고 물어봐서 “어디서 심어보긴 이 동네 와서 심어봤지.” 라고 대답하니까 형님보다 아주머니가 더 잘 심는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내가 꼼꼼하고 일이 잰 편이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여자들이 모판에서 모를 뽑는 일까지 같이 했다. 두 명이 한 모판에 들어가 모를 뽑는데, 모를 뽑다가 나가떨어지면 뒤처지기 쉬워서 부지런히 쫓아가야 했다. 모를 심을 때도 줄을 놓고 자기 자리에서 모를 심는데, 내가 뒤처지면 줄이 나가지 못하니까 내 앞을 잘 맞춰야 했다. 한번은 내가 못자리에서 모를 뽑는데 뱀이 달려 나온 일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뱀 목을 잡으니 뱀이 꼼짝을 못했다. 내가 그걸 보고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 던지니까 못자리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논둑으로 다 뛰어나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일을 못 하고 다 뛰어나왔으니까 나보고 오늘 품값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종일 놀렸다. 작업반으로 일을 하면 여럿이서 하니까 안 쳐지려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다.

작업반으로 일할 때 그날 일을 하는 집에서 식사를 냈다.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랑 곁참 두 번 해서 전부 다섯 번을 내야 해서 힘이 들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우리 아침 주는 것은 없애자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각자 아침을 먹고 나왔다. 아침을 안 줘도 되니까 훨씬 편했다.

내가 산 생각하면 기가 막혀 말도 잘 못 하겠고 이렇게 눈물이 나
홍정화 (1936년생)

홍정화씨는 평택시 청북면 출신이다. 부친이 살아계실 때는 동네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으나, 6.25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집안이 어려워졌다. 이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다, 23세에 현덕면 청주한씨와 혼인을 하였다. 47세에 남편을 잃고 오남매를 홀로 키웠다. 홍정화씨 인터뷰는 2015년 가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부유했던 유년 시절

청북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남양홍씨인데, 우리 동네에 우리 집, 큰집, 당숙네가 살았고 옆 동네에도 당숙네가 살았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아버지 형제였고 또 고모 세 분이 있었다. 나는 일남삼녀 중 둘째였다. 우리 엄마가 아들을 늦게 낳았다. 엄마가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이 없었다. 아들을 낳으려고 좋다는 데는 다 다니고 절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더러 "다른 여자를 봐서 아들을 낳으면 애만 데리고 와라, 그 사람 생전 먹을 거 해주고 아기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자식이 없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아들 없이 있다가 서울로 시집간 고모님이 "누가 어떤 약방에서 약을 지어다 먹고 아들을 낳았으니 너희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 약을 지어다가 한번 먹어봐라."라고 알려줘서 약을 열 첩을 지어다 먹었는데, 애기가 생겨서 한참 남은 약을 버렸다. 그렇게 해서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 나이가 사십쯤 되었을 때였다.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네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다. 집에 땅도 많았으며,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고, 식모도 있었다. 나는 집에서 먹는 참외나 심고 논에 올벼 심은 데에 새 쫓는 일 정도만 해봤지, 다른 농사일은 해보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올벼를 베고 털어서 방아를 찧으면 꾸어달라고 많이 왔다.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가난해서 쌀보리 풋보리를 베어다가 져서 널어서 말린 후 갈아서 죽을 쒀서 먹곤 했다. 옆집 마당에 쌀보리를 널어놓으면 동네 아이들이 몰래 그것을 비벼서 후후 불어서 먹고 그랬다.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쌀 한 됫박하고 보리쌀하고 바꿔먹자고 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는 호강으로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다정하셔서 서울 한번 가시면 애들 준다고 과자를 사서 오시고 했다. 그때 시골에서는 과자 구경하기 힘들었다.

아홉 살에 학교에 들어갔다. 이학년 이학기 때 8.15해방이 되었다. 그때는 여자아이들도 학교에 많이 다녔다. 나는 우리 언니하고 같이 입학시험을 보러 갔다. 왜정 때는 글씨 쓰는 저기로 시험을 보지 않고 "비행기 쁘로뻬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외이로 돌아가느냐 바로 돌아가느냐." 그런 걸 물어보았다. 우리 언니는 대답을 못 해서 떨어지고 나는 대답을 해서 붙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는 다음에 들어가도 되니까 언니 먼저 보내자고 해서 내가 한 해 늦게 학교에 가게 되었다.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엄마 혼자 되고 했어도 우리 엄마 속을 한 번도 썩힌 적이 없었다. “너 이년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이놈의 기집애, 저놈의 기집애”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엄마가 혼자 되시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욕을 하고 때리고 했다. 우리 여동생은 엄마가 혼을 내니까 도망가서 남의 집 굴뚝에 가서 숨어있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찾아다니다가 굴뚝에서 찾아서 데리고 오고 그랬다.

학생들이 많아서 일반 이반 삼반 사반까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연리로 학교를 쪼개 갔다. 그때는 아무리 적게 낳아도 애를 다섯은 낳았다. 학교 다닐 적에 내가 잘 뛰어서, 일학년부터 육학년 때까지 릴레이 선수로 뽑혀서 뛰었다. 한번은 평택 성동학교에 열네 학교가 다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데, 내가 이등으로 뛰었다. 나는 이등을 해서 서운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좋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내 다리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다. 그 이튿날 학생들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내가 깃발을 들고 가운데를 걸어 들어가는데 진짜 신이 났다. 나는 학교 다닐 적에 연필, 공책 안 샀다. 부자로 살아도 달리기를 잘해서 공책 타고 연필 타고 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장을 여러 해 봤다. 옛날에는 이장을 구장이라고 했다. 그때는 면축 군축들이 점심때만 되면 이장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갔다. 날마다 우리 엄마가 그 점심을 해댔다. 우리 아버지가 미신을 많이 믿어서 사 년마다 큰 굿을 했다. 피리 불고하는 큰 굿이었다. 가을에 굿을 하려고 날을 잡아놓았는데 군에서 와서 이 동네에 빨갱이 저기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집이냐고 알려달라고 하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들을 보고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청북도 아니고 평택으로 데리고 가서 가둬놓았다. 아버지가 구장이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빼줬다. 빼준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개를 잡아서 고아서 가져온다, 뭐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도 하나 받지 않았다. 누가 뭐 가져오는 것도 절대로 받지 않고 외려 우리가 이장 보면서 도움을 줬지, 누가 주는 거 받아 잡수지 않았다.

6.25와 아버지 사망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여기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강원도[경상도] 울진인가에 가서 우비 만드는 공장을 크게 짓고 이제 기계를 들여놓으려고 할 때였다. 가족도 모두 서울로 이사 가려고 했다. 그런데 6.25 난리가 났다. 그때 아버지는 서울에 있었고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집을 팔았으니까 우리 집이 아니었다. 난리가 나서 우리가 서울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살라고 해서 계속 있었다. 우리 둘째 외삼촌이 서울에서 철도국에 다녔는데, 그 외삼촌이 우리 아버지 보고 자기랑 같이 피난을 가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 혼자 살자고 피난을 가느냐고 집으로 내려오셨다.

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동네 빨갱이들이 저기 해 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와서 추녀 끝에다 총을 막 놓아서 추려 끝에 구멍이 펑펑 뚫렸다. 우리 엄마가 그것을 보고 까무러쳤다. 그때는 청년들이 많이 빨갱이 저기 했다. 우리 사촌오빠가 우리 아버지 오시는 걸 보고 다른 동네로 피난을 시켰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동네 친구네로 가서 대엿새 있었는데, 나는 죄도 없는데 왜 피난

을 가느냐며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돌아오셨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으셨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빨갱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갔다. 여름이니까 아버지는 반팔 난닝구 그걸 입고서 붙잡혀 갔다. 삼계리라는 동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셨다가 붙잡혀서 지서에서 문초를 받는데, 동네 빨갱이가 막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랬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붙잡혀 가셨을 때 장님 두 내외도 같이 붙잡혀 갔다. 남자가 장님이고 여자는 장님이 아니었다. 여자가 보니까 능안 동네 빨갱이가 거길 와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하면서 때려서 아버지 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고 터지고 그랬다고, 그이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들을 수가 없었다.

인제 국군들이 밀어가는데, 신포읍사무소에 어디 면장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아버지가 같이 붙들려 있었다. 그 사람은 매를 맞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매를 맞아서 꼼짝을 하지 못했다. 국군들이 오니까 빨갱이들이 아버지와 그 사람을 차에 태우다가 비행기가 뜨니까 자기들 숨는다고 정신없는 사이에 그 면장이 우리 아버지 보고 같이 도망가자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꼼짝을 못 하니까 나는 못 간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인제 치안들, 군인들이 와서 빨갱이들이 밀려가게 되니까 치안대들이 그 동네 빨갱이 네 사람을 붙잡아다가 우리 앞마당에 앉혀놓았다. 우리 큰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우리 동생 찾아내라, 없으면 나무라도 똑같이 깎아서 해놓기라도 해라."라고 하면서 패고, 치안대들도 막 팼다. 그렇게 패니까 한 사람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났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그 지랄을 했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었는데, 우리 엄마랑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약쑥 말려놓은 것을 비벼서 불에 태워서 그 "웬수 놈 새끼" 터진 머리에 발라줬다.

6.25 난리 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울진에 지은 공장이랑 서울 집을 찾지도 못하고 다 날렸다. 우리는 여자들이고 남동생은 네 살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나중에 남동생이 커서 알아봤는데 못 찾고 말았다. 남동생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다. 남동생이 다른 누나들한테는 가지 않고 나한테만 업어달라고 그랬다. 우리 외갓집이 어연리에 있었는데, 빨갱이들이 씨를 말린다고 했을 때 내가 남동생을 업고 어연리로 피난을 갔다. 거기 가서 내가 우렁이 잡아준다, 피래기 뽑아준다, 그러면서 논둑으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했는데, 사흘만 지나면 네 살밖에 먹지 않은 동생이 엄마 보고 싶다고 보챘다. 그러면 또 동생을 업고 집으로 있다가 다시 외갓집으로 가고 했다.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남은 논도 없게 되자 큰아버지가 서 마지기 논을 얻어주었다. 그런데 그 논이 갯고랑논, 개를 막아서 만든 깊은 논이어서 여자들끼리는 농사를 짓기 힘들었다. 엄마하고 나하고 언니하고 짓고 고모가 조금 거들어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 해 짓고 더 안 짓는다고 하고 말았다. 밭농사는 조금 지었다.

우리 집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큰아버지가 집 뒤에 직조공장을 지어서 기계를 사다가 앉혀놓고서는 나보고 지어먹고 살라고 해서 엄마는 밥을 하고 나는 조반부터 가서 천 짜는 일을 했다. 큰집과 우리 집이 앞뒷집이어서 집 옆에 이층 공장을 짓고 1층에 기계 여섯 대, 이층에 기계 두 대를 놓았다. 그중 하나는 인조 짜는 기계였고 나머지로는 소창을 짰다. 천 짜는 일은 나하고 처녀들이 했다. 총각 한 명은 있다가 중간에 나갔다. 남자 기술자도 한 명 있었는데, 도투마리 말아주는 일을 했다. 나는 하루에 천 두 필씩도 짰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일할 처녀들은 구하기 어려웠다. 처녀들이 일찍들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처녀들이 일하고 월급 받고 나도 같이 천을 짰다. 월급은 큰아버지가 줬다. 월급을 받은 돈으로 쌀을 팔아먹었다. 나는 열일곱 살부터 천 짜는 일을 시작해서 스물세 살까지 했다.

혼인과 결혼 생활

스물셋에 중매로 이 동네로 시집을 왔다.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여기 한씨네로 집을 왔는데 그이가 우리 신랑보고 색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내가 소창을 짜고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갔다.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창만 짰다. 알고 보니 그게 나를 보러 온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선을 보라고 해서 선을 봤는데, 신랑은 아랫목에 가 앉았고 나는 저 귀퉁이에 앉아서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촌으로 시집을 가면 일을 해야 하니까 나는 촌에 안 간다고 싫다고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데로 시집오지 않고 서울에서 살았을 텐데, 6.25 나서 친정이 어렵게 되니까 이런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다.

시월 열하룻날 친정에서 대례를 지내고 트럭을 타고 여기로 왔다. 큰아버지가 장롱 하나 이불장 하나 해주고 엄마가 이불 한 채 해주고, 옷 계절별로 갈아입을 것 정도 해서 왔다. 시댁에 드리는 선물 같은 것은 그때 없었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고 시누이가 둘 있었다. 맏이는 딸 하나 낳고 군대 갔다가 병이 나서 세상을 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큰동서에게 애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나가 살라고 하고 큰동서를 내보냈다. 시집와서 보니 조카딸이 세 살이었는데, 그 조카딸을 내가 키워서 시집보냈다. 창피스러운 소리이지만 신랑은 술을 좋아하고 일도 하지 않았다. 신문기자라고 하면서 밖으로만 돌아다녔다. 그래서 농사일이랑 집안일을 내가 혼자 다 했다.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에는 도와주기도 했는데, 시집을 가니까 내가 다 해야 했다. 농사짓고, 나무 해와서 때고, 지긋지긋하게 일을 했다. 하루에 지게로 나무 세 동씩 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아카시아나무 그런 거 잘라다 묶어다 놓고 그거 마르면 때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시아버지도 해수가 있어서 그 병으로 세상 뜨시고, 시어머니는 눈이 잘 안 보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구십까지 사시다가 닷샛 만에 세상 뜨셨다.

남편은 마흔일곱에 일찌감치 세상을 떴다. 아이들이 오남매 있었는데 다들 고등학교밖에 보내지 못했다. 지금은 다 시집장가보내고 나 혼자 산다. 아들들이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밥을 못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했다. 내가 산 생각하면 기가 막혀 말도

잘 못 하겠고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돼서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못 살았다. 자식들이 잘 해주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

처녀 적부터 맨드라미 심어서 시집와서도 그 씨앗 받아다 심었어
박순희 (1932년생)

박순희씨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출신이다. 22세에 현덕면 출신 함평이씨와 혼인하였다. 남편이 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자식들과 함께 부부가 이사 갔다가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귀향하였다. 남편과 사별한 박순희씨는 혼자 살고 있으며,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다. 박순희씨 인터뷰는 2018년 가을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박순희씨는 혼인 후의 생활보다는 어렸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고자 했고, 인터뷰 중간중간에 꽃 키우는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고자 했다.

출생 ~ 혼인 전

1932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에서 삼남사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에는 여러 성씨들이 거주하였지만 일가인 박씨들이 많이 살았다.

친정 동네에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다. 일꾼이 있었던 집도 여러 집 있었는데, 일꾼을 두 명 두었던 집도 있었다. 이웃집은 친정집과 팔촌 사이였는데,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이 일대의 웬만한 땅은 그 아저씨네 땅이라고 했다. 남사초등학교를 지을 때는 이 집에서 많은 돈을 냈다고 한다. 이 집에는 혼례 때 쓰는 사륜교[四人轎]나 한삼, 말 등 없는 게 없었다. 떡을 만들 때 필요한 안반과 떡메 등도 가지고 있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이 집 일꾼들이 떡메로 쳐서 인절미를 만들었다. 이 집에는 부엌일을 하는 식모도 있었다. 이 집 아들 중에는 학교 선생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남사초등학교 선생이었다. 우리 집은 한 섬지기(3,000평)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한 섬지기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산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열 살에 면접시험을 보고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넷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솜이 한 근 무거우냐? 쇠 한 근이 무거우냐?”라고 물어보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수가 똑같으면 똑같은 것이니 “같다.”라고 답해서 합격했다. 그때 쇠가 더 무겁다고 답한 두 명은 떨어졌다. 그 학교에는 한 학년에 칠 반까지 있었다. 그때는 “열여덟 먹은 애가 육학년이고 그랬고, 없는 애들은 그것도 못 댕기던 시절”이었다.

국민학교에서는 일본 글을 배우고 한글은 교육받지 못했다. 나는 가타카나까지 다 알았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한문도 많이 배워서, 티비에 나오는 한자를 내가 읽으면 우리 둘째가 엄마가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냐라며 좋아했다. 우리 집에서 학교에 가려면 큰 개울을 건너야 했다. 가마에 모래를 잔뜩 넣어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개울을 건너다녔다. 비가 많이 오면 개울을 건너는 것이 어려워서, 개울 건너편에서 북을 두드려서 학교에 오지 말라고 알렸다. 물이 많이 지면 징검다리가 다 쓸려 내려갔다. 그래서 장마 때는 학교를 며칠 못 가기도 했다. 물이 빠지면 징검다리를 다시 놓았다.

4학년에 되었을 때 해방이 되었다. “애들이 안 가니까 나도 따라서 안 가게 되어서” 학교를 더 다니지 않고 결혼 전까지 집에서 지냈다. 집에서 지내면서 한글을 배웠다. “공장이고 어디고

갈 줄 몰라서 집에 꼭 들어앉아 있다”가 시집을 왔다.

이때는 부모들이 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던 시절이었다. 한동네에 살아도 여자들은 집안 내가 아니면 얘기도 잘 하지 않았다. 결혼 전 딸들은 시장에도 못 가게 했다. 옷감을 떠오는 것도 아버지들이 떠왔다.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자들이 그네를 뛰면 남자들이 다 내다봤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밤에 나가 그네를 뛰기도 했다. 한번은 남자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네를 뛰는데, 나무꼭대기에서 웃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남자들이 꼭대기에 숨어있었다. 그래서 그네를 뛰던 여자들이 그넷줄을 놓고 다들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

아버지는 옛날 분이지만 ‘신식’이어서 배워야 산다고 딸이어도 학교에 보냈다. 한번은 옆집 며느리가 젓가락질을 했다고 야단맞았던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깨끗하고 좋지, 손가락으로 먹는 게 뭐가 좋냐고, 그걸 뭘 야단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신식인 분이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식사할 때 젓가락질을 못 하게 하고, 부엌에서 따로 먹었다. 어른들하고 있으면 밥상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먹었다. 이웃에 사는 부잣집이 팔촌이었는데 그 집에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이 공부를 잘 해서 도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남사학교 선생 중에 이북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공부도 잘 하고 오빠가 같은 학교 선생이어서 그 여동생과 혼인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집 아주머니가 “애를 어디에 시집 보내냐.”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그 여동생은 나중에 인천으로 시집을 갔다.

나는 바느질에 솜씨가 있었고 수도 잘 놓았다. 바느질은 동네에서 배웠고 수는 책을 보고 따라 하기도 했다. 재봉질도 처녀 때 익혔다. 광목으로 옷을 지으려면 광목이 바래야 한다. 원래 광목은 불그스름해서, 옷을 지으려면 여러 번 빨아서 삶고 말려 바래게 해야 했다. 여자들은 개울에서 광목을 빨고 가마때기에 넣어서 삶은 후 강변 자갈에다 널고 말렸다. 동네 강변은 다 자갈이라 광목을 널어서 말리기 좋았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육이오가 터졌다. 우리 집은 충청도 보령으로 피난을 갔다. 피난을 간 곳은 산으로 삥 둘러싸인 외떨어진 동네로, 논밭도 별로 없는 가난한 동네였다. 외딴 산골이어서 총소리 같은 것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밤이면 천지가 깜깜하고, 소나무에 바람 부는 소리가 아주 무서웠다. 그래서 밤에 변소를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집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딴 산골로 피난을 간 것은 아버지가 딸들을 걱정해서였다. 나는 그곳에서 물을 이는 일을 처음 해봤는데, 물을 이면 출렁출렁 물이 넘쳐서 옷이 앞뒤로 다 젖었다. 남사 집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전 물을 이어볼 일”이 없었다. 명일을 세고 열아홉 살에 용인으로 되돌아왔다. 집에 오니 앞마당에 짚을 땐 재가 한 무더기로 있었다. 다른 곳에서 이 동네로 피난을 와서 이 집에서 묵으면서 남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들으니 친구들은 어디 어디로 갔는데, “저녁이면 깜둥이들이 찾으러 와서 아궁지[아궁이]에도 들어가고” 하는 둥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았다. 사촌 큰집에 딸 형제가 있었는데 피난을 가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 집안 아주머니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버지는 “우리는 기집애들 땜에 산골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남의 집 사랑방에서 잤는데 군인과 피난민들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한방에서 묵어야 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들을 사이에 눕게 하고 어머니가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자지 않으면서 지켰다고 한다. 그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야

어머니가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다.

22세에 혼인을 하여 친정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 시집을 와서 보니 친정 동네가 시댁 동네보다 “깨인 곳” 이었다. 친정 동네에서는 학생들이 “빤스 입고 와이샤츠 입고 운동회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시누 운동회 하는데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친정 동네는 산이 높고 개울이 좋아서 종다리 소리도 좋았는데, 시집을 와서는 종다리 소리도 들을 수 없어서 그 소리가 많이 생각이 났다.

혼인과 결혼 생활

22세에 중매로 혼인하였다. 시댁은 현덕면 ○○리 함평이씨 집안이다. 남편은 나보다 두 살 더 많았다. 군대에 있던 남편은 휴가를 나와서 대례를 올리고 사흘 만에 다시 군대로 갔다. 혼인 전에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대례를 올리고 남편이 다시 군대로 가기 전에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서,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중매는 평택이 친정이었던 친언니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시댁은 논이 있어서 이 동네에서 부자라고 했다. 남편은 육남매 중 맏이였다. 용인에서 한참 떨어진 여기로 시집을 온 것은 친정과 가까운 데로 시집가기 싫어서였다.

대례는 섣달 그믐날 친정집에서 지냈다. 그때는 보통 신부집에서 대례를 올렸으며, 없는 집에서나 신랑집에 데려다가 대례를 지냈다. 신랑과 함께 신랑 친구들이 많이 왔다. 시아버지도 같이 왔던 것 같다.

대례를 올리고 그날 바로 트럭을 타고 신랑 동네로 왔다. 신랑과 함께 트럭 앞자리에 앉아서 왔다. 트럭 뒤에는 친정집에서 장만해준 장롱과 이불, 옷, 놋그릇 등 세간을 실었다. 신랑과 같이 왔던 친구들도 트럭을 쫓아왔다. 농과 놋그릇 등은 아버지가 안성에 가서 사 왔다. 친정 동네가 오산장에서 멀지 않아서 보통 때는 오산장을 주로 갔으나, 딸들을 시집보낼 때는 안성까지 가서 세간살이를 사 왔다. 농은 이층으로 된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자개를 박는다고 가져가서 지금은 집에 없다.

동네 앞까지 와서 트럭에서 내려서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들어갔다. 가마가 어디 것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친정 동네는 부자여서 가마를 가진 집이 여러 집 있었다. 그때만 해도 트럭을 타는 것보다 가마를 타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동네까지 다 와서 가마로 갈아타게 했다. 남편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시댁에서 혼자 살았다. 시댁에는 시부모 모두 살아계셨다. 남편은 2년 후에 제대했다.

근친은 일 년 만에 갔다. 신랑이 군대에 있어서 나 혼자 갔던 것 같다. 시댁으로 돌아올 때 친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서 보냈다. 친정집에도 가마솥이 있었지만, 큰집에 있는 큰 가마솥에서 쌀엿을 고아서 왔다. 쌀엿이 잘 고아졌는지 시댁 식구들이 입에 놓으면 설설 녹는다고 야단을 떨며 좋아했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쌀엿을 아주 좋아하셨다. 버선도 스무 켤레 장만해서 어린 시동생까지 줬다. 어린 시동생 몫으로 타래기버선[타래버선]까지 해오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다. 막내 시동생은 시집와서 다음 해인 7월에 태어났는데, 시어머니 나이가 마흔다섯이었다. 시집에 처

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다. 나는 어려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피우치에 사는 큰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야 알았다. 근친을 갈 때도 친정에 음식을 장만해 갔는데, 버선은 시댁에 드린 것만큼 많이 들고 가지는 않았다.

용인에서 시댁 동네로 트럭을 타고 오는데 안중까지는 큰길이었지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무가 빼곡하게 있는 산이었고, 차도 다니지 않았다. 시댁 동네로 와 보니 친정 동네가 더 깨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친정 동네가 산이 높다고 흉을 봤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친정 동네가 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는 바다로 막혀서 아산만이 막히기 전까지는 이 동네로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피난곶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처녀 시절에는 양 갈래로 땋은 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시집온다고 머리를 자르고 지져서 파마를 처음으로 했다. 그때 친정 동네에서는 시집가기 전에 파마를 많이 했다. 남사면에 미장원이 있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 새신부들이 모두 쪽을 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파마를 한 것을 보고 흉을 보기도 했다. 친정 동생들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노래를 부르면서 왔는데, 시동생이나 시누이들은 생전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모시는 시영어머니[단골 무당] 환갑 때 달떡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달떡이 뭔지도 모르고 달떡판을 가지고 있는 집도 없었다. 달떡은 멥쌀로 만든 메떡으로, 가운데 노랑, 파랑, 연두, 빨강, 검정 등 다섯 색으로 꽃 모양을 찍은 떡이다. 시영어머니가 달떡을 해오라고 하는데, 노인네들이 달떡이 뭔지 몰라 하자 내가 “여기는 달떡 판도 없나 봐요?” 하니까 시영어머니가 “거봐. 시영며느리는 달떡 알지.”라고 했다. 친정 옆집은 부자여서 큰일만 있으면 달떡을 해서 어려서부터 달떡을 많이 봤다. 달떡을 상에 올려놓으면 상이 환했다. 동네에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집도 없었다. 시집오고 나서 재봉틀을 샀는데, 이 동네에서 처음 장만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시집을 왔을 때는 시댁에 행랑채가 없었고 안채에 안방과 거른방[건넌방]만 있었다. 시아버지는 아들들과 안방을 썼고, 시어머니와 나는 시누이와 함께 거른방을 썼다. 삼 년 후에 행랑채를 지었다. 서울에서 자재를 사다가 잘 지은 집이었는데, 몇 년 후에 화재로 잃게 되었다. 행랑채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아이들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서 쓰고 있다. 집 안에 우물이 있어서 편했다. 이 동네에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은 두 집밖에 없었고, 다른 집들은 마을 가운데에 있는 우물을 떠다 먹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우물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여.”라는 소리를 하곤 했다.

행랑채를 지은 후에는 일꾼을 두기도 했다. 일꾼은 사랑방에서 잤다. 이 동네 일꾼들은 주로 충청도에서 왔으며, 총각이 대부분이었다. 일꾼들에게 밥을 해줘야 했지만, 특별히 상대할 일이 없어서 일꾼들 때문에 힘든 일은 없었다. 행랑채를 지은 후에는 집에서 소도 키웠다.

동네에서 시댁 집이 제일 커서, 보따리장사 같은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시댁 행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한 번은 애기 엄마가 보따리장사로 들어와서 재워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 무엇을 파는지는 모르지만 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여자였다. 우리 부부는 사랑방을 쓰고 있어서 재워줄 방이 없다고 했다. 애기 엄마가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주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기 엄마하고 목욕한다고 둘러대고, 애기 엄마를 깜깜한 우물에서 기다리게 하고 밥을 갖다 줬다. 애기 엄마가 종일 돌아다녔는데 저녁을 얻어먹지 못해

서 배가 많이 고팠는지 한 사발 수북이 밥을 갖다 주니 깜깜한 곳에서 잘 먹었다. 밥을 먹인 후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 집을 소개해주고 거기로 가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이가 다시 돌아와 재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랫목에서 자고 나는 그이와 함께 윗목에서 잤다. 날이 밝자 아침을 먹이고 보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시어머니도 그들을 자주 재워주었다.

남편은 제대 후 면사무소에서 일을 했다. 우리 부부는 이남일녀를 두었는데, 혼인 후 삼 년이 지나고 장남을 보았다. 나는 바느질을 잘 해서 시누이들이 시집갈 때 모시 적삼을 만들어 줬다. 처음 시집와서는 장을 보러 다니지 않았다. 장 보는 일은 시어머니가 했다. 처녀 적에 집에만 있고 돌아다니지 않아서 답답한 줄도 몰랐다.

서울 생활

면사무소에 다니던 남편이 서울 서대문구청으로 옮기게 되어서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 남편이 글씨도 잘 쓰고 일을 잘 본다고 해서 서울로 뽑혀간 것이었다. 그때 면사무소에서 두 명이 뽑혔는데 면장이 남편을 보낼지를 두고 고민을 할 정도로 남편이 일을 잘 보았다. 나는 시부모가 모두 살아계셨던 때라 서울로 가는 것이 싫었다. 맏며느리여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서울을 가기로 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에 처음 가서는 만리동에 살았다. 거기에서 삼 년 만에 집을 지어서 살았다. 아현동, 은평동에도 살았다. 우리 또래들은 대개 오남매, 육남매를 낳던 시절이었으나, 남편이 서울에서 공무원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다. 박정희가 산아제한한다고 해서 “수술이 한창 유행” 했다. 나중에 큰 집도 많고 애들도 별로 없는 동네로 이사 가서 삼층집을 짓고 살았다. 거기가 서초였다. 남편이 60세가 되어서 퇴직하고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 다시 내려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으나 남편이 농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품을 사서 지었다. 2016년에 남편이 죽고 혼자 살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서 사는데, 주말마다 내려와서 반찬 등을 해놓고 간다.

종교 생활

시집을 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시영어머니를 두고 있었다. 시영어머니는 무당으로 두 명이었데, 남편인 큰아들 시영어머니와 작은아들 시영어머니가 따로 있었다. 한 명은 가까운 동네에 살았고 한 명은 물 건너 아산에 살았다. 집에는 터줏가리와 대감도 모시고 있었다. 친정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셨다. 시어머니가 시영어머니 집에 갈 때 따라 다니지 않았다.

삼 년마다 가을 추수 후에 큰시영어머니가 집에 와서 경사굿을 했다. 시영어머니는 징 등 악기를 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다. 경사굿은 밤새 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굿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왔다. 경사굿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 나한테도 자꾸 춤을 추라고 시켰으나 죽어도 나가지 않았다. 경사굿을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시영어머니와 같이 온 사람들은 경사굿 삯으로 받은 쌀을 소에 싣고 갔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니 “절에 가든지, 어디다 시영을 걸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해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광덕절을 다니기 시작했다. “밤새 두들기고 하는 게 싫어서” 절을 택한 것이었다. 서울로 이사 간 뒤에는 진관사를 다녔다.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아무 데도 가지 않는데, 안 믿는 게 편한 것 같다.

꽃 키우기

어려서부터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분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안 좋아져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은 몇 개만 남겨 두었다. 서울에서 살 때도 삼층집 이층에 꽃밭을 만들었다.

시집을 와서 삼 년이 지나 행랑채를 지을 때 꽃밭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꽃을 키웠다. 친정에 갔다가 맨드라미 씨앗을 받아다가 시댁 꽃밭에 심었다. 시아버지가 들에 가시면 비료를 몰래 가져다가 꽃밭에 주곤 했다. 나중에 꽃밭 흙이 시커멓게 변하자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료를 훔쳐다 주면 흙색이 그렇게 변하냐고 나무라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없었다. 친정에서 가지고 온 맨드라미는 먹을 수 있는 종류였다. 빨강, 노랑 꽃잎을 송편에 붙이면 색이 예뻤다. 서울에 가서 살 때도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심었다. 다시 내려올 때도 씨앗을 가지고 왔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찾지 못하다 6년 만에 찾아서 심으려고 하니 씨앗이 묵어서 꽃이 피지 않았다.

꽃을 좋아해서 문에 창호지를 바를 때도 칸칸이 백일홍을 사이에 넣어서 발랐다. 창호지는 일년에 한 번씩을 새로 발라야 했다. 창호지에 붙인 꽃잎은 말라도 색깔이 남고 예뻤다.

평택지역 마을조사 및 아카이브구축 사업

마을은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상 존속되어온 공동체다.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은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다. 근대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는 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마을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사라지는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택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전통의 경관과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의 변형 왜곡도 심하고 전통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은 주민들이 흩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술, 각종 사료 및 유물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한다.

첫째, 지역사 이해에 가장 필요한 마을, 사라지는 마을을 우선 조사한다.
둘째, 조사를 할 때는 지역에 이해가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활용한다.
셋째, 조사연구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추진한다.
활용방안으로는 마을지 편찬, 문화축제, 마을역사만들기사업 등이다.

■ 주제 별 조사대상 마을

①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사라지는 마을(2014년~)
②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된 기지촌마을(2018년)
③ 전통의 읍치(邑治) 또는 지방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2019년)
④ 전통의 수로교통이나 어업과 관련된 포구마을
⑤ 해방 전후 간척지에 형성된 들판마을
⑥ 상업이 발달한 시장마을

■ 연도 별 조사 마을

2014년 포승읍 | 희곡리(3), 신영리(4)
이충동 | 동령마을
세교동 | 은실마을 등 9개마을

2015년 용이동(2), 소사동(3), 동삭동(3), 칠원동(3), 합정동(1배미)
안중읍 | 현화리(2)
현덕면 | 화양리(2), 운정리(3) 등 19개마을

2016년 현덕면 |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진위면 |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마을

2017년 현덕면 | 장수리(1)
포승읍 |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홍원리(7), 석정리(9-6) 등 27개마을

2018년 현덕면 |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마을
미군기지 관련마을 팽성읍 |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
서탄면 |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 구장터

2019년 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 원평동

2020년 송탄동 브레인시티 개발구역 | 도일동,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 모곡동

2021년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진위4산업단지)'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 |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2022년 진위면 | 은산리,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2023년 서탄면 |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회화리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마을기록사업 ⑩

서탄면(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회화리)

조사 · 집필진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양선아(전북대학교 쌀 · 삶 · 문명연구원)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진행 및 사진

최치선(평택문화원/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

*구술 중 일부 내용은 이 보고서에 다 수록하지 못했다. 원문은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마을 아카이브에 게제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제보자의 초상권, 개인신상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책에 실리는 것을 거부하였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수록하지 않았다.

평택마을기록사업 ⑩

서탄면(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회화리)

2023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27일
발행인	이보선(평택문화원장)
기획	오민영, 최치선
저자	김해규, 양선아, 장연환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인쇄	(주)이다
저작권자	평택문화원, 2023
ISBN	ISBN 978-89-93983-72-2 : 비매품/무료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